

전근대 수원 자료집(9)

문집 및 일반문헌(국역·원문)

2015. 3. 6

일러두기

1. 수록 지역

행정 구역상 현재의 수원은 역사 전통과 유리된 구획이기 때문에, 본 자료집에서는 수원의 역사 자료를 집성하기 위하여 ‘수원 문화권’ 개념을 설정하여 현 행정 구역상 화성, 오산, 남양 지역까지 포함하였다.

2. 자료의 범위

본 자료집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번역한 일반문헌 및 각종 문집에서 ‘수원 문화권’ 과 관련된 기사를 검색하여 주제별로 분류한 것이다. 고려말에서 조선시대까지 개인의 문집과 유서류 및 지리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2014년 12월까지 업데이트된 정보까지만 반영되어 있음을 밝힌다.

3. 수록 방식

- (1) 기사를 내용에 따라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다시 분류 안에서는 시간순서로 배열하였다.
- (2) 기사の内容을 요약하였다. 2줄 이내로 요약문을 달아 기사의 요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3) 주요 어휘와 구절에 밑줄을 긋고 굵게 표시하였다.
- (4) ‘수원 문화권’ 과의 관련성이 먼 내용은 생략한 뒤 ‘(…)’ 표시하였다.
- (5) 번역문과 원문을 함께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단, 해당 사이트에서 원문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는 번역문만 수록하였다.

4. 분류 방식

수집된 자료는 기왕의 연대기 자료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수원 문화권’의 특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으며, 기사 별로 요약문을 달아서 열람에 편의를 제공하였다.

○ 항목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세부내역
1	정치	왕실	국왕 종사 행행(능행·온행·강무) 의식 산릉·천릉

		행정	중앙행정 지방행정 인사(선발, 임면, 관리)
		사법	재판 행형 치안 정변·민란 파면
		군사	군정 중앙군 지방군 특수군 금화(禁火) 군역 병참(兵站) 통신(通信)[봉수] 관방 전쟁.
		인물	수원인, 수원부사(유사)
2	경제	재정	재정일반 전세 공물(貢物) 역(役) 진상 잡세 창고 국용(國用) 군자 상공(上供) 전매(專賣)
		상업	상업일반 상인 시장 상품 무역(貿易)
		교통	육운 수운 마정(목장) 역참 역원
		농수산업	○양전 경영형태 토지매매 권농 농사 ○농업기술 수리 개간 농작 ○임업 목축 양잠 면직 과수원에 특용작물 ○어업 염업
		광공업	○광산 채광 제련 ○관청수공 사영수공 농촌수공 장인 수공업품
		건설	건축 토목 보수
3	사회	가족	가족 친족 가산 성명 호구 호적
		신분	양반 중인 상민 신랑역천 천인 신분변동
		향촌	취락 지방자치 사회조직 장지(葬地)
		의식주	○관복 상복 예복 장신구 ○주부식 주류 기호식품 기명제물 ○가옥 가구 택지 주거
		윤리·풍속	강상 사회기강 예속 풍속 연회 구휼(진휼)
4	문화	사상	유학 불교 교육(서원·향교·과거) 토속신앙
		과학	자연재해(가뭄·홍수) 의학 약학 보건 수레
		지리·경관	산천 여정 역사지리
		예술	음악 미술 문학 서예
5	화성	성문	長安門, 八達門, 蒼龍門, 華西門, 華虹門
		시설	西將臺, 東將臺, 東北角樓(=訪花隨柳亭) 西南角樓(=華陽樓), 東北鋪樓(=角巾臺)
		행궁	○新豐樓(鎮南樓), 左翊門, 中陽門(重鑰門), 奉壽堂(壯南軒)○洛南軒[藏春閣], 得中亭[得閒門], 老來堂[難老門, 歌風門]○長樂堂, 景龍館[3판문 至樂門], 福內堂[동행각 維福門, 서별당의 九如門, 외행각 북쪽 求福門], 維與宅[초명 隱若軒, 拱晨樓, 附舍門. / 向春門(서), 延暉門·維與門(북), 嘉漁門·慶華門(남), 賓曦門(동)] 未老閑亭(일명六面亭). ○于華館(八達館), 講武堂(상량문), 華講館(동헌), 祝釐堂(내아) 臥護軒, 內鋪舍[미복원], 分奉常寺 ○華寧殿, 壯勇營(壯勇衛) 禦牧軒(영조글씨), 拱樓屢
		원행	○穩穩舍(과전) 萬安橋(안양), 彌勒峴(지지대고개, =遲遲峴, =沙斤峴), 遲遲臺, 槐木亭橋, 만석거, 芰荷洞, 大有坪, 觀吉野 ○梅橋(초명 梅山橋), 上柳川, 萬和峴, 建章洞, 眞木亭(橋), 下柳川, 皇橋, 甕峰, 大皇橋, 迢瞻峴, 安寧里, 迢觀橋, 만년제
		제언	祝萬堤(서호), 萬年堤, 萬石渠, 坤申堤 杵池(=方下池, 남곡면) 南池, 北池

목 차

I. 수원(水原) | 일반문헌

1. 정치(政治)	1
(1) 왕실	1
(2) 행정	14
(3) 사법	22
(4) 군사	28
(5) 인물	67
2. 경제(經濟)	87
(1) 재정	87
(2) 교통	106
(3) 농수산업	108
(4) 건설	110
3. 사회(社會)	112
(1) 가족	112
(2) 의식주	113
(3) 윤리·풍속	115
4. 문화(文化)	117
(1) 사상	117
(2) 과학	118
(3) 지리·경관	120
(4) 예술	133

II. 수원(水原) | 문집

1. 정치(政治)	135
(1) 왕실	135
(2) 행정	177
(3) 군사	189
(4) 인물	218
2. 경제(經濟)	271
(1) 재정	271
(2) 상업	277
(3) 농수산업	278
(4) 건설	285

3. 사회(社會)	298
(1) 향촌	298
(2) 의식주	309
(3) 윤리·풍속	310
4. 문화(文化)	311
(1) 사상	311
(2) 과학	334
(3) 지리·경관	335
(4) 예술	344

Ⅲ. 남양(南陽) | 일반문헌

1. 정치(政治)	388
(1) 행정	388
(2) 사법	390
(3) 군사	392
(4) 인물	410
2. 경제(經濟)	415
(1) 재정	415
(2) 상업	419
(3) 농수산업	420
(4) 광공업	421
3. 사회(社會)	427
(1) 신분	427
(2) 향촌	428
4. 문화(文化)	431
(1) 사상	431
(2) 과학	432
(3) 지리·경관	433
(4) 예술	447

Ⅳ. 남양(南陽) | 문집

1. 정치(政治)	449
(1) 왕실	449
(2) 사법	450
(3) 군사	451

2. 경제(經濟)	486
(1) 광공업	486
3. 사회(社會)	487
(1) 향촌	487
(2) 의식주	500
(3) 윤리·풍속	501
4. 문화(文化)	503
(1) 사상	503
(2) 지리·경관	505
(3) 예술	510

I. 수원(水原) | 일반문헌

1. 정치(政治)

(1) 왕실

정치/왕실

1794년(정조 18) 1월 정조가 현릉원에 제사를 지내고 화성의 성지를 살펴보았다는 내용.

○ 1월. 현릉원에 나아가 직접 제사지낸 다음에 화성(華城) 성지(城址)를 살펴보았다. 영종 추부사 채제공에게 이르기를,

“원소(園所)는 화산(花山)이고 이 고을은 유천(柳川)이다. 화인(華人)이 성인을 위해 축원한 뜻을 취하여 이 성을 화성이라고 이름지었는데, 화(華)와 화(花)의 글자 음이 서로 통한다. 화산의 뜻은 대개 800개의 봉우리가 이 한 산을 둘러싼 채 보호하는 것이 꽃송이와 같다고 해서 이른 것이다. 그렇다면 유천성(柳川城)의 형상을 남북이 조금 길게 만든다면 또한 버들잎과 같은 뜻이 될 것이다.”

하였다. 대가가 환궁하여 경모궁에 전배하였는데, 이튿날이 장헌세자의 탄신일이기 때문이었다. 상이 간절한 그리움으로 지나치게 슬퍼하였고, 그대로 재전(齋殿)에 머물렀다가 새벽이 되면 예를 행하려 하다가 자궁의 하교로 인해서 환궁하였다.

<국조보감(國朝寶鑑), 제74권 정조조 6, 18년(갑인, 1794)>

정치/왕실

1795년(정조 19) 윤2월 정조가 화성행궁의 장락궁에서 혜경궁에게 칠작례를 행하였고, 이튿날 신평루에서 사미 행사를 하였다는 내용.

○ 상이 자궁을 모시고 현릉원에 나아갔다. 화성(華城) 행궁(行宮)에 머물면서 자궁에게 음식상을 올리는 때에 칠작례(七爵禮)를 행하였다. 대신, 경재(卿宰), 종척(宗戚), 내외 명부(命婦)에게 명하여 들어와 참석하도록 하였다. 하교하기를,

“장락궁(長樂宮)에서 술잔을 받들어 올리고 낙남헌(洛南軒)에서 술자리를 마련하여 경건히 북두(北斗) 자루로 술을 따르고 남산(南山)처럼 장수하시기를 빌었다. 그리고 이튿날에는 또 너희 노인들을 섬돌과 뜰로 불러들였다.

아래에서 이미 화봉인(華封人)의 축원을 올렸는데 위에서 어찌 홍범구주(洪範九疇)의 선물을 아끼겠는가. 노인 영의정 홍낙성(洪樂性) 이하 70세 이상 및 61세가 된 사람에게 비단 한 필씩을 하사하고, 또 황색 명주를 주어 구장(鳩杖)에 매게 하라. 본 고을에서 연회에 참석한 사람은 한 자급을 가자하라.

한 고조(漢高祖)는 풍패(豐沛)에 대해서, 광무제(光武帝)는 남양(南陽)에 대해서 탕목읍(湯沐邑)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특별히 급복(給復)의 은전을 내렸었다. 이에 앞서 이미 급복한 이외에 원소(園所) 아래에 거주하는 백성에게는 특별히 2년을 더 급복하고, 성 안팎에 사는 백성에게는 1년을 더 급복하라.”

하였다. 이튿날 상이 신평루(新豐樓)에 나아가 사민(四民)에게 쌀을 나누어주고, 조금 떨어진 마을에는 승지를 파견하여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먹이게 하였다. 정리소(整理所)의 남은 돈 1만 민을 제주로 보내어 진흙 밀천에 보태게 하고, 또 1만 민으로 화성에 둔전(屯田)을 설치하였다. 또 2만 민을 여러 도에 나누어 보내어 곡식을 마련해서 환자곡으로 삼게

하고, 이를 정리곡(整理穀)이라고 이름하였다. 그 후 무오년에 전부 화성부로 옮겨 쌓은 다음 방출했다가 거두어들리게 하되 모곡(耗穀)은 영원히 없애도록 하였다. 하교하기를,
 “화성의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천년 만년 유구히 자전의 은혜와 자궁의 덕을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였다.

<국조보감(國朝寶鑑), 제74권 정조조 6, 19년(을묘, 1795)>

정치/왕실

1795년(정조 19) 윤2월 화성에 행차에 혜경궁이 타고 갈 가마를 정조가 손수 점검하였다는 내용.

○ 윤2월. 상이 장차 자궁을 모시고 현릉원에 행행하려 하였다. 태복시(太僕寺)가 자궁의 가교(駕橋)를 만들었는데, 편전(便殿)의 앞뜰로 가져오도록 명하여 수레의 덮개, 발, 휘장 등을 하나하나 직접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또 직접 가마 안으로 들어가서 간살이 넓은지, 구조가 편리한지를 시험해보았다.

<국조보감(國朝寶鑑), 제74권 정조조 6, 19년(을묘, 1795)>

정치/왕실

1798년(정조 22) 4월 능수의 벌레를 잡아서 구포 바닷가에 버리라고 명한 내용.

○ 4월. 하교하기를,

“벌레가 벼와 묘소의 나무를 해치고 있으니 어떻게 잡아 없애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주관(周官)》의 서씨(庶氏)와 전씨(剪氏)의 직책은 모두 이를 위해서 설치한 것이었다. 구덩이를 파고 태워서 묻는 것은 당(唐) 나라 때 요숭(姚崇)에게서 시작되어 역대가 이를 인습하였다. 근래에 원소(園所)와 능침의 뽕나무와 가래나무에 충해(蟲害)가 발생하여 잡아 없애게 하였으나, 나의 마음에 편안하지 않은 점이 있다. 이 벌레도 꿈틀거리는 생물(生物)인 이상 살려주는 덕을 그에 대해서도 아울러 행해야 하겠으니, 몰아서 늪으로 내쫓는 것이 불질러 태우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일찍이 듣건대, 벌레가 날아 바다로 들어가서 물고기와 새우가 되었다고 한다. 복파(伏波)가 무릉(武陵)을 다스릴 때의 분명한 징험이 지금까지 전해지니, 지금부터는 주위서 구포(鷗浦) 해구(海口)에 던지도록 하라. 여주(驪州)의 능수(陵樹)에도 충해가 있다고 하니, 화성(華城)의 예를 그대로 따라 강물에 던지도록 하라.”

하였다.

<국조보감(國朝寶鑑), 제75권 정조조 7, 22년(무오, 1798)>

정치/왕실

1800년(정조 24) 1월 정조가 현릉원에서 오열을 진정하지 못하였다는 내용.

○ 1월 현릉원에 나아가 직접 제사지내고 재실(齋室)에서 밤을 보냈다. 사원례(辭園禮)를 행하고는 상이 오열을 진정시키지 못하였으므로 대신과 각신이 번갈아 청하여서 재실로 돌아왔다. 상이 이르기를,

“이번의 경사스러운 예가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일인가. 일을 만나 사모의 정이 북받친 데다가 또 지극한 슬픔이 가슴속에 있으니, 장차 어떻게 차마 억제하겠는가.”

하였다. 약방 제조가 차를 들기를 청하였으나 상이 물리치고는 또 앞드려서 울었는데, 이러기를 몇 차례 반복하였다. 환궁할 때 상이 지은 시에,

새벽녘의 화성땅 돌아보면 멀고먼데 / 明發華城回首遠

지지대 주변에서 발걸음 또 더디어라 / 遲遲臺上又遲遲
하였다.

<국조보감(國朝寶鑑), 제75권 정조조7, 24년(경신, 1800)>

정치/왕실

1821년(순조 21) 6월 내탕고의 은 1만 냥을 내려 현릉원 천장 때처럼 백성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라는 순조의 하교.

○ 6월. 내탕고의 은 1만 냥을 내렸다. 하교하기를,

“기유년(1789, 정조 13)에 현릉원을 옮길 때 모든 공사 비용을 일체 내탕고의 저축분으로 내려주셨으니, 이는 선조의 무궁한 효성으로서 성의(聖意)를 붙인 것이기도 했었다. 이번의 천장하는 예는 일의 체모가 기유년과는 다르지만, 과거에 화성(華城)과 관련된 일로 조금이라도 백성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던 성상의 마음을 우러러 상상하면 계술(繼述)하는 도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국조보감(國朝寶鑑), 제79권 순조조 4, 21년(신사, 1821)>

정치/왕실

1828년(순조 28) 2월 순조가 건릉과 현릉원에 전알하고 돌아오는 길에 지지대에서 화성유수에게 정성을 다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

○ 2월. 자경전(慈慶殿)에 나아가 대전과 중궁전에 잔을 올렸다.

○ 대가(大駕)를 따라 건릉(健陵)과 현릉원(顯隆園)에 나아가 전알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지지대(遲遲臺)에 머물러 화성(華城) 유수 김유근(金迪根)을 불러보고 이르기를,

“화성은 그 중요함이 자별하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선조(先朝)의 정성과 노력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런데 근래에 오면서 모든 것이 점점 옛날 같지 않다. 경은 착실히 이를 가꾸고 보존하여 구석구석 정성을 다해서, 나무를 심은 것이 희소한 곳이 있으면 다시 추가하여 심도록 하라.”

하였다. 다시 영(令)하여, 나이가 70세 이상인 자와 39세 및 40세인 자에게 각각 쌀과 고기를 내렸다.

<국조보감(國朝寶鑑), 제81권 문조대리 1, 순종 28년(무자, 1828)>

정치/왕실

1836년(헌종 2) 3월 화령전에 대신 홍석주를 보내 작헌례를 섭행하였다는 내용.

○ 3월. 대신(大臣) 이상항(李相瓚)과 홍석주(洪奭周)를 원릉(元陵)과 화령전(華寧殿)에 보내어 작헌례(酌獻禮)를 섭행하게 하였다. 영묘(英廟)가 승하한 구갑(舊甲)이며, 정묘(正廟)가 등극한 주갑(周甲)이기 때문이다.

<국조보감(國朝寶鑑), 제83권 헌종조 1, 2년(병신, 1836)>

정치/왕실

1838년(헌종 4) 3월 을묘년 화성 행행을 앞두고 서유구가 정조를 만났을 때 주서백션을 읽고 있었던 일화를 소개하는 서유구의 진언.

○ 3월. 상이 진강을 행하였다. 각신 서유구(徐有集)가 아뢰기를,

“열성조께서 정사를 다스리는 대계(大計)는 전적으로 강연에 있었습니다. 특히 영조(英祖) 임금께서는 연로하여서도 오히려 아침·낮·저녁의 삼강(三講)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는 주장이 끝난 다음 대사성에게 명하여 성균관의 재임(齎任)들을 데리고 입시하여《중용(中庸)》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부제학과 대사성에게 명하여 서로 질문하고 반복하여 토론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훌륭한 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정묘(正廟) 신축년(1781, 정조 5)에는 이문원(摛文院)을 설치하고 경연의 신하들과 각신을 불러서 《근사록(近思錄)》을 강하였는데, 글의 뜻 이외에 정사의 대계와 여염의 질고를 숨김없이 모두 아뢰게 했으며, 날이 저물면 다시 홍문관에 들러 옥당의 신하들을 불러서《심경(心經)》을 강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루 사이에 두 차례나 강의한 내용이 모여 책을 이루자 이를 인쇄하여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한 문신 중에 연소한 자를 뽑아서 한 달에 두 번 강독과 제술을 하게 하여 강설한 내용을 편차(編次)한 것이 합하여 수십 권이나 되었습니다.

을묘년(1795, 정조 19)의 경례(慶禮) 때에는 화성(華城)에 행행(幸行)할 날을 겨우 며칠 앞두고, 신은 날이 저물 무렵에 명을 받고 편전에 입시하게 되었습니다. 막 편전의 뜰에 이르자 삼가 글을 읽으시는 옥음(玉音)을 듣고 향안(香案) 앞에 나아가 엎드렸는데, 읽으시는 책은 곧 《주서백선(朱書百選)》이었습니다. 이에 하교하시기를, ‘근일에 기무(機務)가 몹시 바빠진 하나 원래 정해 놓은 과정을 잠시라도 빠뜨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 잠시 난 틈을 타서 백 번의 수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순묘(純廟) 초년에 신은 여러 번 강연에 나아갔었는데, 그 당시 신하들이 진달한 바에 대해서는 비답을 내리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계해년(1803, 순조 3) 이후로는 매일같이 법강(法講)에 나아가시어 강설한 내용을 내각에 받들어 보관한 것이 합하여 12상자가 됩니다. 열성조께서는 이와 같이 부지런히 강학(講學)에 힘쓰셨던 것입니다. 옛말에 ‘요순을 본받고자 하거든 마땅히 조종(祖宗)을 본받으라.’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조종을 계승하는 도리는 강학을 제쳐놓고 어찌 다른 데서 구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니, 상이 가납하였다.

<국조보감(國朝寶鑑), 제84권 헌종조 2, 4년(무술, 1838)>

정치/왕실

헌종이 수원(水原)에 행행(幸行)할 때 용양봉저정에서 홍직필을 만나서 대화한 내용.

(…) ○ **상이 수원(水原)에 행행(幸行)했을 때** 경연관 홍직필(洪直弼)을 용양봉저정(龍驤鳳翥亭)에서 불러 보았다. 상이 이르기를, “성명(盛名)은 들은 지 오래나 만날 길이 없더니, 이제야 비로소 보게 되니 이 기쁘고 다행함을 무어라 형용할 길이 없다.”하니, 홍직필이 아뢰기를, “신은 본래 배운 것이 없어서 양대(仰對)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들은 바로는, 선철들이 논한 학문의 요결은 다만 거경(居敬)을 통해서 그 근본을 세우고 궁리(窮理)를 통해서 그 지식을 지극히 하며, 반성을 통해서 그 실재를 실천하는 세 가지일 뿐이었습니다. 주자(朱子)도 말하기를, ‘학문하는 도리는 독서와 궁리(窮理)에 우선하는 것이 없으며, 독서와 궁리에는 순서를 따라 정치함에 이르는 것보다 귀중한 것이 없다.’ 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함에 이르는 근본은 역시 거경(居敬)하면서 뜻을 견지하는 데 있으니, 이것이 곧 학문을 하는 절도입니다. 오늘날 당면한 하고 많은 일들 중에 학문의 탐구보다 급한 것이 없습니다. 성덕(聖德)의 성취와 국가의 안위가 모두 학문 탐구의 근만(勤慢)에 달려 있으니, 오직 전하께서는 힘쓰고 힘쓰소서.” 하였다. 상이 온화한 말로 타일러 강연에 나오게 했으나, 홍직필이 노병(老病)을 이유로 굳이 사양하였다.

<국조보감(國朝寶鑑), 제85권 헌종조 3, 9년(계묘, 1843)>

정치/왕실

1843년(헌종 3) 3월 일전에 화성에 행차할 때 경연관 홍직필을 불러 학문의 요도를 질문하듯 중단없이 공부에 전념하라는 권돈인의 진언.

○ 권돈인(權敦仁)이 아뢰기를,

“일전에 화성(華城)에 가행(駕幸)하시는 길에 경연관 홍직필(洪直弼)을 불러보셨는데, 이는 열성조 이래로 드물게 있었던 훌륭한 처사입니다. 신이 또 뒤에 경연에서 주고받으신 내용을 들어보니, 성상께서 먼저 학문의 요도(要道)에 대하여 물으시고 끝에 다시 경연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등 사교(辭敎)가 간절하고 지극하였다고 합니다. 전하께서 유학을 존중하고 도덕을 지향하시는 훌륭한 뜻을 누군들 공경하고 감탄하며 두손 모아 칭송하지 않겠습니까? 돌아오신 뒤에는 곧장 강대(講對)를 행하여 말을 들으면 즉시 행하고 어진이를 진정으로 좋아하시니, 어찌 더욱 성덕을 빛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경연관도 들으면 필시 자신의 말이 즉시 채택(採納)된 것에 대해 손뼉 치고 기뻐하며 다행으로 여길 것입니다. 이제부터 계속하여 굳게 성지(聖志)를 지키시고, 공부의 과정(過程)을 확실하게 세우셔서, 혹시라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뢰는 바를 보니, 경의 간절한 마음을 알겠다. 더욱 유념하겠다.” 하였다.

<국조보감(國朝寶鑑), 제85권 헌종조3, 9년(계묘, 1843)>

정치/왕실

1846년(헌종 12) 2월 헌종이 화성에 거둥하여 건릉과 현릉원에 제사를 지냈다는 내용.

○ 2월 화성(華城)에 거둥하여 건릉(健陵)과 현릉원(顯隆園)에 나아가 친히 제사를 올리고, 이어 화령전(華寧殿)에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채주 홍직필(洪直弼)과 경연관 성근묵(成近黻)이 지영(祇迎)하는 곳에 사관을 보내어 존문하였다. 경내의 조관(朝官)과 사서(士庶)로서 나이가 70세 이상인 자에게 쌀을 하사하였다. 교궁(校宮)에서 유생을 시취(試取)하고 동장대(東將臺)에 나아가 야간 훈련을 행하였다.

<국조보감(國朝寶鑑), 제86권 헌종조4, 12년(병오, 1846)>

정치/왕실

1852년(철종 3) 철종이 화성에 거둥하여 건릉과 현릉원에 제사를 지냈다는 내용.

○ 2월. 상이 화성(華城)에 거둥하여 건릉(健陵)과 현릉원(顯隆園)에 친히 제사하고, 경내의 유생과 무사에 대해 응제(應製)와 시예(試藝)를 치르도록 명하였다.

정경(正卿)을 보내어 율리사(闕里祠)에서 진작례(奠酌禮)를 행하고, 관원을 보내어 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의 사판(祠版)과 노강서원(鰲江書院)·충현서원(忠賢書院) 및 사충서원(四忠書院)에 치제하였으며, 사관을 보내어 경연과 홍직필(洪直弼)을 존문하였다.

<국조보감(國朝寶鑑), 제87권 철종조1, 3년(임자, 1852)>

정치/왕실

수원(水原) 화산(花山)의 옛터가 가장 길하다는 내용과 수원 동지에 하유한 내용.

(...) ○ 상은 처음 등극했을 때부터 영우원(永祐園)의 형국(形局)이 좁아서 길하지 않다고

여겼다. 그래서 일찍이 지사(地師)에게 분담시켜 여러 산을 두루 살펴보게 했었는데, 기해년에 잡았던 수원(水原) 화산(花山)의 옛터가 가장 길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금성위(錦城尉) 박명원(朴明源)이 상소하여 빨리 대례(大禮)를 거행하기를 청하였다. 상이 이에 대신 2품 이상을 불러 소를 보여주니, 모두 아뢰기를, “도위의 상소는 실로 종묘 사직의 무궁한 대계(大計)입니다.” 하였다. 상이 울면서 하교하기를, “산릉(山陵)의 이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야 내가 어찌 단정지어 말하겠는가마는, ‘이곳이 편안하고 저곳이 편안하다.’는 선유(先儒)의 말로 보면 이런 이치가 없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음양가(陰陽家)의 말만 믿고 경솔하게 묘소를 옮기는 것은 일반 백성이라도 안 될 일인데, 더구나 국가의 지극히 중대한 의식임에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나의 지극한 슬픔과 한이 일찍부터 가슴에 맺혀 있었으니, ‘흙이 시신에 닿는다[土親膚]’는 세 글자를 생각하게 되면 차라리 죽고만 싶다. 지금 다행히도 나의 뜻이 먼저 정해짐에 여러 신하들이 모두 동의하였다. 옮겨 봉안할 장소를 구하고자 하면 수원의 화산보다 나은 곳이 없으니, 신해년의 의궤(儀軌) 및 고인의 문자에 이미 정론(定論)이 있었다. 수원의 한 구역을 하늘이 아끼고 땅이 숨기면서 오늘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어찌 사람의 힘으로 미칠 수 있는 것이겠는가.” 하였다. (…)

○ 수원·시흥(始興)·과천(果川) 백성들에게 하유하기를, “이 고을은 바로 나의 조상이 묻혀 있는 곳이고, 너희들은 이 고을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을 한집 식구처럼 보고 있으니, 먹을 것이 풍족하고 생활이 넉넉하게 해주어 삶을 편안하게 여기고 생업을 즐거워하도록 해야만 나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되고 나의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이다. 보통 때 행차가 지나는 곳에도 은택을 베푸는 법인데 더구나 이 고을 이 백성들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너희들은 어루만지는 나의 고심을 알아서 너희들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함께 원침(園寢)을 보호하도록 하라.” 하고, 이어 명하기를, “수원 전체 고을에 대해 1년간 급복(給復)하고 묵은 환자곡의 상황을 탕감하라. 원소 부근의 면리(面里)와 거주지를 옮긴 백성들에 대해서는 10년간 급복하고 새 환자곡의 상황을 탕감하라. 수원과 과천의 부로(父老) 가운데 온천에 행행하는 행차를 두 번 본 자로서 70세 이상의 조관(朝官)과 80세 이상의 사서인을 가자 하라. 두 해에 걸쳐 어가가 지나간 연로의 민호에 대해서는 1년간 급복하라.” 하였다.

<국조보감(國朝寶鑑), 제73권 정조조 5, 13년(기유, 1789)>

정치/왕실

정조의 건릉(健陵)을 수원에 조성했다는 내용.

정조 경천명도 홍덕현모 문성무열 성인장효 선황제(正祖敬天明道洪德顯謨文成武烈聖仁莊孝宣皇帝) 휘는 성(祘)이요 자는 형운(亨運)이다. 임신년(1752, 영조 28) 9월 22일(기묘)에 창경궁의 경춘전(景春殿)에서 탄생하고, 24년간 재위하였으며, 경신년(1800) 6월 28일(기묘)에 승하하였다. 수는 49세였고, 건릉(健陵)【수원(水原)에 있음】에 장례지냈다.

<국조보감(國朝寶鑑), 제69권 정조조 1>

정치/왕실

윤선도가 효종의 능침 선정 과정에서 수원부(水原府)가 최고의 길지라고 주장했다는 내용.

(…) ○ 10월. 효종대왕을 영릉(寧陵)에 장례하였다. 그 전에 윤선도(尹善道)가, 수원부(水原府) 자리가 내룡[龍]으로 해서도 최상이요, 풍수(風水)로서도 대단히 큰 천재일우의 자리라고 하여 새 능을 수원에다 모시기로 결정하고 이미 석물 일까지 시작했는데, 이경석(李景奭)·이시백(李時白)·원두표(元斗杓)·이후원(李厚源)·이해(李澥)·송시열(宋時烈)·송준

길(宋浚吉) 등 모두가, 수원은 바로 경기의 관문이요 요충지인데다 고을과 마을을 옮겨야 하는 폐단이 있고 또 장래 오환(五患)의 염려도 있는 곳인 반면 건원릉(健元陵) 원편 산등성이 건좌(乾坐)는 바로 태조(太祖)가 신승(神僧)인 무학(無學)과 함께 직접 정한 자리로서 명(明) 나라 만세산(萬歲山)처럼 꾸미려고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바닥이 우선 너무 좋고 일하기에도 편리하다고 하면서 혹은 차차 혹은 상소로 계속 쟁집하였다. 그리하여 상이 드디어 경석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건원릉 원편 산등성이에다 새 능자리를 정했던 것이다. (…)

○ 12월. 좌참찬 송시열이 소를 올리고 시골로 돌아갔다. 상소를 올려 아뢰기를, “금년 5월 5일 중사(中使)가 대내의 뜻으로 유지를 전해 오기를, 날씨가 너무 더워 뜻밖의 일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오늘 중으로 소렴(小殮)을 했으면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신이 대답하기를, ‘예가 원래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궁(梓宮)이 여유가 있어 다른 염려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했었고 6일에 소렴이 끝나갈 무렵 신이 또 예서(禮書)의 소렴조(小殮條)에 ‘시신을 묶을 때 완전히 묶어버리지 않고 얼굴도 가리지 않는다. 그 이유는 효자로서 자기 아버지가 혹시라도 다시 소생할까를 기다리는 뜻이고 또 때로 그 얼굴을 더 보고 싶어 서인 것이다.’ 한 예문이 있으므로 마땅히 그 예문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곡반(哭班)에 나가자마자 대신 이하 모두가 결국 대내의 유지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다 바꿔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행하게도 일이 처음 마음먹었던 바와 달리 되고 말았는데 그것이 사람이 잘못해서 그리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결국 재궁을 판자 둘을 붙여 다시 짜야 하게까지 되었던바 그 일로 조야(朝野)가 발각 뒤집혀 그 잘못을 모두 신에게로 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산릉 자리도 그것을 정할 때 못 사람들은 모두 수원(水原)이 천재일우의 길지라고 했었는데 신이 감히 이론을 제기하여 이미 정해진 일을 흐트러놓았다고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야단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상께서 편찮으셨을 때도 감히 못 사람들의 주장을 어기고, 태의(太醫)는 당연히 죽을 죄를 진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그 사람을 시켜 약을 써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그 후 그가 쓴 약으로 하여 시원한 효과를 보셨기 때문에 논자들은 신더러 군부(君父)의 병을 대수롭잖게 여긴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씩이나 큰 죄를 짓고서 지금까지 목숨이 붙어 있는 것만도 요행인데 더구나 공론을 무시한 채 직명을 띠고 그대로 버젓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였다.

<국조보감(國朝寶鑑), 제39권 현종조 1, 즉위년(기해, 1659)>

정치/왕실

1170년 수주(水州) 백성이 밭을 갈다가 금 한 덩이를 얻었다.

○ 황문장(黃文莊)을 국자 박사(國子博士)로 삼았다. 그때 군신(羣臣)이 자기가 본 물건들을 가지고 상서라고 하였다. 쑥대 세 줄기가 연복정에 났는데 그것을 서초(瑞草)라고 하였으며, 내시 황문장이 물새를 보고 그것을 가리켜 현학(玄鶴)이라 하고 시를 지어 찬미하였다. 왕이 칭찬하고 감탄하여 시에 화답하고 그를 국자 박사에게 제배했다. 후에 수주(水州)[지금의 수원(水原)] 백성이 밭을 갈다가 금 한 덩이를 얻었는데, 그 형상이 거북 같았다. 지주사(知州事) 오녹지(吳錄之)가 이를 가져다 바쳤는데, 측근들이 만세를 부르며 말하기를, “하늘이 금거북을 내렸으니, 성덕(聖德)에 응한 것입니다.” 하니, 군신들이 모두 하례하였다. 대소신공(臣工)이 오직 아첨할 생각만 하였고, 왕은 자신을 성군으로 여기는 것이 더욱 심해졌다.

안정복(安鼎福), <동사강목(東史綱目), 제9상, 경인년 의종 24년>

정치/왕실

사직의 위판을 보수하는데 수원의 위판을 비교하였다는 내용.

(…) 4월 2일에 수리도감(修理都監)이 아뢰기를, “사직의 위판 4위를 지금 바야흐로 개조하고 있는데 치수를 예조에 물어보니, 회보(回報)에 ‘「길이와 너비의 치수가 《오례의》에 실려 있지 않아 본조도 상고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 감사에게 이문(移文)하여, 도내(道內)의 큰 고을에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위판에 대한 견양도(見樣圖)를 보내 달라고 하였습니다. 수원(水原)에 있는 위판 및 부방의 견양이 도착하여 시민당(時敏堂)에 봉안되어 있는 위판의 견양과 비교해 보니 국사(國社)와 국직(國稷)의 위판이 조금 길고 조금 넓었습니다. 이번엔 개조하는 부방도 수원의 견양보다 조금 길고 조금 넓은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입계한 데 대해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여 계하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문하였습니다. 국사와 국직의 위판은 길이가 2자(尺) 2치(寸) 5푼(分), 너비가 4치 6푼, 두께가 9푼이고, 수원의 위판 견양은 길이가 1자 8치 7푼, 너비가 4치, 두께가 7푼이니 조금 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국사와 국직의 위판 하단에는 부방에 들어갔던 4치 6푼의 자국이 있으니, 부방의 높이는 응당 4치 6푼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원의 위판 부방은 높이가 단지 1치 7푼이니 그 높이가 이처럼 같지 않으면 그 길이와 너비 또한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예조로 하여금 다시 상의하여 분명하게 결정하여 새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사직서의궤(社稷署儀軌), 제3권 고사 상(故事上), 난리를 겪은〔經亂〕사실(事實)>

정치/왕실

윤선도가 수원부(水原府)가 능자리를 잡을 만하다고 극력 주장하였다는 내용.

기해년(1659) 10월 영릉에 장사 지냈는데, 능은 건원릉(健元陵) 오른쪽 산등성에 있다. 능호(陵號)는 처음 ‘익(翼)’ 자로 정할 것을 수의하여 아뢰었으나 임금의 전교로 개정되었다.

○ 이전에 윤선도가 풍수의 방술로서 수원부(水原府) 청사(廳舍) 뒷 산등성이가 능자리를 잡을 만하다고 극력 주장하니, 모든 지관(地官)이 전혀 이의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그 말을 받아들이자 대신과 중신(重臣)과 삼사에서 서로 잇달아 소를 올려, “오환을 범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큰 진영을 철거하는 것은 가장 불가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 임금이 이러한 소는 받아 올리지 말라고 전교하였다. 이에 이시백이 차자를 올려 극력 반대하기를, “수원은 지세가 평탄하고 넓으며, 농토가 비옥하여 실로 3도로 왕래하는 요충에 해당되며, 사방으로 통한 곳이므로 선유들이 논한 ‘오환’ 이 이보다 더 심한 곳이 없습니다.” 하고, 이어서 영릉(英陵) 옆 홍제동(弘濟洞)이 쓸 만하다고 논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홍제동에 과연 대단히 특이한 상서가 있다면, 영릉을 모신 지 200년 후인 지금까지 모신 여러 능보다 홍제동이 배나 낫단 말인가. 또 이곳은 길이 멀어서 자식의 인정상 쓸 수 없다.” 하였다. 그때 임금이 수원으로 굳게 정하고 일을 이미 시작하니, 도성 안팎에서 답답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에 시백이 다섯 번이나 차자를 올려 극론하였고, 여러 신하가 역시 극력 반대하니 임금이 깨달아 능자리를 다시 건원릉 내에 잡았다. 【〈연양(延陽) 시장〉】

이공익(李肯翊),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제28권 효종조 고사본말(孝宗朝故事本末), 영릉(寧陵)【영릉을 이장한 것은 현종조에 들어 있다.】>

정치/왕실

영릉을 당초에 수원(水原)에 모시자는 말이 한두 사람의 입에서 나왔었다는 내용.

(…) 새 능이 과연 길하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소. 당초에 수원(水原)에 모시자는 말이 한두 사람의 입에서 나왔었는데 지금 와서는 모두들 잘못을 나에게 돌려서, ‘만일 그때 수원에 모셨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고 하오. 이 일이 과연 산지를 잘못 정한 소치라면, 내 마땅히 만 번 죽음을 당하더라도 달게 여기겠소. 당초에 나는 진실로 수원을 그르다고도 하지 않았으며, 또 영릉(寧陵)이 길하다고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내가 풍수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이었소. 다만 홍제동에 사는 오자길(吳自吉)에게서 ‘영릉은 성인의 장사를 모실 곳이다.’ 는 말을 자주 들었었고, 또 상서로운 자색 기운이 항상 그 위에 나타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일찍이 힘써 어전에서 말씀드려, 허가를 얻었던 것이요. 그러나 오늘의 사세로 보면 마땅히 수원에 모셨어야 했을 것이요. 지금 영릉을 좋지 못한 땅이라고 하여 고쳐 장사하려고 한다면 누가 감히 반대하겠소. 또한 주자(朱子)의 말과 같이 능을 택하는 데에는 거리가 멀고 가까운 것을 가릴 것이 아니며, 다만 서울 가까운 곳에서만 구차히 일을 끝내고자 할 일이 아닌 것 같소. 당초에 임금께서는, 홍제동은 멀어서 좋지 않다 하셨는데 가까운 영릉도 성묘하지 않으면서 어찌 홍제동이 멀다고 탓하겠소.” 하였다. (…)

이공익(李肯翊),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제31권 현종조 고사본말(顯宗朝故事本末), 영릉(寧陵)을 옮겨 모실 때의 일들>

정치/왕실

사도세자가 평소 군복을 좋아해서 정조도 수원에 행행할 때 위내가 모두 군복을 입었다는 내용.

현릉원(顯隆園, 사도세자)은 평소 군복을 좋아하였다. 그리하여 정묘(正廟)가 수원(水原)에 행행(幸行)할 때면 위내(衛內)가 모두 군복을 입었다. 뒤에 어진(御眞)을 그릴 때에도 군복 입은 모습을 하나 그려서 화령전(華寧殿)에 봉안하였다. 또 현릉원의 화령전에 친제(親祭)할 때에 수복(守僕)에게 명하여 군복을 입고서 거행하도록 하였으며, 익종(翼宗)과 헌종(憲宗) 두 임금의 어진도 군복 차림을 그린 것이 있다. 철묘(哲廟)도 군복 차림으로 그렸으나 오직 순조(純祖)는 이러한 어진이 없다.

이유원(李裕元), <임하필기(林下筆記), 제27권 춘명일사(春明逸史), 현릉원(顯隆園)에 친제(親祭)할 때 수복(守僕)들이 군복(軍服) 차림으로 거행한 일>

정치/왕실

수원의 화령전(華寧殿)에 정조의 어진이 봉안되었다는 내용.

영희전(永禧殿)은 경도(京都)에 있으니 태조와 세조의 어진을 처음 봉안하였고, 인조 정축년(1637)에 원종(元宗)의 어진을 이어 봉안하였으며, 뒤에 숙종과 영종과 순조의 어진을 봉안하였다. 조경묘(肇慶廟)는 전주부(全州府)에 있는데 시조(始祖) 양위(兩位)의 신판(神版)을 봉안하였고, 영흥(永興)과 함흥(咸興) 두 부(府)의 본궁(本宮)에는 네 분 왕과 태조의 신위(神位)를 봉안하였다. 준원전(濬源殿)은 영흥부에 있으며 태조의 어진을 봉안하였고, 경기전(慶基殿)은 전주부에 있으며 태조의 어진을 봉안하였고, 장녕전(長寧殿)은 강화부(江華府)에 있으며 숙종과 영종의 어진을 봉안하였는데 금상(今上) 병인년에 영희전으로 옮겨 봉안하였다. 화령전(華寧殿)은 수원부(水原府)에 있으며 정종의 어진을 봉안하였다.

이유원(李裕元), <임하필기(林下筆記), 제30권 춘명일사(春明逸史), 묘(廟), 전(殿), 궁(宮)에

대한 고찰>

정치/왕실

1789년(정조 13) 영우원을 옮겨 수원(水原)의 현릉원(顯隆園)으로 이장한 내력을 정리한 내용.

정종(正宗) 13년(1789)에 영우원을 옮겨 수원(水原)의 현릉원(顯隆園)에다 고쳐 모시었다.

금성위(錦城尉) 박명원(朴明源)이 소를 올리기를, “영우원을 모신 곳은 그 장소가 천로(淺露)하고 단박(單薄)하여 결코 영구히 모실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원의 읍치(邑治)는 예로부터 대지(大地)라고 일컬어져 오는 곳이므로 이곳으로 옮겨 모시는 것이 온편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를 보고 놀랍고 애통하여 대신과 예관(禮官)에게 명해서 박명원과 더불어 상지인(相地人)을 데리고 가서 간심(看審)하고 곧장 천원례(遷園禮)를 정하도록 한 뒤 현릉원으로 이름을 고쳤다. 상이 면복(緇服) 차림으로 친림(親臨)하여 예를 행하였는데 백관들이 이를 따랐으며, 상의 복제는 신해년(1731, 영조7)에 장릉(長陵 인조의 능)을 옮겨 모실 때의 의절(儀節)을 참고해서 사용하였다.

이유원(李裕元), <임하필기(林下筆記), 제14권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영우원(永祐園)의 천봉(遷奉)>

정치/왕실

광해군 초년에 세조의 영정을 수원부(水原府)에 잠시 봉안하였다는 내용.

영희전은 서울의 남쪽 훈도방(薰陶坊)에 있는데, 본래는 세조 때에 의숙공주(懿淑公主)가 살던 집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중종 병인년(1506, 중종1)에 단경왕후(端敬王后)가 손위(遜位)한 뒤의 궁이 되고, 광해군 경술년(1610, 광해군2)에는 공빈(恭嬪 광해군의 생모)의 사당이 되어서 그 이름을 봉자전(奉慈殿)이라 하였다. 처음에는 이름을 남별궁(南別宮)이라 하고 태조(太祖), 세조(世祖), 원종(元宗), 숙종(肅宗) 네 임금의 어용(御容)을 봉안했는데, 그 뒤 정종(正宗) 병신년(1776, 정조 즉위년)에 영종(英宗)의 어용을 여기에 아울러 봉안하였다. 처음에 태조의 영정(影幀)은 평양(平壤)의 영송전(永崇殿)에다 봉안하였는데 임진년의 난리에 불에 탄 뒤에 이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모시게 되었고, 세조의 영정은 예종(睿宗) 1년(1469)에 양주(楊州)의 봉선전(奉先殿)에 모셨는데 그 뒤에 강화부(江華府)로 옮겨서 모시다가 선조 26년(1593)에 다시 강화로부터 영변(寧邊) 묘향산(妙香山)의 보현사(普賢寺) 별전(別殿)으로 옮겨 모셨다. 그러다가 광해군 초년에 이들 두 영정을 모두 모시고 와서 개성부(開城府)와 수원부(水原府)에 잠시 봉안하다가 그 뒤 광해군 11년(1619)에 비로소 본전(本殿)으로 옮겨 모시게 되었다. 숙종(肅宗) 때에 이를 본떠 그러서 봉안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당에의 고유(告由) 문제로 논의가 있었다. (…)

이유원(李裕元), <임하필기(林下筆記), 제14권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영희전(永禧殿)>

정치/왕실

1843년(헌종 9) 봄에 화성에 행행할 때 홍직필을 행궁에 입대할 때 대신의 예와 같게 하였다는 내용.

헌묘께서 계묘년(1843) 봄에 화성(華城)에 행행(行幸)하였는데, 각신(閣臣) 김시연(金始淵)

을 보내어 경연관(經筵官)인 홍공 직필(洪公直弼)에게 전유(傳諭)하여 그로 하여금 노량진(鷺梁津)의 행궁(行宮)에 입대하도록 하니, 홍공이 하교를 받들고 와서 기다렸다. 이에 사관

(史官)에게 명하여 대신(大臣)이 입시할 때의 예와 똑같이 하라고 전유하도록 한 뒤에, 상이 도포로 바뀌 입고서 즉시 홍공을 맞아 접견하고는 학문하는 요점에 대해 급히 물으셨으니, 이는 매우 성대한 일이었다. 산림(山林)을 불러 접견한 일은, 일찍이 순묘(純廟) 이후로는 매우 드물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있게 되니, 이를 구경하는 군민(軍民)들이 경하하여 바라보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유원(李裕元), <임하필기(林下筆記)>, 제25권 춘명일사(春明逸史), 유현(儒賢)을 접견한 일>

정치/왕실

1617년(광해군 9) 11월 영정(影幀)은 우선 수원(水原)에 봉안하라는 내용.

11월 (….) 29일 전교하기를, “대신은 아직도 출사할 기일이 없고, 새로 뽑은 상신(相臣)의 출사할 기일 또한 그 더디고 빠름을 기필하기 어려우니, 영정(影幀)은 우선 수원(水原)에 봉안한 다음 영승전 참봉(永崇殿參奉)으로 하여금 본부(本府)와 더불어 수직(守直)하게 하고, 승지와 예조 참의는 우선 올라오도록 하유하고, 정월 초엿흘 전으로 고쳐 택일하여 봉이(奉移)하도록 해조에 말하라.” 하였다. (….)

(….) ○二十九日傳曰.大臣尙無出仕之期.新卜相臣出仕之期.亦難必其遲速.影幀姑爲奉置于水原.而令永崇殿參奉.與本府守直承旨禮議.並令姑爲上來事.下諭.正月初旬前改擇日奉移事.(….)

박정현(朴鼎賢), <응천일록 2(凝川日錄二)> 丁巳>

정치/왕실

국왕의 능행차에 따른 해당 부서의 역할 등을 정리한 내용.

정리(整理) 능행령(陵幸令 국왕이 능에 거동하는 것을 명령하는 것)이 나면 어재실(御齋室) 【호조 낭청이 기일에 앞서[先]¹⁾ 나아가서 봉심(奉審)하고 수리(修理)함. ○ 경거동(京舉動)도 같음】 과 행궁(行宮)을 수리(修理)하고 【각각 그 지방관이 거행함. ○ 화성행궁(華城行宮)·사근행궁(肆覲行宮)·시흥행궁(始興行宮)·안양(安養) 주필소(駐蹕所)²⁾는 각각 그 지방관(地方官)이 거행하되, 들어가는 지석(紙席)³⁾ 등은 전례(前例)에 의해서 호조에 왕복(往復)하여 취해 쓸 것으로 갑자(1744, 영조 20)에 비국(備局)에서 정식(定式)하였음. ○ 용양봉저정(龍驤鳳翥亭)⁴⁾을 수리(修理)하는 것은 금영(禁營)에서 거행하되 행궁(行宮)을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것은 호조에 이문(移文)하여 계사(計士)를 정해 대강 어렵하여 해당영(營)에 수송하기로 당저(當宇) 정묘년에 금위대장(禁衛大將) 이해우(李海愚)⁵⁾의 주달(奏達)과 호조 판서 서영보(徐榮輔)⁶⁾의 진달(陳達)에 의하여 정식(定式)하였음. ○ 화성행궁(華城行宮)을 수리할 때에는 만일 특교(特敎)가 아니면 백능화(白菱花)로 거행하지 말고 백면지(白綿紙)고 할 것으로 당저(當宇) 갑자(1774, 영조 20)에 호조 판서 조진관(趙鎭寬)이 연교(筵敎)를 받았음. (….) 】

1) 앞서[先] : ‘앞서[先]’가 어느 본에는 ‘出’로 되어 있음.

2) 주필소(駐蹕所) : 국왕이 행행(行幸)하는 도중에 거가(車駕)를 잠시 머무르거나 경숙(經宿)하는 곳.

3) 지석(紙席) : ‘지석(紙席)’가 어느 본에는 ‘地席’으로, 어느 본에는 ‘紙地席’으로 되어 있음.

4) 용양봉저정(龍驤鳳翥亭) : 수원 능행시에 주정소(晝停所)로 쓰는 행궁의 이름.

5) 이해우(李海愚) : 순조 때 사람. 자는 경안(景顔), 본관은 한산. 형조 판서를 지냈고, 한능군(韓陵君)을 봉했으며, 시호는 정민(貞敏).

6) 서영보(徐榮輔) : ‘서영보(徐榮輔)’가 원본에는 ‘徐榮補’로, 어느 본에는 ‘徐營輔’로 되어 있으나, 다른 본에 따라 고쳤음.

整理○陵幸出令則御齋室，【戶曹郎廳先期出去.奉審修理.○京舉動.同.】行宮修理.【各其地方官舉行.○華城行宮，肆覲行宮，始興行宮，安養駐蹕所.各該地方官舉行.而所入紙席等.依前例往復戶曹取用事.甲子.自備局.定式.○龍驤鳳翥亭修理.禁營舉行.而行宮修理所入.移文戶曹定計士籌摘.輸送該營事.當宁丁卯.因禁衛大將李海愚所奏.戶曹判書徐榮輔陳達.定式.○華城行宮修理時.如非特教.勿以白菱花舉行.以白綿紙爲之事.當宁甲子.戶曹判書趙鎮寬奉筵教.(…)] (…)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 4 호조 각장 사례(戶曹各掌事例), 別例房>

정치/왕실

국왕의 행차 등에 파발마의 보충에 대한 제반 규정.

파발마 보충[補把] 국왕이 능에 거동할 때에는 경기의 역마 27필을 보충하여 사복시(司僕寺)의 것과 더불어 배정한다. 【정종 13년 기유(1789년)에 병조와 사복시에 각 15필로 규례를 정하였는데, 영화역(迎華驛)이 화성부로 속한 뒤에는 3필을 감하였다.】

매년 응봉(每年應捧) 6도(六道)의 【서북(西北 : 함경도와 평안도)에는 없음.】 역보(驛保)가 1,404명인데, 매명에 포(布) 1필씩을 수납 【경기도 940필 강원도 69필, 경상도 131필, 전라도 128필, 공충도 100필, 황해도 36필.】 합계 무명 28동 4필. ○ 균역청에서의 지급액 【역보포(驛保布)는 금상 ‘순조’ 10년 경오(1810년)에 1필로 감역한 뒤부터 균역청에서 대액을 지급한다.】 무명 2동 26필 20자·삼베 10필·돈 303냥. ○ 이군색에서의 지급액 【시흥 등 5개 읍이 화성부로 이속된 뒤에는 5개 읍의 역보 324명의 포(布) 바칠 대액을 이군색에서 지급한다.】

補把○陵幸時.京圻驛馬二十七匹補把.與司僕寺分排.【正宗己酉.以兵曹，司僕各十五匹定式矣. 迎華驛屬華城後.減三匹.】

每年應捧○六道 【西，北無.】 驛保一千四百四名.每名收布一疋.【京圻九百四十.江原道六十九.慶尙道一百三十一.全羅道一百二十八.公忠道一百.黃海道三十六.】 合木二十八同四疋.○均廳給代 【驛保布.庚午減一疋後.均廳給代.】 木二同二十六疋二十尺，布十疋，錢三百三兩.○二軍色給代 【始興等五邑移屬華城後.五邑驛保三百二十四名納布之代.自二軍色給代.】 (…)

<만기요람(萬機要覽), 軍政編二 兵曹，馬色>

정치/왕실

국왕의 행차 때 금위영의 배호(陪扈)와 호궐에 대한 규정

<교행(郊幸)> (…)
○ 기사 주마(走馬)는 원래 15필로 정하고 돈화문에서 노량행궁(鷺梁行宮)까지를 6당(塘)으로 구획을 정하였다. 부족할 때에는 수를 증가하여 내다 쓰도록 한다. 【국왕이 화성에 거동할 때에만 당을 세운다.】 호궐(犒餼) 왕가를 수행하는 장관 이하는 급식비를 영에서 지출한다. 【장졸 매명에 2전 7푼씩을 처음에는 호조에서 지급하였는데, 숙종 10년 갑자(1684년) 이후부터는 영에서 전담하게 되었다. 급식하는 것이 본래의 법이었지만 중고(中古)부터는 급식비로 지급한 예가 많이 있었다. 숙종 10년 갑자와 정종 2년 무술(1778년)에는 음식으로 접대하였고, 그 뒤부터는 대금으로 분급하도록 병조에서 개정하였다. ○ 연초에 국왕이 친림하여 호궐할 때에 사용하는 전포(展布)는 본영에서 마련한다.】

郊外行幸隨駕.(…) ○騎士走馬.以十五匹元定.自敦化門至鷺梁行宮.分定六塘.不足則加數出用. 【只華城行幸時.立塘.】 ○犒餼.隨駕將官以下.乾犒餼.自營支下.【將，卒每人各二錢七分.初以戶曹上下.肅宗甲子爲始.自營專當.而犒餼設行自是本法.中古.多有乾犒餼之例矣.肅宗甲子.正宗戊戌.以犒餼設行.厥後仍以代錢分給事.自兵曹定奪.○歲首親臨犒餼時.展布.本營待令.】 (…)

<만기요람(萬機要覽), 軍政編三 禁衛營, 陪扈>

정치/왕실

국왕의 행차 때 어영청의 배호(陪扈) 및 호궐 비용에 대한 규정.

○ 기사의 주마(走馬)는 본시 20필로 정하였으며, 돈화문 밖에서 노량의 행궁(行宮)까지 6당으로 나누어 파수를 세운다. **【국왕이 화성에 거동할 때에만 당을 세운다.】** 호궐(稿饋) **【국왕을 수행한 장관 이하 군병과 원역까지.】** 급식[稿饋]비를 영에서 지출한다. **【장병 매명에 대하여 각 2전 7푼씩. 옛날에는 주정소(晝停所)에서 급식하였는데 중간에는 급식비로 지급한 예가 많았다. 영종 35년 기묘(1759년)에 왕이 직접 돈화문에 임석하여 급식하였고, 정종 2년 무술에 왕이 무예 사열을 직접 실시한 뒤에 모화관에서 급식하였는데[設稿饋於慕華館]⁷⁾ 그 뒤[厥後]부터는 대금으로 나누어 주도록 병조에서 규례를 개정하였다. ○ 해마다 연초에 급식할 때에 가전별초가 들어가서 참가하면 전포(展布)는 본청에서 마련한다.】**

○騎士走馬. 元定二十四. 自敦化門外至鷺梁行宮. 分六塘立把. **【只華城幸行時. 立塘.】** ○稿饋. **【隨駕將官以下至軍兵, 員役.】** 以乾稿饋自營支下. **【將卒每人各二錢七分. 古則設稿饋於晝停所. 中間多有乾稿饋之例矣. 英宗己卯. 親臨敦化門稿饋. 正宗戊戌. 親行閱武後. 設稿饋於慕華館. 厥後仍以代錢分給事. 兵曹定奪. ○每年歲首稿饋時. 駕前別抄入叁則展布. 本廳待令.】** (…)

<만기요람(萬機要覽), 軍政編三 御營廳, 陪扈>

7) 모화관에서 급식하였는데[設稿饋於慕華館] : ‘모화관에서 급식하였는데[設稿饋於慕華館]’의 ‘設’과 ‘於’가 어느 본에는 모두 빠져 있고, ‘館’ 뒤에 ‘設行’이 있음.

(2) 행정

정치/행정

홍건적이 양광도를 항복시킬 때 수원이 가장 먼저 항복하였기에 군으로 강등하였다는 내용.

(…) ○ 복주목(福州牧)을 안동대도호부(安東大都護府)로 승격시키고, 안성현(安城縣)을 군(郡)으로 높이고, 수원부(水原府)는 군으로 낮추었다. 왕이 복주에 머물렀을 때 복주 사람들이 성심껏 공궤하고, 마침내 여러 도의 군사를 불러 경성을 수복하였다. 홍건적이 양광도(楊廣道)를 쫓아 항복받을 적에, 수원이 가장 먼저 항복하니 남은 고을들이 감히 적의 예봉을 꺾지 못하였는데, 안성만은 조그만 읍(邑)이면서 계교를 내어 적을 섬멸하니, 적이 감히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수원의 4부곡(部曲)을 떼내 안성에 붙였다. (…)

(…) ○陞福州牧，爲安東大都護府，安城縣，爲郡，降水原府，爲郡，王之駐福也，福人，盡心供頓，卒能徵兵諸道，收復京都，紅賊之招降楊廣也，水原，最先下，州郡，莫敢挫其鋒，安城，獨以小邑，設計殲賊，賊不敢南下，割水原四部曲以隸之。(…)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제27권 공민왕(恭愍王) 2壬寅十一年 【元 至正二十二年】>

정치/행정

금천의 안양천에 있는 만안교(萬安橋)의 위치를 기록한 내용.

(…) 《대동지지(大東地志)》 (…)

【교량】 만안교(萬安橋) 【남쪽으로 10리에 있는데, 안양천(安養川)에서 수원(水原)으로 통하는 대로에 있다.】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10권 경기(京畿) 금천현(衿川縣)>

정치/행정

진위의 위치에 대한 설명 및 조선초기 진위 객사의 중수 경위 등에 대한 내용.

진위현(振威縣)

【동쪽으로 양성현 경계까지 13리이고, 남쪽은 충청도 직산현 경계까지 37리이며, 서편으로 는 수원부(水原府) 경계까지 12리이고, 북쪽으로 용인(龍仁)현 경계까지 33리인데, 서울과는 1백 18리의 거리이다.】 (…)

【궁실】 객관(客館) 하륜이 지은 중수기(重修記)에, “진위는 한길 옆이어서, 노력과 비용이 탄 고을보다 갑절이나 된다. 원이 된 자가 진실로 마음을 지극히 쓰지 아니하면, 민생을 편하게 하여 사공(事功)을 이룰 수 없다. 현령 이후(李侯)가 수원(水原) 나의 여차(旅次)에 와서 문안하고 또 말하기를, ‘고을 객사(客舍)가 거의 폐사(廢舍) 지경이었다.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10권 경기(京畿), 진위현(振威縣)>

정치/행정

수원 서남쪽 경계에 있는 직산현 외야곳의 위치에 대한 내용.

직산현(稷山縣)

(…) 《대동지지(大東地志)》

【연혁】 본래 백제의 사산(蛇山)이었다.

【방면】 (…) 외야곳(外也串) 【수원(水原) 서남쪽 경계에 넘어가 있는데, 진의 북서쪽은 바다와 접해 있다.】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10권 충청도(忠淸道)>

정치/행정

수원진(水原鎭)을 **혁파하고 인천으로 옮겼다는 내용.**

【관원】 부사(府使)·교수(敎授) 각 1인.

『신증』 지금 임금 21년에 수원진(水原鎭)을 혁파하고 여기에 옮기었다.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9권 경기(京畿), 인천도호부(仁川都護府)>

정치/행정

수원과 평택의 경계

【동쪽으로는 직산현(稷山縣) 경계까지 10리이고, 남쪽으로는 아산현(牙山縣) 경계까지 8리, 천안군(天安郡) 경계까지 12리이고, 서쪽으로는 경기 수원부(水原府) 경계까지 20리이고, 북쪽으로는 같은 부 경계까지 10리이고, 서울과의 거리는 1백 24리이다.】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19권 충청도(忠淸道), 평택현(平澤縣)>

정치/행정

1583년(선조 16) 6월 수원에 있을 적에 추고를 받았던 일 때문에 장령에 제수되지 않았다는 내용.

6월 (….) 19일 (기사). (….) 윤승길(尹承吉)이 장령이 되다. 【나를 수망(首望)으로 올렸는데, 수원(水原)에 있을 적에 병조의 추고(推考)를 받았으므로 도로 삭제되었다.】

六月 (….) ○(….)尹承吉爲掌令. 擬余首望而以水原時兵曹推考還爻

우성전(禹性傳), <대동야승(大東野乘), 계갑일록(癸甲日錄)>

정치/행정

1584년(선조 17) 2월 수원(水原) 부사의 수망에 올랐으나 낙점되지 않았다는 내용.

2월 1일 (무신). 맑다. (….) 15일 (임술). 맑다. 들으니, 시우(時雨)가 들어와서 수원(水原) 부사의 수망에 올랐으나 낙점되지 않았다고 한다.

二月朔戊申晴.(….) ○壬戌晴. 聞時雨入來. 首擬水原. 不點云.

우성전(禹性傳), <대동야승(大東野乘), 계갑일록(癸甲日錄), 萬曆十二年甲申>

정치/행정

수원부사(水原府使)를 유수 겸 장용외사 행궁정리사(留守兼壯勇外使行宮整理使)로 삼는 등의 조치를 했다는 내용.

(….) ○ 현릉원에 전알하였다. 수원 부사(水原府使)를 유수 겸 장용외사 행궁정리사(留守兼壯勇外使行宮整理使)로 삼고 대신(大臣)과 무장(武將)만으로 특지를 받아 제수하도록 명하였으며, 또 판관(判官)을 두어 보좌하게 하였다. 또 장용영병방(壯勇營兵房)을 장용사(壯勇使)로 삼고 호위대장을 합청(合廳)해서 그에 속하게 할 것을 명하였다. (…)

<국조보감(國朝寶鑑), 제74권 정조조 6, 17년(계축, 1793)>

정치/행정

공씨가 동쪽으로 건너와서 수원(水原) 땅에 처음 정착하였던 내용.

(…) ○ 10월. 처음에 고 대사헌 공서린(孔瑞麟)과 참봉 공덕일(孔德一)의 후손을 거두어 쓰라고 명하고, 이어 중국 조정에서 연성공(衍聖公)의 작위를 대대로 세습하게 한 예에 따라 두파(派)의 후예를 대대로 녹사(祿仕)하도록 명했었다. 이때에 이르러 하교하기를, “공씨가 동쪽으로 건너와서 수원(水原) 땅에 처음 정착하였던 사실이 《읍지(邑誌)》에 실려 있기에 감사로 하여금 그 터를 그림으로 그려서 올리게 했는데, 과연 궤리(闕里)의 사당이 있고 은행나무가 있었으며 대대로 살아온 후손들이 있었다. 또 궤리에서 수십 리 떨어진 곳에 새로 세운 영당(影堂)이 있다고 하니, 감사로 하여금 옛터에다 집 한 채를 지어 성인의 초상을 봉안하게 하라.”하고, 이어 이를 ‘궤리사(闕里祠)’라고 부르도록 하고 친필로 편액을 써 내렸으며, 봄가을로 향과 축문을 내렸다. (…)

<국조보감(國朝寶鑑), 제73권 정조조 5, 16년(임자, 1792)>

정치/행정

수원 부사(水原府使)를 토포사(討捕使)를 겸임하도록 조치했다는 내용.

(…) ○ 11월. 수원 부사(水原府使)가 토포사(討捕使)를 겸임하도록 했다. (…)

<국조보감(國朝寶鑑), 제40권 현종조 2, 8년(정미, 1667)>

정치/행정

1854년(철종 5) 화성과 광주 유수의 직임을 원임대신 중에서 임명하자는 주장.

○ 김좌근(金左根)이 아뢰기를,

“화성(華城)과 광주(廣州) 양도(兩都) 유수의 직임을 가끔 원임 대신 중에서 임명한다면, 노일(勞佚)의 혜택을 고르게 하고 의중(倚重)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에 따라서 원임 대신 이헌구(李憲球)를 광주 유수로 삼았는데, 대신으로 유수를 삼는 것이 여기서 비롯되었다.

<국조보감(國朝寶鑑), 제88권 철종조 2, 5년(갑인, 1854)>

정치/행정

1625년 강홍중이 통신사로 다녀오는 길에 양지현을 지날 때 수원부사가 지공하는데 참석하지 않았다는 내용.

비. 조반 후에 비를 무릅쓰고 발행하여 승복원(承福院)에서 점심 먹었는데, 이천(利川) 부사(府使) 이성록(李成祿) 영공이 지대차 나왔으므로 서로 만나보고 잠시 담화하였다. 별좌 황정간(黃廷幹)씨가 와서 보았는데, 휴가를 얻어 시골에 내려왔다고 하였다. 길이 질척질척하여 사람과 말이 무릎까지 빠지므로 간신히 걸어서 저녁에 양지현(陽智縣)에 다다랐다. 수원(水原)에서 지공(支供)을 맡았는데 부사(府使)가 오지 않았다.

雨.食後冒雨發行.中火承福院.利川府使李成祿令公以支待來.相見暫話.黃別座廷幹氏來見.受由下鄉云.行路泥濘.人馬沒膝.艱辛作行.夕抵陽智縣.水原支待而府使不來矣.

강홍중(姜弘重), <동사록(東槎錄), 을축년(1625, 인조 3), 二十一日己巳>

정치/행정

1624년 강홍중이 통신사로 갈 때 수원부(水原府)에서 지공하는 일이 형편이 없었다는 내용.

맑음. 조반 후에 길을 떠나 양지(陽智)에서 유숙하였다. 주인 원[主倅]은 근친(覲親)하기 위하여 시골에 내려갔다 한다. 수원부(水原府)에서 지대를 맡았는데, 부사(府使)가 체직(遞職)

되어 오지 않았으므로 지공하는 범절이 아주 형편없었다.

晴.食後發行.宿陽智.主倅觀親下鄉云.水原府以支持來.而府伯遞職不親來.故支供之事甚無形.

강홍중(姜弘重), <동사록(東槎錄), 갑자년(1624, 인조 2) 8월 22일(갑진)>

정치/행정

1699년(숙종 25) 수원을 비롯한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 호랑이를 잡았을 때의 포상 규정.

숙종 25년 기묘(1699년)에 규례를 정하였다. 양천(陽川)·인천(仁川)·남양(南陽)·김포(金浦)·시흥(始興)·부평(富平)·교동(喬桐)·강화(江華)·진위(振威)·통진(通津)·안산(安山)·양성(陽城)·수원(水原). 범을 잡은 데 대한 상 : 아병(牙兵)에게는 큰 호랑이나 중 호랑이에게 먼저 총을 쏜 자에게는 무명 3필·삼베 2필,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쏜 자에게는 각각 무명 2필·삼베 2필, 작은 범을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쏜 자에게는 각각 무명이 2필씩이다. 장교에게는 대·중·소의 범을 막론하고 각각 무명 3필·소청포가 2필씩이다. 능침(陵寢) 근처에서나 또는 한 번 사냥에서 3마리를 잡은 자에게는 문서로 상주하여 시상을 청구하며, 개인으로서 사냥하다가 범을 잡아서 상납한 자에게는 원군은 무명과 삼베로 시상하며, 대년군은 원군으로 승진시킨다.

捉虎分授.肅宗己卯.定式. 陽川, 仁川, 南陽, 金浦, 始興, 富平, 喬桐, 江華, 振威, 通津, 安山, 陽城, 水原.捉虎賞.牙兵.大, 中虎.先放木三疋, 布二疋.再放, 三放各木二疋, 布二疋.小虎.先放, 再放各木二疋.將校.毋論大, 中, 小虎.各木三疋, 小青布二疋.陵寢近處.一獵三捉則草記論賞.私獵捉納者.元軍木, 布.待年軍陞元軍.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3 금위영(禁衛營), 捉虎分授>

정치/행정

1798년(정조 22) 금위영의 군총(軍摠) 중에서 용인의 겸파총이 화성에 예속되었다는 내용.

겸파총(兼把摠) 11명 【영천(榮川)·문경(聞慶)·임실(任實)·익산(益山)·진천(鎭川)·대흥(大興)·수안(遂安)·김천(金川)·김화(金化)·금성(金城)·가평(加平).】 숙종 15년 기사(1689년)에 소재지[信地]에서 그대로 임명하여 각기 당해 도내에 있는 군병 훈련의 사무를 주관하도록[使專管]⁸⁾ 하고, 또한 본영에서 상벌을 실시하는 규례를 정하였다. 영종 47년 신묘(1771년)에 군문의 자벽(自辟)하는 폐해에 대하여 대신이 연품[筵白]⁹⁾하여 금위영과 어영청에서 자벽하는 것은 3자리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처음에는 12읍의 수령이 결원이 있으면 파총 가운데서 후보자를 선출하며 자벽자를 이조에 추천하여 임명하게 한 뒤에 겸파총으로 상주 결재하였다. 영종 47년 신묘에 상주 결재와 어전에서의 부임 인사는 할것 없이 겸파총의 전령만 급여하도록 규례를 개정하였다. 정종 22년 무오(1798년)에 용인(龍仁)이 화성(華城)에 예속되어 지금은 11개 읍이 되었다.】 지금은 이조에서 본영의 파총을 간혹(間或)¹⁰⁾ 11읍의 자리에 임명해 보내기도 한다.

兼把摠十一員.【榮川, 聞慶, 任實, 益山, 鎭川, 大興, 遂安, 金川, 金化, 金城, 加平.】 肅宗己巳.以信地仍差.使專管各其道內所在軍兵肄習之事.又定自本營褒貶之式.英宗辛卯.以軍門自辟之紛拏大臣筵白.禁, 御兩營自辟無得踰三窠.【初以十二邑守令.有闕則以把摠中擬.自辟望報吏曹.擬差後以兼把摠啓下.英宗辛卯.勿爲啓下, 辭朝.只給兼把摠傳令事.定奪.正宗戊午.龍仁屬

8) 주관하도록[使專管] : ‘주관하도록[使主管]’의 ‘使’가 어느 본에는 ‘事’로 되어 있음.

9) 연품[筵白] : ‘연품[筵白]’의 ‘白’이 어느 본에는 ‘稟’으로 되어 있음.

10) 간혹(間或) : ‘간혹(間或)’의 ‘或’이 어느 본에는 빠져 있음.

華城.今爲十一邑.】 今則銓曹以本營把掄.間或差送十一邑之窠.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 3, 금위영(禁衛營), 軍掄>

정치/행정

1619년(광해군 11) 9월 수원(水原) 등에서 별시를 시행하였다는 내용.

11년 기미 9월 수원(水原)과 개성부(開城府) 별시 【영승전(永崇殿)의 태조 영정(影幀)과 봉선전(奉先殿)의 세조 영정을 난후에 잃어버렸으므로 당시 그려 올려 왔는데 국가에 일이 많아서 수원과 개성에 두어 모시게 하였다가 금년 9월 비로소 중사(中使)와 승지와 예조 참의를 보내어 받들어 와서 함께 봉자전(奉慈殿)에 모셨다. 지난 8월 26일 두 곳에서 과거를 베풀고 한림을 나눠 책문의 제목을 가지고 가게 하고 거둔 시권을 봉하여 가지고 왔다.】에서 유성증(兪省曾) 등 4명을 뽑았다. (…)

이공익(李肯翊),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별집 제9권 관직전고(官職典故), 과거Ⅲ등과 총목(登科總目)>

정치/행정

정약용이 군현(郡縣)의 등급을 구분한 것 가운데 화성을 1만6천 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는 내용.

군·현 제도는 민호(民戶)의 많고 적음과, 전결(田結)의 넓고 좁음으로써 등급을 매김이 마땅하다. 시씨(柴氏) 주(周)나라¹¹⁾ 제도는 3천 호 이상을 망현(望縣)으로, 2천 호 이상을 긴현(緊縣)으로, 1천 호 이상을 상현(上縣)으로, 500호 이상을 중현으로, 500호 미만을 하현(下縣)으로 했다. 송 태조(宋太祖) 개보(開寶) 9년(976년, 고려 경종 8년)에 조서(詔書)하여 현망(縣望)을 다시 정하는데 4천 호 이상이 망이고, 다음을 긴(緊)·상·중·중하로 하여 무릇 5등이 있었다(지금 淸國 제도에도 劇縣·要縣처럼 대소 여러 등이 있으나 그것과 같지 않다).

생각건대, 중국 법은 부(府)가 가장 크고 주가 다음이며 군은 없다(송(宋)나라 이후로 군이 없다). 그리고 현에 다섯 등이 있어, 관직 차례대로 승진 또는 전임했다. 우리나라 법은 빈잔(貧殘)한 주·부(州府)는 혹 취락(聚落)도 되지 못하고, 웅대한 현은 혹 사무(事務)가 번거롭기도 하다. 관원을 차임(差任)해서 보낼 때에도 권세가 높으면 첫 솜씨를 바로 큰 현에 붙이고, 세력이 약하면 세 번이나 벼슬해도 모두 작은 현을 얻게 되니, 관방(官方)의 어지러움이 이와 같다. 이번에는 8도 여러 고을을 아울러 민호와 전결로써 대소(大小)를 분간하고, 시험삼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대략을 알고자 한다.(…)

1만 5천 호 이상 : 성주(星州)·해주(海州).

1만 6천 호 이상 : 화성(華城)·안동(安東).

1만 7천 호 이상 : 광주(廣州)·공주(公州).

郡縣之制.宜以民戶多少.田結廣狹爲之等級.

柴周之制.三千戶以上.爲望縣.二千戶以上.爲緊縣.一千戶以上.爲上縣.五百戶以上.爲中縣.不滿五百戶.爲下縣.○宋太祖開寶九年.詔更定縣望.以戶四千以上爲望.次爲緊.爲上爲中爲中下.凡五等.今淸制.亦有劇縣要縣.大小諸等不同.○臣謹按.中國之法.府最大.州次之.郡則無之.宋以後無郡.縣有五等.以次陞遷.吾東之法.州府之殘.或不能成聚.列縣之雄.或至於劇務.及其差遣也.勢高

11) 시씨(柴氏) 주(周)나라 : 954~959년에 걸쳐 시영(柴榮)이 중국 대륙에 세웠던 나라. 중국 고대의 주나라와 구별하기 위해서 시씨 주나라라 일컬음.

則初手直付大縣.力微則三仕皆得小縣.官方之淆.一往如此.今擬八路諸邑.竝以民戶田結.別其大小.試錄如左.以知大略.(…)

萬五千戶以上.【星州, 海州.】

萬六千戶以上.【華城, 安東.】

萬七千戶以上.【廣州, 公州.】(…)

정약용(丁若鏞), <경세유표(經世遺表), 제4권 천관 수제(天官修制), 郡縣分等>

정치/행정

과거에 응시하는 정원을 비변사에서 회의로 결정하고 화성 등 경기도의 주요 군현의 인원은 세차례 식년 방목을 근거로 결정하자는 내용.

경기 4도(都)와 여러 고을에 한 방(榜) 두 장 정원이 모두 120명이니 세 식년을 통계하면 360명인데 그 배수를 더하면 720명이다. 이 720명을 경기에서 응시하는 정원으로 한다.

경기에 응시하는 정원은, 발해(發解)의 많고 적음으로써 그 문풍(文風)을 분별할 수는 없으니 묘당에서 회의회하여 그 정원을 정한다. 송도(松都)는 몇 사람, 심도(沁都)는 몇 사람, 화성(華城)은 몇 사람, 광주(廣州)는 몇 사람 여주목(驪州牧)은 몇 사람, 인천부(仁川府)는 몇 사람, 양근군(楊根郡)은 몇 사람, 과천현(果川縣)은 몇 사람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세 차례 식년 방목(榜目)을 가지고 대략 근거로 하고 참작해서 논의한 다음 결정한다.

京畿四都及諸邑.其一榜兩場之額.共一百二十人.三式年通計.則三百六十人.執其倍數.則七百二十人也.於是.以七百二十人.爲京畿之額.○京畿赴學之額.不可以發解多少.別其文風.自廟堂會議.以定其額.松都幾人.沁都幾人.華城幾人.廣州幾人.驪州牧幾人.仁川府幾人.楊根郡幾人.果川縣幾人.取三式年榜目.略略憑依.參酌論定.○如松都沁都.一準三式年榜目.定其赴學之額.(…)

정약용(丁若鏞), <경세유표(經世遺表), 제15권 춘관 수제(春官修制), 選科擧之規二>

정치/행정

채제공이 화성유수로 있을 때의 일화를 예시하여 수령의 자리 곁에 다른 사람이 있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

관부(官府)의 체모는 엄숙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니 수령의 자리 곁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채번옹(蔡樊翁, 채제공)이 화성유수(華城留守)로 있을 때 친척집 소년이 상복 차림을 하고 관아로 들어오니, 공은 문지기를 죄주고 급히 그 소년을 문밖으로 내보내어 속소를 정하게 하였다.

官府體貌.務在嚴肅.坐側.不可有他人.(…) 蔡樊翁留守華城.有通家少年.曳袞入門.公罪其門者.亟令少年出舍于門外.

정약용(丁若鏞), <목민심서(牧民心書), 율기(律己) 6조 제1조 칙궁(飭躬)>

정치/행정

정약용의 관제개혁론으로 주교사를 전함사로 변경하고 해당 관원의 정원 등을 제시한 내용.

전함사(典艦司) : 제조 경 1인, 첨정 상사 1인, 주부 중사 2인.

서리 2인, 조례 8인.

생각건대, 원편에 “전함사가 서울과 외방 함선(艦船)을 관장하는데, 제조가 2자리이고 낭관이 5자리이며, 수운판관(水運判官) 3자리가 소속되어 있다.” 하였는데, 근래에 혁파되었다. 그 후 건륭(乾隆 : 清高宗의 연호) 기유년(정조 13년, 1789) 겨울에 현릉원(顯隆園)을

화성에 개장(改葬)하면서 다시 주교사(舟橋司)를 설치하고 제조와 낭청(郎廳)은 다른 관직이 겸하도록 하였다. 지금은 주교사라는 명칭을 전함사라 하고 제조는 공조판서가 예겸하도록 하였다.

提調卿一人. 僉正上士一人. 主簿中士二人. ○書吏二人. 阜隸八人.

臣謹案. 原編典艦司. 掌京外舟艦. 其提調二員. 郎官五員. 又水運判官三員屬焉. 近復革之. 乾隆己酉冬. 改葬顯隆園于華城. 復設舟橋司. 有提調郎官. 以他職兼之. 今擬舟橋司. 名之曰典艦司. 其提調. 工曹判書例兼.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第五集政法集第二卷○經世遺表, 典艦司【舟橋司合焉】, 사관지속(事官之屬)>

정치/행정

광주와 화성의 유수를 대신이 재직하는 전례에 대한 이유원의 생각.

고사에 대신이 유수로 재직하는 일은 근거할 만한 전례가 없다. 철묘조(哲廟朝)에 박공 회수(朴公晦壽), 이공 헌구(李公憲球), 김공 도희(金公道喜)가 광주 유수(廣州留守)와 화성 유수(華城留守)를 지냈지만, 중추부의 직함으로서 겸직한 것이었다. 무릇 경사(京司)에 있으면서 문부(文簿)는 모두 판관을 시켜 거행하게 하고, 장계의 서목과 승정원에 회제(回題)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서리를 시켜 사통하게 하였는데, 이를 정승 상위 사또[相位使道]라고 칭하였다. 옛날의 사상(使相)¹²⁾이 이와 같았는지는 모르겠다.

이유원(李裕元), <임하필기(林下筆記), 제26권 춘명일사(春明逸史), 대신(大臣)이 유수로 재직하는 일>

정치/행정

외임으로 상신이 된 자가 많은데, 화성유수로 있다가 상신이 된 자는 이경일과 권돈인이라는 고증.

옛날에 외임으로 있다가 상신에 임명된 자들이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은데, 관서에서는 오직 유공 관(柳公灌), 이공 원익(李公元翼), 정공 휘량(鄭公彙良), 김공 상철(金公尙喆), 이공 휘지(李公徽之)가, 경기에서는 김공 약로(金公若魯)가, 호서에서는 박공 종악(朴公宗岳)이, 관북에서는 정공 광필(鄭公光弼), 김공 희(金公憲)와 내가 각기 외직에 있다가 상신에 임명되었다. 화성 유수(華城留守)로 있다가 상신에 임명된 자는 이공 경일(李公敬一)과 권공 돈인(權公敦仁) 같은 사람뿐이다.

이유원(李裕元), <임하필기(林下筆記), 제26권 춘명일사(春明逸史), 외임(外任)의 입각(入閣)>

정치/행정

1903년(광무 7) 8월 11일 진연의궤의 수정을 을묘정리의궤의 예대로 봉입 및 보관하라는 내용.

영하였다.

12) 사상(使相) : 당(唐)나라 중기 이후에 각 지방의 절도사에게 중앙 관직인 동평장사(同平章事)의 직함을 얹어 주어 사상이라고 일컬었으며, 송대(宋代)에는 친왕(親王), 유수, 절도사 등에게 중앙 관직인 급사중(給事中), 중서령(中書令), 동평장사 등의 직함을 얹어 주어 사상이라고 일컬었는데, 중앙 조정의 정사에는 간여하지 않았다.《文獻通考 卷64 職官18》

“《진연의궤(進宴儀軌)》의 수정을 《을묘정리의궤(乙卯整理儀軌)》¹³⁾의 예대로 하여 대전에 1건을 봉입(奉入)하고, 7건을 내입(內入)하고, 또 20건을 내입하고, 서고(西庫)에 3건을 보관하고, 규장각, 시강원, 비서원, 네 곳의 사고(史庫), 장례원에 각각 1건씩 보관할 것으로 분부하라.”

<진연의궤(進宴儀軌), 제1권 영교(令敎), 계묘년(1903, 광무7)>

13) 을묘정리의궤(乙卯整理儀軌) : 정조 19년(1795)에 혜경궁 홍씨와 사도세자의 회갑을 맞아 사도세자의 능인 현릉원(顯隆園)을 참배하고 현재의 수원인 화성(華城)에서 잔치를 하고 돌아와 만든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를 말한다.

(3) 사법

정치/사법

1371년 왕이 신돈을 수원(水原)으로 귀양보냈다는 내용.

(…) ○ 선부의랑(選部議郎) 이인(李弼)이 신돈이 반역을 모의한 사실을 알고 성명을 숨겨 한림거사(寒林居士)라 일컫고 글을 써서 밤에 재상 김숙명(金續命)의 집에 던졌다. 속명이 이 사실을 아뢰니, 왕이 명하여 신돈의 당 기현(奇顯)·최사원(崔思遠)·정귀한(鄭龜漢)·진운검(陳允儉)·기중수(奇仲修) 등을 잡아 목베었다. 왕은 성품이 시기심이 많고 잔인하여, 심복 대신일지라도 권세가 강성해지면 반드시 꺼려 목베었다. 신돈이 자신이 폭위를 떨침이 너무 심함을 알고, 왕이 자기를 꺼릴까 두려워 반역을 도모하였다. 왕이 헌릉(憲陵)과 경릉(景陵)의 두 능에 배알할 적에, 신돈이 그 당을 나눠 보내어 길가에 매복시켜 두고 큰일(시해)을 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무사히 왕이 궁에 돌아오니 신돈이 무리에게 말하기를, “어째서 약속대로 하지 않았느냐.” 하니, 그 무리가 말하기를, “왕의 의위(儀衛)가 심히 성대함을 보고 차마 범하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신돈이 노하여 꾸짖기를, “너희들은 참으로 겁이 많아 쓸모가 없는 자들이다.” 하였다. 이후로 밤낮으로 모여서 모의하고 다시 날을 정하여 일을 거사하기로 했다. 이때 관직을 구하는 자는 모두 신돈에게 붙었는데, 이인(李弼)이 신돈의 문객이 되어 흉악한 계책을 자세히 알고, 몰래 명부를 만들어 이를 기록하였다. 일이 급박해지자 상세히 고변하고는 곧 변장하고 도망쳐 버렸다. 왕이 처음에는 이인(李弼)이 무고한다고 의심하였으나, 신돈의 당을 잡아 이들을 국문하니 모두 증거가 있었다. 드디어 신돈을 수원(水原)으로 귀양보내고는 왕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익제(益齋 이제현)가 일찍이, '신돈은 바른 사람이 아니므로 반드시 후환을 끼칠 것이다.' 말하더니, 선견의 밝음은 미칠 수 없구나.” 하였으며, 또 근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일찍이 신돈의 집에 가서 시비와 관계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이를 놀라게 하지 말고 잘 보호하라.” 하였다. 아들은 곧 모니노(牟尼奴)이다. (…)

(…) ○選部議郎李弼，知辛屯謀逆，乃匿姓名，稱爲寒林居士，爲晝夜投宰相金續命第，續命以聞，王，命收捕屯黨奇顯，崔思遠，鄭龜漢，陳允儉，奇仲修等，誅之，王，性猜忍，雖腹心大臣，及其權盛，必忌而誅之，屯，自知鴟張大極，恐王忌之，遂謀不軌，王之謁憲景二陵，屯，分遣其黨，設伏道旁，約行大事，及王還宮，屯，謂其黨曰，何不如約，其黨曰，見上儀衛甚盛，不忍犯也，屯，怒且罵曰，爾輩誠怯懦無用者也，自是，日夜聚謀，更刻日舉事，時求官者，悉附屯，弼爲屯門客，備知兇謀，陰籍記之，及事迫，具上變，即微服亡去，王始疑弼誣構，不之信，及捕屯黨，鞫之皆驗，遂流屯于水原，王嘆曰，益齋嘗言，屯非端人，必貽後患，先見之明，不可及已，又謂近臣曰，予嘗至屯家，幸侍婢生子，毋令驚動，善保護之，子即牟尼奴也。(…)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제29권, 공민왕(恭愍王) 4,辛亥二十年【大明 洪武四年】>

정치/사법

태종이 영의정 심온(沈溫)을 수원(水原)으로 압송하게 하여 자진하게 하였다는 내용.

태종이 상왕이 된 뒤에 병조에서 잘못된 바가 있다고 하여 입직한 참판 강상인(姜尙仁)과 좌랑 채지지(蔡知止)를 의금부에서 국문하도록 명하였고, 이어 판서 박습(朴習), 참의 이각(李愷), 정랑 김자온(金自溫)·이안유(李安柔)·양여공(梁汝恭), 좌랑 송을개(宋乙開)·이숙복(李叔福) 등을 모두 추고하여 하옥시키고, 강상인은 찢어 죽이고 박습은 목베어 죽였으며,

이관(李灌)·심정(沈汀)등 연루된 사람도 목베어 죽이고 그 처자식은 노비로 삼았다. 영의정 심온(沈溫)도 연루되었는데, 의금부 진무(鎭撫) 이양(李楊)에게 명하여 수원(水原)으로 압송하게 하여 자진하게 하였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원근의 차등을 두어 부처(付處)시켰다.

太宗既爲上王.以兵曹有所失.命鞠入直參判姜尙仁佐郎蔡知止于禁府.仍並推判書朴習參議李愨正郎金自溫李安柔梁汝恭佐郎宋乙開李叔福等.皆下獄.車裂姜尙仁.斬朴習.辭連人李灌沈汀亦斬.妻子兄弟爲奴.領議政沈溫亦辭連.命義禁府.鎭撫李楊.押送於水原.賜自盡.其餘付處.遠近有差.

이정형(李廷馨), <동각잡기, 상(東閣雜記上), 本朝璿源實錄>

정치/사법

인조반정을 계기로 병조판서 권진을 위리안치하는 내용.

(…) ○ 병조 판서 권진(權縉) : 사간원이 아뢰었다. “본래 흉악하고 교활하며 불측한 사람으로 폐주의 귀염받는 신하가 되어, 계축년 큰 옥사 때 형방승지로 시종 담당하여서 죄를 얻고 꾸미기에 못할 것이 없어서, 모후께서 유폐된 것과 영창대군이 억울하게 요사한 것이며, 김제남이 원통하게 죽은 것은 모두 이 사람의 수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잔남은 그 실마리를 주워서 드디어 크나큰 화를 만들었으니, 이 두 사람의 죄는 실로 차등이 없습니다. 수원방어사로 있을 때에는 제 사사로운 감정으로 병졸을 함부로 지경 밖으로 넘어가게 해서 선비들을 도록케 하였고, 군졸들로 하여금 부녀자들까지 욕을 보이게 하였습니다. (…)”

(…) 兵曹判書權縉.院啓.本以凶猾不測之人.爲廢主寵嬖之臣.癸丑大獄.以刑房承旨終始擔當.搆捏羅織罔有紀極.母后之幽閉.永昌大君之枉夭.金梯男之冤死.皆由於此人之手段.韓續男拾其緒餘.遂成滔天之禍.兩人之罪實無差等.爲水原防禦使.爲其私憤.擅兵越境.屠戮士人.至令軍卒.汙辱婦女.(…)

<대동야승(大東野乘), 계해정사록(癸亥靖社錄), 圍籬安置類>

정치/사법

1371년 신돈이 모반하여 수원(水原)으로 유배되었다는 내용.

(…) ○ 신돈이 모반하니 수원(水原)으로 유배하고, 그 무리 기현(奇顯)·최사원(崔思遠) 등을 베었다. 신돈이 처음에는 중으로서 왕에게 신임을 받았다. 그러나 이미 김란(金蘭)의 딸을 들이고도 또 축첩이 셀 수 없이 많았으며, 경대부(卿大夫)의 아내로 아름다운 자는 만드시 은밀히 불러 사통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그의 은혜를 바라고 위세를 두려워하여 다투어 노비와 보물을 바쳤다. 그런데도 왕은 오히려 녹을 받지 않고 여색을 가까이하지 않으며 전원(田園)을 두지 않는다고 해서 신임하고 중히 여겼다. 그래서 신돈은 위복(威福)을 마음대로 하며 은수(恩讐)를 만드시 갇아 세가 대족(世家大族)이 거의 다 주살당하여 사람들이 그를 호랑이나 이리 보듯이 하였다. (…)

○ 모니노(牟尼奴)를 불러 태후전(太后殿)에 들였다. 이에 앞서 신돈이 수원(水原)에 유배되었을 적에 왕이 근신(近臣)에게 이르기를, “내가 일찍이 돈의 집에 가서 그의 비(婢)를 사랑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경동(驚動)케 하지 말고 잘 보호하라.”하였다. 임박이 신돈을 베러 갔을 적에 사람을 시켜서 왕이 부른다고 거짓 알리니, 신돈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오늘 나를 소환함은 대개 아기(阿只) 방언(方言)으로 소아(小兒)의 존칭이다. 가 나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였으니, 아기는 모니노를 가리킨다. (…)

안정복(安鼎福), <동사강목(東史綱目), 제15하, 신해년 공민왕 20년>

정치/사법

1275년 총랑 김훤(金暄)이 청호역(靑好驛)의 사선(私膳)을 국고로 날랐다가 파면되었다는 내용.

(…) ○ 전라도 부부사(全羅道部夫使) 김훤(金暄)을 파직하였다. 그때에, 여러 도에 부부사를 나누어 보냈는데, 총랑(摠郎) 김훤은 전라도로 갔다. 청호역(靑好驛)【지금의 수원부(水原府) 동쪽 25리에 있다】에 이르니, 전라도 안찰사(全羅道按察使) 노경륜(盧景綸)이 서울로 내선(內膳 임금의 음식)을 역수(驛輸 역에 속한 말·수레로 나르다)하는 것이 매우 많은데, 사선(私膳)이 반이나 되므로 훤이 그 사선을 가져다가 국고(國庫)로 날랐더니, 경륜이 왕에게 일렀으므로 왕이 훤의 벼슬을 파면하고 곧 양주부사(襄州副使) 양주는 지금의 양양(襄陽)로 좌천시켰다. (…)

안정복(安鼎福), <동사강목(東史綱目), 제11하, 을해년 충렬경효왕(忠烈景孝王) 원년>

정치/사법

1785년(정조 9) 수원(水原) 최성신(崔聖臣)의 옥사

수원(水原) 최성신(崔聖臣)의 옥사

【최성신이 임돌몽(林覓夢)과 할경(割耕)¹⁴으로 인하여 서로 싸우다가 때려서 15일 만에 죽게 하였다.

[상처] 장판지의 살갓이 벗겨지고 단단하였다.

[실인] 병으로 인한 것이다.

을사년 3월에 옥사가 이루어졌다.

임돌몽의 아들 임세운(林世云)이 격쟁하였다. (…)

<심리록(審理錄), 제14권, 을사년(1785) 1 ○ 경기>

정치/사법

1783년(정조 7) 수원(水原) 박명로(朴命老)의 옥사

수원(水原) 박명로(朴命老)의 옥사

【박명로가 임도원(林道元)과 돈대기를 하다가 임도원이 지고서도 갚지 않자 박명로가 등경(燈檠)으로 때렸는데, 2일 만에 죽었다.

[상처] 목이 좌우로 흔드는 대로 기울어졌다.

[실인] 목이 부러진 것이다.

신축년 2월에 옥사가 이루어졌다. (…)

<심리록(審理錄), 제9권, 계묘년(1783) 1 ○ 경기>

정치/사법

1782년(정조 6) 수원(水原) 윤 조이(尹召史)의 옥사

수원(水原) 윤 조이(尹召史)의 옥사

【윤 여인(尹女人)이 황성옥(黃成郁)의 노리개첩[花妻]이 되어 정처(正妻)인 정 여인(鄭女人)을 해치려는 마음으로 박무신(朴戊申)을 사주하여 밤에 정 여인의 방에 들어가게 한 다음 이어 추악한 말을 퍼뜨렸는데, 정 여인이 수치스럽고 분하여 독을 마시고 죽었다.

[상처] 없었다.

14) 할경(割耕) : 남의 농지의 경계를 잠식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인] 간수를 마신 것이다.

경자년 9월에 옥사가 이루어졌다. (…)

京畿水原府尹召史獄 謀陷鄭召史. 飲酒致死. 實因飲酒. ○本道啓. 自斃償命. 終欠審慎. 刑曹回啓. 不必持疑. 嚴加刑訊.

判. 卿曹回啓辭理. 鑿鑿中窾. 豈非所謂無容更議者耶. 末路多詐人不謀生. 而咫尺郊畿. 有此妖獄. 其在慰冤魂勵民俗之道. 傳生一節. 非所可論. 道臣審理. 大失宣化之責. 該監司李亨達. 推考參覈 是在諸邑守令. 竝從重推考.

<심리록(審理錄), 제8권, 임인년(1782) 1 ○ 경기>

정치/사법

1800년(정조 24) 수원(水原) 이춘성(李春成)의 옥사

수원(水原) 이춘성(李春成)의 옥사

이춘성의 처 김 여인이 시어미와 시누이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자, 이춘성이 화가 나서 발로 차 4일 만에 죽게 하였다.

[상처] 오른쪽 옆구리가 자암색(紫黯色)이고 약간 굳었다.

[실인] 발에 차인 것이다.

경신년(1800, 정조24) 윤4월에 옥사가 성립되었다. (…)

京畿南陽府李春成獄 毆踢其妻金召史. 第三日致死. 實因被踢. ○水原留守. 徐有隣啓.

<심리록(審理錄), 제32권, 경신년(1800) ○ 경기>

정치/사법

현종대에 수원부(水原府) 통역 이일선의 친족이 관가의 명령을 좇지 않아 매로 쳐서 죽였던 사례.

○ 현종조에, 수원부(水原府) 통역 이일선(李一善)의 친족으로 포로가 되어 우리나라에 사는 자가 있었는데, 일선을 믿고 관가의 명령을 좇지 않으므로, 부사(府使) 구문치(具文治)가 매로 쳐서 죽였다. (…)

이금익(李肯翊),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별집 제13권 정교전고(政教典故), 형옥(刑獄)>

정치/사법

인조반정을 계기로 수원 부사 조유도(趙有道)를 중도부처했다는 내용.

(…) ○ 수원 부사 조유도(趙有道) : 사간원이 아뢴 대개는, 재물을 탐한 죄와 어지러운 악으로 중도부처를 청한 것이었다. 유효립의 옥사 때 도로 귀양보내졌다. (…)

(…) 水原府使趙有道. 院啓大概. 貪贓之罪. 濁亂之惡. 請中道付處. ○孝立獄. 還竄.(…)

<대동야승(大東野乘), 계해정사록(癸亥靖社錄), 中道付處類>

정치/사법

1621년(광해군 13) 수원(水原)의 죄인 김엽(金燁) 등을 잡아가두었다는 내용.

4월 (…) 21일 남이공(南以恭)과 이귀(李貴)를 놓아보낼 것을 전교하였다. 수원(水原)의 죄인 김엽(金燁) 등 6명을 잡아가두었다. (…)

(…) ○二十一日南以恭李貴放送事. 傳敎. 水原罪人金燁等六名拿囚.(…)

박정현(朴鼎賢), <응천일록2(凝川日錄二), 辛酉>

정치/사법

1623년(인조 1) 인조반정 때 광해군대의 척리이자 수원부사 조유도를 중도부처했다는 내용.

(…) 7월 (…) 사간원이 아뢰기를, “전 부사 조유도(趙有道)는 폐조(廢朝)의 척리(戚里)로서 세도를 끼고 드날려 오랫동안 인사권을 잡고서 흉도를 추천하여 조정을 어지럽혔고, 탐욕함이 한이 없어서 뇌물이 집에 가득하였으며, 수원 부사에 제수된 뒤에는 방자함이 더욱 심하였으니, 뇌물을 탐한 죄와 조정을 어지럽힌 악이 이 사람보다 더 심한 자가 없습니다. 청컨대, 중도부처하소서.” 하니, ‘윤희하지 않는다.’ 고 비답하였다. (…)

[癸亥] (….)七月 (….) 前府使趙有道.以廢朝戚里.挾勢騰揚.久秉銓權.吹噓兇徒.濁亂朝著.貪婪無厭.賄賂盈門.及授水原.縱恣尤極.贓汙之罪.濁亂之惡.未有甚於此人.請中途付處.答曰不允. (…)

박정현(朴鼎賢), <응천일록(凝川日錄)三, 癸亥 七月>

정치/사법

1893년(고종 30) 7월 10일 소란을 피운 사점기 부상들을 체포하라고 화성과 남양에 관문을 보냈다는 내용.

10일 맑음. 익준이 장졸 등소(等訴)의 일로 상경하였다. 소란을 피운 사점기 부상(負商)들을 체포하여 올리라고 화성(華城)과 남양(南陽)에 관문을 보내고, 백토 가굴(加掘)의 일로 양구(楊口) 8면 도집강(八面都執綱) 이평여(李平汝)를 체포하여 올리라고 관문을 발송하고, 기명의 일로 광주에서 수색하여 체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관문을 발송하고, 우천 장시를 도로원(院) 밑에 설치하는 일로 장졸에게 전령하였다. 선도중(船都中)은 지금 이미 혁파하였으므로 선색장(船色掌)을 사령 등이 거행하라고 전령과 차첩(差帖)을 작성하여 주었다. 아이들 공부 파접(罷接)한 후에 밥과 국, 술과 안주를 마련하여 종일 취하고 실컷 먹었다.

十日 晴 益俊以匠卒等訴事上京 私店器負商作梗等捉上事 發關於華城南陽 白土加掘事 楊口八面都執綱李平汝捉上事發關 以器皿事 廣州推捉禁斷之意發關 牛川場市 還設院底事 傳令匠卒處船都中今既革罷 故船色掌 以使令等舉行次 傳令與差帖成給 兒輩做工罷接後 具飯羹酒肴 醉飽終日

지규식(池圭植), <하재일기(荷齋日記), 3 계사년(1893) 7월 10일>

정치/사법

1893년(고종 30) 7월 16일 사점기(私店器)의 일로 화성 등에 관문을 발송했다는 내용.

16일 맑음. 뚝섬[蘓島]에 이르니 아직 점심때가 되지 않았다. 뱃사공을 올려 보내고 즉시 성 안으로 들어가 점심을 먹었다. 공당은 삼청동(三清洞) 현수안(玄遂安) 정자로 피서를 갔다. 집리와 함께 나가서 장졸들이 해산하여 흩어져 여러 날을 일을 중지하였다고 급함을 고하니, 공당이 “당초에 장시(場市)를 많은 원성을 무릅쓰고 원 밑으로 들여다 설치하였다. 너희들이 모두들 우천으로 다시 나가는 것이 매우 편리하다고 하였으므로 원하는 대로 다시 나갔는데, 지금 또 다시 들어가자는 말은 대단히 옳지 않다. 너희들은 나의 정체(政體)는 생각하지 않는가? 이른바 장세(場稅)는 당연히 관례대로 바쳐야 한다. 다시는 번거롭게 소장을 올리지 말고 장졸을 불러들여 무마하여 일을 하게 하라.” 고 분부하였다. 또 장인득(張仁得)을 불러들여 이치에 의거하여 효유하고 더욱더 엄중 신칙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원 전체가 귀천의 침학을 당하여 장차 보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까 두려워하니, 이 폐단을

막을 수 있어야 지탱하여 보존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아뢰니, 공당이 “혹시 그럴 수도 있으나 이상하게 생각지 말고 전령을 초안하여 오라.” 고 분부하셨다. 그러므로 관부(官府) · 반가(班家)에서 만일 침탈하거나 수색하여 잡아 가는 폐단이 있으면, 그때그때 급히 고하고 잡혀 가서 일을 중지하지 말라는 뜻으로 전령을 수정하여 작성하였다. 또 사점기의 일로 화성(華城)과 기영(畿營)·상리국(商理局)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또 양구(楊口) 백토의 일로 관문을 발송하여 해읍 공형(公兄)과 해8면 도집강(該八面都執綱) 이평여(李平汝)를 체포하여 올려 보내라고 엄중 신칙하였다.

晴. 至轟島 日未午也 船人上送 卽爲入城 喫午飯 公堂避暑于三清洞玄遂安亭子矣 與執吏齊進以匠卒渙散 多日停役事告急 公堂分付內 當初場市 不避衆怨 入設院底矣 汝等俱曰還出牛川 事甚便當云 故從所願還出 今又還入之說 萬萬不可 汝等不思我之政體乎 所謂場稅 當如例捧給矣 更勿煩訴 而招入匠卒 撫摩設役之意爲教 且招入張仁得據理曉諭更加嚴飭 故余以一院恐被歸川侵虐 將至難保 得防此弊(此弊) 然後可以支保之意告課 公堂曰容或無怪 傳令草來爲教 故官府班家 如或有侵漁推捉之弊 隨事馳告 勿爲就捉停役之意 傳令修正成出 且私店器事 發關華城畿營商理局 又以楊口白土事發關 該邑公兄與該八面都執綱李平汝押上事嚴飭 지규식(池圭植), <하재일기(荷齋日記)>, 3 계사년(1893) 7월 16일>

정치/사법

변주현의 산송에 관한 일로 수원 관찰부에 정소(呈訴)하기 위해 소지(所志) 초안을 써서 주었다는 내용.

21일 경오. 맑음. 변주현이 서울에서 내려왔다. 충청도 각처 그릇값을 감독해 거두도록 서울 사원이 변주현에게 위임했으므로 내려가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주현이 산송에 관한 일로 수원 관찰부에 정소(呈訴)¹⁵⁾하기 위해 소지(所志)¹⁶⁾ 초안을 써서 주었다. 담인(澹人) 형제와 함께 아침밥을 먹은 뒤 서로 문호(汶湖)로 보냈다.

庚午 晴 柱憲自京下來 忠淸道各處器價董刷次 京社員委任於柱憲 不得不下去云 柱憲山訟事 呈訴於水原觀察府次 所志草書給 與澹人兄弟共喫朝飯後 相送于汶湖

지규식(池圭植), <하재일기(荷齋日記)>六, 戊戌年(1898) 十一月 二十一日>

15) 정소(呈訴) : 소장(訴狀)을 관청에 냄. 정장(呈狀).

16) 소지(所志) : 자기나 다른 사람의 사정을 관부에 호소하는 소장(訴狀). 이른바 민원 관계 문서로 발괄[白活]이라고도 한다.

(4) 군사

정치/군사

1378년 왜적이 남양과 비인현 등지를 경유하여 수원부를 노략질하였다는 내용.

무오 【신우 4년(1378), 대명 홍무 11년】

○ 3월에 왜적이 태안군(泰安郡)을 침범하였다. (….) ○ 왜적이 남양(南陽)을 침범해서 드디어 수원부를 불사르고 노략질하니, 부사 신인도(愼仁道)는 겨우 몸만 빠져 나왔으며, 원수 왕빈은 적과 싸워서 패하여 구원병을 청하였기에, 밀직부사 박수경(朴修敬)에게 명하여 가게 했다. 왜적이 또 한주(韓州)·임주(林州) 두 고을을 침범하였다. (….) ○ 5월에 가뭄으로 사면령을 내렸다. ○ 왜적이 서주(西州) 비인현(庇仁縣)을 침범하고, 또 수원부를 침범하였다. ○ 최공철(崔公哲)을 양광도 도원수로 삼았다.

(….) ○三月, 倭寇泰安郡.(….) ○倭, 寇南陽, 遂焚掠水原府, 府使愼仁道, 僅以身免, 元帥王賓, 與戰敗績, 請齊師, 命密直副使朴修敬赴之, 倭又寇韓林二州.(….) ○五月, 以旱赦. ○倭寇西州庇仁縣, 又寇水原府. ○以崔公哲爲楊廣道都元帥.(….)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卷之三十 辛禡[一], 戊午 【辛禡四年○大明 洪武十一年】>

정치/군사

1384년 왜적이 수원 공이향(工二鄉)을 침략했다는 내용.

○ 왜적이 수원 공이향(工二鄉)을 침략하니, 부사 허조(許操)가 적의 첩자 세 사람을 사로잡았다.

○倭, 寇水原工二鄉, 府使許操, 擒賊諜三人.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卷之三十二 辛禡[三], 甲子 【辛禡十年○大明 洪武十七年】>

정치/군사

1217년 진위에서 발생한 반란을 권득재 등을 보내 수원 등의 군사를 일으켜 토벌한 내용.

(….) ○ 진위현(振威縣) 사람 영동정(令同正) 이장대(李將大)와 직장동정(直長同正) 이당필(李唐必)이 나라에 일이 있는 틈을 타서, 같은 현 사람 별장동정(別將同正) 김례(金禮) 등과 더불어 반란을 꾀하여 무리를 모아 현령의 병부(兵符)와 인(印)을 빼앗고 창고를 열어 촌락에 곡식을 나눠 주니, 주린 백성이 많이 붙좃았다. 그리하여 이웃 고을에 공문을 보내어 자칭 정국병마사(靖國兵馬使)라 하고, 그 군사를 의병(義兵)이라 이름하였다. 행군이 종덕(宗德 경기 화성(華城))·하양(河陽 충남 아산(牙山)) 두 창(倉)에 이르자 곡식을 풀어서 군사를 먹이고, 제멋대로 가져가게 하고는, 광주(廣州)를 침범하려 하였다. 왕이 낭장 권득재(權得材)와 산원(散員) 김광계(金光啓) 등을 보내어, 안찰사 최박(崔博)과 함께 광주·수주(水州: 경기 수원(水原)) 두 주의 군사를 일으켜서 토벌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다시 충청도(忠淸道)·양주도(楊州道)의 군사를 징발해 공격하여 당필과 김례를 잡으니, 도적의 무리가 흩어져 달아나고 장대는 상주(尙州)로 달아났는데, 안찰사가 그를 사로잡아 형구를 채우고 서울로 보내어서 모두(당필·김례와 함께) 죽였다. (….)

(….) ○振威縣人, 令同正, 李將太, 直長同正, 李唐必, 乘國家有事, 乃與同縣人, 別將同正金禮, 謀不軌, 嘯聚徒衆, 劫奪縣令符印, 發倉賑貸, 村落飢民, 多附, 移牒旁郡, 自稱靖國兵馬使, 號義兵, 行至宗德, 河陽二倉, 發粟啗士, 恣其所取, 將寇廣州, 王, 遣郎將權得材, 散員金光啓等, 與按察使崔博, 發廣水二州軍, 討之, 不勝, 更徵忠淸楊州道兵, 攻之, 獲唐必及

禮，賊徒潰散，將大奔尙州，按察使擒之，械送于京，皆伏誅.(…)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제15권 고종안효대왕(高宗安孝大王)2, 丁丑四年【宋嘉定十年金興定元年蒙古太祖十二年】>

정치/군사

1362년 홍건적의 침입에 수원이 함락되자 군으로 강등하고 4부곡을 안성에 예속했다는 내용.
(…) 하4월 경성의 큰 우물에 흐린 물이 용솟음쳤다. ○ 복주를 승격시켜 안동대도호부(安東大都護府)로 하였다. 왕이 복주에 머물러 있을 적에, 복주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여 공궤를 올렸고, 마침내는 여러 도의 군사를 징발하여 경도를 수복하였기 때문에 승격시킨 것이다. 또 수원(水原)이 먼저 적에게 함락되었기 때문에 주군(州郡)들이 감히 적의 예봉(銳鋒)을 꺾지 못하였다. 그런데 조그마한 고을이지만 오직 안성(安城)만이 계획을 세워 적을 섬멸하였으므로 적이 감히 남쪽으로 더 내려오지를 못하였다. 그래서 수원은 급을 내려 군으로 하고 그에 속해 있던 4부곡(部曲)을 떨어내어 안성에 예속시켜 안성을 군으로 승격시켰다. (…)

안정복(安鼎福), <동사강목(東史綱目), 제14하, 임인년 공민왕 11년>

정치/군사

왜적이 용성(龍城) 등지를 침입하였다는 내용.

(…) ○ 왜가 교동을 분탕질하였다. 왜가 3월 이후로 각산수(角山戍)【지금의 연안부(延安府) 동쪽 35리에 있다.】의 배 3백여 척을 불 사르고, 또 한주(韓州)【지금의 한산(韓山)】와 진성창(鎭城倉)【임피(臨陂)의 진포(鎭浦)에 있는데, 일명 조종포(朝宗浦)라고도 한다.】에 침구하고, 면주(沔州)【지금의 면천(沔川)】와 용성(龍城)【지금의 수원(水原)】을 침구하여 군사가 착량(窄梁)에까지 이르렀고, 또 교동을 분탕질하였다. 이에 경성을 계엄(戒嚴)하고 방리(坊里)의 장정들을 징발하여 전력을 증강하고 안우(安祐)와 이춘부(李春富)를 동서강 병마사(東西江兵馬使)【동강(東江)은 지금의 풍덕부(豐德府) 동쪽 30리에 있고, 서강(西江)은 곧 예성강(禮成江)으로 지금의 개성 서쪽 30리에 있다. 이 두 강은 고려 때 조운(漕運)하는 배가 정박하던 곳이다.】로 삼았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군량(軍糧)이 계속되지 않으므로 모두 불러 돌아오게 하였다. (…)

안정복(安鼎福), <동사강목(東史綱目), 제14하, 무술년 공민왕 7년(원 순제 지정 18, 1358)>

정치/군사

1352년 포왜사(捕倭使) 김휘남(金暉南)이 왜구를 막으러 풍도(風島)에 왔다가 싸우지도 않고 증원병을 요청했다는 내용.

(…) 3월 (….) ○ 왜구가 교동(喬桐)에 불을 질렀다. 포왜사(捕倭使) 김휘남(金暉南)이 왜구를 막으러 풍도(風島)【지금의 수원부(水原府) 서쪽 45리에 있다.】에 이르러 적선 20척을 만나 싸우지도 않고 물러나 증원병(增援兵)을 청하였다. 얼마 있다가 좁은 물목인 안흥(安興)【지금의 태안군(泰安郡) 서쪽 34리에 있는데 뱃길이 험하다. 또 지금의 결성현(結城縣) 서쪽 18리에 있는데 곧 옛 안흥 부곡(安興部曲)이란 설도 있다.】·장암(長巖)【지금은 미상】등지에서 왜구와 싸워 적선 1척을 포획(捕獲)하였다. 왜구가 다시 파음도(巴音島)【지금은 보음도(浦音島)로 일컫는데 강화에 있다.】를 도륙(屠戮)하자, 휘남은 병력이 적어 대적

하지 못하고 물러가 서강(西江)에 있으면서 위급함을 고하니, 제영(諸領)의 병사 및 홀치(忽赤)를 뽑아 서강·갑산(甲山)·교동에 나누어 보내 방비하게 하니 도성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 왜구가 드디어 교동 갑산창(甲山倉)을 불사르매, 전 대언 최원(崔源)이 왜구와 싸워 물리치고 적선 2척을 포획하였다. (…)

안정복(安鼎福), <동사강목(東史綱目), 제14상, 임진년 공민경효왕(恭愍敬孝王) 원년 3월>

정치/군사

1351년 왜적이 남양(南陽) 쌍부현(雙阜縣)에 침입했다는 내용.

(…) 왜적이 자연도(紫煙島 지금의 인천(仁川)에 속한 섬이다)를 노략질하였다. 왜선 1백 30여 척이 자연도와 삼목도(三木島) 지금의 인천부(仁川府) 서쪽 40리에 있다. 에 침구하여 거의 다 불지르고 약탈하였다. 또 남양(南陽) 쌍부현(雙阜縣) 【지금의 수원(水原)에 속했는데 부치(府治)에서 45리 지점에 있다.】 에 침구하였다. 만호(萬戶) 인당(印璫)과 전 밀직(密直) 이권(李權)으로 하여금 서강(西江) 【예성강(禮成江)인데, 개경(開京) 서쪽 40리에 있다.】에 둔병(屯兵)하고 방비하라 하니 권이 말하기를, “신(臣)은 장수가 아니고 또 녹(祿)을 먹은 일도 없으니 감히 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며, 굳이 사양하고 가지 않았다. (…)

안정복(安鼎福), <동사강목(東史綱目), 제14상, 신묘년 충정왕 3년>

정치/군사

1378년 왜적이 태안군을 침구하여 남양(南陽)에 이르러 수원부를 노략했다는 내용.

(…) ○ 오부(五部)의 방리군(坊里軍)을 점고하여 배를 타고 가서 왜를 포획(捕獲)하게 하였다. 이때에 왜가 안산(安山)·인주(仁州)·부평(富平)·금천(衿川)을 침구하였으며, 강화부(江華府)도 자주 노략질당하였다. 또 태안군(泰安郡)을 침구하여 남양(南陽)에 이르러 수원부(水原府)를 노략하니, 원수 왕빈(王賓)이 패배하고서 원병(援兵)을 청하므로 밀직(密直) 박수경(朴修敬)을 명하여 구원하게 하였다. (…)

안정복(安鼎福), <동사강목(東史綱目), 제16상, 무오년 전폐왕 우 4년>

정치/군사

오위제에서 수원이 중부에 소속되며, 충융청이 창설된 뒤에는 광주 등지와 오영이 되었다는 내용.

경도(京都) (…) 오위(五衛) 【지금은 오위 병제(五衛兵制)가 아주 폐지되어 관명만 남았다. 장(將)과 부장(部將)이 순번을 나누어 입직하여 순경(巡更 야간 순행)한다. 의흥위(義興衛) 중위(中衛)이다. ○ 감사보충대(甲士補充隊)가 속한다. ○ 서울의 중부(中部), 개성부(開城府), 경기의 양주(楊州)·광주(廣州)·수원(水原)·장단(長湍)의 진관 군사(鎭管軍士)가 중부(中部)에 속하고, 강원도의 강릉(江陵)·원주(原州)·회양(淮陽)의 진관 군사가 좌부(左部)에 속하고, 충청도의 공주(公州)·홍주(洪州)의 진관 군사가 우부(右部)에 속하며, 충주(忠州)·청주(淸州)의 진관 군사가 전부(前部)에 속하고, 황해도의 황주(黃州)·해주(海州)의 진관 군사가 후부(後部)에 속한다.】 (…)

충융청(攄戎廳) 【예전에는 북부 진장방(鎭長坊)에 있었는데, 영종 26년에 창의문(彰義門) 밖 연융대(鍊戎臺)에 옮겨 설치했으며, 신영(新營)의 영사(營舍)는 3백여 칸이다. 인조 2년에 창설하여 수원(水原)·광주(廣州)·양주(楊州)·장단(長湍)·남양(南陽) 등의 진(鎭)과

오영(五營)의 군무(軍務)를 절제(節制)한다. 영종 정묘년(1747)에 경리청(經理廳)을 폐지하고, 북한영성장(北漢營城將) 이하를 본청에 소속시켰고, 경오년에 또 경기 병사(京圻兵使)를 겸하여 북한(北漢)에 출진(出鎭)했다가, 경진년에 출진을 폐지하고 병사(兵使)를 감했다. 정종조에 수원에 영(營)을 설치한 뒤에 수원진(水原鎭)의 군무를 절제했다가 폐지했다. 현종 병오년(1846)에 총영(摠營)이라고 개칭하였다가, 기유년에 복구하여 청(廳)을 설치했다.】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2권 비고편 - 동국여지비고 제1권>

정치/군사

김천일(金千鎰)이 전라 병사 최원(崔遠)과 군사를 합쳐 수원(水原)에 도착했다는 내용.

8월 (….) ○ 전라도 유생 양산숙(梁山壽)과 곽현(郭賢)이 와서 말하기를, “김천일(金千鎰)이 의병을 일으켜 전라 병사 최원(崔遠)과 더불어 군사를 합쳐 수원(水原)에 도착하였습니다. 고경명(高敬命)·조헌(趙憲)도 또한 기병하여 서로 이어 왔고, 경상도에는 김면(金沔)·정인홍(鄭仁弘)·박성(朴惺)·곽재우(郭再祐) 등이 기병하여 적을 토벌하고 있습니다.”하니, 상이 양산숙 등을 불러들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의 변변치 못한 죄 때문에 너희들이 천리 길을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왜적의 속에서 벗어나 여기에 이르렀으니, 부끄러움을 어찌 말하랴.”하였다.

(…) ○全羅道儒生梁山壽郭賢來言.金千鎰起義兵.與全羅兵使崔遠.合兵到水原.高敬命趙憲亦起兵相繼來.慶尙道亦有金沔鄭仁弘朴惺郭再祐等.起兵討賊.上召山壽等入.謂之曰.以予無狀之罪.爾等跋涉千里.出賊中而至.慚惡何言.(…)

박동량(朴東亮), <대동야승(大東野乘), 기재사초하(寄齋史草下), 壬辰日錄三>

정치/군사

경상감사 김수 등이 치계한 내용으로 관군이 6월 3일에 수원(水原) 땅에 결진(結陣)했다는 내용.

○ 6월 (….) ○ 경상도 관찰사 김수(金睟)·전라도 관찰사 이광(李洸)·충청도 관찰사 윤선각(尹先覺) 등이 치계하기를, “신 등이 기마병과 보병과 시종군(侍從軍) 6만여 인을 인솔하고 본월 3일에 수원(水原) 땅에 결진(結陣)하였습니다. 양천(陽川)의 북포(北浦)로 군사를 건너고자 하오나, 경성에서 앞뒤로 협공하는 형세가 없지 아니하니, 조정에서 급속히 지휘 하소서. 신 등도 또한 이미 한응인(韓應寅)에게 통문하여 그 회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하였다. (…)

六月 (….) ○慶尙道觀察使金睟.全羅道觀察使李洸.忠淸道觀察使尹先覺等.馳啓曰.臣等率騎步僉從并六萬餘人.於本月初三日.結陣於水原地.欲由陽川北浦濟師.而在京城不無腹背挾攻之勢.自朝廷急速指揮.臣等亦已通文韓應寅.待其回報矣.(…)

박동량(朴東亮), <대동야승(大東野乘), 기재사초하(寄齋史草下), 萬曆二十年壬辰>

정치/군사

1592년 11월 전라도 관찰사 권율이 군사를 일으켜 진영을 수원에 두었다는 내용.

(…) 11월 (….) 전라도 관찰사 권율이 군사를 일으키고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여 진영을 수원에 두었다. 이때에 김천일 등은 오랫동안 강화에 있으면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고, 우성전(禹性傳) 등은 더욱 감감 무소식이었다. 상이 우성전 등을 불러 군사를 이끌고 강을

건너 곧장 평안도로 가서 김명원과 군사를 합치라고 하였으나, 우성전은 병으로 가지 못했다. (…)

(…) 全羅道觀察使權慄.起兵勤王.下營于水原.時金千鎰等.久在江華.未有所措.禹性傳等.尤寥寥無所聞.上召性傳等.領兵渡江.直至平安道.使與金命元合兵.而性傳病不得行.(…)

박동량(朴東亮), <대동야승(大東野乘), 기재사초하(寄齋史草下), 壬辰日錄[四]【起萬曆二十年九月盡十二月 凡四朔】>

정치/군사

김사중(金士重)이 기병하여 수원에 도착하자 특별히 창의사라 하였다는 내용.

(…) ○ 나라 임금의 명은 지제교(知製敎)가 관장하고, 통정 이하는 모두 선발에 참여하게 된다. 김사중(金士重)이 기병하여 수원에 도착하자, 조정에서 특별히 창의사(倡義使)라 칭하고, 이어 교서를 내려 위로하고 교유하였다. 그런데 유희부가 승정원에 있으면서 지제교의 일을 가로채 행하고 크게 절의가 있다고 칭찬하여 사람들에게 과시하였다. (…)

(…) ○國家絲綸之命.知製敎掌之.通政以下.皆預選焉.金士重起兵到水原.朝廷特稱倡義使.仍賜敎書慰諭.晦夫在政院.掠行知製敎之事.盛稱節義.誇示於人.(…)

박동량(朴東亮), <대동야승(大東野乘), 기재사초하(寄齋史草下), 壬辰雜事>

정치/군사

1592년(선조 25) 5월 용인(龍仁)·수원(水原)·광주(廣州) 등지가 강그리 불났다는 내용.

(…) 5월 1일. 흉악한 왜적이 경기도에 가득 들어와 한강 이남이 연기와 화염으로 하늘이 자욱하고 포성이 땅을 뒤흔드니 용인(龍仁)·수원(水原)·광주(廣州) 등지가 강그리 불타버린다.(…)

(…) 五月初一日.凶賊充斥京畿.漢江以南.烟焰漲天.炮聲動地.龍仁,水原,廣州等地.盡爲焚蕩.(…)

조경남(趙慶男), <대동야승(大東野乘), 난중잡록(亂中雜錄) 1, 壬辰上【萬曆二十年宣祖二十五年】>

정치/군사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당시 경기도 수원(水原) 일대의 왜적과 대응 양상을 기술한 내용.(…) ○ 경기도 수원(水原)에 주둔한 왜적이 글로 고시하기를, “지난 20일 일본에서 사람을 서울로 보내 이 친구를 보내게 했다. 저 일본 사람이 길에서 조선 사람이 머리를 채취하는 것을 목은즉 그 이튿날 목을 벤 사람을 내놓고 그 수효를 세었다. 이것은 악한 사람이 한 짓이다. 또 조선 사람에게 기식(寄食)하던 5명을 사로잡았는데 그 가운데 4명에게는 사형을 집행했고 남은 한 사람은 명 나라를 다루는 계략에 통해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지나 가게 해준 것이다. 이 자가 양성부(陽城府)에 있는 거처로 돌아가는 것을 물어서 양성의 촌 백성이 그를 집에 돌려보내 주었다. 풍신행정(豐臣行貞)이 서울에서 수원으로 보내졌는데 그가 수원에 체류하는 동안 장군 수종(秀宗)이 지령서를 주어 이르기를, ‘백성 남녀는 집으로 돌아가게 할 것. 수원군을 예로 취하고 단속하라.’ [去二十日日本差人至京城使托差越斯友朋彼日本人於道問朝鮮探首則明日出人數右惡人打果又生擒寄食五人中四人行死罪一人者此通爲明計差過也此者問在陽城府居歸云陽城村氓爲歸家豐臣行貞從京城差越水原滯留之間將軍秀宗任旨書百姓男女令歸宅者水原郡禮取可束] 하였다.” 하다. 글 뜻이 알아보기 힘들어 재록

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 역시 왜란 중에 일어난 한 가지 일이기 때문에 써둔다.
(…)

○ 전라 좌우도의 선비들이 의병(義兵)을 일으킬 것을 제창하다. 좌도는 전 부사인 첨지 고경명(高敬命)을 대장에 모셨고, 학유(學諭) 유팽로(柳彭老)와 학관(學官) 양대박(梁大樸)을 종사(從事)로 하고, 정랑(正郎) 이대운(李大胤)과 정자(正字) 최상중(崔尙重)·양사형(楊士衡)·양희적(楊希迪) 등을 모량유사(募糧有司)로 삼았다. 우도는 전 부사인 김천일(金千鎰)을 대장으로 모셨다. 【고경명은 광주(光州) 사람으로 전에 동래사(東萊府使)를 지냈고, 김천일은 나주(羅州) 사람으로 전에 수원사(水原府使)를 지냈다.】 (…)

6월 (….) 3일. 삼도(三道)의 군대가 수원(水原)에 머무른다. 이광(李洸)이 독성(禿城)에 진을 쳤다. 본부의 왜적은 대군이 갑자기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 전에 이미 도망쳐 용인(龍仁)의 왜적과 합세하였다. (…)

이제 왜적이 이미 고개를 넘어갔고 서울이 이미 함락되어 버리자 군사를 거느리고 근왕하겠다는 뜻을 행재소에 치계(馳啓)하고 겨우 1천여 명을 거느리고 운봉(雲峯)까지 갔는데, 이어 초유사가 전라 순찰사가 공주로부터 돌아 내려오고 전주에서는 아직 군사를 조달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또 초유사의 강력한 만류에 따라 돌아와 안음(安陰)에 머물렀다. 급히 와서 구원하라는 교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고 마음에 맹서하여 홀로 1백 명을 거느리고 수원까지 나가서 머물렀는데, 도중에서 소수의 왜적들을 만났으나 목 베어 죽인 것이 적 많아 왜적은 퇴각해 가 버렸다. (…)

곽재우는 갑작스레 삼도의 군대가 수원에서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미친 사람같이 위험하고 망령된 말을 무수히 발설하였고, 순찰사가 글을 보내 그를 칭찬하고 장계를 올려 그의 공을 아뢰었어도 여전히 마음을 돌리지 않아 사람들 중에는 혹 그렇게 하면 양화를 입게 될 것이라고 그를 경계하기도 하였으나, 곽재우는 반드시 검을 거머잡고 성을 내고는 하였습니다. 지금 곽재우는 갑작스레 두 차례나 순찰사의 영문(營門)에 격문을 보내 죄를 차례로 늘어놓고 토죄하겠다고 떠들어대며, 또 여러 읍의 의병장들에게 통문을 내어 토죄할 뜻을 말 하였습니다. 신은 그 소식을 듣고 경악하여 모르는 결에 눈이 휘둥그래져 자리에서 떨어졌습니다. 순찰사가 신에게 공문을 보내서 의령의 관원을 시켜 곽재우를 잡아 가두라 하였으나, 신이 가만히 생각하기로는, 곽재우가 실제로 반역할 마음이 있다면 그가 한창 정병을 장악하고 있으니 한 역사(力士)에게 잡힐 상대가 아니고, 만약 반역할 마음이 없다면 글 한 장으로 족히 깨닫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곧 곽재우에게 친서를 내어 여러 가지로 비유를 들어 일깨워 주었고 김면 역시 글을 보내 경계하였던 바, 곽재우는 타 이르는 말에 마음을 바꿔 순종하였고, 진주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군사를 이끌고 달려가 구원하고자 이미 떠나갔다고 합니다. 곽재우가 일개 도민(道民)으로 도주(道主)를 범하려 하고 심지어 도주의 죄를 성토하여 격문을 보내고 하였으니, 비록 나라를 위해 분노하다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는 하지만 형적이 난동을 부리는 백성이 된 바에는 곧 토죄해야 의당합니다. 그러나 곽재우는 온 나라가 함몰된 후에 고군(孤軍)으로 용기를 떨쳐 왜적을 격파해내어 도내의 남은 백성들이 그를 간성(干城)으로 의지하고 있는데, 지금 난언(亂言) 때문에 곧 주륙(誅戮)을 가한다면, 남은 성을 보존하고 왜적을 방어할 계책이 없어져 군사와 백성들은 그의 죄를 알지 못한 채 일시에 무너져 흩어질 것입니다. 신이 사태를 임시로나마 진정시킬 계획으로 재삼 경계하여 곽재우가 이미 순종하였는데 도순찰사에게 죄를 죄었으니 아마도 서로 용납하기 어려워 다른 변고를 야기시킬까 염려됩니다. 신이 듣기에는 을묘년 왜변 때 전라 감사 김주(金澍)가 영암군(靈嶺郡)으로부터 다른 읍으로 돌아났던 바,

전 수원 부사 윤기(尹箕)가 그때 유생의 신분으로 포위된 성 안에서 검을 뽑아 그를 목 베려고 하였는데 김주는 성내지 않고 담소로 대처하였습니다. (…)

그래서 호서(湖西)가 불통되고 적의 세력이 치성하면 호남의 군량을 어떻게 수원(水原)에 수송할 것이며, 【이때 본도 병사 최원(崔遠)·의병장 김천일(金千鎰)이 군사를 거느리고 수원에 주둔하였다.】 조정의 소식을 어떻게 사방에 전달하겠습니까. 이에 군사를 옮겨 진산으로 들어가서 금산(錦山)에 있는 적의 후방을 공격하여 용담·무주의 적으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는 염려를 버리지 못하게 하고, 서서히 두 고을 군사를 기다려서 곧장 적의 굴혈을 엄습하여 흉악한 무리들로 하여금 나아가나 물러가나 근거가 없게 만들어 놓으면, 국가를 보전하는 상책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역시 완산부(完山府)를 구원하는 하나의 좋은 계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들이 지금 만약 예전 상도만을 고수하고 변통할 줄을 모른다면 나고경명 역시 군사는 외롭고 힘은 적어서 선뜻 움직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호남의 적도 쉽게 전제(剪除)할 수 없고 수원의 아군이 흑시라도 또 시일만 허송하게 될 것입니다. 병사가 거느린 군사는 모두 호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만약 적의 무리가 오늘에 아무 지대를 통과하고 내일에 아무 현(縣)에 침입한다는 소문을 듣는다면, 식량은 공급되지 않고 군의 정세는 흉흉할 것이니, 이야말로 목전에 닥친 위급이라 비록 지혜있는 자가 아니라도 짐작하고 남음이 있을 것이외다. 그렇다면 두 원님이 합세해서 금산의 적을 치는 것은 다만 호남을 보장하는 계책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병사를 위하여 서로 응원하는 꾀도 될 것입니다. 옛 사람의 말에, “장수가 밖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 임금의 명령도 받지 않을 수 있다.” 하였으니, 이는 일의 기미에 임하여 융통성이 있는 것을 귀하게 여김이요, 마치 교주 고슬(膠柱鼓瑟: 변통할 줄 모른다는 뜻)하듯이 외곬으로 나가는 것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병사가 멀리 천리 밖에 있어 이 도리를 알지 못하고 지극히 위급한 처지에 빠졌으니, 어찌 가까운 데 있는 적을 버리고 후회를 남겨서야 되겠습니까. 사사로운 생각으로는, 두 원님이 위로 수원의 기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아래로 금산의 약속도 돌아보지 않는다면 뒷날의 공론이, “적의 칼날을 도피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하지 않겠습니까. 원컨대 스스로 계획을 잘해서 남의 비난을 듣지 말도록 하시오. 《정기록(正氣錄)》에 나온다. 고종후(高從厚)가 지었다. (…)

광주로 말하면 박광옥(朴光玉) 군과 더불어 흠어져 도망간 군사를 분주히 개유(開諭)하고 수습해서 천자(賤子)인 고종후(高從厚)와 고인후(高因厚)로 하여금 나누어 거느리고 수원(水原)의 전소(戰所)에 가서 광주 목사에게 교부(交付)하게 하였습니다. 이때에 순찰사는 도중에서 머뭇거리며 모든 군사를 돌려 진위(振威)에 당도하여 4, 5일 동안 유숙하노라니 사람은 모두 비를 맞고 서 있었습니다. (…)

○ 그 후 고종후가 이적(李適)에게 답장을 냈는데 다음과 같다.

섬 오랑캐가 난리를 꾸며 임금께서 멀리 파천해 계시니 한 집안의 삼 부자가 함께 벼슬에 오른 이상, 재주는 비록 천박하나 차마 앉아서 국가가 전복되는 것을 볼 수 없어 도내 인사들과 함께 의병을 일으킨 것입니다. 저 고종후는 죽은 아우와 더불어 먼저 본주의 무너진 군사들을 개유시켜 거느리고 가서 수원(水原)의 진에 부속시키고, 장차 평양으로 향하려 하다가 길이 막혀 돌아왔습니다. (…)

○ 경기도 수원 충의위(忠義衛) 홍언수(洪彦秀)가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토벌하였다. 홍언수가 미천한 몸에서 낳은 아들이 있으니, 이름은 홍계남(洪季男)으로 용맹과 힘이 무리중에서 뛰어났다. 경인년(1590, 선조 23)에 통신사(通信使)의 군관이 되어 황진(黃進)과 더불어 일본을 다녀왔기로 그놈들의 강약을 자세히 알고 있었는데, 이에 이르러 아버지의 군사를 따라

적을 쳐서 여러 번 싸워 승첩을 올렸다. 전후로 적의 귀를 베어 온 것이 백여 개에 달했으므로, 인근에 진을 친 적들이 위축되어 감히 나오지 못하였다. 곧 군공(軍功)을 들어 본부(本府)의 판관을 제수했다. (…)

○ 송제민(宋濟民)의 격문은 다음과 같다.

삼가 나 송제민(宋濟民)이 지난달 23일에 의병장을 따라 수원산성(水原山城)에 당도하여 5일 동안 머물렀는데, 서울에 있는 적이 아직 치성하고 청주(淸州)·진천(振川) 등지의 유동하는 적이 역시 날뛰는데 외로운 군사로 깊이 들어가면 군량을 수송하지 못할 염려가 있었으므로, 온 진중이 모두 비생(鄙生)을 추천하여 충청도로 가서 의병을 모집하여 길을 막고 있는 적을 소탕하고, 구원 오는 군사를 통하게 하였다. (…)

○ 김천일(金千鎰)·최원(崔遠)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수원(水原)으로부터 인천(仁川)으로 향하면서 본도에다 구원병을 요청하니, 이광(李洸)이 조방장 이유의(李由義)와 진도군수 선거이(宣居怡) 등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가 구원하게 하다. (…)

(…) ○京畿水原屯賊書示云.去二十日.日本差人至京城.使托差越斯友朋.彼日本人.於道問朝鮮採首.則明日出人數.右惡人打果.又生擒寄食五人中四人.行死罪一人者.此通爲明計差過也.此者問在陽城府居歸云.陽城村氓爲歸家.豐臣行貞.從京城差越水原滯留之間.將軍秀宗任旨書.百姓男女令歸宅者.水原郡禮取可束.文意險斷.不可錄.而此亦亂中之一事.故書之.(…)

○全羅左右道士子等倡舉義旅.左道則拜前府使僉知高敬命爲大將.學諭柳彭老,學官梁大樸爲從事.正郎李大胤,正字崔尙重,楊士衡,楊希楚等爲募糧有司.右道則拜前府使金千鎰爲大將.敬命光州人.前爲東萊府使.千鎰羅州人.前爲水原府使.(…)

○初三日.三道之師次于水原.李洸陣禿城.本府之賊.聞大軍猝至.前二日已遁.合勢于龍仁之賊.(…)

今者賊已踰嶺.京師既陷.則領軍勤王之意.馳啓于行在所.僅率千餘名.行到雲峰.因招諭使.聞全羅巡察之自公州還.下全州.未及調兵.且從招諭使之力止.還駐安陰.一見急急來援之有旨.垂泣誓心.獨領百人.進止水原.路遇零賊.斬殺甚多.賊乃退去.(…)

再祐之功居多.忽聞三道師之潰於水原.有似發狂之人.危言妄語.無數發說.巡察雖貽書褒美.啓聞上功.亦不回意.人或以取禍戒之.則必按劍而怒.今忽再度移檄巡察營門.歷數其罪.聲言欲討.且通文列邑義兵將.諭以討罪之意.臣聞之驚愕.不覺瞋然失席.巡察移關於臣.令宜寧官捉囚.臣竊念再祐實有逆心.則方握精兵.非一力士之所捕.若無逆心.則一書足以開悟.即下手書于再祐.譬曉多端.金沔亦貽書戒之.再祐幡然聽順.聞晉州危急.乃提兵馳援.已爲發去.再祐以一介道民.欲犯道主.至於聲罪移檄.雖自謂爲國憤憤.以至於此.跡涉亂民.即爲除討宜當.而再祐當舉國陷沒之餘.能以孤軍.奮勇擊賊.道內殘民.倚爲干城.今以亂言.即加誅戮.則保存餘城.禦賊無計.軍民未知其罪.一時潰散.臣欲爲彌縫鎮定之計.再三戒勅.已爲從順.而得罪於都巡察使.恐難相容.惹起他變.臣聞乙卯年倭變時.全羅監司金澍自靈岳郡.出走他邑.前水原府使尹箕.時以儒生.在圍城中.欲拔劍斬之.澍不爲怒.談笑處之.(…)

如光州則朴君光玉.奔走開諭.收拾散亡.令賤子從厚.因厚分領.到水原戰所.交付于光牧.是時.巡察.在道遲回.諸軍到振威.留宿四五日.人皆兩立.(…)

○其後高從厚.答李適書云云.島夷構孽.乘輿遠狩.一家三父子.同在仕版.才雖淺短.不忍坐視邦家之覆.與一道士友.共舉義兵.從厚與亡弟.先已開諭本州潰卒.領付水原.將向西都.路阻而回.(…)

○京畿道水原忠義衛洪彥秀舉義兵討賊.彥秀有賤子.名季男.勇力超絕.庚寅爲通信使軍官.與黃進等往還日本.詳知彼賊強弱.至是隨父兵討賊.累戰皆捷.前後獻馘.幾至百餘級.近地屯賊.畏縮不出.即以軍功.除本府判官.(…)

○宋濟民檄.伏以濟民.去月二十三日.從義將到水原山城.留五日.以京城之賊尙熾.而清州, 鎭川流賊亦肆.孤軍深入.糧途可慮.故一軍共推鄙生.送募忠清義兵.以清梗路之賊.以通來援之兵.(…)
○金千鎰, 崔遠等領軍.自水原向仁川.徵援本道.李洸以助防將李由義.珍島郡守.宣居怡等領軍馳援.

조정남(趙慶男), <대동야승(大東野乘), 난중잡록(亂中雜錄)1, 壬辰上【萬曆二十年宣祖二十五年】>

정치/군사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수원 등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투 상황을 기술한 내용.

그런데 이번에 광현 등이 수로와 육로를 거쳐 도달하여 고경명(高敬命)·김천일이 의병 수천을 모집하여 절도사 최원의 병마(兵馬) 2만과 함께 수원에 나와 둔것이라고 보고하니, 덕이 없는 나로서 남이 나를 위해 죽을 힘을 다하여 줄이 어찌 이에까지 이르렀는고. 우리 조종들의 깊은 인애(仁愛)와 후한 은택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되어 맺혀진 것이, 아! 지극한 것이로다. (…)

호남에도 또한 전 부사 고경명과 김천일 등이 의병 수천 명을 모집하여 본도 절도사 최원의 병마 2만과 더불어 나아와 수원에 머무르면서 바야흐로 경성을 회복하도록 도모하고, 그의 부하 양산숙 등으로 하여금 수로와 육로로 달려와서 행재(行在)에 아뢰는데, 내가 그의 아뢰는 보고 눈물이 글썽거리 한편으로는 위로되기도 슬펐다. (…)

○ 체찰사 정철(鄭澈)이 아산(牙山)에 배를 대었는데 전라 감사 권율이 지나는 길에 찾아가 만나서 근왕하러 간다는 뜻을 말하였더니, 정철이 말하기를, “행재소는 길이 멀어 도달하기가 쉽지 않고 또 임금의 기체가 평안하시며, 천병이 크게 이르러 군사는 많고 먹을 것은 적어 자용(資用)이 심히 군색하니, 먼 지방의 군사가 가벼이 나아가지 말 것이요 말은 지방으로 물러가 보존하는 것이 오늘날의 상책이다.” 하다. 권율이 듣지 않고 전진하여 수원부의 독성(禿城)에 진을 치다. (…)

○ 전라 감사 권율이 수원 독성에 있으면서 행조(行朝)에 장계하니 임금이 찻던 칼을 풀어 전하여 보내 주며 말하기를, “모든 장수 중에 명령을 받지 않는 자가 있거든 이 칼로 처치하라.” 하다. 이때에 경성의 적이 호남 군사가 또 수원에 이르렀다는 말을 듣고 군사 수만 명을 내어 길을 나누어서 침범하였다. 권율이 성을 굳게 지키고 움직이지 않으니 적은 오산(烏山) 등지에 세 군데 병영을 만들고 날마다 도전하였으나, 권율이 또한 응하지 않고 때때로 기병(奇兵)을 내어 매복시켰다가 쏘고 베니 적이 밤에 병영을 불태우고 도로 경성으로 들어가다. 바야흐로 적이 침범할 때에 권율이 날마다 체찰사에게 보고하여 본도에 응원병을 처하니, 정철이 전라 도사에게 급히 글을 보내기를, “흉한 적이 수원 땅에 가득하여 청회(靑回) 오산의 들판에 적진이 퍼져 있고, 독성 밑에는 날마다 싸우지 않을 때가 없다. 한 도의 주장이 바야흐로 적병의 포위 속에 있는데 사방을 돌아보아도 응원이 없으므로 날마다 3번씩이나 급히 보고하니, 본도의 관군과 의병을 성화(星火)같이 발송하여 수원성의 군사를 구하라.” 하다. 도사 최철건(崔鐵堅)과 변사정(邊士貞)·임희진 등 의병이 달려가 응원하다. (…)

○ 최원(崔遠)은 노쇠하였으므로 면직되고, 진도 군수(珍島郡守) 선거이(宣居怡)로 전라 병사를 삼다. 광준(郭峻)의 관직을 삭탈하여 백의종군(白衣從軍)하게 하고 조방장 이복남(李福男)으로 전라 방어사를 삼다. 거이는 이때에 수원(水源)에 있었는데, 최원이 강화(江華)로

부터 나와서 인부(印符)와 군사를 인계하다. (…)

(…) 玆者郭玄等.水陸得達.報高敬命金千鎰.糾義旅數千.而與節度使崔遠兵馬二萬.進屯水原云.予之不德.何能得人死力至此哉.我祖宗深仁厚澤.感結人心者.吁其至矣.(…)

湖南亦有前府使高敬命金千鎰等.糾合義兵數千.與本道節度使崔遠兵馬二萬.進屯水原.方謀恢復京城.令其徒梁山礪等.水陸間關.馳奏行在.予見奏泫然一慰而悲也.(…)

○全羅監司權慄在水原禿城.啓于行朝.上解劍馳賜曰.諸將不用命者.以此從事.時京賊聞湖南兵又到水原.出兵數萬.分道來侵.慄堅壁不動.賊留下三寨于烏山等處.日日挑戰.慄亦不應.時出奇兵.埋伏射斬.賊夜燒營.還入京城.方賊侵犯之時.慄日報體察使.徵援于本道.鄭澈馳羽書于全羅都事云.兇賊彌滿水原之地.青回烏山之野.賊陣擺布.禿城之下.無日不戰.一道主將.方在賊兵圍擁之中.四顧無援.日三飛報.本道軍官義兵.星火發送.以救水城之師云云.都事崔鐵堅崔邊士貞在希進等義兵馳援.(…)

○崔遠以衰老遞.以珍島郡守宣居怡.爲全羅兵使.削奪郭峻官職白衣從軍.以助防將李福男.爲全羅防禦使.居怡時在水原陣.崔遠自江華出來.交授印符及軍兵.(…)

조경남(趙慶男), <대동야승(大東野乘), 난중잡록(亂中雜錄)2, 壬辰下【萬曆二十年我宣廟壬辰二十五年】>

정치/군사

임진왜란 당시 권율(權慄)이 수원에서의 활약상을 기술한 내용.

(…) 하물며 한 도의 대장으로 순찰사·병사 및 창의사(倡義使)가 수십만 군사를 거느리고 **혹은 수원에 둔치고 혹은 강화에 진쳐서** 수륙의 요로를 질러 막았고, 체찰사와 소모사가 한 도의 정예한 군사를 모두 징발하여 서로 응원을 하고 있으니, 추한 종자들을 다 섬멸할 것을 곧 기다릴 수 있습니다. (…)

전라 감사 권율(權慄)이 수원으로부터 군사를 나누어 두 패로 만들어 4천 명을 병사 선거이(宣居怡)에게 주어 금천산(衿川山)에 둔쳐서 응원이 되게 하고, 스스로 1만여 명을 거느리고 양천강(楊川江)을 건너서 고양(高陽)의 행주 산성(幸州山城)에 나아가 둔쳤다. (…)

(…) 而況一道大將若巡兵使若倡義使.領數十萬衆.或屯水原.或陣江華.以扼水陸要路.如體察使.如召募使.盡發一道精兵.以爲聲援.殲殄醜類.可翹足待.(…)

以全羅右義兵將崔慶會代之.以黃進爲忠清兵使.高彥伯爲慶尙左兵使.全羅監司權慄自水原分軍爲二.以四千人.付兵使宣居怡.軍于衿川山.使爲聲援.自領萬餘兵.渡楊川江.進屯高陽幸州山城.(…)

조경남(趙慶男), <대동야승(大東野乘), 난중잡록(亂中雜錄)2, 癸巳【萬曆二十一年我宣廟二十六年】>

정치/군사

경리(經理)가 마귀와 함께 수원에 이르러 목재(木寨)를 쳤다는 내용.

(…) 임금이 밤낮으로 울면서 경리(經理)에게 호소하니 경리는 위안시키며 말하기를, “혹시 관군(官軍)이 불리하더라도 주군(主君)의 궁권(宮眷)들은 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고, 곧 마귀와 같이 대군을 영솔하고 길을 떠나 **수원에 이르러 목재(木寨)를 치고**, 갈원(葛院)에 군대를 보내어 개천(介川)의 상하에다 매복시켜 후원부대로 삼았다. 적병이 공주(公州)·천안(天安)으로부터 바로 서울로 향하여 5일 동틀 무렵에 전주참(田秋站)을 경유하여 홍경원(洪慶院)으로 향하니, 선봉이 벌써 금오평에 이르렀다. 명병의 좌협(左協)은 유포(柳

浦)로 나가고 우협(右協)은 영통(靈通)으로 출발하여 대군이 곧장 평탄한 길을 따라갔다. 바라 소리가 세 번 일어나니 함성이 사방에서 어울렸다. 연달아 대포를 쏘고, 모든 깃발이 일제히 흔들리고, 철마(鐵馬)들이 구름처럼 떼지어 날뛰고, 창검이 펼쳐 나가는 듯하였다. 달려가 돌입하면서 마구 무찌르니 적의 시체가 들에 가득했다. 하루에 6차례나 맞붙어 싸우니 왜적의 형세가 산란해졌다. 날이 저물어서 각각 군사를 거두어 둔취(屯聚)하였다. 청정은 밤에 여러 군대에 명령하여 내일 아침에 죽음으로써 싸울 계책을 결정토록 했다. 해생은 비밀리 여러 장수에게 명령하기를, “오늘 왜적의 형세를 보니 내일에 결사적으로 싸울 것을 결심하고 물러갔으니 부디 죽음을 걸고 용감하게 싸워서 군율을 어기지 말라. 그리고 저 왜적은 교활하니 패하여 물러가게 되면 반드시 산길로 해서 갈 것이다. 험한 곳에서는 기병과 보병이 형세가 다르니 끝까지 추적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였다. 다음날 먼동이 틀 때 적병은 일제히 계속 포를 쏘며, 학익진(鶴翼陣)을 벌이고 진군하여 오는데, 흰 칼날을 서로 휘둘러 살기가 하늘까지 뻗치고 기괴한 형상은 사람들의 눈을 당혹스럽게 하였다. 명병이 포를 응사하면서 돌연히 일어나니 철폐(鐵鞭) 아래에 왜적은 손을 쓸 사이도 없었다. 싸움이 붙은 지 얼마 안 되어 적병이 패하여 도망하여 목천(木川)·청주(淸州)를 향하여 달아났다. 대군의 힘이 다 되고 또 산간 벽지의 길로 나갔기 때문에 마귀는 추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군사를 휴식시켰다가 길을 나누어 추격하여 내려갔다. 그 뒤에 왜적이 본국으로 돌아가 조선에서의 3대전(三大戰)을 말하기를, “평양(平壤)·행주(幸州)·금오평(金烏坪)이라.” 하였다 한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금오평 싸움에 명병은 홍경원에 결진하고 비밀리 화약을 군막의 풀숲에 묻었다가 왜적이 이르러 오자 거짓 진을 버리고 달아나니, 적병이 앞을 다투어 들어와 막을 불사르다가 화상을 입고 죽은 자가 많았다.” 하니, 이 말이 사실에 가깝다. **경리(經理)는 수원에 가지 아니 하고 있다가** 임금과 같이 종남산(終南山)에 올라가 멀리 기세를 바라보고 말하기를, “적병이 패하여 달아났다.” 고 하였다. (…)

(…) 上日夜泣懇于經理.經理慰解曰.倘官軍不利.主君宮眷.可想救活.卽與麻貴領大軍啓行.至水原下寨.遣兵于葛院.埋伏于介川上下.以爲後援.賊兵自公州天安.直向京城.初五日黎明.田秋福向洪慶院.先鋒已至金烏坪.天兵左協出柳浦.右協發靈通.大軍直從坦途.鑼響三成.喊聲四合.連放大炮.萬旗齊颺.鎗馬雲騰.槍劍奮飛.馳突亂斫.賊屍遍野.一日六合.賊勢披靡.日暮各斂兵屯聚.清正夜令諸軍.決明朝死戰之計.解生密令諸將曰.今看賊勢.明當決死以退.努力敢死.毋坐軍律.但彼賊狡黠.倘至敗退.必由山路而去.險阻之地.騎步異勢.不可窮追.翌日平明.賊兵齊放連炮.張鶴翼以進.白刃交揮.殺氣連天.奇形異狀.驚惑人眼.天兵應炮突起.鎗鞭之下.賊不措手.合戰未幾.賊兵敗遁.向木川淸州而走.大軍力竭.且路出山僻.麻貴不許跟追.休兵分道追下.其後賊還巢.稱朝鮮三大戰.平壤幸州金烏坪云. 或云金烏之戰天兵結陣于弘慶院暗埋火藥于幕草及賊至天兵佯棄陣走賊兵爭入焚幕爲火傷死者多此言近似且經理不往水原與上共登終南山望見氣曰賊兵敗走 (…)

조경남(趙慶男), <대동야승(大東野乘), 난중잡록(亂中雜錄)3, 丁酉【萬曆二十五年宣祖三十年】>

정치/군사

1599년(선조 29) 적병이 서울로 간다고 하니 수원(水原) 등지의 사람들이 모두 집을 꾸렸다는 내용.

(…) 12일 도원수 권율이 전라 감사 박홍로(朴弘老)와 모든 장수와 군사를 거느리고 여산(礪山)을 거쳐 이산(尼山)으로 향하였다. 권율이 길에서 적세가 매우 치성함을 듣고 충용장

군(忠勇將軍) 김덕령에게 명령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오게 하고, 또 군관을 영남 여러 진(鎭)에 나누어 보내어 항복한 왜병을 수합하여 거느리고 오게 하였다. 이때에 남원 판관 김유(金驪)는 이미 갈리고 이덕회(李德恢)가 대신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군사를 거느리고 따라와 토벌하였다.

○ 적병이 서울로 간다고 큰소리를 치니 서울이 술렁거리고 두려워하고, 진위(振威)·수원(水原) 땅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짐을 꾸려 가지고 있었다. 이때에 반군이 지나는 곳마다 발을 매던 자는 호미를 들고, 행상(行商)하던 자는 지팡이를 들고 분주히 즐겨 따르지 않는 자가 없었다. 아! 이것이 어찌 그 본심일까? (…)

(…) ○十二日. 都元帥權慄. 與全羅監司朴弘老. 領率諸將軍卒. 由礪山向尼山. 權慄道聞賊勢甚盛. 傳令忠勇將軍金德齡. 領軍馳來. 又分送軍官于嶺南諸鎭. 收率降倭而來. 時南原判官金驪已遞. 李德恢代之. 至是率兵從征○賊兵聲言向京. 都中洶懼. 振威水原之地. 人皆荷擔而立. 時賊兵所過. 耘田者持鋤. 行商者携杖. 莫不奔走樂從. 嗚呼是豈其本心哉.(…)

조경남(趙慶男), <대동야승(大東野乘), 난중잡록(亂中雜錄)3, 병신년[만력 24년, 선조 29년(1599년)>

정치/군사

권율이 수원(水原)으로 진군하여 용인(龍仁)의 적을 치는 것에 이광과 논의한 내용.

(…) 7월 좌의정 이덕형(李德馨)이 나주(羅州)에서 남원으로 왔다가 이내 서울로 돌아갔다.
○ (…)삼가 생각건대, 임진년 4월에 일본 군사가 큰 기세로 쳐들어와 우리가 경계하지 않고 있는 틈을 타서 진(鎭)과 읍(邑)을 잇따라 함락시키니 중외가 크게 놀랐다. 임금께서 아뢰기를, “나는 권 아무개가 쓸만한 인물이라고 들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였다. 이에 의주 목사(義州牧使)이던 공을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기용하였는데, 이때 조정의 신하들이 양남(兩南)은 가기만 하면 죽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공이 명을 받고 단기(單騎)로 서울로 달려갔다. 서울은 이미 지킬 수가 없었고 임금은 서도로 행차한 뒤였으나 이미 병사를 모아 들어와 호위하라 하였다. 전라 순찰사 이광(李洸)이 군사 4만을 동원하고, 방어사 곽영(郭嶸)이 재를 넘어 북상하면서 공을 방어군의 중위장(中衛將)으로 임명하였다. 서생(書生)에게 무부(武夫)의 일을 맡기는 것을 사람들은 어렵게 여기기도 했지만 공은 ‘나의 직책이다.’ 하고 직산(稷山)으로 가서 충청군(忠淸軍)과 회합하였는데, 역시 수만 명이나 되었다. 수원(水原)으로 진군하자, 이광이 곽영에게 용인(龍仁)의 적을 먼저 치게 하였는데, 공이 말하기를, ‘적이 먼저 험한 곳을 점거하고 있으니 습격할 만한 형세가 못 되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서울인데 이미 적의 점유가 되었으니, 주공(主公)께서는 전도(全道)의 군사를 다 거느리고 와서 바로 올라가 조강(祖江)을 건너 임진(臨津)을 막아서 적이 서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면, 아군은 유리한 형세를 얻을 것이오. 그리하면 행재소(行在所)에 명령을 품의할 길이 있어 곧 큰일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오. 지금은 조그마한 적과 싸워서 안 되며, 또한 만전을 기하는 계책이 못 되어 명성과 위신을 손상하게 될 것이오.’ 하였다. (…)

(…) 秋七月. 左議政李德馨自羅州到南原. 因還京. ○(…)謹按. 歲壬辰四月. 日本兵大勢來寇. 乘我不戒. 連陷鎭若邑. 中外大駭. 上曰. 予聞權某可用. 今其人安在. 於是由故義州牧使. 起拜光州牧使. 方朝臣視兩南死地. 公聞命單騎馳甫及州. 京城已不可守. 大駕西幸. 而業徵兵入衛. 全羅巡察使李洸發兵四萬. 防禦使郭嶸. 分嶺而北. 酒署公防禦軍之中衛將. 用書生比武夫. 人或難之. 公曰吾職也. 行至稷山. 與忠淸軍會. 亦可數萬. 進軍水原. 洸令嶸前擊龍仁賊營. 公謂曰. 賊先據險. 非可襲之勢. 且

大於此者京城.已爲賊有.主公舉一道之兵以來.惟當直上涉祖江塞臨津.毋令賊西.而我得形制之便.稟命行在有路.乃可以圖大.今不可爭鋒於小.亦非萬全.以損聲威也.(…)

조경남(趙慶男), <대동야승(大東野乘), 난중잡록(亂中雜錄) 4, 己亥 萬曆二十七年宣祖三十二年>

정치/군사

1599년(선조 32) 수원 독성(禿城) 등에서의 권율의 활약을 정리한 내용.

(…) 3월 전라병사로써 장흥 부사(長興府使)를 겸하게 하여 판관을 설치하고, 방어사로써 남원 부사를 겸하게 하여 도로 판관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경상우병사(慶尙右兵使)로 진주 목사를, 방어사로 밀양 부사를, 좌병사로 울산 군수를, 경기방어사(京畿防禦使)로 수원 부사를 겸하게 하고 모두 판관을 설치하였다. 그때에 곽재우(郭再祐)가 경상우병사가 되었다. (…)

7월 (…)

○ 도원수 권율(權慄)이 병으로 죽었다. 그 뒤에 휘하의 여러 장병들이 행주산성에 비석을 세우고 이름을 <행주대첩비(幸州大捷碑)>라 하였는데 그 비문은 다음과 같다. “(…)

수원(水原)으로 진군하자, 이광이 곽영에게 용인(龍仁)의 적을 먼저 치게 하였는데, 공이 말하기를, ‘적이 먼저 험한 곳을 점거하고 있으니 습격할 만한 형세가 못 되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서울인데 이미 적의 점유가 되었으니, 주공(主公)께서는 전도(全道)의 군사를 다 거느리고 와서 바로 올라가 조강(祖江)을 건너 임진(臨津)을 막아서 적이 서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면, 아군은 유리한 형세를 얻을 것이오. 그리하면 행재소(行在所)에 명령을 품의할 길이 있어 곧 큰일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오. 지금은 조그마한 적과 싸워서 안 되며, 또한 만전을 기하는 계책이 못 되어 명성과 위신을 손상하게 될 것이오.’ 하였다. (…)

공은 임금이 의주(義州)에 계시고, 적은 아직 평양을 지나지 못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은 오직 서울의 적을 공격하여 이미 서쪽으로 간 적으로 하여금 동쪽으로 올 것을 주지 않는 것이 유리한 계책이라 하고, 드디어 수원 독성(禿城)에 주둔하고 임금께 아뢰었더니, 임금께서 차고 있던 칼을 끌러 말을 달려 보내면서 이르기를, ‘모든 장수들 중에 명령대로 하지 않는 자는 이 칼로 처치하라.’ 하였다.” (…)

(…) 三月.以全羅兵使兼長興府使.設判官.防禦使兼南原府使還設判官.慶尙右兵使兼晉州牧使.防禦使兼密陽府使.左兵使兼蔚山郡守.京畿防禦使兼水原府使.俱設判官.時郭再祐爲慶尙右兵使.(…)

秋七月.(…) ○都元帥權慄病卒.其後手下諸將士.立碑于幸州山城.名曰幸州大捷碑.“(…) 進軍水原.洸令嶸前擊龍仁賊營.公謂曰.賊先據險.非可襲之勢.且大於此者京城.已爲賊有.主公舉一道之兵以來.惟當直上涉祖江塞臨津.毋令賊西.而我得形制之便.稟命行在有路.乃可以圖大.今不可爭鋒於小.亦非萬全.以損聲威也.(…) 公以既聞上在義州.賊尚未過平壤.今唯先圖京城.使已西之賊.東於不暇.於計爲得.遂軍水原之禿城以聞.則上解劍馳賜曰.諸將不如令者.以此劍從事.(…)

조경남(趙慶男), <대동야승(大東野乘), 난중잡록(亂中雜錄) 4, 己亥【萬曆二十七年宣祖三十二年】>

정치/군사

1621년(광해군 13) 12월 하삼도의 근왕병이 수원에 집결했다는 내용.

(…) 12월 아래 세 도(道)의 근왕병(勤王兵)을 징집하였는데, 본도는 3천여 명이었다. 15일

감병사(監兵使)가 전주에서 점검하고 떠났는데, 세 도의 군사는 모두 수원에 모였다가 이듬해 2월에 진(陣)을 파하였다. (…)

(…) 十二月.徵下三道勤王兵.本道三千餘名.十五日.監兵使在全州點發.三道軍皆屯水原.明年二月罷陣.(…)

조경남(趙慶男), <속잡록(續雜錄)1, 辛酉【天啓元年光海君十四年】>

정치/군사

1624년(인조 2) 인조 일행이 수원부에 행차했다는 내용.

(…) 9일 아침에 어가(御駕)가 사평원(沙平原)에 주둔했는데 날이 늦도록 수락을 올리지 못했다. 그래서 남원 부사 신준(申峻)이 울무죽과 꽃감을 올렸다. 주상 일행은 바로 수원부(水原府)로 행차했다. 오후에 적병 30여 기가 먼저 서울에 도착하여 외치기를, “성안 사람들은 절대 동요하지 말라. 새 임금이 즉위하신다.” 하였다. (…)

(…) ○初九日旦.龍馭駐沙平原.日晏闕膳.南原府使申峻進薏苡粥及乾柿.車駕因奔水原府.午後賊兵三十餘騎.先到京城.呼曰.城中人勿爲驚動.新王卽位云云.(…)

조경남(趙慶男), <속잡록(續雜錄)2, 甲子 天啓四年仁祖二年>

정치/군사

경기감사 박자흥이 수원 방어사 조유도(趙有道)에게 군사를 일으켜 합세하게 하였다는 내용.

(…) 이때에 박자흥(朴自興)은 경기 감사로 있었는데, 이날 저녁에 박승종이 집으로 돌아와 자흥과 양주(楊州)로 달아나서 목사 박안례(朴安禮)로 하여금 군사를 일으켜 국난을 진압하게 하고, 수원 방어사(水原防禦使) 조유도(趙有道)에게 명령을 전달하여 군사를 일으켜 합세하게 하였다. (…)

(…) 時自興爲京圻監司.是夕承宗還家.與自興走楊州.令牧使朴安禮起兵赴難.傳令水原防禦使趙有道.興兵合勢.○十三日.(…)

조경남(趙慶男), <속잡록(續雜錄)2, 癸亥【天啓三年仁祖元年】>

정치/군사

1622년(광해군 14) 하삼도 시위군(侍衛軍) 각 수천 명을 징발하여 호서(湖西) 수원(水原)과 호남 공주(公州)에 머물러 지키게 한다는 내용.

겨울 11월 (…)
○ 하삼도(下三道) 시위군(侍衛軍) 각 수천 명을 징발하여 호서(湖西) 수원(水原)과 호남 공주(公州)에 머물러 지키게 하고, 또 남은 군사를 정돈하여 국경에서 변란을 대비하게 하였다. (…)

(…) 冬十一月.(…) ○發下三道侍衛軍各數千.湖西水原湖南公州留鎮.又整餘軍.境上待變.(…)

조경남(趙慶男), <속잡록(續雜錄)2, 壬戌 大明熹宗天啓二年光海十四年>

정치/군사

1636년(인조 14) 도성의 군사와 수원 등지에서 수합된 군사의 규모에 대해 피력한 내용.

(…) 17일 정오에 적병이 남문(南門) 밖에 당도하니 체부(體府) 김류(金瑬)가 즉시 이시백(李時白)을 곤장 치고 분명하게 척후(斥候)하지 못했다고 책하고 이어 문을 닫고 성을 지켰다. (…)
성 안에는 훈련(訓練)·어영군(御營軍)과 광주(廣州)·수원(水原)·이천(利川)·양주(楊州)·여주(驪州) 등에서 수합(收合)된 군사가 모두 1만 8천여 명이 되고 성이 험하기가

비할 데 없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성을 굳게 지키고 근왕병(勤王兵)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성을 등지고 한번 결전을 벌이고자 하는데, 조정에서는 머뭇거리며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

(…) ○十七日午時.賊兵到南門外.體府金瑬卽杖李時白.責其不明斥侯.因閉門守城.(…) 城中訓練御營軍及廣水利楊呂等州.收合軍總一萬八千餘名.城險無比.人皆欲固守.以待勤王兵至.背城一戰.而朝廷猶豫未決.(…)

조경남(趙慶男), <속잡록(續雜錄)4, 丙子【崇禎九年仁祖十四年】>

정치/군사

1637년(인조 15) 이시방의 공사(供辭) 내용으로 수원 등지에서의 활동에 대해 기술한 내용.

(…) ○ 경상 감사 심연(沈演)과 전라 감사 이시방(李時昉)을 잡아다 국문하였는데, 이시방의 공사(供辭)는 다음과 같다. (…)5영(五營)의 군사를 떠나보낸 뒤로 저는 군관(軍官)과 아병(牙兵) 등을 거느리고 전쟁을 독책하기 위해 역시 뒤를 잇대어 나아가 천안(天安)에 당도한즉 병사가 먼저 삼영(三營)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미 수원(水原)에다 진을 쳤으며, 전영과 우영은 공주(公州)·청주(淸州) 일로(一路)가 양향(糧餉)을 대주지 못하여 배가 주려서 뒤에 처졌으므로 제가 주선하고 접대하여 일시에 거느리고 나아가려는데 호서(湖西)에서 접전하여 군사를 상실했다는 보고가 마침 오니, 일행의 군정(軍情)은 일제히 사기가 저상되어 장차 무너져 흩어질 기세가 점점 있으므로 겨우 진정시켰던 것입니다. (…)각 관에 운수해온 군량이 몇천 석인지 알 수 없으며 수원(水原) 창고의 곡식에서 역시 10일의 양식을 싸주었는데 겨우 7일이 지났으니 양식이 다 떨어졌다고는 못 할 것이며, (…)

(…) ○拿靑慶尙監司沈演全羅監司李時芳.時芳供辭.(…) 五營軍兵.既已發送之後.矣身率軍官牙兵等督戰事.亦爲繼進.行到天安.則兵使先率三營軍.已陣於水原.而前右二營則公清一路.不給糧餉.飢餒落後.矣身周旋接濟.一時領進之際.湖西喪師之報適至.一行軍情.同然沮喪.將有潰散之漸.僅得鎮定.(…)各官所運軍糧.不知其幾千餘石.而水原倉穀.亦裹十日糧.則纔過七日.不可謂糧盡.(…)

조경남(趙慶男), <속잡록(續雜錄)4, 丁丑上【四月二十八日山西翁又中風廣息將流三日暫得崇禎十年生道連三夏其亡其亡至冬再蘇薄命人生可憐仁祖十五年】>

정치/군사

진관에 수원(水原)과 강화(江華)의 예(例)에 의하여 각각 중군(中軍)을 병사와 수사가 직접 추천하여 쓰도록 하라는 내용.

(…) 진관(鎭管) 수령 중에도 장수의 직책에 합당치 못한 자는 역시 다 갈아치우고, 문(文)·무(武)·음관(蔭官)을 막론하고 잘 선택하여 임명하고, 수원(水原)과 강화(江華)의 예(例)에 의하여 각각 중군(中軍)을 두되 병사와 수사가 자벽(自辟)하여 쓰도록 하여, 책임자를 얻기에 힘써서 군무(軍務)를 전부 맡기면 조정에서는 마음을 쓰지 않고, 여러 사람들을 요란스럽게 하지도 않고, 다만 한 번 호령을 내리면 정채(精彩)가 갑자기 일변할 것입니다. (…)

조경남(趙慶男), <속잡록(續雜錄)4, 정축년 하 >

정치/군사

사변에 대비하여 공청우후 조옥건(趙玉乾)이 수원(水原)에 와서 주둔하고 있었다는 내용.

(…) ○ 공은 세 아들을 거느리고 거의 두 달 가까이 궐하에서 복죄(伏罪)하여 자가들의 행동에 대해 의심이 없도록 하는 동안, 배후에서 모사하는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놓고 모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끝내는 대업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 거사의 계획이 이미 탄로되었으므로 죽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여 빨리 거사할 기회를 정하고자 하는데, 만침 조옥건(趙玉乾)이 공청우후(公淸虞侯)로서 사변에 대비하기 위해 수원(水原)에 와서 주둔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이해(利害)로써 그를 유인하여 거사에 가담시킬 계획으로 우선 구굉(具宏)을 보내 그의 뜻을 떠보았다. (…)

(…) 公率其三子待命闕下殆近兩月.以爲破疑之地.而使諸公放意謀事.得成大業焉.時機事已透.計出等死.將欲速定舉事之機.聞趙玉乾.以公淸虞侯.爲待變來鎮水原.誘以利害欲與同事.先送具宏.以探其意.落落難合.不得遂計而歸.(…)

이귀(李貴), <연평일기(延平日記), 임술년(1622)>

정치/군사

인조반정 직전 공청우후 조옥건(趙玉乾)과 수원부사 조유도가 수원에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다는 내용.

(…) ○ 공은 세 아들을 거느리고 거의 두 달 가까이 궐하에서 복죄(伏罪)하여 자가들의 행동에 대해 의심이 없도록 하는 동안, 배후에서 모사하는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놓고 모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끝내는 대업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 거사의 계획이 이미 탄로되었으므로 죽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여 빨리 거사할 기회를 정하고자 하는데, 만침 조옥건(趙玉乾)이 공청우후(公淸虞侯)로서 사변에 대비하기 위해 수원(水原)에 와서 주둔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이해(利害)로써 그를 유인하여 거사에 가담시킬 계획으로 우선 구굉(具宏)을 보내 그의 뜻을 떠보았다. (…)

조정(趙挺)의 아들 유도(有道)는 수원 부사로서 중병(重兵)을 거느리고 있었으며, 박승종·이이첨 부자는 거처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들리는 말에, 박자흥(朴自興)이 기백(畿伯)으로서 양주(楊州)에 달아나 장차 병사를 일으키려 한다 하므로 온 도성이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민심이 안정되지 못했다. (…)

(…) 公率其三子待命闕下殆近兩月.以爲破疑之地.而使諸公放意謀事.得成大業焉.時機事已透.計出等死.將欲速定舉事之機.聞趙玉乾.以公淸虞侯.爲待變來鎮水原.誘以利害欲與同事.先送具宏.以探其意.(…)

趙挺子有道.以水原府使.方擁重兵.朴承宗李爾瞻父子.不知去處.且聞朴自興.以畿伯出走楊州.將爲起兵.都下疑懼.人心未定.(…)

이귀(李貴), <연평일기(延平日記), 임술년(1622)>

정치/군사

인조반정 직전 공청우후 조옥건과 수원부사 조유도가 군사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내용.

(…) 조옥건(趙玉乾)이 공청우후(公淸虞侯)로서 사변에 대비하고 수원에 와서 진무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공은 일을 같이 하려고 먼저 구굉(具宏)을 보내서 그 의사를 떠보았더니 소득없이 돌아왔다. (…)

이때에 조유도(趙有道)가 수원 부사로서 바야흐로 중요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박승종과 이이첨의 부자는 간 곳을 알지 못하고, 박자흥(朴自興)은 경기 감사로서 양주(楊州)로 달아났으므로, 도성이 의심하고 위태롭게 여겨 인심이 정해지지 않았다. (…)

(…) 聞趙玉乾以公清虞侯.爲待變.來鎮水原.公欲與同事.先送具宏以探其意.不利而還.
 時趙有道.以水原府使.方擁重兵.朴承宗.李爾瞻父子.不知去處.朴自興以畿伯出走楊州.都下疑
 危.人心未定.(…)
 이귀(李貴), <묵재일기(默齋日記)一, 反正時事>

정치/군사

1624년(인조 2) 이괄의 난 당시 이흥립(李興立)이 수원 군사 3천 명을 거느리고 임진강 상류를 수비하였다는 내용.

(…) 이때 적의 군사가 점점 다가왔는데, 도원수(都元帥)는 뒤에 있고 양서(兩西)의 여러 고을은 모두 풍문을 듣고 흩어졌다. 이중로(李重老) 등도 대탄(大灘)에서 함몰되므로 다시 믿을 곳이 없었다. 오직 이서(李曙)가 수천 명 군사를 거느리고 청석동(靑石洞)에 둔치고 있고, 이흥립(李興立)이 수원 군사 3천 명을 거느리고 임진강 상류를 수비할 뿐이었다. (…)
 사근현(沙斤峴)에 이르니, 날은 벌써 저물었다. 자전은 환후가 생겨서 오랫동안 멈추었다가 떠났는데, 밤중이 거의 되어서야 비로소 수원에 이르렀다. 이때 상 또한 편찮아 김자점·심명세(沈命世) 등이 직접 약과 미음을 올렸다. 이튿날 심기원을 한남 원수(漢南元帥)로 삼아 경기 각 고을의 군사를 모아서 적의 예봉을 막으라고 하고, 신경진은 도감병을 거느리고 뒤를 막도록 하였다. (…)

(…) 時賊鋒漸迫.而都元帥在後.兩西諸郡皆望風瓦解.李重老等.又敗沒於大灘.更無可恃之處.惟李曙領數千之卒.進屯靑石洞.李興立率水原兵三千.把守臨津上流.(…) 而行至沙斤峴.日已昏黑.而慈殿違預.良久停駕而發.夜將半始到水原.時上候亦未寧.金自點.沈命世等.親進藥餌.翌日以沈器遠爲漢南元帥.使之收聚圻邑之兵.控禦賊鋒.申景禎率都監兵.(…)

이귀(李貴), <묵재일기(默齋日記)一, 治逆論辨>

정치/군사

1627년(인조 5) 이귀가 정묘호란 당시 수원의 군사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논한 내용.

○ 정묘년(1627, 인조 5) 정월. 금 나라 군사가 갑자기 이르러 안주(安州)·의주 두 성을 연달아 함락시키니, 청천강(淸川江) 이남의 여러 진영은 모두 풍문을 듣고 붕괴되었다. 이 보고가 이르니, 도성과 지방이 매우 다급하여 허둥지둥하였다. 이때에 묘당에서는 대비와 내전을 강도(江都)로 먼저 떠나게 하고, 도감의 군사로써 임진강을 방어하자고 청했다. 공은 탑전에서 아뢰기를, “임진강 상류에는 얕은 여울이 많습니다. 만일 이 길을 좇아 곧장 서울로 향한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니, 수원의 군사를 원수에게 보내서 한쪽을 담당하게 하고, 모든 대장은 각자 그 군관을 거느리고 각처에서 파수토록 하면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하고, 따라서 분조(分朝)하지 않을 수 없는 뜻을 진달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 등이 어찌 몸소 가겠소? 별장(別將)을 정해서 파수토록 하오. 수원의 군사 역시 멀리 출동할 수 없으니, 여기 머물러 호위하는 것이 좋겠소.” 하였다. 공은 또 아뢰기를, “그러면 이서(李曙)가 거느린 군사로 임진강을 파수하게 하였다가, 만약 감당하지 못하면 후퇴해서 남한산성을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군사가 반드시 남한산성에 미리 들어가야 굳게 지킬 수 있을 것이요.” 하고, 이에 장단 방어사(長湍防禦使)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임진강을 지키게 하였다. 이때 일이 갑작스레 발생했으므로, 근왕병(勤王兵)이 미처 모이지 못했고, 공의 아들 시백(時白)이 수원 방어사로서 군사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다만 수원 병마(兵馬) 뿐이었다. 그러므로 배를 끌어 운반하는 역사에 이 군사만

을 오로지 이용했다. 때문에 피로가 극심하였는데, 행군하여 강을 건넌 뒤에도 또 불려다가 창고의 곡식을 운반하려 했다. 공은 또 탑전에서 아뢰기를, “수원 군사를 위급할 때 이용하려고 하면서 또 쌀을 운반하게 하는 것은 ‘나만이 어질다 하여 수고하노라.’의 탄식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

丁卯正月. 奴兵猝至. 連陷安義兩城. 清南諸鎮. 皆望風崩潰. 報至. 中外遑遑. 於是廟堂請大妃內殿. 先幸江都. 欲以都監軍出禦臨津. 公啓於榻前曰. 臨津以上. 多有淺灘. 若由此直向都城. 則無可奈何. 水原之軍. 送于元帥處. 自當一面. 諸大將自領其軍官. 把守於各處. 則可以得力. 仍達不可不分朝之義. 上曰. 如卿等豈能自往. 定別將使之領率把守. 水原軍亦不能遠出. 留此扈衛可也. 公又曰. 然則李曙所領之軍. 使之把守臨津. 而若不能當. 則退守南漢可矣. 上曰. 此軍必預入南漢. 可以固守. 乃令長湍防禦使. 率其兵把守. 時事出倉卒. 勤王兵未及來會. 公子時白. 以水原防禦使. 領兵上來. 只有水原兵馬. 故曳船搬運之役. 專用此軍. 困疲已極. 而及其行軍渡江之後. 又欲招運倉穀. 公又啓於榻前曰. 水原之軍. 若欲爲緩急得力之計. 則又令運米. 不無獨賢之歎. (…)

이귀(李貴), <묵재일기(默齋日記)三, 講和論辨>

정치/군사

1632년(인조 10) 금에 대한 방어책으로 강도·광주·수원 사람은 평안도로 가지 않고 해당 지역을 지키도록 했다는 내용.

그래서 다시 전에 올린 차자의 뜻을 인용하여 차자를 올려 빨리 의정하여 기회를 잃지 말 것과, 또 기전의 출신은 전방의 방비에 보내지 말고 강도와 남한산성에만 전속시켜 나라의 근본을 견고히 할 것을 청하니, 상이 비국에 계하하였는데, 오직 강도·광주·수원 사람만 이 서쪽으로 가는 것을 면하게 되었다.

於是更引前筭之意而上筭. 請速爲議定毋失機會. 又以畿甸出身. 勿令入防. 專屬於江都南漢. 以固國本. 上啓下備局. 而唯獨江都廣州水原之人. 得免赴西焉.

이귀(李貴), <묵재일기(默齋日記)三, 備禦論辨>

정치/군사

정유재란 당시 명군의 군량미를 조달하기 위해 서울, 수원, 남원 등지의 군량미 현황을 언급한 내용.

(…) 지금 죽령(竹嶺)·조령(鳥嶺)·추풍령(秋風嶺)·팔랑치(八良峙)·두치진(豆恥津)·한산도(閒山島)·의령(宜寧)·경주(慶州)·대구(大邱)·성주(星州) 등지와 같은 곳은 장수를 배정하여 방수하고 있으나, 거느린 군병이 적고 잔약하여, 적이 만약 대거 침략해 오면 반드시 새나 물고기가 놀라듯 결코 당해 내지 못할 형세입니다. 군량은 이미 모조리 바닥나 남은 것이 전혀 없고 오직 왕경의 저축미가 전부 6만여 석이고, 수원(水原)에 1만여 석, 남원(南原)에 2만여 석이 있을 뿐입니다. 그 나머지는 대개 영쇄(零瑣)하여 우리 군사를 먹이는데도 자주 부족한데, 하물며 중국 대병(大兵)의 양식을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우리나라가 밤낮으로 걱정하는 것입니다. (…)

(…) 卽今如竹嶺, 鳥嶺, 秋風嶺, 八良峙, 豆恥津, 閒山島, 宜寧, 慶州, 大邱, 星州等地. 定將防守. 而所領軍兵. 單少殘弱. 賊若舉衆侵軼. 則必將鳥驚魚駭. 決無抵當之勢矣. 糧餉蕩竭已極. 絕無積儲. 唯王京所儲米料. 并六萬餘石. 水原有萬餘石. 南原有二萬餘石耳. 其餘率皆零瑣. 餉我軍且屢乏. 況能支大兵之餉乎. 此小邦之日夜悶慮者也. (…)

권협(權俠), <연행록(燕行錄), 石塘公燕行錄, 三月 十八日>

정치/군사

경기도에서 수원 등지가 바깥문에 해당한데 독성이 보루로 삼을 만한 곳이라는 내용.

(…) 경기(京畿)로 말하면, 이천(利川)·죽산(竹山)·수원(水原)이 외문호가 되고, 왕경(王京)이 당오가 됩니다. 이천·죽산은 성이 없습니다. 수원 또한 읍성은 없으나, 읍 동쪽 5리쯤 대로에 산성이 있는데, 몹시 높고 험준합니다. 근년에 우리나라가 이 성만큼 힘을 쏟아 설비한 것이 없고, 경기 백성들이 믿고 보루를 삼는 것도 이 성 밖에 없습니다. 이천은 비록 성이 없으나, 광주(光州)는 산성이 있으니 곧 백제(百濟) 온조왕(溫祚王)의 옛 도읍입니다. 험애(險隘)하기가 견줄 데 없으나 옛 성이 모두 무너졌으므로 우리나라에서 금년 정월부터 공역을 시작하여 수축하였으니, 지금쯤은 이미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주(驪州)에도 산성이 있는데 증수 설비한 것이 수원의 정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대개 수원·광주·여주는 3개의 성이 솔밭처럼 대치하여, 험한 곳에 설치되어서 높고 견고하여 지킬 만한 데다가 앞에는 한강(漢江)의 천연적 참호가 있으니, 만약 이 3개의 성을 보수(保守)하면 적이 아무리 왕경(王京)을 진격하려 해도 그 형세가 반드시 그렇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민심이 굳지 못하여 적을 보면 쉬이 무너지니, 만약 중국 군사의 협력을 얻게 되면, 왕경을 보존하여 기필코 지켜낼 것입니다. (…)

(…) 以京畿言之.利川,竹山,水原爲外門戶.而王京爲堂奧也.利川,竹山無城.水原亦無邑城.而邑東五里許.有山城當大路.極高峻.比年小邦之專力設備.無踰此城.畿民之所恃以爲固者.亦有此城耳.利川雖無城.廣州有山城.乃百濟溫祚王之舊都也.險隘無比.而舊城盡頽.小邦自今年正月.起役修築.想今必已成就矣.呂州又有山城.增修設備.不下於水原之城.蓋水原,廣州,呂州三城.鼎峙設險.高堅可守.而前有漢江天塹之固.若此三城保守.則賊雖欲進逼王京.其勢必不能矣.但我國民心不固.見賊善潰.若得天兵之協力.則王京可保必守矣.(…)

권협(權俠), <연행록(燕行錄), 石塘公燕行錄, 三月 二十七日>

정치/군사

임진왜란 당시 의병 및 군사로 활약한 인물을 기술한 것으로 수원에서는 최흘(崔屹) 및 권율이 활약하였다는 내용.

이때에 각 도의 군사들이 여기저기에서 벌떼처럼 일어났다. 경기도에서는 본도 감사인 심대(沈岱)·전 사간 우성전(禹性傳)·전 정언 정숙하(鄭淑夏)·수원인(水原人) 최흘(崔屹)·고양인(高陽人) 이노(李魯)와 이산휘(李山輝)·전 목사 남언경(南彦經)·유학 김탁(金琢)·충의위 이일(李軼)·서얼 홍계남(洪季男)·선비 왕옥(王玉) 등이 (….) 일어나서 혹은 의병이 되어 순절하고 혹은 고단한 군사로 적에게 대항하기도 하였다.

호서(湖西)에 당도했을 적에는 군사가 수천을 헤아렸다. 드디어 진군하여 수원에 둔(屯)을 치니 군세가 크게 떨치었다. 이에 장사들을 모아 이따금 출격하여 전과가 있었으며, 또 금령(金嶺)의 적을 습격하여 물리치고, 막하의 선비 양산숙(梁山燾) 등을 보내어 상소를 받들고 샛길로 행재소에 가게 하였다. (…)

그런데 이에 양산숙(梁山燾) 등이 해상과 육지를 거쳐 이곳에 진달하여, 너 고경명(高敬命)과 김천일 등이 의병 수천을 규합하여 본도 절도사 최원(崔遠)의 병마(兵馬) 2만과 함께 수원에 나와 둔을 쳤다고 하니, 나같이 부덕(不德)한 사람이 어찌 이처럼 사력을 다하는 사람들을 얻게 되었단 말인가? 우리 조종(祖宗) 2백 년의 깊고 두터운 인택(仁澤)이 인심을 감격시킴이 지극한 것이니, 내 매우 기쁘도다. (…)

주상께서 의주에 계신다는 말을 듣고서 여러 장수들을 불러 말하기를, “지금 평양 이남은 모두 적진인데 서울은 근본이 되는 땅이니, 서울을 먼저 수복하기만 못하다. 그리고 행장(行長)의 뒤를 끊어서 동쪽을 돌아보며 의심하게 하여 마음놓고 서진(西進)하지 못하도록 하면 적들이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지금 만약 강도(江都)로 들어간다면 적에게 약함을 보이는 것이다.” 하고, 드디어 수원의 독성(禿城)에 진주하였다. 주상께서 권율이 독성에 진주하였다는 말을 듣고 차고 있던 칼을 풀어서 급히 내려보내며 이르기를, “제장들 중에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이 칼로 다스려라.” 하였다. (…)

이때, 대군이 이미 서쪽으로 물러갔기 때문에 왜노의 여러 추장들이 경성에서 그 세력을 합하여 형세가 더욱 성하였다. 전라도 순찰사 권율(權慄)이 수원 독성(禿城)으로부터 휘하 정병 4천 명을 나누어서, 전라도 절도사 선거이(宣居怡)로 선봉장을 삼았는데, 자신은 조방장(助防將) 조경(趙敬)의 군사 2천 3백 명을 거느리고 양천(陽川)을 경유하여 진군하여 고양(高陽)의 행주산성(幸州山城)에 진을 쳤으며, 선거이는 금천산(衿川山)에 영채를 설치하여 멀리서 도움을 주었다. (…)

再造藩邦志[二]

是時諸道之兵.處處蜂起.京畿道則本道監司沈岱.前司諫禹性傳前正言鄭淑夏.水原人崔屹.高陽人李魯李山輝.前牧使南彥經.幼學金琢.忠義衛李軼.庶孽洪季男.士人王玉.(…) 或以義旅殉節.或以孤軍抗敵.

比至湖西.衆可數千.遂進屯于水原.軍勢大振.乃募壯士.間出擊之.頗有所獲.又襲破金嶺之賊.乃遣幕下士梁山璫等奉疏.間行赴行在.(…)

玆者梁山璫等.水陸得達.報爾敬命金千鎰等.糾義旅數千.而與本道節度使崔遠兵馬二萬.進屯水原云.予之不德.何能得人死力.乃至此哉.我祖宗二百年.深仁厚澤.感結人心者.吁其至矣.予甚嘉悅.(…)

聞上在義州.召諸將計曰.今平壤以南.皆爲賊壘.京城爲根本之地.不如先復京城.連綴行長恫疑東顧.使不得一意西進.則諸將無能爲也.今若轉入江都.示賊弱也.遂進住水原之禿城.上聞慄住禿城.解劍馳賜曰.諸將有不從令者.以此劍從事.(…)

全羅巡察使權慄自水原禿城中.分其麾下精兵四千.令全羅道節度使宣居怡爲前鋒.自領助防將趙敬軍二千三百人.由陽川進陣於高陽之幸州山城.宣居怡結營於衿川山.遙爲之聲援.(…)

신경(申旻), <재조변방지(再造藩邦志)四>

정치/군사

고려 때의 예를 따라 양주(楊州)를 후보로, 수원(水原)을 전보로, 광주(廣州)를 좌보로, 원평(原平)을 우보로 삼아 서울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일.

(…) ○ 양성지가 상소하여 여러 조항의 정책을 진달하였다. 그 내용은, (…)
18. 고려 때의 좌보(左輔), 우보(右輔), 전보(前輔), 후보(後輔)의 예를 따라 양주(楊州)를 후보로, 수원(水原)을 전보로, 광주(廣州)를 좌보로, 원평(原平)을 우보로 삼아 서울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일, (…)

<국조보감(國朝寶鑑), 제10권 세조조 1, 1년(병자, 1456)>

정치/군사

1506년(중종 1) 9월 중종반정에 수원 부사 장정(張珩) 등과 거사를 모의하였다는 내용.

○ 9월. 무인(2일)에 상이 자순대비(慈順大妃)의 의지(懿旨)로 경복궁의 근정전에서 즉위하

였다. 상은 성종의 둘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자순대비 윤씨(尹氏)이다. 처음에 진성대군(晉城大君)에 봉해져 사저(私邸)에서 지냈는데, 이때 연산(燕山)이 음란하고 포악하며 무도하여 종묘 사직이 망하게 될 판국이였다. 전 이조 참판 성희안(成希顔)이 비분강개하여 반정(反正)의 뜻을 품고 지중추부사 박원종(朴元宗), 이조 판서 유순정(柳順汀), 군기시 첨정 박영문(朴永文), 수원 부사(水原府使) 장정(張珩), 사복시 첨정 홍경주(洪景舟) 등과 함께 비밀리에 거사(舉事)를 모의하였다.

<국조보감(國朝寶鑑), 제18권 중종조1, 1년(병인, 1506)>

정치/군사

수원 부사 조유도 등이 반정 소식을 듣고 왕실 수호를 군대를 동원한 것은 죄를 줄 수 없다는 내용.

(...) 상은 두세 번 사양 끝에 별당에서 즉위했는데 백관을 거느리고 대비전에 하례를 올리고 부인 한씨(韓氏)를 책봉하여 왕비로 삼고는 조하를 받고, 교서를 반포하고, 대사면령을 내리고, 영건(營建)·나례(儺禮)·화기(火器) 등 12개 도감(都監)을 모두 폐지하고, 의금부와 형조에 억울하게 수감되어 있는 자들을 방면하고, 무신년(1608, 광해 즉위년) 이후로 죄에 묶여 있던 사람들을 모두 풀어주고, 그동안 죽은 자에 대해서는 관작을 회복하고 제를 지내주도록 하니 원근이 다 크게 기뻐하였다. 그때 양주 목사(楊州牧使) 박안례(朴安禮)와 수원 부사(水原府使) 조유도(趙有道)가 군대를 동원하여 왕실수호 차 나섰다가 반정(反正) 소식을 듣고는 그만두고 돌아간 일이 있었는데 훈신(勳臣) 중에 그 일을 말한 이가 있자 왕이 이르기를, “수령으로서 변란 소식을 듣고는 왕실 수호에 나서는 것이 그들 직분인데 상을 내리면 내렸지 죄 줄 수는 없는 일이다. 불문에 부치라.” 하였다. (...)

<국조보감(國朝寶鑑), 제34권 인조조 1, 1년(계해, 1623)>

정치/군사

임진왜란 당시 김천일, 권율의 수원 및 독성에서의 활약을 언급한 내용.

(...) ○ 호남 의병장 김천일(金千鎰)이 군사를 거느리고 북상하였다. 삼도(三道)의 군사가 무너진 뒤로부터 경기 안이 완전히 살육과 노략질을 당했는데, 적에게 빌붙어 도성에 들어간 자도 많았다. 천일이 의병 수천 명을 규합하니, 상이 장례원 판결사(掌隸院判決事)에 임명하는 동시에 창의사(倡義使)라는 칭호를 내렸다. 천일의 군사가 수원(水原)에 이르러 독산고성(禿山古城)에 웅거하여 적에게 빌붙은 간민(奸民)을 찾아내어 목을 베니, 돌아와 따르는 경기의 사민(士民)이 많았다. (...) ○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 등이 유생 곽현(郭玄)·양산숙(梁山燾)을 보내어 바닷길을 따라 관서(關西)에 들어가 행조(行朝)에 일을 아뢰었다. 양산숙이 또 상소하여 계책을 올리니, 상이 자주 불러서 위로하고 공조 좌랑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이호민(李好閔)으로 하여금 교서(敎書) 2통(通)을 짓게 하여 양산숙에게 부쳐 보냈다. 하나는 호남에 유시하는 것이었는데, 그 대략에, “이광(李洸)의 군사가 용인(龍仁)에서 패배하였다는 말을 듣고부터 다시 남쪽을 바라보며 구원을 기대하는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들으니 고경명과 김천일 등이 의병 수천 명을 규합하여 절도사 최원(崔遠)과 함께 수원(水原)으로 진주(進駐)했다 한다. 부덕(不德)한 내가 어떻게 이토록까지 사람들이 사력을 다하게 할 수 있었겠는가. (...)”하고, (...)

○ 12월. 전라 순찰사 권율(權慄)이 수원의 독성(禿城)으로 군사를 진출시켰다. 권율이 직산(稷山)에 이르자 체찰사 정철이 경솔하게 진격하지 말도록 경계하므로 권율이 그대로 군

사를 머물게 하면서 보고하였다. 조정이 전지를 내려 정철을 책망하고 권율을 재촉하여 도성으로 진출하여 도모하도록 청하였다. 권율이 지난날 평야의 전투에서 군사가 패한 것을 징계하여 독성으로 진출하여 머물렀다. 상이 차고 있던 칼을 풀어 달려가 내려주게 하면서 “여러 장수들 중에 명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거든 이 칼로 처단하라.” 고 하였다. 도성의 적이 진을 나누어 군사를 출동시켜 왕래하면서 도전(挑戰)하였으나 권율은 성곽을 튼튼히 지키고 응하지 않으니 적이 군영을 태우고 퇴각하였다. 권율이 가끔 날랜 군사를 출동시켜 낙후한 적을 습격하자 기내(畿內)에 주둔했던 적이 모두 도성으로 들어갔다. 이로부터 서로(西路)에 행인이 다닐 수 있게 되어 여러 의병들이 차례로 경기 지역에 진출하여 주둔하면서 중국 군사를 기다렸다.

<국조보감(國朝寶鑑), 제31권 신조조 8, 25년(임진, 1592)>

정치/군사

수원(水原)의 예를 대략 본떠 파주의 방어영에 신둔(新屯)을 획급(劃給)하여 군수(軍需)를 준비하도록 한다는 내용.

(…) ○ 장단(長湍)의 방어영(防禦營)을 파주(坡州)로 옮겼다. 이는 파주가 강을 낀 천연의 요해처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었다. 【절목(節目)은 다음과 같다. 임진(臨津) 일대는 곧 경기 우도의 첫째 가는 요해처이기 때문에 전에 이미 임진에 관(關)을 설치하고 이어 장산(長山)에 둔(墩)을 축조하였는데, 이번에 또 장단의 방어영을 파주로 옮겨 설치하게 되었다. 수원(水原)의 예를 대략 본떠 신둔(新屯)을 획급(劃給)하여 군수(軍需)를 전적으로 준비하도록 하였다. 장단도 삼도(三道)의 요충지이므로 그대로 영장(營將)과 토포사(討捕使)를 겸하게 하여 전영(前營)으로 만들어 강을 사이에 두고 나누어 지켜 기각(掎角)의 형세를 이루도록 한다면 견고한 요해처의 방비로 뜻밖의 사태에 대한 대비가 이에 완비될 것이다. 거행 조건(舉行條件)은 아래에 나열해 적는다.】 (…)

<국조보감(國朝寶鑑), 제66권 영조조 10, 40년(갑신, 1764)>

정치/군사

수원(水原) 군병을 기마병 10개 초(哨), 보병 30개 초로 제도화한 내용.

(…) ○ 수원(水原) 군병을 기마병 10개 초(哨), 보병 30개 초로 정하여 더 이상 가감이 없이 영원히 그 규모를 유지하는 것을 제도화하라고 명했다. 그 전에는 수원의 군병 수를 해마다 증가시켜 6천여 명에 이르기까지 했었는데 부사(府使) 유창(兪暢)이, 정원을 줄이고 대신 골라 뽑을 것을 소청하자, 상이 이르기를, “군대란 정예가 중요하지 수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고, 그렇게 명했던 것이다. (…)

<국조보감(國朝寶鑑), 제40권 현종조 2, 7년(병오, 1666)>

정치/군사

효종이 장릉(長陵) 행행 때 수원부사(水原府使)가 군병을 거느리고 호위했다는 내용.

(…) ○ 상이 장릉(長陵) 행행 때 수원부사(水原府使)가 군병을 거느리고 호위에 임했는데 그들의 군복(軍服)이 모두 소매가 넓은 것을 상이 보고는 하교하기를, “저것이야말로 유한자들이나 입을 옷이지 무기를 베개 삼고 계엄(戒嚴)에 임한 뜻이 어디 있는가.”하고 복제를 고치라고 명하고, 또 대가가 지나갈 때 몸을 굽혀 경건히 맞이하는 것은 군복으로 무장한 자들의 예가 아니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이후로는 두 손을 마주잡고 윗몸을 편 채 무릎만 꿇고

있으라고 명하였다. (…)

<국조보감(國朝寶鑑), 제37권 효종조 1, 2년(신묘, 1651)>

정치/군사

1798년(정조 22) 10월 장용외영에 오위 제도를 창설하였다는 내용.

○ 10월. 장용 외영(壯勇外營)에 오위(五衛)의 제도를 창설하였다. 화성(華城)의 마군(馬軍)·보군(步軍) 편제는 훈련도감의 제도를 대략 모방한 것이었는데, 계축년에 영(營)으로 승격한 후로는 국초에 영안도(永安道)의 마군을 친군위(親軍衛)라고 일컬었던 제도를 따라서 친군위 300명을 두고 보군 26조를 두었으며, 또 용인(龍仁) 등 5개 고을 속오군 중에서 정예하고 건장한 자를 뽑아서 12조를 더 두어 1영(營) 5사(司)를 만들었다. 또 본부 및 고을 민병으로 성을 지키게 하는 제도를 처음으로 만들어 돌려가면서 나누어 소속시키게 하였다. 마침내 사(司)와 초(哨)의 명칭을 고쳐서 위(衛)·부(部)의 법을 정하였는데, 1영을 5위로 나누고 5위는 모두 25부로 편성하여 내외의 영군(營軍)이 모두 5000명이었다. 비변사가 절목을 완성하여 올렸다.

<국조보감(國朝寶鑑), 제75권 정조조 7, 22년(무오, 1798)>

정치/군사

전국 주요 산성에 대해 거론한 것으로 수원에는 독추산성(禿鷲山城)을 언급한 내용.

(…) 임진산성(臨津山城 : 본래 渡丞 자리임)·문수산성(文殊山城 : 강화에 있음)·독추산성(禿鷲山城 : 수원에 있음). (…)

(…) 臨津山城, 【本渡丞.】 文殊山城, 【在江華.】 禿鷲山城. 【在水原.】 (…)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第五集政法集第十五卷○經世遺表, 鎭堡之制>

정치/군사

수원(水原)의 해방(海防)

서해(西海)의 해안은 남쪽은 해남(海南)의 명양(鳴洋) 서쪽에서 부안(扶安)에 이르러 북쪽으로 향하여 조금 동쪽으로 비껴 만경(萬頃)에서 서산(瑞山)에 이르러 북으로 비스듬히 나가고, 서산(瑞山)에서 동쪽으로 구부러져 돌아서 홍주(洪州)의 대진(大津)에 이르며, 수원(水原)에서 북쪽으로 향하여 조금 서쪽으로 비껴 통진(通津)의 조강(祖江) 남쪽에 이른다. 지면이 바다로 구부러져 깊이 들어간 곳은 해남(海南)의 우수영(右水營) 및 등산곶(登山串)과 영광(靈光)의 망운(望雲), 무안(務安)의 해제(海際), 홍주(洪州)의 흥양(興陽), 태안(泰安)의 전 군(郡) 및 군의 안흥(安興)·양남·북(梁南北)의 2개면, 서산의 대산곶(大山串)이다. (…)

경기(京畿) 수원(水原)의 대진포(大進浦) 【서쪽으로 바다와 연결되어 있다. 바람이 일면 파도(波濤)¹⁷⁾가 매우 심하다. 종류에 높이 6·70길 되는 산봉우리 같은 큰 바위가 있는데 험하고 가파르다. 이 바위를 새신영공(賽神令公)이라고 부르는데, 뱃사공들이 여기를 지날 때는 언제나 향을 피우고 기도한다 하여 새신(賽神)이라 하고 영공(令公)이란 높임말인데 와전하여 재신(宰臣)이라고들 한다.】 양성(陽城), 수원, 남양(南陽)의 화량(花梁) 【옛적엔 수사영(水使營)을 두었었는데 성종(成宗) 때에 영을 폐하고 첨사를 설치하였다】·영종(永宗), 인천(仁川), 광주(廣州), 안산(安山), 인천의 덕적도(德積島) 【일명 덕물도(德物島)라

17) 파도(波濤) : ‘파도(波濤)’가 어느 본에는 ‘濤浪’으로 되어 있음.

고도 한다. 당(唐) 나라 소열(蘇烈)¹⁸⁾이 백제(百濟)를 칠 때에 등주(登州)에서 바다를 건너 덕물도(德物島)에 이르렀다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원도(猿島) 【가운데 여러 도신(島神)들의 제단이 있고 봄가을로 수령(守令)이 직접 집행하여 악신(嶽神)·해신(海神)·독신(瀆神)에게 제사한다】·사야관도(士也串島) 당의 소열이 여기에 군병을 주둔한 적이 있다.】 부평(富平), 김포(金浦), 통진(通津)의 덕포(德浦)·조강(祖江), 강화(江華) 【섬이다】의 월관진(月串鎭)·주문도(注文島)·초지포(草芝浦)·인화보(寅火堡)·용진(龍津)·제물량(濟物梁)·덕진(德津)¹⁹⁾·가릉포(嘉陵浦)【위에 가릉(嘉陵)이 있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다】·매음도(煤音島). 【널찍한 돌[博石]²⁰⁾이 생산되어 국가에 쓰이며, 또한 비석의 자료로 많이 쓴다.】 돈대(塹臺) 【숙종(肅宗) 때 김석주(金錫胄) 등을 보내어 섬을 시찰하고 포변(浦邊)에 돈대 49개소를 벌려 쌓았는데, 동쪽에 11개소, 남쪽에 14개소, 서쪽에 11개소, 북쪽에 13개소다.】 (…)

西海之岸.南自海南鳴洋之西至扶安.向北乍東自萬頃至瑞山.向北斜迤.自瑞山向東折轉至洪州之大津.自水原向北乍西至于通津祖江之南.地之深入海曲者.海南之右水營及登山串.靈光之望雲.務安之海際.洪州之興陽.泰安全郡及郡之安興, 梁南北二面.瑞山之大山串也.(…)

京畿.水原大津浦.西連大海.遇風.波濤極險.中流.有巖如峯.高六七十丈.巉巖卓絕.號賽神令公.舟人過此.必香火祈禱.故號賽神.而令公爲稱也.賽神.今訛爲宰臣. 陽城.水原.南陽花梁, 舊爲水使營.成宗朝.罷營置僉使. 永宗.仁川.廣州.安山.仁川德積島.一云德物島.唐蘇烈伐百濟時.自登州濟海至德物島者卽此. 猿島, 中有諸島神祭壇.春秋嶽海濱行祭時.守令親行. 士也串島.蘇烈嘗駐軍于此. 富平, 金浦, 通津德浦, 祖江.江華 海島. 月串鎭, 注文島, 草芝浦, 寅火堡, 龍津, 濟物梁, 德津, 嘉陵浦, 上有嘉陵.因號. 煤音島.有廣博石.以爲國用.國人以爲碑碣焉. 塹臺.肅宗朝.遣金錫胄等審視島內.浦邊列築塹臺四十九所.東十一.南十四.西十一.北十三.(…)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4 해방(海防), 西海之南>

정치/군사

서해 북쪽의 관방으로서 대청도와 소청도를 화성에 소속시켜 관리하도록 했다는 내용.

(…)·대청도(大靑島)²¹⁾ 【고려 충숙왕 4년(1317년)에 패자 태자(孝刺太子)가 여기에 귀양왔었는데, 그가 살았던 집터가 지금도 남아있다. 소를 기르는 목장이 있다】·소청도(小靑島)²²⁾ 【정종 17년(1793년) 계축(癸丑)에 비변사 당상(備邊司堂上) 정민시(鄭民始)의 건의로 대청도와 소청도에 각각 둔(屯)²³⁾을 설치하여 임시로 별장을 두고 백성을 모집하여[募民]²⁴⁾ 경작하게 하였다가 23년 기미(己未)에 이를 화성(華城)에 붙이고 양 도의 진장(鎭將)²⁵⁾은 자벽(自辟)²⁶⁾하도록 하여 당해부의 장교 가운데서 1주년씩 번갈아 가며 둔감(屯監)을 임명하고, 그 해산물과 농산물의 이익을 거두어 본둔(本屯)의 급료로 지출하며, 해마다 정철(正鐵) 500근을 세(稅)로 당해부(當該府)에 바치어 수선(修繕)하는 자료에 보충케 하였다.】 (…)

18) 소열(蘇烈) : 당(唐)의 소정방(蘇定方).

19) 덕진(德津) : ‘덕진(德津)’이 어느 본에는 ‘德鎭’으로 되어 있음.

20) 널찍한 돌[博石] : ‘널찍한 돌[博石]’의 ‘博’이 어떤 본들에는 ‘礪’으로 되어 있음.

21) 대청도(大靑島) : ‘대청도(大靑島)’의 ‘靑’이 어느 본에는 ‘淸’으로 되어 있음.

22) 소청도(小靑島) : ‘소청도(小靑島)’의 ‘靑’이 어느 본에는 ‘淸’으로 되어 있음.

23) 둔(屯) : ‘둔(屯)’이 어느 본에는 ‘此’로 되어 있음.

24) 백성을 모집하여[募民] : ‘백성을 모집하여[募民]’의 ‘募’가 원본에는 ‘幕’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본들에 의거하여 고쳤음.

25) 진장(鎭將) : ‘진장(鎭將)’은……해마다 정철(正鐵) 500근’이 어느 본에는 없음.

26) 자벽(自辟) : 상관(上官)이 자기 재량으로 하급 관리를 자유로이 임용하는 것.

(…) 大靑島, 【高麗忠肅王四年.流李刺太子于此.其所居宅基猶在.有牧牛場.】 小靑島.【正宗癸丑.備局堂上鄭民始建白.大, 小靑島.並設屯.權置別將.募民畊食.己未.屬之華城.兩島鎮將仍作自辟.該府將校中以屯監周年輪差.收其漁農之利.以爲本屯支放之需.每年正鐵五百斤.稅納該府.以補修繕之資.】 (…)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 4 해방(海防), 西海之北>

정치/군사

서울을 수호하는 것은 수원을 비롯한 광주, 과천의 남부 지역을 한 장수에게 일임해야 한다는 내용.

(…) ○ 서울을 수복하기 위한 세력으로는 세 갈래로 나누어야 할 것이니, 양주(楊州)·포천(抱川)·적성(積城)·영평(永平) 등 읍의 군병을 한 장수에게 주어 동쪽을 막고, 고양(高陽)·교하(交河) 등 읍의 군병을 역시 한 장수에게 주어 서쪽을 막으며, 광주·과천(果川)·수원(水原) 등 읍의 군병을 또한 한 장수에게 주어 남쪽을 막으며, 3면이 합세하고 호응하며, 적의 수가 적으면 군대를 나누어서 복병을 설치하고, 적의 수가 많으면 병력을 합쳐 공격하되, 곧 강원도는 동쪽 군병과 합세하고, 강화의 군대는 서쪽 군대와 합세하고, 충청도와 전라도의 군대는 남쪽 군대와 합세하게 하여, 어떤 때에는 그 앞에서 인도하고, 어떤 때에는 그 뒤에서 밀어주며, 기회를 살피고 편리함을 틈타서 같은 마음 한 힘으로 사방에서 운집하면 서울은 기일을 정하여 수복할 수 있을 것이다. ○ 수원의 독성(禿城)·금천(衿川)의 금지산(衿芝山)·인천의 산성은 다 험하고 좁아서 꼭 방어해야 하는 요지다. 만일 기회를 보아 이를 수축하고, 군대를 주둔하여 험한 곳을 차지하고, 여기저기서 서로 바라보아 서로 성원(聲援)이 되면, 외곽(襟抱)이 튼튼해져서 백성이 믿는 것이 있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설사 적병이 있더라도 앞뒤[首尾]에서 견제하기 때문에 만만히 드리밀지 못할 것이다. ○ 양근(楊根)의 남산은 바로 사탄(沙灘)에 닿는데 여기만 지나가면 미원(迷原)의 통로·가평의 통로·월계(月溪)의 통로가 다 여기서 갈라진다. 만일 적이 원주를 통과하여 파사현(婆娑峴)의 뒤를 지나 바로 양근(楊根)으로 향하게 된다면 오직 이곳 만이 방어할 수 있는 곳이다. ○ 죽산(竹山)의 산성은 바로 청주·충주 두 길이 만나서 곧장 서울로 뻗었기 때문에 형세의 중요성이 다른 곳보다 심하다. 만일 여기에다 성을 설치하고 보루를 쌓아서 전영(前營)을 만들어 훈련장[操鍊之所]²⁷⁾을 만들고, 또한 산 밑 평야에 널리 둔전을 개척하면 영구적인 이익이 될 것이다. 고려 말기에 이 성에서 몽고군을 막았으니, 이곳은 벌써 승리의 경험을 치룬 곳이다. ○ 용인(龍仁)과 양지(陽智)의 중간에 옛 성벽이 길의 중요한 곳에 있는데, 이름은 석성(石城)이라고 한다. 그 지형이 독성보다 더 험하고 또 직로(直路)의 요충(要衝)에 있다. 만일 여기를 수축하여 군량을 저장하고 군대를 조련하여 오른쪽에 독성을 옆에 두고 왼쪽으로 남한산성(南漢山城)과 연결하여 솔밭 모양의 세력을 이룬다면, 서울의 문호가 튼튼할 것이다.” 하였다.

〈이정구 독성산성기(李廷龜禿城山城記)〉 이정구는 독산산성기에 쓰기를, “성이 넓은 들판 가운데 있어서 험준하게 막힌 곳이 없고, 산이 우뚝하게 길 옆에 솟았는데, 숲이 없어서 바라보기에 밋밋하다고 독성이라고 부른다. 모두들 예사로 보고 별로 이상하게도 여기지 않았는데, 임진년 왜구가 크게 들어 닥쳤을 때 도원수 권율(權慄)이 여기 저기서 싸우다가 이 성에 들어와 점거하여 적병을 여러 번 물리쳤다. 이리하여 사람들은 이 성이 중요한 자리에 있어 나라 안의 요충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였다. (…)

27) 훈련장[操鍊之所] : ‘훈련장[訓練之所]’의 ‘所’가 어느 본엔 ‘地’로 되어 있음.

(…) ○京城收復之勢.當分爲三道.楊州, 抱川, 積城, 永平等邑之軍屬於一將遮蔽東方.高陽, 交河等邑之軍又屬一將遮蔽西方.廣州, 果川, 水原等邑之軍又屬一將遮蔽南面.三面合勢.迭爲犄角.賊少則分兵設伏.賊多則合兵攻勦.仍使江原道與東面之軍合.江華之兵與西面之軍合.忠清, 全羅之軍與南面之軍合.或引其前.或推其後.相機乘便.齊心一力.四方雲合則京師指日可復矣.○水原之禿城, 衿川之衿芝山, 仁川之山城皆險阨必守之要地.若隨便繕治.屯兵據險.參錯相望.互爲聲援則襟袍固密.人心有恃而不恐.縱有敵兵亦首尾牽掣不敢輕突矣.○楊根南山正當沙灘.而過此則迷原之路, 加平之路, 月溪之路皆從此分出.若賊過原州由婆娑之後直向楊根則惟此處爲可控扼.○竹山山城正當清州, 忠州兩路之會直走京師.形勢之重甚於他處.若於此地設築城壘爲前營以爲操鍊之所.且於山下平野廣開屯田則又爲萬世之利.前朝之末.亦以此城禦蒙古.此乃已試制勝之地.○龍仁, 陽智之間有古城當路.名曰石城.地形險要勝於禿城.且在直路之衝.若於此地又爲修葺.積粟鍊兵.右控禿城.左連南漢.爲鼎峙之勢則京都之門戶固矣.

李廷龜禿城山城記.城居廣野之中.無險阨之阻.有山斗起於道傍.又無樹木.望之童童然.故名禿城.人視之尋常不以爲奇.壬辰.倭寇大至.都元帥權慄轉鬪入據于茲.屢却賊兵.於是人知茲城之得形便.爲國中要衝也.(…)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4 관방(關防), 京畿>

정치/군사

수원의 독성산성의 규모와 연혁에 대한 내용.

읍성(邑城) 【석축(石築). 둘레 4,600보. 정종(正宗) 18년 갑인(1794년)에 처음으로 쌓았음.】 독성산성(禿城山城). 【석축. 둘레 1,800보. 선조(宣祖) 26년 계사(1593년)에 쌓았음.】 水原府 邑城.石築.周四千六百步.正宗甲寅.始築.禿城山城.石築.周一千八百步.宣祖癸巳.築.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4 관방(關防), 수원부(水原府) 관방(關防)>

정치/군사

총융청의 군제(軍制)를 기술한 것으로 내영군 소속의 시흥과 과천의 표하군이 화성에 이속된 뒤에 대충되지 않았다는 내용.

〈내영군(內營軍)〉 내영의 군제는 2부(部)와 4사(司)인데, 좌부에 좌사(左司)와 우사(右司)가 있고, 우부에 좌사와 우사가 있으며, 2부에 모두 중사(中司)가 있는데 이것을 이중사(二中司)라 한다. 4개 사는 각각 5초씩을 영솔하며, 이중사는 각각 3초를 영솔한다. 장초(壯抄) 10초 【김포(金浦) 2초, 통진(通津) 2초, 부평(富平) 2초, 인천(仁川) 1초, 남양(南陽)·양천(陽川)²⁸⁾ 1초, 파주(坡州) 1초, 장단(長湍) 1초. 둔장초(屯壯抄) 3초 양성(陽城)·양지(陽智)·광주(廣州)·이천(利川)·양근(楊根)·인천·부평·양천·직산(稷山)·평택(平澤) 등 읍에 흩어져 있다. ○ 인조 24년 병술(1646년)에 구인기(具仁壑)가 장초 10초·둔장초 3초를 기내(畿內)에 설치하였다.】 아병(牙兵) 10초 【장단 2초, 파주 2초, 마전(麻田) 1초, 교하(交河) 2초, 고양(高陽) 1초, 적성(積城) 1초, 부평(富平)²⁹⁾ 1초.】 둔아병(屯牙兵) 3초 【삭녕(朔寧)·연천(漣川)·양주·마전·적성·장단 등 고을에 산재한다. ○ 숙종 즉위년 갑인(1674년)에 호조 판서 민유중(閔維重)³⁰⁾이 아병 10초를 설치하였고, 7년 신유에 판윤(判

28) 양천(陽川) : ‘양천(陽川)’이 어느 본에는 ‘楊州’로 되어 있음.

29) 부평(富平) : ‘부평(富平)’이 어느 본에는 ‘麻田’으로 되어 있음.

30) 민유중(閔維重) : 1630년(인조 8)~1687년(숙종 13). 숙종의 장인, 자는 지숙(持叔), 호는 둔촌(屯村). 본관은 여흥(驪興). 호조판서를 거쳐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에 이르렀음.

尹)³¹⁾ 신여철(申汝哲)이 둔민(屯民) 중의 장건한 자를 선발하여 둔아병 3초를 설치하였다.】 모두 26초이다. 8색(八色)의 표하군이 995명 【경군이 633명·지방군이 362명인데 그 가운데서 원 인원수 852명에게는 각각 자보(資保) 1명씩을 급여하도록 영종 10년 갑인(1734년)에 규례를 정하였다. ○ 지방군의 표하군 126명으로서 시흥(始興)·과천(果川)에 있는 자는 두 읍이 화성(華城)으로 이속된 뒤에 아직까지 대충(代充)하지 못하였다】 인데, 이것이 ‘내영군’이다. (…)

軍制○內營軍制.二部四司.左部有左司,右司.右部有左司,右司.二部皆有中司.謂之二中司.四司各領五哨.二中司各領三哨.壯抄十哨.【金浦二哨.通津二哨.富平二哨.仁川一哨.南陽,陽川一哨.坡州一哨.長湍一哨.】屯壯抄三哨.【散在陽城,陽智,廣州,利川,楊根,仁川,富平,陽川,稷山,平澤等邑.○仁祖丙戌.具仁壑設置壯抄十哨,屯壯抄三哨於畿內.】牙兵十哨.【長湍二哨.坡州二哨.麻田一哨.交河二哨.高陽一哨.積城一哨.富平一哨.】屯牙兵三哨.【散在朔寧,漣川,楊州,麻田,積城,長湍等邑.○肅宗甲寅.戶曹判書閔維重設牙兵十哨.辛酉.判尹申汝哲抄出屯民中壯健者.設屯牙兵三哨.】凡二十六哨也.八色標下軍九百九十五名.【京六百三十三名,鄉三百六十二名.內.元額八百五十二名.各給資保一名事.英宗甲寅.定式.○鄉標下一百二十六名之在始興,果川者.兩邑屬華城後姑未充代.】是爲內營軍也.(…)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 3 총융청(摠戎廳), 軍制>

정치/군사

총융청 산하 수원·광주·양주·장단·남양의 5개 영을 설치하여 순회 조련하는 제도를 정했다는 내용.

(…) 인조 2년 갑자(1624년)에 총융청을 처음 설치하여 완풍부원군(完豐府院君) 이서(李曙)³²⁾로 총융사(摠戎使)를 삼고, 수원(水原)·광주(廣州)·양주(楊州)·장단(長湍)·남양(南陽)의 5개 영을 설치하여 순회 조련하는 제도를 정하였다.

영의 개설[開營] ○ 신영(新營)은 창의문(彰義門) 밖에 있다. 청을 처음 설치할 때에는 사직동(社稷洞)의 북이영(北二營)에 영을 개설하였다가 현종 10년 기유(1669년)에 삼청동(三清洞)으로 옮겨 세웠고, 영종 23년 정묘(1747년)에 연용대(鍊戎臺)³³⁾로 옮겨 세웠다. ○ 숙종 39년 계사(1713년)에 지돈녕(知敦寧) 김진규(金鎭圭)³⁴⁾가 상평청(常平廳)에 방수(防守)의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계청(啓請)하여, 한북문(漢北門)을 세우고 좌·우의 익성(翼城)³⁵⁾을 쌓았다. (…)

(…) 仁祖甲子.創置摠戎廳.以完豐府院君李曙爲摠戎使.置水原,廣州,楊州,長湍,南陽五營.定巡操之制.

開營○新營.在彰義門外.設廳初.開營於社稷洞北二營.顯宗己酉.移建於三清洞.英宗丁卯.移設於鍊戎臺.○肅宗癸巳.知敦寧金鎭圭.以平倉宜有防守.請建漢北門.築左右翼城.(…)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3 총융청(摠戎廳), 開營始末>

정치/군사

31) 판윤(判尹) : ‘판윤(判尹)’이 어느 본에는 ‘判書’로 되어 있음.

32) 이서(李曙) : ‘이서(李曙)’가 어느 본에는 ‘李’로 되어 있음.

33) 연용대(鍊戎臺) : 창의문(彰義門) 밖에 있는데 군대를 훈련하는 대의 이름.

34) 김진규(金鎭圭) : 1658년(효종 9)~1716년(숙종 42). 자는 달보(達甫), 호는 죽천(竹泉), 본관은 광산(光山). 좌참찬에 이름. 글씨와 그림에 뛰어났다.

35) 익성(翼城) : 날개처럼 양쪽에서 서로 도와주는 성.

무과에 급제한 자의 유방(留防)에 대한 규정으로 수원 등지는 본부(本府)에 머물러 방어하게 한다는 내용.

(…) 유방(留防). 새로 무과에 합격한 자는 서울이나 지방을 물론하고 양반의 자제(子弟)로 평안도의 7읍 【위원(渭原)·벽동(碧潼)·강계(江界)·초산(楚山)·의주(義州)·삭주(朔州)·창성(昌城)】과 함경도의 6진 【회령(會寧)·온성(穩城)·중성(鍾城)·경원(慶源)·경흥(慶興)·무산(茂山)】의 방어에 복무하고, 12개월 【식량을 자기가 부담하면 6개월 만에 돌아오며, 관지에 임명되면 만기 전일지라도 올라온다[上來]³⁶⁾】 뒤에 돌아오며 【전에는 무과에 합격한 자는 양반이나 서얼(庶孽)을 물론하고 모두 방어에 복무하되 또한 자원(自願)에 의하여 쌀을 바치고 방어를 면제하도록 했었는데, 영종 45년 기축(1769년)에 병조판서 구윤명(具允明)이 건의하여 쌀을 납부하는 규례를 혁파(革罷)하고 다만 양반의 자제만을 방어에 복무하게 하였고, 또 금왕 5년 을축(1805년)에 병조판서 김사목(金思穆)이 건의하여 과거에 합격한 자 중에서 선전관으로 추천을 받은 자[宣薦人]³⁷⁾만 복무하도록 규례를 정하였다.】 수원(水原)·광주(廣州)·강화(江華)는 본부(本府)에서 머물러 방어하게 한다. 【방어에 복무할 자로서 사고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갑과(甲科)로 합격한 금군(禁軍)·별군직(別軍職)·지방의 기사(騎士)·별효사(別驍士)·당상에 승진되어 관직에 임명된[除]³⁸⁾ 자 및 60세 이상이 된 자인데 모두 불문에 붙이며, 부모의 나이 80세 이상이 된 자는 쌀을 바치게 하고 방어역을 면제한다.】 (…)

(…) 留防○武科新榜出身. 無論京, 外以兩班子枝赴防於西關七邑, 渭原, 碧潼, 江界, 楚山, 義州, 朔州, 昌城. 北關六鎮. 會寧, 穩城, 鍾城, 慶源, 慶興, 茂山. 十二朔 自備糧則六朔放還. 而除職則雖未準朔上來. 後放還. 前則武科出身. 無論班, 庶並赴防. 而亦從自願納米除防矣. 英宗己丑. 兵曹判書具允明建白. 革罷納米之規. 只以兩班子枝赴防. 又於當宁乙丑. 兵曹判書金思穆建白. 出身中已越宣薦人許赴事. 定式. 而水原, 廣州, 江華留防於本府. 赴防應頃. 甲科禁軍, 別軍職, 鄉騎士, 別驍士, 陞堂上除職人及年六十. 並勿論. 親年八十. 納米除防. (…)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2 병조각장사례(兵曹各掌事例), 武備司>

정치/군사

봉수의 경로 가운데 수원, 남양 등은 다섯 번째 헛불과 통한다는 내용.

(…) 다섯째 헛불 : 순천(順天)의 방답진(防踏鎭)으로부터 시작하여, 흥양(興陽)·장흥(長興)·강진(康津)·영암(靈巖)·해남(海南)·진도(珍島)·무안(務安)·나주(羅州)·함평(咸平)·영광(靈光)·무장(茂長)·부안(扶安)·옥구(沃溝)·임피(臨陂)·함열(咸悅)·용안(龍安)·은진(恩津)·노성(魯城)·공주(公州)·천안(天安)·아산(牙山)·직산(稷山)·양성(陽城)·수원(水原)·남양(南陽)·안산(安山)·인천(仁川)·부평(富平)·김포(金浦)·통진(通津)·강화(江華)·양천(陽川)을 거쳐 개화산(開花山)의 봉수로 통한다.

사잇봉수 : 교동(喬桐) 장봉도(長峯島)³⁹⁾에서 시작하여 강화로 통한다.

이상 직로봉수 60개소, 사잇봉수 34⁴⁰⁾개소. (…)

(…) 第五炬. 初起順天防踏鎭自興陽, 長興, 康津, 靈岩, 海南, 珍島, 務安, 羅州, 咸平, 靈

36) 올라온다[上來] : ‘올라온다[上來]’앞에 어느 본에는 ‘或’이 들어 있음.

37) 선전관으로 추천을 받은 자[宣薦人] : ‘선전관으로 추천을 받은 자[宣薦人]’가 어느 본에는 ‘宣薦又’로 되어 있음.

38) 임명된[除] : ‘임명된[除]’이 어느 본에는 ‘際’로 되어 있음.

39) 장봉도(長峯島) : ‘장봉도(長峯島)’의 ‘峯’이 어느 본에는 ‘烽’으로 되어 있음.

40) 34 : ‘34’가 어느 본에는 ‘64’로 되어 있음.

光, 茂長, 扶安, 沃溝, 臨陂, 咸悅, 龍安, 恩津, 魯城, 公州, 天安, 牙山, 稷山, 陽城, 水原, 南陽, 安山, 仁川, 富平, 金浦, 通津, 江華, 陽川通于開花山烽.

間烽. 初起喬桐長峯島通于江華.

已上. 直烽六十處. 間烽三十四處. (…)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1 봉수(烽燧)>

정치/군사

오위 가운데 수원(水原)은 의흥위(義興衛)의 중부에 속한다는 내용.

(…) 대장(大將)은 위장을 명령하고, 위장은 부장을 명령하고, 부장은 통장을 명령하고, 통장은 여수를 명령하고, 여수는 대정을 명령하고, 대정은 오장을 명령하고, 오장은 그에게 소속된 병졸을 명령한다. 장략(將略)의 변통으로 주둔과 전쟁의 방법은 오직 책임 장교의 재량에 달려있을 뿐이다. ○ 매위의 5부는 각각 그 소속이 있으니, 의흥위는 중위가 되는데 갑사(甲士) 14,800명과 보충대가 이에 속한다. 중부(中部) 소속 : 서울의 중부·개성부·경기의 양주(楊州)·광주(廣州)·수원(水原)·장단(長湍) 진관(鎭管)의 군사. ○ 좌부 소속 : 강원도의 강릉(江陵)·원주(原州)·회양(淮陽) 진관의 군사. ○ 우부 소속 : 충청도의 공주(公州)·홍주(洪州) 진관의 군사. ○ 전부(前部) 소속 : 충청도의 충주(忠州)·청주(淸州) 진관 군사. ○ 후부 소속 : 황해도의 황주(黃州)와 해주 진관 군사. (…)

(…) 大將令衛將. 衛將令部將. 部將令統將. 統將令旅帥. 旅帥令隊正. 隊正令伍長. 伍長令其卒. 奇, 正相生. 駐, 戰無常. 係將之節度耳. ○每衛五部各有其屬. 義興衛爲中衛. 甲士一萬四千八百人. 補充隊屬焉. 中部屬. 京中部, 開城府, 京畿楊州, 廣州, 水原, 長湍鎭管軍士. ○左部屬. 江原道江陵, 原州, 淮陽鎭管軍士. ○右部屬. 忠淸道公州, 洪州鎭管軍士. ○前部屬. 忠州, 淸州鎭管軍士. ○後部屬. 黃海道黃州, 海州鎭管軍士. (…)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1 오위(五衛), 衛制>

정치/군사

수어청 소속의 오영(五營) 가운데 수원(水原) 독영(獨營) 등이 속해 있다는 내용.

(…) 인조 24년(1646) 즉 병술년에 남한산성(南漢山城)을 개축하고 수어사(守禦使)를 두어 광주(廣州) 등 지방의 군사를 절제(節制)하게 하였다. 이제 들으니, “오영(五營)은 곧 광주(廣州)의 본영(本營)과 그밖에 수원(水原) 독영(獨營)과 경기 좌영·우영 및 원주(原州)의 병영(兵營)이라.” 고 한다. (…)

이익(李瀾), <성호사설(星湖僊說) 제14권 인사문(人事門), 설경영(設京營)>

정치/군사

수원(水原)이 오위(五衛)의 중위에 속한다는 내용.

오위(五衛)의 제도는 이미 폐지되었지만 이름만은 아직도 남아 있다. 처음에는 경도(京都)를 나누어 5부(部)로 만들었으니, 중(中)·동·서·남·북이었고, 역내(域內)를 나누어 5위(衛)로 만들었으니 중·좌·우·전·후였다. 중부는 의흥위(義興衛)를 맡고, 동부는 용양위(龍驤衛)를 맡고, 서부는 호분위(虎賁衛)를 맡고, 북부는 충무위(忠武衛)를 맡고, 남부는 충좌위(忠佐衛)를 맡았었다. 5위의 안에도 역시 각기 5부가 있으니, 중위에는 갑사보충대(甲士補充隊)가 소속됨과 동시에, 개성(開城)·양주(楊州)·광주(廣州)·수원(水原)·장단(長湍)이 중에 속하고, 강릉(江陵)·원주(原州)·회양(淮陽)은 좌에 속하고, 공주(公州)·홍주(洪州)는

우에 속하고, 충주(忠州)·청주(淸州)는 전에 속하고, 황주(黃州)·해주(海州)는 후에 속했다. (…)

이익(李瀾), <성호사설(星湖僿說) 제9권 인사문(人事門)>

정치/군사

수원(水原)이 중진(重鎭)이라는 내용.

(…) 반정 뒤에 이경직이 이귀 집 술좌석에서 한 말이 공신·무인들에게 탈을 잡혀 여러 사람의 분노가 물 끓듯 하였다. 그때 홍서봉이 대사간으로 있었는데, 서성이 서봉에게 이경직을 체직시키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였다. 그러므로 일부러 말을 바꾸어, 이경직이 있는 수원(水原)은 중진(重鎭)인데 멋대로 임지를 비우고 서울에 올라온 일과, 또 술로 병이 되었다는 것으로써 과직하기를 청하였으니, 다른 과실로 죄를 받아 물러가게 함으로써 여러 사람의 분노를 미리 막은 것이었다. (…)

【《세구록(世舊錄)》서경우(徐景雨)의 소(疏)】
이공익(李肯翊),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제27권 인조조 고사본말(仁祖朝故事本末), 노서(老西)·소서(少西)로 나누어지다>

정치/군사

총융청을 설치하여 수원(水原) 등 3진(鎭)의 군무를 절제(節制)하게 하였다는 내용.

인조 갑자년 10월에 총융청을 설치하고, 완풍군(完豐君) 이서(李曙)로 총융사(摠戎使)를 겸하게 하여 남양(南陽)·수원(水原)·장단(長湍) 등 3진(鎭)의 군무를 절제(節制)하게 하였다.

총융청을 설치하던 처음에는 도체찰사(都體察使)에게 예속시켰는데, 체부(體府)가 이미 없어지고는 총융사의 이름만 남아 있었다. (…)

이공익(李肯翊),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별집 제8권 관직전고(官職典故), 총융청(摠戎廳)>

정치/군사

1668년(현종 9) 처음으로 경기도의 진영장 중에 수원부사가 별중(別中)을 겸하게 하였다는 내용.

본조에서 진영장 겸 토평사 46명과, 진무영장(鎭撫營將) 5명을 두었다.

○ 경기도는 6명인데, 전(前)에 광주(廣州), 【부윤이 겸한다.】 좌(左)에 남양(南陽), 【부사가 겸한다.】 중(中)에 양주(楊州), 【목사가 겸한다. 이상은 모두 인조조에 처음 두었다.】 별중(別中)에 수원(水原), 【부사가 겸하며 현종 9년에 처음으로 두었다.】 우(右)에 장단(長湍), 【부사가 겸하며 현종 6년에 처음 두었다.】 후(後)에 죽산(竹山) 【부사가 겸하며 인조조에 여주에서 옮겼다.】 이다. (…)

이공익(李肯翊),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별집 제8권 관직전고(官職典故), 진영장(鎭營將)이 토평사(討捕使)를 겸하다>

정치/군사

경기도의 진관 가운데 수원과 광주가 한강 남쪽의 문호가 된다는 내용.

(…) ○ 을미년에 유성룡이 또 차자를 올리기를, “평상시에는 진관(鎭管)을 둔 읍이 주진(主鎭)이 되어 그 속읍을 단속하고 군사를 조련하는 모든 일을 다스리고 일이 있을 때는 진

관이 각각 그 소속된 군사를 거느리고 차례로 정제하여 주장(主將)의 약속을 듣게 하니, 그 형세가 몸이 팔을 쓰는 것 같고 팔이 손가락을 쓰는 것과 같아서, 조종(操縱)하고 신축(伸縮)하는 것은 오직 주장의 하는 대로 하고 또한 진관의 군사가 혹시 무너져도 다른 진관의 군(軍)이 각각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차츰 굳게 지키며, 혹은 그 앞을 잡기도 하고, 혹은 그 뒤를 추격하기도 하며 혹은 좌·우를 어지럽게 하면 적이 비록 한 겹을 뚫고 들어왔더라도 또 한 겹이 있으니, 어찌 한 열흘 사이에 천리를 횡행하여 곧장 도성으로 들어오기를 마치 사람 없는 땅을 밟는 것같이 하겠습니까. (…)

우리나라 진관의 제도가 대개 이러한 뜻이 있어 경기에 4개의 진관이 있는데, 수원(水原)·광주(廣州)는 한강 남쪽에 있어 그 문호(門戶)가 되고, 양주(楊州)는 국도(國都)의 왼쪽에 있어 동·북을 막고, 장단(長端)은 그 뒤에 있어 북방의 방비를 전담하고, 강화·교통 두 읍은 바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속된 곳이 없이 바다 위를 막는 것에만 전력하고 있사오며, (…)

이공익(李肯翊),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별집 제8권 관직전고(官職典故), 진관(鎭管)>

정치/군사

총융청을 중심으로 경기도 내의 수원(水原) 방어사, 강도의 유수영 등등을 통합 지휘해야 한다는 내용.

○ 서울을 중심으로 한 기전(畿甸) 백리 안에 이미 총융청(摠戎廳)이 있고, 또 수원(水原)에 방어사(防禦使), 남한산성에 수어청(守禦廳), 강도(江都)에 유수영, 수군에 통어사(統禦使)가 있어 각각 병권을 잡아 서로 통할 예측이 되지 아니하니, 이들의 설치는 본래 수위를 더 하고 근본을 굳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내(畿內)의 모든 진(鎭)을 총융청에 병합하여야 호령이 전일하여 체통이 문란하지 않을 것이다. 【《택당집》】 (…)

이공익(李肯翊),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별집 제12권 정교전고(政教典故), 병제(兵制)>

정치/군사

수원(水原)의 독성산성(禿城山城)의 위치를 기술한 내용.

○ 수원(水原) 독성산성(禿城山城)은 옛 감영의 동쪽 7리 되는 곳에 있는데, 석축(石築)이다. (…)

이공익(李肯翊),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별집 제17권 변어전고(邊圉典故), 산성(山城)>

정치/군사

권율이 수원(水原)의 독성(禿城)을 중심으로 활약한 내용을 정리한 내용.

권율의 행주 승첩(幸州勝捷) 【정담(鄭湛)의 웅령전사(熊嶺戰死)불임. 권율(權慄)·황진(黃進)의 이티[梨峙]승첩 불임.】

(…) ○ 10월에 체찰사(體察使) 정철(鄭澈)이 아산(牙山)에 배를 정박시켰다. 권율이 지나가는 길에 가보았더니 철이 권율에게 같이 전라도 지역을 지키자고 하였으나 율이 듣지 아니하고 북으로 나아가 수원(水原)의 독성(禿城)에 진을 치니, 임금이 칼을 풀어 가지고 말을 달려 보내어 권율에게 주며 이르기를, “모든 장수 중에 명령을 듣지 않는 자가 있거든 이 칼로 처단하라.” 하였다. 그때 서울에 있던 적병이 호남(湖南)의 군사가 또 왔다는 말을 듣고 군사 수만을 출동시켜 길을 나누어 쳐들어 왔다. 이에 권율이 성벽을 굳게 지키고 움직이지 아니하니 적이 세 개의 진채(陳寨)를 오산(烏山) 등지에 만들어 놓고 날마다 와서 싸움을 돋우었으나 응하지 아니하고 이따금 기습병(奇襲兵)을 내보내어 적병을 베어 죽이고

적의 영채(營寨)를 불사르곤 하니 적이 도로 서울로 돌아갔다. 바야흐로 적이 쳐들어 오려 할 때 권율이 날마다 체찰사(體察使)에게 보고하면서 구원병(救援兵)을 청하니 정철이 전라도사(全羅都使) 등에게 급히 기별을 보내어, 성화(星火)같이 군사를 전진시켜 수원성(水原城)의 위급을 구(救)하였고, 도사(都事) 최철건(崔鐵堅)·변사정(邊士貞)·임희진(任希進) 등의 의병(義兵)도 달려와 원조하였다. (…)

○ 계사년 2월 권율이 수원(水原)에서 고양(高陽)의 행주산성(幸州山城)으로 나아가 주둔하였는데, 군사를 나누어 4천여 명을 병사(兵使) 선거이(宣居怡)에게 주어 금천(衿川)에 머물며 성원하게 하고, 권율 자신은 만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양천강(楊川江)을 건너서 행주(幸州)에 진을 쳤다. (…)

이공익(李肯翊),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제16권 선조조 고사본말(宣祖朝故事本末)>

정치/군사

김천일이 수원(水原)의 독성(禿城)에서 전투하였다는 내용.

(…) ○ 각 도의 군사가 모두 무너졌다는 소문을 듣고 온 군중이 두려워하여 위축하였다. 김천일이 여럿에게 타일러 말하기를, “우리 군사는 의를 위해서 나선 것이다. 전진이 있을 뿐이요, 후퇴는 없다. 가고자 하는 자는 가는 대로 내버려두겠다.” 하니 여러 군사들이 모두 감동하고 분발하여 몰래 도망하는 자가 없었다. 호서(湖西)에 이르렀을 때 군사가 수천 명이 되었다. 병사(兵使) 최원(崔遠)과 더불어 수원(水原)으로 진군하였다. 김천일이 독산(禿山)의 옛 성에 자리 잡고서 적에게 따라 붙은 간사한 백성을 찾아내어 목 베니 기내(畿內)의 선비와 백성 중에 와서 협력하는 자가 많았다. 드디어 금령(金嶺) 수원땅의 적을 습격하여 깨뜨렸다. (…)

이공익(李肯翊),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제16권 선조조 고사본말(宣祖朝故事本末)>

정치/군사

홍언수가 적을 토벌한 공으로 수원 판관에 임명되었다는 내용.

수원(水原)의 충의위(忠義衛) 홍언수가 군사를 일으켜 적을 토벌하였던 바, 그 공으로 수원 판관을 임명하였다. 언수의 천첩(賤妾)에게서 난 아들이 있었는데, 계남(季男)이라고 하였다. 계남은 용맹과 힘이 남보다 뛰어나 말 타고 활쏘기를 잘하여 금군(禁軍)에 소속되었다. 경인년에 통신사의 군관이 되어 황진(黃進) 등과 더불어 일본에 갔다 왔기 때문에 적의 정상을 알고 있었다. 이때에 이르러 아버지를 따라 의병을 일으켜 여러 번 싸워서 모두 승리하였으며, 전후하여 적의 머리를 베어 바친 것이 거의 백여 급에 이르렀고 가까운 곳에 있는 적들이 두려워하여 나오지 못하였다. 그런 까닭에 그 아버지 언수에게 수원 판관의 임명이 있었던 것이다. (…)

이공익(李肯翊),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제16권 선조조 고사본말(宣祖朝故事本末), 홍언수(洪彦秀)·홍계남(洪季男)>

정치/군사

승통이 총섭 및 승장 등을 두어 영솔하게 한 유래를 변증한 내용.

(…)선조(宣祖) 25년(임진)에는 승통(僧統)⁴¹⁾을 두었는데, 이는 행조(行朝)에서 묘향산(妙香山)의 중 휴정(休靜)을 불러 승군(僧軍)을 모집하게 한바, 휴정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 의엄

41) 승통(僧統) : 승군(僧軍)을 통솔하는 승직(僧職)의 하나. 총섭(摠攝), 또는 섭리(攝理)라고도 한다.

(義嚴)을 총섭(摠攝)으로 삼고 또 격문(檄文)을 돌려 관동(關東)의 유정(惟政), 호남(湖南)의 처영(處英)을 장수로 삼아 승군을 모집하여 성원(聲援)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 후로는 8도(道)의 사찰(寺刹)에 모두 승군이 있었는데, 남한(南漢)·북한(北漢)·화성(華城)·밀양(密陽) 등지의 사찰에 있는 중들이 총섭(摠攝)이나 승장(僧將)이 되어 승군을 영솔하였다. 이것이 조선조 시대 불교 연혁(沿革)의 대략이다.(…)

이규경(李圭景),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경사편3 석전류1 석전총설(釋典總說), 석교(釋敎)·범서(梵書)·불경(佛經)에 대한 변증설(辨證說) 【부(附) 석씨잡사(釋氏雜事)】>

정치/군사

1730년(영조 6) 영릉에 행행할 때 수원에서 징발한 군사들의 군량 등을 잘 준비하도록 하였다는 내용.

영종 6년에 영릉(英陵)에 행행하게 되었다. 이때 유도 대신(留都大臣) 이의현(李宜顯)이 경연 석상에서 아뢰기를, “수원(水原)의 군대 12초(哨)를 올려 보내도록 명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 사이 6일 동안 먹을 군량을 묘당에서 이미 품정(稟定)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측건대, 필시 총융청(摠戎廳)에서 건량(乾糧)을 제급(題給)할 것입니다. 향군(鄉軍)은 경군(京軍)과는 달라 5, 6일 동안 밤낮없이 한데서 지내게 되니 모든 일을 각별히 유념하여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군량 이외에 소금이나 장(醬) 같은 것 또한 본청에서 추이(推移)하여 해야 할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로써 본청에 분부하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대로 하라.” 하였다.

이유원(李裕元), <임하필기(林下筆記), 제21권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유도(留都)에 군병을 더할 것에 관한 계사(啓辭)>

정치/군사

유성룡이 경기의 군사전략을 정리한 것으로 수원 등지를 장수 한명에게 맡겨서 남쪽을 방어해야 한다는 주장.

유성룡이 기보(畿輔)의 제치(制置)를 논하기를, “경기를 세 길로 나누어 양주(楊州), 포천(抱川), 적성(積城), 영평(永平), 가평(加平) 등의 군(軍)을 한 장수에게 예속시켜 동쪽 방면을 막아 가리도록 하고, 고양(高陽), 교하(交河) 등의 군을 한 장수에게 예속시켜 서쪽 방면을 막아 가리게 하고, 광주(廣州), 과천(果川), 수원(水原) 등의 군을 한 장수에게 예속시켜 남쪽 방면을 막아 가리도록 하여 서로 기각(掎角)의 형세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적이 적으면 군병을 나누어 복병(伏兵)을 설치하고, 적이 많으면 군병을 합하여 공격하여 전멸시킵니다. 이어 강원도의 군병을 동쪽 방면에서 합하고 강화(江華)의 군병을 서쪽 방면에서 합하고 충청도와 전라도의 군병을 남쪽 방면에서 합하도록 하여,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 기회를 엿보고 편리한 때를 틈타 몸과 마음을 하나로 하여 사방에서 구름처럼 모이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이유원(李裕元), <임하필기(林下筆記), 제20권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경기를 세 길로 나누다>

정치/군사

양성지와 유성룡이 경기 수원(水原) 등지를 군사적으로 각각 전보 및 우보로 편제해야 한다

고 주장한 내용.

세조(世祖) 원년에 양성지(梁誠之)가 상소하기를, “전조(前朝)의 좌보(左輔), 우보(右輔), 전보(前輔), 후보(後輔)의 예에 의거하여 양주(楊州)를 후보, 수원(水原)을 전보, 광주(廣州)를 좌보, 부평(富平)을 후보로 삼아 경사(京師)를 견고히 해야 합니다. 각도(各道)의 주군(州郡)에 설치한 익진(翼鎭)은 요해처가 아니면 줄여 버릴지 그대로 둘지를 아울러 알맞게 헤아려 처리해야 합니다.” 하였다.

선조(宣祖) 26년에 유성룡(柳成龍)이 아뢰기를, “한강(漢江) 이남으로는 이천(利川), 여주(驪州), 광주(廣州)가 경도(京都)의 좌보가 되고, 수원, 남양(南陽), 부평, 인천(仁川)이 후보가 됩니다. 병졸을 모아 훈련시키고 군량을 쌓아 둔 뒤 험준한 지형을 골라 지킨다면 경성(京城)의 형세가 점차 막히고 가려져서 위급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믿을 바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유원(李裕元), <임하필기(林下筆記), 제20권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사보(四輔)>

정치/군사

총융청을 설치하여 수원(水原) 등 진(鎭)의 군무(軍務)를 절제(節制)하도록 하였다는 내용.

총융청을 설치하여 남양(南陽), 수원(水原), 장단(長湍) 세 진(鎭)의 군무(軍務)를 절제(節制)하도록 하였는데, 이서(李曙)로 하여금 이 일을 주관하도록 하였다. 본청을 설치한 초기에는 도체찰사(都體察使)에 예속시켰으나 체부(體府)가 혁파되고 나자 총융사(摠戎使)라는 이름만 남게 되었다. (…)

이유원(李裕元), <임하필기(林下筆記), 제19권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총융청(摠戎廳)을 설치하다>

정치/군사

1782년(정조 6) 수원 군수가 진연청의 훈령에 따라 숙수 6명을 소집해서 보낸다는 내용.

관찰부 훈령을 받드니, “진연청 훈령을 받드니, ‘이번 진연 시에 음식을 요리하는 일이 매우 많은데 경사(京司)에 소속된 숙수로는 전혀 거행할 수가 없다. 이에 훈령을 보내니, 본부 경내의 숙수 8명을 음력 10월 20일 이내로 서기를 정하여 본청으로 올려 보내 제때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늦어서 문제가 생기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 라는 사유였는바 이에 훈령을 보내니 기한 내로 진연청으로 보내어 일을 그르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는 사유였습니다. 본군 경내의 숙련된 숙수를 소집하니 6명에 불과하였기에 순교(巡校)를 정하여 떠나보냈습니다. 이에 보고드리니 살피기를 삼가 바랍니다.

수령하였다고 결제되었습니다.

<진연의례(進宴儀軌), 제2권 내보(來報), 임인년 10월 12일 【수원 군수(水原郡守)】>

정치/군사

1597년(선조 30) 부총병 해생이 수원(水源) 등지에 부하를 보내 왜적을 막게 하였다는 내용.

○ 9월 7일에 부총병 해생(解生)이 왜적들이 곧장 왕경을 침입해 올라 염려하여 부하를 직산(稷山), 수원(水原) 등처로 나누어 보내 방어하게 하였다. 왜적들이 이미 전의관(全義館)에 이르렀는데, 전의(全義)는 왕경과의 거리가 150리밖에 안 되었다. 이에 성안의 사람들이 밤낮으로 달아나 거의 다 도망갔다.

한치윤(韓致彥), <해동역사(海東繹史), 제63권 본조(本朝)의 비어고(備禦考)3, 왜적(倭賊)을

막은 데 대한 시말(始末) 3>

정치/군사

유정이 소속 군사들을 수원(水源) 지방에 주둔시키고서 왜적을 공격했다는 내용.

(...) 유정은 서로(西路)를 맡아서 소속 군사들을 통솔하여 수원(水原) 지방에 주둔해 있으면서 순천(順天)의 성채에 있는 왜적들을 공격하였다. 그런데 왜적들이 성채를 바다 가까운 곳에 쌓아서 유정의 군사가 다가갈 수가 없었다. 이에 유정은 심유경(沈惟敬)의 옛 꾀를 답습해 소서행장을 유인해 그가 나왔을 적에 사로잡으려고 모의하였다. 그러고는 인하여 사신 오종도(吳宗道) 등을 왜영으로 들여보내어 소서행장에게 고하기를, (...)

한치윤(韓致淵), <해동역사(海東繹史), 제64권 본조(本朝)의 비어고(備禦考)4, 왜적(倭賊)을 막은 데 대한 시말(始末) 4>

정치/군사

1793년(정조 17) 수원유수가 비변사 제조를 겸임하게 하였다는 내용.

(...) 영종 23년 정묘(1747년)에는 수어사(守禦使)와 총융사(摠戎使)가, 동 30년 갑술(1754년)에는 금위대장이, 정종 17년 계축(1793년)에는 수원유수가, 동 19년 을묘(1795년)에는 광주유수가 또한 모두 상례적으로 제조를 겸임하게 하였다. (...)

(...) 英宗丁卯.守禦使,摠戎使.甲戌.禁衛大將.正宗癸丑.水原留守.乙卯.廣州留守亦並例兼提調.(...)

<만기요람(萬機要覽), 軍政編一 備邊司, 總例>

정치/군사

수원부에 소속 좌·우열 친군위(左右列親軍衛)에게 고시를 실시하여 성적에 따라 관계를 올려주는 제도를 정리한 내용.

(...) 【○ 수원부에 속하는 좌·우열 친군위(左右列親軍衛)는 춘·추로 고시를 실시하여 좌열 친군위에서 첫 번째 수위로 합격한 자 및 몰기(沒技)한 자는 관계(官階)가 가선(嘉善)이면 위장(衛將)에 임명하고, 절충(折衝)이나 추천을 받지 못한 출신(出身)자에게는 관계를 승급시키고, 장교의 전직을 가진 한량은 바로 전시에 응시케 하고, 두 번째에 수위로 합격한 자 및 몰기한 자는 당상(堂上)이나 가선(嘉善)을 물론하고 변장에 임명하며, 우열 친군위에서 수위로 합격한 자 및 몰기한 한량은 바로 전시에 응시케 하며, 차위로 합격한 한량은 바로 회시에 응시케 한다.】 (...)

(...) ○水原府屬左, 右列親軍衛.春, 秋試取.左列初次居首及沒技者.嘉善則衛將除授.折衝與無薦出身.加資.將校前啣中閑良直赴殿試.再次居首及沒技者.毋論堂上, 嘉善.邊將除授.右列居首及沒技者閑良直赴殿試.之次閑良直赴會試.(...)

<만기요람(萬機要覽), 軍政編二 兵曹各掌事例, 一軍色>

정치/군사

교련관(敎鍊官) 정원 17명 중 수원의 자리를 정리한 내용.

교련관(敎鍊官) 17명 【금위군의 자리 1, 북한산성 연용대의 자리 1, 수원의 자리 1, 무예청의 자리 1, 한산(閑散)의 자리 9, 향오의 자리 2. 2명을 증설하였다.】

敎鍊官十七員.禁旅窠一.北漢鍊戎臺窠一.水原窠一.武藝廳窠一.閑散窠九.行伍窠二.加設二.

<만기요람(萬機要覽), 軍政編三 揔戎廳, 官制>

정치/군사

총융청의 내영과 외영 가운데 외영 군제의 구성을 설명한 내용.

(…) <외영군(外營軍)> 외영의 군제는 모두 3영인데, 남양이 전영(前營)【속읍은 양천.】 파주가 중영【속읍은 고양·교하·적성.】 장단이 후영【속읍은 연천·마전·삭녕. ○ 인조 2년 갑자에 청을 설치할 때에는 본시 5영의 제도로 만들었던 것인데, 숙종 13년 정묘(1687년)에 남양을 수어청(守禦廳)에 이속시키고, 수원·장단·파주의 3개 영만 설치하였다. ○ 영종 40년 갑신(1764년)에 정부의 결의로 군제를 개편하여 5개 영으로 만들었는데, 남양이 전영, 수원이 좌영, 북한이 중영, 파주가 우영, 장단이 후영이 되었다. ○ 정종 16년 임자(1792년)에 수원부사를 유수로 승격시켰다. 그러므로 5명을 개편[改]하여 3영의 제도가 되었다】이다. (…)

(…) 外營軍制. 凡三營. 南陽爲前營. 屬邑. 陽川. 坡州爲中營. 屬邑. 高陽, 交河, 積城. 長湍爲後營. 屬邑. 漣川, 麻田, 朔寧. ○甲子設廳. 本爲五營之制. 肅宗丁卯. 移屬南陽於守禦廳. 只設水原, 長湍, 坡州三營. ○英宗甲申. 廟議改軍制爲五營. 南陽爲前營. 水原爲左營. 北漢爲中營. 坡州爲右營. 長湍爲後營. ○正宗壬子. 陞水原府使爲留守. 故改五營爲三營之制. (…)

<만기요람(萬機要覽), 軍政編三 揔戎廳, 軍制>

정치/군사

1797년(정조 21) 수원유수 조심태(趙心泰)의 계청에 의하여 치영(緇營)을 용주사(龍珠寺)의 중으로 번갈아서 임명하게 하였다는 내용.

(…) <치영(緇營)> 승병(僧兵)을 설치하고 치영이라 하였다. 【중흥사(重興寺)에 있다.】 총섭(摠攝) 1명 【본시는 중전부터 거주하는 중으로 임명하였는데 정종 21년 정사(1797년)에 수원유수 조심태(趙心泰)의 계청에 의하여 용주사(龍珠寺)의 중으로 번갈아서 임명하게 하였다.】 (…)

(…) ○置僧兵號曰緇營. 在重興寺. 揔攝一人. 本以原居僧差出矣. 正宗丁巳. 因水原留守趙心泰所啓. 以龍珠寺僧輪差. (…)

<만기요람(萬機要覽), 軍政編三 揔戎廳, 北漢山城>

정치/군사

총융청(揔戎廳)의 속읍을 수원 등 5개 영을 만들었다는 내용.

영을 처음 설치할 때에는 수원·광주·양주·장단·남양으로 5개 영을 만들었는데, 인조 13년 을해(1635년)에 광주를 남한에 이속시키고 죽산으로 대신 정하였으며, 효종 7년 병신(1656년)에 수어청의 계청에 의하여 양주를 남한에 이속시키고, 통진으로 대신 정하였으며, 숙종 13년 정묘(1687년)에 수어청(守禦廳)⁴²⁾의 계청에 의하여 남양을 남한에 이속시키고, 수원·장단·양주에만 설치하였다가, 15년 기사에 양주를 또 남한에 붙이고, 파주로 대신 정하였으며, 영종 40년 갑신(1764년)에 왕의 특명에 의하여 장단의 방영(防營)을 파주에 옮겨 설치하였다[移設].⁴³⁾

屬邑沿革○設營初. 以水原, 廣州, 楊州, 長湍, 南陽爲五營. 仁祖己亥. 廣州移付南漢. 以竹山代

42) 수어청(守禦廳) : ‘수어청(守禦廳)’의 ‘廳’이 어느 본에는 ‘使’로 되어 있음.

43) 옮겨 설치하였다[移設] : ‘옮겨 설치하였다[移設]’의 ‘設’이 어느 본에는 ‘屬’으로 되어 있음.

定.孝廟丙申.因守禦廳啓請.楊州移付南漢.以通津代定.肅廟丁卯.因守禦廳啓請.南陽移付南漢.
只設水原, 長湍, 楊州.己巳.楊州又屬南漢.以坡州代定.英廟甲申.因特教.長湍防營移設坡州.
<만기요람(萬機要覽), 軍政編三 揔戎廳, 屬邑沿革>

정치/군사

유성룡과 이정구의 글을 정리한 것으로 경기의 군사적 요충지로서 수원을 언급한 내용.

(…) 〈유성룡 소론(柳成龍所論)〉 유성룡은 말하기를, “역대 조정에서 경기에 4개의 진관(鎭管)을 두었는데, 수원과 광주(廣州)의 2개 진은 한강의 남쪽에 있어서 그의 문호가 되고, 양주(楊州)는 서울[國都]의 왼쪽에 있어 동북쪽을 가리고, 장단(長湍)은 그 후면에서 주로 북방을 방비하며, 강화(江華)·교동(喬桐) 두 읍은 바다 가운데 있으므로 아무 데에도 예측된 곳이 없이 그대로 해상 방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였다. ○ 여주(驪州)의 파사성(婆娑城)과 수원의 독성(禿城)은 벌써 형태가 이루어졌고, 양성(陽城)의 무한산성(無限山城)은 이제 바야흐로 다시 수리되었으니, 양쪽의 형세는 허술할 지경은 아니나 중간으로 통하는 한 군데 죽산(竹山) 이북은 방비 조치가 극히 곤란한 형편이니, 경기 지방을 튼튼히 하여 수도를 보위하는 것이 지금의 급선무이다. 고려 때는 도순문사(都巡問使)를 풍덕(豐德)에 설치하여 왜구를 방어하였었다. 지금 마땅히 이 방법에 따라서 남한성중(南漢城中)에 도순찰사(都巡察使)의 행영(行營)을 설치하여 위로는 파사현(婆娑峴)과 용진(龍津)을 통제하고, 오른쪽으로는 독성과 무한산성에 연결하며, 또 죽산의 성을 더욱 개수하여 3방면의 세력이 서로 연결되도록 만들고, 가운데에서 지휘하면 상호 배치 연락이 사뭇 끊어지지 아니하여 일에 혹 도움이 될 것이다. ○ 서울을 수복하기 위한 세력으로는 세 갈래로 나누어야 할 것이니, 양주(楊州)·포천(抱川)·적성(積城)·영평(永平) 등 읍의 군병을 한 장수에게 주어 동쪽을 막고, 고양(高陽)·교하(交河) 등 읍의 군병을 역시 한 장수에게 주어 서쪽을 막으며, 광주·과천(果川)·수원(水原) 등 읍의 군병을 또한 한 장수에게 주어 남쪽을 막으며, 3면이 합세하고 호응하며, 적의 수가 적으면 군대를 나누어서 북병을 설치하고, 적의 수가 많으면 병력을 합쳐 공격하되, 곧 강원도는 동쪽 군병과 합세하고, 강화의 군대는 서쪽 군대와 합세하고, 충청도와 전라도의 군대는 남쪽 군대와 합세하게 하여, 어떤 때에는 그 앞에서 인도하고, 어떤 때에는 그 뒤에서 밀어주며, 기회를 살피고 편리함을 틈타서 같은 마음 한 힘으로 사방에서 운집하면 서울은 기일을 정하여 수복할 수 있을 것이다. ○ 수원의 독성(禿城)·금천(衿川)의 금지산(衿芝山)·인천의 산성은 다 험하고 좁아서 꼭 방어해야 하는 요지다. 만일 기회를 보아 이를 수축하고, 군대를 주둔하여 험한 곳을 차지하고, 여기저기서 서로 바라보아 서로 성원(聲援)이 되면, 외곽[襟抱]이 튼튼해져서 백성이 믿는 것이 있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설사 적병이 있더라도 앞뒤[首尾]에서 견제하기 때문에 만만히 드리밀지 못할 것이다. ○ 양근(楊根)의 남산은 바로 사탄(沙灘)에 닿는데 여기만 지나가면 미원(迷原)의 통로·가평의 통로·월계(月溪)의 통로가 다 여기서 갈라진다. 만일 적이 원주를 통과하여 파사현(婆娑峴)의 뒤를 지나 바로 양근(楊根)으로 향하게 된다면 오직 이곳 만이 방어할 수 있는 곳이다. ○ 죽산(竹山)의 산성은 바로 청주·충주 두 길이 만나서 곧장 서울로 뻗었기 때문에 형세의 중요성이 다른 곳보다 심하다. 만일 여기에다 성을 설치하고 보루를 쌓아서 전영(前營)을 만들어 훈련장[操鍊之所]을 만들고, 또한 산 밑 평야에 널리 둔전을 개척하면 영구적인 이익이 될 것이다. 고려 말기에 이 성에서 몽고군을 막았으니, 이곳은 벌써 승리의 경험을 치룬 곳이다. ○ 용인(龍仁)과 양지(陽智)의 중간에 옛 성벽이 길의 중요한 곳에 있는데, 이름은 석성(石城)이라고 한다. 그 지형이 독성보다 더 험하고 또 직

로(直路)의 요충(要衝)에 있다. 만일 여기를 수축하여 군량을 저장하고 군대를 조련하여 오른쪽에 독성을 옆에 두고 왼쪽으로 남한산성(南漢山城)과 연결하여 솔밭 모양의 세력을 이룬다면, 서울의 문호가 튼튼할 것이다.” 하였다.

〈이정구 독성산성기(李廷龜禿城山城記)〉 이정구는 독산산성기에 쓰기를, “성이 넓은 들판 가운데 있어서 험준하게 막힌 곳이 없고, 산이 우뚝하게 길 옆에 솟았는데, 숲이 없어서 바라보기에 밋밋하다고 독성이라고 부른다. 모두들 예사로 보고 별로 이상하게도 여기지 않았는데, 임진년 왜구가 크게 들어 닥쳤을 때 도원수 권율(權慄)이 여기저기서 싸우다가 이 성에 들어와 점거하여 적병을 여러 번 물리쳤다. 이리하여 사람들은 이 성이 중요한 자리에 있어 나라 안의 요충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였다. (…)

(…) 柳成龍曰. 祖宗朝. 京畿有四鎮管. 水原, 廣州二鎮在漢江之南而爲其門戶. 楊州在國都之左以蔽東北. 長湍在其後專備北方. 江華, 喬桐二邑以在海中故無所隸屬. 使之專力於防海. ○驪州婆娑城, 水原禿城既已成形. 而陽城無限山城今方修改. 兩邊形勢不至蕩然. 而中間一條自竹山以北措置極難支保. 葺畿甸以衛神京. 乃今第一急務. 高麗時. 設都巡問使於豐德以禦倭. 今當依此於南漢城中置都巡察使行營. 上以控制婆娑, 龍津. 右連禿城, 無限. 而又益修竹山之城. 使三路之勢相連. 而居中策應則布置脉絡. 終始不斷續. 而事或有補. ○京城收復之勢. 當分爲三道. 楊州, 抱川, 積城, 永平等邑之軍屬於一將遮蔽東方. 高陽, 交河等邑之軍又屬一將遮蔽西方. 廣州, 果川, 水原等邑之軍又屬一將遮蔽南面. 三面合勢. 迭爲犄角. 賊少則分兵設伏. 賊多則合兵攻勦. 仍使江原道與東面之軍合. 江華之兵與西面之軍合. 忠清, 全羅之軍與南面之軍合. 或引其前. 或推其後. 相機乘便. 齊心一力. 四方雲合則京師指日可復矣. ○水原之禿城, 衿川之衿芝山, 仁川之山城皆險阨必守之要地. 若隨便繕治. 屯兵據險. 參錯相望. 互爲聲援則襟袍固密. 人心有恃而不恐. 縱有敵兵亦首尾牽掣不敢輕突矣. ○楊根南山正當沙灘. 而過此則迷原之路, 加平之路, 月溪之路皆從此分出. 若賊過原州由婆娑之後直向楊根則惟此處爲可控扼. ○竹山山城正當清州, 忠州兩路之會直走京師. 形勢之重甚於他處. 若於此地設築城壘爲前營以爲操鍊之所. 且於山下平野廣開屯田則又爲萬世之利. 前朝之末. 亦以此城禦蒙古. 此乃已試制勝之地. ○龍仁, 陽智之間有古城當路. 名曰石城. 地形險要勝於禿城. 且在直路之衝. 若於此地又爲修葺. 積粟鍊兵. 右控禿城. 左連南漢. 爲鼎峙之勢則京都之門戶固矣.

李廷龜禿城山城記. 城居廣野之中. 無險阨之阻. 有山斗起於道傍. 又無樹木. 望之童童然. 故名禿城. 人視之尋常不以爲奇. 壬辰. 倭寇大至. 都元帥權慄轉鬪入據于茲. 屢却賊兵. 於是人知茲城之得形便. 爲國中要衝也. (…)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4 관방(關防), 京畿>

정치/군사

1894년 6월 청인(淸人)은 수원으로 올라오고 일인(日人)은 수원으로 내려간다는 내용.

비와 햇별이 번갈았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청인(淸人)은 수원으로 올라오고 일인(日人)은 수원으로 내려간다고 하니 자세한지는 알 수 없다. 샷꾼을 얻어 조밭을 김매다가 비 때문에 일을 중단하였다. 오늘 정사에서 황해감사에 김춘희(金春熙)를 제수하고 호조판서에 민영달(閔泳達)을 제수하였다.

雨暘交作 轉聞淸人上水原 日人下水原云云 未知詳否 得雇鋤粟田 因雨破役 今日政 黃海監司金春熙除授 戶判閔泳達除授

지규식(池圭植), <하재일기(荷齋日記)三, 甲午年(1894) 六月 二十六日>

정치/군사

인아(仁兒)가 수원에서 돌아왔는데, 양주와 광주 2통의 훈령을 받아왔다는 내용.

11일 갑자. 맑음. 강순원의 일로 쓴 소지(所志)와 이윤용의 서간을 양주관(楊州官)으로 특별히 보냈다. 고랑리(高浪里) 진 이종(陳姨從)이 쏘가리[鰕魚] 11미[尾]를 보내어 팔아 달라고 했다. 그래서 회사에서 샀는데, 값은 22냥이다. 또 2미를 보내 나에게 먹으라고 하였다. 인아(仁兒)가 수원에서 돌아왔는데, 양주와 광주 2통의 훈령을 받아왔다. 용인 사돈집에서 서찰이 왔다.

甲子 晴 姜順元事書所志 并李簡同封 專送于楊州官 高浪里陳姨從 送鰕魚十一尾要賣 故自社中 買得價二十二兩 又另送三尾餽我 仁兒自水原歸來 楊廣州兩度訓令受來 龍仁查家書札來

지규식(池圭植), <하재일기(荷齋日記)五, 戊戌年(1898) 閏三月十一日>

(5) 인물

정치/인물

수원(水原) 사람 최루백(崔婁伯)의 효행을 기록한 내용.

(…) ○ 평장사 최자영, 지문하성사 양원준, 기거사인 최루백, 좌사간 박득령, 좌정언 허홍재(許洪材), 우정언 최우보(崔祐甫)를 불러 국정을 자문하였다. 루백은 수원(水原) 사람인데, 호장 상저(尙叢)의 아들이다. 나이 15세 때에, 아버지가 사냥하다가 호랑이에게 해를 당하였다. 루백이 호랑이를 잡으려는 것을 어머니가 말리니, 루백이 말하기를, “아버지의 원수를 어찌 갚지 않겠습니까.” 하고, 즉시 도끼를 들고 호랑이를 추적하니, 호랑이는 이미 그의 아버지를 먹고 배가 불러 누워 있었다. 루백이 곧장 앞으로 달려가 호랑이를 꾸짖기를, “내가 우리 아버지를 먹었으니, 나는 마땅히 너를 먹으리라.” 하니, 호랑이가 꼬리를 흔들며 엎드리자 급히 도끼로 찍어서 죽이고 그 배를 갈라서 아버지의 뼈와 살을 빼내고는, 호랑이 고기는 독에 담아서 냇물 가운데 묻고, 아버지를 장사지내고 여묘(廬墓)를 살았다. 하루는 어슴푸레하게 잠이 들었는데, 그 아버지가 와서 시를 읊기를, “가시덤불 숲을 헤치고 효자의 여막(廬幕)에 이르니, 다정다감하여 눈물이 다함없구나, 흙을 저서 날마다 무덤 위에 보태니, 마음을 알 자는 청풍과 명월뿐이라. 살아서는 봉양하고 죽어서는 무덤을 지키니, 그 누가 효(孝)의 시종(始終)이 없다 하랴.” 하고 읊은 뒤에, 이윽고 보이지 않았다. 3년복을 마치고는 호랑이 고기를 가져다가 다 먹었다. (…)

(…) ○召平章事崔子英, 知門下省事, 梁元俊, 起居舍人崔婁伯, 左司諫朴得齡, 左正言許洪材, 右正言崔祐甫, 訪問國政, 婁伯, 水原人, 戶長尙叢之子, 年十五, 父, 因獵爲虎所害, 婁伯, 欲捕虎, 母, 止之, 婁伯曰, 父讎, 可不報乎, 卽荷斧跡虎, 虎, 既食飽, 臥, 婁伯, 直前叱虎曰, 汝食吾父, 吾當食汝, 虎, 乃掉尾俛伏, 遽斫而剝其腹, 取父骸肉, 盛虎肉於瓮, 埋川中, 葬父廬墓, 一日假寐, 其父, 來詠詩云, 披榛到孝子廬, 情多感淚無窮, 負土日加冢上, 知音明月清風, 生則養死則守, 誰謂孝無始終, 詠訖, 遂不見, 服闋, 取虎肉, 盡食之.(…)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제11권, 의종장효대왕(毅宗莊孝大王), 乙亥九年【宋紹興二十五年金貞元三年】>

정치/인물

전라도 안찰사 노경륜이 청호역에서 서울로 실어보내는 사선이 매우 많자 총랑 김훤이 국고로 수송하도록 하였는데 노경륜의 사위 김천서가 수원의 장서기로 있으면서 국왕에게 호소하여 김훤이 좌천되었다는 내용.

(…) ○ 부부사(部夫使)를 각 도에 나누어 보냈다. 총랑(摠郎) 김훤(金暄)이 전라도에 갔는데, 청호역(菁好驛)에 이르니 전라도 안찰사 노경륜(盧景綸)이 역에서 어선(御膳)을 서울로 실어 보내는 것이 매우 많은데 사선(私膳)이 반이나 되므로, 훤이 사선을 빼앗아 국고로 수송하였다. 경륜의 사위 김천서(金天緒)가 마침 수원(水原)의 장서기(掌書記)로 있다가 그것을 가져다 경륜에게 바치고 또 왕에게 호소하니, 왕이 훤을 면직시키고 송유익(宋由義)로 대신하였으며, 나중에는 훤을 양주(襄州) 부사(副使)로 좌천시켰다. (…)

(…) ○分遣部夫使于諸道, 摠郎金暄, 如全羅道, 行至菁好驛, 全羅道按察盧景綸, 驛輸內膳于京甚夥, 私膳居半, 暄, 取私膳, 輸之國庫, 景綸壻金天緒, 適爲水原掌書記, 取以爲獻, 景綸, 又訴於王, 王, 免暄官, 以宋由義代之, 尋貶暄爲襄州副使.(…)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제19권, 충렬왕(忠烈王)1, 乙亥元年 【宋孝恭帝德祐元年元至元十

二年】>

정치/인물

1325년 이성(李晟)이 과거에 올라 수원 사록(水原司錄)을 지냈다는 내용.

(…) 전 화평부사(化平府使) 이성(李晟)이 졸하였다. 성은 담양인(潭陽人)이다. 과거에 올라 수원 사록(水原司錄)을 지냈는데, 임기가 차자 죽계(竹溪)의 촌사(村舍)에 돌아가 벼슬을 구하지 않고 날마다 분전(墳典 고서(古書), 또는 성현의 글)을 연구하는 것으로 일삼았다. (…)

안정복(安鼎福), <동사강목(東史綱目), 제13하, 을축년 충숙왕 12년>

정치/인물

지병마사 김군수가 우가하에게 글을 보낼 때 김취려에게 알리지 않은 일로 수원에 귀양갔다는 내용.

(…) 2월 ○ 지병마사(知兵馬事) 김군수(金君綏)를 한남(漢南)으로 귀양보냈다.

김군수가 글을 우가하(于哥下)에게 보낼 때 먼저 중군사(中軍使) 김취려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김취려가 이를 혐의쩍게 여기더니 마침내 김군수 관하(管下)의 녹사(錄事)를 가두었다. 마침 노인수(盧仁綏)란 자가 김군수와 틈이 나서 그 때문에 김취려와 최우에게 참소하여 마침내 김군수를 한남(漢南)【지금의 수원(水原)】으로 귀양보내니, 그때 사람들이 억울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 (…)

안정복(安鼎福), <동사강목(東史綱目), 제10하, 경진년 고종 7년>

정치/인물

1777년 수원부사 박승직(朴承直)이 적의 복병의 공격을 받고 많은 군사를 잃었다는 내용.

(…) 처음에 적(賊)이 안성(安城)에 들어가 마전(麻田)에다 복병(伏兵)시키고 사로잡은 우리 나라 사람 3~4인으로 하여금 언덕 위에서 발가는 농부처럼 위장하고 있게 하였는데, 수원부사(水原府使) 박승직(朴承直)이 삼원수(三元帥)가 이르렀다는 말을 듣고 또한 군사를 이끌고 와서, 발가는 사람에게 묻기를, “적이 물러갔는가? 삼원수는 어디 있는가?”하니, 대답하기를, “적은 이미 물러갔으며 삼원수가 지금 추격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승직이 그 말을 믿고 바로 관사(官舍)로 달려가니, 적의 복병이 출동하였다. 승직은 포위를 뚫고 탈주 하였으나, 많은 사졸이 죽음을 당하거나 포로가 되었다. (…)

안정복(安鼎福), <동사강목(東史綱目), 제16상, 정사년 전폐왕 우 3년>

정치/인물

1155년 수원 아전 최루백을 기거사인으로 삼았다는 내용.

(…) 추8월 최루백(崔婁伯)을 기거사인(起居舍人)으로 삼았다. 루백은 수원(水原)의 아전 상저(尙叢)의 아들이다. 나이 15에 아버가 범에게 잡아먹히자, 루백은 도끼를 메고 범을 추적하여 바로 면전에서 찍어죽이고 아버의 유해를 가져다가 장사지내고, 범고기를 그릇에 담아 넷물 가운데 묻어 두었다가 상이 끝나자 그것을 다 먹어버렸다. 후에 과거에 급제하여 효행으로 당대에 이름이 났다. (…)

안정복(安鼎福), <동사강목(東史綱目), 제9상, 을해년 의종 9년>

정치/인물

수원사록을 지낸 이성의 이력과 시를 소개한 내용.

【인물】 (…)이성(李晟) 【과거에 급제하여 수원 사록(水原司錄)이 되었다. 임기가 찬 뒤에는 일가가 죽계(竹溪)의 촌사(村舍)에 돌아갔고 벼슬을 구하지 않았다. 59세에 좌사보(左司補)를 배수하고 서성(西省)에 입직하면서 시를 짓기를, “약체(藥砌)의 청풍은 이 늙은이를 조롱하고 죽계의 명월은 나의 정을 유인하네. 어제 저녁 이미 전원에 돌아갈 생각을 결정하였으니, 강남에 눈이 다 녹을 제 필마로 돌아가리라.” 하였다. 다음날로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가니 일시의 명유(名儒)들이 술상을 차려 전별하였다. 뒤에 여러 번 벼슬을 옮겨 민부 전서(民部典書)가 되었다. 사람됨이 학문에 힘써 게으르지 않으며 따라서 배우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 당시 사람들이 오경사(五經筵)라 일컬었다.】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39권 전라도(全羅道), 담양도호부(潭陽都護府)>

정치/인물

의령현에 소개된 수원부 사람 최치안의 효행의 내용.

【효자】 본조 (…)최치안(崔致安) 【수원부(水原府) 사람이다. 할아버지 소(沼)가 죽자 치안의 아버지 흘(訖)은 평소부터 병이 있는 데에도 시묘하였다. 치안의 나이 54세였는데 아버지에게 고하기를, “병중인테 거적자리에 잠자고 흙덩이를 벤다면 병이 반드시 더해질 것이니, 집에 돌아가서 치료하십시오.” 하였다. 아버지가 허락하니, 치안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3년 동안 무덤을 지켰다. 세종조에 일이 알려져 장사량을 제수하였다.】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31권 경상도(慶尙道), 의령현(宜寧縣)>

정치/인물

이존오가 수원서기를 역임했다는 내용.

【인물】 (…)이존오(李存吾) 【자는 순경(順卿)이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학문에 힘썼으며, 강개(慷慨)하여 뜻과 절조가 있었다. 공민왕 9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수원서기(水原書記)에 임명되고, 선발되어 사한(史翰)에 보직(補職)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21권 경상도(慶尙道), 경주부(慶州府)>

정치/인물

박거경(朴巨卿)이 호남의 과장에 어사로 파견갔다가 수원에 도착했을 때 남양부사에 제수되었다는 내용.

(…) 박거경(朴巨卿)이 홍문관 전직(典籍)으로서 어사(御史)를 겸하고 호남 과장(科場)에 가서 감독할 때, 고와남양(高臥南陽) 시(詩)로 선비를 시험하고 수원부(水原府)에 돌아왔는데, 부사가 나와 맞이하지 않으므로 박거경이 동헌(東軒)에 나아가 크게 노하여 아전을 불러 죄를 주려 하다가, 바깥 문 사이에서 따르는 자들이 서로 대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의심스러워 물어보니, 바로 서울에서 온 정비초(政批草 관직 발령장)로 박거경을 남양 부사(南陽府使)에 제수한 것이었다. 박거경이 얼굴빛이 달라지며 누워버리니 당시 사람들이 시(詩)를 지은 것이 예언이 되어버린 소치라 하였다. (…)

(…)朴巨卿以弘文典籍.兼帶御史.往檢湖南場屋出.高臥南陽詩試士.回至水原府.吏不出迎.巨卿就東軒大怒.呼吏將罪之.俄聞外闕間.伴從相對.欲訝問之.則乃京來政批草也.而拜南陽府使矣.巨卿失色而臥.時人以爲詩讖所致.(…)

성현(成僎), <용재총화(慵齋叢話), 제6권>

정치/인물

이괄의 난 때 이환은 김확(金爔)의 일가족과 함께 수원에서 피난하였다는 내용.

(…) 대가(大駕)가 환도하는 날에 내가 여관에 묵었는데, 첫닭이 울 무렵에 서평(西平)의 아들 한회일(韓會一)이 와서 나를 흔들어 깨우고 서평의 말을 전하기를, “이환은 김확(金爔)의 일가족과 함께 수원에서 피난하고 있었는데, 공은 이환이 적에게 가담하였다는 말을 잘못 듣고서 죄주려 합니까? 공이 만약 나의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김확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어찌 한낱 서녀를 위하여 감히 나라의 역적을 놓아 주려 하겠소?” 하므로, 내가 김확에게 물으니, 말하기를, “이환이 우리 일가족과 수원 촌집에서 피난한 것은 마을 사람들도 다 압니다.”하였다. 나는 더 의심하지 않았고 이환은 형벌을 면하였는데, 그런 지 수년 뒤에 병들어 죽었다. (…)

(…) 大駕還都之日.余宿旅舍.鷄初鳴.韓公會一西平子也.來蹴余起.因致西平之語曰.煥與金爔一家.避兵於水原地.而公誤聞煥投賊.將欲罪之.公若不信吾言.宜問于爔.吾何敢以一庶女縱國賊.余問于爔.則曰煥與吾一家避兵於水原地村舍.村人皆知之.余不復疑.煥得免後數年病死.(…)

김시양(金時讓), <하담파적록(荷潭破寂錄)>

정치/인물

변구상이 수원(水原) 교관으로 있을 때 탐욕스런 사신을 회롱한 일화를 소개한 내용.

(…) ○ 수원(水原) 교관이 되었는데 왕명을 받드는 한 사신이 이르는 곳마다 팔고 사면서 신 만들 가죽까지도 구하려 하므로 구상(九祥)이 옆에 쫓아와 큰 소리로, “그대의 면상에 신 만들 아홉 마리의 소가죽 자료가 있다.” 하니, 봉사(奉使)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골계전(滑稽傳)》】 (…)

(…) 爲水原教官.有一奉使.所至賣買.至求靴皮材.九祥從傍大言曰.君面上有九牛皮靴材.奉使默然.滑稽傳 (…)

권별(權輓), <해동잡록(海東雜錄), 3 본조(本朝), 변구상(卞九祥)>

정치/인물

어머니의 병을 위해 엉덩이 살을 베어드린 최세호의 효행을 기록한 내용.

수원(水原) 사람이며, 어머니가 오래 병을 앓았는데 엉덩이 살을 베어 약에 타서 드리니 병이 바로 나았다. 중종(中宗)이 명하여 그 문에 정표를 했다.

水原人.母久病.割股肉和藥以進.病即愈.我中廟命旌其門.

권별(權輓), <해동잡록(海東雜錄), 5 본조(本朝), 최세호(崔世湖)>

정치/인물

최루백의 약력과 효행을 기술한 내용.

본관은 수원(水原)이며 수원에서 살았다. 아버지 상저(尙翥)가 호랑이에게 해를 입었다. 누백이 나이 15살이었는데 도끼를 메고 호랑이를 쫓아가 그 배를 가르고 아버지의 뼈와 살을 가져다 장사를 지냈다. 뒤에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학사(翰林學士)까지 지냈다.

○ 장사를 지낸 후에 묘 옆에 여막을 짓고 지내는데 잠이 든 사이에 그 아버지가 와서 시를 읊어 말하기를,

덤불을 헤치고 효자려에 이르니 / 披榛到孝子廬
 한없이 정은 많고 느껴 눈물 흘리도다 / 情多感淚無窮
 흙을 저서 날마다 무덤 위에 더하니 / 負土日加塚上
 마음을 아는 이 명월과 청풍이로세 / 知心明月清風
 살아서 봉양하고 죽어서 묘막을 지키니 / 生則養死則守
 효도에 시종이 없다고 누가 말하리오 / 誰謂孝無始終
 했다. 【〈행장(行狀)〉】

水原人. 父尙翥爲虎所害. 婁伯時年十五. 卽荷斧迹虎. 斫剝虎腹. 取父骨肉葬之. 後登第. 官至翰林學士○葬後遂廬墓側. 假寐. 其父來詠詩曰. 披榛到孝子廬. 情多感淚無窮. 負土日加塚上. 知心明月清風. 生則養死則守. 誰謂孝無始終. 行狀
 권별(權輓), <해동잡록(海東雜錄), 5 본조(本朝), 崔婁伯>

정치/인물

수원부 인물인 최치안의 효행을 기술한 내용.

수원(水原) 사람이며, 나이 14살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조부의 묘를 3년이나 지켰다. 세종(世宗)께서 명하여 장사랑(將仕郎)을 제수했다.

○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그 아버지가 본래 병을 지닌 채 묘막에 있으니 치안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병환이 계시면서 묘막에서 지내면 반드시 병이 더해질 것입니다.” 하고, 집에 돌아가 치료할 것을 권고하니 아버지가 허락하였으므로 아버지 대신으로 3년 동안 조부의 묘를 지켰다. 【〈효자(孝子)〉】

水原府人. 年十四. 代病父守祖墳三年. 我英廟命除將仕郎. ○性至孝其父素有疾而居廬. 致安告父曰. 帶疫枕塊. 病必加增. 請還家治療. 父許之. 代父守墳三年. 孝子
 권별(權輓), <해동잡록(海東雜錄), 5 본조(本朝), 崔致安>

정치/인물

강서(姜緒)가 수원 부사가 되다.

만력 12년 갑신(萬曆十二年甲申) <선조 17년, 1584년>

2월 (….) 15일 (임술). 맑다. 들으니, 시우(時雨)가 들어와서 수원(水原) 부사의 수망에 올랐으나 낙점되지 않았다고 한다. (….)

3월 (….) 강서(姜緒)가 수원 부사가 되다. 혼원(渾元)이 수망에 올랐으나 낙점되지 않았다고 한다. 정인귀(鄭仁貴)가 지평이 되고, 이정립(李廷立)이 정언이 되다. (….)

8월 (….) 27일 (경오). 맑음. 길을 떠나 저녁에 수원(水原) 분사(墳舍)에서 자다. (….)
 萬曆十二年甲申 (….) 二月 (….)

○辛酉晴○壬戌晴. 聞時雨入來. 首擬水原. 不點云. 權文海許銘爲掌令. 閔濬爲持平. 沈喜壽擬 尹淳爲修撰. 辛應命爲弘文正字. 成泳爲副應教. (….)

三月 (….) ○丁亥晴多風. 孟子句. 柳埈爲咸鏡監司. 頃日憲府請推權克禮云. 多接私行. 蓋接厚美叔. 頗有窺伺者. 汎稱以私行論之. 至是自上教. 接私行. 不體予意. 事變時才. 又不合遞. 申位爲北兵使. 前日大臣有言. 令申位來見其母. 又令細陳邊事. 至是自命遞. 金禹瑞而代之. 姜緒爲水原府使. 渾元首擬不受點云 鄭仁貴爲持平. 孝廷立爲正言. ○戊子晴. 朝日甚寒多風. 夜下霜. 崔敬直言. 李陽元上年成浩原之去作詩云. 歌罷底事紫芝威士牛溪處走還山 以此今日攻太甚云. 孟子句. ○己丑陰. 朝日甚寒多風. 孟子畢句. 中庸畢句. 司錄朴順男齋不允批答. 往召盧相. ○庚寅晴. 朝日甚寒多

風. 聞出御瑞蔥臺. 取文科四人武科十八人. 中庸或問. ○辛卯晴. 朝日甚寒多風. 夜下霜. 近連日下霜. 兩麥已無望. 早稻尚未耕種云. 諫院請奪金禹瑞嘉義加資. 累日停啓. 禹瑞興巡察使則持難於北征. 而朴相則主北征. 今申位之來. 其言北征甚易歟. 君相合故經遞. 禹瑞興得邊民心. 頗有仰賴之意. 位善於突擊. 而性急刑苛. 多失人心. 今爲兵使. 實非人望云. 金功爲持平. 始讀詩傳. ○壬辰不雨. 朝日甚寒. 諫院請啓李奉貞加資. 累日停啓. 李奉貞宦官也. 初十日政. 命陞通政. 政廳以無勞過陞爲未安. 不許. 特命陞之. 兩司爭之. 詩. ○癸巳不雨. 府又停論宦官事. 詩. ○甲午自午間廉纖. 或作或止. 初昏止. 水原府使姜緒過. 命以李戡申位. 戡時爲平安兵使爲二十日習陣時大將. 以備.(…)

八月 (…) ○庚午晴. 發行夕投水原憤舍.(…)

우성전(禹性傳), <대동야승(大東野乘), 계갑일록(癸甲日錄), 萬曆十二年甲申>

정치/인물

수원 부사 이성언(李誠彦)이 상소하여 이행의 파면을 구하려다 파면되었다는 내용.

(…) 이 해 겨울 12월 초 3일에 김정·박상이 공론에 따라 조정으로 들어오자 언호는 전라 감사로 나가 기묘년에 죽고, 민수는 충청 감사로 나가서 무인년에 죽었으며, 이행은 파면을 당하였다. 그때 수원 부사 이성언(李誠彦)이 소(疏)를 올려 친구(伸救)하다가 그도 또한 탄핵을 당하여 파면되었다. (…)

(…) 是冬十二月初三日. 金淨朴祥因公議立于朝. 則彥浩出爲全羅監司. 而卒於己卯. 敏手出爲忠清監司. 而卒於戊寅. 李荇見罷. 而水原府使李誠彦上疏申救. 亦被彈罷.(…)

<기묘록속집(己卯錄續集), 構禍事蹟>

정치/인물

이행이 파면되었을 때 수원부사 이성언이 상소하여 구원하다가 파면되었다는 내용.

(…) 이해 11월 3일에 김정과 박상이 공론으로 인하여 조정에 나왔는데, 이언호는 전라 감사로 나가서 정축년에 죽었고, 권민수는 충청 감사로 있다가 무인년에 죽었다. 이행(李荇)이 파면되었는데 수원 부사 이성언(李誠彦)이 상소하여 해명하여 구원하다가 또 탄핵을 입고 파면되었다. (…)

(…) 是年十一月初三日. 金淨朴祥因公論立于朝. 則彥浩出爲全羅監司. 而卒于丁丑. 敏手出爲忠清監司. 而卒于戊寅. 李荇見罷. 水原府使李誠彦上疏申救. 亦被彈罷.(…)

허봉(許筠), <해동야언(海東野言)三, 中宗上>

정치/인물

임진왜란 당시 윤국형(尹國馨)이 수원(水原)에서의 활동을 기술한 내용.

○ (…) 내 관하(管下)는 충청 병사 신익(申翌)과 방어사 유옥(兪沃)에게 8천 명을 나누어 소속시켰다. 진위(振威)에 이르러 우리 3인이 모든 장수들과 의논한 다음 먼저 수원(水原)에 있는 적을 쳐서 길을 개통하고 이어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마침 수원에 있던 적이 공격하기도 전에 저절로 달아났다. 나는 생각하기를, ‘대군이 한 번 진위를 떠나면 경기와 충청 사이에는 군사를 주둔할 곳이 하나도 없으니, 용인(龍仁)과 죽산(竹山)에 있는 적이 와서 보급로를 끊는다면 위태로울 것이다. 마땅히 한 진(陣)을 진위에 머물러 두어 괴산(槐山)에 주둔해 있는 조방장(助防長) 이세호(李世灝)의 군사와 서로 기각(掎角)의 형세를 44)

44) 기각(掎角)의 형세 : 군대가 양면으로 나뉘어 적에게 대항하는 것을 기각(掎角)이라 이름. 《좌전》에 “비유하자면 범을 사로잡는데 진(晉) 나라 사람은 앞에서 뿔을 잡고 여러 용(戎)은 뒤에서 다리를 당

이루고 있으면 뒤를 엄습당할 근심이 없을 것이다…….’ 했으나, 이 계교는 마침내 쓰이지 못했다. 수원부 안에 이르러 진을 쳤는데, 호남 방백(湖南方伯)이 방어사 곽영(郭嶸)과 조방장 이지시(李之詩)·백광언(白光彦)을 시켜 군사를 거느리고 용인과 수원 사이에서 분탕질하는 적들을 치게 하므로, 나도 방어사와 병사(兵使)를 거느리고 함께 힘을 다하여 쳤으니 이때는 6월 5일이었다. (…)

○ 임진년 난리 초에 수원(水原)에서 패전하고 공주(公州)로 돌아가 주둔했는데, 제독 조헌(趙憲)이 장차 의병(義兵)을 일으키려 하므로, 내가 이를 권하여 이루어지도록 했다.(…)

○(…)余之管下忠淸兵使申翌.防禦使俞沃.以八千分屬焉.抵振威.吾三人與諸將議兵.欲先攻水原賊.開通道路.仍爲上進.適水原賊不攻自遁.余以爲.大軍一離振威.則畿湖之間.無一住兵之處.龍仁竹山之賊.若來絕糧道則危矣.振威宜留一陣.與槐山所留助防將李世灝之兵.相爲犄角.可無掩後之患云云.計終不行.至水原府內結陳.湖南方伯.發防禦使郭嶸.助防將李之詩白光彦.領兵攻龍仁水原間焚蕩之賊.余亦以防禦兵使.共力討之.是六月五日也.(…)

壬辰亂初.水原敗師後.還駐公州.趙提督憲.將起義兵.余勸成之.(…)

윤국형(尹國馨), <문소만록(聞韶漫錄)>

정치/인물

1623년(광해군 15) 경기 감사 박자흥이 수원 방어사 조유도 등에게 의병을 일으키게 하려다 도망쳤다는 내용.

(…) 13일 ○ 폐주(廢主: 폐출된 광해군을 말함)와 폐동궁(廢東宮: 광해의 아들 지(裺))의 거처를 몰랐는데 해가 높이 올라서야 인가에 몰래 숨어 있다는 것을 듣고 데리고 왔다. ○ 여러 재신(宰臣)들을 패초(牌招)하여 각각 맡은 일을 수행케 하였다. ○ 그 변을 듣고 도망친 당시의 당류들이 반수가 넘었다. 윤인(尹訥) 등 13인을 따로따로 잡아들였다. ○ 오후에 상(인조)이 경운궁(당시 인목대비가 거처하였음)에 조알하였다. 폐주와 폐동궁을 수레에 태워서 따르게 하였고, 체포한 흉도들을 경운궁에 가두고 대장 이흥립을 시켜서 호위하게 하였다. ○ 간밤에 경기 감사 박자흥(朴自興)이 변을 듣고 양주(楊州)로 달려가서 수원 방어사(水原防禦使) 조유도(趙有道)·과주 방어사(坡州防禦使) 윤정(尹琚)·양주 목사 박안례(朴安禮)에게 전령하여 의병을 일으켜서 서울로 향하려다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는 흩어져 가니 군사들도 도망쳤다. (…)

十三日 (…) 不知廢主廢東宮去處.日高.聞潛遁于人家.率來.○牌招諸宰.各修其職.○時黨聞變遁去者過半.分捕尹訥等十三人.○午後.上朝于慶運宮.與廢主廢東宮隨之.拘留所捕凶徒於慶運宮內.命大將李興立扈衛.○去夜.京畿監司朴自興聞變.馳入楊州.傳令水原防禦使趙有道.坡州防禦使尹琚.楊州牧使朴安禮.將舉義兵向京.知事不濟散去.軍兵遁去.(…)

<대동야승(大東野乘), 계해정사록(癸亥靖社錄), 三月>

정치/인물

1612년(광해군 4) 박응서(朴應犀)의 옥사에 연루된 변응성에 대한 공초로, 서양갑이 훈련도감 대장과 수원부사를 꺾어 수원군병을 거느리게 한 것은 자신을 제거하려는 계책이라는 주장.

아뢰옵니다. (…) 제가 조보(朝報)를 보니, 역적 서양갑(徐羊甲)의 초사(招辭)에 김제남과 절친한 사람을 훈련도감 대장(訓練都監大將)으로 삼아 같이 모의하고, 수원 부사(水原府使)

긴다[譬如擒虎 晉人角之 諸戎犄之].” 하였음.

도 절친한 사람으로 만들어 도감이 수원 군병을 거느리게 했다고 하였으니, 저를 제거하고자 한 계책을 이것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김제남과 절친하였다면 다른 사람으로 대신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보면 제가 김제남과 절친하지 않았음을 아실 것입니다. 내응하여 진심으로 복종했다는 일에 대해서는 지극히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어서 아될 것도 없습니다. 역적 김제남이 무엇 때문에 저에게 밀부(密符)를 보냈겠습니까. 만약 보내 왔다면 즉시 그 심부름꾼을 잡아서 나라에 고발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 생각하옵건대 외적(外敵)이 쳐 들어와도 단두 장군(斷頭將軍)이 되기를 원하였을 것인데, 김제남과 함께 역적 모의를 하여 우리 성상을 저버린다면 지하에서 어떻게 교훈한 아비를 뵈오며, 불효 불충하여 만세의 죄인이 되겠습니까. 역적 정협(鄭協)의 불측한 음모는 반드시 도감(都監)을 파괴하고 국사를 무너뜨리려는 것으로서 이야말로 참으로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전고에 없는 역적입니다. 온 나라 사람이 누군들 그 고기를 씹어서 나라의 수치에 보답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 白等.(…) 矣身得見朝報.逆賊徐羊甲招辭.以金悌男親切之人.爲訓練都監大將.同謀爲事是如爲白遣.水原府使亦親切之人爲之.都監水原軍兵率出用之是如爲有去等.矣身段欲爲除去之計.據此可知.矣身若與悌男親切.則以他人代出之理乎.以此見之.則矣身與悌男.不切之狀可知是白齊.內應服心之事.極爲無理.無以上達.逆賊悌男何以送密符於矣身乎.若送之則即捉其使人.告變于國家矣.矣身當自念外敵當臨爲良置.願爲斷頭將軍爲白去等.與金悌男同爲逆謀.負我聖上.地下何以見教訓之父.而不孝不忠.爲萬世之罪人乎.逆賊鄭俠不測之謀.必是破毀都監.欲壞國事者也.眞是於生於死.前古所無之逆賊也.一國之人.孰不欲食其肉以報國恥乎.更無上達右良.(…)

<대동야승(大東野乘), 광해조일기(光海朝日記) 1, [問目]癸丑, 淵川君邊應星年>

정치/인물

태종 대에 심온(沈溫)이 수원으로 귀양갔다가 이내 사약을 받았다는 내용.

(…) 태종 ○ 세상에 전해오기를, “헌묘(獻廟: 태종의 묘호)가 상왕궁에 있고 심온(沈溫)이 국구(國舅)로서 수상이 되어 중국에 사신으로 갔던 시기에, 옥사가 크게 일어났다. 심온이 돌아올 때 압록강에 이르자 마자 붙잡혀 수원(水原)으로 귀양갔다가 이내 죽음을 받았다. 심온이 죽을 때에 가족들에게 이르기를, ‘대대로 박씨와는 혼인하지 말라’ 하였다”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우리 선조 평도공(平度公 박은(朴堧))이 좌상으로서 그가 죽을 무렵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깊이 원망하여 이런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졌다. (…)

(…) 太宗 世傳.當獻廟在上王宮.沈溫以國舅爲首相.奉使於天朝之日.獄事大起.還到鴨江.被逮流之水原.仍命賜死.溫臨死.謂其家人曰.世世與朴氏勿相婚也.遂以爲.我先祖平度公.以左相.於其死也.爲有力.故深恨之.有此遺命焉.(…)

박동량(朴東亮), <대동야승(大東野乘), 기재잡기(寄齋雜記) 1>

정치/인물

기축옥사 때 수원 부사 홍가신(洪可信)이 이발 형제와 친밀했다는 이유로 사간원에서 파직을 청했다는 내용.

(…) ○ 4일.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수원 부사(水原府使) 홍가신(洪可信)은 역적과 정을 나누고 평소에 친밀하여 이발 형제와 서로 추장(推獎)하였으니 청컨대 파직시키시고, 승문원 권지정자(承文院權知正字) 윤경립(尹敬立)은 원래 명칭이 없었는데도 사관(史官) 추천에 끼었으니, 청컨대, 삭거(削去)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己丑錄[上]]

(…) ○初四日院啓.水原府使洪可信以逆賊交情素密.與李潑兄弟互相推獎.請罷.承文權知正字尹敬立素無名稱.而參史官薦.請削去.依啓.(…)

<대동야승(大東野乘), 기축록상(己丑錄上)>

정치/인물

1592년 수원(水原)에 모였던 윤선각, 이광, 김수의 군대가 궤멸되었다는 내용

임진(壬辰, 1592) (….) ○ 6월 15일 계묘(癸卯) 충청도 순찰사(忠淸道巡察使) 윤선각(尹先覺)·전라도 순찰사(全羅道巡察使) 이광(李洸)·경상도 순찰사(慶尙道巡察使) 김수(金睟)의 군대가 수원(水原)에서 궤멸되었다. 군대가 패배하던 날은 6월 초순이었지만 도로가 막히는 바람에 전갈이 비로소 도달했다. 이에 앞서 이광은 스스로 근왕(勤王)을 칭하며 군사 5천여 명을 거느리고, 윤선각은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김수는 50여 명을 거느리고 수원에 진을 쳤다. 왜적 기병(騎兵) 여섯이 깃발을 세우고서 칼을 휘두르며 말을 달려오자, 만여 명의 군사가 일시에 놀라 무너져 갑옷과 활을 던져 버리고 달아났다. 버려진 양식과 궁시(弓矢)·깃발·북 등의 물건이 산처럼 쌓였다. 그 외에 상실(喪失)한 것은 파악조차 할 수가 없었다. (….) ○ 6월 17일 을사(乙巳) 군대를 점검하고 군사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여 위로하고, 용승정(龍升亭)에서 결진(結陣)했다. 최변(崔汧)을 장수로 삼고 지례(知禮)로 나아갔다. ○ 순찰사(巡察使) 김수(金睟)가 수원(水原)에서 도착했다. 모양새와 명분만 차렸을 뿐 행색(行色)은 초췌했다. ○ 세자(世子)를 책봉한다는 교서(敎書)와 죄인들을 사면토록 하는 사문(赦文)이 군(郡)에 도착했다. 종이에 가득한 왕의 뜻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했다. 만약 위기가 닥치지 않았을 때 나라를 보전하고 난리가 나기 전에 제대로 다스렸더라면 어찌 봉천(奉天)의 액운이 있었겠는가. (….)

(…) 十五日癸卯忠淸巡察使尹先覺全羅巡察使李洸慶尙巡察使 金睟之兵潰于水原喪軍之日在於六月初而道路阻梗傳聞始到 先是李洸自稱勤王率兵五千餘名尹先覺領兵數千餘人金睟 將帶率五十餘人陣于水原見倭賊六騎建旗揮鉞躍馬而來萬餘之 軍一時驚潰棄甲投弓而走糧餉弓矢旗鼓等物列如丘山其他喪 失不可勝紀 (….) 十七日乙巳點軍犒軍結陣于龍升亭以崔汧爲將赴于知禮 ○巡察使金睟至自水原只建形名行色草草○封世子 敎書及赦文到郡滿紙聖旨令人不覺涕流若使保邦於未 先制治於未亂安有奉天之厄耶 (….)

정경운(鄭慶雲), <고대일록(孤臺日錄), 제1권, 임진(壬辰, 1592)>

정치/인물

1592년 8월 당시 경기도 일대의 군대 주둔 상황을 정리한 내용.

(…)○ 8월 24일 신해(辛亥) 비변사(備邊司)의 관문(關文)에 의하면, ‘동궁(東宮)의 행차가 지금 이천(伊川)에 도착했는데, 의병(義兵)을 끌어모으고, 사방으로부터 근왕(勤王)할 사람을 불러 경성(京城)을 회복할 계획이다. 궁벽한 산골에 사는 백성들 중에도 뛰어나와 분발할 생각을 갖지 않는 이가 없었고, 응모하는 사람이 구름같이 몰려들어, 인심이 비로소 정해지고 호령(號令)⁴⁵⁾이 크게 행해지게 되었다. 전라 병사(全羅兵使) 최원(崔遠)⁴⁶⁾이 근왕병(勤王兵) 2만 명을 거느리고 이천(伊川)으로 나아갔고, 의거(義舉)한 군대가 곳곳에서 다투

45) 호령(號令) : 호령목행(號令木行) : 목행(木行)에서 목(木)은 오행의 처음이고 사계의 시작이므로, 여기서 ‘木’을 ‘비로소’라고 번역하였다.

46) 최원(崔遠) : ??? 조선 중기의 무신.

어 일어났다. 김천일(金千鎰)⁴⁷⁾은 안산(安山)에 진을 치고, 고경명(高敬命)은 수원(水原)에서 진을 쳤으며, 우성전(禹性傳)⁴⁸⁾·성영(成泳)⁴⁹⁾·이천(李薦)·변응성(邊應星)⁵⁰⁾·김지(金漬)⁵¹⁾ 등도 각기 의병을 모아 경기 지역에 가득 포진해 있다. (…)' 고 하였다.

(…) 二十四日辛亥備邊司關內東宮行次 今到伊川收聚義兵號召四方勤王爲恢復京城之計窮谷之民莫不踴躍思奮應募雲集人心始 定號令木行全羅兵使崔遠領勤王兵二萬赴伊川舉義之師處處 爭起金千鎰陣于安山高敬命陣于水原禹性傳成泳李薦邊應星金漬等各收義兵布滿畿甸 (…)

정경운(鄭慶雲), <고대일록(孤臺日錄)>, 제1권 壬辰 8월 24일>

정치/인물

1592년 12월 홍계남(洪戒男)을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삼았다는 내용.

(…) ○ 12월 7일 계사(癸巳) 초모관(招募官)은 산음(山陰)으로 향했다. (…)
○ 영천(永川)의 의병장(義兵將) 권응수(權應銖)가 적을 토멸한 공로가 있어, 특별히 통정대부(通政大夫)에 가자(加資)하여 좌병영의 우후(虞候)로 삼고, 양주 목사(楊州牧使) 고언백(高彦伯)은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삼고, 홍계남(洪戒男)은 통정대부에 올려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삼는다는 전교가 내려졌다. (…)

(…) 七日癸巳招募官向山陰 (…)
○ 傳 永川義兵將權應銖討賊有功特加通政爲左兵營虞侯升楊州牧使高彦伯通政洪戒男升通政爲水原府使 (…)

정경운(鄭慶雲), <고대일록(孤臺日錄)>, 제1권, 임진(壬辰) 12월 7일>

정치/인물

1601년 3월 18일 박숙빈(朴叔彬)이 수원(水原) 부사에 제수되었다는 내용.

(…) ○ 3월 18일 병진(丙辰) 박숙빈(朴叔彬)이 수원(水原) 부사에 제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만 근래 수원은 임자(壬子)의 환난이 있는 곳이기에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처리할지 잘 모르겠다. 너무 염려가 된다. (…)

(…) ○ 十八日丙辰聞朴叔彬除水原府使但水原近有壬子之患未知將何以處之耶可慮 (…)

정경운(鄭慶雲), <고대일록(孤臺日錄)>, 제3권,辛丑 3월 18일>

정치/인물

1594년 11월 정경운(鄭慶雲)이 수원부(水原府) 안에서 유숙하였다는 내용.

(…) ○ 11월 18일 임진(壬辰) 수원부(水原府) 안에서 유숙하였다. 부사(府使) 김영남(金穎男)에게 면회를 신청하였다. 부사가 각자에게 양식과 찬거리를 지급하고는, 급히 성안으로 들어가 버렸으므로 만나지는 못하였다. 첫답이 올 때 식사를 하고 길을 떠났다. 바람과 눈이 번갈아 몰아쳐 추위를 참기 어려웠다. 길에서 삼가(三嘉)에 사는 박자갑(朴子甲)·이산립(李山立)·성공실(成公實)·이여뢰(李汝賚) 등을 만났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재촉하며 길을 걸었다. 포시(晡時)에 동작진(銅雀津)에 이르러서 배를 타고 나루를 건너가니 날이 이미

47) 김천일(金千鎰) : 1537~1593. 본관은 언양. 자는 사중(士重). 호는 건재(健齋)·극념당(克念堂). 시호는 문열(文烈).

48) 우성전(禹性傳) : 1542~1593. 본관은 단양(丹陽). 자는 경선(景善). 호는 추연(秋淵). 연암(淵庵). 시호는 문강(文康).

49) 성영(成泳) : 1547~1623.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사함(士涵). 호는 태정(苔庭).

50) 변응성(邊應星) : ?~?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원주(原州).

51) 김지(金漬) : 1540~?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개성(開城). 자는 군택(君澤).

저물었다. 길을 알 수가 없으니, 한밤중에 장님들이 지팡이를 짚고 더듬거리는 것과 같았다. 마침 양성(陽城)에 사는 길을 잘 아는 사람을 만나서, 그를 앞세우고 우리는 뒤따라갔다. 2경쯤이나 되어서 청과촌(靑坡村)에 투숙하려고 주인을 두드려 깨우니 한참 만에야 나왔다. 이는 곧 금군(禁軍) 장개(張介)의 집이었다. 대접이 아주 융숭하고 온돌에서 자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밤중에 혼자서 길을 가다가 도적이 나타나 몽둥이를 들고 한번 호령을 했다면, 어떻게 막을지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 十八日壬辰宿水原府內投刺于府使金穎男府使各給糧饌而緣急 於入城未得見焉雞初鳴食食發程風雪交作寒不可忍也路中逢 三嘉居朴子申李山立成公實李汝齋等或先或後相與催進晡時抵銅雀津載船而渡則日已昏矣不知其路如冥行墮埴之 人適遇陽城居慣道之人使之先導吾等隨之二更許投靑坡村 扣其主人則良久乃出卽禁軍張介之家也待之頗款宿於溫突何其 幸哉當其暮夜獨行之際脫有盜賊制挺一呼則未知何以禦之思 之不覺寒栗遍體也 (…)

정경운(鄭慶雲), <고대일록(孤臺日錄) 제2권, 甲午 11월 18일>

정치/인물

최명길(崔鳴吉)이 수원부사가 된 구오(具鰲)를 보고 곧 죽을지를 예견했다는 내용.

○ 공이 정승 자리에 있을 때, 구오(具鰲)가 수원 부사(水原府使)가 되었다. 구오는 능천(綾川)부원군 이후 의 아들이다. 그때 그는 나이 젊고 이름난 무사(武士)였다. 구오가 수원으로 부임하면서 공에게 들러 인사하고 공과 함께 한참 동안 이야기한 뒤에 절하고 물러갔다. 그가 겨우 대청을 내려가자, 공이 갑자기 얼굴빛이 달라지며 천천히 완릉공(完陵公 공의 아들)에게 말하기를, “괴이한 일이다. 구오가 오래지 않아 죽을 것이다.” 하였다. 완릉공이, “어찌된 말씀입니까.” 하고 물으니, 답하기를, “내가 그 사람이 대청을 내려 걸어 나갈 때 보니, 정신이 벌써 흩어져 마치 인형이 걸어가는 것 같았다.” 하였는데, 며칠이 안 되어 구오가 병도 없이 갑자기 죽었다. 【《지천유사》】

이공익(李肯翊),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제28권 인조조 고사본말(仁祖朝故事本末), 인조조의 상신(相臣) 최명길(崔鳴吉)>

정치/인물

이시백(李時白)이 수원(水原)을 맡았을 때의 일화를 소개한 내용.

○ 기축년에 임금이 어수당(魚水堂)에 나와서 공 등 두어 사람을 입시하게 하였다. 술과 찬이 모두 안으로부터 나왔다. 임금이 친히 잔을 잡고 묻기를, “병조 판서는 주량이 얼마나 되오.” 하자, 공이 답하기를, “신은 본래 술을 마실 줄 모르는데다가 항상 병을 앓고 있어 더욱 마시지 못합니다.” 하였더니, 임금이 이르기를, “경의 병은 남한산성에서 너무 애써서 생겼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경의 자손은 몇이나 되는가.” 하여, 공이 수를 들어 대답하였더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많은데 과거 공부에 힘쓰지 않음은 웬 까닭인가. 만약 나라 일을 담당하고자 하려면 비록 무과(武科)라도 좋다. 경의 선친이 나라 일에 충성을 극진히 바쳤으므로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하였다. 공이 아뢰기를, “신이 수원(水原)을 맡았을 때, 집에 돌아와 선신(先臣)을 뵈었더니, 선신이 신에게, ‘어떻게 다스리려느냐.’고 묻기에, 답하기를, ‘요즘 듣건대 누가 아버지에게 수원에서 밤낮으로 군사를 준비하는데 그 마음을 추측할 수 없다 하였더니, 인심이 이 지경이니 비록 나라 일에 정성을 다하고자 하여도 그 사세가 또한 어렵습니다.’ 하였더니, 선신이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신을 뜯 아래에 잡아 놓고 말하기를, ‘임금께서 너의 무능함을 살피지 않고 너에게 중대한 임무를 맡겼으니, 네 분수에 맞게 오직 성의를 다할 뿐이지 너의 몸을 어찌 돌아보며 남의 말을 어찌 염려할 것이냐. 남의 허망한 말을 듣고 장차 네 직책을 폐하려 하느냐.’ 하고, 노함이 심하여 매를 때리려 하다가 친척들의 만류로 그만두었습니다. (…)

【〈연양 시장〉】
이궁익(李肯翊),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제30권 효종조 고사본말(孝宗朝故事本末), 효종조의 상신(相臣) 이시백(李時白)>

정치/인물

1674년 현종의 초상 때 송시열이 성복 후에 곧 광주에 갔다가 수원으로 내려갔다는 내용.

갑인년과 을묘년 사이의 시사(時事) 【예법에 관한 송사가 대출척(大黜陟)의 장본이 되다】

○ 갑인년(1674) 현종(顯宗)의 초상(初喪)에 원상(院相)이 아뢰기를, “영종추부사 송시열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부터 국상에는 원임 대신 중에 덕망 있는 사람이 함께 원상이 되는 것이 전례이니, 지금도 이에 따라 하소서.” 하니, 사관(史官)을 보내어 송시열에게 유지를 전하였다. 이때에 시열은, “죄를 지은 것이 지극히 무거운데, 승하하신 옥체가 미처 식기도 전에 어찌 차마 갑자기 죄가 없는 것처럼 자처하겠습니까.” 하고, 성복 후에 곧 광주(廣州)에 갔다가 수원(水原)으로 가 버렸다. (…)

이궁익(李肯翊),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제32권 숙종조 고사본말(肅宗朝故事本末)>

정치/인물

이유태의 상소 내용으로 갑인예송 당시 수원(水原) 만의사(萬儀寺)에 있는 송시열과 의견을 교환했다는 내용.

(…) ○ 12일에 부호군 이유태가 소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전년 가을 죄인을 너그럽게 처결한 것은 대신의 주청에 의하여 특별히 너그럽게 용서하신 것이니 황송하고 감격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신의 주청은 실상과 다릅니다. 사죄신(死罪臣)은 본래 학술에 어둡고 예설(禮設)에는 더욱 어두운 자였습니다. 일찍이 선조(先朝) 때에 복제(服制)에 대한 예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억지로 망령되게 의논을 올렸다가 선왕께서 이미 나라의 금령(禁令)으로 복제에 대해 의논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명하신 뒤로 사죄신은 송시열과 복제에 대하여 편지로 왕래한 일이 없었으며 또 시열이 신에게 긴 편지로 나무라고 배척한 일도 없었으니, 대신의 말은 모두 잘못 아뢴 것입니다. 사죄신이 일찍이 갑인년에 들으니 도신징(都愼徵)의 소(疏)에, ‘대왕대비께서 돌아가신 후에 전하께서는 승중상(承重喪)을 입는 적손으로 자처하지 않을 것입니까.’라는 말이 있었다 하고, 또 재상들 중에도 또한 이런 말을 하는 자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의견은 대개 신등이 효종(孝宗)을 적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니, 그들의 뜻이 매우 음험합니다. 그 때문에 신이 전의(全義) 비렴사(飛廉寺)에 있고 시열이 수원(水原) 만의사(萬儀寺)에 있을 때 때때로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신이, ‘송(宋) 나라 영종(英宗)이 방계 지손(傍系支孫)으로서 들어와서 대통을 이었는데도 정자(程子)는 적자라고 하였으니 우리나라 효종께서 다음 적자[次嫡]로서 올라서 적자가 된 것을 어찌 적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이어 정자가 팽중승(彭中承)을 대신하여 지어 올린 차자의 말을 들어서 증명하였더니 시열도 그렇다 하였습니다. 그 뒤 신이 귀양 가고 나서 뜯소문이 중간에 퍼져 신더러 새로 예설을 만들어 전날의 소견을 모두 버리고 벗(송시열)을 배반하고 당시의 논의에 아부하여 화를 면하려고 꾀를 내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이 서울과 지방에

널리 퍼졌습니다만 사람들이 보았다는 새로운 예설이라는 것은 갑인년에 시열과 편지로 왕래하였던 그 말이고 복제에 대한 말은 신등이 실상 추후에 논의한 바 없었는데도 대신의 주청이 이러하였습니다. ……” 하였다. (…)

이궁익(李肯翊),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제34권 숙종조 고사본말(肅宗朝故事本末), 경신년의 대출척(大黜陟)과 허견(許堅)의 옥사>

정치/인물

이고(李臯)가 고려 말엽에 물러나 수원(水原)의 광교남탑산(光敎南塔山)에서 살았다는 내용. 이고는 본관이 여흥(驪興)이다. 공민왕 갑인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한림학사(翰林學士)에 이르렀다. 집현전 직제학(集賢殿直提學)으로 고려 말엽에 물러나 수원(水原)의 광교남탑산(光敎南塔山)에서 살았다. 스스로 망천(忘川)이라 호를 지었으니, 세념(世念)을 잊는다는 뜻이었다. 공양왕이 중사(中使)를 보내어 소락(所樂)이 무엇인가 물으니 공이 자기가 사는 산천의 훌륭한 경치를 극구 칭찬하였는데, 그 말 가운데는 사통팔달(四通八達)하여 막힌 데가 없다는 말이 있었다. (…)

이궁익(李肯翊),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제1권 태조조 고사본말(太祖朝故事本末), 고려에 절개를 지킨 여러 신하 이고(李臯)>

정치/인물

수원 부사(水原府使) 이성언(李誠彦)이 상소하여 이행을 구하려다 파직되었다는 내용.

(…) 그 해 겨울 【12월 3일】 김정과 박상이 공론으로 조정에 서자, 이언호는 전라 감사로 나갔다가 정축년에 죽고, 권민수는 충청 감사로 나갔다가 무인년에 죽었으며, 이행은 파직당했다. 수원 부사(水原府使) 이성언(李誠彦)이 소를 올려 이행을 구하려다 역시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다. 김안로는 이조 참의에서 경주 부윤으로 옮겨졌다. 【《기묘당적보(己卯黨籍補)》○ 조정 의논이 처음에 일치하지 않아서 마침내 기묘년의 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

이궁익(李肯翊),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제1권 중종조 고사본말(中宗朝故事本末), 왕비 신씨(愼氏)의 폐위와 복위의 본말>

정치/인물

사헌부가 수원 현감(水原縣監) 우성전(禹性傳)을 탄핵하였다는 내용.

(…) ○ 사헌부가 수원 현감(水原縣監) 우성전(禹性傳)을 탄핵하였다. 성전은 젊어서 이항(李滉)의 문하에서 유학하여 약간의 명망을 얻었는데, 재기(才氣)를 믿고 궤변(詭辯)을 주장하여 사류를 능가하였으며, 스스로 재주가 경국제세(經國濟世)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그 행실에 흠이 많았다. (…)

이궁익(李肯翊),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제13권 선조조 고사본말(宣祖朝故事本末), 동서(東西) 당론(黨論)이 나누어지다>

정치/인물

1576년(선조 9) 우성전(禹性傳)이 외임으로 나가 수원 현감이 되었다는 내용.

(…) ○ 공은 병자년(1576)에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하여 외임으로 나가 수원 현감(水原縣監)이 되었는데, 이때 수원은 피폐한 고을이 되어 다스리기 어렵다고 일컬어졌다. 처음 도착하던 날부터 소장이 날마다 쌓였는데, 짐짓 공을 시험하려 하므로 공이 아전을 시켜 두루 통

고하고 판결문을 내리지도 않고 모두 묶어 문밖에서 불태워 버리니 아전과 백성이 크게 놀랐다. 아전을 시켜 불태운 종이를 소장의 수효대로 자르게 하고 각각 제소한 자의 성명을 쓰게 한 뒤에, 소장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제사(題辭)를 쓰는데 무릇 수천 장에 달하는 성명과 제사를 하나도 착오없이 쓰니, 아전이나 백성이 신(神)이라 일컬으며 감히 속이지 못하였으므로 정사를 한 지 몇 달 안 가서 정치와 교화가 크게 행해졌다. (…)

이공익(李肯翊),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제18권 선조조 고사본말(宣祖朝故事本末), 선조조의 명신 우성전(禹性傳)>

정치/인물

반정세력의 한명인 구굉이 공청도 우후로서 수원에 주둔 중이던 조옥건(趙玉乾)을 찾아가 함께 하자고 제의했다는 내용.

(…) ○ 조옥건(趙玉乾)이 공청 우후(公淸虞侯)로서 조정의 명으로 변란에 대비하여 수원(水原)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반정을 음모하는 여러 사람들이 구굉(具宏)을 보내어 그 뜻을 탐지하고 함께 일하고자 하였으나, 합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 다시 가서 달래보려 하는 이가 있었으나, 기원과 지방이 말하기를, “처음 가서 듣지 않았으니 구굉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도 다행이다. 이 일이 이미 위태로운 일이니, 이제 다시 가서 달랜다 하더라도 그가 마음을 돌릴 리는 만무하며 만일 사람을 잡아두고 고변할 것 같으면 장차 어찌할 것인가.” 하고 극력 중지시켰다. 【《연평일기》】 (…)

이공익(李肯翊),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제23권 인조조 고사본말(仁祖朝故事本末), 계해정사(癸亥靖社)>

정치/인물

박승종이 수원 방어사 조유도(趙有道) 등에게 군사를 일으켜 합세하게 하였다는 내용.

(…) ○ 박승종이 집에 돌아와서 아들 자홍 【이때 경기 감사였다.】 과 함께 양주(楊州)로 달아났는데, 목사 박안례(朴安禮)를 시켜 군사를 일으켜 달려오게 하는 한편 【《명륜록》에는 “안례(安禮)가 군사를 일으켜 금천(衿川)에 이르렀다.” 하였다.】 수원 방어사(水原防禦使) 조유도(趙有道)와 파주 방어사(坡州防禦使) 윤정(尹琮)에게 전령(傳令)을 보내어 군사를 일으켜 합세하게 하였다. 조유도 등이 군사를 내려 하자 공신 등이 신경유(申景裕)를 보내어 타이르니 두 사람이 귀순하였다. 이에 승종과 자홍은 일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선산에 가서 독약을 마시고 함께 죽었는데, 승종이 옷 속에 쓰기를, “신 승종 부자는 임금을 올바르게 이끌지 못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니, 못에 빠져 자살하여 천지 신명께 사과한다.” 하였다. 【《일월록》】 (…)

이공익(李肯翊),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제23권 인조조 고사본말(仁祖朝故事本末), 계해년의 죄적(罪籍)>

정치/인물

1630년(인조 8) 송광유가 일으킨 무고 사건에 수원 장관(將官) 중 한사람이 작성한 익명서의 내용.

○ 경오년 1월에 익명서(匿名書)를 당직(當直)에게 던져 넣은 자가 있어 도사(都事) 정언숙(丁彦璠)이 승정원에 바쳤더니, 임금이 바치지 말고 도사에게 돌려주라 하였다. 그 글의 대략은, “신은 수원(水原) 장관(將官) 중의 한 사람입니다. 송광유가 고변한 것이 헛된 말이

아닌데 여러 사람을 끝까지 국문하지 않고 고변한 자를 지레 죽였습니다. 신도 또한 그 편지를 빼앗아 고하고 싶었으나 죽음이 두려워 못했습니다. 병조 판서의 아들 이시백(李時白)·이시담(李時聘)과 이각(李恪)·심기원(沈器遠)·원두표(元斗杓)·송영망(宋英望) 등이 윤운구와 함께 모의하였는데, 김지수(金地粹)가 이를 알고 경술히 발설하여 중지되었습니다. 지수가 종성(鍾城)으로부터 잡혀올 때 알지 못한다고 말하라고 권고 받았으므로 이제 지수를 국문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각이 항상 말하기를, ‘나의 할아버지 【이귀】가 임금 이나를 접대하는 것이 처음과 같지 않다.’ 말하고 할아버지의 지위가 김류(金瑬)의 아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한다 하였습니다. ……” 하였는데, 문장과 글씨가 졸렬하지 않았다. 판부사(判府事) 이귀가 듣고 익명서를 얻어 보고는 곧 소를 올려 죄를 기다리니 임금이 이르기를, “흉한 글 가운데 있는 말을 문자로 나타내어 소를 올리기까지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이 소를 다시 돌려주라.” 하였다. 심기원·원두표·이시백이 소를 올리자 모두 돌려주었다. (…)

이궁익(李肯翊),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제24권 인조조 고사본말(仁祖朝故事本末), 송광유(宋光裕)가 무고하여 옥사를 일으키다>

정치/인물

수원(水原)의 이경발(李慶發)이 처가에서 보러왔다는 내용.

맑음. 새벽에 출발했다.

상사보다 뒤쳐져서 임진(臨津) 나루에 도착하니, 뱃길 위아래에 성엿장이 얼어 있었다. 장단(長湍)까지 30리를 가서 점심을 먹었다. **수원(水原)의 이경발(李慶發)이** 그의 처가(妻家)에서 보러 왔으므로 술을 권해서 전송했다. 주취(主倅) 이기태(李基泰)는 어제 낙상(落傷)했기 때문에 아픈 몸을 지탱하며 보러 왔다.

晴.凌晨發行.行後上使.而至臨津.則船路上下.流澌成氷矣.至長湍三十里中火.水原李生慶發自其贅家來見.勸酒而送.主倅李基泰以昨日落傷.故扶病來見.

최덕중(崔德中), <연행록(燕行錄), 燕行錄日記, 壬辰十一月 初五日>

정치/인물

수원 거주자 동행록

동행록(同行錄)

엄세영(嚴世永) 【자는 윤익(允翼), 호는 범재(凡齋). 신묘(1831, 순조 31)생. 영월인(寧越人).】 승지. 사동(社洞)거주.

【수원(隨員)】 엄석주(嚴錫周) 【자는 경미(景敕), 호는 북난(北蘭). 기해(1839, 헌종 5)생. 영월인(寧越人).】 음사과(蔭司果). 공동(公洞) 거주.

최성대(崔成大) 【자는 사행(士行), 호는 운고(雲皐). 갑오(1834, 순조 34)생. 수성인(隋城人).】 오위장(五衛將). **수원(水原) 거주.**

【하인】 박춘봉(朴春鳳)

【통사】 서문두(徐文斗) (…)

조병직(趙秉稷) 【자는 치문(致文), 호는 창혜(蒼惠). 계사(1833, 순조 33)생. 양주인(楊州人).】 승지. 재동(齋洞) 거주.

【수원】 안종수(安宗洙) 【자는 경존(敬尊), 호는 기정(起亭). 기유(1849, 헌종 15)생. 광주인(廣州人).】 유학. 맹현(孟峴) 거주.

유기환(俞箕煥) 【자는 경범(景範), 호는 산한(汕僊). 무오(1858, 철종 9)생. 기계인(杞溪人).】 유학. 수원(水原) 거주.

【겸인(僉人)】 임석규(林錫奎)

【통사】 이장호(李章浩) (…)

(…) 嚴世永 字允翼.辛卯生.號凡齋.寧越人. 承旨.居社洞.

隨員 嚴錫周 字景敕.己亥生.號北蘭.寧越人. 蔭司果.居公洞.崔成大 字士行.甲午生.號雲阜.隋城人. 五衛將.居水原.

下人 朴春鳳.通事 徐文斗.(…)

趙秉稷 字致文.癸巳生.號蒼惠.楊州人. 承旨.居齋洞.

隨員 安宗洙 字敬尊.己酉生.號起亭.廣州人. 幼學.居孟峴.俞箕煥 字景範.戊午生.號汕僊.杞溪人. 幼學.居水原.

僉人 林錫奎.通事 李章浩.(…)

이헌영(李永), <일사집략(日槎集略), 인(人)>

정치/인물

이유원이 이종성과 자신의 관력의 공통점을 기술한 내용으로 수원 유수를 지냈다는 내용.

오천 상공(梧川相公) 휘(諱) 종성(宗城)은 나에게 종고조(從高祖)가 되는데, 공은 20세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36세에 대과에 급제하였으며, 나는 24세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28세에 대과에 급제하였다. 공은 남상(南床)을 거쳤고 나 역시 남상으로서 대교, 검열, 주서를 거쳤으며, 공은 전한(典翰), 한학 교수(漢學教授), 전랑(銓郎)을 거쳤고 나는 검상, 훈련원 정을 거쳤다. 공은 안렴사(按廉使)와 봉명 사신(奉命使臣)을 누차 지냈고 나는 암행어사에 뽑히고 청남(淸南)에서 과시(科試)를 관장하고 행대(行臺)로서 연경에 나갔으며, 공은 광주 부윤(廣州府尹)을 지내고 나는 의주 부윤(義州府尹)을 지냈다. 공은 괴원(槐院)과 주사(籌司)의 부제조를 지냈고, 나는 지신과 비변사 당상관을 지냈으며, 공은 부제학을 지냈고 나 역시 부제학과 직제학을 지냈으며, 공은 예문관 제학으로서 문형을 권점(圈點)하였고 나는 양관(兩館)의 제학을 지냈다. 공은 경기 관찰사로서 가자되어 충청도 관찰사, 함경도 관찰사, 평안도 관찰사를 지냈고 나도 함경도 관찰사로 있을 때 가자되어 전라도 관찰사, 황해도 관찰사를 지냈으며, 공은 광주 유수(廣州留守)를 지냈고 **나는 수원 유수(水原留守)를 지냈다.** 공은 평판(平判)에 통의(通擬)되었으나 임명되지는 않았고 나도 그러하였으며, 공은 정헌대부(正憲大夫)로서 좌상에 임명되었고 나는 승정대부(崇政大夫)로서 좌상에 임명되었으며, 공은 금위영의 도제조와 호위대장을 지냈고 나는 어영청과 금위영의 도제조를 지냈다. 공은 명예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누차 임금으로부터 엄한 말씀을 들었고 나 역시 명예를 좋아한다는 지목을 받았으며, 공은 가선대부(嘉善大夫)가 된 이후로 단상(端上)에 자리 잡고 나 역시 아경(亞卿)이 되었을 때 양추(楊楸)에 물러나 살았으며, 공은 아들 하나와 사위 둘을 두었고 나도 그와 같다. 공은 환업(宦業)은 풍부하였는데 상업(相業)은 적어서 중서(中書)에 두 번 뽑혔으나 한 번 나아가 응명(膺命)하였고, 나 역시 그와 같았으나 상업의 유무에 있어서는 더욱 논할 만한 것이 없다 하겠다.

이유원(李裕元), <임하필기(林下筆記), 제26권 춘명일사(春明逸史), 환적(宦蹟)이 똑같은 가문 안의 고(故) 상신(相臣)>

정치/인물

정원용이 셋째 아들 정기명(鄭基命)의 봉양을 받기 위해 수원(水原) 등지에 갔다는 내용.

신미년(1871, 고종8) 가을에 경산 정공(鄭公)이 맏아들이 유수(留守)로 재직하고 있는 남성(南城, 광주(廣州))의 임소(任所)에 취양을 하였는데, 공이 80세의 노인으로서 길을 떠나기 어려운 까닭에 집안사람들이 번갈아 간하였으나 공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날짜를 정하여 길을 떠났다. 공의 이 행차는 모두 아홉 차례였는데, 성천(成川), 강도(江都), 완영(完營), 광영(廣營)에 간 것은 맏아들 정기세(鄭基世)가 모신 것이고, 배천(白川)과 서흥(瑞興)에 간 것은 둘째 아들 정기년(鄭基年)이 모신 것이고, 홍천(洪川), 수원(水原), 광주(廣州)에 간 것은 셋째 아들 정기명(鄭基命)이 모신 것이다. 부인과 함께 취양을 한 것이 절반을 차지하고 이 밖에도 오히려 미처 취양하지 못한 고을이 많았다.

이유원(李裕元), <임하필기(林下筆記), 제26권 춘명일사(春明逸史), 경산(經山)이 취양(就養)한 일>

정치/인물

이유원이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대신의 신분으로 수원 유수(水原留守)를 청하였다는 내용.

나는 항상 옛사람이 굴을 품속에 품은 뜻⁵²⁾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무릇 선찬(宣饌)하는 연회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선품(饌品)을 품속에 싸 가지고 돌아오곤 하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별로 이에 대해 말하는 것이 없었으나, 오직 유관(游觀) 김공(金公)만은 슬픔어린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대체로 공은 훌륭한 행실이 있었던 까닭에 그러한 것이었다. 내가 입각한 지 얼마 안 되어 영양(榮養)을 하려고 수원 유수(水原留守)를 청하였는데, 대신이 유수로 재직하는 것은 비록 신식(新式)이 있기는 하였지만 좌천에 가까운 일이므로 이유 없이 청하는 것은 옳지 않은 셈이었다. 그런데 오직 내가 청하는 일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다들 양찰을 해 주었다.

이유원(李裕元), <임하필기(林下筆記), 제26권 춘명일사(春明逸史), 대관(大官)의 영양(榮養)>

정치/인물

이유원이 화성유수를 지냈다는 내용.

내가 심도(沁都)에 간 것은 실록을 별에 써서 말리는 일을 위해서였고, 개성(開城)과 관서에 간 것은 왕명을 받들어 중국에 사행하기 위해서였고, 용만(龍灣)에 간 것은 부윤이 되어서였고, 호남, 해서, 관북에 간 것은 도백이 되어서였고, 화성(華城)에 간 것은 유수가 되어서였고, 호서, 경기, 영남, 광주(廣州)에 간 것은 왕고 및 선고의 임소(任所)에 배행(陪行)한 것이었다. 관동에 간 것은 적절한 계제가 없어서 곧 성묘를 하는 길에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아, 몇 해 동안 벼슬살이를 하면서 영읍(營邑)에 부침(浮沈)하는 사이에 반평생을 길에서 소진하여 버리고 필경에 얻은 것이라곤 오직 서너 가닥의 흰머리뿐이니, 도리어 우스운 노릇이다.

이유원(李裕元), <임하필기(林下筆記), 제26권 춘명일사(春明逸史), 사도(四都)와 팔도의 공사행(公私行)>

52) 굴을 …… 품은 뜻 : 부모에 대한 효도를 이르는 말인데, 한(漢)나라 육적(陸績)이 6세 때에 원술(袁術)의 집에서 굴 세 개를 품속에 몰래 넣었는데, 일어날 때에 굴이 바닥에 떨어져 원술이 육적에게 굴을 품속에 넣은 이유를 묻자, 육적이 “집에 가져가 어머니께 드리고 싶었다.”고 한 일에서 비롯된 것이다.《三國志 卷57 吳志 陸績傳》

정치/인물

1884년(고종 21) 갑신정변의 뒷수습으로 일본사행에 다녀올 때의 기록으로 남양에서 출발하여 수원에 도착하였다는 내용.

맑음. 남양을 떠나 55리의 수원에 도착하여 숙박하였다. 유수(留守) 김기석(金箕錫)이 나와 맞아주었다.

晴. 自南陽離發. 抵水原五十里止宿. 留守金箕錫出見.

박대양(朴戴陽), <동사만록(東槎漫錄), 일기, 11월 18일>

정치/인물

1581년(선조 14) 사헌부에서 수원 현감 우성전(禹性傳)을 탄핵하여 파면시켰다는 내용.

헌부(憲府)에서 수원 현감 우성전(禹性傳)을 탄핵하여 파면시켰다.

憲府劾罷水原縣監禹性傳.

이이(李珥), <석담일기(石潭日記) 卷之下, 萬曆九年辛巳>

정치/인물

태풍으로 표류된 수원 대청도(大靑島) 사람을 중국에서 만났다는 내용.

3일. 맑음. 왕보대(王寶臺) 40리를 가서 점심 먹고 영수사(迎水寺) 40리를 가서 잤다.

일찍 떠나, 가는 길에서 표류하였다가 돌아오는 우리나라 사람을 만났다. 물어보니, 이는 수원 대청도(大靑島) 사람이 은율(殷栗 황해도)의 지명)로 집을 옮기려고 배에 가족 13인을 싣고 가다가 바다에서 큰바람을 만나 산둥(山東) 땅에 표착하였다가, 황성을 거쳐 지금 막 돌아오는 길이다. 무릇, 표류해 온 사람들은 관가의 수레로 교대로 돌려보내는 것은 중국의 관례이다. (…)

晴. 王寶坨四十里午炊. 迎水寺四十里宿. 早發. 路逢我國漂人之回還者. 問是水原大靑島人. 將移家於殷栗. 船載家眷十三人. 海洋遇大風. 漂到山東地. 歷皇城. 今方回還. 凡漂人之官車替送. 中國之例也. (…)

박사호(朴思浩), <심전고(心田稿)一, 十二月 初三日>

정치/인물

음란한 것을 싫어하여 손님을 거절했다고 불기를 맞은 수원 기생

(…) 손님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불기를 맞은 수원 기생이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어우동(於宇同)은 음란한 것을 좋아하여 죄를 얻었는데, 나는 음란하지 않다 하여 죄를 얻었으니, 조정의 법이 어찌 이처럼 같지 아니한가.” 하니, 듣는 사람들이 모두 옳은 말이라 하였다. (…)

(…) 水原妓以拒客被箠者. 謂諸輩曰. 於宇同以喜淫而獲罪. 我則以不淫而獲罪. 朝廷之法. 何如是不同乎. 聞者以爲確論. (…)

성현(成俔), <용재총화(慵齋叢話), 제6권>

정치/인물

1624년(인조 2) 사간원에서 수원 부사 이경직(李景稷)을 파직하라고 했다는 내용.

7월 (…) 사간원이 아뢰기를, “수원 부사 이경직(李景稷)은 술주정을 일삼아 떳떳한 법도

를 많이 근친(觀親)을 평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파직하소서.” 하였다. 대개 듣기로는, 경직이 연평부원군의 집에 여러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기휘(忌諱)를 범하는 말을 많이 하였고, 거의(學義 인조반정의 일)한 사람을 욕하였으며, 심지어 반정(反正)한 자를 모두 사람도 아니라고 하였다 한다. 비답하기를, “경직이 비록 크게 뛰어난 도량은 없을지라도 꽤 사람을 다스리는 재주가 있으니, 가벼이 체직해서는 안 된다. 마음대로 시골로 왔다갔다 했던 일은 추고함이 옳다.” 하였다. (…)

七月 (…) 院啓.水原府使李景稷沈酗爲事.多失常度.托以觀親.非止一再.請罷職.蓋聞景稷於延平家衆會中.多發觸諱之語.詆辱學義之人.至以反正者皆非人云云.答曰.景稷雖無雄偉之量.頗有治人之才.不可輕遞.任意往來事.推考可也.(…)

박정현(朴鼎賢), <응천일록(凝川日錄)三, 甲子>

정치/인물

1627년(인조 5) 3월 남한산성에서 치룬 무과에서 수원 초군 유관(劉官)이 장원하였다는 내용.

(…) 3월 (…) ○ □일 상이 남문 밖 막차에 납시어, 강화·통진·교동(喬桐)의 유생 및 호종하는 여러 고을의 군병에게 정시(庭試)를 보였다. 문과는 즉일로 방을 붙였는데, 허색(許穡)이 장원을 했다. 무과는 시험을 마치지 못하여 이튿날부터 명관(命官) 오윤겸, 시관 박정현(朴鼎賢)·이정신(李廷臣)·황이중(黃履中), 참시관(參試官) 이목(李菴)·정익(鄭楨), 승지 정백창, 양사의 장관이 시취(試取)하여 8일만에 방을 붙였는데, 수원 초군 유관(劉官)이 장원하였다.

(…) 三月日上御南門外幕次.庭試江華通津喬桐儒生.及扈從諸邑軍兵.文科則卽日出榜.許穡爲魁.武科未畢試.自翌日命官吳允謙.試官朴鼎賢李廷臣黃履中.參試官李菴鄭楨.承旨鄭百昌.兩司長官試取.第八日出榜.水原哨軍劉官爲魁.(…)

박정현(朴鼎賢), <응천일록(凝川日錄)三, 丁卯>

정치/인물

1630년(인조 8) 1월 수원의 장관(將官) 중의 한 사람이 던진 익명서의 내용.

1월 (…) 22일 어두워져서 도사 정언숙(鄭彦肅)을 만났더니, 간밤에 입직하여 당직하는데 어떤 사람이 익명서를 던져 넣었기에 보니 대개, “신은 수원의 장관(將官) 중의 한 사람입니다.”하고서, 그 말에 이르기를, “송광유(宋光裕)가 고변한 것은 거짓이 아닌데, 모든 사람을 끝까지 국문하지 않고 앞질러 고발한 자를 죽이니, 신이 그 서찰을 빼앗아서 고하려 하였으나 죽음을 두려워하여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

正月 (…) ○二十二日昏.見都事丁彦肅.去夜入直當直.有人投匿名書.見之則大概云.臣乃水原將官中人也云.而其說以爲.宋光裕告變非虛事.而不爲窮鞫諸人.而徑殺告者.臣亦欲奪其書札告之.而畏死不爲云.(…)

박정현(朴鼎賢), <응천일록(凝川日錄)四, 庚午>

정치/인물

1635년(인조 13) 4월 목릉 개수의 결과를 수원 부사 유백증(兪伯曾) 등이 보고한 내용.

4월 (…) 19일 우의정 김상용(金尙容) 이하가, 목릉을 개수한 후에 들어와서 아뢰기를, “신 등이 능소에 나아가서 숙배한 후에 경기 감사 윤의립(尹毅立)과 수원 부사 유백증(兪伯曾)·

남양(南陽) 홍진도(洪振道)·인천 심액(沈詒)·양주(楊州) 이유성(李惟聖)·양근(楊根) 이이성(李以省)·통진(通津) 정복길(鄭復吉)·영서(迎曙) 강윤형(姜允亨) 등을 불러서, 많은 관원이 일시에 능위에 올랐습니다. 가리웠던 초둔(草苴)과 유둔(油苴)을 헤치고 함께 봉심하였더니, 빗물로 인하여 무너진 자국이 아주 명백하여 조금도 의심할 만한 꼬투리가 없었습니다. (…)

四月 (…)
○十九日右議政金尙容以下.穆陵修改後入來.啓.臣等進詣陵所.肅拜後.招京畿監司尹毅立水原府使俞伯曾南陽洪振道仁川沈詒楊州李惟聖楊根李以省通津鄭復吉迎曙姜允亨等.多官一時上陵.開封閉草苴油苴眼同奉審.則因雨崩頽形迹.十分明白.小無可疑之端.(…)

박정현(朴鼎賢), <응천일록(凝川日錄)七, 乙亥>

정치/인물

허경삼(許景三)이 수원에서 돌아왔다는 내용.

비. 점심때가 되어 잠깐 개임. 김영문(金永文)에게 어음 400냥을 추심하려고 원심을 서울로 전인하여 보냈다. 문구에게 의복을 부송하고 편지를 부쳤다. 이 생원 학산과 김익준에게 각각 편지를 부쳤다. 허경삼(許景三)이 수원에서 돌아왔다. 백 오위장에게서 찾아올 돈 중 290냥을 창록(昌祿)이 밤에 가져왔다.

雨 抵午乍晴 金永文音四百兩 推尋次專送元心於京中 文龜處衣服付送而寄書 李生員鶴汕與金益俊許各修書 許景三 自水原歸來 白五衛將處 推來文中二百九十兩 昌祿夜來

지규식(池圭植), <하재일기(荷齋日記)四, 丙申年(1896) 五月二十一日>

정치/인물

영의(榮義)가 수원에서 돌아왔다는 내용.

5일 신묘. 맑음. 영의(榮義)가 수원에서 돌아왔다. 장의준(張宜俊) 조 2천 냥을 추심하여 왔다. 변춘학(卞春學)을 양성(陽城)·소사(素沙) 등지에서 수소문하여 만났다. “수중에 돈이 한 톨도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한다.” 고 하니 매우 가슴이 아왔다.

五日 辛卯 晴 榮義自水原歸來 張宜俊條二千兩推來 卞春學 陽城素沙等地 覓得達着 而無一分沒喫云 可痛可痛

지규식(池圭植), <하재일기(荷齋日記)八, 壬寅年(1902) 十二月 五日>

정치/인물

벽운당(碧雲堂) 친동생이 수원에서 왔다는 내용.

벽운당(碧雲堂) 친동생이 수원에서 왔다. 남매가 서로 헤어져 사는 곳을 모른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되었다. 이제야 비로소 만났으니 그 슬퍼하고 기뻐하는 마음은 보지 않아도 헤아릴 수 있다. 나는 벽운당에 가서 서로 회포를 풀고, 어머님은 고향리 진 이종 댁에 행차하셨다.

碧雲堂親弟 自水原來到 男妹相別 不知下落 殆近二十年 今始逢着 其所悲喜 不見可圖 余適至壁雲堂相叙 慈母主 行次于高浪里陳姨從宅

지규식(池圭植), <하재일기(荷齋日記)八, 乙巳年(1905) 二月, 十九日 壬戌 晴>

2. 경제(經濟)

(1) 재정

경제/재정

수원 화성의 장용곡에 대한 정의와 그 규모에 대해 언급한 내용.

장용곡(壯勇穀)이란 정종 계축년에 심도(沁都 : 강화)의 소미(小米) 2만 석, 신회록 소미(新會錄小米) 2만 석, 향군 접제조 소미(鄉軍接濟條小米) 1만 1천 석, 군역청 상환 회록 대미(均役廳相換會錄大米) 500석과 소미 5만 297석, 준천사(濬川司) 상환 회록 소미 562석을 여러 도에 분배해서 환상으로 만든 것이다(또 華城 整理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을묘년에 御駕가 거동한 후에 생긴 것임).

壯勇穀者.正宗癸丑.請得沁都小米二萬石新會錄.小米二萬石鄉軍接濟條.小米一萬一千石均廳相換會錄.大米五百石.小米五萬二百九十七石.濬川司相換會錄.小米五百六十二石.分布諸路.遂爲還上.【又有華城整理穀.起於乙卯動駕之後.】 (…)

정약용(丁若鏞), <경세유표(經世遺表), 제12권 지관 수제(地官修制), 倉廩之儲1>

경제/재정

경기도 광주 및 화성의 곡저 액수가 증가하였다는 내용.

여러 도의 곡저(穀貯) 액수를 지금에 비교해서 줄였지만 오직 호서 및 광주(廣州)·화성(華城)에는 그 액수를 증가한다. 전편(前篇)에 기록한 저곡(貯穀) 액수는 15두를 한 섬으로 한 것이나 이편에 말한 곡액(穀額)은 10두를 한 섬으로 한 것이다. 구액(舊額) 두 섬을 석 섬으로 계산하면(전일에는 서른 말을 두 섬이라 하였으니 지금의 석섬이 된다) 증감이 나타나는데, 이제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경기는 본래 광주와 화성을 합쳐서 계산했는데 이번에는 갈라서 계산하였음).(…)

광주(廣州 : 본래 10만 6천 765석) : 이제 증가한 것이 1만 3천 234석임.

화성(華城 : 본래 7만 1천 399석) : 이제 증가한 것이 4만 7천 601석임.

나의 생각에는, 그 감(減)한 곳에는 환성이 땅을 진동할 것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으나 증가한 곳에는 반드시 원망이 있을 것이다. 호서에는 증가한 것이 38만 석이나 많으니, 비록 여러 고을에 배정하더라도 큰 고을에는 반드시 1만 석을 넘을 것이고 작은 현(縣)이라도 5천은 넘을 것이니 법을 시행하는 처음에는 백성의 소동(騷動)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연해(沿海)의 홍주(洪州)·면천(沔川)·은진(恩津)·한산(韓山) 등 여러 고을에는 상평창을 더 설치해서 이 곡식을 저장해두고, 1호에 분배하는 4석도 율(率)대로 하지 말고 점점 고르게 될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하다. 광주에 증가한 1만 3천 석과 화성에 증가한 4만 7천 석도 모두 본성(本城) 경계 안의 해구(海口)에 상평창을 설치해서 이 수량을 저장해둔다면 곡식 액수는 줄어들지 않고, 백성의 원망은 당장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여겨진다.

시험 삼아 경기 1도의 여러 고을 호충을 조사해서 저장할 곡식 액수를 정한다.

광주(廣州) 1만 5천 호(본래 1만 7천 호) 곡저(穀貯) 12만 석

화성(華城) 1만 5천 호(본래 1만 6천 호) 곡저 12만 석

諸路穀貯之額.視今有減.唯湖西及廣州華城.其額有增.諸路穀貯之額.視今有減.唯湖西及廣州華城.其額有增.前篇穀額.是十五斗作石也.此篇穀額.是十斗作石也.每舊額二石.加計爲三石.【舊以三十斗爲二石.今以爲三石故也.】則所減所增.以著今開列如左.【京畿本與廣州華城合計之.今

分而計之.】(…) 廣州.【本一十萬六千七百六十五石零.】今增一萬三千二百三十四石零.華城.【本七萬一千三百九十九石.】今增四萬七千六百一石.【廣州,華城.本入京畿之內.今分而計之.】

臣以爲其減者.所至歡聲動地.固不必言.其增者.必有怨矣.湖西之增多至三十八萬.雖播攤諸邑大郡.必過萬石.小縣亦過五千.行法之初.民騷必興.宜於沿海諸邑.若洪州, 沔川, 恩津, 韓山等處.加置常平倉.以貯此數.而一戶四石之分.不得如率.以俟其漸均可矣.廣州之增一萬三千.華城之增四萬七千.皆當於本城界內.直臨海口.置常平倉.以貯此數.則穀額無欠.而目下之民咨.可不興也.(…) 試執京畿一路.查諸邑戶總.以定穀貯之額.(…) 試執京畿一路.查諸邑戶總.以定穀貯之額.廣州一萬五千戶.【本一萬七千戶.】穀貯十二萬石.華城一萬五千戶.【本一萬六千戶.】穀貯十二萬石.

(…)

정약용(丁若鏞), <경세유표(經世遺表), 제12권 지관 수제(地官修制), 창름지저(倉廩之儲) 3>

경제/재정

보기에 편리하도록 화성의 곡식을 표로 작성한 방법.

단속하기 간편한 규칙으로 말하면 오직 경위표(經緯表)의 한 방법이 있어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훤히 살필 수가 있다.

총 수 표 (總數表)	미(米)	조(租)	대 두 (大 豆)	피 모 (皮 牟)	구 관 (句 管)	분 류 (分 留)	모 록 (耗 錄)
화 성 곡 (華城穀)	5 7 0 석 14두				비 국 (備 局)	모 두 를 분급함	전 부 를 수록함

總數表	米	租	大豆	皮牟	句管	分留	耗錄
華城穀	五百七十 石十四斗				備局	盡分	全錄

정약용(丁若鏞), <목민심서(牧民心書), 호전(戶典) 6조 제3조 곡부(穀簿)>

경제/재정

전국의 조창의 연혁을 정리한 것으로 수원 독성창(禿城倉)은 1602년(선조 35)에 설치되었다는 내용.

(…) 호서 공진창(貢津倉)은 중종조에 시작되었고(중종 계미년인 1523년에 설치), 수원 독성창(禿城倉 : 宣祖 임인년에 설치), 호서 쌍수곡(雙樹穀 : 선조 계묘년에 성을 쌓고 창을 설치), 동래(東萊) 수정곡(修城穀 : 선조 병오년에 설치), 화산(華山) 수정곡(선조 병오년에 설치)은 선조 때에 설치했다(統營穀이 또 임진왜란 후에 생겼음). 패서(溟西) 천류곡(泉流穀 : 인조 계해년에 설치), 선산(善山) 수정곡(修城穀 : 인조 기묘년에 설치), 가산(架山) 보성곡(補城穀 : 인조 기묘년에 설치)은 인조 때에 설치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자세하지 않은 것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다. (…)

(…) 湖西之貢津倉.起於中宗朝.【中宗癸未設.】水原之禿城倉.【宣祖壬寅設.】湖西之雙樹穀.【宣祖癸卯築城而設倉.】東萊之修城穀.【宣祖丙午設.】華山之修城穀.【宣祖丙午設.】起於宣祖朝.【又統營穀.竝起於壬辰倭寇之後.】溟西之泉流穀.【仁祖癸亥設.】善山之修城穀.【仁祖己卯

設.】梁山之補城穀.【仁祖己卯設.】起於仁祖朝.未詳其始者.又不可勝記也.(…)

정약용(丁若鏞),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第五集政法集第十二卷○經世遺表, 창림지저(倉廩之儲) 1>

경제/재정

겸제조 및 이료미는 화성에서 관리한다는 내용.

성(省)에는 성곡(省穀)이 있고, 군(郡)에는 군곡(郡穀)이 있다. 폐단을 구(救)한다는 것이 오히려 폐단이 생겨서 흐릿하고 한절(限節)이 없으니 그 명칭이 실로 많아서 이루 헤아릴 수도 없다. 경기에는 능환조(陵還租)【과주에 있음】·**겸제조(兼濟租)**【**화성에서 관리함**】·**이료미(史料米)**【**화성에서 관리함**】·신영조(新營租)【監營에서 관리함】·방역조(防役租)【고양군에 예속되었음】가 있고, 광주(廣州)에는 영고미(營庫米)·보홀미(保恤米)·승창미(僧倉米)·관향미(管餉米)·별고미(別庫米)가 있으며【본부에서 관할함】, 개성부(開城府)에는 승창미(僧倉米)·태안곡(泰安穀)·여현곡(礪峴穀)·백치곡(白峙穀)·서북창(西北倉)【金川 차지임】·남창곡(南倉穀)【長湍 차지임】·별창곡(別倉穀)【白川 차지임】·청석곡(靑石穀)·점석곡(黏石穀)【屯倉에 있음】이 있고, 강화부(江華府)에는 정족창(鼎足倉)·호조창(戶曹倉)·보향미(堡餉米)【각 鎭에 딸렸음】·옥창미(玉倉米)·병고미(兵庫米)·군기미(軍器米)·수성미(修城米)·진휼미(賑恤米)·별고미(別庫米)가 있어, 그 명목과 규례가 각각 다르다.

省有省穀.郡有郡穀.救弊生弊.漫然無節.其名寔繁.不可悉數.京畿則有陵還租,【在坡州.】兼濟租,【**管華城.**】史料米,【**管華城.**】新營租,【管監營.】防役租.【屬高陽.】廣州.有營庫米,保恤米,僧倉米.管餉米,別庫米.【管本府.】開城府.有僧倉米,泰安穀,礪峴穀,白峙穀,西北倉,【金川次知.】南倉穀,【長湍次知.】別倉穀.【白川次知.】靑石穀,黏石穀.【有屯倉.】江華府.有鼎足倉,戶曹倉,堡餉米,【屬各鎭】玉倉米,兵庫米,軍器米,修城米,賑恤米,別庫米.其名例各殊也.(…)

정약용(丁若鏞),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第五集政法集第十二卷○經世遺表, 창림지저(倉廩之儲)1>

경제/재정

여러 도의 곡저 액수가 줄었는데 호서 및 광주와 화성의 액수가 증가했다는 내용.

여러 도의 곡저(穀貯) 액수를 지금에 비교해서 줄었지만 오직 호서 및 광주(廣州)·화성(華城)에는 그 액수를 증가한다.

전편(前篇)에 기록한 저곡(貯穀) 액수는 15두를 한 섬으로 한 것이나 이편에 말한 곡액(穀額)은 10두를 한 섬으로 한 것이다. 구액(舊額) 두 섬을 석 섬으로 계산하면【전일에는 서른 말을 두 섬이라 하였으니 지금의 석섬이 된다】증감이 나타나는데, 이제 다음과 같이 열기 한다【경기는 본래 광주와 화성을 합쳐서 계산했는데 이번에는 갈라서 계산하였음】.

경기【본래 77만 6천 250석】 : 이제 줄인 것이 5만 6천 250석임.

호서【본래 129만 9천 204석】 : 이제 증가한 것이 38만 796석임.

호남【본래 312만 1천 468석】 : 이제 줄인 것이 64만 1천 468석임.

영남【본래 345만 3천 415석】 : 이제 줄인 것이 42만 3천 415석임.

관동【본래 55만 910석】 : 이제 줄인 것이 7만 910석임.

해서【본래 112만 9천 536석】 : 이제 줄인 것이 24만 9천 536석임.

패서【溟西 : 본래 193만 3천 33석】 : 이제 줄인 것이 17만 3천 33석임.

관북【關北 : 본래 241만 4천 95석】 : 이제 줄인 것이 177만 4천 95석임.

개성【본래 5만 8천 839석】 : 이제 줄인 것이 1만 8천 839석임.

강화【江華 : 본래 6만 4천 133석】 : 이제 줄인 것이 2만 4천 733석임.

광주【廣州 : 본래 10만 6천 765석】 : 이제 증가한 것이 1만 3천 234석임.

화성【華城 : 본래 7만 1천 399석】 : 이제 증가한 것이 4만 7천 601석임.

나의 생각에는, 그 감(減)한 곳에는 환성이 땅을 진동할 것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으나 증가한 곳에는 반드시 원망이 있을 것이다. 호서에는 증가한 것이 38만 석이나 많으니, 비록 여러 고을에 배정하더라도 큰 고을에는 반드시 1만 석을 넘을 것이고 작은 현(縣)이라도 5천은 넘을 것이니 법을 시행하는 처음에는 백성의 소동(騷動)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연해(沿海)의 홍주(洪州)·면천(沔川)·은진(恩津)·한산(韓山) 등 여러 고을에는 상평창을 더 설치해서 이 곡식을 저장해두고, 1호에 분배하는 4석도 율(率)대로 하지 말고 점점 고르게 될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하다. 광주에 증가한 1만 3천 석과 화성에 증가한 4만 7천 석도 모두 본성(本城) 경계 안의 해구(海口)에 상평창을 설치해서 이 수량을 저장해둔다면 곡식 액수는 줄어들지 않고, 백성의 원망은 당장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여겨진다.(…)

諸路穀貯之額.視今有減.唯湖西及廣州華城.其額有增.

前篇穀額.是十五斗作石也.此篇穀額.是十斗作石也.每舊額二石.加計爲三石.舊以三十斗爲二石.今以爲三石故也.則所減所增.以著今開列如左.京畿本與廣州華城合計之.今分而計之.

京畿.【本七十七萬六千二百五十石.】今減五萬六千二百五十石.

湖西.【本一百二十九萬九千二百四石.】今增三十八萬七百九十六石.

湖南.【本三百一十二萬一千四百六十八石零.】今減六十四萬一千四百六十八石零.

嶺南.【本三百四十五萬三千四百一十五石零.】今減四十二萬三千四百一十五石零.

關東.【本五十五萬九百一十石零.】今減七萬九百一十石零.

海西.【本一百一十二萬九千五百三十六石.】今減二十四萬九千五百三十六石.

溟西.【本一百九十三萬三千三十三石零.】今減一十七萬三千三十三石零.

關北.【本二百四十一萬四千九十五石零.】今減一百七十七萬四千九十五石零.

開城.【本五萬八千八百三十九石.】今減一萬八千八百三十九石.

江華.【本六萬四千七百三十三石.】今減二萬四千七百三十三石.

廣州.【本一十萬六千七百六十五石零.】今增一萬三千二百三十四石零.

華城.【本七萬一千三百九十九石.】今增四萬七千六百一石.

【廣州, 華城.本入京畿之內.今分而計之.】

臣以爲其減者.所至歡聲動地.固不必言.其增者.必有怨矣.湖西之增多至三十八萬.雖播攤諸邑大郡.必過萬石.小縣亦過五千.行法之初.民騷必興.宜於沿海諸邑.若洪州, 沔川, 恩津, 韓山等處.加置常平倉.以貯此數.而一戶四石之分.不得如率.以俟其漸均可矣.廣州之增一萬三千.華城之增四萬七千.皆當於本城界內.直臨海口.置常平倉.以貯此數.則穀額無欠.而目下之民咨.可不興也.

정약용(丁若鏞),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第五集政法集第十二卷○經世遺表, 창림지저(倉廩之儲) 3>

경제/재정

1760년(영조 36) 수원부(水原府)에 양전을 실시하였다는 내용.

(…) 제로양전고(諸路量田考) (…) 영종(英宗) 3년(1727), 개령현(開寧縣)을 양전하였다.

(…) 36년, 수원부(水原府)를 양전하였다. (…)

(…) 諸路量田考 (…)
英宗三年. 開寧縣量田. (…)
○三十六年. 水原府量田. (…)

정약용(丁若鏞), <경세유표(經世遺表), 제9권 지관수제(地官修制) 전제별고(田制別考) 1>

경제/재정

1624년(인조 2) 이시백의 의견에 따라 수원산성의 전민들에 대해 각종 조세를 면제시켰다는 내용.

(…) ○ 수원산성(水原山城)의 전민(田民)들에 대해 그 전과 같이 각종 조세를 면제시켜 주었다. 방어사 이시백의 말을 따른 것이다. (…)

<국조보감(國朝寶鑑), 제34권 인조조 1, 2년(갑자, 1624)>

경제/재정

1836년(헌종 2) 3월 홍석주의 주청에 따라 화성의 유랑민의 환곡을 탕감하도록 명하였다는 내용.

○ 화성(華城) 유랑민의 환곡 7백여 석을 탕감할 것을 명하였다. 홍석주의 주청에 따른 것이다.

<국조보감(國朝寶鑑), 제83권 헌종조 1, 2년(병신, 1836)>

경제/재정

수원부(水原府)의 면세 전답 결수(免稅田畝結數)

<총수(總數)> 8도 4도의 각양 면세하는 전답 【해마다 영축(盈縮)되는 것이 같지 아니하여 한 해로써 표준할 수 없으므로 지금 정묘년 총(摠)을 기록하여 후고(後考)를 삼음 204,635 결. 경기도 20,644결, 호서에 21,175결, 호남에 38,888결, 영남에 31,861결, 해서에 16,667결, 관동에 12,021결, 관서에 16,069결, 관북(關北)에 42,808결, 수원부(水原府)에 1,836결, 광주부에 1,655결, 개성부(開城府)에 595결, 강화부(江華府)에 416결.】

八道, 四都各樣免稅田畝. 【逐年贏縮不同. 不可以一歲爲準. 今錄丁卯摠. 以備後考. 二十萬四千六百三十五結. 京畿二萬六千四百四十四結. 湖西二萬一千一百七十五結. 湖南三萬八千八百八十八結. 嶺南三萬一千八百六十一結. 海西一萬六千六百六十七結. 關東一萬二千二十一結. 關西一萬六千六十九結. 關北四萬二千八百八結. 水原府一千八百三十六結. 廣州府一千六百五十五結. 開城府五百九十五結. 江華府四百十六結.】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2 면세(免稅), 八道四都免稅田畝結數>

경제/재정

어영청 소속의 향군(鄉軍)이 번을 서는 것을 강제하는 것만으로도 폐해를 제거하는 일이라는 어영대장의 진언.

<제번 전말(除番顛末)> 순조 8년 무진(1808년) 8월에 대신과 비변사의 당상을 인견(引見)하였을 적에 어영대장 이요헌(李堯憲)이 아뢰기를, “일찍이 선왕(先王 정조) 18년 갑인(1794년)에 화성에 성을 쌓기 위한 물자를 각처에서 대부(貸付)한 것을 환보(還報)하기 위하여 본청 5개 초의 지방군이 번에 들어오는 가운데서 매초에 각각 27명씩을 제하여 합계 135명의 번을 줄이고, 그의 신평(身布) 및 자장보전(資裝保錢)을 거두어서 연도를 배정하여 강제해 가던 것이 지금은 벌써 환보를 끝내었으니, 금년 11월부터는 번을 복구하여 들여세움

이 올겠습니까만,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지방군으로서 번을 든다는 것이 민간 및 지방 관청의 가장 큰 폐단이어서 비록 약간 명의 번드는 것만 강제하더라도 폐해를 제거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

當寧戊辰八月.引見大臣, 備局堂上.御營大將李堯憲啓言.曾於先朝甲寅.以華城城役物力之各處貸下還報次.本廳五哨鄉軍上番中.每哨各除二十七名.合一百三十五名減番.收其身布及資裝保錢.以爲排年計減者.今已畢報.自今十一月爲始.當爲復番徵立.而第有區區愚見.蓋鄉軍上番.最是民邑之痼癘.雖略干名之減番除弊不些.(…)

<만기요람(萬機要覽), 軍政編三 御營廳, 鄉軍除番>

경제/재정

1798년(정조 22) 시흥 등의 5개 읍의 수미군을 화성에 이속하였다는 내용.

균역청 급대전[均廳給代錢] 영조[英宗] 34년 무인(1758년)에 경기감사 조돈(趙墩)이 수원의 인민이 역을 겸함이 폐해되므로 장청하여, 본청에 소속된 군수보로 양민 1,000명과 노예 500명을 강제하고, 균역청에서 해마다 돈 2,500냥의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 정조 22년 무오(1798년)에 시흥·과천·안산(安山)·진위·용인(龍仁) 5개 읍의 수미군을 화성에 이속하고, 균역청에서 이에 대한 대금 410냥을 본청에 지급하였다. 【이 항은 곧 군수보에 관한 것인데 군수보의 기사가 잘못되어 장아병 수미조 및 균역청의 대금 지급조에 또 나타나게 되었다.】

均廳給代錢.英宗戊寅.京畿監司趙墩以水原民兼役爲弊狀請.減本廳屬軍需保良一千名, 奴五百名.自均廳每年以錢二千五百兩給代.○正宗戊午.始興, 果川, 安山, 振威, 龍仁五邑需米軍移屬華城.自均役廳給代錢四百十兩于本廳.【此段.即軍需保事.而軍需保事又錯見於壯牙兵需米條及均廳給代錢條.】

<만기요람(萬機要覽), 軍政編三 揔戎廳, 軍儲>

경제/재정

수원부(水原府)의 시기전결 수세(時起田結收稅)

(…) 수원부(水原府) 세미 823석·콩 595석은 본부(本府)에 획급한다.

八道四都時起田結收稅.(…) 水原府.稅米八百二十三石.太五百九十五石.劃給本府.(…)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2 면세(免稅), 八道四都時起田結收稅>

경제/재정

1792년(정조 16) 수원의 수미군을 충용청으로 이속하고 수미 대금을 월과미로 옮겨 사용하기로 한 내용.

(…) 장아병 수미(壯牙兵需米) 영조 26년 경오(1750년)에 장아병이 번에 드는 규례[規]⁵³⁾를 폐지하고, 노예는 3두·양민은 6두씩 신미(身米)를 납입케 하였다. 【조련에 참가하면 반액을 강제한다.】 52년 병신에 어사 유한경(兪漢敬)⁵⁴⁾의 별단에 의하여 장아병의 수미는 본읍에서 쌀로 수납하고, 보미는 백성의 자원에 의하여 매두에 대금 4전(錢)씩⁵⁵⁾을 납입하도록 규례를 정하였다. 정조 16년 임자(1792년)에 수원(水原)의 수미군(需米軍)을 본부로 이속한

53) 규례[規] : '규례[規]'가 어느 본에는 '規式'으로 되어 있음.

54) 유한경(兪漢敬) : 영조 47년 신묘(1771년)에 정시문과(庭試文科) 병과(丙科)에 합격, 교리를 지냄.

55) 전(錢) : '전(錢)'이 어느 본에는 '兩'으로 되어 있음.

[付本部]⁵⁶⁾ 뒤에 수미 800석의 대금을 월과미(月課米)로 옮겨 사용하고, 월과미는 양서의 좁쌀로 바꾸어 주고, 군량미 첨액조는 임시로 감제하였다. (…)

(…) 壯牙兵需米. 英宗庚午. 既罷壯牙兵入番之規. 以奴三斗, 良六斗捧身米. 參操則減半. 丙申. 因御史俞漢敬別單. 壯牙兵需米. 自本邑以米收納. 保米則從民願每斗代錢四錢捧納事. 定式. 正宗壬子. 水原需米軍移付本府後. 需米八百石代以月課米移用. 月課米代以兩西小米換給. 添餉條則權減. (…)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3 총융청(摠戎廳), 군저(軍儲)>

경제/재정

1799년(정조 23) 총융청 소속 둔전 가운데 수원둔(水原屯) 등의 규모를 정한 내용.

○ 정조 23년 기미(1799년)에 총융사 이방일(李邦一)이 각 둔에 상·중·하총을 정하여 조규[節目]를 작성 비치하였다. 장단 1둔 벼 55석, 콩 101석, 팔 1석 영, 조 100석, 기장 30석. 2둔 벼 58석, 콩 98석 영, 팔 1석, 조 30석, 기장 30석. 삭녕둔(朔寧屯) 벼 23석, 콩 48석, 팔 1석, 조 20석, 기장 15석. 광주둔(廣州屯) 벼 72석, 콩 78석, 기장 34석. 마전둔(麻田屯) 벼 43석, 콩 73석 영, 팔 1석 영, 조 20석, 기장 15석. 양성둔(陽城屯) 벼 60석, 콩 54석. 직산둔(稷山屯) 벼 20석, 콩 13석. 수원둔(水原屯) 벼 42석, 콩 24석. (…)

○正宗己未. 摠戎使李邦一定各屯上, 中, 下摠. 成置節目.

長湍一屯. 租五十五石. 太一百一石. 豆一石零. 粟一百石. 稷三十石. 二屯. 租五十八石. 太九十八石零. 豆一石. 粟三十石. 稷三十石. 朔寧屯. 租二十三石. 太四十八石. 豆一石. 粟二十石. 稷十五石. 廣州屯. 租七十二石. 太七十八石. 稷三十四石. 麻田屯. 租四十三石. 太七十三石零. 豆一石零. 粟二十石. 稷十五石. 陽城屯. 租六十石. 太五十四石. 稷山屯. 租二十石. 太十三石. 水原屯. 租四十二石. 太二十四石. (…)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3 총융청(摠戎廳), 諸屯>

경제/재정

수원부의 원장에 실린 전답의 규모를 기록한 내용.

○ 6도 614,807결, 양계(兩界)·4도(都) 166,012결. (…) 수원부(水原府) 원장에 실린 전답 11,821결 한전 6,426결, 수전 5,395결. (…)

○六道. 六十四萬四千八百七結. 兩界, 四都. 十六萬六千十二結. (…) 水原府元帳付田畝. 一萬一千八百二十一結. 旱田六千四百二十六結. 水田五千三百九十五結. (…)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2 전결(田結), 八道四都元帳付田畝>

경제/재정

조선에서 동전 주조에 필요한 동이 산출되는 지역

(…) 우리 나라에서 또한 동이 산출되나 제련하는 방법을 몰라서 공사(公私) 수용(需用)에 순전히[全]⁵⁷⁾ 왜동(倭銅)을 사용하였다. 영종 신유년에 비로소 수안(遂安)⁵⁸⁾·영월(寧越)의 동을 채취하고, 그 뒤에 또 보은(報恩)·안변(安邊)의 동을 채취하였으나, 제련한 것이 마침내 왜동만 못하여 쓰이지 못하였다. 정종 을사년에 호조에서 주전(鑄錢)할 때에 안변의

56) 본부로 이속한[付本部] : '본부로 이속한[付本部]'이 어느 본에는 '保本廳'으로 되어 있음.

57) 순전히[全] : '순전히[全]'가 어느 본에는 '專'으로 되어 있음.

58) 수안(遂安) : '수안(遂安)'이 어느 본에는 '水原'으로 되어 있음.

영풍동(永豐銅)을 섞어 써서 이 뒤부터는 주전하는 데에 잇달아 사용되었다. (…)

(…) 我東.亦自產銅.而不知吹鍊之法.公私所需.全用倭銅.英宗辛酉.始採遂安,寧越銅.其後又採報恩,安邊銅.而其所吹鍊.終不如倭銅.不得行用.正宗乙巳.戶曹鑄錢時.參用安邊之永豐銅.自是以後連用於鑄錢.(…)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4 금·은·동·연(金銀銅鉛),銅>

경제/재정

정조 때에 수원부(水原府) 환곡의 전모(全耗)를 특별히 견감(蠲減)하였다는 내용.

(…)○정종(正宗) 때에 수원부(水原府) 환곡(還穀)의 전모(全耗)를 특별히 견감(蠲減)하였다.(…)

(…) ○正宗朝.特蠲水原府還穀全耗.(…)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3 조적(糶糴), 還耗蠲減>

경제/재정

영조 올해년에 특교로 수원의 결전을 수봉하지 않도록 하였다는 내용.

(…) 영종(英宗) 올해년에 특교(特敎)로 인하여 수원(水原)은 기보(畿輔 경기)⁵⁹의 중진(重鎭)이므로 3도(都)의 예에 의하여 결전(結錢)을 수봉(收捧)하지 아니하였다. 무인년에 본부는 경사(京士)·토호(土豪)의 밭이 많아서 결전(結錢)⁶⁰을 견면(蠲免)하는 혜택이 반드시 소민(小民)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되고 또 충융청(攄戎廳)에 소속된 속오(束伍)⁶¹가 수미(需米)를 첩납(疊納) 겹쳐서 납입함)하여 사정이 심히 궁민(矜憫)⁶²함으로써 속오의 겸역(兼役)을 영구히 견파(蠲罷)하고 결전을 환봉(還捧)하여 충청(攄廳) 수미(需米)에 보충해 주는 자료로 삼을 일로 정식하였다. 【결전을 정종(正宗) 정사(1797, 정조 21)에 본부에 획급하고 수미는 예전대로 급대하였다.】 충융청(攄戎廳) 돈 2,500냥. 경청(京廳)에서 지급한다. (…)

(…) 英宗乙亥.因特敎.水原以畿輔重鎭.依三都例不捧結錢矣.戊寅.以本府.多是京士,土豪之田.結錢蠲免之惠未必專歸於小民.且攄戎廳所屬束伍之疊納需米事甚矜憫.束伍之兼役永爲蠲罷.還捧結錢.以爲攄廳需米充給之資事.定式.【結錢.正宗丁巳.劃給本府.而需米依前給代.】攄戎廳.錢二千五百兩.京廳上下.(…)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3 급대(給代), 水原結錢等給代>

경제/재정

호조 소속의 해유색(解由色) 계사 6명이 수원부(水原府) 등의 전안·곡부를 담당한다는 내용.

(…) ○ 해유색(解由色) 계사 6명은 해유치부각사(解由置簿各司) 사도시(司藥寺)·사섬시·제용감·자문감·전생서·해민서의 회계와 경기·관서·강화부(江華府)·개성부(開城府)·수

59) 기보(畿輔 경기) : ‘기보(畿輔)’가 어느 본에는 ‘京輔’로 되어 있음.

60) 결전(結錢) : ‘결전(結錢)’이 어느 본에는 ‘結役’으로 되어 있음.

61) 속오(束伍) : 속오군(束伍軍). 선조(宣祖) 25년에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날 무렵 비로소 편성한 것으로 지방에서 역(役)이나 벼슬이 없는 15세 이상의 공사천인(公私賤人) 및 양인(良人)의 조련(操練)에 담당할 자를 작대편성(作隊編成)한 군대를 말한다. 평시에는 군포(軍布)를 납입시키고 입번(立番)하지 아니하고 유사시에만 당지(當地)에서 소집하여 훈련을 시켰다.

62) 궁민(矜憫) : ‘궁민(矜憫)’의 ‘矜’이 어느 본에는 ‘於’로 되어 있음.

원부(水原府)·광주부(廣州府)의 전안·곡부를 맡아본다. (…)

(…) ○解由色計士六員.掌解由置簿各司 司槩寺, 司贍寺, 濟用監, 紫門監, 典牲署, 惠民署. 會計及京畿, 關西, 江華府, 開城府, 水原府, 廣州府田案, 穀簿.(…)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4, 호조각장사례(戶曹各掌事例), 附算學>

경제/재정

수원(水原)·광주(廣州)의 경우는 전결을 해당 부(府)에 획급(劃給)한다는 내용.

(…) 송도(松都)·강화(江華)는 거두지 아니하고, 【송도의 병진(1736, 영조 12)에 획부(劃付)한 삼면(三面)의 결전은 예에 의하여 상납하는 사실은 수세조(收稅條)에 보였음】 수원(水原)·광주(廣州)는 그 부(府)에 획급(劃給)하며, 【광주는 정종(正宗) 기해(1779, 정종 3)에 수어청(守禦廳)에 획급하였다가 을묘(1795, 정종 19)에 출진(出鎭)한 후에는 그대로 그 부(府)에 소속시켰고, 수원은 정사(1797, 정종 21)에 유수로 승격시킨 뒤에[丁巳陞留守後]⁶³⁾ 획급하였다】 (…)

(…) 松都, 江華並不收.松都丙辰劃付三面結錢依例上納事實.見收稅條. 水原, 廣州.劃給該府. 廣州.正宗己亥.劃給守禦廳.乙卯出鎭後.仍屬該府.水原.丁巳陞留守後劃給.(…)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3 결전(結錢), 收納式>

경제/재정

광주·수원의 대동(大同)은 본부(本府)에 획급한다는 내용.

(…) 광주·수원(廣州水原) 대동(大同)은 본부(本府)에 획급한다. 【광주는 숙종(肅宗) 을유(1705, 숙종 31)에 지사(知事 정2품의 관직) 민진후(閔鎭厚)의 주달(奏達)에 의하여 강도(江都 강화(江華)의 별칭)의 예(例)에 의거하여 군항(軍餉)에 획급하여 보충(補充)하였음. ○수원(水原)은 정종(正宗) 정사(1797, 정조 21)에 유수(留守 정2품의 외관직) 서유린(徐有隣)의 주달에 의하여 지방(支放)을 획급하여 보충하였음.】

(…) ○廣州, 水原大同劃給本府.廣州.肅宗乙酉.因知事閔鎭厚所奏.依江都例劃補軍餉.○水原.正宗丁巳.因留守徐有隣所奏劃補支放.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2 대동작공(大同作貢), 各道劃給>

경제/재정

함경도와 평안도를 제외한 육도(六道)의 군관포의 수효를 정리한 내용.

6도의 원액(元額)은 24,500명 【282명은 영종(永宗)·평신(平薪)·화성(華城)에 이속(移屬)하므로 지금은 수효[額]가 24,218명으로 되었으며 사실은 아래에 있음.】 경기(京畿) 2,000명 【영종(英宗) 무인(1758, 영조 34) 영종(永宗)을 방영(防營)으로 승격시킬 때에 27명을 해당하는 진(鎭)에 이속하였고, 을유(1765, 영조 41)에 파주(坡州)를 방영(防營)으로 승격시킬 때에 110명을 타도에 옮겨 정하였고, 정종(正宗) 무오(1798, 정조 22)에 시흥(始興)·안산(安山)·용인(龍仁), 과천(果川)·진위(振威) 5읍의 250명을 화성(華城)에 이속하였으므로 지금은 수효가 1,613명으로 되었음.】 호서(湖西) 4,000명 【정종(正宗) 갑인(1794, 정조 18)에 평신진(平薪鎭)의 전결(田結) 민호(民戶)⁶⁴⁾를 분적(分籍)할 때에 먼천(沔川)의 5명이

63) 정사(1797, 정종 21)에 유수로 승격시킨 뒤에[丁巳陞留守後] : ‘정사에 …… 뒤에[丁巳陞留守後]’가 어느 본에는 ‘陞留守後丁巳’로 되어 있음.

64) 민호(民戶) : ‘민호(民戶)’가 어느 본에는 ‘分戶’로 되어 있음.

간태(刊汰) 덜어 버리는 것)에 들어갔으며, 10명이 을유(1765, 순조 41)에 파주(坡州)로부터 옮겨 왔으므로 지금은 수효가 4,005명으로 되었음.】 호남(湖南) 6,000명 【15명이 을유년에 파주로부터 옮겨 왔으므로 지금은 수효가 6,015명으로 되었음.】 영남(嶺南) 7,000명 【40명이 을유년에 파주(坡州)로부터 옮겨 왔으므로 지금은 수효가 7,040명이 되었음.】 관동(關東) 2,000명 【15명이 을유년에 파주로부터 옮겨 왔으므로 지금은 수효가 2,015명으로 되었음.】 해서(海西) 3,500명. 【30명이 을유년에 파주로부터 옮겨 왔으므로 지금은 수효가 3,530명으로 되었음.】

六道元額二萬四千五百人. 【二百八十二人移屬永宗, 平薪, 華城. 今額爲二萬四千二百十八人. 事實在下.】 京畿二千人. 【英宗戊寅. 永宗陞作防營時. 二十七人移屬該鎮. 乙酉. 坡州陞作防營時. 一百十人移定他道. 正宗戊午. 始興, 安山, 龍仁, 果川, 振威五邑二百五十人移屬華城. 今額爲一千六百十三人.】 湖西四千人. 【正宗甲寅. 平薪鎮田結民戶分籍時. 沔川五人入於刊汰. 十人. 乙酉. 自坡州移來. 今額爲四千五人.】 湖南六千人. 【十五人. 乙酉. 自坡州移來. 今額爲六千十五人.】 嶺南七千人. 【四十人. 乙酉. 自坡州移來. 今額爲七千四十人.】 關東二千人. 【十五人. 乙酉. 自坡州移來. 今額爲二千十五人.】 海西三千五百人. 【三十人. 乙酉. 自坡州移來. 今額爲三千五百三十人.】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 3 군관포(軍官布),六道元額>

경제/재정

화성 부근 5읍의 포보(布保)를 화성에 소속시킨다는 내용.

정종(正宗) 무오(1798, 정조 22)에 특교로 인하여 **화성(華城) 부근 5읍** 【시흥(始興)·안산(安山)·용인(龍仁)·과천(果川)·진위(振威)】 에 있는 포보(布保)를 아울러 화성부에 소속시켜, 서울과 지방의 상납하는 수효는 균역청·병조로 하여금 반(半)으로 나누어 급대할 일로 정식하였다.

正宗戊午. 因特敎. 華城附近五邑 【始興, 安山, 龍仁, 果川, 振威.】 所在布保. 並屬華城府. 京, 外所納之數. 令均廳, 兵曹. 分半給代事. 定式.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 3 급대(給代), 華城附近五邑布保給代>

경제/재정

각도의 둔토(屯土)의 총액 및 화성과 장용영에의 이속 현황

〈둔총(屯總)〉 각도에 있는 둔전·답(屯田畓)의 구총(舊摠)은 7,446결 93부 8속 【청(廳)을 설치할 때에 절수(折受)한 원결(元結) 4,496결 30부 7속, 전후(前後)에 적몰한 전·답 1,559결 6부 4속, 유래(流來)·축언(築堰)한 것과 혹은 이래(移來)한 토지 1,391결 56부 7속】 이었는데, 중간에 총(摠)을 감(減)하여 3,966결 57부 2속으로 만들고 【각도를 합한 2,589결 53부 9속을 유래(流來)로 진탈(陳頌)함. ○ 남양(南陽) 11결 56부 8속(東)⁶⁵은 경신년에 덕적진(德積鎭)으로 이속(移屬)하고, 대토(代土)는 없음. (….) ○ **화성(華城)·안산(安山) 양읍 53결 64부 8속은 계축년에 화성으로 이속하고 대토는 없음.** ○ 공주·이천 등 15읍 1,245결 30부 7속은 무신년에 장용영(壯勇營)으로 이속하고 대토 263결 51부 8속이 있음. (….)】 시존(時存) 전(田)·답(畓)은 3,481결 36부 6속.

各道所在屯田, 畓. 舊摠七千四百四十六結九十三負八束. 【設廳時折受元結四千四百九十六結三十負七束. 前後籍沒田, 畓一千五百五十九結六負四束. 流來, 築堰或移來土地一千三百九十一結

65) 속(束) : ‘속(束)’ ‘이속(移屬)’ 아래에 어느 본에는 각각 ‘衍’이 있음.

五十六負七束.】 中間減捻爲三千九百六十六結五十七負二束.【各道合二千五百八十九結五十三負九束.流來陳頤.○南陽十一結五十六負八束.庚申.移屬德積鎮.代土無.○廣州二十五結八十一負八束.乙巳.移屬本府.代土無.○楊州, 呂州兩邑二十二結三十六負.丙午.移屬元陵位田.代土五十結來.○青坡十九負三束.丙午.以孝昌墓御路減下.代土無.○華城, 安山兩邑五十三結六十四負八束.癸丑.移屬華城.代土無.○公州, 伊川等十五邑一千二百四十五結三十負七束.戊申.移屬壯勇營.代土二百六十三結五十一負八束來.○長興十八結十三負九束.辛卯.以松田割付水營.代土無.】 時存田, 畝三千四百八十結三十六負六束.(…)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 4 양향정(糧餉廳), 屯土>

경제/재정

경기(京畿) 지역의 환총으로서 화성부의 규모를 언급한 부분

경기(京畿) 미·각곡(各穀) 517,499석. 【325,642석은 받은 유치하고 받은 분급하며, 191,360석은 다 분급하고, 497석은 개색함.】 (…)화성부 구관(華城府句管) 벼[租] 16,377석 【받은 유치하고 받은 분급함.】 ○ 겸제조(兼濟租) 1,600석 【다 분급함.】 ○ 교리(校吏 장교와 이례(吏隸))의 요미(料米) 2,008석 【다 분급함.】 ○ 합계 미·각곡 19,985석. 【16,377석은 받은 유치하고 받은 분급하며, 3,608석은 다 분급함.】

京畿米各穀五十一萬七千四百九十九石. 【三十二萬五千六百四十二石.半留半分.十九萬一千三百六十石.盡分.四百九十七石.改色.】 (…)華城府句管租一萬六千三百七十七石.【半留半分.】 ○ 兼濟租一千六百石.【盡分.】 ○ 校吏料米二千八石.【盡分.】 ○ 合.米各穀一萬九千九百八十五石.【一萬六千三百七十七石.半留半分.三千六百八石.盡分.】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 6 환총(還總), 京畿>

경제/재정

화성부(華城府)의 환총의 규모

화성부 미·각곡 48,266석. 【받은 유치하고 받은 분급하며, 모곡(耗穀)⁶⁶⁾은 없음.】

본부 구관(本府句管) 환향미(還餉米)·각곡 48,266석. 【받은 유치하고 받은 분급하며, 모곡은 없음.】

華城府米各穀四萬八千二百六十六石.【半留半分.無耗.】

本府句管還餉米各穀四萬八千二百六十六石.【半留半分.無耗.】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 6 환총(還總), 華城府>

경제/재정

광주부의 환총 가운데 화성부에서 담당하는 쌀의 규모

광주부(廣州府) (…)화성부 구관(華城府句管) 겸제조(兼濟租) 300석. 【다 분급함.】

[廣州府](…) 華城府句管兼濟租三百石.【盡分.】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 6 환총(還總), 廣州府>

경제/재정

경상도(慶尙道)의 환총 가운데 화성부가 담당하는 쌀의 규모.

66) 모곡(耗穀) : 환자(還子)를 받을 때에 곡식을 쌓아 둘 동안에 줄어질 것을 미리 짐작하여 매섬에 몇 되씩을 덧 붙여 받던 곡식.

사복시 구관(司僕寺句管) 미·각곡 2,029석. 【다 분급함.】

화성부 구관(華城府句管) 을축(1805, 순조 5)에 획부(劃付)한 우병영미(右兵營米) 10,000석.
【다 분급함.】

광주부 구관(廣州府句管) 정사(1797, 정조 21)에 획부한 화산(華山) 축성미(築城米) 5,000석. 【다 분급함.】

[慶尙道](…) 司僕寺句管米各穀二千二十九石. 【盡分.】

華城府句管 乙丑劃付右兵營米一萬石. 【盡分.】

廣州府句管 丁巳劃付華山築城米五千石. 【盡分.】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 6 환총(還總), 慶尙道>

경제/재정

전라도(全羅道)의 환총 가운데 화성부가 담당하는 쌀의 규모.

병조 구관(兵曹句管) 이획미(移劃米) 4,333석. 【반은 유치하고 반은 분급함.】

훈련도감 구관(訓鍊都監句管) 미 3,835석.⁶⁷⁾ 【반은 유치하고 반은 분급함.】

화성부 구관(華城府句管) 성역조미(城役條米) 3,658석 【다 분급함.】 ○ 호환미(互換米) 10,000석 【다 분급함.】 ○ 합계 미 13,658석. 【다 분급함.】

[全羅道](…) 兵曹句管移劃米四千三百三十三石. 【半留半分.】

訓鍊都監句管米三千八百三十五石. 【半留半分.】

華城府句管 城役條米三千六百五十八石. 【盡分.】 ○ 互換米一萬石. 【盡分.】 ○ 合.米一萬三千六百五十八石. 【盡分.】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 6 환총(還總), 全羅道>

경제/재정

평안도(平安道)의 환총 가운데 화성부가 담당하는 쌀의 규모.

형조·한성부 구관(刑曹漢城府句管) 미 5,881석. 【다 분급함.】

화성부 구관(華城府句管) 미 5,000석. 【다 분급함.】

광주부 구관(廣州府句管) 수어청(守禦廳)의 지방조미(支放條米) 3,839석 【다 분급함.】 ○ 성역조미(城役條米) 1,690석 【다 분급함.】 ○ 합계 미 5,529석. 【다 분급함.】

[平安道](…) 刑曹漢城府句管米五千八百八十一石. 【盡分.】

華城府句管 米五千石. 【盡分.】

廣州府句管 守禦廳支放條米三千八百三十九石. 【盡分.】 ○ 城役條米一千六百九十石. 【盡分.】 ○ 合.米五千五百二十九石. 【盡分.】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 6 환총(還總), 平安道>

경제/재정

일군색(一軍色)이 관정하는 장병의 급료 가운데 화성부에 이속되는 규모

연례 봉입(年例捧入) 이군색(二軍色)에서 정례적으로 넘겨오는 돈 6,000냥. 【영종 49년 기사(1773년)부터 시작하여 삼배 100동을 정례적으로 넘겨와서 지출의 소요에 중당케 하였고, 정종 10년 병오(1786년)에는 매필에 1냥 2전씩 대금으로 계산하여 넘겨오도록 규례를 정하였다.】 ○ 이군색에 대물로 지급하는 무명 1동 18필. 【정종 22년 무오(1798년)에 용인(龍

67) 3,835 : ‘3,835’가 어느 본에는 ‘3,833’으로 되어 있음.

仁) 등 4개 읍의 군보를 화성부(華城府)로 이속시키고 이군색에서 대물을 지급케 하였다.】(…)

춘추 양기[春秋兩等] ○ 금군의 장교와 별군직(別軍職) 복마군(卜馬軍)의 마초(馬草) 값과 호련대(扈輦隊)의 보포(保布)와 장교의 피복대와 궁술고시(弓術考試) 지대(紙代), 관리의 포핼(褒貶)할 때에 정례로 지급하는 것, 장관(長官)이 시무(視務)할 때에 소용되는 등화비(燈火費)와 땔나무 값은 73동(同) 【겸사금군(兼仕禁軍)의 마초(馬草) 값 5동도 함께 들어 있다】 1년 합계 146동이다. 【정종 19년 을묘(1795년)에 겸사금군(兼仕禁軍)의 마초(馬草) 값 중에서 매년 10동의 지출을 보류(保留)하여 갑주(甲冑) 수리비로 썼는데, 22년 무오(1798년)에 화성(華城) 부근에 있는 5개 읍의 군보(軍保)를 화성으로 이속(移屬)시킨 뒤로는 감소되는 대물(代物)을 이군색에서 지급하고 본색(本色)의 보류한 무명 대가[代錢] 1,000냥을 이군색으로 넘겨 보내어 대물지급의 소요액을 보충케 하였다.】

年例捧入○二軍色定式移來錢六千兩. 【英宗癸巳爲始. 布一百同. 定式移來以爲支放之需. 正宗丙午. 以每疋一兩二錢代錢移來事. 定式.】 ○二軍色給代木一同十八疋. 【正宗戊午. 龍仁等四邑軍保移屬華城府. 自二軍色給代.】 (…)

春秋兩等○禁軍將校, 別軍職卜馬軍馬草價. 扈輦隊保布. 將校衣資. 試射時紙價. 褒貶時例下. 坐起時點火柴木價七十三同. 【兼仕禁軍馬草價五同並入.】 一年合一百四十六同. 【正宗乙卯. 兼仕禁軍馬草價每年十同除留. 以爲甲冑修補之資. 戊午. 華城附近五邑軍保移屬該府後. 所減之代. 自二軍色給代. 而本色除留木代錢一千兩. 移送二軍色. 以補給代之需.】 (…)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 2 병조(兵曹), 一軍色>

경제/재정

이군색(二軍色)이 관장하는 기병과 보병의 보포 가운데 화성부에 이속되는 규모.

각 항목의 급대[各項給代] 개성부(開城府)에서 수납(收納)하는 김천(金川)의 기병과 보병[騎步]의 급대전(給代錢) 114냥 【정종 20년 병진(1796년)에 김천의 대남면(大南面)과 소남면(小南面)을 개성부에 이속(移屬)시킨 뒤로 2개 면에 소재한 기병과 보병의 납포(納布)는 개성부에서 본조에 대액을 지급하게 되었다】 일군색에서 넘겨온 돈[移來錢]⁶⁸⁾ 1,000냥 【정종 22년 무오(1798년)에 시흥(始興) 등 5개 읍이 화성부(華城府)에 이속된 뒤에 5개 읍의 군으로부터 납포(納布)하는 대액을 일군색의 겸사금군(兼仕禁軍)의 봉급과 마량(馬糧)의 대가로 본색(本色)에 넘겨 보내게 되었다】 평안도의 소미모작전(小米耗作錢)⁶⁹⁾이 1,700냥 【정종 22년 무오(1798년)에 시흥 등 5개 읍이 화성으로 이속된 뒤에 5개 읍의 군(軍)으로부터 납포하는 대액(代額)은 정종 6년 임인(1782년)에 사둔 평안도의 소미모작전(小米耗作錢) 봉부동(封不動) 조에서 1,700냥을 빼내어 쓰게 한 것이다】 합계 2,814냥.(…)

매년 1차 지출[每年一下] ○ 혜경궁(惠慶宮)⁷⁰⁾ 탄신(誕辰) 때의 진헌(進獻) 【무명 6동·돈 1,000냥, 정종 8년 갑진(1784년)에 규례로 정하였다】 (…) 장녕전(長寧殿)⁷¹⁾ 향실(香室) 수복(守僕)의 피복대, 역서(曆書)의 용지, 원역의 세찬(歲饌), 5절(節)⁷²⁾의 개화(改火),⁷³⁾ 기

68) 넘겨온 돈[移來錢] : ‘넘겨온 돈[移來錢]’이 어느 본에는 ‘給代錢’으로 되어 있음.

69) 소미모작전(小米耗作錢) : 소미는 좁쌀. 밭의 세를 받을 때 소미(小米)가 모자라면 돈을 대신 치르는 일.

70) 혜경궁(惠慶宮) : 장조(莊祖)의 비(妃)인 홍씨(洪氏)가 경의황후(敬懿皇后)로 추숭(追崇)되기 전의 궁호(宮號).

71) 장녕전(長寧殿) : 강화(江華)에 있으니 숙종(肅宗)·영조(英祖)의 어진(御眞)을 봉안(奉安)하였음.

72) 5절(五節) : 입춘(立春)·입하(立夏)·늦여름의 토왕절(土旺節)·입추(立秋)·입동(立冬) 등 5절후.

병이 괴동(過冬)할 집우리[藁于里], 문신(文臣)의 매월 궁술고시(弓術考試)를 위한 조궁(調弓), 각 계[掌]의 월동할 탄가(炭價) 등 잡비, 각 가지로 지급할 대액 【정종 22년 무오(1798년)에 시흥(始興) 등 5개 읍이 화성부(華城府)에 이속된 뒤에 5개 읍의 군포(軍布)와 신포(身布)의 대액을 군역청과 반씩 나누어 대물을 지급한다. 일군색은 돈 136냥, 마색(馬色)은 648냥, 사복시(司僕寺)는 42냥, 상의원(尙衣院)⁷⁴⁾은 90냥, 장악원(掌樂院)⁷⁵⁾은 38냥, 내원(內苑)은 42냥, 장봉진(長峰鎭) 6냥이다】 합계 무명 64동 25필 영·돈 16,630냥 영. (…)

各項給代○開城府納金川騎, 步兵給代錢一百十四兩. 【正宗丙辰. 金川大, 小南面移屬松都後. 兩面所在騎, 步兵納布. 自松都給代于本曹.】 一軍色移來錢一千兩. 【正宗戊午. 始興等五邑移屬華城後. 五邑軍納布之代. 以一軍色兼仕禁軍祿馬草價移送本色.】 關西小米耗作錢一千七百兩. 【正宗戊午. 始興等五邑移屬華城後. 五邑軍納布之代. 以壬寅買置關西小米耗作錢封不動條中除出一千七百兩. 付之行用條.】 合二千八百十四兩. (…)

每年一下○惠慶宮誕辰進獻. 【木六同, 錢一千兩. 正宗甲辰. 定式.】 (…) 長寧殿香室守僕衣資. 曆書紙地. 員役歲饌. 五節改火. 騎兵過冬藁于里. 文臣朔試射調弓. 各色過冬炭價等雜費. 各樣給代. 【正宗戊午. 始興等五邑移屬華城後. 五邑軍, 身布之代. 與均廳分半給代. 一軍色錢一百三十六兩. 馬色六百四十八兩. 司僕四十二兩. 尙方九十兩. 樂院三十八兩. 內苑四十二兩. 長峯鎭六兩.】 合. 木六十四同二十五疋零, 錢一萬六千六百三十兩零. (…)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 2 병조(兵曹), 二軍色>

경제/재정

도안청(都案廳)에서 관장하는 별기병(別騎兵)의 보포(保布) 가운데 화성부에 이속되는 규모.

〈응하(應下)〉 매월 지출[逐朔上下] ○ 정례로 무명 11필, 12개월의 합계 무명 2동 32필. 4분기 지출 [四等上下] ○ 원역 등의 문방구대[筆墨債]로 무명 12필, 1년의 합계 무명 48필.

2기 지출 [兩等上下] ○ 제향군계(祭享軍契) 【종묘·사직 이하 여러 곳의 제향(祭享)과 대·소(大小)의 과장(科場) 등 각종의 응역군(應役軍)에게 일률로 실시한다.】 원공가(元貢價) 무명 10동·돈 1,000냥이다. 【원래의 수는 40동인데 2기로 나누고, 무명과 돈을 반반씩으로 한다. ○ 국초(國初)에는 경기병(京騎兵)을 5부(部)에 소속시켜 병방(兵房)의 서원(書員)이 이 사무를 담당하게 하고, 도안청(都案廳)에서는 고용임금만 지급하게 했는데, 영종 14년 무오(1738년)에 경기병을 폐지하고 이를 도안청에 소속시켜 원역이 군액 세우는 것을 담당하여 고용 임금(雇價)을 지급하도록 실시하였다. 영종 26년 경오(1750년)에 새로 공인(貢人)을 모집하여 군계(軍契)를 조직하고 1년의 복부 임금으로 무명의 액수를 결정 지급하게 하고, 또 영내(營內)에 머무는 군사[旅師] 18명 및 주간은 나가고 야간만 번을 드는 군보군(軍堡軍) 20명, 전루군 6명, 순청군 6명, 합계 50명에게 획급(劃給)하여 역(役)에 응하게 하였다. ○ 영내에 머무는 군사 18명은 문희묘(文禧廟)·화성부(華城府)·훈련원(訓練院)·규장각(奎章閣) 등 여러 곳[諸處]에 이속시키며, 군보군 20명은 금상 ‘순조’ 5년 을축(1805

73) 개화(改火) : 불을 새롭게 하는 뜻으로 대궐 안에서 나무를 서로 비비어 신화(新火)를 내어 구화(舊火)를 고치는 의식. 병조에서 춘·하·추·동의 4절과 늦여름의 토왕절에 1년에 5번 불을 만들었음.

74) 상의원(尙衣院) : 국왕의 의대(衣櫛)를 진공(進供)하고 궐내(闕內)의 재물과 보물의 간수를 맡아보던 관아.

75) 장악원(掌樂院) : ‘장악원(掌樂院)’이 어느 본에는 ‘掌樂院’으로 되어 있음.

년)에 3군문의 대년군(待年軍)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가 바로 철폐(撤廢)하고, 현재 획급하는 것은 순청(巡廳)의 전루군(傳漏軍) 12명뿐이다.】 원공액(元貢額)에서 부족되는 군의 고용 임금 돈 1,345냥 영. 【원 수가 2,690냥 4전인데 2기로 나누고 윤달이 들었으면 220냥 4전을 증가 지출(增加支出)한다. ○ 영내에 머무는 군사는 벌써[既] 다른 곳으로 이속시켰고, 군보군(軍堡軍)도 철폐된 뒤에는 획급하는 군병이 12명뿐이니 처음에 획급한 50명의 수에 비하여 38명이 부족하게 되었는데, 금상 ‘순조’ 5년 을축(1805년)에 공인들의 진소(陳訴)에 의하여 1년을 통산하여 매명당 매일 고용임금을 2전씩 마련하였다.】 정적(政績)을 고사할 때의 원역의 식물(食物) 및 방직(房直)의 청의대(靑衣代) 무명 4필 영, 1년 합계 무명 20동 8필 영·돈이 4,690냥 영.

逐朔上下○恒式木十一疋.十二朔合木二同三十二疋.

四等上下○員役等筆, 墨債木十二疋.一年合木四十八疋.

兩等上下○祭享軍契 【宗社以下諸處祭享.大, 小科場各樣應役軍.一體舉行.】 元貢價木十同, 錢一千兩. 【元數四十同.分兩等木, 錢參半.○國初.以京騎兵屬之五部.兵房書員.使之舉行.而自都案廳計給雇價矣.英宗戊午.革罷京騎兵.屬之都案廳.員役責立軍額.劃給雇價.使之舉行.庚午.新募貢人.作爲軍契.一年役價木定數上下.而又劃給留營旅師十八名及晝出夜直軍堡軍二十名.傳漏軍六名.巡廳軍六名.合五十名.使之應役.○留營旅師十八名移屬文禧廟, 華城府, 訓練院, 奎章閣等諸處.軍堡軍二十名.當宁乙丑.以三軍門待年軍充定.而仍爲撤罷.見今劃給.只有巡廳傳漏軍十二名.】 元貢不足軍雇價錢一千三百四十五兩零.【元數二千六百九十兩四錢.分兩等.有閏則二百二十兩四錢加上下.○留營旅師既已分屬他處.軍堡軍又爲撤羅之後.劃給軍只有十二名.較諸當初劃給五十名數.不足爲三十八名矣.當宁乙丑.因貢人呈訴.通計一年每名每日雇價二錢.磨鍊.】 褒貶時員役食物及房直靑衣債木四疋零.一年合.木二十同八疋零, 錢四千六百九十兩零.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 2 병조(兵曹), 都案廳>

경제/재정

함경도와 평안도를 제외한 6도의 포보 가운데 화성에 이속되는 규모.

육도 포보(六道砲保) 모두 37,194명(名) 【경기 2,746명·황해도 8,710명·공충도 6,672명·전라도 8,773명·경상도 7,040명·강원도 3,253명. 정종 22년 무오(1798년)에 시흥(始興)·과천(果川)·용인(龍仁)·안산(安山)·진위(振威)의 5개 읍의 포보 324명⁷⁶⁾을 화성(華城)에 이속하여 군역청에서 대역을 지급한다.】 매 명에 대하여 삼배 2필씩을 징수한다. (…)

[]

【財用】六道砲保.共三萬七千一百九十四名.【京畿二千七百四十六名.海西八千七百十名.湖西六千六百七十二名.湖南八千七百七十三名.嶺南七千四十名.關東三千二百五十三名.正宗戊午.始興, 果川, 龍仁, 安山, 振威五邑砲保三百二十四名移屬華城.自均廳給代.】 每名收布二疋.(…)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 2 훈련도감(訓練都監), 財用>

경제/재정

금위영의 설치 연혁으로 경기 5개읍 정군의 군보 가운데 화성에 이속한 규모

(…) 정종 22년 무오(1798년)에 경기 5개 읍 【시흥(始興)·과천(果川)·안산(安山)·용인(龍仁)·진위(振威)】 의 정군(正軍) 군보(軍保)를 화성(華城)으로 이속한 뒤에 매초에 정군 3명·자보 3명을 덜어 내고, 낮추어 관보(官保)로 만들어 그 대신을 충당하였으며 【1초는

76) 324 : ‘324’가 어느 본에는 ‘344’로 되어 있음.

지금은 124명으로 함】 그 군병이 경기·공충(公忠)⁷⁷⁾·전라·경상·황해·강원의 6개 도에 나누어져 있어, 1년에 6번 【번은 해당되는 달이 있으므로 6번을 6당(當)이라고도 한다】으로 부와 사의 순차 【지금은 비록 25번으로 되었지만 13번의 옛 명칭이 아직까지 남아 있으므로 매번을 모두 2개 번으로 만들고, 제13번에만 1개 번임】에 따라 소집 【당번을 소집하는 통고문은 3개월 앞서서 별무사로 하여금 가지고 가게 하는데 마초료를 지급[給馬草料]⁷⁸⁾한다. 감영(監營)과 병영(兵營)의 통고문을 모두 감영으로 전하면 감영에서 병영에 지시하고, 병사(兵使)는 도내의 겸과총(兼把摠)이 있는 전체 읍에 대하여 중간 검사를 실시한다. 병사가 사고가 있으면 이유를 국왕에 보고하고, 우후(虞侯)로 하여금 대행케 한다】하여 번을 들게 한다. 【매번에 5초씩인데 전체의 1개 사는 4년씩 간격을 두고 번을 들게 된다. 매초는 3기(旗), 매기는 3대(隊)인데, 매대에는 정군 10명이며, 기총(旗摠)이 있는 대는 정군 1명을 감하고, 기총이 그대로 대장을 겸임케 하고, 화병(火兵) 1명·복마군(卜馬軍) 1명이 있으며, 기에는 기총 1명, 대에는 대장 1명이 있으며, 또 천총표하군(千摠標下軍) 9명과 과총표하군 8명·인기수(認旗手) 1명·고수(鼓手) 1명·서기 1명·예비군 2명·마정(馬丁) 1명·능마아(能麼兒) 1명, 합계 637명. ○ 상번(上番)의 정지 : 숙종 21년 을해(1695년)에 흥년이 들어서 금위영과 어영청의 지방군은 윤회(輪回)로 번드는 것을 개정하여[定奪] 그 뒤에 전염병이 유행하거나 흥년이 든 해에는 왕의 특명, 또는 연품(筵稟)하여 번드는 것을 정지하였다. 정종 19년 을묘(1795년)에 경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호조가 연품하여 번드는 것을 정지하고, 군포(軍布)를 징수하여 사용하였다. 그런데 번이 정지[停番]⁷⁹⁾될 때에 건양문(建陽門)·동룡문(銅龍門) : 창경궁(昌慶宮) 안의 문·서영(西營)의 입직(入直)은 훈련도감의 군이 정례에 의하여 번을 들게[立番]⁸⁰⁾되므로, 여수전(旅需錢)⁸¹⁾으로 매명에 1냥씩을 본영에서 1개월 걸러 지급한다.】

(…) 正宗戊午.京畿五邑 【始興, 果川, 安山, 龍仁, 振威.】 正軍軍保移屬華城後.每哨除出正軍三名, 資保三名.降作官保以充其代. 【一哨.今爲一百二十四名.】 其軍分在京畿, 公忠, 全羅, 慶尙, 黃海, 江原六道.一年六番. 【番有當朔.故六番.謂之六當.】 從部, 司次第 【今雖爲二十五番而十三番之舊名尙在.故每番皆爲二番.至第十三番獨一番.】 徵召. 【徵番關文.前期三朔.使別武士賣去給馬草料.監, 兵營兩關並傳于監營.監營知委兵營.兵使中點于道內兼把摠邑.兵使有故.狀聞後虞候替行.】 上番. 【每番五哨.全一司間四年上番.每哨三旗.每旗三隊.每隊正軍十名.有旗摠之隊減正軍一名使旗摠仍兼隊長.火兵一名.卜馬軍一名.旗有摠一名.隊有長一名.又有千摠標下軍九名, 把摠標下軍八名, 認旗手一名, 鼓手一名, 書記一名, 餘軍二名, 馬丁一名, 能麼兒一名.共六百三十七名.○停番.肅宗乙亥.歲饑.禁, 御鄉軍輪回上番事.定奪.其後.癘疫饑荒之歲.或特教或筵稟停番.正宗乙卯.因經用不敷.自戶曹筵稟停番.收布取用.而停番之時.建陽門, 銅龍門, 西營入直.例以訓局軍立番.旅需錢每名一兩.自本營間朔支下.】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 3 금위영(禁衛營), 設置沿革>

경제/재정

어영청의 설치 연혁으로 1794년(정조 18) 어영청의 신포와 자보의 삼배를 징수하여 화성 축

77) 공충(公忠) : ‘공충(公忠)’이 어느 본에는 ‘忠淸’으로 되어 있음.

78) 마초료를 지급[給馬草料] : ‘마초료를 지급[給馬草料]’의 ‘給馬’가 어느 본에는 ‘別給’으로 되어 있고, ‘料’가 어느 본에는 ‘糧’으로 되어 있음.

79) 번이 정지[停番] : ‘번을 정지[停番]’부터 ‘동룡문(銅龍門)’의 ‘銅’까지가 어느 본에는 빠져 있음.

80) 번을 들게[立番] : ‘번을 들게[立番]’가 어느 본에는 ‘入直’으로 되어 있음.

81) 여수전(旅需錢) : ‘여수전(旅需錢) …… 1냥(兩)’이 어느 본에는 빠져 있음.

조에 사용하였다는 내용.

(…) ○ 정종 18년 갑인에 1번 5개 초 가운데서 135명을 번에서 줄이고, 15년을 기한하고 그 당년의 신포(身布) 및 자보(資保)의 삼배를 징수하여 화성(華城)의 성을 축조하는 데 사용되는 물력을 보충하였다. 그러므로 요즘은 매번에 517명씩 올라온다.】

(…) ○ 正宗甲寅. 每一番五哨中一百三十五名除番. 限十五年收其當年身布及資保布. 以補華城城役物力. 故今則每番五百十七名上來.】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 3 어영청(御營廳), 設置沿革>

경제/재정

수원(水原)의 전답을 다시 측량했다는 내용.

[영조] ○ 36년 경진에 수원(水原)의 전답을 다시 측량하였다. (…)

이금익(李肯翊),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별집 제11권 정교전고(政敎典故), 전제(田制)>

경제/재정

수원부 등의 유수부는 전세를 모두 본부(本府)에 획부(劃付)한다는 내용.

(…) 강화부·광주부·개성부·수원부는 전세를 모두 본부(本府)에 획부(劃付) 나누어 붙이는 것한다. 【광주(廣州)는 군향미(軍餉米)를 첨작하고, 3도(三都 : 강화·개성·수원)는 본부(本府)의 지방(支放)에 사용한다. ○ 개성부는 병진(1676, 숙종 2)에 금천(金川) 대·소남면(大小南面)과 장단(長湍) 송서면(松西面)의 사천(沙川) 서쪽의 전세를 획부케 하여 작전(作錢)해서 상납케 하였다. 아래 작전조(作錢條)에 보임.】 (…)

(…) 江華府, 廣州府, 開城府, 水原府. 田稅并劃付本府. 廣州添作軍餉. 三都用於本府支放. ○ 開城府. 丙辰. 劃付金川大小南面, 長湍松西面之沙川以西田稅. 作錢上納. 見下作錢條.(…)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2 수세, 各道收稅>

경제/재정

수원 지역의 면세전의 규모.

〈총수(總數)〉 8도 4도의 각양 면세하는 전답 【해마다 영축(盈縮)되는 것이 같지 아니하여 한 해로써 표준할 수 없으므로 지금 정묘년 총(摠)을 기록하여 후고(後考)를 삼음 204,635결. (…) 수원부(水原府)에 1,836결(…)】

각 묘·능·원·묘의 위[各廟陵園墓位]⁸²⁾ 2,018결 91부 3속. 【(…) 수원부에 6결 45부 1속(…)】 (…)⁸³⁾ 21결 63부 【(…) 수원부에 1결 94부 6속임.】 (…)⁸⁴⁾ 52결 63부 1속 【경기에 48결 12부 6속, 수원부에 4결 50부 5속임.】 (…)

각 궁방(各宮房) 면세 37,927결 60부 1속 그 가운데에 유토(有土) 11,380결 47부 【(…) 수원부에 72결 22부 2속(…)】 (…)

○ (…)⁸⁵⁾ 3,703결 84부 2속, 그 안에 유토 2,068결 82부 8속 【(…) 수원부에 21결 64부 5속(…)】 (…)⁸⁶⁾ 1,873결 74부 2속, 그 안에 유토 478결 88부

82) 묘의 위[各廟陵園墓位] : ‘묘의 위[各廟陵園墓位]’ 다음에 어느 본에는 ‘田’자가 있음.

83) 승릉(崇陵) : 현종(顯宗)과 그의 비(妃) 명성 왕후(明聖王后) 김(金)씨의 능.

84) 건릉(健陵) : 정조(正祖)와 그의 후(后) 효의 왕후(孝懿王后) 김씨의 능.

85) 수진궁(壽進宮) : 세상에서 전하기를 본래 제안대군(齊安大君)의 궁이라 하는데 봉작(封爵)을 못하고 출합(出閤)도 못한 대군(大君)·왕자(王子)·공주(公主)·옹주(翁主)에게 제사지내는 곳.

86) 옥상궁(毓祥宮) : 영조(英祖)의 사친(私親) 숙빈(淑嬪) 최(崔)씨의 묘(廟)가 있는 곳.

1속 **【(…)수원부에 3결 74부.】** (…)선희궁(宣禧宮)⁸⁷⁾은 3,403결 59부 4속, 그 안에 유토 940결 13부 7속 **【(…)수원부에 15결 76부 6속임.】** (…)경순군주방(慶順郡主房)⁸⁸⁾ 51결 4부, 그 안에 유토 47결 4부 **【(…)수원부에 8결 34부 9속임.】** (…)경평군방(慶平君房)⁸⁹⁾ 97결 62부 9속, 그 안에 유토 62결 62부 9속 **【(…)수원부에 2결 36부(…)】** (…)숙휘공주방(淑徽公主房)⁹⁰⁾ 유토 145결 17부. **【(…)수원부에 3결 28부 2속임.】** (…)명안공주방(明安公主房)⁹¹⁾ 176결 96부 4속, 그 안에 유토 161결 56부 2속 **【(…)수원부에 5결(…)】** 화령옹주방(和寧翁主房)⁹²⁾ 1,246결 49부 3속, 그 안에 유토 95결 27부 7속 **【(…)수원부에 12결 8부임.】**

각 아문(各衙門)의 면세 46,104결 97부 9속. **【(…)수원부에 389결 95부 4속(…)】** (…)균역청(均役廳)⁹³⁾ 23,007결 44부 9속. **【(…)수원부에 66결 3부 8속임.】** 훈련도감(訓練都監) 3,330결 30부 1속. **【(…)수원부에 41결 40부 5속, (…)]** (…)사복시(司僕寺) 11,687결 7부. **【수원부에 282결 51부 1속】** (…)

각양 잡위(各樣雜位) 118,584결. **【(…)수원부에 1,367결 (…)]**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2 면세(免稅), 八道四都免稅田畝結數>

경제/재정

1790년(정조 14) 특지로 수원(水原)의 해세는 본부(本府)에 부속시켰다는 내용.

(…) 8도(八道)·양도(兩都 개성(開城)·강화(江華)) 광주는 없음. ○ 수원은 정조 경술(1790, 정조 14)에 특지(特旨)로 본부(本府)에 부속시켰다. (…)

(…) 八道, 兩都 廣州. 無. ○ 水原. 正統庚戌. 因特敎屬之本府. (…)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4 해세, 總例>

경제/재정

화성이 관리하는 숙성둔을 평택에 환속하는 문제에 대한 조두순의 처리 방식

경복궁(景福宮)의 역소(役所)를 살피는 일로 여러 대신들이 모두 모였을 때, 내가 비록 유수였으나 원임인 까닭에 함께 참석을 하였다. 유관(游觀) 김공(金公)이 화성(華城)의 일을 알아보고 먼저 발언을 하였는데, 내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영의정인 조공(趙公 조두순(趙斗淳))이 주리(籌吏)를 불러 말하기를, “회계(回啓)를 아직 안에 들이지 않았느냐?” 하였다. 이에 내가 깜짝 놀라 말하기를, “무슨 일을 말씀하시오?” 하고는, 계초(啓草)를 가져다가 살펴보니, 충청도 관찰사의 장청(狀請)으로 인하여 화성이 관리하는 숙성둔을 평택(平澤)에 환속(還屬)하는 일이었는데, 그 말미에 “평택에서 돌려 달라고 추심(推尋)하는 것은 사리로 보아 마땅한 일이니, 영속(永屬)하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씌어 있었다. 이에 내가 조공에게 말하기를, “일이 수원에 관계된 것인 만큼 함하(閣下)께서 어찌 곧바로 단정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 것 중에 어찌서 해영(該營)에 관문(關文)을 보내 소견을 물어보

87) 선희궁(宣禧宮) : 장조(莊祖)의 사친(私親) 영빈(暎嬪) 이씨의 묘(廟)가 있는 곳.

88) 경순군주방(慶順郡主房) : 태조의 여(女)의 집.

89) 경평군방(慶平君房) : 선조의 자인 경평군의 집.

90) 숙휘공주방(淑徽公主房) : 효종의 여인 숙휘 공주의 집.

91) 명안공주방(明安公主房) : 현종의 여인 명안 공주의 집.

92) 화령옹주방(和寧翁主房) : 영조의 여 화령 옹주의 집.

93) 균역청(均役廳) : 군정(軍丁)·노비(奴婢) 등의 납세의 반액을 면제하되 그의 부족액을 어업세(漁業稅)·염세(鹽稅)·선박세(船舶稅)·은결(隱結)의 결전(結錢)으로 보충하는 사무를 관장하는 관아. 영조 27년에 창설하여 동 29년에 설희청과 병합하였음.

왔다는 등의 얘기가 없습니까?” 하니, 여러 재상들이 다들 내 말을 옳게 여겼다. 그 뒤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관문을 보내 소견을 물어보았다[關問]’라는 구절을 더 써넣었으되, ‘영속시키는 것이 옳다’는 말은 예전과 같았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이미 관문을 하였으면 어찌 영속이라는 말을 할 수 있으며, 이미 영속을 하였다면 어찌 관문을 하는 것입니까?” 하였는데, 이 상소로 인하여 유수에서 체직되었고 심암(心庵 조두순(趙斗淳))도 상직(相職)에서 해임되었으니, 이는 곧 느닷없이 일어난 풍파인 셈이었다. 그러나 그 뒤에 심암은 자신이 잘못된 것이라고 사과해 마지않았으니, 그의 허심탄회함을 알 수 있다. 이유원(李裕元), <임하필기(林下筆記)>, 제26권 춘명일사(春明逸史), 숙성둔(宿城屯)에 대한 논변>

경제/재정

지규식이 심주백(沈柱伯)의 숯 세금에 관한 일로 궁내부 훈령을 인아(仁兒)를 시켜 수원 경기관찰부로 보냈다는 내용.

임술. 맑음. 심주백(沈柱伯)의 숯 세금에 관한 일로 궁내부 훈령을 인아(仁兒)를 시켜 수원 경기관찰부로 특별히 보냈다. 겹하여 용인 박 수문장 집에 편지를 썼다.

壬戌 晴 以沈柱伯炭稅事 宮內府訓令 使仁兒專送水原京畿觀察府 兼修書於龍仁朴守門將家
지규식(池圭植), <하재일기(荷齋日記)五>, 戊戌年(1898) 閏三月九日>

(2) 교통

경제/교통

조엄이 통신사로 다녀오면서 무극역에 묵었는데 지응을 담당한 수원과 진위의 지공이 형편 없었다는 내용.

맑음. 음성(陰城)에서 점심을 먹고 무극역(無極驛)에서 잤다.

일찍 출발하여 음성에 들어가니, 고을 원이 들어와 뵈었다. 저녁에 무극역에 이르니 지방관 음죽 현감 신재문(申載文)이 들어와 뵈었다. 이 참(站)의 지응(支應)은 수원(水原) 진위(振威)가 맡았는데 전혀 말이 아니어서 지공을 거르고 노숙하는 인마가 많았으니, 이 또한 경기도백이 늦게 알린 소치였다. 어스름에 집아이 진관(鎭寬)이 와서 뵈었다. (…)

晴.中火陰城.宿無極驛.○早發入陰城.主倅入謁.夕到無極驛.地方官陰竹縣監申載文入見.本站支應.水原振威當之.而全不成樣.人馬多闕供而露處者.此亦畿伯知委稽緩之致也.初昏家兒鎭寬來謁.(…)

조엄(趙巖), <해사일기(海槎日記) 5, 初四日甲寅>

경제/교통

조창에 세미를 수송하는데 성화주략의 사례처럼 유형거를 만들어 사용할 것을 제안한 내용.

조운선(漕運船)에 짐을 실어 보내는 일은 법조문을 상세히 검토하여 각별히 준수하고 범하지 말아야 한다. (…)⁹⁴⁾ 연해의 고을은 조선(漕船)이나 임선(賃船)⁹⁴⁾을 막론하고 그 세미 수송이 어렵지 않은데, 내지에서 조창으로 운반하는 것은 백성들이 등에 지거나 어깨에 메거나 하고 수백 리 밖에까지 운반해야 하니 그 고통이 심하다. 감사는 마땅히 여러 고을에 신칙하여 길을 평평하게 닦아서 조창에 당도록 내고 유형거(游衡車)⁹⁵⁾ **【선조(先朝 정조) 때 화성(華城)의 역사에서 이 수레를 제작하였는데, 그 제도가 <성화주략(城華籌略)>⁹⁶⁾에 보인다.】**를 만들어 한 고을에 각각 40~50대씩을 비치시키면 한 대에 쌀 4~5석을 실을 수 있을 뿐더러 인부 두 사람이 운반하고, 또 큰 것은 소 한 마리가 끌게 된다. 오직 고개 밑에 이르렀을 때만이 잠깐 등짐으로 운반하면 힘을 크게 덜게 되니, 조운의 담당자는 마땅히 강구할 일이다. 이것은 한 고을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웃 고을에서 길을 닦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그에 대한 것을 우선 생략한다.

其裝發漕轉.竝須詳檢法條.恪守毋犯.(…)沿海之邑.無論漕船賃船.其輸米不難.而內地之輸於漕倉者.民負之擔之.轉輸於數百里之外.其艱苦甚矣.監司宜飭諸邑.治道如砥.以抵于漕倉.乃作游衡車.一邑各置四五十輛.【先朝華城之役.造此車.其制見城華籌略.】一輛可載米四五石.二夫運之.其大者一牛曳之.唯至嶺底.暫且輦⁹⁷⁾運.省力甚大.漕家之所宜講也.此非一縣所能獨行.【鄰縣不治道.】道⁹⁸⁾今姑略之.

정약용(丁若鏞), <목민심서(牧民心書), 호전(戶典) 6조 제2조 세법(稅法)>

94) 임선(賃船) : 운임을 받고 세곡을 수송하는 사선(私船)을 가리킨다.

95) 유형거(游衡車) : 바퀴가 두 개 달리고 지금의 달구지와 비슷한 수레의 일종이다.

96) 성화주략(城華籌略) : <어제성화주략(御製城華籌略)>을 가리키는데 조선조 정조 때 편찬된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 속에 실려 있다. 《화성성역의궤》는 정조 때 쌓은 화성(華城 수원성(水原城))에 대한 축성의 시말(始末)과 제도·의식 등이 기록된 책이다.

97)輦 : 輦

98)道 : 道衍字

경제/교통

대로, 중로, 소로의 통로 및 경기 영화도에 소속된 역을 기술한 내용.

(…) 대로는 경기에 12역이며, 중로는 경기에 9역, 공충도에 24역, 전라도에 4역, 경상도(慶尙道)에 5역, 강원도에 6역, 황해도에 11⁹⁹⁾역, 평안도에 13역, 함경도에 37역이며, 기타는 모두 소역(小驛)에 속한다. 공충과 전라 우도는 금천(衿川)·수원의 통로를 경유하고, 공충과 경상 좌도는 광주(廣州)·이천의 통로를 경유하고, 전라 좌도와 경상 우도는 과천(果川)의 통로를 경유한다.

경기(京畿) 영화도(迎華道) 【본디 양재(良才).】 속역 11 【낙생(樂生)·구흥(駒興)·금령(金嶺)·좌찬(佐贊)·분행(分行)·무극(無極)·과천읍참(果川邑站)·수원본참(水原本站)·해문(海門)·가천(加川)·강북(康福).】 (…)

(…) 大路.京畿十二驛.中路.京畿九驛.公忠道二十四驛.全羅道四驛.慶尙道五驛.江原道六驛.黃海道十一驛.平安道十三驛.咸鏡道三十七驛.其餘並屬小驛.公忠, 全羅右道由衿川, 水原路.公忠, 慶尙左道由廣州, 利川路.全羅左道, 慶尙右道由果川路.

京畿.迎華道 本良才. 屬驛十一.樂生, 駒興, 金嶺, 佐贊, 分行, 無極, 果川邑站, 水原本站, 海門, 加川, 康福. (…)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1 역체(驛遞), 各道屬驛>

99) 11 : '11'이 어느 본에는 '12'로 되어 있음.

(3) 농수산업

경제/농수산업

1730년(영조 6) 비변사에 제언사를 소속시키고 8도와 3도의 경우 관내의 제언에 대해 관리하도록 했다는 내용.

수리(水利)는 농공(農功)과 가장 관계가 있으니 곧 제언이 이것이다. 축설(蓄泄)하고 관개(灌溉)하여 그 이익이 매우 넓으니, 물길을 트고 독을 쌓는 일을 조금도 부족하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조(本朝)에서 특별히 제언사(堤堰司)를 설치하고 각도의 제언을 관리하게 하였다. 중간에 그 관제를 파하였다가, 현종 3년(1662)에 예조참판 조복양(趙復陽)이 건의하여 다시 설치하고, 삼공(三公)과 호조판서·진홍청 당상으로 하여금 제거(提舉 제조(提調))를 예겸(例兼)하게 하였다. 영종 경술(1730, 영조 6)에 비국(備局)에 예속시키고, 8도(道)·3도(都 광주(廣州)·수원(水原)·강화(江華)) 【개성부(開城府)는 없음】에서는 매년 그 관내 지방의 독[堤]·보마기[淤]·동마기[垆]·독[堤]¹⁰⁰⁾의 연무[延袤]¹⁰¹⁾ 명수(名數)를 적어 보고하고, 그 표내(標內)에 모경(冒耕)¹⁰²⁾하는 자를 금지하되, 범하는 자는 장(杖) 80으로 치죄하고, 이득은 관에 몰수한다. 춘추로 수축하되 비록 폐언(廢堰)이라도 계문(啓聞)하지 아니 하면 개간을 허하지 않았다.

水利最關農功. 堤堰是也. 蓄泄灌溉. 其利甚博. 而疏築之工不可少缺. 本朝. 另置堤堰司勾管各道堤堰. 中罷其官. 顯宗三年. 禮曹參判趙復陽建白. 復置. 使三公及戶曹判書, 賑恤廳堂上例兼提舉. 英宗庚戌. 隸之備局. 八道, 三都. 開城府. 無. 每歲籍其管內地方堤, 淤, 垆, 堤延袤名數以報. 禁其標內冒耕者. 犯者杖八十. 迫利沒官. 春秋修築. 雖廢堰非啓聞無得許墾.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5 제언(堤堰), 堤堰司>

경제/농수산업

수원(水原) 관내의 제언의 현황

수원(水原)은 독[堰] 24처, 그 안에 【폐지된 것이 7처.】 (…)

水原. 堰二十四處. 內 廢七處. (…)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5 제언(堤堰), 各道堰淤>

경제/농수산업

1798년(정조 22) 8월 나무 베는 것은 10월이후에 하는 것으로 규정하라고 화성유수에게 하유한 내용.

○ 8월. 화성 유수(華城留守)에게 하유하기를,

“공자께서는 ‘한 그루 나무를 베고 한 마리 짐승을 죽이는 것도 시기가 아닌 때에 하면 효도가 아니다.’ 는 가르침을 남기셨다. 지난번 벌레를 잡는 일을 처음으로 규정을 만들어 행하였었다. 벌레 잡는 일도 그런데 나무를 베는 일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맹자》에 이르기를, ‘때가 되면 도끼를 들고 산림으로 들어간다.’ 고 하였는데, 주자는 초목의 잎이 진 뒤라고 해석하였고, 공영달(孔穎達)은 왕제(王制)에서 해석하기를, ‘초목의 잎이

100) 독[堤] : ‘독[堤]’ 다음에 어느 본에는 ‘堰’이 있음.

101) 연무(延袤) : 땅의 넓이 또는 길이. 연(延)은 가로로서 동서(東西), 무(袤)는 세로로서 남북(南北)을 뜻함.

102) 모경(冒耕) : 금지된 구역에 농사를 짓는 것.

떨어진 뒤에 산림에 들어간다는 것은 10월을 말한다.’ 하였다. 지금부터 나무를 베는 것은 반드시 10월을 기다려서 하는 것으로 규정을 정하라.”

하였다.

<국조보감(國朝寶鑑), 제75권 정조조 7, 22년(무오, 1798)>

경제/농수산업

수원(水原)에서 재배되는 담배 홍초(紅草)

광주(廣州) 남문 밖 세촌면(細村面) 금광리(金光里) 김씨(金氏)의 밭에서 나는 담배[煙茶]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품질로 일컫는다. 그래서 면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모두 일컬어 ‘금광초’라 하였고, 지금은 그 지방에서 생산되는 것 모두가 그 이름을 빌려 쓴다. 호남의 상관초(上官草)는 금광초와 명성이 같은데, 상관면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진품이라고 한다. 본면은 전주(全州)와 임실(任實) 사이에 있다. 산골짜기 50리가 병마(兵馬)를 숨길 만한 곳 이어서 ‘만마동(萬馬洞)’이라 하였다. 그 골짜기 안의 밭에는 모두 오로지 담배만 심는다. 진안(鎭安)에서도 담배가 생산되는데 곧 그 여파(餘波)이다. 영남에는 신녕초(新寧草)가 있는데, 상관초와 비슷하지만 독이 있다. 수원(水原)의 홍초(紅草)는 금광초와 비슷하지만 품질이 못 미친다. 대체로 서쪽 것이 남쪽 것보다 낫다. 성천(成川)에는 담배밭이 강동(江東)·삼등(三登)의 경계까지 뻗어 있으니, 이곳에서 생산되는 것을 성천초(成川草)라 한다. 모두 강동과 삼등 지방에서 생산된 것이지만, 그 가늘게 썰어 색깔이 나는 것은 성천 것이 더 낫다.

이유원(李裕元), <임하필기(林下筆記), 제32권 순일편(旬一編), 금광초(金光草)>

(4) 건설

경제/건설

1793년(정조 17) 12월 정조가 유형원이 수원의 읍치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에 대해 감탄하는 내용.

○ 하교하기를,

“고 처사 유형원(柳馨遠)의 《반계수록(磻溪隨錄)》에 수원(水原)의 형편을 논한 곳이 있는데, 고을 소재지를 옮겨야 한다는 계책과 성을 쌓아야 한다는 책략은 마치 100년 전에 살면서 오늘날의 일을 환히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 책을 보고 그 말을 썼더라도 오히려 크나큰 감응이라고 할 것인데, 그 책을 보지 않았는데도 본 것과 같고 그 말을 듣지 않았는데도 이미 썼으니, 그 사람이 품은 생각은 실로 대단하였다. 지금 화성(華城)의 한 가지 일로 보면 나에게 있어서 그는 아침저녁으로 만나는 사람과 같다고 하겠다. 성균관 채주를 가증(加贈)하고, 그의 사손(嗣孫)을 방문한 후에 보고하라.”

하였다. 나중에 또 이조 참판을 가증하였다.

<국조보감(國朝寶鑑), 제74권 정조조 6, 17년(계축, 1793) 12월>

경제/건설

1807년(순조 7) 8월 지지대에 비석을 세우도록 명하였다는 내용.

○ 8월. 화성(華城) 연로(輦路)의 지지대(遲遲臺)에 비석을 세우도록 명하였는데, 승지 신순(申綯)의 말을 따른 것이었다.

<국조보감(國朝寶鑑), 제77권 순조조2, 7년(정묘, 1807)>

경제/건설

1794년(정조 18) 11월 전국적인 흉년 때문에 화성의 성역을 중단하라는 하교.

○ 11월. 화성(華城)의 성(城) 역사를 정지하도록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삼남과 경기 지방 백성이 한가을에 굶주림으로 쓰러지고, 서북의 변방 고을도 양곡을 대가 어렵다고 보고해왔다. 자전과 자궁의 어공조차도 정지한 판국에 성의 역사가 비록 중요하다고 한들 이것은 정지하면서 저것은 정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굶주리다 쓰러져서 나뒹구는 근심이 온 나라 안에 한창 급한 마당에 한 고을에는 건축 현장에서 힘쓰는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면, 처자식을 부양해야 할 저 쇠잔한 백성들이 ‘우리 임금은 어찌하여 성을 쌓는 데 쓰는 마음을 백성들에게 베풀지 않으며, 성을 쌓는 데 드는 재물을 백성들을 살리는 데로 옮기지 않는가.’ 라고 하지 않겠는가. 또 ‘구중 궁궐의 밝은 불빛이 가난한 백성들은 비추지 않고 단장한 누각과 성가퀴만 비춘다.’ 라고 하지 않겠는가. 내 어찌 감히 옛날 선왕께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시어 행차하는 길에 곡식을 밟지 못하게 했던 덕스러운 뜻을 본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의논하는 자들은, ‘흉년에 토목 공사를 일으키는 것은 실제로 구휼을 겸하는 것이니, 주자(朱子)가 남강군(南康軍)에서 구휼 정책을 행한 고사와 범중엄(范仲淹)이 절서(浙西)에서 기민을 구휼한 자취를 상고하여 다시 시행할 수 있다.’ 고 하지만, 이는 한 고을이나 한 진영의 정사에 불과한 것이다. 내가 지금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한 나라 백성들에게 임금 노릇을 제대로 못해 놓고는 부황이 든 저 많은 백성들을 억지로 끌어모아 한 성을 쌓는 역사에서 품을 팔아 먹고살게 한다면, 그곳에 이를 자와 살아날 자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지금의

방도로는 황정(荒政) 한 가지 일에만 정신을 쏟는 것이 가장 좋다.” 하였다.

<국조보감(國朝寶鑑), 제74권 정조조 6, 18년(갑인, 1794)>

경제/건설

화성을 축성할 때 앵봉의 석재를 활용하였다는 내용.

《다산필담(茶山筆談)》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 “우리나라 사람들의 돌 채취하는 방법은 반드시 돌 전체가 표면에 노출된 뒤라야 비로소 돌이라고 인정한다. 그런 까닭에 모든 축성 공사, 축대 공사를 하는 사람은 10리 밖에서 돌을 채취하는 일이 많다. 돌이란 것은 산의 골격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느 산엔 돌이 없으며, 어느 돌인들 성을 쌓지 못하겠는가. 마땅히 제자리에서 산을 벗기고 돌을 채취할 것이요, 반드시 험난한 길을 수고스럽게 멀리 찾아갈 필요는 없는 것이다. 선조(先朝)¹⁰³ 때 화성(華城)¹⁰⁴에 성을 쌓는 공사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다른 곳의 산에서 돌을 찾았다. 상(上)의 지감이 밝아 마침내 앵봉(鰲峯)을 벗기니 온 산이 다 돌이었는데 성을 쌓고도 많은 여유가 있었다. 이것으로써 증명할 수 있다. 그중에 혹 먼 곳에서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마땅히 기중소가(起重小架)¹⁰⁵를 만들어 돌을 쉽게 들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 유형소거(游衡小車)¹⁰⁶를 만들어 돌의 수송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설(說)은 모두 성화주략(城華籌略)【선조(先朝)의 어정문자(御定文字)로서 《홍재전서(弘齋全書)》에 보인다.】에 자세히 나오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茶山筆談云.(…) 又云.東人取石之法.必石之全身.露出地面.然後方認爲石.故凡爲城役臺役者.多取石於十里之外.不知石者.山骨也.何山無石.何石不城.宜於卽地剝山以取石.不必間關然遠求也.先朝城華之役.始求他山之石.睿算通悟.竟剝鰲峯.乃全山皆石也.以之爲城.綽有餘裕.斯可以驗之矣.其或不得不遠求者.宜作起重小架.以便起石.又作游衡小車.以便輸石.其說並詳於城華籌略.【先朝御定文字.見弘齋全書.】今姑略之.

정약용(丁若鏞), <목민심서(牧民心書), 공전(工典) 6조 제4조 수성(修城)【工典第四條】>

경제/건설

화성을 축성할 때 정조가 신대승, 서유린, 채제공 등에게 집을 짓도록 명한 일화를 소개한 내용.

화성을 짓기 시작한 초기에 정묘(正廟)께서 신하들에게 집을 짓도록 명하였다. 이에 신공대승(申公大升)·서공 유린(徐公有鄰)·채공 제공(蔡公濟恭)의 집이 먼저 이루어졌는데, 상이 득중정(得中亭)에 남시어 문 이름을 지적하시고는 곧 경여(輕輿)를 타고 발 사이의 작은 길을 따라 순람(巡覽)하였다. 그때 신공의 아들 신위(申緯)가 집 안에 있었는데, 붉은 일산이 이미 처마 앞에 임하였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허둥지둥 땅에 엎드렸다. 상이 묻기를, “이 집이 네 집안에서 지은 것이냐?” 하니,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너는 득중정에 뒤따라 들어와 활쏘기를 구경하여도 좋다.” 하였다. 이날 신궁(神弓)을 우러러보고 하사한 음식을 먹고서 물러났는데 밤이 이미 이경(二更)이나 되었다.

이유원(李裕元), <임하필기(林下筆記), 제31권 순일편(旬一編), 화성(華城)의 축실(築室)>

103) 선조(先朝) : 정조조(正祖朝)를 가리킨다.

104) 화성(華城) : 수원(水原)에 있는 성(城)이다. 1794년(정조18)에 축조하여 화성이라 하였다. 이에 대한 도설(圖說)을 수록한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 10권 10책이 전한다.

105) 기중소가(起重小架) :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기구의 한 가지이다.

106) 유형소거(游衡小車) :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기구의 한 가지이다.

3. 사회(社會)

(1) 가족

사회/가족

백씨의 관향으로 수원·직산·남포 등이 있다는 곳에 대해 고증한 내용.

《만성보(萬姓譜)》에, “백씨는 본시 희성(姬姓)에서 나왔다. 즉 주 태왕(周太王)의 5세손 우중(虞仲)이 우(虞)에 수봉(受封)되었다가 그 후손이 진(晉)에게 멸망당하자, 우(虞)의 공족(公族) 정백 해(井伯奚 정백은 자, 해는 이름)가 백희(伯姬)를 진(秦)의 잉첩(媵妾)으로 보내고 백리(百里 읍명(邑名))에 수봉되었으며, 해의 아들은 시(視)로 자가 맹명(孟明)이고, 시의 두 아들은 첫째 서걸술(西乞術), 둘째 백걸병(白乞丙)인데, 백걸병의 자손이 백(白)으로 씨(氏)를 삼았다.” 하였으니, 이는 중국 백성(百姓)의 원류(源流)를 증거할 만한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백성에게 세 관향(貫鄉)이 있다. 즉 수원(水原)·직산(稷山)·남포(藍浦)인데, 그 중 수원의 백성이 대족(大族)으로서, 고려 때 성균진사(成均進士) 백휘(白揮)를 비조(鼻祖)로 삼고 있다. 【일찍이 《여산송씨 보(礪山宋氏譜)를 보건대, 해안백씨(海安白氏)가 보이는데, 이는 한 서민(庶民)이 제멋대로 관향(貫鄉)을 만들어낸 것이다.】 (…)

姓譜. 白氏出自姬姓¹⁰⁷⁾. 太王五世孫虞仲封於虞. 爲晉所滅. 虞之公族井伯奚. 媵伯姬于秦. 受邑於百里. 奚¹⁰⁸⁾生視. 字孟明. 視二子. 一曰西乞術. 二曰白乞丙. 其後爲氏. 此中原白姓之源流可徵者也.

我東. 則白姓有三望. 一貫水原. 一貫稷山. 一貫藍浦. 水原爲大族. 以高麗成均進士白揮爲鼻祖. 【嘗見《礪山宋氏譜》. 有海安白氏. 此庶民之自爲貫者.】 按《萬姓譜》. 百濟有苜氏. 【音白】其後苜變爲白者歟. 【今無苜氏故也.】 以白姓之見於史牒者. 白如. 百濟人. 日本崇峻天皇元年. 以畫師入倭. 白仲鶴. 新羅諫官. 白卓. 【卓一作早】 泰封王弓裔時文士. 白思柔. 高麗成宗朝翰林學士. 白可臣. 高麗肅宗朝侍郎. 白光臣. 高麗時. 與崔謙同時九老祕書省. 此白姓之有名於史籍者也. (…)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인사편1 인사류2, 氏姓 白姓辨證說>

107) 白氏出自姬姓 : 『白氏出自姬姓』부터 『其後爲氏』까지는 《新唐書 卷75·宰相世系表五下》에 보인다.

108) 奚 : 『奚奚』로 되어 있는데, 《新唐書》에 근거하여 『奚』 1자를 삭제하였다.

(2) 의식주

사회/의식주

수원(水原)의 쌍부(雙阜) 한 면에 목면(木綿)을 한 집도 심는 자가 없다는 내용.

목면은 고려 말기부터 수입되어 지금은 온 나라에 거의 퍼지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심지 않는 지방이 많은데, 지방에 따라 풍토와 기후가 같지 않아서 심지 못한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황해도의 황주(黃州)와 봉산(鳳山), 충청도의 문의(文義)와 옥천(沃川) 등지는 목면이 토리에 알맞아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데, 경기 부근에 이르러서는 차츰 늘어나지 않는다. 내가 바닷가에 살면서 징험해 보니, 수원(水原)에 속한 쌍부(雙阜)라는 한 면은 한 집도 심는 이가 없으니, 어찌 40~50리 사이에 토리가 이처럼 다를 수 있겠는가? (…)

이익(李瀾), <성호사설(星湖僿說) 제9권 만물문(萬物門), 목면(木綿)>

사회/의식주

문중에서 재상이 된 사람이 초선을 사용하였는데 화성유수로서 정승이 된 이경일과 이유원 자신 등이라는 고사.

종가(宗家)에 예전부터 전해 오는 초선이 있는데, 문중(門中)에서 재상이 된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쓴다. 순묘(純廟) 갑자년(1804)에 오은군(鰲恩君 이경일(李敬一))이 화성 유수(華城留守)로서 정승이 되어 그것을 썼고, 당저(當寧) 갑자년(1864, 고종1)에 내가 북번(北蕃)으로서 재상에 임명되어 또한 그것을 썼다. 우리 문중에서 그 부채를 쓴 것이 모두 여섯 번이었다.

이유원(李裕元), <임하필기(林下筆記), 제25권 춘명일사(春明逸史), 집안에 전해 오는 초선(蕉扇)>

사회/의식주

정조가 현릉원에 행행할 때 군복을 입은 일과 군복의 붉은 소매 장식의 유래에 대한 고증.

군복은 종군할 때의 차림이니, 문신(文臣)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달갑게 여기지 않는 법인데 하물며 지존(至尊)이겠는가. 과거에 현릉원(顯隆園)이 항상 군복을 입었으므로, 정묘(正廟)가 추모하여 화성(華城)에 행행(幸行)할 때마다 입었다. 한번은 군복을 입고 행궁(行宮)에서 여러 신하들을 조회하는데 재상인 김익(金熲)이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이 어인 복색입니까?” 하니, 상이 매우 부끄럽게 여겼다. 그의 갱시(廣詩)에서, “마상의 군왕은 소매통이 좁은 옷을 입었네.[馬上君王狹袖衣]” 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한 것이다. 지금은 행행할 때마다 으레 착용한다.

이른바 ‘붉은 소매 장식’이라는 것은 기마(騎馬)가 붉은색에 익숙해져서 매달아 놓은 수급(首級)을 보고도 놀라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서, 본래는 겨우 몇 치이던 것이 지금은 온 소매에 다 장식한다. 연전(年前)에 성상의 하교에서 너무 길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니, 사치스러운 습관에 연유한 것이다.

전립(戰笠)에도 패영(貝纓), 작우(雀羽), 상모(象毛)를 붙이는 것이 있는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다만 화려하게 꾸미는 데만 힘을 써서 점점 그 본의를 잃어버리고 있으니, 앞으로 그것들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이유원(李裕元), <임하필기(林下筆記), 제28권 춘명일사(春明逸史), 임금이 군복(軍服)을 착용한 일>

사회/의식주

영의(榮義)가 수원에 가면서 노자 5냥을 가져갔다는 내용.

18일 임진. 맑음. 영의(榮義)가 수원에 가면서 노자 5냥을 가져갔다. 지붕 이을 때 마신 술 값이 1냥 5전이다. 오시에 비가 오기 시작했다. 양근 대수청리(大水靑里) 화두(火豆) 10섬 2말 1되를 봉상(捧上)하고 나머지 콩 2말 5되를 90냥에 샀다. 밤에 운루를 방문하였다.

壬辰 晴 榮義往水原 路子五兩去 蓋屋酒錢一兩五錢 午時始雨 楊根大水靑 火豆十石二斗一升捧上 餘豆二斗五升九十兩買得 夜過雲樓

지규식(池圭植), <하재일기(荷齋日記)六, 己亥年(1899) 十月 十八日>

(3) 윤리·풍속

사회/윤리·풍속

1067년 흥왕사가 낙성된 것을 기념하여 각 관청 및 고을에서 사찰의 문까지 채봉(綵棚)을 꾸민 것이 준비하였다는 내용.

○ 봄 정월에 흥왕사(興王寺)가 낙성되니, 2천 8백 칸이며 12년 만에 준공하였다. 왕이 재(齋)를 베풀어서 낙성하려 하니, 각처에서 중들이 모여 들었다. 명하여 계행(戒行)이 있는 자 1천 명을 택하여 법회에 참여하게 하고 이어 늘 머물러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5일 동안 밤낮으로 연등대회를 개설하였다. 칙령으로 중앙의 모든 관청 및 안서도호부·개성부(開城府)와 광주(廣州)·수주(水州: 경기 수원(水原))·양주(楊州)·동주(東州)·수주(樹州 경기 평부(平富)) 다섯 고을, 강화(江華)·장단(長湍) 두 현에게 뜰에서 절 문까지 채봉(綵棚)을 꾸민 것이 준비하게 서로 뵈었으며, 왕의 연(輦)이 지나가는 길 좌우에는 또 등산(燈山)과 화수(火樹)를 만들어 대낮같이 환하게 하였다. 이날 왕이 행렬을 갖추고 백관을 거느리고서 분향하고 재물을 보시하니, 불사의 성대함이 전에 없던 것이었다. (…)

春正月，興王寺成，凡二千八百間，十二年而功畢，王欲設齋，以落之，諸方縑流，仝集，命擇有戒行者，一千赴會，仍令常住，特設燃燈大會五晝夜，勅令百司，及安西都護，開城府，廣，水，楊，東，樹五州，江華，長湍二縣，自闕庭，至寺門，結綵棚，櫛比鱗次，連亘相屬，輦路左右，又作燈山火樹，光照如晝，是日，王備鹵簿，率百官，行香，施納財襯佛事之盛，曠古未有。(…)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제5권 문종인효대왕(文宗仁孝大王)2, 丁未二十一年【宋治平四年遼咸雍三年】>

사회/윤리·풍속

1855년(철종 6) 을묘년 화성 진연에 참석했던 서준보와 홍석모에게 은전을 베풀었다는 내용.

○ 3월. 판중추 서준보(徐俊輔)에게 옷감 한 벌을 내리도록 명하고 이어서 조랑(曹郎)을 보내어 안부를 물었으며, 전 부사 홍석모(洪錫謨)에게 옷감과 음식을 내렸다. 서준보와 홍석모는 모두 지난 을묘년의 화성(華城) 진연(進宴)에 참석했던 자들로, 다시 이번을 을묘년을 만나게 되었으니 매우 희귀한 일이기에 노인을 우대하는 은전을 베풀었다.

<국조보감(國朝寶鑑), 제88권 철종조2, 6년(을묘, 1855)>

사회/윤리·풍속

정헌용의 회근례에 일가 친척으로 수원 판관 정기명(鄭基命) 등이 참석했다는 내용.

참의 정동면(鄭東勉)이 회근례를 치렀으며, 그 조카인 경산공(經山公, 정원용)이 먼저 그 일을 이었고, 경산공의 아우인 동리공(東里公) 정헌용(鄭憲容)의 회근례가 또 무진년(1868, 고종5) 늦가을에 닥쳤는데, 동리공은 나의 장인이다. 나는 내자와 함께 헌수(獻酬)를 하였는데, 경산 상국(相國)이 아무 탈 없이 상좌(上坐)에 있었다. 나는 상국과 같은 반열에 있는 사람으로서 헌작(獻酌)하는 대열에 참여하였는데, 곁에서 모신 자들은 공의 아들인 이조 참판 정기회(鄭基會), 조카인 우찬성 정기세(鄭基世)와 수원 판관(水原判官) 정기명(鄭基命), 종손인 내각 대교 정범조(鄭範朝)로 관에 달린 구슬이 찰랑거리고 풍채가 찬란히 빛났다. 외손은 나의 아들 이수영(李壽榮)이었는데, 더벅머리를 삼대처럼 묶어 매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인자(仁者)는 반드시 장수하고 현자(賢者)는 반드시 후손이 있다.” 하였으니, 그

렇다면 정씨 가문의 복은 아직 끝나지 않은 셈이다.

이유원(李裕元), <임하필기(林下筆記), 제26권 춘명일사(春明逸史), 정씨(鄭氏) 가문의 회근례(回紇禮)>

사회/윤리·풍속

수원의 승도패(僧徒牌)가 원중에 들어와 유희를 하겠다고 하여 식사를 대접했다는 내용.

3일 신미. 흐리고 눈. 인아(仁兒)가 상경하였다. 진상 사기주발 2죽을 사람에게 지워서 올려 보냈다. 수원 승도패(僧徒牌)가 원중에 들어와 유희를 하겠다고 하여 동중(洞中)에 신칙하여 집을 배정하여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게 하였다.

三日 辛未 陰雪 仁兒上京 進上沙椀二竹 人負上送 水原僧徒牌 入院中要遊戲 申飭於洞中 排戶食之

지규식(池圭植), <하재일기(荷齋日記), 荷齋日記 七 庚子年(1900) 十一月>

4. 문화(文化)

(1) 사상

문화/사상

수원(水原) 매곡서원(梅谷書院)의 연혁을 정리한 내용.

수원(水原) 매곡서원(梅谷書院) 【숙종 갑술년에 세웠으며 을해년에 사액하였는데 갑진년에 불에 탔다. : 송시열(宋時烈) 화상(畫像)이 있다.】 (…)

이공익(李肯翊),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별집 제4권 사전전고(祀典典故), 서원(書院) 경기(京畿)>

문화/사상

1796년(정조 20) 1월 조광조의 사판에 치제하게 하고, 화성수령에게 집 한 칸을 사서 향불을 받들게 하였다는 내용.

○ 1월. 승지를 보내어 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의 사판(祠版)에 치제하고, 사손(祀孫) 기인(基仁)을 장릉 참봉(莊陵參奉)에 제수하였다. 이어 화성(華城) 수령에게 명하여 집 한 칸을 사도록 향불을 받들게 하였다.

<국조보감(國朝寶鑑), 제74권 정조조 6, 20년(병진, 1796)>

(2) 과학

문화/과학

1850년 홍수 피해가 호남에 이어 해서, 호서 및 수원이 심하다는 내용.

(…) ○ 전라도의 장흥(長興)·순천(順天)·보성(寶城)·낙안(樂安)·광양(光陽)·곡성(谷城) 등 여섯 고을에 큰물이 저서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민호(民戶)가 3백 8호이고 익사자가 12명이었다. 도신이 이를 보고하자 부안 현감(扶安縣監) 김원식(金元植)을 특별히 명하여 위유어사(慰諭御史)로 삼아 달려가 이들을 위로하고 구제해서 주거를 정해 주도록 하고, 익사자와 집이 무너진 자들에 대해서는 신역 및 환곡과 군포를 탕감해 주고, 시체를 건지고 매장하고 집을 지어 주는 등의 비용을 넉넉히 도와 주게 했다. 이해에 각 도가 모두 수해를 입어 호남이 가장 심하고 해서(海西)와 호서 및 수원(水原)이 그 다음이었는데, 보첩(報牒)이 이르는 대로 호남의 예에 따라 위로하고 구제하여 주었다. (…)

<국조보감(國朝寶鑑), 제87권 철종조 1, 1년(경술, 1850)>

문화/과학

수원(水原) 표연(表延)의 집에서 암소가 숫송아지를 낳았다는 내용.

9일 (….) ○ 수원(水原) 지방 출신(出身) 표연(表延)의 집에서 암소가 숫송아지를 낳았는데 몸통이 하나에 머리가 둘, 귀가 넷, 눈이 넷, 입이 둘, 코가 둘이었다.

조경남(趙慶男), <속잡록(續雜錄)3, 을해년 【승정 8년, 인조 13년(1635년)】>

문화/과학

1635년(인조 13) 수원(水原) 민가에서는 기형 송아지를 출산했다는 내용.

○ 13년 을해 정월에 흰 무지개가 해를 꿰뚫었다. ○ 17일에는 지진이 일어났다. ○ 2월 경 인일에는 흰 무지개가 해를 꿰뚫었다. 수원(水原) 민가에서는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몸통은 하나이고 머리가 둘이었다. (…)

이공익(李肯翊),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별집 제15권 천문전고(天文典故), 재변(災變)과 상서(祥瑞)>

문화/과학

황장목의 운반을 위해서는 길을 닦고 화성 축조에 사용한 유형거를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

황장 봉산에서 벌채한 나무를 끌어내는 부역에 농간하는 폐단이 있으니 자세히 살펴야 한다. 재궁(梓宮)의 재목을 끌어내는 날에는 두어 고을이 일제히 출동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호야(呼耶)¹⁰⁹를 부르는데, 사나운 아전과 거센 장교가 인부들의 등을 채찍질하고 꿈무늬를 발로 찬다. 부유한 마을과 부유한 집은 모두 돈으로 부역을 피하고, 파리하고 잔약하며 병든 백성들만이 그 부역으로 유독 고통을 당하게 되니, 역시 목민관이 생각해야 할 일이다. 대개 무거운 것을 끄는 방법은 길을 닦는 것을 먼저 해야 할 일이요, 수레를 만드는 것이 그다음에 할 일이다. 이미 길이 평탄하고 넓으면 3명이 10명의 힘을 당할 것이다. 수레가 또 잘 구르면 10명이 100명의 힘을 당할 것이다. 무엇이 괴로워서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일까? 유형거(游衡車)¹¹⁰라는 수레는 선조(先朝) 때 수원(水原)에 성(城)¹¹¹을 쌓을 때 제작한 것이다.

109) 호야(呼耶) : 여럿이 힘을 합칠 때나 서로 보조를 맞출 때 내는 소리, 즉 병력성(竝力聲)·조력성(助力聲) 등으로 ‘어영차, 어영차’하는 구호성을 말한다.

그 수레 한 개 만드는 비용은 100전(錢)을 넘지 않으며, 재공의 재목 한 토막은 수레 하나에도 차지 않는다. 2명이 끌고 2명이 밀며 2명이 호위한다면 6명이 될 뿐이다. 만약 그것이 아름답고 큰 나무라서 수레에 싣고 내리는 일이 모두 사람의 힘을 소비해야 할 것이라면, 기중소가(起重小架)¹¹²⁾ 【나무를 묶어서 세 갈래의 아귀진 형상으로 만들고 갈고리로 걸어 당겨서 든다.】를 만드는 것이 좋다. 그리하면 또한 인력을 덜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서 몇 사람을 쓸 것인가 헤아려서 민호(民戶)에 균평하게 두어 낱씩 돈을 거두어서 사람을 고용하여 운반한다면 백성들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다.

黃腸曳木之役.其有奸弊者.察之.

梓材曳出之日.數郡齊動.萬民呼邪.猾吏豪校.鞭背蹴脛.饒戶饒村.咸以錢防.疲癯殘疾.其役偏枯¹¹³⁾.亦牧之所宜念也.凡引重之法.治道爲先.造車次之.道既平闊.三人當十人之力.車又圓轉.十人當百人之力.何苦而不爲是也.游衡車者.先朝城華之所製也.其車一輛.費不過百錢.梓材一段.不足以任一車.而兩人曳之.兩人推之.兩人護之.六人而已.若夫連抱之木.其載車卸車.皆費人力者.宜作起重小架.縛木爲一¹¹⁴⁾叉形.鉤衡以舉之.亦可以省力也.於是量用幾人.乃於民戶.均攤數葉之錢.雇人以運之.則民無害矣.

정약용(丁若鏞), <목민심서(牧民心書)>, 공전(工典) 6조 제1조 산림(山林)>

110) 유형거(游衡車) :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수레의 한 가지이다. 2인이 끌고 2인이 밀고 2인이 옆에서 부축하여 운반하도록 되어 있다.

111) 수원(水原)에 성(城) : 지금의 수원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곽(城郭)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달된 형식을 갖추고 있다. 제도는 종래의 축성법에 신기축(新機軸)을 가져온 것으로 중국에서도 보지 못하던 기교(技巧)를 보이고 있다. 이 성은 정조 18년(1794)에 축조된 것으로 정조가 그의 아버지(思悼世子 장조(莊祖))의 억울한 참화를 못 잊어 그 능묘(陵墓)가 있는 수원에다 새로 성을 쌓고 소경(小京)으로 승격시켰다. 이 성의 축조에 관한 설계며 공역(工役) 등이 자세히 수록된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 전 10권 1책**이 전해진다.

112) 기중소가(起重小架) :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기계이다. 세 개의 나무를 함께 묶어 삼각형으로 벌려 세우고 갈고리를 사용하여 무거운 것을 달아 올린다.

113) 枯 : 苦

114) 一 : 三

(3) 지리·경관

문화/지리·경관

남양도호부의 기본 정보를 정리한 내용.

남양도호부(南陽都護府)

【동쪽으로 수원부(水原府) 경계까지 24리요, 남쪽으로 같은 부 쌍부현(雙阜縣) 경계까지 20리요, 서쪽으로 화량(花梁)까지 41리요, 북쪽으로 안산군(安山郡) 경계까지 43리며, 서울까지 1백 5리이다.】 (…)

【봉수】 염불산봉수(念佛山烽燧) 【동쪽으로 수원(水原) 흥천산(興天山)에 응하고 북쪽으로 해운산(海雲山)에 응한다.】 해운산봉수(海雲山烽燧) 【북쪽으로 안산군(安山郡) 오질이도(吾叱耳島)에 응하고 남쪽으로 염불산(念佛山)에 응한다.】 (…)

《대동지지(大東地志)》

【연혁】 인조(仁祖) 22년에 현으로 내렸다. 역적 형(衡)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이다. 효종 4년에 다시 승격시켰다가 현종 6년에 현으로 내렸다 【종으로써 주인을 죽였다.】 15년에 다시 승격시켰다. 정종(正宗) 16년에 본 부에 있는 수원진(水原鎭)으로 옮겼다. 【읍을 관장한다.】

【영아】 충융전영(攄戎前營) 【전영장(前營狀)은 본부사(本府使)가 겸한다. 인조(仁祖) 조에 좌영(左營)을 세웠다가 후에 전영으로 고쳤다.】

【○ 속읍으로는 남양(南陽)·양천(陽川)이 있다.】

【방면】 부내(府內) 【끝은 5리이다.】 화척(禾尺) 【북쪽으로 처음은 5리, 끝은 20리이다.】 저팔리(楮八里) 【동쪽으로 처음은 10리, 나중은 20리이다.】 둔지산(屯之山) 【남쪽으로 처음은 5리, 끝은 15리이다.】 신리(新里) 【북쪽으로 처음은 20리, 끝은 40리이다.】 송산(松山) 【서쪽으로 끝이 30리이다.】 미지곶(彌之串) 【동쪽으로 처음이 7리 끝은 20리이다.】 분향(分鄉) 【동남쪽으로 수원(水原) 경계를 넘어 들어가는데, 처음은 30리, 끝도 30리이다.】 마도(麻道) 【서쪽으로 처음은 10리, 끝이 20리이다.】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9권 경기(京畿)>

문화/지리·경관

과천현의 경계

과천현(果川縣) 【동쪽으로 광주(廣州) 경계까지 13리이고, 남쪽으로 수원부(水原府)까지 34리이며, 서쪽으로 금천현(衿川縣) 경계까지 20리이고, 안산군(安山郡) 경계까지 28리이며, 북쪽으로 노량(露梁)까지 20리이고, 서울까지 33리이다.】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8권 경기(京畿), 과천현(果川縣)>

문화/지리·경관

수원도호부(水原都護府)의 기본 정보를 정리한 내용.

【동쪽으로 용인현(龍仁縣) 경계까지 21리, 남쪽으로 충청도 평택현(平澤縣) 경계까지 50리, 같은 현 경계까지 59리, 진위현(振威縣) 경계까지 22리, 서쪽으로 남양부(南陽府) 경계까지 20리, 같은 부 경계까지 1백 13리, 북쪽으로 과천현(果川縣) 경계까지 39리, 서울까지는 88리가 된다.】

【건치연혁】 본래 고구려의 매홀군(買忽郡)인데,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수성군(水城郡)이

라 고치었다. 고려 태조(太祖)가 남쪽으로 정벌할 때에, 이 고을 사람 김칠(金七)·최승규(崔承珪) 등이 귀순하여 힘을 다하였으므로, 그 공로로 승격시켜 수주(水州)라 하였다. 고려 성종(成宗)이 도단련사(都團鍊使)를 두었는데, 목종(穆宗)이 혁파하였고, 현종(顯宗) 9년에 지수주사(知水州事)로 회복하였다. 원종(元宗) 12년에 착량(窄梁)에 방수(防戍)하고 있는 몽고 군사가, 대부도(大部島)에 들어가서 주민들을 침노하고 노략질하자, 섬 사람들이 원망하고 분하게 여겨 몽고 군사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다. 부사(副使) 안열(安悅)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쳐 평정하자, 그 공로로 도호부로 승격시켜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었다. 뒤에 또 승격시켜 수주목(水州牧)이 되었는데, 충선왕(忠宣王) 2년에 모든 목사(牧使)를 없앴에 따라, 강등시켜 수원부(水原府)를 만들었다. 공민왕(恭愍王) 11년에 홍건적(紅巾賊)이 선봉(先鋒)을 보내어 양광도(楊廣道)의 주군(州郡)에게 항복하기를 권유하자, 수원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맞아 항복하여, 적의 형세를 더욱 강성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드디어 강등시켜 군이 되었는데, 군 사람들이 재상 김용(金鏞)에게 중한 뇌물을 바치니 다시 부(府)가되었다. 본조(本朝) 태종(太宗) 13년에 예(例)에 의하여 도호부(都護府)로 고쳤고, 세조(世祖) 때에 진(鎭)을 설치하고, 또 판관(判官)을 두었다.

【속현】 쌍부현(雙阜縣) 【부(府) 서쪽 45리 되는 곳에 있는데, 옛날 육포(六浦)이다. 고려 현종(顯宗) 9년에 와서 본부에 예속되었다.】 용성현(龍城縣) 【부 남쪽 50리 되는 곳에 있는데, 본래 고구려의 상홀현(上忽縣), 또는 차홀(車忽 수릿골)이라고 한다. 신라에서 차성(車城)이라 고치어 당은군(唐恩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고, 고려 초에 지금 이름으로 고쳤으며, 현종(顯宗) 9년에 와서 본부에 예속되었다.】

【진관】 도호부(都護府)가 3이고 【부평(富平)·남양(南陽)·인천(仁川).】 군(郡)이 2이고 【안산(安山)·안성(安城).】 현(縣)이 7이다 【진위(振威)·양천(陽川)·용인(龍仁)·금천(衿川)·양성(陽城)·통진(通津)·김포(金浦).】

【관원】 부사(府使)·판관(判官)·교수(教授) 【각 1인.】

『신증』 지금 임금이 21년에 부의 백성 가운데 그의 부모를 죽인 자가 있어서, 강등하여 군(郡)이 되었다.

【관원】 군수(郡守) 【1인.】

【군명】 한남(漢南)·수성(隋城)·매홀(買忽)·수성(水城)·수주(水州).

【성씨】 본부(本府) 최(崔)·김(金)·이(李)·서(徐), 백(白). 【내성(來姓)이다.】 백(白)·최(崔)·이(李)·방(方)·하(河). 【모두 촌성(村姓)이다.】

쌍부(雙阜) 서(徐)·송(宋)·박(朴)·이(李)·심(沈)·신(愼).

용성(龍城) 차(車)·송(宋)·임(任)·장(張). 청구(靑丘) 정(鄭)·박(朴)·이(李). 공촌(公村) 김(金)·섭(葉). 내미(內彌) 이(李)·백(白). 심곡(深谷) 차(車). 오타(五朶) 여(呂)·김(金). 주석(柱石) 송(宋)·김(金). 최(崔) 차(車). 쟁홀(爭忽) 이(李)·김(金)·박(朴). 정송(貞松) 이(李)·김(金)·최(崔)·윤(尹). 양간(楊干) 박(朴)·김(金). 사정(奢井) 도(都). 금음촌(今音村) 여(呂)·이(李). 종덕(宗德) 유(柳)·서(徐)·이(李)·차(車). 분촌(盆村) 백(白)·전(田). 사량(沙梁) 견(堅)·김(金)·주(朱). 공이(工二) 송(宋). 유계(楡梯) 차(車).

【산천】 발점산(鉢岾山) 【부 남쪽 2리 되는 곳에 있는데 진산(鎭山)이다.】 광교산(光敎山) 【부 북쪽 30리 되는 곳에 있다. 또 용인현(龍仁縣) 편에 보라.】 무봉산(舞鳳山) 【부 동쪽 25리 되는 곳에 있다. 일명 만의산(萬義山)이라고도 한다.】 독성산(禿城山) 【부 남쪽 77리 되는 곳에 있다.】 홍법산(弘法山) 【부 서쪽 5리 되는 곳에 있다.】 흥천산(興天山) 【쌍부현에 있다.】 바다 【부 서남쪽 63리 되는 곳에 있다.】 사근천(沙斤川) 【부 북쪽 30리 되

는 곳에 있다. 근원은 광교산(光敎山)에서 나와서, 또 동쪽으로 흘러 대천(大川)으로 들어간다.】대천(大川)【부 동쪽 8리 되는 곳에 있다. 사근천과 용인현(龍仁縣) 구흥천(駒興川)이 합류하는 곳이다. 또 남쪽으로 흘러 광덕현(廣德縣)을 거쳐 바다로 들어간다.】구이포(仇二浦)·진목포(眞木浦)·적진포(赤津浦)【모두 쌍부현에 있다.】다라고비진(多羅高飛津)【부 남쪽 67리 되는 곳에 있다. 대천과 진위현(振威縣) 장호천(長好川)의 물이 여기에서 합류하여, 또 남쪽으로 흘러 바다에 들어간다.】양야곶(陽也串)【쌍부현(雙阜縣)에 있는데 부 서쪽까지 50리이다. 둘레가 68리이고 목장(牧場)이 있다.】홍원곶(洪源串)【용성현(龍城縣)에 있는데 부 남쪽까지 55리이다. 둘레가 75리이고 목장이 있다.】팔라곶(八羅串)【쌍부현에 있다.】오을미곶(吾乙未串)·대저지도(大楮只島)·소저지도(小楮只島)·응도(鷹島)·구화도(仇火島)【모두 쌍부현에 있는데, 부 서쪽까지 90리이다.】풍도(楓島)【부 서쪽 45리 되는 곳에 있는데, 둘레가 20리이다. 성종(成宗) 17년에 남양(南陽)으로부터 와서 예속되었으며 목장이 있다.】기지(機池)【부 동쪽 15리 되는 곳에 있다.】손항지(孫項池)【쌍부현에 있다.】도제지(刀梯池)【신영장(新永莊)에 있으며 부 남쪽까지 60리이다.】

【토산】백옥(白玉)【저지도(楮只島)에서 난다.】소금[鹽]·밴댕이[蘇魚]·병어(兵魚)·홍어(洪魚)·조기[石首魚]·참조기[黃石首魚]·농어[鱸魚]·민어(民魚)·뱅어[白魚]·송어[秀魚]·준치[眞魚]·오징어[烏賊魚]·호독어(好獨魚)·조개[蛤]·가무락조개[黃蛤]·맛조개[竹蛤]·토화(土花)·굴[石花]·낙지[絡締]·해파리[海腸]·대하(大蝦)·중하(中蝦)·곤쟁이[紫蝦]·게[蟹]·청해(靑蟹)·부레[魚鰓].

【성곽】읍성(邑城)【흙으로 쌓았는데 둘레가 4천 35척(尺)이다. 지금은 모두 허물어졌다.】

【봉수】흥천산(興天山) 봉수(烽燧)【남쪽으로 양성현(陽城縣) 괴태길곶(槐台吉串)에 응하고, 서쪽으로 남양부(南陽府) 염불산(念佛山)에 응한다.】

【누정】운금루(雲錦樓)【이색(李穡)이 지은 기(記)에, “지대(池臺)와 피사(陂榭)는 놀고 구경하는 곳인데, 세도(世道)와 무슨 관계가 있으랴. 그러나 국가의 다스려지고 어지러운 자취와, 주현(州縣)의 흥하고 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대개 조정이 청명(淸明)하고 위와 아래가 기쁘고 편안하여, 이속(吏屬)은 그 직책을 즐겁게 여기고, 백성은 그 생업에 편안할 것이니, 지대와 피사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태평 시대의 성한 모습을 형용할 수가 있겠는가. 법령이 가혹하고 사나우며 세금 거두는 것이 번다하고 무거우면, 백성은 들에서 탄식하고 이속들은 관아에서 피곤할 것이니, 비록 지대와 피사가 있더라도 어찌 홀로 즐길 수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수원부의 새 정자를 지은 것에 기(記)가 없을 수 있으랴. 부의 치소(治所 관청 소재지) 동북쪽 모퉁이에 옛 못이 있는데, 황폐한 지가 이미 오래였다. 전성안(全城安) 군이 부사(府使)가 되었을 때에, 개연히 복구하는 데에 뜻이 있어 이에 못을 파서 깊게 하고, 가운데에 섬을 만들어서 새 정자를 산뜻하게 지었다. 재물은 관가에서 나오지 않고 역사는 백성에게 미치지 않았다. 완성이 되자 고을 사람들이 보고서 서로 돌아보며 놀라 말하기를, ‘어떻게 그리 쉽게 이루어졌는가. 반드시 귀신이 와서 도왔나 보다. 어떻게 우리들을 부리지 않고도 이렇게 되었는가.’ 하였다. 아, 전군은 참으로 백성을 부릴 줄 아는 사람이다. 마침 전군이 내직(內職)으로 옮기고 비서소감(祕書少監) 안군(安君)이 나와서 양광도(楊廣道 지금 경기도의 일부) 안찰사(按察使)가 되었다. 전군이 행정에 능한 것을 가상히 여기어 내게 글을 보내어 말하기를, ‘전씨의 자취가 없어지지 않고 후세에 전하는 것은, 오직 글로 기록하는 데 있으니 그대는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 나는 생각하건대, 수원은 안찰부(按察部)의 치소(治所)로서 여러 주·군을 통제하므로, 도 전체의 일이 집중되

는 곳이 된다. 그러나 성하고 쇠하며 흥하고 폐하는 것도 또한 한 도 안에서 첫째가 된다. 지금 전군은 위엄과 은혜가 아울러 지극하고 어루만지며 편안히 거하게 하는 도리가 마땅함을 얻었다. 또 소민(小民)들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 우리 국가의 태평한 아름다움을 넓혔다. 그리고 안군은 백성의 풍속을 살피는데 온 힘을 다하고 남의 착한 것을 즐겨 말하니 모두 기록할 만한 사실이다. 후일 색(穡)이 일을 마치고 물러나게 되면, 이 고을을 지나갈 것인데, 만일 연꽃이 피는 때를 만나면, 반드시 수레를 멈추고 정자에 올라서 나의 이 기(記)를 읽은 뒤에 갈 것이다.” 하였다.】

【○ 신숙주(申叔舟)가 지은 중수기에, “천순(天順) 계미년(세조 9년) 봄에 내가 바야흐로 한가하게 있을 즈음에 편지를 보낸 이가 있었는데, 성균사성(成均司成) 공기(孔頴)와 예조좌랑(禮曹佐郎) 김구영(金九英)은 모두 수원부의 사람이다. 편지에 이르기를, ‘부의 관사 동쪽에 연못이 있는데, 혹은 정자도 짓고 혹은 다락도 지어서 세워졌다 허물어졌다, 흥했다 폐하였다 하여 그 유래가 매우 오래이다. 지금은 막히고 답답하며 기울고 무너져서 사람이 거처할 수 없다. 여강(驪江) 민효열(閔孝悅) 선생이 명부(明府)¹¹⁵⁾가 되었는데, 정사가 이루어지고 여가가 많으므로, 이것을 민망하게 여겨 그 옛것을 회복하려 하였다. 장인에게 명하여 재목을 모으게 하고, 모두 헐어버리고 새로 지어서 일곱 달이 지난 뒤에 완성되었는데, 영(楹)이 셋이요 보동(補棟)이 20여 개나 되었다. 옛 못을 넓히고 또 그 북쪽을 파니, 누대(樓臺)가 이제는 완전히 못 가운데에 있게 되었다. 제도가 굉장하고 단청이 또 선명하며, 섬이 둘러 있고 꽃과 풀이 그윽하니, 이 못에 정자와 누각이 있는 이래로 일찍이 없던 바이다. 공사하는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고 역사가 백성에게 미치지 않고서도, 능히 옛 물건을 회복하기를 이와 같이 하였으니,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청하건대, 기(記)를 지어서 뒤에 남기라.’ 하였다. 옛날 전성안(全成安)이 이 정자를 지었을 때에, 목은(牧隱)이 일찍이 기를 지었으니 나 같은 자가 어찌 그 뒤를 이을 수가 있겠는가. 대개 물건의 이루어지고 허물어지는 것이 운수가 있고, 일의 흥하고 폐하는 것이 때가 있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허물어지고 폐하여짐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돌고 돌아 끝이 없다. 그 정자가 되고 누각이 되며 완성되고 무너지며 흥하고 폐하는 것이, 어느 것인들 물건과 일이 합하고 운수와 때가 서로 합한 것이 아닌가. 선생은 세상에 처하는 것이 항상 담박하고, 정치를 하는 것이 또한 어루만지고 사랑하는 것을 힘쓰고, 헛되게 꾸미는 것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 정자가 없어진 것을 가장 민망하게 여기어, 옛것을 회복하여 더 크게 만들고서야 그만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물건이 허물어지면 마땅히 이루어질 운수가 있고, 일이 폐하여지면 흥할 때가 오는 것이다. 이것은 선생이 그만둘래야 그만둘 수 없는 것이고, 이 못이 크게 때와 사람을 만난 것이다. 내가 비록 용졸하나 또한 기(記)를 짓지 않을 수 없다. 연꽃을 사랑하는 말과 경치의 아름다운 데는 말이 미칠 겨를이 없다. 목은의, ‘꽃이 피면 수레를 멈추겠다.’는 뜻은, 마침내 그대로 되었는지 내가 뒤에 그곳에 가서 풍경을 눈으로 구경하고 흥취를 푸는 것도, 마침내는 또한 운수와 때에 붙일 뿐이다.” 하였다.】

【○ 권제(權躋)가 지은 서(序)에, “갑오(甲午)년 봄에 내가 지금 부사(府使) 조극관(趙克寬), 사인(舍人) 권극화(權克和), 장흥 부사(長興府使) 김돈(金墩)공과 더불어 과거에 떨어지고¹¹⁶⁾ [下禮闈]남방으로 놀러 나와, 여기에 이르러 이 정자 위에 앉았다. 내가 정자의 좋

115) 명부(明府) : 원래는 밝은 원님이란 말인데, 그 원님을 대하여 말할 적에 상대편을 칭찬하여서 쓰는 말이다.

116) 과거에 떨어지고 : 예위의 위(闈)라는 말은 과거 보이는 장소라는 말이다. 원래 과거를 예조(禮曹)에서 맡아 있으므로 예위(禮闈)라고 쓴다.

은 경계를 즐거워하여 아름다운 정취를 한껏 말하고 싶어 이르기를, ‘뒷날에 가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눈이 펄펄 날리며 밝은 달이 발[簾]에 들어오고 연꽃 향기가 자리에 가득한 그 때를 당하여, 내가 한 지방을 맡아 있으면서 두세 사람과 더불어 이 정자 위에서 휘파람 불고 읊으면, 또한 죽히 오늘의 초라한 걸음에 대한 값음이 될 것이다.’ 하였다. 여러 사람이 웃으며 말하기를, ‘말이 어찌 그렇게도 이치에 맞지 않는가.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 눈이 날리지 않을 것이요, 비와 눈이 번갈아 내린다면 달이 밝지 못할 것이다. 연꽃 향기가 또 어찌 눈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하니 나 또한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 뒤에 제공은 모두 높은 과거에 뽑히어, 내외직을 두루 역임하였고, 나도 또한 재주가 없는 사람으로서 제공의 뒤에 끼게 되었는데 혹 때로 모이며 이야기하다 보면 반드시 말이 이 일에 미치게 되어 서로 매양 크게 웃었다. 금년 봄에 나는 외람하게 성은(聖恩)을 입어서 감사(監司)가 되었는데, 조공(趙公)이 와서 전송하며 술잔을 잡고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수주(水州)의 눈 가운데 연꽃을 이제야 구경할 수 있겠네.’ 하고, 서로 웃었다. 두어 달이 못 되어 공은 사재감정(司宰監正)으로 있다가, 나와서 이곳의 부사(府使)가 되었다. 수레에 내린 지 3일 만에 내가 와서 순시하자, 예를 마치고 정자 위에 나가 앉으며 공이 들어와 뵈는데, 마침 연꽃이 성하게 피었다. 돌아보고 서로 눈짓하며 말하지 않고 웃었다. 아, 바야흐로 과거에 낙방하여¹¹⁷⁾[點額龍門]하여 근심스럽고 울울한 심정으로, 동자 한 명과 말 한 필을 데리고 나그네의 피곤하고 초라한 행색을 하였던 것을 지금도 상상할 수 있는데, 어찌 다시 공이 조관(朝官) 중의 높은 물망으로 특별히 은명(恩命)을 받아, 붉은 깃발과 검은 일산으로 이 부사가 될 줄을 알았겠는가. 또 어찌 내가 고루하고 외람하고 세쇄한 자질로, 감사가 되어 관찰하여 출척(黜陟)의 권리를 전임하여, 다시 공을 여기에서 만날 것을 알았으랴. 이것은 반드시 하늘이 귀신과 함께 어울려서 우리들의 궁한 것을 불쌍히 여기어, 가만히 시키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을 하게 한 것이던가. 그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도 또한 반드시 가만히 시키어, 짐짓 우습게 만들어서 오래되어도 잊지 않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이치에 어긋나는 그 말이 실제로 징험되기를 이와 같이 하는가. 이것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 설문우(薛文遇)의 시(詩)에, “연잎은 베개 맡의 빗소리에 요란히 울고, 버들개지는 발을 걷어치는 바람에 가볍게 날린다. 귀양살이 간 곳마다 강산이 좋으니, 만사는 모두 말 잃은 첨지[失馬翁] 그대로다.” 하였다.】

【○ 권람(權攄)의 시에, “수주(水州)에서 일찍이 연꽃 못을 구경했더니, 당일의 풍경이 꿈속에 들어오네. 두어 이랑 연꽃은 붉어서 선명하고, 몇 가지 버들은 푸르려 늘어졌네. 연못은 새 집으로 인하여 더욱 값을 더하고, 땅은 어진 부사를 기다려 다시 한 때에 빛이 난다. 엄친을 모셔 놀음 다시 얻기 어려우니, 머리를 돌이키매 부질없이 백년의 슬픔이로다.” 하였다.】

【○ 이석형(李石亨)의 시에, “일찍이 듣거니 산간(山簡)이 못에서 놀기를 좋아하였단다.¹¹⁸⁾ 이제 새 못을 보니 내 흥취가 일어난다. 바람은 연꽃을 흔들어 향기 멀리 퍼지고, 연

117) 과거에 낙방 : 용문(龍門)은 황하(黃河)가 산간 지대에서 평야 지대로 나오는 곳인데, 수세가 매우 험난하다. 잉어가 이 용문을 지나 올라가면 용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용되는 문이라 이름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과거에 합격한 것을 용문에 올랐다[登龍門]고 한다. 여기 점액용문(點額龍門)이란 말은 겨우 그 용문에 가서, 이마만 대어보고 올라가지 못하였다는 말이니, 과거를 보기만 하고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118) 산간(山簡)이……좋아하였단다 : 산간(山簡)은 진 나라 사람인데, 양양(襄陽) 땅에 살면서 못가에서 노는 것과, 술 마시기를 좋아하기로 유명하였다.

기는 버들 숲에 끼어 푸른 빛 낮추어 나직이 늘어졌다. 그윽한 회포는 변화한 땅을 저버리지 않겠건만, 장한 뜻은 어찌 늘그막에 어기어졌고, 곳곳의 누대(樓臺)에서 세월을 보내니, 가을이 온다고 어찌 송옥(宋玉)의 슬픔을 배우랴.” 하였다.】

【학교】 향교(鄕校) 【부의 서쪽 3리 되는 곳에 있다.】

【역원】 장족역(長足驛) 【부의 동쪽 30리 되는 곳에 있다.】 동화역(同化驛) 【부의 서쪽 7리 되는 곳에 있다.】 청호역(菁好驛) 【부의 동쪽 25리 되는 곳에 있다.】 도산원(島山院) 【부의 동쪽 15리 되는 곳에 있다.】 사원(蛇院) 【부의 남쪽 13리 되는 곳에 있다.】 대제원(大梯院) 【부의 남쪽 5리 되는 곳에 있다.】

【불우】 만의사(萬義寺) 【무봉산(舞鳳山)에 있다.】

【○ 신우(辛偶) 때에 우리 태조(太祖)가 의주(義州)로부터 의거(義舉)를 일으켜 회군할 때에, 중 신조(神照)가 휘하에 있으면서 큰 계책을 정하는 데 참여하였다. 공양왕(恭讓王)이 특별히 공패(功牌)를 주어서, 이 절을 맡게 하고 인하여 노비와 토지를 주어서 법손(法孫)에게 전하게 하였다. 창성사(彰聖寺) 광교산(光敎山)에 있다.】

【○ 이색(李穡)이 지은 고려 중 천희(千熙)의 비명이 있다. 반룡사(盤龍寺) 객사(客舍) 남쪽에 있다.】

【사묘】 사직단(社稷壇) 【부 서쪽에 있다.】 문묘(文廟) 【향교(鄕校)에 있다.】 성황사(城隍祠) 【부 동쪽 5리 되는 곳에 있다.】

여단(勵壇) 【부 북쪽에 있다.】

【총묘】 최상저(崔尙翥)의 묘(墓) 【홍법산(弘法山)에 있다.】 덕원군(德源君)의 묘 【부 남쪽 30리 되는 곳에 있다.】

【고적】 정송폐현(貞松廢縣) 【부 서쪽 15리 되는 곳에 있는데 옛 송산(松山)부곡(部曲)이다.】 광덕폐현(廣德廢縣) 【부 남쪽 60리 되는 곳에 있다. 위의 두 현은 고려 현종(顯宗) 9년에 와서 예속되었다.】 포내부곡(浦內彌部曲)·육내부곡(陸內彌部曲) 【모두 부 남쪽 60리 되는 곳에 있다.】 쟁홀(爭忽)부곡 【부 서쪽 30리 되는 곳에 있다.】 제촌(堤村)부곡 【부 남쪽 15리 되는 곳에 있다.】 청구(靑丘)부곡·사량(沙梁)부곡 【부 서쪽 20리 되는 곳에 있다.】 공촌(公村)부고 【부 남쪽 15리 되는 곳에 있다.】 주석향(柱石鄕) 【부 남쪽 15리 되는 곳에 있다.】 분촌향(盆村鄕) 【부 서쪽 15리 되는 곳에 있다.】 공이향(工二鄕) 【부 서쪽 30리 되는 곳에 있다.】 사정처(奢井處) 【부 남쪽 50리 되는 곳에 있다.】 금음촌처(今音村處) 【부 남쪽 30리 되는 곳에 있다.】 양간처(楊干處) 【부 남쪽 30리 되는 곳에 있다. 본래는 인주(仁州)에 속하여 있었는데, 우리 태종(太宗) 18년에 와서 예속되었다.】 삼봉처(三峯處) 【부 서쪽 60리 되는 곳에 있다.】 고등촌처(高等村處) 【부 북쪽 30리 되는 곳에 있다.】 심곡처(深谷處) 【부 서쪽 25리 되는 곳에 있다.】 유제처(楡梯處) 【부 동쪽 5리 되는 곳에 있다.】 오타장(五朶莊) 【부 남쪽 65리 되는 곳에 있다. 《고려사(高麗史)》에 영신현(永新縣)을 일명 오타(五朶)라고 하였는데 이는 틀린 것이다 영신은 지금 진위현(振威縣)에 속하였다.】 종덕장(宗德莊) 【부 남쪽 30리 되는 곳에 있다.】 신영장(新永莊) 【부 남쪽 60리 되는 곳에 있다. 처음에는 양성(陽城)에 속하여 있었는데, 우리 태조 7년에 와서 예속되었다.】

【명환】 고려 김흥조(金興祖) 【부사가 되어서 치적(治績)이 매우 드러났다.】 윤승해(尹承解) 【판관이 되었었다. 그보다 전에는 고을을 다스리는 자 중 청렴한 사람이 적어서 정치도 모두 해이해졌는데, 승해가 한결같이 법으로 다스리니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꺼리어, 감히 범하는 자가 없었다.】 신안지(愼安之) 【송(宋) 나라 개봉부(開封府) 사람인데, 아비 수(脩)

가 문종(文宗) 때에 바다의 배를 따라왔다. 안지(安之)는 예종(睿宗) 때에 벼슬하여, 나와서 지수주사(知水州事)가 되었다. 정사를 하는 것이 청렴하고 엄숙하여, 아전이 두려워하고 백성이 편안하였다.】 전신(全信) 【부사가 되었었는데 갈려간 뒤에 백성들이 오래도록 생각하였다.】 이성(李晟) 【사록(司錄)이 되었다.】 김정순(金正純) 【예종(睿宗) 때에 지주(知州)가 되었는데, 본래 행정의 사무에는 익지 못하여 장부와 문서에 관한 것으로, 개의(介意)하지 않고 다만 대체만 살폈으나 실무가 잘못됨이 없었다. 이윤수(李允綏) 명종(明宗) 때의 지주사(知州事)이다.】

본조 맹사성(孟思誠) 【판관(判官)이 되었었다.】 이예손(李禮孫) 【부사가 되었다.】

『신증』 문근(文瑾)·권복(權福) 【모두 부사가 되었다.】

【인물】 고려 최자성(崔滋盛) 【과거에 올라 인종(仁宗) 때에 벼슬이 중서시랑 평장사(中書侍郎平章事)에 이르고, 개부의 동삼사(開府儀同三司)를 가하였다. 여러 번 글을 올려 치사(致仕)하였으며 시호는 충렬(忠烈)이다.】

【효자】 고려 최누백(崔婁伯) 【본래 부의 아전이다. 그의 아버지 상저(尙蓺)가 사냥하다가 호랑이에게 해를 당하였다. 누백이 그때에 나이 15세로 호랑이를 잡으려 하자 어미가 말렸다. 누백은 말하기를, “아버지의 원수를 갚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고, 곧 도끼를 메고 호랑이를 추적하니, 호랑이는 먹고 나서 배가 불러 누워 있었다. 누백이 곧 앞으로 다가가서 꾸짖기를, “너는 우리 아버지를 잡아먹었으니 나는 너를 먹어야겠다.” 하니, 호랑이가 꼬리를 흔들며 엎드리자 곧 찢어 죽이고, 배를 갈라 아버지의 뼈와 고기를 꺼내어 그릇에 담아서, 홍법산(弘法山) 서쪽에 장사지내고 드디어 시묘(侍墓) 살이를 하였다. 하루는 어렵듯이 잠이 들었는데, 그 아버지가 와서 시를 읊기를, “덤불을 헤치고 효자의 여막에 이르니, 정은 느낌이 많고 눈물은 그지없다. 흙을 저다가 날마다 무덤 위에 더하니, 그것을 아는 이는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이로다. 살아서는 봉양하고 죽어서는 무덤에서 지키니, 누가 효도가 시종(始終)이 없다 말하랴.” 하였다. 뒤에 누백이 과거에 올라 벼슬이 기거사인(起居舍人) 한림학사(翰林學士)에 이르렀다.】

『신증』 본조 최세호(崔世湖) 【어머니가 오래 병들어 앓자 다리살을 베어 약에 타서 드렸더니 곧 나았다. 지금 임금 9년에 정려(旌閭)하였다.】

한몽송(韓蒙松) 【일찍이 아버지를 따라 고기를 잡다가 아버지가 빠져 죽자, 몽송이 물에 뛰어들어 시체를 안고 나왔다. 지금 임금 22년에 정려하였다.】

【제영】 해근어만반(海近魚滿盤) 【이색(李穡)의 시에, “산이 깊으니 솔에는 연기가 뜨고, 바다가 가까우니 생선이 소반에 가득하다. 촌 송아지는 언덕 머리에 누워 있고, 들 사람은 머리에 갓이 없다.” 하였다.】 누하하화만수개(樓下荷花滿水開) 【이승인(李崇仁)의 시에, “누 밑에 연꽃이 물에 가득히 피었으니, 수성(隋城)의 6월은 정말 아름답구나.” 하였다.】 천년벽루홍망구(千年壁壘興亡久) 【김수온(金守溫)의 시에, “연못을 낀 높은 누각은 문노니 누가 지었느냐. 내가 등림(登臨)한 것이 마침 늦게 갠 때 뜰 아래는 의관(衣冠)을 갖춘 아전이 모이고, 길 옆에는 붉은 단장한 기생이 영접하구나. 천년의 성벽은 홍망이 오래이고, 만가구의 뽕나무와 삼은 정치가 태평이로다. 가장 한스럽구나. 목은(牧隱)이 일찍이 지은 기(記)가 있었는데, 옛 현판에 티끌이 끼어서 글자가 분명하지 않구나.” 하였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연혁】 고종(高宗) 32년에 군(郡)으로 고치다.

《대동지지(大東地志)》

【연혁】 중종(中宗) 30년에 복구(復舊)하였다 【선조(宣祖) 35년에 방어사(防禦使)를 겸하였다. 현종(顯宗) 9년에 별중영장(別中營將)을 겸하였다. 숙종(肅宗) 13년에 총계좌영장(摠戒左營將)을 겸하도록 고치었다. 정종(正宗) 16년에 진(鎭)을 남양(南陽)으로 옮겼다.】 정종 13년 부(府)의 화산(華山)에 있는 현릉원(縣隆院)으로 옮겼다 【즉 옛 치소(治所)이다.】 치소를 팔달산(八達山) 동쪽으로 옮겼다 【광주(廣州)의 일용(日用)·송동(松洞) 두 면(面)을 내속(來屬)시켰다.】 17년 유수부(留守府)로 승격시켰다 【사도(四都) 중의 하나이다.】

【관원】 유수(留守) 【계축년에 장용외사(壯勇外使)를 겸하였다. 임술년에 총리사(摠理使)를 겸하도록 고치었다.】 관관 【화령전령(華寧殿令)과 관성장(管城將)·총리관(摠理官)을 겸하였다.】 검률(檢律)·의학(醫學) 【각 1인.】

【토산】 쭉[艾]·감[柿] 면(綿)·마(麻)·저(楮: 종이를 만드는 닥나무)·칠(漆) 등은 전혀 없다.

【성지】 부성(府城) 【정종 18년에 둘레 4천 6백 보(步)의 성을 쌓았다. 치성(雉城)이 여덟인데 남은 팔달문(八達門), 북은 장안문(長安門), 동은 창룡문(蒼龍門), 서는 서화문(西華門)이라고 한다. 동·서·남·북에 암문(暗門)이 있고 남·북에 수문(水門)이 있다. 성 둘레에 여러 모양의 누대가 거리를 굽어보고 있는데, 모두 25개 소이다.】 독성산성(禿城山城) 【남쪽으로 30리이다. 선조 25년에 고성(古城)을 쌓았다. 정종 20년에 둘레 1천 8백 보(步)로 개축하였으며 문이 넷이다. ○ 중군(中軍)이 독성 파총(把摠)을 겸하였다. 별장 1명, 유진장(留鎭將) 1명이다. ○ 선조 35년에 부사(府使) 변응성(邊應星)이 쌓았다.】 구읍성(舊邑城) 【흙으로 쌓았는데 둘레는 4천 35보이다. 지금은 건릉(建陵)의 국내(局內)에 들어 있다.】

【산천】 건달산(建達山) 【서남(西南) 30리.】 안산(案山) 【부의 동성(東城)에 있다.】

【궁실】 행궁(行宮) 【성 안에 있다.】

【누정】 영화정(迎華亭) 【장안문(長安門) 북쪽 3리이다. 유수(留守)가 여기서 교체한다.】 향미정(杭眉亭) 【서둔제(西屯堤)의 서쪽 연안이다.】

【역참】 영화도(迎華道) 【장안문 밖이다. ○ 찰방(察訪) 1명, 총리척후장(摠理斥候將)이 겸한다. ○ 속역(屬驛) 11인.】

【진도】 계두진(鷄頭津) 【남쪽으로 80리인데, 아산(牙山)으로 통한다.】 이포진(里浦津) 【남쪽으로 70리이며 평택(平澤)으로 통한다.】 당포진(堂浦津) 【남쪽으로 90리이며 아산으로 통한다.】 대진(大津) 【서남쪽으로 1백 리이며 넓이가 10여 리인데 조세(潮勢)가 사납다. 중류(中流)에 영웅암(令翁巖)이 우뚝 서 있는데 높이는 1백 척가량 된다. 만조(滿潮) 때에 배로 건너면 홍주(洪州) 면주(沔州) 등 여러 읍으로 통하는 첩로(捷路)이다.】

【교량】 대황교(大皇橋) 【남쪽으로 15리이며 건릉(建陵)의 영내이다.】 오목천교(梧木川橋) 【대황교 동쪽에 있으며 남쪽 큰 길로 통한다.】

창고 창(倉) 4, 고(庫) 23 【성 안에 있다.】 삼창(三倉) 【용주사(龍珠寺).】 사창(四倉)·오창(五倉) 【산성(山城).】 칠창(七倉) 【청룡(靑龍).】 육창(六倉) 【상홀.】 팔창(八倉) 【공향(貢鄕).】 구창(九倉) 【우정(雨井).】

【목장】 홍원곶장(洪原串場) 【서남쪽으로 80리이다.】

○ 감목관(監牧官) 양야곶장(陽也串場) 【서남쪽으로 70리이다.】

【사원】 궐리사(闕里祠) 【지평(芝坪)에 있다. 정종(正宗) 계축년에 옮겨 짓고, 어필(御筆)의 액판(額板)을 걸었다. 공자(孔子) 영정(影幀).】

○ 매곡서원(梅谷書院) 【숙종(肅宗) 갑술년에 짓고, 을해년에 사액(賜額)하였다. 송시열(宋

時烈). 경도(京都)의 문묘 편에 보라.】

○ 명고서원(明阜書院) 【서쪽 20리 송동(松洞)에 있다. 현종(顯宗) 신축년에 짓고 기유년에 사액하였다.】 조익(趙翼) 【자(字)는 비경(飛卿)이고 호는 포저(浦渚)이며 풍양(豐壤) 사람이다. 벼슬은 좌의정이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조복양(趙復陽) 【자는 중초(仲初)이며 조익의 아들이다. 벼슬은 이조 판서 전문형(典文衡)이고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조지겸(趙持謙) 【자는 광보(光甫)이고 호는 우재(迂齋)이며 조복양의 아들이다. 벼슬은 부제학이었는데 이조 판서를 추증하였다.】

능원 건릉(建陵) 【화산(花山)의 남쪽인데, 정종대왕(正宗大王)의 능이며, 기신(忌辰)은 6월 20일이고 효의왕후(孝懿王后)를 부장하였는데 기신은 3월 9일이다.】

【○ 영(令)·참봉(參奉) 각 1인.】 현릉원(顯隆園) 【영조 38년에 양주(陽州)의 배봉(拜峯)에 장사하고, 호를 격은묘(擊恩墓)라 하였는데, 정종 병신년에 영유원(永裕園)이라는 호를 드리고, 기유년에 이곳으로 원(園)을 옮기면서 지금의 호를 드렸다. 장헌세자원(莊獻世子園)인데 기신(忌辰)은 5월 21일이다. 혜빈(惠嬪) 홍씨(洪氏)을 부장하였는데 기신은 12월 23일이다.】

【○ 영(令)과 참봉(參奉)이 각 1인.】

묘전 화녕전(華寧殿) 【정종대왕의 어진을 봉안하였다. 생일과 사망일 두 번 제사하는데, 제사하는 의식은 영희전(永禧殿)과 같다.】

【관원】 영 2명 【1명은 관관이 겸한다.】 위장(衛將) 2명 【1명은 중군(中軍)이 겸한다.】 수문장 2명 【본부(本府)에서 파견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9권 경기(京畿), 수원도호부(水原都護府)>

문화/지리·경관

서해의 해안선을 기술한 것으로 수원에서 통진의 조강까지를 한 단위로 기술한 내용.

서해(西海)의 해안선(海岸線)은 남쪽으로 해남(海南)의 명양(鳴洋)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부안(扶安)에 이르기까지 북쪽을 향하다가 만경(萬頃)에서 서산(瑞山)에 이르는 사이에서는 북쪽으로 비꾸러지고, 서산에서 다시 동쪽으로 굽어서 홍주(洪州)의 대진(大津)¹¹⁹⁾에 이르렀다가 수원(水原)에서 다시 북쪽을 향하여 드디어 통진(通津)의 조강(祖江)¹²⁰⁾ 남쪽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땅끝이 바다 깊이 들어간 곳으로 말하면 해남 우수영의 등산곶(登山串)과 영광(靈光)의 망운(望雲), 무안(務安)의 해제(海際), 홍주의 흥양(興陽), 태안(泰安)의 전 군 및 안흥량(安興梁) 남북의 두 면(面), 그리고 서산의 대산곶(大山串)이다.

이유원(李裕元), <임하필기(林下筆記), 제13권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서해(西海)의 남쪽>

문화/지리·경관

1414년(태종 14) 봄 원제, 조극관, 권극화, 김돈 등이 문과에 낙방하고 수원(水原) 연정(蓮亭)에 모여 서로 위로했던 일화를 추억한 내용.

(…) ○ 갑오년 봄에, 문경공(文景公) 권제(權跽), 판서 조극관(趙克寬), 참판 권극화(權克

119) 홍주(洪州)의 대진(大津) : 아산만(牙山灣)을 말한다. 홍주의 금마천(金馬川)이 고을을 북쪽으로 관류(貫流)하여 삽교천과 합쳐져서 아산만으로 들어간다.

120) 통진(通津)의 조강(祖江) : 통진은 지금 김포의 서단(西端) 지역이고 조강은 그 북쪽을 흐르는 한강(漢江) 하류의 명칭이다.

和), 참판 김돈(金墩) 등이 모두 문과에 실패하고 수원(水原) 연정(蓮亭)에 이르렀다. 문경공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실의에 빠져 번뇌함이 이에 이르렀으니, 후일에 성공한다면 이슬비 자욱하고, 함박눈 펄펄 내리며, 밝은 달빛은 주렴으로 들어오고 연꽃 향기는 자리에 가득할 적에, 그대들과 더불어 술잔을 들고 시를 읊으면 족히 오늘의 일을 보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니, 제공들이 손뼉을 치며 말하기를, “비가 자욱하다면 눈이 펄펄 내리지 못할 것이고, 눈이 펄펄 내린다면 달이 밝지 못할 것이며, 또 연꽃 향기를 어찌 눈 가운데서 얻을 수 있으리오. 어찌 말이 서로 들어맞지 않는가.” 하였더니, 문경공은 응답이 없었다. 그해 가을 과거에 문경공은 장원이 되고, 제공들도 연달아 과거에 뽑혔다. 임자년에 문경공이 경기 감사(京畿監司)가 되자 제공들이 모여서 전별(餞別)하는데, 조(趙) 판서가 술잔을 들고 말하기를, “수원 눈 속의 연꽃을 이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니, 문경공이 웃으며 말하기를, “자네들과 함께 보려고 하였네.” 하였다. 몇 달이 안 되어 조공이 수원 부사(水原府使)가 되었을 때, 문경공이 그 고을에 순행하니, 조공이 예를 행하고 자리에 나갔는데 때마침 연꽃이 한창이었으므로 서로 보고 웃었다. 문경공이 시를 지었는데,

비와 눈 흩날리는데 달빛은 밝고 / 雨雪霏霏月政明

연꽃의 맑은 향기 정자에 가득하네 / 荷香荏苒滿亭清

당시의 이런 말 신비로워라 / 當時此說神應秘

20년 전에 이 일이 이미 이루어졌도다 / 二十年前事已成

하였다. (…)

(…) 甲午春權文景公蹠.趙判書克寬.權參判克和.金參判墩俱失志禮闈.抵水原蓮亭.文景曰.吾輩眺睺落魄至此.他日得意.細雨濛濛.雨雪霏霏.明月八簾.荷香滿座.與二三子相與觴詠.亦足賞今日之行矣.諸公抵掌曰.雨既濛濛.雪不當霏霏.雪既霏霏.月不當明.荷香又豈雪中得乎.何言之不倫也.文景無以應.是年秋榜.文景居大魁.諸公相繼擢第.壬子文景爲京畿監司諸公會餞.趙執謏言曰.水州雪中荷花.今可賞矣.文景笑曰.欲與君共耳.不數月趙出宰是府.文景巡臨.趙行禮詣就座.適荷花盛開.相目而笑.文景有詩曰.雨雪霏霏月政明.荷香荏苒滿亭清.當時此說神應秘.二十年前事已成.(…)

서거정(徐居正), <필원잡기(筆苑雜記), 제1권>

문화/지리·경관

제소남(齊召南)의 『수도제강(水道提綱)』에서 조선의 지리에 대해 언급한 것 가운데 수원 일대를 언급한 부분.

여기에서 또다시 동북쪽으로 가면 단산성(端山城) 【삼가 살펴보건대, 바로 서산성(瑞山城)의 잘못된 표기이다.】 의 산 북쪽으로 지나는데, 조금 동쪽에 수구가 있으며, 수구의 서쪽이 바로 대부도(大富島)이다. 【물은 동쪽에 있는 청주(淸州)의 서쪽 큰 산에서 나오며, 전의(全義)의 동북쪽에 이르러서 서북쪽으로 흘러 천안성(天安城)의 동북쪽 경계를 경유한 다음 동북쪽에서 흘러온 물과 합류한다. 여기에서 다시 서쪽으로 흘러 안성(安城)과 양성(陽城)의 남쪽 경계를 지나고 또다시 서북쪽으로 흘러 직산성(稷山城)의 서북쪽 경계를 지나는데, 이곳에서 동남쪽에 있는 차현산(車見山)에서 나와 서북쪽으로 흘러오는 물과 합류한다. 여기에서 또다시 서쪽으로 흘러 진위(振威)의 남쪽과 평택(平澤)의 북쪽을 지난 다음 또 서북쪽으로 흐른다. 여기에서 북쪽에 있는 금천성(衿川城) 동북쪽의 관악산(冠岳山)에서 나와 서남쪽으로 흘러오는 물과 합류한다. 여기에서 또다시 서남쪽으로 흐르다가 꺾어져서 서쪽으로 흘러 수원성(水原城)의 남쪽, 아산성(牙山城)의 북쪽을 지난다. 여기에서 또다시 서북

쪽으로 흐르면서 남쪽에서 흘러온 물과 합류한다. 여기에서 또다시 서남쪽으로 흘러 부평성(富平城)의 북쪽 경계를 지난다. 여기에서 서쪽에서 조금 북쪽으로부터 흘러오는 물이 합류하는데, 이 물은 동남쪽에 있는 신창(新昌)의 남쪽 산에서 나와 서북쪽으로 흘러 예산성(禮山城)의 북쪽 경계를 지나면서 서남쪽에 있는 가야산(加邪山)에서 흘러온 물과 만난 다음 또다시 서북쪽으로 흘러 덕산성(德山城)의 북쪽 경계를 지나면서 서남쪽에서 흘러온 한 물과 합류하여서 다시 서북쪽으로 흐르면서 아산성의 서쪽, 면천성(沔川城)의 동북쪽을 지나 흘러오는 물과 이곳에서 합류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또다시 서쪽으로 흘러 면천성의 북쪽 경계를 지나고 또다시 서쪽에서 조금 북쪽으로 굽이굽이 흘러 남양성(南陽城)의 남쪽, 당진성(唐津城)의 북쪽을 지나 또다시 서쪽으로 흘러 수성의 남쪽에 이르러서 서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이 물은 발원지에서부터 500여 리를 흐른다. ○ 삼가 살펴보건대, 경기와 호서(湖西) 두 도가 나뉘는 경계의 대진(大津)은 그 근원이 세 개가 있다. 하나는 선원천(禪院川)으로 양지현(陽智縣) 곡돈현(曲頓峴)에서 나오고, 하나는 돈곶진(頓串津)으로 청양현(靑陽縣) 백월산(白月山)에서 나오고, 하나는 미륵천(彌勒川)으로 공주(公州)의 차현(車峴)에서 나온다. 선원천은 서남쪽으로 흘러 소사(素沙)의 들판에 이르러서 왼쪽에서 흘러오는 아주천(牙洲川)의 물과 합류하고, 또다시 서쪽으로 흘러 오른쪽에서 흘러오는 항곶천(亢串川)의 물과 합류한 다음 평택현의 북쪽을 지나 서쪽으로 흘러 공진포(貢津浦)에 이른다. 돈곶진은 남쪽으로 금마천(金馬川), 미륵천(彌勒川), 승선천(昇仙川) 등 여러 물과 합류하여 아산(牙山)과 면천(沔川) 두 현의 사이로부터 오는 물과 합류하여 대진(大津)이 되어서 또다시 서쪽으로 당진현의 북쪽을 지나 서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수도제강》에서 이른 바 근원이 청주(淸州)의 서쪽 산에서 나온다고 한 것은 아주천을 가리키는 듯하다. 또 흘러가다가 천안성(天安城)의 경계를 지나서 동북쪽에서 흘러온 한 물과 만난다고 한 것은 바로 선원천이다. 또 차현산(車見山)에서부터 흘러오는 물이 있어서 합류한다고 한 것은 바로 미륵천이다. 차현산은 바로 차현(車峴)의 글자가 잘못된 것이다. 또 한 물이 관악산으로부터 흘러와서 합류한다고 한 것은 바로 항곶천으로, 그 근원이 수원부의 광교산(光敎山)에서 나오느바, 관악산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였으니, 잘못된 것이다. 또 신창(新昌)의 남쪽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어서 예산의 북쪽 경계를 지난다고 한 것은 바로 돈곶진이다. 또 가야산에서 흘러나오는 한 물이 있어서 합류한다고 한 것은 바로 금마천으로, 그 근원이 홍주(洪州)의 오서산(烏棲山)에서 나오느바, 가야산에서 나온다고 하였으니, 역시 잘못된 것이다. 또 덕산의 경계를 지나서 서남쪽에서 흘러온 한 물과 합류한다고 한 것은 바로 승선천이다. ○ 수구에서 정서쪽으로 바다에 있는 섬이 대부도인데, 섬의 모양새는 둥글고, 둘레가 50여 리 된다. 동북쪽으로 수성 해안과의 거리가 40리이다.】 ○ 바다는, 수구가 있는 수성(水城)【삼가 살펴보건대, 바로 수원부이다.】 서쪽으로부터 또다시 꺾어져서 동북쪽으로 가면 인천성(仁川城)의 북쪽을 지난다. 여기에서 조금 동쪽에 조선의 대수구(大水口)가 있는데, 이는 큰 하천이다.【삼가 살펴보건대, 바로 한강(漢江)이다. 한강조에 상세하게 실려 있다.】 수구의 동남쪽 바다에 대부도(大富島)가 있으며, 수구의 정서쪽에서 약간 북쪽에 정포(井浦)가 있는데, 큰 섬으로 둘레가 200리이며, 가운데에 강화성(江華城)이 있다. 한치윤(韓致淵), <해동역사(海東繹史), 속집 제14권 지리고(地理考) 14, 산수(山水) 2【경내(境內)의 수(水)】>

문화/지리·경관

『대청일통지』의 내용을 전제한 것으로, 한양 및 경기의 관할 지역을 언급한 내용.

(…) ○ 가운데는 경기(京畿)라고 한다. 《대청일통지》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조선 경기의 치소(治所)는 국성(國城)으로, 조선의 도읍지이다. 한성(漢城)이라고도 한다.
 명(明)나라 초기에 고려 왕이 개주(開州)에서 이곳으로 옮겨 왔다. 7도의 가운데에 있으므로 사새(四塞)라고 칭한다. 관할하는 군이 3개로 양근군(楊根郡), 풍덕군(豐德郡), 수성군(水城郡) 【삼가 살펴보건대, 바로 수원부(水原府)의 옛 호칭이다.】 이고, 부가 3개로 한성부(漢城府), 개성부(開城府), 장단부(長湍府)이고, (…)
 한치윤(韓致淵), <해동역사(海東譯史), 속집 제12권 지리고(地理考) 12, 조선(朝鮮)>

문화/지리·경관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수원(水原) 등 10개 고을을 고구려의 지역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

(…) 진서가 삼가 살펴보건대, 웅진은 바로 공주이고, 소해(小海)는 바로 당진(唐津) 앞바다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고구려 강역총론조에 나온다.】 공주는 당진의 남쪽에 있으므로 소해의 남쪽에 있다고 한 것이다. 이 당시에 한성이 비록 고구려에게 함락당하였으나, 지금의 광주는 오히려 백제의 관할지였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강역은 일찍이 한수 남쪽의 지역을 한 발자국도 넘어오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김부식이 지은 《삼국사기》 지리지에서는 지금의 수원(水原) 등 10개 고을을 본디 고구려의 지역이라고 하였으니,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신라조(新羅條)에 상세하게 나온다.】 (…)

한치윤(韓致淵), <해동역사(海東譯史), 속집 제8권 지리고(地理考) 8, 백제(百濟)>

문화/지리·경관

김부식이 한수 남쪽의 수원(水原) 등 10개 고을이 한주에 예속되어 있다는 것으로 고구려 지역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는 내용.

(…) 대개 신라가 9개 주를 나누어 설치하고서는 세 주가 관할하는 바가 대부분 고구려의 남쪽 경계 지역임을 범범하게 말한 것인데, 김부식(金富軾)이 이를 제대로 고찰하지 않고서 마침내 세 주의 관내를 모두 고구려 지역이라고 한 것이다. 이에 영남의 순흥(順興) 등 9개 고을이 명주에 예속되어 있자, 이곳을 그대로 고구려 지역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한수 남쪽의 수원(水原) 등 10개 고을이 한주에 예속되어 있자, 이곳을 그대로 고구려 지역이라고 하였다. 고구려의 경계는 본디 한수 남쪽을 넘어오지 않았는데, 더구나 조령의 남쪽이겠는가. (…)

한치윤(韓致淵), <해동역사(海東譯史), 속집 제7권 지리고(地理考) 7신라(新羅) 강역총론(疆域總論)>

문화/지리·경관

조선초기 권제 등이 과거에 낙방하고 수원(水原)의 연정(蓮亭)에서 결의를 다졌다는 내용.

(…) ○ 지재 권제와 판서 조극관(趙克寬)과 참판 권극화(權克和)가 처음에 모두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고 수원(水原)의 연정(蓮亭)에 이르러, 권제가 이르기를, “뒋날 뜻을 얻으면, 가랑비 뭉뭉(濛濛) 가랑비 뽀오양게 오는 모양)하고 비와 눈이 많이 내리며, 밝은 달 발[簾]에 들고 연꽃 향기 자리에 가득한 데에서 서로 술잔 권하고 읊으리니, 또한 충분히 오늘의 이 걸음을 보상할 수 있으리라.” 하니, 여러 공이 웃으며, “비가 내리면 눈이 많이 내릴 수 없고, 눈이 많이 내리면 달이 밝을 수 없거니와, 연꽃이 어찌 눈 가운데 있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

(…) 權止齋謁趙判書克寬權參判克和. 初俱失志. 抵水原蓮亭. 權曰. 他日得志. 細雨濛濛. 雨雪霏霏. 明月入簾. 荷香滿座. 相與觴詠. 亦足償今日之行. 諸公笑曰. 雨既濛濛. 雪不當霏霏. 雪既霏霏. 月不當明. 荷香豈雪中得乎. (…)

권별(權鼈), <해동잡록(海東雜錄), 6, 권謁>

문화/지리·경관

화성부의 지리 고증

○ 화성부(華城府) : 【성이 있다.】 고구려 때의 매홀군(買忽郡)이요, 신라 때의 수성(水城)이니, 고려 태조가 승격시켜 수주(水州)라 하였고, 뒤에 수원으로 고쳤다. ○ 한남(漢南) : 수성(隋城)이라고도 부른다. 【52면(面)이며, 서울과의 거리는 88리이다. 옛날 송수부곡(松水部曲)이다.】 ○ 정송(貞松)과 광덕(廣德)은 폐현이다. (…)

이공익(李肯翊),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별집 제16권 지리전고(地理典故), 주(州)와 군(郡)>

(4) 예술

문화/예술

현종, 철종, 고종의 갱시를 소개한 내용.

현종조의 청선시(聽蟬詩)와 철종조의 춘화시(春和詩), 소유재시(小酉齋詩), 미로한정시(未老閑亭詩), 사직기곡제시(社稷祈穀祭詩), 봉모당시(奉謨堂詩), 대보단시(大報壇詩), 화성순성시(華城巡城詩)와 당저조의 수원행궁시(水原行宮詩), 옥당정원내각시(玉堂政院內閣詩)에 모두 회답하여 지어 올렸다.

이유원(李裕元), <임하필기(林下筆記)>, 제26권 춘명일사(春明逸史), 삼조(三朝)의 갱시(賡詩)>

문화/예술

정조가 김홍도에게 금계화병을 그리게 하고 화성행궁에 두도록 했던 고사를 기록한 내용.

왜인은 그림을 잘 그린다. 단풍나무 아래에 황국(黃菊)이 흐드러지게 피었는데 그 사이에 난과 대나무가 있으며, 돌 위에서 금계(金鷄)가 새벽을 알리고, 바다 풍경이 어렴풋이 보이니, 과연 명화(名畫)이다. 정묘조(正廟朝)에 김홍도(金弘道)에게 한 본을 모사하도록 명하여 화성(華城)의 행궁(行宮)에 두었다. 그림의 뜻은 악부(樂府)의 황계곡(黃鷄曲)에서 얻은 듯하다.

이유원(李裕元), <임하필기(林下筆記)>, 제30권 춘명일사(春明逸史), 금계 화병(金鷄畫屏)>

문화/예술

이유원이 조윤형의 묘지명을 다시 쓰면서 현릉원지문을 다시 쓴 일 등을 추가로 기록하였다는 내용.

송하(松下) 조윤형(曹允亨)이 일찍이 어전(御前)에서 화성(華城) 장안문(長安門) 등의 편액(扁額)을 썼는데, 먹이 옷소매를 적시자 정묘(正廟)가 옷을 띠에 꽂도록 명하였다. 또 춘축(春祝)을 여러 본 쓰도록 명하여 새겨 내각(內閣)에 두었다. 이런 사실은 모두 완구(宛丘) 신대우(申大羽)가 지은 공의 묘지명에 실려 있다. 후손이 나에게 다시 지어 줄 것을 부탁하였으므로, 먼저 공이 현릉원지문(顯陵園誌文)을 써 들인 일을 말하고, 다음에 《춘추(春秋)》의 자본(字本)을 써 올린 것을 말하였다. 그 당시 원지(園誌)는 몇 자씩 여러 번 써넣어 합하여 한 본을 만들었으므로 외인들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대서특필해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공은 문장으로써 세상에 이름났을 뿐만 아니라 봉양(捧陽) 한 가지 일은 사실을 근거하여 입론(立論)한 것이니, 둘 다 잘했다고 할 수 있다.

이유원(李裕元), <임하필기(林下筆記)>, 제30권 춘명일사(春明逸史), 묘지명(墓誌銘)을 고쳐 지은 일>

문화/예술

정조의 명으로 화성행궁 장남헌 벽에 쓴 조윤형의 글씨의 솜씨

장남헌(壯南軒)의 방 벽에 초서로 쓴 큰 글씨가 있는데, 바로 송하(松下) 조윤형(曹允亨)이 쓴 것이다. 그 글은 “늙기 전에 한가로움을 얻으니 바로 이것이 한가로움이네.[未老得閒方是閒]”이다. 정묘가 벽에 쓰도록 명한 것이고, 별도의 종이에 쓴 것은 아니다. 수리할 때 이 글씨를 고치지 않아 지금까지도 묵광(墨光)이 넘쳐흐르고 도깨비들이 근접하지 못하니, 아마

도 조물주의 솜씨를 능가하는가 보다.

이유원(李裕元), <임하필기(林下筆記), 제30권 춘명일사(春明逸史), 화성(華城) 행궁의 벽서(壁書)>

II. 수원(水原) | 문집

1. 정치(政治)

(1) 왕실

정치/왕실

효종이 승하하자 수원(水原)에 길지(吉地)를 잡게 되다.

(…) 이듬해 효종이 승하하자 좌상 심지원(沈之源)이 상에게 아뢰어 공을 불러서 산릉(山陵)의 일을 논의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수원(水原)에 길지(吉地)를 잡게 되자, 송시열과 송준길이 화를 내며, “산릉의 터를 잡는 일은 국가의 대사이니 윤선도의 말만을 전적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 하여 마침내 산릉 터를 다시 잡는 일이 발생하였다. (…)

(…) 明年.孝宗登遐.左相沈之源啓上.召議山陵事.既卜吉於水原.而時烈, 浚吉怒曰.卜山大事.不可專聽於善道.遂有改卜之事.(…)

허목(許穆), <기언(記言), 별집 제25권 구묘문(丘墓文), 海翁尹參議碑>

정치/왕실

송준길이 수원 신릉(水原新陵)의 역사를 우선 정지하기를 청하는 소

삼가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국사에 우려스러운 일이 수없이 많으므로 신은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새벽부터 아침까지 속을 끓였습니다. 이에 염려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한 번 성상께 진달하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진달하는 바이니,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화평한 심기로 살펴 주소서.

오늘날 막중한 일 중에 어찌 산릉보다 더한 것이 있겠습니까. 성상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듯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날로 더욱 번민하고 있습니다. 신이 상고해 보건대, 옛날의 제왕들은 큰일을 당하여 큰 의심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귀책(龜策 복서(卜筮))에 묻고 경(卿), 사서인(士庶人)에게 물어서, 반드시 다 함께 길하다고 한 뒤에 그 일을 결정해 실행했으므로 후회스러운 일이 없었습니다. 후세에는 귀책의 법이 전해지지 않고 오직 경, 사서인만이 있을 뿐이니, 이들에게 물어 모두 의견이 같으면 이것이 바로 다 함께 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위로 대신과 중신, 삼사의 관원에서부터 아래로 민간의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투어 소장을 올리며 모두 불평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일 만들기를 좋아하고 경쟁하기를 좋아해서 그런 것이겠으며, 또 어찌 사소한 민폐 때문에 그런 것이겠으며, 또 어찌 국가에 대한 정성이 부족하여 일부러 대사를 그르치게 하기 위해 그런 것이겠습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대체로 전후에 진언한 신하는 모두 선조(先朝)의 구신(舊臣)들로, 먼 앞날을 우려하는 깊은 생각과 지성스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국가 대사를 아주 안전하고 위험이 없게 하고자 한 것이니, 그 마음이 진실로 존경하고 칭찬할 만합니다. 설령 그들의 말이 사리에 맞지 않아 다 따를 만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전하께서는 너그럽게 용서하고 곡절을 진술하여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을 알려 주어 중외 신민들의 기대하는 마음을 위로해야 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전하께서는 조언을 구하고 좋은 말에 감사를 표하는 도리에 극진하지 못함이 있으시어, 혹은 알았다고 비답하기도 하고 혹은 상소를 들이지 말라고 분부하기도 하셨으니, 온당치 못함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이상진, 유계(兪槩) 등에게 명하여

다시 여러 산을 살피게 하셨으니, 이에서 또 전하께서는 마음을 비워 모두를 받아들이시고 일찍이 한쪽으로 치우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한편으로는 산릉 자리를 다시 살피 정하게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역사를 시작하게 하십니까. 총호 대신(摠護大臣)이 우선 역사를 정지하라고 청하는데도 오히려 윤택하지 않으시니, 그럴 바에야 애당초 무엇 때문에 다시 살피도록 하셨습니까. 전하께서 성심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또 성심으로 신하를 대우하지 않는 것이 심하시다는 것을 이에서 알겠습니다. 전하께서 처음 즉위하셨을 때 모든 사람이 기뻐하며 우리러 기대했는데, 요 며칠 사이에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풀이 죽어 모두 우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니, 이대로 간다면 머지않아서 기뻐하고 경축하던 마음이 수심과 원망으로 변할 것입니다. 인심의 향배와 천명의 길흉이 매인 바이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또 생각건대, 전하의 춘추가 아직 장성하지 않았고 즉위하신 지가 오래지 않은데도 이런 큰 일을 당하여 확고히 흔들리지 않으심이 이와 같으니, 신은 진실로 기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전하께서 고집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어서 흔들리는 바가 없다면 좋지 않겠습니까마는, 만약 그렇지 못하는데도 원로 중신과 학사 대부들의 의론을 한결같이 모두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후일에 국사가 어떤 지경에 이를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점이 바로 먼 앞날을 염려하는 근심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전하께서 학문과 격치(格致)를 급선무로 삼아 이치가 궁구되지 않은 것이 없고 밝음이 비추지 않는 곳이 없어서 시비의 소재를 참으로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까닭입니다. 그런 뒤에 굳게 지켜 흔들리지 않는다면 요순(堯舜)의 정일(精一)의 도도 이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하의 학문의 공력이 아직 지극하지 못하여 천하의 이치에 완전히 밝지 못하시니, 비록 작은 일이라도 세밀히 살피 처리해야 하는데, 더구나 막중한 이 산릉의 일이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잘못된다면 후회해도 미칠 수 없으니, 군신 상하가 합심 협력하여, 반드시 지극히 온당하게 되기를 구하고 한갓 선입견만을 주장하지 말아서, 주자(朱子)의 “윤통성 없이 고집하여 일을 그르친다.” 라는 비난에서 면하는 것이 바로 스스로 도리를 다하기를 꾀하여 선왕께 공헌하는 길입니다.

신은 바라건대, 우선 산릉의 역사를 정지하고, 이상진 등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들의 말을 들어본 뒤에 대신들로 하여금 회의하여 공평한 마음으로 헤아리고 반복해 깊이 토론하여 그 취사를 결정하되, 천의(天意)와 인사(人事)에 부합하기를 힘쓰도록 하여 근심하고 탄식하는 중외 신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 주게 하시면 국사와 군덕(君德)에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伏以今日國事.憂虞萬端.臣夜不能寐.終朝煎念.愚衷耿耿.不得不一陳於嚴廬之下.伏願聖明試和氣平心以察焉.方今莫重莫大之事.豈有踰於山陵者哉.聖心雖似已定.而群情日益悶鬱.竊見古昔帝王遇大事決大疑.必謀及龜策.謀及卿士庶人.必皆協吉.然後其所作爲.方可無悔吝矣.後世龜策之法不傳.惟有卿士庶人詢謀僉同.是爲協吉.而今則不然.上自大臣重臣三司之官.閭巷之人.爭進疏章.俱懷不平.此豈喜事好勝而然.亦豈但爲區區民弊而然.亦豈誠薄於國家.故令大事差誤而然耶.是必有其故矣.蓋前後進言之臣皆先朝耆舊.深憂長慮.至誠惻怛.必欲使國家大事萬全而無危.其心誠可敬而可賞.設使其言不中.不可盡從.而殿下亦當優容假借.開陳曲折.示之以不得已之故.以慰中外臣民之望.而惜乎殿下於乞言拜言之道.猶有所未盡.或批以知道.或教以勿入.其未安已甚.而旋命李尙眞.兪榮等更審諸山.則又可見殿下虛心翕受.曾無一偏之倚矣.奈之何一邊更審.一邊始役.摠護大臣.請姑停役.而猶不允許.若爾則初何必更審爲哉.殿下之不以誠信處事.又不以誠信遇下.至是而抑又甚矣.殿下嗣服之初.群情胥悅.萬目咸覩.而一兩日來.衆心沮喪.皆懷憂懼.率是以往.幾何而不變歡慶爲愁冤耶.人心之向背.天命之吉凶係焉.非細故也.仰惟殿下春秋未盛.臨御未

久.而遇此大事.確然不撓如此.臣誠且喜且憂.蓋其所執果是而無所撓也.豈非善之善者.如其未然.而元老重臣學士大夫之論.一併揮斥.不許聽納.則異時國事.誠不知稅駕之所.此臣之所以長慮遠憂.赤心耿耿.必願殿下以學問爲急.格致爲先.理無不窮.明無不照.眞知是非之所在.然後有所執而不撓.則堯舜精一執中之道.亦不外是矣.今殿下學問之功.或有所未盡其極.而天下事理.或有所未盡其明則.雖小事細務.亦當審察而精處之.況此山陵莫重莫大之事.一有差誤.後悔莫追.正宜君臣上下協心和衷.必求至當之歸.毋徒以先入爲主.免得朱夫子膠固謬妄之譏.乃是自靖自獻之地.臣願姑停山陵之役.待尙眞等還.聽其論說.然後使諸大臣會議.平心商量.反覆熟講.以定其取舍.而務合於天意.宜於人事.使中外臣民.釋然無鬱拂憂歎之懷.國事幸甚.君德幸甚.

송준길(宋浚吉), <동춘당집(同春堂集)>, 제3권 소차(疏筭), 請姑停水原新陵役事劄【己亥六月】>

정치/왕실

1659년(효종10) 7월 효종의 능침을 수원(水原)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

(…) 수원(水原)의 산이 비록 인사(人事)에 불편하다 하더라도 달리 합당한 자리가 없으면 그냥 그 자리를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얻은 건원릉(健元陵) 도국내(都局內) 건좌(乾坐)의 언덕을 중론이 모두 수원보다 훨씬 낫다고 하니, 무엇 때문에 십분 편의(便宜)한 자리를 버리고서 굳이 수원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까. 윤강(尹絳), 이상진(李尙眞), 유계(兪槩) 등은 신하들 중에서 평소 방술(方術)을 잘 아는 사람으로 칭해졌고, 또 그들이 충성스럽고 소박 성실하여 믿을 만하다는 것은 성상께서도 이미 통촉하신 바이니, 이 세 신하가 어찌 전하를 속이고 선왕을 저버리겠습니까. 신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심기(心氣)를 화평히 하시어 선입견을 주장하지 마시고 세 신하의 말을 믿고서 대사(大事)를 결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 水原之山.雖云人事不便.若他無可合之地.則固不得不用.今得健元陵內乾坐之岡.衆論皆以爲大勝於水原云爾.則何必捨十全便宜之地.而強取水原爲哉.如尹絳,李尙眞,兪槩.於諸臣中素稱曉解方術.而其忠朴可信.亦聖明之所已洞燭.此三臣者.豈欺聖明而負先王者哉.臣願殿下平心和氣.毋主先入.信用三臣之論.以決大事.不勝區區之望.(…)

송준길(宋浚吉), <동춘당집(同春堂集)>, 제8권 계사(啓辭), 論山陵事啓 己亥七月>

정치/왕실

1668년(현종 9) 상이 세자가 병이 났다는 기별을 듣고 하루 만에 수원까지 달려가고자 하였다는 내용.

(…) ○ 9월 기해일(3일)에 온천 행궁에 가니, 즉시 사대(賜對)하였다. (…) 선생이 애써 해직해 줄 것을 청하고 이어 아뢰기를, “신이 나아와 뵈 때마다 궁가의 폐단을 말씀드리는 것은 신이 어찌 궁가에 쌓인 원한과 깊은 분노가 있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일심으로 전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자에 듣건대 전주(全州)의 만마(萬麻)와 이성(利城) 등의 토지를 궁가가 모두 빼앗아 왕실의 조상이 태어나신 고장의 유민(遺民)들로 하여금 원망이 끝이 없게 하였다고 하니, 신은 전하를 위해 애석하게 여깁니다. 더구나 이성의 경우는 소송이 아직 판결 나지도 않았는데, 내수사(內需司) 사람이 공공연히 ‘성상의 전지(傳旨)가 이러이러하다.’라고 한다고 하니, 듣는 사람들이 매우 해괴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가법(家法)이 조금 있는 사대부들도 오히려 어린아이를 위해 산업을 경영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데 밝으신 전하께서 어찌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계해 가르치는 말은 내

깊이 생각하겠다.” 하였다. 이때 상이 세자가 병이 났다는 기별을 듣고 하루 만에 수원(水原)까지 달려가고자 하니, 선생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세자를 염려하시어 빨리 달려 환궁 하려고만 하시고, 어찌하여 자전께서 전하를 걱정하시는 마음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니, 상이 옳게 여겼다. (…)

송준길(宋浚吉), <동춘당집(同春堂集)>, 속집 제10권 부록5 연보, 무신(1668) 승정 41년(현종9)>

정치/왕실

효종의 산릉(山陵)에 대해 수원이 관방 지역인데 관방을 철거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

(…) ○ 을사일(16일)에 명을 받고 입시하였다. 이날 대신과 모든 재신(宰臣)도 함께 들어가서 산릉(山陵)의 일을 논하였다. 상이 “수원(水原)이 가까워 편리하다.”라고 하니, 우암이 아뢰기를, “수원은 300년 동안 이어 온 관방(關防)의 중요한 지역인데 하루아침에 그 관방을 철거하는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하였다. 선생이 아뢰기를, “길하고 편리한 두 가지를 겸한 자리는 얻기가 어렵습니다. 홍제동(弘濟洞)이 순길(純吉)하다 하니 관방을 헐어 가면서까지 쓸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하고 이어 합계(合啓)한 일을 진달하니, 상이 의관 등은 사형을 감하여 극변(極邊)으로 정배(定配)하고, 제조 이하는 삭탈관작(削奪官爵) 하라고 명하였다. 상이 선생과 우암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이르기를, “하늘이 흑독한 화를 내려 마침내 선왕께서 승하하시는 데에 이르렀다. 매양 경들이 전일에 출입하던 때를 생각할 때마다 애통한 마음이 더해지는 나의 심정을 경들은 알 것이다. 오늘 경들을 믿는 나의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나의 부족한 점을 경들은 마음을 다해 바로잡아 구제하기 바란다.” 하였다. (…)

송준길(宋浚吉), <동춘당집(同春堂集)>, 속집 제8권 부록3 연보, 기해(1659) 승정 32년(효종10)>

정치/왕실

송준길이 민지숙에게 보낸 편지로 수원이나 상촌(霜村)으로 가서 상소할 예정이라는 내용.

(…) 바야흐로 윤선도(尹善道)가 소(疏)를 올려 나를 죄에 얹어 넣으려는 이때에 이해를 돌아보지 않고 무턱대고 올라가는 것은 단지 성상께서 편찮으시기 때문이네. 만약 성상께서 쾌차하여 편안하시다면 혐의를 받는 처지임을 돌아보지 않고서 무턱대고 올라가는 것이 어찌 매우 염치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중도에서 발길을 돌려 돌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 같네. 어찌 생각하시는가? 이에 연기에서 심부름꾼 하나를 구해 편지를 들려 보내어, 먼저 그대에게 알리는 바이니 부디 형세를 잘 헤아려 알려 주기 바라네.

윤선도가 비록 소를 다시 올리지 않았더라도 성상의 체후가 이미 평안해지셨으면 틀림없이 대론(臺論)이 시끄럽게 일어났을 것 같은데, 대론이 일어났는지의 여부를 모르겠네. 과연 대론이 일어났다면 나의 형편이 더욱 난처하니, 걸음을 멈추지는 않더라도 수원(水原)이나 혹은 상촌(霜村)에 도착하여 상소하고서 비답을 기다린 뒤에 들어갈 것도 생각하고 있네.

송준길(宋浚吉), <동춘당집(同春堂集)>, 속집 제3권 서(書), 민지숙에게 줌>

정치/왕실

1668년(현종 9) 9월 거가가 서둘러 출발하여 수원까지 가서 묵으신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

(…) 성상이 이르기를, “한 번 만나고 헤어지는 것은 도리어 무익(無益)함이 된다. 세자가 경을 그리워하여 간혹 만나기를 원한다는 말을 할 때가 있으니, 경이 만약 올라간다면 세자가 심성을 수양하고 인격을 도야하는 데 반드시 도움 되는 바가 많을 것이다. 또 우상(右相 송시열)과 합심해 세자를 돕는다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거가가 내일 출발해 수원(水原)까지 가서 묵으신다고 하니, 군왕의 행차는 이처럼 빨리 달려서는 안 됩니다. 또 목욕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서둘러 먼 길을 가신다면 병을 조심하는 도리에 해가 될 듯합니다.” 하니, 성상이 이르기를, “근자에 세자의 병으로 인해 자전께서 밤낮으로 걱정하고 계시니, 빨리 돌아가 자전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해서이다.” 하였다. (…)

송준길(宋浚吉), <동춘당집(同春堂集), 별집 제5권, 경연일기(經筵日記)¹²¹⁾, 무신년(1668, 현종9) 9월 3일>

정치/왕실

송준길의 효종 산릉(山陵)에 대한 의견으로 수원보다 홍제동이 좋겠다는 내용.

(…) 인견하였다. 이때 심지원이 아뢰기를, “산릉(山陵)은 수원(水原)과 홍제동(弘濟洞) 두 곳 중에서 골라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이 재차 가서 살펴본 뒤에 성상께 아뢰어 분부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지금 대신이 다 입시하였으니 이 자리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송준길은 아뢰기를, “홍제동은 옛날부터 술사(術士)들이 모두 칭찬한 자리인데 윤강(尹絳)만이 홀로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 마음은 성실하다 할 수 있으나 술업(術業)은 반드시 지리(地理)를 전공한 지사(地師)보다 우수하지 못합니다.” 하고, 송시열은 아뢰기를, “한 사람이 헐뜯는다 하여 많은 사람이 칭찬하는 자리를 버릴 수 없습니다. 더구나 수원은 관방(關防)의 요충지인데 하루아침에 그 관방을 철거하는 것은 선왕의 뜻이 아닐 듯합니다.” 하였다. (…)

송준길(宋浚吉), <동춘당집(同春堂集), 별집 제3권 경연일기(經筵日記)¹²²⁾, 기해년(1659, 효종 16) 6월 16일>

정치/왕실

1665년(현종 6) 송준길이 김백옥에게 답한 편지로 현종이 하루 만에 수원에서 환궁하였다는 내용.

(…) 성상의 체후가 점차 회복되어 수성(隋城: 수원(水原)의 옛 이름)으로부터 하루 만에 환궁(還宮)하셨는데, 환궁하시자마자 오늘밤에 단비가 크게 내렸으니, 여기에서 하늘의 마음을 볼 수 있네. 기쁘고 경사스러운 마음을 어찌 필찰로 형언할 수 있겠는가. 나는 분수를 지키다가 죽는 것이 평소의 마음이었으나, 소(疏)가 들어가자 밤중에 특별히 수교(手敕)를 내리시고 사관(史官)과 태의(太醫)가 밤새워 달려올 줄은 생각지 못했네. 수교의 간절한 말씀이 실로 보통이 아니시니, 신하의 분의(分義)로 볼 때 어찌 감히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늘 다시 몸을 조리(調理)하고서 내일은 명을 받들어 북쪽을 향해 출발할 생각이네. 이번 걸음에 대한 많은 근심과 고민을 영감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네. 이만 줄이네.

(…) 玉候漸向穌健.自隋城一日而還宮.纔還宮而今夜時雨大霑.天心大可見.歡慶豈可以筆札形說.僕守分歸盡素心然也.不料疏入半夜.特下手敕.史官太醫.連宵馳至.辭旨之懇.實非尋常.人臣分

121) 을사년(1665, 현종4) 5월부터 무신년(1668, 현종9) 12월까지.

122) 효종 9년 무술년(1658) 9월부터 현종이 즉위한 기해년(1659) 12월까지.

義.何敢不感動.更調今日.明將承命向北矣.此行多少憂悶.令可想之.不宣.

송준길(宋浚吉), <동춘당집(同春堂集), 제12권 서(書), 答金伯玉>

정치/왕실

이항복(李恒福)이 목릉의 산릉으로 수원(水原)을 제안했다는 내용.

그전에 신이 상부(相府)에 있으면서 산릉(山陵)에 관한 의논을 참여하여 듣고 자주 선왕(先王)의 하교(下敎)를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산(因山)을 정하는 데 대한 의논을 당하여 마음속으로 ‘택조(宅兆)가 이미 정해지고 못 신하들의 계획도 다같이 길(吉)하였으니, 다시 품평(品評)을 바꿀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섯 번째 등성(登城)으로 옮김에 미처서는 이미 처음에 정한 자리는 아니었으나, 그래도 한 산(山) 이내의 장소이고 일도 거의 순조롭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으니, 외의(外議)가 중간에 일어날 줄을 어찌 기약했겠습니까.

그 후 또 다섯 번째 등성을 버리고 보니, 기타 기내(畿內)의 산에 대해서는 경자년 사이에 이미 다 품제(品題)를 거쳤는지라, 기필코 동분서주(東奔西走)하며 자리를 가려 취하려는 가운데 이의(異議)가 별때처럼 나와서, 제도(除徙)들이 고통스러움을 부르짖거나 민력(民力)이 아까운 것만 문제될 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조사(詔使)가 나올 날도 멀지 않았는데, 천자(天子)와 제후(諸侯)의 장사(葬事)는 각각 일수(日數)가 정해져 있는 것이니, 지금 만일 불행하여 기한이 지나도록 장사를 지내지 못하고서 그들에게 “일한(日限)이 차지 않았다.”고 한다면 도리어 참람한 혐의가 있게 되고, 만일 “아직 자리를 가려 정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는 천조(天朝)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의 생각이 여기에 미쳐 주야로 걱정되고 두려웠는데, 지금 다행히 수원(水原)에서 얻은 자리를 두고 상사(相士)들이 서로 축하하면서 모두 완벽한 자리라고 말들을 하니, 이는 불행한 가운데 크게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다섯 번째 등성을 버린 것은 과연 불행한 일이었으나, 지금 만일 또 그 자리를 바꾼다면 아마도 전보다 더욱 큰 불행한 논란이 다시 일어나서 분분하여 결정짓지 못하게 될 듯하니, 그렇게 되면 어느 때에 장사를 지내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은 지금은 결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

昔臣備食相府.得與聞山陵之議.數奉敎於先王矣.今當議卜因山.意謂宅兆已定.羣謀協吉.無復改評矣.及移就五岡.則已非初卜.而猶是一山之內.事垂順成.何期外議中起.又棄五岡.則其他畿內之山.庚子年間.已經品題.其必奔走取卜.異議蜂生.不惟除徙號苦.民力可惜.詔使之來.指日可待.而天子諸侯之葬.皆有日數.今若不幸而過期不葬.如曰日限未滿.則反有僭嫌.如曰未得卜地.則此不可使聞於天朝之人.臣念及于此.日夜憂懼.今幸而得於水原.相士交賀.皆曰十全.此不幸中大幸也.初棄五岡.果是不幸.今若又改.則恐更有不幸之論.尤有大於前者.紛紛不定.則何時可葬.故臣以爲今則決不可改也.(…)

이항복(李恒福), <백사집(白沙集), 백사별집 제3권 의(議), 穆陵葬議>

정치/왕실

박세당이 지은 이정석의 신도비문으로, 효종의 산릉(山陵)을 수원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세 차례 의견을 개진했다는 내용.

(…) 기해년(1659) 봄에 입대하여 아뢰기를, “진대(賑貸)하는 일을 조정에서 총괄하여 도신과 수령을 선택하여 위임할 것이며, 군사의 정원을 줄여 고아와 과부로 하여금 원망이 없게 하소서.” 하였다. 5월에 효종이 승하하여 자의대비(慈懿大妃)가 입을 복(服)을 논의하였

다. 예관(禮官)이 ‘아들의 상에는 기년복(基年服)을 입는다.’라는 것을 원용하였는데, 혹은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고 송시열 등은 기년복을 주장하면서 가공언(賈公彦)의 사종설(四種說)을 인용하였다.¹²³⁾ 공은 오늘날의 예법으로 볼 때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하였다. 영상 정태화(鄭太和)의 의견도 같았고 심지원(沈之源), 이시백(李時白), 이후원(李厚源), 원두표(元斗杓)가 연명(聯名)으로 헌의(獻議)하니, 세자가 따랐다. 언관이 군신(群臣)은 질장(絰杖)의 복제를 쓰기를 청하자 공이 이르기를, “옛 제도를 바꾸는 것은 불가하다.” 하였고, 계빈(啓殯) 때에 언관이 또 새삼 최복(衰服)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자 공이 말하기를, “주자(朱子) 때와는 경우가 다르니, 중간에 바꾸는 것은 온당치 않다.” 하면서 반복하여 진변(陳辨)하니, 일이 드디어 중지되었다. 행장을 지어 올려 안마를 하사받았다. 산릉(山陵)을 수원(水原)으로 정했으나 민가를 많이 헐어야 하겠기에 다시 건원릉(健元陵)안으로 정하였는데 상의 뜻은 수원에 있었다. 이에 공이 세 차례 상차하여 쟁론하니, 마침내 상이 따랐다. (…)

(…) 己亥春.入對言.賑事.朝廷摠其綱.擇委道臣守令.減兵額.使孤寡無怨.五月.孝宗昇遐.議慈懿服.禮官引子基.或言當三年.宋時烈等主基.引賈公彦四種.公以時制當基.領相鄭太和意同.沈之源, 李時白, 李厚源, 元斗杓聯名獻議.世子從之.言者請群臣絰杖.公謂改舊制不可.及啓殯.言者又請追服衰.公言與朱子時不同.中改未當.反覆陳辨.事遂寢.撰進行狀.賜鞍馬.山陵卜水原.民家多毀.又卜健元陵內.而上意在水原.三筭爭之.乃從.(…)

박세당(朴世堂), <서계집(西溪集), 제12권 비명(碑銘), 領議政白軒李公神道碑銘>

정치/왕실

윤선도가 산릉(山陵)을 수원으로 정하지 않은 등의 일을 송시열의 죄상으로 들었다는 내용.

4월 (….) ○ 25일(기유) 윤선도(尹善道)의 상소가 나옴에 따라 길 곁에 나앉아 상소하고 대죄(待罪)하자, 상이 사관(史官)을 보내어 위유(慰諭)하였다.

윤휴(尹鑄)가 자기의 계책이 마침내 쓰이지 못함을 분하게 여겨, 논설을 저술하여 기년복으로 정한 복제(服制)를 공격하기를 ‘군부(君父)를 강등함은 화란의 조짐을 예방하여 후세에 밝히는 도리가 아니다.’ 하였고, 또 전 참의(參議) 윤선도에게 상소하도록 사주하여 전적으로 선생을 공격하고 아울러 동춘(同春)에게까지 미치되 ‘효종(孝宗)을 무명(誣蔑)하여 종통(宗統)이 분명치 못하게 하고 대종의 뜻이 정해지지 못하게 했다.’ 하였고, 또 재궁(梓宮)을 부판(付板)으로 한 것과 산릉(山陵)을 수원(水原)에다 하지 않은 것을 선생의 죄상으로 들었고 심지어 선왕(先王)이 무술년(1658, 효종9) 가을에 편치 못하셨던 것을 선생이 잘 보도(輔導)하지 못한 탓으로 돌렸고, 또 근년의 천재와 시변(時變)을 모두 선생에게 책임지웠고, 마지막에는 ‘이 상소가 올려지고 올려지지 않는 것으로써 국가의 복조가 연장될지 연장되지 않을지를 알 수 있다.’ 하였다. (…)

四月 (….) 己酉.因尹善道疏.出次路傍.上疏待罪.上遣史官慰諭.

123) 송시열……인용하였다 : 《의례주소(儀禮注疏)》 권29<상복(喪服) 부위장자조(父爲長子條)>에서 가공언(賈公彦)은 “비록 승중(承重)하였다 하더라도 삼년복을 입지 못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정체(正體)이나 전중(傳重)하지 못한 것이니 적자(嫡子)가 폐질(廢疾)이 있어 종묘의 주사(主祀)를 감당하지 못함을 이르고, 둘째는 전중하였으나 정체가 아닌 것이니 서손(庶孫)이 후사가 된 것이 그것이고, 셋째는 체(體)이기는 하나 정(正)이 아닌 것이니 서자(庶子)를 세워 후사가 된 것이 그것이고, 넷째는 정통이기는 하나 체가 아닌 것이니 적손(適孫)을 세워 후사로 삼은 것이 그것이다.” 하였는데, 송시열은 효종의 경우는 서자가 뒤를 이은 것이므로 자의대비가 삼년복을 입지 못하고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성무, 조선시대당쟁사1, 동방미디어, 2001, 267~269쪽》

鑄患其謀終不售.乃著說攻期制.以爲貶降君父.非杜禍漸昭後世之道.又嗾前參議尹善道.上疏專攻先生.並及同春.仍以誣讎孝廟.以爲宗統不明.群志未定.又以梓宮之付板.山陵之不用水原.罪狀先生.至以先王戊戌秋違豫.爲先生之不能輔導.又以比年天災時變.皆歸之先生.終曰.以此疏之入不入.卜國祚之延不延.(…)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부록 제4권 연보(年譜)3, 승정(崇禎) 33년 경자【헌종대왕 원년 ○선생 54세】>

정치/왕실

송시열이 산릉 자리를 수원(水原)으로 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

○ 19일(무신) 양지당(養志堂)에 입시하였다.

이때 산릉(山陵 임금의 능자리)이 결정되지 않아 술인(術人 풍수가)이나 조정 의논이 대부분 수원(水原)이 좋다고 하므로 상의 뜻 역시 기울어졌었는데, 선생이 홀로,

“신자(臣子)의 군부(君父)를 위하는 생각이 마땅히 지극하지 않은 바가 없이 해야 하는 법인데, 수원은 이미 이 다음에 오환(五患)의 염려가 없지 못하고, 또한 관방(關防)의 중요한 지역이어서, 선조(宣祖)의 산릉 때부터 이미 이를 들어 논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홍제동(弘濟洞)은 이미 영릉(英陵 세종릉)의 역내(域內)인데다가 예로부터 좋다고 하는 자리이니 거기에다 정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

戊申.入侍養志堂.

時山陵未定.術人及朝議.多以水原爲吉.上意亦傾向.先生獨以爲臣子之爲君父慮.當無所不至.水原既不無萬世後五患之慮.且是關防重地.自宣廟山陵時.已有以此爭之者.弘濟洞.既是英陵局內.而自古稱譽之地.則莫如卜定于此.(…)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부록 제3권 연보(年譜)2, 三十二年己亥 先生五十三歲>

정치/왕실

송시열이 산릉 자리를 수원(水原)으로 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

○ 29일(무오) (…) 상이 다시 산릉(山陵)의 일을 묻자, 선생이 아뢰기를,

“지리(地理)는 아득하지만 인사(人事)는 알기 쉬운 법입니다. 비록 수원(水原)의 산이 길한지 흉한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다음에 생길 오환(五患)의 염려를 인사를 가지고 헤아려 볼 때 그 사세가 필연한 것이고, 부(府) 안에 상비(常備)한 병마(兵馬) 5, 6천이 있어 서울의 보거(輔車 보조해 주는 외곽이라는 뜻)가 되는 지역인 데다가, 또한 그 고을의 위치가 삼남(三南)의 요충이 되는 길목이어서, 만약 변란이 있게 되면 반드시 먼저 전쟁터가 될 것인데 이는 그래도 후일에 있을 염려입니다. 지금 여러 백 호나 되는 민가를 일시에 철거하고 그들의 분묘(墳墓)를 파내며 그들 전답을 버리게 한다면, 원망하고 한탄하는 기운이 하늘에 감응(感應)되고 근심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길거리에 퍼져, 조짐이 아름답지 못하고 기색이 비참해질 것인데, 대개 민심이 생각하고 있는 바는 하늘의 뜻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로 하늘의 뜻을 어기고 아래로 백성의 마음을 거스르면서 사용해서는 안 될 땅을 사용함은 또한 너무도 선왕(先王)께서 평소에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돌보시던 본의가 아니게 될 듯싶습니다.”

하였다. (…)

戊午.(…) 上復問以山陵事.先生曰.地理茫昧.人事易見.水原山之吉凶.雖不可知.而萬世之後五

患之慮.揆以人事.其勢必然.而府下常有五六千兵馬.爲京城輔車之地.且其爲邑.當三南要衝之路.脫有變亂.必先爲戰爭之場.此猶後日慮也.卽今累百民戶.一時撤毀.破其墳墓.棄其田土.怨恨之氣.感於上天.愁歎之聲.載於道路.兆徵不佳.氣象愁慘.蓋民心所在.天意卽然.然則上違天意.下拂民心.用之於不當用之地.亦恐大非先王平日敬天恤民之本意也.(…)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부록 제3권 연보(年譜)2, 三十二年己亥 先生五十三歲>

정치/왕실

송시열이 산릉 자리를 수원(水原)으로 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

○ 12월 (…) 10일(병신) 상소를 올리고 도성(都城)을 떠났다.

(…)간사한 사람들이 이 틈을 타 흉한 계책 꾸미기를, 소렴(小斂) 때 매[絞]를 맺지 않은 것과 재공을 이은 판자 쓴 것 및 산릉 자리를 수원(水原)으로 하지 않은 것을 들어 큰 문책거리로 삼되, 마침내는 차마 듣지 못할 말을 하자, 서로 아끼는 지구(知舊)들이 더러 비밀히 말해 주므로, 선생이 상소하여 자진해서 열거했다.

十二月 (…) 丙申.呈疏去國.

(…) 奸人乘隙.譟張凶謀.以小斂不結絞.梓宮用連板及山陵之不用水原.爲大何.終以不忍聞之說加之.知舊相愛者.或相密言.先生上疏自列.(…)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부록 제3권 연보(年譜)2, 三十二年己亥 先生五十三歲>

정치/왕실

1659년(효종 10) 수원(水原)이 명소라는 중론에 송시열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내용.

죄를 자책하고 물러나기를 청하는 소 【기해년(1659, 현종 즉위년, 선생 53세) 12월】

(…) 그리고 신은 산릉(山陵)의 자리를 정하던 날에 수원(水原)이 천재일우의 명소라는 중론에 반대하여 감히 이론을 제기함으로써 끝내 천취(遷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신은 지리(地理)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나 인정(人情)으로 헤아리고 신도(神道)에 구해 보건대 지금 정한 곳이야말로 진선 진미한 자리라고 할 만한데, 사람들의 시비가 그치지 않아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

(…) 且臣於山陵卜定之日.衆議以水原爲千載一遇之地.而乃敢倡爲異論.竟至遷就.臣雖未知地理之如何.而揆以人情.求諸神道.則今茲所卜.可謂盡善盡美.而人言未已.愈往愈深.(…)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제9권 소(疏) 차(筴), 引罪乞退疏 己亥十二月>

정치/왕실

1659년 7월 2일 송시열이 올린 차자로, 수원을 쓰는 것에 반대하는 내용.

(…) 그리고 신이 비록 건원릉이 꼭 쓸 만한 곳인지는 알지 못해도 수원(水原)은 반드시 써서는 안 된다는 것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신이 전일에 주장한 오환(五患)의 설이 매우 절박한 것이긴 하나 그 요체가 목전의 급한 일과는 중대한 관계가 없으니, 우선은 놔두고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자식이 아버이를 섬기는 데는 뜻을 봉양하는 것이 큰일이니, 진실로 그것을 큰일로 여긴다면 살아계시거나 돌아가시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

(…) 且臣雖未知健元陵之必可用.而水原之必不可用則臣極知之矣.何則.愚臣前日五患之說.雖甚

切迫.要非目下之事.則姑置不論.而唯是子之事親.養志爲大.苟以爲大.則存歿何異哉.(…)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제9권 소(疏) 차(筴), 辭判義禁兼陳山陵事筴 己亥七月二日>

정치/왕실

윤봉구(尹鳳九)가 지은 송시열의 묘지명으로, 송시열이 효종의 산릉을 수원으로 하는 것을 반대했다는 내용.

(…) 조정(朝廷)의 의견이 산릉(山陵)을 수원부(水原府)에 정하려고 하자, 현종의 뜻도 그리로 기울어졌다. 이에 대해 선생은, 수원부는 7천의 병마가 있는 곳이어서 선왕께서 중히 여기던 곳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 정자(程子)가 말한 오환(五患)의 염려¹²⁴)가 있는 곳이라고 하며, 경연에서 말하고 차자로 여러 번 진술하여 결국 건원릉(健元陵)의 경내로 정하였다. (…)

허목이 또 전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적자는 3년, 서자는 기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조목 별로 논열하고 도표를 그려 소를 올리자, 상은 다시 선생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선생은 주자의 정통이 아닌 자도 서(庶)가 된다는 말을 인용하여 조목조목 통렬히 논박하였다. 윤희가 예를 논한 것은 본래 화를 선생에게 전가시키려는 의도에서 한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예설(禮說)에 가탁하여 선생을 ‘임금을 낮추고 종통(宗統)을 둘로 한다.[卑主貳宗]’고까지 모함하였다. 윤선도(尹善道)의 상소에서는 선생을 공격하여 ‘종통을 불명확하게 하고 못사람들의 뜻을 혼란시키는 것이다.’ 하였으며, 재궁(梓宮)을 부판(附板)으로 한 것과 산릉(山陵)을 수원(水原)에 쓰지 않은 것에 대해 선생의 잘못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선왕께서 낙마(落馬)하신 변고도 선생이 잘 보도(輔導)하지 못한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며, 매년 천재(天災)와 시변(時變)이 일어나는 것도 모두 선생 때문이라고 하여 흉패한 말들이 윤희와 허목을 답습하였으나 더욱 험악스러웠다. (…)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송서속습유 부록 제2권 묘지(墓誌) 墓誌 後學尹鳳九撰>

정치/왕실

이괄의 난 때 대가가 수원에 이르렀을 때 이명한(李明漢)이 이식과 함께 교서를 작성했다는 내용.

(…) 대가(大駕)가 남쪽 지방을 순무(巡撫)하던 중 수원(水原)에 이르자 공과 이공 식(李公植)을 명하여 애통해 하는 내용의 교서(敎書)를 지어 군인과 백성들을 위로하라 하였다. 공이 갑작스러운 분부를 받고 즉석에서 완성하였는데, 문장과 의미가 다 같이 완벽하였으므로 주위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탄복하였다. (…)

(…) 大駕南巡到水原.命公與李公植.製進哀痛敎.以謝軍民.公倉卒立就.辭意俱到.見者歎服.(…)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제204권 시장(諡狀), 白洲李公諡狀>

정치/왕실

1673년 6월 23일 송시열이 광여정에게 보낸 편지로, 산릉으로 수원에 반대하는 이유를 주장한 내용.

124) 오환(五患)의 염려 : 오환은 묘지에 있어서 반드시 피해야 할 다섯 가지임. 정이천(程伊川)은 후일 도로나 성곽·구지(溝池)가 될 지역이나 세력가에게 빼앗길 염려가 있는 곳, 농지로 만들어 경작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오환이라 하여 피해야 할 곳으로 지적하였다. 《二程全書 伊川先生文 卷10 葬說》

그리던 중 편지를 보게 되어 매우 위로가 되었네. 영소(嶺疏 영남의 장응일(張應一)의 상소)는 품문으로 듣고 깜짝 놀랐었는데 편지가 또 이와 같으니 몸 둘 바를 모르겠네. 당초 해윤(海尹: 윤선도(尹善道)를 말함)은 수원(水原)을 쓸 만하다 하였으나 나는 이곳은 3천의 병마(兵馬)가 모여드는 곳이고 선왕(先王 효종)께서 늘 힘을 얻을 만한 지방이라 생각하셨던 곳이니, 하루아침에 시끄럽게 되는 것은 선왕의 뜻이 아닐 것이며, 또 땅이 평야 지고 기름져 오랜 세월이 흐르면 반드시 농경지가 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앞서서 상소하였는데, 성주(聖主 현종을 가리킴)의 뜻은 그렇지 않으셨네. 이에 완남(完南 이후원(李厚源)의 봉호)·연양(延陽 이시백(李時伯)의 봉호)·함릉(咸陵 이해(李滌)의 봉호)이 잇달아 힘써 간쟁(諫爭)하였고 연상(延相 이시백을 말함)이 일곱 번의 차자(笱子)를 올리고 나서야 비로소 뜻을 돌리셨네, 영릉(寧陵 효종의 능)에 관해서는 윤강(尹降)과 심상(沈相 심지원(沈之源)을 말함)이 애써 주장하였고 나는 홍제원(弘濟院 경기도 여주(驪州)에 있음)에 모실 것을 청하였네. (…)

戀中見書慰甚.嶺疏微聞而驚怕.來示又如此.不知措身之所也.當初海尹以水原爲可用.賤臣以爲此七千兵馬都會處.先王常以爲得力之地.一朝蕩析.必非先王之意.且慮其地平衍.千萬世後.必爲耕犁所及.故首上疏章.聖意不以爲然.完南, 延陽, 咸陵繼而力爭.延相至於七笱.然後始得回天矣.至於寧陵則尹絳, 沈相力主之.賤臣則請用弘濟矣 (…)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제107권 서(書), 答郭汝靜癸丑六月二十三日>

정치/왕실

1673년 4월 24일 송시열이 윤형성(尹衡聖)에게 답장한 것으로, 영릉으로 정한 것을 송시열 자신에게 탓하는 것에 대해 황공한 마음이라는 내용.

(…) 나의 소견은 이와 같거니와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학문과 식견이 밝기로는 박화숙(朴和叔)만한 사람이 없으니, 비록 그가 조정 밖에 있으나 그와 자주 상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당초에 효종(孝宗)의 산릉(山陵)을 정할 때, 여러 사람들의 의논이 모두 수원(水原)으로 귀일(歸一)되었으나 나는, “이곳은 7천의 병마(兵馬)가 모여 있는 곳으로 선왕(先王)께서 항상 크게 믿으시던 곳이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흩어 버리는 것은 선왕의 뜻이 아니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극력 논쟁(論爭)하였는데, 완남(完南, 이후원)과 연양(延陽, 이시백) 같은 분도 나의 의견에 찬동하여 윤허(允許)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니 영릉(寧陵 효종의 능)에 자리 정한 것으로 나에게 죄를 돌린다 합니다. 오늘의 일은 비록 지리의 길흉에서 연유한 것이 전혀 아닌데도 사람들의 말이 이와 같으니 황공한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변명의 말을 【원문 1자 빠짐】 할 수 있겠습니까.

(…) 鄙見如此.未知高明之意如何也.今日稽古識明.無如朴和叔.渠雖在外.須與商量如何.若時烈.當初諸議.皆歸一於水原.如完南, 延陽.亦繼之而蒙許矣.今聞以寧陵之用.歸罪於賤臣.今日事.雖不全由於地理之吉否.而人言如此.皇恐隕越之不暇.何敢發一【缺】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제44권 서(書), 答尹景任癸丑四月二十四日>

정치/왕실

송시열이 효종의 산릉으로 수원(水原)을 반대한 이유에 대해 피력한 내용.

그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한창 심하던 차에 갑자기 북쪽에서 오는 인편에 수첩(手帖)을 받으니 위로됨이 한량없었네. 다만 분구지우(分灸之憂)¹²⁵⁾가 있었다는 말을 들으니 매우 염려

가 되네. 편지를 보낸 뒤에는 어떤지 모르겠네. 그리고 나는 죄가 큰데도 요행히 면한 지가 오래니 오늘날 견책받은 것은 이미 늦은 것이네. 당초 수원(水原)에는 영릉을 모실 수 없다고 간쟁(諫爭)한 것은 천신(賤臣)이 실제로 앞장 선 것이지만 지금의 영릉(寧陵 효종과 비 인선왕후의 능)에 대해서는 본디 감여설(堪輿說 풍수설(風水說))에 어두운 내가 어찌 감히 한마디 말인들 할 수 있겠는가. 다만 홍제동(弘濟洞)은 예부터 성인(聖人)의 장지(葬地)라고 일컬어져 온 것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 탑전(榻前)에서 감히 마음속에 품었던 것을 진달하였는데, 윤 판서(尹判書 윤강(尹絳)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네.

수원에 대하여 간쟁한 것은 다른 때문이 아니고, 이곳은 바로 7천 병마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예부터 능(陵)을 써서는 안 된다고 하였네. 이는 백사(白沙 이항복)의 문집(文集)을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네. (…)

戀德方深.忽於北轡.承拜手帖.慰豁無已.第聞有分灸之憂.奉慮深矣.未知信後如何.此罪大倖免久矣.今日事.亦已晚矣.當初水原之爭.賤臣實倡之.而寧陵則素昧堪輿.何敢措一辭.但弘濟洞.飽聞自古稱以聖人葬地.故其時於榻前.敢陳所懷.而尹判書不以爲然矣.水原之爭非他.此是七千兵馬都會之地.故自昔以爲不可卜陵.觀於白沙文集.其意可見也.(…)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제48권 서(書), 答李季周癸丑六月二十八日>

정치/왕실

송시열이 기해년에 수원(水原)에 잡지 않은 것에 대해 반대당이 비판했다는 내용.

5월 초하루는 경오(庚午) 10일(기묘) 별유(別諭)를 받고 병이 있음을 들어 사정을 진달하였다.

이때에 상이 인재를 건발(甄拔)하라는 분부가 있었다. 우의정 김수흥(金壽興)이 상에게 아뢰기를, “전에도 이와 같은 때에는 외방에 있는 유신(儒臣)에게 특별히 하유(下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니, 상이 드디어 사관(史官)을 보내어 하유(下諭)하였다. 이때에 적신(賊臣) 윤휴(尹鑄)가 몰래 서울에서 몸을 숨기고 살면서 역종(逆宗 역적 종실) 정(楨)·남(枏)과 체결하여 천종(賤宗 천열(賤孽) 종실을 말한다) 영림부령(靈林副令) 익수(翼秀)를 시켜서 상소하여, ‘영릉(寧陵)의 석물(石物)이 갈라져 틈이 생겼다.’ 고 허풍을 치고 공동(恐動)하여 옮겨 모시기를 힘껏 청하였다. 이에 상이 익수(翼秀)를 인견(引見)하여 그 실상을 묻고, 대신·육경(六卿)·삼사(三司)의 제신(諸臣)을 명하여 익수와 함께 가서 봉심(奉審)하게 하고 드디어 천릉(遷陵)할 계획을 하였다. 당초 산릉(山陵)의 일을 맡은 제신(諸臣)을 모두 사죄(死罪)로 논하고 또 홍제동(弘濟洞)이 너무 멀다 하여 장차 가까운 경기 지방에 고쳐 잡으려 하였다. 흉도(兇徒)가 또 때를 타서 말을 주창하여 기해년(己亥年)에 수원(水原)에 잡지 않은 것으로써 선생에게 허물을 돌렸다. 영남 사람 장응일(張應一)이 상소하여 있는 힘을 다해 논척(論斥)하였다. 선생이 (…)

또 말하기를, “듣건대, 능침의 일은 혹 신에게 허물을 돌린다 하니, 대개 당초 수원에 잡지 않고 선릉(先陵) 안에 모시게 한 것은 신의 죄입니다. 오늘날의 일은 과연 이 때문에 이에 일어났다면 신의 죄상이 곧 뇌운공(雷允恭)·정위(丁謂)가 다룬 바와 같습니다. 비록 온 집안이 죽음을 당하더라도 진실로 여정(輿情)을 위로 할 수 없습니다. 신이 바야흐로 석고(席藁)하여 조정에서 논의하여 처치하는 바를 기다립니다.” 하였다. (…)

125) 분구지우(分灸之憂) : 형제간에 우환이 있었다는 뜻이다. 송 태조(宋太祖)는 우애가 극진했는데 태종(太宗)이 병이 들어 뜰질을 하자 태조도 뜰질을 하면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누었다 한다. 《宋子大全 隨筭 卷5》

五月 庚午 己卯.承別諭.引疾陳情.

時上有甄拔人才之教.右議政金公壽興白上.以爲在前如此之時.則在外儒臣處.有別爲下諭之事.上遂遣史官下諭.時賊鏞潛身輦下.締結逆宗楨.桷.使賤宗靈林副令翼秀上疏.以寧陵石儀罅隙.壽張恐動.力請遷奉.於是上引見翼秀而問其狀.命大臣六卿三司諸臣.與翼秀同往奉審.遂定遷陵之計.當初山陵任事諸臣.皆論以一罪.又以弘濟洞爲太遠.而將改卜近畿.凶徒又乘時倡言.以己亥之不卜水原.歸咎於先生.嶺人張應一上疏論斥.不遺餘力.先生(…)又曰.且竊仄聞陵寢之事.或頗歸咎於臣身.蓋以爲當初不卜水原.而以致歸宿於先陵之內者.是臣之罪也.今日事果因是而至此.則臣之罪狀.卽與雷允恭.丁謂.所爭無幾矣.雖闔門誅戮.固不足以慰輿情.臣方席藁以俟朝論之所處矣.(…)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附錄 권6, 年譜[五] 四十六年癸丑【先生六十七歲】>

정치/왕실

1673년(현종 14) 4월 24일 송시열이 윤형성(尹衡聖)에게 답장한 편지로, 효종 능침 선정 논의 과정에서 수원에 대한 입장은 나만의 의견이 아니었다는 내용.

오늘날 학문과 식견이 밝기로는 박화숙(朴和叔: 박세채)만한 사람이 없으니, 비록 그가 조정 밖에 있으나 그와 자주 상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당초에 효종(孝宗)의 산릉(山陵)을 정할 때, 여러 사람들의 의논이 모두 수원(水原)으로 귀일(歸一)되었으나 나는, “이곳은 7천의 병마(兵馬)가 모여 있는 곳으로 선왕(先王)께서 항상 크게 믿으시던 곳이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흩어 버리는 것은 선왕의 뜻이 아니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극력 논쟁(論爭)하였는데, 완남(完南: 이후원)과 연양(延陽: 이시백) 같은 분도 나의 의견에 찬동하여 윤택(允許)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今日稽古識明.無如朴和叔.渠雖在外.須與商量如何.若時烈.當初諸議.皆歸一於水原.而賤臣以爲此七千兵馬大都會處.先王尋常倚重.一朝蕩析.必非先王之意.故力爭之.如完南·延陽.亦繼之而蒙許矣.今聞以寧陵之用.歸罪於賤臣.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卷四十四, 答尹景任 【癸丑四月二十四日】>

정치/왕실

송시열이 능침으로 수원을 반대한 것을 비난하는 상황에 대해 국왕이 우려한다는 내용.

6월 (…) ○ 28일(병인) 천릉지문(遷陵誌文)을 찬진(撰進)하라는 명 및 별유(別諭)를 받고 상소하여 사양하였다.

선생이 지문(誌文) 製述官(誌文製述官)에 차임되자, 천릉도감(遷陵都監)이, 예조 낭관(禮曹郎官)을 보내어 유지(諭旨)를 전하되 製述(製述)한 뒤에 그대로 싸 가지고 오게 하기를 청하였다. 상이 또 승지를 특별히 보내어 별유(別諭)로 재촉해 부르기를, “저번에 사관(史官)이 돌아와서 경의 말을 보니, 불안해하는 말이 많았으나 그 곡절을 자세히 몰랐다. 요즈음 장응일(張應一)의 소에 말이 차례가 없고, 몰래 남을 모함하려는 계획은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 없으나, 수원(水原)에 관한 말에 이르러서는 그 마음먹음이 더욱 흉참(兇慘)하므로 내가 놀란다. 이에 근시(近侍)를 보내어서 내 뜻을 이른다.(…) ”

丙寅.祇受遷陵誌文撰進之命及別諭.上疏辭.

先生差誌文製述官.都監請遣禮曹郎官傳諭製述.後仍令齎奉以來.上又特遣承旨.別諭促召曰.頃者史官之回.得見卿言.多有不安之語.而未詳曲折矣.乃者張應一之疏.語意無倫.陰欲陷人之計.無非可駭可愕.而至於水原之說.其用意尤極兇慘.予用驚駭.茲遣近侍.以諭予意.(…)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부록 제6권 연보(年譜) 5, 四十六年癸丑 先生六十七

歲>

정치/왕실

남구만이 현종의 온천 행차의 난점을 토로하는 것으로 수원부의 뒷들[後野]은 진흙길이 20여 리이므로 빨리 행차할 수 없다는 내용.

듣자니 이번에 온천에 행차할 때 삼전(三殿)¹²⁶이 함께 출발하신다 하니, 지극히 우려됩니다. 또 듣자니 수원부(水原府)의 뒷들[後野]을 따라 과천(果川)에서 하루 만에 진위(振威)에 이르고 진위에서 하루 만에 행궁(行宮)에 이를 계획이라고 하니, 이는 혼자서 말을 타고 급히 달려가는 길이라 해도 이와 같이 빠를 수가 없는데, 더구나 하루에 30리를 가는 길행(吉行)에 있어서이겠습니까. 더구나 삼전의 시위(侍衛)와 추종(騶從)과 음식을 장만하는 주전(廚傳)이 얼마인데, 이와 같이 급하게 달려간단 말입니까. 군졸과 하인들이 기진하여 쓰러지는 문제는 우선 말할 필요도 없지만, 어찌 삼전을 편안하게 모시는 방법이겠습니까. 도중에 하루 이틀이 늦어진들 무슨 해될 것이 있으며 무슨 난처한 일이 있기에 마침내 기어이 이처럼 바쁘고 급작스럽게 일을 한단 말입니까.

또 수원부의 뒷들은 진흙길이 20여 리이니, 가령 그때 비가 온다면 백성들의 힘을 얼마나 쓴 뒤에야 평탄한 길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는 비록 폐단을 줄이고자 한 것이라 하나 실제로는 폐단을 늘리는 것이고, 비록 빠른 길을 택한 것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역참을 지나가는 것이니, 형들은 이러한 뜻을 알지 않으면 안 될 듯합니다.

似聞今番溫泉之幸.三殿並發.極是可憂.且聞取路水原後野.自果川一日到振威.自振威一日到行宮云.此雖單騎疾馳之行.猶不可若是其駛.況吉行日三十里者乎.況三殿侍衛騶從廚傳幾許.而如是奔馳乎.軍伍徒隸氣盡顛倒之患.姑不必說.而亦豈所以安三殿者乎.在路遲了一兩日.有何損傷.有何難處.而乃必爲如此奔忙猝遽之事.且水原後野乃泥濘之地二十餘里.設令其時有雨水.則用民力如許然後可成坦途耶.雖欲省弊.而實增弊.雖云取捷路.而實過站.兄輩似不可不知此意也.

남구만(南九萬), <약천집(藥泉集)>, 제30권 서(書), 與失名>

정치/왕실

이괄의 난 때 어가를 따라가 수원에 이르렀다는 내용.

○ 1월에 역적 이괄(李适)이 영변(寧邊)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2월 6일에 임진(臨津)에서 군사가 무너지고 8일에 대가(大駕)가 남쪽으로 과천(播遷)하였다. 공은 이때 집에 있다가 어가를 따라가 수원(水原)에 이르니, 상이 인견하였다. 12일에 어가가 천안(天安)에 머물렀는데, 음성 현감(陰城縣監)에 제수되었고, 승의랑(承議郎)으로 승진하였다. 24일에 음성으로 부임하였다. 이때 온 집안 사람들이 걸어서 골짜기로 들어가 있다가 3월에야 비로소 와서 만났다.

김육(金堉), <잠곡유고(潛谷遺稿)>, 잠곡연보, 갑자년(1624, 인조 2) 공의 나이 45세>

정치/왕실

1779년(정조 3) 10월에 사도사제를 수원(水原)으로 옮겨 모셨다는 내용.

신해년 【공 51세】 (….) 5월 25일

(…) ○ 《현릉원지(顯陵園志)》를 교정하였다. 처음에는 영우원(永祐園)에 모셨다가 당저(當寧 정조(正祖)를 가리킨다) 3년(1779) 기유 10월에 수원(水原)으로 옮겨 모시고 원호(園號)

126) 삼전(三殿) :王大妃殿, 대전(大殿), 중궁전(中宮殿)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를 현릉((顯隆)이라 하였다. 원(園)을 이장할 때의 의식(儀式)을 편집한 것으로서 모두 임금의 결재를 거쳐 만들어진 것이다. 【날짜 미상】 (…)

(…) ○校顯隆園志.初奉永祐園.當寧¹⁵十三年己酉十月.遷奉于水原.園號曰顯隆.編輯遷園時儀式.皆出睿裁.日未詳.(…)

이덕무(李德懋),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제71권 부록 하(附錄下), 先考積城縣監府君年譜下>

정치/왕실

1796년 화성부 봉수당에서 혜경궁 진찬연과 현릉원 알현의 경위에 대해 기술한 내용.

을묘년 (정조 19년 선생 34세) 봄 대가(大駕)가 자궁(慈宮)【혜경궁(惠慶宮) 홍씨(洪氏)이다.】을 모시고 수원(水原)에 거둥하셨는데, 두 군주(郡主)【광은위(光恩尉) 김기성(金箕性)의 아 내와 흥은위(興恩尉) 정재화(鄭在和)의 아내이다.】도 함께 따라가셨다. 현릉원(顯隆園)을 알현하고 돌아오시는 길에 화성부(華城府)에 이르러 봉수당(奉壽堂)에서 자궁께 잔치를 올려 드렸다. 어제시를 내리고 호종한 신하들에게 화답하게 하셨는데, 신(臣) 옹(鏞)은 병조 참의로서 또한 시위의 반열에 있었으므로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말하자면, 장헌세자(莊獻世子)와 자궁은 다 건륭(乾隆) 을묘년(영조11, 1735)에 탄생하시어 금년이 회갑이 되기 때문에 이 잔치를 열게 된 것이다. (…)

乙卯春.大駕陪慈宮【惠慶宮洪氏】幸水原.二郡主從焉.【光恩尉金箕性妻及興恩尉鄭在和妻.】既謁顯隆園.還至華城府.進宴于奉壽堂.聖製既頒.令扈從諸臣賡韻.臣鏞以兵曹參議.亦在衛班.得與宴焉.蓋莊獻世子暨慈宮.皆以乾隆乙卯誕降.是年爲回甲.故有是宴也.(…)

정약용(丁若鏞), <다산시문집, 제2권 시(詩), 奉和聖製奉壽堂進饌竝序>

정치/왕실

정약용이 지은 번옹(樊翁)의 유사로 1793년(정조 17) 체제공이 화성의 현릉원에서 왕세자의 무고를 변명하는 소를 올렸다는 내용.

계축년(1793, 정조 17) 5월에 공은 화성(華城)에 있으면서 현릉원(顯隆園)에서 기신제(忌辰祭)를 행하였다. 바야흐로 슬퍼 상심할 때에 영의정을 제수하는 교지(教旨)가 이르렀다. 공이 마침내 눈물을 흘리며 왕세자의 무고를 변명하는 소를 올려 사생 거취(死生去就)를 그에 걸었다. 그 대략은 운운(云云)했는데 그 비답(批答)도 운운했다. 이에 김종수(金鍾秀)가 기회를 타서 소를 올려,

“임자년에 연차(聯筭)했으니 뒤에 다시는 이 일을 거론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죄를 성토하는 것이 위태롭고 화색(禍色)이 날로 급해지므로 상께서 둘 다 모두 파직하였다. 그 뒤 몇 개월이 지난 다음 특별히 대신과 여러 신하들을 불러 올면서 금등(金滕)의 일로 유시(諭示)하였다.

癸丑五月.公在華城.行顯隆園忌辰祭.方愴慟.時領議政除旨至.公遂涕泣上辨審誣疏.以決死生去就.其略曰云云.批曰云云.於是金鍾秀乘機投疏.謂壬子聯筭後.宜不敢更言此事.聲罪危怖.禍色日急.上兩罷之.後數月特召大臣諸臣.泣諭金滕之事.

정약용(丁若鏞),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제17권 유사(遺事), 樊翁遺事>

정치/왕실

정약용이 지은 이가환의 묘지명으로 정조가 불러서 10년 뒤에 화성에서 노년을 보낼 것이며

현릉원 주변을 잘 정리할 것을 당부하였다는 내용.

한 달이 지난 뒤 상께서 신 가환과 신 용을 불러 이르기를,

“화성(華城)은 바로 우리 장헌(莊獻)의 묘소가 있는 곳이라 금년 봄에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세자의 원(園)을 참배(參拜)하고 왔다. 앞으로 10년이 지난 뒤 나는 거기서 노년을 보낼 것이므로 화성에 노래당(老來堂)을 지었으니 이 화성의 일은 삼가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원(園) 주위의 식수(植樹)와 궁전(宮殿)·대사(臺榭 망루)의 축조(築造)와 성지(城池)·갑병(甲兵)의 수선과 양곡·전포(錢布)의 저축에서부터 정관(亭館)·우전(郵傳)과 노부(鹵簿)¹²⁷⁾·희뢰(饗牢)에 이르기까지 대소사(大小事)를 막론하고 모두 정리하고 부정(簿正)¹²⁸⁾하여 나라의 전례(典禮)를 밝힐 것이다. 가환아, 그대는 박식(博識)하니 이 일을 잘 맡아하라. 용(鏞)아, 그대는 민첩하니 가환을 도와 일을 처리하라. 규영부(奎瀛府)는 왕의 거처와 가까우므로 매우 엄숙한 곳이니, 그대들은 이곳에 머물면서 놀고 쉬며 학문하라. 그대들에게 궁중(宮中)의 술과 진귀한 찬과 국과 꿀과 등자(橙子)와 말린 고기와 엿을 내릴 것이니, 마시고 먹으며 두터운 은혜에 젖으라.” 하시었다. 신들은 엎드려 은혜에 감읍하며 공손히 명을 받들었다.

既月.上召臣家煥暨臣鏞.諭之曰惟茲華城.卽我莊獻衣冠之藏也.今年春.予奉壽母.往觀幽宅.後十年.予將老焉.故華城有老來之堂.惟是華城之事.不敢不敬.松楸栝柏之植.宮殿¹²⁹⁾臺榭之築.城池甲兵之繕.穀粟錢布之蓄.亭館郵傳.鹵簿饗牢之共.靡有大小.咸宜整理.悉簿悉正.以昭邦禮.咨家煥.汝惟博識.宜掌是役.咨鏞.汝惟敏給.其與相之.惟茲奎瀛之府.密邇王居.厥地深嚴.汝往茲宅.遊焉息焉.賜汝內醢珍膳異臠橘柚橙脍鱗餽.是醉是飫.以沾渥恩.臣等俯伏涕泣.惟命之恭.

정약용(丁若鏞),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제15권 묘지명(墓誌銘), 貞軒墓誌銘>

정치/왕실

정조가 화성에 거둥할 때 배다리를 건널 때 지은 시.

해마다 정월달이 돌아오면 / 歲歲靑陽月

난여가 화성으로 거둥하시지 / 鑾輿幸華城

가을이 지난 뒤에 배를 모아서 / 船從秋後集

눈 내리기 이전에 다리 만드니 / 橋向雪前成

새 나래 붉은 난간 두 줄로 서고 / 鳥翼紅欄夾

고기비늘 흰 널판자 가로로 깔려 / 魚鱗白板橫

선창가의 저 바위 구르지 않아 / 船磯石不轉

천년토록 임금의 마음을 알리 / 千載識宸情

정약용(丁若鏞),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제2권 시(詩), 過舟橋>

정치/왕실

현릉원을 이장할 때의 만사

난수¹³⁰⁾에 서린 슬픔 얼마였던가 / 灤水纏哀久

127) 노부(鹵簿) : 임금이 거둥할 때 의장(儀仗)을 갖춘 행렬.

128) 부정(簿正) : 문서(文書)로 정수(正數)를 정하는 것.

129) 殼 : 殿

130) 난수 : 중국 회하(淮河)의 지류인 과수(渦水)의 끝에 있는 강 이름이다. 주 문왕(周文王)의 아버지 왕계(王季)를 과수의 끝에 장사지냈었는데 난수에 의해 그 무덤이 깎여나가 관이 드러나자, 문왕이 말하기를 “선군께서 못 신하와 백성들을 한 번 보고 싶어하시므로 하늘이 난수로 하여금 드러나게 한

주구¹³¹⁾에다 새로이 음택 정했네 / 珠丘卜宅新
 성심엔 길지인지 미심쩍지만 / 聖心疑厚地
 神通한 눈 옛사람 벌써 보았네 / 神眼屬前人
 푸른 바다 자라며 거북 모이고 / 碧海龜鼈集
 청산엔 호랑이며 표범 깔렸네 / 蒼山虎豹陳
 도성 백성 또다시 눈물 뿌리며 / 都民重拭涕
 너그럽고 인자함 길이 그리네 / 千載憶寬仁

지난날 임오년의 오월달에는 / 壬午端陽月
 하루도 빠짐없이 서연 열었지 / 書筵日日開
 아침에는 올린 글 답을 내렸고 / 朝章都賜答
 밤에는 베갯머리 슬픔 머금어 / 夜枕獨銜哀
 하해 도량 뉘라서 헤아릴 건고 / 河海渾誰測
 천둥 같은 노여움 참지 못했네 / 風霆鬱不裁
 서글퍼라 구학의 떠난 그림자 / 傷心緜鶴影
 스물여덟 해 만에 돌아왔다네¹³²⁾ / 二十八年回
 정약용(丁若鏞),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제1권 시(詩), 顯隆園改葬輓詞>

정치/왕실

현릉원에 심은 나무 숫자를 정리한 경위를 설명한 내용.

위의 《식목연표》는 현릉원(顯隆園)에 심은 나무 숫자를 기록한 책이다. 을묘년 봄에 서국(書局)을 열도록 명하여 《정리통고(整理通考)》를 찬술(撰述)하게 하였는데, 비궁(闕宮 종묘)·침원(寢園 능(陵)의 별칭) 및 용주사(龍珠寺)·배봉진(拜峯鎭)의 여러 가지 유래와 제도 등을 신(臣) 용(鏞)에게 편찬하도록 명하였다. 명을 받고 나니, 상이 식목부(植木簿)를 주면서 이렇게 하유(下諭)하였다. “7년 동안 기유년(1789)부터 을묘년(1795)까지임. 8읍(邑) [수원(水原)·광주(廣州)·용인(龍仁)·과천(果川)·진위(振威)·시흥(始興)·안산(安山)·남양(南陽)]에 나무를 심은 데 대한 장부가 수레에 실으면 소가 땀을 흘릴 정도로 많은데, 그 공로는 누가 더 많은지, 나무의 숫자는 얼마인지 아직도 명백하지 않으니, 네가 그 번거로운 것은 삭제하고 간략하게 간추려서 되도록 명백하게 하되 1권이 넘지 않게 하라.” 신이 물러나와서 연표를 만들되, 가로 12칸을 만들고 7년을 12칸에 배열하였다. 세로 8칸을 만들어 8읍(邑)을 배열하였다. 1칸마다 그 수를 기록하고 그 총수(總數)를 계산하니, 소나무[松]·노송나무[檜]·상수리나무[櫟] 등 여러 가지 나무가 모두 1천 2백만 9천 7백 12그루였다. 그 끝에다 이를 기록하여 올리니, 상이, “한 권이 아니고서는 상세하게 기록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겼는데, 수레에 실으면 소가 땀을 흘릴 정도로 많은 분량의 부서(簿書)를 너는 중

것이다.” 하고, 관을 열어 백성들이 보게 하였다는 데서 나온 것으로, 장지가 별로 좋지 않았던 소헌 세자의 처음 무덤을 가리킨다.《呂氏春秋》

131) 주구 : 우순(虞舜)을 창오(蒼梧)의 들판에 장사지낸 뒤에 빙소(憑霄)라는 새가 그곳에 청사주(靑砂珠)를 물어다가 큰 언덕을 이루었다는 데서 나온 말로, 화성군 화산의 새 무덤을 가리킨다.

132) 구학의 …… 돌아왔다네 : 구학은 구씨산(綏氏山)의 학으로, 중국 하남성(河南省) 언사현(偃師縣) 남쪽에 있는 구씨산 꼭대기에서 주 영왕(周靈王)의 태자 왕자진(王子晉)이 7월 7일 흰 학을 타고 가족과 작별한 뒤 날아갔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곧 사도세자를 장사지낸 지 28년 만에 관을 꺼내어 이장하였다는 것이다.《列仙傳》

이 한 장에다 마무리하였으니, 참으로 훌륭하다.” 고 하며, 오랫동안 감탄하였다. 그해 여름에 내가 언관(言官)의 탄핵을 받아 가을에 금정(金井)으로 귀양갔다. 지금 그 초본(草本)이 책 상자에 있으므로 이렇게 기록하여 후손에게 전해 주어 침원(寢園)에 대한 성상(聖上)의 효심(孝心)이 이와 같이 정성스러웠음을 알게 하고자 한다.

右表所以記顯隆園植木之數也. 乙卯春. 命開書局. 撰整理通攷. 而闕宮寢園及龍珠寺拜峰鎮諸緣起規制. 命臣鏞撰次. 既受命. 上授植木簿而諭之曰. 七年之間. 自己酉至乙卯八邑水原, 廣州, 龍仁, 果川, 振威, 始興, 安山, 南陽. 所種簿書. 殆乎汗牛. 而其功勞之孰多與木之數. 尙不明白. 爾其刪煩就約. 務從明白. 勿令過一卷也. 臣退而作年表. 橫之爲十二格. 以列七年十二次. 豎之爲八格. 以列八邑. 每一格記其數計其總. 松檜橡諸木共一千二百萬九千七百七十二株. 書其尾以進之. 上曰意非一卷不能詳. 爾以一張了一牛之所汗. 可謂善矣. 獎歎良久. 是年夏爲言者所嫌. 秋謫金井. 今其草本在書簞. 聊記此以遺後昆. 俾知聖孝於寢園. 若是其憧憧也.

정약용(丁若鏞), <다산시문집, 제14권 발(跋), 跋植木年表>

정치/왕실

서영보가 지은 정조의 건릉¹³³에 대한 만사

동해에 문명의 운세가 돌아와서 / 左海文明會
군사¹³⁴로 성인이 탄강하셨네 / 君師降聖人
법을 세움에 먼저 패도(霸道)를 축출하고 / 立規先黜霸
만물을 기름에 추인¹³⁵의 뜻을 보였어라 / 囿物見推仁
제도는 전대의 공적을 빛내었고 / 王制光前烈
풍속은 고대의 순박함을 회복했네 / 國風回古淳
아 하늘이 우리를 동정하지 않아 / 嗚呼天不吊
중도에 신하들을 버리게 하였도다 / 中道棄群臣

즉위하자마자 춘추를 지어¹³⁶ / 初服春秋作
건강¹³⁷을 통쾌하게 발휘하셨네 / 乾剛一廓揮
화권은 보합으로 돌아가고¹³⁸ / 化權歸保合

133) 건릉(健陵) : 정조(正祖)와 효의왕후(孝懿王后) 김씨(金氏)의 능호(陵號)이다. 경기도 화성시 화산(花山)에 있다.

134) 군사(君師) :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과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뜻으로, 보통 제왕의 별칭으로 쓰인다. 주희(朱熹)의 《대학장구(大學章句)》 서문에 “하늘이 반드시 그에게 명하여 억조 백성의 군사가 되게 하여 다스리고 가르치게 하였다.〔天必命之 以爲億兆之君師 使之治而教之〕”라는 말이 나온다.

135) 추인(推仁) : 자기 한 몸에서 집안으로, 집안에서 국가로, 국가에서 온 세계로, 사랑의 영역을 점차로 확충하여 베푸는 것을 말한다.

136) 즉위하자마자 춘추(春秋)를 지어 : 1777년(정조1)에 《명의록(明義錄)》을 지은 것을 말한다. 이 책은 정조가 왕세손(王世孫)으로 있을 때 대리청정(代理聽政)을 반대하며 모함한 홍인한(洪麟漢)·정후겸(鄭厚謙) 등을 역적으로 치죄(治罪)하여 사사(賜死)하고, 정조를 옹위하여 즉위하게 한 서명선(徐命善)·홍국영(洪國榮)·정민시(鄭民始) 등의 충절을 선양할 목적으로, 정조의 명을 받아 김치인(金致仁) 등이 엮은 것이다. 모두 3권 3책이다. 명의(明義)는 충신과 역적을 분별하고 의리의 근원을 열어 《춘추(春秋)》의 대의(大義)를 밝혔다는 뜻이다.

137) 건강(乾剛) : 천도(天道)가 강건(剛健)하다는 뜻으로, 제왕의 강건한 결단을 비유하는 말이다. 《주역》〈잡괘(雜卦)〉의 “건은 강건하고, 곤은 유순하다.〔乾剛坤柔〕”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138) 화권(化權)은 보합(保合)으로 돌아가고 : 화기 있게 인정(仁政)을 베푸는 것으로 정치의 이념을 삼았다는 말이다. 화권은 만물을 화육(化育)하는 조화(造化)의 권능(權能)이라는 뜻으로, 정권(政權)이라는 말과 같다. 보합은 《주역》〈건괘(乾卦) 단사(彖辭)〉의 “하늘의 도가 변화함에 각각 성명을 바르게 하

심법은 위미¹³⁹⁾를 신중히 했네 / 心法謹危微
 숨겨진 역사를 마음으로 매일 성찰하고 / 秘乘存三省
 대강령을 세워 만 가지 정무를 총람했네 / 宏綱攬萬機
 빛나게 임어한 이십오 년 세월 동안 / 光臨廿五載
 먼동이 트기도 전에 옷을 걸치셨다오¹⁴⁰⁾ / 先曙已求衣

지극하여라 증민¹⁴¹⁾의 효행이여 / 至哉曾閔行
 우리 임금님이 몸에 지녔도다 / 我后有諸躬
 천승의 봉양이니 최고의 봉양이요¹⁴²⁾ / 千乘養爲大
 삼조¹⁴³⁾의 예경(禮敬)은 더욱 융성하였어라 / 三朝禮益隆
 조상 받드는 제사를 엄숙히 거행함에 / 奉先嚴祀典
 흥효¹⁴⁴⁾의 효과가 귀신보다 빨랐다고 / 興孝捷神功
 크게 드러난 영왕의 가르침이여 / 丕顯寧王訓
 시종 명심하며 전전궁궁하였어라¹⁴⁵⁾ / 兢兢服始終

임금이 된 즐거움은 마음에 없이 / 無心南面樂
 한여름 내내 재실(齋室)에 거하였네 / 中夏久齋居
 원로는 봄날 아침에 벽제(辟除)를 하고 / 園路春朝蹕
 궁문은 달마다 승여(乘輿)로 찾아뵈었네¹⁴⁶⁾ / 宮門月觀輿

여 큰 화기를 보전케 해 준다.(乾道變化 各正性命 保合大和)”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139) 위미(危微) : 인심유위(人心惟危) 도심유미(道心惟微)를 줄인 말이다. 위미는 《서경》〈대우모(大禹謨)〉의 “사람의 마음은 위태롭기만 하고, 도를 추구하는 마음은 희미하기만 하니, 오직 정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켜 나감으로써, 진정 그 중도(中道)를 잡아야 할 것이다.(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라는 16자(字)를 압축한 말인데, 주희(朱熹)를 위시하여 송유(宋儒)들이 이것을 요(堯)·순(舜)·우(禹) 세 성인이 서로 도통(道統)을 주고받은 심육자 심법(十六字心法)이라고 강조한 뒤로부터, 개인 특히 임금 자신의 도덕 수양과 치국(治國)의 원리로 중시되었다.

140) 먼동이 …… 걸치셨다오 : 임금이 정사(政事)에 부지런한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한 문제(漢文帝)가 처음 즉위해서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옷을 걸치고(不明求衣) 정사에 임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漢書 卷51 鄒陽傳》

141) 증민(曾閔) : 효자로 일컬어진 공자의 제자 증자(曾子)와 민자건(閔子騫)의 병칭이다.

142) 천승(千乘)의 …… 봉양이요 :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더할 수 없는 효성을 바쳤다는 말이다. 《맹자》〈만장 상(萬章上)〉에, 순(舜) 임금과 그의 부친 고수(瞽瞍)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면서 “효자의 일 가운데 어버이를 높이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어버이를 높이는 일 가운데에는 천하로써 봉양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그런데 천자의 부친이 되었으니 최고로 높임을 받은 것이요, 천하로써 봉양을 하였으니 최고로 봉양을 한 것이다.(孝子之至 莫大乎尊親 尊親之至 莫大乎以天下養 爲天子父 尊之至也 以天下養 養之至也)”라고 한 대목이 나온다.

143) 삼조(三朝) : 고대 천자와 제후의 삼조, 즉 외조(外朝)·내조(內朝)·연조(燕朝)로, 조정을 뜻하는 말이다.

144) 흥효(興孝) : 백성들이 효도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대학장구》전 10장에 “임금이 노인을 노인으로 대우하면 백성들이 효도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임금이 어른을 어른으로 대우하면 백성들이 우애하는 마음을 일으킨다.(上老老而民興孝 上長長而民興弟)”라는 말이 나온다.

145) 크게 …… 전전궁궁하였어라 :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영왕(寧王) 즉 문왕(文王)을 이어 그 뜻을 드러내어 밝힌 것처럼, 정조 또한 영조를 계승하여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가슴에 새겨 그렇게 하였다는 말이다. 《서경》〈군아(君牙)〉에 “아, 크게 드러났도다 문왕의 계책이여, 크게 계승했도다 무왕의 공렬이여. 우리 뒷사람의 앞길을 열어 주고 도와주기를, 모두 바르게 하고 결함이 없게 하였다.(嗚呼 丕顯哉 文王謨 丕承哉 武王烈 啓佑我後人 咸以正罔缺)”라고 한 말이 나온다.

146) 원로(園路)는 …… 찾아뵈었네 : 정조가 봄에는 장헌세자(莊獻世子)의 능인 현릉원(顯陵園)에 참배하러 수원(水原)으로 가고, 매달 초하루마다 사당인 경모궁(景慕宮)에 참배하러 간 것을 말한다. 경모궁

창연(愴然)히 신발 버리듯 한 그 뜻이여¹⁴⁷⁾ / 宵然遺屣志
 옥책문(玉冊文)도 받으려 하지 않았다고 / 不受鏤瑤書
 옥구슬 같은 눈물 다할 날이 없었나니 / 玉淚無窮極
 하염없이 흘러내려 곤룡포를 적셨도다 / 汎瀾濕袞裾

희공¹⁴⁸⁾의 대통을 계승하였나니 / 大統紹姬孔
 아 아름다워라 문교가 여기 있도다 / 於休文在茲
 격치로부터 치평에 이르기까지 / 治平從格致
 광대하게 강령을 제시하였도다¹⁴⁹⁾ / 廣大挈綱維
 주자(朱子)의 교훈으로 모두 바르게 인도하여 / 朱訓咸趨正
 패관 스스로 피언(訖言)을 그만두게 하였도다 / 稗官自息訖
 경에 몸 바칠 평소의 뜻 지키셨나니 / 殉經遵夙志
 근신(近臣)의 눈물이 뺨에 교차합니다 / 邇列涕交頤

신민이 모두 볼 수 있었나니 / 臣民得以見
 은하수처럼 밝은 그 문장이여¹⁵⁰⁾ / 雲漢倬爲章
 호악의 모전¹⁵¹⁾을 드리우고 / 灝噩垂謨典
 웅앙의 찬장¹⁵²⁾을 펼쳤어라 / 顯昉陳瓚璋
 어떤 왕도 이렇게 지은 것이 없나니 / 百王無是作
 고대(古代)나 여기에 견줄 수 있을는지 / 三古與之方
 지난 겨울철을 어찌 차마 생각할까 / 忍憶前冬月
 거질(巨帙)의 서책을 편집했던 그 일¹⁵³⁾ / 編摩百裘絃

은 창덕궁(昌德宮)에 있었다. 정조가 경모궁에 참배할 적에 이동할 때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홍화문(弘化門) 북쪽 담장을 헐고 문을 만들었는데, 달마다 이 문을 경유하였기 때문에 월근문(月艱門)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며, 경모궁의 일첨문(日瞻門)과 바로 통하도록 했다고 한다.

147) 창연(愴然)히 …… 뜻이여 : 정조가 부친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신발을 벗듯 미련 없이 왕위(王位)도 버렸을 것이라는 말이다. 순(舜) 임금의 부친인 고수(瞽瞍)가 만약 살인을 하여 처형당할 상황에 처했다면 순은 어떻게 했겠느냐고 어떤 사람이 맹자(孟子)에게 묻자, 맹자가 “순 임금은 천하를 버리기를 마치 헌신짝 버리듯이 하여, 부친을 몰래 등에 업고 도망쳐서 바닷가를 따라 거처하며 종신토록 혼쾌히 즐거워하면서 천하를 잊었을 것이다.(舜視棄天下猶棄敝屣也 竊負而逃 遵海濱而處 終身訢然 樂而忘天下)”라고 대답한 말이 《맹자》〈진심 상(盡心上)〉에 나온다.

148) 희공(姬孔) : 희단(姬旦) 즉 주공(周公)과 공자(孔子)의 병칭이다.

149) 격치로부터 …… 제시하였도다 : 《대학장구(大學章句)》의 팔조목(八條目), 즉 격물(格物)·치지(致知)·성의(誠意)·정심(正心)·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의 도리에 입각하여 치국 이념을 제시하고 정치를 행했다는 말이다.

150) 은하수처럼 …… 문장이여 : 정조의 문장이 뛰어나다는 말인데, 《시경》〈대아(大雅) 운한(雲漢)〉의 “밝은 저 은하수여, 하늘에서 환히 빛나며 돌고 있네.(倬彼雲漢 昭回于天)”라는 말을 인용한 것이다.

151) 호악(灝噩)의 모전(謨典) : 삼대(三代)의 이상 사회에 관한 광대한 고전의 세계를 가리킨다. 호악은 한없이 넓고 크다는 뜻을 가진 호호악악(灝灝噩噩)의 준말로, 한(漢)나라 양웅(揚雄)의 《법언(法言)》〈문신(問神)〉에 “우순(虞舜)과 하우(夏禹) 시대의 기록은 혼 혼하고, 상(商)나라 시대의 기록은 호 호하고, 주(周)나라 시대의 기록은 악 악하다.(虞夏之書渾渾爾 商書灝灝爾 周書噩噩爾)”라고 한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모전(謨典)은 이전(二典)과 삼모(三謨) 즉 《서경(書經)》의 〈요전(堯典)〉·〈순전(舜典)〉과 〈대우모(大禹謨)〉·〈고요모(皋陶謨)〉·〈익직(益稷)〉을 말한다. 이를 보통 전모(典謨)라고 하는데, 보통 요순(堯舜)과 같은 고대 성군의 훌륭한 정치를 말할 때 인용하곤 한다.

152) 웅앙(顯昉)의 찬장(瓚璋) : 웅앙앙앙(顯顯昉昉)의 준말로, 체모(體貌)가 장중(莊重)하고 기개(氣概)가 현앙(軒昂)한 것을 말한다. 《시경》〈대아(大雅) 권아(卷阿)〉의 “존엄하고 숭고하며, 옥처럼 순결하다.(顯顯昉昉 如圭如璋)”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찬장(瓚璋)은 규장(圭璋)과 같은 말이다.

높고 넓어서 무슨 말로 표현해야 할는지 / 崑蕩何名擬
 백성 화합케 하고 하늘 공경한 그 덕이여 / 誠民而敬天
 간소¹⁵⁴)하며 상제(上帝)를 대하듯 하고 / 盱宵如對越
 비비하며 강전에 관심을 기울였어라¹⁵⁵) / 卑非眷康田
 해타를 어찌 설만(褻慢)하게 내놓았으리오 / 咳唾那曾褻
 자신이 가렵고 병든 것처럼 느꼈더라오¹⁵⁶) / 癢痾若已然
 창생은 죽을 때까지 비통해할 것이니 / 蒼生沒世慟
 애끓는 통곡 소리 구천에까지 들리리라 / 沸哭達窮垓

천리가 항상 유행하는지라 / 天理流行處
 현미¹⁵⁷) 모두 도에 근원했나니 / 顯微皆道原
 침실의 솜이불 안에 거처할 때나 / 綿衾卧內御
 병소¹⁵⁸)에 권점 치며 독서할 때나 / 珠圈丙宵繙
 친근한 사람은 대부분 조정 관원들 / 親近多卿士
 연연¹⁵⁹)의 환관들은 멀리 물리쳤나니 / 淵淵屏寺闈
 천고의 달이 일만 강물 위에 / 祗應千古月
 언제나 환히 비추듯 하였어라 / 長在萬川痕

153) 지난 …… 일 : 정조가 승하하기 전 해인 1799년(정조23) 12월에 규장각(奎章閣)에서 어제(御製) 《홍재전서(弘齋全書)》 선사본(善寫本)을 올린 것을 말한다. 모두 184권 100책으로, 정조의 시문(詩文)·교지(敎旨)·윤음(綸音) 등을 모아서 엮었다.

154) 간소(盱宵) : 소간(宵盱) 즉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나 옷을 입고 해가 진 뒤에야 늦게 저녁을 먹는다는 소의간식(宵衣旰食)의 준말로, 임금이 나라를 걱정하며 정사(政事)에 부지런한 것을 말한다.

155) 비비(卑非)하며 …… 기울였어라 : 정조가 검소한 생활을 하며 민생을 안정시켰다는 말이다. 비비는 음식과 주거를 간소하게 함을 말하는데, 《논어》〈태백(泰伯)〉의 “우왕에 대해서는 내가 흠잡을 수가 없다. 자기가 먹고 마시는 것은 간단히 하면서 제사 지낼 때에는 귀신에게 효를 다하고, 자기가 입는 것은 검소하게 하면서 제복(祭服)은 아름다움을 다하고, 자기가 사는 집은 낮게 하면서 백성을 위한 수리(水利) 사업에는 온 힘을 기울였으니, 우왕에 대해서는 내가 흠잡을 수가 없다.〔禹 吾無間然矣 菲飲食而致孝乎鬼神 惡衣服而致美乎黻冕 卑宮室而盡力乎溝洫 禹 吾無間然矣〕”라고 찬탄한 공자의 말에서 나온 것이다. 강전(康田)은 강공전공(康功田功)의 준말로, 《서경》〈무일(無逸)〉의 “문왕이 허름한 옷을 입고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길러 주는 일을 행하였다.〔文王 卑服 卽康功田功〕”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156) 해타(咳唾)를 …… 느꼈더라오 : 정조의 시문이 모두 위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들로서, 그저 즉흥적으로 아무렇게나 지은 것은 하나도 없으며, 전부가 백성의 고통을 자신이 당하는 것처럼 절실하게 느끼고 지은 것이라는 말이다. 해타는 내뱉는 침 모두가 구슬 같다는 해타성주(咳唾成珠)의 고사를 인용한 말로, 타인의 뛰어난 시문(詩文)을 가리킨다. 《장자(莊子)》〈추수(秋水)〉의 “그대는 저 튀어나오는 침들을 보지 못하는가. 한번 재채기라도 하면 큰 것은 마치 구슬과 같고 작은 것은 안개처럼 부서져 내리는 걸.〔子不見夫唾者乎 噴則大者如珠 小者如霧〕”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백(李白)의 시에 “그대의 침방울이 구천에서 떨어지니, 바람 따라 주옥이 생겨나도다.〔咳唾落九天 隨風生珠玉〕”라는 구절이 있다. 《李太白集 卷3 妾薄命》 또 송(宋)나라 여대림(呂大臨)의 〈극기명(克己銘)〉에 “천하가 나의 인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누가 말하는가, 가렵고 병든 고통이 모두 나의 몸에 절실한 것을.〔孰曰天下 不歸吾仁 癢痾疾痛 舉切吾身〕”이라는 말이 나온다.

157) 현미(顯微) : 현저하게 드러난 곳과 은미하게 숨겨진 곳을 말한다.

158) 병소(丙宵) : 삼경(三更), 즉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해당되는 시각을 말한다. 보통 병야(丙夜)라고 한다.

159) 연연(淵淵) : 갇가지로 묘하게 아로새긴 모양을 뜻하는 연연확호(淵淵蠖蠖)의 준말로, 화려한 궁전을 뜻한다. 연연확복(淵淵蠖伏)이라고도 한다.

길한 언덕도 선침과 가깝고 / 吉岡邇仙寢
 발인하는 길도 역시 배다리¹⁶⁰⁾ / 引路又舟橋
 행차 임하시던 날에 모신 일이며 / 曾奉駕臨日
 재계하던 밤의 일도 생각이 나네 / 緬懷齋殿宵
 가슴 아파라 행궁에 있으면서 / 傷心行闕在
 머리 돌리니 궁성은 저쪽 멀리 / 回首禁城遙
 길이 아버님 혼령을 위로해 드리면서 / 永以慰神理
 조석으로 모시며 신선처럼 노니시리 / 眞遊侍暮朝

천지에 사무친 비통함이어 / 徹地窮天痛
 부자와 같은 군신의 정이어 / 君臣父子情
 특별한 은혜 보답해 드리지 못했으니 / 殊知無報答
 영원히 결별하여 평생토록 통곡하리 / 永訣哭平生
 방백(方伯)으로 복명(復命)은 뒤늦었지만 / 返命遲藩節
 옥경¹⁶¹⁾에 돌아가 기필코 모시리이다 / 歸陪期玉京
 지극한 이 슬픔 어떻게 차마 표현하랴 / 至哀忍模寫
 기운이 빠져서 소리도 내지 못하겠네 / 氣短不能聲
 서영보(徐榮輔), <죽석관유집(竹石館遺集), 제1책 시(詩), 健陵輓詞>

정치/왕실

1789년(정조 13) 정조가 현릉원 이장으로 수원 백성에게 하유(下諭)한 운음.

왕은 이르노라. 이 고을 화산(花山)은 본래부터 영기(靈氣)가 모인 곳으로, 그 형상은 서린 용(龍)이 여의주를 가지고 노는 모습이고, 그 땅은 천 리에 한 번이나 만날 법한 곳이다. 그리하여 원침(園寢)을 모시기로 의논을 정하고 마침내 옮겨 봉안하는 예를 거행하였으니, 이 고을은 바로 나의 조상이 묻혀 있는 곳이고 너희들은 이 고을의 백성이다. 내 너희들을 한집안 식구처럼 여기고 있으니,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해 주고 살림살이를 넉넉하게 해 주어 삶을 편히 여기고 생업을 즐겁게 여기도록 해야만 나의 책임을 다하고 나의 근심을 풀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이전하기로 결정한 때부터 너희들에게 수고를 끼친 것이 많았다고 하겠으니, 매번 여기에 생각이 미칠 때면 대궐 안의 폭신한 보료가 어찌 편안했겠는가. 새 고을 소재지에 도착하여 건설한 것을 두루 살펴보건대, 집들이 즐비하고 농지가 정리되어 번듯이 하나의 대도회(大都會)를 이루었으니, 너희들이 그간 많은 고생을 했다는 것을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다. 보통의 행행 때도 은택을 베푸는 법인데, 더구나 이 고을 이 백성들이겠는가. 원소(園所) 부근의 면리(面里) 및 이주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10년간 급복(給復)하고 새 환자곡의 상황을 탕감할 것이며, 수보미(需保米)도 수를 나누어 탕감하고 그 나머지는 돈으로

160) 길한 …… 배다리 : 정조의 장지(葬地)를 평소의 유언에 따라 부친인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능침과 가까운 곳에 잡았을 뿐만 아니라, 발인(發引)하는 길 역시 생전에 참배하던 것처럼 노들강(鷺江)에 설치한 배다리(舟橋)를 통해서 한강을 건너게 되었다는 말이다. 원래 사도세자는 1762년(영조38)에 경기도 양주군(楊州郡) 배봉산(拜峯山)에 장사 지낸 뒤에 묘 이름을 수은묘(垂恩墓)라고 하였다가, 1776년(정조 즉위년)에 사도세자를 장헌세자(莊獻世子)로, 수은묘를 영우원(永祐園)으로 고쳤고, **1789년에 경기도 화성(華城)으로 옮긴 뒤에 현릉원(顯隆園)으로 고쳤으며**, 1899년(광무3)에 장조(莊祖)로 추존하면서 용릉(隆陵)으로 승격시켰다. 정조의 능호(陵號)는 건릉(健陵)이다.

161) 옥경(玉京) : 백옥경(白玉京)의 준말로, 천제(天帝) 혹은 신선이 상주(常住)하는 천상의 낙원을 말한다. 옥루(玉樓)라고도 한다.

대신 받아들이도록 하겠다. 고을 전체의 면리에 대해서는 1년간 급복하고 묵은 환향(還餉) 가운데 가장 오래된 3년 치를 탕감할 것이며, 수보미도 수를 나누어 탕감하고 나머지는 돈으로 대신 받아들이도록 하겠다. 조관 70세 이상, 사서인 80세 이상의 부로(父老)로서 온천 행차를 재차 맞이한 자는 가자(加資)하겠다. 경내의 유생(儒生)과 무사(武士)는 내년 봄 전성(展省)의 행차를 기다려서 과거를 설행하여 시취(試取)하고자 하며, 오랫동안 근무한 교속(校屬)에게 관직을 제수하거나 천전(遷轉)시키는 것도 허락하니 매 도목정사 때에 주의(注擬)하도록 하라. 지금 이 명이 어찌 너희들만을 위한 것이겠는가. 너희들은 어루만지고 다독거리고자 하는 나의 고심과 지성을 알아서 마음과 힘을 합해 함께 원침을 호위하면서 영원히 변하지 말도록 하라.

王若曰.是府花山.鍾靈有自.其象則盤龍弄珠.其地則千里一逢.議定園寢.遂舉遷奉之禮.是府卽予松楸之鄉.爾等是鄉之民也.予之視爾等.如視家人.裕其食.足其產.俾知安生樂業之方.庶可以盡予責.寬予思.矧自卜移之初.貽勞於爾等者.抑云鉅矣.每一念至.廈旣何安.行到新治.周覽營始.屋閭櫛比.阡陌綺錯.儼然成一大都會.爾等之積費勤苦.亦足推想.尋常蹕路.猶施恩澤.況是鄉是民乎.園所附近面里及徙居民人.給復十年.新還上蕩減.需保米分數.亦許蕩減.餘捧代錢.通一邑面里.給復一年.舊還餉.最久三年條蕩減.需保米亦許分數蕩減.餘捧代錢.父老之再瞻溫幸羽旄者.朝官年七十以上.士庶年八十以上人加資.境內儒武.俟來春展省之行.欲設科試取.校屬之久勤除遷.亦許每都政注擬.今茲之命.豈但爲爾等.爾等知予撫摩之苦心至誠.一乃心力.共護園寢.永世毋替.

<홍재전서(弘齋全書), 제28권 윤음(綸音) 3,諭水原民綸音【己酉】>

정치/왕실

수원(水原)의 화산(花山)으로 현릉원을 옮긴 사실을 기록한 내용.

원침(園寢)을 옮긴 사실 1 기유년(1789)

그런데 오직 수원(水原)의 화산(花山)은 신통한 지사가 점찍은 곳이고 이름난 석학들이 일컫는 곳이다. 기해년(1779, 정조3) 인산(因山) 때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조정의 공론이 갈려 중간에 그만두고 말았다. 그러나 고집하는 자는 사세의 어려움만을 논하였고 풍수의 결합은 말하지 않았다. (…)

정원(定園) 제1

(…) 경기(京畿) 수원부(水原府)의 치소(治所)는 서울과의 거리가 90리이고 치소의 북쪽 산을 화산(花山)이라고 한다. (…)

만일 세속의 지사(地師)가 증악산 이후와 수원부산(水原府山) 이전에 맥기(脈氣)가 미약한 것으로 흠을 잡는다면, 이는 진룡(眞龍)의 변화하는 모습을 모르는 것이다. (…)

수원(水原)으로 계획을 정한 지가 오래되었고, 이 밖에 열성조(列聖朝)께서 봉표(封標)한 곳이나 세상에서 대지라고 일컫는 곳을 여러 술사(術士)들의 말을 통해 그 대략을 살펴보니, 논의한 바가 일정하지 않고 산도 또한 우열이 있었다. (…)

그 여러 가지의 길격(吉格)이 아울러 한 국내(局內)로 모여 고금(古今)이나 지우(智愚)를 막론하고 한마디의 말로 더없는 대지라고 일컫는 곳은 수원(水原)만 한 곳이 없고, 연운(年運)의 길한 것도 대체로 기다리는 바가 있었던 것이다. (…)

가장 좋은 대지(大地)를 구하려고 한다면 수원(水原)의 화산(花山)만 한 곳이 없다. 화산의 형국(形局)은 내가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몇 년 동안 경영하였으니 어찌 이해하지 못하겠는가. (…)

○ 총호사(摠護使) 김익(金煜) 등에게 명하여 수원부(水原府)의 치소(治所)에 가서 화산(花

山) 계좌(癸坐)의 둔덕 산세를 살펴보게 하였는데, 김익 등이 치계(馳啓)하기를, “지사(地師)들이 모두 말하기를, ‘아주 길하고 십전 만전(十全萬全)의 대지입니다. (…)

이최만은 말하기를, “수원(水原)의 읍터는 예로부터 대지라고 일컬었습니다. 좋은 규모와 밝고 빼어난 기상은 비록 속인(俗人)의 눈으로도 아주 귀한 곳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

참의(參議) 윤선도(尹善道)가 총호사(摠護使)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 편지에 이르기를, “감여(堪輿)의 법에 비록 진룡(眞龍)의 대지라 하더라도 혹 혈을 짚는 데 착오가 있거나 혹은 좌향에 착오가 있으면 길하고 흉함이 하늘과 땅의 차이가 생기니, 옛사람이 말한 바 이는 징험한 일에 관계된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수원(水原)의 산은 큰 풍수(風水)로서, 안목을 갖춘 사람이라면 감히 흠을 잡지는 못하겠지만 다만 혈을 짚을 때 보는 바에 따라 의견의 차이가 있으니, 옛사람의 말에 이르기를, ‘산세를 바라보고 용을 찾기는 쉽고 산에 올라 혈을 짚기는 어렵다’고 한 것이 맞습니다. 】 (…)

(…) 獨水原花山.神師之所指點也.名碩之所稱道也.己亥因山時功役既始.以朝論之攜貳.不免中輟.然爭執者祇論事勢之難便.未或言風水之疵欠.(…)

定園第一

京畿水原府治.距京九十里.府治之北岡曰花山.(…)

若俗師以甌嶽以後府山以前脈氣微弱爲欠.則此不知眞龍變化之妙者也.(…)

水原之爲定計久矣.而外此列朝所封標及世所稱大地.因諸術士之言.得其大槩所論自多參差.山地亦有優劣.(…)

若其諸般吉格.并湊一局.無古今.無智愚.一辭稱無上大地.更無如水原者.而年運之吉.蓋有所待矣.(…)

欲求無上大地.莫如水原之花山.花山形局.予雖未目見.幾年經營.豈不領略乎.(…)

○命摠護使金煜等.往水原府治花山癸坐之原相之.煜等馳啓言.地師皆曰.極吉極吉.十全萬全.(…)

竊晚曰.水原邑基.自古稱大地.好箇規模.明秀氣象.雖以俗眼.明知其至貴之處也.(…)

觀於參議尹善道與摠護使書.其書曰.堪輿之法.雖眞龍大地.或點穴有誤.或坐向有差.則吉凶天淵.古人所謂此係驗事者此也.水原之山.固是大風水具眼者.不敢瑕疵.但其裁穴之際.所見有異同.信乎古人之言曰.望勢尋龍易.登山點穴難.(…)

<홍재전서(弘齋全書), 제57권 잡저(雜著) 4, 遷園事實 一〇己酉>

정치/왕실

현릉원지(顯隆園誌) 【기유년】

현릉원은 수원부(水原府) 화산(花山)에 계좌정향(癸坐丁向)으로 위치하고 있다. 기유년 가을 금성위(錦城尉) 박명원(朴明源)이 지금 있는 원(園)은 체제가 미비된 점이 많아 옮겨 모셔야 한다고 건청하여 마침내 자리를 화산에다 정했는데, 점괘가 반룡롱주(盤龍弄珠)의 형국이라고 하였다. 경사(卿士)와 서민 할 것 없이 모두가 좋다고 했기 때문에 그해 10월에 그곳으로 이장(移葬)을 하고 기미년에 와서 원호를 현릉(顯隆)으로 바꾸었던 것이다. (…)

그때 소조가 오래 병석에 있었는데, 영조께서 온천욕을 하도록 명하여 수레가 한강변에 이르렀을 때 물이 붙어서 뱃길이 마땅치 않아 해가 저물어서야 비로소 건너게 되었다. 배 위에서 궁관 이수봉(李壽鳳) 등과 함께 임금은 배, 백성은 물이라는 말에 대해 얘기하였고, 이튿날 수원부(水原府)에 도착하였다. 부의 북쪽에 있는 화산(花山)이 바로 기해년에 영릉(寧

陵)을 치표한 곳이어서 거기에 올라 사방을 두루 보며 오래도록 구경하고, 산성(山城)으로 돌아와서는 무기(武技)를 사열하였다. (…)

顯隆園在水原府之花山癸坐丁向.己酉秋.錦城尉朴明源建言.舊園體制多疵類.請改厝.遂卜于花山.卜云盤龍弄珠之象.卿士從.庶民從.乃移葬于是年冬十月己未.改上園號曰顯隆.(…)

時小朝久有寢疾.英廟命浴溫井.駕到江頭.水漲船路不固.至晚始渡.在船上.與宮官李壽鳳等.講君舟民水之說.翌日.至水原府.府治之北.有花山.即己亥寧陵置標地也.登臨周覽.嘆賞良久.還次山城.閱武技.(…)

<홍재전서(弘齋全書), 제16권 지(誌), 顯隆園誌【己酉】>

정치/왕실

홍봉한의 문집에서 전례에 대한 부분으로 수원(水原)의 화산(花山)에 현릉원을 이장한 심정을 정리한 내용.

(…) 원묘인(園墓引)

원묘(園墓)는 능침 다음으로 소중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원(園)을 봉한 제도는 인묘(仁廟) 때 흥경원(興慶園), 육경원(毓慶園)에서 시작되었는데 곧 장릉(章陵)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선왕이 소령원(昭寧園)과 순강원(順康園)을 봉하고 내가 자리를 이어받은 후 수길원(綏吉園)을 봉했는데, 수원(水原)의 화산(花山)은 바로 천 년 가야 한 번 만나는 때이고, 천 리나 가야 한 번 만날 수 있는 곳으로서 용주(龍珠)와 앵석(鶯石)이 그 땅의 상서로움을 말해 주고 있다. 인묘(仁廟)가 김포군(金浦郡) 자리를 옮기고 그 자리에 장릉(章陵)을 옮겨 모셨던 것처럼 나도 수원부(水原府)를 팔달산(八達山) 아래로 옮기고 그 자리에다 이장(移葬)한 다음 현릉원(顯隆園)으로 봉했는데, 그 일이 이 소자의 하늘에 사무친 슬픔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인지. 또 백세(百世)가 앞에 있고 천세(千世)가 뒤에 있지만, 그 누가 나의 이 원통하고 억울한 심정을 함께 이해하고 괴로워할 것인가. 하늘과 땅을 우러러보고 내려다보며 내 어떻게 마음을 잡을까. (…)

(…) 園墓引

園墓之重.亞於陵寢.而我朝封園之制.始於仁廟朝.興慶園毓慶園.尋進號爲章陵.先朝封昭寧園順康園.予嗣服.封綏吉園.而水原花山.卽千載一遇之時.千里一逢之地.龍珠呈瑞.鶯石效靈.恭依仁廟朝.移金浦郡治.遷奉章陵之禮.乃移水原府於八達山下.而克襄灤水之儀.封爲顯隆園.此可以少慰予小子終天之慟也歟.百世在前.千世在後.尙有以亮予之情.而苦予之志也歟.俯仰穹壤.予何以爲心哉.(…)

<홍재전서(弘齋全書), 제11권 서인(序引) 4, 翼靖公奏藁典禮類叙>

정치/왕실

고양군에 행차하여 유신에게 무예를 시험하였을 때 수원부사의 성적을 언급한 내용.

고양군(高陽郡)에 행차하여 유신(儒臣)들에게 무예를 시험하였다. 고양군에 사정(射亭)이 있으므로, 어가(御駕)를 수행한 문무(文武) 근신(近臣)들과 함께 곡(鵠)을 쏘았으니, 이는 곧 선조(先朝) 시대 성대한 행적의 일단을 계술한 것이라 기록이 없을 수 없으므로, 후일에 이것을 읊다. 【이날 내가 소곡(小鵠)을 쏘아 다섯 번을 맞혔고, (…)수원 부사(水原府使) 윤행원(尹行元), 양주 목사(楊州牧使) 홍의영(洪義榮)은 과녁을 지나쳤다. (…)]

駕次高陽郡.試儒武.郡有射亭.與隨駕文武近臣射鵠.此乃述先朝盛蹟之一端.不可無識.後噲此.是日.予射小鵠五中.(…) 水原府使尹行元, 楊州牧使洪義榮揚.(…)

<홍재전서(弘齋全書), 제11권 시(詩) 2>

정치/왕실

현릉원으로 이장한 내력을 정리한 내용.

원침(園寢)을 옮긴 사실 2

(…) 천봉(遷奉) 제5 (…)
10월 (…)
○ 6일(무오)에 (…)
○ 이날 내가 새벽에 출발하여 수원부(水原府)에서 잤다. (…)

遷園事實 二 (…)
遷奉第五 (…)
○戊午 (…)
○是日.予晨發.宿水原府.(…)

<홍재전서(弘齋全書), 제58권 잡저(雜著) 5>

정치/왕실

원소(園所)를 수원(水原)으로 옮겨 봉안하였다는 내용.

(…) 상이 이르기를, “《주교지남(舟橋指南)》 책은, 수레[車]에만 지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배[舟]에도 그렇게 한 것이다. 능원(陵園)을 전알(展謁)하기 위하여 나루를 건너야 할 때를 당하게 되면, 배다리를 놓아 건너는 데 소용되는 배가 4, 500척을 밀돌지 않기 때문에 경외(京外)에서 널리 찾아다가 쓰는 즈음에 폐단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원소(園所)를 수원(水原)으로 옮겨 봉안한 후로 해마다 한 차례씩 있었던 행행(行幸)은 나루를 건너게 되어 있었다. (…)

(…) 舟橋指南之爲書.非但車有指南.於舟亦然.陵園展謁.若值越津之時.則船艙渡涉.所用船數.不下四五百艘.京外搜覓其爲弊不一而足矣.園所移奉水原之後.歲一度行幸.當由津渡.(…)

<홍재전서(弘齋全書), 제164권 일득록(日得錄) 4, 文學[四]>

정치/왕실

수원부 관내에 원소(園所)의 천봉(遷奉)으로 새로운 읍이 만들게 되었다는 내용.

(…) 수원부(水原府) 관내에 원소(園所)의 천봉(遷奉)으로 인해 새로운 읍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옛날 한(漢) 나라 때에는 장안(長安)의 호걸들을 옮겨 살도록 한 예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규모로는 갑자기 논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부(府)의 유사(儒士)와 무인(武人)들에게 매달 활쏘기와 제술을 시험 보여 후하게 상을 줌으로써 보고 듣는 자들이 놀라고 부러워하여 소식을 듣고서 스스로 오게 해야 한다. (…)

(…) 水原府治.因園所遷奉.新邑草創.昔漢時徙長安豪傑.而我朝規模.有難遽議.故府底儒武.輒月試射製.厚施賞典.俾聳動瞻聆.聞風自至.(…)

<홍재전서(弘齋全書), 제175권 일득록(日得錄) 15, 訓語[二]>

정치/왕실

1789년(정조 13) 수원의 화산(花山)으로 천봉하고 그 내력을 기술한 현릉원비(顯隆園碑)

사도수덕돈경홍인경지장헌세자(思悼綏德敦慶弘仁景社莊獻世子)는 승정(崇禎) 기원후 108년을묘년(1735, 영조11) 1월 21일에 탄생하여 처음에는 원자(元子)로 책봉되었다가 병진년에 왕세자로 책봉되고, 기사년에 왕명으로 대리청정하였다. 임오년(1762, 영조38) 윤5월 21일 28세의 나이로 홍서(薨逝)하여 시호를 사도(思悼)로 내리고, 7월 23일 양주(楊州) 남쪽 중량포(中梁浦) 배봉산(拜峯山)에 갑좌(甲坐)로 안장하였다. 이 소자가 즉위하던 해인 병신년(1776, 정조 즉위년)에 시호를 장헌(莊獻)으로 추상하고 원호(園號)는 영우(永祐)로 했으며,

계묘년(1783, 정조7)에 다시 존호를 수덕돈경(綏德敦慶)으로 추상하고, 갑진년에 또 홍인경지(弘仁景祉)를 추상하였다. 기유년(1789, 정조13) 10월 7일 수원(水原)의 화산(花山) 계좌(癸坐) 둔덕에 옮겨 모시고 원호를 현릉(顯隆)으로 고친 것이다.

思悼綏德敦慶.弘仁景祉.莊獻世子.崇禎紀元後一262_252d百八年乙卯正月二十一日誕生.初封元子.丙辰.冊封王世子.己巳.受命代理.壬午閏五月二十一日薨逝.壽二十八.贈諡思悼.七月二十三日.葬于楊州南中梁浦拜峯山甲坐之原.小子嗣服之年丙申.追上諡莊獻.園號永祐.癸卯.追上尊號綏德敦慶.甲辰.加上尊號弘仁景祉.己酉十月初七日.遷奉于水原花山癸坐之原.改園號顯隆.

<홍재전서(弘齋全書), 제15권 비(碑), 顯隆園碑【己酉】>

정치/왕실

동작동에 있는 창빈(昌嬪)의 묘소에 치제한 글

주 나라에서는 극창을 노래하고¹⁶²⁾ / 周歌克昌

노 나라에서는 치창을 송축하였으니¹⁶³⁾ / 魯頌熾昌

그러한 덕이 있는지라 / 維其有之

복록이 신령하고 유장하였네 / 蒞祿靈長

옥파와 은황이 / 玉派銀潢

예천에서 발원하니 / 發源醴泉

성자신손이 길게 이어져 / 聖神繩繩

억만년이 되도록 길이 전하네 / 彌億萬千

저경궁(儲慶宮)과 옥상궁(毓祥宮) / 儲慶毓祥

연호궁(延祐宮)과 선희묘(宣禧墓)는 / 延祐宣禧

멀고 가까움을 막론하고 / 無遠無邇

일체 내가 생각하는 바일세 / 一體我思

화성(華城)을 살펴보는 이번 행차에 / 是行觀華

공손히 자궁을 모셨는데 / 恭陪慈宮

저기 노랑의 물가를 바라보니 / 粵瞻露潏

상서로운 기운이 울창하네 / 瑞氣鬱葱

길하고 강녕함이 / 吉利康寧

모두 명령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 / 莫非受佑

돈독히 근본에 보답하고자 / 曰篤報本

변두의 제기를 대신 드리게 하네 / 替薦籩豆

<홍재전서(弘齋全書), 제23권 제문(祭文)5, 昌嬪墓致祭文>

정치/왕실

현릉원(顯隆園)에 행행할 때 연로(輦路)의 눈을 치운 군사들을 급복(給復)하는 일에 대한 하교

금년에 처음 눈 내린 화성(華城)을 보고 즉시 별군직(別軍職)을 보내어 5일 동안의 봉심(奉

162) 주 나라에서는 …… 노래하고 : 《시경(詩經)》 주송(周頌) 웅(雝)에 “능히 그 후인을 창성하게 하라. [克昌厥後]” 하였다.

163) 노 나라에서는 …… 송축하였으니 : 《시경(詩經)》 노송(魯頌) 비궁(閟宮)에 “효손에 경사가 있어, 너로 하여금 치성하고 창대하게 하리라.[孝孫有慶 俾爾熾而昌]” 하였다.

審) 행차와 관련된 폐단을 물었는데, 그가 돌아와 아뢰는 말을 듣고서야 도리어 폐단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대저 원행(園行) 때 연로의 눈을 치우는 군사에 대해서는 이미 특별 전교로 인하여 매년의 급복을 그 보수(步數)를 헤아리고 결역(結役)을 계산해서 하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연로의 농부가 각각 그 명의(名義)로 가령 1결(結)로 역(役)에 응했으면 몇 부(負)를 제감(除減)하고 몇 부를 세총(稅總)으로 잡느냐 하는 것을 규정으로 정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연로의 농부들이 모두 견휜(蠲恤)하는 조정의 은택을 알아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 나올 것인데, 본부는 해당자의 명의로 결세(結稅)를 제감해 주지 않고 원총(元總) 중에서 몇 결 몇 부를 떼내어 돈으로 대신 지급하였기 때문에 대신 지급한 돈이 농사의 풍흉에 따라 많고 적음이 같지 않았다. 그래서 무지한 농부들이 값을 쳐주고 고용하여 부리는 것으로 알기도 하니, 조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백성들에게 편리하도록 하는 조처에 있어서 실질적인 혜택이 아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본부부터 먼저 폐단을 바로잡고, 아울러 대가가 행차한 각읍 및 광주 유수(廣州留守)에게도 즉시 문서를 왕복하여 편리한 쪽으로 결정을 함으로써 대양(對揚)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게 하라.

今年初見雪華, 卽遣別軍職. 詢弊於五日奉審之行. 聞其回奏. 始知反爲弊端. 大抵園幸時輦路掃雪軍. 旣因特敎. 每年給復. 量其步數. 計其結役. 則輦路田夫. 各其名下. 假令一結應役. 則幾負以給復除減. 幾負以稅總定式. 夫然後路傍田夫. 咸知朝家蠲恤之澤. 皆可樂趨爭赴. 而本府則不於當者名下. 減給結役. 就元總中. 除出幾結幾負. 以錢代給. 故代錢之數. 隨其豐歉. 多寡不一. 無知田夫. 或認以雇價使役. 朝家爲所重便民之舉. 實惠無以下究. 先自本府釐弊. 并與輦路各邑及廣州留守處. 亦卽往復. 從便停當. 俾有對揚之實效.

<홍재전서(弘齋全書), 제36권 교(敎) 7, 園幸輦路掃雪軍給復敎>

정치/왕실

유형원(柳馨遠)에게 채주(祭酒)를 더 증직하라는 하교

고 처사 증(贈) 집의 겸 진선(執義兼進善) 유형원은 그가 지은 《반계수록(磻溪隨錄)》의 보유편(補遺編)에서, “수원 도호부(水原都護府)에 광주(廣州) 아래 지역인 일용면(一用面) 등을 더해 주고 치소(治所)를 평야로 옮겨 내를 끼고 지세를 따르도록 하면 읍성(邑城)을 지을 수 있다. 거기에는 읍치의 규모와 평야의 대승(大勝)을 더하면 진실로 대번진(大藩鎭)의 기상을 가진 땅이 될 것이니 안팎으로 1만 호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성을 쌓는 부역은 향군(鄉軍)이 정번(停番)하면서 내는 재물로 충당해야 한다.” 하였다.

대개 그 사람은 유용한 학문으로 경제(經濟)에 관한 글을 지었던 것이다. 기이하도다. 그가 수원의 형편(形便)을 논함에 있어 읍치를 옮기자고 한 계획과 성을 쌓자고 한 방책은 100년 전에 살았으면서도 오늘날의 일을 환히 알았던 것이니, 면(面)을 합치고 정번에서 나오는 재물을 쓰자고 하는 등의 세세한 절목과 일에 있어서도 모두 병부(兵符)처럼 딱 들어맞았다. 그의 글을 직접 읽고 그의 말을 응용하였다 해도 오히려 대단한 감회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의 글을 보지 못했는데도 본 것과 같고 그의 말을 듣지 못했는데도 이미 응용하였으니, 그 사람이 품고 있던 바가 실로 풍부하였던 것이다. 곧 이 화성(華城) 한 가지 일은 나에게 있어서는 아침저녁으로 만나게 된 것이라 할 만하다.

기억하건대, 예전에 그 집안의 후손에 의하여 그에게 추은(推恩)할 적에 의례적으로 호조 참판을 증직하려 하자 상신(相臣)이 힘써 말하기를, “그 의례적으로 증직하는 직함은 도리어 특별히 증직하는 것보다 못하니 이 유신(儒臣)에게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 일

찍이 그 말을 옳게 여겼었다. 더구나 지금 그에 대한 감회가 일어나는데 어찌 고양시켜 면려하는 은전을 빠뜨릴 수 있겠는가. 성균관 채주를 더 증직하고 그 사손(嗣孫)을 찾아 물어 보고하도록 하라. 【이미 찬선(贊善)과 참판(參判)을 증직했기 때문에 이조참판 겸 좌주 찬선(史曹參判兼祭酒贊善)을 증직하는 것으로 시행하였다.】

故處士贈執義兼進善柳馨遠.其所撰礪溪隨錄補遺編曰.水原都護府加廣州下道之一用等面.移治於坪野.臨川因勢.邑城可築.申之以邑治規模.坪野大勝.眞是大藩鎮氣象.地內外可容萬戶.又言築城力役.當藉鄉軍停番之需.蓋其人有用之學.著之爲經濟文字.奇哉.其論水原形便也.移治之謨.築城之略.身在百年之前.燭照今日之事.與合面停番等節文細務.亦皆鑿鑿如符契.見其書而用其言.尙謂之曠感.其書不見而如見.其言未聞而已用.其人之所抱固富矣. 卽此華城一事.在予可謂朝暮遇.記昔其家後承之推恩也.例贈戶曹佐貳.相臣力言其例贈之銜.反遜於特贈.不可施於此儒.嘗以其言爲是.況今興思.豈闕揭厲之典.加贈成均館祭酒.其嗣孫訪問以聞. 【已贈贊善佐貳.故以贈史曹參判兼祭酒贊善施行.】

<홍재전서(弘齋全書), 제34권 교(敎) 5, 故處士柳馨遠加贈祭酒敎>

정치/왕실

헌릉(獻陵)에 전알(展謁)에 참여한 화성유수 등에게 옷감과 음식을 하사하라는 윤음

오늘은 곧 예전에 어가를 모시고 왔던 이후로 처음 비러 온 날이니, 위아래가 경사를 함께하는 조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제사하는 반열에 있던 아헌관(亞獻官) 이하에게는 상을 베푸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 이미 뜻을 보여 주었다. 또한 감회가 드는 것이 있으니, 예전에 이 능에 전배하기 위하여 행행할 때 승지로 어가를 수행하였고 이번에도 반열에 참석한 행대호군 서유대(徐有大)에게 자급을 더해 주도록 하라. 또 궁관(宮官)으로 배종(陪從)하였고 이번에도 반열에 참석한 화성 유수(華城留守) 서유린(徐有隣)에게는 옷감과 음식물을 실어 보내라.

(…)今日卽昔年陪駕後初覲之日也.當有慶賴之舉.及此溫恭之列.亞獻官以下.施賞爲所重.既示意矣.又有起感者.昔年拜是陵之幸.以承宣隨駕.而今又參班行護軍徐有大加資.以宮官陪從.而今又參班華城留守徐有隣.衣資食物輸送.

<홍재전서(弘齋全書), 제29권 윤음(綸音) 4, 獻陵展謁日綸音>

정치/왕실

여강의 능수 충해는 화성의 법령을 적용하라 윤음

또 여강(驪江) 가의 능수(陵樹)들도 충해를 입고 있다고 하니, 벌레를 사들이고 바다로 던지는 일을 한결같이 화성(華城)에 새로 반포한 법령에 따라 적용해도 결코 조금도 불가할 것이 없을 것이다. 곧이어 도백(道伯)의 장계를 보건대, 벌레를 다 모으는 일이 아직 묘연하고 지금과 같은 때 백성을 부리는 것은 농정(農政)에 방해가 된다고 하였다. 이에 근심스러운 마음을 가눌 수 없어 촛불을 밝히라 하고 써서 내리니, 지금 이후로는 모두 위와 같이 하는 것을 식례(式例)로 삼도록 하라.

而又於驪江陵樹.亦云蟲損.買蟲與投水.一依華城新頒式令用之.決知其毫無不可.續見道伯之狀語.畢拾姑杳然.此時役民.有妨農政.不勝耿耿.呼燭書下.今後餘皆以爲例.

<홍재전서(弘齋全書), 제29권 윤음(綸音) 4, 拾蟲投水綸音>

정치/왕실

화성(華城)의 조적곡(糶糴穀)에서 모곡(耗穀)을 제하여 정리곡(整理穀)이라 개칭하고 이어 만년제(萬年堤)를 쌓는 데 관한 윤음

본부(本府)에서 원침(園寢)을 받든 지 이제 10년이 되었다. 나 소자는 부여잡지도 못하고 미칠 수도 없는 비통함을 안고도 날마다 몸소 청소 상태를 점검하여 조석으로 보살펴 드리는 정성을 펴지 못하였다. 오직 본부의 못 백성들이 이곳에 살면서 길이 원침의 나무들을 바라보며 함께 그곳을 지키고 있으니, 내가 어찌 이 부(府)를 제향(帝鄉)같이 보지 않을 수 있겠으며 이 백성들을 친지처럼 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10년 동안 그럭저럭 고식적으로 따라 행할 뿐이었으니, 어떤 일이 인정(仁政)에 가까웠으며 어떤 정사가 백성들을 편리하게 할 수 있었겠는가. 조세(租稅)를 감면해 주는 정사는 빈부(貧富) 간에 고르게 시행되기 어렵고, 백성에게 복호(復戶)를 내려 주는 것은 고금(古今)에 각각 그 마땅함을 달리하는 것이다. 오직 조적(糶糴)에서 모곡을 제하는 것이 인화(人和)의 계책이 될 수 있다.

을묘년에 정리곡(整理穀)을 화성(華城)에 아울러 설치할 때 모곡을 제하고 조적을 시행하는 것이 곧 나의 당초 본의였는데 끝내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 곡총(穀摠)이 이제 벌여 놓고 쓸 만큼 되었다고 하니, 지금부터 화성의 환곡(還穀)과 향곡(餉穀)은 아울러 정리곡이라 칭하고 이어 모곡을 제하도록 하라. 유사(留司)로 올린 이후로 백성들이 환곡이 너무 많아진 것을 괴롭게 여기고 있으니, 수신(守臣)으로 하여금 이 뜻을 알고서 거두고 내주도록 하라.

그리고 원침(園寢) 아래의 전토(田土) 가운데 화소(火巢)로 들어간 곳을 처음에는 10배의 가격으로 쳐서 주고 두 번째에도 그렇게 하였는데, 세 번째와 네 번째로 경계를 정할 때에는 처음이나 두 번째와는 상반되게 하였으니, 이 또한 알맞게 해야 더 지급하도록 하라. 대대적으로 둔전(屯田)을 설치하고 뜻대로 독을 쌓도록 한 것은 화성 백성들이 음식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려는 계책이었다. 그런데 근래 둔전대, 부역(賦役)이 빈번하고 무겁다 하니, 또한 아랫사람들을 보태 주는 정사로써 즉시 좋은 쪽으로 조치하도록 하라. 친군위(親軍衛)를 특별히 설치한 것은 실로 우림위(羽林衛)를 모방한 것이었는데, 장수들이 잘 살피지 않아 아전들이 농간을 부리고 있으니 이 또한 별도로 정리해야 할 것이다.

만년제(萬年堤)의 역사(役事)에 있어서 중한 바는 위로는 원침을 위한 것이요 아래로는 백성을 위한 것이니, 물을 소통시켜 끌어들이는 데 드는 비용은 마땅히 내탕고에서 내릴 것이다. 어가(御駕)가 궁궐로 돌아간 뒤 날을 잡아 역사를 시작하되, 반드시 농사일이 시작되기 전에 끝나쳐야 한다. 이러한 몇 가지 조목은 원침을 받들어 호위하는 방도가 될 것인데, 미루어 백성들이 생업을 즐겁게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나머지의 거행은 묘당(廟堂)에 회부하여 조목별로 나열하여 지시하도록 하라.

自奉園寢於本府.今焉爲十年.予小子抱莫攀靡泊之慟.而不能日日躬檢灑掃.以展晨昏之誠.惟府之羣黎百姓.居是地.長瞻宰樹.共護珠丘.予安得不視是府.如視帝鄉.待是民.如待故人.然於十年之間.荏苒因循.何事近於仁政.何政可以便民.減租之政.貧富難以均施.賜復於民.古今各異其宜.惟糶糴之除耗.爲人和之策.乙卯整理穀之并置華城.除耗糶糴.卽予當初本意而未果爲者.聞其穀摠.庶可排比.自今華城還餉.并稱整理穀.仍除耗穀.而陞爲留司以後.民以穀多爲苦.令守臣知此意.斂散園底田土之入於火巢處.初準十倍之直.再亦如之.三四次定界也.與初再相反.此亦量宜加給.而大有設屯.如意築垆.爲華民足食之策.而近聞賦繁役重.亦以益下之政.俾卽從長措處.親軍衛之特置.實倣羽林衛.而將不致察.吏緣爲姦.亦宜別殷釐正.至於萬年堤役所重.上爲園寢.下爲民生.疏導之費.當有內下.回鑾後卜日經始.必趁農作前告竣.凡此數條.爲園寢拱衛之道.推以及於民生之樂業.自餘舉行.付之廟堂.條列知委.

<홍재전서(弘齋全書), 제29권 윤음(綸音)4, 華城糶糴之穀除耗改稱整理穀仍築萬年堤綸音>

정치/왕실

1795년(정조 19) 화성(華城)에서 진찬(進饌)하는 날 중외에 유시한 윤음

장락당(長樂堂)에서 축수의 술잔을 받들어 올리고 낙남헌(洛南軒)에서 술자리를 베풀면서 경건히 북두(北斗) 자루에 술을 따르고 남산(南山)처럼 장수하시기를 축원하였고, 이튿날 또 노인들을 섬돌과 뜰로 불러들여 자궁의 덕에 배부르게 하였으니, 오늘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아래에서 이미 화봉인(華封人)의 축원을 올렸는데 위에서 어찌 홍범구주(洪範九疇)에 따른 하사를 아낄 수 있겠는가. 노인으로서 영의정 홍낙성(洪樂性) 이하 70세 이상 된 사람 및 61세가 된 사람들에게 각각 비단 한 필을 하사하고, 또 누런 명주를 주어 구장(鳩杖)에 맬 수 있게 할 것이며, 본부에서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각각 한 자급을 가자하라.

한 고조(漢高祖)는 풍폐(豐沛)에 대해서, 광무제(光武帝)는 남양(南陽)에 대해서 탕목읍(湯沐邑)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특별히 복호(復戶)를 하사했었는바, 역사책에 이 사실이 기록되어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구나 이 화성 지역은 대가가 행차하여 머물렀던 곳이며 선침(仙寢)을 봉안한 곳이 아닌가. 우리 자궁을 모시고 올 적에 길 양쪽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담장처럼 둘러싸고 있었고, 임금의 행차를 바라보는 기쁨과 임금을 가까이에서 보고자 하는 정성으로 곳곳마다 노랫소리가 들리고 모든 사람들이 한목소리로 칭송하였다. 그러니 지금 만약 별도의 혜택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장차 어떻게 이 지역의 부로(父老)와 자제(子弟)를 위로하겠는가. 전에 이미 급복한 이외에 원침 아래에 사는 백성들에게 특별히 2년을 더 급복하고, 성 안팎에 사는 백성들에게는 1년을 더 급복하라.

남의 노인들에게 은혜가 미치게 하는 것을 이 네 가지보다 먼저함은 은혜를 미루어 넓힌 선왕의 인정(仁政)이었다. 이번 행차는 그 시기가 자궁의 회갑을 맞이하는 해이고 봄빛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절기인데, 자궁의 기후가 편안하시어 성대한 의식을 순조롭게 행하였으니, 영광을 입어 산천이 빛을 더하게 되었다. 이에 자궁의 마음을 우러러 체득하여 크나큰 은혜를 대대적으로 베풀어서 기로(耆老)에게 이미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문무과를 치르고 군사들의 사열도 행하였다.

그런데 저 누더기를 걸치고 창백한 모습을 한 자들만이 함께 즐기고 기뻐하는 대열에 들지 못한다면 어찌 하늘의 아름다움을 받들어 행하는 뜻이 되겠는가. 내일 신평루(新豐樓)에 나가 사민(四民)과 진민(賑民)에게 쌀을 나누어 주고, 승선(承宣)에게 명하여 길이 조금 먼 마을로 나뉘어 가서 창고를 열어 먹이도록 할 것이다. 지금 이때에 죽을 먹이고 전대를 채워 주어 구덩이에서 벗어나 격양가(擊壤歌)를 부르게 한다면 이는 털끝만큼도 모두 자궁께서 내려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백성들이 비록 무식하고 무지하다 한들 어찌 서로 기뻐하면서 크나큰 은혜를 가슴에 품고 인자한 덕을 칭송하지 않겠으며, 남산과 북두성처럼 장수하시기를 축원하는 마음이 지금의 내 심정과 같지 않겠는가.

이를 통하여 생각건대, 인정은 은혜를 미루어 나가는 데 있을 뿐이니, 맹자(孟子)가 이른바 “이 마음을 들어서 상대에게 시행한다.” 는 것이 이것이다. 지금 화성 한 부(府)로써 미루어 보면 한 도(道)를 알 수 있고, 한 도를 미루어 본다면 7개 도와 양도(兩都)를 알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화성 한 부에만 미치고 팔도(八道)와 양도에 미치지 않으며, 단지 올해만 시행하고 천년만년토록 시행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어찌 미루어 나간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정리소(整理所)의 설치가 옛날에 있었던 것인가. 실로 번거로움을 제거하고 폐단을 줄이고 자 해서 설치한 것이었다. 그래서 아주 적은 돈도 경상 비용을 축내지 않고, 위로는 대내의 음식 공급, 중간으로는 반열에 수행한 관원들의 노자, 아래로는 군마(軍馬)와 여도(興徒)들의 식량과 사료에 이르기까지 모두 정리소에서 마련하였으니, 이것이 10만 께미의 돈을 별도로 준비해 온 까닭이다.

10만이라는 수효로 이와 같은 행사를 치르자면 오히려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이제 어가를 돌리려 함에 도리어 정리소에 남은 돈이 있다. 호조로 돌려서 몇 달간의 경비로 쓰기 보다는 차라리 여러 지방에 은혜를 베푸는 데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 액수대로 곡물을 마련하여 ‘을묘정리곡(乙卯整理穀)’ 이라고 이름 짓고, 300개 고을에 나누어 유치시킨 다음 매년 이자를 늘려 나가 수만 포에 이르게 하라. 이로써 나라 안의 백성들이 모두 자궁이 베풀어 주는 은혜를 입게 할 것이며, 다함이 없이 비축하고 유구히 전해 가도록 하라. 또 이 곡식으로 농사를 짓고 수확하여 공사(公私) 간에 산더미처럼 축적한다면 미루어 나가는 뜻이 크게 될 것이다.

아버이를 사랑함에 있어서는 뜻을 따르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고, 뜻을 따름에 있어서는 은혜를 넓히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 아, 너희 유사(유사의 신하들은 나의 지극한 뜻을 알아서 똑똑히 듣고 삼가 준행하도록 하라.

계축년 봄에 내가 연신(筵臣)에게 말하기를,

“내후년은 바로 우리 동방에서 처음 맞이하는 크나큰 경사가 있는 해이다. 하례 의식은 내년에 의당 먼저 행하여 보령 60세를 맞이한 일로 칭경(稱慶)하고 진하(陳賀)할 것이며, 상호(上號)는 자전(慈殿)과 경모궁(景慕宮)에 장차 현책(顯冊)을 올릴 것이다. 그런데 연향례에 대해서는 내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가 있으니, 내후년에 자궁을 모시고 원침(園寢)에 전배(展拜)한 후 환궁하는 길에 행궁(行宮)에서 진찬(進饌)하려는 것이다. 이해 이 경사를 맞이하여 이곳에서 이 예를 행한다면 어찌 일거양득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갑인년 겨울에 빈청(賓廳)이 자전과 자궁에게 존호를 올리기를 청하였다. 이에 하교하기를, “힘써 청한 끝에 다행히 애써 따르겠다는 분부를 받들었다. 자전과 자궁께 존호 올리는 의식을 좋은 날을 택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내년 봄의 원행(園幸) 때 자궁을 모시고 가서 전성(展省)의 예를 행할 것이니, 별도로 정리 당상을 차출하여 분담하여 구관(句管)하게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마침내 심이지(沈頤之), 서유방(徐有防), 이시수(李時秀), 서유대(徐有大), 서용보(徐龍輔), 윤행임(尹行愆)을 정리 당상으로 차임하고 홍수영(洪守榮), 구응(具膺), 이노수(李潞秀), 홍대영(洪大榮), 김용순(金龍淳)을 낭청으로 삼았으며, 나중에 우의정 채제공(蔡濟恭)을 총리대신으로 삼았다. 경상 비용 이외에 선혜청의 저치전(儲置錢) 10만 3천여 냥을 정리소에 내려 주고, 행행 때 어공(御供)에 필요한 여러 가지 수요로부터 두 군주(郡主)와 내외 빈척(賓戚)의 옷감과 여비 및 배행한 각 아문의 당상과 낭청, 각 영문의 장관 이하의 제반 비용에 이르기까지 모두 본소에서 조처해서 지급하게 하였다.

○ 이해 윤2월 9일에 자궁을 모시고 출궁하였는데, 수가(隧駕)한 관원이 129명, 장관이 49명, 각 차비가 43명, 장교가 236명, 원역(員役)이 1108명, 군병이 3410명, 내관(內官)이 12명, 나인(內人)이 31명, 액속(掖屬)이 113명이었다. 용양봉저정(龍驤鳳翥亭)에서 주정(晝停)하고 시흥(始興) 행궁에서 잠을 잤다. 10일에는 사근평(肆覲坪) 행궁에서 주정하고 화성 행궁에서 밤을 지냈다. 11일에 본부의 성묘(聖廟)를 참배하고, 선조(先朝) 때 향교에 나아가 알성한 다음 경서(經書)와 노비를 하사하신 고사에 따라 새로 간인한 사서삼경을 내각으로 하여금 옥쇄를 찍어 내려 보내게 하고, 노비는 해조로 하여금 마련하여 지급하게 하였다. 그

리고 경향의 수복(守僕)과 원역(員役) 등을 등급을 나누어 시상하였다. 다시 낙남현에 나아가 문무과를 설행하였다. ‘근상천천세수(謹上千千歲壽)’로 부(賦)의 제목을 삼아 본부 및 광주(廣州), 과천(果川), 시흥 네 고을의 유생들을 시험 보인 다음 문과에서 5명을 뽑고 무과에서 56명을 뽑았다. 그리고 봉수당(奉壽堂)에 친립하여 진찬(進饌)에 대한 습의(習儀)를 거행하였다. 12일에 자궁을 모시고 원침을 배알하였는데 사모의 정을 더욱 가눌 길이 없었다. 원속(園屬)에게 의당 뜻을 보이는 거조가 있어야 하겠기에, 영(令) 임희후(任希厚)를 곧바로 목사에 제수하고 구응(具膺)은 승서(陞敍)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경향의 수복, 식목감관(植木監官), 숙수(熟手), 수호군(守護軍) 등은 등급을 나누어 시상하도록 하였다. 또 총섭(摠攝)한 용주사(龍珠寺)의 상좌승(上座僧)을 체가(帖加)하고 경술년 이후로 거접(居接)한 승들에게 미두(米斗)를 나누어 주도록 명하였다. 도로 행궁으로 나아가서 서장대(西將臺)에 친립하여 성조(城操)와 야조(夜操)를 행하였다.

○ 13일에 봉수당에서 진찬례를 행하였는데, 찬안(饌案)이 70기(器)에 별미(別味)가 12기였다. 첫 번째 잔과 두 번째 잔을 친히 올리고, 세 번째 잔부터 일곱 번째 잔까지는 자궁의 뜻에 따라 명부(命婦) 및 외빈(外賓), 영의정 홍낙성(洪樂性), 광은부위(光恩副尉) 김기성(金箕性)이 받들어 올렸다. 직접 지은 장락장(長樂章)을 선창(先唱)하였다. 첫 번째 잔을 올릴 때는 헌선도(獻仙桃)를 정재(呈才)하고 환환곡(桓桓曲)을 연주하고, 두 번째 잔을 올릴 때는 금척(金尺)과 수명명(受明命)과 하황은(荷皇恩)을 정재하고 청평악(淸平樂)을 연주하고, 세 번째 잔을 올릴 때는 포구락(拋毬樂)과 무고(舞鼓)를 정재하고 오운개서조곡(五雲開瑞朝曲)을 연주하고, 네 번째 잔을 올릴 때는 아박(牙拍)과 향발(響鉢)을 정재하고 천세만세곡(千歲萬歲曲)을 연주하고, 다섯 번째 잔을 올릴 때는 학무(鶴舞)를 정재하고 유황곡(惟皇曲)을 연주하고, 여섯 번째 잔을 올릴 때는 연화대(蓮花臺)를 정재하고 항항곡(恒恒曲)을 연주하고, 일곱 번째 잔을 올릴 때는 수연장(壽延長)을 정재하고 하운봉곡(夏雲峯曲)을 연주하였다. 술잔 올리기를 마치자 다시 처용무(處容舞), 정읍악(井邑樂), 첨수무(尖袖舞), 낙양춘곡(樂陽春曲)을 연주하였다. 그리고 친히 지은 관화장(觀華章)을 후창(後唱)하였다. 백관에게 선찬(宣饌)하고 산화(散花)하였다. 내외 빈척(賓戚)으로부터 교례(校隸), 군민(軍民)에 이르기까지 모두 천세(千歲)를 불렀다. 연회에 참석한 사람은 내빈(內賓)이 13명, 외빈(外賓)이 69명이었다. 연회를 마친 후 칠언 율시(七言律詩) 한 수를 써 내리고는 연회에 참석하거나 수가(隨駕)한 신하들로 하여금 화운(和韻)하여 올리게 하였다. 정리소의 신하들에게 하교하기를,

“오늘의 예는 실로 천 년 만에 처음 있는 크나큰 경사이다. 오는 갑자년에는 자궁께서 칠순이 되실 것인데, 그때의 진찬도 오늘과 같이 할 것이다. 그러니 오늘 사용한 반탁(盤卓)과 준작(尊爵)의 도구들을 본부에 보관해 두어 10년이 거듭 돌아오는 것에 대비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고 판서 조엄(趙巖)의 처 홍씨(洪氏)는 80의 나이로 진찬하는 반열에 참석했다 하는데, 더구나 이 사람은 자궁의 고모이며, 고 참판 홍낙인(洪樂仁)의 처 민씨(閔氏)와 동지돈녕부사 홍용한(洪龍漢)의 처 송씨(宋氏)는 모두 70의 나이로 탈 없이 왕래하였다. 옷감과 음식물을 외탕고로 하여금 수송하게 하라. 동지돈녕부사 홍준한(洪駿漢)·홍용한(洪龍漢)·홍낙신(洪樂信)·홍낙임(洪樂任), 도정(都正) 홍낙륜(洪樂倫)에게도 의자(衣資)와 식물을 외탕고로 하여금 수송하게 하라.”

하였다. 진찬할 때 거행한 본부의 비장(裨將), 교리(校吏) 등을 등급을 나누어 시상하도록 명하였다.

○ 14일에 신평루(新豐樓)에 친림하여 사민(四民)에게 쌀을 나누어 주고 기민(饑民)에게 죽을 먹였는데, 백성들의 수는 모두 4819명, 쌀은 377석 13두 9승이었다.

○ 낙남헌에 나아가 양로연(養老宴)을 행하였다. 수가한 관원, 본부의 노인 가운데 70세 된 조판과 80세 된 사서인 및 61세 된 사람은 연회에 참석하라고 명하였다. 수가한 노인, 영의정 홍낙성 등 15명과 화성의 노인 전 참의 이석조(李奭祚) 등 384인이 각각 자손을 거느리고 자리로 나아가서 일좌(一座)가 재배(再拜)하는 예를 행하였다. 홍낙성 등이 차례로 술잔을 올리고 산호(山呼)를 외쳤다. 첫 번째 잔을 올릴 때는 ‘녹명(鹿鳴)’과 ‘천보(天保)’를 연주하고, 두 번째 잔을 올릴 때는 ‘관저(關雎)’와 ‘작소(鵲巢)’를 연주하고, 세 번째 잔을 올릴 때는 ‘남유가어(南有嘉魚)’와 ‘남산유대(南山有臺)’를 연주하였다. 못 노인들에게 명하여 각각 한껏 취하도록 하였다. 칠언 절구(七言絕句) 한 수를 써 내리고는 양로연에 참석한 신하들로 하여금 화운하여 올리게 하였다. 본부에 집을 지은 노인으로서 호적이 없어 양로연에 참석하지 못하는 자들을 의장대(儀仗隊) 앞으로 불러서 술과 고기를 나누어 주었다.

○ 15일에 자궁을 모시고 서울로 돌아왔다. 사근평 행궁에서 주정(晝停)하였다. 지방관에게 말을 하사하고, 대령 교리를 시상하고, 경기 감사에게 표피(豹皮)를 하사하고, 역(驛)의 인마차지 찰방(人馬次知察訪)을 수령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서 조용(調用)할 것을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매번 원침을 배알하고 돌아가는 길에 미륵현(彌勒峴)에 이르게 되면 고삐를 멈추고 먼발치에서 바라보면서 오래도록 떠나지 못하다가 나도 모르게 말에서 내려 서성이곤 하였다. 이번 행차에서 미륵현 위쪽에 앉은 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臺)를 보고는 ‘지지대(遲遲臺)’라고 명명하였다.” 하고, 앞으로는 행행 노정에 ‘지지대’ 세 글자를 첨가해 넣도록 명하였다. 시흥 행궁에서 밤을 지냈다. 지방관에게 3품직을 제수하고 이교(吏校)를 시상하도록 명하였다. 자궁을 모시고서 재차 시흥을 지나게 되었다 하여, 갑인년에 1년간 정퇴했던 본 고을 백성들의 환향(還餉)을 모두 탕감해 주도록 명하였다. 과천의 대령 교리도 시상하였다.

○ 16일에 용양봉저정에서 주정하고 환궁하였다. 주교 당상(舟橋堂上)에게 표피를 하사하고, 도청(都廳)과 곤수(閫帥), 차견(差遣)한 노랑 별장(驚梁別將)을 가자(加資)하고, 감관(監官), 영장(領將), 변장(邊將)을 더러 군문에 조용하였다.

○ 정리소의 여러 신하 이하에 대해 상전(賞典)을 시행하였다. 총리대신 및 정리사 6명의 품계를 올려 주고, 재신(宰臣) 2명에게는 말을 하사하고, 찬탁검거 당상(饌卓檢舉堂上) 4명, 진건 당상(進巾堂上), 진화 당상(進花堂上), 장악원과 사복시의 제조, 내승(內乘) 2명에게는 말을 하사하고, 치사(致詞)를 마주 든 승지 2명에게는 표피(豹皮)를 하사하였다. 정리 낭청 2명은 외직(外職)에 제수하고, 3명 및 사복시 첨정은 승서(陞敍)하고, 사복시 판관은 부사(府使)에 조용하고, 찬의(贊儀)는 가자하고, 책응(策應)한 감관(監官) 2명과 인의(引儀) 2명은 수령에 제수하고, 인의 2명은 승록(陞六)하였다. 대가를 배종(陪從)한 나인, 중관, 액속 및 장관, 장교, 원역, 군병, 공령(工伶), 숙수(熟手) 등도 모두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 21일에 춘당대(春塘臺)에 친림하였다. 내탕고에서 떡과 고기를 준비하여 수가한 장사들을 호궐(犒餽)하였다. 이어 각영으로 하여금 중순일(中旬日)에 별시(別試)를 설행하여 수가한 교졸들을 시상하게 하였다.

○ 정리소에서 쓰고 남은 돈이 4만 냥이었는데, 1만 냥은 화성에 둔전(屯田)을 설치하고, 1만 냥은 탐라(耽羅)에 내려 보내어 진흙 밀천을 삼게 하였다. 그 나머지 2만 냥을 삼도(三都)와 팔도(八道)에 나누어 보내어 고루 배분하여 곡식으로 바꾸게 한 다음 봄에 대여했다

가 가을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절목(節目)을 만들어 준행하게 하였다. 무오년 봄에 이를 옮겨서 화성의 환곡으로 삼고 영원히 모곡(耗穀)을 면제하게 하였으니, 화성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천년만년 영원히 자궁의 은덕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奉觴長樂之堂.置酒洛南之軒.敬斟北斗.拜獻南山.翌又徠爾羣老.于階于庭.飽以慈德.今夕以永.下既進華封之祝.上豈惜箕疇之錫乎.老人領議政洪樂性以下年七十以上及六十一歲人.各賜帛一匹.仍予黃紬.以佐鳩杖之繫.本府與宴者.各加一資.漢高之於豐沛.光武之於南陽.猶以湯沐邑特賜之復.國史書之.傳以爲美事.矧茲華城之爲地.鑾蹕之所駐臨.珠丘之所奉安.陪我慈宮而至.夾路觀者.堵牆如也.瞻旄之喜.就日之誠.處處衢謠.萬口同辭.若在于今.不別施惠澤.將何以大慰是地父老子弟.前此已給復外園底居民.特加二年.城內外居民.加一年.及人之老.先此四者.先王推恩之仁政也.今行以其時.則流虹回甲之年.陽春布惠之序.慈候康寧.綢儀順成.榮光所被.山川增輝.於是乎仰體慈心.誕敷洪恩.耆老已惠養矣.文武亦試閱矣.惟彼衣鶉形鵠者.獨阻於同樂均歡之中.則豈所以對揚天休之意.明日御新豐樓.頒米于四民賑民.分命承宣.就道里稍遠坊曲.發廩以饋之.此時之饘斯稟斯.脫填壑而爲擊壤.秋毫皆慈宮之賜.民雖不識不知.豈不欣欣然相告.含洪恩而頌慈德.南山北斗之祝.亦如予今日之心乎.因此而思之.仁政在乎推之而已.孟子所謂舉斯心.加諸彼者是爾.今以華城一府推之.一道可知.一道而推之.七道兩都又可知矣.今茲施惠.只及於華城一府.而不及於八道兩都.只行於今年一年.而不行於千年萬年.是豈曰推之云乎.整理所之設.古豈有哉.誠欲祛煩而省弊.錙銖不藉於經用.上焉而內廚供給.中焉而從班盤纏.下焉而軍馬輿徒之糗糧芻豆.皆令整理辦出.此所以十萬緡錢之另行拮据者也.以若數爰.較若策應.猶慮夫不足.而鑾輿將旋.水衡有贏.與其歸之大農.爲數月之用.曷若覃施諸路.稱此數.作爲穀物.名之曰乙卯整理穀.分置三百州縣.計年取剩衍.而至幾萬萬包.俾邦內黎庶.咸被慈覆.藏之無盡.傳之悠久.又以是穀耕之種之.收之穫之.以公以私.如京如坻.則推之義大矣哉.愛親莫尙於順志.順志莫尙於廣恩.咨爾有司之臣.知予至意.明聽恪遵.

癸丑春.予謂筵臣曰.再明年.卽吾東初有大慶.賀儀則明年.當先行寶齡六旬稱賀.上號則慈殿闕宮.將齊進顯冊.宴禮則予竊有商度者.再明年.陪慈宮拜園寢.回鑾之路.進饌于行宮.是年是慶.是地是禮.豈非一舉而兩得其宜乎.甲寅冬.賓廳請上殿宮尊號.教曰.力請之餘.幸得勉循.殿宮上號.擇吉舉行.來春園幸.陪慈宮行展省之禮.別差整理堂上.分掌句管.遂以沈頤之.徐有防.李時秀.徐有大.徐龍輔.尹行恁差整理堂上.洪守榮.具膺.李潞秀.洪大榮.金龍淳爲郎廳.後以右議政蔡濟恭爲總理大臣.以經費外.惠廳儲置錢十萬三千餘兩.付之整理所.行幸時自御供諸需.以至兩郡主內外賓戚衣資盤纏及陪從各衙門堂郎.各營門將官以下諸般支費.并令本所措備.○是歲閏二月初九日.陪慈駕出宮.隨駕官一百二十九員.將官四十九員.各差備四十三人.將校二百三十六人.員役一千一百八人.軍兵三千四百十人.內官十二人.內人三十一人.掖屬一百十三人.晝停龍驤鳳翥亭.宿始興行宮.初十日.晝停肆觀坪行宮.宿華城行宮.十一日.謁本府聖廟.述先朝謁聖鄉校後.賜經籍奴婢之故事.新印四書三經.令內閣安寶下送.臧獲令該曹磨鍊劃給.京鄉守僕員役.分等施賞.還臨洛南軒.設文武科.以謹上千千歲壽爲賦題.試本府及廣州果川始興四邑儒生.文取五人.武取五十六人.親臨奉壽堂.行進饌習儀.十二日.陪慈駕拜園.孺慕益復莫逮.園屬當有加意之舉.仍命令任希厚直除牧使.具膺陞叙.京鄉守僕.植木監官.熟手守護軍等.分等施賞.又命龍珠寺摠攝首僧帖加.庚戌以後居接僧等.分給米斗.還詣行宮.親臨西將臺.行城操夜操.○十三日.行進饌禮于奉壽堂.饌案七十器.別味十二器.親進第一爵第二爵.自第三爵.至第七爵.以慈旨.命婦及外賓領議政洪樂性.光恩副尉金箕性奉進.先唱親製長樂章.第一爵.奏獻仙桃.呈才桓桓曲.第二爵.奏金尺受明命荷皇恩呈才清平樂.第三爵.奏拋毬樂舞鼓.呈才五雲開瑞朝曲.第四爵.奏牙拍響鉦.呈才千歲萬歲曲.第五爵.奏鶴舞.呈才惟皇曲.第六爵.奏蓮花臺.呈才恒恒曲.第七爵.奏壽延長.呈才夏雲峯曲.進爵訖.復奏

處容舞井邑樂尖袖舞洛陽春曲.後唱親製觀華章.宣饌散花於百官.自內外賓戚.以至校隸軍民.皆呼千歲.參宴內賓十三人.外賓六十九人.宴罷.書下七言律詩一首.使與宴隨駕諸臣賡進.敎整理諸臣曰.今日之禮.誠千載初有之慶.而來甲子年.當爲慈宮七旬.其時進饌.又當如今日.今日所用盤卓尊爵之具.留藏本府.以待十年之重回也.又敎曰.故判書趙曦妻洪氏八耄.進參於進饌之列.況是慈宮姑母.故參判洪樂仁妻閔氏.同敦寧洪龍漢妻宋氏.俱以七十之年.無恙往來.衣資食物.令外帑庫輸送.同敦寧洪駿漢.洪龍漢.洪樂信.洪樂任.都正洪樂倫.衣資食物.亦令外帑庫輸送.命進饌時.舉行本府裨將校吏等.分等施賞.○十四日.親臨新豐樓.賜四民米.饋飢民粥.民口合四千八百十九人.米三百七十七石十三斗九升.○御洛南軒.行養老宴.命隨駕官及本府老人中.朝官年七十.士庶年八十以上及六十一歲人參宴.隨駕老人.領議政洪樂性等十五人.華城老人.前參議李奭祚等三百八十四人.各率子孫就位.行一坐再至之禮.樂性等以次進爵山呼.第一爵.奏鹿鳴.天保.第二爵.奏關雎.鵲巢.第三爵.奏南有嘉魚.南山有臺.命羣老.俾各盡醉.書下七言絕句一首.命與宴諸臣賡進.本府築室.老人之以無籍不與宴者.招至仗前.分饋酒肉.○十五日.陪慈駕回鑾.晝停肆觀坪行宮.命地方官賜馬.待令校吏施賞.京畿監司賜豹皮.驛人馬.次知察訪.守令.待窠調用.敎曰.每於省園之路.還到彌勒峴.停轡遠瞻.久而不能發.自不覺下騎彷徨.今行.見峴上環席地而臺者.命其臺曰遲遲.仍命此後行幸路程.添入遲遲臺三字.宿始興行宮.命地方官三品職除授.吏校施賞.以陪慈駕再經始興.命本邑民人甲寅一年停退條還餉并蕩減.果川待令校吏.亦施賞.○十六日.晝停龍驤鳳翥亭.還宮.舟橋堂上賜豹皮.都廳閫帥差遣鷺梁別將加資.監官領將邊將.或軍門調用.○施整理諸臣以下賞典.摠理大臣及整理使六員進爵.宰臣二員.錫馬饌卓.檢舉堂上四員.進巾堂上.進花堂上.掌樂司僕提調.內乘二員.賜馬.致詞對舉承旨二員.賜豹皮.整理郎廳二員.除外職三員.及司僕僉正陞叙.司僕判官.府使調用.贊儀加資.策應監官二員.引儀二員守令除授.引儀二員陞六.陪駕內人.中官.掖屬及將官.將校.員役.軍兵.工伶熟手等.并施賞有差.○二十一日.親臨春塘臺.自內帑備餅肉.犒饌隨駕將士.仍命各營於中旬日別試.隨駕校卒施賞.○整理所用餘錢爲四萬兩.而一萬兩.設屯華城.一萬兩.下送耽羅.作賑資.其餘二萬兩.分送三都八道.均排作穀.春糶秋糶.成節目遵行.戊午春.并移作華城還穀.永除耗條.俾華城之民.咸知慈恩慈德.於千萬年.悠久無疆也.

<홍재전서(弘齋全書), 제28권 윤음(綸音) 3, 華城進饌日諭中外綸音【附園幸事實○乙卯】>

정치/왕실

1794년(정조 18) 유태좌가 국초의 전주에 관한 고사와 화성을 비교한 것에 대해 정조가 칭찬한 내용.

신 유태좌(柳台佐)는 삼가 살펴보건대, 우리 국초(國初)의 기반을 전주(全州)로부터 관동(關東)의 삼척(三陟)으로 옮길 적에 따라가기를 원하는 백성이 170여 집이었고, 다시 덕원(德源)의 용주리(湧珠里)로 옮길 적에 70여 집이 따라갔으니, 여기서 백성을 위해 살 땅을 살피고 재물로써 사람들을 모으는 성조(聖祖)의 성대한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전하께서 새 읍(邑)을 설치하여 백성을 살게 하고자 하시는 계책 역시 별반으로 강구하고 계획하기를, 근래 다섯 읍의 군액(軍額)을 융통하여 이동시킨 것처럼 한 뒤에야 재화(財貨)가 날로 넉넉해지고 따라서 백성들이 날로 모여들 것입니다.(…)

첫째 조목에서 전주(全州) 등지의 옛 자취를 화성(華城)에 끌어다 비유한 것은 너의 말이 과연 일리가 있다. 둘째 조목에서 새로 급제한 사람을 괴롭히는 습속과 한림원의 신참을 괴롭히는 장난 등 옛 풍속이 회롱에 가깝다고 한 것은 더욱이 바로잡기가 무엇이 어렵겠는가

마는 역시 그대로 전승되어 온 데는 역시 그 나름의 소이연(所以然)이 있지 않겠는가. 셋째 조목에서 미천한 사람에게도 겸허히 의견을 묻는 뜻을 전달한 것은 옛사람의 필간(筆諫)¹⁶⁴의 규례를 잃지 않았으니, 옳고 옳도다.

臣台佐謹按我國初肇基自全州.徙居關東之三陟.民之願從者.百七十餘家.又徙德源湧珠里家焉.七十餘家從之.此可見聖祖爲民相土.聚人以財之盛念也.我殿下新邑奠接之策.亦宜別般講劃.如近來五邑軍額之通融移定.然後貨財日阜.而民日來聚矣.(…)

第一條全州等地舊蹟之引喻於華城.爾言果有理.第二條新進進退.翰苑侵弄等古風之近於戲褻云者.尤是矯之何難.而亦自有因循之所以然乎.第三條敷陳詢薨之義.不失古人筆諫之規.是哉是哉.

<홍재전서(弘齋全書), 제134권 고식(故寔) 6, 國朝故事 【甲寅.選文臣金近淳, 李存秀, 柳台佐, 金熙洛, 具得魯, 申絢, 姜浚欽, 金履載, 李英發, 洪奭周, 金啓溫, 李弘謙.】>

정치/왕실

화성의 축성, 역참, 편액 등에 대한 정조가 내린 하교들.

연신(筵臣)이 인중기(引重機)와 치원거(致遠車)를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을 붙여서 임금의 문집에 신기를 청하였는데, 하교하기를, **“마침 들으니, 화성(華城)의 축성 공사에 돌과 흙을 채취하고 운반하느라 사람의 공력을 많이 소비한다기에,** 아쉬운 대로 힘을 덜기 위한 자 료로 편리하게 사용하는 도구를 우연히 만들기는 하였으나, 이는 공예(工藝)의 말단에 불과 하니, 어찌 후세에 남겨 줄 만한 것이겠는가.” 하였다. 연신(筵臣)이 말하기를,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구공(九功)¹⁶⁵의 능사(能事)로 성인께서도 소홀히 하지 못한 일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선기옥형(璇璣玉衡)과 너사(耒耜)가 《시경(詩經)》과 《서경(書經)》에 실려 있는 것은 그것이 일상의 쓰임에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급 선무가 아닌 것은 성인께서 취하지 않으셨으니 그대로 두도록 하라.” 하였다.

화성(華城)은 작년 온천 행행(行幸) 때에 지나갔던 길이다. 어진각(御眞閣)에 소장하고 있는 어진(御眞)을 군복(軍服)으로 하도록 명한 것은 온천 행행 때 어가(御駕)를 따르는 의식을 이용한 것이다.(…)

정리소 당상에게 하교하기를, “금년은 자궁의 회갑이 든 해이다. 장수를 봉축하고 기쁨을 표현하는 거사에 대하여, 대신들의 빈계(賓啓)도 여러 차례 있었고, 내가 우러러 청한 것도 간절하였으나, 자궁의 마음이 겸손하시어 끝내 힘써 돌이킬 수가 없었으니, 여러 사람들의 억눌린 정을 이루 다할 수가 있겠는가. 이제 행행하시는 때를 만나 악무(樂舞)와 음식은 진 풍정(進豐呈)¹⁶⁶의 의식을 대략 본떴으나, 잔을 올리는 이름은 없고 잔을 올리는 의미만을 부여하였으니, 아마도 위로는 겸손하신 자궁의 마음을 받들고 아래로는 경축하는 여러 사람들의 정을 펴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화성(華城)에 명하여 악무(樂舞)를 익혀 두도록 하였으니,** 경들도 이 뜻을 다하여 모든 의식과 절차를 널리 고찰하고 충분히 강구하여서 내용과 형식이 둘 다 알맞고 실질과 문체가 모두 갖추어지도록 힘쓰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164) 필간(筆諫) : 서법(書法)에서 붓을 놀리는 도리를 빌어 권간(勸諫)하는 일을 말한다. 《구당서(舊唐書)》 유공권전(柳公權傳)에, “목종(穆宗)이 정치가 편벽되었는데, 한번은 공권(公權)에게 ‘서법은 어떻게 하면 더없이 좋아지는가?’ 하고 묻자, 그가 대답하기를, ‘붓을 쓰는 것은 마음에 달려 있으니, 마음이 바르면 필체가 바르게 된다.’고 하니, 목종이 얼굴빛을 고치고 그것이 간언(諫言)인 줄 알았다.” 하였다.

165) 구공(九功) : 국민 생활의 근본이 되는 육부(六府)와 삼사(三事)를 정비하는 임금의 덕을 가리키는 데, 육부는 수(水)·화(火)·금(金)·목(木)·토(土)·곡(穀)을 말하며, 삼사는 정덕(正德)·이용(利用)·후생(厚生)을 말한다. 《書經 虞書 大禹謨》

166) 진풍정(進豐呈) : 대궐에서 베푸는 잔치의 하나로 진연(進宴)보다 규모가 크고 의식이 정중하였다.

자궁의 수레를 모시고 화성(華城) 역참(驛站)에 이르러 막차(幕次)를 설치하고 미음을 올릴 때면, 미리 말에서 내려 가마의 발을 손수 들어 올려 안부를 묻고 다음으로 미음의 따뜻한 정도와 양을 살펴서 올렸는데, 매번 역참마다 항상 그렇게 하였다. 때마침 비가 내리자 정리소 당상과 여러 근신들이 혹시 옷을 적시며 걸음을 걷는 수고를 가지고 말을 하니, 하교하기를, “이처럼 천 년에 한 번 있을 정도의 경사를 맞이하여, 마음이 즐거우니 몸은 피곤한 줄을 모르겠다.” 하였다.(…)

화성(華城)에 읍민을 이주시킬 때, 경향(京鄕)의 유생들 중에 거주를 자원하는 자에게 집 한 채를 특별히 허락하였던 것은 읍의 거주를 성대하게 하려고 한 것만은 아니었다. 거문고 소리와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싶고, 교화의 의미를 겸해서 부여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달마다 고과(考課)하고 열흘마다 과제를 주어 그 재능을 시험하며, 과거를 베풀고 급제 자격을 주어서 그 뜻을 기쁘게 하였으나, 지금 10년 가까이 되도록 하나도 성취된 효과가 없다. 간혹 일정함이 없이 옮겨 다니며 한갓 과거 보는 것으로써 묘한 계책을 삼고 다투기를 일삼아서 도리어 부민(府民)들에게 해를 끼치기에 이르기도 하니, 이와 같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무리들이 어떻게 상재(桑梓)의 고을¹⁶⁷⁾에서 함께 살 수 있겠는가. 수년 이래로 과시(課試)를 한 번도 시행하지 않고 집을 마음대로 옮기도록 방임한 것은 또한 달갑게 여기지 않는 가르침인 것이다.

화성의 편액들은 모두 의미가 있으니, 봉수당(奉壽堂)과 장락당(長樂堂)은 을묘년(1795, 정조19)에 자궁의 수레를 모시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고, 낙남헌(洛南軒)은 한(漢) 나라 고조(高祖)가 낙양(洛陽)의 남궁(南宮)에서 주연을 베풀었던 뜻을 취한 것이고, 우화관(于華觀)은 화(華) 땅의 봉인(封人)이 축원한 뜻을 취한 것이고, 유여택(維與宅)은 《시경(詩經)》 황의장(皇矣章)의 뜻을 취한 것이고, 복내당(福內堂)은 조충국(趙充國)이 말한 “거병이 밖에서 제대로 되면 복이 안에서 생겨난다.”는 뜻을 취한 것이고, 경룡관(景龍觀)은 등영주(登瀛洲)의 학사들이 임금의 시에 화답한 것을 본뜬 것이고, 중앙문(中陽門)과 신평루(新豐樓)는 패리(沛里)의 옛 이름을 취한 것이고,¹⁶⁸⁾ 팔달문(八達門)은 산의 이름이 팔달이므로 문도 팔달이라고 하여 사방팔방에서 배와 수레가 모이는 뜻을 취한 것이고, 장안문(長安門)은 북쪽으로 서울의 궁궐을 바라보고 남쪽으로 원침을 바라보아 만년(萬年)의 편안함을 길이 알리는 뜻을 취한 것이고, 화홍문(華虹門)은 나타난 무지개가 달처럼 화성의 못에 내려 비추는 뜻을 취한 것이고, 창룡문(蒼龍門)은 그 형상을 취한 것이고, 서화문(西華門)은 그 방향을 분별한 것이고,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은 꽃이 핀 산과 버들이 늘어진 냇가의 뜻을 취한 것이다.

筵臣請以引重機，致遠車爲圖爲說，載之御集。敎曰，適聞華城城役，採石運土，多費人工，聊爲省力之資，偶作使用之具，而此不過工藝之末，奚足以垂後。筵臣曰，利用厚生，卽九功之能事，而聖人之所不可忽也。敎曰，璣衡未粗之載於詩書，爲其切於日用，而不急之務，聖人之所不取，其置之。

華城是昔年溫幸經過之路，御眞閣所藏御眞之命以軍服，卽用溫幸隨駕之儀也。(…)

敎整理堂上曰，今年卽慈宮回甲之歲也，奉壽飾喜之舉，大臣之賓啓，亦旣屢矣，予之仰請，非不切矣。

167) 상재(桑梓)의 고을 : 옛날에는 뽕나무와 가래나무를 담장 아래에 심어 자손에게 물려주었는데,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그 나무를 보고 공경한 것에서 유래하여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고향이나 고향의 집을 가리키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정조의 생부(生父)인 사도세자의 능이 있는 화성을 가리킨다. 《詩經 小雅 小弁》

168) 중앙문(中陽門)과 …… 것이고 : 한 고조(漢高祖)의 고향은 패현(沛縣) 풍읍(豐邑) 중앙리(中陽里)로 천하를 평정한 뒤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옛 진(秦) 나라의 여읍(驪邑)을 풍읍의 거리와 똑같이 고치고 풍읍의 백성들을 이주시켜 신평(新豐)이라고 이름하였다. 《史記 卷8 高祖本紀》

而慈心撝謙.終不得勉回.羣情抑鬱.容有極哉.今當幸行之時.樂舞饌品.略倣豐呈之儀.無進爵之名.而寓進爵之意.則庶可以上承撝謙之慈心.下伸祝慶之羣情.已令華城肄習樂舞.卿等亦悉此意.凡諸儀節.博考爛講.務使情文兩得.物采具備可也.(…)

陪慈駕詣華城站.設幕次進米飲.輒先期下馬.手舉轎簾承候.次視米飲寒暖多寡以進.每站常然.時適雨下.整理堂上及諸近臣.或以沾濕步履之勞爲言.教曰.達此千載一遇之慶.心有所樂.身不知疲也.(…)

華城移邑時.京外儒生輩之自願居生者.特許一廛者.非但爲邑居之殷盛也.欲聞絃誦之聲.兼寓教化之意.月課旬題.以試其藝.設科賜第.以悅其意.而今近十年.無一成效.或有遷徙無常.徒以占科作妙計爭競爲事.反致貽害於府民.如此不率教之類.何足與齒於桑梓之鄉.數年以來.課試之一不設行.家舍之任其移居.蓋亦不屑之教也.

華城扁額.皆有意義.奉壽長樂之堂.爲乙卯陪慈駕而設也.洛南軒.漢高之置酒洛陽南宮也.于華觀.封人之祝也.維與宅.皇矣之詩也.福內堂.取趙充國舉得於外福生於內之意也.景龍觀.倣登瀛學士廣載之地也.中陽門.新豐樓.沛里之舊號也.八達門.山名八達.門亦號八達.四通八達舟車之會也.長安門.北望京闕.南瞻園寢.長報萬年之安也.華虹門.流虹如月下燭華渚也.蒼龍門.取其象也.西華門.辨其方也.訪花隨柳亭.花山柳川之意也.(…)

<홍재전서(弘齋全書), 제177권 일득록(日得錄) 17, 訓語[四]>

정치/왕실

1798년(정조 22) 이만수가 기록한 것으로 정조가 현릉원에 전배하였을 때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내용.

봄에 상이 현릉원(顯隆園)에 전배(展拜)하기 위해 화성(華城)에 이르렀는데, 상의 건강이 미령(靡寧)하였으므로 여러 신하들이 청대(請對)를 요청하여 아뢰기를, “이러한 때에 전배하시는 일은 성상의 심정에 슬픔을 더한 나머지 옥후에 손상을 더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청컨대 즉시 어가(御駕)를 돌리소서.” 하였더니, 상이 이르기를, “나는 하늘에서 오르내리시는 선군(先君)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만약 건강에 손상을 더할 것을 걱정했다면 한 차례의 결례를 무엇 때문에 아쉬워하겠는가. 그리고 자궁(慈宮)께서 봉서(封書)로 교시하시기를, ‘지존의 동가(動駕)란 그 사체(事體)가 막중한 법이니, 지척에 있는 원침(園寢)을 전성(展省)하지 않으신다면 온 나라 백성들의 이목이 틀림없이 다들 놀라워할 것입니다. 또 평소의 효성으로 보더라도 원침을 전배하지 않았다가는 환가(還駕)하신 뒤에 더욱 성심(聖心)을 지나치게 쓰실 터이니, 우선 행궁(行宮)에 잠시 들리셔서 조용히 하루 이틀을 조습하신 다음 원침에 배례를 거행하시고 회란(回鑾)하심이 마땅합니다.’ 하셨는데, 자궁의 이 교시가 너무나도 출중하여 내가 미칠 바가 아니다.” 하였다. 이튿날 성후(聖候)가 궐히 회복되어 현릉원에 나아가 배례를 거행하고, 그 산릉(山陵)을 두루 돌아보신 다음에야 환궁하였다.

春.拜園至華城.有欠安節.諸臣求對曰.此時展拜.聖懷增愴.易有添損.請卽回鑾.上曰.予以陟降之心爲心.苟有添損之慮.則一番曠禮.何可顧也.而慈宮封書教若曰.至尊動駕.事體莫重.咫尺園寢.不爲展省.則八方瞻聆.必多驚動.且以平日孝思.不得拜園.駕還之後.又當過用聖心.姑就行宮.靜攝一兩日.行拜園禮回鑾爲宜.慈教之出尋常萬萬.非予所及也.翼日聖候快復.詣園行禮.周諗岡麓.乃還宮.(…) 【直提學臣李晚秀戊午錄】

<홍재전서(弘齋全書), 제178권 일득록(日得錄) 18, 訓語[五]>

정치/왕실

1791년(정조 15)에 편찬한 현릉원지(顯陵園志)의 개요.

내장본(內藏本)¹⁶⁹으로, 모두 12항목이다. 첫째는 제신소주(諸臣疏奏), 둘째는 선택조역(選擇兆域), 셋째는 의문(儀文), 넷째는 의물(儀物), 다섯째는 천봉(遷奉), 여섯째는 상설(象設), 일곱째는 재실(齋室), 여덟째는 재관(齋官), 아홉째는 수위(守衛), 열째는 사전(祀典), 열한째는 화성지제(華城之制), 열두째는 외영지제(外營之制)이다. 한 항목당 각각 한 권으로 만들었다.

有內藏本凡十二目.一曰諸臣疏奏.二曰選擇兆域.三曰儀文.四曰儀物.五曰遷奉.六曰象設.七曰齋室.八曰齋官.九曰守衛.十曰祀典.十一曰華城之制.十二曰外營之制.一目各爲一卷.

<홍재전서(弘齋全書), 제180권 군서표기(羣書標記) 2 ○어정(御定)2, 顯陵園志十二卷【寫本】>

정치/왕실

1795년(정조19)에 편찬한 정리의례통편으로 화성행궁에 다녀온 전말을 정리한 내용.

을묘년(1795, 정조19)은 자궁(慈宮)께서 회갑을 맞은 경사스러운 해이다. 내가 자궁을 모시고 현릉원(顯陵園)에 배알(拜謁)하고 화성(華城)의 행궁(行宮)으로 돌아와 장락당(長樂堂)에서 잔을 올리고 낙남헌(洛南軒)에서 치주(置酒)하고 노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사민(四民)을 구휼하였으며 화성에 2년간 복호(復戶)하였다. 이보다 앞서서 미리 10만 민(緡)을 마련하여 경상비(經常費)에 누가 되지 않게 하였고, 갑인년(1794, 정조18) 겨울에 비로소 정리소(整理所)를 설치하여 당상(堂上)과 낭관(郎官)을 두어 위로는 내주(內廚)의 공급과 시종신의 경비, 아래로 군병(軍兵)과 하인의 식량과 마초(馬草) 등의 부대 비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출입을 담당하게 하였다.¹⁷⁰⁾

환궁한 뒤에 의례 당상(儀軌堂上) 이만수(李晩秀)와 정리 당상(整理堂上) 윤행임(尹行恁) 등에게 의례(儀軌)를 편찬하게 하였으니, 모두 10권이다. 한 편이 완성될 때마다 직접 수정하여 몇 달이 걸려서야 책이 완성되었다. 권수(卷首)는 반차(班次)와 기물(器物)에 대한 각종 도식(圖式)이고, 1권에서 5권까지는 전교(傳敎)·악장(樂章)·치사(致詞) 등 선양(宣揚)과 관계된 글과 절문(節文)·품물(品物)에 관한 규정이고, 6권에서 9권까지는 자궁(慈宮)이 탄신일을 맞은 데 대한 경하(慶賀)와 경모궁(景慕宮)을 알현했을 때의 배알(拜謁)에 관한 기록, 본궁(本宮)의 제향(躋享), 온천(溫泉) 행궁에 관한 조항이다. 수권(首卷)에서 5권까지는 원편(原編)이고 6권에서 9권까지는 부편(附編)이다. 주자소(鑄字所)에 넘겨서 이해에 주조한 정리자(整理字)로 인쇄하였다.

是歲乙卯.卽我慈宮週甲之慶年也.奉我慈駕.祇謁顯陵園.還御華城行宮.奉觴於長樂之堂.置酒於洛南之軒.宴羣老賑四民.賜華城復二年.先是預具十萬緡錢.不煩經用.甲寅之冬.始設整理所.置堂郎.上而內廚供給.中而從班盤纏.下而軍馬輿徒之糗糧芻豆.皆令句檢出入.及回鑾.命儀軌堂上李晩秀.整理堂上尹行恁等.編儀軌十卷.每一編成.親加櫟栢.閱屢月書成.卷首卽班次器用之圖式

169) 내장본(內藏本) : 대내에 소장된 서책을 말하는데, 대개 어람(御覽)에 쓰이는 책이다.

170) 정리소(整理所)를 …… 하였다 : 정리(整理)는 가지런히 하다, 바로잡다의 뜻이다. 정조의 능행(陵幸)에 따른 일시적인 부대 경비가, 예정된 다른 명목의 경상비(經常費)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별도로 비용을 마련하고, 호조 판서를 정리사(整理使)로 삼아 별도 관리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때 남은 돈으로 곡물을 구입하여 ‘을묘년 정리곡(乙卯年整理穀)’이라 이름하고, 각 고을에 유치(留置)하여 그 이식으로 구휼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운영 과정에서 부작용을 빚기도 하였다. 《正祖實錄 19年 閏2月 13日, 21年 10月 7日》

也.一卷至五卷.絲綸樂詞之揄揚.節文品物之規制也.六卷至九卷.誕辰慶賀.闕宮展拜.本宮躋享.溫宮紀蹟之條例也.首卷至五卷爲原編.六卷至九卷.爲附編.付鑄字所.以是歲所鑄整理字摹印.
<홍재전서(弘齋全書) 제181권 羣書標記3 ○어정(御定)3, 整理儀軌通編十卷【刊本】>

정치/왕실

사도세자가 온양 온천으로 가면서 수원에 들렀던 일화를 소개한 내용.

당시 소조가 오랜 병을 앓고 있어 영종께서 온천욕을 하라고 하셨다. 수레가 강변에 이르니 물이 불어 뱃길이 좋지 않아 늦게야 비로소 건넜는데, 배 위에서 궁관 이수봉(李壽鳳) 등과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라는 말에 대해 서로 논의하였다. 이튿날 수원에 갔는데 그 북쪽에 있는 화산(花山)이 바로 기해년에 영릉(寧陵)으로 치표(置標)한 곳이다. 거기 올라 사방을 두루 보며 한참 동안 감탄하며 구경하고 산성(山城)으로 돌아와서는 무기(武技)를 사 열했는데, 연로(輦路)가 지나가는 곳의 부모(父老)들이 모두 나와 길을 막고 얼굴을 보려고 했다. 소조는 곧 수레를 멈추게 하고 백성들의 길고(疾苦)를 묻고 정요(征徭)를 경감하도록 하니 고을 전체가 크게 기뻐하였다. 한 위사(衛士)의 말이 콩밭에 들어가 짓밟고 뜯어 먹자 지방관을 불러 밭 주인에게 후한 보상을 해 주게 하고 즉시 그 위사를 다스렸다. 그 고을의 연로자를 위문하고 유일(遺逸)들을 불러 후하게 대우했으며, 온천에 도착해서는 날마다 강연을 열어 열성조가 온천 행행 때면 옥당관(玉堂官)을 불러 대했던 고사(故事)를 따랐다. 절구(絶句)를 지어 궁관들로 하여금 화답하게도 하고, 달이 바뀌자 망궐례(望闕禮)를 행할 것인지의 여부를 궁료들에게 묻기도 했으며, 이어 궁궐을 떠난 지 오래되어 견딜 수 없이 그립다고 하면서 그날로 수레를 돌렸다.

時小朝久有寢疾.英廟命浴溫井.駕到江頭.水漲.船路不固.至晚始渡.在船上.與宮官李壽鳳等.講君舟民水之說.翌日.至水原府.府治之北.有花山.卽己亥寧陵置標地也.登臨周覽.嘆賞良久.還次山城.閱武技.輦路所過.父老擁遮爭瞻.輒駐駕詢疾苦.命減征徭.一路大悅.有一衛士.馬逸入菽田.蹂且吃.招地方官.厚償田主.亟治衛士.存卹邑中高年.敦召遺逸之士.及到溫泉.逐日開講筵.遵列朝溫幸時.召對玉堂官故事也.下絶句一篇.命宮官和之.及月改.行望闕禮當否.詢于宮僚.仍教曰.久離京闕.慕戀難耐.是日遂還駕.

<홍재전서(弘齋全書) 卷十八, 顯隆園行狀【己酉】>

정치/왕실

병풍석(屏風石)과 와첨상석(瓦簷裳石)의 제도를 정하고 수원부의 앵봉(鶯峯)에서 구하였다는 내용.

(…) ○ 기유년(1789, 정조13) 7월 13일(정유)에 석상을 설치하는 일을 시작하여 병풍석(屏風石)과 와첨상석(瓦簷裳石)의 제도를 정하고 수원부의 앵봉(鶯峯)에서 구하였다. 내가 총호사(摠護使) 김익(金煜) 등에게 이르기를, “ ‘천하를 위하여 어버이에게 박하게 하지 않는다[不以天下儉其親]’ 는 말은 성인(聖人)의 교훈이니, 내가 어버이 상(喪)에 온 정성을 다하는 도리로 이 일에 극진한 도리를 다하지 않음이 없는 정성을 들이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력(民力)을 괴롭게 하고 경비를 많이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극진히 아름답게 하여 나의 영원한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려고 하는 것이니, 이것이 새 원침의 석상을 설치하면서 의식을 갖추려고 하는 까닭이다. 【만약 병풍석의 별례(別例)를 쓴다면 또 난간석(欄干石)이 있는데 난간석은 그만두게 하였다.】 (…)

(…) ○己酉七月丁酉.經始象設之役.定用屏風石, 瓦簷, 裳石之制.就水原府鶯峯求之.予謂摠護

使金煜等曰.不以天下儉其親.聖訓也.以予固所自盡之道.欲寓靡不用極之誠.除非勞民力.煩經費.務欲極盡其美.庶得以少伸終天之慟.此所以新園象設.欲用備禮之式也.【若用屏石別例.又有欄石.而欄石則除之.】 (…)

<홍재전서(弘齋全書), 卷五十八, 遷園事實 二>

(2) 행정

정치/행정

이수광(李睟光)이 수원(水原)의 전사(田舍)에서 은거 생활을 하다.

(…) 공은 부임한 뒤로 관리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며 자신이 솔선수범하였으므로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며 교화에 따랐다. 학교와 마을의 일로부터 어염(魚鹽)이나 신추(薪芻)와 같은 미세한 일에 이르기까지 공이 조처한 일들을 보면 모두 방법이 적절하여 후세의 법도가 될 만하였다. 기미년에 임기를 만료하고 돌아오며 백성들이 사모하면서 비석을 세워 공의 은덕을 기렸다. 공이 일단 돌아오고 나서는 수원(水原)의 전사(田舍)에서 은거 생활을 하면서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으므로 가인(家人)도 공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이 드물었다. (…)

(…) 至官.勤於吏職.以身率物.民皆悅而從化.自學校丘井.以及魚鹽薪芻之微.措處有方.皆可爲後法.己未.秩滿歸.民追思爲勒碑頌德.公之歸也.屏居于水原田舍.閉戶不出.家人罕見其面.(…)

장유(張維), <계곡집(谿谷集)>, 제15권 행장(行狀),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行正憲大夫吏曹判書兼知春秋館事同知經筵成均館事弘文館提學李公行狀>

정치/행정

강서(姜緒)가 수원(水原)에 부임하였으나 1년 만에 병으로 사직하고 돌아왔다.

(…) 공은 성품이 지혜롭고 사리에 밝으며 강직하여 대절(大節)이 많았다. 명종(明宗) 20년(1565)에 국자시(國子試)에 선발되었고, 선조 2년(1569)에 문과 병과(丙科)로 승문원(承文院)에 선발되었으나 병이 많아 7년 동안이나 직책을 맡지 못하였다. 국자감 전적(國子監典籍)으로 옮겼고, 그 후로는 항상 삼사(三司)에 재직하였다. 지제교(知製敎)를 사양하여 취임하지 않았으며, 재차 선발되었으나 재차 사양하자, 상이 마침내 허락하였다. 부모가 연로함을 이유로 고을의 원이 되기를 구하여 수원(水原)에 부임하였으나 1년 만에 병으로 사직하고 돌아왔다. 다시 외직으로 나가 남양(南陽)에 부임하였고, 재차 승정원으로 들어와 좌승지에 이르렀다. 후에 외직으로 나가 인천(仁川)에 부임하였으나 1년 만에 파직되고 돌아와서 운명하였다. 향년은 52세였다. (…)

(…) 性明達.牢牢多大節.明宗二十年.選國子試.宣祖二年.以丙科.選承文院.以多病不任職者七年.遷國子典籍.後常在三司知製敎.辭不就.再選再辭.上遂任之.以親老乞郡爲水原.一年謝病歸.復出爲南陽.再入政院.至左承旨.後出仁川.一年罷歸而卒.年五十二.(…)

허목(許穆), <기언(記言)>, 제38권 동서기언(東序記言), 姜承旨遺事>

정치/행정

1793년(정조 17) 수원부(水原府)를 승격시켜 유수영[居留分司]으로 삼은 윤음

왕은 이르노라. 등극한 이후로 재물을 비축해 온 것은 소중한 곳에 쓰기 위해서였다. 다행스럽게도 황천과 조종의 묵묵한 돌보심과 남모르는 도움을 받아 용이 서리고 호랑이가 걸터앉은 듯한 곳에 선침(仙寢)을 정하여 천년만년 끝없이 이어질 큰 운세를 정하였으니, 이 지역은 실로 주(周) 나라의 풍읍(豐邑)이나 한(漢) 나라의 패읍(沛邑)처럼 성대하고 융성한 곳이라 하겠다. 이곳을 수호하는 일을 더욱 부지런히 하고 더욱 치밀하게 해서 체모가 존엄하고 제도가 엄숙하게 하는 것은 나 소자에게는 정리(情理)나 예법(禮法)으로 보아 당연한 일이다. 비유하자면 종묘의 예법(禮法)에 있어서 먼저 백관(百官)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과

같으니, 이 일이 소중한 데에 관계되는 것이 이와 같다.

이곳 수원부는 원침(園寢)을 정하면서부터 관방의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지역으로 부각되었다. 하늘이 만든 아름다운 요해처에 선친(先親)의 의관(衣冠)을 길이 봉안하기에 앞서, 행궁(行宮)을 세워 먼저 우러러 의지하고자 하는 생각을 부치고 영정(影幀)을 그려서 혼정신성(昏定晨省)의 정성을 대신하자니 사모의 정이 북받쳐 올라 억누를 길이 없었다. 매년 3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손꼽으며 기다린 것은 오직 예를 행하는 하루에 있었고, 전알을 마치고 환궁하려는 때에 대가를 수원부 경계의 고갯마루에 멈추고 멀리 바라보며 머뭇거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걸음이 더디어지곤 하였다. 그래서 문득 지방관을 앞으로 불러 삼가고 조심해서 수호하라는 뜻으로 거듭거듭 당부하였던 것ிட만, 그의 직책은 한 고을의 수령이고 품계를 물어보니 3품의 자리였다. 책임자를 얻어 그 직책을 맡기는 것은 실로 작위(爵位)의 높낮이에 매인 것이 아니지만, 조정의 거조란 직위가 무겁지 않으면 위엄이 없는 법이다. 관방(關防)은 우선 놔두고라도, 나를 위해 행궁의 여러 가지 일을 정리(整理)하는 신하를 어찌 3품의 고을 원에게 맡기겠는가.

그러나 모든 일은 옛날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다. 남한산성은 단지 요새를 관장하는 자리이지만 대신을 사(使)로 삼고 유수로 삼되 오직 문재(文宰)만을 차출하며, 방어를 위해서는 무장(武將)을 남한산성에 통의(通擬)한다. 그런데 더욱 소중한 이 지역 이 고을이겠는가. 지금부터 수원 부사를 유수로 승격시켜서 장용외사(壯勇外使)와 행궁정리사(行宮整理使)를 겸하게 하고, 대신(大臣)이나 무장(武將) 중에서만 특지를 받도록 할 것이며, 또 판관(判官)을 두어 보좌하게 하라.

장용영(壯勇營)을 설치한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도 장신(將臣)의 칭호를 정하지 못한 것은 외사(外使)가 나오기를 기다린 때문이었다. 장용영 병방(壯勇營兵房)을 장용사(壯勇使)로 삼되 어영사(御營使)를 어영대장으로 칭하듯이 장용영 문서에는 대장(大將)이라 칭하고, 도제거(都提舉)를 두어 그 법식을 갖추되 또한 경리청(經理廳)의 도제거를 삼공(三公)이 예겸(例兼)하는 것처럼 할 것이며, 호위대장의 관청을 합하여 그를 소속시키라. 그리고 내외영(內外營)의 군수(軍需)와 군량(軍糧)을 마련하고 조처하는 것은 모두 경비(經費)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소중한 곳을 위해서 재용을 저축해 온 까닭이다.

자나 깨나 나의 한결같은 마음은 선대를 사모하고 백성을 보호하는 데 있으니, 이 일은 성격이 다른 듯하지만 그 쓰임은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이 백성은 선왕의 백성이다. 지금 소민(小民)을 보호해 주려 한다면 먼저 폐단을 제거해야 하는데, 폐단 중에서도 군영(軍營)이 많은 것보다 더 큰 폐단은 없을 것이다. 그 때문에 내가 즉위 후 처음 행한 조참(朝參) 때 네 가지 조목을 들어서 유지하였는데, 네 가지 조목 중에서 군(軍)과 민(民)이 두 가지를 차지하였다. 말을 하는 것은 장차 행하고자 함이다. 선왕이 납시었던 문에 임하고 선왕이 앉으셨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단지 말만 하고 그 말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비록 부덕하지만 이렇게 욕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중외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전교를 잘 보고 은미한 뜻을 깊이 헤아리게 하라. 그리하여 이곳을 경영(經營)하여 우리 후인들을 계도함으로써 억만년토록 국운이 영원하기를 빌고자 하는 나의 본뜻을 알게 하라.

王若曰. 御極以後. 峙藏儲用. 爲所重也. 幸荷皇天祖宗之默佑冥鷲. 而龍盤虎踞之宅兆. 永奠千億萬年无疆大曆數. 是地之所重. 實與周之豐. 漢之沛. 共盛而齊隆. 惟其拱護之方. 愈勤而愈密. 使體貌尊嚴. 制度肅虔. 卽予小子. 情文之所當然. 譬若宗廟之禮. 先言百官之美. 其有關於所重. 有如是矣. 是地水原府. 自卜園寢. 關防增重. 美哉. 天作之襟帶. 長奉月出之衣冠. 預建行宮. 先寓瞻依之思. 摸揭

圖像.用替定省之誠.而孺慕結轡.迷不知節.每歲三百日.無日不屈指而企企者.亶在於禮行一日.而既展省將還駕.駕駐府界峴上.瞻望躊躇.不自覺其吾行之遲遲.輒召至守臣於前.申申以恪謹拱護之義.顧其職則一邑倅也.問其品則三品窠也.得其人.任其職.固不係於爵位.而朝廷舉措.不重則不威.關防姑置之.爲予整理行宮諸務之臣.豈可委諸三品邑倅也.然凡事莫若述古.南城只管保障.而大臣爲使居留.專差文宰而爲保障.則武將通擬於南城.況是地是府之所重乎.自今水原府使.陞爲留守.兼壯勇外使.行宮整理使.惟大臣武將.須特旨.又置判官以佐之.壯勇之設營有年.而將臣之稱號未定者.以待外使之出也.壯勇營兵房爲壯勇使.而營中文牒大將稱之.如御營使之稱御營大將.置都提學.備其式.亦如經理廳都提學之三公例兼.而扈衛大將合廳以屬之.若內外營軍需兵食.辦備措處.皆不藉於經費.此所以爲所重峙藏儲用者也.予之寤寐一心.在於慕先而保民.雖似殊歧.其用一致.斯民也.先王之民也.今欲懷保小民.宜先蘇弊.弊之大者.莫過於軍營之多.是以予於初元朝參也.舉諡四目.四目之中.惟軍與民居其二.言之將欲行之.臨先王所御之門.踐先王所御之位.而徒言而不能副其言.予雖否德.汗不爲此.使中外.熟看此教.諦究微旨.知予經之營之.啓佑我後人.祈永萬億年之本意.

<홍재전서(弘齋全書), 제28권 윤음(綸音) 3, 陞水原府爲居留分司綸音【癸丑】>

정치/행정

1790년(정조 14) 수원(水原) 신읍(新邑) 백성에게 유시하는 하교

이번 행차에 본부(本府)를 둘러보니 새 고을의 관사(官舍)는 비록 틀이 잡혔으나 민가는 아직 두서가 없었다. 그 가운데 이른바 약간 지어 놓은 집이라는 것은 땅굴도 아니고 움막도 아니니 달팽이 껍데기 같기도 하고 게딱지 같기도 하다. 지금 해아리는 바로는 가옥들이 즐비하고 거리가 번창하여 엄연히 경기 지역의 큰 도회지가 되기로 실로 짧은 시일에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만약 별도로 흥기시키고 권면하여 모아들일 방도를 강구하지 않는다면 내 어찌 편안한 마음으로 생각을 늦출 수 있겠는가. 어가를 돌려 돌아오는 날 가마를 멈추고 부로(父老)들을 불러 물어보았는데 백성들이 어리석어 대답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새 고을이 예전 고을보다 낫게 되는 것은 오직 조정에서 조처하는 바에 달려 있다. 아, 너희 묘당의 신하들은 충분히 협의하여 빈대(賓對) 때 아뢰도록 하라.

대개 사람들을 모집하여 들이려 한다면 먼저 생업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생업을 마련해 주고자 한다면 먼저 그 마음을 기쁘게 해 주고 그 생활을 즐겁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경계(經界)를 정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은 교역하도록 하는 것이니, 반복해서 생각해 보아도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원소(園所)의 국내(局內)와 국외(局外)에 토지의 지가(地價)를 너무 빠듯하게 정해서 백성들이 억울해함이 없지 않다고 한다. 이것은 지방관이 별도로 조사해 내어 넉넉하게 운영하여 완전히 모여서 자리를 잡게 되기를 조금 기다리고, 또 그들로 하여금 힘써 농사를 짓도록 해 주는 이외에 다시 직접 장사하여 이익을 볼 수 있게 한다면, 장차 집집마다 면모가 달라지는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숙소에 나아가 있으면서 이러한 생각들이 잊혀지지 않기에 또 촛불을 가져오라 하여 거듭 유시하는 것이다. 지방관은 부로들을 불러 모아 일일이 분명하게 알려 주도록 하라.

소민(小民)은 쉽게 다룰 수 있으니 이상과 같이 한다면 혹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대민(大民)이 가게를 받고자 하는 바람은 분명하게 지적하여 몰아붙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연석에서의 하교에 의거하여 또한 즉시 알려 주어서 내가 본부의 사민(士民)들을 위하여 향시 잊지 않고 있는 고심과 지극한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今幸周覽本府新治.官廨雖成規模.民家未就頭緒.其中所謂若而造舍者.非審非卡.則似蝸殼似蟹

匡.以今所料度.屋閭之櫛比.街巷之繁庶.儼然爲畿輔大都會.固難期以時月.若不別講其興勸萃集之方.予豈可便心而弛思乎.還駕之日.駐輜召問父老.民之蚩蚩.不知所對.新治之勝於舊邑.惟在朝家措劃.咨爾廟堂之臣.十分商確.賓對時敷奏.大抵欲募入則宜先制產.欲制產則宜先悅其心樂其生.太上經界.其次懋遷.反覆思惟.無出於二者.園所局內外新屬土地地價過於擲節.民情不無抑鬱云.此則地方官別般查出.優加拮据.而稍待完聚定居.又使力作之外.更售手販之益.則將有比屋改觀之效.進駐宿次.餘意憧憧.茲又呼燭申諭.地方官聚會父老.一一曉告.小民易爲力如右.則或可安頓大民受廬之願.非可指的而曰勒.依筵教.亦卽傳知.以副予爲本府士民.惓惓懃懃之苦心至意.

<홍재전서(弘齋全書), 제33권 교(敎) 4,諭水原新邑民教【庚戌】>

정치/행정

유형원에게 증직하라는 하교로, 광주의 일용면을 수원에 합하여 대번진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

고 처사 증(贈) 집의 겸 진선(執義兼進善) 유형원은 그가 지은 《반계수록(磻溪隨錄)》의 보유편(補遺編)에서, “수원 도호부(水原都護府)에 광주(廣州) 아래 지역인 일용면(一用面) 등을 더해 주고 치소(治所)를 평야로 옮겨 내를 끼고 지세를 따르도록 하면 읍성(邑城)을 지을 수 있다. 거기에는 읍치의 규모와 평야의 대승(大勝)을 더하면 진실로 대번진(大藩鎭)의 기상을 가진 땅이 될 것이니 안팎으로 1만 호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성을 쌓는 부역은 향군(鄉軍)이 정번(停番)하면서 내는 재물로 충당해야 한다.” 하였다.

대개 그 사람은 유용한 학문으로 경제(經濟)에 관한 글을 지었던 것이다. 기이하다. 그가 수원의 형편(形便)을 논함에 있어 읍치를 옮기자고 한 계획과 성을 쌓자고 한 방책은 100년 전에 살았으면서도 오늘날의 일을 환히 알았던 것이니, 면(面)을 합치고 정번에서 나오는 재물을 쓰자고 하는 등의 세세한 절목과 일에 있어서도 모두 병부(兵符)처럼 딱 들어맞았다. 그의 글을 직접 읽고 그의 말을 응용하였다 해도 오히려 대단한 감회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의 글을 보지 못했는데도 본 것과 같고 그의 말을 듣지 못했는데도 이미 응용하였으니, 그 사람이 품고 있던 바가 실로 풍부하였던 것이다. 곧 이 화성(華城) 한 가지 일은 나에게 있어서는 아침저녁으로 만나게 된 것이라 할 만하다.

기억하건대, 예전에 그 집안의 후손에 의하여 그에게 추은(推恩)할 적에 의례적으로 호조 참판을 증직하려 하자 상신(相臣)이 힘써 말하기를, “그 의례적으로 증직하는 직함은 도리어 특별히 증직하는 것보다 못하니 이 유신(儒臣)에게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 일찍이 그 말을 옳게 여겼었다. 더구나 지금 그에 대한 감회가 일어나는데 어찌 고양시켜 면려하는 은전을 빠뜨릴 수 있겠는가. 성균관 재주를 더 증직하고 그 사손(嗣孫)을 찾아 물어 보고하도록 하라. 【이미 찬선(贊善)과 참판(參判)을 증직했기 때문에 이조참판 겸 좌주 찬선(吏曹參判兼祭酒贊善)을 증직하는 것으로 시행하였다.】

故處士贈執義兼進善柳馨遠.其所撰磻溪隨錄補遺編曰.水原都護府加廣州下道之一用等面.移治於坪野.臨川因勢.邑城可築.申之以邑治規模.坪野大勝.眞是大藩鎭氣象.地內外可容萬戶.又言築城力役.當藉鄉軍停番之需.蓋其人有用之學.著之爲經濟文字.奇哉.其論水原形便也.移治之謨.築城之略.身在百年之前.燭照今日之事.與合面停番等節文細務.亦皆鑿鑿如符契.見其書而用其言.尙謂之曠感.其書不見而如見.其言未聞而已用.其人之所抱固富矣.卽此華城一事.在予可謂朝暮遇.記昔其家後承之推恩也.例贈戶曹佐貳.相臣力言其例贈之銜.反遜於特贈.不可施於此儒.嘗以其言爲是.況今興思.豈闕揭厲之典.加贈成均館祭酒.其嗣孫訪問以聞.已贈贊善佐貳.故以贈吏曹參判

兼祭酒贊善施行.

<홍재전서(弘齋全書), 제34권 교(敎) 5, 故處士柳馨遠加贈祭酒敎>

정치/행정

영괴대의 인본을 받아본 것이 수원(水原)의 숙차(宿次)에 있을 때였다는 내용.

(…) 【○ 이해 10월 27일에 영괴대의 비석 인본(印本)을 친히 받을 때 예방 승지(禮房承旨)와 각신(閣臣)이 의장(儀仗)과 고취(鼓吹)를 갖추고 만팔문(萬八門)을 경유하여 배진(陪進)하였다. 하교하기를, “올해에 온양 행궁의 세 그루 왜나무에 대한 고적(古蹟)을 듣게 되어 각(閣)을 세우고 비석을 세웠으니 마치 기다린 바가 있었던 듯하다. 내가 감회가 일어 슬픈 생각이 드니 마음을 가눌 수가 없다. 역역(力役)이 완성되어 인본을 친히 받게 되었는데, 그러한 훌륭한 고적을 보고 받은 것이 수원(水原)의 숙차(宿次)에 나아갔을 때였으니 어찌 기이하지 않겠는가. 예전에 이곳에 어가를 머물고 있을 때 도백(道伯)이 곧 능은군(綾恩君)이었는데 오늘 예조 판서로서 나와 숙배하게 되었다. 능은군 구윤명(具允明)의 집에 옷감과 음식물을 실어 보내도록 하라. 예전에 이곳의 지방관이었던 증 참판 용은군(龍恩君) 윤염(尹琰)이 또한 분부를 받들어 직접 세 그루의 왜나무를 심었다. 그 아들 각신 윤행임(尹行恁)이 지금 또 분부를 받들어 음기(陰記)를 썼으니 녹비(鹿皮)를 하사하라.” 하였다.】

(…) ○是年十月二十七日靈槐臺碑印本親受時.禮房承旨與閣臣.具儀仗鼓吹.由萬八門陪進.敎曰.今年得聞溫宮三槐古蹟.建閣豎碑.若有所待.予所起感而興愴.當作何懷.力役告成.印本親受.盛蹟之登聞.在於詣水原宿次之時.豈不奇異乎.昔年駐蹕時.道伯卽綾恩.而今日以禮判出肅.綾恩君具允明家.衣資食物輸送.昔年地方官贈參判龍恩君尹琰也.承敎手植三槐.其子閣臣尹行恁.今又奉敎書陰記.賜鹿皮.(…)

<홍재전서(弘齋全書), 제34권 교(敎) 5, 溫陽行宮槐臺豎碑敎 【附註賞典事實】>

정치/행정

원관(園官) 및 지방관 수원 부사(水原府使)에게 유지하는 글

나무를 심는 길일이 내일로 다가왔는데, 보토(補土)를 하고 보사(補莎)를 하는 역사도 또한 마땅히 내일 함께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의당 행해야 할 조건들을 개략적으로 아래쪽에 기록하니, 이에 따라 유념하여 봉행을 하라.

내청룡(內靑龍) 끝에서 평지에 이르기까지 여기(餘氣)가 융결(融結)하여 점점 낮아지고 납작해져 바짝 당긴 듯이 둘러 있으니, 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니 마땅히 소나무와 회나무를 심어 그 기세를 돕고 정채(精彩)를 발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오랜 시일이 지나 나무가 크고 무성해진 뒤에 만약 홍살문과 높이가 똑같게 되면 가로막히는 일이 없을 것이나, 혹시 이보다 지나치게 되면 시야를 방해할 듯하다. 그러나 이는 몇십 년 가꾸어 자란 뒤에 관계되는 일이니, 미리부터 이 점을 염려하여 아예 나무를 심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때에 이르러서 훤히 바라보이게 할 방도를 서서히 강구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대체로 나무를 심을 때에 한껏 자세히 상의하여 기세와 정채가 더욱 무성해지는 효과가 있도록 하라.

주봉(主峰)에서부터 내려와 내룡호(內龍虎) 및 둘째 용호의 앞에 이르기까지 심어 놓은 것들이 거의 모두 뿌리를 내리어 숲을 이룰 가망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 밖에 주봉의 뒤쪽 및 셋째 용호와 무릇 화소(火巢)¹⁷¹⁾ 안의 땅이 있는 곳에는 마땅히 차례로 종자를 뿌리고 나무

를 심어야 할 것이로되, 둘레가 매우 넓고 크니 꼭 나무를 심는 일에 전념할 필요는 없고 겸하여 종자를 뿌리는 일로써 유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눈앞에 당장 나타나는 효과는 더딜 듯하나 장래에 무성히 자라게 될 것은 알 수 있으니, 이 한 가지 일은 불가불 식목 차원(植木差員) 및 감독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서로 의논하여 편리한 쪽으로 조처해야 할 것이다. 명당(明堂) 안의 마을 터에 척(脊)이 있는 곳을 본 자들이 다들 말하기를, “바람에 닳고 빗물에 씻기어 삽이나 팽이로 파낸 흔적이 없으며 흙덩굴이 얹히고 풀이 뻗어 있어 본래부터 들어가고 나온 기미가 있다. 가까이서 살펴더라도 오히려 이와 같으니, 멀리서 바라보면 더욱 관계될 바가 없다.” 고 하였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나치게 염려를 한 나머지 모래가 남은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긴요하지 않은 일로 여기고서 평평하게 다듬는 것이 합당하기도 할 듯하다고 하였다. 그 뒤에 여러 설들이 다들 이 같은 염려는 없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 를, “분명히 부토(浮土)는 아니다.” 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이전의 의심이 시원히 해결되었다. 이 한 가지 일은 더 이상 다시 논하지 않는 것이 좋겠으니, 이로써 결정하라.

내청룡(內靑龍)에서 꾸불꾸불 돌아서 재실(齋室)의 담장 터에 이르기까지가 약간 낮고 평평해지는 듯한데, 이 때문에 김양직의 무리가 보토를 해야 한다는 의논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상세히 살펴보면, 본래의 지형에 비해 대여섯 자 정도가 약간 낮은 듯한데, 이는 아마 예전의 고을에 쌓았던 담장과 인가에서 뚫어서 파낸 까닭에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김양직의 무리가 운운한 것은 비록 소견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곳의 지형이 대체로 평탄하기 때문에 뚫어서 파낸 곳이 그다지 뚜렷하지는 아니하여 눈에 거슬릴 정도는 아니다. 뿐만 아니라, 단청룡(單靑龍)과는 차이가 있는 데다가 또 둘째 청룡이 그 외면을 빙 둘러 에워싸고 있다. 이것만으로 오히려 부족하여 용주사(龍珠寺) 뒷산이 본신(本身)으로부터 맥(脈)을 나누어 접혀진 어병(御屏)과 옥례(玉几)의 형상으로 웅건하게 버티고 널찍하게 펼쳐져 외청룡(外靑龍)이 되어 겹겹으로 가리어 막고 있다. 그러니 이곳은 비록 보축(補築)을 하지 않더라도 조금도 이지러지거나 모자람이 없다. 이전에 여러 설을 두루 물어보니 다들 그렇게 여기었다. 그리고 지금 만약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면 형세가 장차 담장을 헐어 개토(開土)를 해야 할 판국이다. 시일을 늦출 수 없는 일을 빼고는, 이치상 마땅히 천천히 진행하여 안정(安靜)에 힘써야 될 것이고, 또 보태거나 깎아 내는 것을 논할 것 없이 이러한 때를 당하여 청룡(靑龍) 쪽에서 갑자기 역역(力役)을 의논한다는 것은 진실로 더없이 어려운 일이니, 예전대로 따라하는 것이 낫다. 【이 밖에 조금씩 파내고 뚫은 곳은 알맞게 보토를 하거나 혹은 보사를 하는 것이 무방할 듯하니, 곳곳마다 주의를 기울이고 감히 털끝만큼도 방심하여 지나치지 말라.】

둘째 백호(白虎)의 끝을 【곧 전에 서직수(徐直修)로 하여금 보사(補莎)를 하여 터를 열고자 한 곳이다.】 다들 “본래의 형지(形止)가 이와 같았다.” 고 말을 하였다. 이미 파내어 끊은 자취가 없으니 반드시 보축할 필요는 없다. 더구나 술가(術家)에서 이른바 “호두(虎頭)가 안쪽을 돌아보게 해서는 안 된다.” 고 말하는 것은 또 어찌 유념해야 할 점이 아니겠는가. 그만둘 수가 없다면, 단지 삼태기의 흙을 약간 써서 미봉(彌縫)을 하고 마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 백호의 중요(中腰) 안쪽에 2과(把)쯤 토피(土皮)가 벗겨진 곳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장마가 지난 뒤에 벗겨진 것에 불과하니, 벗겨져 떨어진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니 단지 보사(補莎)만 하면 된다. 이 조항도 또한 상세히 살펴도록 하라.

171) 화소(火巢) : 산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능원(陵園)이나 묘(墓) 등의 해자(垓字) 밖에 있는 풀과 나무를 불살라 버린 구역을 말한다. 《增補文獻備考 卷163 刑考12》

또 백호의 중요와 후배(後背)에 사태(沙汰)가 난 곳이 있어 꽤 높고 길다고 하는데, 자세히 물으니, 비록 이는 국(局) 안의 보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나 만약 그대로 두고 보토를 하지 아니하면 아마 점점 벗겨져 떨어져 나갈 염려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듣건대, 그 형지가 매우 준급(峻急)하여 보토를 하기가 어렵다고 하니, 그렇다면 빈 가마니로 보축을 하고 풀씨를 파종하여 단지 토피를 예전대로 복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또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년 여름을 기다려 보릿짚을 많이 가져다가 깔아 놓는 것이 더욱 좋을 듯하다. 이 한 가지 조항도 또한 모름지기 상세히 살피도록 하라.

주산(主山)의 내룡(內龍)이 처음 골짜기를 지나는 곳이 속명(俗名)으로 갈현(葛峴)이라고 하는 땅이니, 곧 옛 고을에서 서울로 통하는 지름길이었다. 골짜기를 지나면 맥의 몸체가 가늘고 연해지니, 이는 극히 보기 드문 형상이다. 그러나 가늘고 연한 가운데 맥의 등허리가 약간 높고 또 흙이 모래를 띠고 있어 쉽게 벗겨지는 까닭에 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혹 장마철에 만약 파고 뚫기라도 하면 수보(修補)를 하는 일에 힘이 반드시 배로 들 것이다. 그러니 이번에 반드시 즉시 보사(補莎)를 하라. 그리고 그 옆에 조금씩 벗겨져 떨어져 나간 곳도 있다고 하는데, 이곳은 먼저 보토를 한 다음에 보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 한 가지 조항은 비록 긴요하고 절박한 일은 아니지만, 지나는 골짜기가 곧 용신(龍身)의 기맥(氣脈)이 물을 건너는 곳이다. 술가에서는 바람이 불고 물이 덮치는 것을 매우 꺼리는 법인데, 이 골짜기가 모래를 보호하는 것이 견고하고 치밀하니 바람은 비록 염려할 것이 없으나, 비로 인한 사태는 마땅히 유념해야 한다. 그러니 보토하고 보사하여 미리 방축(防築)을 하는 것은 결코 미루거나 늦출 일이 아니다. 반드시 상세히 논의하여 수축(修築)을 하도록 하라.

갈현의 꼭대기는 옛 서문(西門)이고 그 아래에는 또 골짜기를 지나 길로 통하는 곳이 있다. 작년에도 흙을 쌓아 길을 막았다고 하는데, 쌓아 막은 모양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으니, 와서 말하는 자가 이르기를, “보이는 것이 매우 엉성하고 볼품이 없으니, 좌우의 가에 흙을 쌓아 점차 무더기가 되게 만들되, 산허리를 벗어나는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 또 그 옆에 토피가 벗겨져 떨어진 데가 있으니 이 또한 마땅히 잔디로 보결(補缺)을 하여야 한다.” 고 하였다. 이 설이 매우 이치가 있기에, 일전에 차원(差員)에게 상세히 물었더니 그 역시 그렇게 여기었다. 그러나 아직 그대로 믿을 수가 없어서 또 요즘에 갔다 온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더니 그들 역시 똑같은 의견이었다. 이 한 가지 조항은 이해(利害)에 그다지 관련되지는 않지만, 모두들 바라보는 곳에 마치 한껏 좋고 아름답지 못한 데가 있는 것과 같으니, 조금이나마 개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옛 향교의 터는 등한히 보아 넘길 수 없는 중요한 곳이다. 원소(園所)를 받드는 것에 비하면 비록 그만 못한 듯하나, 또한 단지 한 칸의 차이일 뿐이다. 그러나 원관(園官)에게 물었더니, 얼마간 파내고 뚫은 집터도 아직껏 메우지 아니하고 그대로 버린 땅처럼 방치하였다고 한다. 비록 반드시 일시에 힘을 쓸 필요는 없으나, 이 또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으니, 이 한 가지 조항을 각별히 유념하여 평평하게 하도록 하라.

위에 써 내린 여러 조항을 거행함에 있어서의 편부(便否)와 이 밖에 소견이 있는 점을 일일이 조목에 따라 회주(回奏)하라. 이 별유(別諭) 한 통을 원지(園志)에 상세히 기재하고, 또한 건을 재사(齋舍)에 써서 붙이도록 하라. 그리하여 새로 들어오는 원관으로 하여금 또한 모두 항시 눈여겨보고 명심하게 하라.

植木吉日在明日. 補土補莎之役. 亦當明日共始. 合行條件. 槩略錄在下方. 依此著意奉行.

內靑龍端到平地. 餘氣融結. 漸漸低扁. 緊緊彎抱. 吉不可勝言. 宜植松檜. 助其氣勢. 發其精彩. 然於久遠峻茂之後. 若與紅箭門高低平等. 則可無障隔. 或過此則似妨眼界. 而此係屢十年長養後事. 不宜

預先慮此.初不栽植.臨到其時.徐講通望之道亦好.大抵栽植之際.十分商量.使氣勢精彩.益有蔚然之效.

自主峯以下.至內龍虎及第二龍虎前所植者.幾皆著根.庶有成林之望云.而外此主峯以後及第三龍虎.與凡在火巢內之地.當次第播植.而幅員甚闊大.不必專意於植木.兼以播種留意爲可.目前之立效似稽.將來之茁長可知.此一款.不可不與植木差員及監董人等相議.隨便措處.

明堂內村墟有脊處.見者皆云風磨雨洗.無鑿錫穿鑿之痕.藤纏草蔓.有本初隱隆之意.近察猶尙如此.遠望則尤無所關.然而向來過慮.錯認剩砂.屬之不緊.以平鋪似或爲當矣.伊後衆說.無不以爲無是慮.又云分明非浮土.自此前疑決釋.此一款.勿復更論爲可.以此決定.內青龍透邇到齋室墻址.稍覺低平.所以有金養直輩補土之議也.詳察細審.則比本來地形.似若五六尺許稍低.蓋因舊邑築垣與人家穿鑿所致.養直輩所云云.雖不無所見.然此處地形大體平坦.故其穿鑿處.無甚分明.不至於礙眼.且與單青龍有異.又有第二青龍圍繞其外.此猶不足.龍珠寺後山.自本身分脈.作帳合御屏玉几之形.雄峙闊展.爲外青龍.重重遮障.此處雖不補築.少無虧欠.前此遍叩諸說.皆以爲然.且今若欲始役.則勢將毀垣開土矣.除非時日不可緩之事.則理宜姑徐.以安靜爲務.又無論補與削.當此之時.青龍邊遽議力役.誠萬萬重難.莫如仍舊之爲可.此外小小穿鑿處.量宜補土.或補莎似無妨.隨處小心.無敢一毫放過.

第二白虎端.卽前令徐直修欲爲補莎開址處也.皆云本來形址也.自如此.既無鑿斷之跡.則不必補築矣.況術家所謂虎頭之不宜內顧云者.又豈非當念處耶.無已則只用若干簣土.彌縫而止.亦好.

又白虎中腰內面.有二把許土皮脫卸處云.而此不過潦水後脫卸.異於剝落.只當補莎而已.此條亦詳審爲可.

又白虎中腰後背.有沙汰處.頗高且長云.細問之.則雖是局中不見之地.若置而不補.則恐有漸次剝落之慮.然聞其形址甚峻急.而難以補土云.然則補以空石.播以草種.只令土皮復舊而止.似好.又有一法.待來夏.多取麥芒而鋪之.尤好.此一條亦須詳審.

主山來龍初過峽處.俗名葛峴之地.卽舊邑通京捷路.過峽脈體細嫩極貴.然而細嫩之中.脈脊稍高.土又帶沙易脫之.故草不著根.或於潦節.若加穿鑿.則修補之功.力必倍入.今番須卽補莎.而其傍略略剝落處.亦有之云.此處則先補土.次補莎爲可.此一款.雖非緊切之事.過峽卽龍身氣脈渡濟之處.術家切忌風吹水劫.此峽護砂固密.風雖無慮.雨汰宜念.補土莎.預加防築.決非徐緩之事.須詳議繕築.

葛峴之上.古西門.峴之下.又有過峽通路處.昨年亦土築塞路云.而築塞之樣.不合觀瞻.遠立見之.來說者曰.以所見甚荒拙.左右邊土築.使之漸次成堆.而出山脊貌樣爲好.又其傍有土皮脫落處.亦當以莎補缺.此說甚有理.日前詳問于差員.則渠亦以爲然.猶未準信.又問於近日往來諸人.則亦純同.此一款.關係無甚利害.而卽具瞻處.若有未盡善美.不可不略略修治.

舊鄉校基.非等閒大地.比園所之奉.雖若不及.亦只是一間耳.然問於園官.則多少穿鑿舍基.尙不填補.仍同拋棄云.雖不必一時費力.亦不可仍以置之.此一條.各別詳念.期於平衍.

右書下諸條舉行便否.此外有所見處.一一逐條回奏.此別諭一通.詳載園志.又以一件書付齋舍.使新入之園官.亦皆常日銘念.

<홍재전서(弘齋全書), 제38권 유서(諭書),諭園官及地方官水原府使書>

정치/행정

수원부를 행궁으로 승격시키고 화성(華城)이라는 고을 이름을 하사했다는 내용.

(…) 수원부(水原府)를 행궁(行宮)으로 승격시키고 화성(華城)이라는 고을 이름을 하사하고, 직접 ‘화성행궁(華城行宮)’이라는 네 글자의 대자 편액(大字扁額)을 쓴 다음 총관(摠

管) 조운형(曹允亨)에게 명하여 모각(模刻)하도록 하였다. (…)

(…) 水原府既陞爲行宮.賜號曰華城.親書華城行宮四大字匾額.命總管曹允亨移模監刻.(…)

<홍재전서(弘齋全書), 제163권 일득록(日得錄)3, 文學[三]>

정치/행정

수원부의 치소를 옮기는 일과 수원으로 행행하는 일에 대해 언급한 내용.

(…) 수원(水原)의 아각(衙閣)에 거동하여 부로(父老)들을 불러 모으고 유시하기를, “이 고을은 곧 나의 조상 묘가 있는 고향과 같은 곳이다. 대례(大禮)가 이루어졌음을 고하였고 땅도 조화롭고 길하다. 생각건대, 너희 부형(父兄) 자제(子弟)들이 기꺼이 이 역사(役事)에 달려 나왔으니 내 마음의 감격스럽고 기쁨이 어찌 다함이 있겠는가. 10년 동안 복호(復戶)를 주어도 오히려 다 갚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 거처에 편안히 살게 되어야 내가 편안히 잘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

수원부(水原府)가 치소(治所)를 옮기려 하였다. 상이 부사(府使) 조심태(趙心泰)를 불러 보고 하교하기를, “내가 덕이 없어 왕위에 오른 지 10여 년이 되도록 백성에게 미친 은혜 하나도 없었다. 지금 천봉(遷奉)하는 일 때문에 한 부(府)의 백성들로 하여금 수백 년 동안 편안히 살던 땅에서 끝내 옮겨 가도록 함을 면치 못하였다. (…)

수원(水原)에 행행(幸行)하는데 가는 길이 구불구불하고 멀어 군사와 말이 모두 지쳤다. 이에 길을 다른 데로 바꾸어 편한 쪽을 취하도록 명하니, 해당 도신(道臣)이 지도(地圖)를 올렸다. 하교하기를, “저 나루를 건너 십수 리(里)가 푸르게 숲을 이루고 있는데 길이 그 가운데서 나온다면 혹 남의 집 분묘(墳墓)를 범하는 것은 아닌가?” 하니, 대답하기를, “영역(塋域)은 아니라 하더라도 곧 이른바 청룡(靑龍)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어찌 가까운 길을 취하기 위하여 길을 만들어 남의 집 분산(墳山)의 청룡을 침범하겠는가. 속히 다른 데로 바꾸라.” 하였다. (…)

상이 이르기를, “수원(水原)의 유수(留守)에 관한 의논이 무장(武將)을 한 명 줄이는 것을 인하여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고 있다. 혹자는 유수의 직임을 설치하여 무장을 파견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데, 내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다. (…)

(…) 御水原衙閣.招集父老.諭曰.是鄉卽予桑梓.大禮告襄.地亦叶吉.惟爾父兄子弟.樂趣是役.予心感喜.容有既乎.給復十年.尙不稱塞.惟爾等奠安厥居.予可安寢.(…)

水原將移治.上召見府使趙心泰.教曰.予否德.御極十餘年.一無惠澤之及民者.今以遷奉之故.未免使一府生靈.播遷于幾百年安土之餘.(…)

水原幸行.道路迂遠.軍馬皆疲.命改路取便.該道臣以地圖進.教曰.彼渡津十數里.蒼然而林者.路從其中出.或犯人家墳墓乎.對曰.雖非塋域.卽所謂靑龍也.教曰.豈爲取近路而路侵人家墳山之靑龍乎.速改之.(…)

水原留守之議.因武將之減一額.尙未決.或者以爲設留守職.以武將派遣爲可.予則曰非也.(…)

<홍재전서(弘齋全書), 제167권 일득록(日得錄) 7, 政事[二]>

정치/행정

수원부를 행궁(行宮)으로 삼고 유수(留守)와 판관(判官)을 두었다는 내용.

(…) 상이 이르기를, “내가 수원부(水原府)에 대해 그 체모를 중히 하고자 힘써 부(府)를 높여 행궁(行宮)으로 삼고 유수(留守)와 판관(判官)을 두었다. 공자(孔子)가 ‘중하지 않으면 위엄스럽지 않다.’ 하였는데, 천하의 일이 어디 간들 그렇지 않겠는가.” 하였다. (…)

(...) 予於水原府.務欲重其體貌.陞府爲行宮.置留守判官.孔子曰.不重則不威.天下事何往不然.
(...)

<홍재전서(弘齋全書), 제168권 일득록(日得錄) 8, 政事[三]>

정치/행정

최석정이 지은 이광하(李光夏)의 신도비명으로, 1694년(숙종 20) 여름 수원부사에 추천되었다가 체직되었다는 내용.[인물고 번역]

갑술년[1694년(숙종 20)] 여름에 옛사람들을 다시 등용할 때 수원 부사(水原府使)를 천수(薦授)하였는데 전임자가 찬축(竄逐)되고 공은 먼 곳에 있었기 때문에 묘당에서 아뢰어 체직되었다.

甲戌夏.舊人進用.薦授水原府使.前任被竄而公在遠.廟堂啓遞.

최석정(崔錫鼎), <명곡집(明谷集) 卷之二十一, 銘漢城判尹李公神道碑銘>

정치/행정

최석정이 지은 송광연(宋光淵)의 신도비명으로, 비변사에서 수원부사로 추천했다가 몇 개월 뒤에 다시 예조참의가 되었다는 내용.[직접번역]

묘당(廟堂)에서 추천하여 수원 부사(水原府使)의 후보자로 선정해 올렸는데, 두어 달이 지나 서용(敍用)하여 다시 예조 참의(禮曹參議)를 삼았다가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에 임명되었다.

廟堂薦擬水原數月.敍復爲禮曹參議.拜黃海觀察使.(...)

최석정(崔錫鼎), <명곡집(明谷集) 卷之二十二, 吏曹參判宋公神道碑銘>

정치/행정

최석정이 지은 유수창(柳壽昌)의 묘갈명으로, 그의 조부 유영건(柳永健)이 수원부사를 역임했다는 내용.[직접번역]

공은 이름이 수창(壽昌)이며, 자는 남노(南老)이고, 전주 유씨이다. 고조 세구(世龜)로 전첨(典籤)을 지냈고, 증조 담(堪)은 사인(舍人)을 지내어 두 세대 모두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할아버지 영건(永健)은 수원부사를 지냈다.

公諱壽昌.字南老.全州之柳.(...) 高祖世龜典籤.曾祖堪舍人.兩世俱贈吏曹判書.祖永健水原府使.

최석정(崔錫鼎), <명곡집(明谷集) 卷之二十三, 處士柳公墓碣銘>

정치/행정

서종태가 지은 이성부(李聖符)의 시장으로, 인조반정 직후 수원부사로 가서 평정했다는 내용.

당시 충의의 열사로서 반정(反正)의 계책에 동조하여 협찬한 사람이 비록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분연히 힘을 내어 못사람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죽음을 무릅써 가며 병사의 선봉에 선 사람으로야 누가 공 만하였겠는가? 여러 장수 중에서도 중흥을 협찬한 공로는 공이 실로 많았다. 이튿날 수원(水原)에서 군대를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본 고을은 바로 수도를 방위하는 중요한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어서 아직 의구심을 갖고 대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조정의 의논이 이를 걱정하고 그 인선을 난중(難重)히 여겨

곧바로 공을 제배(除拜)하여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삼아 보내어서 평정토록 하였으니, 위급할 때에 어려운 일을 맡기는 것도 이와 같았다. 그러나 정사공신(靖社功臣)을 마감할 때에 가서 처음에는 공을 정훈록(正勳錄)에 넣었다가 곧바로 별단(別單)으로 내리어 자급(資級)만 올렸으니, 이는 원훈(元勳, 김유(金瑬)를 말함)이 공의 지난날의 처사에 감정을 품고서 이 팔을 서곤(西閫)으로 내쫓으면서 아울러서 공까지도 그 공훈을 깎아 내린 것이다

當是時.忠義之士.攀附協策.雖非一二數.其奮然出氣力.和兩帥.牢衆心.冒死爲士卒先者.孰有公倫.諸將中.贊中興之功.公實爲多也.翌日.水原聚軍之報至.本府是畿輔宿重兵地.而時危疑未定.朝議憂之.而難其選.卽拜公爲府使.往平之.緩急託重如此.及勘靖社勳.始置公正勳.旋降之別單.而只陞資.蓋元勳嫌公前事.斥適西閫.並與公而屈其功也.

서종태(徐宗泰), <만정당집(晩靜堂集) 第十七, 防禦使贈兵曹判書李公諡狀>

정치/행정

정약용이 신작(申緯)에게 답장한 편지로, 주례의 육향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파주와 화성을 비유하여 설명하는 내용.

(…) 한성 판윤(漢城判尹)이 제로(諸路)의 호적에 관한 일을 총령한다면 올겠지만 화성 유수(華城留守)나 파주 목사(坡州牧使)가 한성부(漢城府) 오부의 호적을 검해서 총괄한다고 한다면 진정 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천리(天理)와 인정(人情)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관직을 제정할 리가 있겠습니까.

3년 간격으로 대비(大比)¹⁷²할 적에 육향의 노(老) 【삼공(三公)과 같다.】와 육향의 대부(大夫)가 예(禮)로써 빈흥(賓興) 인재를 추천하는 것)하고 현능(賢能)에 관한 글을 왕에게 바치면 왕은 두 번 절하고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오늘날의 입장에서 말해보면, 한성부 오부(五部) 안에는 빈흥할 만한 한 사람의 현능도 없고 화성(華城)이나 파주(坡州) 등 야외의 농사꾼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만 현능이 율흥하여 그들만 임금의 재배(再拜)를 받게 되는 식이니, 이것이 무슨 이치이겠습니까. (…)

(…) 漢城判尹總領諸路戶籍之事可矣.華城留守坡州牧使.兼總漢城五部之籍政.非怪事乎.天理人情.古今不殊.制官如此.有是理乎.三年大比則六鄉之老【卽三公】六鄉之大夫.以禮賓興.獻賢能之書于王.王再拜受之.以今言之.漢城五部之內.無一個賢能可以賓興.唯華城坡州等野外多眊之地.賢能蔚興.獨受王再拜.抑何理乎.(…)

정약용(丁若鏞),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제20권 서(書), 答申在中>

정치/행정

춘당대(春塘臺)에서의 인일제(人日製)에 응시한 화성 사람의 인원수.

인일제는 바로 초시의 다음 날에 보였다. 춘당대에 과장(科場)을 설치했는데, 관덕정(觀德亭)에서 관풍각(觀豐閣)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그득했는데, 과거에 응시한 자는 모두 10만 3579인이었고, 시권을 바친 자는 모두 3만 2884인이었다. 그중에는 서울이 2211인, 경기(京畿)가 3586인, 해서(海西)가 3111인, 관서(關西)가 3173인, 호서(湖西)가 6096인, 관동(關東)이 1025인, 호남(湖南)이 4700인, 영남(嶺南)이 5231인이었고, 북관(北關)은 관동의 숫자와 같았으며, 화성(華城)이 368인, 광주(廣州)가 356인, 송도(松都)가 210인, 강도(江都)가 90인, 제주(濟州)가 3인이었고, 거주지를 기록하지 않은 자가 766인이었으니, 참으로 굉장하

172) 대비(大比) : 3년에 한 번씩 관리들의 덕행(德行)과 도예(道藝)를 고사(考査)하는 것. 또 과거(科擧)의 뜻으로도 쓰이는데 그때에는 향시(鄕試)를 일컫는 말이 됨.

다고 할 만하다.

(…) 人製卽初試之翌日也.設場於春塘臺.自觀德亭至觀豐閣.赴舉者十萬三千五百七十九人.呈券者爲三萬二千八百八十有四矣.京二千二百十一.京畿三千五百八十六.海西三千一百十一.關西三千一百七十三.湖西六千九十六.關東一千二十五.湖南四千七百.嶺南五千二百三十一.北關如關東.華城三百六十八.廣州三百五十六.松都二百十.江都九十.濟州三.不書居住者七百六十有六.可謂壯矣.(…)

<홍재전서(弘齋全書), 제7권 시(詩) 3, 御春塘臺.設人日製有喰.【并小序】>

정치/행정

장용외영(壯勇外營) 속읍(屬邑)의 첨정(簽丁) 문제로 백성들을 소요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윤음

화성(華城)을 둘러싼 4, 5개 군현(郡縣)을 외영(外營)으로 이관(移管)하여 마치 비늘이 서로 잇닿아 있고 머리카락이 가지런히 늘어서 있는 것처럼 만들었으니, 곧 주 나라의 훌륭한 법이다. 이를 처음 설치하여 시행하게 되었을 때 연석(筵席)에 임하여 자세히 유시하고 윤음을 반포하여 확실히 한 것이 과연 어떠하였는가.

環華城四五郡縣之移管於外營.如鱗比而毛櫛.卽有周之盛典也.當其設施之初.臨筵而提諭.頒綸而講確.果何如也.(…)

<홍재전서(弘齋全書), 제29권 윤음(綸音) 4, 壯勇外營屬邑簽丁毋得撓民綸音>

정치/행정

화성유수 이명식(李命植)의 사직소에 대한 비답으로 화성유수를 둔 이유에 대해 언급한 내용.

답하노라. 소를 살펴보고 잘 알았다. 이 부(府)의 이 직임(職任)을 나는 마치 팔과 다리처럼 중요하게 보고 마치 팔꿈치와 겨드랑이처럼 가깝게 보고 있다. 경은 다섯 도의 관찰사를 지냈고 세 번 관방(關防)을 관장하면서 쌓은 공적이 함께 조정에 있는 사람들보다 성대히 드러났었다. 내가 경을 이 부의 이 직임에 임명한 것은 대체로 또한 깊이 헤아린 것이 있기 때문이었다. 설사 경이 선불리 나오지 못할 의리가 있을지라도 가서 일하는 것을 사양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이 화성(華城)에 유수를 둔 것에 대해서는 모름지기 제정하여 설치한 뜻을 알아야 할 것이니, 능침(陵寢)을 수호하기 위해서이고 행궁(行宮)을 정리하기 위해서이다. 경도 반드시 초봄에 행행을 하면서 내린 윤음을 보았을 것인데, 이 부의 이 직임이 어찌 나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헤아리고 재 볼 수 있는 자리가겠는가. 경은 부디 즉시 일어나 사은숙배하라.

答曰.省疏具悉.是府是任.予之視之如視股肱.如視肘腋.卿是五道建節.三掌關防.而績庸茂著於同朝之人也.予所取卿於是府是任.蓋亦深量者存.藉令卿有逡巡之義.往役不可辭異.矧茲華城居留.須看制置之意.爲守護仙寢也.爲整理行宮也.卿亦必見春初幸行時綸音.而是府是任.寧或有商量計度於可出不可出耶.卿其卽起肅謝.

<홍재전서(弘齋全書), 제44권 비답(批答) 3, 水原留守李命植辭職疏批>

(3) 군사

정치/군사

왜군에 의해 화성(華城)을 지나 평양까지 밀리게 되다.

(…) 옛날에 진(秦)나라는 주국(柱國)의 도읍(都邑)을 점거하고서 병탄(并呑)을 하려는 속임수를 꾀하였었는데, 진(晉)나라의 경우는 길을 빌리겠다는 글을 날리긴 하였지만 하늘에 대고 활을 쏘려는 흉계를 꾸미지는 않았었다.¹⁷³⁾ 장강(長江)의 천참(天塹)이라도 의지해 보려 하였더니 한강(漢江)도 임진(臨津)도 어찌할 수 없게 되어 패수(溟水) 대동강(大同江)의 옛 이름임)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또 지령(地靈)으로 말하더라도 화성(華城: 수원(水原)의 옛 이름임)이나 송경(松京) 개성(開城)의 옛 이름임) 역시 믿을 수 없게 되어 유경(柳京: 평양(平壤)의 옛 이름임)에까지 밀리게 되었다. (…)

(…) 據柱國之邑.奏嘗用并地之譎謀.飛假途之書.晉却無射天之兇計.恃天塹則漢已不能臨已不能.而迫之溟水.論地靈則華亦無賴松亦無賴.而窮于柳京.(…)

최립(崔嵬), <간이집(簡易集), 제1권 격(檄), 通津李縣監壽俊 義兵檄>

정치/군사

이정귀(李廷龜)가 수원(水原)과 죽산(竹山) 두 산성(山城)을 보수하다.

(…) 을사년에 외방으로 나가기를 청하여 경기 관찰사에 임명되었다. 그러다가 찬집청(纂集廳)이 설치되자 윤공 근수(尹公根壽)와 이공 호민(李公好閔)이 아뢰기를, “이모(李某)를 이번의 선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으니, 과격적으로 당상에 임명토록 하소서.”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공은 기전(畿甸)을 다스리면서 풍교(風敎)를 엄하게 하고 방치되었던 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급선무로 삼았다. 그리고 포은서원(圃隱書院)을 용인(龍仁)에 세웠는데 그 일이 알려지자 위에서 충렬(忠烈)이라는 편액(扁額)을 하사하였다. 이와 함께 숭의전(崇義殿) 고려 태조 이하 8왕의 위패를 모신 사당(祠堂)을 중건한 뒤 후손인 왕곤(王鵬)을 전감(殿監)으로 삼게 해 줄 것을 청하였으며, 수원(水原)과 죽산(竹山) 두 산성(山城)을 보수하여 군량과 기계(機械)를 비축해 둬으로써 급할 때의 대비책이 되도록 하였다. (…)

(…) 乙巳.求外拜京畿觀察使.纂集廳之設也.尹公根壽, 李公好閔啓曰.李某不可不參此選.請破格爲堂上.許之.公之治圻也.以厲風教修廢墜爲先務.建圃隱書院于龍仁.事聞.賜額曰忠烈.重新崇義殿.請以其裔孫王鵬爲殿監.修治水原, 竹山二山城.儲峙糧械.爲緩急備.(…)

장유(張維), <계곡집(谿谷集), 제16권 행장(行狀), 左議政月沙李公行狀【以下續稿】>

정치/군사

김준룡(金俊龍)이 휘하의 기병 수백 명과 함께 수원(水原)에 이르렀다.

(…) 한편 아군이 행군을 하던 도중에 적들로부터 야습을 당하고 말았다. 그러자 군중이 혼란해지면서 큰 소리로 외쳐 대기를, “주장(主將)¹⁷⁴⁾을 위해 이미 온 힘을 다해 싸워 적들

173) 진(秦)나라는 …… 않았었다 : 왜적이 춘추 시대의 진(秦)나라와 같은 속임수를 쓰면서, 진(晉)나라에서도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중국 침략의 야욕까지도 드러내고 있다는 말이다. 진(秦)나라의 주국(柱國) 운운의 고사는 미상(未詳)이다. 진(晉)나라가 궐국(虜國)을 치기 위하여 우국(虞國)의 길을 빌리고는, 궐국을 멸망시키고 회군(回軍)하는 도중에 다시 우국까지 멸망시킨 고사가 있다. 《春秋左氏傳 僖公5年》

174) 주장(主將) : 전라 감사 이시방(李時昉)을 가리킨다. 당시의 전황은 이러하다. 인조 14년(1636) 12월 20일에 근왕(勤王)의 명을 받은 이시방은 6000명의 군사를 모집하여 그달 29일에 전라 병사 김준

에게 승리를 거두어 놓고도 아무런 원조도 받지 못한 채 줄지에 이런 번고를 당하고 말았으니 이렇게 부질없이 죽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하고는 모두 흩어져 달아났다. 공이 휘하의 기병 수백 명과 함께 수원(水原)에 이르렀으나 군사가 없어 남쪽으로 내려가 다시 군사를 모아 다음을 도모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감사 이시방(李時昉)이, 오랑캐가 두려워 싸움터로 구원하러 오지 못한 탓에 절도사가 공을 세운 것에 대해 마음속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하여 사실과는 달리 말을 바꾸어 보고하였고, 종사관 박서는 이전에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마음속으로 화가 난 상태라 그 또한 상에게 공을 비방하는 말을 올렸다. (…)

(…) 我兵中路夜驚.軍亂大號曰.爲主將既力戰勝之.卒有變.徒死無益.皆散去.公與麾下騎士數百.至水原.患無兵.欲南下更收兵爲後計.監司李時昉畏胡不赴亂.心內慙忌節度之有功.反辭以聞.從事遂既心怒不從己言.亦毀於上.(…)

허목(許穆), <기언(記言) 별집 제17권, 구묘문(丘墓文), 贈左贊成金公神道碑銘>

정치/군사

관군이 수원(水原)에서 패전하다.

(…) 김천일이 선생에게 글을 보내기를, “대군(大軍)이 일단 출병했으나 바탕이 튼튼하지 않으면 믿을 데가 없습니다. 용병(用兵)의 승패는 오로지 족하(足下)에게 달렸습니다.” 하였다. 당시에 권율(權慄)이 광주(光州)를 맡고 있었는데, 수성(隋城: 수원(水原))에서 패전한 뒤로 항상 분한(憤恨)을 품고 날마다 군현에 격문(檄文)을 보내 의병을 모집하니, 흩어졌던 군사들이 차츰 호응해 왔다. 선생이 부로들을 나누어 보내 이웃 고을들을 깨우쳐 설득하여 수천 명을 모으니, 권율이 매우 기뻐하였고 일마다 반드시 선생에게 자문하였다. (…)

(…) 金千鎰遺書先生曰.大軍一出.本根不固.無所可恃也.用兵利鈍.其權專在足下.時權慄爲光州.自隋城不利.常憤恨.日傳檄郡縣.召集義旅.諸散軍稍稍有應者.先生分遣父老.曉諭傍邑.致數千人.權慄大悅.每事必咨於先生.(…)

허목(許穆), <기언(記言), 별집 제25권 구묘문(丘墓文), 羅州牧使朴公墓表>

정치/군사

기중소가(起重小架)를 만들어 수원성(水原城)을 쌓는데 사용토록 하다.

(…) 이제 그 전해 남은 것은, 뱃사람들만이 쓰는 활차(滑車)가 그것입니다. 대개 돛은 무겁고 돛대는 높아서 몇 사람이 일으켜 세우는데, 장대의 끝에 있는 활차가 돌아서 힘을 덜어주지 않는다면, 어찌 중간에 그치거나 꺾임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옛사람들이 남긴 뜻을 취하고 새로운 제도를 참고해서, 기중소가(起重小架)를 만들어 수원성(水原城)을 쌓는

룡(金俊龍)과 함께 남한산성을 향하여 진군하였다. 이듬해 1월 2일에 양지(陽智)에 도착한 이시방은 김준룡을 선봉장으로 삼아 군사 2000명을 이끌고 먼저 진군하게 하고 자신은 본대를 이끌고 그 뒤를 따랐다. 1월 4일 수원(水原)과 용인(龍仁) 사이에 있는 광교산(光敎山)으로 진출한 김준룡은 전투태세를 갖추고 남한산성과의 연락을 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청장(淸將) 백양고라(白羊高羅)가 병력 2000명을 광교산 동쪽 일대에 배치하여 남한산성과의 연락을 차단하고 주력 5000명을 이끌고 총공격을 감행했다. 그러나 백양고라가 아군에 의해 전사함으로써 청군은 순식간에 전열이 와해되고 조선군은 이 틈을 타서 일제히 반격을 가하여 청군을 대파하였다. 이 싸움은 병자호란 중에 청군과 싸운 최대의 전투이자 최초의 대승으로 기록된다. 이때 김준룡의 부대는 본대인 이시방으로부터 군량과 무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결국 수원으로 철수하게 되었고 철수 도중에 많은 군사를 잃었다. 한편 이시방은 김준룡의 부대가 수원으로 철수했다는 소식을 패전에 의한 퇴각으로 잘못 알고 1월 7일에 휘하군을 이끌고 공주(公州) 방면으로 철수했다.

데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비록 천정(千鼎 천 개의 솥, 즉 무겁고 큰 것을 말함)에 한 조각 쇠붙이이며, 아홉 마리 표범의 반점(斑點) 중에서 하나의 반점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오히려 기계의 성능이 신묘하고 쓰임이 민첩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보면 깜짝 놀라고, 지혜 있는 사람도 보면 의혹할 만합니다. 심지어는 성문 양편에 세우는 돌【속칭 현단석(懸端石)이라고 한다.】의 무게가 수만 근씩이나 되어 천명(千名)의 힘으로도 움직이지 못하고, 백마리의 소로도 끌지 못합니다. 이것을 두 사람이 도르래의 손잡이를 잡으면, 번거롭게 힘쓰는 소리를 할 필요도 없이 한 개의 깃털을 들어 올리듯 공중에 들어올리게 되니, 힘겨워 숨이 찰 걱정도 없을 뿐 아니라 나라의 재산도 절약되니, 그 이익됨이 또한 크고 많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기계를 만드는 데 그다지 복잡하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약간의 공력(工力)만 들어서 도르래를 만들어 서로 통하고 서로 이끌게 만들면, 조그만 어린아이의 한 팔 힘으로도 여러 만근(萬斤)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으니, 절대로 보통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수원성의 역사(役事)는 적고 물건도 가벼우니, 어찌 꼭 그런 기계를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 가운데서 가장 간단하고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골라 시험해 보겠습니다. 이에 왼편에 차례차례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겠습니다. 첫번째는 가(架)이고, 두번째는 횡량(橫梁)이고, 세번째는 활차(滑車)이고, 네번째는 거(簾)인데, 거에는 고륜(鼓輪)과 녹로(轆轤)를 같이 설치해야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唯舟人之用滑車因是已. 蓋帆重桅高. 數夫起之. 非有竿頭滑車圖轉遞授之力. 惡能免礙滯中絕哉. 今取古人遺意. 參以新制. 製爲起重小架. 俾用于城華之役. 茲蓋千鼎之一櫓. 九豹之一斑. 然猶機神用捷. 愚駭智惑. 至若城門兩旁之石. 【俗號懸端石.】重各數萬斤. 千人之所不能動. 百牛之所不能輓者. 兩夫操櫪. 不煩呼邪. 擡起半空. 如勝一羽. 徒不病喘. 帑不損費. 其益不亦弘多乎. 若更無祕蘊奧. 稍費工力. 以之爲輪爲旋. 使之相通相撥. 卽小孩一腕之力. 可起累鉅萬之重. 萬萬非常慮所能測也. 然役小物輜何用焉. 姑取其粗淺易知者. 聊試之矣. 茲開列作圖如左. 一曰架. 二曰橫梁. 三曰滑車. 四曰簾簾. 安鼓輪轆轤而其用全矣. (…)

정약용(丁若鏞), <다산시문집, 제10권 설(說),起重圖說>

정치/군사

정약용이 1792년(정조 16) 화성 축조에 대해 보고한 경위와 오성지의 성격에 대해 한탄한 내용.

《전수기의》는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의 호) 유 문충공(柳文忠公)이 임진왜란(壬辰倭亂) 때에 찬술한 것이다. 임자년(1792, 정조 16) 겨울에 화성(華城: 수원(水原))에 성역(城役) 성을 쌓거나 축수하는 일)이 있었는데, 나는 그때 마침 여묘(廬墓)살이를 하고 있었다. 상(上)이 연신(筵臣 경연관(經筵官))을 시켜서 국조(國朝)의 명신(名臣)으로 성(城)의 제도를 의논해 놓은 것이 있는가를 나에게 물어왔다. 그래서 신이 이 책과 모원의(茅元儀)의 《무비지(武備志)》에 기록된 윤경(尹耕)의 보루(堡壘)에 관한 설을 요약하여 대답하였는데, 이 말이 꽤 쓰여졌다. 수개월 뒤에 이 책을 다시 돌려주므로, 마침내 우리 집에 소장하게 되었다.

내가 을묘년(1795, 정조 19) 봄에 병조 참의(兵曹參議)로 어가(御駕)를 호종(扈從)하고 화성에 가서 비로소 성의 제도를 보았는데, 문루(門樓)의 앞뒤에 다섯 구멍을 뚫어 놓았으므로, 그 이름을 물어 보니 ‘오성지(五星池)’라고 하였다. ‘오성지’는 장차 물을 쏟아서 성문의 화재를 막기 위한 것인데, 구멍을 가로로 뚫어 놓았으니 이를 어디에 쓴단 말인가? 일을 맡은 신하가 그 겉을 보기 좋게 꾸미는 데에만 힘쓰고 실용적인 것은 강구하지 않았으니, 한

스러운 일이다.

戰守機宜者. 西崖柳文忠. 撰述於壬辰倭寇之時者也. 壬子冬. 有華城之役. 臣方居廬. 上令筵臣詢之以國朝名臣之有議城制者. 臣以此編及茅元儀武備志所載尹畊堡約對. 頗見採用. 後數月. 還降此編. 遂得家藏焉. 臣於乙卯春. 以兵曹參議. 扈從至華城. 始見城制. 而門樓前後鑿有五穴. 問其名曰五星池. 五星池將以灌水. 以禦門扉之焚. 橫穿將安用哉. 任事之臣. 務粉飾其美. 而不求其實用. 爲可恨也.

정약용(丁若鏞), <다산시문집, 제14권 발(跋), 跋戰守機宜>

정치/군사

수원 화성 성역에 기중가를 제작한 내력을 기록한 내용.

(…) 이 해 겨울에 수원(水原)에 성을 쌓게 되었다. 주상이 이르기를, “기유년(1789, 정조 13) 주교(舟橋)의 역사에 용(鏞)이 그 규제(規制)를 진달하여 사공(事功)이 이루어졌으니, 그를 불러 사제(私第)에서 성제(城制)를 조진(條陳)하도록 하라.” 하였다. 용이 이에 윤경(尹畊)의 보약(堡約)과 유 문충공(柳文忠公) 성룡(成龍)의 성설(城說)에서 좋은 제도만 채택하여 모든 초루(譙樓)·적대(敵臺)·현안(懸眼)·오성지(五星池) 등 모든 법을 정리하여 진달하였다. 주상이 또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기기도설(奇器圖說)》을 내려 인중법(引重法)·기중법(起重法)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용이 이에 기중가도설(起重架圖說)을 지어 올렸다. 활거(滑車)와 고륜(鼓輪)은 작은 힘을 써서 큰 무게를 옮길 수 있었다. 성역(城役)을 마친 뒤에 주상이 일렀다. “다행히 기중가(起重架)를 써서 돈 4만 냥의 비용을 줄였다.” (…)

(…) 是年冬. 城于水原. 上曰己酉冬舟橋之役. 鏞陳其規制. 事功以成. 其召之. 使于私第條陳城制. 鏞乃就尹畊堡約及柳文忠成龍城說. 採其良制. 凡譙樓敵臺懸眼五星池諸法. 疏理以進之. 上又內降圖書集成奇器圖說. 令講引重起重之法. 鏞乃作起重架圖說以進之. 滑車鼓輪. 能用小力轉大重. 城役既畢. 上曰幸用起重架. 省費錢四萬兩矣. (…)

정약용(丁若鏞), <다산시문집, 제16권 묘지명(墓誌銘), 自撰墓誌銘集中本>

정치/군사

수원 등의 고을 장교 수백 명이 궐하(闕下)에 나아가 척화신을 내어주길 청하였다는 내용.

(…) ○ 계해일이다. 【어제 비국이 인대(引對)할 때에 홍익한(洪翼漢)을 척화신의 우두머리로 여겼다. 밤이 되자 체부(體府) 중군(中軍) 전 통제사(前統制使) 신경인(申景禎)과 남양군(南陽君) 홍진도(洪振道) 등이 여러 대장의 군중(軍中)으로 오가면서 모의하는 바가 있었다. 이날 훈련도감 휘하 및 수원(水原)·죽산(竹山) 등의 고을 장교 수백 명이 궐하(闕下)에 나아가서 척화신을 내어 주기를 청하려고 먼저 체부에 이르러 칼을 어루만지며 일제히 소리치고 달려오자, 체찰사가 두려운 기색을 띠고서 곡직을 논하지 않고 단지 “속히 물러나라. 속히 물러나라. 마땅히 너희들의 요구를 따르겠다.” 고만 하였다. 훈련대장은 바로 신경진(申景禎)이고, 총융사는 바로 구굉(具宏)이었는데, 수원 부사 구인후(具仁堧)와 죽산 부사 구인기(具仁基)는 모두 구굉에게 소속된 사람이었다. 최명길(李弘吉)이 이홍주(李弘胄)와 함께 국서를 갖고 청나라 진영으로 가서 ‘장차 홍익한을 묶어 보내겠다.’ 고 하였다. 이때 홍익한은 평양서윤(平壤庶尹)으로 지방에 있었다. 예조 판서 김상헌, 전 대사간 윤황(尹煌), 교리 윤집(尹集), 수찬 오달제(吳達濟) 등이 대명(待命)하였다. 윤황의 아들 윤문거(尹文舉)가 상소하여 아버지 대신 오랑캐 진중(陣中)으로 가기를 청했으니, 이는 조정에서 장차 척화신을 사정(査

正)하려는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癸亥. 【昨日備局引對. 以洪翼漢爲斥和之首. 至夜. 體府中軍前統制使申景禔, 南陽君洪振道等. 往來諸大將軍中. 有所謀議. 是日. 訓練都監麾下及水原竹山等官將校數百人. 詣闕下. 請出給斥和臣. 先詣體府. 撫劍齊聲而進. 體察使有懼色. 不論曲直. 但曰. 速退速退. 當從爾等之請. 訓練將. 乃申景禔也. 摠戎使. 乃具宏. 而水原府使具仁厚, 竹山府使具仁基. 咸屬宏矣. 鳴吉與李弘胄. 持書往清營. 言將縛送洪翼漢時翼漢爲平壤庶尹在外矣. 禮曹判書金尙憲, 前大司諫尹煌, 校理尹集, 修撰吳達濟等待命. 尹煌之子文舉. 上疏請代父往虜中. 以朝廷將有斥和臣查正之故也. 】

정은(鄭蘊), <동계집(桐溪集) 연보(年譜), 十年丁丑 先生六十九歲 >

정치/군사

수주(水州 수원(水原))의 속읍인 처인부곡(處仁部曲)에서 전투하다.

(…) 금년 12월 16일에 이르러 수주(水州 수원(水原))의 속읍인 처인부곡(處仁部曲)의 작은 성(城)에서는 그들과 대전하여 괴수 사타리(沙打里)를 사살하고 사로잡은 자도 또한 많았으며, 남은 무리들은 산산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로부터 그들은 기세를 상실하여 안정하지 못하고 이미 회군하여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모아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혹은 먼저 가고 혹은 뒤에 가며, 혹은 동으로 혹은 북으로 가고자 하기 때문에 날짜를 정하지 못하고, 또한 어디로 향해서 갈 것인지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청컨대 귀국은 비밀리에 명령을 내려 정탐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운운.

(…) 至今年十二月十六日. 水州屬邑處仁部曲之小城. 方與對戰. 射中魁帥沙打里殺之. 俘虜亦多. 餘衆潰散. 自是褫氣. 不得安止. 似已廻軍前去. 然不以一時鳩集而歸. 或先行或落後. 欲東欲北. 故不可指定日期. 又莫知向甚處去也. 請貴國密令偵牒可也. 云云.

이규보(李奎報),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제28권 서(書)·장(狀)·표(表)【隣國交通所製】. 答東眞別紙>

정치/군사

김준룡(金俊龍)이 몰래 군사를 빼내어 고개를 넘어 수원(水原)으로 향하였다는 내용.

(…) 백양고라를 죽이고 오랑캐의 장수 몇 사람을 계속하여 죽였다. 하루 종일 크게 싸워 오랑캐들이 패배하였는데, 시체가 삼대가 쓰러진 것 같았다. 2경이 지난 뒤에 적들이 그 시신을 모두 불태우고 몇 리 밖으로 물러났다. 이에 사기가 백배는 충천하여 다시 싸울 만하였다. 그러나 군량과 화살이 다 떨어졌으므로 다시 쳐들어올 경우에는 반드시 패할 것이 염려되었다. 이에 횃불을 늘어세워서 군사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는 몰래 군사를 빼내어 고개를 넘어 수원(水原)으로 향하였다. 다음 날에 오랑캐들이 과연 크게 쳐들어왔으나, 군영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므로 몹시 놀라며 귀신 같다고 하였다. 그런데 방백이 공의 군대가 패하였다고 아뢰었다. 공은 체포되어 중죄를 받게 되었으나, 유배형으로 낮추어졌다. 그때 마침 여러 사람이 모여 모두 사실을 말함에 따라 마침내 석방되었다. 공은 공을 세우고서도 무함을 당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원통하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공은 이를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으니, 사람들이 모두 공의 도량에 탄복하였다.

김세렴(金世濂), <동명집(東溟集), 제15권 비갈(碑碣), 北兵使金公墓銘>

정치/군사

병자호란 때 이시직(李時稷)이 수원을 경유해 강도로 들어가려 하였다는 내용.

(…) 도중에서 갑자기 적군을 만나 거의 위험에 빠졌다가 겨우 탈출하여, 사잇길로 용인(龍仁) 경계에 이르러 뜻밖에 가족들과 만나섰다. 불초(不肖)한 내가 눈물을 흘리며 “사태가 매우 급박하여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 남쪽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민(士民)을 격려하고 의병을 고무하여 후일을 도모해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아뢰자, 부군께서는 준엄한 말씀으로 거절하시고는 옷깃을 뿌리치고 가족들과 작별 인사도 하지 않으시고 떠나시어, 드디어 남한산성의 동문(東門)으로 향하셨다. 그러나 이미 도로가 막혀 들어갈 수 없자, **부군께서는 통곡하고서 부득이 발길을 돌려 수원(水原)을 경유해 장차 강도로 들어가서** 참의 심지원(沈之源), 수찬 이일상(李一相), 풍덕 군수(豐德郡守) 이공 성연(李公聖淵) 등과 더불어 호서(湖西)·호남(湖南)에 격문(檄文)을 지어 보내어 그곳 사람들을 고무시키려 하셨다. 남양(南陽)에 당도하니 판서 조익(趙翼)과 교리 윤명은(尹鳴殷)이 이미 먼저 와서, 부백(府伯) 윤공계(尹公槩)와 의병을 모아 임금의 위급함에 달려가기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부군께서도 그곳에 머물면서 그 일을 함께 하기로 하셨다. (…)

(…) 途中猝遇賊. 幾危僅脫. 問道至龍仁境. 與家屬邂逅. 不肖孤泣白事已急矣. 不奈何. 請歸南鄉. 激勵士民. 鼓義師圖後效未晚也. 府君嚴辭峻拒. 拂衣去. 不與家人別. 遂轉向山城東門. 則路塞不得入. 府君乃痛哭. 不獲已回取水原路. 將趨江都. 與沈參議之源, 李修撰一相, 豐德守李公聖淵. 草檄兩湖. 以鼓舞之. 行到南陽. 趙判書翼, 尹校理鳴殷已先往. 與府伯尹公槩. 謀聚義旅. 誓赴主危. 府君亦留與共事. (…)

송준길(宋浚吉), <동춘당집(同春堂集)>, 제20권 행장(行狀), 通訓大夫奉常寺正竹窓李公行狀>

정치/군사

송준길이 지은 이시백(李時白)의 시장으로, 수원 방어사의 제수, 군진으로서의 수원, 윤선도가 수원부 뒷산에 대한 의견 등을 언급한 내용.

(…) 공이 행조(行朝)로 달려가 문후(問候)하니, 성상이 즉시 인견하고서 군진(軍陣)의 제반 사항을 자세히 물었다. **9월에 수원 방어사(水原防禦使)에 제수하고서** 하교하기를, “수원은 서울에서 100리 이내에 있고, 3000의 병마(兵馬)를 장악하였으니, 위급할 때 도움을 얻는 것이 이곳보다 나은 곳이 없다. 그러니 경은 마음을 다하라.” 하였다. 공이 명을 받고는 감격하여 몇 년을 하루같이 전심하여 군사를 조련하고 지성으로 교훈하니, 군심(軍心)이 신복(信服)하고 호령이 시행되며, 병기가 정교하고 기예가 숙련되었다. 그러므로 지금도 수원을 다스린 사람을 논하면 반드시 공을 으뜸으로 꼽는다. 공은 수천의 군사가 각 마을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위급한 일이 생길 경우 수합(收合)하기가 쉽지 않다고 여겨, 열 길이나 되는 긴 깃대를 만들어 높은 언덕에 나누어 세우고서, 군사들과 약정(約定)하기를, “위급한 일이 생기면 내가 깃대에 방색기(方色旗)를 걸고 자호포(子號砲)를 세 번 쏠 것이니, 깃발을 보거나 포성을 듣거든 서로 알려서 달려오고 혹시라도 시간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

기축년(1649, 인조27) 3월에 성상이 세자와 함께 어수당(魚水堂)에 나아가 공 등 몇 사람에게 입시하라고 명하였다. 술과 반찬을 모두 대내(大內)에서 내왔는데, 성상이 친히 술잔을 들고 “병조 판서는 주량(酒量)이 얼마인가?” 라고 물으니, 공이 “신은 본래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데다가 항상 몸에 병이 있기 때문에 더욱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성상이 “경의 병은 실로 남한산성에서의 노고(勞苦)에서 유래한 것이다.” 하였다. 술잔이 공에게 돌아왔으나 공은 그 술을 다 마실 수가 없었는데, 성상은 내시(內侍)에게 공이 술을

다 마셨는지의 여부를 묻고는 성상이 또 한 잔을 들면서 공에게 권하고, 세자를 돌아보며 “너도 한 잔 들라.” 하므로, 공은 황감(惶感)하여 힘을 내어 다 마셨다. 성상이 “경은 아들과 손자가 몇이나 되는가?”라고 묻자, 공이 숫자를 들어 대답하니, 성상이 “이처럼 많은데 과거(科擧)를 일삼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만약 국사를 담당하고자 한다면 비록 무과(武科)라도 괜찮을 것이다. 선경(先卿 이귀(李貴))이 국사에 충성과 마음을 다한 것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하였다. 공이 아뢰기를, **“신이 수원(水原)을 맡았을 때 본가(本家)로 돌아가서 선신(先臣)을 뵈었더니, 선신이 신에게 ‘어떻게 다스리고 있느냐?’ 라고 묻기에, 신이 ‘근자에 들건대, 어떤 사람이 아무에게 「수원 부사가 밤낮으로 군사를 훈련시키고 있으니, 그 마음을 예측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

이해 겨울에 경기 감사(京畿監司) 김광옥(金光煜)이 **수원 부사(水原府使) 변사기(邊士紀)를 파출(罷黜)하니**, 영상(領相) 이공 경여(李公敬輿)가 유임(留任)시키기를 계청(啓請)하였다. 그러자 성상은 감사를 추고(推考)하라고 명하였는데, 오래지 않아 또 감사가 변사기의 성적을 하고(下考)에 두었다. 이때 김자점(金自點)이 변사기와 함께 반역을 꾀한다는 소문이 파다하였으나, 이공과 공은 넓은 도량으로 방치하고 의심하지 않았다. 공이 아뢰기를, **“수원읍(水原邑)은 실로 경기의 중요한 군진(軍鎭)입니다.** 감사가 변사기를 파출한 의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대신이 유임을 계청하였고, 성상께서도 감사를 추고하라고 명하셨는데, 오래지 않아 감사는 또 전최(殿最)를 이용하여 기어이 이기려고 경쟁이라도 하듯이 변사기를 하등에 두었으니, 변신(藩臣)의 체통이 어찌 이러해서야 되겠습니까. 임금의 명을 무시하고 조정을 하찮게 본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으니, 경기 감사 김광옥을 우선 먼저 파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 계사(啓辭)를 보건대 옛날 대신의 늙은 품도가 있으니, 내 매우 기쁘고 존경스럽다. 김광옥은 파직하고, 변사기는 교체하지 말고 유임시켜 국사에 진심(盡心)하게 하라.” 하였다. 대사헌 홍무적(洪茂績)과 장령 임의백(任義伯) 등이 변사기를 파직하고 김광옥에 대한 파직의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였으나, 성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

기해년(1659) 5월에 효종대왕이 승하하자, 공은 서럽게 울며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니, 기력이 떨어져서 사람의 부축을 받아야 기동할 수 있었다. 이때 못사람들의 의론은 주자(朱子)의 군신복의(君臣服議)를 준행하고자 하였다. 공이 헌의(獻議)하기를, “선유(先儒)의 복제(服制)에 관한 의론을 신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조종조(祖宗朝)에서 오랫동안 준행한 제도를 황급한 즈음에 경솔히 변경하여 모든 일이 뒤죽박죽되는 걱정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계빈(啓殯)하는 날 추복(追服)한 뒤에 만약 새로 벼슬길에 들어온 자와 품계가 올라진 급한 자가 있을 경우, 이들의 복장은 지금의 시사복(視事服)과는 다릅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추복시킨다면 최질(衰絰)의 중복(重服)을 계속 추복할 수 없고, 추복시키지 않으면 똑같은 신하인데 복장을 달리해서는 안 되니, 신이 곤란하게 여기는 까닭은 바로 이 점입니다.” 하였다. 이때 신민의 바람은 오직 길지(吉地)를 얻어 대행 대왕을 장사 지내는 데 있었다. 그런데 윤선도(尹善道)가 **수원부청(水原府廳) 뒷산이 쓸 만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니 모든 지사(地師)들도 그의 말에 붙좃아 이의(異議)가 없었다.** 대신과 중신이 서로 뒤를 이어 상소하여 수원의 불가함을 논하니, 성상이 이런 소는 봉납(奉納)하지 말라는 전교를 내렸다.

(…) 公奔問於行朝.上卽引見.細問陣上凡百.九月.拜水原防禦使.敎曰.水原在京城百里之內.手握三千兵馬.緩急得力.無踰於此.卿其盡心焉.公受命感激.專意治兵.至誠教訓.積數年如一日.軍情孚而號令行.器械精而技藝熟.至今論水原之治者.必以公爲首.公以爲數千之兵.散處各村.脫有緩急.未易收聚.乃造十丈旗竿.分立於高阜.約諸軍有急.吾當懸竿以方色旗.三放子號砲.見旗聞砲.

遞相報赴.母或愆期.(…)

己丑三月.上與世子出御魚水堂.命公等數人入侍.酒饌皆自內出.上親執爵問曰.兵判酒量幾何.公對曰.臣本不能飲.又常抱病.尤未飲也.上曰.卿病實由於南漢之勤勞矣.杯行到公.公不能卒酌.上問內豎以盡飲與否.上又御一爵而勸公.顧世子曰.汝亦執一爵.公惶感.自力卒飲.上問曰.卿之子若孫幾何.公乃舉數而對.上曰.若是之多而不務科業.何也.如欲擔當國事.則雖武科可也.先卿之於國事.竭忠盡心.至今不能忘也.公曰.臣任水原時.歸覲先臣.先臣問臣何以爲治.臣答謂近聞有人言於某人曰.水原日夜治兵.其心不可測云.(…)

是冬.京畿監司金光煜.罷黜水原府使邊士紀.領相李公敬輿啓請仍任.上命監司推考.未幾.又置下考.時自點與士紀連謀爲逆.外議喧傳.而李相與公置之曠度.不以爲疑.公仍啓曰.水原爲邑.實畿輔重鎮.監司之罷黜邊士紀.雖未知其意所在.而大臣陳啓請仍.聖上又命推考.曾未幾何.又用殿最.有若好勝者然.藩臣事體.豈容如是.其不有君命.輕視朝廷之罪.不可不治.請京畿監司金光煜姑先罷職.傳曰.觀此啓辭.凜然有古大臣風.予甚欣敬.金光煜罷職.邊士紀勿褫仍任.使之盡心國事.大司憲洪茂績.掌令任義伯等.請罷邊士紀.還收金光煜罷職之命.上不允.(…)

己亥五月.孝宗大王昇遐.公攀號哀隕.廢食累日.氣力漸敗.起動須人.時群議欲行朱子君臣服議.公獻議曰.先儒服制之論.臣非不知.而第以祖宗朝久遠遵行之制.不宜率爾變更於蒼黃急遽之際.以致顛倒不齊之患也.啓殯之日追服之後.若有新入仕路者及超階進爵者.則此與今之視事服不同.爲之則衰經重制.不可續續追服.不爲則均是臣子.服不可異同.臣之所難.實在於此.是時臣民之望.唯在於大行衣冠之藏.卜得吉地.而尹善道力主水原府治後岡之可用.諸地師亦靡然無異語.大臣重臣相繼陳疏.論其不可.上有如此疏勿入之教.

송준길(宋浚吉), <동춘당집(同春堂集)>, 제23권 시장(諡狀), 奮忠贊謨立紀靖社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延陽府院君李公諡狀>

정치/군사

이항복이 지은 권율(權慄)의 유사로 수원(水原) 등지에서 전투를 치렀다는 내용.

(…) 이달 20일에 양군(兩軍)이 길을 나누어 진진하여, 이광은 용안(龍安)에서 강을 건너 임천(林川), 온양(溫陽) 등의 길을 경유하였고, 광영은 전주(全州)로부터 여산(礪山), 공주(公州) 등의 길을 경유하여 함께 직산(稷山)에서 모이었다. 이때 경상 순찰사 김수(金睟)와 충청 순찰사 윤국형(尹國馨)도 모두 여기에 와서 모였는데, 충청의 병력 또한 수만이나 되어 군용(軍容)이 매우 성대하였다. 그래서 마침내 수원(水原)에 나아가 진을 쳤는데, 이광이 광영으로 하여금 용인(龍仁)으로 진격하게 하므로, 공이 말하기를, “적(賊)이 이미 험고한 지역을 점거했으니, 지금 그들을 쳐다보고 공격하기는 어렵다. 지금 주공(主公)이 경내(境內)의 군사들을 몽땅 징발하여 들어와서 구원을 하는 중이니, 국가의 존망이 이번 한 차례의 일에 달려 있는 만큼 힘써 신중히 하여 만전을 도모해야지, 소소한 적과 교전하여 신위(神威)를 지레 허비해서는 안 된다. 오직 의당 조강(祖江)을 곧바로 건너서 임진(臨津)을 막는다면 서로(西路)가 절로 튼튼해지고 군량의 길 또한 트일 것이니, 그 형세의 편의함을 얻어 예기(銳氣)를 기르고 틈을 엿보면서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 옳다.” 고 하였으나, 이광이 듣지 않았다. (…)

이때 공은 상(上)이 의주(義州)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장수들을 불러서 계책을 논의하여 말하기를, “지금 평양 이남 지역은 모두 적의 소굴이 되었는데, 경성(京城)이 가장 근본이 되는 지역이니 먼저 경성을 수복하여 행장이 주둔한 평양성과 군대를 연접시켜서, 행장으로 하여금 의혹을 품고 동쪽을 돌아보느라 서쪽으로 추축하는 데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 상책이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 적들이 어찌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만일 강화로 들어간다면 이는 적에게 약점을 보이는 것이다.” 하고, 마침내 수원(水原)의 독성(禿城)으로 나아가 주둔하였다. 이때 상은 공이 독성에 주둔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칼 한 자루를 급히 보내 하사하면서 이르기를, “여러 장수들 가운데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가 있거든 이 칼을 가지고 임의로 처단하라.” 하였다. (…)

(…) 以是月二十日.兩軍分路而進.洸自龍安渡江.由林川, 溫陽等路.嶠自全州由礪山, 公州等路.俱會于稷山.時慶尙巡察使金晳, 忠淸巡察使尹國馨.皆來會.忠淸兵亦且數萬.軍容甚盛.遂進陣水原.洸令嶠進擊龍仁.公曰.賊已據險.今難仰攻.今主公掃境內入援.國家存亡.在此一舉.務在持重.以圖萬全.不可與小敵爭鋒.徑費神威.唯當直渡祖江.以塞臨津.則西路自固.糧道亦通.得其形便.畜銳伺釁.以待朝廷之令可也.洸不聽.(…)

公聞上在義州.召諸將計曰.今平壤以南.皆爲賊壘.京城爲根本之地.不如先復京城.連綴行長.恫疑東顧.使不得一意西迫.則諸賊無能爲也.今若轉入江華.示賊弱也.遂進駐水原之禿城.上聞公駐禿城.解劍馳賜曰.諸將有不從令者.以此劍從事.(…)

이항복(李恒福), <백사집(白沙集)>, 제4권 유사(遺事)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知經筵春秋館事弘文館提學同知成均館事行正憲大夫知中樞府事兼諸道都元帥權公遺事>

정치/군사

김장생이 지은 숙부 김은휘(金殷輝)의 행장으로 임진왜란 때 수원(水原) 독성(禿城)으로 나아가 진(陣)을 쳤다는 내용.

(…) 계사년(1593, 선조26)에 호남 지방에 내려와 병사를 점검하였다. 호남은 본래 병사와 말의 부고(府庫)였다. 그런데 용인(龍仁)이 붕괴된 후로 고을마다 모두 병사를 가지고서 자신만을 옹위(擁衛)할 뿐 위사람을 위하여 목숨 바칠 뜻이 없었다. 공이 비방을 받으면서도 병사를 뽑아 가거나 빼앗아 가자,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벌 떼처럼 일어났다. 이에 정예 병사를 선별하여 통솔하고 겸하여 의병까지 거느리니 군대의 모습이 정돈되고 엄숙하였으며 호령이 준엄하고 분명하였다. 수원(水原) 독성(禿城)으로 나아가 진(陣)을 치고서 결사의 전투를 벌이려고 다짐하였는데, 얼마 안 되어 송강 정철이 체직되고 재상 유성룡(柳成龍)이 그를 대신하게 되었다. 공을 헐뜯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 공을 구속하였었는데, 곧바로 석방하였다. (…)

김장생(金長生), <사계전서(沙溪全書)>, 제8권 행장(行狀), 숙부(叔父) 천안 군수(天安郡守) 부군(府君) 행장>

정치/군사

김상헌이 지은 신희의 행장으로, 정묘호란 때 수원에서 호남의 병력으로 적을 토벌할 것을 청하는 차자를 올렸다는 내용.

(…) 정묘년 정월에 상차하여 마음 속의 뜻을 전달하였는데 윤허를 받지 못하자 몇십 장(章)이 되더라도 기필코 요구를 관철한 뒤에야 그만두려 하였다. 그런데 17일에 서쪽에서 위급함을 알리는 보고가 들어왔다. 노적(奴賊) 수만 명이 기병(騎兵)으로 의주(義州)를 습격하고 잇따라 몇 개 군(郡)을 함락시켰는데, 10일 사이에 서관(西關)을 유린한 것이었다. 이에 공을 기용하여 좌의정과 세자부(世子傳)에 임명하고 세자를 받들어 남하(南下)하도록 하였다. 24일에 길을 떠나 수원(水原)에 도착해서 호남의 병력을 가지고 적을 토벌하라고 봉차(封劄)해 청하고, 전주(全州)에 도착해서 적이 조약을 체결한 뒤에도 군사를 풀어 사방을 약탈한다

는 말을 듣고는 또 차자를 올려 적이 약조를 위반한 일을 힐난하라고 청하면서 사유를 모두 갖추어 상문(上聞)하였다. (…)

(…) 丁卯正月.上劄陳情不允.雖累十章.期必得請乃已.十七日.西報告急.奴賊數萬騎襲義州.連陷數郡.旬日之間.蹂躪西關.起公拜左議政世子傅.命奉世子南下.以二十四日啓行.到水原.封劄請以湖南兵討賊.至全州聞賊約和後.放兵四掠.又劄請詰賊破約.俱報聞.(…)

신흠(申欽), <상촌집(象村集)>, 상촌선생집 부록1, 行狀[金尙憲] >

정치/군사

해생(解生)이 8월에 수원(水原)으로 내려가서 적을 쳤다는 내용.

(…) 해생(解生). 자는 문영(文英) 호는 순천(順泉)으로 선부(宣府) 전위(前衛) 사람이다. 정유년에 흠차비왜좌익부총병(欽差備倭左翼副總兵) 서도독첨사로 대동(大同)의 마병 2천 5백 인을 이끌고 7월에 나와 8월에 수원(水原)으로 내려가서 적을 쳤으며 9월에 남하하였다가 기해년 8월에 돌아갔다. 용맹스러웠고 전투를 잘 했으며 전진(戰陣)에 임해서는 반드시 앞장을 섰다. 부하들을 매우 엄하게 단속하고 성품 역시 공손하였는데, 늘 나라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랑캐 군인으로서 외람스럽게도 나라의 은혜를 입었으나 천승(千乘)의 임금과 항례(抗禮) 동등한 자격으로 대우받는 것)하는 일을 어떻게 감히 감당하겠는가.” 하고, 상이 접대할 때마다 번번이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술잔을 비운 뒤 절하고 일어나는 등 매우 깎듯이 행동하였다. (…)

[識]

萬曆戊戌.賊酋秀吉死.來寇者俱盡遁去.天朝將士引還.只留二萬兵.以備不虞.越明年己亥.留兵亦撤.而八方夷靖還舊觀矣.宣祖大王因經筵官建白.令朝臣撰輯先後天朝將官征倭事蹟.海平府院君尹根壽掌其事.更屢歲未就.及哀次成書以進.宣廟以多浮辭.令從實纂出.而欽受其命.乙巳春.完粹奏御.蓋舉其征討曲折.將官往來年月.兵糧多少.以便一時睿覽而已.其詳則國乘存.正本則已藏於天上.家有留草.而自癸丑遭禍.身罹放竄.未暇考閱.辛酉夏.蒙有賜環.復歸田間.尋理書籍.得見此稿.夫壬辰之變.實繫國家否運.而幸以傾否者.唯賴宣祖大王至誠事天之效.天朝覆露之迹.悉具於茲簡中.寔不可不傳.以爲當世文獻之徵也.征倭事蹟之外.添壬辰構釁.泊被兵始末者.欲粗備端倪云爾.歲壬戌中秋.玄翁書于黔浦之枕雲亭.

신흠(申欽), <상촌집(象村集)>, 상촌선생집 제57권 임진년부터 경자년 사이에 우리 나라를 다녀간 중국의 조사(詔使) 및 장신(將臣)의 성명>

정치/군사

경리와 제독이 배신과 차관을 수원(水原)으로 보내 적의 형세를 살펴볼 것을 청했다는 내용.

(…) 경리와 제독이 상에게 강 위로 나와 살펴보기를 청하니, 상이 그 말에 따라 동작진(銅雀津)을 건너와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형세를 자세히 살폈다. 그들이 마음 속의 계획이 있다고 하면서 배신 한 사람을 차관(差官)과 함께 수원(水原)으로 보내 적의 형세를 살살이 알아보고 오게 했으면 좋겠다고 청하니, 상이 체찰사의 종사관 한준겸(韓浚謙)에게 명하여 가도록 하였다. 이때 인심이 두려움에 휩싸여 성 안에 사서인(士庶人)들이 하나도 없이 텅 비었고 백관들도 모두 짐을 싸들고 피난가려던 참이었는데 직산(稷山)에서 승리했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경성이 조금 안정되었다. (…)

(…) 經理提督請上出視江上.上從之.渡銅雀津.登高阜.審察形勢.請有心計.陪臣一員同差官往水原.探諷賊勢.上命體察使從事官韓浚謙往.是時人心洶懼.城中士庶一空.百官皆荷擔以立.稷山捷

音至.京城乃稍定.(…)

신흠(申欽), <상촌집(象村集), 제56권 지(志), 天朝先後出兵來援志>

정치/군사

신흠이 지은 권율의 신도비문으로 권율이 수원의 독성을 근거지로 삼아 방어하였다는 내용.
(…) 전라도 관찰사 이광(李洸)이 충청도 관찰사 윤국형(尹國馨), 경상도 관찰사 김수(金睟)와 함께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진위(振威)에 당도하여 장수들에게 계책을 묻자, 공이 말하기를 “주공(主公)께서 온 지방의 군사들을 다 끌어 거느리고 왔으니 나라의 존망이 이 한 번의 거사에 달렸습니다. 이제 마땅히 대군을 거느리고 곧장 수원(水原)으로 가 통진(通津)을 거쳐서 조강(祖江)을 건너 임진(臨津)을 차단하고 행재소에서 왕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 세력을 얻어 큰 공을 꾀할 수있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광은 그 말을 따르지 않아 적의 꼴을 보기도 전에 무너지고 말았다. (…)

전주(全州)에서 대대적으로 군사를 모아 1만 명을 거느리고 서쪽으로 올라갈 계책을 세우고서 수원(水原) 독성(禿城)을 점거, 근거지로 삼아 경성의 적을 위협하고 곧장 서로(西路)를 노리자 수가(秀嘉)는 빈틈을 찢릴까 두려워하고 행장(行長)은 후방을 공격받을까 염려하였으니, 마치 제방이 물을 막는 것처럼 앉아서 관서의 인심을 결집시켰다. (…)

(…) 全羅道觀察使李洸與忠清道觀察使尹國馨, 慶尙道觀察使金睟.領兵十萬到振威.洸問策於將佐.公曰.主公掃境內以來.國之存亡.在此一舉.今宜獎率大軍.直指水原.由通津涉祖江.遮遏臨津.稟命行在.則我得其勢.可以圖大.洸不從.未見賊而潰.(…) 大選全州.自領精兵一萬.爲西上計.據水原禿城爲固.危動京師.直搖西路.秀嘉懼乘其虛.行長慮議其後.若防制水.坐牢關西心.(…)

신흠(申欽), <상촌집(象村集), 제28권 신도비명(神道碑銘), 都元帥權公神道碑銘>

정치/군사

이괄의 난 때 인조가 수원에 도착하자 장유와 함께 군사적 계책을 제안했다는 내용.

(…) 공은 하는 수 없이 곧 고양(高陽) 길을 따라 달려서 상을 과천(果川)에서 만나 뵈고 박효립·한교의 죄상을 아뢰었다. 수원(水原)에 도착하여 적이 서울에 침입하였음을 들었다. 공은 계곡(谿谷) 장유(張維)와 함께 상에게 아뢰기를, “먼저 삼전(三殿)부터 지름길로 대진(大津)을 건너 홍주(洪州)에 머무시게 하고, 대가(大駕)는 여러 장병과 함께 독성산성(禿城山城)을 지키면, 적병이 비록 쳐들어와도 반드시 저절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고 용인(龍仁)에서 진위(振威)로 행차하는데, 상하의 인심이 흉흉하여 흠어질 궁리만 하였다. (…)

(…) 公無奈何.卽取高陽路.追及上於果川.陳朴孝立, 韓嶠罪狀.到水原.聞賊入都.公與谿谷張公.請先送三殿.徑渡大津住洪州.大駕與諸將士入守禿城山城.賊兵雖至.必自却矣.上不從.由龍仁路次振威.上下洶洶思散.(…)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제204권 시장(諡狀), 澤堂李公諡狀>

정치/군사

김만기(金萬基)가 수원을 경기 지방의 요해처로 여기고 조사석을 수원부사로 삼았다는 내용.

(…) 공이 수원(水原)을 경기(京畿) 지방의 보익(輔翼)인 요해처로 여겨, 으뜸으로 조공사석(趙公師錫)을 불러서 부사(府使)로 삼자, 윤희가 그를 꺼려서 다른 직책으로 옮겨 임명하려 하므로 공이 그 불편한 점을 말하니, 상이 공의 말을 따랐다. (…)

(…)公以水原爲畿輔重鎮.首辟趙公師錫爲府使.鑄忌之移授他職.公言其不便.上從公言.(…)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제158권 신도비명(神道碑銘), 光城府院君金公神道碑銘>

정치/군사

조계원(趙啓遠)이 수원 부사로서 군액을 단속하고 훈련을 잘 시켰다는 내용.

(…) 임오년(1642) 가을에 조정으로 돌아오고 계미년(1643) 봄에 군기시 정에 제수되었으며, 여름에 천거로 의정부 검상(議政府檢詳)에 제수되고, 얼마 후 사인(舍人)으로 승진하였다. 겨울에 옥당으로 옮겼으며 얼마 후 수원 부사(水原府使)에 발탁되고 방어사(防禦使)를 겸하니, 수원부는 바로 기보(畿輔)의 중요한 진이었다. 군액(軍額)이 예전에는 3000명이었는데 병자년의 난리에 죽고 도망한 자가 반을 넘었으며 병기 또한 부족한 것이 많았다. 공은 경내의 장정들을 찾아내어 예전의 군액을 채우고 또 2000명을 늘린 다음 군대를 단속하여 무예를 훈련시켜서 모두 정예롭게 만들었으며, 갑옷과 방패, 깃발, 북, 활, 검, 화포 등에 이르기까지 구비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리하여 부(府)의 군용(軍容)이 훈국(訓局)과 서로 비슷할 정도였다. 총융사(摠戎使)가 부에 이르러 열무(閱武)하고는 장계하여 표창해서 말을 하사하는 은전이 있었다. (…)

(…) 壬午秋還朝.癸未春拜軍器寺正.夏薦拜議政府檢詳.尋陞舍人.冬遷玉堂.俄擢水原府使兼防禦使.府乃畿輔重鎮.軍額舊有三千.丙子之亂.故逋過半.器械亦多缺.公括境內丁壯準舊額.又增二千.束隊鍊藝.悉成精銳.以至甲盾旗鼓弓劍火砲之屬.無不備焉.府之軍容.與訓局相將.摠戎使到府閱武.啓聞褒獎.有賜馬之典.

남구만(南九萬), <약천집(藥泉集)>, 제22권 행장(行狀), 刑曹判書趙公行狀 癸亥>

정치/군사

성혼이 정철에게 보낸 편지로, 전라감사가 병력을 인솔하고 수원에 이르렀다는 내용.

(…) 전라 감사의 장계에 “체찰사가 신에게 명하여 ‘호남의 왜적을 막고 근왕은 다른 장수에게 명하여 올려 보내라.’ 하였으나 신이 마침내 병력을 인솔하고 수원(水原)에 이르니, 군사들이 체찰사의 말에 술깃하여 도망간 자가 천여 명이나 됩니다.” 하였습니다. 이에 상이 진노하시어 비변사에 내려 조치하게 하시니, 비변사에서 회계(回啓)하기를 “정철(鄭澈)이 국가의 큰 계책을 생각하지 아니하여 심히 무리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였습니다. (…)

(…) 今■監司書狀言.體察使命臣防湖南之盜.勤王則命將上去.而臣乃自將.至于水原.軍情以體察之言爲喜.軍士逃去者千餘云云.上震怒.下備邊司.回啓曰.鄭澈不念國家大計.甚爲無謂云云. (…)

성혼(成渾), <우계집(牛溪集)>, 속집 제3권 간독(簡牘), 與鄭季涵 澈>

정치/군사

임진왜란 때 변언시(邊彦時)이 수원(水原)에 주둔하며 기호(畿湖)의 적을 막았다는 내용.

(…) 임진년(1592, 선조25)에 어천 찰방(魚川察訪)으로 있으면서 상소하여 시사(時事)를 극론하고, 어가(御駕)가 진주(進駐)하여 광복(匡復)을 도모할 것을 청하였으나 비답이 없었다. 예조 좌랑(禮曹佐郎), 봉상 첨정(奉常僉正)에 제수되었으며, 오래지 않아 외직으로 나가 전라도 소모사(全羅道召募使)가 되었다. 이때 공은 셋길로 가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정을 재촉하여 전라도에 이르기까지 겨우 한 달이 걸렸으며, 병졸을 모집하여 수천만 명을 모았

으며, 전마(戰馬)와 수레를 끌 소, 무기 등을 빠짐없이 준비해 놓았다. 그리고 진군하여 수원(水原)에 주둔, 기호(畿湖)의 적을 막았다. (…)

(…) 壬辰.以魚川察訪上疏.極論時事.請車駕進住.以圖匡復.不報.拜禮曹佐郎, 奉常僉正.俄出爲全羅道召募使.間道兼行.至道僅閱月.收兵得數千萬人.戰馬車牛軍械悉備.乃進屯水原.以抗畿湖之賊.(…)

이정구(李廷龜), <월사집(月沙集), 제46권 묘갈명 상(墓碣銘上), 宗簿寺正邊公墓碣銘>

정치/군사

1638년(인조 16) 김육이 지은 것으로 수원(水原)에서 군량이 다 떨어졌다는 내용.

병자년(1636, 인조 14)의 난리에 본도 근왕병(勤王兵)들의 군량이 수원(水原)에서 다 떨어져, 수원부의 쌀 370석, 콩 77석, 벼 2석을 꾸어서 썼습니다. 이에 대해 전 감사 정태화(鄭太和)가 장계를 올려 감해 주기를 요청하자, 해조로 하여금 의논해서 조치하게 하라는 전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조에서 복계(覆啓)하여 끝내 감해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

丙子之變.本道勤王之兵糧.絕於水原.貸用本府米三百七十石零.太七十七石零.租二石.前監司鄭太和狀啓請減.有令該曹議處之教.而該曹覆啓.終不許減.(…)

김육(金堉), <잠곡유고(潛谷遺稿), 제8권 서장(書狀), 勤王兵所食水原穀勿償狀【戊寅忠淸監司時】>

정치/군사

병자호란 때 이시직(李時稷)이 수원(水原)에서 양호(兩湖) 지방에 격문(檄文)을 돌려 의병을 일으켰다는 내용.

(…) 이에 방황하면서 통곡하다가 드디어 수원(水原)을 향해 가 한두 명의 동지와 더불어 양호(兩湖) 지방에 격문(檄文)을 돌려 의병을 일으켰다. 그런 다음 조익(趙翼) 등과 더불어 남양 부사(南陽府使) 윤계(尹槩)와 함세해 의병들을 끌어 모을 계획을 하었는데, 일이 성사되기도 전에 윤계가 적들에 의해 죽고 군사가 궤멸되었다. 이에 갈 바를 서로 의논하였는데, 공은 말하기를, “반드시 강도로 들어가야만 한다. 그곳이 내가 죽을 장소이다.” 하였다. (…)

(…) 彷徨痛哭.遂向水原.與一二同志.檄兩湖以鼓義士.仍會趙公翼等.合南陽守尹.謀聚義師.事未集.死賊軍潰.議所往.公曰.必欲以江都爲歸者.是吾死所也.(…)

김상헌(金尙憲), <청음집(淸陰集), 제31권 묘갈명(墓碣銘), 司憲府掌令李公墓碣銘>

정치/군사

1637년(인조 14) 수원 장관(水原將官) 등이 예결하여 척화신을 내줄 것을 청했다는 내용.

인조(仁祖) 14년(1637) 【승정 10년, 청 나라 황제 홍타시(弘它時) 승덕 2년】

(…) ○ 죽산 장관(竹山將官)·수원 장관(水原將官) 및 훈련초관(訓練哨官)이 예결(詣闕)하여 척화신을 내줄 것을 청했다. (…)

丙丁表 凡六十日 (…) 二十三日 (…) ○竹山水原將官及訓練哨官.詣闕.請出給斥和臣.

이덕무(李德懋), <청장관전서(淸莊館全書), 제63권 병정표(丙丁表)>

정치/군사

1644년(인조 22) 8월 경기의 총융사, 수원부사, 남한산성의 수어청, 강화도, 수군 등의 병권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상소.

(…) 국가의 법제(法制)를 보면, 병조(兵曹)가 병무 행정을 전담하고, 총부(摠府)가 숙위(宿衛)를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감군(都監軍), 호위군관(扈衛軍官), 어영군(御營軍), 국출신(局出身) 등 4개의 군영이 따로 있는데, 총부에 소속되지 않은 채 각자 독자적인 호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방기(邦畿) 1백 리 안에 이미 총융사(摠戎使)가 있는 터에, 또 수원 방어(水原防禦)와 남한 수어(南漢守禦)와 강도 유관(江都留管)과 수군 통어(水軍統禦)가 각자 병권(兵權)을 행사하기 때문에 지휘가 일원화(一元化)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남한산성의 경우는 상사(上司)라고 불리면서 그 세력이 경도(京都)와 맞먹을 정도입니다. (…)

(…) 國家法制.兵曹專兵政.摠府專宿衛而已.今也.都監軍, 扈衛軍官, 御營軍, 局出身凡四營.不屬摠府.各專號令.邦畿百里之內.既有摠戎使.又有水原防禦, 南漢守禦, 江都留管, 水軍統禦.各操兵柄.不相統屬.而南漢則號爲上司.勢埒京都.(…)

이식(李植), <택당집(澤堂集), 별집 제3권 소(疏) 하, 甲申八月陳時務疏>

정치/군사

임진왜란 때 이광(李洸)이 수원(水原)에 주둔하면서 군대의 위용(威容)이 훌륭하였다는 내용.

(…) 이에 공이 열읍(列邑)을 지휘하여 요해지(要害地)를 나누어 지키게 하고, 흩어진 군사들을 불러모은 뒤에 먼저 도망친 자들을 붙잡아서 목을 베고는, 유시(諭示)를 내려 타이르며 명령을 따르게 하자, 군사들이 자못 왜적과 상대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5월에 공이 병사(兵使) 곽영(郭嶸)과 함께 군대를 총동원하여 북정(北征)을 개시하였는데, 이때 충청 감사 윤선각(尹先覺)과 경상 감사 김수(金睟)가 함께 연합 작전을 벌였으므로 도합 6, 7만의 군세(軍勢)를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십만 대군을 일컬으면서 진격하여 수원(水原)에 주둔하니, 군대의 위용(威容)이 매우 훌륭하였다. (…)

(…) 公指揮列邑.分守要害.招集散兵.捕斬先逃者.告諭勉率.頗有向敵之心.五月.公與兵使郭嶸.悉衆北征.與忠清監司尹先覺慶尙監司金睟合兵.凡六七萬.號十萬.進駐水原.軍容甚壯.(…)

이식(李植), <택당집(澤堂集), 별집 제8권 행장(行狀) 상, 全羅道都巡察使李公行狀>

정치/군사

이괄의 난 때 이흥립(李興立)이 수원 방어사로서 임진강 상류를 지키고 있었다는 내용.

수찬(修撰)으로 복귀한 뒤에 이괄(李适)의 변란을 만나 종군(從軍)하여 어가(御駕)를 호종(扈從)하다. (…)

내가 먼저 파주(坡州)에 도착하였는데, 이때가 2월 6일 저녁이었다. 당시에 파주 목사(坡州牧使) 박효립(朴孝立)이 임진(臨津)의 하류를 지키고 있었고, 수원 방어사(水原防禦使) 이흥립(李興立)이 상류를 지키고 있었다. 이에 내가 즉시 박효립에게 첩문(牒文)을 보내 말하기를, “덕진산성(德津山城)이 강 북쪽에 있어서 지키지 못하고 방치할 수밖에 없다면, 그 성 안에 있는 군기(軍器)와 군량(軍糧) 모두를 즉시 진중(陣中)으로 수송해 와야 할 것이다. 또 파주 산성(坡州山城)의 화기(火器)도 모조리 진영을 차린 곳으로 수송토록 하여 전투 태세를 엄하게 갖춘 뒤에 적을 제압할 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하였는데, (…)

(…) 復修撰遭适變從軍扈駕

(…) 余先至坡州.二月六日夕也.時坡州牧使朴孝立.守臨津下灘.水原防禦使李興立.守上灘.余即牒孝立云德津山城在江北.棄而不守.其城所有軍器軍糧.即皆輸來陣中.又坡州山城火器.盡爲輸下陣所.嚴設戰備.爲把扼計.(…)

이식(李植), <택당집(澤堂集), 별집 제17권 잡저(雜著), 敍後雜錄>

정치/군사

1636년(인조 14) 8월 이식이 수원의 군사 문제에 대해 대책을 제시하는 내용.

(…) 삼가 듣건대, 수원(水原) 1부(府)의 경우는 가호(家戶)마다 군대의 항오(行伍)에 편입시켰으므로, 민간에서도 병(兵)이 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의 군병 가운데 아직도 도망치는 자가 나오는 것은,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병(兵)에 편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 竊聞水原一府逐戶編伍.閭里間以不爲兵爲恥.然而水原軍兵.尙有逃亡者.以非盡一國爲兵故也.(…)

이식(李植), <택당집(澤堂集), 제8권 소(疏), 丙子秋辭召命陳時務疏>

정치/군사

병자호란 때 충청감영의 군병이 투입되면서 독성에 수용할 수 없으니 수원(水原)과 남양(南陽) 사이에 형세가 좋은 지역을 얻어 진(陣)을 치려고 하였다는 내용.

(…) 이날 심지원(沈之源)과 이시적(李時稷)도 와서 참석하였다. 그리고 전(前) 영장(營將) 신경빈(申景濱)이 상당히 군병의 마음을 얻었는데 병으로 체임(遞任)되어 그 지역에 있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즉시 불러와서 물어보고는 중군(中軍)에 차임하고 영장을 겸하게 하였다. 또 무사를 독성으로 급히 보내 군량과 기계(器械)를 장부로 작성해서 가져오게 하였더니, 군량은 미곡과 콩이 각각 1000여 석(石)이었고 군기(軍器)도 매우 많았으며 높고 쇠잔하기는 하지만 성을 지키는 군사도 300여 명쯤 된다고 하였다. 이에 신경빈을 보내 안영(安營)의 둔병(屯兵)을 인솔해 오게 해서 그 군병을 독성으로 들여보내려고 하였는데, 그때 마침 독성의 장수가 치보(馳報)하기를 “충청 감영의 군병 7000명이 어제 저녁에 들어왔는데 성이 협소해서 모두 수용하지 못하였고 미처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성 밖에 있다.” 라고 하였다. 그 군병이 이미 먼저 들어온 이상에는 다시 나오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기에, 수원(水原)과 남양(南陽) 사이에 형세가 좋은 지역을 얻어 진(陣)을 치려고 하면서, 신경빈으로 하여금 군병을 인솔하고 와서 구포(鷗浦)의 다리 근처에 주둔시킨 뒤에 보고하게 하였다. (…)

(…) 是日.沈之源, 李時稷亦來會.聞前營將申景濱頗得軍情.以病遞任在其地.即招問.仍差中軍兼營將.走送武士于禿城.令成冊糧械而來.軍糧入太各千餘石.軍器亦甚多.老殘守城軍三百餘名云矣.欲使申景濱往領安營屯兵而來.以其兵入禿城.適禿城將馳報云.忠清監營軍兵七千.昨暮入來.城小不能盡容.未及入者在城外.念彼兵既先入.不可令出.欲於水原, 南陽之間.得形便之地結陣.令申景濱領其兵來.屯於鷗浦橋近處以報.(…)

조익(趙翼), <포저집(浦渚集), 제25권 잡저(雜著), 丙丁記事>

정치/군사

1592년 권율이 독산성에 있을 때 조경(趙敬)이 구원하여 왜적이 후퇴하게 된 공로로 수원부사가 되었다는 내용.

(…) 공이 부상당한 상처가 심해서 말을 타고 전투를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호남(湖南)의 구

례현(求禮縣)으로 가서 조섭(調攝)하였다. 그러다가 상처가 모두 아물기도 전에 병든 몸을 이끌고 국가를 위해서 다시 전장으로 달려 나갔다. 6월에 연천(漣川)에 이르렀을 때 대부인(大夫人 【모친】)을 만나 열흘 정도 머물렀다. 이때 경기 순찰사(京畿巡察使) 권징(權徵)이 계청하여 공을 대장으로 삼았다. 가을에 대부인이 별세하였는데, 순찰사가 기복(起復)을 청해서 공이 다시 대장이 되었다. 그해 겨울에 왕세자가 이천(伊川)에 머물면서 공을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삼았다. 당시에 전라 순찰사(全羅巡察使) 권율(權慄)이 독성(禿城)을 지키고 있었는데, 용인(龍仁)의 왜적이 공격해 왔다. 그러나 여러 의병과 관군은 모두 감히 접근하지 못하였는데, 공이 휘하의 수십 기병(騎兵)을 인솔하고 성원(聲援)하면서 왜적을 따라 진퇴(進退)하며 끝내 피하지 않자 왜적이 공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는 물러나 돌아갔다. 권공(權公)이 공의 의리에 감격한 나머지 상에게 아뢰기를 “신이 별도의 군대를 이끌고 왜적 사이에 출입할 적에 기내(畿內)의 장교(將校) 중에 한 사람도 응원하는 자가 없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기각지세(掎角之勢)를 이루며 성원한 사람은 오직 조경(趙敬)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공을 방어사(防禦使)로 삼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청하였다. 당초에 수원 부사인 김취려(金就礪)의 소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이 부사의 일을 행하고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서 김취려가 스스로 나왔으므로 공이 사양하고는 물러나 광주(廣州)의 농사(農舍)로 돌아온 뒤에 상제(喪制)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권공이 공을 중군장(中軍將)으로 임명하였으므로, 공이 의리상 감히 물러날 수 없어서 곧장 나아왔던 것이다. (...)

(...) 公傷創甚.不能事戎馬.往湖南求禮縣調攝.創未合.扶病勤王.六月.至漣川.遇大夫人留旬日.京畿巡察使權徵啓.以公爲大將.秋.大夫人下世.巡察請起復.公還爲大將.其冬.王世子次伊川.以公爲水原府使.是時全羅巡察使權慄守禿城.龍仁之賊來攻.諸義兵官軍皆不敢近.公以麾下數十騎爲其聲援.隨賊進退.終不避去.賊知不可攻.退歸.權公感公之義.啓以臣以偏師出入賊中.而畿內將校無一應援者.其終始掎角.唯趙敬一人而已.請以爲防禦使.與之同事.初.水原府使金就礪莫知所在.故公行府使事.至是自出.公讓焉.退歸廣州農舍守制.權公以公爲中軍將.公義不敢退.卽就焉.(...) 조익(趙翼), <포저집(浦渚集), 제31권 묘비명(墓碑銘), 豐壤君趙公神道碑銘>

정치/군사

1592년(선조 25) 4월 황진(黃進)이 수원(水原) 사교(沙橋)에서 군대를 매복하여 담력과 용기를 보여주었다는 내용.

(...) 임진년(1592, 선조 25) 4월에 왜적이 군대를 동원하여 침략해 왔는데, 변경의 성곽이 잇따라 함락되는 가운데 국중(國中)에서 왜적을 막으려 나간 대장들도 모두 무너져 패했다. 그리하여 열흘도 채 안 되는 사이에 경성(京城)까지 육박했으므로 대가가 서쪽으로 몽진(蒙塵)하기에 이르렀고 흉악한 왜적의 칼날이 나라 전역에 번득이게 되었다. 전라 감사 이광(李洸)과 병사(兵使) 최원(崔遠), 그리고 경상 감사 김수(金睟)가 수만 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근왕(勤王)하였는데, 용인(龍仁)에 이르러 왜적을 만나자 접전을 해 보지도 못한 채 제군(諸軍)이 모두 무너지면서 기계(器械)와 전마(戰馬)와 치중(輜重)을 모두 버리고 달아났다. 이때 공은 주장(主將)의 명에 따라 수원(水原) 사교(沙橋)에 군대를 매복시키고는, 대군이 이미 흩어져 달아난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사졸을 격려하며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적병이 뒤쫓아 오는 것을 보고서야 대장이 이미 퇴각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는 군대를 거두어 후퇴하였는데, 화살촉 하나 남겨 두지 않고 말 한 필도 잃지 않았음은 물론, 제장(諸將)이 버리고 간 병기까지 모두 수습해서 돌아왔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공의 담력과 용기에 탄복하

였다. (…)

겨울에 경성에 있는 왜적을 토벌하기 위해 감사 권율(權慄)이 군대를 거느리고 행주(幸州)로 갈 적에 병사(兵使) 선거이(宣居怡)가 수원(水原)의 독성(禿城)으로 들어갔는데, 공도 군대를 이끌고 그를 따라가서는 매일 앞으로 나아가 경성에 있는 왜적의 동태를 탐지하였다. (…)

(…) 壬辰四月.倭舉兵來寇.邊城相繼陷沒.國中大將出禦者皆潰敗.未浹旬而至京城.大駕西幸.凶鋒遍及諸道.全羅監司李洸, 兵使崔遠, 慶尙監司金晬.領兵數萬勤王.至龍仁與賊遇.兵未接刃.諸軍皆奔潰.器械戰馬輜重.皆棄之.公以主將命.伏兵於水原沙橋.不知大軍已散.勵士卒以待.及見賊兵來追.始覺大將已退.斂兵爲殿.不遺一鏃.不失一馬.又拾諸將所棄兵器而歸.人皆服其膽勇.(…) 冬.以討京城賊.監司權慄領兵詣幸州.兵使宣居怡入水原禿城.公亦帥師從之.連日進探京城賊.一日.至沙平遇賊與戰.諸將皆退還.(…)

조익(趙翼), <포저집(浦渚集), 제35권 행장(行狀), 忠淸道兵馬節度使黃公行狀>

정치/군사

김성일이 광재우의 무죄를 밝히는 계문으로 삼도(三道)의 군대가 수원(水原)에서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보인 태도에 대한 변호 및 전 수원부사 윤기가 유생의 신분으로 달아난 전라감사 김주를 죽이려했다는 일화를 소개한 내용.

임진년 6월 17일에 초유사 김성일이, 광재우가 충렬한 인물인데도 모함을 당하는 것을 원통하게 여겨, 그의 무죄를 밝히고자 치계하기를, “(…) 그런데 갑자기 삼도(三道)의 군대가 수원(水原)에서 무너졌다는 말을 듣고는 미친 사람과도 같이 위태로운 말과 망녕된 말을 수없이 지껄여대었습니다. 이에 순찰사(巡察使)가 비록 편지를 보내어서 공적을 표창하고 계문하여 공을 아뢰었으나, 역시 뜻을 돌리지 않았습시다. 사람들이 혹 화를 당할지도 모른다고 경계하면 반드시 칼을 움켜잡고 성을 내었습니다. (…) 신이 듣건대, 을묘년의 왜변(倭變)이 일어났을 때 전라 감사 김주(金澍)가 영암(靈巖)에서 다른 고을로 달아났습시다. 그러자 전 수원 부사(水原府使) 윤기(尹箕)가 당시에 유생으로서 포위된 성 안에 있다가 칼을 뽑아 베어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김주는 성도 내지 않고 웃으면서 이야기하여 잘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논자(論者)들이 지금까지도 윤기의 용기에 대해 칭송하고, 김주가 능히 포용한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있습니다. (…)”

김성일(金誠一), <학봉전집(鶴峯全集), 학봉일고 부록 제3권 학봉김문충공사료초존(鶴峯金文忠公史料鈔存) 하, 《난중잡록》 [산서(山西) 조경남(趙慶男)]>

정치/군사

김성일이 광재우의 무죄를 밝히는 계문으로 삼도(三道)의 군대가 수원(水原)에서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보인 태도에 대한 변호 및 전 수원부사 윤기가 유생의 신분으로 달아난 전라감사 김주를 죽이려했다는 일화를 소개한 내용.

(…) 그런데 갑자기 삼도(三道)의 장수가 수원(水原)에서 무너졌다는 말을 듣고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위태로운 말과 망녕된 말을 수없이 지껄여대었습니다. 순찰사가 비록 편지를 보내어서 공적을 표창하고 계문하여 공을 아뢰었으나, 역시 뜻을 돌리지 않았습시다. 사람들이 혹 화를 당할지도 모른다고 경계하면 반드시 칼을 움켜잡고 성을 냈습니다. (…)

신이 듣건대, 을묘년(1555, 명종 10)의 왜변(倭變)이 일어났을 때 전라 감사 김주(金澍)가 영암(靈巖)에서 다른 고을로 달아났습시다. 그러자 전 수원 부사(水原府使) 윤기(尹箕)가 당

시에 유생(儒生)으로서 포위된 성 안에 있다가 칼을 뽑아 들고 베어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김주는 성조차 내지 않고 웃으면서 이야기하여 잘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논자(論者)들이 지금까지도 윤기의 용기에 대해 칭송하고,¹⁷⁵⁾ 김주가 능히 포용한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있습니다. (…)

김성일(金誠一), <학봉전집(鶴峯全集), 학봉일고 부록 제2권 문수지(文殊誌), 학봉 선생(鶴峯先生)의 용사사적(龍蛇事蹟)>

정치/군사

김성일이 광재우의 무죄를 밝히는 계문으로 삼도(三道)의 군대가 수원(水原)에서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보인 태도에 대한 변호 및 전 수원부사 윤기가 유생의 신분으로 달아난 전라감사 김주를 죽이려했다는 일화를 소개한 내용.

(…) 그런데 갑자기 삼도(三道)의 장수[帥]가 수원(水原)에서 무너졌다는 말을 듣고는 미친 사람같이 위태로운 말과 망녕된 말을 수없이 지껄여 대었습니다. 순찰사가 비록 편지를 보내어서 공적을 표창하고 계문하여 공을 아뢰었으나, 역시 뜻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혹 화를 당할지도 모른다고 경계하면 반드시 칼을 움켜잡고 성을 내었습니다. (…)

신이 듣건대, 을묘년의 왜변(倭變)¹⁷⁶⁾이 일어났을 때 전라 감사 김주(金澍)가 영암(靈巖)에서 다른 고을로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전 수원 부사(水原府使) 윤기(尹祁)가 당시에 유생으로서 포위된 성 안에 있다가 칼을 빼서 베어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김주는 성조차 내지 않고 웃으면서 이야기하여 잘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논자(論者)들이 지금까지도 윤기의 용기에 대해 칭송하고, 김주가 능히 포용한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있습니다. (…)

(…) 忽聞三道之帥 狀啓.師. 潰於水原.有似發狂之人.危言妄語.無數發說.巡察使雖貽書褒美. 啓聞上功.亦不回意.人或以取禍戒之.則必按劍而怒.(…)

臣聞乙卯倭變時.全羅監司金澍.自靈巖出走他邑.前府使尹祁.時以儒生.在圍城中.欲拔劍斬之.澍不爲怒.談笑處之.論者至今稱祁之勇.而多澍之能容.(…)

김성일(金誠一), <학봉전집(鶴峯全集), 학봉일고 부록 제2권, 行狀>

정치/군사

김성일이 광재우의 무죄를 밝히는 계문으로 삼도(三道)의 군대가 수원(水原)에서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보인 태도에 대한 변호 및 전 수원부사 윤기가 유생의 신분으로 달아난 전라감사 김주를 죽이려했다는 일화를 소개한 내용.

(…) 그런데 갑자기 삼도(三道)의 군사가 수원(水原)에서 무너졌다는 말을 듣고는 미친 사람같이 위태로운 말과 망녕된 말을 수없이 지껄여 댔습니다. 순찰사(巡察使)가 비록 편지를 보내어서 공적을 표창하고 계문하여 공(功)을 아뢰었으나, 역시 그의 뜻을 돌리지는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혹 화를 당할지도 모른다고 경계하면 반드시 칼을 움켜잡고 성을 냈습니다. (…)

신이 듣건대, 을묘년의 왜변(倭變)이 일어났을 때 전라 감사(全羅監使) 김주(金澍)가 영암

175) 윤기의 …… 칭송하고 : 원문에는 ‘칭기용(稱其勇)’으로 되어 있는데, 두주에, “기(其)는 아마도 기(箕)일 것이다.” 하였다.

176) 을묘년의 왜변(倭變) : 명종 10년(1555) 5월에 왜구가 전라도에 침입한 변란을 말한다. 이해에 왜구들이 배 60척을 이끌고 전라도에 침입하여 먼저 영암(靈巖), 달량(達梁)을 점령하고 어란포(於蘭浦), 강진(康津), 진도(珍島) 등을 잇따라 점령하여 갇은 만행을 다 부렸는데, 조정에서는 이윤경(李潤慶), 김경석(金慶錫), 남치훈(南致勳) 등을 파견하여 영암에서 이들을 크게 격파하여 물리쳤다.

(靈巖)에서 다른 고을로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전 수원 부사(水原府使) 윤기(尹祁)가 당시에 유생으로서 포위된 성 안에 있다가 칼을 빼 가지고 베어 죽이려 하였는데, 김주는 성내지 않고 웃으면서 이야기하여 잘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논자(論者)들이 지금까지도 윤기의 용기를 칭송하고, 김주가 능히 포용한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있습니다. (…)

김성일(金誠一), <학봉전집(鶴峯全集)>, 제3권 장(狀), 곽재우(郭再祐)를 친구(伸救)하는 서장(書狀) 【임진년(1592, 선조 25)】 >

정치/군사

김성일이 곽재우의 무죄를 밝히는 계문으로 삼도(三道)의 군대가 수원(水原)에서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보인 태도에 대한 변호 및 전 수원부사 윤기가 유생의 신분으로 달아난 전라감사 김주를 죽이려했다는 일화를 소개한 내용.

(…) 그런데 갑자기 삼도(三道)의 장수가 수원(水原)에서 무너졌다는 말을 듣고는 미친 사람처럼 격한 말과 망녕된 말을 수없이 해댔습니다. 순찰사가 비록 편지를 보내 찬양하고 조정에 으뜸 공을 세웠다고 계문하였으나, 역시 뜻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혹 화를 당할지도 모른다고 경계하면 반드시 칼을 잡으며 노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갑자기 두 차례나 순찰사의 영문(營門)에 격문을 보내 날날이 그 죄를 열거하고는 토벌하겠다고 공언하고 아울러 각 고을의 의병장에게 통문을 돌려 토죄(討罪)하겠다는 뜻을 말하였습니다. 신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란 나머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차에 순찰사가 신에게 공문을 보내 의령 고을에 명하여 곽재우를 잡아 가두라고 하였습니다. (…)

신은 삼가 사태를 일단 미봉하고 진정시키기는 하였습니다만, 곽재우가 도순찰사(都巡察使)에게 죄를 지어 그의 용납을 받지 못해 또 다른 변고가 야기되지나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신은 듣건대, 을묘년의 왜변(倭變)이 일어났을 당시 전라 감사 김주(金澍)가 영암(靈巖)에서 다른 고을로 달아났는데, 전 수원 부사(水原府使) 윤기(尹祁)가 그때 유생으로서 포위된 성 안에 있다가 칼을 빼들어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김주는 화를 내지 않고 담소로 대처하였다고 하여, 논자(論者)들이 지금까지도 윤기의 용기에 대해 칭송함과 동시에 김주가 능히 포용한 것을 훌륭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

(…) 忽聞三道之帥.潰於水原.有似發狂之人.危言妄語.無數發說.巡察使雖貽書褒美.啓聞上功.亦不回意.人或以取禍戒之.則必按劍而怒.今忽再度移檄于巡察營門.歷數其罪.聲言欲討.且通文各邑義兵.將諭以討罪之意.臣聞之驚愕.不覺失席.巡察移關於臣.令宜寧官捉囚再祐.臣竊念再祐實有逆心.則方握精兵.非一力士之所捕.若無逆心.則一書足以開悟.即移晷再祐.(…)

臣謹以彌縫鎮定.而得罪於都巡察使.恐難相容.惹起他變.臣聞乙卯倭變時.全羅監司金澍自靈巖出走他邑.前府使尹祁.時以儒生.在圍城中.欲拔劍斬之.澍不爲怒.談笑處之.論者至今稱祁之勇.而多澍之能容.(…)

정구(鄭逑), <한강집(寒岡集)>, 속집 제6권, 有明朝鮮國嘉善大夫慶尙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贈嘉義大夫吏曹參判兼同知經筵義楚府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提學藝文館提學世子左副賓客金公行狀>

정치/군사

정조의 수어청과 충유청을 혁파의 타당성을 문의하는 하교

(…) 두 영을 합치자는 의논과 경영에 소속시키자는 논의는 예로부터 명석한 인물들이 일찍이 분명하게 말했던 바이다. 고(故) 대제학 이식(李植)이 의논하기를, “나라의 기보 100리

안에 이미 충융청이 있고 또 수원 방어(水原防禦), 남한 수어(南漢守禦), 강도 유영(江都留營)이 있습니다. (…)

(…) 而合營之議.京營之論.古來名碩所嘗明言者.故大提學李植之議曰.邦畿百里之內.既有總戎.又有水原防禦.南漢守禦.江都留營.(…)

<홍재전서(弘齋全書), 제30권 교(敎) 1, 守摠兩營革罷當否問議敎>

정치/군사

수원(水原)의 독성산성(禿城山城)을 수리할 때 토지신에게 고유한 글.

산이 꼭 큰 것도 아니요 / 嶽不必鉅

담이 꼭 높은 것도 아니건만 / 壙不必崇

진산(鎭山)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 / 爲鎭爲翰

신령이 그 가운데에 있다네 / 靈在其中

산을 빙 두른 백 치¹⁷⁷의 성 / 環山百雉

위로 전쟁의 징조에 응하니 / 上應櫓槍

임진왜란 중의 기이한 공적 가운데 / 龍蛇奇績

독성만 한 것이 어디 있었으랴 / 孰如禿城

더구나 이 성이 에워싸고 보호하는 것으로 / 矧茲拱護

주구가 매우 가까이에 있으니 / 密邇珠丘

옛적엔 초 나라의 방성(方城)¹⁷⁸이었고 / 昔方於楚

지금은 주 나라의 풍읍(豐邑)¹⁷⁹이라네 / 今豐于周

때때로 나오는 것이 / 而時出之

아름다운 기운과 상서로운 구름이니 / 佳氣祥雲

제후가 춘추로 천자의 조정에 조회 가는 듯 / 如朝如覲

인운¹⁸⁰의 기운이 성대하네 / 肸鬘氤氲

영차영차 성을 쌓기를 / 築之登登

중당¹⁸¹에서 시작하여 / 始于中唐

양쪽 모서리의 나무 기둥을 세우니 / 峙乃楨榦

저 금탕¹⁸²이 높이 치솟네 / 屹彼金湯

비로소 성대한 전례를 거행함에 / 肇稱脩典

양 한 마리 돼지 한 마리를 쓰니 / 羊一豕一

아, 천만년이 지나도록 / 於千萬年

길이 복을 내리기 바라네 / 永垂冥鷺

嶽不必鉅.壙不必崇.爲鎭爲翰.靈在其中.環山百雉.上應櫓槍.龍蛇奇績.孰如禿城.矧茲拱護.密邇珠丘.昔方於楚.今豐于周.而時出之.佳氣祥雲.如朝如覲.肸鬘氤氲.築之登登.始于中唐.峙乃楨

177) 백 치(百雉) : 도성(都城)의 높이와 길이의 규모를 말한 것으로 치(雉)는 담의 높이를 재는 단위.

178) 방성(方城) : 춘추 시대 초 나라가 성으로 삼았던 산이다. 《春秋左氏傳 僖公4年》

179) 풍읍(豐邑) : 주 나라 문왕이 기주(岐州)로부터 옮겨서 도읍한 곳이다.

180) 인운(氤氲) : 천지의 두 기운이 서로 화합하는 형상을 말한다.

181) 중당(中唐) : 대문으로부터 청당(廳堂)에 이르는 길을 말하는데, 《시경(詩經)》에 중당에 벽돌이 있음을 노래한 것이 있다. 《詩經 陳風 防有鵲巢》

182) 금탕(金湯) : 금성탕지(金城湯池)의 준말이다. 쇠붙이로 만든 성과 끓는 물이 흐르는 못이라는 말로, 험하고 견고한 성지(城池)를 뜻한다.

韓.屹彼金湯.肇稱脩典.羊一家一.於千萬年.永垂冥鷺.

<홍재전서(弘齋全書), 제22권 제문(祭文) 4, 水原禿城山城修改時告土神文>

정치/군사

홍봉한의 문집에서 군사 분야에 대한 서문으로, 이서(李曙)에게 남양, 수원, 장단 등의 군무를 관할하게 했다는 내용.

익정공주고군려류서(翼靖公奏藁軍旅類叙) 【경신년】 (…)

인조 때는 완풍군(完豐君) 이서(李曙)로 하여금 남양(南陽), 수원(水原), 장단(長湍) 세 진(鎭)의 군무를 절제하도록 명하고 이름을 충융청(摠戎廳)이라 하여 도체찰사(都體察使) 관하에 예속시켰다가 곧 체부(體府)는 혁파하고 충융사(摠戎使)라는 이름만 남겨 두었다. (…)
을사년에는 그 명칭을 장용위(壯勇衛)로 정함과 동시에 정원도 20인을 더 늘렸다. 그리고 척씨(戚氏)의 남군 제도(南軍制度)를 모방하여 5개 사(司)에 25개 초(哨)를 두었는데, 중사(中司) 5개 초는 서울에 있게 하고, 전사(前司) 5개 초는 수원(水原)에, 좌사(左司) 5개 초는 양성(陽城), 용인(龍仁), 광주(廣州)에, 우사(右司) 5개 초는 고양(高陽), 파주(坡州), 안산(安山), 과천(果川), 시흥(始興)에, 후사(後司) 5개 초는 지평(砥平), 양근(楊根), 가평(加平), 양주(楊州), 장단(長湍)에 각각 있게 했다. (…)

기유년에는 우리 현릉원(顯隆園)을 수원(水原)으로 모셨고, 계축년에는 수원의 부사(府使)를 유수(留守)로 승격시켰으며, 장용외영(壯勇外營)을 두고 장용 외사(壯勇外使)와 장용 병방(壯勇兵房)을 합쳐서 장용사(壯勇使)라 칭하고, 도제거(都提舉)를 두어 호위청(扈衛廳)까지 합쳐서 소속시켰다. (…)

(…) 仁廟朝.命完豐君李曙.節制南陽, 水原, 長湍三鎭軍務.號曰摠戎廳.隸都體察使體府.尋罷之.只存摠戎使之號.(…)

乙巳.稱壯勇衛.仍增二十人.倣戚氏南軍之制.置五司二十五哨.中司五哨.在京.前司五哨.在水原.左司五哨.在陽城, 龍仁, 廣州.右司五哨.在高陽, 坡州, 安山, 果川, 始興.後司五哨.在砥平, 楊根, 加平, 楊州, 長湍.(…)

己酉.奉我顯隆園於水原.癸丑.陞水原府使.爲留守.置壯勇外營.兼壯勇外使.壯勇兵房.稱壯勇使.設都提舉.合扈衛廳以屬之.(…)

<홍재전서(弘齋全書), 제13권 서인(序引) 6, 翼靖公奏藁軍旅類叙 【庚申】>

정치/군사

장용외영(壯勇外營) 군제(軍制)의 변통에 관한 윤음

그런데 그사이 군영(軍營)의 제도가 나와 오위의 제도가 폐지되었으니, 옛날과 지금이 서로 같지 않은 것이 하늘과 땅처럼 현격할 뿐만이 아닌데, 농부가 밭을 갈아도 먹을 수가 없고 아낙네가 길쌈을 해도 옷을 해 입을 수가 없게 된 지 이제 200년이나 되었다. 지금 장용영(壯勇營)을 서울에 설치하여 내영(內營)을 삼고 화성(華城)에 설치하여 외영(外營)을 삼는 것은 한편으로는 왕도(王都)를 보호하고 한편으로는 선침(仙寢)을 호위하려는 것인데, 장용과 친군(親軍)의 칭호는 오위 가운데 속위(屬衛)에서 비롯된 것으로, 곧 관북(關北)의 자제(子弟)들이 예속되었던 것이다. 미전(美錢)·동관(潼關)이 있는 이북의 땅이 우리 왕가의 풍패(豐沛)의 고향인데, 화성에 성곽을 쌓고 우리의 원묘(園廟)를 받들게 됨에 이를 풍산(豐山)과 패수(沛水)처럼 여기고 있었다. 이에 내영과 외영이 표리(表裏) 관계로 서로 돕도록 하였다. 먼저 장용영을 설치하고 그다음으로 친군을 세운 것은 대개 또한 선조(先朝)의 뜻을 계

승하고 옛 제도를 본받으려는 변변치 못한 내 뜻에서 나온 것이었다.

間者.軍營出而五衛罷.則古今之不相侔.不翅若星淵.而夫耕不食.婦織不裳.且二百年于茲矣.今壯勇之設於京師而爲內營.於華城而爲外營.一以拱王都.一以衛仙寢.而壯勇與親軍之號.昉於五衛中屬衛.卽關北子弟之所隸也.有美關以北土.爲我家豐沛之鄉.而因華爲城.奉我園廟.視之如豐山沛水.故內營外營.表裏相攝.而先置壯勇.次立親軍.蓋亦述先師古之微意也.

<홍재전서(弘齋全書), 제29권 윤음(綸音) 4, 壯勇外營軍制通變綸音>

정치/군사

1592년(선조 25) 11월 정주에서 올린 차자로, 광주, 과천, 수원 등을 하나의 장수에게 소속 시키자는 주장.

시무(時務)를 아뢰는 차자(劄子) 【임진년(1592, 선조25) 11월 정주(定州)에서】

(…) 신이 생각건대 서울을 수복하는 형세는 역시 3개의 진로로 나누는 것이 마땅하겠습니 다. 양주, 포천, 적성, 영평(永平), 가평 등 여러 고을의 군대를 고언백(高彦伯) 같은 한 장 수에게 소속시켜 동쪽을 차단하고, 교동(喬桐), 강화, 고양, 교하 등 여러 고을 군대도 하 나의 장수에게 소속시켜 서쪽을 차폐하며, 한강 이남의 광주, 과천, 수원 등 여러 고을의 군대도 하나의 장수에게 소속시켜 남쪽을 차단합니다. 3방면의 군대가 합세하여, 서로 호응 하여 적이 적으면 군대를 나눠 복병을 설치하고, 적이 많으면 군대를 합하여 공격 토벌합니 다. (…)

(…) 臣意亦當分爲三道.楊州, 抱川, 積城, 永平, 加平等邑之軍.則屬於一將.如高彦伯者.遮蔽東方.喬桐, 江華, 高陽, 交河等邑之軍.又屬於一將.遮蔽西方.漢江以南廣州, 果川, 水原等諸邑之軍.又屬於一將.遮蔽南面.三面合勢.迭爲犄角.賊少則分兵設伏.賊多則合兵攻勦.(…)

유성룡(柳成龍), <서애집(西厓集) 卷之五, 陳時務劄【壬辰十一月在定州】>

정치/군사

1595년(선조 28) 1월 둔보를 조치하는 일에 대한 차자로 수원과 광주는 한강 남쪽의 문호가 된다는 내용.

(…) 조종조(祖宗朝) 때에는 경기도에 4진관을 두었습니다. 수원과 광주의 두 진은 한강의 남쪽에서 그 문호가 되며, 양주는 서울의 왼편에서 동북을 가렸고, 장단은 위에서 전적으로 북쪽을 방비합니다. 강화와 교동 두 고을은 바다에 둘러 있기 때문에 예측된 곳이 없이 바 다를 방어하는 데에 전력을 기울이게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 배치한 규모를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

(…) 祖宗朝.京畿有四鎮管.而水原, 廣州二鎮.在漢江之南而爲其門戶.楊州在國都之左.以蔽東北.長湍在其後.專備北方.江華, 喬桐二邑.以在海中故.無所隸屬.而使之專力於防海.其布置規模.亦略可見矣.(…)

유성룡(柳成龍), <서애집(西厓集) 卷之五, 措置沿江屯堡劄【乙未正月】>

정치/군사

1597년(선조 30) 3월 수원의 독성(禿城) 등이 형세를 갖추었다는 보고 내용.

신이 어제 북명한 뒤에 아뢰 일 있었는데도 병이 심하고 기운이 떨어져 숙배만 드리고 물 러 나왔으니,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이번 걸음에 비록 여러 고을을 두루 살 펴보지 못하였으나 한강의 상류와 이남은 대강 돌아보니 군인과 백성이 비록 많이 잔폐(殘

弊)되었을망정 무너지고 흩어져 걱정할 지경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주의 파사성(婆娑城)과 수원의 독성(禿城)도 이미 모양을 이루었으며, 양성의 무한산성(無限山城)도 시방 수축하는 중입니다. (…)

臣日昨復命後.有啓達事.而疾甚氣之.只肅拜而退.不勝惶恐.臣今行雖不得遍審諸邑.而漢江上流及以南.則頗已巡歷.軍民雖甚殘弊.亦不至潰散可憂.驪州婆娑城,水原禿城.又已成形.陽城無限山城.時方修築.(…)

유성룡(柳成龍), <서애집(西厓集) 卷之五, 陳措置防守事宜兼辭職劄子【丁酉三月】>

정치/군사

한강 남쪽의 수원, 남양, 통진, 김포, 용인, 과천, 금천 등의 관군이나 의병들.

(…) 한강 남쪽의 수원, 남양, 통진, 김포, 용인, 과천, 금천 등의 관군이나 의병들 중에서 도 날새고 잘 싸울 백성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추의(秋義)와 창의(倡義) 두 진영의 군사들은 비록 갑자기 모인 무리들이지만, 그중에서도 구해 보면 열 명 중에 하나쯤은 얻을 것이니, 어찌 쓸 만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

(…) 至於漢江以南水原,南陽,通津,金浦,龍仁,果川,衿川等邑.官軍義兵中.亦不無驍健善戰之民.如秋義倡義兩陣之軍.雖甚烏合.然就其中求之.(…)

유성룡(柳成龍), <서애집(西厓集) 卷之六, 乞抄擇精兵以爲後圖狀【六月】>

정치/군사

남쪽의 대군이 수원에 있으니 도망간 군사를 소집하고 명군을 안내하여 공격할만하다는 내용.

(…) 1. 적병이 방금 평양에 머물러 있지만, 황해도·강원도 고을은 그래도 완전한 곳이 많고, 남쪽의 대군은 비록 날래고 우둔함을 알 수 없으나 또한 수원에 있습니다. 만일 이곳에서 흩어져 도망간 군사를 소집하고 명군을 안내하여 여러 길로 나누어 쳐들어가면, 적의 머리와 꼬리가 가로 끊어져 반드시 평양성을 버리고 남쪽으로 달아날 것입니다. 그러니 미리 황해, 경기, 충청, 전라, 경상 등의 도에 알리어 연도에 군사를 매복하였다가 왜적이 돌아갈 길을 열어 준 뒤에 곳곳에서 습격하면 그들의 기세가 다 꺾일 것입니다. 또, 경상·전라의 수사에게 명하여 각각 수군을 인솔하고 적선을 맞이하여 막는다면, 이는 오늘날 적을 없애는 대세가 될 것입니다. (…)

(…) 一.賊兵方住平壤.而黃海江原道郡邑.尙多完全.南方大軍.雖未知利鈍.而亦在水原.若又自此處召集散亡.嚮導唐兵.分數道蹙之.則賊首尾橫決.必棄城南走.預諭黃海,京畿,忠清,全羅,慶尙等道.沿途設伏.開其歸路.而處處鈔擊.則其勢可以盡滅.又令慶尙,全羅水使.各率舟師.邀截賊船.此今日勦賊大勢也.(…)

유성룡(柳成龍), <서애집(西厓集) 卷之七, 條陳時事啓【六月】>

정치/군사

1593년(선조 26) 겨울 수원 등 경기 지역에 대한 조치로서 소금의 조달, 병졸의 훈련과 방어 등에 언급한 내용.

(…) 용인·과천·금천·수원·부평은 모두 바다에 가까우니, 경기 감사에게 명하여 소금을 조치하게 하소서. 해홍(海紅)과 황각(黃角) 등의 나물은 농사를 짓지 못하여 기근이 제일 심한 곳을 보아 차례대로 나누어 구제하소서. 이상과 같이 하면 민간에서는 소금과 곡식을

서로 도와 쓸 수 있고, 준비한 채소 음식도 마땅히 섞어 삶아서 굶주린 배를 채워 수일 동안은 목숨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한강 이남의 이천·여주·광주는 서울의 좌보이고, 수원·남양·부평·인천은 우보입니다. 이런 고을들에 만약 병졸을 거두어들여 잘 훈련시키고 양곡을 쌓아 험하고 막힌 곳을 가려 지키게 하면, 서울의 형세가 조금은 지키고 막을 수 있어서 위급함을 완화시키니, 거의 믿을 수 있겠습니다. 광주의 남한산성은 광주의 치소에서 동으로 5리쯤 떨어져 있는데, 부여의 시조가 도읍한 땅이므로 온조성(溫祚城)이라고도 합니다. 형세가 매우 좋으며 중간에 샘과 밭이 있어서 수리하여 지킬 만합니다. 이 밖에 수원의 독성(禿城), 금천의 금지산(衿芝山), 인천의 산성은 다 험준하고 좁아서 꼭 지킬 만한 땅입니다. (…)
 신의 뜻으로는 변응성을 마땅히 방어사로 삼아 모든 고을을 왕래하면서 방비할 일들을 조치하게 하고, 아울러 수원, 이천, 양근, 광주 등에 전날의 관병과 의병을 불러 모아 조금 더 훈련시켜 급작스러운 일에 대비하소서. 그러면 전혀 한 사람도 없이 서로 잊어버리는 것보다 오히려 나을 것입니다. (…)

(…) 至於龍仁, 果川, 衿川, 水原, 富平. 則已自近海. 亦令京畿監司措置鹽石海紅黃角等物. 觀其失農饑饉最甚處. 次第分賑. 則民間鹽穀相資. 所備草食. 亦當和煮充飢. 而少延數日之命矣. (…)
 則利川, 驪州, 廣州爲京都左輔. 水原, 南陽, 富平, 仁川爲右輔. 此等之邑. 若能收兵鍊卒. 積峙糧穀. 擇守險阻. 則京城之勢. 稍有捍蔽. 而緩急庶有所恃矣. 如廣州南漢山城距州治東五里許. 乃扶餘始祖所都之地. 故亦名溫祚城. 形勢甚好. 而中有井泉田土. 可以修葺保守. 此外水原之禿城. 衿川之衿芝山. 仁川之山城. 皆係險阨必守之地. (…)
 臣意應星當使因爲防禦使. 使之往來諸邑. 措置防備等事. 並於水原, 利川, 楊根, 廣州等處. 召集舊時官義之兵. 稍加訓練. 以爲倉卒之備. 猶勝於全無一人而付諸相忘也. (…)

유성룡(柳成龍), <서애집(西厓集) 卷之七, 條陳時事啓【癸巳冬】>

정치/군사

경기도의 경우(京右)는 독성에 영을 설치하여 통솔하게 한다는 내용.

(…) 신이 관할하는 지방에는 대략 편의한 연병의 규정을 세워 경기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도내의 군읍은 그 거리의 원근과 주민의 다소와 방어의 형세를 헤아려 4영으로 나누어 각각 경좌(京左)·경우(京右)·경전(京前)·경후(京後)라 이름했습니다. 경좌는 용인에 영을 설치하여 양주·가평·포천·광주·여주·이천·양근·지평의 군사를 배속하였고, 경우는 독성에 영을 설치해 수원·남양·인천·통진·부평·김포·양천의 군사를 배속하였으며, 경전은 용인의 석성(石城)을 의지해 죽산·음죽·안성·양성·진위·용인·과천·양지·안산의 군사를 배속하였고, 경후는 파주의 산성을 의지해 영을 설치하여 교하·고양·연천·삭녕(朔寧)·마전·파주·장단·영평(永平)·개성부·풍덕의 군사를 배속시켰습니다. (…)

(…) 臣於所管地方. 略爲便宜鍊兵之規. 自京畿始. 以道內郡邑. 量其道里遠近. 民居疎密. 防守形勢. 分爲四營. 名爲京左京右京前京後. 京左則於龍津設營. 而以楊州, 加平, 抱川, 廣州, 驪州, 利川, 楊根, 砥平之軍屬焉. 京右則禿城設營. 而以水原, 南陽, 仁川, 通津, 富平, 金浦, 陽川之軍屬焉. 京前則擬於龍仁石城設營. 而以竹山, 陰竹, 安城, 陽城, 振威, 龍仁, 果川, 陽智, 安山之軍屬焉. 京後則擬於坡州山城設營. 而以交河, 高陽, 連川, 朔寧, 麻田, 坡州, 長湍, 永平, 開城府, 豐德之軍屬焉. (…)

유성룡(柳成龍), <서애집(西厓集) 卷之八, 請出京畿道右防禦使啓【丙申】>

정치/군사

별장 조발(趙撥)로 수원, 남양 등의 군사를 거느리고 독성(禿城)을 지키도록 하였다는 내용.

정유년에 적이 다시 준동하여 양호가 와해되었고, 9월에는 서울 변두리를 핏박하였다. 나는 임금의 명을 띠고 한강 방면을 순찰하며 경기 우방어사 유렴(柳濂)으로 안성, 죽산, 양성, 용인, 양지, 진위 등의 군사를 감독 통솔하게 하여 양성의 무한산성(無限山城)을 지키도록 하였고, 별장 조발(趙撥)로 수원, 남양, 김포, 양천, 통진, 부평 등의 군사를 거느리고 독성(禿城)을 지키도록 하였으며, 좌방어사 변응성(邊應星)에게 여주, 이천, 양근 등의 군사로 파사성(婆娑城)을 지키게 하였다. 인하여 한강 연안 일대를 왕래하면서 얇은 여울의 경비를 각각 책임지우고, 군령장(軍令狀)을 주어서 조금이라도 그르침이 있으면 마땅히 군법으로 다스리도록 재삼 신칙하였다. (…)

丁酉賊再動.兩湖瓦解.九月.賊逼京圻界.余承命出巡江面.令京圻右防禦使柳濂.督率安城竹山陽城龍仁陽智振威等軍.守陽城無限山城.別將趙撥.帥水原南陽金浦陽川通津富平等軍守禿城.左防禦使邊應星.以驪州利川楊根等軍守婆娑城.因往來沿江一帶.警備淺灘.各責軍令狀.少有失誤.當以軍法從事.再三申勅.(…)

유성룡(柳成龍), <서애집(西厓集) 別集卷之四, 記丁酉事>

정치/군사

군량을 저축하여 기민을 구제하는 것을 수원에 먼저 실행하여 독성에 비축하였다는 내용.

(…) 을미·병신 연간을 돌이켜 보면, 나는 그때 체찰사가 되어 경기 등의 도에서 속오군을 조련하고 있었다. 척계광의 《기효신서》의 법을 따라 12명으로 한 대(隊)를 만들어 인근에 사는 사람들로 그들을 단속하게 하였다. 또한 군량을 비축하고자 하여 시험적으로 각 대에게 놓고 있는 넓은 논을 선택해서 열두 사람이 함께 10두락을 농사짓게 하여 먼저 수원에다 실행하여 가을에 벼 800여 섬을 거두어 독성에 비축하였다. (…)

(…) 因憶乙未丙申間.余爲體察使於京畿等道.束伍鍊兵.從戚氏紀効新書法.十二人爲一隊.以隣近團束.又欲備軍糧.試令每隊擇閒曠水田.十二人共治十斗之地.先行於水原.秋得租八百餘石.儲之禿城.(…)

유성룡(柳成龍), <서애집(西厓集) 別集卷之四, 記蓄儲爲軍糧仍救飢民法>

정치/군사

수원의 독성(禿城) 등이 전략적 요충지라는 내용.

(…) 의주에 도착하여 다시 계사(啓辭)를 올려 시무를 조목별로 진술하였다.

처음에 계청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적병이 바야흐로 평양에 있으나, 황해·강원의 군읍은 아직도 대부분 완전하고 남방의 대군이 또한 수원에 있습니다. 만약 흩어지고 도망한 병사들을 불러 모아 명 나라 군사의 길잡이로 삼아 몇 길로 나누어 압축하면 적들은 반드시 성을 버리고 남쪽으로 도주할 것입니다. 미리 황해·경기·삼남 등에 알려 길을 따라 북병을 두어 곳곳마다 무찌르게 하고, 또한 수군으로 하여금 해로를 마저 끊게 하시옵소서. (…)

1. 한강 상류의 양근(楊根)과 여주는 요충지이니, 중무기와 군센 군사로 강을 따라 목책을 설치하여 죽음으로써 지키게 하면 적병이 반드시 쉽게 바로 쳐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한강 이남 여러 고을에서도 병졸을 수습하고 식량을 비축하여 험한 지대를 골라 방비하소서. 이 밖에 광주의 남한산성·수원의 독성(禿城)·금천(衿川)의 금지산(衿芝山)·인천의 산성(山

城)은 다 요충지대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땅입니다. 만일 군대를 주둔시켜 지형의 험함을 의지하여 서로 응원하는 형세를 이루면 금원(襟苑)이 견고하고 밀착되어 민심이 믿는 데가 있을 것이니, 의당 유념하여 구분하여 조치하소서. 서해 해로의 방비도 역시 긴급한 일이오니, 별도로 수사에게 명령하여 계책을 세워 조치하도록 하십시오. (…)

(…) 到義州.再上啓辭.條陳時務.【初啓略曰.一.賊兵方在平壤.而黃海,江原郡邑尙多完全.南方大軍亦在水原.若又招集散亡.嚮導唐兵.分數道蹙之.則賊必棄城南走.預諭黃海,京圻,三南等道.沿途設伏.處處抄擊.且令舟師邀截海路.】 (…)

【一.漢江上流楊根,驪州要害之處.以重兵勁卒.沿江列柵.以死拒守.則賊兵必不能容易徑進.漢江以南各邑.亦收兵峙糧.擇守險阻.此外廣州之南漢山城,水原之禿城,衿川之衿芝山,仁川之山城.皆係險阨必守之地.若屯兵據險.互爲形援.則襟袍固密.人心有恃.宜留意區處.西海水路之備.亦甚緊急.令水使別加規畫措處.】 (…)

유성룡(柳成龍), <서애집(西厓集) 年譜卷之一>

정치/군사

경기 우영이 수원 독성(禿城)에 두어 소속 고을의 군사가 소속시킨다는 것과 독성의 군사에게 군량 확보를 위해 농사를 짓게 하여 창고에 저장하도록 했다는 내용.

(…) 만력(萬曆) 24년 병신. 선생 55세 1월

군사를 훈련시키는 규칙을 정하여 4도에 반포하였다.

선생은 군정을 강구하느라 여가가 없었다. 일찍이 향병(鄉兵)을 단속하여 편익에 따라 훈련시킬 의도를 가지고 계청하여 각도에 반포한 것이 두 번이었다. 이때에 와서 또 군사를 거느린 4도의 군영에 거듭 유시하였다.

그 첫째는, 옛사람은 향촌·마을에 따라 군사를 내보냈다. 지금 이 뜻에 의하여 각 고을로 하여금 먼저 지역을 선정하게 하면 면(面)마다 어느 어느 마을[里]이 있는데, 각기 그 면 그 마을에서 넓고 좁은 것을 분간하여 초관(哨官)을 정하고 각기 기총(旗摠)·대총(隊摠)을 내보내어 향민을 가려서 연습시킨다. 이는 곧 강령을 들어 끄는 법이다.

둘째는, 분군(分軍)하는 법이다. 《기효신서(紀效新書)》에 따르면서도 다소 가감을 더하여 1군영에서 5사(司)를, 1사는 5초(哨)를, 1초에서는 3기(旗)를, 1기에서는 3대(隊)를, 1대에서는 화병(火兵)을 아울러 모두 11인으로 하니, 이것이 큰 강령이다. 지금 각리 각촌에 백성이 살고 있는 부근마다 단결하여 대(隊)를 만든다. 만일 사람이 많으면 3기 이외에 4, 5기라도 좋으며 3대 이외에 비록 4, 5대라도 또한 좋다. 군사가 적으면 1대에 11인이 차지 않아도 되니, 굳이 이쪽을 옮겨 저쪽으로 보내거나 가까운 데 것을 떼어서 먼 데로 불일 필요가 없다. 대저 진치는 법을 익히거나 혹은 총동원할 때에는 대장이 각 군영에 전령하고 영장은 파총(把摠)에게 전령하며 파총 이하가 차례로 전령하면 각기 그 군사를 인솔하고 목적인 지점에 일제히 도착하게 하되 시각이 어긋나면 안 된다.

그 셋째는, 군사의 수효가 아무리 많아도 대장이 영장에게 명령하면 통솔하는 것은 다만 5인뿐이고, 5인 영장은 파총에게 명령하고 파총은 초관에게 명령하면 통솔하는 것이 또한 5인이며, 초관은 기총에게 명령하고 기총은 대총에게 명령하면 통솔하는 것은 다만 3인뿐이니, 천하에 5인이나 3인을 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는 곧 훈련이 간략해도 시행이 넓은 법이다. 경기의 좌영이 용진에 있으면 이천, 가평 등 부근의 여덟 고을의 군사가 소속되는데, 이천이 전사(前司)가 되고 각기 형편에 따라 중사·후사·좌사·우사가 된다. 우영이 수원 독성(禿城)에 있으면 수원, 안성 등 부근의 여덟 고을의 군사가 소속되는

데, 전영이 용인 석성산성(石城山城)에 있으면 죽산, 과천 등 부근의 여덟 고을의 군사가 소속된다. 후영이 파주산성에 있으면 고양·개성 부근의 아홉 고을의 군사가 소속된다. 각 군영에서의 사(司) 편성은 좌영의 예와 같이 한다. 중영은 서울에 두니, 곧 훈련도감의 군사이다. 보통 때에는 각영·사·초로 분리하여 훈련하고 크게 사열할 때면 5영의 군사가 또한 장소에 모두 모인다. 강화 교동은 섬에 있으므로 스스로 1영을 이루고 육군에 예속되지 않는다. 각영은 군사를 계산하여 군량을 수합하고 반년을 지낼 양곡을 갖추고, 여유가 있으면 점차로 비축하여 재간이 있는 사람을 써서 그 사무를 주관하게 하며, 병기와 기치(旗幟)·징·북 따위는 각영에서 책임지고 준비한다. 각영은 모두 지형이 요새지로 험하고 앞에 평야를 두고 있어 훈련장을 마련할 만한 곳을 선택하여 성을 쌓고 흙을 사용한 누로(樓櫓)는 완고하게 만든다. 각사(各司)가 있는 곳도 지역을 선택하여 작은 보루를 만들어 평상시에는 5초의 군사를 집합하여 이곳에서 훈련하고, 유사시에는 근처의 노약자와 양곡을 수습하고 청야(淸野)하여 그 안으로 들어 보호한다. 각초는 각리에 또한 교련장을 마련하여 훈련에 편리하게 한다.

○ 선생은 또한 일찍이 군량을 계획하여 부대마다 놓고 있는 넓은 토지를 선택하여 12인이 10마지기의 토지를 함께 경작하게 하도록 하되 먼저 수원에서 시행하여 가을에 벼 8백여 석을 수확하여 독성에 저장하였다. 그리고 부대마다 양곡을 내게 하여 각촌에 저장하고 대장(隊長)에게 위임하여 감시케 한 다음, 해마다 저축된 양곡을 나누어 주고 그 이윤을 조금씩 받아 유사시에는 군량으로 쓰고 무사할 때는 수해와 한해를 대비하게 하였다. 그래서 몇 해 뒤에 마을마다 축적된 곡식이 있게 하여 수(隋) 나라 때의 의창의 제도와 같이 만들려고 하였으나, 시행을 미처 못하고 선생은 그 직위에서 떠났다. (…)

(…) 二十四年丙申 先生五十五歲 正月.定鍊兵規式.頒行四道.先生講究軍政.日不暇給.會以團束鄉兵.隨便操鍊之意.啓請頒示各道者再.至是又申諭所領四路.其一.言古人以鄉井比閭出軍.今依此意.令各邑先求地面有某某里.各以其面其里.分其闊狹.定爲哨官.各出旗隊摠.抄民鍊習.此乃提綱挈領之法也.其二.言分軍之法.依紀效新書而稍加增損.一營統五司.一司統五哨.一哨統三旗.一旗統三隊.一隊并火兵凡十一人.此其大綱也.今從各里各村居民.附近團結爲隊.若人多則三旗之外.雖四旗五旗亦可.三隊之外.雖四隊五隊亦可.軍少則一隊雖不滿十一人亦可.不必移此而就彼.離近而附遠也.凡習陣或調發時.大將傳令各營.營將傳令把摠.把摠以下以次傳令.各率其軍.齊赴信地.不可參差時刻.其三.言軍數雖多.而大將令營將則所統只五人.營將令把摠.把摠令哨官則所統亦五人.哨官令旗摠.旗摠令隊摠則所統只三人而已.天下豈有不能運用五人三人者哉.此乃操約施廣之道也.京圻左營在龍津.則以利川.加平等附近八邑之軍屬焉.以利川爲前司.而各以形便爲中後左右司.右營在水原禿城.則以水原.安城等附近八邑之軍屬焉.前營在龍仁石城山城.則以竹山.果川等附近八邑之軍屬焉.後營在坡州山城.則以高陽及開城府附近九邑之軍屬焉.各營分司如左營例.中營在京城.卽訓練都監之軍.常時則分操於各營各司各哨.大閱則五營之軍都會一處.江華喬桐在海中.自爲一營.不隸於陸軍.各營計軍而聚糧.或備半年之食.有餘則漸次貯備.以有幹木者主其事.軍器及旗幟金鼓之屬.責令各營措備.各營皆擇形勢要險.前臨平野.可設教場處築城.用土樓櫓.務令完固.各司所在處.亦擇地爲小壘.平時則合五哨之軍.教鍊於此處.有事則收近處老弱及糧穀.淸野入保於其中.各哨於各里.亦設教場.以便訓練.○先生又嘗規畫軍糧.令每隊擇閑曠水田.十二人共治十斗之地.先行於水原.秋得稻八百餘石.儲之禿城.又欲令每隊出穀.儲於各村.委隊長檢察.逐年加儲.分糶而略取其息.有事則以爲軍糧.無事則以備水旱.數年之後.村村有蓄積.與隋時義倉之制相近.事未及施行而先生去位.(…)

유성룡(柳成龍), <서애집(西厓集) 年譜 卷之二, 二十四年丙申 【先生五十五歲】正月>

정치/군사

왕명세가 8월에 수원(水原)으로 내려가서 적을 쳤다는 내용.

해생(解生). 자는 문영(文英) 호는 순천(順泉)으로 선부(宣府) 전위(前衛) 사람이다. 정유년에 흠차비왜좌익부총병(欽差備倭左翼副總兵) 서도독첨사로 대동(大同)의 마병 2천 5백 인을 이끌고 7월에 나와 8월에 수원(水原)으로 내려가서 적을 쳤으며 9월에 남하하였다가 기해년 8월에 돌아왔다. 용맹스러웠고 전투를 잘 했으며 전진(戰陣)에 임해서는 반드시 앞장을 섰다. 부하들을 매우 엄하게 단속하고 성품 역시 공손하였는데, 늘 나라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랑개 군인으로서 외람스럽게도 나라의 은혜를 입었으나 천승(千乘)의 임금과 항례(抗禮 동등한 자격으로 대우받는 것)하는 일을 어떻게 감히 감당하겠는가.” 하고, 상이 접대할 때마다 번번이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술잔을 비운 뒤 절하고 일어나는 등 매우 깎듯이 행동하였다. (…)

解生字文英.號順泉.宣府前衛人.丁酉.以欽差備倭左翼副總兵署都督僉事.領大同馬兵二千五百.七月出來.八月.下水原擊賊.九月南下.己亥八月回去.驍勇善戰.臨陣必先登.鈐束甚嚴.性又恭謹.每謂國人曰.我以鏐軍.誤蒙國恩.抗禮於千乘之君.豈敢承當.於上接待.輒俯伏盡酌.拜起甚恪.(…)
신흥(申欽), <상촌고(象村稿) 卷之三十九, 王名世以中軍出來>

정치/군사

1593년(선조 26) 김은휘(金殷輝)가 호남에서 관군과 의병을 이끌고 수원(水源)의 독성(禿城)에 주둔하였다는 내용

(…) 이때 체찰사로 있던 정공 철(鄭公澈)이 평소부터 공의 재략(才略)을 기특하게 여겨 오다가 공을 보고는 매우 기뻐하여 즉시 공을 종사관(從事官)에 임명하였다. 계사년에 호남에서 대장 깃발을 치켜들고 관군과 의병 등 제군(諸軍)을 통솔하면서 근왕군(勤王軍)으로 북상(北上)하다가 수원(水源) 독성(禿城)에 주둔하였다. 이때 우연치 않게 정철이 비방을 받고 물러나게 되었는데 공 역시 하마터면 기막힌 화를 당할 뻔하였다. (…)

(…) 體察使鄭公澈.素奇公才略.見公喜甚.卽辟公爲從事.癸巳.建牙湖南.管領官義諸軍.北上勤王.軍于水源之禿城.會鄭公被謗去.公亦幾中奇禍.(…)

장유, <계곡집(谿谷集), 卷之十二, 嘉善大夫行僉知中樞府事五衛將金公墓碣銘>

정치/군사

1708년(숙종 34) 남구만이 지은 고종후(高從厚)의 시장으로, 충렬공 고경명(高敬命)이 고종후 형제에게 수원으로 쫓아가서 목사 권율(權慄)의 군대에 합류하라고 했다는 내용.

(…) 이에 충렬공은 전임 부사 박광옥(朴光玉)과 함께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효유하여 흩어진 군사들을 수합하고 공의 형제로 하여금 군대를 나누어 거느리게 한 다음 수원으로 쫓아가서 목사 권율(權慄)의 군대에 병력을 맡겼다. 이어 서쪽으로 행조(行朝)에 달려가고자 하였으나 길이 막혀서 전진하지 못하고 돌아오니, 충렬공은 이미 의병의 깃발을 담양(潭陽)에 꽂고 있었다. (…)

(…) 忠烈公與前府使朴光玉奔走曉諭.收合潰卒.使公兄弟分領其衆.追到水源.付牧使權慄陣中.仍欲西赴行朝.路阻不得進而廻.忠烈公已建義旗于潭陽矣.(…)

남구만(南九萬), <약전집(藥泉集) 第二十三, 贈吏曹判書高公請諡行狀【戊子】>

정치/군사

윤증이 지은 윤전(尹愔)의 가장으로, 1627년(인조 5) 1월 정묘호란 때 인조에게 문안하러 수원으로 달려갔다는 내용.

(…) 정묘년(1627) 1월에 오랑캐가 쳐들어온다는 경보를 듣고 문안하러 달려가 수원에 이르렀는데 대가는 이미 강도(江都)에 들어갔고 세자는 분조(分朝)하여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

(…) 丁卯正月.聞有虜警.奔問至水原.大駕已入江都.而世子分朝南下.(…)

윤증(尹拯), <명재유고(明齋遺稿) 卷之四十三, 叔祖弼善府君家狀>

정치/군사

서종태가 지은 이성부(李聖符)의 시장으로, 인조반정 직후 수원부사로 가서 평정했다는 내용.

당시 충의의 열사로서 반정(反正)의 계책에 동조하여 협찬한 사람이 비록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분명히 힘을 내어 못사람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죽음을 무릅써 가며 병사의 선봉에 선 사람으로야 누가 공 만하였겠는가? 여러 장수 중에서도 중흥을 협찬한 공로는 공이 실로 많았다. 이튿날 수원(水原)에서 군대를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본 고을은 바로 수도를 방위하는 중요한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어서 아직 의구심을 갖고 대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조정의 의논이 이를 걱정하고 그 인선을 난중(難重)히 여겨 곧바로 공을 제배(除拜)하여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삼아 보내어서 평정토록 하였으니, 위급할 때에 어려운 일을 맡기는 것도 이와 같았다. 그러나 정사공신(靖社功臣)을 마감할 때에 가서 처음에는 공을 정훈록(正勳錄)에 넣었다가 곧바로 별단(別單)으로 내리어 자급(資級)만 올렸으니, 이는 원훈(元勳, 김유(金瑬)를 말함)이 공의 지난날의 처사에 감정을 품고서 이괄을 서곤(西閫)으로 내쫓으면서 아울러서 공까지도 그 공훈을 깎아 내린 것이다

當是時.忠義之士.攀附協策.雖非一二數.其奮然出氣力.和兩帥.牢衆心.冒死爲士卒先者.孰有公倫.諸將中.贊中興之功.公實爲多也.翌日.水原聚軍之報至.本府是畿輔宿重兵地.而時危疑未定.朝議憂之.而難其選.卽拜公爲府使.往平之.緩急託重如此.及勘靖社勳.始置公正勳.旋降之別單.而只陞資.蓋元勳嫌公前事.斥適西閫.並與公而屈其功也.

서종태(徐宗泰), <만정당집(晩靜堂集) 第十七, 防禦使贈兵曹判書李公諡狀>

(4) 인물

정치/인물

낭중공(郎中公) 공탁(公卓)이 수원부(水原府) 용성현(龍城縣)에 거주함.

(…) 낭중공(郎中公) 휘 공탁(公卓)은 고려 순창군(淳昌郡) 사람인데, 뒤에 인아(姻婭)를 따라 수원부(水原府) 용성현(龍城縣)으로 옮겨 살았다. 나이 64세가 된 연우(延祐) 기미년(1319, 충숙왕 6)에 집에서 작고하여 그 지역에 안장하였다. 부인 김씨(金氏)는 요양현군(遼陽縣君)에 봉해졌는데, 토속(土俗) 음양가의 법도에 따라서 별도로 장사 지냈다. (…)

(…) 郎中公諱公卓.高麗淳昌郡人.後從姻婭.移居水原府之龍城縣.年六十四.延祐己未.卒于家而因葬之.夫人金氏.封遼陽縣君.以土俗陰陽家法別葬焉.(…)

이곡(李穀), <가정집(稼亭集), 제4권 기(記), 大元贈奉訓大夫遼陽等處行中書省左右司郎中飛騎尉遼陽縣君趙公墓瑩記>

정치/인물

수원 부사(水原府使)를 역임한 성식(成軾)의 묘갈명

(…) 군은 가정(嘉靖) 임인년(1542, 중종37)에 태어났다. 갑자년(1564, 명종19)에 생원(生員)과 진사(進士)가 되었고, 정축년(1577, 선조10)에 알성(謁聖) 친시(親試)에 급제하였다. 분관(分館)되어 괴원(槐院 승문원)의 권지(權知)로 있다가, 천거를 받아 사관(史館)의 검열(檢閱)로 들어갔으며, 다시 천거를 통해 주서(注書)에 임명되었다가, 곧이어 검열로 복귀하였다. 봉교(奉敎)가 되고 나서 감찰(監察)로 옮겼으며, 다시 예조와 병조의 좌랑(佐郎)으로 전직(轉職)되었는데, 이 역시 천거에 의한 것이었다. 그 사이에 성절사(聖節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중국에 다녀왔으며, 외방으로 나가서 삼도 해운판관(三道海運判官)을 겸한 뒤에 조정에 들어와 병조 정랑(兵曹正郎)으로 승진하였고, 다시 발탁되어 지평(持平)과 정언(正言)에 각각 두 번씩 임명되었다. (…)

성균관 사성(成均館司成)과 풍저창 수(豐儲倉守)를 역임하고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나갔는데, 그때 마침 왜적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으므로 수원이 국도(國都)의 관문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무변(武弁)으로 교체되었다. (…)

(…) 君以嘉靖壬寅生.甲子生員,進士.丁丑.謁聖親試及第.分槐院權知.薦入史館檢閱.復以薦授注書.尋還檢閱.至奉敎.遷監察.轉佐郎禮曹若兵曹則亦薦也.間以聖節使書狀官往還.出兼三道海運判官.入陞兵曹正郎.擢拜持平,正言.皆再焉.(…) 歷司成,豐儲守.出水原府使.時倭有聲息.以國門庭之地.替與武弁.(…)

최립(崔崧), <간이집(簡易集), 제9권 희년록(稭年錄), 宗簿寺正兼春秋館編修官成君墓碣銘>

정치/인물

임진왜란 당시 수원으로 진군한 권율(權慄)의 행주비(幸州碑)

(…) 이때 전라 순찰사(全羅巡察使) 이광(李洸)이 군사 4만 명을 징발한 다음, 방어사(防禦使) 곽영(郭嶸)과 함께 영(嶺)을 사이에 두고 북상(北上)하면서, 공에게 방어군(防禦軍)의 중위장(中衛將) 임무를 맡게 하였다. 이는 서생(書生)을 무부(武夫) 취급하는 조치였으므로 혹 난색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공은 의연히 “내가 행해야 할 직분이다.” 하였다. 직산(稷山)에 이르러 충청(忠淸) 군사와 합세, 수만의 군세(軍勢)를 이룬 뒤에 다시 수원(水原)으로 진군하였다. (…)

공은 상이 의주(義州)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왜적이 아직은 평양 이북을 넘어가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는, 우선 경성에 대한 공격을 도모함으로써 서쪽에

가 있는 적들로 하여금 동쪽을 돌보느라 틈이 없게끔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상의 방책이라고 판단을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수원(水原)의 독성(禿城)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상에게 보고를 올리니, 상이 상방검(尙方劍)을 풀어 급히 내려 주며 이르기를 “장수들 중에 군령(軍令)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거든 이것으로 처단하라.” 하였다. (….) 대체로 살펴보면, 공은 처음부터 경성을 수복(收復)하려는 뜻을 품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만 전임 순찰사(巡察使) 때문에 좌절되고 말았었다. 그리하여 양호(兩湖)의 6만 병력이 집결했던 것을 계기로, 임진(臨津)으로 달려가서 기필코 지켜 낼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무산시킨 채, 급기야는 수원(水原)에서 여처구니없는 패배를 맛보게 되기에 이르렀으니, 이치(梨峙)에서의 승리 같은 것은 불행에 당하고 나서 조금밖에 분풀이를 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몇 년 동안이나 봉시 장사(封豕長蛇)가 다시는 호남 지방을 넘보지 못하게 한 결과, 호남의 그 풍성한 곡물을 거두어 동쪽과 서쪽에 수송해서 충분히 공급하게 해 주었으니, 이것이 모두 누구의 덕분이라고 해야 하겠는가.

(….) 全羅巡察使李洸發兵四萬.與防禦使郭嶸分領而北.乃署公防禦軍之中衛將.用書生比武夫.人或難之.公曰.吾職也.行至稷山.與忠淸軍會.亦可數萬.進軍水原. (….) 公以既聞上在義州.賊尙未過平壤.今惟先圖京城.使已西之賊.東於不暇.於計爲得.遂軍水原之禿城以聞.則上解劍馳賜曰.諸將不如令者.以此從事.(….) 夫以公本圖京成之志.屈於前巡察.不能因兩湖六萬兵之會而趣臨津.必可守之便.適以取水原之一潰.若其梨峙之役.可謂小逞於不幸之後.然使湖南數年免爲蛇豕再窺.而根本征輸東西以給.繫誰賴也.

최립(崔崚), <간이집(簡易集), 제1권 비(碑), 權元帥幸州碑>

정치/인물

공이 수원(水原) 마정리(馬井里)에 이르러 병이 심해져서 졸(卒)하였다.

(….) 천계(天啓) 정묘년(1627, 인조5)에 금(金)나라가 침범해서 거가(車駕)가 도성을 나가 강화(江華)로 들어갔을 때 공이 행재소(行在所)에 달려가려고 병을 무릅쓰고 길에 올랐으나 수원(水原) 마정리(馬井里)에 이르러 병이 심해져서 졸(卒)하였다. 임종(臨終) 때에 한마디도 다른 일은 언급하지 않고 오직 시국을 근심하고 연모하는 말만 입에서 끊이지 않았으니, 이 또한 신하의 도리와 처신하는 의리에 부끄러움이 없었다 하겠다. 금상 갑자년(1684, 숙종10)에 부제학 조지겸(趙持謙)의 말로 인하여 특별히 이조 판서를 증직하였고 문정공(文正公)이란 시호를 내렸다. (….)

(….) 天啓丁卯.狄人來侵.車駕出幸江都.公將奔問行在.力疾登道.至水原馬井里.疾病以卒.臨終無一言及他事.獨憂時戀國之言.吃吃不離口.其亦無愧於臣人之道致身之義矣.至今上甲子.以副提學趙持謙言.特贈吏曹判書.諡文正公.(….)

이현일(李玄逸), <갈암집(葛庵集), 별집 제3권 발(跋), 書石灘李公行狀後>

정치/인물

홍가신(洪可臣)이 수원부사(水原府使)에 임명되다.

(….) 계미년(1583) 여름에 사헌부 장령이 되었고 곧 안산 군수(安山郡守)로 나갔다. 치적(治績)이 훌륭하다고 하여 승진되어 수원부사(水原府使)에 임명되었는데, 기축년(1589) 겨울에 백유함(白惟咸)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

(….) 癸未夏.爲司憲府掌令.尋出爲安山郡守.以治最陞拜水原府使.己丑冬.爲白惟咸所劾罷.(….)

이현일(李玄逸), <갈암집(葛庵集), 제29권 시장(諡狀), 奮忠出氣合謀迪毅清難功臣崇政大夫

行刑曹判書五衛都摠府都摠管寧原君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世子傳寧原府院君晚全洪公諡狀>

정치/인물

수원부사(水原府使) 연양군(延陽君) 이공의 배필 정부인 윤씨에 대한 묘지명

천계(天啓) 정묘년(1627, 인조 5) 모월 모일에 수원 부사(水原府使) 연양군(延陽君: 이시백(李時白)의 봉호(封號)) 이공의 배필인 정부인(貞夫人) 윤씨가 수원부 관사에서 죽었다. 그리하여 이해 모월 모일에 고양(高陽)의 이씨 선영에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

天啓丁卯某月日.水原府使延陽君李公之配貞夫人尹氏卒于府之衙宅.將以是歲某月日.葬于高陽李氏墓.(…)

장유(張維), <계곡집(谿谷集), 제10권 묘지(墓誌), 貞夫人尹氏墓誌銘>

정치/인물

인빈 김씨 신도비명(仁嬪金氏神道碑銘)

(…) 신성군은 1녀를 두었는데, 전적 안홍량(安弘量)에게 출가하였다. 달성위는 3남 5녀를 두었는데, 아들 정리(貞履)는 현감이고 정리(正履), 신리(愼履)는 학생(學生)이며, 장녀는 진사 김규(金珪)에게 출가하였고 다음은 직장(直長) 이명인(李命寅)에게 출가하였고 다음은 학생 심항(沈伉)에게 출가하였고 다음은 좌랑 권우(權堧)에게 출가하였고 다음은 어리다. 해송위는 2남을 두었는데, 지(埶)는 문과(文科) 출신으로 수원 부사(水原府使)이고 구(坵)는 문과 출신으로 수찬이다. (…)

(…) 信城君有一女.適典籍安弘量.達城尉有三男五女.男曰貞履.縣監.正履,愼履.學生.女適進士金珪.次適直長李命寅.次適學生沈伉.次適佐郎權堧.次幼.海嵩尉有二男.曰埶.文科水原府使.丘.文科修撰.東陽尉有五男四女.男曰晁.生員.昇.進士.晷,最,晷.學生.女適洗馬洪命夏.次適學生姜文斗.次適生員金佐明.次幼.(…)

장유(張維), <계곡집(谿谷集), 제13권 비명(碑銘), 仁嬪金氏神道碑銘 并序>

정치/인물

김천일(金千鎰)이 수원(水原)에 진격하여 진을 치다.

(…) 이에 앞선 임진년에 왜노(倭奴)가 대대적으로 쳐들어와 부산(釜山)을 결단내고 동래(東萊)를 함락시킨 뒤 북쪽으로 마구 짓쳐 들어오자 여러 성진(城鎭)들이 소문만 듣고도 저절로 무너져 버리는 상황에서 이일(李鎰)과 신립(申唼)의 군사마저 잇따라 패몰(敗沒)당하고 말았다. 이에 선묘가 계책을 결단하여 서쪽으로 피난을 떠나자 왜적이 마침내 경성을 함락시켰다.

(…) 공은 본래 허약한 체질로 병든 몸이었으나 이때에 이르러서는 매우 기뻐하여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내가 칼을 차고 말을 타니 기분이 쾌락하여 날아갈 것만 같다.”하였다. 이때 마침 3도(道)의 근왕병(勤王兵)이 용인(龍仁)에서 궤멸되었으므로 군중(軍中)에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하였다. 이에 공이 군사들에게 유시하기를, “우리 군대는 의(義)를 위하여 일어났으니 오직 진격만 있을 뿐 후퇴는 없다. 가고 싶은 사람은 마음대로 떠나도록 하라.”하자, 군사들 모두가 감격하여 분발하면서 몰래 도망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무너진 군사들도 점차 공에게 돌아와 호서(湖西)에 이를 무렵에는 수천의 병력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마침내 수원(水原)에 진격하여 진(陣)을 치면서부터 군세(軍勢)가 조금씩 펼쳐지기

시작하였다. (…)

(…) 先是歲壬辰.倭奴大舉入寇.屠釜山陷東萊.長驅北上.諸城鎮望風奔潰.李鎰, 申砬之師.相繼敗沒.宣廟定計西幸.賊遂陷京城.(…)公素羸疾.至是欣然語人曰.今日吾帶劍跨馬.洒然欲輕舉矣.會三道勤王之師.潰于龍仁.軍中氣懾.公諭衆曰.我師義舉也.有進無退.欲去者任其去.衆皆感奮.無一人潛逃者.潰師亦稍稍歸公.比至湖西.衆可數千.遂進壁于水原.軍勢稍振.(…)
장유(張維), <계곡집(谿谷集)>, 제13권 비명(碑銘), 倡義使金公旌烈祠碑>

정치/인물

대가(大駕)가 수원(水原)에 이르렀다.

(…) 이관(李适)의 반란으로 인하여 상이 공산(公山)으로 행행(幸行)할 때 공이 운검(雲劍)의 직책을 수행하여 호종(扈從)하였다. 대가(大駕)가 수원(水原)에 이르러 밤이 깊었을 무렵 상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는데, 조정 신하들이 미처 알지 못한 상황에서 공이 동틀 때까지 옆에서 보살피고 모시며 지극한 정성으로 충성스럽게 애를 썼다. 적을 평정하고 도성으로 돌아온 다음 가의대부로 품계가 오르면서 공조 참판으로 호위장(扈衛將)을 겸하였다. (…)

(…) 李适反.上幸公山.公以雲劍扈從.駕次水原夜已深.上忽不豫.廷臣未及知.公達曙侍左右.忠勞最篤.賊平還都.陞嘉義階, 工曹參判.兼扈衛將.(…)

장유(張維), <계곡집(谿谷集)>, 제14권 비명(碑銘), 靑雲君沈公神道碑銘>

정치/인물

황진(黃進)이 휘하 병력을 거느리고 수원(水原)에 잠복하였다.

(…) 공은 신묘년(1591, 선조 24)에 통신사(通信使)를 따라 일본에 들어갔다가 적의 형세로 볼 때 반드시 군대를 출동시키리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전대(纏帶)를 털어 보검(寶劍) 2자루를 사면서 말하기를, “머지않아 적이 쳐들어올 때 내가 장차 이 검을 쓰리라.”하였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동북 현감(同福縣監)이 되었는데, 공무(公務)를 파하고 나면 언제나 갑옷을 입고 말을 치달리기도 하고 혹 거약곡용(距躍曲踊)을 하며 무용(武勇)을 익히기도 하였다.

이듬해 왜구가 쳐들어오자 공이 관찰사를 따라 근왕병(勤王兵)을 이끌고 북상(北上)하였다. 용인(龍仁)에 이르러 군대가 무너졌으나 당시에 공은 휘하 병력을 거느리고 수원(水原)에 잠복하고 있었으므로 그 부대만은 온전히 보전된 채 돌아올 수가 있었다. 제장(諸將)과 함께 웅치(熊峙)를 지키고 있던 중, 적이 전주(全州)로 향하자 공이 병력을 이끌고 그곳으로 나아갔는데, 안덕원(安德院)에서 적과 만나 접전을 벌인 결과 크게 격파하였다. 이 공으로 훈련판관으로 관직이 승진되었다. (…)

(…) 公當辛卯歲.從通信使赴日本.見賊有必動形.捐橐買寶劍二曰.不久賊來.吾將用此劍矣.未幾.爲同福縣監.每衙罷.輒擐甲馳馬.或距躍曲踊以習勇.明年.倭寇至.公從觀察使勤王.北上至龍仁.師大潰.公時領兵設伏于水原.獨能全所部而歸.與諸將守熊峙.賊向全州.公引兵赴之.遇賊于安德院.與戰破之以多.陞訓鍊判官.(…)

장유(張維), <계곡집(谿谷集)>, 제14권 비명(碑銘), 折衝將軍.守忠淸道兵馬節度使.贈崇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黃公墓碑銘 并序>

정치/인물

이직언(李直彦)이 수원(水原)으로 제수되었으나 인천 백성들의 청으로 유임하다.

(…) 병신년에 해주 목사(海州牧使)를 제수받았으나 어사의 임무를 수행하느라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체직되었고, 곧이어 인천 부사(仁川府使)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수원(水原)으로 옮겨져 제수되었는데, 인천 백성들이 공의 유임을 청하자 마침내 그대로 머물도록 명하였다. (…)

(…) 丙申. 除海州牧使. 以奉使未還遞. 尋拜仁川府使. 明年. 移授水原. 仁川民乞留. 遂命仍舊. (…)
장유(張維), <계곡집(谿谷集)>, 제14권 행장(行狀), 贊成李公行狀>

정치/인물

최루백(崔婁伯)은 수원(水原) 사람이다.

(…) 최루백(崔婁伯)은 수원(水原) 사람입니다. 나이 15세 때 그의 아버지가 사냥을 하다가 호랑이에게 물려 죽자 누백은 그 호랑이를 잡으려 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만류하자 누백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는 즉시 도끼를 메고서 호랑이를 추적하였습니다. 호랑이는 이미 사람을 잡아먹고 배가 불러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누백이 그 앞으로 다가가서 호랑이를 꾸짖어 “네가 우리 아버지를 잡아먹었으니 내가 의당 너를 잡아 먹어야겠다.” 하니, 호랑이가 꼬리를 흔들며 엎드렸습니다. 누백은 대뜸 도끼로 호랑이를 찌어 죽이고는 배를 갈라 자기 아버지의 뼈와 살을 찾아내고, 호랑이고기는 항아리에 담아 시내 가운데 묻어 두었습니다. 누백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시묘살이를 하였으며, 삼년상을 마치고 나서는 그 호랑이고기를 가져다가 다 먹었습니다. 그는 뒤에 과거에 급제하여 기거사인(起居舍人)¹⁸³⁾이 되었습니다. (…)

(…) 崔婁伯. 水原人. 年十五. 父因獵爲虎所害. 婁伯欲捕虎. 母止之. 婁伯曰. 父讐可不報乎. 卽荷斧跡虎. 虎既食飽臥. 婁伯直前叱虎曰. 汝食吾父. 吾當食汝. 虎乃掉尾俛伏. 遽斫而剗其腹. 取父骸肉. 盛虎肉於瓮. 埋川中. 葬父廬墓. 服闋. 取虎肉盡食之. 後登第. 爲起居舍人. (…)

기대승(奇大升), <고봉집(高峯集)>, 고봉숙집 제2권 잡저(雜著), 天使許國¹⁸⁴⁾魏時亮¹⁸⁵⁾問目條對>

정치/인물

권진(權縉)이 규례에 따라 정헌대부에 오르코 지방으로 나가 수원 부사(水原府使)가 되었다.

(…) 계축년(1613, 광해군5)에 조정으로 돌아와 우승지가 되었다. 이때 영창(永昌)의 옥사¹⁸⁶⁾가 일어났다. 옥사가 마구 확대되어 연흥(延興)¹⁸⁷⁾ 집안이 이미 멸족되고, 대비의 동생 김선(金瑱)이 어린 나이로 형을 당하게 되었다. (…)

183) 기거사인(起居舍人) : 임금을 시종하면서 임금의 언행을 기록하던 벼슬이다.

184) 허국(許國) : 1527~1596. 명나라 휘주부(徽州府) 흡현(翕縣) 사람이다. 자는 유정(維楨), 시호는 문목(文穆)이다. 예부상서 겸 동각태학사(禮部尙書兼東閣太學士) 등의 벼슬을 지냈다. 저서에 《문목문집》이 있다.

185) 위시량(魏時亮) : 1529~1591. 명나라 남창(南昌) 사람이다. 자는 공보(工甫), 호는 경오(敬吾), 시호는 장정(庄靖)이다. 중서 사인(中書舍人), 남경대리승(南京大理丞) 등의 벼슬을 지냈다. 성리학을 연구하였으며, 저서에 《대유학수(大儒學粹)》가 있다.

186) 영창(永昌)의 옥사 : 영창은 광해군의 이복동생으로 선조(宣祖)의 계비인 인목대비(仁穆大妃) 소생이다. 이름은 의(璵)이다. 서양갑(徐羊甲), 심우영(沈友英), 허홍인(許弘仁), 박응서(朴應犀), 박치의(朴致毅) 등이 처음에는 도적으로 붙잡혔으나 1613년(광해군5) 4월 25일에 박응서가 이이첨(李爾瞻)의 사주로 고변하고, 5월 6일에 서양갑이 영창을 추대하려 했다고 공초함으로써 일어난 옥사이다. 《光海君日記》

187) 연흥(延興) :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으로 인목대비의 아버지인 김제남(金悌男)의 봉호이다.

의가 제기되었는데, 초야의 유생 조직(趙漫)이 상소하여 윤리와 기강의 일에 대해 말하였다가 죄를 얻었다. 정인홍(鄭仁弘)이 차자를 올려 조직의 죄상을 밝히면서 역적이니 처형해야 한다고 하자, 공이 말하기를, “조직은 역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받아들여지기는커녕 양사가 번갈아 논핵하여 공의 관작을 삭탈하였다. 축출당한 지 1년 만에, 이미 익사 공신(翼社功臣)에 책봉된 상태라 친구 공신의 회맹(會盟)으로 공은 규례에 따라 정현대부에 오르고 지방으로 나가 수원 부사(水原府使)가 되었다.

公諱縉.字雲卿.姓權氏.高麗太師幸之後.而我國初名儒文忠公近之八世孫也.(…) 癸丑.還爲右承旨.時有永昌獄起.獄事滋蔓.延興家既族滅.而大妃弟金瑄以童稚當刑.(…) 時廢母妃議起.草野生趙漫上疏.言倫紀事得罪.鄭仁弘上劄罪狀漫以爲賊當誅.公曰.漫不可謂賊.不納.兩司交論削奪官爵.斥黜一年.既冊翼社功.會盟新舊功臣.公例陞正憲.出爲水原.(…)

허목(許穆), <기언(記言), 제40권 동서기언(東序記言), 권 판서(權判書) 묘비(墓碑)>

정치/인물

이순신(李純信)이 수원 도호부사(水原都護府使) 등을 역임하다.

(…) 처음에 적을 평정한 후로 수군절도사에서 오위장(五衛將), 행 훈련 도정(行訓練都正), 동지중추부사, 호남 수군절도사, 수원 도호부사(水原都護府使), 경기와 호남의 방어사(防禦使), 서해·호서·호남·영남·함경남도의 절도사를 거쳤다.

(…) 初既平賊.以水軍節度使.爲五衛將行訓練都正, 同知中樞, 湖南水軍節度使, 水原都護府使, 京畿湖南防禦使, 西海湖西南嶺南咸鏡南道節度使.(…)

허목(許穆), <기언(記言), 별집 제22권 구묘문(丘墓文), 完川君碣>

정치/인물

이순신(李純信)이 수원도호부사(水原都護府使) 등을 역임하다.

(…) 처음에 적을 평정한 후로 수군절도사에서 오위장(五衛將), 행 훈련도정(行訓練都正), 동지중추부사, 호남 수군절도사, 수원도호부사(水原都護府使), 경기(京畿)·호남(湖南)의 방어사(防禦使), 서해(西海)·호서(湖西)·호남(湖南)·영남(嶺南)·함경남도(咸鏡南道)의 절도사(節度使)를 지내고 군(君)에 봉작(封爵)되었다. (…)

(…) 初既平賊.以水軍節度使.爲五衛將行訓練都正, 同知中樞, 湖南水軍節度使, 水原都護府使, 京畿湖南防禦使, 西海湖西南嶺南咸鏡南道節度使.(…)

허목(許穆), <미수기언(眉叟記言), 기언 별집 제22권 구묘문(丘墓文), 完川君碣>

정치/인물

김준룡(金俊龍)이 용인(龍仁), 수원(水原) 등에서 오랑캐와 전투하다.

(…) 왕명을 받고 13일 만에 용인(龍仁) 광교산(光敎山 지금의 수원시(水原市) 광교동의 뒷산)에 이르러 험한 곳에 의지하여 진을 쳤으나, 임금을 모시던 모든 군사가 패전한 뒤였고, 호남 군사만이 남한산성에 합류할 수 있었다. 이 기세를 몰아 날랜 병사를 내어 오랑캐의 유기(遊騎)를 격파하고 수많은 적의 목을 베니, 오랑캐가 이를 우려하여 몽고의 공유덕(孔有德), 경중명(耿仲明)¹⁸⁸의 군사 수만을 모아, 안개 낀 새벽을 틈타 일격에 격파하려 하였는데, 그 형세가 풍우(風雨)와 같았다. 그러나 공은 칼을 쥐고 화살이 쏟아지는 곳에 서 죽을

188) 공유덕(孔有德), 경중명(耿仲明) : 이 두 사람은 명(明) 나라를 배반하고 청(淸) 나라에 항복한 장수다. 《仁祖實錄 15年 2月》

각오로 싸울 태세를 보이니, 모든 군사가 목숨을 걸고 싸웠다. 오랑캐도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며 종일토록 온 힘을 다해 싸우다가 날랜 말을 타고 몰래 뒷재를 넘어 먼저 상봉(上峯)을 점거하였다. 화살이 비 오듯 쏟아지는데, 공이 급히 용사(勇士) 수백 명을 선발하여 앞을 다투어 올라가면서 말하기를, “지금 바로 충신이 보국(報國)할 때이다.” 하니, 전투에 임했던 군사가 모두 한 사람이 1백 명을 당해 냈다. (…)

공이 휘하의 기사(騎士) 수백 명과 더불어 수원(水原)에 이르렀으나 군사가 없는 것이 걱정되어, 남쪽으로 내려가 다시 군사를 모아 계책을 세우려 하였다. 그러나 감사(監司) 이시방(李時昉)이 오랑캐가 두려워서 전란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내심 부끄러워하고, 또 절도사(節度使 공을 가리킴)의 공을 시기하여 이간하는 말로 계문(啓聞)하였고, 종사 박서(朴遂)도 마음속으로 자기의 말을 따르지 않은 것을 노여워했던 터라 상(上)에게 험뜯는 말을 하였다. 공이 죄를 받게 되자 대신(大臣) 이성구(李聖求), 최명길(崔鳴吉)이 승전한 상황을 극론하면서 아뢰기를, “공(功)은 많지만 실로 죄는 없습니다.” 하였다. 이 때문에 이시방이 귀양 가고, 공은 벗어났다. (…)

(…) 受命十三日.至龍仁光教山.據險而陣.諸勤王之師皆已敗沒.湖南兵獨專.薄南漢以爲聲勢.出勁兵.擊破虜遊騎.斬馘甚多.虜患之.合蒙古孔耿兵數萬.乘曉霧直前.欲一擊破之.勢若風雨.公杖劍誓衆.立矢石之所.以示必死.士皆殊死戰.虜且進且却.終日力鬪.虜以輕騎.潛踰後嶺.先據上峯.矢下如雨.公急出勇士數百.爭登曰.此正忠臣報國之秋也.薄戰士皆一當百虜有被甲執旗.(…) 公與麾下騎士數百.至水原.患無兵.欲南下更收兵爲後計.監司李時昉畏胡不赴亂.心內慙忌節度之有功.反辭以聞.從事邈既心怒不從己言.亦毀於上.公當得罪.大臣李聖求.崔鳴吉極言戰捷狀曰.功多實無罪.以故時昉竄.公得免.(…)

허목(許穆), <미수기언(眉叟記言)>, 기언 별집 제17권 구묘문(丘墓文), 贈左贊成金公神道碑銘>

정치/인물

백홍제(白弘梯)는 관향이 수성(隋城, 수원)이다.

백홍제(白弘梯)는 관향이 수성(隋城, 수원(水原))으로 그 선대에 드러난 사람이 많다. 백인호(白仁豪)와 백인걸(白仁傑)은 모두 중종(中宗), 명종(明宗) 사이에 벼슬살이 했다. 백인호는 아경(亞卿 참판을 말함)이 되었고, 인걸은 선조(宣祖)에 이르기까지 섬겨 사재(四宰 우참찬의 별칭)가 되었다. 백인호에게는 다섯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작은아들 백유양(白惟讓)이 또 조정에 드러났는데, 기축옥사(己丑獄事)로 그 집안이 멸족을 당하였다. 조카 백천민(白天民)은 고향을 떠나 진주(晉州) 남쪽 경계에 살고 있으면서 칭찬을 받았는데, 갑자기 일찍 죽었다. 백천민의 아들 백홍제(白弘梯)는 성품이 남에게 매이기를 싫어하고 지략(智略)이 많고 용기가 있다고 자부하고 협기(俠氣)를 좋아하여, 의로운 일이라고 들으면 죽음을 피하지 않으며 악한 일을 보면 반드시 원수로 여겼기에, 그 고장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꺼렸다. (…)

白弘梯隋城人.其先代多顯入.有仁豪, 仁傑.皆仕中, 明間.仁豪爲亞卿.仁傑及事宣廟.爲四宰.仁豪有子五人.其少子惟讓.又顯於朝.當己丑獄.其家既滅死.有從子天民.淪落晉之南境.有佳譽卒早死.天民子弘梯.性不羈多智略.以勇強自負.好俠氣.聞義不避死.見惡必讎之.鄉人畏憚之.(…)

허목(許穆), <미수기언(眉叟記言)>, 기언 별집 제14권 잡저(雜著), 義烈傳>

정치/인물

김수인(金壽仁)은 통정대부 수원부사(水原府使)를 지냈다.

(…) 문충공의 막내아들 휘 광현(光炫)은 이조 참판을 지냈으며 충후(忠厚)하고 정직하여 집안의 대를 잇기에 충분하였는데, 이분이 군의 조고이다. 고(考)는 휘 수인(壽仁)으로, 통정대부 수원 부사(水原府使)를 지냈고, 비(妣)는 창녕 성씨(昌寧成氏)로, 현감 홍헌(弘憲)의 딸이자 좌의정 둔재(遯齋) 세창(世昌)의 후손이다. (…)

(…) 文忠公季子諱光炫.官吏曹參判.忠厚正直.克世其家.是爲君祖考.考諱壽仁.通政大夫水原府使.妣昌寧成氏.縣監弘憲之女.左議政遯齋世昌之後也.(…)

김창협(金昌協), <농암집(農巖集)>, 제28권 행장(行狀), 成均進士金君行狀>

정치/인물

공은 수원 부사(水原府使) 휘 수인(壽仁)의 맏아들이다.

(…) 공의 자(字)는 제이(際而)로, 문충공의 막내아들 이조 참판 휘 광현(光炫)의 손자이자, 덕산공의 형 수원 부사(水原府使) 휘 수인(壽仁)의 맏아들이다. (…)

(…) 公字際而.文忠公季子吏曹參判諱光炫之孫.德山公兄水原府使諱壽仁之長子.(…)

김창협(金昌協), <농암집(農巖集)>, 제28권 묘갈명(墓碣銘), 孝子贈吏曹參判成均進士金公墓碣銘 并序>

정치/인물

김창협(金昌協)이 8월에 우재 선생을 수원(水原)에서 뵈었다.

(…) ○ 8월에 우재 선생을 수원(水原)에서 뵈었다.

(…) 甲寅 先生二十四歲.(…) 八月.拜尤齋先生于水原.(…)

김창협(金昌協), <농암집(農巖集)>, 부록(附錄) 연보상(年譜上), 갑인년(1674) 선생 24세>

정치/인물

공은 수원 부사(水原府使) 휘 수인(壽仁)의 맏아들이다.

(…) 공의 자(字)는 제이(際而)로, 문충공의 막내아들 이조 참판 휘 광현(光炫)의 손자이자, 덕산공의 형 수원 부사(水原府使) 휘 수인(壽仁)의 맏아들이다. (…)

(…) 公字際而.文忠公季子吏曹參判諱光炫之孫.德山公兄水原府使諱壽仁之長子.(…)

김창협(金昌協), <농암집(農巖集)>, 제28권 묘갈명(墓碣銘), 孝子贈吏曹參判成均進士金公墓碣銘 并序>

정치/인물

수원(水原)에 우재(尤齋)의 사우(祠宇)를 건립하는 일에 대한 통문¹⁸⁹⁾

우재 송 선생(宋先生)이 별세하신 뒤로 벌써 여섯 번이나 해가 바뀌었다. 사림(士林)의 애통한 심정과 추모의 정은 갈수록 깊어지는데 큰 화를 겪은 뒤라 정론(正論)이 막히고 퍼지지 못하여 지금까지 제사를 받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나 다행인가. 하늘의 태양이 다시 밝아지고 세도(世道)가 새로워져, 조정에서 이미 선생을 불쌍히 여기고 표창하기를 완전하고 융숭하게 하여 여한이 없게 되었다. 사림들은 마땅히 선생을 높이 떠받들어야 할 것이니, 선생의 높은 학덕을 사모하는 뜻을 불일 사우의 건립 또한 하루도 미룰 수가 없다. 수원 만의촌(萬義村)은 선생이 묻힌 곳이자 평소에도 왕래가 많았던 곳으로 선생의 유풍(遺風)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으니, 제사를 받들 곳으로는 이보다 나은 곳이 없다. 이에 근기(近畿)

189) 수원(水原)에 …… 통문 : 작자의 나이 44세 때인 1694년(숙종20)의 작품으로 보인다.

의 선비들이 이미 연명으로 조정에 글을 올려 사우 건립을 명해 주십사 청하고 이제 길일을 잡고 재목을 모아 공역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

尤齋宋先生之棄後學. 今已六易歲矣. 士林之哀痛追慕. 愈久愈深. 而大禍之餘. 正論鬱而不伸. 俎豆之奉. 至今缺焉. 何幸天日重明. 世道更新. 而朝家之於先生. 所以愍恤褒寵. 既備且隆. 靡有遺憾. 其在士林. 所當致其崇奉而寓高山景行之慕者. 亦不容於一日緩也. 水原之萬義村. 卽先生衣履之藏. 而平昔杖屨往來. 亦多在此. 其遺馥餘韻. 尙有未沫. 俎豆之地. 宜莫先於此. 近畿多士. 既已合辭上章. 請命于朝. 今將涓日鳩材. 以治事役.(…)

김창협(金昌協), <농암집(農巖集), 제26권 잡저(雜著), 水原尤齋祠宇營建通文>

정치/인물

김창협(金昌協)이 11월에 수원(水原) 만의촌(萬義村)에 가서 우재(尤齋) 선생의 개장(改葬)을 보았다.

(…) ○ 11월에 수원(水原) 만의촌(萬義村)에 가서 우재(尤齋) 선생의 개장(改葬)을 보았다. 제문(祭文)을 지어 올렸는데, 그 끝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筭疑)》를 엮으신 일은 후세에 영원토록 은덕을 끼치신 것인데, 선군자가 이미 일찍이 선생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그 내용을 상의하여 바로잡았고, 어리석은 소자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

(…) 十一月. 往水原萬義村. 觀尤齋先生改葬. 爲文以祭. 其末有曰. 筭疑之編. 所以垂百世之嘉惠. 先君子既嘗往復商訂. 而小子愚蒙. 亦得與聞其終始.(…)

김창협(金昌協), <농암집(農巖集), 부록(附錄) 연보하(年譜下), 甲戌先生四十四歲>

정치/인물

수원의 관청 및 군영의 분위기를 읊은 내용.

살랑바람 길손 길 날이 저문데 / 客路輕風暮
관가 누각 단청한 기둥이 밝네 / 官樓畫棟明
지난날 마을 주막 길이 아련코 / 閭閻迷舊店
새 진영 고각소리 웅장하여라 / 鼓角壯新營
객창의 잠자리에 성주 그리고 / 旅宿懷明主
편히 사는 시골의 백성 부러워 / 安居羨野氓
주구를 가까이서 우러러보니 / 珠丘瞻密邇
승냥이 범 어찌 감히 밟을까보냐 / 豺虎敢縱橫
정약용(丁若鏞), <다산시문집, 제1권 시(詩), 暮次水原>

정치/인물

충헌공이 수원부 북쪽이 길지이라고 했다는 점과 정조가 수원에 시읍을 경영하면서 윤씨에게 집을 하사했다는 내용.

(…) 기유년(1789, 정조 13) 여름에 우리 장헌세자(莊獻世子)를 수원부(水原府) 북쪽에 개장(改葬)하려 하였는데, 사람들이 길지(吉地)라고 일컬었다. 이것은 충헌공(忠憲公)이 일찍이 효종(孝宗)의 장지(葬地)로 천거한 터이다. 주상이 바야흐로 옛날 일을 생각하므로, 주서(注書) 심규로(沈奎魯)가 공을 천거하여 가주서(假注書)로 삼았는데, 서전(西銓 병조(兵曹))이 또 군직(軍職)을 임명하지 않았다. 주상의 책유(責諭)가 매우 엄하여 그날 밤으로 전관(銓

官)을 불러 임명하도록 하였다. 10월에 현릉원(顯隆園)에 장사를 마쳤다. 그 이듬해 경술년(1790, 정조 14) 여름에 공이 죽포(竹圃) 심규(沈逵)의 집에 사관(舍館)을 정하였다. 공을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으로 특별히 제수하고, 이튿날 경모궁 영(景慕宮令)으로 제수하고 또 그 이튿날 병조 좌랑에 제수하였다. (…)이보다 앞서 주상이 수원(水原)에 신읍(新邑)을 경영하면서 윤씨에게 집 한 채를 하사하여 충헌공(忠憲公)의 자손이 살도록 하였는데, 을묘년(1795, 정조 19) 겨울에 공이 이 집으로 옮겨 살았다. (…)

(…) 己酉夏.將改葬我莊獻世子于水原府北.人稱吉岡.是唯忠憲公之所嘗薦于孝宗之葬者也.上方感念舊事.而注書沈奎魯引公爲假注書.西銓又不付軍銜.上責諭頗嚴.卽夜召銓官付之.冬十月旣葬顯隆園.厥明年庚戌夏.公館于竹圃沈逵之家.特除公成均館典籍.明日除景慕宮令.又明日除兵曹佐郎.(…) 先是上營新邑于水原.賜尹氏第一區.以居忠憲公子孫.乙卯冬.公徙居于此.(…)

정약용(丁若鏞), <다산시문집, 제16권 묘지명(墓誌銘), 南臯尹參議墓誌銘>

정치/인물

정약용이 지은 윤규응(尹奎應)의 묘지명으로, 1789년(정조 13) 장헌세자의 묘소를 이장하고 현릉원으로 하였다는 내용.

(…) 기유년(1789, 정조 13) 겨울에 우리 정종대왕이 수원부(水原府) 북쪽에 장헌세자(莊獻世子)를 개장(改葬)하고 현릉원(顯隆園)이라 개호(改號)하였다. 충헌공이 옛날에 이 언덕에 효종의 능을 의논한 적이 있었으므로 주상이 바야흐로 먼 옛날의 일을 생각함이 있었다. 군이 이때에 서울에 노닐었는데, 내가 군에게 북한 승방(北漢僧房)에서 독서하기를 권하였다. (…)

(…) 己酉冬.我正宗大王改葬莊獻世子於水原府北.改號曰顯隆園.忠憲公昔嘗有議於斯丘.故上方曠然有思.君以此時游京師.余勸讀書于北漢僧房.(…)

정약용(丁若鏞), <다산시문집, 제16권 묘지명(墓誌銘), 司憲府持平尹无咎墓誌銘>

정치/인물

남고(南臯) 윤지범(尹持範)이 화성(華城)에서 대릉(大陵)으로 가겠다는 내용.

들으니 남고(南臯 윤지범(尹持範)의 호)께서 어제 저녁에 화성(華城) 수원(水原)의 별칭)으로 부터 와서 곧장 대릉(大陵)으로 가 주무셨다고 하는데 오늘까지도 우리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으니 그분이 이처럼 변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마땅히 겸손한 언사와 후한 폐물로 대접해야 하고 어른을 성죄(聲罪)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타고 오실 말을 보내려 하는데 그 분은 잘 달리는 말을 싫어하는 성품이니 이 종아이를 시켜 느림보 말을 끌고 가서 모셔 오게 하십시오.

聞南臯昨夕自華城至.直走大陵宿.今日亦不令吾輩知.不意此公變味如此.雖然吾輩且當卑辭厚幣.不宜聲罪長者.方謀送騎.而此公性厭駿馬.須令此奚牽子往邀之.

정약용(丁若鏞), <다산시문집, 제18권 서(書), 與韓僉父>

정치/인물

이공(李公)이 수원(水原)으로 돌아가서 강도로 들어갔다는 내용.

(…) 오랑캐의 기마부대가 갑자기 압록강(鴨綠江)을 건너서 며칠 만에 서울을 압박하니 병자년(1636) 12월 14일에 서울을 떠나는 대가(大駕)가 장차 강화도(江華島)로 가기 위하여 남대문(南大門)에 도착하였을 때에 선두의 적이 이미 근교에 닥쳐왔다는 소문을 듣고 대가

가 경향이 없어 동문(東門)을 나와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 군이 서문 밖에 있다가 변고를 듣고 달려갔더니 대가는 이미 나가고 문이 닫혀 버렸다. (...) 이른바 화친이라는 것이 우리를 어리석게 보고 먹어 치우려고 한 것인 줄을 일찍이 알지 못하였다. 강화도로 옮기려는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자, 군이 산성을 바라보고 통곡을 하면서 들어가려고 한 것이 여러 번이었으나 오랑캐들이 이미 성 아래를 지키고 있었다. 군이 생각하기를, “이미 산성에 들어갈 수 없다면 강도에도 종묘사직의 신주(神主)가 있으니 이곳을 죽을 곳으로 삼는 것도 잘못된 계획은 아니다.”라고 여기고 수원(水原)으로 돌아가서 강도로 들어갔으니 이는 그 형편이 부득이했기 때문이다. (...)

(...) 虜騎飄忽渡鴨江.數日已迫畿輔.丙子十二月十四日.去邠之駕.將向江都.到南大門.聞前鋒已逼近郊.大駕蒼黃出東門.入南漢山城.君居在西門外.聞變馳入.則大駕已出而門閉矣.(...) 曾不知所謂和者.乃愚我而陷之也.移駐之計.不果成.君痛哭望山城.欲入者屢矣.而虜騎已充斥於城之下矣.君以爲既不得入山城.則江都亦廟社主所在.以此爲死所.未爲非計也.於是轉向水原.入江都.此其勢之不得已者也.(...)

정온(鄭蘊), <동계집(桐溪集) 제4권 묘지(墓誌), 奉常寺正李公墓誌銘 并序 >

정치/인물

수원의 무봉산에 있는 만의사에 부도를 세워 선화당대사의 사리(舍利)를 안치하였다는 내용. 대사는 광주인(廣州人)으로, 성은 이씨(李氏)이고, 이름은 경림(敬琳)이다. 만력(萬曆) 병인년【아마도 잘못된 것인 듯하다.】에 출생하였다. 16세 때 출가(出家)하여 78세에 입적(入寂)하였다. 스승은 서산대사(西山大師)의 제자인 송운대사(松雲大師)이다. 본래의 성품이 총명하고 지혜로웠으며, 계율을 지킴이 엄하고 근실하였다. 이에 원근에서 풍문을 듣고 찾아오는 자들이 아주 많았다. 죽음에 미쳐서는 제자인 지해(智海)와 보응(寶應) 등이 수원(水原)의 무봉산(舞鳳山)에 있는 만의사(萬義寺)에 부도(浮圖)를 세워 사리(舍利)를 안치하였다. 만의사에는 6기(基)의 부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 부도는 고려 말의 선사인 봉리군(奉利君) 신조(神照)¹⁹⁰의 부도이며, 대사에 이르러서 7기가 되었다. 제자들이 또 비석을 세우고는 나에게 와서 명을 지어 주기를 청하였다.

김세렴(金世濂), <동명집(東溟集), 제16권 비갈(碑碣), 선화당대사의 비문(禪華堂大師碑文)>

정치/인물

이한(李攔)은 호조 참의를 거쳐 현재 수원 부사로 있다는 내용.

(...) 연양부원군은 3남 2녀를 두었다. 아들은 이흔(李忻)·이한(李攔)·이열(李悅)로, 이흔은 동지중추부사이고, 이한은 호조 참의를 거쳐 현재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있으며, 이열은 군수이다. 장녀는 김련(金鍊)에게 시집갔고, 차녀는 진사 조내양(趙來陽)에게 시집갔다. 내외의 손과 증손은 모두 59명인데, 친손자가 없으므로 이열이 운구의 뒤를 이어 외손으로서 제사를 받든다. (...)

190) 신조(神照) : 고려 말의 천태종(天台宗) 승려로, 공민왕의 총애를 받아 궁중에 자유로이 출입하며 왕실과 국가의 복을 비는 대법회를 주관하기도 하였다. 공양왕 때에는 공패(功牌)를 내리고 노비와 땅을 하사하여 수원 만의사에 주지로 있게 하였다. 1387년(우왕13)에 요동을 정벌할 때에는 이성계(李成桂)를 따라 종군하여 회군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그 뒤에 태조를 따르게 되자, 사냥하는 데나 전진(戰陣)에나 항상 따라다녔는데, 자신은 비록 고기를 먹지 않았지만, 태조에게 음식을 드릴 때마다 손수 고기를 베어서 요리하였다. 개국 후에 봉리군(奉利君)에 봉하여졌다. 《龍飛御天歌》

김세렴(金世濂), <동명집(東溟集), 제16권 비갈(碑碣), 繕工監奉事贈兵曹參判尹公墓銘>

정치/인물

이곡이 지은 조공탁(趙公卓)의 묘영기로, 뒤에 수원부 용성현에 옮겨 살았다는 내용.

(…) 낭중공의 휘(諱)는 공탁(公卓)으로 고려 순창군(淳昌郡) 사람이다. 뒤에 인척을 따라 수원부(水原府) 용성현(龍城縣)에 옮겨 살았다. 나이 64세인 연우(延祐) 기미년에 집에서 죽자 곧 장사하였다. 부인 김씨는 요양현군(遼陽縣君)으로 봉하였는데, 우리 나라 풍속인 음양가(陰陽家)의 법으로 별도로 장사하였다. (…)

(…) 郎中公諱公卓.高麗淳昌郡人.後從姻婭.移居水原府之龍城縣.年六十四延祐己未.卒于家而因葬之.(…)

이곡(李穀), <동문선(東文選), 제71권 기(記), 大元贈奉訓大夫遼陽等處行中書省左右司郎中飛騎尉遼陽縣君趙公墓瑩記>

정치/인물

하륜이 수원부사 이사군(?)이 보여준 동행록에 써준 서문.

수원(水原) 이사군(李使君)이 나의 우사(寓舍)로 찾아와서 <동행록(東行錄)>을 보여 주기에 나는 자세히 보았다. 을해년 5월에 이군(李君)이 유일(遺逸)로서 조정의 등용을 입어 울주 지사(蔚州知事)가 되어 그 고을에 부임하자, 농사를 장려하고 군대를 훈련하며 성곽과 요새를 수리하고 만일에 대비하게 하였더니, 그 이듬해 11월에 왜구가 그 지경(地境)에 이르러서도 감히 침입하지 못하고 장기(長鬐)로 침입하여 영해(寧海)로 해서 울진(蔚珍)까지 이르니, 임금이 명령하여 문하 우정승(門下右政丞) 김공(金公)으로 도통처치사(都統處置使)를 삼아 여러 도(道)의 군사를 징집하여 수로와 육로로 한꺼번에 진격하게 하였다. (…)

水原李使君.過予寓次.示以東行錄.予謹詳之.歲 乙亥夏五月.李君以遺逸.被廷舉.知事蔚州.既到官.勵農訓兵.修城塹謹烽燧.以備不虞.明年冬十一月.倭寇至其境.不敢入.乃侵長鬐.以至寧海.以及于蔚珍.上命門下右政丞金公.爲都統處置使.徵諸道兵.水陸俱擊之.(…)

하륜(河崙), <동문선(東文選), 제93권 서(書), 贈李府使詩序>

정치/인물

권제가 연정(蓮亭)에 대한 서문으로 조극관, 권극화, 김돈 등과의 일화 및 조극관 부자가 수원가 대를 이어 부사가 된 일화를 기술한 내용.

갑오년(1414) 봄에 내가 지금의 부사 조공 극관(趙公克寬)과 사인(舍人) 권공 극화(權公克和)와 장흥 부사 김공 돈(金公敦)이 함께 예조(禮曹)에서 치르는 시험에 떨어지자, 남쪽으로 떠나서 이곳에 이르러 이 정자에 올라 나와 정자의 좋은 경치를 즐겼다. 아름다운 흥취를 말로 다하고자 하여 “훗날 가랑비가 자욱하고 눈보라가 휘날리고, 맑은 달빛은 발 안에 들어오며 연꽃 향기가 자리에 가득하면, 이런 때에 한 방면을 내려다 보며 두세 친구와 더불어 이 정자 위에서 읊조리면 오늘 이 걸음을 보상할 수 있겠다.” 했더니, 여러 친구가 웃으며, “무슨 말이 그토록 질서가 없는가. 비가 자욱하다면 눈보라가 휘날리지 않을 것이며, 비와 눈이 뒤섞여 날린다면 달이 밝을 수가 없을 것이 아닌가. 게다가 연꽃 향기를 무슨 수로 눈 속에서 얻겠는가.” 하니, 내 다시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 뒤로 제공(諸公)이 모두 대과(大科)에 합격하여 내직과 외직을 역임하였고, 나 또한 재주도 없이 여러 친구의 뒤를 따라 벼슬하게 되어 혹시 모아서 이야기할 때면 반드시 이 일을 말하여 서로가 크게 웃곤 하

였다. 올봄에 내가 외람되이 성은을 입어 관찰사를 맡게 되자, 조공이 와서 전별하며 술잔을 잡고 앞에 나와 “수원의 눈 속 연꽃을 이제는 보게 되었다.” 고 하여 서로 웃었다. 그런 지 두 달이 못 되어서 조공이 사재감 정(司宰監正)으로 수원부를 다스리게 되었다. 내려온 지 사흘 만에 내가 순행을 나와 맞이하는 예를 마치고 정자에 올라 앉으니 조공이 뒤따라 들어왔다. 때마침 연꽃이 만발하여 서로 돌아보고 눈길이 마주치자 말없이 웃었다. 아, 과거에 낙방했던 그때 시름과 답답함에 겨워 말 한 마리와 종 하나를 데리고 나그네 길을 헤매던 물결은 지금까지도 추억이 뚜렷한데, 어찌 공이 높은 벼슬에 뽑혀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붉은 깃발과 검은 일산을 휘날리며 이곳에 부임할 줄을 알았으며, 더구나 보잘것없는 내가 관찰사가 되어 풍속을 관찰하며 관원의 임면권을 쥔 채 다시 공과 여기서 만날 줄을 생각이나 했겠는가. 이는 하늘이 돕고 신령이 돌보아 우리의 공상을 애처롭게 여겨 모르는 가운데 그런 말을 하게 한 것이 아닌가. 그 말이 질서가 없었던 것도 역시 몰래 시킨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웃음거리가 되어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는 이런 무질서한 말이 이처럼 들어맞을 수 있겠는가. 이는 쓰지 않을 수 없기에 시 한 수를 지어 적어 놓는다. 당시에는 공의 존대인(尊大人)이 이 고을을 다스렸는데 10여 년 사이에 부자(父子)가 서로 이어 이 고을을 다스리게 되었으니, 이 또한 세상에 드문 일이라 또 적어둔다.

甲午春.僕與今府使趙公克寬, 舍人權公克和, 長興府使金公敦.俱下禮闈.南遊到此.坐于此亭之上.僕樂亭之勝槩.欲極言佳趣.乃曰.後之日.細雨濛濛.飛雪霏霏.而明月入簾.荷香滿座.當此之時.俯視一方.與二三子.嘯咏於斯亭之上.亦足以償今日之行矣.諸公笑曰.言何不倫之甚乎.雨既濛濛.雪不當霏霏.雨雪交作.月不當明矣.荷香又豈雪中得乎.僕亦無以應之.厥後諸公.俱擢巍科.歟歷中外.而僕亦以不才.廁於諸公之後.或時會語.必及此事.相與大笑.今年春.僕濫荷聖恩.承乏監司.趙公來餞.執爵而前曰.水州雪中荷花.今可賞矣.與之相咲.不數月.公以司宰監正.出守是府.既下車三日.僕來巡禮訖.就坐亭上.公入謁.適荷花盛開.顧瞻相目.不言而咲.吁.方其點額龍門.憂愁鬱悒.而單童匹馬.羈旅困頓之狀.至今思之可想.豈復知公.以搢紳高選.特承綸命.朱幡阜蓋.來蒞于茲.又豈知僕以孤陋猥瑣之資.杖鉞觀風.專於黜陟之權.而復會公於此哉.是必天同神比.哀吾儕之窮.默誘而發此言乎.其言之不倫.亦必陰使之.故爲可咲.使久而不忘乎.不然.何不倫之言.驗之若是也耶.是不可不忘.故作詩一絕書于後.而于時公之尊大人.蒞政于此.十有餘年間.父子相繼蒞政于一府.亦稀世事也.是又可書也.

권제(權躋), <동문선(東文選), 제94권 서(序), 水原蓮亭詩序>

정치/인물

최해가 지은 전백헌의 묘지로, 전백헌이 수원부사를 역임했다는 내용.

(…) 신해년에 나가 김해 지부(金海知府)가 되었으며, 다음해에 성안부(成安府)로 옮겨지고, 또 2년 만에 수원부(水原府)로 옮겨졌다. 연우(延祐) 갑인년(충숙왕 1년)에 사헌 장령으로 불러들였으며, 헌부·선부(選部)의 의랑으로 전직되었다. (…)

(…) 辛亥出知金海府.明年移成安府.又二年移水原府.延祐甲寅.以司憲掌令召.轉讞部選部議郎.(…)

최해(崔澐), <동문선(東文選), 제124권 묘지(墓誌), 全柏軒墓誌>

정치/인물

김흥조(金興祖)가 수원(水原)·해주(海州)의 부사(府使)를 역임하다.

(…) 공은 문하평장사(門下平章事) 시호 양간공(良簡公) 김승택(金承澤)의 딸을 아내로 맞

아 자녀 둘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은 흥조(興祖)로 성격이 쾌활하며 큰 뜻이 있었고, 벼슬이 중현대부 군기감(中顯大夫軍器監)에 이르렀으며, 수원(水原)·해주(海州)의 부사(府使)를 역임하여 치적이 매우 현저하였으나, 취성(鷲城 신돈)의 손에 죽어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 (…)

(…) 公娶門下平章諡良簡金公 諱承澤之女.生子二人.男曰興祖倜儻有志.官至中顯大夫軍器監.歷使水原, 海州.政績頗着.死於 鷲城之手.人至今憐之.(…)

이색(李穡), <동문선(東文選), 제127권 묘지(墓誌), 松堂先生金公墓誌銘>

정치/인물

강석덕이 지은 심덕부의 행장으로, 1364년(공민왕 13) 심덕부가 수원 부사가 되었다는 내용. 공은 휘(諱)는 덕부(德符)요, 자는 득지(得之)이다. (….) 17세 되던 충목왕 원년 음사(蔭仕)로 좌우위녹사참군(左右衛錄事參軍)을 제수하고, 공민왕 8년 무술에 중랑장으로 올라 합문인진부사(閤門引進副使)를 겸직하고, 임인년에 봉선대부합문부사(奉善大夫閤門副使)에 오르고, 계묘년에 봉상대부 전공총랑(奉尙大夫典工總郎)이 되고, 이 해에 중현대부 소부윤(中顯大夫少府尹)에 제수되었다. 갑진년에 수원 부사를 원하여 나갔더니, 안렴사가 이 고을을 순시할 때에 공이 들어가 보려는데, 안렴사가 바지를 입지 않은 것을 보고 문득 물러나왔다. (…)

公諱德符字得之.(…) 行年十七.忠穆王元年甲申.以門蔭授左右 衛錄事參軍.恭愍王八年戊戌.陞爲中郎將兼閤 門引進副使.壬寅陞奉善大夫閤門副使.癸卯遷 奉常大夫典工總郎.是年授中顯大夫少府尹.甲 辰乞水原府使.廉使行郡.公將入參.見使不褫.使退.(…)

姜碩德, <동문선(東文選), 권117 행장, 特進輔國崇祿大夫靑城伯沈公行狀>

정치/인물

윤준(尹淮)이 지은 하륜의 묘지명으로, 하륜이 1397년(태조 6) 7월 수원부에 안치되었다는 내용.

(…) 정축년 정월에 정도전이 군대를 일으켜 국경을 나갈 것을 의논하려 하면서, 공을 꺼려 계림부윤으로 내보냈더니, 그 해 봄에 왜주(倭酋) 몇 명이 무리를 거느리고 경상도에 와서 항복할 것을 청하므로 4월에 공이 관찰(觀察)·절제(節制) 제공과 더불어 이 일을 처리할 것을 의논하였더니, 의논을 주장한 자가 실책하여 왜주가 도망갔다. 6월에 공 등을 체포하여 순군(巡軍)에 치대(置對)하였고, 7월에 수원부에 안치되었고, 10월에 풀려나고, 무인년 7월에 충청도 도관찰사가 되었다. (…)

(…) 丁丑正月.鄭道傳議舉兵出疆.忌公出爲雞林府尹.其春倭酋數人率衆至慶尙請降.四月公與觀察 節制諸公.議所以處置者.主議者失策.倭酋逸去.六月逮公等于巡軍置對.七月安置水原府.十月 得自便.戊寅七月.拜忠淸道都觀察使.(…)

윤준(尹淮), <동문선(東文選), 권129 묘지명, 有明朝鮮國奮忠仗義同德定社佐命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晉山府院君修文殿大 提學領經筵春秋館書雲觀事世子師諡文忠河公墓誌銘 并序>

정치/인물

이후원(李厚源)이 수원방어사에 제수되었으나, 병으로 부임하지 못하였다는 내용.

(…) 기묘년(1639, 인조17)에 다시 동부승지가 되고 순서에 따라 승진하여 우승지에 이르렀다. 조금 뒤에 수원방어사(水原防禦使)에 제수되었으나, 병으로 부임하지 못하였다. (…)

(…) 己卯.復爲同副.序陞至右.俄授水原防禦使.病不赴.(…)

송준길(宋浚吉), <동춘당집(同春堂集), 제18권 묘표(墓表), 右議政完南府院君李公墓表>

정치/인물

1668년(현종 9) 송준길이 윤문거와 윤선거에 답장한 내용으로 아우가 병에 걸려 수원에 있다는 내용.

(…) [문] 중형(仲兄)은 성상의 거동이 결정되기 전에 이미 정순(呈旬 휴가를 얻음)하였기에 지금 내려오셨으나, 조카 진(摺)은 기도수영(畿都守營)으로, 경교(敬敎)는 유도대간(留都臺諫)으로 모두 관직에 매여 움직일 수 없는 형편이니, 와서 참여할 수 없는 자질(子姪)은 출관(出棺)하고 하관(下棺)하는 시간에 소복을 입고 망곡례(望哭禮)를 거행해야 합니까? 나의 아우 시거(時舉)도 병에 걸려 수원(水原)에 있으므로 와서 참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도 시복(總服)을 입고 망곡하는 예에 따라 구묘를 파광(破墳)하는 시간에 성복(成服)해야 합니까?【《상례비요》에 “복을 벗을 때 허위(虛位)를 설치해 고하고서 복을 벗는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성복할 때에도 허위를 설치해야 합니까?】 [답] 주신 편지의 말씀이 옳은 듯합니다. (…)

(…) 問. 仲兄已呈旬於行幸之前. 故今方下歸. 而摺姪以畿都守營. 敬敎以臺官留都. 俱係官守. 勢不得動. 子姪之不能來參者. 於出柩下窆之時. 有素服望哭之舉耶. 賤弟時舉. 在水原嬰疾. 亦恐不能來參. 如此者. 亦當制總服望哭. 成服於破舊墳之時耶. 備要. 除服時. 謂當設虛位而除之. 然則成服時. 亦當設位耶. (…)

來敎恐然.

송준길(宋浚吉), <동춘당집(同春堂集), 별집 제5권 서(書), 答尹汝望文舉吉甫宣舉○戊申>

정치/인물

송준길이 지은 정경세(鄭經世)의 연보로, 수원에 도착하여 호소사(號召使)로 삼은 명이 있다는 내용.

○ 선생의 나이 65세였다. (…)

○ 경인일에 수원(水原)에 도착하여 호소사(號召使)로 삼은 명이 있었음을 들었다.

○ 임진일 아침에 입궐하여 숙배하였다. 인견하는 자리에 입시하였다. 저녁에 또 인견하는 자리에 입시하였다. 【이날 세자가 분조(分朝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조정을 둘로 나누는 것)하여 남쪽으로 내려갔다.】

(…) 丁卯天啓七年. 今上五年 先生年六十五歲. (…)

○ 庚寅. 到水原. 聞有號召使之命. ○ 壬辰. 朝詣闕肅拜. 引見入侍. 夕. 又引見入侍. 是日. 世子分朝南下.

송준길(宋浚吉), <동춘당집(同春堂集), 별집 제7권 연보(年譜), 丁卯天啓七年. 今上五年>

정치/인물

최익현이 제주도로 유배가는 길에 수원(水原)에 이르렀다는 내용.

(…) 출발하여 수원(水原)에 이르니 판관 정광시(鄭光始)가 점심을 내었고 천안(天安)에 이르니 군수 이항신(李恒信)이 조반을 냈다. 유관오(柳官五) 노인이 돈 3냥과 약 10첩을 주었고, 태인(泰仁)에 이르니 현감 조중식(趙重植)이 점심을 대접하였다. 정읍(井邑)에 이르니 현감 장복원(張福遠)이 두세 번 아전을 보내어 안부를 물었고, 장성(長城)에 이르니 부사(府使) 정선시(鄭善始) 고상(故相) 만석(晩錫)씨의 손자 가 이틀 동안 조반과 석찬을 대접하였다. (…)

(…) 行至水原.判官鄭光始.饋點心.至天安.郡守李恒信.饋朝飯.柳老人官五.致三兩錢十貼藥.至泰仁.縣監趙重植饋點心.至井邑.縣監張福遠.再三遣吏存訊.至長城.府使鄭善始.故相晚錫氏孫.饋兩日朝夕.(…)

최익현(崔益鉉), <면암집(勉菴集), 제16권 잡저(雜著), 耽謫顛末 癸酉>

정치/인물

조계원이 김중일(金重鎰)을 수원부사로 추천했다는 내용.

(…) 조공 계원(趙公啓遠)이 평소 공을 능력 있는 인물로 여겼는데, 공이 창원(昌原) 수령으로 있을 때 조공이 경상 감사였다. 함안(咸安)에 큰 송사(訟事)가 있어서 오랫동안 판결이 나지 않자 공에게 맡겼는데, 공이 전후의 문안(文案)에 의거하여 사리의 옳고 그름을 분석하여 보고하니, 조공이 “명쾌하기가 구름과 안개를 걷어 내고 푸른 하늘을 보는 것 같다. [快若披雲觀天]” 라고 적었다. 뒤에 한번은 웃으면서 말하기를, “지난번 수원(水原)에 수령 자리가 비어서 내가 공을 추천했는데 호응하는 자가 없었다. 수령 한 사람이 호응하여 말하기를, ‘성품이 순박하고 신중하니 말을 만하다. 공의 순박하고 신중한 성품은 알지만 그 밖의 것은 모른다.’ 하였다. 이것은 공이 교유(交遊)가 적은 결과이다.” 하였다. (…)

(…)趙公啓遠.素器公.公在昌原時.趙公按嶺南.咸安有大訟.久不決歸於公.公據前後文案.分析曲直以報.趙公題以快若披雲觀天.後嘗笑謂曰.頃水原缺倅.吾薦公無應者.有一幸云.淳謹可任.徒知公之淳謹.而不知其他.此公不事交遊之致也.(…)

윤증(尹拯), <명재유고(明齋遺稿), 제39권 묘갈명(墓碣銘), 刑曹參議金公墓碣銘>

정치/인물

1671년(현종12) 이상진(李尙眞)이 수원 부사(水原府使)에 제수되었다는 내용.

(…) 신해년(1671, 현종12)에 큰 기근이 들자 비국의 천망으로 수원 부사(水原府使)에 제수되었다. 공은 사직을 허락받지 못하자 말하기를, “백성들을 진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을에 부임하는 것은 옛사람도 면하지 못한 것이다.” 하고 마침내 부임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길에서 굶어 죽는 일이 잇달아 발생했는데 공이 정성을 다해 위무하고 봉급을 덜어 구제하였다. 농사짓는 자에게는 날마다 양식을 지급하여 백성들이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었으므로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송덕비를 세워 덕을 칭송하고 있다. (…)

(…) 辛亥.歲大飢.備局薦授水原府使.公辭不得曰.爲賑民.黽勉赴郡.古人所不免.遂赴任.時道殣相望.公竭誠撫綏.捐俸救濟.業農者計日給糧.民得以全活.至今不忘.豎石頌德.復除慶尙監司.以病辭.壬子.連拜諫長.右尹.禮曹參判.憲長.請暇省掃南歸.未幾.陞拜兵曹判書.連章力辭.終不許.十月.移判吏曹.連疏辭.(…)

윤증(尹拯), <명재유고(明齋遺稿), 제41권 신도비명(神道碑銘), 議政府右議政李公神道碑銘>

정치/인물

1680년(숙종 6) 이규령(李奎齡)이 수원 부사에 제수되었다는 내용.

(…) 경신년(1680, 숙종6)에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올랐다. 겨울에 내직으로 들어와 이조참의가 되었다. 최관(崔寬)이 황해도 관찰사로 재직할 때에 2명의 읍재(邑宰)를 파출하였는데, 모두 조정에 유력자를 배경으로 두고 있으면서 다스릴 능력은 없는 자들이었다. 공은 최관이 강어(強禦)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판단하여 간장(諫長)에 의망하였다. 아

전(亞銓)이 파출된 읍재의 동생으로서, 그것을 막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공이 한 이 일에 대해 사람들은 하기 어려운 행동이었다고 하였다. (…)

(…) 庚申.移水原府使.冬.入爲吏曹參議.崔寬按海西時.黜二邑宰.皆有力於朝.而無治能者.公以爲不畏強禦.擬諫長.亞銓者.其邑宰之弟也.欲尼之而不得.人以爲難.(…)

윤증(尹拯), <명재유고(明齋遺稿), 제42권 신도비명(神道碑銘), 刑曹判書李公神道碑銘>

정치/인물

윤증이 지은 박선(朴銑)의 행장으로, 수원(水原) 설창(雪倉)에 장사지냈다는 내용.

(…) 영인(令人) 안동 권씨(安東權氏)는 나의 외자(外姊)이다. 어려서 청숙(淸淑)하였는데, 권공이 《소학(小學)》과 《여계(女誡)》 등의 책으로 가르쳤다. 17세에 군에게 시집왔다. 피륙을 짜는 데에 부지런하였고 제수를 공경히 진설(陳設)하였으니, 군이 술 마시며 시문을 지으면서 즐겁게 지내고 집안일에 마음 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내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들 하나가 있으니 상순이고, 두 사위는 이홍(李泓)과 서종효(徐宗孝)이다. 영인은 군보다 먼저 졸하였다. 후취(後娶)인 영인 사천 목씨(泗川睦氏)는 사인 수익(壽益)의 따님이다.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두었는데 모두 어리다.

상순은 목사 서정리(徐正履)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았다. 이홍은 아들 셋을 낳았고, 서종효는 아들 하나와 딸 둘을 낳았다. 이홍과 박상순은 모두 임술년(1682, 숙종8)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군 자신은 여유롭지 못하였으니, 이것으로 미루어 자성(子姓)이 번성하고 또 영달할 것이라고 짐칠 수 있다. 군은 수원(水原) 설창(雪倉) 건좌(乾坐)의 언덕에 장사 지냈고, 권 영인(權令人)은 공의 왼쪽에 부장(附葬)하였다. (…)

(…) 令人安東權氏.我外姊也.幼淸淑.權公教以小學女誡諸書.十七.歸于君.勤於組織.敬於蘋藻.君得以娛情於文酒.不以家事留意者.以有內助也.有一男.卽尙淳.二女壻.曰李泓.徐宗孝.先君卒.後令人泗川睦氏.土人壽益之女.有一男一女.皆幼.尙淳娶牧使徐正履女.生二男一女.李泓生三男.徐宗孝生一男二女.泓與尙淳.俱中壬戌司馬.以君之不羸於躬.可卜子姓之蕃且顯也.君葬于水原雪倉坐乾之原.權令人附其左.(…)

윤증(尹拯), <명재유고(明齋遺稿), 제45권 행장(行狀), 司槩寺主簿朴君行狀>

정치/인물

윤증(尹拯)이 수원(水原)에 머물러 처분을 기다렸다는 내용.

(…) 승지가 아뢰자 상이 뒤쫓아 가서 데리고 돌아오라고 명하고, 특별 유시로 거듭 더욱 간곡하게 정소하였다. 이르기를,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귀한 법인데, 나의 정성과 예가 독실하지 못하여 마침내 초치한 유신으로 하여금 상소를 남겨 놓고 곧장 돌아가게 만들었다. 이 어찌 내 마음이 서운하고 부끄러울 뿐이겠는가. 실로 국가와 사람의 불행이기도 하다.” 하였다. 부군이 감히 대변에 돌아가지 못하여 마침내 수원(水原)에 머물러 처분을 기다렸다. 승지가 또 두 차례 성상의 유시를 전하였는데, 돈독히 권면하기를 마지않는 내용이었다. 부군이 또 부주하여 간곡히 사양하니, 상이 하교하기를, “계속해서 억지로 다그치는 것도 예우하는 도리가 아니다.” 하고 승지를 소환하였으므로 부군이 마침내 남쪽으로 돌아왔다.

윤증(尹拯), <명재유고(明齋遺稿), 부록 제1권, 家狀>

정치/인물

이색이 수원부(水原府)에서 유사렴(兪思廉)에 대한 추억을 시로 노래한 내용.

선생이 벼슬을 버리고 서울을 떠나와서 / 先生官罷去神州
산수 속에 소요한 지 또 일 년이 되었네 / 高嘯林泉又一秋
아직도 풍운이 길이 꿈속에 들어오는데 / 尙有風雲長入夢
어찌 눈서리를 머리에 가득 내리게 하랴 / 肯教霜雪便渾頭
우연히 소나기를 만나 자주 절에서 놀았고 / 偶乘白雨多遊寺
매양 청산을 좋아하여 홀로 누에 기대었네 / 每愛青山獨倚樓
방일한 태도는 이미 세속을 놀라게 했으나 / 逸態已教流俗駭
시편은 응당 후인을 위해 남겨 두리라 / 詩篇應爲後人留
이색(李穡), <목은집(牧隱集), 목은시고 제2권 시(詩), 水原府.次兪先生韻.諱思廉字恥夫>

정치/인물

이색이 수원부의 전묘를 답험하고 상주로 가는 임 동년(任同年)에게 준 시.

수원으로 가서 전묘를 답사하고 / 欲向水原去
인하여 상주로 달려간다 하거니 / 因從沙伐騰
두 소매 바람에 수염엔 고드름 얼고 / 髻氷風兩袖
외론 등불 아래 마음은 철석 같으리 / 腸鐵夜孤燈
대식¹⁹¹⁾의 계책도 졸렬하지 않거니와 / 代食謀非拙
공전에 대한 명은 절로 중하고말고 / 公田命自凝
후일에 우리 경락에서 노닐 때는 / 他年游洛上
서로 마주하여 실컷 마셔나 보세 / 相對酒如澗
이색(李穡), <목은집(牧隱集), 제27권 시(詩), 任同年來言踏驗田畝水原府因歸尙州>

정치/인물

이색이 어머니를 뵈기 위해 수원으로 가는 이진사(李進士)을 전송하며 지는 시.

이생은 모친 시하에 있는 사람임을 / 李生慈侍下
서문 읽어보고 자세히 알았거니와 / 讀序可知詳
베개에 부채질하는 효심이 동하여¹⁹²⁾ / 扇枕孝思動
옷자락 떨치며 돌아갈 뜻 바쁘구려 / 拂衣歸意忙
강산은 가을이라 더위가 물러가고 / 江山秋退暑
등불은 밤의 서늘한 기운 생기누나 / 燈火夜生涼
후일 대과 급제를 하는 날에는 / 異日收功處
영친함에 있어 광채가 찬란하리라 / 榮親爛有光

191) 대식(代食) : 벼슬하여 녹봉(祿俸)을 먹는 대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산다는 뜻으로, 《시경》 대아(大雅) 상유(桑柔)에 “저 모친 바람을 받고 선 듯이, 또한 몹시도 숨이 막히도다. 사람마다 나날 마음은 있지만, 다들 난세라 안 된다 하고, 이 농사짓기를 좋아하여, 백성들과 농사지어 녹봉을 대신하노니, 농사짓는 것이 보배로우며, 녹봉 대신한 게 좋기만 하도다.[如彼邇風 亦孔之僎 民有肅心 莽云不逮 好是稼穡 力民代食 稼穡維寶 代食維好]” 한 데서 온 말인데, 이 시는 주 여왕(周厲王) 때 예백(芮伯)이 여왕의 학정(虐政)을 풍자하여 부른 노래라 한다.

192) 베개에 …… 동하여 : 후한(後漢) 때의 효자 황향(黃香)은 집이 가난하여 노복(奴僕)도 없었으므로, 몸소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시중을 들며 정성을 다해 봉양하였는데, 특히 더울 때는 아버지의 침상(枕牀)에 부채질을 하여 서늘하게 하고, 추운 겨울에는 아버지 이부자리에 자기가 먼저 들어가 누워서 자리를 따뜻하게 했던 고사에서 온 말이다.

이색(李穡), <목은집(牧隱集)>, 제24권 시(詩), 送李進士歸觀水原>

정치/인물

이색이 수원집으로 돌아가는 문생 정사현(鄭士賢)에게 써준 시.

집은 수원의 동쪽에 있고요 / 家在水原東

아버이는 초계 한 구석에 사는데 / 親居草溪畔

영광된 이름은 하대부 벼슬이요 / 榮名下大夫

돌아갈 흥취는 남으로 가는 기력일세 / 歸興南飛鴈

푸른 잣나무는 산꼭대기에 기대섰고 / 翠柏倚雲岡

차가운 매화는 강 언덕에서 피우리 / 寒梅拆江岸

생애는 절로 한정이 있는 것이니 / 生涯自有涯

모름지기 맘속에 조만을 잊어야지 / 且須忘早晚

이색(李穡), <목은집(牧隱集)>, 목은시고 제10권 시(詩), 門生鄭士賢告歸>

정치/인물

이색(李穡)이 수원(水原) 팔탄촌(八呑村)에서 지은 시.

청산은 담담하여 빛이 없고요 / 靑山淡無色

녹수는 냉랭하여 광채 없어라 / 綠水冷無光

군자가 바야흐로 뜻한 바 있어 / 君子方有志

천자의 당에 올라가려 하는데 / 欲登天子堂

눈앞에는 일이 하도 광대하고 / 眼前事浩浩

머리 위엔 하늘이 창창하구나 / 頭上天蒼蒼

이 때문에 감히 기필치 못하여 / 所以不敢必

하룻밤에도 수없이 애태우노라 / 一夕九回腸

힘쓸지어다 스스로 책려하노니 / 勉哉自策礪

시관은 뛰어난 이를 등용하겠지 / 主司登峻良

새가 날아 나의 눈을 놀래키고 / 鳥飛驚我目

새가 울어 나의 넋을 놀래키네 / 鳥啼驚我魂

평소에 수많은 고기와 새들은 / 平生群魚鳥

조용히 본원으로 돌아가는데 / 寂然歸本元

어찌하여 지킴이 안정되지 못해 / 奈何守不定

문득 이 존존¹⁹³⁾의 도에 어두운고 / 忽此迷存存

이욕이 동함을 분명히 아는지라 / 明知利欲動

장차 이를 발본색원하려 하나 / 拔本將塞源

속된 기습을 면할 수 없는지라 / 未能免夫俗

술잔 대하여 큰소리로 노래하네 / 浩歌對山樽

산이 깊으니 소나무 연기 뿌옇고 / 山深松浮煙

바다 가까우니 고기 밥상 겹쳐라 / 海近魚滿盤

193) 존존(存存) : 자기가 지닌 덕을 끝까지 잘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송아지는 발독 머리에 누워 있고 / 村犢隴頭臥
 농부는 머리에 관을 쓰지 않았네 / 野人頂無冠
 여종 아이는 새로 물 길어 와서 / 小婢新汲水
 술 거르고 밥 많이 들라 권하는데 / 漉酒勸加飡
 밥 많이 먹는 게 어찌 안 좋으랴만 / 加飡豈不好
 내 마음이 지금 편치가 않구나 / 我心方未寬
 내일은 스스로 쓰이길 구할 텐데 / 明當自求售
 비루하여라 네 맘엔 편안하겠지 / 鄙哉於汝安
 이색(李穡), <목은집(牧隱集), 목은시고 제2권 시(詩), 在水原八吞村.候東堂日期.雜興.>

정치/인물

이색(李穡)이 4월에 과거에 응시하려고 서울로 가던 도중 수원(水原)에 들렀을 때 지은 시.
 바람은 나그네 소매 가득 먼지를 불어오고 / 客裏風吹滿袖塵
 고원의 봄 찌꼬리 소리는 멀기만 하구나 / 黃鸝聲遠故園春
 이제부터는 인간의 길과 점차 가까워지니 / 從今漸近人間路
 도리어 청산이 나와 안 친할까 두렵구려 / 却恐青山不我親
 좋은 꿈이 먼저 거동길 먼지를 따르어라 / 好夢先歸輦路塵
 성에 가득한 도리는 정히 봄을 과시하네 / 滿城桃李正誇春
 알건대 백부의 시는 예언이 하도 많으니 / 懸知伯父詩多識
 과거에 급제하면 노친께 경하를 올리리다 / 趁取花時慶老親
 이색(李穡), <목은집(牧隱集), 제2권 시(詩), 夏四月將抵京應舉行次水原奉次伯父贈行詩韻寄呈>

정치/인물

이색이 자신을 찾아온 수원(水原)에 우거하는 김군필(金君弼)에게 지어준 시.
사별[상주]에서 가솔 끌고 옮겨 온 수원 땅 / 沙伐携家寓水原
 산촌의 밥 짓는 연기 강촌에 잇닿는 곳 / 山村煙火接江村
 인간 세상 한 조각 안심할 데가 있다면 / 人間一片安心處
 흰머리로 소요하는 몇 이랑 발뿐이리 / 只是蒼頭數畝園
 동년 동학 중에 그대만 한 이 드문 터에 / 同年同學少如君
 늙은 눈으로 아직도 오색 문장에 미련인가 / 老眼還迷五色文
 주의 점두 같은 거야 한스럽게 생각 마오¹⁹⁴⁾ / 莫恨朱衣點頭者
 부귀는 뜬구름 같은 것이 아니더이까 / 看來富貴是浮雲
 이색(李穡), <목은집(牧隱集), 목은시고 제30권 시(詩), 金君弼寓水原來見>

194) 주의 점두(朱衣點頭) …… 마오 : 김군필이 목은과 함께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했으나 그 뒤에 계속 문과(文科)에서 낙방하였는데, 이제는 문과에 급제하지 못했다고 한스럽게 여기는 마음을 그만 떨쳐 버리라는 말이다. 송(宋)나라 구양수(歐陽脩)가 지공거(知貢舉)로 답안지를 채점할 적에, 자신의 등 뒤에서 붉은 옷을 입은 사람 하나가 머리를 끄덕끄덕하는 것을 느낄 때마다 그 답안지가 합격되곤 하였는데, 이상하게 느껴져서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더라는 ‘주의 점두’의 고사가 전한다. 《天中記 卷38 引 鯨鱗錄》《목은시고》 제28권 〈김군필의 시를 받고 나서 이에 차운하여 답하는 시를 급히 짓다.〉와 《목은문고》 제5권 〈육익정기(六益亭記)〉에 이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온다.

정치/인물

이색이 지은 김흥조(金興祖)의 묘지명으로, 수원부사 등을 역임하였다는 내용.

(…) 공은 문하평장(門下平章)으로 시호가 양간(良簡)인 김공(金公) 휘 승택(承澤)의 딸에게 장가들어 자녀 둘을 낳았다. 아들 흥조(興祖)는 기개 있는 신념의 소유자로 벼슬이 중현대부(中顯大夫) 군기감(軍器監)에 이르렀으며, 수원(水原)과 해주(海州)의 부사(府使)를 역임하면서 치적(治績)이 자못 현저하였는데, 취성(鷲城 신돈(辛旽))의 손에 죽었으므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애처롭게 여기고 있다. (…)

(…) 公娶門下平章諡良簡金公諱承澤之女.生子二人.男曰興祖.倜儻有志.官至中顯大夫軍器監.歷使水原, 海州.政績頗着.死於鷲城之手.人至今憐之.(…)

이색(李穡), <목은집(牧隱集), 목은문고 제17권 비명(碑銘), 松堂先生金公墓誌銘 并序>

정치/인물

화산군, 최원유 등과 함께 수원 부사(水原府使) 이계장(李契長)을 전별(餞別)하는 내용.

나는야 늙은 데다 가진 것 없는 가난뱅이 / 我老貧無物

그대는 젊은 데다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 / 君強惠及人

부사의 깃발이 떠날 날이 다가왔으니 / 旌旄行有日

술과 고기를 이웃집에서 얻을 수밖에¹⁹⁵⁾ / 酒肉乞諸隣

새의 날갯짓 끊어진 눈 덮인 산속에서 / 鳥絕千山雪

피꼬리 날아가네 봄기운 돋는 나무 위로¹⁹⁶⁾ / 鶯遷萬木春

뒷날 역사 책의 순리열전을 찾아보면 / 他年循吏傳

꽃다운 이름 전해짐을 응당 보게 되리로다 / 會見播芳塵

이색(李穡), <목은집(牧隱集), 제33권 시(詩), 同花山君詣公偕行遇崔判事元濡餞水原府使李契長舒元朴政堂來會>

정치/인물

큰 눈이 내릴 때 이항복(李恒福)이 수원에 머물면서 지은 시.

큰 눈이 산과 들에 가득한데 / 大雪滿原野

외로운 성에 한 나무만 푸르구나 / 孤城獨樹青

빈 산엔 짐승 발자국이 널려 있고 / 山空獸蹄亂

거센 바람엔 봉새 털이 떨어지네 / 風逆鳳毛零

교활한 토끼는 굴로 돌아가려 하는데 / 狡兔將歸穴

사냥개는 아직도 방울을 달고 있네 / 韓盧尙帶鈴

종당에 죄 얻는 걸 경계하는 마음 없으니 / 無心戒終咎

후일에 팽형 당함을 사양치 말라¹⁹⁷⁾ / 他日莫辭烹

195) 술과 …… 수밖에 : 가난한 목은 자신의 자조와 해학이 뒤섞인 표현이다. 《논어》 공야장(公冶長)에 “누가 미생고(微生高)를 정직하다 하는가. 어떤 사람이 그에게 식초를 얻으려 하였을 때, 자기에게 없으면 없다고 해야 할 것인데, 굳이 이웃집에 가서 얻어다 주기까지 하였으니.”라는 공자의 말이 나온다.

196) 새의 …… 위로 : 이 계장이 그동안 불우하게 보내다가 높은 자리로 승진하게 된 것을 말한다. 당(唐)나라 유종원(柳宗元)의 오언 절구 <강설(江雪)>에 “일천 산에는 새들의 날갯짓 끊어지고, 일만 길에는 사람의 발자취 사라졌네.[千山鳥飛絕 萬徑人蹤滅]”라는 구절이 나오고, 《시경》 소아(小雅) 별목(伐木)에 “깊은 계곡에서 피꼬리 날아올라, 높은 나뭇가지 위로 옮겨 가누나.[出自幽谷 遷于喬木]”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항복(李恒福), <백사집(白沙集), 제1권 시(詩), 因雪留水原書懷>

정치/인물

이항복이 지은 권율의 묘지로, 권율이 수원의 독성(禿城)을 요해처로 삼았다는 내용.

(…) 공이 수원(水原)에 있을 적에는 독성(禿城)을 점거하여 요해처로 삼고 있으면서, 경도(京都)의 적을 경동시키고 곧장 서로(西路)를 요동시키자, 적장(賊將) 수가(秀嘉)는 공이 그들의 헛점을 틈탈까 두려워하고, 행장(行長)은 공이 그 뒤에서 도모할까 염려하여, 우뚝이 호표(虎豹)의 형세가 되어 가만히 앉아서 관서(關西)의 중심지를 견고하게 하였다. (…)

(…) 其在水原也.據禿城爲固.危動京都.直搖西路.秀嘉惧公乘其虛.行長恐公議其後.屹然爲虎豹之勢.坐牢關西心.(…)

이항복(李恒福), <백사집(白沙集), 제2권 묘지(墓誌), 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知經筵春秋館事弘文館提學同知成均館事行正憲大夫知中樞府事兼諸道都元帥權公墓誌>

정치/인물

박응천(朴應川)이 수원(水原) 등의 부사를 역임하였다는 내용.

(…) 공의 휘는 응천(應川)이고 자는 혼중(渾仲)이다. 계묘년에 상상(上庠)에 올라 천거로 왕자 사부(王子師傅)가 되었다. 그 후로 태인 현감(泰仁縣監), 형조·호조의 정랑, 봉산(鳳山)·고양(高陽) 등의 군수, 대구(大丘)·이천(利川)·수원(水原) 등의 부사, 광주(廣州)·양주(楊州) 등의 목사, 군자감 판관, 군기시 첨정, 한성부 서윤, 예빈시 부정, 사재감 정등을 역임하였다.

공의 아우 응순(應順)이 의인왕후(懿仁王后)를 낳아서 우리 선묘(宣廟)의 배필이 되었는데, 선묘의 초정(初政)에는 당시의 뛰어난 선비들이 모여들어서 초사(初仕)의 제수도 반드시 신중하게 하였다. 그래서 공은 모두 덕으로 선발된 것이요 오로지 은택으로 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사대부들이 경사라고 일컬었다. (…)

(…) 諱應川.字渾仲.癸卯.陞上庠.薦爲王子師傅.歷職泰仁縣監, 刑戶曹正郎, 鳳山高陽等郡守, 大丘利川水原等府使, 廣州楊州等牧使, 軍資判官, 軍器僉正, 漢城庶尹, 禮賓副正, 司宰監正.公之弟應順.篤生懿仁.嬖我宣廟.宣廟初政.時髦允集.一命之除.必在難慎.公攀以德選.不專爲恩澤.搢紳稱慶.初議政捐館.家益旁落.公能經紀其家.色養不乏.訓諸弟以方.巍然若成人.中表則之.(…)

이항복(李恒福), <백사집(白沙集), 제3권 묘갈(墓碣), 司宰監正朴公墓碣銘>

정치/인물

이괄의 난때 남두첨(南斗瞻)이 수원(水原) 판관에 제수되었다는 내용

(…) 공의 휘는 두첨(斗瞻)이요 자는 여양(汝昂)인데 의령(宜寧)의 현족(顯族)이다. (…) 갑자년 2월에는 역적 이괄(李适)이 군대를 일으켜 서울로 쳐들어와 대가(大駕)가 남쪽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공이 남양으로부터 위문차 달려가다가 한강을 건너 백사장에 머물고 있는 대가를 만났다. 이때는 밤이 깊어가서 명일 아침에야 대가가 수원(水原)에 당도하게 되는데, 듣자니, 이민(吏民)들이 모두 이미 흩어져버려서 부마(夫馬 인부와 말)를 조발(調發)할 수

197) 교활한 …… 말라 : 춘추 시대 오왕(吳王) 부차(夫差)가 월(越) 나라 대부(大夫) 종(種)과 범려(范蠡)의 군중(軍中)에 글을 보내어 말하기를, “교활한 토끼가 죽고 나면 사냥개가 살아 죽임을 당하고, 적국(敵國)이 멸망하고 나면 모신(謀臣)이 반드시 죽게 된다.”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 공이 이때 상(上)을 알현하니, 상이 공을 면대하여 하유하기를, “들으니 네가 군중을 거느리는 재간이 있다기에 지금 급히 너를 찾았으니, 너는 힘써 하라.”하고, 바로 구전(口傳)으로 본부의 판관을 제수하였다. (…)

윤휴(尹鑄), <백호전서(白湖全書)>, 제19권 묘지명(墓誌銘), 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經筵義禁府春秋館事世子左賓客弘文館提學五衛都總府都總管行通政大夫兵曹參知南公墓誌銘>

정치/인물

김장생의 문인록으로 수원에 이효원(李孝源)이 살았다는 내용.

(…) 이효원(李孝源)

숙부가 연산의 수령으로 있을 적에 와서 머물면서 선생에게 수학하였다. **【수원(水原)에 살았다.】** (…)

김장생(金長生), <사계전서(沙溪全書)>, 제47권 부록(附錄), 문인록(門人錄)>

정치/인물

신흠이 지은 시로, 벼슬에서 물러나 수원에서 한적하게 사는 지봉 이수광을 그리워하는 내용.

세상에 이몸 진정 혹과 같으니 / 於世眞如贅
부가¹⁹⁸의 이 생애가 우습다마다 / 浮家笑此生
기심¹⁹⁹ 잊어 물아를 벗어났고요 / 機忘遺物我
몸이 늙어 심려가 적어졌다네 / 身老少心情
들녘 멀어 조수는 유달리 넓고 / 野迴潮偏闊
물가 넓어 백로가 아니 놀라네 / 沙平驚不驚
머문 구름²⁰⁰ 눈 안에 들어오는데 / 停雲長入望
청안²⁰¹이 뉘와 함께 밝아질 건고 / 靑眼共誰明
원운을 붙임[附元韻]

성곽 가까이 함께 은거하는데 / 近郭同棲遁
궁한 처지 남은 벗 몇몇이런고 / 窮途幾友生
한적함에 물태를 알고도 남고 / 靜多知物態
오랜 병에 인정을 경험하였지 / 病久閱人情
약물로서도 몸이 아니 건강코 / 藥餌身難健
물결소리에 꿈이 쉽게 깨이네 / 波濤夢易驚
그리움에 헛되이 아득히 보니 / 相思空極目
숲 너머 저녁 노을 환히 비추네 / 林外夕霞明

【당시에 지봉이 벼슬에서 물러나 수성(隋城, 수원)에서 한적하게 살고 있는데 유지(有旨)로 그를 불렀다. 그러나 지봉은 병으로 인해 벼슬살이를 하지 않고 물가의 마을에 부처 살았기

198) 부가 : 물 위에 뜬 집. 곧 배를 집으로 삼아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뜻함.

199) 기심 : 이해 득실을 따지는 간교한 심보.

200) 머문 구름 : 《陶淵明集 卷1》에 정운시(停雲詩) 4수가 있는데 그의 자서(自序)에 “정운은 친구를 생각하는 시이다.”라고 한 것에서 나온 것으로, 정겨운 벗을 그리워할 때 인용된다.

201) 청안 : 세상에 자기를 진정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임. 완 부자는 진(晉) 나라 죽림칠현(竹林七賢)의 한 사람인 완적(阮籍)을 말하는데, 세속 사람들이 찾아오면 백안시하고 친구 혜강(嵇康)이 술병을 들고 오면 반가워 청안으로 대했다고 한다. 《晉書 卷49 阮籍傳》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한 것이다.】

於世眞如贅.浮家笑此生.機忘遺物我.身老少心情.野迴潮偏闊.沙平鷺不驚.停雲長入望.青眼共誰明.附元韻 芝峯 (시 생략) 時芝峯解官閑居隋城.有旨召之.芝峯以病不供仕.寓居湖村故云.

신흠(申欽), <상촌집(象村集), 상촌선생집 제11권 시(詩), 次芝峯>

정치/인물

신흠이 지은 정엽의 행장으로 수원부사로서의 행적을 기술한 내용.

(…) 을미년에는 서천 군수(舒川郡守)로 나갔다가 방백에게 거슬리어 파면되자, 군민들이 성문을 닫고 못 가게 가로막았으며, 송덕비를 세워 공을 기렸다. 병신년에는 예조 정랑으로 고급사(告急使)에 임명되어 명 나라 밀운(密雲)의 군문(軍門)에 가서 원병(援兵)을 청하고 돌아와 성군관 사성을 거쳐 수원 부사(水原府使)가 되었다.

수원은 서울 근교의 산읍(山邑)인데다 또 삼도(三道)의 큰 길에 위치하였고 막 병화를 겪은 상태라서 공사(公私)의 창고가 모두 텅비었는데, 명 나라의 대군이 연달음으로써 원군의 백성들이 모두 소요하였으나, 공이 방도가 있게 처리하니 백성들이 이를 힘입어 안도하였다. 황조의 장사(將士)가 왔을 적에 다른 군현들은 저들에게 욕을 많이 받았으나, 저들이 공을 보면 공경하므로, 이졸(吏卒)들이 서로 축하하며 이르기를 “우리 부백(府伯)의 훌륭한 행에 대해서는 상국 사람들도 예로 대우하는데, 더구나 우리 백성들 무리임에라.” 하고, 일로써 속이지 말자고 서로 경계하였다. 이곳에 부임한 지 9개월 만에 병으로 체직되었다. (…)

(…) 乙未.出爲舒川郡守.忤方伯罷.郡民閉城門遮留.立頌德碑.丙申.以禮曹正郎.差告急使.赴密雲軍門請兵.還拜成均館司成, 水原府使.水原爲畿輔岩邑.而又當三南孔道.新剗於兵.公私赤立.而大軍絡屬.遠近騷屑.公處之有方.民賴按堵.皇朝將士之來.郡縣多被詬辱.而見公輒敬.吏卒相慶曰.吾府伯之賢.上國人猶禮之.況吾氓屬乎.戒毋瞞以事.居九月病遞.(…)

신흠(申欽), <상촌집(象村集), 상촌선생집 제29권 행장(行狀), 鄭知事行狀【餘稿】>

정치/인물

1597년(선조 30) 최철건(崔鐵堅)이 수원부사(水原府使)가 되었다는 내용.

(…) 정유년에 수원부사(水原府使)가 되었다. (…)

(…) 丁酉.授水原府使.(…)

신흠(申欽), <상촌집(象村集), 상촌선생집 제28권 신도비명(神道碑銘), 觀察使崔公神道碑銘>

정치/인물

박세당이 지은 이여발의 신도비문으로, 1675년(숙종 1) 수원 부사가 되었다는 내용.

(…) 금상(今上: 숙종) 원년 을묘(1675)에 우윤에 배수되었다. 겨울에 외직으로 나가 수원 부사(水原府使)가 되었다. (…)

(…) 今上元年乙卯.拜右尹.冬.出爲水原府使.(…)

박세당(朴世堂), <서계집(西溪集), 제11권 비명(碑銘), 韓興君李公神道碑銘>

정치/인물

박세당이 지은 김시진(金始振)의 묘갈명으로, 수원 부사(水原府使) 등을 역임했다는 내용.

(…) 을미년(1655) 봄에 어사 10명을 파견하여 노비를 추쇄(推刷)하려고 하였다. 공도 가게

되어 다시 경상좌도를 주관하게 되었는데, 전부(銓部)에서 공을 수원(水原)과 양주(楊州)에
의망한 데다 또 황첨(黃籤)까지 내리니, 공이 편치 못해 스스로 사면하였다. 가을에 가서 다
 시 사예가 되었다. 비로소 어사의 일로 영남(嶺南)에 나갔는데 우도(右道) 어사가 병으로
 면직되자 공이 우도까지 겸하여 관장하였다. (….) 병오년(1666) 봄에 예조 참판이 되었다.
 (….)이윽고 다시 좌윤이 되고 동지의금부사를 겸하였으며, 오래지 않아 외직으로 나가 수원
부사(水原府使)가 되었다. (….)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재직할 때 부내(府內)에 거주하는 이
 일선(李一善)의 친척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횡포를 부렸는데, 관리들도 감히 문책하지 못
 하였다. 공이 부임해서는 그를 잡아 와 그의 죄를 조목조목 나열하고는 참수하여 머리를 장
 대에 꽂아 사람들에게 전시하였다. 어떤 이가 이 일을 의당 먼저 아뢰어야 한다고 하자, 공
 이 말하기를, “조정에 보고하면 허락을 얻으리란 보장이 없다.” 하였다. 이에 온 부내가
 두려워 떨었으며 원근 사람들은 모두 통쾌해하였다. 뒤에 일선이 와서도 감히 따지지 못했
 다. 일선이란 자는 예전에 청나라 사람에게 잡혀갔다가 역관(譯官)으로 자주 우리나라에 온
 자이다. 그래서 종족들이 그의 세력을 믿고서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

(….) 乙未春.將發遣御史十輩.推刷奴婢.公亦當行.復主慶尙左道.銓部擬公水原揚州.又下黃籤.
 公不敢安.故自免.至秋復爲司藝.始以使事出嶺南.而右道御史病免.公兼管右道.(….)
 丙午春.爲禮曹參判.(….) 已復爲左尹.兼同知義禁府事.未久.出爲水原府使.(….) 爲水原時.李一
 善有親戚居府境.橫恣不可制.吏莫敢問.公至則擒致.數其罪而斬之.竿首示衆.或言事宜先聞.公
 曰.若聞諸朝未必得.於是一府震懼.遠近咸快.後一善來而亦不敢詰.一善者.舊見掠清人.以譯舌數
 來東.故宗族挾恃爲惡.(….)

박세당(朴世堂), <서계집(西溪集), 제13권 갈명(碣銘), 禮曹參判金公墓碣銘>

정치/인물

박세당이 지은 신경인(申景禪)의 묘표로, 수원 부사(水原府使) 등을 역임하였다는 내용.

(….) 정묘년(1627)에 호란이 발생하자, 1만여 명을 거느리고 구원하러 강화(江華) 행재소(行
 在所)에 들어가다가 미처 당도하기 전에 북로(北虜)가 떠났으므로 곧바로 진(鎭)으로 돌아갔
 다. 그 뒤 10년 동안 황해 병사, 수원 부사(水原府使), 삼도 수군통제사를 역임하였다. (….)
 (….) 丁卯.有虜難.以萬餘人.入援未至.虜去乃還鎭.後十年間.鎭海西莅水原.統制三道.(….)

박세당(朴世堂), <서계집(西溪集), 제14권 묘표(墓表), 東城君申公墓表>

정치/인물

박세당이 지은 유백증(兪伯曾)의 시장으로, 수원 부사(水原府使) 등에 제수되었다는 내용.

(….) 을해년(1635, 인조13)에 다시 이조 참의가 되어 봉사(封事)를 올렸는데 대신을 공박하
 여 의지(意指)가 자못 준엄하였다. (….) 한 달이 지난 뒤에 특명으로 수원 부사(水原府使)에
제수되었다가 채 100일도 안 되어 다시 영남 관찰사가 되었다. (….)

(….) 乙亥.復爲吏議.上封事.語侵大臣.意指頗峻.(….) 閏月.特除水原府使.未百日.復按節嶺南.
 (….)

박세당(朴世堂), <서계집(西溪集), 제15권 시장(諡狀), 吏曹參判杞平君兪公諡狀【壬午冬】>

정치/인물

박세당이 지은 이규령(李奎齡)의 행장으로, 1680년 수원 부사를 역임하였다는 내용.

공은 휘는 규령(奎齡), 자는 문서(文瑞), 성은 이씨이다. 그 선조는 한산인(韓山人)이다. 문

효공(文孝公) 곡(穀)과 문정공(文靖公) 색(穡) 부자가 고려의 명신이 되었다. (…)경신년(1680)에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이배(移拜)되자, 상국 송시열이 서찰을 보내 공에게 하례하기를, “큰물이 산을 감싸 지척에서도 사람의 말소리 들리지 않는데 유독 공이 어진 정사를 펼친다는 평판만이 귓가에 떠들썩하게 들립니다.” 하였다. (…)

公諱奎齡.字文瑞.姓李氏.其先韓山人.文孝公穀.文靖公穡父子.爲高麗名臣.(…) 庚申.移拜水原府使.宋相國時烈.致書賀公曰.大水籠山.咫尺不聞人語.獨仁聲聒於耳邊.(…)

박세당(朴世堂), <서계집(西溪集), 제15권 행장(行狀), 刑曹判書李公行狀>

정치/인물

박세당이 지은 박원도(朴元度)의 묘지명으로, 수원의 왕계산(旺啓山)에 장사지냈다는 내용.

(…) 경오년(1690, 숙종 16) 가을에 수원(水原)으로 성묘(省墓)를 갔다가 그 참에 형을 문안하였는데, 감기에 걸려 날로 위독해졌다. (…) 공이 졸한 날은 9월 9일이며, 11월 21일에 수원 왕계산(旺啓山) 을좌(乙坐)의 언덕에 안장하였다. (…)

(…) 庚午秋.展先墓于水原.遂因以省兄.感疾日困.(…) 公之卒.以九月九日.十一月二十一日.葬于水原旺啓山負乙之原.(…)

박세당(朴世堂), <서계집(西溪集), 제9권 지명(誌銘), 右承旨朴公墓誌銘>

정치/인물

이익이 지은 김덕원(金德遠)의 묘지명으로, 그의 어머니는 수원 부사를 지낸 이성부(李聖符)의 따님이라는 내용.

(…) 모친 전주 이씨(全州李氏)는 수원 부사(水原府使) 충장공(忠壯公) 성부(聖符)의 따님이다. 충장공은 갑자년(1624) 이괄(李适)의 난 때에 순절하여 병조 판서에 추증되었고 정려(旌閭)가 섰다. (…)

(…) 妣全州李氏.水原府使忠壯公聖符之女.忠壯甲子殉節.追贈兵曹判書.旌其閭.(…)

이익(李瀾), <성호전집(星湖全集) 제65권 묘지명(墓誌銘), 右議政金公墓誌銘>

정치/인물

이익이 지은 심단(沈檀)의 묘지명으로, 1689년(숙종15) 수원 부사에 제수되었다는 내용.

(…) 기사년(1689, 숙종15)에 용서받고 서용되어, 교리에 제수되어 조정으로 소환되었다. 공은 10년 동안 귀양살이하며 알게 된 백성의 고달픈 상황을 낱알이 진술하여 많은 것을 아뢰니, 임금이 모두 가납하였다. 얼마 후 부응교로 옮겨졌다. 여름에 수원 부사(水原府使)에 제수되었다. (…)

(…) 己巳宥敍.拜校理召還朝.公十年居謫.備諳凋瘵.多所陳白.上皆嘉納.尋移副應教.夏除水原府使.(…)

이익(李瀾), <성호전집(星湖全集) 제63권 묘지명(墓誌銘), 輔國判中樞府事兼吏曹判書致仕奉朝賀藥峯沈公墓誌銘 并序>

정치/인물

이익이 지은 우성전의 묘갈명으로, 1576년(선조 9) 수원 현감을 역임하였다는 내용.

(…) 병자년(1576)에 부모의 봉양을 위하여 수원 현감(水原縣監)으로 나갔다. 그 당시 현에 폐단이 누적되어 있어서 다스리기 어렵다고 일컬어졌는데 선생이 부임해서는 아전과 백성

중에 감히 속이는 자가 없었으니, 이때에 교화가 크게 행해졌다. 뒤에 현의 백성이 거사비(去思碑)를 크게 세웠다. (…)

(…) 丙子爲便養出監水原縣.時縣弊積號難治.先生既至.吏民無敢欺者.於是化大行.後縣之人豎豐碑去思焉.(…)

이익(李瀾), <성호전집(星湖全集) 제59권 묘갈명(墓碣銘), 秋淵禹先生墓碣銘>

정치/인물

이익이 지은 해동악부로, 수원의 최루백의 효행을 노래한 부분.

【최루백(崔婁伯)은 수원(水原) 아전 최상저(崔尙叅)의 아들이다. 최상저가 사냥을 나갔다가 범한테 물려 죽었다. 최루백은 당시에 열다섯 살이었는데, 최루백이 범을 잡고자 하니, 어머니가 만류하였다. 최루백이 말하기를 “아버지의 원수를 갚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즉시 도끼를 메고 범의 자취를 따라갔더니, 범이 이미 배불리 먹고 누워 있었다. 최루백이 곧장 앞으로 나가 꾸짖기를 “네놈이 우리 아버지를 잡아먹었으니, 내가 너를 먹어야겠다.” 하니, 범이 이에 꼬리를 흔들며 몸을 굽히고 땅에 엎드렸다. 도끼를 빠르게 내리치고 그 배를 갈라, 범 고기는 용기에 담아서 시내 가운데에 묻어 두고 아버지의 뼈와 살을 수습하여 그릇에 안치하여, 드디어 홍법산(弘法山) 서쪽 기슭에 장사 지내고 여묘살이를 하였다. 하루는 선잠이 들었는데, 최상저가 와서 시를 읊기를,
개암나무 헤치고 효자의 여막에 이르니 / 披榛到孝子廬
마음에 감동하여 눈물이 끝없이 흐르네 / 情多感淚無窮
흙을 지고 날라 날마다 무덤을 돌우니 / 負土日加塚上
알아주는 이는 밝은 달과 맑은 바람뿐 / 知者明月清風
살았을 땐 잘 봉양했고 죽은 뒤엔 잘 지키니 / 生則養死則守
그 누가 효도를 잘 마치지 못했다 하랴²⁰²⁾ / 誰謂孝無始終
하고는, 다 읊고 나서 사라졌다. 삼년상을 마치고 나서 범 고기를 꺼내다가 모두 먹었다. 의종(毅宗) 때에 급제하였고, 누차 승진하여 기거사인(起居舍人), 국자 사업(國子司業), 한림학사(翰林學士)를 지냈다.】

전에 수성현[수원]을 지나며 보니 / 昔過隋城縣

이끼 덮인 비석이 하나 있었지 / 有碑苔紋蝕

누구네 땅인지 물어봤더니 / 借問誰家地

고 학사의 집터라 대답하였네 / 云故學士宅

학사는 타고난 효자였는데 / 學士天與孝

아버지가 범에게 잡혀 갔다오 / 有父爲虎攫

하늘을 부르짖고 필필 뛰며 통곡하고 / 號天踴地走

범 자취를 따라 깊은 계곡 들어갔지 / 履尾入深谷

누가 맹수가 사납다 하였나 / 誰云猛獸暴

두려워 복종하듯 범이 귀를 접으니 / 弭耳如讐服

202) 그 …… 하략 : 《효경(孝經)》에서 천자, 대부, 사서인의 효도에 대해 논하고 “그러므로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효도를 잘 마치지 못하고 환란이 미치지 않는 자는 없다.(故自天子至於庶人 孝無終始 而患不及者 未之有也)”라고 하였다. 여기서 최루백(崔婁伯)이 부친에 대한 효를 끝까지 잘 지켰음을 말한 것이다.

큰 소리로 무섭게 호통쳐 꾸짖고 / 聲聲恣叱喝
 도끼로 먼저 범의 배를 갈랐네 / 舉斧先破腹
 창자를 열어 부친의 유해 수습하여 / 剖腸取遺骸
 안고 통곡하며 돌아와 빈소 차렸네 / 抱哭歸殯壑
 사무친 이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 深仇報如何
 맹세코 그 고기를 씹어 먹으리라 / 誓將食其肉
 개울 속에 범 고기를 묻고 떠나니 / 川中去埋鬻
 상복을 벗은 뒤²⁰³⁾ 먹기 위해서라 / 外除待一嚼
 이 일을 듣고 누구나 감격했으니 / 無人不感激
 정성이 금석조차 뚫을 만해서라²⁰⁴⁾ / 有誠貫金石
 널리 이름나자 정문 내려 표하고²⁰⁵⁾ / 風聲入旌別
 사관이 역사책에 기록하였네²⁰⁶⁾ / 史筆垂竹帛
 지금도 무성한 잡초 속에서 / 至今荒草際
 길 가는 나그네 마음을 일깨우네 / 警起行路客
 누군들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마는 / 孰不爲人子
 뛰어난 덕행 공만이 우뚝하구나 / 制行惟公獨
 귀신이 묵묵히 도운 것이지 / 鬼神默相助
 인력으로 이룬 일이 아니라오 / 此事非人力

崔婁伯.水原吏尙翥之子.尙翥獵.爲虎所害.婁伯時年十五.欲捕虎.母止之.婁伯曰父讐可不報乎.
 卽荷斧跡虎.虎既食飽臥.婁伯卽前叱曰汝食吾父.吾當食汝.虎乃掉尾俛伏.遽斫而剖其腹.盛虎肉
 於瓮埋川中.取父骸肉安於器.遂葬弘法山西廬墓.一日假寐.尙翥來詠詩云披榛到孝子廬.情多感淚
 無窮.負土日加冢上.知者明月清風.生則養死則守.誰謂孝無始終.詠訖不見.服闋取虎肉盡食之.登
 第毅宗朝.累薦起居舍人.國子司業.翰林學士.

昔過隋城縣.有碑苔紋蝕.借問誰家地.云故學士宅.學士天與孝.有父爲虎攫.號天踴地走.履尾入深
 谷.誰云猛獸暴.弭耳如讐服.聲聲恣叱喝.舉斧先破腹.剖腸取遺骸.抱哭歸殯壑.深仇報如何.誓將食
 其肉.川中去埋鬻.外除待一嚼.無人不感激.有誠貫金石.風聲入旌別.史筆垂竹帛.至今荒草際.警起
 行路客.孰不爲人子.制行惟公獨.鬼神默相助.此事非人力.

이익(李瀾), <성호전집(星湖全集) 제8권 해동악부(海東樂府), 斫虎行>

203) 상복을 벗은 뒤 : 원문의 외제(外除)는 《예기》〈잡기(雜記)〉에 “부모의 초상은 겉으로 벗고 형제의 초상은 안으로 벗는다.(親喪外除 兄弟之喪內除)”라고 하였는데, 대개의 주석가들이 “부모의 초상에는 삼년상을 마치고 상복을 벗어도 마음속에는 슬픔이 여전히 남아 있고, 형제의 초상에는 상복을 벗을 때가 되기 전부터 슬픔이 조금씩 줄어든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였다. 이 구절에 대해, 성호는 《국역 성호사설》 제24권 〈경사문(經史門) 외제내제(外除內除)〉에서 “부모의 초상에는 겉에 입은 상복을 벗어도 마음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고 형제의 초상에는 마음까지 함께 벗는다는 뜻일 듯하다.”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삼년상을 마친다는 뜻으로 쓰였다.

204) 정성이 …… 만해서라 : 송나라 정이(程頤)가 찬술한 정호(程顥)의 행장에 “충성은 금석을 뚫을 만하였고 효제는 신명에 통할 만하였다.(忠誠貫於金石 孝悌通於神明)” 하였다. 《二程文集 卷12 明道先生行狀》 여기서는 최누백의 깊고 간절한 정성을 비유한 것이다.

205) 널리 …… 표하고 : 《서경》〈필명(畢命)〉에 “선한 이를 정표하고 악한 이를 가려내어 그 마을에 표하고, 선한 이를 드러내고 악한 이를 병들게 하여 교화를 세우라.(旌別淑慝 表厥宅里 彰善癉惡 樹之風聲)”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최누백의 명성이 널리 알려져 조정에서 정문을 세워 인정하고 이를 권면하였다는 뜻으로 쓴 것이다.

206) 사관이 역사책에 기록하였네 : 이 내용은 《고려사》 권121 〈최누백열전〉, 《고려사절요》 권11 〈의종장효대왕(毅宗莊孝大王)〉 등에 실려 있다.

정치/인물

1639년(인조 17) 이후원이 수원방어사에 제수된 일과 산릉을 수원으로 잡는 것에 대해 간한 일을 기술한 내용.

(…) 갑자년(1624, 인조2) 1월에 이괄(李适)이 반역하자, (…) 마침 상이 이미 남쪽으로 거동하는 도중이었다. 공이 한강 남쪽에서 상을 맞아 뵈니, 상이 말고삐를 당겨 위로하고 호가(扈駕)를 명하였다. 남쪽으로 내려가 수원부(水原府)에 도착하니, 밤은 이미 깊었고 상은 아직 수라를 들지 못했었다. 관아를 지키는 장교들이 많이 도망가고 없었으므로 공이 이리저리 힘을 써서 겨우 변변찮은 수라를 올렸으며, 공에게 소속된 사졸들만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으므로 숙위하는 인원이 그런대로 갖추어졌다. 상의 명으로 호남(湖南)으로 달려가 장차 병졸과 식량을 더 조발할 참이었는데, 반란이 평정되었다. 공로로 자급(資級)이 승진되었다. (…) 기묘년(1639, 인조17)에 동부승지(同副承旨)에 제수되었다가 우승지(右承旨)로 옮겨졌다. 이윽고 수원 방어사(水原防禦使)로 제수되었는데, 대신이 공에게 병이 있어서 매우 분명한 일은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아뢰므로 상이 특명으로 바꿔 임명하면서, 어질고 재능이 있다고 칭찬하였다. (…) 마침 산릉(山陵)을 수원(水原)으로 잡자, 공이 스스로 인책하는 중이었으나 일의 형편이 매우 중대하여 감히 침묵을 지킬 수 없어 차자를 올려 극력 간하였다. 이는 윤선도(尹善道)가 풍수술(風水術)을 내세워, 수원이 가장 길(吉)하다고 말하여 상이 그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공이 아뢰기를, “한갓 술수하는 사람의 말만 믿고 경솔하게 오환(五患)²⁰⁷을 범하여 국가의 일대 격식을 철폐한다면 이는 크게 옳지 않는 일이니, 건원릉(健元陵) 국내(局內)에서 길지(吉地)를 선택하심이 옳습니다.” 하였다. 이어서 이같은 내용의 말씀을 거듭 드렸고 여러 대신도 옳지 않다고 하여, 그 일이 결국 취소되었다. (…)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제204권 시장(諡狀), 迂齋李公諡狀>

정치/인물

1670년 9월에 이여휴에게 답한 편지로 송준길이 수원에 체류 중이라는 내용.

보내신 편지를 받아 보니 매우 어려운 곤경을 서로 구출하는 의리를 알겠습니다. 나는 운명이 험악하여 종전에 받은 말이 불경(不敬) 부도(不道)의 조목 아닌 것이 없었고, 지금 또 망극(罔極)한 변이 있는데도 오히려 죽어 사라지지 않으니, 남들이 무어라 하겠습니까. 매우 부끄러우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생각건대 감영(監營)에서 자세히 보고하였겠지만 혹시 빠진 것이 있을까 염려되어 두어 지면(紙面)을 보내 드리는 것이니, 뒤에 곧 도로 돌려주십시오. 이것은 오직 성은(聖恩)이 하늘 같아서 다만 죽은 목숨을 살리시고 뼈에 살에 붙여 주신 정도가 아니니, 비록 이 몸이 만번 가루가 된들 어떻게 만분의 일이라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들으니 동춘(同春)이 수원(水原)에 머물러 있다고 하니 거취(去就)가 마침내 어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는 날 날이 쓰지 못합니다. (…)

207) 오환(五患) : 풍수지리학에서, 흉지(凶地)의 묘(墓)에는 목근(木根)이 침투하고 벌레가 생기고 물과 불이 든다고 하는 다섯 가지의 환을 뜻한다.

承拜垂書.甚知患難相恤之義.弟命道險巇.從前所受之言.無非不敬不道之目.今乃有罔極之變.而猶不死滅.人謂斯何.慙痛奈何.想自巡營詳報.而慮或有漏.數紙呈納.後便還擲.如何.惟是聖恩如天.不但生死肉骨而已.雖萬糜粉.何以報塞萬一.聞同春住在水原.未知去就終如何耳.餘不一一. (…)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제42권 서(書), 答李汝休庚戌九月>

정치/인물

기사년 2월 효종의 수찰과 명성왕후의 언찰을 올리는 상소로, 명성왕후가 수원부사를 시켜서 보내주었다는 내용.

(…)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신이 경신년(1680, 숙종6) 12월 22일 서교(西郊)에 엮드려 있을 때에 우리 명성성모(明聖聖母)께서 지금의 수원 부사(水原府使) 김석연(金錫衍)을 시켜 어찰을 내려 보내셨으므로 신이 일찍이 공경히 받들어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또한 감히 몸에 지니고 바다를 건널 수 없기 때문에 아울러 진납(進納)하오니, 신은 황공하고 두려워서 매우 애타고 몸떨림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 抑又有一事.臣於庚申十二月二十二日.伏在西郊.我明聖聖母.使今水原府使臣金錫衍送下御札.臣嘗敬奉襲藏矣.茲亦不敢隨身越海.故竝以進納焉.臣不勝惶恐危怖煎灼震慄之至.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제20권 소(疏), 進孝廟手札明聖諺札疏 己巳二月>

정치/인물

문인 김간이 기록한 송시열의 어록으로, 송시열이 수원 만의사(萬義寺)에 있을 때의 기록.

(…) 선생이 수원(水原) 만의사(萬義寺)에 계실 때 적백리(赤白痢)를 앓았으므로 윤체원(尹體元)이 문인(門人)으로서 병환을 시중하였다. 하루는 선생이 체원을 돌아보며 말씀하였다. “오늘이 바로 선사(先師)의 기일(忌日)이다. 내 병이 비록 이와 같으나 마땅히 소찬(素饌)을 해야 되겠다.”

[체원] 선생의 병환이 이미 중하여 원기(元氣)가 크게 손상되시었으니, 소찬을 하셔서 안 될 듯합니다. 선생이 손을 저으며 온종일 고기를 들지 않으셨다. 갑인년 만의어록(萬義語錄). 아래도 같다. (…)

(…) 先生在萬義小刹.患赤白痢.尹體元以門人來侍疾.一日.先生顧謂體元曰.今日乃先師諱辰.吾病雖如此.當用素饌.體元曰.先生之疾既重.元氣大敗.素饌恐不可用.先生揮手止之.終日不御肉.甲寅萬義語錄.下同.(…)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부록 제15권 어록(語錄) 2, 金榦錄>

정치/인물

홍주 노은동에 성삼문의 신주를 봉안하는 경위를 설명한 기문으로 수원 부사(水原府使) 성후설(成後堧)이 제수 등을 마련하는 일에 기여했다는 내용.

(…) 5월 계해일에 길을 떠났는데, 조세환과 김근이 수행(隨行)하였다. 이보다 앞서 경기감사(京畿監司) 김우형(金宇亨)이 이들 일행이 지나가는 각 고을에 공문(公文)을 보내 호송(護送)토록 하였다. 진위 현령(振威縣令) 이집성(李集成)만이 병(病)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나머지는 정성을 다하였다. 그중에 수원 부사(水原府使) 성후설(成後堧)은 심지어 풍성하고 깨끗한 제수(祭羞)를 마련하여 동헌(東軒)에서 제향하고, 또 야외(野外)에도 공장(供帳)을 많이 설치해서 환영(歡迎)과 환송(歡送)을 모두 멀리까지 하였다. (…)

(…)五月癸亥就道.趙與金隨行焉.先是京畿監司金字亭行下沿路各邑使之護送.惟振威縣令李集成有疾外.無不致其誠敬.而水原府使成後高則至於豐潔羞酌.妥侑于東軒.又盛設供帳于野外.迎送皆遠出矣.(…)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제142권 기(記), 洪州魯恩洞遷奉成先生神主記>

정치/인물

1685년 1월 그믐 송시열이 박경초에게 보낸 편지로, 수원(水原)에 머무는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

(…) 그리고 또 상(上)의 기후(氣候)가 편치 않으시어 그 증세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듣고 12월 5일에 능(陵)에 나아가 연사(練祀)를 거행하고 그 다음날 늦게 대궐에 나아가 문안을 올리고 즉시 사대(賜對)의 은혜를 입었네. 사대를 과한 뒤 즉시 국문(國門 서울을 말함)을 나와 수원(水原)에 머물렀는데, 이는 대개 성교(聖敎)가 내가 멀리 가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또 수원은 바로 수장(壽藏)이 있는 곳이라서 이곳에서 죽으면 매장(埋葬)하는 일이 매우 편리하겠기에 처음에는 오래 머물러 있을 계획을 했었네. (…)

(…)又聞上候違豫不輕.臘月初五日詣陵下行練祀.翌日晚詣闕起居.即蒙賜對.對罷即出國門.仍留住水原.蓋聖教不欲其遠去.而又水原是壽藏所在也.死則便埋.其事甚便.故始爲遲留計.(…)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제113권 서(書), 答朴景初乙丑正月晦日>

정치/인물

이남규가 이공병(李公秉)의 묘지명으로 이치(李穡)가 수원 판관을 지냈다는 내용.

(…) 공은 휘가 공병(公秉)이고 자는 의칙(懿則)인데, 성균관 진사 증(贈) 이조 참판 휘 광교(廣敎)의 아들이다. 한산 이씨(韓山李氏)는 가정(稼亭) 문효공(文孝公) 휘 곡(穀)과 목은(牧隱) 문정공(文靖公) 휘 색(穡)으로부터 비로소 크게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조선에 들어와서는 휘 종선(種善)이 지중추부사를 지냈는데 시호가 양경(良景)이고, 휘 계전(季甸)이 영중추부사를 지냈는데 시호가 문열(文烈)이며, 휘 우(堦)는 이조 참의를 지냈다. 그리고 봉화 현감(奉化縣監) 휘 장윤(長潤)과 수원 판관(水原判官) 휘 치(穡)를 지나서 휘 지번(之蕃)에 이르러서 내자시 정(內資寺正)을 지냈으며, 휘 산해(山海)는 영의정을 지내고, 휘 경전(慶全)은 좌참찬을 지내고, 휘 구(久)는 예문관 검열을 지냈는데, 공에게는 모두 8대 이상이 된다. (…)

이남규(李南珪), <수당집(修堂集)>, 제9권 묘지명(墓誌銘), 종조(從祖) 통덕랑공(通德郎公) 묘지명>

정치/인물

효자 정인묵(鄭人默)을 처음에는 수원(水原)의 안중(安中)에 장사지냈다는 내용.

(…) 공은 정조 경자년(1780, 정조4) 11월 6일에 태어나서 금상(今上) 무진년(1868, 고종5) 2월 14일에 세상을 떠났다. 처음에는 수원(水原)의 안중(安中) 뒤에 장례를 모셨다가 나중에 다시 철원(鐵原)의 번포리(藩蒲里)로 천장(遷葬)하였는데, 선영을 따른 것이다. (…)

이남규(李南珪), <수당집(修堂集)>, 제10권 묘갈명(墓碣銘), 효자(孝子) 증 장례(贈掌禮) 정공(鄭公) 묘갈명>

정치/인물

병자호란 때 이시적이 수원을 거쳐 강화도로 가다가 몇몇 사부(士夫)들과 함께 양호(兩湖)에 격문을 띄워 사기를 진작시켰다는 내용.

(…) 병자년(1636)에 오랑캐가 갑자기 들이닥쳐 며칠 사이에 이미 서울로 육박해오자 상이 강화도로 떠났는데, 도중에 형세가 너무 급박하여 미처 갈 수 없다고 생각되었으므로 길을 바꾸어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 그때 뒤따르던 신하들 중에는 제대로 방향을 잡고 따라간 자가 별로 없었다. 공도 뒤쫓아가다가 길에서 행관(行官)을 만나 상이 빙빙 돌아서 강화도로 행행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중로(中路)에서 맞이하려고 말머리를 돌려 노량(露梁)까지 달려갔다. 그러나 거기서 상이 그곳으로 가지 않기로 했다는 말을 다시 듣고는 길을 찾느라 우왕좌왕하는 판에 적이 이미 성안에 가득 들어오고 말았다. 거기에서 뜻밖에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아들 이경(李憬)이 말고삐를 붙들고 울면서 말하기를, ‘산성은 길이 막혔으니 남으로 돌아간 다음 의병을 일으켜 후일을 도모하자.’ 고 했지만, 공은 그 말을 준엄하게 뿌리쳤다. 그 길로 말을 몰아 산성 아래까지 갔으나 들어갈 수가 없었기에 통곡을 하고 돌아섰다. 그리하여 수원(水原)을 거쳐 강화도로 가려던 차에 몇몇 사부(士夫)들과 함께 양호(兩湖)에 격문을 띄워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조공 익련(趙公翼連)과 남양 재(南陽宰) 윤계(尹槩)와도 약속을 하고 의병을 모집했다. (…)

김집(金集), <신독재전서(愼獨齋全書)>, 제10권 행장(行狀), 장령(掌令)을 지낸 이공(李公) 시직(時稷)의 행장>

정치/인물

임국로(任國老)가 부모 봉양을 이유로 수원 부사가 되기를 청했다는 내용.

(…) 을해년에 또 정언이 되었다. 당시에 대부인(大夫人)이 역질에 걸렸다. 공이 약(藥)을 드리면서 반드시 먼저 맛을 보았는데, 불결한 지경이 되어도 대부인이 따르지 않으면 간혹 한 사발을 다 마실 때까지 울면서 권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병이 나았다. 이번에는 공이 늙게 되어 거의 일어나지 못할 뻔하다가 다행스럽게 소생하였다. 그 해에 부모 봉양을 이유로 수원 부사(水原府使)가 되기를 빌었다. (…)

(…) 乙亥.又爲正言.時大夫人遘厲.公藥必先嘗.至不潔.大夫人不從.則或盡一碗.泣勸之.遂已疾.公繼臥幾不起.幸甦.其年.爲養乞水原府使.(…)

이산해(李山海), <아계유고(鵝溪遺稿)>, 제6권 지류(誌類), 任判書墓誌銘>

정치/인물

이산해의 묘지명으로 이치(李穡)가 수원 판관(水原判官)을 지냈다는 내용.

(…) 공의 휘는 산해(山海), 자는 여수(汝受)이며, 아계(鵝溪)는 호이다. 그의 선대는 한산 이씨(韓山李氏)로부터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망족(望族)이 되었다. (…)

목은의 막내아들인 휘 종선(種善), 시호가 양경(良景)인 분은 공의 6대조이다. 문열공(文烈公) 휘 계전(季甸), 대사성 휘 우(塢)를 거치면서 화려한 소문이 세상에 전파되었다. 대사성이 휘 장윤(長潤)을 낳았는데 봉화 현감(奉化縣監)을 지내고 이조 판서에 증직되었으며, 현감이 휘 치(穡)를 낳았는데 수원 판관(水原判官)을 지내고 의정부 좌찬성에 증직되었고, 판관이 휘 지번(之蕃)을 낳았는데 내자시 정(內資寺正)을 지내고 호는 성암(省庵)이며 의정부 영의정에 증직되었고, 배필인 의령 남씨(宜寧南氏)는 정경부인(貞敬夫人)에 증직되었는데, 우봉 현령(牛峰縣令) 휘 수(脩)의 딸이다. 삼대의 증직은 공이 높은 벼슬을 한 때문이다. (…)

이산해(李山海), <아계유고(鵝溪遺稿)>, 아계 이상국 연보 부록 지문(誌文), 수충익모광국추

충분의협책평난공신(輸忠翼謨光國推忠奮義協策平難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報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 겸 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 세자사(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 아성부원군(鵝城府院君) 이공(李公) 묘지명(墓誌銘)>

정치/인물

이치(李穡)가 수원 통판(水原通判)을 역임했다는 내용.

나의 조부이신 증 찬성공(贈贊成公)의 휘는 치(穡)이며, 자는 자담(子聃)으로 가정(稼亭) 문효공(文孝公)의 6대손이다. (…)
정묘년(丁卯年)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다. 태학에서 금오랑(金吾郎)을 천수(薦授)하고 한성 참군으로 전환하였다가 사헌부 감찰이 되었다. 나가서 우봉 현령(牛峯縣令)과 수원 통판(水原通判)이 되었다가 얼마 후에 병환으로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향년(享年)은 54세였다. (…)

吾祖父贈贊成公諱.字.稼亭文孝公六代孫也.(…)
中丁卯司馬.大學薦授金吾郎.轉漢城參軍, 司憲府監察.出爲牛峯縣令, 水原通判.未幾.以疾卒于家.享年五十四.(…)

이산해(李山海), <아계유고(鵝溪遺稿), 제6권 명류(銘類), 祖父墓碣銘>

정치/인물

윤처성(尹處誠)이 수원 부사를 지냈다는 내용.

전중 윤군의 휘는 홍언(弘彦)이며, 자는 사미(士美)인데 영남(嶺南) 해평현(海平縣) 사람이다. (…)
휘 처성(處誠)은 수원 부사(水原府事)를 지냈는데 공의 고조(高祖)이다. (…)

殿中尹君諱弘彦.字士美.嶺南海平縣人.諱處誠.水原府事.於公高祖.(…)

이산해(李山海), <아계유고(鵝溪遺稿), 제6권 명류(銘類), 殿中尹公碣銘>

정치/인물

1667년(현종 8) 12월에 경기 감사가 수원의 요승(妖僧)에 대해 장계하였다는 내용.

○ 12월에 경기 감사가 수원(水原)의 요승(妖僧)에 대해 장계로 아뢰었다. 고사(故事)에 보면 아무리 급한 일을 알리는 글이라도 해방 승지(該房承旨)가 반드시 다 본 뒤에 임금께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에 이르러 지체했다 하여 공을 나문(拿問)하라고 명하였다. 공은 조회할 때마다 남들보다 먼저 공문(公門)에 이르렀는데, 이날 마부와 말이 미처 도착하지 못했으므로 승정원에서부터 도보로 걸어 의금부에 나아갔다. 혹자가 너무 지나치다고 말하자, 공은 대답하기를, “죄의 경중을 막론하고 죄인으로서 수레에 명예를 매기를 기다려서야 되겠는가.”하였다. (…)

남구만(南九萬), <약천집(藥泉集), 약천연보 제2권, 39세 정미년(1667, 현종8)>

정치/인물

1675년(숙종 1) 12월에 이여발(李汝發)이 수원 부사로 나갔다는 내용.

(…) 계축년(1673)에 모부인의 상을 당하였으며, 을묘년(1675, 숙종 1)에 복을 마치고 다시 우윤에 제수되었다. 공은 입시했을 때에 강촌(江村)의 백성들이 얼음을 운반하는 부역에 시달리고 여러 궁가의 곡식을 실은 배를 수직(守直)하는 병폐를 아뢰었는데, 상은 마침내 명령을 내려 이를 금하게 하였다. 12월에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나갔으며, 정사년(1677)에 다시 어영대장이 되었다. (…)

(…) 癸丑丁母夫人憂.乙卯服闋.復拜右尹.入侍陳江村民受困運冰之役.及守直諸宮家穀船之弊.

上遂下令禁之.十二月出爲水原府使.丁巳復將御營.(…)

남구만(南九萬), <약천집(藥泉集), 제23권 행장(行狀), 韓興君李公諱諡行狀>

정치/인물

1675년 남구만이 지은 최상고의 묘갈명으로, 수원군(水原郡) 사람이라는 내용.

(…) 공은 휘가 상고(尙高)이고 자가 사수(士守)이다. 시조는 영규(永奎)이니, 본래 수원군(水原郡) 사람이었다. 고려 태조가 남쪽을 정벌할 적에 첫 번째로 의리에 따라 귀순하고 도우니, 고려 태조가 가사히 여겨 군(郡)의 칭호를 올려 주(州)라 하였다. 이후로 벼슬한 분들이 서로 이어져서 명문거족이 되었다. (…)

(…) 公諱尙高字士守.始祖曰永奎.本水原郡人.麗太祖之南征.首義助順.麗祖嘉之.升郡號爲州.自此冠冕相承爲大姓.(…)

남구만(南九萬), <약천집(藥泉集), 제19권 묘갈명(墓碣銘), 贈司饗參奉崔公墓碣銘 乙卯>

정치/인물

1669년 남구만이 지은 정재해(鄭載海)의 묘갈명으로 수원 갈곡에 장사지냈다는 내용.

(…) 12월 갑자기 병이 나서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별세하니, 향년이 겨우 31세였다. 부음이 서울에 전해지자,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모두 놀라고 애도하였으며, 후자는 눈물을 떨구기까지 하였다. 임인년 4월 고향인 수원부(水原府) 서쪽 갈곡(葛谷)의 산에 장례하였다. (…)

(…) 十二月猝中疾.竟不起.享年僅三十一.訃聞于京師.知與不知.咸失驚悼傷.或者至於隕涕.壬寅四月.歸葬于水原府西葛谷之原.(…)

남구만(南九萬), <약천집(藥泉集), 제19권 묘갈명(墓碣銘), 兵曹佐郎鄭公墓碣銘 己酉>

정치/인물

1703년 남구만이 지은 유백중(兪伯曾)의 신도비명으로 수원부사에 제수되었다는 내용.

(…) 상은 대신들을 비난하고 업신여겼다고 하여 추고하고 수원 부사를 제수하였다. (…)

(…) 上以議侮大臣推考.除水原府使.(…)

남구만(南九萬), <약천집(藥泉集), 제18권 신도비명(神道碑銘), 杞平君忠景兪公神道碑銘 癸未>

정치/인물

남구만이 지은 김시진(金始振)의 묘지명으로, 수원 부사로 나갔다는 내용.

(…) 상은 특명으로 다시 비국을 맡겨 소결(疏決)을 관장하게 하였으며 겸 동지의금부사가 되었다.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나갔다가 오래지 않아 병으로 돌아와 정미년(1667, 현종 8) 4월 16일 서울의 집에서 별세하니, 6월에 목천현(木川縣) 행암리(杏巖里)의 산에 장례하였다. (…)

(…) 特命復任備局管疏決.兼同知義禁府事.出水原府使.未久病歸.丁未四月十六日.卒于京第.六月葬木川縣杏巖里之原.(…)

남구만(南九萬), <약천집(藥泉集), 제16권 묘지명(墓誌銘), 禮曹參判金公墓誌銘>

정치/인물

1703년 남구만이 지은 이규령의 묘지명으로 수원부사로서 정사를 잘했다는 내용.

공은 휘가 규령(奎齡)이고 자가 문서(文瑞)이고 성이 이씨(李氏)이니, 한산군(韓山君)에 봉해진 목은 선생(牧隱先生) 휘 색(穡)의 11대손이다. (…)경신년 묘당에서 천거하여 수원부사(水原府使)로 올렸는데, 다스림이 죽산에 있을 때와 똑같았다. 이에 멀리 있는 친구와 선배들도 편지를 보내어 정사를 잘한다는 명성이 사방에 퍼짐을 축하하였다. (…)

公諱奎齡字文瑞.姓李氏.韓山君牧隱先生諱穡之十一代孫.(…)庚申廟堂薦移水原.其治如竹.知舊長者之在遠者.亦送書賀其政聲之流聞.(…)

남구만(南九萬), <약천집(藥泉集)>, 제16권 묘지명(墓誌銘), 刑曹判書李公墓誌銘 癸未>

정치/인물

1683년 남구만이 지은 정재해의 묘지로, 수원부 갈곡(葛谷)의 산에 장례지냈다는 내용.

(…) 공은 휘가 재해(載海)이고 자가 여진(汝振)이며 동래인(東萊人)이다. (…)임인년(1662, 현종 3) (…) 돌아오기 전에 병조 좌랑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았는데, 12월 갑자기 병환이 들어 대구부(大丘府)의 감영에서 별세하였다. (…)다음 해 4월 고향인 수원부(水原府) 갈곡(葛谷)의 산에 장례하였다. (…)

(…) 公諱載海字汝振.東萊人也.(…) 壬寅 (…)未還除兵曹佐郎.辭不赴.十二月猝患疾.不起于大丘府之營廨.(…) 明年四月.歸葬于水原府葛谷之原.(…)

남구만(南九萬), <약천집(藥泉集)>, 제15권 묘지명(墓誌銘), 兵曹佐郎鄭公墓誌 癸亥>

정치/인물

화성(華城)의 수원유수가 들렸다는 내용.

(…) 표이(藁耳)는 동승(東僧)과 더불어 언약이 있으니 오면 당연히 나눠 주겠으며 운구(雲句)²⁰⁸는 상기도 오지 않았네. 마침 화성(華城)의 유상(留相: 수원유수(水原留守)를 이름)이 역로(歷路)에 들어서 극히 분요하므로 간신히 답을 썼네. 불선.

與梁文畹[二]

(…) 藁耳與東僧有約.來當分之.雲句尙不來耳.適因華城留相歷存.極擾艱答.不宣.

김정희(金正喜), <완당전집(阮堂全集)>, 제4권 서독(書牘), 기이(其二)>

정치/인물

주세붕이 지은 이행의 행장으로, 수원 부사 이성언이 이행의 억울함을 변론하였다는 내용.

(…) 이때 수원 부사(水原府使) 이성언(李誠彦)이 상소하여 공의 억울함을 변론하였으나 비답이 내리지 않았으며, 성균관의 유생들 역시 소장을 올려 변론을 진달하려 하였으나 안처겸(安處謙)에 의해 저지되니, 식자(識者)들이 탄식하지 않는 이가 없었고 공이 떠남을 애석하게 여긴 나머지 심지어 눈물을 흘리는 이조차 있었다. (…)

(…) 時水原府使李誠彦上疏.辨公之誣.不報.成均館儒生.亦草疏欲上陳.而爲安處謙所沮.識者莫不傷歎.惜公之去.至有流涕者.(…)

이행(李荇), <용재집(容齋集)>, 행장(行狀),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成均館事世子傳李公行狀[周世鵬撰]>

정치/인물

208) 운구(雲句) : 산승(山僧)임. 완당에게 자주 내왕하였음.

이행이 지은 정광보(鄭光輔)의 묘갈명으로, 정한룡(鄭漢龍)이 수원 판관에 제수되었다는 내용.

공의 휘는 광보(光輔)이고 자는 운지(運之)이며 동래 정씨(東萊鄭氏)이다. (….) 공의 배필 전의 이씨(全義李氏)는 대호군(大護軍) 이격(李格)의 따님으로 공보다 26년 먼저 세상을 떠났으며, 4남 4녀를 낳았다. 아들의 맏이 한룡(漢龍)은 수원 판관(水原判官)이고, 둘째 사룡(士龍)은 바로 부제학군으로 19세에 과거에 급제하였고 또 중시(重試)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바야흐로 문명(文名)을 떨치고 있다. (….)

公諱光輔.字運之.東萊鄭氏.(…) 公配金義李氏.大護軍格之女.先公二十六年歿.生四男四女.男長漢龍.水原判官.次士龍.卽副提學君.年十九.登第.又擢重試狀頭.方以文章名.(….)

이행(李荇), <용재집(容齋集), 제10권 산문(散文), 通政大夫行昌原府使鄭公墓碣銘>

정치/인물

이행이 지은 이손(李蓀)의 신도비명으로 넷째 성언(誠彦)이 수원 부사를 지냈다는 내용.

공의 휘(諱)는 손(蓀)이고 자는 자방(子芳)이며 성은 이씨(李氏)이니, 관향은 광릉(廣陵)이다.(…) 4남 3녀를 낳았다. 아들의 맏이 수언(粹彦)은 대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사헌부 집의에 이르렀고 공이 재상감으로 기대하였으나 나이 마흔이 채 못 되어 죽었다. 둘째 순언(純彦)은 내자시 부정(內資寺副正)이고, 셋째 온언(溫彦)은 재명(才名)이 있었으나 과거에 급제하기도 전에 죽었다. 넷째 성언(誠彦)은 대과에 급제하고 정국 공신(靖國功臣)이 되었으며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벼슬을 마쳤다. (….)

(…) 公諱蓀.字子芳.姓李氏.廣陵人.(…) 生四男三女.長粹彦.登第.官至司憲府執義.人以公輔期之.未四十而歿.次純彦.內資寺副正.次溫彦.有才名.未第而夭.次誠彦.登第.參靖國勳.以水原府使罷.(….)

이행(李荇), <용재집(容齋集), 제10권 산문(散文), 秉忠奮義靖國功臣崇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漢山君贈諡胡簡公神道碑銘>

정치/인물

성혼이 지은 백인걸의 행장으로, 본관이 수원이라는 내용.

공은 휘(諱)가 인걸(仁傑)이고 자가 사위(士偉)이며 성은 백씨(白氏)이다. 선조는 개성부(開城府)에서 나왔는데, 중간에 수원(水原)으로 옮겨 마침내 수원부 사람이 되었다. 고려 때 시중(侍中) 경신(景臣)의 후손이고, 정당문학(政堂文學) 천장(天臧)의 7세손이다. 증조는 휘가 효참(效參)인데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으로 승정원 도승지에 추증되었고, 조고(祖考)는 휘가 사수(思粹)인데 승문원 참교(承文院參校)로 예조 참판에 추증되었으며, 선고(先考)는 휘가 익견(益堅)인데 왕자 사부(王子師傅)로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으니, 모두 공이 귀해짐으로 인하여 추증된 것이다. (….)

公諱仁傑.字士偉.姓白氏.其先系出開城府.中移于水原遂爲水原府人.高麗侍中景臣之後.政堂文學天臧之七世孫也.曾王父諱效參.司憲府持平.贈承政院都承旨.王父諱思粹.承文院參校.贈禮曹參判.考諱益堅.王子師傅.贈吏曹判書.皆以公貴追爵.(….)

성혼(成渾), <우계집(牛溪集), 제6권 잡저(雜著), 議政府右參贊白公行狀>

정치/인물

정경세가 박여룡에게 보낸 편지로 수원의 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내용.

(…) 수원(水原)의 일은 놀랍고 한탄스러움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은 나와 교분이 있었는데,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충성심이 간절하고 지극하였습니다. 축재(蓄財)하여 집을 윤택하게 하는 일일랑 자연 가까이하지 않았을 터인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죄로 삼으니, 자못 서글프고 한탄스럽습니다. (…)

(…) 水原事.驚歎可言.此君渾與之交.憂國愛民.忠誠懇至.潤屋之事.自不相近.而今以此爲罪.殊可傷歎.(…)

정경세(鄭經世), <우계집(牛溪集), 속집 제4권 간독(簡牘), 與朴舜卿【汝龍】>

정치/인물

22일 경인일에 수원(水原)에 도착하여 명을 들었다.

(…) ○ 22일 경인일에 수원(水原)에 도착하여 호소사(號召使)로 삼으라는 명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

(…) ○庚寅.到水原.聞有號召使之命.(…)

정경세(鄭經世), <우복집(愚伏集), 별집 제6권 부록(附錄), 年譜【三】, 丁卯天啓七年【今上五年】先生年六十五歲>

정치/인물

장서(姜緒)가 어머니의 봉양을 위해 수원 부사가 되었다는 내용.

(…) 신사년(1581, 선조14)에 아버지의 상을 당하였다. 갑신년(1584) 봄에 다시 장령에 제수되었다가 어머니의 봉양을 위해 외직으로 나가 수원 부사(水原府使)가 되었는데, 공무를 판결하는 것이 엄명하여 아전들은 두려워하고 백성들은 그리워하였다. 이해 겨울에 직질(職秩)을 더하도록 명을 받았으나 1년도 채 못 되어 병으로 이내 사양하고 향리로 돌아갔다. 병술년(1586)에 남양 부사(南陽府使)에 제수되었는데, 법에 있어서 응당 외임에 다시 제수되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당시에 변경 지방에 경보가 있어 연해(沿海)의 수령들을 모두 무변(武弁)으로 바꾸었는데, 이로 인해 체차되고서 향리로 돌아갔다. (…)

(…) 辛巳.丁外艱.甲申春.復拜掌令.爲養出爲水原府使.剖決嚴明.吏畏民懷.冬命增秩.未一年.謝病歸.丙戌.授南陽府使.法應還除外任故也.時有邊警.沿海守令皆易以武弁.因此遞歸.(…)

정경세(鄭經世), <우복집(愚伏集), 제18권 묘표(墓表), 通政大夫行承政院左承旨姜公墓表>

정치/인물

이정구가 지은 시로 수원방어사 이시백 등에게 보낸 시.

수원 방어사(水原防禦使) 이시백(李時白) 영공(令公)이 연평(延平)의 강가 누각에 술자리를 마련하고 함께 술을 마시자고 초대하였는데 나는 병으로 가지 못하고 절구 한 수를 써서 옥여(玉如)와 여익(汝翼) 제공(諸公)에게 부치다.

한남의 수레와 기마병 삼천이 호위하였나니 / 漢南車騎擁三千

띠를 느슨히 매고²⁰⁹⁾ 저물녘 배에 기대어 섰으리 / 緩帶秋江倚晚船

우스워라 이 썩은 선비는 좋은 흥취가 없어 / 堪笑腐儒無好興

밝은 달빛 하늘에 가득해도 창문 닫고 자노라 / 滿天明月閉窓眠

209) 띠를 느슨히 매고 : 학문이 뛰어난 선비로서 장수의 직임을 맡은 사람을 뜻하는 말로, 진(晉)나라 양호(羊祜)가 군진(軍陣)에 있을 때 항상 가벼운 갓옷을 입고 띠를 느슨히 맨 채 선비의 풍모를 보였다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晉書 卷34 羊祜列傳》

이정구(李廷龜), <월사집(月沙集), 제18권 권응록 하(倦應錄下), 水原防禦使李時白令公置酒延平江閣.邀與共飲.余病未赴.書一絕寄玉汝, 汝益諸公.>

정치/인물

1626년(인조 4) 성묘하러 갔을 때 수원방어사공이 술상을 차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지은 시.

병인년(1626, 인조4) 추석에 휴가를 받아 성묘하러 갔다. 옛날에는 묘소 아래에 비바람을 가릴 건물이 없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제사(齋舍) 몇 칸을 지었기에 제사를 지낸 후 친척 제군(諸君)들과 이 집에 묵었다. 이때 참석한 내외 후손들이 수십여 명이었으니, 매우 성대한 일이다. 수원 방어사(水原防禦使) 공이 술상을 차리고 함께 즐겼는데 술기운이 거나할 때 적어서 좌중의 사람들에게 보였다.

노년에 휴가를 받아 송추에 오게 됐나니 / 松楸休暇趁餘生

성운으로 제수에다 약까지 하사하셨어라 / 恩奠兼蒙藥裹榮

우리 이씨 집안 우연히 연일 모임을 가지고 / 我李偶成連日會

우리 제사는 십 년 만에 완공을 보게 되었어라 / 吾廬幸遂十年營

창에 가득한 밝은 달빛이 몹시도 어여쁘고 / 偏憐霽月當窓滿

섬돌 따라 흐르는 맑은 시내 또한 사랑스럽네 / 還愛晴川遶砌鳴

어린 시절 놀던 곳 그 나무도 그대로이니 / 某樹依然遊戲地

가을바람 상로(霜露)에 슬픔을 견딜 수 없구나 / 秋風霜露不勝情

丙寅秋夕.休暇省墓.墓下舊無風雨之庇.今始略構數椽.祭後與親黨諸君.會宿於此.內外諸孫之與會者數十餘人.甚盛事也.水原防禦公.設酒同歡.酒酣.錄示座上.(시생략)

이정구(李廷龜), <월사집(月沙集), 제18권 권응록 하(倦應錄下)>

정치/인물

정철이 수원 부사(水原府使)에 제수되었다는 내용.

병신년(1596, 선조29)에 예조 정랑(禮曹正郎)으로서 고급사(告急使)에 차임(差任)되어 중국 밀운현(密雲縣)의 군문(軍門)에 가서 구원병을 요청하고 돌아와서 사성(司成), 수원 부사(水原府使)에 제수되었다. 수원은 기보(畿輔)의 험요(險要)한 고을로 막 병화(兵火)를 입었으며 삼남(三南)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다. 공이 정성을 다해 위무(慰撫)하니 군민(軍民)이 평안하여 공을 부모와 같이 떠받들었다. 고을 백성들이 서천(舒川)에서와 같이 공을 위해 송덕비(頌德碑)를 세웠다.

丙申.以禮曹正郎.差告急使.請兵於密雲軍門.還拜司成, 水原府使.水原畿輔巖邑.新剝於兵.當三南孔道.公撫摩盡誠.軍民按堵.戴之如父母.州民立碑頌德如舒川.

이정구(李廷龜), <월사집(月沙集), 제44권 신도비명 하(神道碑銘下), 左參贊贈右議政諡文肅鄭公神道碑銘>

정치/인물

이홍간(李弘幹)이 권귀(權貴)의 미움을 받아 수원 군수가 되었다는 내용.

(…) 외직으로는 평안 평사(平安評事), 전라 도사(全羅都事)를 역임했고 아버이 봉양을 위

210) 상로(霜露) : 《예기(禮記)》〈제의(祭義)〉에, “상로가 내리면 군자가 이를 밟으매 반드시 서글픈 마음이 든다.” 한 대목을 인용한 것으로, 돌아가신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해 곤양(昆陽)·옥천(沃川)의 군수(郡守)를 맡았다. 그러다 한 번 권귀(權貴)의 미움을 받아 수원 군수(水原郡守)가 되었고 재차 미움을 받아 공주(公州)·청주(淸州)·광주(光州) 세 고을의 목사(牧使)가 되었는데, 가는 곳마다 치적이 늘 도내(道內)에서 최고였다. (…)

(…) 於外庸則平安評事全羅都事. 便養守昆陽, 沃川郡. 一忤權貴. 爲水原郡守. 再忤爲公, 淸, 光三州牧. 治常爲一道最. (…)

이정구(李廷龜), <월사집(月沙集), 제47권 묘갈명 하(墓碣銘下), 兪知李公墓碣銘>

정치/인물

조익이 지은 이정구의 행장으로 경기감사로서의 치적을 서술한 내용.

(…) 정포은(鄭圃隱)의 묘소가 용인(龍仁)에 있었는데 공이 뜻을 같이하는 제공 및 유생들과 의논하고는 감영의 봉록(俸祿)을 출연하여 서원(書院)을 세웠다. 그 일이 알려지니 상이 ‘충렬(忠烈)’이라는 편액을 내렸다. 마전(麻田)의 숭의전(崇義殿)²¹¹⁾이 난리를 겪은 뒤 퇴락하여 목주(木主)가 담장 사이에 버려졌는데 공이 또 봉록을 출연하여 수선한 다음 향축(香祝)을 보내어 제사를 올리도록 하고 후손인 왕곤(王鵬)을 전감(殿監)으로 삼게 해 줄 것을 계청하였다. 그리고 죽산산성(竹山山城)과 수원산성(水原山城)을 보수하였다. (…)

2월 7일에 임진(臨津)이 적에게 함락되었다는 보고가 이르자 대가가 몽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공이 아뢰기를, “경성은 크니 적(賊)이 성곽을 다 포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적은 겨우 수천 명에 불과합니다. 서로(西路)가 곳곳마다 무너진 탓에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경성은 쉽사리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적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충청 병사(忠淸兵使)가 거느린 군대와 수원(水原)의 군대와 도감의 군대가 대략 적의 10배나 됩니다. (…)

(…) 鄭圃隱墓在龍仁. 公與同志諸公及諸儒生議. 出營俸建書院. 事聞. 賜額曰忠烈. 麻田崇義殿. 亂後頽圯. 木主委墻壁間. 又捐俸修繕. 啓請遣香祝以祭. 令其裔孫王鵬爲殿監. 修竹山, 水原山城.

(…) 二月七日. 臨津不守之報至. 大駕議去邠. 公啓曰. 京城大則賊之圍城亦難. 今賊僅數千. 雖緣西路處處奔潰. 以至於此. 而京城則賊亦知不可猝犯. 忠淸兵使所率及水原軍都監軍. 槩已十倍於賊. (…)

이정구(李廷龜), <월사집(月沙集), 부록 제2권, 行狀>

정치/인물

장유가 지은 이정구의 시장으로, 경기관찰사로서의 치적을 서술한 내용.

(…) 공은 관찰사로 경기 지방을 다스리면서 풍교(風敎)를 엄히 바로잡고 폐추(廢墜)된 일들을 다시 정비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았다. 그리하여 포은서원(圃隱書院)을 용인(龍仁)에 세웠는데, 이 일이 조정에 보고되자 위에서 충렬(忠烈)이라는 편액을 하사하였다. 그리고 숭의전(崇義殿)을 중신(重新)하고 후손인 왕곤(王鵬)을 전감(殿監)으로 삼게 해 줄 것을 청하였으며, 수원(水原)과 죽산(竹山) 두 산성을 보수하여 군량과 기계(機械)를 비축해 둬으로써 급할 때의 대비책이 되도록 하였다. (…)

(…) 公之治畿也. 以厲風敎修廢墜爲先務. 建圃隱書院于龍仁. 事聞. 賜額曰忠烈. 重新崇義殿. 請以其裔孫王鵬爲殿監修. 治水原, 竹山二山城. 儲待糧械. 爲緩急備. (…)

이정구(李廷龜), <월사집(月沙集), 부록 제3권, 諡狀[德水張維撰]>

211) 숭의전(崇義殿) : 고려 태조(太祖) 이하 8왕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정치/인물

박수림(朴秀林)의 셋째 아들 박담손(朴聃孫)이 수원 판관을 지냈다는 내용.

(…) 장남 휘 시손(始孫)은 종사랑(從仕郎)인데 공보다 먼저 젊은 나이에 졸(卒)하였다. 둘째 휘 인손(彦孫)은 행 사용(行司勇)이고 셋째 휘 담손(聃孫)은 통훈대부(通訓大夫) 전(前) 수원 판관(水原判官)이다. 장녀는 고창 현감(高敞縣監) 이의수(李宜修)에게 출가하였고, 둘째는 병조 참판 이륙(李陸)에게 출가하여 정부인(貞夫人)에 봉해졌고, 셋째는 전산군(全山君) 이수남(李壽男)에게 출가하여 정부인에 봉해졌고, 넷째는 충훈부 도사(忠勳府都事) 권괄(權括)에게 출가하였다. (…)

(…) 男長諱始孫.從仕郎.先公早卒.次諱彦孫.行司勇.次諱聃孫.通訓大夫前水原判官.女長適高敞縣監李宜修.次適兵曹參判李陸.封貞夫人.次適全山君李壽男.封貞夫人.次適忠勳府都事權括. (…)

박은(朴閔), <읍취헌유고(挹翠軒遺稿), 제4권 행장(行狀), 先祖考奉列大夫行交河縣監朴公府君行狀>

정치/인물

김육이 지은 이제민의 묘표로 1576년에 수원부사가 되었다는 내용.

(…) 공은 이름이 제민(齊閔)이며, 자은 경은(景閔)으로 장헌대왕의 후손이다. (…)

(…) 신미년(1571, 선조 4)에 승지에서 체차되어 경주 부윤(慶州府尹)이 되었고, 갑술년(1574)에 양주 목사(楊州牧使)가 되었으며, 병자년(1576)에 수원부(水原府)를 맡았다가 읍호(邑號)가 강등됨으로 인하여 체차되어서 곧바로 진주 목사(晉州牧使)가 되었다. (…)

(…) 公諱齊閔.字景閔.莊憲大王之後.(…) 辛未.遞承旨爲慶州府尹.甲戌.牧楊州.丙子.任水原府.因降號而遞.旋牧晉州.(…)

김육(金堉), <잠곡유고(潛谷遺稿), 제12권 묘표(墓表), 大司憲贈左議政李公墓表>

정치/인물

김육이 지은 백인걸의 신도비명으로, 개경에서 수원으로 이사해서 호적을 만들었다는 내용.

공의 휘는 인걸(仁傑)이고 자는 사위(士偉)이며, 그 선조는 송경(松京)에서 나왔는데, 수원(水原)으로 이사해 호적을 만들었다. 고려에서 시중(侍中)을 지낸 백경신(白景臣)의 후손이며,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지낸 백천장(白天臧)의 7대손이다. (…)

公諱仁傑.字士偉.其先出於松京.徙籍水原.高麗侍中景臣之後.政堂文學天臧七世孫也.(…)

김육(金堉), <잠곡유고(潛谷遺稿), 제13권 신도비명(神道碑銘), 贈左贊成諡忠肅白公神道碑銘>

정치/인물

최해가 지은 전백현의 묘지로, 전백현이 수원부사를 역임했다는 내용.

(…) 신헌년(1311)에 외직으로 나가 지김해부(知金海府)가 되었으며, 이듬해에 성안부(成安府)로 옮겼고 또 두 해가 지나 수원부(水原府)로 옮겼다. (…)

(…) 辛亥.出知金海府.明年.移成安府.又二年.移水原府.(…)

최해(崔濯), <줄고천백(拙藁千百), 제2권, 全柏軒墓誌>

정치/인물

학사(學士) 윤지(尹墀)이 수원으로 부임할 때 준 시.

학사(學士) 윤군옥(尹君玉)이 수원(水原)으로 부임하는 데 주다 【2수. 이름은 윤지(尹墀)²¹²⁾이다.】

그대 모습 얼음이나 옥과 같나니 / 學士如氷玉
선조에게 아름다운 외손이 있네²¹³⁾ / 先朝有外孫
집안 문벌 정승한 분 이어져 높고 / 家仍相門大
명성은 또 간원 눌러 존귀하다네²¹⁴⁾ / 名壓諫垣尊
수야²¹⁵⁾에는 어진 명성 가득도 하고 / 隋野賢聲滿
당릉²¹⁶⁾에는 끼친 은혜 남아 있구나 / 唐陵惠愛存
금란²¹⁷⁾에는 정히 자리 비어 있거니 / 金鑾正虛席
어느 날에 다시 임금 은혜 받을꼬 / 幾日更承恩

【일찍이 남양(南陽)의 수령으로 있으면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끼쳤으며 간원(諫院)의 장으로 있다가 외직으로 보임되었다.】

석실 주위 소나무 숲 고요하기에 / 石室松門靜
등상 위서 죽침 높이 베고 누웠네 / 藤床竹枕高
서늘 기운 들이려고 북쪽 창 열고 / 納涼開北牖
휘파람을 불며 동쪽 언덕 오르네 / 舒嘯上東臯
웅그라진 작약 산골 술에 떠 있고 / 癭勺浮山釀
향기로운 나물 냇가 풀을 지졌네 / 香蔬煮澗茼
진근²¹⁸⁾ 죄다 깨끗하게 씻어내려고 / 塵根欲淨盡
맑고 묘한 시 짓느라 홀로 애쓰네 / 淸妙獨心勞

【내가 막 석실로 물러나 한가로이 지내고 있었으므로 흥취를 붙여서 보냈다.】

學士如氷玉.先朝有外孫.家仍相門大.名壓諫垣尊.隋野賢聲滿.唐陵惠愛存.金鑾正虛席.幾日更承恩.【曾守南陽有遺愛.由諫長出補.】

石室松門靜.藤床竹枕高.納涼開北牖.舒嘯上東臯.癭勺浮山釀.香蔬煮澗茼.塵根欲淨盡.淸妙獨心勞.【余方退閑石室.故寓興以寄.】

김상헌(金尙憲), <청음집(淸陰集), 제4권 오언율시(五言律詩), 贈尹學士君玉赴水原二首○名墀>

212) 윤지(尹墀) : 1600 ~ 1644. 본관은 해평(海平)이고 자는 군옥(君玉)이며 호는 하빈옹(河濱翁)이다. 영의정 윤방(尹昉)의 손자이고, 해송위(海崇尉) 윤신지(尹新之)의 아들이다. 인조반정 이후 삼사(三司)의 요직을 역임하고 수원 부사를 지냈으며, 병자호란 이후 예조 참판, 전라도 관찰사, 경기 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유학을 몸소 실천한 유학자로 글씨도 뛰어났다.

213) 선조(先朝)에게 …… 있네 : 선조는 선조(宣祖) 임금을 가리킨다. 윤지는 해송위(海嵩尉) 윤신지(尹新之)의 아들로, 어머니가 선조의 딸인 정혜옹주(貞惠翁主)이므로 선조에게는 외손이 된다.

214) 명성은 …… 존귀하다네 : 윤지는 수원 부사로 나가기 직전에 사간원 대사간으로 있었다.

215) 수야(隋野) : 수원(水原)을 가리킨다. 수원의 고호가 수성(隋城)이다.

216) 당릉(唐陵) : 남양(南陽)을 가리킨다. 남양의 고호가 당성(唐城)이다.

217) 금란(金鑾) : 당나라 때 학사와 문인들이 있던 궁전 이름으로 흔히 예문관(藝文館)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218) 진근(塵根) : 불가의 말로 육진(六塵)과 육근(六根)을 말한다. 육진은 색(色), 성(聲), 향(香), 미(味), 촉(觸), 법(法)으로 육근을 통하여 의식을 일으키는 육경(六境)을 말하며, 육근은 안(眼), 이(耳), 비(鼻), 설(舌), 신(身), 의(意)의 여섯 가지 기관을 말한다.

정치/인물

1608년(선조41) 변양걸(邊良傑)이 수원 부사에 제수되어 방어사를 겸임하였다는 내용.

(…) 다음 해인 무신년(1608, 선조41)에 산릉(山陵)에 나아가 임하였고, 다시 도총관(都摠管)에 제수되었다. 얼마 뒤에 수원 부사(水原府使)에 제수되어 방어사(防禦使)를 겸임하였다 가 제주 목사(濟州牧使)로 고쳐졌다. (…)

(…) 明年赴臨山陵.復拜都摠管.俄授水原府使兼防禦使.改濟州牧使.(…)

김상헌(金尙憲), <청음집(淸陰集), 제24권 비명(碑銘), 知中樞府事邊公神道碑銘>

정치/인물

이시언(李時彦)이 수원부사에 제수되었으나 인천 백성들의 청에 따라 취소되었다는 내용.

(…) 권신(權臣) 이산해(李山海)가 언관(言官)들에게 넌지시 말하여 정승 정철(鄭澈)에게 죄를 씌우면서 사류(士類)들 가운데 자신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모두 제거하고자 하였다. 이에 공은 집의(執義)로 있던 신흠(申欽) 및 두세 명의 동료들과 더불어 있는 힘을 다하여 간하면서 구원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시의(時議)를 크게 거슬러 오랫동안 산질(散秩)에 있었다. 또다시 어사로 호남과 영남 지방에 나가 군량미 조달을 독려하였으며, 얼마 뒤에 인천 부사(仁川府使)에 제수되었는데, 번잡한 업무를 잘 처리한다는 이유로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옮겨졌다. 그러나 부임하기도 전에 백성들이 3년 동안 더 머물러 있게 해 주기를 청함에 따라 인천에 더 있었다. (…)

(…) 權相諷言路.加罪鄭相澈.欲盡去士類之異論者.公與執義申公欽暨二三同寮.極言伸辨.繇是大忤時議.久在散秩.又以御史出督兩南軍餉.亡何拜仁川府使.以能治劇移水原.未赴.聽民借留三年.(…)

김상헌(金尙憲), <청음집(淸陰集), 제24권 비명(碑銘), 右贊成李公神道碑銘>

정치/인물

이정구가 경기관찰사가 되어 수원산성(水原山城) 등을 수리하였다는 내용.

(…) 외직을 구해 나가 경기 관찰사가 되었다. 경기를 다스린 지 몇 달 만에 적체되어 있던 안건들을 물로 씻은 듯이 처리하였으며, 녹봉을 쪼개서 숭의전(崇義殿)을 수리한 다음 왕씨(王氏)의 후손을 찾아내어 제사를 예전과 같이 다시 받들게 하였다. 또 죽주산성(竹州山城)과 수원산성(水原山城)을 수리하였고, 군수 물품을 저축하여 방비책을 튼튼하게 하였으며, 아울러 기문(記文)을 지어 후대에 폐해짐이 없도록 하였다. (…)

(…) 乞外出爲京畿觀察使.視篆數月.積案若洗.割俸繕崇義殿.求王氏後復奉其祀如故.修竹州水原山城.蓄軍實以壯儲胥.竝爲記文.毋廢後觀.(…)

김상헌(金尙憲), <청음집(淸陰集), 제25권 비명(碑銘), 議政府左議政月沙李文忠公神道碑銘>

정치/인물

이괄의 난으로 어가가 수원에 있을 때 대가의 독성 주둔과 삼궁의 내포 주둔을 제안했던 논의를 신익성이 저지했다는 내용.

(…) 어가가 수원(水原)에 머물러 있을 때 상계서 공을 불러 이르기를, “나랏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경은 모름지기 온 힘을 다하여 왕실을 도우라.” 하니, 공은 사례하면서 이어 진달하기를, “체통(體統)을 세우고 위령(威靈)을 진작시켜 못사람들의 마음을 경책시키며,

셋길로 서로(西路)에 있는 수신(帥臣)을 불러 역적들의 후방을 견제하게 하고, 양호(兩湖)의 근왕병(勤王兵)을 규합하여 기각지세(掎角之勢)를 이루게 하소서.” 하였다. 그러자 상께서 이르기를, “경의 말이 참으로 옳다.” 하였다. 의논하는 자들이 대부분 대가(大駕)는 독성(禿城)에 주둔하고, 삼궁은 내포(內浦)에 나누어 주둔하여 형세를 견고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공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극력 말하여 그 의논이 드디어 정지되었다. (…)

(…) 駕次水原.上召公謂曰.國事至此.卿須戮力.以獎王室.公辭謝.仍陳立體統振威靈.以警衆心.問道召西路帥臣.以掣賊後.合兩湖勤王兵.爲掎角之勢.上曰.卿言良是.議者多言大駕駐禿城.三宮分駐內浦.以固形勢者.公力辨其不可.議遂寢.(…)

김상헌(金尙憲), <청음집(淸陰集), 제26권 비명(碑銘), 東陽尉申公神道碑銘>

정치/인물

김상헌이 지은 남원 정충사(貞忠祠)²¹⁹의 비문으로 전라 병사(全羅兵使) 선거이(宣居怡)가 수원(水原)으로 진격할 때 충청절도사 황진(黃進)이 척후(斥候)로 나갔다가 적에게 포위되었다는 내용.

(…) 체찰사가 승제(承制)로 익산(益山)의 임시 군수(郡守)로 삼았는데, 곧바로 정식으로 익산 군수가 되게 하였다. 전라 병사(全羅兵使) 선거이(宣居怡)가 수원(水原)으로 진격하였을 때 공은 척후(斥候)로 나갔다가 적에게 포위되었는데, 적중에 좋은 말을 탄 자가 있는 것을 보고는 그 말을 빼앗아 타고 적의 포위망을 뚫고 돌아왔다. 이 일이 보고되어 절충장군으로 승진되어 충청 조방장(忠淸助防將)에 제수되었다. (…)

(…) 體臣承制.假守益山.命許卽眞.全羅兵使宣居怡之進兵水原也.以公斥候.爲虜所圍.見賊騎善馬者.奪騎潰圍馳還.事聞.陞折衝忠淸助防將.(…)

김상헌(金尙憲), <청음집(淸陰集), 제29권 비명(碑銘), 南原貞忠祠碑>

정치/인물

1592년(선조 25) 윤기(尹祁)가 수원 부사(水原府使)가 되었다는 내용.

(…) 임진년(1592, 선조25)에 상제(喪制)를 마치고 예빈시 정(禮賓寺正)에 제수되었다가 다시 외직으로 나가 수원 부사(水原府使)가 되었다. 왜적들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보고가 올라와 무리(武吏)로 바꿈에 따라 공도 역시 교체되었다. (…)

(…) 壬辰服闋.拜禮賓寺正.又出爲水原府使.倭報急.易武吏.(…)

김상헌(金尙憲), <청음집(淸陰集), 제31권 비명(碑銘), 贈吏曹判書行僉知中樞府事良輔尹公墓碣銘>

정치/인물

1602년(선조 35) 윤황이 수원 판관(水原判官)으로 좌천되었다는 내용.

(…) 임인년(1602, 선조35)에 수원 판관(水原判官)으로 좌천되었다가 다음 해에 파직되어 돌아왔다. (…)

(…) 壬寅.左遷水原判官.明年罷歸.(…)

김상헌(金尙憲), <청음집(淸陰集), 제35권 묘지명(墓誌銘), 司諫院大司諫八松尹公墓誌銘>

219) 정충사(貞忠祠) : 남원(南原)에 있는 사당으로 뒤에 정충사(旌忠祠)로 사액(賜額)되었다. 임진왜란 때 순절(殉節)한 황진(黃進)·고득뢰(高得賚)·안영(安瑛)을 모신 사당이다.

정치/인물

나덕헌(羅德憲)이 수원부 중군(中軍)을 지냈다는 내용.

공(公)은, 휘는 덕헌(德憲)이요, 자는 헌지(憲之)요, 성은 나씨(羅氏)니, 그 선조는 예장(豫章) 사람이다. 후에 바다를 건너 우리나라에 와 나주(羅州)에 적을 두게 되었으니, 시조는 고려 때 감문위 상장군(監門衛上將軍)을 지낸 나부(羅富)다. (…)
임자년(1612, 광해군 4)에 의주 판관(義州判官)에 제수되고, 갑인년(1614, 광해군 6)에 모부인(母夫人)의 상사를 당하여 그 거상을 마친 다음에, 수원부 중군(水原府中軍)을 거쳐 통정(通政)에 올랐다. 병진년(1616, 광해군 8)에 만주(滿洲)의 주장인 누르하치[奴兒哈赤]가 후금(後金)이라 참칭(僭稱)하고 우리나라를 침입해 오려 하므로, 공은 매양 분개하고 걱정하며 보장(保障)이 될 기회를 타서 스스로 그 몸을 바치려 하였다. (…)

이덕무(李德懋),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간본 아정유고 제5권 문(文), 나 통어사(羅統禦使) 일사장(逸事狀)>

정치/인물

남효온이 금강산에 유람했던 것으로 천덕암에 수원부 사족(士族)의 과부가 베푼 도산재(都山齋)가 있었다는 내용.

(…) 윤4월 신사일(1일) (…)
임오일(2일) (…)
천덕암(天德庵)을 들렀다. 암자에는 수원부(水原府) 사족(士族)의 과부가 도산재(都山齋)를 베풀고 있었다. 승려 500여 명이 산허리에 늘어앉아 떠드는 소리가 골짜기 안에 진동하였고, 과부가 못 승려 가운데서 얼굴을 드러낸 채 결연(結緣)을 맺고 있었다. 또 원통암(元通庵)을 찾았다. 암자의 좌우에 있는 두 시내가 암자 앞에서 합류하니, 또한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다. 이곳을 지나 원통암 뒤 고개 영랑현(永郎峴)에 올랐다. 앞서 지나온 여러 봉우리는 일곱이다. 또 윤필암(潤筆庵) 고개를 넘어 윤필암을 들렀다. 또 사자령(獅子嶺)을 넘어 동으로 가니, 곧 지난번에 보았던 사자암(獅子庵)이다. (…)

(…) 過天德庵.庵有水原府士族寡婦設都山齋.僧纍五百人列坐山腰.喧聲動於洞中.寡婦於衆僧中.露面作結緣.又過元通庵.庵之左右有二川.於庵前合流.亦佳境.過此上元通後嶺.永郎峴前所歷諸峯七.又越潤筆庵嶺.過潤筆庵.又越獅子嶺而東.則卽曩日所見獅子庵也.(…)

남효온(南孝溫), <추강집(秋江集), 제5권 기(記), 遊金剛山記>

정치/인물

1372년(공민왕 21) 변옥란(卞玉蘭)이 수원 부사(水原府使)가 되었다는 내용.

(…) 정미년 가을에 전법 정랑(典法正郎)으로서 전라도 안렴사(全羅道按廉使)에 임명되었고, 무신년에 화녕 소윤(和寧少尹)이 되었으며, 임자년에 수원 부사(水原府使)가 되었다. 을묘년에 선공감 판사(繕工監判事)로 임명되었고, 병진년에 내시부 판사(內侍府判事)로 옮겨졌다. (…)

(…) 丁未秋.以典法正郎.出按全羅道.戊申.少尹和寧.壬子.爲水原府使.乙卯.拜繕工判事.(…)

변계량(卞季良), <춘정집(春亭集), 춘정속집 제3권 부록(附錄),太祖實錄>

정치/인물

이정구가 경기감사로서 수원(水原) 등지에 성곽을 수축(修築)하였다는 내용.

(…) 공은 경기 지방을 다스리는 동안, 풍교(風敎)를 먼려시키고 사전(祀典)을 가다듬는 한

편, 숭의전(崇義殿)을 개수(改修)한 뒤 왕씨(王氏)의 후손으로 감목관(監牧官)을 세워 제사를 주관하게 하도록 청하였다. 그리고 수원(水原)과 죽산(竹山)의 두 성곽을 수축(修築)하고 양식과 기계(器械)를 비축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토록 하였다. (…)

(…) 乙巳.出巡察京圻.時設纂集廳.廳議以公不可不預.請破例同參.許之.其治圻也.勵風教修祀典.改建崇義殿.請以王氏後.立監主祀.築水原, 竹山二城.儲峙糧械.以備不虞.(…)

이식(李植), <택당집(澤堂集), 별집 제6권 묘지(墓誌), 月沙李相國墓誌銘>

정치/인물

윤처성(尹處誠)이 수원 부사를 지냈다는 내용.

공의 휘는 승길(承吉)이요, 자는 자일(子一)이요, 호는 남악(南嶽)이다. 윤씨의 가계(家系)는 영남의 해평현(海平縣)에서 나왔다. 시조(始祖)인 윤군정(尹君正)은 고려에서 벼슬하여 사공(司空)의 지위에 이르렀다. 그 뒤로 지밀직사(知密直司) 윤만비(尹萬庇)와 첨의 정승(僉議政丞) 윤식(尹碩)과 정당문학(政堂文學) 윤지현(尹之賢)과 진현관 제학(進賢館提學) 윤방안(尹邦晏)과 보문각 제학(寶文閣提學) 윤사수(尹思修)와 수원 부사(水原府使) 윤처성(尹處誠) 등 6대를 거쳐,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으로 좌찬성에 추증된 휘 면(沔)에 이르는데, 이분이 바로 공에게 고조가 된다. (…)

公諱承吉.字子一.號南嶽.尹氏系出嶺南之海平縣.始祖曰君正.仕高麗.致位司空.歷知密直司萬庇, 僉議政丞碩, 政堂文學之賢, 進賢館提學邦晏, 寶文閣提學思修.水原府使處誠凡六世.至司憲府掌令贈左贊成諱沔.寔爲公高王父.(…)

이식(李植), <택당집(澤堂集), 별집 제8권 행장(行狀) 상, 左參贊尹公行狀>

정치/인물

이경직(李景稷)이 수원부사에 임명되었다는 내용.

(…) 이튿날 대가(大駕)가 남쪽으로 행행(行幸)하게 되자, 공은 다시 진영을 옮겨 대가를 따랐다. 한강(漢江)에 이르렀을 때 대기하는 나룻배도 없는 가운데 온 마을 사람들이 흠어져 달아났으므로, 공이 직접 배 두 척을 찾아낸 뒤 칼을 쥐고 호위하면서 강을 건너갔다. 그 다음날 대가가 수원(水原)에 머물게 되자, 공이 창졸간에 성 안으로 들어가서 분주하게 대가를 호위하며 따르느라, 군진(軍陣)에 있으면서 대오를 엄숙하게 단속할 여유가 없었다. 이에 병조가 공의 행군(行軍)이 질서가 없다는 이유로 죄를 주도록 청하였는데, 용서를 받기는 하였으나 다시 윤숙이 병사(兵使)의 직책을 맡게 되었다.

조정에서 ‘공이 일찍이 왜인(倭人)들을 심복시켰으니 공을 보내 관소(館所)에 머물러 있는 왜인들을 불러오게 하여 군세(軍勢)를 돕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의논을 올렸으므로, 공이 즉시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공이 조목별로 온당치 못한 몇 가지 사항을 위에 아뢰자, 그 의논이 마침내 중지되었다. 얼마 있다가 적이 패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수원 부사(水原府使)에 임명되면서 방어사(防禦使)를 겸하게 되었다. 공이 말을 치달려 수원부에 도착하고 나서 이를 동안 머물며 대접할 제반 일을 준비한 다음, 대가를 경계 위에서 영접하고 미천한 아랫사람에게도 두루 음료수를 나누어 주니, 일행이 모두 칭찬하였다. 호종(扈從)과 관련한 은상(恩賞)을 받고 규례에 따라 가선대부(嘉善大夫)의 품계로 올랐다.

(…) 翌日.大駕南幸.公再移陣從駕.至漢江.津舡失待.村里潰散.公自搜得二船.杖劍護衛以渡.翌日.駕次水原.公倉卒入城.奔走捍扈.不及在陣肅隊.兵曹謂公行軍不齊.請罪見原.而尹璠復爲兵使.朝議以公曾爲倭人所服.欲遣公招留館倭人.以助軍勢.公卽就行.條上不便數事.議遂止.俄而賊

敗報至矣.拜水原府使兼防禦使.公馳至府留二日.董治供帳諸具.迎駕界上.囊漿徧及隸阜.一行稱之.以扈從恩例.進階嘉善.

이식(李植), <택당집(澤堂集), 별집 제10권 행장(行狀) 하, 戶曹判書贈右議政李公諡狀>

정치/인물

조익이 1639년(인조 17) 임동지의 소대록에 쓴 발문으로, 임동지의 고향은 수원이고 묘소는 수원부의 치소에서 서쪽에 있다는 내용.

(…) 삼가 살피건대, 공이 소대(召對)의 은혜를 받은 것은 성화(成化) 2년, 즉 광묘(光廟【세조】) 12년의 일이었고, 공이 징소(徵召)의 은혜를 받은 것은 성화 7년, 즉 성묘(成廟【성종】) 2년의 일이었다. 내가 공에 대해서 유(溜)에게 물어보았더니, 관직은 동지로 그쳤고, 향년(享年)은 90세에 이르렀으며, 고향은 바로 수원(水原)이고, 묘소는 수원부(水原府)의 치소(治所)에서 서쪽으로 몇 리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하였다. (…)

(…) 謹按其召對在成化二年.則光廟十二年也其徵召在成化七年則成廟二年也問之溜.其官止於同知.而享年至於九十.其鄉卽水原也.其墓在水原府治西幾里云.(…)

조익(趙翼), <포저집(浦渚集), 제27권 발(跋), 書林同知召對錄後>

정치/인물

1635년(인조 13) 유백증이 수원부사에 제수되었다는 내용.

고(故) 분충찬모정사 공신 가선대부 이조 참판 기평군 증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기평부원군 유공 백증(兪公伯曾) 자선(子先)이 세상을 떠난 뒤 5년이 지난 때에 공의 아들 삼(慘)이 행장(行狀)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명(銘)을 청하였다. 아, 자선은 나의 평생에 걸친 붕우이다. (….) 을해년(1635)에 다시 이조 참의에 임명되었는데, 진소한 내용 중에 대신을 공박하는 말이 들어 있었으므로 추고(推考)의 명을 받았다. 정고(呈告)하여 체차된 뒤에 수원 부사(水原府使)에 제수하는 명을 받았다가 얼마 뒤에 경상 감사의 직임을 제수받았으며, 5월에 병으로 체차되었다가 병조 참의에 임명되었다. 전후로 감사의 직책을 수행하는 동안 수재(守宰) 가운데 탐오(貪汚)하고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비록 훈귀대신(勳貴大臣)의 친속이라 할지라도 조금도 용서하지 않았다. (…)

故奮忠贊謨靖社功臣.嘉善大夫吏曹參判.杞平君.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杞平府院君兪公伯曾子先.既卒之五年.其孤慘以狀來請銘.嗚呼.子先是吾平生朋友.(…) 乙亥.復拜吏曹.陳疏語侵大臣.命推考.已呈告遞.命除水原府使.未幾.拜慶尙監司之任.五月.病遞.拜兵曹參議.前後按節.守宰之貪汚不治者.雖勳貴大臣親屬.不少貸.(…)

조익(趙翼), <포저집(浦渚集), 제31권 묘비명(墓碑銘),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杞平府院君奮忠贊謨靖社功臣嘉善大夫吏曹參判杞平君兪公神道碑銘>

정치/인물

이괄의 난 때 죽은 윤정준(尹廷俊)의 부인 이씨가 수원에서 올라서 남편의 원수를 갚아준 이들을 대접했다는 내용.

(…) 갑술년(1634, 인조 12) 봄에 방어사 이중로(李重老)의 아들인 문웅(文雄) 형제와 박풍천(朴豐川, 朴榮臣)의 아들인 지병(之屏) 형제가 도성 안에서 이수백의 목을 베고는 그 머리를 가지고 대궐에 가서 스스로 청죄(請罪)하였다. 부인이 수성(隋城: 수원(水原))에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는 곧장 경성으로 달려가 금오문(金吾門) 밖에 숙소를 정하고 주찬(酒饌)

을 마련하여 그들을 대접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풀려 나온 뒤에는 친척처럼 대우하면서 말하기를 “하늘에 맺힌 나의 원통한 심정을 풀어 주었으니, 내가 땅속에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이에 두 집안의 자제들도 마루에 올라가서 마치 부인의 자제처럼 절하며 문후(問候)하였다. (…)

(…) 甲戌春.李防禦重老之子文雄兄弟.朴豐川之子之屏兄弟.斬守白於都中.持其首詣闕自請罪.夫人在隋城聞之.卽馳至京城.舍於金吾門外.備酒饌以供之.既出.待之如親戚曰.雪吾極天之痛.詎忘入地之前.二家子弟升堂拜候如子弟.(…)

조익(趙翼), <포저집(浦渚集), 제32권 묘갈명(墓碣銘), 通訓大夫甕津縣令贈兵曹判書坡寧君尹公墓碣銘>

정치/인물

조익이 지은 이정구의 행장으로, 경기감사로 용인의 서원 건립과 수원산성 등의 보수 등의 치적이 있다는 내용.

(…) 정포은(鄭圃隱)의 묘소가 용인(龍仁)에 있었으므로 공이 뜻을 같이하는 제공(諸公) 및 여러 유생들과 의논하고는 감영(監營)의 봉록(俸祿)을 출연하여 서원(書院)을 세웠는데, 그 일이 알려지자 상이 충렬(忠烈)이라는 편액을 내렸다. 또 마전(麻田)의 숭의전(崇義殿)이 난리를 겪은 뒤에 퇴락하여 목주(木主)가 담벼락 사이에 버려졌으므로 공이 또 봉록을 출연하여 수선하고는, 향축(香祝)을 보내어 제사를 올리도록 하고 후손인 왕곤(王鵠)을 전감(殿監)으로 삼게 해 줄 것을 계청하였다. 또 죽산산성(竹山山城)과 수원산성(水原山城)을 보수하였다. (…)

(…) 鄭圃隱墓在龍仁.公與同志諸公及諸儒生議.出營俸建書院.事聞.賜額曰忠烈.麻田崇義殿.亂後頽圯.木主委牆壁間.又捐俸修繕.啓請遣香祝以祭.令其裔孫王鵠爲殿監.修竹山, 水原山城. (…)

조익(趙翼), <포저집(浦渚集), 제34권 행장(行狀), 議政府左議政諡文忠李公行狀>

정치/인물

권격(權格)이 1669년(현종 10) 10월에 안무어사(按武御史)가 되어 수원부(水原府)에서 병사들을 검열하였다는 내용.

선부군의 이름은 격이고 자는 정숙이다. (…) 5월에 장악원 정(掌樂院正)에 제수되고, 10월에 안무어사(按武御史)가 되어 수원부(水原府)에서 병사들을 검열하였다. (…)

先府君諱格字正叔.(…) 五月拜掌樂院正.十月以按武御史.閱兵于水原府.(…)

권상하(權尙夏), <한수재집(寒水齋集), 제34권 행장(行狀), 皇考執義府君行狀>

정치/인물

1669년(현종 10) 민시중이 수원 부사(水原府使)에 제수되었다는 내용.

(…) 묘당(廟堂)의 추천으로 수원 부사(水原府使)에 제수되었다가 얼마 후 영남(嶺南)의 방백(方伯)으로 발탁되고 임자년에 대사간(大司諫)으로 임명되어 조정으로 돌아왔다. (…)

(…) 廟堂薦授水原府使.俄擢爲嶺南方伯.壬子以大司諫還朝.(…)

권상하(權尙夏), <한수재집(寒水齋集), 제31권 묘표(墓表), 大司憲閔公【著重】墓表>

정치/인물

이태연(李泰淵)이 수원(水原) 등의 부사를 지냈다는 내용.

(…) 전랑(銓郎) 물망에 오른 적도 있었으나 꺼리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급거 사예(司藝)로 옮겨졌고 더러는 비국(備局)의 낭관(郎官), 수어청(守禦廳)의 종사(從事), 태복시 정(太僕寺正)을 지내기도 하였으며, 또 무장(茂長)·당진(唐津)·공산(公山) 등지의 현감(縣監)으로 나가기도 하였다. 당상(堂上)으로서는 수원(水原)·광주(廣州)의 부사를 역임했는데, 광주 유수 자리는 병조의 낭관 시절부터 이미 여망(輿望)이 있기도 하였다. (…)

(…) 儲望銓郎而有忌者.徑遷司藝.間爲備局郎守禦從事太僕正.又出爲茂長,唐津,公山縣監.堂上則水原,廣州.而廣則自兵郎時已有輿望.(…)

권상하(權尙夏), <한수재집(寒水齋集), 제31권 묘표(墓表), 觀察使李公【泰淵】墓表>

정치/인물

1694년(숙종 20) 여름 이광하(李光夏)가 의정부의 추천으로 수원 부사가 되었다는 내용.

(…) 계유년에 진주 목사(晉州牧使)가 되었는데, 친척이 상관으로 부임해 오자 피험하여 담양 부사(潭陽府使)로 옮겨졌다. 갑술년 여름에 의정부의 추천으로 수원 부사(水原府使)가 되었다는데, 부임하기 전에 기보(畿輔)의 관원을 너무 자주 교대한다 하여 마침내 체직되었다. (…)

(…) 癸酉爲晉州牧使.以親嫌遞移潭陽.甲戌夏用廟堂薦爲水原府使.未到.以畿輔交代急遂遞.秋拜同副承旨.序陞左副.(…)

권상하(權尙夏), <한수재집(寒水齋集), 제29권 묘지(墓誌), 判尹李公【光夏】墓誌銘>

정치/인물

1683년(숙종 9) 원만춘(萬春)이 의정부의 천거로 수원 부사에 발탁되었다는 내용.

(…) 계해년에 의정부의 천거로 수원 부사(水原府使)에 발탁되었다. 이때 조정에서는 장차 공을 크게 등용하려 하였으나, 공은 산림에서 일생을 마치려는 뜻이 있어 여러 번 병으로 사직소를 올리고 군이 사양하였다. 상이 행장(行裝)을 갖추어 속히 부임할 것을 재촉하자, 공은 억지로 나와 사은숙배하였다. (…)

(…) 癸亥以廟堂薦擢授水原府使.當是時朝家將大用公.而公則有終老東岡之志.屢呈病固辭.上問備促赴.黽勉出謝.(…)

권상하(權尙夏), <한수재집(寒水齋集), 제29권 묘지(墓誌), 右尹元公【萬春】墓誌銘>

정치/인물

백문보의 행장으로 백씨(白氏)는 본래 수원(水原)의 대성(大姓)이라는 내용.

선생의 휘는 문보(文寶)이고, 자는 화보(和父)이며, 자호는 담암(淡庵) 또는 동재(動齋)이다. 백씨(白氏)는 본래 수원(水原)의 대성(大姓)이었는데, 고려 때 대흥(大興)으로 본관을 옮겼다. (…)

先生諱文寶.字和父.自號淡庵.又曰動齋.白氏本水原大姓.勝國時.移貫大興.(…)

백문보(白文寶), <담암일집(淡庵逸集) 附錄卷之二, 行狀 【七代孫見龍撰】>

정치/인물

유성룡이 지은 우언겸의 묘갈명으로, 우성전은 허엽의 딸에 장가들었다는 내용.

(…) 公諱彥謙.字益之.(…) 生三男三女.男長心傳.早世.次性傳.出系奉事後.中戊辰科.歷清顯.爲養守水原縣.以文行聞.次道傳業儒.女長適縣監洪翼昌.次適宗室興義守壽麒.次適判官韓守眞.

早世.心傳娶忠義衛李運女.無子.水原娶副提學許曄女.道傳娶忠義衛鄭瑛女.生一女幼.洪翼昌生一男一女.男穩.女適正郎李養中.興義守生一女.適生員尹暎.水原與成龍交厚.介狀索銘.不敢以蕪拙辭.謹次其大槩而係以銘.銘曰.(…)

유성룡(柳成龍), <서애집(西厓集) 卷之十九, 碑碣, 儀賓府經歷禹公碣銘>

정치/인물

최석정이 지은 나홍좌(羅弘佐)의 신도비명으로, 1709년(숙종 35) 가을 수원부사를 그만두고 돌아와 사망하였다는 내용.[인물고 번역]

기축년[1709년(숙종 35)] 가을에 공이 수원(水原)에서 사임하고 돌아와 세상을 떠났는데, 염(殮)을 하기 전에 내가 찾아가 조문하고 장례를 치를 때 만사(挽詞)를 지었으며 이장(移葬)할 적에도 시를 지어 애도하였다. (….) 그 뒤에 경연(經筵)의 신하가 또다시 공의 억울한 사정을 아뢰자 복권(復權)을 시키고 춘천 부사(春川府使)로 임명하였으나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았다. 이어 수원 방어사(水原防禦使)로 임명하자 공이 사양하다 못해 부임하여 1년간 있다가 교체되었다.

己丑秋.公自水原遞歸以沒.未棺斂.余往哭之.及葬.詩以相挽.其移葬.亦以詩哀之.(…) 其後筵臣又白其冤.命紱復除春川.辭不赴.繼授水原防禦使.力辭不獲.莅任期歲乃遞.

최석정(崔錫鼎), <명곡집(明谷集) 卷之二十一, 漢城左尹羅公神道碑銘>

정치/인물

최석정이 지은 이민백(李敏白)의 묘갈명으로, 둘째 딸이 수원부사 조위수(趙渭叟)에게 시집갔다는 내용.[자체번역]

둘째 사위는 조위수로 수원부사이다.

(…) 次趙渭叟水原府使.

최석정(崔錫鼎), <명곡집(明谷集) 卷之二十四, 司僕寺僉正李公墓碣銘>

정치/인물

김창협이 지은 김수민(壽民)의 묘지명으로, 김광현(金光炫)의 장남 김수인이 수원부사를 지냈다는 내용.

(…) 공은 곧 광현의 중자(中子)이고, 성우는 또 광현의 맏아들인 수원 부사(水原府使) 휘수인(壽仁)의 장자이다. (…)

(…) 文忠公有三子.其季諱光炫.官吏曹參判.以忠直世其家.公卽其中子.而盛遇.又其冢子水原府使諱壽仁之長子也.(…)

김창협(金昌協), <농암집(農巖集) 卷之二十七, 德山縣監金公墓誌銘>

정치/인물

이익이 지은 김취려의 소전으로 수원부사를 역임했다는 내용.

잠재 김취려(金就礪) 선생은 자가 이정이고 안산 사람이다. (….) 당시 효로 천거되어 관직을 제수받았다. 빙고, 선공감 두 관사의 관직을 거쳐 나중에 사헌부 집의, 사복시 정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벼슬한 경력이다. 외직으로 나가 죽산(竹山), 평산(平山), 수원 등의 부사를 지냈다. 지금 기록할 것은 이것뿐이다. (…)

潛齋金先生就礪者.字而精.安山人也.(…) 時以孝薦聞.授官歷冰庫繕工二司官.後至司憲執義司

僕寺正.乃其所踐.出宰竹山, 平山, 水原等府.今之所記止此.(…)

이익(李翼), <성호전집(星湖全集), 卷之六十八, 潛齋金先生小傳>

정치/인물

이시백이 수원부사로 있을 때의 일화를 소개한 내용.

갑오년(1774, 영조 50)

(…) “이시백이 수원부사로 있을 적에 참소하는 말을 두렵게 여겨 감히 갑옷과 병기(兵器)를 수선하지 못하자, 이귀가 매를 치면서 꾸짖기를 ‘너는 이미 나라에 몸을 바쳤으니 국가를 위해 마음을 다해야 할 것이거늘, 어찌 참소하는 말을 돌아보느냐.’ 하였다 합니다. 여기에 그의 충성스럽고 진실한 가법을 볼 수 있습니다.”

“이괄(李适)이 배반할 때에 이귀가 생존해 있었소?”

“이괄의 배반이 갑자년(甲子年 인조 2 1624)에 있었으니, 반정(反正) 초기입니다.” (…)

(…) 李時白爲水原府使.畏忌讒口.不敢繕甲兵.李貴大怒答之曰.汝既許身於國.爲國盡心而已.何顧讒言.卽此其忠實家法可見.令曰.李适叛時.李貴尙在乎.臣曰.适之叛.在甲子反正之初也.(…)

홍대용(洪大容), <담헌서(湛軒書) 內集卷二, 桂坊日記, 을미년(1775, 영조 51) 8월 26일>

정치/인물

수원성 역사에 공적이 뛰어난 조심태(趙心泰)의 죽음을 애도하는 하교.

이 장신(將臣)은 깊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직책을 전적으로 위임받아 관서(關西) 방어사로부터 북쪽 변방과 남쪽 지방의 병무(兵務)를 맡아 계속 승진하다가 몇 년 사이에 마침내 장수가 되었다. 돌아보건대, 저 수원성(水原城)의 역사에 전후로 정성을 쏟아 공적이 크게 드러났고, 말을 달리며 병사들을 지휘하는 수고를 놓고 말하더라도 전 시대의 인물을 두루 꼽아 봄에 그와 견줄 만한 사람이 드물었으니, 우뚝하기가 간성(干城)과 같아 크게 의지하고 중하게 여겨 왔다. 삼군(三軍)의 명(命)을 맡게 하고 관서의 품계에 오르게 한 것으로도 그의 공적에 보답하고 그 공을 기리기에는 부족하였는데, 큰 나무가 조금 더 기다려 주지 않고 갑자기 영락해 버릴 줄 어찌 알았겠는가. 개탄과 슬픔이 극에 달해서 나도 모르게 목이 멘다.

죽은 관서 조심태의 집에 성복일(成服日)에 치제하고, 해조로 하여금 품계를 올려 주고 증직하는 일을 충훈부의 훈신으로 올려 주는 규례에 비추어 하도록 할 것이며, 시호를 내려 주는 일도 즉시 거행하도록 하라. 정해진 규례 이외에 부의(賻儀)를 두 배로 실어 보내고 관재(棺材)도 골라 지급하도록 하라.

此將臣.受知也深.故委任也專.自關西防禦.北闔南服.滾滾超越.數歲中.遂至登壇.而顧彼營洛之役.前後殫誠.績庸茂著.雖汗馬提兵之勞.歷數前古.罕與爲比.屹如干城.倚而爲重.司三軍之命.躋八座之秩.未足以酬其伐而旌其功.豈知大樹之飄零.曾不少淹乃爾.嗟畫之極.不覺哽咽.卒判書趙心泰家.成服日致祭.仍令該曹加秩贈職.照盟府上勳之例.節惠亦卽舉行.而例賻外倍數輸送.樞材擇給.

<홍재전서(弘齋全書), 제36권 교(敎) 7, 前判書趙心泰隱卒敎>

정치/인물

영풍군 이천(李璵)이 반란의 혐의로 수원(水原)으로 유배되었다는 내용.

정단(正壇) 32인

(…) 한남군(漢南君) 정도공(貞悼公) 이어(李□), 영풍군(永豐君) 정렬공(貞烈公) 이천(李璵)

어는 세종의 넷째 왕자이고, 천은 여덟째 왕자인데, 모두 양빈(楊嬪)의 소생이며, 천은 또 박팽년의 사위이다. 양빈이 늘 단종에게 젓을 먹였던바, 의정부가 빈의 신분으로서 궁중의 일을 마음대로 하였다 하여 바깥으로 내쫓았는데, 을해년(1455, 세조1)에 빈청에서 양빈이 아들 어와 천 및 금성대군 이유 등과 반란을 모의하였다고 의죄(議罪)하여, 양빈은 청풍(淸風)으로, 어는 금산(錦山)으로, 천은 예안(禮安)으로 유배하였다. 얼마 안 되어 어는 아산(牙山)으로, 천은 안성(安城)으로 유배지를 옮겼으며, 또다시 어는 양지(陽智)로, 천은 수원(水原)으로 옮겼다가, 병자년(1456, 세조2)에 어는 함양(咸陽)에, 천은 임실(任實)에 안치시켰는데, 금성대군이 패한 뒤 양빈 및 어와 천도 그 사건으로 죽었다. (…)

(…) 漢南君貞悼公.永豐君貞烈公璵.

世宗第四王子.璵第八王子.俱楊嬪出.而璵朴彭年女婿.楊嬪常乳端宗.政府以嬪專宮中事.出之外.乙亥賓廳議.嬪與子璵及錦城大君瑜等謀亂.竄嬪于淸風.于錦山.璵于禮安.尋移牙山.璵安城.又移陽智.璵水原.丙子安置咸陽.璵任實.錦城敗後.嬪及璵.亦死焉.(…)

<홍재전서(弘齋全書), 제60권 잡저(雜著) 7, 正壇三十二人>

정치/인물

변구상(卞九祥)이 수원 교관(水原敎官)으로 있을 때의 탐욕스런 관원을 혼내준 일화.

국조고사(國朝故事) 【갑인년(1794)에 문신 김근순(金近淳), 이존수(李存秀), 유태좌(柳台佐), 김희락(金熙洛), 구득로(具得魯), 신현(申絢), 강준흠(姜浚欽), 김이재(金履載), 이영발(李英發), 홍석주(洪奭周), 김계온(金啓溫), 이홍겸(李弘謙)을 선발하였다】

(…) 신이 또 살펴보건대, 변구상(卞九祥)이 일찍이 수원 교관(水原敎官)으로 있을 적에 한 조정 관원이 사명(使命)을 맡고 왔는데 탐욕스럽기 그지없어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가죽신 재료를 요구하니, 변구상이 큰 소리로 말하기를, “그대의 면상(面上)에 아홉 마리 소가죽으로 된 신발 재료가 있다.” 하였다 합니다. (…)

國朝故事 甲寅.選文臣金近淳, 李存秀, 柳台佐, 金熙洛, 具得魯, 申絢, 姜浚欽, 金履載, 李英發, 洪奭周, 金啓溫, 李弘謙

(…) 臣又按卞九祥嘗爲水原敎官.有一朝官奉使至.貪黷無厭.於廣坐中求靴材.卞大言曰.君面上.有九牛皮靴材.(…)

<홍재전서(弘齋全書), 제134권 고식(故寔) 6, 國朝故事>

정치/인물

기로소에 소속한 신하로 수원부유수 이명식(李命植)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

기사(耆社)의 여러 신하에게 내리다 【소서를 아울러 쓰다】

(…) 이날의 모임에, 의정부 영의정 홍낙성(洪樂性)은 76세, 영중추부사 원임 의정부영의정 채제공(蔡濟恭)은 74세, 능은군(綾恩君) 구윤명(具允明)은 83세, 행 판중추부사 겸 수원부유수 이명식(李命植)은 74세, 전 병조 판서 홍억(洪億)은 72세, 판돈녕부사 임희증(任希曾)은 81세, 예문관 제학 홍양호(洪良浩)는 70세, 지중추부사 윤방(尹坊)은 76세, 공조 판서 변득양(邊得讓)은 71세, 의정부 우참찬 홍수보(洪秀輔)는 71세, 전 병조 판서 김상집(金尙集)은 71세, 전 예조 판서 조환(趙煥)은 74세, 전 형조 판서 정존중(鄭存中)은 73세, 지돈녕부사 송제로(宋濟魯)는 83세여서, 여러 노인의 나이를 통계하면 1049세가 되므로, 시를 지

어 칭찬하고 겸하여 기축(祈祝)의 정을 붙이는 바이다. (…)

(…) 是日之會.議政府領議政洪樂性年七十六.領中樞府事原任議政府領議政蔡濟恭年七十四.綾恩君具允明年八十三.行判中樞府事兼水原府留守李命植年七十四.前兵曹判書洪憶年七十二.判敦寧府事任希曾年八十一.藝文館提學洪良浩年七十.知中樞府事尹坊年七十六.工曹判書邊得讓年七十一.議政府右參贊洪秀輔年七十一.前兵曹判書金尙集年七十一.前禮曹判書趙煥年七十四.前刑曹判書鄭存中年七十三.知敦寧府事宋濟魯年八十三.羣老之年.統計爲一千四十有九歲.詩以寵之.兼寓祈祝之情.(…)

<홍재전서(弘齋全書) 卷六, 賜耆社諸臣【并小序】>

정치/인물

정조가 지은 금성위 박명원(朴明源)의 신도비명으로, 수원읍 부근에 현릉원 자리를 알아보게 했다는 내용.

(…) 그리하여 내가 대신(大臣)과 경재(卿宰), 삼사(三司)의 신하들을 불러 그들의 의견을 모아 의문을 떨친 다음 공(公)으로 하여금 수원읍 부근에다 자리를 보아 잡게 하고 그리로 옮겨 모신 것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곳을 두고 말했던 자가 그전에도 있었는데, 그도 역시 천재일우의 기회이고, 천 리를 가도 만나기 어려운 자리라고 했었다. 그렇게 만나기 어려운 자리에다 우리 가문 억만년 끝이 없을 기반을 잡은 것은 그 공의 정성과 공로가 아니었더라면 누가 이 일을 해냈겠는가. 내가 그래서, 작년 가을 이후로 그를 은인(恩人)이요 훈구(勳舊)로 여긴다고 했던 것은 이 때문인 것이다. (…)

(…) 予召大臣卿宰三司之臣.博詢而決疑.乃命公相地于水原邑治.而遷奉之禮以成.先是.有建言于斯地者曰.千載一遇.千里難逢.夫以一遇難逢之地.而爲我家萬億年無疆之基者.微公之功之誠.孰能辦此.予所云昨秋以後.視之以恩人勳舊者.此之謂也.(…)

<홍재전서(弘齋全書) 卷十五, 錦城尉朴明源神道碑銘【并序○庚戌】>

정치/인물

수원 유수 이명식(李命植)의 사직소에 대한 비답

수원 유수 이명식(李命植)의 사직소에 대한 비답

답하노라. 소를 살펴보고 잘 알았다. 이 부(府)의 이 직임(職任)을 나는 마치 팔과 다리처럼 중요하게 보고 마치 팔꿈치와 겨드랑이처럼 가깝게 보고 있다. 경은 다섯 도의 관찰사를 지냈고 세 번 관방(關防)을 관장하면서 쌓은 공적이 함께 조정에 있는 사람들보다 성대히 드러났었다. 내가 경을 이 부의 이 직임에 임명한 것은 대체로 또한 깊이 헤아린 것이 있기 때문이었다. 설사 경이 선불리 나오지 못할 의리가 있을지라도 가서 일하는 것을 사양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이 화성(華城)에 유수를 둔 것에 대해서는 모름지기 제정하여 설치한 뜻을 알아야 할 것이니, 능침(陵寢)을 수호하기 위해서이고 행궁(行宮)을 정리하기 위해서이다. 경도 반드시 초봄에 행행을 하면서 내린 윤음을 보았을 것인데, 이 부의 이 직임이 어찌 나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헤아리고 재 볼 수 있는 자리가겠는가. 경은 부디 즉시 일어나 사은숙배하라.

答曰.省疏具悉.是府是任.予之視之如視股肱.如視肘腋.卿是五道建節.三掌關防.而績庸茂著於同朝之人也.予所取卿於是府是任.蓋亦深量者存.藉令卿有逡巡之義.往役不可辭異.矧茲華城居留.須看制置之意.爲守護仙寢也.爲整理行宮也.卿亦必見春初幸行時綸音.而是府是任.寧或有商量計

度於可出不可出耶.卿其卽起肅謝.

<홍재전서(弘齋全書), 弘齋全書卷四十四, 水原留守李命植辭職疏批>

정치/인물

1793년(정조 17) 채제공(蔡濟恭)에게 영의정을 제수하는 하유

지금까지 정승으로 임명된 자가 모두 303명인데 영의정에 오른 자는 경까지 통틀어 계산해서 약 100여 명이 된다. 대개 보상(輔相)이란 중요한 직임이지만 영의정은 더욱 중요하다. 책임자를 구하기 어려울 경우 그 자리를 비워 두는 것은 예로부터 이미 그러하였다. 더구나 지금은 옛날보다 인재를 구하기가 배나 더 어려운 실정인데 내가 어찌 잘 살피고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경에게 마음을 둔 지는 여러 해가 되었다. 화성(華城)은 바로 능침(陵寢)을 받들어 모신 지방인데, 처음 부(府)로 승격시킬 때에 원로(元老)를 얻어 그의 두터운 명망에 의뢰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어쩔 수 없이 경을 번거롭게 한 번 내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경은 직임을 맡은 이후로 큰 버리를 정돈하고 자잘한 일일까지 널리 미쳐서 밤낮으로 부지런히 하던 서도 도리어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였다.

마침 경이 올려 보낸 축성 방략(築城方略)을 보고는 노정승이 정력을 쏟은 것에 더욱 감격하였다. 100리 길을 가는 데는 90리가 절반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이번 경우는 바로 시작이 반이라는 데에 해당될 것이다. 이미 이렇게 계획을 세워 시작하였으면 완성시키는 일은 바로 맡아서 감독하는 사람이 부지런히 하느냐 게을리 하느냐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니, 또 어찌 반드시 근력을 쓰는 일에서 거듭 수고하게 하겠는가.

경에게 영의정의 직을 제수하고 이렇게 사관을 보내어 빨리 돌아오기를 면려하는 바이니, 경은 모쪼록 즉시 길에 올라 성 밖에 이르러서 새로 부임할 유상(留相)과 임무를 교대한 후에 숙배하라.

枚卜於金甌.凡三百有三人.躋上相者并計卿.約爲百餘.大抵輔相重任也.而上相爲尤重焉.難其人.不備其位.自古在昔已然矣.矧今才難.有倍於古昔.予安得不且審且愼也.予於卿.注意者有年.而華城.卽仙寢所奉地方也.陞府之初.思得元老而借重.不得不煩卿一出.卿自受任以來.整頓宏綱.旁及細務.孜孜於日夜.還切爲之念念.際見卿所上築城方略.益感老相之費精.莫曰行百里者.半九十里.此正始之者半也.既如是經始.則惟其成之之功.直在幹董之勤慢.又豈必重勞於筋力間事也.授卿以上相之任.茲遣簪筆之臣.勉以遄歸.卿須卽日登途.進至城外.與新留相.交龜後肅命.

<홍재전서(弘齋全書), 제37권 돈유(敦諭),諭領議政蔡濟恭 【癸丑】>

2. 경제(經濟)

(1) 재정

경제/재정

돈이 오영청(五營廳)에서 쓰기 시작하여 수원과 강화에까지 파급되었다는 내용.

(…) 우리나라에 돈이 통행한 지는 이제 1백 40여년이 된다. 맨 처음 오영청(五營廳)에서 쓰기 시작하여 이도(二都 수원(水原)과 강화(江華))에까지 파급되었으며, 드디어 태농(太農)에서 주조한 돈으로 탁지(度支 호조(戶曹)를 말함)의 비용을 충당한다. 이에 수천 년 동안 막혔던 풍속이 이제 이미 확 트이게 되었으니, 의당 백성들의 생업이 풍부해지고 국가의 재용이 넉넉해져야 할 것인데도, 어찌하여 1백여 년 이래 공사(公私)의 창고가 모두 고갈되고 남북(南北)의 재화(財貨)가 유통되지 않음으로써, 조그마한 이익을 다투어 풍속이 나날이 각박해지고, 뇌물이 공공연히 행해져서 벼슬아치의 탐습(貪習)을 징계할 수 없는지 모르겠다. (…)

(…) 今一百四十有餘年矣.始於五營.轉及二都.遂有太農之鑄.以補度支之用.數千年膠滯之俗.今既豁然疏通.宜其民產以富.國用以裕.而奈之何百餘年來.公私之帑藏都竭.南北之貨財不通.錐刀是爭.而民俗日趨於滄薄.賄賂公行.而吏習莫懲於貪汚.苟求其故.(…)

정약용(丁若鏞), <다산시문집, 제9권 책문(策問), 問錢幣>

경제/재정

제신(諸臣)이 수원(水原) 등의 고을에 춘등미(春等米)를 줄여줄 것을 논의했다는 내용.

인견하였다. 이때 제신(諸臣)이 수원(水原) 등의 고을에 춘등미(春等米)²²⁰를 헤아려 줄 일 것을 논하였다. 성상이 이르기를, “국용(國用)이 넉넉하다면 다 탕감해도 좋겠지만 힘이 미치지 않으니 특별히 4두(斗)씩만 줄이도록 하라.” 하니, 송준길이 아뢰기를, “듣건대 내포(內浦)의 백성들은 모두 대동법(大同法)을 편리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미 그 반을 줄여 주었는데 금년에 또 줄여 준다면 성덕(聖德)을 칭송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

송준길(宋浚吉), <동춘당집(同春堂集), 별집 제3권 경연일기(經筵日記)²²¹, 무술년(1658, 효종 9) 12월 25일>

경제/재정

수원부(水原府)를 통해 주급해 주는 쌀과 콩을 남구만이 사양하는 상소.

삼가 아뢰입니다. 신은 이미 융숭한 은혜를 저버리고 또 엄한 명령을 어겨 죽음의 형벌로도 스스로 속죄할 수 없기에 겨우 진심에서 우러나온 소장을 올려 형벌을 내려 주시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이번 경기 감사의 관문(關文)으로 수원부(水原府)에서 주급해 주는 쌀과 콩 등의 곡식을 실어 보내 주니, 신은 이에 놀라고 두려워서 진실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

伏以臣既負隆恩.又違嚴命.沒身之誅.不足以自贖.纔封血疏.請伏刑章矣.不意茲者.以京畿監司關文.自水原府輸送周急米豆等穀.臣於此駭惑震慄.誠不知置身之所.(…)

220) 춘등미(春等米) : 봄·가을 두 번에 나누어 내게 한 세미(稅米) 중 봄에 내는 세미이다.

221) 효종 9년 무술년(1658) 9월부터 현종이 즉위한 기해년(1659) 12월까지.

남구만(南九萬), <약천집(藥泉集)>, 제10권 소차(疏筭), 辭周急疏 十月十二日>

경제/재정

수원부가 경성과 가까워 뇌물과 청탁이 횡행하였는데, 이경직이 수원부사로 재임하면서 조사 접대 품목 갑건치(甲乾雉)와 사기그릇을 없애도록 했다는 내용.

(…) 수원부가 경성과 가까운 관계로 평소부터 뇌물과 청탁이 횡행하였는데, 공은 문단속을 철저히 하며 이를 일절 사절하였다. 조사(詔使)를 대접하는 품목 가운데 갑건치(甲乾雉)라는 것이 있었는데, 열읍(列邑)이 이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었다. 그래서 공이 위에 아뢰기를, “중국인은 이 음식 맛을 귀하게 여길 줄을 모르는 데다 제조하는 데에만 갑절이나 더 돈을 들이게 되니, 써서는 안 된다.” 고 하고, 또 “사옹원(司饗院)의 사기그릇이 너무 커서 중국의 제도와 맞지 않는다.” 하였는데, 접반사(接伴使)인 월사(月沙) 상공(相公)이 이 말에 적극 찬동하여 모두 견감(蠲減)하고 없애는 방향으로 조치하게 되었으므로, 지금까지도 주군(州郡)에서 그 덕택을 보고 있다.(…)

(…) 府近京城.素多關節.公戒門謝絕.詔使之供.有甲乾雉.爲列邑弊.公啓以漢人不貴此味.而製造倍費.宜勿用.又司饗沙器過大.亦非漢制.館伴月沙相.亟是其言.皆從蠲罷.至今州郡賴其便.(…) 이식(李植), <택당집(澤堂集)>, 별집 제10권 행장(行狀) 하, 戶曹判書贈右議政李公諡狀>

경제/재정

현통원 이장으로 수원 새 고을 소재지의 민호(民戶)에게 급복(給復)한 운음

왕은 이르노라. 원침(園寢)에 참배하고 돌아온 이후로 남은 회포가 가슴에 가득하고, 또 새 고을 소재지에 불러 모은 백성들에게 삶의 터전을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고을 관아의 숙소(宿所)에서 촛불을 밝히고 선포한 운음에 대해서는 묘당의 신하들이 필시 이미 마음을 다해 강구했을 터인바, 빈연(賓筵)을 기다려서 조처를 내리려 한다. 그런데 이 밖에도 당장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일로서 진작부터 대책을 강구해 온 것이 있으니, 대개 왕의 말은 미답지 않아서는 안 되고, 백성들의 식량은 넉넉하지 않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첫째는 10년간의 급복이라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된 것이고, 둘째는 이번 봄의 보리가 손을 쓰려야 쓸 수가 없다는 것이다. 애당초 급복이라고 명명(命名)한 것은 토지에 대해서 일정한 조세를 견감해 주는 것을 말함이었다. 내 뜻은 옛사람이 이미 정해 놓은 논의를 쓰는 동시에 농토에 안주하고자 하는 소민(小民)들의 생각을 위로해 주려는 데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토지세를 전지 주인이 내도록 되어 있어서 토지가 있으면 혜택을 잔뜩 입고 토지가 없으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유사(유사)가 그 불균등함을 말하면서 연역(煙役)의 면제로써 조세의 견감을 대신하기를 청하였으니, 이것이 급복이라는 명목은 있으면서 급복의 실상은 없는 까닭이다.

이번 행행에서 부로들을 불러 두루 시행하는 대책까지 물어보았는데, 부로들의 대답이 대부분 애매모호하였으나, 대개 새 고을 소재지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태반은 군교, 하리, 관노, 사노의 부류로서 이들에게는 본래 역(役)이 없기 때문에 면제해 주려 하여도 면제할 것이 없다는 말이었다. 이는 백성들을 속이는 데에 가까운 일이니, 어찌 너무도 불성실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와 같다면 내 마음이 과연 찼찼하겠는가, 찼찼하지 않겠는가?

지난날 독성(禿城)에 진(鎭)을 설치하던 때에 민호를 모집하고 별도로 복호전 몇백 결(結)을 획급하기를 능복(陵復), 역복(驛復)의 규례와 같이 했는데, 지금까지도 거주민들이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한 성의 이해(利害)는 한 성에 그치는 것인데도 성조(聖祖)께서는 단호히

처분을 내려 행하셨다. 더구나 본부(本府)는 바로 나의 팔다리이고 군(郡)은 경기의 큰 관방(關防)이니, 독성의 제치(制置)와 비교하면 그 경중(輕重)과 대소(大小)가 과연 어떠하겠는가. 규례에 없는 일이라도 만들어서 규례로 삼을 수 있을 판국인데, 더구나 기왕의 규례가 이렇게 명백한 데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수원 새 고을 소재지의 민호에 대해서 10년간 500결을 급복하여 왕의 말을 미답게 하려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먹을 것을 넉넉하게 해 주는 일이 비록 신의로 대하는 것보다 아래에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백성의 식량을 어찌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겠는가. 새 고을 소재지의 백성들이 이주한 것이 지난해 가을과 겨울 사이였으니 어느 겨울에 가을보리를 심었겠는가.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지붕을 이고 담장을 쌓느라고 허덕이고 있으니 봄 종자를 뿌리지 못한 것도 형세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손을 쓰려야 쓸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경술년이 다시 돌아온 때를 만나 상서(上瑞)를 기원하는 마음이 자나 깨나 가슴에 맺혀 있다. 혹시라도 하늘의 복록에 힘입어 팔도에 고루 풍년이 들었으나 이 새 고을 소재지의 백성들만은 봄이면 먹을 것이 모자라고 여름이면 농사를 짓지 못하여 함께 배불리 먹지 못한다는 탄식을 모두 품는다면, 그러고도 내가 밥을 달게 먹겠으며, 먹는다 한들 목으로 넘어가겠는가. 경기와 호서의 인근에 여유 있는 고을이 있으니, 이곳 창고에 남겨 둔 보리를 새 고을 소재지의 민호를 계산하여 가구별로 몇 포씩 나누어 주기를 환자곡을 나누어 주는 예에 따라서 하고, 가을에 가서 다시 징수하지 않음으로써 백성들의 식량을 넉넉하게 해 주려는 바람에 부응하라.

내가 본부를 팔다리와 같이 여긴다는 제목을 내걸어 선비들을 시험 보였지만, 이것은 오히려 외면상의 관방(關防)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선침(先寢)을 봉안한 이후로 이 고을의 이 백성들을 어찌 한집안 사람이나 부자지간과 다르게 생각했겠는가. 백성들이 삶을 즐거워하면 나도 즐겁고 백성들이 생업에 안주하면 나도 편안할 것이다. 백성들은 지극히 어리석지만 본래부터 지극히 신령스럽다. 그러므로 “지성이면神明(神明)도 감동시킨다.”고 한 것이다. 지방관으로 하여금 마음을 다 내보인 이 열 줄의 윤음을 가지고 거둬 백성들을 하유하게 함으로써 이 조처가 선침을 위하는 데서부터 미루어 백성까지 미치게 하려는 것임을 알게 하라.

王若曰.拜園歸來.餘懷耿耿.重以新治之聚民營產.關念不已.縣齋宿次.呼燭宣綸.廟堂之臣.必已盡心講究.擬待賓筵措處.而外此目下二件事.有趁卽拮据者.蓋王言不可不信.民食不可不裕.一曰.十年給復之有名無實也.二曰.今春麥糧之無麵不托也.原初給復之命.卽土蠲常賦之謂也.予意出於欲用古人已定之論.兼慰小民安土之思.而我國土稅.田主當之.有田則偏蒙.無土者未霑.有司言其不均.請除烟役.以代蠲稅.此所以有給復之名.而無給復之實也.今行招父老.詢及遍施之策.父老所對多朦朧.大抵新治居民.太半是若校若吏若隸若奴之屬.此屬本係無役.欲除無可除.是幾於欺民.尤豈非不誠之甚乎.如是而於予心.果慊乎.果不慊乎.昔在禿城之設鎮也.爲募民戶.別劃復戶田幾百結.如陵復驛復之規.至于今.居民永賴.一城之利害.止於一城.而聖祖處分.尙且斷然行之.況本府卽吾股肱.郡爲畿輔大關防.較諸禿城之制置.其輕重大小顧何如.無於例之例.可勘而爲例.已例又況若是其班班乎.水原新治民戶.限十年.給復五百結.以示信王言之意.足食雖居信下.重茲民天.亦豈怱然.新治之民挈搬.在去歲秋冬間.何暇耕秋麥.迨此歲飢.又屹屹於結茅築堵.春種之未播.勢亦所使.此所謂無麵之不托也.際值庚歲之重回.上瑞之祝.寤寐如結.儻賴天庥.使八路同然告豐.獨此新治民庶.春而艱食.夏而廢農.舉懷不咸之歎.則予尙可當飯甘食.食亦下咽乎.畿內湖西隣近.有裕邑留庫半穀支計新治民戶.戶俵數包.用還分例.秋勿更徵.以副裕民食之望.予視本府.如視股肱.揭題試士.此猶指外面關防而言.自奉先寢.是鄉是民.何異於家人父子.民之樂生.予亦樂.民之安業.

予亦安.民雖至愚.亦自至神.故曰至誠感神.令地方官.將此數示十行.申諭民衆.俾知此舉之爲先寢.推以及民.

<홍재전서(弘齋全書), 제28권 윤음(綸音) 3, 給復水原新治民戶綸音>

경제/재정

1795년(정조 19) 초계문신의 친시 등에 출제한 대책문으로, 수원(水原) 군향에 대해 언급한 내용.

(…) 아문(衙門)의 명칭으로는 경기(京畿) 지방은 상진청(常賑廳)에서 구관(句管)하는 것으로 상진곡(常賑穀)·보환곡(補還穀)·원칙수곡(元勅需穀) 등이 있고, 호조(戶曹)에서 구관하는 것으로 원회부(元會付)가 있고, 비변사(備邊司)에서 구관하는 것으로 영진곡(營賑穀), 수원(水原) 군향, 파주(坡州) 군향, 교동 수영(喬桐水營) 군향이 있고, (…)

(…) 衙門名色.則京畿常賑廳句管.曰常賑穀.補還穀.元勅需穀.戶曹句管.曰元會付.備邊司句管.曰營賑穀.水原軍餉.坡州軍餉.喬桐水營軍餉, (…)

<홍재전서(弘齋全書), 제51권 책문(策問) 4, 還餉【蔭官應製及抄啓文臣親試○乙卯】>

경제/재정

홍봉한의 문집에서 재정 부부에 대한 서문으로 수원, 광주, 파주에는 관방(關防)을 중히 여기는 뜻에서 여결(餘結)을 붙여 주었다는 내용.

(…) 경신년(1760, 영조36)에는 전국의 전조미(田租米) 감면 양이 10만 9700석 이상이었고, 대두(大豆)도 8만 5700석 이상이고, 면포(綿布)와 마포(麻布)도 6만 4100필이나 되고, 돈도 1만 3000냥 이상이였다. 호남에는 6천 결(結), 호서에는 2천 결의 전답이 묵었다 하여 특별으로 6등급으로 낮추어 주기도 했었다. 수원(水原), 광주(廣州), 파주(坡州)에는 관방(關防)을 중히 여기는 뜻에서 여결(餘結)을 붙여 주기도 하고, 홍원(洪原)과 이성(利城)은 그들의 피곤함을 진휼하는 뜻에서 5년 동안 급부(給賦)를 하였다. (…)

(…) 庚申.免八道田租米爲十萬九千七百石有奇.大豆爲八萬五千七百石有奇.綿布麻布爲六萬四千一百匹.錢爲一萬三千兩有奇.湖南田六千結.湖西田二千結告陳者.特命降續.置之六等.水原, 廣州, 坡州之許付餘結.重關防也.洪原, 利城之給賦五年.(…)

<홍재전서(弘齋全書), 제12권 서인(序引) 5, 翼靖公奏藁財賦類叙>

경제/재정

홍봉한의 문집의 재부류의 서문으로 그중 환향에 대한 것으로 화성에서 모곡을 감면해주었던 일을 기술한 내용.

그 밖에 흉년이 들면 분수(分數)의 기한 물림을 미리 영을 내려 알리는 것도, 그 뜻은 국가의 혜택이 피곤한 백성들에게까지 고루 가게 하자는 것이며, 화성(華城)의 모곡을 감면해주기도 하고, 상평창에다 쌀을 쌓아 두기도 하며, 혹은 돈을 풀어 여유를 주기도 하고, 혹은 간교를 근절하기 위해 문서를 불태워 버리기도 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나라를 보호하고 군민(軍民)을 위해서 한 일들이지만 단지 소소한 변통에 불과하여 공이 했던 일과 비교하면 오히려 모자란 감이 있으니, 어떻게 감히 전왕들의 공로를 빛내고 그 뜻을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랴.

多少支用之不得不資耗者.皆於半分而取之.亦云差強.而爲慮生弊.尙未更張.以其難愼鄭重.自不得不然也.若歉歲之分數停退.先期發令.意在均及疲氓.而或除耗於華城.或峙米於平倉.或散貨而

裕食.或付火而絕姦者.亶出於爲拱護爲軍民.而特不過小變通耳.視公猶且欷然.其敢曰光前烈繼先志云乎哉.

<홍재전서(弘齋全書), 제12권 서인(序引) 5, 翼靖公奏藁財賦類叙, 還餉引【附逋欠】>

경제/재정

홍봉한의 문집에서 국왕의 행행에 관한 서문으로, 국왕의 행차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와 담당 부서의 업무에 관한 것으로 외정리소를 두어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였다는 내용

그리고 기유년(1789, 정조13) 원(園)을 옮긴 후로 해마다 그 원에 행행할 때면 뒤따르는 관원들의 제반 장비에서부터 군병(軍兵)들 먹을 것과 말먹이 등등 모두를 관급(官給)으로 했으며, 을묘년(1795, 정조19)에 자궁(慈宮)을 모시고 원 참배를 갔을 때는 탁지부 정리의 예에 따라 별도로 정리소(整理所)를 두고 당하 낭관을 차출하여 원행(園幸)에 따른 제반 업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그리고 또 화성(華城)에 별도로 재력(財力)을 비축해 두고 그곳을 일러 외정리소(外整理所)라 하고, 각종 수요를 다 대도록 하여 털끝만큼도 민폐를 끼치거나 경비에 축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정리의궤(整理儀軌)》에 나와 있는데, 공이 만약 지금까지 살아 있었다라면 틀림없이 마음이 서로 맞았을 것이다.

自己西遷園之後.每歲園幸.從官之盤纏.軍兵之糧料.軍馬之芻豆.竝自官給.至乙卯.奉慈宮拜園也.依度支整理之例.設整理所.差出堂郎.管園幸諸務.而又於華城.別庠財力.號曰外整理所.以給盤纏糧料芻豆之需.而不欲一毫有損於經費.貽弊於民邑也.其詳在整理儀軌.如使公至今在者.必稔然相會也.

<홍재전서(弘齋全書), 제11권 서인(序引) 4, 翼靖公奏藁典禮類叙, 行幸引>

경제/재정

자궁(慈宮)의 회갑일에 경사를 표하고 화성 등지에 신공 등을 탕감하라는 윤음

죄명(罪名)이 있는 자는 이조와 병조로 하여금 써 들이게 할 것이며, 도류(徒流)된 자 중에도 용서할 만한 자가 있으면 낙점해 내리는 대로 시행하라. 포함(逋欠)을 탕감하고 요역(徭役)을 면제하는 조처를 초봄에 시행했었다만, 내가 바야흐로 기쁨을 표하려는 때에 어찌 중복됨을 꺼리겠는가. 서울은 공인(貢人)의 묵은 유재(遺在) 2000석, 시민(市民)의 요역 2개월 치, 반인(泮人)의 속전(贖錢) 10일 치를 탕감해 주고, 외방은 작년에 정되한 화성(華城)·기전(畿甸)·삼남(三南)의 신공(身貢)과 보미(保米), 보포(保布), 보전(保錢)을 모두 탕감하라. 그 밖에 양도(兩都)와 사도(四道)에 대해서는 묵은 환자곡 가운데 가장 최근의 1년 치를 대신 감해 주라. 이는 모두 자궁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드러내는 일이고 자궁의 복을 비는 일이고 자궁의 은혜를 넓히는 일이고 자궁의 덕을 드러내는 일이다.

有罪名者.令吏兵曹書入.徒流中可合疏放者.亦依點下施行.滌逋蠲徭.春初有之.予方欲飾歡賁喜.何憚煩複.京則貢人舊遺在二千石.市民徭役二朔.泮人贖錢.限十日蕩滌.外則華城.畿甸.三南.去年停退之身貢保米布錢.一并蕩減.其餘兩都.四道.則以舊還最近一年條代減.此乃揚慈徽也.祈慈壽也.廣慈惠也.表慈德也.

<홍재전서(弘齋全書), 제28권 윤음(綸音)3, 慈宮周甲日飾慶覃恩綸音【附進饌恩賁事實】>

경제/재정

1794년(정조 18) 주자대전(朱子大全)을 강론하면서 화성의 환곡 출납은 사창법의 뜻을 취한 것이라는 주장.

내가 화성(華城)의 환곡(還穀) 출납에 있어, 특별히 그 모곡(耗穀)을 없애게 하여, 대략 사창의 유의(遺意)를 쓴 바 있다. 법은 고금이 없으니, 오직 어떻게 행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 일찍이 듣건대, 동쪽 산협(山峽)의 여러 고을들은 가을 추수 때 관리들이 전답을 검사하지 않고 농부가 전답 머리에서 낱알을 잡고 세었다 하니, 옛날의 풍속이 여전히 금화(金華)의 향리(香里) 사람들 손에 전해짐을 볼 수 있었다. 어찌 다시 문밖에 와서 세금을 독촉하는 관리가 있겠는가.

予於華城糶糴.特除其耗.略用社倉之遺意.法無古今.惟在行之之如何.曾聞東峽諸邑.秋事登場.不用官吏檢田.田父各於田頭執實.可見古俗猶傳.金華鄉人之掌.豈復有門外之徵租索錢耶.

<홍재전서(弘齋全書), 제133권 고식(故寔) 5, 朱子大全[四] 【甲寅選文臣金啓溫李弘謙】>

경제/재정

1800년(정조 24) 정조가 홍봉한의 문집 익정공주고(翼靖公奏藁)의 군제인(軍制引)으로 화성 백성들에게 납포군 등의 정원을 감축하였다는 내용.

5개 읍이 지리적으로는 더없이 유리한 곳이지만 그보다 앞서야 할 것은 인화(人和)이다. 화성(華城) 주위의 1백만 백성들은 모두 기쁜 소식을 서로 알리고 서로 앞 다투어 나와서 내가 옛날부터 못 백성을 아끼고 돌보아 왔던 성덕지선(盛德至善)을 알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5개 읍에 대해 납포군(納布軍) 490명, 속오군(束伍軍) 510명, 여정군(餘丁軍) 228명의 수를 정원에서 특감(特減)하도록 했던 것이다.

五邑既屬地利莫如.而人和在地利之先.宜使環華百萬生靈.胥告以歡.爭先子來.咸有以知我昔年愛恤元元之盛德至善也.故命五邑納布軍四百九十.束伍軍五百一十.餘丁軍二百二十八.特減其額.

<홍재전서(弘齋全書), 제13권 서인(序引) 6, 翼靖公奏藁軍旅類叙 【庚申】, 軍制引>

(2) 상업

경제/상업

화성에 주권이 돌아오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내용.

어떤 간민(奸民) 하나가 공물(貢物)을 거듭 팔고 핑계하기를, “주권(朱券)은 화성(華城)에 있어서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이었다. 용이 국문하기를, “하찮은 소민이 감히 화성을 빙자하여 성사(城社)²²²로 삼으려 하니 될 수 있겠는가?” 하였더니, 이틀 만에 주권(朱券)이 이르렀다.(…)

有一奸民.重賣貢物.託云朱券在華城不可得.鋪鞫之曰玄麼小民.敢欲憑華城爲城社得乎.兩日而朱券至矣.(…)

정약용(丁若鏞),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제16권 묘지명(墓誌銘), 自撰墓誌銘【集中本】>

222) 성사(城社) : 성호사서(城狐社鼠)의 준말. 성에 있는 여우를 없애려 하나 성이 무너질까 두렵고, 사(社)에 근거한 쥐를 소탕하려 하나 사가 탈까 두렵다는 말로 당로의 세력을 빙자하여 나쁜 짓을 함을 비유한 것이다. 여기서는 당시 정조의 특명으로 시행하는 화성(華城)의 성역(城役)을 빙자하여 공물을 농간질하는 간민(奸民)을 말한다.

(3) 농수산업

경제/농수산업

이우형(李宇炯) 상소에 대한 비답으로 수원의 북성(北城) 바깥의 빈땅을 개간하고 광교산의 물로 대라고 운운한 것도 수리를 진흥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

수차(水車)의 제도는 그 이로움을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옛사람이 수리(水利)를 진흥하는 일을 이용후생(利用厚生)의 대정(大政)이라고 하였으니, 정착(鄭鑿)과 사인(史引)이라 해도 어찌 별다른 꾀가 있겠는가. 지난겨울의 운운 가운데 수원(水原)의 북성(北城) 바깥에 대략 100포(包)를 파종할 만한 빈 땅을 개간하고 광교산(光敎山)의 물을 끌어들이며 물을 대도록 한 것도 수리를 진흥하려는 뜻에서 나온 일이었다. 더구나 시내는 낮고 들판은 높아서 길고(桔槔) 한쪽엔 두레박, 한쪽엔 돌을 매달아 물을 푸는 기구)를 쓰기가 어려우니, 오직 수차를 만들어 물을 퍼 올리는 것만이 편리하다. 그러나 인재가 쓰이지 않는 것이 지금처럼 심한 때가 없는데, 그대가 능히 입을 열어 말을 하였으니, 호조의 신하로 하여금 그대를 만나 토의하도록 하고, 또 요모조모 궁리를 잘하는 자로 하여금 만들어 내서 시험하게 하겠다. 그리하여 다들 편하다고 하면 곧 백성들이 크게 이익을 보는 단서가 된다고 하겠다. 水車之制.其利可勝言哉.古人以興水利.爲利用厚生之大政.鄭鑿史引.亦豈有別術.去冬綸音中.水原北城外.開墾曠土於約播百包之地.導光敎水根以溉之者.亦出於興水利.況於川低野高.難用桔槔.惟車制戽水之是便.然才不見用.莫今時若.而爾能開口言之.許令度支之臣.面詰於爾.又使巧思者.造出試之.咸以爲便.則可爲生民一大蒙利之端.

<홍재전서(弘齋全書), 제44권 비답(批答) 3, 兵曹佐郎李宇炯請行水車疏批>

경제/농수산업

화성(華城) 유천(柳川)의 황무지를 개간하고 구산(龜山)에 나무를 심도록 하는 하교

오행(五行)이 번갈아 운행하는 데는 토공(土功)이 크고, 팔괘의 순서를 정할 때는 감궁(坎宮)이 앞에 자리한다. 그러므로 주(周) 나라 문왕(文王)은 기읍(岐邑)을 다스릴 때 토지의 특성에 따라 조세를 정하는 법을 세웠고, 한(漢) 나라 고조(高祖)는 관중(關中)을 안정시킨 다음 조세 제도를 세웠던 것이다. 조정에서는 화성을 주 나라의 기읍이나 한 나라의 관중과 같이 보고 있으니, 백성들의 근본을 중시하는 정사를 조금도 늦출 수 없다. 1만 섬[石]의 물이 흐르는 도랑을 성 북쪽에 트고 아홉 길 높이의 제방을 성 서쪽에 쌓아 서쪽에서 남쪽으로 흘러가 마침내 온 경내에 미치고 온 경내로부터 멀리 팔도에까지 두루 미친다면 말로 다 하지 못할 이로움이 어찌 깊고도 넓지 않겠는가.

팔달문(八達門) 밖에서부터 유천(柳川)의 이포(泥浦)에 이르는 넓은 땅에 경작이 미치지 않는 것은 경기 백성이 농사에 게을러서 부지런히 힘써 농사지으려 하지 않아서이지만 대개 그들의 마음과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漢) 나라 선비의 말에, “그 마음을 다하지 못하면 그 힘을 다할 수 없고, 그 힘을 다하지 못하면 그 공을 이룰 수 없다.”고 한 것이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그러나 비록 황무지를 개척할 만한 마음과 힘이 있더라도 재력이 없으면 할 수 없고, 비록 땅을 개척할 만한 재력이 있더라도 관가(官家)의 힘이 없으면 이를 수 없다. 더구나 높고 건조한 땅에는 물을 끌어 대기 어렵고 시골 백성들은 힘을 합해서 경작하는 것에 어둡지 않은가.

밭의 모양이 이미 갖추어져 씨만 뿌리면 곧바로 거두어 먹을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영(令)을 게시하여 사람들에게 고하기를, “백성들이 경작하여 먹도록 맡겨 두고 고을 관아에서 조세

를 거두지 않겠다.” 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인심으로는 오히려 용감하게 달려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모래 먼지만 자욱하게 날리고 있으니, 비록 10년 동안 조세를 면제해 주더라도 누가 모집에 응하여 나와서 아침이면 밭을 갈고 저녁이면 수확하여 노적거리가 즐비한 아름다움이 있게 만들겠는가.

한(漢) 나라의 조과(趙過) 등은 백성들을 위해서 농사를 권면하되 농기구와 소를 모두 관가에서 마련하고, 수령 된 자가 삼태기와 삽을 들고 밭두둑을 밟고 다녔다. 이렇게 하여 황무지로 버려졌던 땅이 옥토가 되고 놀고먹던 자들이 농부가 되었으니, 이는 이른바 ‘백성들은 더불어 일의 성공을 즐길 수는 있다’ 는 것이다. 옛일을 본받지 않고서야 어떻게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오늘날의 계책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영둔전(營屯田)에서 사람을 모집하여 경작하는 규례에 따라, 본부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땅을 개척한 다음 일이 끝나기를 기다려서 일정한 면적의 전지를 나누어 줌으로써 관(官)의 수용(需用)을 보충하고 백성들의 식량을 넉넉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는 곡식을 바치는 자에게 관직을 제수하는 규정에 따라, 며칠 같이 할 땅을 개간한 자는 당(唐) 나라의 공명고신(空名告身)과 송(宋) 나라의 적공랑(迪功郎) 이하의 품계와 같이 하되 향품(鄕品)은 향임(鄕任)으로 삼고 교리(校吏)는 빈자리에 임명하기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고, 만약 한 달 이상 같이 할 땅을 개간하여 1백 섬의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한 자 및 이를 초과하여 두 달, 석 달 같이 할 땅을 개간하여 2백 섬, 3백 섬의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한 자는 중추부의 직함이나 변장(邊將) 자리에 공로를 따져 임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황무지가 날로 개척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수구(水口)가 크고 넓으면 백성들의 살림이 풍족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한마디로 단정해서 이는 옳지 않은 말이다. 우선 수구에 대한 논의를 보면 도회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니, 풍수설(風水說)에서 찾아보면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만약 성 밖에다 산을 조성한다면 형세가 성안을 내려다보게 될 것이고, 물 아래에다 제방을 쌓는다면 물길을 가로막기에 편리할 것이지만, 앞의 경우는 성 둘레에 망루를 설치하는 뜻을 잃는 것이고, 뒤의 경우는 물이 맑아야 명당이라는 경계를 어기는 것이다. 이름난 석학들의 원대한 계책을 참고해 보면, 평양(平壤)에 성을 설치한 다음에 강 오른쪽에 긴 숲을 조성하였고, 선산(善山) 고을이 완성된 후에 시내 왼쪽에 큰 숲을 배치하였다. 옛말에 “1백 가구의 마을과 열 집의 저자라도 반드시 산을 의지하고 시내를 끼고 있어야 한다.” 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먼저 금년부터 버드나무, 뽕나무, 개암나무, 밤나무를 가리지 말고 무조건 나무를 널리 심어 숲을 이루어서 울창하게 경관이 달라지는 효과가 있게 하는 것이 또한 먼저 해야 할 일이다. 고을 소재지와 역마일에 집집마다 나무를 심는 일은 전에 이미 누차 신칙한 바 있다만, 집에 나무를 심지 않을 경우 조세를 물린 것은 본래 주관(周官)에서 정한 법이다. 경은 모름지기 편리한 대로 일을 추진하여 화성 백성들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는 조정의 지극한 뜻을 저버리지 말도록 하라. 목혀 둔 땅을 개간하는 한 조항은 사람들의 의견을 널리 모아서 조리 있게 별단으로 보고한 후에 회답이 내려지기를 기다려서 시행하라.

五行迭運.土功爲大.八卦分序.坎宮居先.故周文王治岐而建任土之法.漢高帝定關而立租賦之制.朝家之視華城.有如周之岐.漢之關.則元元重本之政.不可以少緩.萬石之渠.開於城北.九仞之埭.築於城西.自西而南.遂及於一境.自一境而遠.遍至於八路.則不言所利之利.豈不淵乎博哉.自八達門外.至柳川泥浦之間.厥土廣斥.耕犁不及者.畿民懶於農.不欲昏作.蓋其心力不能及也.漢儒之言曰.不能盡其心.則不能盡其力.不能盡其力.則不能成其功云者.政謂此也.雖有心力足以闢荒.而無財力則不能焉.雖有財力足以墾土.而無官力則不遂焉.況高燥之地.難於引水.沿野之民.昧於結耦

乎.雖以田形已具.布種即食之土.揭令而號於衆曰.任民耕食.而縣官不收稅.以今人心.尚不欲勇前.今者茫然風沙.雖許以十年免稅.有誰應募而出.朝耕暮穫.有如櫛如此之美乎.自漢之趙過諸人.爲民勸耕.田器農牛.皆由官備.爲長吏者.操畚鍤履畝.而汙萊爲膏沃.游手爲農夫.此所謂可與樂成者也.事不師古.曷云食效.今之爲計有二.一則依營屯募耕之規.而自本府捐財起墾.待其告功.限田分授.以爲補官用裕民食之資.一則依入粟拜官之式.而墾土爲幾日耕者.如唐之空名告身.宋之迪功以下之階.鄉品之爲鄉任.校吏之爲任窠.一循其願.而若過一朔之耕.可以收百石之利者.及過於此.而爲二朔三朔二百三百石者.樞衙邊將.計勞填差.則庶有日闢之效矣.水口虛廣.民不饒富.或者有云然之說.而蔽一言.曰不經也.匪彝也.先看水口之論.不在都邑.求之堪輿.如執左契.若造山於城外.則勢將俯瞰.若設堰於水下.則理便橫遮.由前而失於周遭樓櫓之義.由後而違於澄清明堂之戒.以名碩之宏謨參之.則平壤之城設.而養長林於江右.善山之治完.而置巨藪於溪左.古語不云乎.百家之聚.十室之市.亦必依山帶溪者是也.先從今年.種以樹木.無論楊柳桑柘榛栗.廣植而成林.俾有蔚然改觀之盛.亦屬先務.若府治驛村.逐戶種樹.前已屢飭.而宅不毛則有征.自是周官成憲.卿須便宜從事.毋負朝家爲華民夙夜憧憧之至意.起墾一款.博采衆見.論理別單登聞後.待回下施行.

<홍재전서(弘齋全書), 제36권 교(敎) 7, 華城柳川墾荒龜山種樹敎>

경제/농수산업

화성(華城) 인근 고을에 사사로이 배양하는 산의 나무를 베지 못하도록 하는 하교

지금 명을 받들고 갔다가 돌아온 신하를 통해 듣건대, 외영(外營)의 인근에서 읍교(邑校)가 교량(橋梁) 혹은 수통(水筩)을 만드는 데 쓴다고 하면서 판관(判官)의 물금체(勿禁帖)²²³를 가지고 사방으로 나가서 강제로 나무를 베어 가는 바람에 사서인의 묘소 주변이 곳곳에서 벌거숭이가 되는 지경을 면치 못하며, 이런 폐단이 해가 가면 갈수록 더욱 심해진다고 하니, 이 어찌 너무도 해괴한 일이 아니겠는가. 비록 어쩔 수 없이 써야 할 나무라 하더라도 읍교가 악을 자행하도록 내버려 둔 채 금지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근래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식목(植木)의 건에 대해 조가(朝家)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애를 태우고 있는데, 원침(園寢)에 나무를 심고 그 주변이 울창해지기를 바라는 조가의 마음을 미루어 인근 고을 사서인들이 제각기 자기 산의 송재(松梓)를 아끼는 마음을 유추해 본다면, 저 사서인의 곤욕스러운 마음이 과연 어떠하겠는가.

지나간 일은 비록 뒤미처 하나하나 엄히 징계할 것이 없겠지만, 지금 이후로는 인근 고을에서 사사로이 배양하는 산의 나무를 베는 한 가지 일을 각별히 엄히 금지하도록 하라. 비록 교량에 쓸 것이라 하더라도 판관의 물금체 한 장으로 시행하지 말고 반드시 모두 관유(關由)를 거칠 것이며, 외사(外使)가 또 반드시 그루 수를 기록하여 앞으로 명을 받들어 적간할 때 근거 삼도록 할 것을 외사에게 분부하라. 또한 경기 감사로 하여금 화성 인근 고을에 두루 신칙하여 비록 화성의 물금체가 있더라도 시행을 허락하는 외사의 공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시행하지 말도록 하는 일을 민간에 분명히 일러 주게 함으로써 이 유시가 또한 소중히 여기는 바를 위해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하라.

今聞奉命行回奏.外營隣近處邑校.稱以橋梁或水筩所用.持判官勿禁帖.四出勒斫.土庶丘木.在在未免濯濯.年復年來.愈往愈甚云者.豈不駭然之甚乎.雖曰應用之不可已者.其可縱校行惡.不之禁戢乎.近於莫重植木之節.朝家一心憧憧.以朝家爲園寢植木欲望其蒼鬱之心.反隅於隣邑土庶各愛其山松梓之心.則彼土庶見困者之心.果如何.既往雖不必一一追加嚴懲.此後隣邑私養山斫取樹木一款.各別嚴禁.雖於橋梁所用.亦勿以判官一張禁帖施行.必皆關由外使.又必錄其株數.以待來頭

223) 물금체(勿禁帖) : 국가에서 금한 일을 특별히 하도록 허가해 주는 증표를 말한다.

奉命摘奸時憑考事.分付外使處.亦令畿伯.遍飭華城隣近邑.雖有華城勿禁帖.除非外使公文之許施者.切勿施行事.曉諭民間.俾知此諭之亦出於爲所重.

<홍재전서(弘齋全書), 제36권 교(敎) 7, 華城隣近邑私養山樹木禁斫敎>

경제/농수산업

화성부(華城府)에 메밀을 대파(代播)하는 데 관한 윤음

왕은 이르노라. 농사란 하늘의 때를 본보기로 삼고 토질의 마땅함을 살피고 사람의 힘을 다하는 이 세 가지에 잘못이 없은 뒤에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 곡식에는 사계절을 지나야 먹을 수 있게 되는 것도 있고, 세 철을 지나야 먹을 수 있게 되는 것도 있고, 두 철만 지나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도 있다. 또한 들에 알맞고 산에는 알맞지 않은 것도 있고, 마른 땅에 알맞고 습한 땅에는 알맞지 않은 것도 있다. 수확을 일찍 하느냐 늦게 하느냐 토질이 마른 땅에 알맞느냐 습한 땅에 알맞느냐에 따라 온갖 곡식이 그 종류가 많은데, 잡초만 무성하게 되느냐 결실을 맺게 되느냐 하는 것은 모두 사람이 그 힘을 다 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내가 비록 《농정전서(農政全書)》를 읽어 보지는 않았지만 온갖 모든 일은 분수(分數) 두 글자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메밀이 대파(代播)하기에 가장 알맞으니, 뒤늦게 씨 뿌려도 먼저 익기 때문이다. 뒤늦게 씨 뿌려도 먼저 익는 것을 올벼[稭]라 하는데, 이미 《시경》의 빈풍(豳風) 시에서 읊었으니 주공(周公)이 어찌 나를 속이겠는가. 이른바 대파라는 것은 홍수나 가뭄이 들어 절서(節序)를 어기게 됨에 들에는 아직 옮겨 심지 못한 모가 많고 밭에는 뿌릴 만한 종자가 없을 때 온갖 곡식 가운데서 반드시 뒤늦게 씨 뿌려도 먼저 익을 수 있는 것을 골라 대신하여 뿌려 백성들이 넉넉히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사이 처음부터 수확할 때까지 충분히 서리를 면할 수 있어 국수[不托]도 만들 수 있고 조호미(雕胡米)와 맛먹을 수 있으니, 그 배고픔을 달래고 흉년을 구제하는 일에 있어 서쪽 지방의 큰 토란이나 남쪽 지방의 고구마보다 더 나은 것으로는 오직 메밀이 훌륭하다. 이 때문에 내가 혹 모내기할 시기를 놓치게 될 때면 반드시 메밀을 대파하도록 권하는 것이다.

어제 묘당의 초기(草記)를 보니, 메밀 이외에도 대파하기에 알맞은 곡식이 많다고 하였다. 콩을 심으면 가꾸기 쉬운 것이 메밀 다음 가지만, 토질과 농사일이 삼남(三南)·경기(京畿)·호서(湖西)가 서로 같지 않고 절후(節候)도 비슷한 것 같아도 각각 다르며, 그루갈이의 때를 놓치는 것은 모내기의 때를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하기에 쓰이는 것을 가지고 대파하는 데 쓰게 된다면, 제로(諸路)에서 일제히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을지는 실로 기필할 수 없다. 기장이 비록 습한 땅에서 잘 되고 씨 뿌리는 데서 수확까지 100일 정도면 되지만 한로절(寒露節)이 80여 일 후면 들게 되니, 미처 잘 익지 못할 것은 아주 확실하다. 늦기장 종자의 경우는 귀하기가 금(金)과 같아 창고에도 조적(糶糴)할 것이 없고 민간에도 비축해 둔 것이 없으니, 장차 어디에서 찾아와 보급시킬 수 있겠는가.

지금 메밀을 대파하라는 명에 대해 경기 내의 수령이나 백성 가운데 그 불편함을 말하는 자들은 문득 말하기를, “수전(水田)은 습한 땅이어서 비가 많이 내리면 종자가 다 녹아 버릴 것이다.” 하는데, 조정에서 대파하기를 권하는 것은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지대가 높고 건조하여 이앙을 하지 못한 곳에 대한 것이며, 또 구릉(丘陵)이나 밭두둑 가운데 세금도 내지 않는 불모의 땅에 대하여 호미로 농사짓고 쟁기로 밭 가는 법을 쓰도록 하는 것이니, 습한 땅에서 종자가 녹아 버릴 염려 같은 것은 애당초 논할 것도 없다.

메밀의 종자가 첩첩 산골에서 연해의 고을로 이송되는 데 있어서는 동풍(東風)만 순조로이

불어 주면 걸어서 옮기지 않아도 도달할 수 있으니, 하늘만이 아는 일이 드러났다고 할 만하다. 더구나 관가에서 그 종자를 공급해 주고 공적으로 그 세금을 면제해 주는 등 모든 간편하고 타당한 정책을 다 쓰는 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수확의 많고 적음이나 남고 부족함을 일체 백성에게 맡겨 낱알마다에 모두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만을 생각할 수 있으니, 이 어찌 울음을 웃음으로 바꾸고 흉년을 풍년으로 돌이켜 사람의 힘으로 하늘의 조화를 빼앗는 일대 관건이 아니겠는가. 또한 백성들이 부유하면 임금이 누구와 더불어 부족할 것인가 하고 말할 만한 것이다.

이 이외에도 언급하지 않은 훌륭한 이익이 손가락으로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나 백성들은 워낙 어리석어 더불어 시작을 도모할 수 없고, 경기의 습속이 또한 농사일에 게을러 한때 논을 깊이 가는 고역을 피하여 장래에 반드시 수확하게 될 일을 버리고, 해마다 응당 해야 할 농사일에 있어 오히려 부지런히 일할 생각을 소홀히 하니, 지금 대파의 명령에 대해 뒤돌아보면서 눈을 흘기고 앞으로 나아가려다 주저하는 것은 그 형세가 그러한 것일 뿐이다.

농업의 장려를 책임진 관리들은 심사숙고하여 계책을 내고 나태함을 채찍질하여 경계시키는 것이 곧 직분에 있어 마땅한 일인데, 도리어 대중의 뜻에 따라 부화뇌동하여 시끄러이 떠들어 대면서 백성들을 농사일에 힘쓰게 할 방도에는 전혀 어두운 채 이를 따르기 어려운 일로 여기고 있으니, 대체 무엇 때문인가. 명령이 나가면 그대로 행할 뿐 돌이킬 수는 없는 법이다. 조정의 명령이 반포된 지 오래되었다. 묘당에서는 견고히 독려하고 문책하는 자세를 지키며 때로 고찰하여 만약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먼저 방백(方伯)부터 잘못을 밝혀 바로잡아야 할 것이니, 그러면 수령과 백성 들은 자연히 분주하게 일에 달려 나가 들에는 아무것도 심지 않은 데가 없고 심어 놓은 땅은 잘 가꾸지 않는 데가 없을 것이다.

《서경》 대고(大誥)에, “감히 짐(朕)의 전묘(田畝)를 끝내지 않으리오.” 하였다. 이미 시작만 잘해 놓고 끝맺음을 도모하지 않는다면 어찌 농부가 밭을 갈아만 놓고 씨 뿌리지 않으며 씨만 뿌려 놓고 김매지 않는 것과 다르겠는가. 때로 보아도 괜찮고 곡식으로 보아도 알맞은데, 무엇이 괴로워서 부지런히 하지 않으며 무엇을 꺼려서 하지 않는 것인가. 경기 지역은 사방의 표준이니, 먼저 경기 고을 가운데 의논이 엇갈린 곳에서부터 전심전력하여 독실하게 받들어 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호남과 영남에서도 보고 느끼어 따라 행해서 이앙을 하지 않았어도 곡식의 수확을 거두고 가을이 되어 잘 익어도 세금이 없게 되어 쌀이나 기장을 섞어 죽을 만들 때 대신 쓰도록 한다면 그 많은 이익이 만세토록 법식이 될 만할 것이니, 어찌 한 해의 흉년을 구하는 밀천이 될 뿐이겠는가.

아 대부(阿大夫)를 삶아 죽인 것은 탐욕스러워서만이 아니었으니, 곧 전야(田野)가 개간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²²⁴⁾ 조정의 명령이 내려진 뒤에 직접 농토에 나아가 살펴보지 않고 한결 같이 황폐해진 대로 내버려 두고 다스리지 않는 자는 그 죄를 따질 때 아 대부에게 이미 시행되었던 법전을 피하고자 한들 되겠는가. 예전에 주 부자(朱夫子)가 남강(南康)을 맡고 있을 때 날마다 산간에서 농사일을 독려하느라 거마(車馬)와 시종(侍從)이 성자현(星子縣)과 같이 작고 궁벽한 곳까지 따라왔었다. 지금의 수령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감히 관아에 가만히 누워서 임금과 함께 근심을 나누는 의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통탄

224) 아 대부(阿大夫)를 …… 때문이었다 : 전국 시대 제 위왕(齊威王)이 아(阿) 땅의 대부(大夫)를 불러 말하기를, “그대가 아 땅을 잘 다스린다고 칭찬하는 말이 날마다 들렸다. 그러나 사람을 시켜 조사해보니, 전야(田野)를 개간하지 않아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었다. 이는 그대가 나의 좌우 사람들에게 뇌물을 많이 바쳐 명예를 구한 것이었다.” 하고, 아 대부와 그를 칭찬하던 자들을 삶아 죽였던 일을 말한다. 《史記 卷46 田敬仲完世家》

스럽지 않겠는가. 화성은 탕목읍(湯沐邑)이고 또 경기 지역의 표준이 되는 곳이다. 먼저 본부(本府)에서부터 마음을 다하여 왕명을 펴 나가 비록 밭 디딜 틈도 없는 손바닥만 한 땅이라 하더라도 때에 맞춰 이를 뿌려 경기 고을의 선도(先導)가 되도록 하라.

王若曰.農者律天時.相土宜.盡人力.三者無失.然後可獲有秋.穀有經四節而食者.經三節而食者.經二節而食者.又有宜於野而不宜於山者.宜於旱而不宜於水者.時之早晚.土之原隰.百穀不一其種.而苞粟汙萊.係乎人力之盡不盡焉耳.予雖未讀農政全書.而百千萬事.不出於分數二字.木麥之最宜代播.以其後種而先熟也.後種先熟曰穆.已自豳詩著詠.周公豈欺我哉.夫所謂代播云者.水旱爲災.節序過愆.野多未移之秧.田乏可降之種.則乃於百穀之中.必取後種先熟者.代而播之.俾裕民食之謂.而其間首尾優免霜信.可以爲不托.可以當雕胡.其療飢拯荒之功.頓勝於西之蹲鴟.南之甘藷.惟木麥爲良.此予所以或值秧節之愆期.必勸木麥之代播者也.昨見廟堂草記.以木麥外.亦多宜播之穀爲言.種菽之易爲力.次於木麥.而土性田功.不并以南.畿湖節候.雖似各異.根耕之過期.與移秧一般.以用於根耕者.用於代播.而諸路之一齊食實.固未可必.稷雖就濕之性.播之距穫.費却百日內外.而寒露入節.隔在八十餘日.則未及成熟.如執左契.至於晚稷之種.其貴如金.倉無糶糴.村無蓋藏.將覓來何處.可以派及乎.今於木麥代播之令.畿內守令民人之言不便者.輒云水田沮洳.雨洽則當消融.朝家之所勸播者.非此之謂也.豈在於高燥未移之處.而又於丘隴阡陌不稅不毛之地.俾用鋤耨耒耨之法.則沮洳消融之患.初非可論.木麥種子之自巖邑移沿郡也.東風送帆.無脛而至.可謂天公會事發.况又官給其種.公蠲其稅.諸凡易便當之策.靡所不用其極.無論所收之多少贏縮.一切委之於民人.粒粒皆我充腸飽腹之惟意.則此豈非回咷爲笑.反歎如稔.以人功奪造化之一大關樞.而亦足謂之藏富於民.君孰與不足乎.外此不言所利之美利.指不勝僂.而下民蚩蚩.不可與之謀始.畿之俗且懶於農作.避一時深耕之苦.捨將來必食之功.年年應爲之農工.猶忽服勤之意.則惟今代播之令.却顧而睥睨.將進而趑趄.特其勢耳.身爲田畯之官者.出謀發慮.策懶警惰.乃職之宜.而反爲隨衆雷同.棼棼聒聒.專昧克敏之方.認作難從之事.抑何故也.令出惟行不惟反.朝令之頒下久矣.廟堂但當堅守董責.時加考察.如其不率令者.先從方伯而糾之正之.則守令與民人.自當奔走趨事.野無曠土.土無閒畝.書曰.曷敢不終朕畝.既始之.便不圖終.顧何異於農夫之耕而不播.播而不耘乎.以時則可.以穀則宜.何苦而不勸.何憚而不爲.王畿四方之標準.先從畿邑之議論攜貳處.專精費力.篤信奉行.可使湖嶺.觀感影從.秧不移而有粟.秋則熟而無稅.和以稻粱之味.替作饘粥之需.則博哉之利.可爲萬歲法程.奚但止於一年拯荒之資而已哉.烹阿非但貪也.卽田野不闢.則朝令之下.跡不緣畝.而一任其荒穢不治者.顧其罪欲追阿大夫已施之典.得乎.昔朱夫子之知南康也.日日勞農山間.車徒至及於星子之小縣僻壤.則今之長吏.是何人.乃敢偃臥鈴閣.太不識分憂之義.寧不痛惋.華城湯沐邑也.又爲標準於王畿.先自本府.悉心對臚.雖側趾盈掌之地.及時播厥.俾爲畿邑之倡.

<홍재전서(弘齋全書), 제29권 윤음(綸音) 4, 華城府代播蕎麥綸音>

경제/농수산업

비국이 공주(公州) 생원 유진목(柳鎭穆)의 농서에 관해 회계한 것에 대한 비답

이는 진실로 이미 오랜 옛날에 시험해 본 것이니, 오로지 수령들이 감독과 신칙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묘당이 올린 책자 가운데 있는 조항을 관문(關文)에 후록(後錄)하여 **본도 외의 7도(道) 및 화성부(華城府)에 행회(行會)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기 상세히 살피고서 관하(管下)의 수령들에게 권장하고 신칙하여, 본받을 만한 것들을 유념하여 채택 시행함으로써 실효가 있기를 기하라. 그 가운데, 분전(糞田)의 이로움은 더욱 농사짓는 일에 요긴하고 절실한 것이다. 버드나무 가지를 전지에 벌여 놓고, 개펄의 진흙에 재[灰]를 타고, 지붕에 덮인 짙은 짚을 거름으로 쓰고, 바닷물을 흙에 뿌림으로써 땅이 비옥해지면, 개오동나

무 잎을 벌여 놓아 땅이 오그라드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흙이 부풀면 가는 모래를 깔아 곱절의 이익을 거둘 수 있으니, 자연히 묘방(妙方)이 있는 것이다. 오직 사람이 이를 행하지 않으니, 이는 부지런하나 게으르냐의 차이에 달려 있을 뿐이다. 그런 까닭에 지난번 조서(詔書)에서 ‘부지런해야 한다[勤]’는 한 글자를 집어내어 한 편(篇)의 자안(字眼)으로 삼은 것이다. 지금 이 상소가 이를 상세히 분석하되 부지런해야 한다는 점으로 결론을 삼았으니, 또한 매우 가상히 여기는 바이다.

此固已試於古昔者.專係於守令董飭之如何.自廟堂.以所進冊子中條件關後錄.行會於本道外七道及華城府.俾各看詳.勸飭管下守宰.可以效倣者.著意採施.期有實效.其中糞田之利.尤爲要切於作農.柳條之排田也.浦泥之和灰也.蓋屋之朽藁也.鹹水之澆土也.以至地肥則鋪檟葉而防蹲縮.土浮則拘細沙而收倍利.自有妙方.惟人不行.此在勤與惰之間耳.故向於綸音.拈出勤之一字.以爲一篇之字眼.今此敷析.能以勤爲歸.亦甚嘉乃.

<홍재전서(弘齋全書), 제46권 비답(批答) 5, 備局公州生員柳鎮穆農書回啓批>

(4) 건설

경제/건설

금천으로 길을 내는 것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내용.

또 관찰사 서용보(徐龍輔)가 칠중하(七重河) 연읍(沿邑)의 조속(糶粟 대여한 곡식)을 돈으로 만들어 고가(高價)로 거두고, 또 말하기를, “이는 금천(衿川 시흥)의 도로 수치(修治)하는 비용이니, 조(糶)를 가볍게 하려 한들 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에 소민(小民)들이 원망하여, “괴롭다, 화성(華城)이여! 과천(果川)에도 길이 있는데 어찌하여 금천(衿川)으로 길닥이하는고.” 하였으니, 주상이 장헌세자(莊獻世子)의 능침(陵寢)에 자주 거둥하였기 때문에 이런 번다한 비용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용이 돌아와서 이 일을 상주하였다.(…)

又觀察使徐龍輔.於七重河沿邑.糶粟爲錢.徵高賈.且曰是衿川治道之費也.欲輕糶得乎.於是小民怨之曰苦哉華城也.果川亦有路.奚爲乎衿川.謂上數幸寢園.故有此煩費也.鏞歸而奏之.(…)

정약용(丁若鏞),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제16권 묘지명(墓誌銘), 自撰墓誌銘【集中本】>

경제/건설

오성지가 화성에 잘못 적용된 것에 대해 비판한 내용.

《무비지(武備志)》의 성제(城制)에서 논한 오성지(五星池)는 곧 누수통(漏槽)과 같은 종류이다. 올 가을에 나는 금정 찰방(金井察訪)으로 가는 길에 화성(華城 수원)을 지나면서, 웅성문(甕城門) 위에 가로로 다섯 구멍이 뚫린 것을 보았는데, 마치 요즘의 성가퀴(陴隍)에 구멍이 세 개 있는 것과 같았다. 사람들에게 물어 보니, ‘이것이 오성지이다.’ 고 한다.

아, 성문(城門) 위의 지(池)에도 가로로 구멍 뚫린 것이 있는가? 오성지라는 것은 물을 터 내려서 적이 성문을 태우려 할 때 이를 막는 것이니, 그 구멍을 곧게 뚫어서 바로 문짝 위에 닿게 하여야 쓸모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성 쌓는 일을 맡은 사람이 도본(圖本)만을 보고 구멍을 가로로 뚫어 놓았으니, 이것이 이른바 그림책을 뒤져서 천리마를 찾는다는 격이다.

武備志城制所論五星池.卽漏槽之類也.今年秋.余謫金井.路由華城.見甕城門上有五穴橫穿.如今陴隍之有三穴.問之人.曰此五星池也.嗟乎.池亦有橫穿者乎.五星池者.將以灌水禦賊之焚門也.直穿其穴.正當門扇之上.然後方可有用.董役者只見圖本.橫穿其穴.此所謂按圖索驥者也.

정약용(丁若鏞),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제14권 기(記), 華城五星池記>

경제/건설

화성 건설에 필요한 치밀한 계획의 일환으로 정약용이 제안한 성설(城說).

신(臣)은 삼가 생각하건대, 화성(華城)을 쌓는 일은 비용이 많이 들고 일이 번잡하며 시기는 어려운데 일은 크게 벌여 놓았으므로 성상(聖上)께서는 근심하며 애쓰시나 조정의 의논은 통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시작할 때 계획을 치밀하게 하여야 하므로 신은 삼가 전에 들은 것을 간추려 외람되나마 어리석은 견해를 진달합니다. 그 조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臣竊念城華之役.費鉅而務繁.時詘而舉贏.聖念憂勞.廟議岐貳.第惟經始之初.商確宜密.臣謹撫舊聞.猥貢愚見.

정약용(丁若鏞),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제10권 설(說), 城說>

경제/건설

화성(華城) 성역(城役)을 감독하는 신하들에게 유지한 윤음

왕은 이르노라. 화성 성역(城役)은 소중한 바를 위해서이지만 그것을 정지하는 것도 소중한 바를 위해서이다. 원침(園寢)을 봉안하면서부터 유수부(留守府)로 승격시켜 체모를 높이고 행궁(行宮)을 설치하여 우러러보며 의지하는 마음을 붙였다. 성지(城池)를 설치함은 기호(畿湖)의 요충지이기 때문도 아니었고 5천 병마(兵馬)를 위해서도 아니었다. 이에 경사(卿士)들과 모의하지도 않고 재정의 출입을 묻지도 않고서 경영하기 시작하여 이곳에 성을 쌓고 참호를 팠는데, 남북의 망루가 장차 완공을 고하게 되었다. 만일 흉년이 들지 않아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았다면 이 역사는 계속해 나아감만 있고 미루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돌아보건대, 지금 삼남과 기전은 한가운데 굶주리다 못해 이리저리 떠돌고, 서북의 변방 고을도 식량을 대어 가기가 어렵다고 보고하고 있다. 자전과 자궁의 진헌 물자도 오히려 자애로운 분부를 받들어 정지한 판국이니, 성역이 비록 중요하다 하더라도 자연히 차등이 있게 마련인데, 이것은 정지하면서 저것은 정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식견이 있는 자가 아니라도 불가한 일임을 알 것이다. 더구나 진헌에 쓰이는 물자는 1백 포, 1천 꿩미에 지나지 않는데도 특별히 백성들과 고락을 함께한다는 뜻에 따라 지출을 억제함으로써 백성들의 재물로써 백성들을 돕도록 한 것이다. 더구나 수만의 물력(物力)이 필요한 성역의 경우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성역에 들어가는 비용은 만들어 내면 되고 황정(荒政)에 필요한 물자는 창고를 풀면 되니,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일로서 서로 관련이 없다’고 말하지는 말라. 한 나라의 재화는 일정한 수가 있어서 위에 있지 않으면 아래에 있고 밖에 있지 않으면 안에 있는 법이다. 그러니 농민이 한 해 동안 경작하며 먹고 살 양식이 아니라면 바로 진휼 대상 백성들이 입에 풀칠할 밑천인 것이다. 경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수확을 거두며 진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데 지금 ‘우선 너희들의 경작과 진휼을 봐두고 단지 우리의 성역에만 힘을 쓰라’고 한다면, 인화(人和)와 지리(地利)의 나뉘이 아마도 이런지는 않을 것이다.

내년은 다른 해와는 다르므로 기쁨을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은택을 널리 시행하는 데 힘써서 조세 납부와 환자곡의 상환을 평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도록 하였다. 한편으로는 가법게 하고 줄여 주어 그 힘이 펴이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굶어내고 발라내어 재물을 보태는데 힘쓴다면, 관중(管仲)을 시켜 재화를 유통시키게 하고 유안(劉晏)을 시켜 부세를 담당하게 하더라도 백성들을 해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어찌 내가 자전의 마음으로 마음을 삼는 도리이겠는가.

설령 전곡(錢穀)을 다른 곳에서 마련해 내어서 전체적인 골격이 머지않아 훌륭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구렁에 나뉘는 근심이 온 나라 안에 다급하게 몰아치는 판국에 한 고을에서는 공사장의 구렁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면, 갖은 힘을 다해 처자를 부양하느라고 지칠 대로 지친 백성들이 ‘우리 임금의 어찌하여 성 쌓는 데 쓰는 마음을 백성들을 보호하는 데 쓰지 않으며, 성 쌓는 재물을 백성들을 살리는 데로 옮겨 쓰지 않는가’라고 하지 않겠으며, 또 ‘구중궁궐의 밝디밝은 불빛은 험벗은 백성들의 모습은 비추지 않고 채색한 성루와 성첩만 비춘다’고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성은 금년에 쌓고 내년에 쌓아 10년을 끌어가도 괜찮지만, 백성들은 하루 굶고 이틀 굶어 한 달간을 참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지경에 이른다면 내가 비록 소중한 일이라는 말로 응대하고자 하더라도 어찌 감히 지난날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시어 연로(輦路)의 벼나 보리를 밟지 못하게 하시던 덕스러

운 뜻을 우리러 본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의논하는 자들은 ‘흥년에 토목 공사를 일으키는 것은 실제로는 진흙을 겸하는 것이니, 주자(朱子)가 남강(南康)에서 행한 고사(故事)²²⁵⁾와 범중엄(范仲淹)이 절서(浙西)에서 행한 행적²²⁶⁾에서 살펴 다시 실행할 수 있다’ 고 한다. 그러나 이는 일개 수령이나 장수로서 한 고을이나 진영을 구제한 정사일 뿐이다. 지금 나는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한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으니, 가까이 왕도(王都)와 기전으로부터 멀리 아득한 바다와 변방 지역에 이르기까지 늙은이, 어린아이, 부녀자, 절름발이, 귀머거리, 병어리가 모두 나의 자식이다. 굶주려 누렇게 뜬 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미 농사도 짓지 못하고 장사도 하지 못하게 해 놓고는 고향을 떠나 처자식을 데리고 몰려들어 한 성의 역사에서 품을 팔아먹고 살게 한다면 그곳에 이르러서 살아남을 자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흥년이 들면 토목 공사를 일으키지 않고 하등(下等)의 희생(犧牲)으로 제사 지낸다는 말을 나는 《예기(禮記)》에서 들었고, 대사(臺榭)에 치장을 하지 않고 궁정(宮廷) 안의 도로를 정비하지 않는다는 말을 나는 《춘추전(春秋傳)》에서 보았다. 처한 일의 크고 작음에 따라 상도(常道)와 권도(權道)를 적절히 쓰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 현재 상황에서는 황정 한 가지 일에 정신을 쏟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니, 쪽정이 벼와 한 치의 비단이라도 견면할 만한 것은 견면하고 취할 만한 것은 취해서 농사짓는 밑천으로 삼기도 하고 진흙에 돌리기도 해야 하겠다. 이렇게 하면 병든 백성들이 다 일어나고 나도 자리에 편히 누울 수 있을 것이며, 하늘이 또 많은 곡식을 내려 준다면 노(魯) 나라의 삼수(三遂)²²⁷⁾가 저절로 이르고 주(周) 나라 들판의 백도(百堵)²²⁸⁾가 모두 지어져 인부들은 즐거워하고 담장은 우뚝 솟게 될 것이다. 조처가 온당하다면 기상이 편안해지는 법이니, 사람들의 마음이 향하는 바가 성(城)과 더불어 굳건해질 것이다. 그러니 어찌 굳이 아침에 백대의 수레에 실어 나르고 저녁에 백 마리 소로 수송하면서 더위와 추위도 따지지 않고 넉넉함과 모자람도 돌아보지 않은 채 백성들의 힘을 고갈시키고 백성들의 재물을 소모해 가며 독촉하고 몰아붙이기를 미치지 못할 듯이 해야만 하겠는가. 진현 물자를 정지한 것은 우리 자전과 자궁을 위해서 은혜를 펴고자 함이었고, 성역을 정지하는 것은 우리 원침을 위해서 은혜를 펴고자 함이다. 성인이 다시 태어나더라도 나의 말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단연코 알 수 있다.

그러나 본부의 구황 대책에 대해서는 나도 요량하는 바가 있다. 성에 후탁(後托)이 있는 것은 나무에 뿌리가 내리고 집을 지을 때 기초 공사를 하는 것과도 같아서 견실하고 두텁게 하지 않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 내년 봄 지맥(地脈)이 풀릴 때를 기다렸다가 북성(北城) 밖의 가깝고 척박한 땅을 그 깊이를 살펴서 한 길 혹은 반 길가량 파 들어가되 대략 곡식 100

225) 주자(朱子)가 …… 고사(故事) : 주희(朱熹)가 남강군(南康軍)에 제수되었을 때 그 고을에 크게 흥년이 들자 다방면으로 흥년 구제 정책을 실시하여 많은 인명을 살린 고사이다. 《宋史 卷429 道學列傳 朱熹》

226) 범중엄(范仲淹)이 …… 행적 : 범중엄이 소주(蘇州)를 다스리던 때에 큰 흉수가 나서 민전(民田)을 경작하지 못하게 되자 백성들을 모집하여 오하(五河)를 소통시키는 대대적인 역사를 벌인 고사를 말한다. 《宋史 卷314 范仲淹列傳》

227) 노(魯) 나라의 삼수(三遂) : 수(遂)는 교외 밖의 지역을 말한다. 주(周) 나라 백금(伯禽)이 서융(西戎)을 정벌하러 나가면서 노 나라의 삼교(三郊)와 삼수 주민들에게 방어에 필요한 설비와 말에게 먹일 풀 등을 공급하게 하였다. 《書經 費誓》

228) 주(周) 나라 들판의 백도(百堵) : 도(堵)는 담장을 측량하는 단위로, 1장(丈)을 판(板), 5판을 도(堵)라고 한다. 주 나라 선왕(宣王)이 백성들을 안집시켜 수십 길이나 되는 담과 집을 지어 살게 하였는데, 유민들이 노역의 수고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살 곳을 얻게 됨을 기뻐하였다 한다. 《詩經 小雅 鴻雁》

곡(斛) 정도 뿌릴 수 있는 경계를 헤아려 정한 다음, 그 흙을 거두어 성의 몸체에 붙여서 다섯 마리의 말과 두 채의 수레가 지나갈 수 있게 만들고, 그 땅을 중형으로 농지 정리한 다음 깊이 갈고 자주 김을 맨다면, 척박한 땅을 비옥하게 만들 수 있어서 정국(鄭國)이 경수(涇水)를 끌어 대고²²⁹⁾ 사기(史起)가 업(鄴) 지역을 개척하여²³⁰⁾ 만든 것처럼 성곽을 등진 몇천 경(頃)의 좋은 땅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두 해가 지나지 않아서 삽을 메고 구름처럼 모여들어 도랑을 터서 물을 내려 보내는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그 공사를 할 때는 임금을 날짜로 계산해 주지 않고 저 나쁜 김을 기준으로 하되 푼말을 세워 원근을 계산해서 차등을 둔다면, 힘이 센 자는 백 전(百錢)을 여유 있게 취할 수 있고 힘이 약한 자도 충분히 한 몸을 의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것이 어찌 부(府)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지지 않고도 거처할 곳이 있게 되는 것에만 그치는 일이겠는가. 품팔이로 살아가는 자들도 모두 소문을 듣고 앞 다투어 달려올 것이다. 움막을 짓거나 가게를 차려 놓고 술을 빚고 음식을 만들어서 있는 것으로 없는 것과 바꾼다면 또한 과부와 홀아비의 이익이 될 것이다. 무릇 이와 같다면 성은 만세토록 빼앗기지 않는 기틀이 정해질 것이고, 백성들은 1만여 호가 기름진 땅을 얻을 것이며, 창고는 만 명이 충분히 먹을 식량이 비축될 것이니, 한 가지 일로 몇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어찌 실로 아름답고 훌륭한 일이 아니겠는가.

아, 너희 화성 성역을 감독하는 신하들은 이 유시를 잘 듣고 모두 잘 알도록 하라.

王若曰.華城城役.爲所重也.而其停亦爲所重也.粵自妥奉園寢.陞留府以尊體貌.置行宮以寓瞻依.城池之設.非爲畿湖要衝之地.非爲五千兵馬之衆也.於是謀不及卿士.財不問出入.經之營之.築斯鑿斯.南北樓櫓.行將告功.苟使歲不荒.民不飢.是役也有進無退而已.顧今三南畿甸.方秋顛連.西北邊郡.亦奏艱食矣.殿宮獻御.猶且奉慈教而停免.則城役雖重.自有層節.此停而彼不停.不待識者而知其不可矣.況茲獻御之用.恰不過百包千緡.特循投醪之義.擲節支計.以民補民.何況城役物力之以萬萬計者乎.莫曰城役所費.將無作有.荒政所需.發倉振廩.判若兩歧.各無相關.一國財貨.只有此數.不在上則在下.不在外則在內.若非耕民嗣歲之糧.卽且賑民餬口之資.不耕胡穫.不賑胡活.而今乃曰姑舍汝耕賑.只從我城役云爾.則人和地利之分.恐不當若是.明年異於他年.同慶之心.務欲博施.稅糴之減.幾半常年矣.一邊輕之蠲之.以紓其力.一邊櫛之剔之.以求其益.雖使管仲通貨.劉晏治賦.其不厲民者幾希.此豈予以慈心爲心之道乎.設令錢穀特地辦出.楨榦不日完美.溝壑之憂.方急於八路.呼邪之聲.不輟於一府.則惟彼盼盼然保抱瑣尾之民.其不曰吾君何不以築城之心.施之保民.築城之財.移之活民云乎.又其不曰九重光明之燭.不照於鷄衣鵠形.而偏照乎粉樓雉堞云乎.又其不曰城可使今年築明年築.拖至十年.民不可使一日飢二日飢.忍及三旬云乎.到此予雖欲以所重應之.亦曷敢不仰體昔年愛恤元元.勿踐輦路禾麥之德意乎.議者以爲歉年興作.實兼調恤.朱夫子南康故事.范仲淹浙西已跡.可按而復也.此特一守一帥.救得一郡一鎮之政耳.今予以一國之君.臨一國之民.邇而王都甸服.遐而溟渤塞漠.老穉婦孺.跼蹐暗聾.莫非予赤子.既不能使彼百千萬顛頤之類.不農不商.離土離鄉.縋至仝集.受傭仰食於一城之役.則所至而所活者.當爲幾箇人口.力役不興.祀以下牲.予聞於禮.臺榭不塗.道途不除.予見於傳.小大經權之間.隨處異用.有若是矣.爲今之

229) 정국(鄭國)이 …… 끌어 대고 : 정국은 전국 시대 한(韓) 나라의 수공(水工)이다. 본래 진(秦) 나라를 펴페시킬 목적으로 대대적인 토목 공사를 일으켜 경수를 끌어다 중산(中山)에서 호구(瓠口)까지 도랑을 만들었다. 이에 4만여 경(頃)의 척박한 땅에 물을 댈 수 있어서 진 나라가 마침내 이로써 부강해지게 되었다. 《史記 卷29 河渠書》

230) 사기(史起)가 …… 개척하여 : 위 양왕(魏襄王) 때 사기가 업(鄴)의 수령이 되어 장수(漳水)를 업 땅으로 대어 척박한 하내(河內) 지역을 부유하게 만든 고사를 말한다. 《漢書 卷29 溝洫志》

道.莫如聚會精神於荒政一事.雖稊米寸帛之微.可蠲者蠲.可取者取.或資於耕.或歸之賑.瘡痍畢起.衽席快安.而天又降康.多黍多稌.魯郊之三遂自至.周原之百堵皆作.役夫欣欣.崇墉仡仡.使做措便當.氣象舒泰.衆心所向.與城俱固.何必朝運百車.暮輸百牛.不問寒暑.不顧饒乏.竭民力.耗民財.督之迫之.有若不及也哉.獻御之停.爲我殿宮而敷惠也.城役之停.爲我園寢而敷惠也.聖人復起.決知其不易予言.然本府揀荒之策.予亦有料量者存.夫城之有後托.猶木之蟠根.屋之築址.不可不堅且厚也明矣.容待來春地脈融解之際.若於北城外咫尺斥鹵之壤.相其淺深.鑿得一丈或半丈.量定約播百斛之經界.然後收其土黏付城身.俾容五馬兩軌.卽其地衡縱東南之畝.深耕而易耨.則瘠可使肥.磽可使沃.而贏得如鄭涇史鄴之幾千頃負郭良田.不出一二年.將見荷鍤成雲.決渠降雨之美.而方其役也.雇直不以日而以負.立表計遠近而差等.則強者優取百錢.弱者足庇一身.此豈特府民.往南北東西之不適有居.傭保資生者.皆可以聞風爭趨.而或窖或肆.爲酒爲食.以其所有.易其所無.亦矜寡之利.夫如是則城則奠萬世不拔之基.民則獲萬家如膏之地.倉則貯萬人足食之糧.一舉而衆美具.豈不誠休且美哉.咨爾華城城役董工之臣.靜聽此諭.咸須諦悉.

<홍재전서(弘齋全書), 제28권 윤음(綸音) 3,諭華城城役董工諸臣綸音>

경제/건설

화성의 원침공사를 담당한 윤숙(尹塾)의 성복일(成服日)에 치제한 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위를 받드는 것을 / 危身奉上

충성이라고 하나니 / 是之謂忠

아, 수림함이 / 嗚呼樹立

한겨울에 빼어난 소나무와 같았네 / 大冬挺松

흰 칼날을 밝을 수 있었는데 / 可蹈白刃

불법을 어찌 논할 것인가 / 何論黑耽

유배에서 풀려나와 돌아오니 / 賜環歸來

해와 달이 임한 듯하였다네 / 日月監臨

내가 경을 등용하고자 함은 / 予欲用卿

상도를 따름이 아니었으니 / 不循常度

병조 정랑으로부터 기용하여 / 起自郎潛

옥당(玉堂)에 들게 하였네 / 盛于玉署

승지가 되어 여유 있고 침착했으며 / 知申委蛇

대사헌이 되어 치관(多冠)²³¹을 높이 썼으니 / 都憲峨豸

계책을 내어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 籌謨保釐

두루 맡아서 행하였네 / 歷有踐履

사구와 사마의 벼슬과 / 司寇司馬

승정과 승록의 반열이 / 崇政崇祿

모두 특지(特旨)로 내려졌으니 / 率是中批

돌보아 주고 위임함이 돈독하였네 / 眷委也篤

화성(華城)의 원침(園寢)에 일이 있어 / 有事華寢

경에게 책임을 맡겼는데 / 畀以敦匠

경이 당시에 눈물을 억제한 것은 / 卿時制淚

231) 치관(多冠) :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쓰는 관(冠)이다. 치(豸)라는 동물은 신양(神羊)인데, 능히 곡직(曲直)을 구분하는 까닭에 이러한 모양으로 법관(法冠)을 만들어 썼다 한다.

내가 더욱 슬퍼할까 염려해서였네 / 恐予增愴
 황강과 적벽을 / 黃岡赤壁
 하늘이 동파(東坡)에게 빌려 주었으니 / 天借蘇仙
 가벼운 가죽 옷과 느슨한 의대(衣帶)로서 / 輕裘緩帶
 술 한 말에 백 편의 시를 지었네 / 一斗百篇
 경이 서쪽으로부터 왔을 때 / 卿來自西
 눈병이 있었던지라 / 病在阿堵
 몸조리에 편리함을 위하여 / 爲便將理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에 임명하였네 / 晉判樞府
 별도로 은혜로운 대우를 넉넉히 하여 / 另修恩遇
 사관을 보내 선유(宣諭)하게 하면서 / 史官往宣
 병이 말끔히 나아 / 儻冀痊可
 재상의 자리에 오르기를 바랐었네 / 步武台躔
 갑자기 멀리 떠나다니 / 倏焉長逝
 사실인가 거짓인가 / 其然豈然
 은졸의 유시로는 / 隱卒之諭
 차마 내 심정을 다할 수 없네 / 未忍傾困
 영의정으로 추증하니 / 贈以議政
 종전부터 생각해 온 일이고 / 誰昔注意
 장례를 돕고 녹봉을 지급하며 / 庀葬頒廩
 아들을 녹용하고 시호를 논하네 / 錄孤考諡
 시호를 내리는 데 지체함이 없음은 / 諡不踰日
 예가 대관과 같은 것이니 / 禮同大官
 강하고 굳센 전형이 / 剛毅典型
 황연히 어제의 일만 같네 / 恍若隔晨
 아득히 먼 운향으로 / 雲鄉曼邐
 기미(箕尾)를 타고 표연히 날아갔으니 / 箕驂飄拂
 경에게 술을 따르고 / 有酒酌卿
 제문을 또한 특별히 지었네 / 文且特綴
 <홍재전서(弘齋全書), 제24권 제문(祭文) 6, 忠肅公尹塾成服日致祭文>

경제/건설

화성의 성역을 정지했다고 호서(湖西)의 사부(士夫)와 백성들에게 유시하는 글

너희는 나의 적자(赤子)인 셈이다. 어린애가 어미의 무릎을 빙빙 돌면서 잠시라도 곁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 것은 그가 젖을 먹여 주기 때문이다. 오늘날 너희들이 먹여 주기를 바라는 상태가 어찌 어린애가 젖을 그리워하는 정도뿐이겠는가. 그러니 그가 가는 행차에 수반하여 무엇을 증여하여 기쁘게 할 것이며 무엇을 구하여 바람에 부응해 줄 것인지를 생각할 뿐 번잡한 경용(經用)도 돌아볼 겨를이 없고 중요한 공헌(供獻)도 염려할 겨를이 없다. **화성(華城)의 성역(城役)은 능침을 수호하는 대사인데도** 오히려 또한 역사를 정지하였다.

爾等赤子也. 赤子繞慈母之膝. 不欲斯須離側. 爲其哺乳也. 今日爾等之望哺. 奚翅赤子之戀乳. 則於其往而伴其行. 何贈以悅之. 何求以副之. 經用之繁. 不暇顧. 供獻之重. 不暇念. **華城城役**. 爲仙寢拱護

也.

<홍재전서(弘齋全書), 제38권 유서(諭書), 諭湖西士夫民庶書>

경제/건설

채제공(蔡濟恭)이 화성(華城)에 성을 쌓는 일을 연석에서 상주한 것에 대한 비답

모든 일은 먼저 대강(大綱)을 세워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규모를 정하고 차례(次第)와 절목(節目) 사이의 일을 마땅히 들어서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공사를 감독할 당상관을 이미 차하(差下)하도록 명하여 그로 하여금 봄이 된 뒤에 즉시 역사를 시작하게 하였다. 축성(築城)의 대강은 형세에 편하게 따르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당해 당상이 가까운 시일 내에 내려가서 그 터를 정하되 둥글게도 하지 말고 네모지게도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외관을 신경쓰지 말고 되도록이면 이로움을 인하고 형세를 이용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하라.

역사를 감독하는 일의 대강은 편리하게 운반하고 유리하게 실어 나르는 데에 있으니, 경들은 미리 옛사람들이 무거운 것을 당기고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던 방식을 고찰하여 거행을 하라.

재물을 모으는 일의 대강은 먼저 획급(劃給)해 준 것 이외에는 경비를 번거롭게 하지 말고 또한 원납전(願納錢)을 강제로 거두지도 말고, 다시 양쪽이 모두 편할 방도를 생각하라.

양식(樣式)을 정하는 일의 대강은 위는 처마와 같게 하고 아래는 섬돌과 같게 할 것이고, 웅성(甕城)과 초루(譙樓), 현안(懸眼)과 누조(漏槽), 작호(鑿壕)와 설치(設雉)를 지형에 따라 배분(排分)하는 일을 멀리는 중국의 법을 본뜨고 가까이는 고상(故相)의 논의를 취하도록 하되, 경들도 널리 고찰하고 상세하게 헤아려 후인들로 하여금 오늘날의 조정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라.

凡事先立大綱.然後規模定.而次第節目間事.當舉而措之.監董堂上.已命差下.使之開春後.即爲始役.築城之大綱.莫如形便.該堂從近下去.定其基址.勿圓勿方.勿念觀瞻.務從因利乘勢之策.董役之大綱.在於便運而利輸.卿等預究古人引起重重之遺式而行之.鳩財之大綱.先劃之外.勿煩經費.亦勿勒捧願納.更思兩便之道.制樣之大綱.上如簷.下若磴.而甕城譙樓.懸眼漏槽.鑿壕設雉之隨地排分.遠倣中國之法.近取故相之論.卿等亦須博考詳度.俾後人.知今日朝廷之有人.

<홍재전서(弘齋全書), 제44권 비답(批答) 3, 領府事蔡濟恭華城築城筵奏批>

경제/건설

비변사가 화성(華城)에 백성을 모집하는 일로 아뢴 것에 대한 비답

화성에 성(城)을 쌓는 것은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다. 한(漢) 나라 때에 호강하고 부유한 가호를 무릉(茂陵)에 옮겼는데, 더구나 이 성의 중요한 바는 왕릉을 에워싸 보위하고 행궁을 둘러 호위하는 것에 있으니, 그 체모의 준엄함이 무릉에 비해 더욱 각별한 바가 있다. 경외 사방의 부호(富戶)들로 하여금 소문을 듣고 다투어 모여들기를 마치 물이 아래로 흘러 밤낮으로 쉬는 때가 없는 것처럼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오고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르게 하여, 교역하는 물건을 무슨 일인지 따지지 말고 어떤 항목이든 구매하지 말아 각기 하고 싶은 바를 통하여 얻게 하고 앞 다투어 서로 그 일을 권하고 그 일을 즐기고 그 사는 곳을 편안히 여기고 그 이득을 이롭게 여기도록 한다면, 이는 이른바 천금(千金)의 집안인 셈이니 한 도읍의 거부(巨富)에 비견할 수 있을 것이며, 비로소 소중함을 인하여 이 성을 축조한 효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공이 매우 커지게 되면 마땅히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어떤가를 살피어 차례로 특별히 발탁함으로써 임금의 말이 미답다는 뜻을 보여

야 할 것이다.

城于華.爲所重也.漢時徙豪富戶於茂陵.況此城之所重.在於拱衛仙寢.環護行宮.其體貌之尊嚴.比茂陵尤有別焉.使京外四方之富戶.聞風爭集.若水趨下.日夜無休時.不召而自來.不求而自至.交易之物.無論某事.不拘何項.各令通得所欲.爭相勸其業.樂其事.安其土.利其利.則是所謂千金之家.可比一都之素封.而始可言爲所重.築斯城之功效.於是乎渠輩之功甚鉅.當觀誠實勤恪之如何.次第拔例擢用.以示信王言之義.

<홍재전서(弘齋全書), 제45권 비답(批答) 4, 備邊司以華城募民事啓批>

경제/건설

사헌부가 화성 성역을 비판한 임장원(任長源)의 찬배(竄配)를 청하는 계본에 대한 비답

임장원(任長源)에 관한 일은 대각에 또 하나의 정최성(鄭戢成)이 나오게 된 셈이다. 조정이 정최성을 깊이 미워하고 통렬히 배척한 것은 그 뜻이 유습(謬習)을 혁파하고 오염을 씻어냄으로써 일세의 이목을 새롭게 하고 이를 겸하여 호오(好惡)를 분명하게 보여 추향을 정하려는 데에 있었다. 재소(齋所)에서 빈대(賓對)를 할 때에 또한 이미 갖은 애를 써 가며 자세하게 유시를 하였으니,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가 그것을 듣지 않았겠는가. 그러니 감히 알지 못하고서 이렇게 아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만일 알고도 일부러 하였다면 이는 정최성을 처분한 것이 옳지 아니한 까닭에 호오와 추향에 있어 믿음이 오히려 독실하지 못하고 취사가 오히려 정밀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겠다.

대체로 임장원에 대해 너그럽게 포용을 해 준 일은 장원의 처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곧 조정의 기상을 위한 것이고 세상의 도리를 위한 것이었다. 관직이 말하는 것으로 이름을 삼았으면 어찌 감언(敢言)을 할 말과 감언하지 못할 말이 있겠는가. 감언하는 기풍을 기르고자 할진대, 먼저 감히 말하지 못할 일에 대해 앞뒤 재지 않고 말하는 자부터 곧 그 말의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점을 따지지 말고 똑같이 마음을 비우고 가슴을 열어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속에 쌓아 둔 것을 모조리 털어놓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야 눈앞의 폐속(弊俗)을 조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궁연(宮筵)의 연석에서 교시할 때 원침(園寢)의 상설(象設) 제도를 인용하면서 유시하기를, “별풍석(屏風石)은 근래에는 하지 않는 것인데, 교하(交河)의 장릉(長陵)에 이미 시행한 예를 살피어 준용함으로써 아버지 장사는 너무 검박하게 하지 않는다는 의리를 부친 것이다. 가령 말을 하는 자가 단지 하지 말라고 한 수교(受敎)가 있는 것만을 알고 교하에 이미 시행한 예가 있음은 알지 못하고서 혹 쟁집을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또한 불문(不問)에 부쳤을 것이다. 그런데 더구나 화성(華城)의 성역(城役)이 아무리 중한 바가 있을지라도 상설에 비하면 또한 차등이 있기 마련이다.” 라고까지 하였으니, 임장원의 얘기를 어찌 족히 ‘감히 해서는 안 될 말을 감히 했다’고 운운할 수 있겠는가. 그대가 오늘 조사하여 글을 올린 일은 마땅한 것인가, 마땅하지 못한 것인가. 옳은 것인가, 옳지 못한 것인가. 정최성에 대해 이미 세초(歲抄)에 월점(越點)을 하였으니, 그대라고 어찌 감히 홀로 중감(重勘)을 면할 수 있겠는가. 그대를 삭직한다. 임장원에 대해서는 다만 임장원을 포용할 따름이고 정최성에 대해서는 단지 정최성을 배척할 따름이다. 일이 화성에 속하니 그 관계가 어떠한가. 포용하고 배척하는 사이에 결코 이미 제기한 것을 다시 제기하여 중언부언(重言復言)함으로써 차 마시고 밥 먹는 얘기처럼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도리를 오늘날 조정의 신하들이 감히 인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일부터는 이 계(啓)를 올리지 말라. 연계(連啓)는 비록 바치더라도 받지 말라.

任長源事.臺閣又出一箇鄭寂成矣.朝家之深惡痛斥於寂成者.意在於革謬滌染.以新一世之耳目.兼欲明示好惡.俾定趨向也.齋所賓對.亦既辛勤敷論.有耳者孰不聞之.則其敢曰不知而爲此啓乎.萬一知而故爲.是寂成之處分不嚴.故好惡與趨向.信之猶不篤.擇之猶不精也.大抵優容於長源者.非爲長源地.卽爲朝象也.爲世道也.官以言名.則豈有敢言不敢言之言乎.欲長敢言之風.先從妄言於不敢言之事者.卽毋論其言之過與不及.一例虛襟開懷.使人人得以竭其所蘊.然後目今弊俗.庶或掄得一半分.以是宮筵筵教.至引園寢象設之制而諭之曰.屏風石.近所不爲者.而交河長陵已例.照而遵用.以寓不以儉之義焉.假使言者.只知有勿爲之受教.不知有交河之已例.而或有所爭執之舉.尙亦付之勿問.**況華城城役.雖有所重.**而比象設.亦自有差等.則長源之說.豈足謂敢言於不敢言乎云云.爾之今日發啓.當乎不當乎.是乎不是乎.寂成則已越點於歲抄.爾何敢獨免重勘乎.爾則削職.在長源.但容長源.在寂成.但斥寂成而已.事屬華城.關係何如也.容與斥間.決不可既提復提.重言復言.看作茶飯說話.此箇道理.今日廷臣敢不諦認乎.自明日.此啓勿爲.連啓.雖呈勿捧.

<홍재전서(弘齋全書), 제45권 비답(批答) 4, 憲府請竄任長源啓批>

경제/건설

유성룡 집안에 간직한 명 나라 조정의 여러 장수들의 서화첩에 쓴 것으로 화성의 성역에 유성룡의 계획을 많이 준용하였다는 내용.

명(明) 나라 여러 장수들의 글씨첩[書帖] 두 권(卷)과 그림첩[畫帖] 한 권은 고(故) 상신(相臣) 문충공(文忠公) 유성룡(柳成龍)과 오가면서 주고받은 것들이다. 그 흥취가 넘치는 한 자[尺]쯤 되는 화폭 속에 상세하면서 두터운 정의(情誼)가 담긴 내용들은 원만하여 경계가 없었고, 가끔 노인(勞人) 근심하여 마음 아파하는 사람과 장자(長者)다운 기풍이 많았다. 전투하고 수비하는 기회의 알맞음과 공물을 봉진하는 데 있어서 온편함과 그렇지 않은 것, 그리고 재주와 덕행을 미루어 인정해 주는 것과 충성과 의리를 격양시키고 권면하는 일을 논하는 데 이르러서는 또한 이른바 함께 일을 할 만한 사람과 함께하고 함께 말할 만한 사람과 말을 한다는 것이며, 사람마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체로 여기서 고 상신이 고 상신다운 까닭을 지금도 상상해 볼 수 있으니 어찌 옛날의 진기한 자취라고만 말하겠는가. 내가 고 상신에 대하여 특별히 감회를 일으키는 이유가 있다. 요즈음 풍기(風氣)는 날로 얕아지고 인재(人才)는 갈수록 등급이 낮아져 나아가거나 물러나는 기저 동작이 모두 형식에만 얽매어 있다. 그런데 무릇 세상을 다스리는 큰 법과 예의와 음악, 그리고 병사(兵事)와 농정(農政)에 대한 일을 가슴속에 잔뜩 쌓아 두었다가 상자를 거꾸로 하여 쏟아 내듯 하였으니, 고 상신 같은 분이 어떤 사람이었던가. 일찍이 그의 유집(遺集)을 가져다 보고 수집하여 실용(實用)에다 조처하려고 생각하였다. 서울과 가까운 경기 지역의 여러 고을에 군사 1만 명을 양성해야 한다는 설(說)은 장용영(壯勇營)의 새로운 제도와 은연중 합치가 되어, 장용영을 설치하고 시행하는 규모를 그 외 설에 의거하여 실시한 것이 많았다. 그리고 화성(華城)을 쌓을 때에 장수(丈數)를 계산하고 높낮이를 헤아리며, 토산물을 바치는 노정(路程)을 따져 보고, 모든 담장은 일제히 우뚝하게 하며, 종횡으로 교차되는 큰길을 모두 질서가 있게 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쏟아 성(城)을 이룩하므로 역사(役事)를 권면하기 위해 치는 북소리가 감당하지 못하게²³²⁾ 한 것도 고 상신이 남겨 준 계획에 많이 의뢰하지 않음이 없었다.

232) 역사(役事)를 …… 못하게 : 《시경(詩經)》 대아(大雅) 면(綿)에, “모든 담장을 쌓으니, 고고가 감당하지 못하다.[百堵皆興 罄鼓弗勝]”라고 한 구절을 인용한 것으로, 당시 백성들이 화성(華城) 신축 역사를 즐거워하여 공사를 권면하는 북을 그칠 수 없었음을 말한 것이다.

대저 자신이 당시에 기용되어서는 중신으로서의 책역이 명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였고, 말을 후세에 전한 것으로는 헤아린 지략이 지금까지 국가에 이로움이 되고 있다. 산하(山河)는 예전과 같고 전형(典刑)은 멀지 않으며, 전해지는 운취와 남은 공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위연(喟然)히 감탄하면서 구원(九原)의 그리움을 불러일으키게 하니, 이것이 어찌 얕은 견해나 미미한 간언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겠는가. 전(傳)에 이르기를, “그 마룻대를 두터운 나무로 하지 않으면 무거움을 떠맡을 수 없다.” 고 하니, 무겁기로는 국가만 한 것이 없고, 마룻대가 되기에겐 재능만 한 것이 없다. 혹시라도 고 상신에게 부끄러운 기색이 없을 자, 아, 드물도다.

皇朝諸將書帖二卷. 畫帖一卷. 與故相文忠公柳成龍. 往復贈遺者也. 其尺幅淋漓之間. 委曲情款. 渾無畦畛. 往往多勞人長者之風. 而至論戰守之機宜. 封貢之便否. 才德之推詡. 忠義之激勸. 又所謂可與可語者語. 而非可人人得也. 蓋卽此而故相之所以爲故相. 今猶可想見. 豈直曰舊蹟之珍玩而已哉. 抑予之起感於故相者特有之. 風氣日漓. 人才遞降. 趨舍指湊. 一皆爲虛文所束縛. 而凡經世大典. 禮樂兵農之事. 儲峙胷中. 倒篋而出. 如故相者. 何人哉. 嘗取見其遺集. 思欲采掇而措諸實用. 則近畿列邑. 養兵一萬之說. 暗契於壯營之新制. 而營之設施規模. 據依而彌綸之者爲多. 華城之築. 所以計丈數揣高卑程土物. 百堵齊矗. 九衢咸秩. 而衆心成城. 鼙鼓不勝者. 亦無不於故相之遺策夥賴之. 夫身用於當時. 則帷幄之謀. 足以傾華人之心. 言垂於後世. 則擬議之略. 至今爲國家之利. 河山如故. 典刑無遠. 而流韻餘烈. 使人喟然而起九京之思者. 此豈目睫之論. 飛蓬之間. 所能致哉. 傳曰不厚其棟. 不能任重. 重莫如國. 棟莫如才. 儻故相之無愧色焉. 於乎希矣.

<홍재전서(弘齋全書), 제55권 잡저(雜著) 2, 題文忠公柳成龍家藏皇朝諸將書畫帖>

경제/건설

화성 성역을 시작을 위해 내린 하교.

상이 이르기를, “화성(華城)의 성역(城役)을 장차 시작하려 한다. 먼저 그 터를 보건대, 모래를 삼태기로 퍼다가 물을 부어 가며 다져서 깊이가 5, 6척이 되게 한 후에 편편한 넓은 돌을 깔고 그대로 성을 쌓으면 곧 아주 안전하여 함락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성의 몸체가 규(圭) 모양과 같게 하고 배 부분이 불룩하지 않게 한 뒤에야 적들이 가까이 와서 기어오를 길이 없을 것이다. 1리(里)마다 두 개의 치성(雉城)을 사이가 뜨지 않게 한 뒤에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형세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의 몸체를 규 모양과 같이 하는 것은 벽돌로 쌓는 것이 아니면 일을 하기 어려운데, 단지 위와 아래가 짝은 듯이 되도록만 하면 될 것이다. 치성을 쌓는 제도에 있어 반드시 1리씩 걸러서 설치하는 것은 서로의 거리가 300여 보(步)가 되면 화살이 서로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총으로 쏠 경우에 탄알의 힘이 화살보다 더 나가기 때문에 이는 터를 잘 살펴 넓히거나 줄이면 될 것이다. 현안(懸眼)의 제도²³³⁾ 또한 벽돌이 아니면 안 되니, 일을 맡은 신하가 이러한 일의 이치를 몰라서는 안 된다.” 하였다.

華城城役. 行將經始矣. 先觀其基址. 畚沙杵水. 深可五六尺後. 鋪以廣石. 仍爲築城. 卽萬全不拔之圖. 而城身如圭. 勿令腹飽. 然後賊無可傳之路. 一里二雉. 勿令間闊. 然後我有可守之勢. 然城身之如圭形. 非甃築難爲功. 只令上下如削爲可. 雉制之必以間一里而設者. 相距三百餘步. 矢力可以交及而然. 若放銃則其力過於矢. 此則相基闊狹爲可. 懸眼之制. 亦非甃不可. 而任事者. 不可不知此箇事理.

<홍재전서(弘齋全書), 제168권 일득록(日得錄) 8, 政事[三]>

233) 현안(懸眼)의 제도 : 《무비지(武備志)》 성제(城制)의 현안도설(懸眼圖說)에 의하면, 현안은 시석(矢石)을 막는 장벽 가운데에 망을 볼 수 있도록 낸 구멍을 말한다.

경제/건설

만안제에 거둥하여 제언 공사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한 내용.

화성(華城)에 행행하여 만안제(萬安堤)에 거둥하였다. 하교하기를, “건설 공사의 시행에 대해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백성을 이롭게 하기 때문이다.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백성에게 불편하다면 어찌 후세에 불만한 것이 될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제언(堤堰)에는 느릅나무와 버드나무를 심었으니, 아래로는 1만 경(頃)의 밭에 물을 대어 척박한 땅을 기름지게 변화시킬 수 있고 위로 10리의 길을 가려 주어 나그네들이 휴식할 수 있게 되었다. 한 가지로 두 가지의 장점이 갖추어졌으니, 어찌 아무 이유도 없이 공사를 일으켜 한갓 보기에만 아름답게 하려는 것과 함께 놓고 같이 말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幸華城.御萬安堤.敎曰.所貴乎興作.以其利民也.興作而不便乎民.奚足以爲後世觀.今茲堤堰.植以榆柳.下可以溉萬頃之田.而斥鹵化爲膏沃.上可以庇十里之路.而行旅得以休息.一舉而兩美具.豈可與無故興作.徒爲觀美者.同日語哉.

<홍재전서(弘齋全書), 제169권 일득록(日得錄) 9, 政事[四]>

경제/건설

화성의 만석거를 예로 들어 제언 축조의 이점에 대해 역설한 내용.

상이 이르기를, “농가(農家)의 이로움으로 수리(水利)만 한 것이 없다. 겨울과 봄의 눈이 녹을 때에 물을 모아 두었다가 봄과 여름의 싹이 마를 때에 물을 내어 보내면 그 이로움이 어찌 크지 않겠는가. 지금 화성(華城)의 만석거(萬石渠)로 보더라도 제언(堤堰)을 축조하기 전에는 황폐한 논밭으로 잡풀만 자라는 땅이었는데 제언을 축조하고 나서는 원천(源泉)이 넓고 커서 척박한 땅이 비옥하게 바뀌었다. 비록 올 4, 5월과 같은 가뭄에도 제언 아래의 수백 석(石)이 나는 큰 들판은 한결같이 풍년이 들기를 기대할 수 있으니 가뭄이 재해가 되지 않았다. 이것을 미루어 본다면 제언이 이루어지느냐 피폐해지느냐 하는 것은 풍년이 드느냐 흉년이 드느냐 하는 큰 운수(運數)와 관계되는 것이니, 나라에 있어 실제적인 정사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였다.

農家之利.莫利於水利.貯水於冬春雪融之節.放水於春夏苗枯之時.其爲利豈不博哉.今以華城萬石渠觀之.方堤之未築也.不過荒田廢畝蓬蒿之地.而及堤之已築也.源泉浩瀚.斥鹵化爲膏沃.雖以今年四五月之曠乾.堤下累百石大坪.一望穰穰.旱不爲災.推此以往.堤堰成廢.關豐歉之大運.而有國實政.莫過於此.

<홍재전서(弘齋全書), 제170권 일득록(日得錄) 10, 政事[五]>

경제/건설

화성도호부의 북평은 큰 번진의 기상이 있는 곳이라고 유형원이 주장했다는 내용.

일찍이, 고(故) 처사(處士) 유형원(柳馨遠)이 지은 《반계수록(磻溪隨錄)》에 성(城)의 제도를 논한 것이 매우 자세하여, 전판(甄板)과 담장에 천자(天子), 왕(王), 후(侯), 백(伯), 자(子), 남(男)의 등급이 있고, 군대를 나누고 장수를 두는 법과 군량을 사용하고 일을 계산하는 방법이 갖추 조목이 구비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르기를, “성을 쌓는 것은 반드시 제때에 하여 농사철에 하지 말 것이며, 군정(軍丁)을 조련하는 것은 반드시 상격(常格)에 따를 것이며, 번(番)을 정하고 역(役)에 나아가는 것은 삼가서 별도로 격외의 구실을 두지 말라.”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화성 도호부(華城都護府)는 읍성을 쌓을 수 있는데, 지금의 읍치

(邑治)도 가능하다. 그러나 북평(北坪)에 비교하면 천양지차가 나니, 북평은 바로 동방의 큰 지역으로 형국이 깊숙하고 규모가 광활하여 읍을 만들거나 성을 쌓거나 간에 참으로 큰 번진(藩鎭)의 기상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이 효묘(孝廟)와 현묘(顯廟) 연간에 경륜과 공업(功業)으로 자임하였는데 때를 만나지 못하여 포부를 펼치지 못하였다. 중간에 율곡 등 제현의 말을 들어서 스스로를 윤색하였으니 학술 또한 순수하다고 할 수 있다. 화성의 일을 논한 것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도 부절을 합치듯 들어맞으니 내가 더욱 깊이 음미하고 감탄한다.” 하고, 이어 전조(銓曹)에 명하여 모관(某官)을 더 증직하고 자손을 찾아 아뢰라고 하였다. 【검교직각 신 남공철이 계축년에 기록한 것이다.】

嘗覽故處士柳馨遠所撰隨錄.論城制甚詳.輒板堵雉.有天子王侯伯子男等級.而其分軍置將之法.用糧計工之方.具有條目.以爲築城必以其時.毋當農節.其調軍丁.必依常格.除番赴役.慎毋格外別調.又曰.華城都護府邑城可築.今之邑治亦可.然方之北坪.不啻霄壤.北坪乃東方大地.結作深奧.規模宏遠.設邑建城.眞是大藩鎭氣象.此人在孝顯間.以經綸事功自任.而適不遇時.不能展布其所蘊.間學栗谷諸賢語.以自潤色.學術亦可謂醇矣.至論華城事.到今若合符契.予尤深味而歎賞之.仍命銓曹加贈某官.訪問子孫以聞.【檢校直閣臣南公轍癸丑錄】

<홍재전서(弘齋全書), 제173권 일득록(日得錄) 13, 人物[三]>

경제/건설

1797년(정조 21) 이시원이 기록한 것으로 정조가 화성의 건설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말.

일찍이 화성(華城)을 수치(修治)하는 일과 관련하여 근신들을 향해 크게 탄식하면서 하교하기를, “뜻이 있는 자는 끝내 일을 이루는 법이다. 지금 내가 이 성을 쌓는 본뜻을 가지고 말한다면, 대소의 신하들은 아마도 내가 소중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하였다.【원임 직각 신 이시원(李始源)이 정사년에 기록한 것이다.】(…)

嘗以華城修治事.對近臣喟然教曰.有志者事竟成.今予築斯之本意.大小臣庶.幾知予爲所重.【原任直閣臣李始源丁巳錄】(…)

<홍재전서(弘齋全書), 제178권 일득록(日得錄) 18, 訓語[五]>

경제/건설

1800년(정조 24) 정조가 홍봉한의 문집 익정공주고(翼靖公奏藁)의 영선류서(營繕類叙) 성첩인으로 수원을 서울 다음으로 생각한다는 내용.

(…) 내가 수원성을 쌓으려 하면서 마음으로 많은 계획을 세워 보기도 하고, 또 옛 분들이 했던 일들을 많이 참고하기도 했었다. 그리하여 결국 위치 좋은 곳을 얻어 약간 새로운 모양으로 쌓았지만 재정도 그리 많이 들지 않았고 농공(農工)들도 데려다 쓰지 않았다. 얼마 안 되는 백성들이 마음을 합쳐 일해 주었기에 시작한 지 3년 만에 완성을 보았는데, 나는 그 수원을 서울 다음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 공의 주고(奏藁) 내에, 동성(東城)의 규모를 더 늘리고 북교(北郊)에다 둔(屯)을 설치할 때 백성들 힘을 빌리지 않고 영저(營儲)를 이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수원성을 쌓을 때의 그 규모와 어찌면 그리도 꼭 맞는지 모르겠다. 《서경》에 이르기를, “지난날 대신이 도모하던 일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보냐.” 했고, 또 이르기를, “왕가(王家)를 영원히 잊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러한 일을 두고 한 말인가 보다.

(…) 予於華城城役.積費心上之經綸.廣稽古人之籌略.地則占勝.制或創新.財不煩大農.工不調小民.衆心成城.三年而完.蓋予所以視華城.亞於京城也.今公奏藁中.東城之增雉.北郊之設屯.不勞

民力.取諸營儲.何其與築華之規樞.昭然相契也.書曰.曷不于前寧人圖功惟終.又曰.永不忘在王家.其是之謂歟.

<홍재전서(弘齋全書), 弘齋全書卷十三, 翼靖公奏藁營繕類叙, 城堞引【附官廨】>

3. 사회(社會)

(1) 향촌

사회/향촌

송준길이 죄를 청하는 장소로, 수원(水原)의 한 촌가(村家)에 당도하였다는 내용.

(…) 죄를 진 신 송준길은 진실로 황공하여 머리를 조아려 백 번 절하고서 삼가 주상 전하께 말씀드립니다. 신은 불행하게도 뜻밖에 천지간에 용납되기 어려운 악명(惡名)을 입었습니다. 비록 성상께서 양찰하시고서 일찍이 처분을 내리셨지만 신하의 도리로는 감히 마음 편히 있을 수가 없어서, 유사에게 명을 청할 생각으로 병을 참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수원(水原)의 한 촌가(村家)에 당도하자 목숨이 거의 다하여 다시 힘을 내기 어려우므로 성상이 계신 서울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바라건대, 일찍이 형벌을 내리시어 나라 사람들에게 사과하시고 신하가 되어 불충하는 자들에게 경계가 되게 하소서. 성상께서는 밝게 헤아리소서. 신은 국은에 부끄럽고 의리에 두려워 황송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

(…) 負罪臣宋浚吉.誠惶誠恐.頓首頓首.謹百拜上言于主上殿下.臣不幸橫被覆載難容之惡名.雖蒙聖明曲賜諒察.早有處分.而人臣之義.猶不敢晏然於心.力疾起程.以爲請命有司之計矣.行到水原村舍.氣息漸竭.更難自力.瞻望宸極.但有涕淚.惟願早伏刑章.以謝國人.以爲爲臣不忠者之戒.惟聖明鑑諒焉.臣無任慙恩畏義震灼惶悚之至.(…)

송준길(宋浚吉), <동춘당집(同春堂集), 제7권 소차(疏劄), 請罪疏【庚戌九月】>

사회/향촌

이천(李蕝)이 수원(水原)의 설창촌(雪倉村)으로 이사하였다는 내용.

(…) 이듬해 기축년(1649)에 공이 80세가 되었으므로 우로(優老)의 은전을 입어 가선대부(嘉善大夫)의 품계에 올라 동지중추부사에 제수되었다. 공은 증직(贈職)의 은전을 영광으로 여겨, 억지로 일어나서 부축을 받으며 들어가서 사은하였다. 수년 전에 공은 이미 수원(水原)의 설창촌(雪倉村)으로 이사하였는데, 이는 선산(先山) 가까스로 돌아와서 일생을 마칠 계획 때문이었다. 동지중추부사를 사직하여 체차되고는 즉시 이곳으로 돌아와 우거(寓居)하였다. (…)

(…) 明年己丑.公年八十.用優老.陞嘉善大夫拜同知中樞府事.公以贈典爲榮.強扶入謝.前數年.公已移寓水原之雪倉村.蓋歸近松楸.爲畢命計.辭褫卽還寓.(…)

송준길(宋浚吉), <동춘당집(同春堂集), 제18권 묘표(墓表), 同知中樞府事李公墓表>

사회/향촌

윤증이 지은 박철(朴徹)의 묘갈명으로, 수원(水原)의 용성(龍城)에 집을 짓고 ‘기와(棄窩)’라 이름하였다는 내용.

(…) 지난날 공이 직산(稷山)에서 돌아온 뒤에 수원(水原)의 용성(龍城) 북쪽에 몇 칸의 집을 짓고 ‘기와(棄窩)’라 이름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집 앞에 계단을 만들고 꽃나무를 심어 유유자적하면서 은퇴의 기분을 만끽하였다. 그리고 병신년(1656, 효종7) 10월 7일에 집에서 별세하였다. (…)

(…) 公前自稷山歸也.構數椽於水原龍城之北.扁之曰棄窩.至是治庭階.植花卉.逍遙自適.有歸樂之趣.丙申十月七日.終於家.(…)

윤증(尹拯), <명재유고(明齋遺稿), 제37권 묘갈명(墓碣銘), 大丘府使朴公墓碣銘>

사회/향촌

김덕민(金德民)을 수원의 오씨(吳氏)의 선영에 임시로 매장했다.

(…) 기묘년에 태어나 계사년 12월 19일에 서울의 우사(寓舍)에서 별세하니, 향년이 75세였다. 한남(漢南: 수원)의 오씨(吳氏)의 선영에 임시로 매장했다가 그 다음해 11월 모일에 보은(報恩)으로 귀장(歸葬)하여 공의 묘와 합봉시켜 광중(壙中)만 다르게 봉분은 같게 해서 신 부인과 좌우로 합부(合祔)시켰다. (…)

윤휴(尹鑄), <백호전서(白湖全書), 제19권 묘지명(墓誌銘), 外祖僉知中樞府事金公墓誌銘>

사회/향촌

정도전이 수원으로 가는 길에 김충량의 집을 바라보며 지은 시.

산허리 성긴 숲에 낙조가 밝고 / 半嶺疎松夕照明

외론 마을 깊은 숲에 연기가 나네 / 孤村深樹斷煙生

여기 저기 새집이라 서로 같아서 / 茅茨處處多相似

그대 집을 묻노라 멈췄다 가네 / 爲問君家止復行

정도전(鄭道傳), <삼봉집(三峯集), 제2권 칠언절구(七言絕句), 水原途中望金揔郎家>

사회/향촌

신흠이 김대섭(金大涉)과 그 아내의 합장묘에 쓴 묘지명으로, 임진왜란 때 임시로 수원(水原)에 장사지냈다는 내용.

(…) 계사년에는 천거로 의금부 도사에 제수되었다가 조지서 별좌(造紙署別坐)에 옮겨졌다. 이때에 동정(東征) 나온 중국 장사(將士)들이 모두 기세를 부렸으나 경략(經略) 송응창(宋應昌)은 엄중히 규율을 지키는 제부(諸府) 중에 으뜸이었다. 해평군(海平君) 윤근수(尹根壽)가 빈접사(摺接使)의 임무를 맡고 있으면서 특별히 공을 추천하여 그의 관속(官屬)으로 삼았는데, 공이 모든 일을 힘껏 조치하여 복잡한 상황을 여유있게 처리하였으므로 해평공이 공의 재능을 자주 칭찬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과로로 인하여 병이 나서 갑오년 여름에 서울 객사(客舍)에서 별세하였는데 나이가 겨우 46세였다. 난리로 인하여 임시로 수원(水原)에 장사했다가 8년이 지난 신축년에 영평현(永平縣) 남쪽 선산에서 2리(里) 떨어진 중현산(鍾賢山) 미좌(未坐) 축향(丑向)의 언덕에 이장하였으니 유지(遺志)에 따른 것이다. (…)

(…) 癸巳.薦授義禁府都事.遷造紙署別坐.時皇朝將士東征者旁午.宋經略應昌嚴重自持.爲諸府最.尹海平根壽膺摺接之任.特舉公爲屬.公拮据辦治.俱中肯綮有餘地.海平公亟稱其才.終以勞勩邁疾.甲午夏.卒于京師旅舍.年僅四十六.因亂權厝于水原.越八年辛丑.移窆永平縣南鍾賢山未坐丑向之原.距先壟二里.遺意也.(…)

신흠(申欽), <상촌집(象村集), 제24권 묘지명(墓誌銘), 義禁府都事金公宜人沈氏合葬誌銘>

사회/향촌

박세당이 지은 박찬(朴燦)의 묘지명으로, 만년에 수원에 거처하였다는 내용.

(…) 갑오년(1594, 선조 27)에 또 모친상을 당하였다. (…) 복을 벗은 다음 10여 년간 향시에 급제한 것이 통틀어 16번이었고 정시(庭試)의 대책(對策)에서 선발에 두 번이나 합격하였으나 앞서는 격식에 어긋났다는 이유로 낙방되었고 뒤에는 이한음(李漢陰 이덕형(李德馨))

이 시험을 주관하였는데 친협(親嫌)이 있는 응시자로 오인하는 바람에 다시 낙방되고 말았다. 한음이 항상 탄식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으로 하여금 천리 길을 헛걸음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나다.” 하였고, 이월사(李月沙 이정귀(李廷龜))는 통가(通家)의 교분이 있어서 부군을 공경하고 예우하였는데 부군이 과장에서 낙방하기에 이르러 매양 탄식하고 원통하게 여겼다. 만년에 수원(水原)에 거처하면서 서책을 스스로 즐기고 벼슬에 나아가려는 뜻은 없었다. (…)

부인 증(贈) 숙부인(淑夫人) 봉화 정씨(奉化鄭氏)는 예빈시 참봉(禮賓寺參奉) 현년(玄年)의 따님으로 효경(孝敬)하고 유순(柔順)하였다. (…)
처음에 용인(龍仁)의 금령산(金嶺山)에 안장하였다가 부군을 개장하기에 이르러 옮겨 부장(祔葬)하였다. 또 42년이 지난 병자년(1696, 숙종 22)에 수원(水原)의 동쪽 진주왕산(眞注旺山)의 남쪽 임좌(壬坐)의 언덕으로 함께 옮겼으니 모두 장사(葬師)의 말을 따른 것이다. (…)

(…) 歲甲午.又丁內艱.(…) 既除服.十餘年間.中省試者通十六榜.庭對合選至再.前以違格黜.後則李漢陰主試.誤認親嫌學子.復被黜.漢陰常歎曰.枉此人千里程者.我也.李月沙有姻好.敬禮府君.及落拓場屋.每歎屈.晚居水原.書史自娛.無意進取.(…) 配贈淑夫人奉化鄭氏.禮賓參奉玄年之女.孝敬婉順.(…) 初葬龍仁金嶺山.及改葬府君也.遷而祔焉.又四十二年丙子歲.並遷于水原東眞注旺山南負壬之原.皆用葬師言也.(…)

박세당(朴世堂), <서계집(西溪集), 제10권 지명(誌銘), 濟用監直長朴君墓誌銘>

사회/향촌

1722년(경종2) 5월 수원(水原)에서 이귀휴(李龜休)가 시를 보내 이익과 이정휴(李禎休)를 초청하여 새로 지은 희선재에서 잔치를 하였다는 내용.

임인년(1722, 경종2) 5월에 중휘(仲暉)²³⁴가 수원(水原)에서 시를 보내 나와 국서(國瑞)²³⁵를 초청하였는데, 마침 중휘의 조카인 희직(希直)²³⁶이 성호장(星湖莊)으로 나를 방문하였다. 5일 기미일(己未日)에 세 사람이 말 머리를 나란히 하여 저녁 무렵 도곡(桃谷)에 도착하니, 당시 포구 너머에 살던 매중(梅仲)이 곧 작은 배로 맞이하러 와서 모인 자가 모두 다섯 명이 되었다. 7일 신유일(辛酉日)에 저녁 조수를 타고 유점사(楡岾寺)에 도착해 마침내 봉대(烽臺)에 올라서 내포(內浦)의 산해를 조망하고 돌아와 절에서 유숙하였다. 술잔을 잡고 스스로 술을 따라 각자 정해진 양 없이 딱 알맞은 정도만 하고 그치고는 다시 운을 뽑아 시를 지었는데 모두 시들시들해서 일컬을 만한 것이 없었다. 오직 중휘가 지은 “이씨 신선 다섯이 일엽편주 함께 타고 [五李仙同一葉舟]” 라는 구절은 바로 눈앞의 일이라 기뻐할 만하였다. 다음 날 8일 임술일(壬戌日)에 배를 타고 강을 따라 갔다가 돌아왔다. 당시 중휘가 새로 희선재(希善齋)를 짓고 날마다 성찬으로 재에서 객들을 대접하여 즐거움을 극진히 하고 파하였으니, 수십 년 동안 이런 모임이 없었다. 서로 말하기를, “이번 모임은 남들이 모인 것과는 다르니 장차 무엇으로 표지를 삼아야 하겠는가?” 하였는데, 나는 마땅히 희선재로 표지를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표지한다면 어찌해야 하겠는가? 무릇 종인을 단합하는 데는 조상을 높이는 것만 한 것이 없고, 조상을 높이는 데는 조상의 뜻과 사업을 계승하는

234) 중휘(仲暉) : 이귀휴(李龜休, 1675~1735)이다. 자는 중휘이고, 부친은 이홍(李泓), 생부는 이형(李滢)이다. 성호의 재종질(再從姪)이다.

235) 국서(國瑞) : 이정휴(李禎休, 1673~1749)이다. 자는 국서이고, 성호의 족질(族姪)로, 1710년(숙종36) 생원시에 입격하였으며 77세에 죽었다.

236) 희직(希直) : 이인환(李寅煥, 1694~?)이다. 자는 희직이고, 부친은 이몽휴(李夢休), 조부는 이형이다. 1737년(영조13)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것만 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선을 바란다 [希善]’ 라고 한 것이니, 우리 다섯 사람이 다 함께 바라는 바이다.(…)

歲壬寅孟夏.仲暉自水原寄詩.邀余及國瑞.適仲暉之從子希直過我星湖莊.初五日己未.三人並鑣.夕至於桃谷.時梅仲居隔浦.即輕舸邀至.凡會者五人.辛酉乘落潮至楡寺.遂上烽臺.眺內浦山海.還宿於寺中.引觴自酌.各無量.適可乃止.復拈韻賦詩.皆蕪廢無足稱.惟仲暉有五李仙同一葉舟之句.卽事可喜.翌日壬戌.操舟邈迤而返.時仲暉新有希善之齋.日盛饌餉客於齋中.盡權而罷.蓋數十年來無此會也.相與言曰此會異於人之爲會.將何以爲識.余謂當以齋爲識.識之奈何.夫合宗莫如尊祖.尊祖莫如繼述.故曰希善.惟吾五人同其希也.(…)

이익(李瀾), <성호전집(星湖全集) 제52권 서(序), 希善齋小集序>

사회/향촌

윤봉구(尹鳳九)가 지은 송시열의 묘지명으로, 송시열을 수원부 만의현 무봉산에 장사지냈다는 내용.

(…) 치상(治喪)에 있어서는 한결같이 선생의 유명에 따라 행하였으며, 문인으로 복을 입은 자는 1백여 명에 달하였다. 상여로 흥농(興農)에 돌아왔는데 사례(士禮)를 사용하였다. **7월 신사일, 수원부(水原府) 만의현(萬義縣) 무봉산(舞鳳山) 서쪽 기슭에 임시로 안장하였다.** 이때 원근에서 장례를 관람하기 위하여 온 자가 거의 천여 명에 달하였다. (…)

(…) 朝議欲定山陵於水原府.上意亦傾向.先生以爲本府.是七千兵馬之地.不但爲先王所重.萬世之後.又有程子所謂五患之慮.筵對筵陳.屢言不已.終定於健元陵局內.(…)

穆又申前說.以適子庶子三年期年.條列爲圖.投疏以進.上更令先生議.先生逐段剖擊.引朱子下正猶爲庶之說.辨析痛切.鑄之論禮.計本嫁禍.末乃託於著說.以先生爲卑主貳宗.至於善道疏.則專攻先生.以爲宗統不明.群志未定.又以梓宮之附板.山陵之不用水原.罪狀先生.又以先王銜繫之虞.爲先生不能輔導.又以比年天災時變.皆歸之於先生.兇言悖說.一襲, 鑄, 穆而轉益危譎.(…) 治喪一遵遺命.門人持服者百餘人.靱歸興農.用士禮.七月辛巳.權厝于水原萬義舞鳳山西麓.遠近觀葬者.殆千餘人.(…)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송서속습유 부록 제2권 묘지(墓誌), 墓誌【後學尹鳳九撰】>

사회/향촌

1676년 3월 27일 송시열이 김직경과 김중고에게 보낸 편지로, 만의산(萬義山)으로 편지를 보내면 받아볼 수 있다는 내용.

(…) 평하여 보내는 설 가운데 온당치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인편을 통하여 지적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네. 그것을 혹 단오(端午) 이전에 **만의산(萬義山: 경기도 수원(水原)에 있음)** 밑으로 보내 준다면 자연히 나에게 전해질 수 있을 것이네. 하고 싶은 말을 감히 다하지 못하네. (…)

(…) 批呈之說.如有未當.因便示教切仰.或於端午前送于萬義山下則自可來此矣.所欲言者.不敢多及.(…)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제104권 서(書), 答金直卿仲固丙辰三月二十七日>

사회/향촌

송시열이 자신의 아내의 상을 알리고 수원으로 장지를 삼는다는 내용.

시열(時烈)은 알리네. 집안이 불행하여 노부(老婦)가 마침내 세상을 떠났네. 먼 곳에서 부음(訃音)을 들으니 슬픔을 금할 수가 없었네. 반합(辟合 결혼)한 정의가 이제 와서 무너졌으니 더욱 참혹한 비통함을 느끼고 있네. 그리고 앞으로의 예절에 대해 마음대로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슬프고 괴롭기 그지없네. 그래서 지금 감히 체면을 무릅쓰고 묻는 것이니 인도하여 깨우쳐 주기 바라네. 장지(葬地)는 일찍이 정해 둔 곳이 있으니, 지금 수성(隋城: 수원(水原))을 버리고 다른 곳을 구할 수는 없네. 그리고 장례를 치른 뒤에 이곳에다 반혼(返魂)하여 궤전(饋奠 제사를 지냄)을 받드는 것이 인정과 예의에 있어 함께 적당한 것인데, 곤란한 점은 이곳으로 반혼하게 되면 따라올 가족(家屬)이 한두 명일 정도가 아니라 식량을 운반하기에도 매우 어려운 점이 있네. (…)

時烈白. 私家不幸. 老婦竟至棄背. 遠地聞訃. 悲悼不自堪. 辟合情義. 到此變常之地. 益覺慘切. 而前頭禮節. 有難自伸者. 悲苦悲苦. 今敢冒稟. 幸乞開諭也. 葬地曾有定計. 今不可捨隋城而他求矣. 既葬之後. 返魂於此地. 以奉饋奠. 情禮俱得. 而所難者. 返魂於此. 則家屬從來者. 非止一二. 而轉輸調度. 極有所難. (…)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제49권 서(書), 與李季周丁巳四月十三日>

사회/향촌

1689년(숙종 15) 7월 18일(임자) 송시열의 아내를 수원 만의 무봉산에 장사 지냈다는 내용. (…)
7월 【초하루는 을미(乙未)】 18일(임자) 수원(水原) 만의(萬義) 무봉산(舞鳳山)에 임시로 장사 지냈다.

이전에 부인(夫人)의 장사 때 선생이 부인의 무덤 오른편을 비워 두게 하여 자신의 묻힐 곳으로 삼았었는데 마침 풍수(風水)가, 합폄(合窆)이 산운(山運)에 맞지 않는다 하므로 합장하지 못하였다. 선생의 유명(遺命)에 따라 상례의 절차를 한결같이 사례(士禮)를 의거했으므로, 달을 넘겨 장사 지내는 제도를 적용하였고 원근에서 와서 구경한 자가 거의 1천여 명이 었다. (…)

七月【乙未】壬子. 權窆于水原萬義舞鳳山.

先是夫人之葬. 先生已令虛其右. 而適以山家之忌. 不得合窆. 先生遺命治喪一用士禮. 故用踰月之制. 遠近來觀者殆千餘人. (…)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부록 제11권 연보(年譜)10, 六十二年己巳【先生八十三歲】>

사회/향촌

1683(숙종 9) 12월 12일 왕대비의 승하에 수원부의 뜰에서 성복(成服)하고 만의(萬義)에 이르렀다는 내용.

(…) 12월 초하루는 무술(戊戌) 7일(갑진) 왕대비(王大妃)가 승하(昇遐)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문의현(文義縣)의 뜰에 나아가 거애(舉哀)하고 인하여 부곡(赴哭)의 길을 떠났다.

○ 12일(기유) 수원부(水原府)의 뜰에서 성복(成服)하고 인하여 만의(萬義)에 이르렀다. (…)
(…) 十二月 戊戌 甲辰. 聞王大妃昇遐. 卽詣文義縣庭舉哀. 仍發赴哭之行.

己酉. 成服于水原府庭. 仍至萬義. (…)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부록 제9권 연보(年譜)8, 五十六年癸亥【先生七十七歲】>

사회/향촌

송시열이 수원(水原) 만의(萬義)에 머물러 있다는 내용.

(…) 이에 영의정 김공 수항(金公壽恒)이 청대(請對)하여 상에게 아뢰기를, “영부사(領府事) 송모(宋某)가 여러 차례 휴치의 청을 올렸으나 상께서 윤허(允許)하지 않으시고 연달아 근시(近侍)를 보내어 간곡히 권면하여 마지않으시므로 모(某)가 수원(水原) 만의(萬義)에 머물러 있고자 하더니, 지금 들으면 교외(郊外)에 와서 소를 올리고 장차 그대로 다른 데로 가려 한다 합니다. 그러나 치사(致仕)의 청은 비록 예경(禮經)을 중하게 여긴 것이나 지금 국가에서 의중(倚重)하는 바와 사림(士林)의 존앙(尊仰)하는 바가 모(某)와 같은 이가 없으니, 치사의 청은 바로 허락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성상께서 성례(誠禮)를 갖추 베풀어서 겨우 초치하였는데, 이현석(李玄錫)의 소가 때를 타 불쑥 나타나 하루도 조정에 편안히 있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현석의 소위가 참으로 통분합니다. 만약 이때에 치사의 청을 그대로 허락하시면 아마도 중외(中外)의 소문이 더욱 서운해할 것입니다. 필경에는 허락하더라도 지금은 다시 초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某)가 마침내 들어와서 조정에 오래 머물면 도움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하니, (…)

(…) 於是領議政金公壽恒.請對白上曰.領府事宋某屢陳休致之請.而自上不賜允許.連遣近侍敦勉不已.故某欲留住於水原萬義矣.卽聞來到郊外陳疏.將欲仍向他路.而第其致仕之請.雖以禮經歸重.卽今國家之所倚重.士林之所尊仰.莫如某則致仕之請.有難便許.茲者聖上備陳誠禮.僅得召致.而李玄錫之疏.乘時闢發.使不得一日安於朝廷.玄錫所爲.誠可痛矣.若於此際仍許致仕之請.則想中外聽聞.尤以爲缺然.畢竟雖可許副.今不可不更爲召致.某終若入來.久留於朝.則裨益必多.(…)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부록 제8권 연보(年譜)7, 五十五年壬戌【先生七十六歲】>

사회/향촌

송시열이 수원부(水原府)에서 망곡례(望哭禮)를 행하고 만의(萬義)에 이르렀다는 내용.

○ 22일(병오) 현궁(玄宮 인경왕후(仁敬王后) 김씨(金氏)의 관을 말한다)을 내릴 때에 수원부(水原府) 관정(官庭)에서 망곡례(望哭禮)를 행하고 그대로 만의(萬義)에 이르렀다. (…)

五十四年辛酉 先生七十五歲 (…)

丙午下玄宮時.行望哭禮于水原府庭.仍至萬義.(…)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부록 제8권 연보(年譜) 7, 崇禎五十四年辛酉>

사회/향촌

부인의 상여(喪輿) 행차가 이미 수원(水原) 산 아래에 이르렀다는 내용.

○ 15일(경자) 귀장 유단(歸葬由單)을 올리니, 상이 도승지를 보내어 유지(諭旨)를 전하여 만류하였다.

부인의 인행(靑行 상여(喪輿)의 행차)이 이미 수원(水原) 산 아래에 이르렀으므로 선생이 관례에 의하여 유단(由單)을 올리니, 상이 도승지(都承旨) 홍만용(洪萬容)을 명하여 수찰(手札)을 받들어 가서 만류하게 하였는데 (…)

庚子.呈歸葬由單.上遣都承旨宣諭挽留.

夫人靑行已到水原山下.先生依例呈由單.上命都承旨洪萬容奉手札勉留曰.(…)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부록 제8권 연보(年譜) 7, 五十三年庚申 先生七十四歲>

정치/향촌

1665년(현종 6) 송시열이 수원(水原)까지 따라가서 소를 올려 진정하고서 돌아왔다는 내용.
송정(崇禎) 38년 을사. 【선생 59세】 (…) 5월 (…) 17일(임인) 만의(萬義)에 이르렀다.
(…) 선생이 성상의 간절한 유지(諭旨)에 감격하기는 하나 끝내 감히 조정에 돌아가지 못하고 수원(水原)까지 따라가서 소를 올려 진정하고서 돌아왔다. (…)

[崇禎三十八年乙巳] (…) 五月 (…) 壬寅.至萬義.(…) 先生雖感激聖上之勤諭.而終不敢還朝.
遂追至水原.上疏陳情而歸.(…)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부록 제5권 연보(年譜) 4, 崇禎三十八年乙巳>

사회/향촌

1661년(현종 2) 송시열의 자부 이씨를 수원의 만의에 장사 지냈다는 내용.

송정(崇禎) 34년 신축. 【선생 55세】 (…) 9월 초하루는 정축(丁丑) 11일(정해) 목천(木川) 승천사(勝天寺)에서 이운거(李雲舉 【상(翔)】)와 모였다. 이때, 자부(子婦) 이씨(李氏)를 장차 수원(水原) 만의(萬義)에 장사하게 되었는데, 선생은 6일(임오)에 길을 떠나 전의(全義)에서 이공(李公)을 찾아보고, 이어 함께 절에 가서 《예기(禮記)》를 강론하고, 20일(병신) 만의에 이르렀다. (…)

[崇禎三十四年辛丑] (…) 三十四年辛丑 先生五十五歲 (…) 九月 丁丑 丁亥.會李雲舉 翔 于木川勝天寺.時子婦李氏將葬于水原萬義.先生乃以壬午發行.歷訪李公于全義.仍携至僧舍講禮記.丙申.至萬義.(…)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부록 제4권 연보(年譜) 3>

사회/향촌

성호 이익이 8대조 이계손의 옛 거처인 수원부(水原府)의 서쪽 송동촌(松洞村)에 사당을 세웠다는 내용.

(…) 공[이계손(李繼孫)]의 8세손인 휘 익(曄)은 세상의 유종(儒宗)으로서 학자들이 그를 성호 선생(星湖先生)이라고 불렀다. 선생이 일찍이 공을 위해서 공의 옛 거처인 수원부(水原府)의 서쪽 송동촌(松洞村)에다 사당을 세우고 해마다 일족을 모아서 제사를 올렸는데,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 (…)

이남규(李南珪), <수당집(修堂集), 제6권 기(記), 이 경헌공(李敬憲公)의 사당을 중수(重修)한 데 대한 기문>

사회/향촌

1675년(숙종 1) 홍유량(洪有量)을 수원부(水原府)의 북쪽 이동(梨洞)에 장사지냈다는 내용.

(…) 을묘년(1675, 숙종 1) 서울의 집에서 별세하여 수원부(水原府)의 북쪽 이동(梨洞) 자좌(子坐)의 산에 장례하였으니, 선영을 따른 것이었다. (…)

(…) 乙卯卒于京第.葬于水原府治之北梨洞坐子之原.從先兆也.(…)

남구만(南九萬), <약천집(藥泉集), 제19권 묘갈명(墓碣銘), 咸鏡北兵虞侯洪君墓碣銘>

사회/향촌

병자호란 때 이명한의 어머니가 죽자 임시로 수원의 쌍부리(雙阜里)에 장사지냈다는 내용.

(…) 적이 강도에 이르렀을 때에는 겨우 벗어나 교동도(喬桐島)로 들어갔는데, 대부인을 등에 업고 가면서도 받들고 간 목주(木主)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며, 거의 죽을 뻔한 것이 여러 차례였다. 대부인이 병으로 인해 죽자 상여를 받들고 와 임시로 수원(水原)의 쌍부리(雙阜里)에 장사 지냈다. (…)

(…) 賊至厓脫.轉往喬桐.身負大夫人.亦不失所奉木主.幾死者數.大夫人疾不起.奉喪權厓水原雙阜里.(…)

김상헌(金尙憲), <청음집(淸陰集), 제27권 비명(碑銘), 吏曹判書白洲李公神道碑銘>

사회/향촌

정창연이 85세의 나이로 병으로 인해 수원(水原) 쌍부리(雙阜里)에서 죽었다는 내용.

나의 외삼촌인 수죽(水竹) 정공(鄭公)이 위평(韋平)의 제수를 이어서 받아 재차 의정부에 들어가 복록과 영광을 두루 누렸으며, 85세의 나이로 병으로 인해 수원(水原) 쌍부리(雙阜里)에서 졸하였는데, 실로 숭정(崇禎) 병자년(1636, 인조14) 12월 28일의 일이었다. 그 이듬해 윤4월 11일에 과천현(果川縣) 북쪽 관악산(冠岳山)에 있는 의정공(議政公) 묘역의 묘향(卯向)의 산등성이에 장사 지냈으며, 정경부인(貞敬夫人) 한씨(韓氏)를 합부하였다. (…)

我舅氏水竹鄭公.繼韋平之拜.再入政府.備享福祿榮名.年八十五.病卒于水原雙阜里.實崇禎丙子十二月二十八日也.明年閏四月十一日.歸葬果川縣北冠岳山先議政公兆次卯向之原.貞敬夫人韓氏附焉.(…)

김상헌(金尙憲), <청음집(淸陰集), 제34권 묘지명(墓誌銘), 議政府左議政鄭公墓誌銘>

사회/향촌

1592년(선조 25) 가을 광주로 돌아왔다는 내용.

【○ 왜란(倭亂)을 당하여 가인(家人)을 따라서 양주(楊州)와 연천(漣川) 등지로 피난을 다니다가, 가을에 광주(廣州)의 시골 농장²³⁷⁾으로 돌아왔다.】

조익(趙翼), <포저집(浦渚集), 포저 연보 제1권, 20년 임진(1592)>

사회/향촌

조익이 1593년(선조 26) 수원(水原)에서 거상(居喪) 중이던 이정구에게 배웠다는 내용.

【○ 공주(公州)에 가서 거주하면서 《서경(書經)》을 읽었는데, ‘기삼백(碁三百)’과 ‘선기 옥형(璿璣玉衡)’의 주설(註說)을 모두 막힘없이 통달하자 노유(老儒)들이 모두 탄복하였다. 또 《서경》의 홍범(洪範)을 모방해 글을 지어서 인륜(人倫)을 서술하고는 그 이름을 ‘이범(彝範)’이라고 하였다. 광주(廣州)로 돌아왔을 때에 월사(月沙) 이공 정귀(李公廷龜)가 수원(水原)에서 거상(居喪) 중이었으므로 선생이 찾아가서 배웠는데, 월사가 극구 칭찬하였다.】

조익(趙翼), <포저집(浦渚集), 연보(年譜) 제1권, 21년 계사(1593) 【선생 15세】>

사회/향촌

1673년(현종 14) 33세에 권상하가 수원(水原) 만의촌에 가서 송시열을 만났다는 내용.

7월 담제를 지냈다. ○수원(水原)에 가서 우암 선생을 배알하였다.【이때 우암 선생이 영릉(寧陵 효종 능)을 천장(遷葬)하는 일 때문에 와서 수원 만의촌(萬義村)에 머물고 있었다. 선생이 가서 배알하고 이어 의정공의 갈문(碣文)을 청하니, 우암 선생이 선생에게 화양동(華

237) 광주(廣州)의 시골 농장 : 현재의 경기도 화성군(華城郡) 매송면(梅松面) 야목리(野牧里)에 있었다.

陽洞)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였다.】

癸丑 先生三十三歲 七月行禪事.○往拜尤菴先生於水原.【時尤菴先生以寧陵遷葬.來留水原萬義村.先生往拜.仍請議政公碣文.尤菴先生要先生來會華陽.】

권상하(權尙夏), <한수재집(寒水齋集), 연보(年譜), 계축년(1673) 【선생의 나이 33세】>

사회/향촌

1689년(숙종 15) 권상하가 수원(水原) 만의(萬義)로 가서 송시열을 임시로 장사 지낼 곳을 살펴보았다는 내용.

(…) 기사년(1689) 【선생의 나이 49세】 (….) 7월 7일(신축) 회덕(懷德)을 향해 출발하였다. 역로(歷路)에 글을 지어 가지고 동춘 선생 묘소(墓所)에 고하였다.(…) 14일(무신) 수원(水原) 만의(萬義)로 가서 임시로 장사 지낼 곳을 살펴보았다.(…)

(…) 己巳 先生四十九歲 (….) ○七月辛丑發行后懷德. 歷路操文告同春先生墓 甲辰到興農.哭尤菴先生靈筵.○戊申往水原萬義.看權厝處.(…)

권상하(權尙夏), <한수재집(寒水齋集), 연보(年譜), 己巳 【先生四十九歲】>

사회/향촌

유성룡이 지은 서형(徐訥)의 비갈명으로 수원 치소 동쪽 장족리(長足里)에 장사지냈다는 내용.

公歿之年九月癸未.葬于水原治東長足里丑坐未向之原.其後夫人歿.用十二月乙未.祔葬于公墓之左.公有三男二女.男長善元.次卽觀察使.季禮元.登武舉爲晉州牧使.

유성룡(柳成龍), <서애집(西厓集) 卷之十九, 碑碣, 贈吏曹參判徐公碑銘>

사회/향촌

윤증이 지은 이세완(李世完)의 신도비로, 이세완이 어머니와 이세녕의 부인 조씨가 강화도에서 자결하자 수원 별업(別業)에서 예제를 따라 거상했다는 내용.

(…) 공이 이미 강도를 떠난 뒤에 모부인과 상원공 부인 조씨(曹氏)가 모두 자결하였다. 공이 부고를 듣고 도로 달려가 상구를 모셔다가 선산에 장사 지냈다. 수원 별업에서 예제를 따라 거상하였는데 직접 밭을 갈아 조석의 전(奠)을 받들어 올렸다. (…)

(…) 公既離江都.而母夫人及祥原夫人曹氏.俱自決以死之.公聞訃.奔還奉喪.歸葬于先山.守制于水原別業.躬自耕種.以奉朝夕饋奠.(…)

윤증(尹拯), <명재유고(明齋遺稿) 卷之四十一, 宗室珍原君神道碑銘>

사회/향촌

1671년(현종 12) 윤증이 지은 유계의 큰 아들 유문항(柳文恒)의 행장으로, 수원의 서촌(西村) 마을 사제(私第)에서 태어났고, 1637년(인조 15) 임천[嘉林]으로 내려갔다는 내용.

(…) 공은 시남 선생의 장자이다. 승정 기사년(1629, 인조7) 5월, 임인일인 18일에 수원의 서촌(西村) 마을 사제(私第)에서 태어났다. 정축년(1637)에 선생을 따라 남쪽의 가림(嘉林)으로 옮겼다. (…)

(…) 公市南先生之長子也.以崇禎己巳五月壬寅.生于水原之西村里第.丁丑.從先生南遷于嘉林.(…)

윤증(尹拯), <명재유고(明齋遺稿) 卷之四十三, 吏曹正郎俞公行狀 【辛亥】>

사회/향촌

최석정이 지은 나홍좌(羅弘佐)의 신도비명으로, 초장지가 수원이었다가 과천 명달리(明達里)로 이장했다는 내용.[인물고 번역]

공을 처음에 수원에다 장례를 치렀다가 임진년[1712년(숙종 38)] 봄에 과천(果川) 명달리(明達里) 동쪽으로 향한 자리에다 이장(移葬)하였다. (…)수원의 큰 고을에 토호들이 날뛰니 공 명해 다스리어 백성들이 구가했지.

公初窆水原地.壬辰春.移葬果川明達里向卯原.(…) 投荒三載肆有眚.赫臨牽復由主聖.水原雄府處驍勁.命汝往莅土飽詠.(…)

최석정(崔錫鼎), <명곡집(明谷集) 卷之二十一, 漢城左尹羅公神道碑銘>

사회/향촌

최석정이 지은 박원도(朴元度)의 묘갈명으로, 1690년(숙종 16) 가을 수원의 선영에 참배하고 사망하여 11월 수원 어탄면(魚呑面) 왕계산(旺啓山)에 장사지냈다는 내용.

경오년[1690년(숙종 16)] 가을에 수원(水原)의 선영을 참배하고 큰형을 찾아본 뒤에 병환이나 날로 위독해지자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줄 알고 (…)병환이 위독해져도 정신이 혼란하지 않아 옷을 갈아입고 자리를 정돈한 뒤에 향년 65세로 세상을 떠나 그해 11월에 수원(水原) 어탄면(魚呑面) 왕계산(旺啓山) 을좌(乙坐)에 묻히었다.

庚午秋.展先墓于水原.仍省伯氏.感疾日殆.自知不起.(…) 疾革.精神不亂.更衣正席而沒.年六十五.其十一月.葬于水原魚呑面旺啓山枕乙原.(…)

최석정(崔錫鼎), <명곡집(明谷集) 卷之二十三, 承政院右承旨朴公墓碣銘>

사회/향촌

서종태가 지은 조성기(趙聖期)의 묘표로, 수원의 건달산(乾達山)에 장사지냈다는 내용.

(…) 公生於崇禎戊寅九月初五日.其卒在己巳十一月二十一日.享年五十二.其葬在水原乾達山坐亥之原.孺人完山李氏附焉.孺人都事尙元之女.賢有闔德.(…)

서종태(徐宗泰), <만정당집(晩靜堂集) 第十四, 拙修齋趙公墓表>

사회/향촌

1796년(정조 20) 1월 35세에 윤규범에게 보낸 편지로 화성을 지나며 지난 일을 회상하는 내용.

지난달 밤에 화성(華城)을 지났습니다. 바라고 기다리다가 실망하셨을 것이며 아울러 기질의 병폐를 아직 고치지 못했다고 여기셨을 것을 생각함에 부끄러워 말하지도 못하겠습니다. 서울에 이르러 무구(無咎 윤지눌(尹持訥)의 자)를 만났는데 그에게서, 남고께서 전에 채시랑(蔡侍郎 채 참판)의 연회석에서 밤에 노래와 주악이 번갈아 일어나고 온갖 안주가 가득 차려져 있는데도 촛불 뒤의 어슴푸레한 그림자 속에서 꼬마종 돌이[石伊 다산 집종 아이]를 쳐다보고 갑자기 죽란사(竹欄舍)의 옛 모임²³⁸⁾을 생각하고 심회(心懷)가 슬퍼지고 즐겁지 않자, 술잔을 멈추고 젓가락을 던진 채 자리가 끝날 때까지 묵묵히 있다가 파했다고 하는 말

238) 죽란사(竹欄舍)의 옛 모임 : 죽란사는 다산이 거쳐하던 집. 대로 난간을 만들었으므로 죽란사라 했음. 옛 모임이란 그곳에서 결성했던 죽란시사(竹欄詩社)를 말함. 다산의 <죽란시사첩서(竹欄詩社帖序)> 참조.

을 들었습니다, 아, 참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약용 역시 그 말을 들은 때부터 지금까지 즐겁지 않고 마치 목에 어떤 물건이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두 사람은 연(燕) 나라와 조(趙) 나라의 비가(悲歌)를 부르던 선비들의 처지도 아닌데 그 기미(氣味)와 풍운(風韻)의 유묘(幽眇)하고 격렬함이 어찌하여 이처럼 심한 겁니까? 이것은 대체로 평상시에 사부(詞賦)를 짓는 곳에만 쫓아다니면서 질탕(跌宕)하게 놀았을 뿐 본원과 실지상에 나아가서 함양(涵養)의 공부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울적하고 쓸쓸한 경우를 만날 때마다 천성의 중화를 손상시켜 차츰 기상이 처량해지고 불평만 하게 되는 것이니, 이런 점에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더구나 남고께서는 팔자가 기구하여 낭패해 떠돌다 보니 당하는 일마다 모두가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일들인데 이러한 처지에 순순히 받아들이는 방법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자제(子弟)들에게 훈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 힘써 옛사람을 저버리지 마소서.

前月乘夜度華城.想企俟之餘.悵然若失.兼以爲氣質之病.渠猶未改也.愧忤不可言.至都逢无咎.聞南臯曾在蔡侍郎讌席.方夜歌笙迭作.殺羞雜薦.燭後黑影裏.驀見小奴石伊.忽憶竹欄舊會.心懷惻愴不樂.停杯投筋.終席默然而罷云.嗟乎.信有是耶.鏞亦自聆茲語.至今不樂.如有物在喉嚨間.嗟乎.吾兩人者非燕趙悲歌之士.而其氣味風韻之幽眇激烈.何若是之甚耶.茲蓋平日但從詞場賦席間跌宕.不就本源實地上涵養.故每遇牢騷憂戚之境.未免斲傷其天和.漸令氣象淒楚不平.此甚可戒者.況如南臯者.嶽崎歷落.狼狽飄零.所值皆非人所堪.于此而一或放忽於順受之方.則豈足以爲訓於子弟耶.更須勉旃.毋負古人也.

정약용(丁若鏞),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제18권 서(書), 與尹彝紱【丙辰正月】>

(2) 의식주

사회/의식주

신하가 군주를 섬기는 체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원부에 유명한 유과를 인조에게 진상하지 않았다는 내용.

(…)부(府)에서 꿀을 달여 만든 유과(油果)가 나라에 유명하였다. 인조가 병이 났을 적에 어주(御廚)에는 입에 맞는 음식이 없어 중관이 사람을 보내 유과를 요구하자, 공은 답하기를, “주부(州府)에서 사사로이 올리는 것은 신하가 군주를 섬기는 체통이 아니니, 조정의 명이 있지 않으면 줄 수 없다.” 하였다. 인조는 이 말을 듣고 웃으며 말하기를, “비록 군신간이라고 하나 어찌 척족(戚族)의 정이 없단 말인가?” 하였다.

(…)府之煎察爲果名國中.仁祖違豫時.御廚無可口者.中官使人求之.公答曰州府私獻.非人臣事君之體.非有朝命不可.仁祖聞之笑曰雖曰君臣.獨無戚聯之情乎.(…)

남구만(南九萬), <약천집(藥泉集)>, 제22권 행장(行狀), 刑曹判書趙公行狀 癸亥>

(3) 윤리·풍속

사회/윤리·풍속

예조가 수원 궐리사(闕里祠)의 축식(祝式)에 관하여 아뢴 것에 대한 비답

두 설이 모두 통하지만 공씨(孔氏)가 제사를 주관하는 것이 중요하지 관직이 있고 없는 것은 상관할 일이 아니다. 다만 축문의 형식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또한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지방관 판관(判官)이 초헌(初獻)을 하고 공씨는 아헌(亞獻)과 종헌(終獻)을 하되 제향하는 날짜를 점쳐 잡는다는 것으로 정식을 삼으라.

兩說皆通.而孔氏之主祀貴矣.不係於有官無職.但祝式之持難.亦或然矣.地方官判官初獻.孔氏亞終獻.享日卜吉.以爲式.

<홍재전서(弘齋全書), 卷四十四, 禮曹水原闕里祠祝式啓批>

4. 문화(文化)

(1) 사상

문화/사상

권근이 수원 만의사(萬義寺)의 연혁을 기술한 내용.

수원의 동쪽 수십 리 거리에 절이 있으니, 만의사(萬義寺)라고 한다. 국가 복리(福利)의 비보(裨補)를 기원하던 옛절이다. 폐허가 된 지 이미 오래되어 초목이 우거진 황무지가 되었더니, 황경(皇慶) 연간에 천태종의 친구사(珍丘寺) 주지인 혼기(混其) 대선사(大禪師)가 옛터를 와서 보고 새로 절을 중건하였으며, 삼장법사(三藏法師) 선공(璇公)이 뒤를 이어 절을 주관하였는데 임금에게 자세한 사정을 아뢰어 판지(判旨)로 절을 묘련(妙蓮)의 문인에 귀속시켜 서로 전하도록 하였다. 세월이 이미 오래되어 실로 천태종의 불법을 일으키는 본사(本社)가 되었다. 지조(地租)를 받는 전지(田地)가 있고, 사역을 하는 하인들이 있어서 이익을 탐내는 무리가 또한 이 절을 차지하려고 하였다. 얼마 전에 천태종과 조계종에서 서로 주지를 임명하더니, 그 뒤에 조계종에서 그만 빼앗고자 하여 법사(法司)에 소송을 제기하니 당시의 공론이, “절에 전지와 노비가 있는 것은 삼보(三寶)를 공양하기 위함이고, 주관하는 종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두 종파가 서로 분쟁하는 것은 한갓 이 재산이 있기 때문이니, 이것은 없는 것만 못하다.” 하였다. 이에 노비 약간 명은 모두 수원부에 소속시키고, 절은 도로 천태종에 귀속시켰다. 지금 주상께서 왕통을 계승하여 나라를 중흥하니, 모든 정치를 다시 새롭게 하고 조종(祖宗)의 법을 준수하며, 삼보를 존중하게 여겨 왕화(王化)를 돕게 하였다. 그때에 천태종의 용암사(龍巖寺) 주지인 대선사(大禪寺) 중대광(重大匡) 봉복군(奉福君) 신조(神照)라는 스님이 있었으니, 일찍이 공민왕의 총애를 받았는데, 공민왕이 모든 신하를 버리고 승하하게 되니 사모하며 그의 명복을 비는 일을 오렐수록 더욱 힘써왔다. 홍무(洪武) 무진년(1388, 창왕14)에 병화가 일어나서 국가의 안위가 급박할 때 신조(神照) 스님은 완산(完山) 이시중(李侍中 이성계)의 막하에 있으면서 장상(將相)들과 함께 국가의 대책을 정하여, 의병을 일으키고 회군하여 종묘와 사직을 편안하게 하여 오늘의 국가 중흥의 왕업을 열게 하였다. 주상께서 마음으로 가상하게 여기고 다음 해인 경오년 8월에 그에게 특히 공신에게 주는 사패(賜牌)를 내려 만의사(萬義寺)와 그에 따른 노비를 영구히 그의 법손(法孫) 교리를 계승한 제자에게 전하게 하였으니, 또 사전(寺田) 70결(結)을 주어 부처를 공양하고 중들을 먹여 살리는 비용을 풍부하게 하여 주었다. 신조(神照) 스님은 이에 더욱 임금의 은사(恩賜)에 감격하여 축복하는 것으로써 은혜의 만분의 일이라도 갚을 것을 생각하였다. 드디어 바랑 속에 모아 두었던 백은(白銀) 한 덩어리를 팔아 신미년 정월에 특히 7일의 소재도량(消災道場)을 개설하였으며, 임신년 2월에 또 법회(法會)를 벌이니, 의복과 좌구(座具)와 띠와 버선을 모두 구비하였으며 아름다운 제수(祭需)와 진기한 반찬과 바치는 기구가 풍부하고 정결하였다. 임금에게 아뢰어서 압불소(押佛疏)를 받고, 대천태종사(大天台宗師) 국일도도선사(國一都大禪師) 현견(玄見) 등 시 잘하는 중 3백 30인을 초청하니, 모두 한 시대의 큰 천태종의 덕(德)이 스님들이었다. 외호(外護)는 전 홍제사(洪濟寺) 주지 대선사(大禪師) 명일(明日) 등 1백 90인이었으며, 제집사(諸執事)는 감원선사(監院禪師) 각항(覺恒) 등 1백 90인이었다. 처음에는 화엄삼매참의(華嚴三昧懺儀)를 열고, 계속 《묘법연경환사소해(妙法蓮經環師疏解)》를 강교(講敎)하였다. 삼칠일(三七日)이 지나고 마치니 그것이 임금의 장수를 빌고 국가를 복되게 하며, 중생을 구제하고 만물을 이롭게 하도록 기원한

바는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나의 가친 영가군(永嘉君)이 친히 왕명을 받고 봉향(奉香)하여 왔으므로 내가 모시고 성대한 불사(佛事)를 참관하였더니 하루는 신조공(神照公)이 나에게 일의 전말을 적어서 뒷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라고 청하였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불가에서는 인륜을 버리고 임금과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등지는 자를 우리 유학(儒學)하는 자들은 병폐로 여기는 것이다. 사대부로서 이 세상에 뜻이 있는 자는 누구나 공업(功業)을 세워서 임금과 아버지의 은덕에 보답하고자 하지 않는 자는 없다. 그러나 그렇게 못하는 이가 많은 것은 사람들의 공통된 근심이다. 이에 신조공(神照公)은 비록 불사(佛寺)에 살고 있으나 오히려 임금과 재상에게 지우(知遇)를 얻어 국가에 공을 세움이 이와 같이 높이 뛰어나며, 마음을 오로지하고 힘을 다하여 좋은 인연을 맺어서 반드시 임금에게 은덕을 보답하기를 또 이와 같이 정성스럽게 하니, 이것은 진실로 이 세상을 저버린 것이 아니며 사대부가 따라갈 수 없는 일이다. 돌아보건대 나는 어리석어 일찍이 귀양살이로 쫓겨났더니, 특별히 어진 임금과 정승의 살리기를 좋아하는 은덕을 입어 목숨을 보전하고 오늘 날에 이르렀다. 죽을 목숨을 다시 구원하여 주신 은혜는 하늘처럼 끝이 없다. 비록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나 힘이 미치지 못하였더니 이제 이 법회에서 우러러 부처님에 대하여 대중과 함께 한 소리로 축원을 올릴 기회를 얻고 임금의 만수 무강을 기원할 수 있게 되어 아래 신하의 구구한 뜻과 소원을 조금은 펴게 되었다. 진실로 다행한 일이다. 그러므로 사양하지 않고 기문을 쓴다. 이 법회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사목(事目)은 뒤에 자세히 열거한다.

홍무(洪武) 25년 창룡(蒼龍) 임신년 중춘(仲春) 하순에 씀.

水原之東數十里.有寺曰萬義.裨補古刹也.壞廢 既久.鞠爲榛莽.皇慶間.天台珍丘寺住持大禪師混其來觀遺址.重營以新.三藏琬公.繼而主之.申 啓于上.判屬妙蓮.門人相傳.歲紀已遠.實爲天台作法之社.收租有田.執役有軀.嗜利之徒.亦欲得 焉.比者天台.曹溪互差住持.厥後曹溪.仍欲奪而 有之.訟于法司.時議以爲寺有田口.所以供三寶.非以爲主僧之利.兩宗交爭.徒以有此也.是不如 無.乃以臧獲若干口.悉屬水原府.而以本寺還屬天台.今主上繼統中興.更新庶政.式遵祖宗之法.崇重三寶.俾贊王化.時有天台龍岩寺住持大禪 師重大匡奉福君神照.嘗被玄陵寵昵之恩.及棄群臣.思慕追福.久而益力.洪武戊辰.師旅方興.國 家安危.變在呼吸.時照公在完山李侍中麾下.能 與將相共定大策.舉義回軍.以安宗社.以開今日 中興之業.上心是嘉.越庚午秋八月.特賜功牌.將 萬義寺及其奴婢.使永傳于法孫.又給寺田七十 結.以贍供佛飯僧之用.照公於是益感上賜.思所祝釐以報萬一.乃貨囊鉢所貯白銀一錠.辛未正月.特設七日消災道場.壬申二月.又張法會.衣服座具帶襪咸備.嘉羞異膳.供具豐潔.啓聞于上.受 押佛疏.邀請大天台宗師國一都大禪師玄見等.韻釋三百三十指.皆一時天台碩德也.外護前洪 濟寺住持大禪師明一等一百九十指.諸執事監 院禪師覺恒等一百九十指.初展華嚴三昧懺儀.繼講妙法蓮經.環師疏解.歷三七日而訖.其所以 壽君福國濟生利物之願.可謂博矣.吾家尊永嘉 君.親承上命.奉香而來.予陪几杖.參觀盛事.一日 照公囑記端末.以示于後.予惟釋氏.去人倫棄君親.寓斯世而負斯世者.吾儒之所訾也.士大夫有 志于斯世者.莫不欲樹功業而報君親.然有不得 者衆.人之通患也.今照公雖居釋苑.尚能遇知於 君相.樹功於國家.如此其卓也.專心竭力.以結 勝因.必報德於君父.又如此其懇懇也.是誠不負 斯世.而士大夫有所不逮者也.顧予不才.嘗遭放 竄.特蒙聖君賢相好生之德.獲保性命.以至今日.再造之恩.昊天罔極.雖欲小報.力莫能逮.今於斯 會.仰對佛聖.得與大眾.同聲祝上.以祈萬年無疆 之壽.小伸下臣區區之志願.誠所幸也.故不辭而爲之記.在會衆目.詳列于後.洪武二十五年蒼龍 壬申仲春下澣.

권근(權近), <동문선(東文選)>, 제78권 기(記), 水原萬義寺祝上華嚴法華法會衆目記>

문화/사상

수원 궐리사(闕里祠) 등의 사액 서원이 철폐되었다는 내용.

(…) ○ 황묘(皇廟)의 창건은 숙종 갑신년(1704)에 있었는데, 해마다 정월 상순(上旬)에 명의 신종(神宗)·의종(毅宗) 두 황제의 신위를 모시고 제사 지내고, 또 ‘한 몸의 군신이라 제사를 같이 모시도다.’²³⁹⁾ 한 뜻으로 우암(尤菴) 송 선생(宋先生)의 진상(眞像)을 서재(書齋)에 봉안하여 제향하였다. 영조 병오년(1726)에 둔전(屯田 관아에 소속된 전지) 5결(結)을 떼어 주어 자성(棗盛 제사에 쓰는 쌀)을 공급하였고, 정조 정유년(1777)에 친필로 사액(賜額)하여 걸었으니, 그 신중히 한 것이 이와 같았다. 그런데 금상(今上 고종을 말함) 을축년(1865)에 대제학(大提學) 박규수(朴珪壽)가 황묘를 훼손하는 윤음(綸音)을 찬진(撰進)하고 승지 김원성(金元性)이 즉시 가서 편액을 철폐하였다.

이때에 삼가(三嘉) 유생 권숙(權淑)은 명륜당(明倫堂)에 올라 관[冕]을 찢어 버리고 통곡하고 고서 돌아갔고, 청주 영장(淸州營將) 양주석(梁柱石)은 선화당(宣化堂)에 나아가 통곡하고 인수(印綬)를 던져 버리고 돌아갔다. 그 뒤에 호유(湖儒) 김건수(金健秀)·정해성(鄭海晟)과 유신(儒臣) 송내희(宋來熙) 공·임헌회(任憲晦) 공 및 화서(華西) 이 문경공(李文敬公) 문경(文敬)은 이항로(李恒老)의 시호)이 모두 소로 만동묘를 복설(復設)하기를 청하였으나 회답이 없었다. 그 외에 수원(水原) 궐리사(闕里祠) 이하 사액(賜額)한 서원이건 아니건 모두 차례로 철폐하였다.(…)

先生諱益鉉,字贊謙,姓崔氏,系出慶州.(…) 癸酉,先生四十一歲.(…) ○皇廟初建,在於肅廟甲申.而每歲以正月上旬,設神宗毅宗兩皇帝位而祭之.又以一體君臣祭祀同之義,奉尤菴宋先生眞像於書齋,薦以籩豆.英祖丙午,劃付屯田五結,以供棗盛.正廟丁酉,親筆揭額,其慎重如此.今上乙丑,大提學朴珪壽,撰進毀撤絲綸,承旨金元性,馳進撤額.時三嘉儒生權淑,登明倫堂,裂冕痛哭而歸.淸州營將梁柱石,就宣化堂,痛哭投紱而歸.其後湖儒金健秀,鄭海晟,儒臣宋公來熙,任公憲晦及華西李文敬公,並疏請復設,不報.其外院宇,自水原闕里祠以下,無論賜額,與未賜額,皆次第撤罷.(…)

최익현(崔益鉉), <면암집(勉菴集), 부록 제1권 연보(年譜), 계유년(1873, 고종10) 선생 41세>

문화/사상

부목 대선사(夫目大禪師)가 수원에 오다.

오래전에 송광사 떠나셨더니 / 久矣離松廣

표연히 수원에 와 계시는구려 / 飄然在水原

목옹이 지금 목마르게 사모하는데 / 牧翁方渴仰

언제나 종문의 어르신 찾아뵈는지 / 何日過宗門

이색(李穡), <목은집(牧隱集), 목은시고 제31권 시(詩), 奉答夫目大禪師>

문화/사상

239) 한 몸의 …… 모시도다 : 두보(杜甫)의 영회고적시(詠懷古跡詩)의 미련(尾聯) 말구(末句)인데 촉주(蜀主) 유비(劉備)의 고묘(古廟) 옆에 그의 신하인 제갈량(諸葛亮)의 사당을 세우고 제향을 같이 드림을 말한 것이다. 참고로 그 시의 경련(頸聯)과 미련(尾聯)을 적는다. “고묘(古廟) 유비의 사당)의 삼송(杉松)에는 수학(水鶴)이 깃들었고, 삼복과 납일(臘日)에는 마을 노인 다니도다. 무후(武侯 제갈량의 봉호)의 사당이 길이 인근에 있으니 한 몸의 군신이라 제사를 같이 모시도다.[古廟杉松巢水鶴 歲時伏臘走村翁 武侯祠屋長隣近 一體君臣祭祀同]”

경기의 여러 유생(儒生)이 수원(水原) 고매곡(古梅谷)에 서원을 세웠다는 내용.

(…) ○ 경기의 여러 유생(儒生)이 수원(水原) 고매곡(古梅谷)에 서원을 세웠다. (…)

(…) 京畿諸生.建書院于水原古梅谷.(…)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부록 제11권 연보(年譜)10, 崇禎六十七年甲戌>

문화/사상

권근이 지은 수원 만의사에 관한 기문으로, 만의사의 내력을 기술하고 소송 끝에 천태종으로 귀속되었다는 내용.

수원 동쪽 몇십 리 밖에 만의사가 있는데, 비보(裨補)를 기구(祈求)하던 옛절이다. 무너진 지 이미 오래되어 가시덤불로 변했었는데, 황경(皇慶 원 나라 인종의 연호) 연간에 천태종(天台宗)의 친구사(珍丘寺) 주지(住持)인 대선사(大禪師) 혼기(混其 고려 충선왕의 아들)가 옛터를 와서 보고 새로 절을 중건했다. 삼장법사(三藏法師) 선공(璇公)이 이어받아 주관하면서 임금에게 자세히 사정을 계문(啓聞)하니, 판지(判旨 임금이 재가한 분부)로 절을 묘련(妙蓮)의 문인(門人)에게 소속시켜 서로 전해 가도록 했는데, 세월이 오래 되매 실로 천태종의 불법을 일으키는 사(社)가 되어, 지조(地租)를 받는 밭이 있고 사역(使役)을 하는 하인이 있게 되자, 이득을 탐하는 무리가 또한 차지하려고 하게 되었다.

근자에는 천태종과 조계종(曹溪宗)에서 서로 주지를 임명했었는데, 그 뒤에 조계종에서 그만 빼앗아 소유하려고 하여 법사(法司)에 송사하게 되니, 당시의 공론이 ‘절에 밭과 하인을 들은 삼보(三寶)를 공양하려는 것이요, 주승(主僧)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닌데, 양종(兩宗)이 서로 다툼은 이것이 있기 때문이니, 이는 없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하고, 이어 노비 약간 명은 수원부(水原府)에 소속시키고, 본 절은 도로 천태종에 귀속시켰었다. (…)

水原之東數十里.有寺曰萬義.裨補古刹也.壞廢既久.鞠爲榛莽.皇慶間.天台珍丘寺住持大禪師混其來觀遺址.重營以新.三藏璇公繼而主之.申啓于上.判屬妙蓮.門人相傳.歲紀已遠.實爲天台作法之社.收租有田.執役有.嗜利之徒亦欲得焉.比者天台,曹溪互差住持.厥後曹溪仍欲奪而有之.訟于法司.時議以爲寺有田口.所以供三寶.非以爲主僧之利.兩宗交爭.徒以有此也.是不如無.乃以臧獲若干口委屬水原府.而以本寺還屬天台.(…)

권근(權近), <양촌집(陽村集), 제12권 기류(記類), 水原萬義寺祝上華嚴法華會衆目記>

문화/사상

1795년(정조 19) 어제(御製) 화성문묘(華城文廟)에 송준길을 배향하며 지은 고유문.

아름다운 문정이여 / 美如文正

문채 사방에 미쳤네²⁴⁰⁾ / 傍達孚尹

좌석엔 표방²⁴¹⁾하는 말 멀리하였고 / 座遠標榜

마음엔 남과 나의 한계 없었네 / 襟寬畦畛

나와서도 물러갈 듯이 하였고 / 進而若退

조정을 산야처럼 여기었다네 / 巖廊山野

한 시대에 목표를 같이하였던 / 同時同德

두 송 선생을 좌우에 모셨다오 / 兩宋左右

240) 문채 사방에 미쳤네 : 원문의 방달(傍達)은 사방으로 통달하는 것이고 부윤(孚尹)은 옥(玉)의 색깔이니, 곧 아름다운 품채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뜻이다.

241) 표방(標榜) : 사람을 품평하는 것이다.

송준길(宋浚吉), <동춘당집(同春堂集) 속집 제11권 부록 6(附錄六)>

문화/사상

1695년(숙종 21) 9월 수원의 송시열을 모시는 서원에 사액하겠다는 윤허를 받았다는 내용.

(…) 초산서원(楚山書院)²⁴²은 역사(役事)가 신속하게 손이 떨어져 옥례(縹禮)를 이미 거행하셨다 하니, 남중(南中) 사풍(士風)의 성대한 아름다움을 이에서도 볼 수 있어 경탄(敬歎)해 마지않습니다. 도봉서원(道峯書院)에는 아직 봉안(奉安) 우암의 위패(位牌)를 봉안함(奉安)하지 못하였고, 수원(水原)에는 이미 사액(賜額)하겠다는 윤허를 받았으며, 화양(華陽)에서 남쪽으로 10여 리 거리에 만경대(萬景臺)란 곳이 있는데 이곳에 역사(役事)를 시작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나 아직 공사(工事)가 완성되지 못하였으며, 충주(忠州) 누암서원(樓巖書院)에는 이달 28일에 철향(餼享)의 의식을 거행하려 합니다. 그 밖에 회인(懷仁)·옥천(沃川)·보은(報恩)·문의(文意)에서도 모두 옛 사우(祠宇)에 추봉(追奉)하였습니다. (…)

(…) 楚山院役.斷手神速.縹禮已舉.南中士風之盛美.此亦可見.欽歎.道峯時未奉安.水原已蒙許額.華陽南去十餘里有萬景臺者.經始已久.工未完就.忠州樓巖則將以今二十八行餼享之儀.其餘懷, 沃, 報, 文.亦皆追奉於舊祠矣.(…)

권상하(權尙夏), <한수재집(寒水齋集), 제10권 서(書), 답박사(答朴士元)【乙亥九月】>

문화/사상

권상하가 수원 만의에서 매곡으로 서원을 옮기는 것에 반대하는 내용.

만의(萬義)는 실로 용인(龍仁)의 심곡(深谷), 파주(坡州)의 자운(紫雲)과 같으니, 그곳에 묘우(廟宇)를 세우는 것이 사리에 당연합니다.²⁴³ 그런데 당초에 무슨 이유로 매곡(梅谷)으로 옮겨 짓게 되었습니까? 대저 사림(士林)들이 선생을 위하여 수원(水原)에 묘우를 세우는 것은 그곳이 만의이기 때문입니다. 저 매곡은 만의와의 거리가 매우 멀고 또 선생께서 평소에 거처하시던 곳도 아니고 보면, 그곳이 비록 온갖 조건이 다 좋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의가 없는데, 더구나 지금 저토록 낭패하여 장차 그곳이 목어버림을 면치 못할 것이니 말해 무엇 합니까. 그곳에 선비가 많기는 하나 다년간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아 모양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선비가 없는 곳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일찍이 슬프게 여겼던 바입니다. 지금 고해 주신 말씀을 보니, 기약하지 않고도 마음이 서로 부합되었다고 이를 만합니다. 그러나 부백(府伯)의 견해가 저러하고, 개인의 힘으로는 또 그 일을 꾸려 나갈 희망이 없으니, 진실로 또한 어찌할 수 없습니다. 모름지기 이 뜻으로 다시 원장(院長)에게 사퇴하여 잘 헤아려서 결단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萬義者.實如龍仁之深谷坡州之紫雲.廟宇之設.事理當然.不知當初何故移就梅谷也.大抵士林之所以建廟於水原者.以其萬義也.彼梅谷去萬義絕遠.又非杖履所及之地.則雖百事皆好.猶無義意.況今狼狽如彼.將未免鞠爲茂草乎.其地章甫雖多.多年翫視.不成模樣.與無士之地何異.此愚之所嘗慨然者也.今承來示.可謂不約而合矣.然府伯之見如彼.私力又無辦得之望則誠亦汲奈何也.須以此意更稟于院長.商量而斷之如何.

242) 초산서원(楚山書院) : 송시열이 후명(後命)을 받은 정읍(井邑)에 세운 고암서원(考巖書院)을 가리킨다.

243) 만의(萬義)는 …… 당연합니다 : 조광조(趙光祖)를 향사(享祀)하는 용인(龍仁)의 심곡서원(深谷書院)과 이이(李珣)를 향사하는 파주(坡州)의 자운서원(紫雲書院)은 모두 그분들이 평소에 살던 곳 근처에 세워졌는데, 만의(萬義) 역시 송시열(宋時烈)이 오래 살았던 곳이므로, 이곳에 송시열의 서원을 지어야 한다는 말이다.

권상하(權尙夏), <한수재집(寒水齋集), 제19권 서(書), 答梅谷院儒【壬午】>

문화/사상

정조가 친히 제문을 지어 화성의 교궁에서 치제할 때 최치원에게 올린 축문

봉암의 빼어난 정기 받고 / 鳳巖秀精

북으로 중원에 유학하여 / 北學中原

번방의 담장을 널리 개척하고 / 廣拓藩牆

한원에서 혀로 밭을 가신 분 / 舌耕翰垣

동방 문학을 창도한 것은 / 東文之倡

공이 실로 시조라 할 것이니 / 公實爲宗

화성에 처음 관광하러 와서 / 始觀于華

먼저 넘치게 술 부어 올립니다 / 先侑盞鍾

최치원(崔致遠), <고운집(孤雲集), 고운 선생 사적, 正祖御製華城校宮致祭時文昌公祝文>

문화/사상

정약용이 『화성정리통고』 저술에 깊이 간여하였다는 내용.

며칠 뒤에 주상이 춘당대(春塘臺)에 임어하여 선비를 시험보일 제 특별히 용을 명하여 대독관(對讀官)으로 삼으므로 용이 황공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주상이 채홍원(蔡弘遠)에게 이르기, “내가 나중에 알고보니 남인이 합격한 자는 모두 이소(二所)에서였고, 정용(丁鏞)은 일소의 시험관이었으니 사정을 둔 일이 없었다.”

하고, 규영부(奎瀛府)에 들어가 이만수(李晩秀)·이가환(李家煥)·이익운(李益運)·홍인호(洪仁浩)·서준보(徐俊輔)·김근순(金近淳)·조석중(曹錫中) 등과 함께 《화성정리통고(華城整理通考)》를 짓게 하였는데, 용이 맡은 바가 특히 많았다.(…)

後數日.上御春塘臺試士.特命鏞爲對讀官.鏞惶恐不知所爲.上諭蔡弘遠曰予後知之.南人與選者皆二所.丁鏞一所也.無行私事.令入處奎瀛府.與李晩秀, 李家煥, 李益運, 洪仁浩, 徐俊輔, 金近淳, 曹錫中等.共撰華城整理通考.鏞所掌特多.(…)

정약용(丁若鏞),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제16권 묘지명(墓誌銘), 自撰墓誌銘【集中本】>

문화/사상

정약용이 지은 이가환의 묘지명으로 정조가 <화성정리통고>를 짓게 하고 크게 등용하려 했다는 내용.

을묘년 봄 공을 정경(正卿 판서)에 발탁하시어 신 용과 함께 《화성정리통고(華城整理通考)》를 짓게 하시고 장차 공을 크게 등용하려 하셨다. 이해 여름에 포장(捕將) 조규진(趙圭鎭)이 최인길(崔仁吉) 등 세 사람을 잡아 왕지(王旨)를 받들어 곤장을 쳐서 죽인 일이 있었는데, 7월 초에 대사헌 권유(權裕)가 상소하여 포장이 죄인을 멋대로 죽인 죄를 논박하였다.

乙卯春特擢公正卿.令與臣鏞撰華城整理通考.方將大用.是年夏捕將趙圭鎭執崔仁吉等三人.奉旨棍殺之.至七月初.大司憲權裕上疏論捕將徑殺之罪.

정약용(丁若鏞),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제15권 묘지명(墓誌銘), 貞軒墓誌銘>

문화/사상

채제공에게 화성에서 온 선비가 시권에 쓴 글자 때문에 낙방하였다고 하소연하였다는 내용.

일찍이 번옹(樊翁)의 석상(席上)에 화성(華城)으로부터 왔다는 어떤 선비가 있어 말하기를,
 “근간 제가 시권(詩卷)에 지이(之而) 두 글자를 썼더니, 유수(留守)가 저를 낙방(落榜)시키고 시권을 여러 사람들에게 돌려보이면서 ‘벽서(僻書)·괴문(怪文)을 어전(御前)에 올릴 수 없다.’고 하므로 저는 부끄럽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승지(承旨) 신광하(申光河)의 시에 지이 두 글자 쓴 것을 분명히 보았으나 그 출전(出典)을 알지 못하여 힐난하지 못했습니다.” 하니, 번옹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왕형공(王荊公 형은王安石)의 봉호(封號)의 시에,

고래 잡느라 파도와 싸우니 / 采鯨抗波濤

바람이 일고 비늘이 서네 / 風作鱗之而

란 것이 있는데, 이 시가 노소(老蘇 소순(蘇洵))의 시를 압도하였으므로 사람들은 왕형공과 노소의 감정이 이 시 때문에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하였다.

嘗於樊翁席上.有儒自華城來.訟之曰.日者我於詩卷.偶用之而二字.留守黜之.以其卷徇于場曰.僻書怪文.不敢奏御.我茲愧憤.我於申承旨光河詩.明見此文.不知所出.不能難.樊翁喟然嘆曰王荊公詩曰采鯨抗波濤.風作鱗之而.此所以壓老蘇.而古人謂王蘇之憾.或出於此.子何不以此答之.

(…)

정약용(丁若鏞),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제15권 묘지명(墓誌銘), 貞軒墓誌銘>

문화/사상

1792년(정조 16) 겨울 정조가 성의 제도에 대해 문의하자 정약용이 유성룡의 『전수기의』, 『무비지』 등을 요약하여 바쳤다는 내용.

《전수기의》는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의 호) 유 문충공(柳文忠公)이 임진왜란(壬辰倭亂) 때에 찬술한 것이다. 임자년(1792, 정조 16) 겨울에 화성(華城 수원(水原))에 성역(城役)이 있었는데, 나는 그때 마침 여묘(廬墓)살이를 하고 있었다. 상(上)이 연신(筵臣 경연관(經筵官))을 시켜서 국조(國朝)의 명신(名臣)으로 성(城)의 제도를 의논해 놓은 것이 있는가를 나에게 물어왔다. 그래서 신이 이 책(《전수기의》)과 모원의(茅元儀)의 《무비지(武備志)》에 기록된 윤경(尹耕)의 보루(堡壘)에 관한 설을 요약하여 대답하였는데, 이 말이 꽤 쓰여졌다. 수개월 뒤에 이 책을 다시 돌려주므로, 마침내 우리 집에 소장하게 되었다. (…)

戰守機宜者.西崖柳文忠.撰述於壬辰倭寇之時者也.壬子冬.有華城之役.臣方居廬.上令筵臣詢之以國朝名臣之有議城制者.臣以此編及茅元儀武備志所載尹耕堡約對.頗見採用.後數月.還降此編.遂得家藏焉.(…)

정약용(丁若鏞),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제14권 발(跋), 跋戰守機宜>

문화/사상

이덕무가 지은 용주사(龍珠寺) 주련(柱聯).

【정술년 9월에 화성(華城)의 용주사가 낙성되니 명을 받고 주련 16구(句)를 지어 올리고 인하여 몸소 가서 각자하는 것을 감독하고 그것을 달았다.】

삼천년 만에 우발화²⁴⁴⁾ 피니 나라의 봄빛 무궁하고 / 三千歲優鉢花長春壽國

십만 종의 보리자²⁴⁵⁾는 복전의 결실일세 / 十萬種菩提子有秋福田

244) 우발화(優鉢花) : 우담발라화(優曇鉢羅花)의 약칭. 3천 년 만에 한 번 꽃이 피는데, 그때에는 금륜왕(金輪王)이 세상에 나온다 한다.

245) 보리자(菩提子) : 1년생의 풀. 열매가 둥글고 단단한 껍질이 있다. 세속에서 염불하는 구슬로 삼는

【위는 호성전(護聖殿)】

팔만 사천 법문²⁴⁶⁾과 함께 피안에 이르고 / 八萬四千法門同臻彼岸
이백 오십 대계²⁴⁷⁾와 함께 미도에서 벗어나네 / 二百五十大戒共拔迷塗

【위는 대웅보전(大雄寶殿)】

이만 리 화가국은 널리 석정 공덕천에 젖고²⁴⁸⁾ / 二萬里和訶國普沾石井功德泉
팔십 경 지타원²⁴⁹⁾은 금이 갈린 땅에 길상의 꽃이 두루 피었네 / 八十頃祇陀園遍開金地吉祥蕊

【위는 시방칠등각(十方七燈閣)】

무진한 환희에 인연을 맺어 극락정토에 머무르고 / 結無盡喜歡緣常住極樂淨土
일체 고뇌를 제거하는 대원자항²⁵⁰⁾으로 건너네 / 除一切苦惱想普渡大願慈航

【위는 극락천원전(極樂天願殿)】

안형 사형 함형의 제불 제천이 천겁을 보호하고 / 雁形獅形鵠形諸佛諸天千劫護
우승 녹승 양승의 선남선녀가 한때에 듣네 / 牛乘鹿乘羊乘善男善女一時聽

【위는 천보루전(天保樓前)】

연화계 패엽경은 불이문의 천둥소리요²⁵¹⁾ / 蓮花偈貝葉經不二門中天籟
향적반 이포찬은 무량겁²⁵²⁾ 전 땅의 밀거름이네 / 香積飯伊蒲饌無量劫前地肥

【위는 천보루후(天保樓後)】

도솔궁에서 대계²⁵³⁾를 품하여 중생을 구제하고 / 兜率宮中稟大偈普濟衆生

-
- 다. 여기서 인용한 뜻은 보리자가 결실하는 것처럼 불법을 닦으면 복을 반드시 받는다는 것이다.
- 246) 팔만 사천 법문(八萬四千法門) : 팔만사천교문, 팔만사천법장이라고도 하며, 부처님의 교법을 통틀어 일컫는 말. 중생에게 팔만 사천의 번뇌가 있으므로 대치(對治)하기 위해 팔만 사천의 법을 말하였다 한다.
- 247) 이백 오십 대계(二百五十大戒) : 구족계(具足戒)와 같은 것. 열반(涅槃)에 친근하다는 뜻인데, 이는 비구·비구니가 받아 지킬 계법으로 비구는 250계 비구니는 348계이다. 이 계를 받으려는 이는 젊은 이로써 몸이 튼튼하여 죄과가 없고 사미계(沙彌戒)를 받은 이에 한한다.
- 248) 이만 리(二萬里) …… 젖고 : 이만리 화가국은 미상하다. 석정(石井)은 《水經 沙水注》에 “상동(湘東) 음산현(陰山縣)에 있는 후담산(候曇山) 위에 석정이 있는데, 평소에 물이 없다가 기도를 할 때에는 물이 솟아난다.” 했고, 공덕천[功德水]은 불가의 말인데, 감(甘)·냉(冷)·연(軟)·경(輕)·청정(淸淨)·불취(不臭)·불손후(不損喉)·음이불상장(飲已不傷腸) 등 여덟 가지의 공덕수가 있다 한다.
- 249) 팔십 경(八十頃) 기타원(祇陀園) : 《金剛經 注》에 “급고독 장자(給孤獨 長者)가 부처님에게 말하기를 “제자(弟子)들이 정사(精舍)를 지어 부처님이 거주하게 한다.” 하고, 기타태자(祇陀太子)의 원림을 사려 하자 기타 태자가 “금을 땅에 깔도록 내놓으면 판다.” 하였다. 급고독이 그대로 금을 주고 그 땅을 사서 정사를 짓고 부처님을 맞아와서 설법하게 하였으니, 기원정사(祇園精舍)가 바로 이것이라 한다.
- 250) 대원자항(大願慈航) : 부처의 큰 소원은 자비로운 불법으로 우매한 중생을 제도하는 데에 있다는 뜻이다.
- 251) 연화계(蓮花偈) …… 천둥소리요 : 연화계는 《묘법연화경(妙法蓮花經)》을 찬양한 글귀이고, 패엽경(貝葉經)은 패다라수(貝多羅樹) 잎에 불경을 기록하였으므로 불경을 패엽경이라고도 하며, 불이문(不二門)은 바로 한결되고 실상된 이치를 말하는데, 피차(彼此)의 분별이 없으므로 불이문이라 하며, 천둥소리는 크게 깨우침을 뜻한다.
- 252) 향적반(香積飯) …… 무량겁(無量劫) : 향적반에 대해서는 《維摩經 香積品》에 “향적여래(香積如來)가 중향발(衆香鉢)에다 만향반(滿香飯)을 담아서 화보살(化菩薩)을 주었다.”는 말이고, 이포찬(伊蒲饌)은 중이 먹는 음식을 말하는데, 《書言故事 釋教類》에 “재(齋) 올리는 음식을 이포찬이라 한다.” 하였으며, 무량겁은 광대한 뜻인데 《攝大乘論釋人》에 “어느 물건과 비유하고 추리하여 알아 낼 수 없는 것을 무량이라 한다.” 하였다.
- 253) 도솔궁(兜率宮)에서 대계(大偈) : 도솔궁은 수미산(須彌山) 꼭대기에 있는 칠보(七寶)로 된 궁전. 석가여래가 전생에 도솔궁에서 머물렀는데, 중생 제도의 인연을 품부받고 이 세계에 내려왔다 하며 대계는 불법을 말한다.

반야대 위에 진전을 부연하여 호겁을 초탈했네 / 般若臺上演眞詮超脫浩劫

【위는 만수리실(曼殊利室)】

곧 불조가 알지 못하는 곳에 이르러도 반도일 뿐이요 / 直到佛祖不知處祇是半塗

또 부모에서 나기 전을 향하여 시험삼아 한 구를 말하네 / 且向父母未生前試道一句

【위는 나유타료(那由他寮)】

龍珠寺柱聯 【庚戌九月.華城之龍珠寺成.承命製進柱聯十六句.仍躬往.監董劖劂以揭之.】

三千歲優鉢花.長春壽國.十萬種菩提子.有秋福田.【護聖殿.】八萬四千法門.同臻彼岸.二百五十大戒.共拔迷塗.【大雄寶殿.】二萬里和訶國.普沾石井功德泉.八十項²⁵⁴⁾祇陀園.遍開金地吉祥蕊.【十方七燈閣.】結無盡喜歡緣.常住極樂淨土.除一切苦惱想.普渡大願慈航.【極樂天願殿.】鴈形獅形鵠形.諸佛諸天千劫護.牛乘鹿乘羊乘.善男善女一時聽.【天保樓前.】蓮花偈貝葉經.不二門中天籟.香積飯伊蒲饌.無量劫前地肥.【天保樓後.】兜率宮中稟大偈.普濟衆生.般若台上演眞詮.超脫浩劫.【曼殊利室.】直到佛祖不知處.祇是半塗.且向父母未生前.試道一句.【那由他寮.】

【己巳冬典牲署書員朴孝彬書】

이덕무(李德懋),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제20권 아정유고 12(雅亭遺稿十二) 응지각체(應旨各體)>

문화/사상

1790년(정조 14) 9월 50세 때 이덕무가 화성부 용주사에 갔다는 내용.

9월 27일에서 30일까지 화산(花山) 용주사(龍珠寺)²⁵⁵⁾에 갔다. 이 절은 화성부(華城府)에 있는데 이해에 새로 지은 것이다. 이보다 앞서 공이 명을 받들어 용주사의 호성전(護聖殿)·대웅보전(大雄寶殿)·시방칠등각(十方七燈閣)·극락대원전(極樂大願殿)·천보루(天保樓) 전후면(前後面)·만수리실(曼殊利室)·나유타료(那由他寮) 주련(柱聯) 등 도합 16구(句)²⁵⁶⁾를 지어 올렸고, 이어서 몸소 가서 각자(刻字)하는 것을 감독하고 그것을 달았다.

또 명을 받들어 금불(金佛)이 완성되는 날 무차대회(無遮大會)²⁵⁷⁾를 열고 상량문(上樑文)을 읽었다. 【관부사(判府事) 채공 제공(蔡公濟恭)이 지은 것이다.】

○九月(…)自二十七日.至三十日.花山龍珠寺進去.寺在華城府.是歲新勑也.先是.公承命撰進龍珠寺護聖殿.大雄寶殿.十方七燈閣.極樂大願殿.天保樓.前後面曼殊利室.那由他寮柱聯凡十六句.仍命馳往董飭開雕以揭之.又命金佛點眼日.設無遮會.宣讀上樑文.【判府事蔡公濟恭所撰也.】

이덕무(李德懋),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제71권 부록하(附錄下), 先考積城縣監府君年譜[下]>

문화/사상

화성(華城) 향교의 대성전에 고유(告由)한 글

254) 項：頃

255) 용주사(龍珠寺)：정조 14년(1790)에 현릉원(顯隆園：사도세자의 묘)의 재사(齋寺)로 지은 것이다. 또 《은중경(恩重經)》을 각인하여 이곳에 보존하였다.

256) 주련(柱聯) …… 16구：《국역 청장관전서》제20권 〈용주사(龍珠寺) 주련(柱聯)〉~ 간본 아정유고 제3권 〈가야산기(伽倻山記)〉까지 참조.

257) 무차대회(無遮大會)：성범(聖凡)·도속(道俗)·귀천·상하의 구별없이 일체 평등으로 재시(財施)와 법시(法施)를 행하는 대법회.

거의 하늘이 내리신 성인인지라 / 天縱將聖
 사람들이 능히 그 덕을 이름할 수 없었고 / 民無能名
 요순보다 훌륭하여 / 賢於堯舜
 만세를 위해 태평을 여시었네 / 萬世太平
 소자가 나아간 곳이 / 小子有造
 호경의 벽옹²⁵⁸이었는데 / 鎬京辟雍
 하물며 이 새 고을에서 / 矧茲新邑
 어찌 공경하지 않으리오 / 曷不敬恭
 공축이 매우 일찍 고하니 / 工祝孔夙
 소와 돼지와 양을 갖추었네 / 牛一豕羊
 길일을 택하여 배알하니 / 吉日載見
 아홉 가지 무늬의 용기가 행차했네 / 龍旂九章

【이상은 정위(正位)인 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 공자(孔子))에게 고한 것임.】

당에 올라 방에 들어감에 / 升堂入室
 부자가 자리에 앉아 계셨네 / 夫子在坐
 우리를수록 더욱 높고 뚫을수록 더욱 견고하여 / 仰彌鑽彌
 문(文)으로써 넓히고 예(禮)로써 요약하게 하셨네 / 博我約我
 사물²⁵⁹을 오직 예에 따르고 / 四勿之禮
 석 달을 인에서 벗어나지 않았네 / 三月之仁
 공자의 제향에 함께 참여하니 / 從與享之
 누항(陋巷)에 파사로운 봄기운이 넘치네 / 氤氲巷春

【이상은 복성공(復聖公 안연(顏淵))에게 고한 것임.】

일관의 가르침에 빨리 대답하니²⁶⁰ / 一貫曰唯
 공자가 군자라고 칭찬하셨네 / 子曰君子
 홍재(弘齋)로써 호를 삼았으니 / 弘以爲扁
 내가 일찍이 홍의(弘毅)의 말²⁶¹에 종사하였네 / 予嘗從事
 자기를 다스리고 남을 다스림에 / 治己治人
 대학(大學)의 팔조목과 삼강령이 있네 / 八條三綱
 도가 있는 곳에 스승이 있으니 / 道在師存
 멀리 마음의 향을 사르네 / 遙爇心香

【이상은 종성공(宗聖公 증삼(曾參))에게 고한 것임.】

258) 벽옹(辟雍) : 주대(周代)에 천자가 세운 태학으로 여기에서는 성균관(成均館)을 뜻한다.

259) 사물(四勿) : 안연(顏淵)이 인(仁)의 조목을 물었을 때 공자가 “예가 아니면 보지 말며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고 대답한 것을 말한다. 《論語 顏淵》

260) 일관(一貫)의 …… 대답하니 : 공자가 증삼(曾參)에게 “나의 도는 하나로써 꿰뚫는다.[吾道一以貫之]”고 말하자, 증삼이 바로 “예.”라고 대답하였다. 《論語 里仁》

261) 홍의(弘毅)의 말 : 증삼이 “선비는 뜻을 크고 군세게 가지지 않을 수 없으니, 임무는 무겁고 도는 멀기 때문이다.[士不可以不弘毅 任重而道遠]”라고 말한 것을 가리킨다. 《論語 泰伯》

성인의 만손자로서 / 聖人冢嫡
 성학의 적통(嫡統)을 이어받았네 / 嫡傳聖學
 대본과 달도로 중화(中和)를 말하고 / 大本達道
 미발과 이발로 성정(性情)을 설명했네 / 未發已發
 말을 받은 것이 어긋남이 없었으니 / 受言無斁
 선을 밝힘과 몸을 성스럽게 함이었네 / 明善誠身
 성대하도다 덕이여 / 盛矣爲德
 이 정성스러운 제사에 이르소서 / 格此精禋
 【이상은 술성공(述聖公 공급(孔伋), 즉 자사(子思))에게 고한 것임.】

성선(性善)을 말할 때 반드시 요순을 일컫고 / 必稱堯舜
 인과 의를 아울러 언급하였네 / 兼言仁義
 호연지기(浩然之氣)가 강대하여 / 其氣剛大
 천지의 사이에 가득하다 하였네 / 塞于天地
 큰 주먹 큰 발과 / 麤拳大踢
 태산교악의 기상이었네 / 泰山喬嶽
 맹자의 부동심(不動心)을 배우길 원하노니 / 願學夫子
 내가 지금 그 나이인 마흔일세²⁶²⁾ / 予今四十
 【이상은 아성공(亞聖公 맹가(孟軻))에게 고한 것임.】

화열(和悅)한 민자건(閔子騫)이여 / 閭閻閔子
 안연 증삼과 같은 반열이었네 / 顏曾是班
 말하면 반드시 이치에 들어맞고 / 言必有中
 효성스러워 남들이 그 부형의 말에 의심이 없었네 / 孝哉無間
 백대의 후에 옛일을 논하니 / 百世尙論
 문수(汶水)가에 민자의 고향이 있네²⁶³⁾ / 高風汶上
 맑은 술을 올리니 / 薦以清醕
 일찍부터 내가 경앙(景仰)함이었네 / 宿予景仰
 【이상은 비공(費公) 민손(閔損)에게 고한 것임.】

남면하게 함 직하다고²⁶⁴⁾ / 可使南面
 공자께서 염옹(冉雍)을 허여하셨네 / 聖許冉也
 간약(簡約)한 덕을 인정할 만하니 / 可也簡耳
 성벽을 견고히 하고 들판을 깨끗이 치운 기상이었네 / 堅壁清野

262) 내가 …… 마흔일세 : 맹자가 공손추(公孫丑)와의 문답에서 부동심을 말할 때 “나는 나이가 마흔인 지라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我四十不動心]”고 하였다. 이때 정조의 나이가 마흔이 조금 넘었기 때 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孟子 公孫丑上》

263) 문수(汶水)가에 …… 있네 : 노(魯) 나라 계씨(季氏)가 사람을 시켜서 자신의 사읍인 비(費)에 민자 건(閔子騫)을 읍재(邑宰)로 삼으려는 뜻을 전하자 민자건이 “만일 다시 나를 찾는 일이 있으면 나는 반드시 문수가에 가 있으리라.” 하며 완강하게 사양하였다. 《論語 雍也》

264) 남면(南面)하게 함 직하다고 : 남면은, 임금이 조정에서 정사를 듣는 자리를 남향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공자가 제자 염옹을 두고 남면하게 할 만하다고 말한 일이 있다. 《論語 雍也》

백성을 부림에 제사를 받드는 듯이 하고 / 使民如祭
문을 나서면 큰 손님을 맞는 듯이 하라 배웠네 / 出門如賓
오직 말을 잘하지 못하는지라 / 惟其不佞
이로써 인이 되었도다 / 是以爲仁

【이상은 설공(薛公) 염옹(冉雍) 중궁(仲弓)에게 고한 것임.】

한번 나가서 노 나라를 보존하니 / 一出存魯
공은 실로 변론을 잘했도다 / 公實善辯
어찌 오직 변론만 잘했을 뿐이리오 / 豈惟善辯
그 기량이 호련²⁶⁵의 그릇이었네 / 其器瑚璉
공자의 담장은 높이가 몇 길이라 했으니 / 牆高數仞
이미 그 아름답고 넉넉함을 봄이었네 / 已見美富
지난 것을 고함에 올 것을 아니²⁶⁶ / 告往知來
천세가 후에 있도다 / 千歲在後

【이상은 여공(黎公) 단목사(端木賜) 자공(子貢)에게 고한 것임.】

승부²⁶⁷의 뜻이 있었고 / 乘桴之志
임혁²⁶⁸의 강함이 있었네 / 衽革之強
정사에 종사함에 무슨 어려움이 있었으랴 / 何有從政
당에 오른 것으로 허여를 받았네 / 許以升堂
해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으니 / 不伐不求
증자(曾子)의 외우었네 / 曾氏畏友
금회(襟懷)를 접하는 듯하니 / 如接襟期
대두의 술을 따르네 / 酌以大斗

【이상은 위공(衛公) 중유(仲由) 자로(子路)에게 고한 것임.】

군자유가 되라는 가르침을 받았고 / 爲君子儒
어진 이를 어질게 여기되 호색의 마음으로 바꾸었네 / 賢賢易色
어느 것은 전하며 어느 것은 게을리 했으리오 / 孰傳孰倦
제자들을 가르치기를 잘 하였네 / 善哉誘掖
시경에 서를 붙이고 예를 잘 알았으니 / 序詩知禮

265) 호련(瑚璉) : 종묘의 제사에서 서직(黍稷)을 담는 제기로 하 나라의 제기는 호(瑚), 상 나라의 제기는 연(璉)이었는데, 조정에 높고 귀하게 쓰일 기량을 비유할 때 쓰인다. 공자가 제자 자공(子貢)을 평하여 호련(瑚璉)이라고 한 일이 있다. 《論語 公冶長》

266) 지난 것을 …… 아니 : 공자가 자공(子貢)에게 빈부에 처하는 자세를 예로 들어 의리의 무궁함을 일러 주었을 때 자공이 그 이치를 ‘절차탁마’의 시(詩)로써 깨친 바를 말하자, 공자가 “자공은 비로소 더불어 시를 말할 만하다. 지난 것을 고함에 올 것을 아는구나.”라고 하였다. 《論語 雍也》

267) 승부(乘桴) : 뗏목을 타고 바다에 뜨는 것으로 공자가, 도가 행해지지 않아 뗏목을 타고 바다에 떠서 다른 곳으로 간다면 그때 자기를 따를 사람은 아마 자로(子路)일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 《論語 公冶長》

268) 임혁(衽革) : 금혁(金革), 즉 병기와 투구를 늘 깔고 처하는 강함을 말한다. 자로가 공자에게 ‘강(強)’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가 이 ‘임혁’을 북방의 강으로 강자가 여기에 처한다고 말한 바 있다. 《中庸章句 第10章》

자유(子游)와 과목을 같이하였네²⁶⁹⁾ / 與游同科

십철에게 아울러 제사를 드리니 / 竝侑十哲

술이 달고 또한 순하네 / 酒旨且和

【이상은 위공(魏公) 복상(卜商 자하(子夏))에게 고한 것임.】

맹자가 돌아가신 이후로 / 自孟氏後

천오백 년이 지나서 / 千五百年

우리 염계(濂溪)를 얻으니 / 得我濂翁

끊어졌던 학문이 비로소 전하였네 / 絕學始傳

무극으로 주역(周易)을 발휘하고 / 無極贊易

주정으로 중용(中庸)을 기술했네 / 主靜述庸

저 길가의 물을 따라 드림에 / 酌彼行潦

길이 광풍제월(光風霽月)을 접하네 / 永挹光風

【이상은 도국공(道國公) 주자(周子 주돈이(周敦頤))에게 고한 것임.】

공의 나이 열여덟에 / 公年十八

이미 안자(顏子)의 학문을 알았네 / 已識顏學

이에 춘추(春秋)를 서술하고 / 乃叙麟經

이에 주역(周易)을 훈고했네 / 乃詁犧易

도는 엄숙함에서 높았고 / 道尊於嚴

공부는 경에 독신했네 / 工篤於敬

그 용이 치우치지 않았으니 / 其用不陂

동정을 꿰뚫어 통하였네 / 通貫動靜

【이상은 낙국공(洛國公) 정자(程子 정이(程頤))에게 고한 것임.】

편우와 정완²⁷⁰⁾과 / 砭愚訂頑

그리고 정성서²⁷¹⁾는 / 暨夫定性

천 년을 뛰어넘어 묘하게 함하여 / 千載妙契

곧바로 맹자에 닿는 것이었네 / 直接鄒聖

흥국²⁷²⁾에서 한 번 모임에 / 興國一會

풍성(風聲)을 들은 사람이 흥기하였네 / 聞風者起

269) 자유(子游)와 …… 같이하였네 : 공자가 문하의 제자들을 두고 “덕행에는 안연(顏淵), 민자건(閔子騫), 염백우(冉伯牛), 중궁(仲弓)이고, 언어에는 재아(宰我), 자공(子貢)이고, 정사에는 염유(冉有), 계로(季路)이고, 문학에는 자유(子游), 자하(子夏)이다.”라고 말했는데, 이른바 덕행·언어·정사·문학을 ‘공문 사과(孔門四科)’라고 말하고 열거한 열 명의 제자를 ‘공문 십철(孔門十哲)’이라고 한다. 《論語先進》

270) 편우(砭愚)와 정완(訂頑) : 송 나라 때 장재(張載)가 처음 서실의 양쪽 문에 명(銘)을 지어 붙여 동쪽은 편우, 서쪽은 정완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지금 각기 동명(東銘)과 서명(西銘)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진다.

271) 정성서 : 송 나라 때 정호(程顥)가 장재(張載)에게 답한 글로서, 그 설이 주돈이(周敦頤)의 태극도설(太極圖說)과 서로 표리가 된다고 한다.

272) 흥국(興國) : 흥국사(興國寺)로, 정호(程顥)가 장재(張載)와 함께 흥국사에서 종일 강론한 일이 있었다. 《近思錄 卷14》

양양하게 함께 이르니 / 洋洋偕格
 주자(周子) 정자(程子) 등의 군자일세 / 周程諸子
 【이상은 미백(郿伯) 장자(張子 장재(張載))에게 고한 것임.】

덕은 성품에 충실하고 / 德充于性
 행실은 몸에 닦았도다 / 行修於身
 진채(陳蔡)에서 따르고 문하에 미쳤으니²⁷³⁾ / 在陳及門
 안연(顔淵)에 버금가고 민자건(閔子騫)과 동류일세 / 顔亞閔隣
 저 성인의 훈계를 보니 / 視彼聖訓
 백세에 아름다운 이름일세 / 百載懿名
 여러 제자들과 함께 배향을 하니 / 徧于配食
 제사를 드리는 일이 매우 밝다네 / 祀事孔明
 【이상은 운공(鄆公) 염경(冉耕 백우(伯牛))에게 고한 것임.】

공자의 종묘와 백관을 / 宗廟百官
 누가 능히 볼 수 있으리오 / 人孰能窺
 우뚝하게 보기를 잘했으니 / 卓乎善觀
 아무리 낯더라도 사정에 따라 아부하지 않았네 / 汙不阿私
 사령을 닦는 언어에는 / 辭令之修
 단목사(端木賜)와 백중이었네 / 伯仲端木
 위차(位次)가 전우에 있으니 / 位居殿右
 이 잔을 드리네 / 注茲洞酌
 【이상은 제공(齊公) 재여(宰予 자아(子我))에게 고한 것임.】

진실하도다 자유여 / 允矣子有
 천실의 읍과 백승의 집을 다스릴 재능이었네 / 千室百乘
 성급하게 나아가는 자 물러나게 하신 것은²⁷⁴⁾ / 進則退之
 덕이 닦이고 도가 응결되게 하려 함이었네 / 德修道凝
 또한 각기 자신의 뜻을 말하게 함에 / 亦各言志
 백성을 풍족하게 할 수 있다 하였네 / 可使足民
 낭야의 싸움에 / 郎野師旅
 어찌 경륜을 펼칠 것인가 / 豈展彌綸
 【이상은 서공(徐公) 염구(冉求 자유(子有))에게 고한 것임.】

273) 진채(陳蔡)에서 …… 미쳤으니 : 공자가 일찍이 진 나라와 채 나라에서 곤액을 당했는데, 당시에 공자를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거의 문하에 남아 있지 않자 이를 애석하게 여긴 공자가 “진 나라와 채 나라에서 나를 따르던 자들이 지금은 모두 문하에 없구나.[從我於陳蔡者 不及門也]” 하였다. 《論語 先進》

274) 성급하게 …… 것은 : 자로(子路)가 공자에게 옳은 것을 들으면 실행해야 하는지를 물었을 때 “부형이 계시는데 어찌 실행하겠는가.”라고 대답하였으나, 염구가 물었을 때는 “실행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공서화(公西華)가 그 이유를 묻자 “염구는 물러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게 한 것이고, 자로는 너무 나아가려 하므로 물러나게 한 것이다.” 하였다. 《論語 先進》 여기에서는 이 대목을 착각하여 거꾸로 인용한 듯하다.

무성의 현가²⁷⁵)를 들으시고 / 武城絃歌
 공자께서 빙그레 웃으셨네 / 夫子莞爾
 정사와 문학이 / 政事文學
 무엇인들 구비되지 않았으리오 / 何適不備
 사람을 알아봄이 명철하니 / 知人爲哲
 능히 담대²⁷⁶)를 얻었도다 / 能得澹臺
 엄숙하게 내가 옷깃을 여미니 / 肅予斂衽
 제사에 드리는 술잔이 정연하네 / 有秩尊壘
 【이상은 오공(吳公) 언언(言偃 자유(子游))에게 고한 것임.】

덕을 높이고 인에 의귀(依歸)하며 / 崇德依仁
 언제 어디서건 충신(忠信)하고 독경(篤敬)하라 가르치셨네 / 參前倚衡
 공자의 말씀을 듣고 의관의 띠에 썼으니 / 聞斯書紳
 그 정성이 돈독하다 할 만하였네 / 曰篤其誠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것은 / 過猶不及
 공자께서 중도(中道)를 갖추기를 책려한 바일세 / 聖所責備
 당당한 자장이여 / 堂堂張也
 사악을 물리치고 오미를 높였네²⁷⁷) / 屏惡尊美
 【이상은 영천후(潁川侯) 전손사(顯孫師 자장(子張))에게 고한 것임.】

자질은 상지에 가깝고 / 資隣上智
 덕은 천연으로 이루어졌네 / 德維天成
 거의 흔적이 없었으니 / 庶幾無跡
 성하게 봄기운이 생겨났네 / 藹然春生
 타고난 것을 성이라 하였으니 / 生之謂性
 공맹(孔孟)을 크게 드러내었네 / 丕闡洙泗
 내가 배우기를 원함은 / 予之願學
 오직 백정씨일세 / 惟伯程氏
 【이상은 예국공(芮國公) 정자(程子 정호(程顥))에게 고한 것임.】

호걸의 재질을 타고나 / 豪傑之才
 성현의 학문을 추구하였네 / 聖賢之學
 원회의 운세를 풀이하였고 / 元會運世
 오행(五行)과 팔음(八音)의 원리를 밝혔네 / 水火土石

275) 무성(武城)의 현가(絃歌) : 무성은 춘추 시대 노 나라의 하읍(下邑)으로 공자의 제자 자유(子游)가 무성의 수령이 되어 예악(禮樂)으로써 정사를 펴자 백성들이 이에 교화되어 현가를 일삼게 되었는데, 공자가 이를 듣고 빙그레 웃었다. 《論語 陽貨》
 276) 담대(澹臺) : 춘추 시대 노 나라의 무성(武城) 사람으로 충직한 성품을 가졌던 담대멸명(澹臺滅明)을 말한다. 담대는 그의 성이다. 공자가 무성의 수령이 된 자유에게 인재를 얻었는가를 묻자 이 사람을 얻었다고 하였다. 《論語 雍也》
 277) 사악을 …… 높였네 : 자장(子張)이 공자에게 정사에 종사할 조건을 묻자 공자가 오미(五美)는 높이고 사악(四惡)은 물리치라고 대답하였다. ‘오미’와 ‘사악’은 《논어(論語)》 요왈편(堯曰篇)에 상세히 보인다.

주역(周易)의 삼십육궁에 / 三十六宮

춘의가 가없었네 / 春意無邊

우리의 철명을 점치니 / 卜我哲命

아, 천만년을 가리라 / 於千萬年

【이상은 신안백(新安伯) 소자(邵子 소옹(邵雍))에게 고한 것임.】

성대하도다 부자여 / 猗歟夫子

내가 종사로 섬기는 바로다 / 予所宗師

금옥의 조리로서 집대성하니 / 金玉條理

일성과 같은 광휘를 드러내었네 / 日星光輝

손수 전서를 편찬하여 / 手編全書

읽기를 쉬지 않고 부지런히 하였네 / 讀之亹亹

선경 후경에 / 先庚後庚

빛나게 돕고 돈독하게 도우소서 / 光佑篤棐

【이상은 휘국공(徽國公) 주자(朱子 주희(朱熹))에게 고한 것임.】

신라가 영남에 나라를 정하여 / 維羅宅嶺

우뚝이 홍유를 배출하였네 / 挺出弘儒

방언으로 구경을 풀이하니 / 方言解經

이례에 길을 열었네 / 吏禮開途

사문을 창도하여 일으키니 / 倡起斯文

오도가 곧 동방에 전해졌네 / 吾道乃東

장차 선성께 참배하러 / 將拜先聖

잔대에 예주(醴酒)를 따르네 / 酌醴于豐

【이상은 홍유후(弘儒侯) 설충(薛聰)에게 고한 것임. - 이하는 동무(東廬)에 배향되었음】

진실로 문성공은 / 展也文成

소왕의 충신이었네 / 素王忠臣

주형과 옥두로 / 珠衡玉斗

우리나라 사람들을 비추었네 / 照我東人

원(元) 나라 저자에서 서적을 사들임이 / 燕肆購書

경서(經書)가 아니면 사서(史書)였네 / 非經則史

만나지 못함을 애석해하며 / 惜不遘爾

이 밝은 잔을 드리나이다 / 薦此明觴

【이상은 문성공(文成公) 안유(安裕)에게 고한 것임.】

천덕과 왕도가 / 天德王道

소학으로부터 나오네 / 出自小學

말이 남팔²⁷⁸)에게 미치면 / 語次南八

278) 남팔(南八) : 남팔은 당(唐) 나라의 남제운(南霽雲)으로, 안녹산의 난에 끝까지 수양(睢陽)을 지키다가 장렬하게 죽은 자이다. 남팔이라 한 것은 형제 중 여덟 번째여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기대승(奇大)

강개하여 세 번 반복하였네 / 慷慨三復

당은 빛났으며 / 黨籍光華

가범을 얻었다네 / 得之家範

누가 공과 더불어 우뚝함을 견주리오 / 孰與公卓

이 잔의 진한 술을 흠향하소서 / 歆此尊醕

【이상은 문경공(文敬公) 김굉필(金宏弼)에게 고한 것임.】

공이 경연(經筵)에 처함에 / 公處筵幄

요사²⁷⁹⁾를 만회할 뜻을 품었네 / 志挽姚姒

붙잡고 깨우쳐서 함께 돌아가려 한 것은 / 攀牖同歸

추월이 한수를 비춤이었네²⁸⁰⁾ / 秋月寒水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이치가 없으니 / 理無不還

왕도가 지극히 평탄하였네 / 王道平平

서원에 제향하고 남은 생각에 / 侑院餘思

이 변두의 제기를 청결하게 갖추었네 / 絜此豆籩

【이상은 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에게 고한 것임.】

주서백선(朱書百選)을 편찬할 때 / 選百朱書

주서절요(朱書節要)를 준칙으로 삼았으니 / 節要是準

우리 대유를 준칙으로 하여 / 準我大儒

후진을 가르치고자 함이었네 / 以詔後進

증자(曾子)의 독실함과 정자(程子)의 온화함에 / 曾篤程和

맹자의 확연(廓然)함과 주자의 함홍(涵泓)을 견비했네 / 孟廓朱涵

어렵פות이 우의²⁸¹⁾를 접하는 듯하니 / 悅接羽儀

단침이 함에 담겨 있다네 / 丹籤在函

【이상은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에게 고한 것임.】

사숙공(思肅公)의 손자이자 / 思肅之孫

문정공(文貞公)의 아들이며 / 文貞之子

문성공(文成公)의 벗이었으니²⁸²⁾ / 文成之友

연원이 비롯한 바가 있었네 / 淵源有自

升)이 지은 김굉필(金宏弼)의 행장(行狀)을 보면, 김굉필이 한퇴지(韓退之)의 글을 읽기 좋아하여 장중 승전후서(張中丞傳後叙)에 장순(張巡)이 적에게 죽을 때 남제운을 부르며 “남팔아, 남아는 죽을지언정 불의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대목에 이를 때마다 자주 반복해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한다.

279) 요사(姚姒) : 순임금과 우임금을 가리킨다. 순은 요성(姚姓)이고 우는 사성(姒姓)이었으므로 일컫는 말이다.

280) 추월(秋月)이 …… 비춤이었네 : 주희(朱熹)의 재거감흥(齋居感興) 20수 중 제5수에 “공손히 천 년의 마음을 생각하니, 추월이 한수를 비추었네.[恭惟千載心 秋月照寒水]”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281) 우의(羽儀) : 《주역(周易)》 점괘(漸卦) 상구(上九)에 “기러기가 날아가니 그 털을 의식 때에 쓸 수 있어 좋다.[鴻漸于陸 其羽可用爲儀 吉]”에서 나온 말인데, 지위가 높고 재덕이 있어 남의 존중을 받고 모범이 되는 것을 비유한다.

282) 사숙공(思肅公)의 …… 벗이었으니 : 사숙공은 성세순(成世純), 문정공(文貞公)은 성수침(成守琛), 문성공(文成公)은 이이(李珥)를 각각 가리킨다.

이러한 사람을 어디에서 얻을 것인가 / 何處得來
 나의 생각이 유유하다네 / 我思瀟瀟
 경사가 해마다 이르리니 / 慶與年至
 이로써 편안함을 노래하네 / 是以詠綏
 【이상은 문간공(文簡公) 성혼(成渾)에게 고한 것임.】

공은 대로의 덕이 있어 / 公惟大老
 빛나게 대성전에 배향되었네 / 光躋聖廡
 나라의 방침과 사람의 윤리로서 / 國是民彝
 우주를 지탱하였네 / 撐宙亘宇
 서원의 제향을 / 俎豆之脩
 우리나라 안에서 두루 받았네 / 幾遍我境
 이해의 이 행차에 / 是年是行
 먼저 경사를 고한다네 / 迺先告慶
 【이상은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에게 고한 것임.】

옛적 우리 영왕께서 / 昔我寧王
 황극(皇極)을 세워 다스림을 베푸실 때 / 建極敷治
 과당의 대립을 중재하시니 / 杯酒戈鋌
 주도가 평평하였네 / 周道夷夷
 숙종의 묘정(廟庭)에 경을 올려 배향하니 / 卿之躋配
 시기로 보건대 그러함이었네 / 以時則然
 여기에 이르러 제향에 참여하게 하여 / 侔來與共
 변두(籩豆)의 제기를 하나씩 갖추었네 / 一豆一籩
 【이상은 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에게 고한 것임.】

봉암의 빼어난 정기를 타고나 / 鳳巖秀精
 북으로 중원에 가서 배웠네 / 北學中原
 붓으로 계원을 경작하여 / 筆畊桂苑
 널리 그 울타리를 넓혔네 / 廣拓墻藩
 동국의 문장을 창도함은 / 東文之昌
 공이 실로 조종(祖宗)이었네 / 公實爲宗
 지금 화성에서 보게 됨에 / 時觀于華
 먼저 술잔을 권한다네 / 先侑盞鍾
 【이상은 문창공(文昌公) 최치원(崔致遠)에게 고한 것임. - 이하는 서무(西廡)에 배향되었음】

몸은 정학을 창도하고 / 身倡正學
 손에는 대강을 잡았다네 / 手持大綱
 赫赫하게 밝은 해와 별이 / 赫日明星
 만고에 동방을 비추네 / 萬古東方

성인이 다시 일어나더라도 / 聖人復起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알리라 / 知無間然
현주가 당에 있으니 / 玄酒在堂
길한 날을 이에 택하였네 / 穀朝斯涓

【이상은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에게 고한 것임.】

황화가 동쪽으로 달려 / 皇華東馳
그 이름을 아름답게 주었도다 / 厥名嘉錫
점필재(佔畢齋)의 문하에 / 佔門下
훌륭한 제자가 이에 계승하였네 / 賢弟是述
두류산(頭流山) 천만 봉우리 속에 / 頭流千疊
지팡이를 끌며 소요하였네 / 逍遙杖屨
문헌공이 여기에 있으니 / 文獻在茲
조석으로 함께 만나겠네 / 朝暮與遇

【이상은 문헌공(文獻公) 정여창(鄭汝昌)에게 고한 것임.】

중종조(中宗朝)의 봉황 같은 상서였고 / 中朝鳳瑞
효릉과는 고기와 물이 만난 듯하였네 / 孝陵魚水
팔조에 대하여 대학장구보유(大學章句補遺)를 지었고 / 八條補遺
구경에 대하여 증용구경언의(中庸九經衍義)를 지었네 / 九經衍義
오히려 심획이 있었으니 / 尙有心畫
나의 몇 줄 글을 서문으로 실었네 / 弁我十行
오현 가운데 한 분이니 / 五賢中一
누가 감히 서로 우열을 건줄 것인가 / 孰敢雌黃

【이상은 문원공(文元公) 이언적(李彦迪)에게 고한 것임.】

하늘이 영호한 인걸을 낳았으니 / 天挺英豪
도덕과 경륜이 드높았네 / 道德經綸
주자(朱子)의 무이와 울곡(栗谷)의 석담 / 武夷石潭
천고에 오직 두 사람이 있을 뿐일세 / 千古二人
내가 그림으로 그리게 하였으니 / 我儀圖之
어두운 거리에 해와 별처럼 빛나네 / 日星昏衢
성대한 전례를 장차 행하려 함에 / 盛典將講
먼저 맑은 술을 올리네 / 先奠清醑

【이상은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珣)에게 고한 것임.】

공은 예학(禮學)에 조예가 깊어 / 公邃于禮
절문이 매우 밝았네 / 節文昭朗
풍속이 예로 인하여 후하게 되니 / 俗因禮厚
이로써 추향을 바르게 하였네 / 用正趨向
지금 나의 이 행차는 / 今予是行

대개 인정에 따른 것일세 / 蓋緣人情
만일 공이 듣는다면 / 如公聞者
오히려 또한 영화로 여기리라 / 尙亦與榮

【이상은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에게 고한 것임.】

아름다운 문정공이여 / 美如文正
옥처럼 고상하고 순결한 덕이었네 / 旁達孚尹
자리는 남에게 보임을 멀리하고 / 坐遠標榜
마음속엔 까다로운 경계를 허물었네 / 襟寬畦畛
나아가기를 물러나듯이 하여 / 進而若退
조정과 산야에 오갔네 / 巖廊山野
같은 시기에 같은 덕을 지닌 이로서 / 同時同德
양송²⁸³⁾이 좌우로 있네 / 兩宋左右

【이상은 문정공(文正公) 송준길(宋浚吉)에게 고한 것임.】

天縱將聖.民無能名.賢於堯舜.萬世太平.小子有造.鎬京辟雍.矧茲新邑.曷不敬恭.工祝孔夙.牛一豕羊.吉日載見.龍旂九章.

【右正位大成至聖文宣王】

升堂入室.夫子在坐.仰彌鑽彌.博我約我.四勿之禮.三月之仁.從與享之.氤氲巷春.

【右復聖公】

一貫曰唯.子曰君子.弘以爲扁.予嘗從事.治己治人.八條三綱.道在師存.遙瓣心香.

【右宗聖公】

聖人冢嫡.嫡傳聖學.大本達道.未發已發.受言無斂.明善誠身.盛矣爲德.格此精禋.

【右述聖公】

必稱堯舜.兼言仁義.其氣剛大.塞于天地.巖拳大踢.泰山喬嶽.願學夫子.予今四十.

【右亞聖公】

閭閻閔子.顏曾是班.言必有中.孝哉無間.百世尙論.高風汶上.薦以清醑.宿予景仰.

【右費公閔損】

可使南面.聖許冉也.可也耳.堅壁清野.使民如祭.出門如賓.惟其不佞.是以爲仁.

【右薛公冉雍】

一出存魯.公實善辯.豈惟善辯.其器瑚璉.墻高數仞.已見美富.告往知來.千歲在後.

【右黎公端木賜】

乘桴之志.衽革之強.何有從政.許以升堂.不佞不求.曾氏畏友.如接襟期.酌以大斗.

【右衛公仲由】

爲君子儒.賢賢易色.孰傳孰倦.善哉誘掖.序詩知禮.與游同科.竝侑十哲.酒旨且和.

【右魏公卜商】

自孟氏後.千五百年.得我濂翁.絕學始傳.無極贊易.主靜述庸.酌彼行潦.永挹光風.

【右道國公周子】

公年十八.已識顏學.乃叙麟經.乃詁犧易.道尊於嚴.工篤於敬.其用不陂.通貫動靜.

【右洛國公程子】

矻愚訂頑.暨夫定性.千載妙契.直接鄒聖.興國一會.聞風者起.洋洋偕格.周程諸子.

283) 양송(兩宋) : 송준길(宋浚吉)과 송시열(宋時烈)을 가리킨다.

【右鄆伯張子】

德充于性，行修於身，在陳及門，顏亞閔隣，視彼聖訓，百載懿名，徧于配食，祀事孔明。

【右鄆公冉耕】

宗廟百官，人孰能窺，卓乎善觀，汙不阿私，辭令之修，伯仲端木，位居殿右，注茲洞酌。

【右齊公宰予】

允矣子有，千室百乘，進則退之，德修道凝，亦各言志，可使足民，郎野師旅，豈展彌綸。

【右徐公冉求】

武城絃歌，夫子莞爾，政事文學，何適不備，知人爲哲，能得澹臺，肅予斂衽，有秩尊疊。

【右吳公言偃】

崇德依仁，參前倚衡，聞斯書紳，曰篤其誠，過猶不及，聖所責備，堂堂張也，屏惡尊美。

【右潁川侯顓孫師】

資隣上智，德維天成，庶幾無跡，藹然春生，生之謂性，丕闡洙泗，予之願學，惟伯程氏。

【右芮國公程子】

豪傑之才，聖賢之學，元會運世，水火土石，三十六宮，春意無邊，卜我哲命，於千萬年。

【右新安伯邵子】

猗歟夫子，予所宗師，金玉條理，日星光輝，手編全書，讀之疊疊，先庚後庚，光佑篤棐。

【右徽國公朱子】

維羅宅嶺，挺出弘儒，方言解經，吏禮開途，倡起斯文，吾道乃東，將拜先聖，酌醴于豐。

【右弘儒侯薛聰 以下東廡】

展也文成，素王忠臣，珠衡玉斗，照我東人，燕肆購書，非經則史，惜不遘爾，蔽此明輝。

【右文成公安裕】

天德王道，出自小學，語次南八，慷慨三復，黨籍光華，得之家範，孰與公卓，歆此尊醴。

【右文敬公金宏弼】

公處筵幄，志挽姚姒，攀牖同歸，秋月寒水，理無不還，王道平平，侑院餘思，絜此豆籩。

【右文正公趙光祖】

選百朱書，節要是準，準我大儒，以詔後進，曾篤程和，孟廓朱涵，悅接羽儀，丹籤在函。

【右文純公李滉】

思肅之孫，文貞之子，文成之友，淵源有自，何處得來，我思瀾瀾，慶與年至，是以詠綏。

【右文公成渾】

公惟大老，光躋聖廡，國是民彝，撐宙亘宇，俎豆之膺，幾遍我境，是年是行，迺先告慶。

【右文正公宋時烈】

昔我寧王，建極敷治，杯酒戈鋌，周道夷夷，卿之躋配，以時則然，倅來與共，一豆一籩。

【右文純公朴世采】

鳳巖秀精，北學中原，筆畊桂苑，廣拓墻藩，東文之昌，公實爲宗，時觀于華，先侑盎鍾。

【右文昌公崔致遠 以下西廡】

身倡正學，手持大綱，赫日明星，萬古東方，聖人復起，知無間然，玄酒在堂，穀朝斯涓。

【右文忠公鄭夢周】

皇華東馳，厥名嘉錫，佔門下，賢弟是述，頭流千疊，逍遙杖屨，文獻在茲，朝暮與遇。

【右文獻公鄭汝昌】

中朝鳳瑞，孝陵魚水，八條補遺，九經衍義，尙有心畫，弁我十行，五賢中一，孰敢雌黃。

【右文元公李彥迪】

天挺英豪.道德經綸.武夷石潭.千古二人.我儀圖之.日星昏衢.盛典將講.先奠清醑.

【右文成公李珣】

公邃于禮.節文昭朗.俗因禮厚.用正趨向.今予是行.蓋緣人情.如公聞者.尚亦與榮.

【右文元公金長生】

美如文正.旁達孚尹.坐遠標榜.襟寬畦畛.進而若退.巖廊山野.同時同德.兩宋右左.

【右文正公宋浚吉】

<홍재전서(弘齋全書), 제23권 제문(祭文) 5, 華城聖廟告由文>

문화/사상

궐리사(闕里祠)에 정경(正卿)을 보내어 잔을 올리는 글

공자의 사당이 / 夫子之祠

천하에 두루 퍼져 있는데 / 遍於天下

이제 화성에다 세우게 되었으니 / 義起華城

어찌 까닭이 없으리오 / 豈無以也

공자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와서 / 雲仍東來

이곳에 집터를 정하고 살았는데 / 于茲爰宅

땅에 물이 두루 통함과 같으니 / 在地如水

여기를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 捨而奚適

원침을 받들면서부터 / 自奉園寢

상재²⁸⁴)도 오히려 공경했거늘 / 桑梓猶敬

하물며 궁장이 / 矧乎宮牆

선성에 매우 가까움에랴 / 密邇宣聖

괴시(槐市)와 행단(杏壇)에서 / 市槐壇杏

향금과 기슬을 들으니 / 巷琴沂瑟

나의 옷매무새가 가지런하고 / 我衣之振

나의 패옥(佩玉)이 정결하네 / 我佩之潔

자궁(慈宮)의 행차가 이른 곳이 / 慈駕來臨

신풍의 관도이니 / 新豐官道

빈조²⁸⁵)를 드리는 예를 이루고 / 禮成薦藻

은혜는 양로연(養老宴)에 미치네 / 恩暨養老

예림과 확포²⁸⁶)에 / 藝林豐圃

문무의 일이 갖추어졌으니 / 文事武備

여러 백성들을 이르게 하여 / 徠汝赤子

또한 음식을 나누어 주네 / 亦授之食

효경에서는 어버이를 드리냄을 말했고 / 孝經顯親

284) 상재(桑梓) : 뽕나무와 가래나무로, 부모가 집 주위에 심어서 자손에게 남겨 양잠(養蠶)과 기용(器用)에 쓰도록 한 것이다. 《시경(詩經)》 소아(小雅) 소반(小弁)에 “뽕나무와 가래나무도 반드시 공경해야 한다.[維桑與梓 心恭敬止]” 하였다.

285) 빈조(蘋藻) : 빈과 조는 각각 수초의 이름이다. 옛사람들이 이를 채취하여 항상 제사에 썼으므로 후대에는 제사드리는 것을 대신 일컬었다.

286) 확포(豐圃) : 확상포(豐相圃). 중국 산둥성 곡부현 궐리(闕里)의 서쪽에 있던 곳으로, 공자가 여기에 서 대사례(大射禮)를 행하였다. 《禮記 射義》

논어에서는 백성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 魯論愛民
 지척의 밝은 가르침을 / 咫尺明訓
 마치 순순하게 듣는 듯하네 / 若聆諄諄
 이때 이곳에서 / 是時是境
 어찌 정성을 펼치지 않으리오 / 曷不展忱
 이에 제기를 깨끗하게 갖추었으니 / 載鐫銅豆
 제문이 함에 담겨 있나이다 / 有文在函
 <홍재전서(弘齋全書), 제23권 제문(祭文)5, 闕里祠遣正卿奠酌文>

문화/사상

수원(水原) 신읍(新邑)의 향교(鄉校)에 위패(位牌)를 봉안할 때의 고유문
 비로소 선침의 터를 정하니 / 肇卜先寢
 화산의 언덕일세 / 在花山阡
 민사를 다시 이루니 / 民社改治
 향교도 따라 옮기게 되었네 / 校宮隨遷
 팔달산 아래에 지으니 / 作之八達
 공사를 마치고 길일을 택하였네 / 功奏吉涓
 희생과 예주(醴酒)를 갖추어 봉안하니 / 妥以牲醴
 두 기둥 사이에 모습이 의연하네 / 兩楹依然
 우리 사문을 열어서 / 啓我斯文
 길이 만년토록 의뢰하게 하소서 / 永賴萬年
 <홍재전서(弘齋全書), 제21권 제문(祭文) 3, 水原新邑鄉校位版奉安告由文>

문화/사상

예조가 수원 궐리사(闕里祠)의 축식(祝式)에 관하여 아뢴 것에 대한 비답
 두 설이 모두 통하지만 공씨(孔氏)가 제사를 주관하는 것이 중요하지 관직이 있고 없는 것
 은 상관할 일이 아니다. 다만 축문의 형식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또한 그
 려 수도 있다고 본다. 지방관 판관(判官)이 초헌(初獻)을 하고 공씨는 아헌(亞獻)과 종헌(終
 獻)을 하되 제향하는 날짜를 점쳐 잡는다는 것으로 정식을 삼으라.
 兩說皆通.而孔氏之主祀貴矣.不係於有官無職.但祝式之持難.亦或然矣.地方官判官初獻.孔氏亞
 終獻.享日卜吉.以爲式.
 <홍재전서(弘齋全書), 卷四十四, 禮曹水原闕里祠祝式啓批>

(2) 과학

문화/과학

수원 유수 조심태(趙心泰)가 기우제(祈雨祭)의 일로 장계한 데 대한 비답

성역(城役)은 진실로 급하지 않은 일이 아니지만, 못사람을 힘들게 하고 백성을 수고롭게 하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은 것이다. 근일에 날씨가 계속 무더운 것을 감히 이 일에 부회(傳會)할 것은 아니지만, 일찍이 옛사람이 오행(五行)에 부회한 설을 보면,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여 성읍(城邑)을 세우면 양기(陽氣)가 성(盛)해지는 까닭에 가뭄이 든다고 하였으니, 또한 노역(勞役)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뭄이 들게 되었는지 어찌 알겠는가.

비록 나무와 돌을 다루는 장부(匠夫)로서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곳이나 탁 트인 곳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원하는 대로 우선 부역을 정지하여 비가 내리거나 시원해지기를 기다리도록 하라. 그들이 시원하고 후련하면 곧 내가 시원하고 후련한 것이다. 이 뜻을 다시 반드시 잘 알고서 편한 쪽으로 조처를 하도록 하라.

城役固非不急之務.其爲勤衆勞民則一也.近日之恒暘.非敢傳會於是.而嘗見古人傳會五行之說.勤衆勞民.以起城邑.陽氣盛故旱爲應.亦安知不由於不能節勞佚.致此旱耶.雖於木石匠夫之入處於庇蔽軒敞之所者.從願姑停.以待得雨.或生涼則渠輩之爽豁.卽予之爽豁.此意更須知悉.從便闊狹.

<홍재전서(弘齋全書) 卷四十四, 水原留守趙心泰祈雨狀啓批>

(3) 지리·경관

문화/지리·경관

연꽃이 핀 수원의 유월이 아름답다고 하고 목은 이색이 한번 봐주기를 바란다는 내용.

누대 아래 연꽃이 물 가득 피었으니 / 樓下荷花滿水開

수성[수원]은 유월이 역시 멋지다고 하리 / 隋城六月亦佳哉

듣건대 목은이 시를 지어 남겼다 하니 / 曾聞牧隱留題詠

나를 위해 등림하여 한 번 읽고 오기를 / 爲我登臨一讀來

이승인(李崇仁), <도운집(陶隱集), 제3권 시(詩), 送李生之水原>

문화/지리·경관

김세렴의 관어당의 서문으로, 수원 광교산(光嶠山)의 경관을 극찬한 내용.

수원(水原)에 특별한 한 구역이 있으니 광교산(光嶠山)²⁸⁷으로, 그 높이가 천 길이 된다. 향로봉(香爐峰)²⁸⁸의 노한 폭포는 굴곡을 이루며 떨어져 맑은 못이 되었고, 회계산(會稽山)²⁸⁹의 기이한 바위는 깎아지른 듯 솟아올라 빛이 빼어나다. 피난을 하였던 진(秦)나라 사람들²⁹⁰이야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공(謝公)²⁹¹이 만약 보았다면 그냥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세렴(金世濂), <동명집(東溟集), 제10권 여어(儷語), 觀魚堂序>

문화/지리·경관

설문우가 수원의 운금루(雲錦樓)에서 바라본 주변 경관을 노래한 내용.

겹겹 푸른 숲 속에 다락이 솟았으니 / 樓在林巒積翠中

한 번 올라 바라보매 사방이 탁 트였네 / 登臨一望四方空

꽃 사이의 푸른 기와 비늘처럼 포개졌고 / 花間瓦影鱗鱗碧

돌 위의 이끼무늬는 점점이 분홍빛일세 / 石上苔紋點點紅

베개에 기대니 연잎에 빗소리 요란하고 / 荷葉亂鳴欹枕雨

발 걸으니 버들가지 바람에 하늘거리네 / 柳條輕颺捲簾風

귀양살이 간 곳마다 강산이 좋으니 / 謫來到處江山好

만사가 모두 새옹의 실마 그대로네 / 萬事皆從失馬翁

설문우(薛文遇), <동문선(東文選), 제15권 칠언율시(七言律詩), 水原雲錦樓>

문화/지리·경관

287) 광교산(光嶠山) : 수원과 용인의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한남정맥(漢南正脈)에 속한다. 수원의 진산(鎭山)이다.

288) 향로봉(香爐峰) : 중국 여산(廬山)의 북쪽에 있는 봉우리이며 이 산에 큰 폭포가 있는데, 그 모습이 아주 장관이어서 이태백(李太白)이 <망여산폭포(望廬山瀑布)> 시에서 '비류직하삼천척(飛流直下三千尺)'이라는 유명한 구절을 읊었다.

289) 회계산(會稽山) : 절강성(浙江省) 소흥현(紹興縣)에 있는 산으로, 경치가 좋기로 유명하다.

290) 피난을 …… 사람들 : 도잠(陶潛)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 나오는 복사꽃 만발한 별세계(別世界)인 무릉도원(武陵桃源)에 살던 사람들을 말한다.

291) 사공(謝公) : 험준한 산을 오르기를 좋아하였던 남송(南宋) 때의 시인인 사영운(謝靈運)을 가리킨다. 사영운은 산을 오를 때에는 나막신의 앞굽을 빼고 오르고, 내려올 때에는 뒷굽을 빼고 내려왔다고 한다. 《南史 卷19 謝靈運列傳》

1683년(숙종9) 윤중이 서울에서 수원(水原)에 도착하였다는 내용.

56년(1683, 숙종9) 계해 (···) ○ 무신(7일)에 수원(水原)에 도착하였는데, 사관이 뒤쫓아 와서 남겨 놓고 온 상소에 대한 비답을 전하였으므로 길을 멈추고 대명(待命)하였다. (···) 윤중(尹拯), <명재유고(明齋遺稿), 명재연보 제1권>

문화/지리·경관

이색이 수원부 객사의 지정(池亭)의 연혁과 주변경관을 읊는 내용.

연못 속의 누대나 언덕 위의 정자나 모두 노닐면서 감상하는 곳이니, 세도(世道)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하겠는가. 그렇긴 하지만 국가가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진 자취라든가 주현(州縣)이 흥하고 폐하게 된 사유 등을 우리는 모두 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대개 조정이 맑고 밝아서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면, 관리는 자신의 직분을 즐거운 마음으로 수행하고 백성은 자신의 생업에 충실하게 될 것이니, 이런 때에 누대나 정자가 있지 않다면 태평 시대의 장관(壯觀)을 무엇으로 형용할 수가 있겠는가. 반면에 법령이 가혹하고 사나우며 세금을 거두는 것이 번거롭고 무거우면, 백성들은 들판에서 탄식하고 관리들은 관청에서 곤욕을 치를 것이니, 이런 때에 비록 누대나 정자가 있다 한들 어찌 혼자서 즐길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보면 수원부에 새로 세워진 정자에 어찌 기문(記文)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수원부 치소(治所)의 동북쪽 모퉁이에 예전부터 연못이 있었는데, 황폐해진 지가 이미 오래 되었다. 이에 전군 성안(全君成安)이 부사(府使)로 재임하면서 개연한 심정으로 이를 복원할 뜻을 굳히고는, 연못을 파서 깊게 하고 그 가운데에 섬을 만들어 새 정자를 날아갈 듯이 세웠는데, 관가에서 비용을 조달하지도 않았고 백성들에게 번거롭게 일을 시키지도 않았다. 그래서 정자가 낙성(落成)되었을 때 고을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는 서로들 돌아보며 깜짝 놀라 말하기를, “어찌면 이렇게도 쉽게 이루어졌단 말인가. 아마도 귀신이 와서 도와준 것이 틀림없다. 우리에게 일을 시키지도 않고서 어떻게 이처럼 만들 수 있었던 말인가.” 하였다. 아, 그리고 보면 전군이야말로 백성을 부릴 줄 아는 자라고 하겠다.

그 뒤에 전군이 마침 내직(內職)으로 옮겨 가고 비서 소감(祕書少監) 안군(安君)이 양광도(楊廣道)를 안찰하러 나왔는데, 그가 전군의 행정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는 나에게 글을 보내 말하기를, “전씨(全氏)의 자취가 사라지지 않고 후세에 전해지려면 오직 문자로 기록해 놓는 방법밖에 없으니, 선생께서 이 일을 사양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수원은 안찰사(按察使)의 치소가 있는 곳으로서 여러 주군(州郡)을 통제하고 있는 만큼 한 도(道)의 물산(物産)이 집결하는 중심지요, 이와 동시에 성쇠와 흥폐의 현상도 한 도 안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게 되는 곳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지금 전군이 위엄과 은혜를 병행하여 백성을 어루만져 안정시키는 일을 알맞게 행하는 한편, 힘없는 주민들을 성가시게 하지 않고서도 우리 국가에서 이룬 태평 시대의 아름다움을 널리 보여 주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안군 역시 자신의 직분에 따라 백성의 풍속을 제대로 관찰함은 물론이요, 타인의 훌륭한 점을 또 즐겨 말하고 있으니, 이것도 모두 기록할 만한 일이라고 하겠다. 뒷날 내가 공을 이루고서 물러가기를 청한 뒤에 이 고을을 지나다가 연꽃이 활짝 핀 광경을 보게 될 때면, 반드시 수레를 멈추고 정자 위에 올라가서 내가 쓴 이 기문을 읽어 보고 떠날 것이다.

池臺坡榭.遊翫之所也.於世道何與焉.然國家理亂之迹.州縣興廢之由.於是乎在.蓋朝廷清明.上下豫安.則吏樂其職.民安其生.非有池臺坡榭.何以形容大平之盛觀哉.法令苛暴.賦斂繁重.則民咨於

野.吏困於官.雖有池臺坡榭.豈能獨樂哉.然則水原府新亭之作.可無記乎.府理東北隅.舊有池.燕處已久.全君成安爲守時.慨然有志於興復.乃鑑而深之.中爲島以翼新亭財不出於官.役不及於民.及其成也.州人見之.相顧驚駭.以爲何其成之易耶.必異物之來相也.何不吾役而能若此也.吁.全君其知使民者歟.會全君內遷.而秘書少監安君出按楊廣道.嘉全君爲政之能.走書於予曰.全氏之迹.不泯而傳之後.惟在於文.子母辭諸.予惟水原按部所理.控制諸州.是以.爲一道所輻湊.然其盛衰興廢.亦爲一道先.今全君威惠竝至.撫集得宜.又能不煩細民.廣我國家太平之美.安君職察民風.樂道人善.皆可書也.異日.穡也功成乞退.道過斯邑.若值荷花開時.必停車上亭.以讀吾此記而後去.

이색(李穡), <목은집(牧隱集), 제4권 기(記), 水原府客舍池亭記>²⁹²⁾

문화/지리·경관

서거정이 수원루(水原樓)에서 박 연성(朴延城)의 시에 차운한 것으로 주변 풍경을 읊은 내용.

우뚝한 누각에 위아래로 연못이 있어 / 突屹瓊樓上下池
 백운 황학의 옛날 생각을 일으키누나²⁹³⁾ / 白雲黃鶴起遐思
 손으론 북두성을 부여잡아 딸 만도 하고 / 手攀北斗猶堪摘
 주렴은 서산을 보고자 짐짓 안 내려치네 / 簾捲西山故不垂
 동풍은 살살 높은 광채 띄우는 밤이요²⁹⁴⁾ / 嫋嫋崇光風泛夜
 깨끗이 우뚝 선 것은 물이 맑은 때로다²⁹⁵⁾ / 亭亭淨植水明時
 등림하는 좋은 명절²⁹⁶⁾에 변화한 곳에서 / 登臨佳節繁華地
 성대히 즐기거니 슬퍼할 것 없고말고 / 鼎鼎清歡不用悲
 서거정(徐居正), <사가집(四佳集), 제14권 시류(詩類), 水原樓次朴延城韻>

문화/지리·경관

292) <동문선(東文選), 제74권 기(記), 水原府客舍池亭記>에도 수록되어 있음.

293) 백운 황학(白雲黃鶴)의 …… 일으키누나 : 백운 황학은 그곳 누각(樓閣)의 경치를 말한 것이다. 당(唐) 나라 최호(崔顥)의 황학루(黃鶴樓) 시에 “옛사람이 이미 황학을 타고 떠났는지라, 이곳에는 공연히 황학루만 남아 있네. 황학이 한번 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흰 구름만 천재에 부질없이 유유히 구나.(昔人已乘黃鶴去 此地空餘黃鶴樓 黃鶴一去不復返 白雲千載空悠悠)”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294) 동풍(東風)은 …… 밤이요 : 소식(蘇軾)의海棠(海棠) 시에 “동풍이 살살 불어와 꽃의 높은 광채 띄우니, 향 안개는 아득하고 달빛은 낭하로 옮겨가네.(東風嫋嫋泛崇光 香霧空濛月轉廊)”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295) 깨끗이 …… 때로다 : 송(宋) 나라의 주돈이(周敦頤)는 특히 연(蓮)을 몹시 사랑하여 일찍이 애련설(愛蓮說)을 지어서 연을 찬미했던바, 그 대략에 “나는 유독 연꽃이 진흙 속에서 나왔지만 진흙에 물 들지 않고, 맑은 잔물결에 씻겨도 오염하지 않으며, 줄기 속은 텅 비어 통하고 겉은 곧으며, 덩굴도 가지도 뻗지 않고, 향기는 멀수록 더욱 맑고, 우뚝이 깨끗하게 서 있어, 멀리서 바라볼 수만 있고 가까이 가서 가리고 놀 수 없음을 사랑하노라.(予獨愛蓮之出於淤泥而不染 濯清漣而不妖 中通外直 不蔓不枝 香遠益清 亭亭淨植 可遠觀而不可褻玩焉)”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296) 등림(登臨)하는 좋은 명절(名節) : 음력 9월 9일 중양절(重陽節)을 이른다. 옛날 풍속에 이날은 사람들이 붉은 주머니에 수유(茱萸)를 담아서 팔뚝에 걸고 높은 산에 올라가 국화주(菊花酒)를 마셔 재액(災厄)을 소멸시켰다는 데서 온 말이다. 주머니에 수유를 담은 내력은 비장방(費長房)의 고사에서 온 것으로, 그 사실은 대략 다음과 같다. 후한(後漢) 때 환경(桓景)이 일찍이 선인(仙人) 비장방에게 가서 유학했는데, 하루는 비장방이 환경에게 이르기를 “9월 9일 너의 집에 재앙이 있을 것이니, 급히 가서 집안사람들로 하여금 각각 붉은 주머니에 수유를 담아서 팔뚝에 걸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국화주를 마시게 하면 이 재앙을 면할 것이다.”라고 하므로, 환경이 그의 말에 따라 9월 9일에 과연 온 가족을 거느리고 산에 올라갔다가 저물녘에 내려와 보니, 계견우양(雞犬牛羊) 등의 가족만 모두 일시에 다 죽어버리고 사람은 끝내 무사했다고 한다.

허균이 전운판관으로 조운을 감독하러 가는 길에 수원(水原)에 도착하였다는 내용.

신축년(1601, 선조34) 6월 가부(駕部 사복시(司僕寺)) 낭관(郎官)으로 있던 나는 전운 판관(轉運判官)에 제수되어 삼창(三倉)에 가서 조운(漕運)을 감독하게 되었다.

7월 8일(정유) 조정을 하직하고 동작포(銅雀浦)를 건넜다. 장마로 강물이 한창 불어 배를 저으며 넘실거리는 물결에 주(洲)를 따라 겨우 강 남쪽 언덕에 도착하였다. 정오께 과천(果川)에 도착하니 원 인초(軫初)는 자리에 없고 그의 첩 설아(雪兒)가 소헌(小軒)에서 맞아 술을 대접하였다. 폭양이 뜨거워 그의 청산(靑傘)을 빌려 쓰고 갔다. 저물녘에 수원(水原)에 도착하니, 부사(府使) 박공 숙빈(朴公叔彬: 숙빈은 박이장(朴而章)의 자)은 딸 아이가 천연두(天然痘)라고 나오지 않고 변형 경지(邊兄敬之)가 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함께 묵었다. 나는 지난 을유년(1585, 선조18) 이곳에 들른 적이 있었는데 당시의 지대(池臺 연못가의 정자)는 이미 자취도 없고 그 집이 있던 자리엔 잡초만 우거져서 옛사람의 안부(安否)를 물으려 하나 이제 아무도 없었다. 옛날을 생각하니 서글쎸다. (…)

辛丑六月.余自駕部郎.除轉運判官.督漕于三倉.七月初八日丁酉.辭朝.渡銅雀浦.潦方漲.挈舟緣波緣洲.僅抵南岸.午抵果川.主倅軫初不在.妾雪兒邀酌于小軒.以陽曝乞其靑傘而行.夕抵水原.則府使朴叔彬公以女痘不出.邊兄敬之氏來話同宿.余乙酉歲.來游于此.當日池臺已漫夷.館宇之址.鞠爲野蔓.欲問舊人.則無在者.愴然疚懷也.(…)

허균(許筠),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 제18권 문부(文部)15 기행 상(紀行上), 漕官紀行>

문화/지리·경관

수원 바닷가에 살던 신씨 형제가 피난 갔다가 전장과 마을이 피해 입지 않을 것을 보고 피난한 것을 후회했다는 내용.

(…) 피란을 도모하는 자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장차 어디로 피해야 하는가?”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아니, 신씨(申氏) 형제의 일을 보지 못하였는가? 그들은 수원(水原) 바닷가에 살았었는데, 왜구가 쳐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서로 인솔하여 북방으로 들어갔다가 회령(會寧)에서 포위를 당하여 갖은 고생을 다하고, 이듬해에 가까스로 돌아와 보니 지난날의 전장(田莊)이며 마을이 그대로 잘 보전되어 있었다. 이리하여 나갔던 일을 후회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대개 수원이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이 서울에 들어갈려면 먼저 반드시 서울 근방을 침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살던 사람이 옮겨가고 병란을 피하는 사람도 오지 아니하므로 적이 이익을 취할 것이 없어서 가지 않은 것이니, 이익 취할 것이 없어서 가지 않는 것은 적의 보편적인 생각이다. 만일 이익을 취할 것이 없는데도 고을마다 반드시 하나 하나 다 수색한다면 적 또한 수고롭지 않겠는가. 이 때문에 병란을 피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던 사람이 옮겨가고 도적을 피하는 사람이 오지 않는 지방을 골라서 가야만 비로소 안전하여 탈이 없을 것이다. 육로로 가느냐, 또는 뱃길로 가느냐는 그때의 형편을 보고서 행동할 일이니, 어찌 미리 헤아릴 수 있겠는가.” 하였다. (…)

(…) 謀避亂者曰.然則將奚避耶.曰抑不見申氏昆季乎.居于水原海上.聞倭寇相率入北方.遭變於會寧園中.困頓間關者萬狀.明年僅回.則舊田園自若也.因悔其出是.蓋水原迫近釐下.人以爲賊入京.則先必侵畿.邑居者移.而避兵者不至.故賊無所利而不往.無所利而不往.賊之恒情也.若無所利.而邑邑村村.必搜逐無已.則賊不亦勞乎.是故欲避兵者.必擇居者移而避寇者不至之地.乃可安無事也.其以陸其以舟.或相其勢而爲之.豈可預爲之料歟.(…)

허균(許筠),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 제18권 문부(文部)9 설(說), 關東不可避亂說>

문화/지리·경관

이익이 지은 것으로 수원(水原)의 남쪽에 있는 양의정의 서문.

(…) 내가 평소 교유하는 이공(李公) 아무개란 자가 있는데 수원(水原)의 남쪽에 집터를 정하고 말하기를 “산을 등지고 있어 햇볕을 맞기에 알맞다.” 하였으며, 터를 파고 축대를 쌓고는 말하기를 “높은 데 처하여 아래로 임하기에 알맞다.” 하였으며, 기둥과 서까래를 배열해 엮고는 말하기를 “난간은 시원하게 트이고 방은 깊숙하여 알맞다.” 하였으며, 일을 마치고 들어와 살면서는 말하기를 “양의(兩宜)라고 이름 짓기에 알맞다.” 하였다. 내가 우연히 그곳에 들르니 공이 말하기를 “내가 이 호칭을 지으면서부터 마땅히 글을 지어 그 뜻을 서술해야 했는데 이제 그대의 글로 발현하는 것이 좋겠다.” 하기에, 삼가 승낙하고 다음과 같이 송(頌)을 지었다. (…)

(…) 不佞有素交李公某者.卜宅於隋城之南曰宜負陵而面陽.闢基築底曰宜處高而臨下.排楹架棟曰宜敞欄而邃室.事迄入處曰宜號曰兩宜.不佞偶過之.公曰自吾之有此號.宜有言以敘之.今待子以發焉可乎.余敬諾而爲之頌曰.(…)

이익(李瀾), <성호전집(星湖全集) 제52권 서(序), 兩宜亭序>

문화/지리·경관

이정구가 지은 기문으로 독산성의 진남루 내력과 수원의 위상을 기술한 내용.

기읍(畿邑) 37개 중에서 가장 큰 곳이 수원(水原)이다. 가장 큰 고을이기 때문에 부사(府使)의 자리에는 중망을 지닌 사람을 선발하며, 3도호(都護), 2군(郡), 7현(縣)을 예하(隸下)에 두어 한남(漢南)의 큰 진(鎭)이 된다. 이 고을은 평원의 드넓은 들판 가운데 자리하여 험준한 산과 계곡이 없고 치소(治所) 동쪽 10리쯤 되는 거리에 높은 산이 길가에 불쑥 솟아 있으니, 사람들은 독성산(禿城山)이라 한다. 산에 수목이 없어 멀리서 바라보면 대머리와 같은데, 산의 이름은 이 때문에 얻어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저 범상하게 보고 특이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임진년에 일본이 대대적인 병력으로 우리나라를 유린하여 튼튼한 성과 큰 보루들이 연이어 함락되었다. 도원수(都元帥) 권율(權慄)이 잔병(殘兵)을 거느리고 싸우다가 이곳을 거점으로 삼아 서울의 왜적에게 저항하였는데, 적이 병력을 풀어서 누차 위협하였으나 끝내 감히 꺾박하지 못하였다. 이에 사람들은 이 성이 좋은 형세를 차지하여 나라의 요충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듬해 적이 퇴각하여 진지를 구축하고 있자, 조정에서는 이곳의 산성을 보수하여 적을 막을 계책을 서둘러 강구하였다. 주상께서 먼저 독성(禿城)에 관해 물으셨고 서애(西厓) 유상국(柳相國 유성룡(柳成龍))과 서경(西坰) 유관찰(柳觀察 유근(柳根))이 실로 이 계책에 찬성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방어사(防禦使)와 변후(邊侯)에게 명하여 이 성을 순시하게 하는 한편, 면포(綿布) 수백 필을 하사하여 편의를 보아 주었다. 변후가 사수(射手)로 쓸 군민(軍民)을 모집, 장정 5백 명을 뽑아 주상의 명으로 상을 내리고 진졸(陣卒)로 삼는 한편, 그 사실을 상주(上奏)하면서 이 성은 지켜야 할 곳이라는 것을 극언(極言)하였다. 이에 주상께서 수궁하시고 드디어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일을 착수토록 하셨으니, 비록 크게 일을 벌이지는 않았으나 이 성은 이때 처음 만들어졌던 것이다.

정유년(1597, 선조30)의 난리 때 적이 이 고을의 경계까지 쳐들어왔으나, 백성들이 이 성에 들어가 지키면서 든든히 믿고 의지할 수 있었다. 그 후로 이 성을 지키는 이가 혹 책임자가 못 되어 군병의 마음과 성의 무비(武備)가 날로 해이해지고 무너져 갔다. 고(故) 상국(相國) 해원 윤공(海原尹公 윤두수(尹斗壽))이 임종 때 올린 유표(遺表)에서 독성(禿城)과 폐

부(廢府)를 보수하고 영변(寧邊)과 경성(鏡城)의 제도처럼 수신(帥臣)을 보내어 방어사(防禦使)로 삼아 겸임토록 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이 문제를 조정에 하달하니, 모두 타당하다고 여겼다. 그리하여 본주(本州)의 도성을 지키러 올라오는 육군과 경창(京倉)에 운송되어 들어가는 전세(田稅)를 면제하여 모두 이 성에 소속시켜 병력과 군량으로 삼도록 하였다. 그리고 문무(文武)를 겸비하고 위풍을 갖추고 실무에 익숙한 사람을 선발하여 수비하게 하였는데, 변후(邊侯)가 재차 이 직책에 임명되었다.

변후는 부임하자 곧 그 성을 쌓아서 높게 하고 그 해자를 파서 깊게 하고 샘을 파서 백성들이 목마르지 않게 하고 밭을 일구어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였으며, 궁노(弓弩)·석거(石車)·포화(砲火)·기계(器械) 등을 널리 설치하였다. 그리고 한가할 때면 날마다 군병들과 함께 공격과 방어에 대한 준비와 말타기, 활쏘기, 칼과 창 쓰기 등의 기예를 늘 적과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훈련하여 모두 실전에 쓰일 수 있도록 하였다. 한 해가 지나자 성안에 거주하는 백성이 2백 호(戶)를 넘었으며, 사찰과 관청도 도합 백여 곳이나 되었다. 이 사실이 보고되자 조정에서 근신(近臣)을 파견하여 호궐(犒饋)하여 군병들을 위로하고 그 기예를 시험해 보도록 하였다. 이에 주상께서 기뻐하여 사졸들에게 포상을 내림에 차등을 두는 한편 변후에게는 특별히 태복마(太僕馬)를 하사하고 따뜻한 말씀으로 위유(慰諭)하여 장려하였다. 그러자 군병들의 마음이 서로 기뻐하고 대중의 마음이 크게 견고해져, 잘 정비된 성벽에 기치가 면모를 일신하여 우뚝이 기보(畿輔)의 큰 관문이 되었으니, 아, 그 노력이 컸도다.

변후가 성의 남쪽 모퉁이 깎아지른 벼랑, 깊은 골짜기 위에 초루(譙樓)를 세워 나그네들이 모이는 곳으로 삼았는데, 제법 넓고 전망이 띄어 좋았다. 진남루(鎭南樓)라 명명하고 나에게 기문(記文)을 지어 달라고 청하기에 이 성이 세워진 전말을 적어서 주노라.

만력(萬曆) 31년 계묘(1603, 선조36) 계추(季秋)

畿邑三十七.最大者曰水州.最大故選用重人.而隸三都護二郡七縣.爲漢南巨鎮.州居平原曠野之中.無山谿險阨之阻.治東十里.有山巍然斗起於道傍者.俗謂之禿城山.山無樹木.望之童童然.山之得名以此.而人視之泛常.不以爲奇.壬辰.日本大勢兵蹂躪.國中堅城巨砦.相繼陷衄.都元帥權慄提殘兵轉鬪.入據于茲.以抗京師之賊.賊放兵屢劫.終不敢逼.於是人知茲城之得形便而爲國要衝也.翌年賊退屯.朝廷亟議繕築山城.以圖拒守.上首以禿城爲間.西崖柳相國.西垞柳觀察.實贊成之.遂命防禦使邊侯巡審茲城.且賜綿布累百匹.聽其便宜.侯募射軍民.得丁壯五百.以上命頒賞.仍爲陣卒.上其事.極言茲城可守.上以爲然.遂命有司經紀之.雖不能大有張設.而城之創.蓋始此.丁酉之亂.賊薄于境.而府民入保.恃而無恐.厥後守者或非其人.軍心與城械.日弛而圯.故相國海原尹公.臨亡遺表.請修禿城廢府.使遣帥臣爲防禦使以兼之.如寧邊.鏡城之制.下其議于廷.咸以爲宜.遂除本州.陸軍之上衛都城者.田稅之運入京倉者.咸屬於茲.爲兵與糧.命選文武有威風練事務者爲之守.邊侯遂再膺是命.侯至則築其城使高.鑿其溝使深.浚井使民不渴.耕田使民不飢.廣設弓弩石車砲火器械.暇則日與其軍練習.攻戰守禦之備.馳射擊刺之技.恒如對敵.舉可爲用.逾年.城中居民.亦過二百戶.寺刹廡宇.竝百餘區.事聞.命遣近臣犒勞其軍.試閱其技.上嘉之.賞士卒有差.特賜侯太僕馬.溫諭以獎之.於是軍心胥悅.衆志大固.壁壘整整.旗幟一新.屹然爲畿輔雄關.吁其勤矣.侯就城南隅.跨懸崖臨絕壑.創起譙樓.以爲賓旅翔集之所.頗軒豁可愛.名之曰鎭南樓.請余爲記.遂書茲城之顛末以畀之云.時萬曆三十一年癸卯季秋.

이정구(李廷龜), <월사집(月沙集)>, 제37권 기 상(記上), 鎭南樓記>

문화/지리·경관

1828년(순조 28) 수원(水原) 대청도(大靑島) 사람이 풍랑을 만나 중국에 표류했다가 귀국했다는 내용.

○ 무자년(1828, 순조 28) 11월 23일 맑음. 머물렀다. 황력재자관(皇曆齋咨官)²⁹⁷의 선래(先來)²⁹⁸가 밤에 강을 건너왔는데, 그들이 듣고 본 일들의 대강을 말하면 다음과 같다. (…)
1. 수원(水原) 대청도(大靑島) 사람이 남녀 가족을 거느리고 배를 타고 해서(海西)로 이사를 가던 중 바다 북판에서 풍랑을 만나 제주와 항주[蕪杭] 사이에 표착하였다가 돌아오는 재자관 편에 따라 나왔다. (…)

晴.留.皇曆齋咨官先來夜渡江.其聞見事件槩云.一關內關外年事七八分登稔.一水原大靑島人率男女家眷乘舟.移寓海西.中洋遇風.漂到蕪杭間.順付齋咨便出來.

박사호(朴思浩), <심전고(心田稿), 제1권, 연계기정(燕薊紀程) 二十三日>

문화/지리·경관

김광현(金光炫)이 부친 김상용이 강화도에서 순절하자 궤연(几筵)을 받들고 수원으로 내려갔다 홍주로 우거했다는 내용.

(…) 예관(禮官)이 상계 치제(致祭)하기를 청하였으나, 상계서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어 일이 명백하지 않다고 의심해 그 요청이 중지되었다. 이에 근신(近臣) 및 대간(臺諫)이 실제의 자취를 갖추어 아뢰었으며, 군의 형제 역시 상소를 올려 원통함을 호소하였다. 그리고는 드디어 궤연(几筵)을 받들고 수원(水原)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호서(湖西)로 들어갔다. 상제(喪制)를 마치고는 감히 경사(京師)로 들어오지 못하고 홍주(洪州)의 오두촌(鰲頭村)에 우거(寓居)해 살았는데, 산 위에 올라가 서울 쪽을 바라보면서 비통한 심정을 스스로 금치 못하고는 홀로 눈물 흘렸다. (…)

(…) 禮官請致祭.上入流言.疑事不明白.寢其奏.近臣及臺諫具陳實跡.君兄弟亦上疏訟冤.遂奉几筵.流落水原.轉入湖西.服除.不敢還京師.寓居洪州之鰲頭村.登望故國.悲不自勝.獨自流涕.(…)
김상헌(金尙憲), <청음집(淸陰集), 제29권 비명(碑銘), 大司憲金公神道碑銘>

문화/지리·경관

정약용이 지은 형의 아들 학초(學樵)의 묘지명으로 유배가는 길에 화성의 유천에서 전송하였다는 내용.

(…) 가경(嘉慶) 신유년(1801, 순조 1) 봄에 화가 일어나서 손암 선생은 신지도(薪知島)로 귀양가고 나는 장기(長鬢)로 귀양갔다. 겨울에 다시 잡혀왔다가 다시 살아나 중씨(仲氏)는 흑산도(黑山島)로 정배(定配)되고 나는 강진(康津)으로 정배되어 형제가 같은 길로 길을 뜨게 되었다. 학초는 땅은 머리로 화성(華城)의 남쪽 유천(柳川)의 점사(店舍)에서 전송하였는데 그때 나이 11세였다. 집에 번국(番國)이 소산인 사안주(蛇眼珠) 1매가 있었는데 곧 큰 구렁이의 눈동자였다. 대체로 이 구슬이 있는 곳에는 뱀·독사 따위가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고, 뱀·독사를 만날 경우에 곧 이 구슬로 비추면 뱀들이 모두 그 자리에서 죽어 마른 나무가 되어버리니, 기이한 보배였다. (…)

(…) 嘉慶辛酉春禍作.先生謫薪智島.余謫長鬢.及冬再逮再活.仲氏謫黑山島.余謫康津.兄弟一路

297) 황력재자관(皇曆齋咨官) : 황력(皇曆)은 보통 황력(黃曆)이라고 쓰는데, 중국으로 역서(曆書)를 받으러 가는 약식 사행을 말한다. 전에는 동지사가 하던 것을 현종(顯宗) 때부터 따로 가게 되었는데, 세사신(상사·부사·서장관)의 격식을 갖추지 않고 역관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골라서 자문(咨文)을 보내는 약식 사행이다.

298) 선래(先來) : 외국에 갔던 사신이 돌아올 때에 앞서서 돌아오던 역관이나 군관이다.

作行.樵也以編髮送行于華城之南柳川之店.時年十一也.家有番國所產蛇眼珠一枚.乃巨蟒眼睛.凡此珠所在.蛇虺不敢近.遇有衝撞.卽以珠照之.蛇皆立斃爲槁木.蓋異珍也.(…)
정약용(丁若鏞),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제16권 묘지명(墓誌銘), 兄子學樵墓誌銘>

문화/지리·경관

화성부에 가서 감독하는 신하들에게 하교한 말로 화성의 의미에 대해 설명한 내용.

가마를 타고 화성부(華城府)에 가서 성을 쌓는 기반을 두루 둘러보고 감독하는 여러 신하들에게 하교하기를, “이 부를 ‘화성(華城)’이라 이름한 것은 대개 화(華) 땅의 봉인(封人)이 축복을 올린 뜻을 붙인 것이다. 원소(園所)의 주산(主山)이 곧 화산(花山)인데, 화(花)와 화(華)는 통하고, 부(府)의 남쪽에 유천(柳川)이 있으니, 화산유천(花山柳川)은 그 또한 만화방장(萬化方暢)한 뜻이다.” 하였다.

駕臨華城府.周覽築城基址.敎監董諸臣曰.是府之名以華城.蓋寓華封祝聖之意也.園所主山卽花山.而花與華通.府治之南.有柳川焉.花山柳川.其亦萬化方暢之意也.

<홍재전서(弘齋全書)>, 제176권 일득록(日得錄) 16, 訓語[三]>

문화/지리·경관

1799년(정조23) 편찬한 <해동여지통제>에 대한 해제로 정도 다음 화성을 실었다는 내용.

첫머리에 정도(京都), 그 다음에 화성(華城), 개성(開城), 남한(南漢), 심도(沁都)를 싣고, 각각 그 강역(疆域)과 거리 및 궁(宮)과 전(殿)의 제도·위치 등을 자세히 기록하였으니 《삼보황도(三輔黃圖)》²⁹⁹⁾의 예를 본뜬 것이다. 다음은 경기(京畿), 호서(湖西), 영남(嶺南), 호남(湖南), 관동(關東), 해서(海西), 관서(關西), 관북(關北) 지역 각각의 지명(地名)·연혁(沿革)·산천(山川)·관액(關陔)·인물(人物)·전부(田賦)·명승(名勝)의 제영(題詠) 등을 실었으니 《태평환우기(太平寰宇記)》³⁰⁰⁾의 예를 본뜬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리서(地理書)로는 서거정(徐居正)의 《여지승람(輿地勝覽)》이 있는데 축목(祝穆)의 《방여승람(方輿勝覽)》³⁰¹⁾을 본받은 것이기 때문에 명승고적의 시(詩), 부(賦), 서(序), 기(記)를 매우 많이 찾아서 싣고 있다. 하지만 산천의 도로와 거리, 관액의 험요(險要) 등에 대한 기록이 모두 소략하다. 이는 등림제영(登臨題詠)을 위주로 하고 지리를 고증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지 않

299) 《삼보황도(三輔黃圖)》: 당대(唐代)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저자 미상의 지리서(地理書)인데, 모두 6권이다. 삼보(三輔)에 위치한 궁전(宮殿)과 원유(園囿)의 제도 및 관계 일화(逸話)를 상세하게 수록한 책이다. 삼보는 안사고(顔師古)의 설에 의하면 장안(長安) 이동(以東)을 지칭하는 경조(京兆), 장안 이북(以北)인 좌풍익(左馮翊), 위성(渭城) 이서(以西)인 우부풍(右扶風)을 지칭하는 말이다. 《四庫全書總目提要》卷68 史部24 地理類1》

300) 《태평환우기(太平寰宇記)》: 송(宋) 나라 악사(樂史)가 저술한 지리서로 모두 193권이다. 이 책은 가담(賈耽)의 《십도지(十道志)》와 이길보(李吉甫)의 《원화군현지(元和郡縣志)》의 토대 위에 해당 지역의 인물(人物)과 제영(題詠)·고적(古迹) 등을 수록하였다. 후세의 방지(方志)들이 인물과 예문(藝文)을 반드시 수록하게 된 것은 이 책에서 비롯한 것이다. 악사의 자는 정자(正子)이고 태상박사와 직사관(直史館)을 역임하였다. 《四庫全書總目提要》卷68 史部24 地理類1》

301) 축목(祝穆)의 《방여승람(方輿勝覽)》: 축목의 자는 화보(和甫)로 주희(朱熹)의 문인이며, 조선 시대에 가장 널리 이용된 유서(類書)인 《사문유취(事文類聚)》의 편자이다. 《방여승람》은 남송(南宋)의 강역을 대상으로 한 지리서로서 17로(路)로 나누어 각로(各路)에 소속된 부(府)·주(州)·군(軍)의 지리를 기술한 것이다. 체제는 건치연혁·강역(疆域)·도리(道理)·전부(田賦)·호구(戶口)·관새(關塞)·험요(險要) 등 다른 지리서에서 자세하게 다룬 것은 간략하게 기록하고, 명승고적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었다. 특히 시(詩)·부(賦)·서(序)·기(記)는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어서 등림제영(登臨題詠)을 위해서 엮은 책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목은 지리서이나 실은 유서(類書)라고 할 수 있다. 《四庫全書總目提要》卷68 史部24 地理類1》

왔기 때문이다. 유형원(柳馨遠)의 《여지지(輿地志)》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아 왕존(王存)의 《원풍구역지(元豐九域志)》³⁰²⁾의 체제로 돌리고자 하였지만 이 역시 간략하여 자상하지 못한 실수를 범하였다. 이러한 점이 이 책을 짓게 된 이유이다.

이 책의 편찬을 처음 계획한 것은 무신년(1788, 정조12)이었는데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아직까지 원고를 완성하지 못하였기에 우선 그 의례(義例)의 개략을 기록하여 이 책을 짓게 된 시말을 기록하는 바이다.

首京都.次華城開城南漢沁都.各詳其疆域遠近.宮殿制置.蓋倣三輔黃圖之例也.次京畿湖西嶺南湖南關東海西關西關北.各詳其地名沿革.山川關阨.人物田賦.形勝題詠.蓋倣太平寰宇記之例也.我朝地理書.徐居正之輿地勝覽.倣于祝穆之方輿勝覽.故形勝古蹟.詩賦序記.搜載甚繁.而山川道里.關阨險要.皆在所略.蓋主登臨題詠而設.不專爲考證地理也.柳馨遠之輿地志.欲矯此弊.以返于王存元豐九域志之體裁.而又失於而不該.此是書之所以作也.其經始撰次.在於戊申.而篇帙浩穰.藁尙未完.姑記其義例之槩略.以識其緣起云.

<홍재전서(弘齋全書), 제184권 군서표기(羣書標記) 6 ○명찬(命撰)2, 海東輿地通載六十卷【寫本】>

302) 왕존(王存)의 《원풍구역지(元豐九域志)》: 송(宋) 나라 신종(神宗)의 명에 따라 원풍(元豐) 3년(1080)에 편찬하여 동 8년에 반포된 지리서이다. 편찬 작업은 왕존(王存)의 주관하에 증공(曾鞏), 이덕(李德) 등이 참여하였다. 당시의 행정 구획에 따라 사경(四京)·23로(路)·생폐주군(省廢州郡)·화외주(化外州)·기회주(羈縻州)의 순서로 엮었으며, 내용의 편집은 구지(舊志)에 따라 부주(府州)의 연혁·도리(道理)·호구(戶口)·토공(土貢) 등의 순서로 수록하였는데 구지의 씨족(氏族) 항목은 삭제하였다. 전체적으로 서술이 간명(簡明)하며 당시의 상황은 상세하고 옛것은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四庫全書總目提要 卷68 史部24 地理類1》

(4) 예술

문화/예술

김세렴이 지은 칠언절구로, 수원에서 맞이한 한밤의 운치를 읊은 내용

수성에서 맞은 봄밤 달 외로이 떠 있는데 / 隋城春夜月輪孤
젓대 울자 성 위 자던 까마귀들 놀라 나네 / 橫笛驚飛城上鳥
관산에서 호마 타다 한 번 돌아온 뒤로는 / 一自關山胡馬後
곡조 속에 선우 노래 연주할까 겁나누나³⁰³⁾ / 曲中猶恐奏單于
김세렴(金世濂), <동명집(東溟集)>, 제3권 칠언절구(七言絕句), 隋城夜聞笛>

문화/예술

서거정이 수원으로 가는 영천군(永川君) 이정(李定)에 써준 시로, 수원의 풍광을 노래한 내용

수주의 아름다움은 천하에 드문 곳이라 / 水州佳麗天下少
수주의 삼월은 봄 풍광이 좋기도 하지 / 水州三月春光好
온갖 꽃은 만발하여 동풍 앞에 찬란하고 / 百花爛熳東風前
만 그루 실버들은 황금 가지 간들거리네 / 萬株楊柳黃金嫋
번화하기 제일로는 **윤금루**를 꼽는데 / 繁華第一雲錦樓
단청 마룻대 구슬발이 하늘에 치솟았으니 / 畫棟珠簾入斗牛
누각 아래 푸른 못엔 잔물결이 살살 일고 / 樓下碧沼生玉鱗
누각 밖의 푸른 산은 미인의 눈썹머 같네 / 樓外青山娥黛浮
왕손의 풍류는 세상을 덮는 호걸이라 / 王孫風流蓋世豪
좋은 날이면 가서 봄놀이를 즐기나니 / 探春勝日來遊遨
도화 준마를 유성처럼 나는 듯이 달려라³⁰⁴⁾ / 桃花駿馬飛流星
백옥 안장에다 황금 재갈을 물리도다 / 白玉爲鞍黃金鑣
누각 위의 화려한 자리에 술상 차려내면은 / 樓上錦宴開瓊樽
십천의 좋은 술에 울금향이 물씬 풍기고³⁰⁵⁾ / 十千美酒鬱金薰
이팔 청춘 미인들은 자리에 가득하여 / 青蛾皓齒滿座春
옥비녀 화려한 모자에 비취 빛 치마를 입고 / 珠鈿花冠翡翠裙
곤현 철발의 소리 서로 재촉하는 가운데³⁰⁶⁾ / 鵲絃鐵撥聲相催
요란한 갈고는 청천백일 천둥처럼 들릴 제 / 羯鼓百枝喧晴雷
미인은 치맛자락 날리며 사뿐사뿐 춤추어 / 美人起舞飄輕裙
빙빙 돌아 비연의 춤을 시험삼아 배우네³⁰⁷⁾ / 翩躚試學飛燕回

303) 곡조 …… 겁나누나 : 악부 황취곡사 가운데 <대선우(大單于)>와 <소선우(小單于)>의 곡이 있다. 선우(單于)는 한나라 때 흉노족의 군장(君長) 칭호이다.

304) 도화 준마(桃花駿馬)를 …… 달려라 : 도화는 옛날 준마의 이름이다.

305) 십천(十千)의 …… 풍기고 : 십천은 만전(萬錢)이다. 왕유(王維)의 소년행(少年行)에 “신풍의 맛 좋은 술은 한 말에 십천인데, 함양의 유협들은 대부분이 소년이로세.(新豐美酒斗十千 咸陽游俠多少年)”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306) 곤현 철발(鵲絃鐵撥)의 …… 가운데 : 곤현은 곤계(鵲鷄)의 힘줄로 만든 비파(琵琶) 줄이고, 철발(鐵撥)은 쇠로 만든 비파 채이다.

307) 빙빙 …… 배우네 : 비연(飛燕)은 한 성제(漢成帝)의 황후(皇后) 조비연(趙飛燕)이다. 그녀는 본디 가무를 배운 데다 몸매가 아주 가냘파서 손바닥 위에서도 능히 춤을 출 수 있었다고 한다. 《趙飛燕外

유리 술잔에 호박 빛 진한 술로 / 琉璃鍾琥珀濃
 옥쟁반의 봉과 용의 고기를 먹으면서³⁰⁸⁾ / 玉盤煮鳳仍魚龍
 은 좌중이 화살보다 급히 술잔 돌리거든 / 一座傳觴疾於箭
 주화가 얼굴에 들어 연지처럼 빨개지네³⁰⁹⁾ / 酒花入面臙脂紅
 좋은 시절 행락을 의당 제때에 해야거니 / 良辰行樂當及時
 통쾌히 마시고 무지개 뱉는 걸 왜 사양하라³¹⁰⁾ / 鯨吞虹吐安足辭
 왕손은 백 잔 술에 비로소 약간 거나해 / 王孫百杯始半酣
 흥겨워서 또 주옥 같은 문장 뱉어냈으니 / 乘興又吐瓊琚詞
 용향묵과 봉관필에³¹¹⁾ / 龍香墨鳳管筆
 구안 자석은 흡사 무쇠처럼 견고한데³¹²⁾ / 鰐眼紫石堅似鐵
 기름같이 매끌매끌한 열 폭의 견지에다 / 十幅繭紙滑於油
 일필휘지하니 글자마다 용이 날뛴 듯하네 / 一揮字字龍蛟躍
 미인들은 겹겹으로 빨강계 에워싸고는 / 佳妓重重紅作圍
 유쾌히 보고 왕손 옷자락 다투어 당기면서 / 快觀爭挽王孫衣
 왕손의 머무름에 한 번 웃길 바랄 뿐이요 / 但願一笑王孫留
 가는 왕손과의 한 번 이별은 원치 않는다네 / 不願一別王孫歸
 인생은 예로부터 만나기가 어려운 거라 / 人生自古會合難
 무산의 운우도 오히려 실컷 즐겼거니와³¹³⁾ / 巫山雲雨猶盡歡
 원앙 휘장 안에 봄밤은 하 짧기만 한데 / 鴛鴦帳中春宵短
 끝없이 서로 사모하여 눈물을 줄줄 흘리네 / 相思無盡淚闌干
 줄줄 흐르는 눈물을 어찌할꼬 / 淚闌干可奈何
 평생에 철석 간강 못 된 것이 한이로구려 / 恨不生平鐵作肝
 그대는 못 보았나 분사어사 두로 미치광이는 / 君不見分司御史杜老狂
 석 줄로 에워싼 걸 한 마디로 자랑하였고³¹⁴⁾ / 一語自詫回三行

傳》

- 308) 유리(琉璃) …… 먹으면서 : 이하(李賀)의 장진주(將進酒)에 “유리 술잔에 호박빛 질기도 해라, 통에서 흐르는 술방울이 진주처럼 붉구나. 용 삶고 봉 구우니 기름은 이글거리고, 수놓은 비단 휘장은 향기론 바람을 에워싸네.(琉璃鍾琥珀濃 小槽酒滴眞珠紅 烹龍炮鳳玉脂泣 羅幃繡幕圍香風)”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용과 봉은 진귀한 안주를 가리킨다.
- 309) 주화(酒花)가 …… 빨개지네 : 주화는 술 위에 뜬 거품을 가리킨 것으로 술을 말한다.
- 310) 통쾌히 …… 사양하라 : 무지개를 뱉는다는 것은 곧 담소(談笑)를 나누면서 강개(慷慨)한 기개(氣概)를 떨치거나, 훌륭한 문장(文章)을 지어내는 것을 형용한 말이다.
- 311) 용향묵(龍香墨)과 봉관필(鳳管筆)에 : 용향묵과 봉관필은 먹과 붓을 미화(美化)하여 이룬 말이다.
- 312) 구안 자석(鰐眼紫石)은 …… 견고한데 : 자석은 자석연(紫石硯)을 가리키는데, 구안은 자세하지 않다.
- 313) 무산(巫山)의 …… 즐겼거니와 : 전국(戰國) 시대 초 양왕(楚襄王)이 일찍이 낮잠을 자는데 꿈에 한 여인이 와서 말하기를 “저는 무산(巫山)의 여자로서 고당(高唐)의 나그네가 되었는데, 임금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왔으니, 원컨대 침석(枕席)을 같이해 주소서.”라고 하여 그와 같이 하룻밤을 잤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 여인이 떠나면서 말하기를 “저는 무산의 양지쪽 높은 언덕에 사는데, 매일 아침이면 아침 구름이 되고 저녁이면 내리는 비가 됩니다.(旦爲朝雲 暮爲行雨)”라고 했다는 데서 온 말로, 전하여 주로 남녀 간의 정사(情事)에 관한 일을 가리킨다. 《藝文類聚》
- 314) 그대는 …… 자랑하였고 : 여기서 두로(杜老)는 두목(杜牧)을 가리킨다. 석 줄로 둘러싼 걸 자랑했다는 것은 두목의 시에 나온다. 두목이 일찍이 낙양 분사어사(分司御史)가 되어 낙양에 있을 때, 전상서(尙書) 이충(李聰)이 자기 집에 빈객들을 초청하여 주연을 성대히 베풀었는데, 이때 백여 명이나 되는 기녀들 또한 미색이 뛰어났다. 두목이 기녀들을 한참 주시하다가 문기를 “자운(紫雲)이라는 기녀가 있다고 들었는데, 누가 자운인가? 그녀를 데려오라.”고 하자, 이충은 얼굴을 숙이고 껄껄 웃고, 여

청루 박행³¹⁵⁾의 이름은 피하기 어렵거니와 / 靑樓薄倖難逃名
바람에 꽃 떨어진 뒤에도 꽃 찾아갔던 걸³¹⁶⁾ / 風撥花落猶尋芳
또 보지 못했나 도곡 학사는 당대의 현인으로 / 又不見陶穀學士爲時賢
강남의 역마을 객사에서 하룻밤을 자고 / 江南一夜郵亭眠
서로 사모한 나머지 잘못 풍광호를 지어 / 相思枉作風光好
인연을 함부로 신선 이별에 건주었던 걸³¹⁷⁾ / 因緣妄擬別神仙
가소로워라 두 유자는 그지없이 곤궁하여 / 可笑兩儒酸復酸
일생 동안 공한 티를 없앨 길이 없었으니 / 一生冷氣無由刪
어찌 지금 세상의 우리 귀공자만 할쏜가 / 那如今時貴公子
인간 세상을 압도하는 문채와 기상으로 / 文彩氣象傾人寰
온유향 속에 우유자득하면서³¹⁸⁾ / 優游自得溫柔鄉
육병에 육대반까지 누리는 걸³¹⁹⁾ / 肉爲屏兮仍爲盤

러 기녀들은 모두 머리를 돌리고 파안 대소를 하였다. 두목이 스스로 술 석 잔을 연거푸 마신 다음, 낭랑하게 읊조리기를 “오늘 화려한 집에서 화려한 주연을 베풀고, 누가 이 분사여사를 오라고 불렀느냐? 갑자기 미친 말 지껄여 온 좌중을 놀래켜라, 석 줄로 에워싼 기녀들이 일시에 머리 돌리네.(華堂今日綺筵開 誰喚分司御史來 忽發狂言驚滿座 三行紅粉一時回)”라고 하면서 의기(意氣)가 방약무인(傍若無人)했다는 데서 온 말이다. 《唐詩紀事 杜牧》

315) 청루 박행(靑樓薄倖) : 두목이 양주 자사(揚州刺史)로 있으면서 청루(靑樓)의 많은 미인들과 사귄 적이 있어 후일 그의 견회시(遣懷詩)에 “십 년 만에 한 번 양주의 꿈을 깨고 나니, 미인에게 박정하단 이름만 실컷 얻었네.(十年一覺揚州夢 贏得靑樓薄倖名)”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316) 바람에 …… 걸 : 두목이 호주 자사(湖州刺史)로 있던 친구를 찾아가 노닐 적에 그곳의 이름난 미인들을 다 보았으나 마음에 드는 여인이 없어 자사(刺史)에게 청하여 물놀이(水戲)를 베풀어서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여들게 하도록 하고는 자신이 직접 구경꾼들 사이를 왕래하면서 살펴보니, 그중에 할미를 따라 구경 나온 10여 세쯤 된 여아가 있었는데 참으로 국색(國色)이었다. 두목이 그 할미에게 “지금쯤 여아를 맞아들일 수 없고 후일로 미루어야겠으니, 내가 10년 뒤에 호주 자사가 되어 와서 여아를 맞을 것이로되, 만일 그때 오지 않으면 다른 데로 시집을 보내시오.”라고 말하고, 그에게 중폐(重幣)를 주어 약혼했다. 그 후 두목이 일이 늦어져서 14년 만에야 호주 자사로 부임하여 가 보니 그 여아는 이미 다른 데로 시집간 지 3년이 되었고 두 아들까지 낳았다. 두목이 그들 모자를 불러 만나 보고 돌려보내면서 이별을 슬퍼하여 읊은 시에 “내가 본디 봄을 찾은 게 워낙 더디었으니, 서글피 꽃다운 시절을 한할 것도 없고말고. 거센 바람이 불어 짙붉은 꽃 다 떨어뜨리니, 푸른 잎새 그늘 이루고 가지엔 열매가 가득하구나.(自是尋春去較遲 不須惆悵恨芳時 狂風吹盡深紅色 綠葉成陰子滿枝)”라고 하였다.

317) 또 …… 걸 : 북송(北宋) 초기에 한림 학사(翰林學士) 도곡(陶穀)이 사신으로 남당(南唐)에 가서 스스로 상국(上國)의 사자임을 자부하여 의연한 태도를 보였는데, 그곳의 학사 한희재(韓熙載)가 기녀 진약란(秦蕢蘭)을 역졸의 딸인 것처럼 속여 도곡에게 소개하였다. 도곡이 마침내 신독(愼獨)의 경계를 망각하고 그녀를 가까이하여 하룻밤을 지내고 그녀에게 ‘풍광호(風光好)’라는 사곡(詞曲)을 지어 주기까지 했다. 그 후 남당의 후주(後主)가 도곡을 위하여 베푼 주연(酒宴)에서 후주가 술잔을 들고 서서 기녀 진약란으로 하여금 앞서 도곡이 지어준 ‘풍광호’를 노래하여 도곡에게 술을 권유하도록 하자, 도곡이 그제야 몹시 부끄럽게 여겼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풍광호’의 가사(歌詞)는 다음과 같다. “좋은 인연인가, 나쁜 인연인가. 역마을 객사에서 고작 하룻밤을 지내고, 신선을 이별하다니 원. 비파 가져다 상사조를 남김없이 타보아도, 소리 알아듣는 이 드물어라. 난교로 끊어진 비파 줄 잇기만 기다리건만, 이때가 그 어느 해일런고.(好姻緣 惡姻緣 只得郵亭一夜眠 別神仙 琵琶撥盡相思調 知音少 待得鸞膠續斷絃 是何年)” 《說郛》

318) 온유향(溫柔鄉) 속에 우유자득하면서 : 온유향은 미인을 비유한 말이다. 한 성제(漢成帝) 때에 황후(皇后) 조 비연(趙飛燕)이 일찍이 그의 자매(姊妹)인 합덕(合德)을 성제에게 들이자, 성제가 그녀의 온몸이 유연하지 않은 데가 없음을 보고는 대단히 기뻐하여 그녀를 ‘온유향’이라고 했던 데서 온 말이다. 《古今事文類聚》

319) 육병(肉屏)에 …… 걸 : 육병은 육병풍(肉屏風)과 같은 뜻으로, 당 헌종(唐玄宗) 때 양 귀비(楊貴妃)의 오라비인 양국충(楊國忠)이 권력을 제멋대로 부리면서 사치를 극도로 누렸던바, 한겨울이면 항상 몸집이 비대(肥大)한 비첩(婢妾)들을 선발하여 자기 앞에 죽 늘어 세워서 그들의 온기로 자기 몸을 덥히면서 이것을 ‘육병풍’ 또는 ‘육진(肉陣)’이라 호칭했던 데에서 온 말이다. 육대반(肉臺盤)은 양국충

수주의 인물이 뛰어나다고 말들을 마소 / 莫說水州人物尤
 월녀의 웃음에 삼 년 머무른 적 없었다네³²⁰⁾ / 不曾越笑三年留
 그대는 못 보았나 자하동 안의 별유천지를 / 君不見紫霞洞裏別藏天
 세간 그 어느 곳엔들 단구가 없을쏜가³²¹⁾ / 世間何處無丹丘
 구지산 공자와는 서로 백중지간이요³²²⁾ / 緱山公子可伯仲
 자하선인과는 서로 같은 무리가 되어³²³⁾ / 紫洞仙人爲伴儔
 난새를 타고 학을 몰고 이리저리 노닐어 / 乘鸞駕鶴逍遙遊
 위로는 삼도 아래로는 구주를 다 유람하니³²⁴⁾ / 上窮三島下九州
 벌레 같은 인간 세상 삼천 년이 금방이로다 / 蟻蠓人世三千秋
 서거정(徐居正), <사가집(四佳集), 제44권 시류(詩類), 水州行贈永川貴公子>

문화/예술

이정구가 수원(水原) 도중에서 지은 시로 감회를 읊은 내용.

시든 잎새는 바람도 없건만 절로 나부끼고 / 病葉無風自舞
 가을 산은 비가 오지 않아도 늘 어둑하여라 / 秋天不雨恒陰
 산 아래 외로운 마을 이 작은 오솔길을 / 山下孤村小路
 십여 년이 지난 지금에야 다시 찾아왔도다 / 十餘年後重尋
 이정구(李廷龜), <월사집(月沙集), 제16권 권응록 상(倦應錄上), 水原途中>

문화/예술

이정구가 수원 통판(水原通判) 윤황(尹煌)을 보내며 지은 시

외로운 거처를 멀리 바닷가 저편에 두었기에³²⁵⁾ / 孤棲寄在海雲濱
 고향의 남시터며 정자가 자주 꿈속에 뵈었으리 / 釣石沙亭入夢頻
 백성들이 이미 어진 수령의 교화 흠뻑 입었지만 / 蔀屋已沾明府化
 돌아가고픈 맘 지레 고향에 봄 올 때 맞추었어라 / 歸心先趁故園春
 이별이 우리들의 일인 줄이야 진작에 알았지만 / 早知離別關吾輩
 그래도 맞아줄 주인 있는 것이 도리어 기쁘구려 / 却喜逢迎有主人

이 재상 지위에 있으면서 특히 음식과 거처에 호사를 극도로 누렸던바, 심지어 음식을 먹을 때는 식탁을 놓지 않고 수많은 가기(家妓)들로 하여금 각각 식기를 하나씩 들고 입시하게 하여 이를 ‘육대반’이라 호칭했던 데서 온 말이다. 《錦繡萬花谷》

320) 월녀(越女)의 …… 없었다네 : 월녀는 옛날 월(越)나라에서 서시(西施) 등 미녀가 많이 나왔던 데서, 전하여 미인을 가리킨다. 한유(韓愈)의 유생시(劉生詩)에 “월녀의 한 번 웃음에 삼 년 동안 머물렀다가, 남으로 횡령을 넘어 염주로 들어갔었네.(越女一笑三年留 南逾橫嶺入炎州)”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321) 세간(世間) …… 없을쏜가 : 단구(丹丘)는 신선이 산다는仙境(仙境)을 가리킨다.

322) 구지산(緱氏山) …… 백중지간(伯仲之間)이요 : 공자(公子)는 주 영왕(周靈王)의 태자(太子)였던 왕자교(王子喬)를 가리킨다. 왕자교는 본디 생소(笙簫)를 불어서 봉황의 울음소리를 잘 냈는데, 그가 일찍이 선인(仙人) 부구공(浮丘公)에게서 도를 배운 지 30여 년 뒤에 구지산에서 백학을 타고 승천했다는 데서 온 말이다.

323) 자하선인(紫霞仙人)과는 …… 되어 : 자하는 선궁(仙宮)에 깃든 붉은 놀을 가리킨 것으로, 자하선인은 신선(神仙)을 말한다.

324) 위로는 …… 유람하니 : 삼도(三島)는 전설 속의 삼신산(三神山), 즉 봉래(蓬萊), 방장(方丈), 영주(瀛洲)를 가리킨다.

325) 외로운 …… 두었기에 : 이 시는 수원 통판(水原通判)으로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윤황(尹煌)을 보내며 지은 것인데, 수원이 바다와 인접해 있어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르노니 초당에서 필시 시문을 검토하리니 / 傳語草堂須檢校

그곳에 모인 이웃들에게 내 소식 전해 주구려³²⁶⁾ / 煩將消息報鄉隣

이정구(李廷龜), <월사집(月沙集), 제17권 권응록 중(倦應錄中), 送水原尹通判【煌】>

문화/예술

이정구가 수원(水原)의 아현(衙軒)에서 지은 시로, 수원의 위상을 노래한 내용.

수원성 관부가 한강가에 서 있나니 / 督府隋城漢水頭

전란에 불탄 건물을 새로 중수하였도다 / 燼餘華館賀新修

휘하의 삼천 갑병은 용맹이 펄펄 넘치고 / 騰凌帳下三千甲

경기 남쪽 열두 고을을 관할 아래 두느니 / 節鎮畿南十二州

연침에 어린 맑은 향기는 화극을 감싸고³²⁷⁾ / 燕寢清香圍畫戟

비단 자리에 고운 촛불 부귀한 이들 취한다 / 綺筵芳燭醉輕裘

이제야 알겠구나 흥망성쇠가 사람에게 달린 줄 / 方知興廢關人事

이십 년 전에 본 그 빼어난 모습 그대로일세³²⁸⁾ / 勝迹依然廿載遊

이정구(李廷龜), <월사집(月沙集), 제17권 권응록중(倦應錄中), 水原衙軒>

문화/예술

이덕무가 도연명(陶淵明)의 결려재인경시(結廬在人境詩)³²⁹⁾의 뒤에 쓴 것으로 수원의 백동좌(白東佐)가 정(靜)한 사람으로서 도연명의 시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내용.

나는 정(靜)한 사람으로 수성(隋城: 수원(水原)의 옛 이름)의 양숙(良叔 백동좌(白東佐)의 자)을 보았다.

일찍이 연명(淵明)의 시를 읽었는데,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읊으니 사람의 피부에 젖어들어 고요히 들음에 연명의 건복(巾服 두건과 의복)이나 수발(鬚髮 수염과 머리카락)을 보는 듯하였다. 정(靜)에 대하여 말을 잘한 사람은 연명이었고, 연명의 시를 잘 읽은 사람은 양숙이었다. 그러므로 양숙의 시에는 연명의 뜻이 많다. 따라서 연명의 시를 벽에 쓰고 양숙의 말을 인용하여 그를 찬양한다.

吾於靜者見隋城.良叔嘗讀淵明詩.緩緩微吟.洽人膚.寂然而聽.如見淵明巾服鬚髮也.善言靜者.淵明.善讀淵明詩者.良叔.以是良叔詩多淵明意.書淵明詩于壁.引良叔語讚之.

이덕무(李德懋),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제4권 영처문고 2(嬰處文稿二) 제(題), 題淵明結廬在人境詩後>

326) 초당(草堂)에서 …… 주구려 : 윤황의 고향 쪽에 이정귀와 친한 이들이 있었던 듯하다. 즉 고향의 초당에서 이웃 선비들과 모여서 서로 지은 시문(詩文)을 읽으며 품평할 터이니, 그들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해 달라는 뜻이다.

327) 연침(燕寢)에 …… 감싸고 : 연침은 한가한 잠자리이고, 화극(畫戟)은 군재(郡齋)나 군영(軍營) 밖에 의장(儀仗)으로 세우는 큰 창이다. 이는 주로 지방관의 한가한 생활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328) 이제야 …… 그대로일세 : 임진왜란으로 불탄 수원성의 건물이 사람의 힘으로 중창되었으므로, 세상의 흥망성쇠는 사람의 손에 달렸다고 감탄한 것이다.

329) 연명(淵明)의 결려재인경시(結廬在人境詩) : 연명은 진(晉) 나라 도잠(陶潛)의 자이다. 그는 시문(詩文)에 능하였는데 벼슬하지 않고 고요한 산수(山水)를 찾아 술을 마시고 시를 읊었다. 그의 음주잡시(飲酒雜詩)에 “집은 인간에 있지만 수레나 말의 시끄러움이 없다. 어찌 그리 한가하냐고 묻는다면, 나는 마음이 세상을 멀리하니, 사는 곳이 저절로 궁벽하기 때문이다.[結廬在人境 而無車馬喧 問君何能爾 心遠地自偏]” 한 시를 가리킨다.《晉書 卷94 陶潛傳, 陶靖節集 卷3 飲酒詩》

문화/예술

이식이 수원(水原) 북쪽 교외 시냇가에서 주변 경관과 감회를 읊은 시.

오랜 비 끝에 무너져 내린 다리 / 久雨河梁拆
치달리는 강물결 안장까지 차오를 듯 / 奔流欲及鞍
성긴 발 사이로 조금 서늘한 기운 / 微涼動疎薄
점점 산 너머로 석양빛 스러지네 / 落景去層巒
병과는 상관없는 노년의 권태 / 老倦非關病
세상 번뇌 어찌 유독 벼슬살이 때문이리 / 塵勞豈待官
어려서 간직한 원대한 장부의 뜻 / 少年弧矢志
그마저 이제는 갈수록 시들하네 / 今亦向闌珊
이식(李植), <택당집(澤堂集), 제2권 시(詩), 水原北郊川上>

문화/예술

이식이 수원(水原)에 대해 읊은 시.

경기 좌도 으뜸가는 유명한 도회(都會) / 名都冠左輔
선봉 부대 거느리려 사절 들고 나왔어라 / 使節領前營
뱃길 따라 서쪽으로 바다 통하고 / 鷁路西通海
북쪽으로 서울 연한 순화성(鶡火星) 분야(分野) / 鶡墟北接京
정백³³⁰의 이로움 이룬 하천이요 / 渠成鄭白利
탁정³³¹의 세금 바치는 저잣거리로세 / 市納卓程征
누가 잘도 호구(戶口)에 손해 끼치며 / 戶數誰能損
해마다 성 쌓는 사업 벌이나 / 連年事築城
이식(李植), <택당집(澤堂集), 제2권 시(詩), 水原>

문화/예술

이식이 수원(水原) 객점에서 잠깐 졸다가 꿈을 꾸고 지은 시.

아이 종이 바야흐로 기장밥 지을 때에³³² / 僮僕正炊黍
객점에서 외로이 꿈길에 빠져 들었나니 / 店中孤夢成
분명히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건만 / 分明片時頃
문득 떠나 고향 산천 다녀왔다고 / 却向故山行
가을 그림자 스며든 바윗골 지나 / 巖洞含秋影
밤보다는 줄어든 여울물 소리 들으면서 / 灘潭減夜聲
풀로 뒤덮인 돌다리 찾아서 건너가니 / 草間尋略約
솔 아래 그리웠던 사립문이 보였다고 / 松下指柴荆
닭이며 오리들이 울 주위로 흩어지며 / 鷄鴨繞籬散

330) 정백(鄭白) : 전국 시대 정국(鄭國)이 쌓은 정국거(鄭國渠)와 한 무제(漢武帝) 때 백공(白公)이 쌓은 백거(白渠), 즉 수로 관개 사업을 말한다.

331) 탁정(卓程) : 전국 시대와 진시황(秦始皇) 때 촉(蜀) 땅 임공(臨邛)에서 대장간 사업으로 거부(巨富)가 된 탁씨(卓氏)와 정정(程鄭)을 가리킨다.

332) 아이 종이 …… 때에 : 노생(盧生)이 한단(邯鄲)의 객점에서 낮에 꿈을 꾸며 부귀영화를 다 누리다가 꿈을 깨고 보니 아직도 기장밥이 익지 않았더라는 ‘일몽성취서(一夢成炊黍)’의 전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문을 박차고서 아이들 뛰어나왔는데 / 兒童踴戶迎
 김장밭은 아직도 뽑다가 만 듯하고 / 菰園除未盡
 구릉의 논 이제 막 벼를 베 듯하였다오 / 稻壟刈初平
 시루 가득 익어 가는 홍도(紅稻)와 백도(白稻) / 滿甌炊紅白
 술동이 기울이니 쏟아져 내리는 청주 탁주 / 開樽瀉濁清
 마루에 올라 어머니께 뉘족 절을 하곤 / 上堂拜慈母
 멀리 나가 놀았던 일³³³⁾ 모조리 말씀드렸다오 / 說盡遠遊情
 이식(李植), <택당집(澤堂集), 속집 제2권 시(詩), 水原店中小睡>

문화/예술

이식이 수원 사창(社倉)의 청사에서 묵으면서 지은 시로 주변 상황과 심경을 읊은 내용.

집집마다 악성 전염병 돌아 / 癘疫家家遍
 잠시 사창 청사 몸을 의탁한 채 / 倉亭暫寄棲
 도둑맞지 않을까 말에 자꾸 신경쓰며 / 防偷數問馬
 새벽닭 우는 대로 접석할까 하는도다 / 接漸早聽鷄
 밤 안개에 젖어서 눅눅해진 옷 / 宿霧衣偏重
 벌레 소리 듣기 싫어 파고드는 베갯머리 / 吟蟲枕故低
 그래도 문자벽은 끝내 못 버려 / 唯餘文字癖
 벽에 등불 켜 놓고 새 시 지으려 애쓰누나 / 燭壁覓新題
 이식(李植), <택당집(澤堂集) 卷之二, 宿水原社倉廳事>

문화/예술

수원 객관의 시에 차운하여 기옹의 호행록에 답하다

수원 객관의 시에 차운하여 기옹의 호행록에 답하다[次水原客館韻 和崎翁湖行錄]

경기(京畿)를 총괄하는 도호부(都護府) 군영 / 節制畿南都護營
 맑은 가을 하늘 군문(軍門)의 창검 번쩍번쩍 / 轅門畫戟倚秋晴
 수의³³⁴⁾ 입고 왕년에 역마(驛馬) 타고 들렀을 때 / 繡衣擁傳他年過
 채복³³⁵⁾에 수레 타고 아우님이 맞았었지 / 綵服乘軒愛弟迎
 하릴없이 향내만 났 한가한 거실 / 燕寢凝香無箇事
 경구완대(輕裘緩帶) 맑은 기운 아직도 영재에 남아 있네³³⁶⁾ / 鈴齋緩帶有餘清
 옛날 노닐던 일 지금은 벌써 추억 / 舊遊今日成追憶

333) 멀리 …… 일 : 《논어(論語)》 이인(里仁)에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는 멀리 나가 놀지 말 것이요, 나가 놀더라도 반드시 일정한 장소가 있어야 한다.[父母在不遠遊 遊必有力]”는 공자의 말이 실려 있다.

334) 수의(繡衣) : 수놓은 화려한 옷이란 뜻으로, 암행어사(暗行御史)를 영광스럽게 일컬을 때 쓰는 말이다.

335) 채복(綵服) : 색동옷이라는 말로, 효자가 아버이를 기쁘게 해 드릴 때 쓰는 표현이다. 참고로 두보(杜甫)의 ‘입주행(入奏行)’에 “繡衣春當霄漢立 綵服日向庭闈趨”라는 구절이 있다.

336) 경구완대(輕裘緩帶) …… 있네 : 수원의 병민(兵民)을 너그럽게 다스렸던 정홍명(鄭弘溟)의 유아(儒雅)한 풍도가 아직 남아 있다는 말이다. 진(晉) 나라 양호(羊祜)가 군중(軍中)에서 늘 가벼운 옷차림에 허리띠도 느슨하게 한 채[在軍常輕裘緩帶] 갑옷도 입지 않았으며, 영각(鈴閣)에서 시위하는 군사도 십여인에 불과하였던 고사가 있다. 《晉書 羊祜傳》 영재(鈴齋)는 곧 영각(鈴閣)으로, 지방 장관이 관할하는 지역을 말한다.

화답 시 지으려니 마음 편치 않소그려 / 欲和新詩意不平

장유(張維), <계곡집(谿谷集), 제31권 칠언율시(七言律詩), 次水原客館韻.和崎翁湖行錄>

문화/예술

정약룡이 갯재첩에 쓴 발문으로 1795년(정조 19) 화성에 거둥하여 정조가 지은 시에 화답한 시를 모은 시첩.

상(上 정조를 가리킴) 19년 봄 건륭(乾隆:청 고종 <清高宗>의 연호) 을묘년(1795)임. 2월에 대가(大駕)가 대비(大妃)를 모시고 화성(華城)에 거둥하여 현릉원(顯陵園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능(陵)임)을 알현(謁見)하였다. 그리고 행궁(行宮)에 돌아와서 호종(扈從)한 여러 신하에게 잔치를 베풀고 대비께 헌수(獻壽)한 다음 상이 시(詩) 한 수를 짓고 여러 신하로 하여금 화답하게 하였다. 밤에는 서장대(西將臺)에 나아가 군대를 조련한 다음 상이 시 한 수를 짓고 여러 신하로 하여금 화답하게 하였다. (...)

上之十九年春乾隆乙卯二月.大駕奉慈宮詣華城.既謁園.還至行宮.宴扈從諸臣.上壽慈宮訖.御製詩一首.令諸臣賡和.夜御西將臺習城操.御製詩一首.令諸臣賡和.(...)

정약룡(丁若鏞),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제14권 발(跋), 跋賡載帖>

문화/예술

여름철 병들어 누워있을 때 지은 시로서 화성행차에 다녀왔던 일을 추억하는 내용.

바위도랑 서쪽에 자그마한 서향각 / 書香小閣石渠西

밤마다 동쪽 벽에 별들이 나직하다네 / 東壁星辰夜夜低

언제나 자색 안개 용호 기운 서려 있고 / 紫霧常留龍虎氣

푸른 못은 봉황이 와 놀도록 하였다 / 碧池曾許鳳凰棲

옥섭을 보노라면 님의 얼굴 떠오르고 / 恭瞻玉躔天顏近

특별히 주신 상아 첨대 님이 손수 쓰신 거였지 / 密降牙籤御手題

듣기에 화영전을 새로 또 지었다는데 / 聞道華寧新象設

유대 앞 길가에는 풀빛이 무성하리 / 乳臺前路草萋萋

【이는 서향각(書香閣)을 읊은 시다. 서향각은 춘당대(春塘臺) 북쪽에 있는데 내부(內府)의 서적과 어진(御眞)을 모셔둔 곳이고, 화영전은 화성(華城)에 있는데 역시 어진을 모셔둔 곳임.]

파릉의 물빛이 검천까지 닿아 있고 / 巴陵水色接黔川

강 위의 붉은 누각 반공중에 솟아 있지 / 江上朱樓落半天

버드나무 밖에는 조군이더 돛대뿐이요 / 漕步帆檣煙柳外

들창 앞에 보이는 것 어촌이요 섬이었다 / 漁村洲嶼綠窓前

은대의 직책으로 난여 따라 가보았고 / 銀臺職從鸞輿日

아버지 교훈 받던 시절 지부관으로 오셨었죠 / 地部官臨鯉對年

님 계신 곳 아득하고 어버이도 아니 계셔 / 弓劍杳然風樹隕

객상에서 읊는 시에 눈물이 왈칵 솟네 / 客牀吟眺重汪然

【이는 읍청루(挹淸樓)를 읊은 시다. 읍청루는 숭례문(崇禮門) 밖 10리 거리에 있는 용산(龍山) 위에 있는데, 선인(先人)께서 호부(戶部)에 계실 때 그 누각에 한 번 오르신 일이 있고, 왕조 시절 대가(大駕)가 거기 가실 때는 내가 또 승지(承旨)로서 호종(扈從)했던 일이

있었음.】

노량진 작은 토성 강을 띠고 쌓여 있고 / 露梁津堡帶江橫

구불구불 연로가 화성까지 닿아 있지 / 輦路逶迤接華城

물가 언덕 정자 하나 구름 일어 장막 되고 / 水岸亭孤雲幕起

바다에 돛 사라지면 그림다리가 놓여졌지 / 海門帆落畫橋成

님 탄 수레 움직이려면 화살 셋이 날았으며 / 鸞鑣欲動飛三箭

타고가 울리면서 두 곳 영도 풀렸지 / 鼙鼓交鳴解兩營

병조에 있으면서 님의 행차 모셨을 때는 / 憶忝兵曹陪羽衛

내반에서 편미³³⁷⁾ 들고 기둥 앞에 섰었건만 / 內班鞭弭列朱楹

【이는 망해정(望海亭)을 읊은 시다. 망해정은 노량진에 있는데, 선왕께서 화성(華城)에 행차했다가 돌아올 때면 언제나 그 정자에서 조금 쉬었다가 배에 오르곤 하였음.】(…)

暑月臥病擁塞.有懷漢陽樓亭.風門颯沓無補.發狂大叫.然憶舊傷今.不失老杜秋興遺意云.

(…)

書香小閣石渠西.東壁星辰夜夜低.紫霧常留龍虎氣.碧池曾許鳳凰栖.恭瞻玉躔天顏近.密降牙籤御手題.聞道華寧新象設.乳臺前路草萋萋.【書香閣在春塘臺北.藏內府書籍兼奉御眞.華寧殿在華城.亦奉御眞.】

巴陵水色接黔川.江上朱樓落半天.漕步帆檣煙柳外.漁村洲嶼綠窓前.銀臺職從鸞輿日.地部官臨鯉對年.弓劍杳然風樹隕.客牀吟眺重汪然.【挹清樓在崇禮門外十里龍山之上.先人爲戶部時一登斯樓.又先朝駕臨.余以承旨扈從.】

露梁津堡帶江橫.輦路逶迤接華城.水岸亭孤雲幕起.海門帆落畫橋成.鸞鑣欲動飛三箭.鼙鼓交鳴解兩營.憶忝兵曹陪羽衛.內班鞭弭列朱楹.【望海亭在露梁.先朝每幸華城.還至此亭小憩.方渡舟橋.】(…)

정약용(丁若鏞),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제4권 시(詩), 夏日遣興八首>

문화/예술

1795년(정조 19) 늦봄 춘당대 부용정에서 베푼 잔치를 추억하면서 지은 시

을묘년(정조 19, 1795) 늦은 봄에 신(臣)이 감인소(監印所)에서 직숙(直宿)하며 글을 쓰고 있었는데, 하루는 상께서 춘당대(春塘臺)에 남시어 상화조어(賞花釣魚)의 잔치를 여셨다. 신도 외람되이 남다른 사랑을 받고 그 성대한 잔치에 참여했었는데, 지금은 상께서 영원한 곳으로 가신 지 이미 오래이고, 신 역시 막다른 황원에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 지금 계절이 마침 늦은 봄이라서 보이는 것마다 슬픔을 자아내기에 삼가 이 시를 써서 오히려불망(於戲不忘)의 감정을 여기에 쏟아보았다.

장기성 동쪽 약천 북쪽에 【약천(藥泉)은 유림(楡林) 남쪽에 있음.】 / 長鬢城東藥泉北

방초는 연기 같고 난만한 꽃 짜놓은 듯 / 芳草如煙花似織

문만 닫고 있는 내가 주인 생각에 안됐던지 / 主人憐我長閉戶

봄구경 한 번 다녀오자고 넌지시 날 권하면서 / 勸我一出看春色

채소도 뜯어 오고 생선도 익히고 / 爲摘野蔬烹海鮮

혼연한 얼굴로 술까지 한 병 찾기에 / 帶酒一瓶貌欣然

못 이긴 채 짚신에다 죽장을 챙겨 짚고 【국상[國恤]이 아직 소상(小祥) 전이었음.】 / 試穿

337) 편미 : 말채찍과 꾸미지 아니한 활. 왕의 행차 때 쓰던 도구들임.

菅屨扶竹杖

그를 따라 애써서 사립문 밖 나섰다가 / 電勉隨至柴門前
머뭇머뭇 갑자기 옛날 일을 생각하니 / 躊躇欲行忽反顧
눈물이 주르륵 가을비처럼 쏟아져서 / 泫然淚落如秋雨
말 없이 다시 들어와 침통한 얼굴로 / 入門無語慘顏色
막막한 하늘 보았더니 천지가 아득하데 / 漠漠視天天地暮
생각하면 그 옛날 태세가 을묘인 해에 / 憶昔單闕歲在乙
님 은혜로 규영실에 들어가 있었는데 【감인소(監印所) 편액을 규영부(奎瀛府)라고 달고 동
실(東室)과 서실(西室)이 있었음.】 / 承恩入處奎瀛室
님의 수레 그때 막 화성에서 돌아와서 **【2월에 자궁(慈宮)을 모시고 화성에 행차하였음.】** /
法駕新自華城還
노부를 적어서 책으로 만들어 올리라네 【신으로 하여금 《정리통고(整理通考)》를 찬술하도
록 명하였음.】 / 令記鹵簿進繚帙
때는 그때 삼월달 상순으로 접어들어 / 是時三月屬上旬
백화가 춘당지를 곱게곱게 물들였고 / 百花照耀龍池春
성모의 나이가 회갑을 맞았기에 / 聖母年周花甲子
문신들과 금원에서 함께 놀며 즐겼는데 / 禁林游賞同詞臣
내구에 있는 말들 총마며 유마 낙마 / 內廐物馬驄駟駱
가슴걸이 뱃대끈이 번쩍번쩍 빛이 났지 / 繁纓七就光灼爍
님 타신 말 앞에 서고 신의 말은 뒤 따를 제 / 御乘在前臣馬後
말들끼리 주고받아 깜짝깜짝 놀랐다네 / 馬鳴相答中心懼
궁중 길 구불구불 내원을 감아돌 때 / 輦路逶迤繞內苑
온갖 나무 꿰뚫고서 봄바람 불어 오고 / 雜樹穿出春風遠
꽃 속에서 노는 벌들 앵앵소리 요란했으며 / 花底游蜂聲正沸
새끼사슴은 풀밭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네 / 草間釋鹿眠方穩
석거문 아래서 일제히 안장 푸니 【석거각(石渠閣)이 영화당(映花堂) 동편에 있음.】 / 石渠
門下齊卸鞍
모직물 비단자리에 술자리 차려 놓고 / 氎裯綉席陳杯盤
계주에다 자면에다 옥액이 흘렀으며 / 桂酒茈麪流玉液
조고에 꿀병에 금환까지 쌓여 있었네 / 棗糕橘餅疊金丸
못 마신다 사양해도 억지로 다 마시라며 / 臣辭不飲強之醕
예의도 상관없이 술잔 건네고 안주 권해 / 折俎賸爵刪禮貌
석 잔 마시고 취하여 토하고 쓰러지니 / 三杯醑酤吐且顛
동료들은 빈정대고 님께서는 웃으셨네 / 同列嘲訕至尊笑
바람 쏘이며 자리 옮겨 옥류각으로 들어가서 【석거문 북쪽에 옥류천(玉流泉)이 있고 각(閣)
은 그 못 속에 있음.】 / 迎風轉入玉流閣
붉은 난간 기대앉아 춤추는 학 보노라니 / 醉倚朱欄看舞鶴
비단바위에 해가 비쳐 쉬던 놀이 움직이고 / 錦石日射棲霞動
맑은 물에 개지 떨어져 잔물결 일고 있는데 / 鏡水漪生飛絮落
자의³³⁸⁾가 쫓아와서 술 깬냐 묻고서는 / 紫衣催召問酒醒

338) 자의 : 자의소대(紫衣小隊)를 줄여 쓴 것으로 천자(天子) 좌우에서 천자를 모시고 있는 시자(侍者).

날 데리고 농산정을 함께 가서 구경했지 / 提携往觀籠山亭
 다래덩굴 울밀하여 흡사 절과 같았으며 / 藤蘿蒙密似僧院
 도서 속에 고요하기 선경인가 싶데그려 【농산정이 옥류천 동편에 있는데 깊숙하고 고요하
 여 마치 산인(山人) 은자(隱者)가 살고 있는 곳 같았으며 반궁(泮宮)과는 서로 가까운 거리
 에 있었음.】 / 圖書靜嘉疑仙局
 갑자기 숲 속에서 홍색 일산 나타나더니 / 忽見林中紅繖起
 어라 쉬 님 행차가 화원 속에 멎으셨네 【작은 정자가 있었는데 둘레를 담으로 치고 속에는
 많은 꽃과 나무들을 기르고 있었음.】 / 警趣移駐花園裏
 높다란 누각 위에 님의 자리 마련되고 / 草閣峩嶢御座清
 새물로 끓인 차를 어명으로 내리셨다 / 勅賜龍茶試新水
 총대 앞으로 님의 수레 돌아오고 【바로 춘당대(春塘臺)임.】 / 瑞蔥臺前鳳輦廻
 장원봉 곁에다는 꿈 과녁을 쳐뒀는데 【작은 과녁에는 다섯마리 새를 그리고 그 가운데다
 꿈을 그렸음.】 / 壯元峯側熊帳開
 님이 쏜 열 발 중에 아홉 발이 명중되어 【선왕께서는 언제나 한 발은 고의적으로 맞지
 않게 하여 겸양의 덕을 보이었음.】 / 御矢十發奏九中
 북 친 사람 홀로 서있고 징 친 사람은 오데그려 / 鼓人獨立鉦人來
 석양에는 또다시 천향 따라 들어가니 / 夕陽復隨天香入
 태액지의 물빛은 뜨고 싶도록 그윽하고 【이 못은 영화당(映花堂) 서편에 있음.】 / 太液池
 光幽可挹
 황룡 새긴 작은 배는 규모가 북만한데 / 黃龍鑿子小如梭
 비단돛에 수를 놓아 붉은빛이 선명하다 【돛에 수놓인 글자는 “款乃一聲山水綠”이란 일곱
 글자였음.】 / 錦帆繡字紅湄湄
 배 짓고 노닐면서 뱃노래도 구성지고 / 刺般容與櫂歌歡
 부용정 올려보면 그렇게도 좋을 수가 【부용정은 못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정자 한 쪽 머리
 가 못 속으로 들어와 있었으며, 상께서는 부용정으로 남시어 배 타고 노는 제신(諸臣)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음.】 / 正好芙蓉亭上看
 난간머리서 운을 부르면 배 안에선 시를 짓는데 / 欄頭命韻舟中作
 좋은 시를 올려바친 선관들이 많았었네 / 清詞捧獻多仙官
 낚싯대를 받아들고는 못 굽이에 늘어서서 / 却授漁竿列池曲
 님이 낚은 건 수십 마린데 신은 겨우 대여섯 마리였네 / 御釣數十臣五六
 【고기를 낚지 못한 자는 술 마시는 것으로 벌을 삼았음.】
 낚은 고기 도로 놔주고 저녁밥을 먹었는데 / 放生洋洋晚飯宣
 회에 국에 생선에다 육까지 곁들였지 / 細膾粢羹雜鮮肉
 잠시 후에 둥근 달이 동상 머리에 떠오르니 / 須臾月上東廂頂
 금물결이 일렁이고 하늘은 거꾸로네 / 金波激灩天倒影
 바람 맑고 이슬 내리고 취하여 잠이 올 때 / 風清露下醉欲眠
 은촉이 앞을 서서 화성³³⁹으로 돌아갔었지 / 銀燭導前歸華省
 아 아 그게 모두 어제 일만 같은데 / 嗚呼此事如昨日
 바람 앞에 촛불처럼 갑작새 빛을 잃고 / 欸忽收光風燭疾
 구름 속으로 가버린 용 붙들려도 길이 없이 / 龍髯入雲杳莫攀

339) 화성(華省) : 관부(官府)를 이룸.《文選 潘岳秋興賦》

유대와 석수만이 쓸쓸하게 서 있구나 / 乳臺石獸寒蕭瑟
 그 당시 있던 사람도 영남으로 밀려나가 / 舊人流落在嶺南
 소나무 풀독 속에서 술에 늘 빠져있다네 / 松嵐草瘴常沈酣
 천보 시절 영관을 그 다투서 돌봐주리³⁴⁰⁾ / 天寶伶官誰見恤
 원우의 간비가 이미 다 새겨졌는데³⁴¹⁾ / 元祐姦碑知已劖
 흙자리 대창문에 처량하게 누웠으니 / 土牀竹牖悽獨臥
 곁에서는 잘못 알고 내 불우함을 걱정한다네 / 傍人錯謂愁慙軻
 마음 아파 세상 꼴을 차마 볼 수가 없어 / 傷心不忍見時物
 눈물만 하염없이 옷깃 앞에 떨어진다 / 蔌蔌襟前清淚墮

乙卯季春,臣直宿監印所撰書,一日上御春塘臺,設賞花釣魚宴,臣叨承異渥,獲與盛筵,今眞游已遠,臣又流落窮荒,適當暮春,時物感愴,恭述此篇,以瀉於戲不忘之思.

長髻城東藥泉北,【藥泉在楡林之南,】芳草如煙花似織,主人憐我長閉戶,勸我一出看春色,爲摘野蔬烹海鮮,帶酒一瓶貌欣然,試穿菅履扶竹杖,【國恤未小祥,】黽勉隨至柴門前,躊躇欲行忽反顧,泫然淚落如秋雨,入門無語慘顏色,漠漠視天天地暮,憶昔單闕歲在乙,承恩入處奎瀛室,【監印所扁曰奎瀛府,有東室西室,】法駕新自華城回,【二月陪慈宮幸華城,】令記鹵簿進縹帙,【命臣撰整理通考,】是時三月屬上旬,百花照耀龍池春,聖母年周花甲子,禁林游賞同詞臣,內殿物馬驄駉駉,繁纓七就光灼爍,御乘在前臣馬後,馬鳴相答中心懼,輦路逶迤繞內苑,雜樹穿出春風遠,花底游蜂聲正沸,草間釋鹿眠方穩,石渠門下齊卸鞍,【石渠閣在映花堂之東,】氎裯綉席陳杯盤,桂酒茝麪流玉液,棗糕橘餅疊金丸,臣辭不飲強之酬,折俎媿爵刪禮貌,三杯酩酊吐且顛,同列嘲訕至尊笑,迎風轉入玉流閣,【玉流泉在石渠之北,有閣在池中,】醉倚朱欄看舞鶴,錦石日射棲霞動,鏡水漪生飛絮落,紫衣催召問酒醒,提携往觀籠山亭,藤蘿蒙密似僧院,圖書靜嘉疑仙局,【籠山亭在玉流泉之東,深邃若山人隱者之居,與泮宮相近,】忽見林中紅繖起,警蹕移駐花園裏,【有小亭周以響牆,多養花木,】草閣岿嶢御座清,勅賜龍茶試新水,瑞蔥臺前鳳輦迴,【即春塘】壯元峯側熊帳開,【小帳畫五禽,熊居其中,】御矢十發奏九中,【先朝每故遺一矢,以寓謙挹,】鼓人獨立鉦人來,夕陽復隨天香入,太液池光幽可挹,【池在映花堂之西,】黃龍牒子小如梭,錦帆繡字紅熠熠,【帆繡款乃一聲山水綠七字,】刺船容與櫂歌歡,正好芙蓉亭上看,【芙蓉亭在池南,一頭入池中,上御芙蓉亭,俯觀諸臣乘舟,】欄頭命韻舟中作,清詞捧獻多仙官,却授漁竿列池曲,御釣數十臣五六,【釣不得魚者,飲酒爲罰,】放生洋洋晚飯宣,細膾粼羹雜鮮肉,須臾月上東廂頂,金波激灩天倒影,風清露下醉欲眠,銀燭導前歸華省,嗚呼此事如昨日,欸忽收光風燭疾,龍髯入雲杳莫攀,乳臺石獸寒蕭瑟,舊人流落在嶺南,松嵐草瘴常沈酣,天寶伶官誰見恤,元祐姦碑知已劖,土牀竹牖悽獨臥,傍人錯謂愁慙軻,傷心不忍見時物,蔌蔌襟前清淚墮.

정약용(丁若鏞),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제4권 시(詩), 芙蓉亭歌>

문화/예술

340) 천보 시절 …… 돌봐주리 : 전조(前朝)에 불우했던 현자(賢者)를 돌봐줄 자 없음. 천보(天寶)는 당 현종(唐玄宗) 연호이고, 영관(伶官)은 악관(樂官)인데, 현자로서 뜻을 펴지 못하여 미직(微職)에 종사하고 있었음.

341) 원우의 …… 새겨졌는데 : 현자는 모두 물리침을 당하고 간사한 무리들이 득세하고 있음. 원우(元祐)는 송 철종(宋哲宗) 연호. 당시에 사마광(司馬光)을 필두로 하여 정이(程頤)·문언박(文彦博) 등 문인 학자 1백여 명이 한 무리가 되어 왕안석(王安石)의 신당(新黨)과 격렬한 대립을 보여왔는데, 그 후 휘종(徽宗) 대에 와서 증포(曾布)·채경(蔡京) 등이 이상의 문인 학자들을 원우간당(元祐姦黨)으로 몰아 단례문(端禮門)에다 원우간당비를 돌에 새겨 세웠음. 《元祐黨人傳》

정조의 죽음에 빈소를 열고 발인하는 날 슬픔을 읊은 시.

운기 우개 필력필력 세상 먼지 터는 걸까 / 雲旗羽蓋拂塵紅
홍화문 앞에다 조장³⁴²⁾을 차리었네 / 弘化門前祖帳隆
열두 전거에다 채워둔 우상 말이 / 十二輜車安塑馬
일시에 머리 들어 서쪽을 향하고 있네 / 一時昂首向西風
영구 수레가 밤 되어 노랑 사장 도착하니 / 龍輻夜到露梁沙
일천 개 등촉들이 강사 장막 에워싸네 / 燈燭千枝護絳紗
단청한 배 붉은 난간은 어제와 똑같은데 / 畫舸紅欄如昨日
님의 뉘는 어느새 우화관으로 가셨을까 / 猶疑仙蹕幸于華

【화성(華城)에 우화관(于華館)이 있음.】

천 줄기 흐르는 눈물 의상에 가득하고 / 千行涕淚滿衣裳
바람 속 은하수도 슬픔에 잠겼어라 / 風裏星河氣慘蒼
성곽은 옛 모습 그대로 있건마는 / 縱有依然舊城闕
서향각 배알을 각지기가 못하게 하네 / 司閤不許拜書香

【서향각(書香閣)이 영화당(映花堂) 북쪽에 있는데 바로 어진(御眞)을 안치해둔 곳으로 몇 해 전 언젠가 첨알(瞻謁)한 적이 있었음.】

雲旗羽蓋拂塵紅.弘化門前祖帳隆.十二輜車安塑馬.一時昂首向西風.

龍輻夜到露梁沙.燈燭千枝護絳紗.畫舸紅欄如昨日.猶疑仙蹕幸于華.【華城有于華館.】

千行涕淚滿衣裳.風裏星河氣慘蒼.縱有依然舊城闕.司閤不許拜書香.【書香閣在映花堂北.即御眞所安.昔年嘗瞻謁.】

정약용(丁若鏞),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제4권 시(詩), 啓引日述哀>

문화/예술

1800년(정조 24) 화성에서 돌아오는 대가를 삼가 주교 북쪽에서 기다리며 지은 시.

신정 맞아 원침을 전알하고 돌아오는 길 / 園寢新正展謁回
느릿느릿 햇빛이 누대에서 내려서네 / 遲遲日色下高臺
칼과 패옥 찬 백관은 움직이는 별을 보고 / 百官劍佩瞻星動
육부의 기들은 눈을 떠고 오고 있구나 / 六部旌麾帶雪來
언덕에 꽂힌 촛롱대가 주필 알려 주고 / 岸插燭籠知駕駐
화전이 하늘을 나니 문을 아마 여나보다 / 天飛火箭識門開
창덕궁 앞에서 밤이 깊어 갈렸는데 / 夜深昌德宮前散
달빛과 은하수가 장안거리에 가득하네 / 璧月銀河滿九街

園寢新正展謁回.遲遲日色下高臺.百官劍佩瞻星動.六部旌麾帶雪來.岸插燭籠知駕駐.天飛火箭識門開.夜深昌德宮前散.璧月銀河滿九街.

정약용(丁若鏞),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제3권 시(詩), 大駕回自華城恭候舟橋之北【庚申】>

문화/예술

남고 윤규범(尹奎範)을 보내고 화성으로 돌아오며 지은 시

뜬구름 강해에 가득한데 / 浮雲滿江海

342) 조장(祖帳) : 전별(餞別)을 고하는 자리.

이 저물게 그대 어딜 가려는가 / 之子暮何歸
 길손 따라 낙엽도 가고 / 落葉隨行囊
 갈바람 해진 옷에 파고드네 / 秋風入敗衣
 두리번 두리번 누가 날 좋아할까 / 棲棲誰見愛
 담담하게 서로 의지하는 사인데 / 澹澹故相依
 해학 너무한 것이 후회로세 / 謔浪終成悔
 비위 틀려 가는 것은 아닌지 / 應緣素性違

화양성 북쪽에 굶은비는 내리는데 / 華陽城北雨霏霏
 먼 길손 돌아갈 때 낙엽도 거의 졌네 / 遠客歸時葉正稀
 강 폭이 넓어선가 님의 소식 오지 않아 / 玉輦不來江水闊
 꿈은 도로 북을 가는 구름 따라 날아간다 / 夢魂還逐朔雲飛
 정약용(丁若鏞),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제3권 시(詩), 送南臯還華城>

문화/예술

정약용이 윤규범에게 써서 보낸 시.

듣자니 지금 화성부에 / 聞說華城府
 단단한 철옹성을 쌓고 있다던데 / 嚴關鐵甕重
 날 듯한 누대 무지개에 닿아 있고 / 飛樓臨蜺蜺
 화려한 누각에는 교룡을 그렸구려 / 綺閣畫蛟龍
 건업에 강산이 수려하고 / 建業江山麗
 신평에는 초수가 무성하지³⁴³⁾ / 新豐草樹濃
 왕릉에 상서로운 기운 서려 있어 / 寢園佳氣盛
 일만 주 소나무를 해마다 심는다고 / 歲植萬株松

탁월한 영감 윤고산은 / 卓犖孤山老
 인품이 속세를 훨씬 벗어났었지 / 風標迥出塵
 화란을 막으려고 간사한 자 물리치고³⁴⁴⁾ / 擊奸消禍亂
 인간 질서 확립하려고 입바른 상소했지³⁴⁵⁾ / 抗疏正彝倫
 한실에선 장유를 데면데면 대하였고³⁴⁶⁾ / 漢室疎長孺
 오문으로 숨어 지낸 자진이었네³⁴⁷⁾ / 吳門隱子眞

343) 건업에 …… 무성하지 : 수원성(水原城)을 중국에 비유하여 그 아름다움을 나타낸 것. 건업(建業)은 삼국(三國) 시대 오(吳)의 손권(孫權)이 옮겨 도읍을 정한 곳이며, 신평(新豐)은 한 고조(漢高祖)가, 자기 고향 풍(豐)이 그리워 그리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태상황(太上皇)을 위하여 풍과 비슷하게 새로 만든 고을인데, 정조(正祖)가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思悼世子)를 위하여 수원성을 가꾸기에 주력하였으므로 한 말이다.

344) 화란을 …… 물리치고 : 1616년(광해군 8) 윤선도가 성균관 유생으로서 당시 권신 이이첨(李爾瞻) 일당의 횡포에 대한 상소를 올렸던 일을 말한 것.

345) 인간 질서 …… 상소했지 : 자의대비(慈懿大妃) 복상(服喪) 문제가 일어났을 때 서인(西人)의 기년설(基年說)에 반하여 삼년설을 주장했던 일을 말한 것.

346) 한실에선 …… 대하였고 : 왕이 그의 강직함을 알아주지 않음. 장유(長孺)는 한(漢) 나라 급암(汲黯)의 자(字). 급암은 성품이 우직하여 임금 앞에서도 바른말을 곧잘 하였으므로 임금도 그를 대하기를 꺼려하였다. 윤선도(尹善道) 역시 바른말을 잘했는데, 그로 인하여 오히려 왕이 소원하게 대했다는 말임.

강력히 주장했던 풍수설 때문에도³⁴⁸⁾ / 却因風水說

일천 년 두고두고 충신이 되었다오 / 天載作忠臣

정약용(丁若鏞),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제3권 시(詩), 簡寄尹南阜【尹彝敍】>

문화/예술

정조가 지은 ‘지지대에서 행차를 멈추며’ 라는 어제시에 정약용이 화답하여 지은 시.

대 아래 푸른 실로 꾸민 임금 길 / 臺下靑繩路

아득히 화성으로 곧게 뻗었네 / 遙遙直華城

상서 구름 농부의 기대 맞추고 / 瑞雲連野望

이슬비는 임금의 심정 아는 듯 / 零雨會宸情

용깃발은 바람에 펄럭거리고 / 旖旎龍旗色

의장대 피리 소리 퍼져나가네 / 悠揚鳳管聲

그 당시 군대 행렬 어제 일처럼 / 戎衣如昨日

상상하는 백성들 지금도 있어 / 想像有遺氓

정약용(丁若鏞),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제2권 시(詩), 奉和聖製遲遲臺駐蹕韻>

문화/예술

채제공의 ‘임금께서 홍범산을 순행하고 밤이 되어 행궁으로 돌아오시다.’라는 시에 대해 정조의 명에 따라 화답한 시.

양친 그리는 임금 마음 의지할 곳이 없는 듯 / 孺慕宸情若靡依

배회하는 가마 행차 돌아갈 줄 모르니 / 徊徨步輦欲無歸

산은 맑은 기운 머금어 의장대에 남기고 / 山含淑氣留仙仗

숲은 이슬 털어내어 임금 옷을 적시었네 / 林拂餘霏濕御衣

구령³⁴⁹⁾의 신선놀이 그 세월이 많았는데 / 綏嶺眞游多歲月

역양³⁵⁰⁾땅의 새 마을 도성에 가깝다네 / 櫟陽新聚近郊畿

유대의 밝은 햇빛 지루하기 그만인데 / 乳臺日色遲遲度

황혼이 되어서야 옥비³⁵¹⁾를 재촉하였네 / 直到黃昏戒六飛

정약용(丁若鏞),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제2권 시(詩), 蔡相國每至華城 輒賦詩盈卷 上徵其卷 和其四詩 其中駕巡洪範山夜還行宮詩 令【臣】鏞賡進【臣】恭和以進>

문화/예술

화성에 당도하여 지난봄에 임금의 행차를 모셨던 일을 회상하고 서글퍼서 지은 시.

347) 오문으로 …… 자진이었네 : 세상이 자기와 맞지 않아 은거생활을 함. 자진(子眞)은 한 나라 매복(梅福)의 자. 왕망(王莽)이 정권을 제멋대로 하자, 하루 아침에 처자도 가정도 버리고 구강(九江)으로 떠나 오시문졸(吳市門卒)이라고 변성명을 하고 지내다가 신선이 되었다고 함. 《漢書 卷67》

348) 강력히 …… 때문에도 : 효종(孝宗) 상사 때 윤선도(尹善道)가 산릉 간심관(山陵 看審官)으로서 장지로는 수원(水原)이 제일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가 서인(西人)의 반대로 실행되지 않았음.

349) 구령 : 중국 하남(河南) 연사현(偃師縣)에 있는 산 이름. 신선 왕자 교(王子喬)가 환량(桓良)과 7월 칠석에 함께 만났던 곳으로, 신선이 사는 선경을 비유한 것이다.

350) 역양 : 중국 섬서(陝西) 임동현(臨潼縣) 동북쪽에 있는 땅 이름. 한 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의 아버지 지 무덤이 있는 곳으로,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무덤인 현릉원(顯陵園)이 있는 경기 수원을 비유한 것이다.

351) 옥비 : 고대 황제의 수레는 말 여섯 마리가 끌었다 하여 나온 말로, 임금의 행차를 뜻한다.

장안문 문 밖에는 용깃발을 세워두고 / 長安門外建龍旂
 호위병과 시종신들 비단옷을 다 입었지 / 衛士從臣盡錦衣
 다섯 군교 군사 통솔 북소리가 울리고 / 五校勒軍鼙鼓動
 두 대열 길 정리라 생황소리 퍼졌지 / 兩行清道鳳笙飛
 자궁께서 내리신 술 모든 신하 목 적시고 / 慈宮綠醕沾恩遍
 군주 타신 붉은 교자 능침 뵈고 돌아갔지 / 郡主紅輶拜寢歸
 이곳을 지나간 게 엇그제와 같거니 / 此地經過如昨日
 다리 가의 수양버들 아직도 무성하네 / 御橋楊柳尙依依
 정약용(丁若鏞),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제2권 시(詩), 行次華城恭憶春日陪扈之事悵然有作>

문화/예술

정조의 ‘내원상화시(內苑賞花)’에 화답한 시로 부용정에서의 잔치를 추억한 시.

대가(大駕)가 화성(華城)에서 돌아온 뒤 3월까지 신은 규영부(奎瀛府 규장각의 별칭)에 있으면서 《정리통고(整理通攷)》를 저술하였다. 임금께서 춘당대(春塘臺)에 거동하시어 각신(閣臣) 10여인 【채제공(蔡濟恭)·서유린(徐有隣)·이만수(李晩秀)·윤행임(尹行恁) 등이다.】과 책을 저술한 제신(諸臣)-이익운(李益運)·홍인호(洪仁浩)이다.- 등을 불러들여 모두 내구마(內廐馬)를 타고 호종하였다. 석거문(石渠門)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꽃구경을 한 뒤에 또 부용정(芙蓉亭)에 이르러 고기를 낚았다. 시를 지은 것은 또한 그 기쁨을 기술하기 위해서였다.

선경의 꽃나무 속에 못과 누대 트였는데 / 上淸花木關池臺
 비단 자리 금접시로 궁중 잔치 열리었네 / 綺席金盤曲宴開
 다행할사 한미한 신 고관들과 함께 마셔 / 微臣幸與長纓飲
 작은 재주 무슨 수로 이 술잔을 보답할꼬 / 塵刹何由報此杯

駕自華城回.至三月.臣在奎瀛府.撰整理通攷.上御春塘.召閣臣十餘人【蔡濟恭，徐有隣，李晩秀，尹行恁等.及撰書諸臣.李益運，洪仁浩等.】皆乘內廐馬.扈從至石渠門.下馬賞花.既又至芙蓉亭釣魚.亦以志喜也.

上淸花木關池臺.綺席金盤曲宴開.微臣幸與長纓飲.塵刹何由報此杯.

정약용(丁若鏞),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제2권 시(詩), 奉和聖製內苑賞花>

문화/예술

1795년(정조 19) 화성행궁에서 행해진 봉수당잔찬시에 정약용이 화답한 시.

을묘년 (정조 19년 선생 34세) 봄 대가(大駕)가 자궁(慈宮) 【혜경궁(惠慶宮) 홍씨(洪氏)이다.】을 모시고 수원(水原)에 거동하셨는데, 두 군주(郡主) 【광은위(光恩尉) 김기성(金箕性)의 아 내와 흥은위(興恩尉) 정재화(鄭在和)의 아내이다.】도 함께 따라가셨다. 현릉원(顯陵園)을 알현하고 돌아오시는 길에 화성부(華城府)에 이르러 봉수당(奉壽堂)에서 자궁께 잔치를 올려 드렸다. 어제시를 내리고 호종한 신하들에게 화답하게 하셨는데, 신(臣) 용(鏞)은 병조 참의로서 또한 시위의 반열에 있었으므로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말하자면, 장헌세자(莊獻世子)와 자궁은 다 건륭(乾隆) 을묘년(영조11, 1735)에 탄생하시어 금년이 회갑이 되기 때문에 이 잔치를 열게 된 것이다.

드높은 장락궁에 새로 잔치 베풀어 / 長樂宮高設讌新
 노인성이 비추는 곳 신령한 봄 송축하네 / 壽星臨處祝靈春
 가이 없는 하늘 함께 천년 만년 기약하고 / 與天無極期千萬
 떠오르는 태양처럼 이제 겨우 육순일세 / 如日方升始六旬
 눈에 가득 벽도화는 온통 서기 감돌고 / 滿眼碧桃渾瑞氣
 머리에 꽂은 붉은 꽃은 모두 봉인³⁵²들이로세 / 插頭紅萼總封人
 우리 임금 큰 효성이 만백성에 미쳐 / 吾王錫類推純孝
 아침까지 늙은이들 백잔 술에 취하리 / 黃耆明朝醉百巡
 乙卯春.大駕陪慈宮【惠慶宮洪氏】幸水原.二郡主從焉.【光恩尉金箕性妻及興恩尉鄭在和妻.】既謁顯隆園.還至華城府.進宴于奉壽堂.聖製既頒.令扈從諸臣賡韻.臣鏞以兵曹參議.亦在衛班.得與宴焉.蓋莊獻世子暨慈宮.皆以乾隆乙卯誕降.是年爲回甲.故有是宴也.
 宮高設讌新壽星.臨處祝靈春與天.無極期千萬如日.方升始長樂³⁵³六旬.滿眼碧桃渾瑞氣.插頭紅萼總封人.吾王錫類推純孝.黃耆明朝醉百巡.
 정약용(丁若鏞),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제2권 시(詩), 奉和聖製奉壽堂進饌>

문화/예술

1800년(정조 24) 6월 정조가 승하하자 박지원이 감사를 대신하여 지은 진향문(進香文)³⁵⁴

천 년 지나 성인 한 분 / 千載一聖
 동방에서 왕위를 받으시니³⁵⁵ / 誕膺東方
 기자(箕子) 홍범(洪範)으로 다시 질서 세우고³⁵⁶ / 箕範再敍
 문운(文運) 거듭 창성했네 / 奎運重昌
 공자(孔子) 생각 주공(周公) 마음 / 孔思周情
 계승하고 본받아서 / 祖述憲章
 크고 넓은 정책 펴니 / 宏規鴻猷
 한 · 당조차 웅색하다 여기셨네 / 狹陋漢唐
 재위하신 스물네 해 동안 / 二紀光御
 한결같이 건강³⁵⁷의 덕을 지켜 / 一德乾剛
 궁원 호칭 바로잡고³⁵⁸ / 號正宮園

352) 봉인 : 주(周) 나라 때 사도(司徒)에 소속된 벼슬로, 제왕의 사직단과 경기 지방의 수호를 맡았다. 여기서서는 수원 부사를 비롯한 경기 지방의 지방관을 가리킨다.

353) 長樂 : 長樂二字.疑在也下宮上.

354) 대신하여 지은 것이다 : 정조 24년(1800) 6월 정조가 승하하자 충청 감사가 당시 면천 군수로 재임 중이던 연암을 진향문 제술관(進香文製述官)으로 차출했으므로, 충청 감사를 대신해서 이 글을 지었다. 《과정록》 권3에도 이 진향문이 인용되어 있다.

355) 동방에서 왕위를 받으시니 : 《서경(書經)》 무성(武成)에서 무왕(武王)은 선왕인 문왕(文王)을 예찬하면서 “천명을 크게 받으셨다.(誕膺天命)”고 하였다. 탄응(誕膺)은 천명이나 왕위를 이어받는 것을 뜻한다.

356) 기자(箕子) …… 세우고 : 주(周) 나라 무왕(武王)이 기자에게 ‘인륜(人倫)의 질서’에 관해 묻자, 기자는 하늘이 우(禹) 임금에게 주었다는 홍범구주(洪範九疇)가 곧 인륜의 질서라고 답하였다. 《書經 洪範》

357) 건강(乾剛) : 《주역(周易)》 잡괘전(雜卦傳)에 “건괘는 강함을 상징하고 곤괘는 부드러움을 상징한다. (乾剛坤柔)”고 하였다. 건강의 덕(乾剛之德)은 왕의 권위를 뜻한다.

358) 궁원(宮園) 호칭 바로잡고 : 정조의 어머니 혜빈(惠嬪)을 혜경궁(惠慶宮)으로 높이고, 아버지 사도세자(思悼世子)를 장헌세자(莊獻世子)로 추존하여 그 묘를 현릉원(顯陵園)으로 정한 일을 두고 말한 것이다.

선왕(先王)을 깊이 사모하셨네³⁵⁹⁾ / 慕深羹牆
 총악³⁶⁰⁾ 같은 간신 잘라 버리고 / 璫莠折萌
 헌기³⁶¹⁾ 같은 외척 없애 버리니 / 憲冀鋤强
 밝게 내건 큰 의리가³⁶²⁾ / 大義昭揭
 모든 왕에 우뚝하네 / 卓冠百王
 교화하고 상벌 주기³⁶³⁾ / 秩敍命討
 우로(雨露) 같고 상설(霜雪) 같아 / 雨露雪霜
 누가 감히 현혹하며 / 孰敢疑眩
 누가 감히 속이리 / 孰敢譎張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즘음에 / 向背之際
 군자와 소인이 판명되나니 / 斯判陰陽
 저 일만 삼천 선비들³⁶⁴⁾ / 彼萬三千
 어찌하여 광풍처럼 날뛰는가 / 云胡颺狂
 군중으로써 위협하여 / 要脅以衆
 우리나라의 법도(法度) 거스르니 / 悖我典常
 말세 풍속 길을 헤매며 / 末俗昏衢
 자빠지고 쓰러지네 / 醉顛汗僵
 어찌 악취가 다르랴만 / 豈不異臭
 같은 속셈 이게 웬일 / 柰此同腸
 화복과 이해 따라 / 利害禍福
 허둥대는 꼬락서니 / 所以披猖
 그 원인을 따져 보면 / 究厥所原
 망녕된 생각이 주가 된 것 / 妄度爲將

359) 선왕(先王)을 깊이 사모하셨네 : 정조 10년(1786) 왕명으로 열성조(列聖朝) 19대의 업적을 서술한 《갱장록(羹牆錄)》을 간행한 일을 말한다.

360) 총악(璫莠) : 명(明) 나라 세종(世宗)의 신하인 장총(張聰 : 1475~1539)과 계악(桂嶸 : ?~1531)을 가리킨다. 세종이 황제가 되어 자신의 생부 흥헌왕(興獻王)을 추송하려고 하자 장총과 계악이 세종의 뜻에 영합하여 효종(孝宗)을 황백고(皇伯考)로, 흥헌제를 황고(皇考)로 부를 것을 청하고, 이에 반대하는 조정의 수많은 신하들을 죽이거나 유배를 보냈다. 여기에서는 정조 즉위년인 1776년에 사도세자(思悼世子)를 추송하자고 주장을 하다가 죽음을 당한 이덕사(李德師)와 조재한(趙載翰) 등을 가리킨다.

361) 헌기(憲冀) : 후한 화제(和帝)의 외숙인 두헌(竇憲 : ?~92)과 환제(桓帝)의 외숙인 양기(梁冀 : ?~159)를 가리키며, 모두 황제의 외척으로서 권력을 전횡한 사람이다. 여기에서는 정조 즉위년에 죽음을 당한 정조의 외종조부 홍인한(洪麟漢)과 화완옹주(和緩翁主)의 양자 정후겸(鄭厚謙) 등을 가리킨다.

362) 밝게 …… 의리가 : 정조는 즉위 직후 홍인한 등을 역적으로 사사(賜死)한 사건의 전말을 밝힌 《명의를록(明義錄)》을 간행하였다.

363) 교화하고 상벌 주기 : 《서경》 고요모(皋陶謨)에, 하늘이 부여한 질서(天敍)에 오전(五典 : 오륜)이 있고, 하늘이 부여한 등급(天秩)에 오례(五禮)가 있으며, 하늘이 임명하심(天命)은 덕이 있기 때문이니 오복(五服)으로써 그런 사람을 표창하고, 하늘이 성토하심(天討)은 죄가 있기 때문이니 오형(五刑)을 그런 사람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서(敍) · 질(秩) · 명(命) · 토(討)는 백성들을 전례(典禮)로써 교화하고 신하들에게 상벌을 공정하게 시행하는 것을 뜻한다.

364) 일만 삼천 선비들 : 정조 16년(1792) 4월 27일 사도세자 30주기에 즈음하여 영남 유생 이우(李瑬) 등 1만 57명이 연명하여 사도세자의 죄를 신원하고 그를 모해한 무리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 정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5월 7일에 다시 1만 368명이 연명하여 2차 상소를 올렸다. 이에 대해 노론(老論)의 이병모(李秉模), 서유린(徐有隣), 정민시(鄭民始) 등이 동조하고 소론(少論) 유생 700여 명도 동조하는 상소를 올렸다. 일만 삼천의 선비라고 한 것은 이들을 포함한 숫자로 보인다. 《正祖實錄》

거센 물결 넘실넘실 / 滔滔狂瀾
 뉘라 능히 막을쏜가³⁶⁵⁾ / 誰能力韓
 의리는 대소를 막론하고 / 理無巨細
 털끝만 한 차이로 나뉜다네 / 析在毫芒
 이 의리를 준수하는 자 / 嚴此義者
 상서롭고 길하거니와 / 迺吉迺祥
 이 이치를 등진 자는 / 北是理者
 올빼미³⁶⁶⁾ 아니면 승냥이라 / 爲梟爲狼
 옛 성왕(聖王)의 홀륭하신 예절 / 皇王盛節
 이 대방³⁶⁷⁾을 뉘 지키리 / 孰此大防
 황극(皇極)에 모이고 귀의하게 하여³⁶⁸⁾ / 會極歸極
 도를 따라 모두 선량하게 하니 / 與道偕臧
 어허, 이 지극한 덕 / 嗚呼至德
 뉘라서 잊게 하리 / 俾也可忘
 용도각(龍圖閣)³⁶⁹⁾을 세우고 / 龍圖建閣
 천책부(天策府)³⁷⁰⁾를 만드니 / 天策設廂
 진실로 문무 갖추어³⁷¹⁾ / 允文允武
 그 공 그 피 아름답네 / 謨烈思皇
 백사(百事)가 절도에 맞아 올바르시니³⁷²⁾ / 百度惟貞
 이에 비로소 대양³⁷³⁾하였네 / 昉此對揚
 형벌을 신중히 하고 농업을 중시하여 / 欽刑重農
 일념으로 백성을 보살피시니³⁷⁴⁾ / 一念如傷

365) 거센 …… 막을쏜가 : 한유(韓愈)의 진학해(進學解)에 “백천(百川)을 막아 동으로 흐르게 하고, 거꾸로 흐르는 거센 물결을 돌이켰다.〔障百川而東之 迴狂瀾於既倒〕”고 하였다. 불교나 도교와 같은 이단 사설(異端邪說)의 유행에 맞서 유교의 정통을 수호한 공로를 예찬한 말이다.

366) 올빼미 : 올빼미는 어미를 잡아먹는다고 하여 불효조(不孝鳥)로 간주되었다. 부모를 잡아먹는 극악 무도한 인간을 효경(梟獍)이라 한다.

367) 대방(大防) : 백성들이 악에 빠지는 것을 막아 주는 큰 독이란 뜻이다. 옛 성왕(聖王)들은 이를 위해 예절을 제정하였다.

368) 황극(皇極)에 …… 하여 : 황극은 제왕(帝王)이 천하를 통치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한다. 이 구절은 《서경》 홍범의 “편벽됨이 없고 편당함이 없으면 왕의 도가 탕탕(蕩蕩)하며, 편당함이 없고 편벽됨이 없으면 왕의 도가 평평(平平)하며, 상도(常道)에 위배됨이 없고 기울어짐이 없으면 왕의 도가 정직(正直)할 것이니, 그 극(極)에 모여 그 극(極)에 돌아올 것이다.〔無偏無黨 王道蕩蕩 無黨無偏 王道平平 無反無側 王道正直 會其有極 歸其有極〕”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369) 용도각(龍圖閣) : 송(宋) 나라의 왕실 도서관으로서 황제의 문집, 도화(圖畫), 세보(世譜) 등을 보관한 곳이다. 여기에서는 정조가 왕실 도서관으로 설치한 규장각(奎章閣)을 빗대어 말한 것이다.

370) 천책부(天策府) : 당 나라 태종(太宗) 이세민(李世民)이 진왕(秦王)으로 있을 때 설치한 군부(軍府)의 이름으로 이세민은 이를 통해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다. 여기에서는 정조가 왕권 강화를 위해 설치한 친위 군영(親衛軍營)인 장용영(壯勇營)을 빗대어 말한 것이다.

371) 진실로 문무 갖추어 : 《시경》 노송(魯頌) 반수(泮水)에 “진실로 문무 갖추어 조상을 빛내시니(允文允武 昭假烈祖)”라 하였다. 노(魯) 나라 임금을 칭송한 말이다.

372) 백사(百事)가 …… 올바르시니 : 《서경》 여오(旅獒)에 “귀와 눈에 부림을 당하지 않으면 백사가 절도에 맞아 올바를 것이다.〔不役耳目 百度惟貞〕”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임금이 성색(聲色)을 멀리하였다는 뜻이다.

373) 대양(對揚) : 신하가 왕명을 홀륭하게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74) 일념으로 백성을 보살피시니 : 《맹자》 이루 하(離婁下)에 “문왕(文王)은 백성을 마치 다친 사람처럼 보살피셨다.〔視民如傷〕”고 하였다.

형벌을 감해 주신 은혜 뼈에 사무치고³⁷⁵⁾ / 恩蠲浹髓

내린 윤음(綸音) 빛나고 빛나³⁷⁶⁾ / 寶綸煌煌

모진 추위 심한 더위에도 / 祈寒盛暑

종묘 제사라면 몸소 나서고 / 必躬烝嘗

상신 더욱 중히 하니³⁷⁷⁾ / 尤重上辛

밝은 덕이 향기롭네³⁷⁸⁾ / 明德馨香

친히 지은 백 권 문집³⁷⁹⁾ / 御製百卷

성스러운 방략 원대하여라³⁸⁰⁾ / 聖謨洋洋

정주 학문 으뜸 삼고 / 學宗程朱

복희(伏羲) 황제(黃帝) 법통 이어 / 統接羲黃

대지 같고 바다 같은 학문으로 / 地負海涵

동방에 유교를 전파하셨네³⁸¹⁾ / 吾道其東

【동(東)은 협운(叶韻)으로 도(都)와 량(良)의 반절(反切), 즉 ‘당’으로 발음한다.】

세도(勢道) 물리치고 속악(俗樂) 바로잡기 / 黜霸正埶

쇠를 굽어내고 쪽정이 숙아 내듯 / 剔鐵簸糠

열성조(列聖朝) 가법 따라 / 列聖家法

존화양이(尊華攘夷) 준수하고 / 式遵尊攘

춘추대의(春秋大義) 따라 / 一部陽秋

손수 조정의 기강 이끄시니 / 手提天綱

백성 중의 비범한 인물들 / 赤子龍蛇

임금께 대도(大道) 보였도다³⁸²⁾ / 示我周行

오늘날의 서학(西學)이란 / 今之西學

양주(楊朱) 목적(墨翟)보다 심하기에 / 甚於墨楊

사서(邪書)를 불태우고 / 火其邪書

우리 백성 사람 되게 하셨네 / 人吾黔蒼

맹자(孟子)처럼 사설(邪說)을 물리치니 / 辭廓孟闢

375) 형벌을 …… 사무치고 : 정조는 재판과 형벌에도 신증을 기하여 억울한 죄인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며, 형구(刑具)를 정비하기 위해 《흠휼전칙(欽恤典則)》을 편찬하게 했다. 정조의 판결을 모은 《심리록(審理錄)》 26권이 있다.

376) 내린 …… 빛나 : 정조는 농정(農政)을 권장하는 윤음을 여러 차례 내렸는데, 그중 특히 정조 22년(1798)에는 권농정(勸農政) 구농서(求農書)의 윤음을 내려 널리 농사 진흥책을 구하였다.

377) 상신(上辛) …… 하니 : 상신은 매월 상순(上旬)의 신일(辛日)에 해당하는 날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정월(正月) 신일에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특히 중하게 다룬 것을 말한다.

378) 밝은 덕이 향기롭네 : 《서경》 군진(君陳)에 “훌륭한 정치는 향기로워 신명을 감응케 한다. 기장이 향기로운 것이 아니라 밝은 덕이 오직 향기롭다.(至治馨香 感于神明 黍稷非香 明德惟馨)”고 하였다.

379) 백 권 문집 : 《홍재전서(弘齋全書)》 100권을 가리킨다.

380) 성스러운 방략 원대하여라 : 《서경》 이훈(伊訓)에서 이윤(伊尹)은 탕(湯) 임금의 손자 태갑(太甲)이 왕위에 오르자, 선왕(先王)의 “성스러운 방략은 원대하고, 훌륭한 교훈은 매우 분명하다.(聖謨洋洋 嘉言孔彰)”고 하면서 이러한 선왕의 모훈(謨訓)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훈계하였다.

381) 동방에 유교를 전파하셨네 : 《논어》 이인(里仁)에서 공자가 “오도는 일관되어 있다.(吾道一以貫之)”고 하였듯이, ‘오도(吾道)’는 공자의 가르침 즉 유교를 말한다. 또한 후한(後漢) 때 정현(鄭玄)이 마융(馬融)의 문하를 떠나자 마융이 “오도가 동으로 갔구나.(吾道東矣)”라고 탄식하였다고 한 고사에서, 동쪽으로 유학이 전파되었다는 뜻의 ‘오도동(吾道東)’이란 성어가 생겼다.

382) 임금께 대도(大道) 보였도다 : 《시경》 소아(小雅) 녹명(鹿鳴)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여 나에게 대도(大道)를 제시했네.(人之好我 示我周行)”라고 하였다. 신하들에게 잔치를 후히 베풀어 화합을 도모하니, 신하들이 감복하여 임금인 자신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대도(大道)를 피력했다는 뜻이다.

우 임금처럼 크신 공로³⁸³⁾ / 功侔禹荒
 선왕의 사업 잇고 앞길 개척해 / 繼往開來
 세자 위해 좋은 계책 전했으니 / 燕詒元良
 구여³⁸⁴⁾ 칭송 드높고 / 九如頌騰
 사중³⁸⁵⁾ 노래 길었도다 / 四重歌長
 요순의 도 한번 꽃피우리라 / 堯舜一花
 은인을 용상(龍床) 앞에 두시더니³⁸⁶⁾ / 銀印在床
 천만년 지나도록 / 謂千萬年
 강녕(康寧) 길이 받으시리 믿었는데 / 永受色康
 어찌자고 하루저녁 / 胡寧一夕
 하늘나라로 떠나셨소³⁸⁷⁾ / 遽遐雲鄉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듯 / 地坼天崩
 온 세상 사람들 부모를 여읜 듯이 여기네 / 率土如喪
 남방에서 부음 듣고 / 奉諱南服
 북을 향해 통곡하네 / 長號北望
 팔도 백성 모두 엎디어 절하며 / 頓顙八埏
 천지 일월 아득아득 / 宇宙茫茫
 산과 바다도 슬피 울고 / 山哀海哭
 피눈물이 눈에 가득 / 血淚盈眶
 지난날 깊은 인덕(仁德) / 驗昔深仁
 이 큰 슬픔 보니 알겠도다 / 觀此巨創
 수렴하신 성모님³⁸⁸⁾이 / 聖母垂簾
 희정당에 남시어서 / 熙政一堂
 원우의 덕 짝하시고³⁸⁹⁾ / 媲美元祐

383) 맹자(孟子)처럼 …… 공로 : 정조가 천주교를 배척한 것은 맹자가 피사(諛辭) · 음사(淫辭) · 사사(邪辭) · 둔사(遁辭)를 확청(廓淸)함으로써 양주와 목적 같은 이단(異端) 사설(邪說)을 배척한 것과 같으며, 우 임금이 치수(治水) 사업으로 홍수를 막은 공로에 비할 만하다는 뜻이다.

384) 구여(九如) : 임금의 덕을 칭송하여 산과 같고(如山) 언덕과 같고(如阜) 산마루와 같고(如岡) 구릉과 같고(如陵) 냇물이 한창 흘러오는 것과 같으며(如川之方至) 초승달과 같고(如月之恒) 떠오르는 해와 같고(如日之升) 장구한 남산과 같고(如南山之壽) 무성한 송백과 같음(如松柏之茂)을 말한 것이다. 《詩經 小雅 天保》

385) 사중(四重) : 말을 중하게 하고(重言) 행동을 중하게 하고(重行) 용모를 중하게 하고(重貌) 좋아하는 것을 중하게 하는 것(重好)을 말한다. 《揚子 法言》

386) 요순(堯舜)의 …… 두시더니 : 영조 말년 대리청정할 때 정조는 영조에게 상소를 올려 《승정원일기》에서 자신의 생부(生父)인 사도세자와 관련된 기사를 세초(洗草)해 줄 것을 간청했다. 정조의 효성에 감동한 영조는 이를 허락하고 정조에게 유서(諭書)와 함께 ‘효손(孝孫)’이라 새긴 은으로 주조한 도장을 하사했다. 그 후 정조는 조회할 때나 행차할 때나 항상 이 유서와 은인(銀印)을 앞에만 두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정조는 영조와 사도세자에 대해 효도를 다하고자 했으므로, 《정조실록》에 실린 행장에서도 《맹자(孟子)》에서 “요순의 도는 효제일 따름이다.(堯舜之道 孝悌而已矣)”란 말을 인용하여 정조의 효를 예찬했다.

387) 하늘나라로 떠나셨소 : 운향(雲鄉)은 선계(仙界)를 가리킨다. 《장자(莊子)》 천지(天地)에 성인(聖人)은 “천세토록 살다가 인간 세상이 싫어지면 떠나서 신선이 되어 올라가 저 흰 구름을 타고 제향에 이른다.(千歲厭世 去而上僊 乘彼白雲 至於帝鄉)”고 하였다.

388) 성모님 : 영조(英祖)의 계비(繼妃)인 정순왕후(貞純王后)를 가리킨다. 순조가 11세로 즉위하자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하였다.

389) 원우(元祐)의 덕 짝하시고 : 원우는 송(宋) 나라 철종(哲宗)의 연호이다. 철종이 9세로 황제에 오르

주강 미덕 이으시사³⁹⁰) / 嗣徽周姜

어린 임금 도우시니 / 保佑聖躬

황상원길(黃裳元吉)³⁹¹)과 화합하도다 / 吉叶黃裳

하늘이 지으신 화성에는 / 天作華城

뽕나무 가래나무 우거졌네³⁹²) / 有菀梓桑

가까이 선침³⁹³) 있어 / 仙寢密邇

대왕을 장차 모시리라³⁹⁴) / 劍鳥將藏

신이 오 년 동안 붓을 꽂고³⁹⁵) / 臣五載簪筆

대왕을 곁에 모셔 / 黼辰之傍

각별히 입은 총애 / 偏荷寵私

하해(河海)엔들 비하리까 / 河海莫量

말은 직책 얹매이어 / 符守所攬

흠위도 바라보지 못했도다³⁹⁶) / 厥衛靡瞻

【첨(瞻)은 협운으로 제(諸)와 량(良)의 반절, 즉 ‘장’으로 발음한다.】

욕의³⁹⁷)조차 못한 몸이 / 身未褥蟻

활을 안고 방황하며³⁹⁸) / 抱弓彷徨

삼가 토산 제물 마련하고 / 敬修壤奠

명수³⁹⁹) 따라 올립니다 / 明水在觴

千載一聖.誕膺東方.箕範再叙.奎運重昌.孔思周情.祖述憲章.宏規鴻猷.狹陋漢唐.二紀光御.一德乾剛.號正宮園.慕深羹牆.璫萼折萌.憲冀鋤强.大義昭揭.卓冠百王.秩叙命討.雨露雪霜.孰敢疑

자 조모 선인태후(宣仁太后) 고씨(高氏)가 수렴청정을 하여 사마광(司馬光), 여공저(呂公著), 문언박(文彦博)을 재상으로 삼아 나라를 안정시켰다.

390) 주강(周姜) 미덕(美德) 이으시사 : 주강은 주(周) 나라 태왕(太王)의 비(妃)이자 문왕(文王)의 조모(祖母)인 태강(太姜)을 말한다. 현명하고 덕이 있었다. 《시경》 대아(大雅) 사제(思齊)에 “태사께서 태강의 미덕을 이으시니(太似嗣徽音)”라고 하였다.

391) 황상원길(黃裳元吉) : 《주역》 곤괘(坤卦) 육오(六五)의 효사(爻辭)에 “황색 치마이니 크게 길하리라. [黃裳 元吉]” 하였는데, 이는 여자로서 높은 신분에서 있으면서 중도를 지키고 아래에 거처하면 크게 길하다는 뜻이다.

392) 뽕나무 가래나무 우거졌네 : 뽕나무와 가래나무(桑梓)는 부모가 자손에게 물려주고자 심는 나무들이다. 따라서 고향이나 노부모를 상징하는데, 여기서는 정조의 부친인 사도세자가 묻힌 곳이라는 뜻이다.

393) 선침(仙寢) :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침인 현릉원(顯隆園)을 가리킨다. 정조의 능침인 건릉(健陵)은 현릉원의 동편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 두 능침은 현재 화성시 태안읍 안령리 화산(花山)에 나란히 있다.

394) 대왕을 장차 모시리라 : ‘검석(劍鳥)’은 황제(黃帝) 현원씨(軒轅氏)가 죽어 교산(橋山)에 묻혔는데, 산이 무너지면서 관이 텅 비고 칼과 신만 관에 남았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列仙傳》

395) 붓을 꽂고 : ‘잠필(簪筆)’은 모자에다 붓을 꽂아 두어 측근에서 임금의 말씀을 기록할 준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사관(史官)이나 간관(諫官), 승지(承旨) 등의 직무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396) 흠위(厥衛)도 바라보지 못했도다 : 흠위는 국장(國葬)의 행렬에 동원된 군대를 말한다.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397) 욕의(褥蟻) : 임금과 함께 죽는 것을 말한다. 《전국책(戰國策)》 초책(楚策)에 나오는 안릉군(安陵君)의 고사에 출처를 둔 표현이다.

398) 활을 안고 방황하며 : 황제(黃帝)가 죽을 때 용을 타고 승천하자, 용을 타지 못한 신하들이 용의 수염을 붙잡는 바람에 용의 수염이 뽑혀 떨어지면서 황제가 지니고 있던 활도 함께 떨어졌으므로, 백성들이 그 활과 용 수염을 끌어안고 통곡했다고 한다. 《史記 卷28 封禪書》 여기서는 죽은 임금을 그리워한다는 뜻이다.

399) 명수(明水) : 제사 때 올리는 맑은 물을 말한다.

眩.孰敢譸張.向背之際.斯判陰陽.彼萬三千.云胡颺狂.要脅以衆.悖我典常.末俗昏衢.醉顛汗僵.豈不異臭.奈此同腸.利害禍福.所以披猖.究厥所原.妄度爲將.滔滔狂瀾.誰能力鄣.理無巨細.析在毫芒.嚴此義者.迺吉迺祥.北是理者.爲梟爲狼.皇王盛節.孰此大防.會極歸極.與道偕臧.嗚呼至德.俾也可忘.龍圖建閣.天策設廂.允文允武.謨烈思皇.百度惟貞.昉此對揚.欽刑重農.一念如傷.恩蠲泱髓.寶綸煌煌.祈寒盛暑.必躬烝嘗.尤重上辛.明德馨香.御製百卷.聖謨洋洋.學宗程朱.統接羲黃.地負海涵.吾道其東.【叶都良切】黜霸正壘.剔鐵簸糠.列聖家法.式遵尊攘.一部陽秋.手提天綱.赤子龍蛇.示我周行.今之西學.甚於墨楊.火其邪書.人吾黔蒼.辭廓孟闢.功侔禹荒.繼往開來.燕詒元良.九如頌騰.四重歌長.堯舜一花.銀印在床.謂千萬年.永受色康.胡寧一夕.遽遐雲鄉.地坼天崩.率土如喪.奉諱南服.長號北望.頓顙八埏.宇宙茫茫.山哀海哭.血淚盈眶.驗昔深仁.觀此巨創.聖母垂簾.熙政一堂.嬋懿元祐.嗣徽周姜.保佑聖躬.吉叶黃裳.天作華城.有苑梓桑.仙寢密邇.劍舄將藏.臣五載簪筆.黼辰之傍.偏荷寵私.河海莫量.符守所搜.廡衛靡瞻.【叶諸良切】身未褥蟻.抱弓彷徨.敬修壤奠.明水在觴.

박지원(朴趾源), <연암집(燕巖集)>, 제9권 별집 고만당비장(考槃堂秘藏), 正宗大王進香文【代撰】>

문화/예술

정조가 지은 화성 성묘 서무위(華城聖廟西廡位)의 고유문(告由文)

중국 사신 동국에 와서 / 皇華東馳

그 이름 지어 주었으며 / 厥名嘉錫

점필재의 문하에서 / 佔畢門下

스승의 뜻 계승하였네 / 賢弟是述

천만 겹 두류산을 / 頭流千疊

소요하며 거닐었는데 / 逍遙杖屨

문헌공이 여기에 있어 / 文獻在茲

조석으로 만난다네 / 朝暮與遇

정여창(鄭汝昌), <일두집(一蠹集)>, 속집 제2권 부록(附錄), 御製華城聖廟西廡位告由文[正宗大王]>

문화/예술

명나라 고황제 어필 진묵에 쓴 후서로 용주사에 봉안했다는 내용.

송필연은 강산을 떠돌아다니다 머리칼이 어느덧 희끗희끗해지자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배로운 진묵이 혹시라도 어느 도랑에 떨어져 나뒹굴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작년에 화성 유수(華城留守)에게 이를 알려져 진귀한 함(函)과 수놓은 껌짝에 넣어 용주사(龍珠寺)⁴⁰⁰에 봉안했다고 한다. 이 절은 바로 현릉원(顯隆園) 천복도장(薦福道場)이니, 문득 이 보화로운 진묵이 사수(泗水)에 빠져 버린 구정(九鼎)⁴⁰¹처럼 되는 신세를 다행히 면하고, 귀신이 비호해 준 덕분에 동해를 건너와 보존되어 《춘추》를 읽는 자가 주인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 不肖放浪山水.髮已星星矣.恐風燭奄及.未知寶緘流落於何處溝壑.去年以是告于華城留相.

400) 용주사(龍珠寺) :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의 화산(華山) 기슭에 있는 왕실의 원찰(願刹)이다.

401) 사수(泗水)에 …… 구정(九鼎) : 진(秦)나라가 주(周)나라를 멸망시키고 구정을 진나라로 옮기다가 팽성(彭城) 지역의 사수에 빠뜨려 잃어버렸다고 한다. 《史記 卷28 封禪書》

襲以珍函繡櫝.奉安于龍珠寺.寺卽顯隆園薦福道場也.切以爲此寶墨幸免爲入泗之鼎.而神護鬼呵.蹈東海以存.得讀春秋者爲主人.(…)

위백규(魏伯珪), <존재집(存齋集), 제21권 발(跋), 敬書大明高皇帝御筆眞墨後>

문화/예술

서용보가 한 동추의 진사 회방의 연회를 축하하며 지은 시로 낙남헌에서의 일을 회상하는 내용.

신선 음악이 대궐에서 내려와 울려 퍼지고 / 仙樂殷轟降紫宸

전당 앞에서 선대함에 사람들 웅송거리네 / 殿前宣對聳時人

약관에 우수하게 태학에 오른 날이요 / 弱齡秀發登庠日

팔순에 건강하게 중방⁴⁰²을 맞은 때로세 / 大耋康寧重榜辰

문희연(聞喜宴)⁴⁰³의 축하 술잔 어제 같은데 / 聞喜華觴如夙昔

몸에 잘 맞는 난삼(欄衫) 차림 완연히 청춘이라 / 穩稱欄服宛青春

낙남⁴⁰⁴에 재차 와서 옛일을 회상하며 / 洛南再至應回憶

처음 받을 그때처럼 지팡이 받드시리 / 手捧鳩筇若受新

仙樂殷轟降紫宸.殿前宣對聳時人.弱齡秀發登庠日.大耋康寧重榜辰.聞喜華觴如夙昔.穩稱欄服宛青春.洛南再至應回憶.手捧鳩筇若受新.

서영보(徐榮輔), <죽석관유집(竹石館遺集), 제2책 시(詩), 賀韓同樞進士回榜之宴>

문화/예술

서영보가 화성의 건릉과 현릉원을 봉심하며 1800년(정조 24) 봄 복원에서 재계하던 날 밤의 정조 시에 차운한 지.

진전은 성신이 가깝고⁴⁰⁵ / 眞殿星辰近

교릉은 세월이 깊어라 / 喬陵歲月深

눈물도 오늘에 와선 말라 버렸는데 / 淚枯爲此日

몸은 있어 자꾸만 가슴이 미어지네 / 身在屢摧心

새벽의 연못 독 서글퍼지고 / 惆悵荷陂曉

그늘진 숲 길에서 서성대기만 / 依遲檜逕陰

분사⁴⁰⁶의 부름 받고 제례(祭禮)를 마련하며 / 分司徵制禮

제기(祭器)에 내금⁴⁰⁷을 담아 올리기로 했다오 / 饗實薦來禽

402) 중방(重榜) : 회방(回榜)과 같은 말이다. 회방은 문(文)·무(武)·잡과(雜科)와 생원(生員)·진사(進士試)에 입격(入格)한 지 60년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연회를 베풀어 주고 궤장(几杖) 등을 하사한다.

403) 문희연(聞喜宴) : 과거 급제를 축하하는 잔치를 말한다.

404) 낙남(洛南) : 화성(華城)의 낙남헌(洛南軒)을 말한다. 정조가 화성의 현릉원(顯隆園)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낙남헌에 들러 양로연(養老宴)을 베푼 고사가 있다. 《正祖實錄 19年 閏2月 14日》

405) 진전(眞殿)은 성신이 가깝고 : 화령전(華寧殿)을 세운 것은 건릉(健陵)이나 현릉원(顯隆園)에 비해서 세월이 가깝다는 말이다. 진전은 왕과 왕비의 초상화를 모신 전각을 말한다. 처음에는 정조(正祖)의 수용(睟容)을 현릉원 재실(齋室)에 봉안하였는데, 1801년(순조1)에 화성 즉 수원에 화령전을 세워 옮겨 봉안하였다. 건릉은 정조와 효의왕후(孝懿王后) 김씨(金氏)의 능이고, 현릉원은 장헌세자(莊獻世子)의 무덤이다.

406) 분사(分司) : 나라에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도성 이외의 다른 지방에 임시로 설치하는 관아를 말한다.

407) 내금(來禽) : 능금 즉 사과의 별칭인데, 왕희지의 법첩(法帖)이라는 뜻도 있다. 왕희지가 쓴 465첩

眞殿星辰近. 喬陵歲月深. 淚枯爲此日. 身在屢摧心. 惆悵荷陂曉. 依遲檜逕陰. 分司徵制禮. 邊實薦來禽.

서영보(徐榮輔), <죽석관유집(竹石館遺集)>, 제2책 시(詩), 六月二十六日奉命宿華城翌日奉審華寧殿健陵顯隆園謹用庚申春北苑齋夜御詩韻>

문화/예술

1796년(정조 20) 채제공이 화성(華城)에서 지은 병진축(丙辰軸)의 시운(詩韻)에 정조가 화답한 시.

지지대 앞에 말고삐를 멈추고 / 駐轡臺前路
멀리 화성의 북쪽을 바라보니 / 迢迢望華陰
벼 논은 일천 이랑이 열려 있고 / 稻杭千畝闢
뽕나무 아랫 일만 가호가 깊구나 / 桑柘萬家深
성은 철벽 같음을 이미 보았는데 / 已見城爲鐵
풍속은 돈을 서로 사양한다 하네 / 思聞俗讓金
선왕의 백성 부유케 하고 가르친 뜻 / 先王富教意
훈풍금⁴⁰⁸) 한 곡조를 생각하노라 / 一曲想薰琴

【위는 ‘지지대(遲遲臺)에서 화성을 바라보다’의 시운이다.】

만 길 성첩은 구름 위에 솟았고 / 萬雉矯雲直
두 줄 무지개는 물을 가로질렀네 / 雙虹駕水成
못 백성 열심히 일을 다스렸으니 / 勤勞衆御事
자식처럼 와서 노력한 정성일세 / 經始子來誠
천지는 규모가 매우 광원하고 / 天地規模遠
산하는 형세가 서로 모여들었네 / 山河體勢呈
행차 도중 안계에 들어온 것은 / 行行來眼界
연로가 긴 제방처럼 편평함일세 / 輦路大堤平

【위는 ‘낙남헌(洛南軒)’의 시운이다.】

강 남쪽 도회지에 마차들이 몰려들어라 / 江南都會選蹄輪
봄이 신평⁴⁰⁹)의 천하 사람 술잔에 들었도다 / 春入新豐四海樽
미로한⁴¹⁰)이라는 정자가 이렇듯 좋아서 / 未老閒亭如許好
이틀 밤 긴 촛불 아래 또 정신을 모았네 / 雙宵高燭更凝神

【위는 ‘야유(夜遊)’의 시운이다.】

중의 하나인 <여촉군수주서첩(與蜀郡守朱書帖)>이 청리래금(靑李來禽)이라는 글자로 시작되는 데에서 유래한 것이다. 청리(靑李)는 오얏 즉 자두를 말한다.

408) 훈풍금(薰風琴) : 순(舜)임금이 처음으로 오현금(五絃琴)을 만들어 타면서 남풍시(南風詩)를 지어 노래했는데, 그 시에 “남풍의 훈훈함이며, 우리 백성의 노역을 풀 만하도다. 남풍이 제때에 불어옴이며, 우리 백성의 재물이 풍부하리로다.[南風之薰兮 可以解吾民之慍兮 南風之時兮 可以阜吾民之財兮]” 한 데서 온 말이다.

409) 신평(新豐) : 한 고조(漢高祖)의 아버지 태상황(太上皇)이 장안(長安)의 궁중(宮中)에 있으면서 항상 고향 풍읍(豐邑)을 잊지 못하므로, 한 고조가 여읍(驪邑)에다 고향 풍읍과 똑같은 마을을 개축(改築)하여 태상황을 살게 하였다. 태상황은 날마다 여기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즐겁게 노닐었는데, 후인들이 이곳을 신평이라 하였다. 여기서 유래하여 제왕의 고향, 또는 귀족(貴族)들이 모여 연유(宴遊)하는 것을 비유한 말로 쓰인다.

410) 미로한(未老閒) : 화성행궁(華城行宮)에 있던 정자 이름이다.

駐轡臺前路.迢迢望華陰.稻秔千畝闢.桑柘萬家深.已見城爲鐵.思聞俗讓金.先王富教意.一曲想薰琴.

【右遲遲臺望見華城韻】

萬雉矯雲直.雙虹駕水成.勤勞衆御事.經始子來誠.天地規模遠.山河體勢呈.行行來眼界.輦路大堤平.

【右洛南軒韻】

江南都會選蹄輪.春入新豐四海樽.未老閒亭如許好.雙宵高燭更凝神.

【右夜遊韻】

<홍재전서(弘齋全書), 제7권 시(詩) 3, 和蔡左相華城丙辰軸韻 【三首】>

문화/예술

1794년(정조 18)과 1796년(정조 20) 화성 역사를 총괄한 채제공의 시축(詩軸)에 정조가 화답한 시.

좌상(左相)이 화성(華城)의 역사(役事)를 총괄하여 처리했는데, 해마다 현릉원(顯隆園)을 참배할 때면 그의 나이가 많음을 고려하여 항상 먼저 갔다가 나중에 돌아오도록 했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올 적마다 시를 지어서 축(軸)이 그득하므로, 그 축을 가져다 보고 그 가운데 양운(兩韻)을 뽑아 지어서 돌려보내다. 【4수(四首)】

고향에 서리 이슬은 몇 해나 내리었던고 / 霜露桑鄉歲幾飜
한 치 마음이 높은 은혜 보답할 곳이 없네 / 寸心無處答隆恩
경영한 건 우뚝해라 성 담장이 장엄하고 / 經營屹屹雉墉壯
겹겹으로 웅위해라 천연의 절벽 높다랗네 / 拱護重重象設尊
일만의 민호는 호우의 길에 가로로 임했고 / 萬戶橫臨湖右路
삼군의 기운은 진남의 문에 용솟음치누나 / 三軍氣湧鎮南門
이 땅의 인화를 어찌 내 힘으로 이뤘으랴 / 人和此地予何力
온천 행행 그때의 성덕이 아직도 전해진다오 / 盛德猶傳昔幸溫

【위는 ‘장안문루(長安門樓)’의 시운에 화답한 것이다.】

성의 망루가 우뚝하게 일어나니 / 樓櫓居然起
강과 산이 갑자기 새로워졌도다 / 山河頓與新
경의 총리한 노력 고맙기도 해라 / 多卿摠理力
날 위해 지휘를 신기하게 하였네 / 爲我指揮神
휘하엔 용맹 뛰어난 군사들이요 / 旗鼓超乘士
여염엔 본업 즐기는 백성들일세 / 閭閻樂業民
그 토지는 자고로 상지상등이니 / 厥田元上上
오는 봄엔 도랑 터서 물을 대야지 / 疏漑擬來春

【위는 ‘영화정(迎華亭)에서 화성부(華城府)의 소재지를 바라보다’의 시운에 화답한 것이다.】

【이상은 갑인년 시축(詩軸)에서 뽑은 운이다.】

놀라 허둥지둥하고 또다시 사모하여라 / 皇皇瞿瞿更依依
보인 듯 들린 듯하여 차마 못 돌아가겠네 / 若覩如聞未忍歸
우뚝하여라 높은 산은 하늘이 내린 집이요 / 岨矣高山天與宅
어슴푸레 원묘에선 달마다 의관을 내온 듯⁴¹¹⁾ / 惓然原廟月遊衣

화려한 경치 일천 산은 포홀이 늘어섰는 듯 / 烟花袍笏羅千嶂

금성탕지 요새는 경기 좌우의 으뜸이로다 / 鑠鑠金湯冠兩畿

패릉⁴¹²을 달려갔다 와서 또 뜻한 것이 있어 / 歷騁霸陵還有意

육마의 어가를 성황당에 잠시 멈추었노라 / 城隍少駐六龍飛

【위는 ‘어가가 홍범(洪範), 봉조(鳳鳥) 등 여러 산을 순행하고 밤에 화성(華城)의 행궁(行宮)으로 돌아오다’의 시운에 화답한 것이다.】

신풍루 아래는 길이 꼬불꼬불 더디어라 / 新豐樓下路逶遲

남녘서 북녘 바라보는 시를 외워나 보자 / 爲誦南來北望詩

장락궁 종소리가 멀지 않으니 / 長樂鐘聲知不遠

머리 돌려 침원을 어이 하직한단 말인가 / 那堪回首寢園辭

【위는 ‘환궁(還宮)하던 날’의 시운에 화답한 것이다.】

【이상은 병진년 시축에서 뽑은 운이다.】

霜露桑鄉歲幾飢.寸心無處答隆恩.經營屹屹雉墉壯.拱護重重象設尊.萬戶橫臨湖右路.三軍氣湧鎮南門.人和此地予何力.盛德猶傳昔幸溫.

【右和長安門樓韻】

樓櫓居然起.山河頓與新.多卿摠理力.爲我指揮神.旗鼓超乘土.閭閻樂業民.厥田元上上.疏漑擬來春.

【右和迎華亭望見華城府治韻○以上.甲寅軸.】

皇皇翟翟更依依.若覲如聞未忍歸.岨矣高山天與宅.悅然原廟月遊衣.烟花袍笏羅千嶂.鑠鑠金湯冠兩畿.歷騁霸陵還有意.城隍少駐六龍飛.

【右和駕巡洪範鳳鳥諸山夜還華城行宮韻】

新豐樓下路逶遲.爲誦南來北望詩.長樂鐘聲知不遠.那堪回首寢園辭.

【右和回鑾日韻○以上.丙辰軸】

<홍재전서(弘齋全書), 제7권 시(詩) 3, 左揆摠理城華之役.每歲拜園也.軫其年高.輒令先往後歸.歸輒有詩.詩輒盈軸.徵其軸.軸抽兩韻以還之.【四首】>

문화/예술

정조가 현릉원에 참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지지대에서 지은 시.

이십일 일이 어느 날이던고. 와서 초상(肖像)을 참배하고 젖은 이슬을 밟아 보니, 아버이 사모하는 정이 더욱 간절하였다. 화성(華城)에 돌아와서는 비 때문에 어가(御駕)를 멈추었는데, 가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이 마음에 맞아 앉아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새벽에 다시 길을 떠나 지지대(遲遲臺)에서 머물렀다. 구불구불 길을 가는 도중에 아버이 생각이 계속 마음에 맴히어 오랫동안 그곳을 바라보면서 일률(一律)의 시로 느낌을 기록하다.

혼정신성⁴¹³의 사모함 다하지 못하여 / 晨昏不盡慕

이날에 또 화성을 찾아와 보니 / 此日又華城

침원엔 가랑비 부슬부슬 내리고 / 霖霖寢園雨

411) 원묘(原廟)에선 …… 듯 : 원묘는 패궁(沛宮)에 세운 한 고제(漢高帝)의 별묘(別廟)를 가리키고, 의관(衣冠)을 내온다는 것은 매달 초하룻날마다 고제의 의관을 꺼내서 법가(法駕)에 싣고 능궁(陵宮)에서 고묘(高廟)로 옮기던 일을 가리킨다.

412) 패릉(霸陵) : 한 문제(漢文帝)의 능호(陵號)인데, 전하여 능침(陵寢)을 가리킨다.

413) 혼정신성(昏定晨省) : 저녁이면 아버이의 잠자리를 보아 드리고 새벽이면 아버지에게 문안드리는 것을 이른 말이다.

재전에선 방황하는 마음이로다 / 徘徊齋殿情
 사흘 밤을 건디기는 어려웠으나 / 若爲三夜宿
 그래도 초상 한 폭은 이루었다오 / 猶有七分成
 지지대 길에서 머리 들고 바라보니 / 矯首遲遲路
 바라보는 속에 오운⁴¹⁴이 일어나누나 / 梧雲望裏生

【옛날 온천(溫泉)에 행행(幸行)할 때 어가가 본부(本府)에 들었는데 복색(服色)은 으레 군복(軍服)을 착용하였으니, 그 당시의 영정(影幀) 초본(草本)이 있기는 하지만 빛이 바래서 감히 옮겨 모사(模寫)할 수가 없었다. 요즈음 현릉원에 행행할 때에도 군복을 착용하는 것 또한 이 뜻이요, 또 어진(御眞)을 그려서 원소(園所)의 재전(齋殿)에 간직하여 늘 우러러 의지하는 뜻을 부쳤으므로, 여섯째 구절에서 그것을 언급하였다.】

晨昏不盡慕. 此日又華城. 霖霖寢園雨. 徘徊齋殿情. 若爲三夜宿. 猶有七分成. 矯首遲遲路. 梧雲望裏生. 【昔年溫幸時. 駕過本府. 而服色例用軍服. 伊時有影幀草本. 而色渝不敢移摸. 近來園幸服色之用軍服者亦此意. 而圖寫御眞. 藏于園所齋殿. 以寓瞻依之思. 第六句及之.】

<홍재전서(弘齋全書), 제7권 시(詩) 3, 廿一何日. 來省象設. 履茲濡露. 孺慕彌切. 還次華城. 關雨停蹕. 夷猶適願. 坐且明發. 歷駐遲遲之臺. 行行路轉. 而陟岵之思. 耿然如結. 瞻望久之. 志感以一律.>

문화/예술

세심대(洗心臺)에서 박문수의 운을 따라 정조가 지은 시로 지지대에서의 심경을 읊은 내용.⁴¹⁵

대를 세심으로 이름한 것은 생각을 붙여 옛일을 기억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관한 일이 《궁원전성록(宮園展省錄)》에 자세히 실려 있다.】 해마다 여기에 한 번씩 임어하는 것을 정과(定課)로 삼았으니, 이 거조가 어찌 한가함을 탐하는 일이겠는가마는, 주위 사람들이야 또한 어찌 내 마음을 알겠는가. 지난 을묘년에 영성군이 지은 시구에 “그대와 내가 시 읊조리며 운대에 오르니, 일만 그루 오얏꽃 복사꽃이 희고 붉게 피었네. 이러한 풍광에 이러한 즐거움으로, 해마다 태평의 술잔에 길이 취한다오. [君歌我嘯上雲臺 李白桃紅萬樹開 如此風光如此樂 每年長醉太平杯]” 라고 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해, 이 대에서 그의 시를 외고 그 일을 생각하니, 목이 메어서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구나. 그러나 기원하면서 기쁘게 여기는 것은, 장락궁(長樂宮)의 축수하는 자리에서 돌아올 적에 천세, 만세의 송축하는 소리가 드날린 것이었다. 이에 영성군의 운을 따라서 짓고, 명하여 여러 신하들에게 이어 짓도록 하였다.

봄날에 더디더디 북쪽 대를 오르노니 / 春日遲遲上北臺

이 길이 꽃 핀 경치 찾아온 게 아니라오 / 此行非是趁花開

새로운 시 지어서 관화곡을 다시 짓고 / 新詩更續觀華曲

만세토록 길이 만세의 술잔 따르리라 / 萬歲長斟萬壽杯

【미륵현(彌勒峴)이 화성(華城)의 경계가 되었기 때문에, 해마다 현릉원(顯陵園)을 배알하고 돌아오는 길이면 고개 위에 올라서 오래도록 현릉원을 바라보며 선뜻 돌아오지 못했으므로, 부인(府人)들이 돌을 모아 그곳에 대(臺)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번 길에 보니, 그 대를 지

414) 오운(梧雲) : 창오(蒼梧)의 구름으로 순(舜)임금이 창오의 들에서 봉어하여 그곳에 장사 지냈던 데서 온 말로, 전하여 왕의 능침(陵寢)을 이른다.

415) 세심대(洗心臺)에서 …… 짓다 : 영성군(靈城君)은 박문수(朴文秀)의 봉호인데, 그가 일찍이 장헌세자(莊獻世子)가 태어났던 1735년(영조11)에 이 세심대에 올라가 노닐면서 위의 시를 지었으므로 이른 말이다.

지(遲遲)라 하였으므로 첫 구절에서 그것을 언급하였고, 자궁(慈宮)께서 화성에 행행하셨을 때 진찬(進饌)하는 날의 악장(樂章)에 관화곡이 있었으므로 맨 아래 구절에서 또한 그것을 언급하였다.】

臺以洗心名.托思而志舊也.【事詳宮園展省錄.】 歲輒一臨以爲課.此舉豈爲偷閒.傍人詎識予心. 疇昔乙卯靈城詩句.有云君歌我嘯上雲臺.李白桃紅萬樹開.如此風光如此樂.每年長醉太平杯.是歲是臺.誦其詩想其事.哽咽無以爲心.所祈祝而欣慶者.還自長樂奉壽之筵.頌騰千歲萬歲.茲步靈城韻.命諸臣賡載.

春日遲遲上北臺.此行非是趁花開.新詩更續觀華曲.萬歲長斟萬壽杯.【彌勒峴.爲華城初界.每歲省園還道.至峴上.瞻望久之.未便言旋.府之人環石而臺其地.今行見之.名其臺曰遲遲.起句及之.慈宮幸華城進饌日.樂章有觀華曲.下句亦及之.】

<홍재전서(弘齋全書), 제6권 시(詩) 2, 洗心臺步靈城韻 【并小序】>

문화/예술

화성(華城)의 서장대에서 군사훈련을 사열하고 시를 지어 걸음.

나라를 지켜 보호함이 중한 것이라 / 拱護斯爲重

경영엔 노력을 허비하지 않는다오 / 經營不費勞

성은 평지로부터 아득히 멀고 / 城從平地迥

대는 먼 하늘 의지해 높기도 하여라 / 臺倚遠天高

오만 방패들은 규모가 장대하고 / 萬垛規模壯

삼군은 의기가 대단히 호쾌하도다 / 三軍意氣豪

대풍가⁴¹⁶⁾ 한 곡조를 연주하고 나니 / 大風歌一奏

붉은 아침 햇살이 인포에 비추이누나 / 紅日在鱗袍

<홍재전서(弘齋全書), 제6권 시(詩) 2, 華城將臺親閱城操有詩題于楣上>

문화/예술

채제공(蔡濟恭)이 화성(華城)에서 지은 시운(詩韻)에 정조가 화답한 시 4수.

화려한 망루와 성벽이 의기를 과시하여라 / 畫櫓粉城意氣誇

여기에 항상 오색구름 펼쳐진 걸 보노라 / 此中常見五雲遮

높은 누각은 우뚝 솟아 가을빛과 겨루고 / 高樓直聳爭秋色

오만 물상은 다 밝아서 달빛에 떠오르네 / 萬象俱明泛月華

경치는 유독 오늘 밤을 인해서 좋거니와 / 景物偏從今夜好

산천은 원래 사시의 아름다움이 있다오 / 山川元有四時佳

뜨락의 소나무는 더디 크는 게 무방하여라 / 庭松不妨遲遲長

상국의 집에 맑은 달 바퀴 길이 매어 놓으리 / 長繫清輪相國家

【위는 ‘동장대(東將臺)에서 중추(中秋)의 달을 구경하다’의 시운이다.】

만년제 위의 길목에 / 萬年堤上路

기나긴 날 어가를 멈추었노니 / 遲日駐鸞聲

416) 대풍가(大風歌) : 한 고조(漢高祖)가 일찍이 고향인 패현(沛縣)에 들러 부로(父老)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고 스스로 축(筑)을 두드리면서 노래하기를 “큰 바람이 일어나서 구름이 날리었도다. 위엄이 천하에 미쳐서 고향에 돌아왔네. 어떻게 하면 용사들을 모아서 사방을 지킬꼬.[大風起兮雲飛揚 威加海內兮歸故鄉 安得猛士兮守四方]” 한 데서 온 말이다.

경사로워라 금속을 실어 나르고 / 吉慶輸金粟
 풍년 들어라 옥 같은 벼 마주하네 / 豐穰對玉秬
 빈풍엔 낮 밥을 내어다 먹고⁴¹⁷⁾ / 飢風來午饁
 주의 군대엔 새 백성을 보노라 / 周旅聽新氓
 두 동이 술에 얼음 녹듯 풀리어 / 朋酒如春解
 서로 다투어 덩실덩실 춤을 추네 / 爭將舞袖呈

【위는 ‘만년제에서 농사를 구경하다’의 시운이다.】

갠 날에 가고 소리는 운제를 타 오르고 / 乘晴笳鼓上雲梯
 남북의 못 산들은 난간 밑에 들어오누나 / 南北羣山入檻低
 높은 데서 비로소 천 리 먼 곳 바라보니 / 高處始窮千里眼
 가을 연기 아홉 점이 묻노라 청제이던가⁴¹⁸⁾ / 秋烟九點問靑齊
 수원엔 삼도 중 제일로 치거니와 / 三都推第一
 팔달문엔 힘써 만방을 불러들이네 / 八達務懷來
 잠시 경륜의 솜씨를 시험했다가 / 覲試經綸手
 이내 변방의 장재를 구해 쓰노라 / 旋求鎖鑰才
 누각은 하늘을 의지하여 멀고 / 樓依天宇迴
 성벽은 야문을 안고 돌아드네 / 城抱野門廻
 직무 처리엔 절로 천심이 있기에 / 料理自深淺
 관청 동이에 술 피는 소릴 듣는다오 / 官樽聽醴醅

【위는 ‘팔달문루(八達門樓)’의 시운이다.】

畫櫓粉城意氣誇.此中常見五雲遮.高樓直聳爭秋色.萬象俱明泛月華.景物偏從今夜好.山川元有四時佳.庭松不妨遲遲長.長繫清輪相國家.【右東將臺中秋翫月韻】

萬年堤上路.遲日駐鑾聲.吉慶輸金粟.豐穰對玉秬.飢風來午饁.周旅聽新氓.朋酒如春解.爭將舞袖呈.【右萬年堤觀稼韻】

乘晴笳鼓上雲梯.南北羣山入檻低.高處始窮千里眼.秋烟九點問靑齊.

三都推第一.八達務懷來.覲試經綸手.旋求鎖鑰才.樓依天宇迴.城抱野門廻.料理自深淺.官樽聽醴醅.【右八達門樓韻】

<홍재전서(弘齋全書), 제7권 시(詩) 3, 和左議政蔡濟恭華城詩韻【四首】>

문화/예술

채제공의 화성 시축 중의 삼운(三韻)에 화답한 정조의 시.

매년 화성을 행행할 때마다 좌의정이 반드시 시를 지었고 나는 매양 여기에 화답을 했다. 그런데 올봄의 거동에는 뜻밖의 경계할 질환이 있어 사흘 밤 동안 병을 조섭하고 비로소 그다음 날 아침에야 원(園)을 배알하였다. 그사이의 시일이 비록 많이 걸리지는 않았으나, 선침(仙寢)을 우러러 의지하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한편 자위(慈闈)를 떠난 슬픔 또한 겹쳤다. 그래서 시(詩)로써 그 뜻을 말하려 했으나, 병 때문에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개는

417) 빈풍(飢風)엔 …… 먹고 : 《시경(詩經)》 빈풍(飢風) 칠월(七月)에 “이월이라 밭갈이를 하거든, 내 아내랑 아이들 함께 가서, 저 남쪽 밭에서 밥 내다 먹거든, 권농관이 와서 좋아도 하네.[四之日舉趾 同我婦子 饁彼南畝 田畯之喜]” 한 데서 온 말이다.

418) 가을 …… 청제(靑齊)이던가 : 청제는 본디 산둥성(山東省)의 청주(靑州)와 제주(齊州)를 합칭한 말인데, 또는 중국(中國) 전체를 제주라 칭하기도 한다. 높은 곳에서 중국 구주(九州)를 내려다보면 구주가 마치 아홉 점의 연기처럼 보인다는 데서 온 말이다.

좌의정이 먼저 내 뜻을 계발해 주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그런데 환궁(還宮)할 때에 좌의정이 시를 보여 주므로, 마침내 거기에 화답하여 돌려보내는 바이다.

밤마다 병 조섭으로 온밤을 지새우고 / 調痾夜夜漏壺傾
새벽이면 허둥지둥 마음 가누지 못했네 / 明發瞿瞿不盡情
처음엔 하찮은 정성으로 원묘에 왔다가 / 始寓微誠園廟近
이내 기쁜 소식 가져 전궁에 바치도다 / 旋將喜報殿宮呈
남은 추위는 새벽 깃발 그림자에 들어오고 / 餘寒曉入旌旂影
화한 기운은 아침 검패 소리를 따라오네 / 協氣朝隨劔佩聲
인자한 덕 무량하여 온 부에 미치어라 / 慈德無量覃一府
아름다운 쌀알 끝없이 만년토록 나오리 / 生生嘉粒萬年更

근친하러 가는 다리 가의 길목에 / 迨觀橋邊路
꽃샘바람이 새벽 안장을 흔드네 / 花風曉拂鞍
농사일은 장차 대유가 될 것이고 / 農功將大有
봄빛은 장안으로부터 들어오도다 / 春色自長安
행궁도 오히려 안온함을 알겠어라 / 行殿猶知穩
용포가 도리어 춥지를 않네그려 / 戎袍却不寒
성과 해자가 이와 같이 좋으니 / 城池如此好
백성 기쁨 얻는 것이 급선무로세 / 先務得民歡

【대유(大有)는 북둔평(北屯坪)의 이름이고, 장안(長安)은 북성문(北城門)의 이름인데, 평(坪)은 누풍(屢豐)의 의의를 부친 것이고, 문(門)은 경사(京師)로 통하는 길이므로 셋째와 넷째 구절에서 그것을 말하였다.】

끝없는 창오의 구름 만 겹이나 깊어라 / 一望梧雲萬疊深
선왕께 어디에도 정성 바칠 곳이 없네 / 羹牆無處效誠忱
비 뒤에서 수반 들고 더디 출발하노니 / 碑陰水飯遲遲發
해마다 격식 낮춤은 소자의 마음이라오 / 降格年年小子心

連歲華城之幸.左揆輒有詩.予每和之.今春啓蹕.戒在无妄.三夜調將.始於翼朝拜園.其間爲日雖無多.幸仙寢之瞻依.悵慈闈之離違.欲詩以言志.不但病未果焉.蓋有待於左揆之起予.及回鑾.有所示.遂步而還之云爾.

調痾夜夜漏壺傾.明發瞿瞿不盡情.始寓微誠園廟近.旋將喜報殿宮呈.餘寒曉入旌旂影.協氣朝隨劔佩聲.慈德無量覃一府.生生嘉粒萬年更.

迨觀橋邊路.花風曉拂鞍.農功將大有.春色自長安.行殿猶知穩.戎袍却不寒.城池如此好.先務得民歡.【大有.北屯之坪名.長安.北城之門名.坪寓屢豐之義.門由京師之路.故三四云.】

一望梧雲萬疊深.羹牆無處效誠忱.碑陰水飯遲遲發.降格年年小子心.

<홍재전서(弘齋全書), 제7권 시(詩) 3, 和左議政蔡濟恭華城軸三韻【并小序】>

문화/예술

채제공의 별장 채로정(采露亭)을 지나면서 지은 정조의 시.

정자는 화성(華城)에 있는데, 바로 고(故) 영상(領相) 문숙공(文肅公) 채제공(蔡濟恭)의 별장이다. 이 정자를 채로(采露)라 이름 지은 것은 대체로 뜻한 것이 있다. 현릉원(顯隆園)을

행행할 때마다 시장(詩章)을 바쳐왔으므로, 그때마다 그 운에 화답하고 또 술안주와 과실을 보내어 해마다 이를 상례로 삼았는데, 금년 가을의 행차에는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지나는 도중에 정자를 돌아보고 한참 동안 슬픔을 느꼈다. 문숙공과 효안공(孝安公) 홍 상국(洪相國)은 국중의 원로(元老)였고, 또 홍 상국은 어가가 환궁할 때마다 집 밖의 길옆에서 어가를 맞이하던 일이 생각나 결구(結句)에서 그것을 언급하였으며 인하여 진퇴격(進退格)을 사용하였다.

아침 햇살은 영화로에 떠오르고 / 朝日迎華路
맑은 가을은 채로정의 경치로다 / 淸秋采露亭
풍운의 변화는 천 리의 빛깔이요 / 風雲千里色
소나무 국화는 십 년의 정이었네 / 松菊十年情
환궁하면 시를 서로 창수하였고 / 返駕詩聯韻
행주엔 향기로운 술을 보냈다오 / 行廚酒送馨
같은 때에 두 원로가 존재하여 / 同時二老在
태평 시대 만나 장수를 누렸구려 / 壽考際昇平

亭在華城. 卽故領相文肅公蔡濟恭別業也. 亭以采露名. 蓋有意也. 每當園幸. 輒獻詩章. 既和其韻. 又送穀核. 歲以爲常. 今秋之幸. 其人不可復見矣. 路次回顧. 悵然者久之. 文肅與孝安洪相國. 爲國中元老. 且憶洪相之輒於駕回時. 迎於宅外路左. 結句及之. 仍用進退格.

朝日迎華路. 淸秋采露亭. 風雲千里色. 松菊十年情. 返駕詩聯韻. 行廚酒送馨. 同時二老在. 壽考際昇平.

<홍재전서(弘齋全書), 제7권 시(詩) 3, 過采露亭志感 【并小序】>

문화/예술

1800년(정조 24) 1월 17일 현릉원을 배알하여 기쁨을 고하고 돌아와 영흥본궁의 경사에 기록한 시운을 사용하여 시를 짓고 장락궁 처마에 제함.

현릉원(顯隆園)을 배알하여 기쁨을 고하고 돌아와 봉수당(奉壽堂)에 임어하여, 지난 을묘년에 영흥(永興)의 본궁(本宮)에 경사를 기록했던 시운을 사용해서 장락궁(長樂宮)의 동쪽 문미(門楣)에 제하다. 때는 경신년 상원(上元) 후 이틀째가 되는 날이다.

주가의 삼선⁴¹⁹에 한실의 중리⁴²⁰를 겸하여라 / 周家三善漢重離
마침내 생민과 하무⁴²¹의 시를 이었도다 / 遂續生民下武詩
예는 묘전궁에 큰 명 받들어 거행하고 / 禮廟殿宮承駿命
경사는 천만억년 큰 복을 받음이로세 / 慶千萬億受鴻祺
이번 길은 끝없는 기쁨 아뢰려 함이요 / 今行欲報無疆喜
이날은 생각에 두지 않기도 어려워라 / 此日難爲不泊思
새벽에 화성 떠나 머리 돌려 바라보며 / 明發華城回首遠

419) 삼선(三善) : 왕세자(王世子)를 가리키는 말인데, 왕세자가 국학(國學)에 들어가 신분을 따지지 않고 연치의 순서에 따라 장유(長幼)의 도리를 지킴으로 인하여 부자(夫子)·군신(君臣)·장유(長幼)의 세 가지 도리를 얻게 된다는 데에서 온 말이다. 《禮記 文王世子》

420) 중리(重離) : 광명(光明)이 계속 이어짐을 의미한 것으로, 이 역시 세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421) 생민(生民)과 하무(下武) : 생민은 《시경(詩經)》 대아의 편명인데, 이 시는 주(周) 나라 사람이 시조(始祖) 후직(后稷)을 제사할 때 후직이 날 때부터 천명(天命)을 받아서 보통 사람과 달랐다는 사실 등을 노래한 것이고, 하무는 역시 《시경(詩經)》 대아의 편명인데, 이 시의 내용은 무왕(武王)이 태왕(太王)·왕계(王季)·문왕(文王) 세 선왕의 밝은 덕을 이어받아 천하를 다스린 데 대하여 무왕의 성덕(聖德)을 찬양한 노래이다.

지지대 위에서 또 한없이 머뭇거렸네 / 遲遲臺上又遲遲

周家三善漢重離.遂續生民下武詩.禮廟殿宮承駿命.慶千萬億受鴻祺.今行欲報无疆喜.此日難爲不泊思.明發華城回首遠.遲遲臺上又遲遲.

<홍재전서(弘齋全書), 제7권 시(詩) 3, 拜園告喜還.御奉壽堂.用乙卯永興本宮志慶韻.題長樂東楣.時庚申上元後二日>

문화/예술

1795년(정조 19) 자궁(慈宮)께서 화성(華城)의 행궁(行宮)에 임어하실 때 음식을 올리면서 연주하는 악장.

좋은 모임이 태평성대에 연했어라 / 嘉會屬昇平

태평성대가 지금 형상이 나타났네 / 昇平今有象

문노라 그 형상이 무엇이던고 / 厥象問如何

노인성이 중천에 밝은 거라오 / 老人中天朗

【이상은 궁(宮)이다.】

사탕 머금어라 나는 장락궁 봄에 머물고 / 含飴駐我長樂春

성인 축수해라 너 화봉인을 오게 하였네 / 祝聖徠女華封人

【이상은 상(商)이다.】

봄은 장락궁에 길어라 두주를 따르고 / 春長長樂酌斗

화봉인의 삼축⁴²²으로 어머니께 축복하네 / 華祝至三壽母

【이상은 각(角)이다.】

자손 위한 계책 그 공 어이 그리 높은고 / 翼子詒孫功何巍

하많은 복록으로 광휘가 넘치도다 / 穰穰福祿光輝

【이상은 치(徵)이다.】

함지의 북과 운문의 거문고 갖추어 / 咸池鼓雲門琴

신선의 좋은 술을 해마다 따라 올리리 / 玉漿瑤液年年斟

【이상은 우(羽)이다.】

장락(長樂) 5장(章)이니, 1장은 4구(句)이고, 4장은 장마다 2구(句)이다. 【선창(先唱)이다.】

인자한 덕 순수하기도 해라 / 慈德之純

크나큰 포용 이름하기 어렵네 / 厚載難名

인자한 마음 조용히 움직이어 / 默運弘慈

태평성대를 도와서 열었도다 / 佑啓太平

【이상은 궁이다.】

온갖 복록이 한데 모여 / 百祿是邇

사방에서 넷물처럼 이르니 / 其至如川

자손들은 모두 인후하고 / 子孫振振

경사는 해마다 일어나네 / 吉慶年年

【이상은 상이다.】

북두성같이 높다랗고 / 如斗之邵

422) 삼축(三祝) : 요(堯)임금에게 화(華) 땅의 봉인(封人)이 수(壽), 부(富), 다남자(多男子) 세 가지로 축복했던 데서 온 말이다.

송산같이 우뚝하여라 / 如嵩之高
옥책에 상서를 기록하고 / 瑤冊紀瑞
춘주를 나이대로 잔치하네 / 春酒燕毛

【이상은 각이다.】

아름다워라 인자하신 덕이 / 於休慈德
이 성대한 화갑 맞이하여 / 撫茲花甲
때에 화 땅을 관찰하시니 / 時觀于華
경물 광채가 사방에 들렀네 / 物采匝匝

【이상은 치이다.】

이 새 읍을 모두 좋아하여 / 樂此新邑
태평가 소리 더욱 늘어나니 / 謠頌戶增
억천만년이 지나도록 / 維萬維億
돈는 해 둥근 달과 같으리 / 日月恒升

【이상은 우이다.】

관화(觀華) 5장이니, 장마다 4구이다. 【후창(後唱)이다.】

嘉會屬昇平.昇平今有象.厥象問如何.老人中天朗. 【宮.】 含飴駐我長樂春.祝聖徠女華封人.

【商.】 春長長樂酌斗.華祝至三壽母. 【角.】 翼子詒孫功何巍.穰穰福祿光輝.【徵.】 咸池鼓雲門
琴.玉漿瑤液年年斟. 【羽.】

長樂五章.一章四句.四章章二句. 【先唱.】

慈德之純.厚載難名.默運弘慈.佑啓太平. 【宮.】 百祿是邇.其至如川.子孫振振.吉慶年年. 【
商.】 如斗之邵.如嵩之高.瑤冊紀瑞.春酒燕毛. 【角.】 於休慈德.撫茲花甲.時觀于華.物采匝
匝. 【徵.】 樂此新邑.謠頌戶增.維萬維億.日月恒升. 【羽.】

觀華五章.章四句. 【後唱.】

<홍재전서(弘齋全書), 제7권 악장(樂章), 慈宮臨華城行宮.進饌樂章.【乙卯】>

문화/예술

노인을 예우한 것에 관한 전례의 서문으로 을묘년 행행에서 봉수당 진찬연에 대해 언급함.

갑인년(1794, 정조18)에는 자전(慈殿)의 수(壽)가 50세, 자궁(慈宮)의 보령(寶齡)은 60세여
서 백관을 거느리고 전과 궁에 나아가 하례를 올리고, 조관은 70세 사서는 80세 이상 그리
고 사서로서 80세가 안 되었더라도 부부 해로한 자에게는 벼슬 1급(級)을 내리고, 자궁자(資
窮者) 및 나이 70세인 조관으로 해로한 자들에게 쌀과 솜을 차등을 두어 하사했는데, 그때
나이와 자격을 갖춘 자가 2만 5495인이었고, 부부 해로한 자가 4만 9650인이어서 도합 7만
5145인이고, 그들 나이를 합산하면 589만 8210세에 달한다. 그것을 책으로 엮고 《인서록(人
瑞錄)》이라고 하였다. 을묘년(1795, 정조19)에는 자궁을 모시고 현릉원(顯隆園)에 갔다가 돌
아오면서 화성(華城)에 들러 봉수당(奉壽堂)에서 잔수를 올리고 낙남헌(洛南軒)에서 노인
잔치를 벌이면서 을묘생(乙卯生) 노인들을 잔치에 참석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대가를 수행
한 노인 영의정 홍낙성(洪樂性) 등 15명과 화성 사는 노인들로서 전 참의(參議) 이석조(李
奭祚) 등 3백 84명이 모두 지팡이 짚고 나와서 한 번 앉은 채로 두 번 절하였다. 이어 음식
과 꽃을 내리고 삼작(三爵)을 올렸는데, 제1작에는 악공이 녹명(鹿鳴)과 천보(天保)를 노래
하고, 제2작에는 관저(關雎)와 작소(鵲巢)를 노래하고, 제3작에는 남유가어(南有嘉魚)와 남
산유대(南山有臺)를 노래했으며 황색 명주 수건을 나누어 주어 구장(鳩杖)에다 매달게 하고,

비단 1필씩을 하사했으며 화성 노인들에게도 모두 가자하였다.

甲寅.以慈殿聖壽五旬.慈宮寶齡六旬.率百官進賀于殿宮.賜朝官七十.士庶八十以上及士庶未八十而偕老者.爵人一級.資窮及朝官七十而偕老者.加賜米綿有差.年及格而資者二萬五千四百九十五人.夫妻偕老者四萬九千六百五十人.摠七萬五千一百四十五人.而挈其年合數之.爲五百八十九萬八千二百十歲.編之爲書曰人瑞錄.乙卯.奉慈宮詣顯隆園.還御華城.進饌於奉壽之堂.宴老於洛南之軒.而乙卯生老人.亦許參宴.隨駕老人領議政洪樂性等十五人.華城老人前參議李奭祚等三百八十四人.扶杖就位.一坐再至.賜饌散花.進三爵.第一爵工歌鹿鳴天保.第二爵.工歌關雎鵲巢.第三爵工歌南有嘉魚南山有臺.頒黃紬巾.以佐鳩杖之繫.各賜帛一匹.華城老人.竝加資.

<홍재전서(弘齋全書), 제11권 서인(序引) 4, 優老引>

문화/예술

팔달산주인(八達山主人) 처사(處士) 이고(李耷)의 묘소에 치제한 글

산 이름이 팔달인 것은 / 山名八達

성주(聖主)께서 주신 바였으니 / 聖人攸錫

그 가운데 일민이 있어 / 中有逸民

홀로 기거하며 지냈네 / 獨寐寤宿

고사리는 수양산에 자라고 / 薇長首陽

토지는 반곡(盤谷)에 비옥하니 / 土肥盤谷

장자(莊子)는 낚시를 드리운 채 돌아보지 않았으며⁴²⁴⁾ / 莊釣不顧

위야(魏野)는 자신이 살 곳을 알았네⁴²⁵⁾ / 魏居省識

이곳에 나아가 화성(華城)을 건치(建置)하니 / 卽地建治

팔달산이 끌어당기듯 둘러싸고 있네 / 控揖襟帶

망루가 즐비하고 여정이 갖추어져 / 樓櫓閭井

하나의 큰 도회를 이루었네 / 一大都會

주인옹이 여기에 있어 / 主翁於此

황연히 신이 살피는 듯하니 / 恍若神胥

광세(曠世)의 감회가 깊은지라 / 曠感者深

이에 나의 행차를 멈추었네 / 爲停鑾輿

<홍재전서(弘齋全書), 제23권 제문(祭文) 5, 八達山主人處士李耷墓致祭文>

문화/예술

정조가 채제공(蔡濟恭)의 장례일에 치제한 글

의정부영의정 규장각제학 화성부유수 장용외사 사시(賜諡) 문숙공(文肅公) 채제공(蔡濟恭)의 장례일에 각신(閣臣)을 보내어 그 영전에 대신 영결을 고하게 하노라.

423) 반곡(盤谷) : 당 나라 때 이원(李愿)이 은거한 곳이다. 이원이 무령 절도사(武寧節度使)로 있다가 죄를 지어 파직되자 벼슬에 나가려는 생각을 버리고 처음에 살았던 반곡에 돌아가 은거하였던 사실이 한퇴지의 ‘송이원귀반곡서(送李愿歸盤谷序)’에 보인다.

424) 장자(莊子)는 …… 않았으며 : 장자가 복수(濮水)에서 낚시를 드리우고 있을 때 초왕(楚王)이 대부 두 사람을 먼저 보내어 보기를 청하였으나 장자는 낚시대를 잡은 채 돌아보지 않았다. 《莊子 秋水》

425) 위야(魏野)는 …… 알았네 : 위야는 송(宋) 나라 진종(眞宗) 때의 은사(隱士)인데, 섬주(陝州)의 동교(東郊)에 초당(草堂)을 짓고 거문고와 시로 세월을 보내며 진종의 부름에도 나가지 않았다. 《宋史 卷457 隱逸列傳 魏野》

소나무가 곧게 위로 솟고 / 松喬上竦
 산이 꺾이지른 듯 굳건하게 선 모습 / 山巖脚牢
 경이 곧 이와 흡사하였으니 / 卿式似之
 결코 시속을 따라 부양(俯仰)하지 않았네 / 判不枯槁
 우뚝이 홀로 자임(自任)하니 / 挺然獨任
 군사부(君師父)를 한결같이 섬기는 의리였네 / 義三秉一
 학사로서 비각(秘閣)에서 역사를 편수할 적에 / 木天編史
 손에는 직필(直筆)을 잡았네 / 手握弗律
 사특한 무리를 형벌로 응징하니 / 斧鉞狐鼠
 해와 별 같은 충신(忠臣)이었네 / 日星忠藎
 변경의 유언비어는 놀라기 쉬운데 / 蜀訛易驚
 공물(貢物)을 보내오지 않으니 / 巴賁不贐
 환하게 분변하고 확실히 밝혀서 / 洞辨廓關
 우리 주로로 돌아오게 만들었네 / 返我鄒魯
 승지로서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 知申膝席
 피눈물을 비처럼 흘렸네 / 血涕如雨
 스스로 단심(丹心)을 지녀 / 自持寸丹
 천신에게 물을 만했나니 / 質諸天神
 만 사람의 힘센 장사도 빼앗지 못하고 / 萬育莫奪
 백겁의 세월에도 닳아 없어지지 않네 / 百劫無磷
 경이 타고난 품성은 / 蓋卿稟賦
 뛰어나고 영특했으니 / 俊爽英特
 차라리 마판에 엮드린 천리마가 될지언정 / 寧驥櫪伏
 끝채 밑의 망아지는 되려 하지 않았네 / 不駒轅促
 구름에 닿을 기개였고 / 薄雲氣槩
 조수(潮水)를 삼킬 국량이었네 / 吞潮局量
 문장으로 발휘하니 / 發之於文
 강개하고 드높았네 / 忼慨瀏亮
 장자(莊子)의 정수요 열자(列子)의 진액이며 / 莊精列液
 사마천(司馬遷)⁴²⁶⁾의 골수이고 반고(班固)⁴²⁷⁾의 근골일세 / 馬髓班筋
 축을 치며 부르는 연 나라 노래 / 燕南歌筑
 호위하는 군대를 새로 갖췄네⁴²⁸⁾ / 抗隊新飜
 이간하는 글이 상자에 가득해도 / 篋雖魏盈

426) 사마천(司馬遷) : 한 나라 무제(武帝) 때 사람으로 자는 자장(子長)이다. 유람을 좋아하여 일찍이 남으로는 강회(江淮)에 노닐고 북으로는 문사(汶泗)를 건너 산천을 유람하면서 호한(浩瀚)한 기운을 얻어 이를 문장으로 발휘하여 《사기》를 지었다. 《史記 卷130 太史公自序》

427) 반고(班固) : 후한(後漢)의 안릉(安陵) 사람으로 자는 맹견(孟堅)이다. 9세에 이미 문장에 능했고 자라서는 백가(百家)의 전적(典籍)을 두루 섭렵하여 더욱 박식하였다. 아버지 반표(班彪)가 짓다가 이루지 못한 《한서》를 이어받아 20여 년 동안의 각고 끝에 완성하였다. 《後漢書 卷40上 班彪列傳 班固》

428) 축(筑)을 …… 갖췄네 : 전국 시대 연 나라 태자의 자객으로 진(秦) 나라에 간 형가(荊軻)가 떠나기 전 친구가 치는 축 소리에 맞춰 비장한 노래를 한 고사가 있다. 《史記 卷86 刺客列傳 荊軻》 여기서는 채제공이 비장한 마음으로 당시 정조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창경궁 수비대장을 맡아 여러 차례 음모를 적발해 낸 것을 의미한 듯하다.

결코 의심하지 않았네 / 杼不曾投
 나는 현경⁴²⁹이 아니었으나 / 予匪懸鏡
 경은 실로 허주⁴³⁰였으니 / 卿實虛舟
 만뢰⁴³¹는 근원으로 돌아가고 / 萬賴歸竅
 삼품은 화로에서 나왔네 / 三品出鑪
 번암에서 일어나 / 起來樊巖
 강구의 탄도(坦道)를 걸었네 / 坦履康衢
 아, 경이 군주를 만나니 / 嗟卿巷遇
 영고의 밝으신 안목이었네 / 寧考則哲
 특별히 경연(經筵)에 두셨으니 / 特置經幄
 잠필⁴³²로부터 알아주었네 / 知自簪筆
 우 나라의 용⁴³³처럼 / 若龍於虞
 왕명을 출납하고 / 出納王命
 정 나라의 교⁴³⁴처럼 / 若僑於鄭
 국가의 사령을 윤색하였네 / 潤色辭令
 입으로는 임금의 약을 맛보았고 / 口嘗御藥
 손으로는 제왕의 문장을 지었네 / 手綴天章
 위기가 정돈되고 엄숙하니 / 魚魚雅雅
 적불⁴³⁵과 창형⁴³⁶이었네 / 赤芾蒼珩
 경을 알고서 경을 등용하니 / 知卿用卿
 내 돈독히 스스로 믿었네 / 予篤自信
 좋은 계책 있으면 반드시 채택하니 / 有謨必采
 경이 쌓아온 역량을 취함이었네 / 取卿抱蘊
 간독(簡牘)이 있으면 반드시 칭찬하니 / 有牘必詡
 경의 굳은 뜻을 가상히 여김이었고 / 嘉卿秉執
 일이 있으면 반드시 자문하니 / 有事必咨
 경의 해박한 식견을 기뻐함이었네 / 喜卿該洽
 시를 읊으면 반드시 화답하니 / 有唱必酬
 공의 풍류와 운치를 사랑함이었네 / 愛卿風韻
 가시나무를 등에 지겠다고⁴³⁷ 한번 부르짖자 / 一號負荊

429) 현경(懸鏡) : 높은 집에 거울을 걸어 놓으면 사물이 다 비춰지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순정(純正)하여 사리(事理)를 밝게 살핌을 말한다.

430) 허주(虛舟) : 사람이 타지 않고 무심하게 떠다니는 빈 배로서, 사사로운 마음으로 따지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처하는 것을 말한다. 《莊子 山木》

431) 만뢰(萬賴) : 천지간의 모든 소리, 즉 인뢰(人籟)·지뢰(地籟)·천뢰(天籟)를 말한다. 《莊子 齊物論》

432) 잠필(簪筆) : 임금 가까이에서 모시는 신하가 관(冠)이나 홀(笏)에 붓을 꽂아 서사(書寫)에 대비하는 것이다.

433) 용(龍) : 순임금의 신하로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납언(納言)의 직책을 맡았다. 《書經 舜典》

434) 정(鄭) 나라의 교(僑) : 춘추 시대 정 나라의 대부 공손교(公孫僑), 즉 정자산(鄭子產)이다. 국가의 사명(辭命)을 작성할 때 그가 윤색(潤色)했다고 한다. 《論語 憲問》

435) 적불(赤芾) : 주불(朱芾)로서 제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명복(命服)이다.

436) 창형(蒼珩) : 푸른색으로 된 옥으로서 관식(冠飾)의 횡옥(橫玉)이다.

437) 가시나무를 등에 지겠다고 : 전국 시대 염파(廉頗)와 인상여(藺相如)의 고사이다. 염파가 조(趙) 나라의 대장(大將)으로 있었는데, 나중에 인상여의 지위가 더 높아지자 염파가 승복하지 않고 인상여를

은 세상이 염파(廉頗)와 인상여(藺相如)로 여겼다네 / 舉世廉藺
 태아검(太阿劍)의 서슬이 빛나니 / 太阿如水
 누가 감히 활을 겨누겠는가 / 疇敢弧車
 과거에 합격하여 조정에 선 것이 / 策名立朝
 오십 년 남짓하니 / 五十年餘
 청화 요직에 / 淸華要膴
 어디 간들 마땅하지 않았으리 / 奚適不宜
 호조와 병조 / 度支中權
 예문관과 중추부였다네 / 藝苑樞司
 규장각에 올랐다가 / 延登奎閣
 강한에 자취를 이었으니 / 接武江漢
 빛나는 부절 지니고 지방으로 나감은 / 煌煌六節
 유수와 절도사의 직책이었네 / 藩留及闡
 곧 재상으로 세운 것은 / 乃立之相
 점을 친 것도 꿈을 따른 것도 아니었네 / 不卜不夢
 거센 물결에 버티는 우뚝한 암석이고 / 捍流屹石
 대하(大廈)를 지탱하는 큰 동량이었네 / 支廈巨棟
 은택이 수많은 백성에게 미치고 / 澤漉羣黎
 복록이 구족에 끼쳤으니 / 祿仁九族
 부귀한 집안에서 위포를 걸치고 / 桃門韋布
 재상 집안에서 도롱이를 입었네 / 槐庭襍裋
 서루의 칠분이 / 西樓七分
 위로 수성에 응하니 / 上應壽星
 학발과 상홀에 / 鶴髮象笏
 오히려 전형이 있었다네 / 尙有典型
이즈음 화성(華城)에 현릉원을 조성하여 / 爰宅于華
 청승(淸繩)이 길에 임하니 / 淸繩路臨
 봄 이슬이 성하게 적셨는데 / 采采春露
 손으로 소나무 그늘을 가리켰네 / 手指松陰
 일흔 나이로 정월 초하룻날 / 大耋元朝
 이른 아침 기거의 반열에 나왔는데 / 聽漏起居
 윤택한 안색 밝은 눈동자로 / 渥顏炯眸
 단정히 양손 맞잡고 안온하게 추창했네 / 端拱穩趨
 경은 여든을 기약했으나 / 卿期八齡
 나는 백 세를 누리리라 하였더니 / 予謂百歲
 서쪽에서 이른 한 기운이 / 西來一氣
 감히 어긋나 요기(妖氣)를 퍼뜨렸네 / 敢肆乖沴

욕보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인상여가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매번 염파와 마주치는 일을 피하자, 이 말을 들은 염파가 웃옷을 벗고 가시나무를 등에 지고서 인상여를 찾아가 사죄하였다. 《史記 卷81 廉頗藺相如列傳》 여기에서는 채제공과 김종수(金鍾秀)가 화해한 일을 가리키는 듯하다.
 438) 청승(淸繩) : 임금이 행차하는 길의 경계를 정하고 교사(郊祀)의 장소에 띠를 둘러서 정하던 푸른색의 끈으로, 임금의 행차를 뜻한다.

세상에 드물게 나는 인물이건만 / 間起人物
 경 또한 기미(箕尾)를 타고 떠나고 말아 / 卿亦乘箕
 조정에 노성한 대신이 없으니 / 朝無老成
 나라의 일 장차 어찌 할 것인가 / 國其何爲
 또한 듣건대 어버이께 효성스럽기로 / 且聞孝親
 경만 한 이가 드물었다는데 / 罕如卿者
 이제는 그만인지라 / 今焉已矣
 눈물만 한결같이 뿌릴 따름일세 / 有淚一灑
 나라 사람들 슬퍼 방아를 문득 그쳤건만 / 春杵遽輟
 나는 아직 켈장을 내리지 못하였네 / 几杖未錫
 사람과 함께 없어지지 않은 것은 / 不與人亡
 서가에 가득한 문고(文稿)이니 / 滿架牙軸
 인쇄에 부쳐 / 徵付剞劂
 장차 오래도록 전하려 하네 / 將壽其傳
 친히 뇌문을 지으니 / 親製誄文
 오백여 마디의 말일세 / 五百餘言
 평소의 일을 두루 서술하니 / 歷鋪平素
 나의 글에 부끄러움이 없네 / 予筆無愧
 아들 홍원에게 이르노니 / 寄語弘遠
 선친을 더럽히지 말고 한결같이 따를지어다 / 毋忝毋貳

議政府領議政, 奎章閣提學, 華城府留守, 壯勇外使. 賜諡文肅公蔡濟恭葬日. 遣閣臣. 替訣于其
 靈. 若曰. 松喬上竦. 山嶽脚牢. 卿式似之. 判不枯槁. 挺然獨任. 義三秉一. 木天編史. 手握弗律. 斧鉞狐
 鼠. 日星忠藎. 蜀訛易驚. 巴賁不驢. 洞辨廓關. 返我鄒魯. 知申膝席. 血涕如雨. 自持寸丹. 質諸天神.
 萬育莫奪. 百劫無磷. 蓋卿稟賦. 俊爽英特. 寧驥櫪伏. 不駒轅促. 薄雲氣槩. 吞潮局量. 發之於文. 忼慨
 瀏亮. 莊精列液. 馬髓班筋. 燕南歌筑. 抗隊新醞. 篋雖魏盈. 杼不曾投. 予匪懸鏡. 卿實虛舟. 萬籟歸寂.
 三品出鑪. 起來樊巖. 坦履康衢. 嗟卿巷遇. 寧考則哲. 特置經幄. 知自簪筆. 若龍於虞. 出納王命. 若僑
 於鄭. 潤色辭令. 口嘗御藥. 手綴天章. 魚魚雅雅. 赤芾蒼珩. 知卿用卿. 予篤自信. 有謨必采. 取卿抱蘊.
 有牘必詔. 嘉卿秉執. 有事必咨. 喜卿該洽. 有唱必鬻. 愛卿風韻. 一號負荊. 舉世廉藺. 太阿如水. 疇敢
 弧車. 策名立朝. 五十年餘. 清華要膺. 奚適不宜. 度支中權. 藝苑樞司. 延登奎閣. 接武江漢. 煌煌六節.
 藩留及闕. 乃立之相. 不卜不夢. 捍流屹石. 支廈巨棟. 澤漉羣黎. 祿仁九族. 桃門韋布. 槐庭襪襜. 西樓
 七分. 上應壽星. 鶴髮象笏. 尙有典型. 爰宅于華. 青繩路臨. 采采春露. 手指松陰. 大耋元朝. 聽漏起
 居. 渥顏炯眸. 端拱穩趨. 卿期八齡. 予謂百歲. 西來一氣. 敢肆乖沴. 間起人物. 卿亦乘箕. 朝無老成. 國
 其何爲. 且聞孝親. 罕如卿者. 今焉已矣. 有淚一灑. 春杵遽輟. 几杖未錫. 不與人亡. 滿架牙軸. 徵付剞
 劂. 將壽其傳. 親製誄文. 五百餘言. 歷鋪平素. 予筆無愧. 寄語弘遠. 毋忝毋貳.

<홍재전서(弘齋全書), 제25권 제문(祭文) 7, 文肅公蔡濟恭葬日致祭文>

문화/예술

화성(華城) 성신(城神)에게 제사드린 글

저 화양에 성을 쌓으니 / 城彼華陽

이것이 화성이로다 / 是爲華城

땅이 만들고 하늘이 감추었던 곳에 / 地效天藏

성을 쌓기 시작했도다 / 之經之營
 만대의 터전을 / 萬世之基
 못사람들의 마음으로 이루었네 / 衆心以成
 높은 성벽이 우뚝하고 / 崇墉屹屹
 줄지은 담이 단단하네 / 列雉庚庚
 우리 선침을 에워싸고 / 拱我仙寢
 우리 왕경을 호위하네 / 捍我王京
 해자가 있어 의지할 만하니 / 維隍有依
 그 혼령을 깨끗이 씻을 만하네 / 有濯厥靈
 신주를 다듬어 이에 제향하니 / 治主斯饗
 성대히 영광이 있도다 / 蔚有光榮
 천년 억년이 지나도록 / 時千時億
 막아 주는 울타리가 되리라 / 是翰是屏
 풍패(豐沛)의 산수에 / 沛山豐水
 하해(河海)가 맑고 고요하네 / 海晏河清
 우리에게 수복을 내리고 / 壽我福我
 우리에게 태평을 끼치소서 / 詒我泰平
 <홍재전서(弘齋全書), 제24권 제문(祭文) 6, 祭華城城神文>

문화/예술

1796년(정조 20) 화성 북쪽에 있는 조광조(趙光祖) 사당에 치제문(致祭文)

더디고 더디도다 나의 행차여 / 遲遲吾行

화성에서 이들을 묵으니 / 信宿華城

화성의 북쪽에 / 于華之北

몇 칸의 집이 있네 / 有屋數楹
 누구의 집이냐면 / 云誰之屋
 문정공의 사당일세 / 文正之祠
 내가 문정공을 생각하니 / 我思文正
 시대를 같이하지 못함이 애석하네 / 惜不同時
 천인 성명의 학문을 하고 / 天人性命
 요순의 군민을 추구했으니 / 堯舜君民
 일찍이 경륜을 품고서 / 夙抱經綸
 창성한 시대를 만났네 / 際遭昌辰
 처음 경연(經筵)의 강석에 오르니 / 初登講幄
 준수한 선비가 모두 모였고 / 俊乂咸籲
 드디어 사헌부의 우두머리가 되니 / 遂長霜臺
 남녀가 분별을 알아 길을 달리하였네 / 士女異路
 시운에 고르고 기웁이 있었고 / 運有平陂
 도가 혹 쇠하고 자람이 있었으나 / 道或消息
 공에게야 무슨 허물이었으랴 / 公於何尤
 문묘(文廟)에 배향되었네 / 聖廡膺食

군자가 이에 본보기로 삼고 / 君子是式
 소인이 이에 덕을 생각하니 / 小人是懷
 도리어 내가 감탄하고 흠양하는 바인데 / 顧予愾欽
 어디에서 공을 찾을 것인가 / 曷覓公來
 만일 공이 있었다면 / 如公在者
 세상이 한 번 변하여 도에 이르렀으리라 / 一變至道
 이에 술과 음식을 갖추어 올리니 / 載茲醪羞
 영령께서는 길이 묵묵히 도우소서 / 永言冥祐
 <홍재전서(弘齋全書), 제24권 제문(祭文) 6, 先正文正公趙光祖致祭文【丙辰】>

문화/예술

화성이라는 이름을 하사하고 ‘화성행궁’의 편액을 조윤형에게 쓰게 하였다는 내용.

수원부(水原府)를 행궁(行宮)으로 승격시키고 화성(華城)이라는 고을 이름을 하사하고, 직접 ‘화성행궁(華城行宮)’이라는 네 글자의 대자 편액(大字扁額)을 쓴 다음 총관(摠管) 조윤형(曹允亨)에게 명하여 모각(模刻)하도록 하였다. 조윤형이, 어필(御筆)의 필력(筆力)이 웅건하고 자세(字勢)가 정심(精深)하여 그 신령스러운 운필을 얻기가 쉽지 않다 하여, 쌍구(雙鉤)와 향답(響擲)⁴³⁹으로 십여 본(本)을 바꾸고서야 완성하였다. 하교하기를, “내가 글씨에 의미를 두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다만 ‘여기에 나아가서 배운다’는 선현(先賢)의 경계를 생각해서 일찍이 방과(放過)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내 글씨를 보는 자가 그것이 심획(心畫)이라는 것을 안다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할 것이다.” 하였다.

水原府既陞爲行宮.賜號曰華城.親書華城行宮四大字匾額.命摠管曹允亨移模監刻.允亨以宸翰畫力雄健.字勢精深.未易得其神運.用雙鉤響擲.易十餘本乃成.教曰.予非有意於書也.但念先賢卽此是學之戒.未嘗放過.覽予書者.知其爲心畫.則思過半矣.

<홍재전서(弘齋全書), 제163권 일득록(日得錄) 3, 文學[三]>

문화/예술

봉수당, 낙남헌, 서장대 등에서 주고받은 시문을 모은 시집.

【을묘년은 바로 경모궁(景慕宮)이 생존해 계시면 구갑(舊甲)이 되는 해이고, 자궁(慈宮)의 보령(寶齡)이 주갑(周甲)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윤2월에 내가 자궁을 모시고 원침(園寢)에 가서 참배하고 화성(華城)으로 돌아와 봉수당(奉壽堂)에서 진찬(進饌)하였다. 자친(慈親)이 강녕하시고 또 번잡한 의식이 순조롭게 끝났으니, 참으로 드문 경사였다. 술이 반쯤 취했을 때 칠언사운율(七言四韻律) 한 수를 지어 잔치에 참여한 신하들에게 보이고, 이에 화답하여 만수무강을 비는 정성을 담도록 하였더니, 이 시에 갱재한 이는 외빈(外賓)이 70명, 제신(諸臣)이 77명이다.⁴⁴⁰⁾】

【다음 날에 다시 내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을 넓히고 근본을 가까이하는 뜻을 미루어 낙남헌(洛南軒)에서 양로연(養老宴)을 열었다. 70세와 61세 되는 이들이 참여하였는데, 배례(拜禮)는 일좌재지(一坐再至)의 예를 행하였다. 노인들이 자리에 앉은 다음에 내가 그들을

439) 쌍구(雙鉤)와 향답(響擲) : 모두 필적(筆跡)을 모사(模寫)하는 방법이다. 점획(點畫)의 가장자리를 둘러가며 선을 그리고 속은 비게 베끼는 것이 쌍구이고, 진본(眞本) 위에 종이를 덮고 창 등에 비치어서 베끼는 것이 향답이다.

440) 윤2월에 …… 77명이다 : 봉수당(奉壽堂) 연회는 정조 19년 윤2월 13일에 열렸다. 이 시는 《홍재전서》 권6에 수록되어 있다.

위하여 좌석에서 일어나서 술 세 순배를 돌리고, 칠언 절구(七言絕句) 한 수를 지어⁴⁴¹⁾ 신하들에게 보였는데, 갱재한 이는 노인 10명과 연석(宴席)에 참여한 신하 19명이다.】

【밤에는 서장대(西將臺)에 거둥하여 성조(城操)와 야조(夜操)를 행하여 군대의 위용(偉容)을 관찰하고, 이어서 오언사운율(五言四韻律) 한 수를 지어 문미(門楣)에 써 놓았다. 이 시에 갱재한 이는 34명이다.⁴⁴²⁾】

【○乙卯.卽景慕宮誕彌舊甲.慈宮寶齡周甲也.閏二月.予陪慈駕.祇拜于園寢.還次華城.進饌于奉壽堂.慈候康寧.綢儀順成.誠千載一有之會也.酒且半.口占七言四韻律.示與宴諸臣.以寓萬年祝岡之誠.賡載者.外賓七十人.諸臣七十七人.】

【粵翌日.復推廣敬因本之義.行養老宴于洛南軒.七十者暨六十一歲者與焉.拜用一坐再至之禮.羣老將就位.予爲之興.酒行三遍.吟示七言一絕.賡載者.老人十人.陞殿諸臣十九人.】

【夜御西將臺.行城操夜操.以觀軍容.仍吟示五言四韻律.俾題楣上.賡載者三十四人.】

<홍재전서(弘齋全書), 제182권 군서표기(羣書標記) 4 ○ 어정(御定) 4, 賡載軸四十八卷, 華城奉壽堂進饌賡載軸.洛南軒養老賡載軸.將臺閱武賡載軸【刊本】>

문화/예술

1796년(정조 20) 현릉원 참배를 다녀오면서 정조가 지지대에서 읊시와 신하들이 화답시를 모은 시집.

【지지대(遲遲臺)는 화성(華城)의 미륵현(彌勒峴)에 있는데, 이 고개는 화성의 초입(初入)이다. 나는 현릉원(顯隆園)을 참배하고 돌아올 때마다, 고개 위에 멈춰 서서 오래도록 현릉원을 바라보면서 선뜻 돌아가자는 말을 하지 못했다. 고을의 백성들이 돌을 둘러 대를 쌓고 지지대라 명명(命名)하였다. 병진년(1796, 정조20) 정월에 원침(園寢)을 참배하고 돌아오면서 이 대에 이르러 읊시(律詩) 한 수를 지어 감회를 적었다.⁴⁴³⁾ 그리고 수행한 신하들에게 화답하도록 하고, 궁을 지키고 있던 신하들과 환영 나온 백관과 화성 행궁에 나무를 심으러 온 여덟 고을의 수령들도 뒤에 갱재하도록 하니 모두 460명이다.】

【○遲遲臺在華城之彌勒峴.峴卽華城初界.予每於省園歸路.駐蹕峴上.瞻望久之.未便言旋.府之人環石而臺之.仍以遲遲名之.丙辰元月.展謁園寢.還到是臺.口占一律志感.命隨駕諸臣和之.守宮諸臣.祇迎百官.華城朝官植木.八邑守令.亦令追賡.凡四百六十人.】

<홍재전서(弘齋全書), 제182권 군서표기(羣書標記) 4 ○어정(御定)4, 遲遲臺賡載軸【寫本】>

문화/예술

정조가 화성 진찬연하는 날에 만년 축복의 마음을 담은 시

크나큰 복록으로 새로운 명을 맞이하여라 / 菲祿穰穰迓命新

생황 통소 불어 대어 청춘을 머물게 하네 / 鳳笙鸞吹駐青春

땅은 관화에 부합해 삼축 소리 비등하고⁴⁴⁴⁾ / 地符觀華騰三祝

해는 유홍절에 이르러 육순에 올랐도다 / 歲屆流虹躋六旬

내빈 외빈은 그대로 꽃 핀 숲의 모임이요 / 內外賓仍芳樹會

441) 낙남헌(洛南軒)에서 …… 지어 : 낙남헌 양로연은 정조 19년 윤2월 14일에 열렸으며, 이때 지은 시는 《홍재전서》 권6에 수록되어 있다.

442) 서장대(西將臺)에 …… 34명이다 : 이 시는 《홍재전서》 권6에 수록되어 있다.

443) 병진년 …… 적었다 : 이 시는 《정조실록》 20년 1월 24일 기사에 보인다.

444) 땅은 …… 비등하고 : 요(堯)임금이 화(華) 땅에 구경을 나갔을 때, 화 땅의 봉인(封人)이 수(壽), 부(富), 다남자(多男子) 세 가지로 요임금을 축복했던 데서 온 말이다.

동반 서반은 바로 꽃보다 고운 사람들일세 / 東西班是勝花人

해마다 오늘같이 즐겁기만을 원하노니 / 年年只願如今日

장락당 안에는 술이 몇 순배나 돌았는고 / 長樂堂中酒幾巡

<홍재전서(弘齋全書), 弘齋全書卷六, 華城進饌日口占示與宴諸臣以寓萬年祝岡之誠>

문화/예술

1791년(정조 15) 정약용이 이른봄 대가가 화성으로부터 돌아올 때 여러 학사와 함께 노량진 남쪽 기슭에서 시중을 들며 지은 시.

모래 언덕 푸른 밧줄 유대까지 연했는데 / 沙岸靑繩接乳臺

새봄에 옥연 현릉원⁴⁴⁵⁾ 참배하고 돌아오네 / 新春玉輦拜園廻

세월따라 햇머리는 저절로 바뀌는데 / 星霜不禁年華改

초목도 모두 임금의 오시는 줄 아는 듯 / 草木皆知御氣來

하늘 울리는 군악에 용궁이 설레고 / 鑄鼓轟天龍窟變

강물 가의 정자 난간 장수 깃발 펴려이네 / 楫欄夾水豹旗擡

망해정 정자 위에 행차 오래 머무르나 / 凝鑾望海亭頭久

군보의 문은 마땅히 신전에 의해 열려야⁴⁴⁶⁾ / 軍壁應須信箭開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第一集詩文集第二卷○詩集 詩, 首春大駕自華城還同諸學士於露梁南岸祗候【辛亥】>

문화/예술

화성부(華城府)에 단단한 철옹성을 쌓고 있다.

윤남고⁴⁴⁷⁾에게 써서 부치다[簡寄尹南臯] 【윤이서(尹彝敍)】

듣자니 지금 화성부⁴⁴⁸⁾에 / 聞說華城府

단단한 철옹성을 쌓고 있다던데 / 嚴關鐵甕重

날 듯한 누대 무지개에 닿아 있고 / 飛樓臨蜺蜺

화려한 누각에는 교룡을 그렸구려 / 綺閣畫蛟龍

건업에 강산이 수려하고 / 建業江山麗

신풍에는 초수가 무성하지⁴⁴⁹⁾ / 新豐草樹濃

왕릉에 상서로운 기운 서려 있어 / 寢園佳氣盛

일만 주 소나무를 해마다 심는다고 / 歲植萬株松

445) 옥연 현릉원 : 옥연은 제왕의 수레로 정조의 행차를 뜻하고, 현릉원은 정조의 아버지 장헌세자(莊獻世子)의 능호이다.

446) 군보의 …… 열려야 : 신전은 진영에서 군령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작은 화살인데, 화살 깃 아래에 신(信) 자를 썼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임금이 망해정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계시지만 수레가 움직이려면 신전이 날고 타고가 울리면서 두 영문이 풀려야 된다는 뜻이다.

447) 윤남고(尹南臯) : 윤선도(尹善道)의 손자 윤규범(尹奎範 1752~1846). 남고는 그의 호이고, 이서(彝敍)는 자임.

448) 화성부(華城府) : 지금의 경기도 수원(水原).

449) 건업에 …… 무성하지 : 수원성(水原城)을 중국에 비유하여 그 아름다움을 나타낸 것. 건업(建業)은 삼국(三國) 시대 오(吳)의 손권(孫權)이 옮겨 도읍을 정한 곳이며, 신풍(新豐)은 한 고조(漢高祖)가 자기 고향 풍(豐)이 그리워 그리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태상황(太上皇)을 위하여 풍과 비슷하게 새로 만든 고을인데, 정조(正祖)가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思悼世子)를 위하여 수원성을 가꾸기에 주력하였으므로 한 말이다.

탁월한 영감 윤고산은 / 卓犖孤山老
 인품이 속세를 훨씬 벗어났었지 / 風標迥出塵
 화란을 막으려고 간사한 자 물리치고⁴⁵⁰⁾ / 擊奸消禍亂
 인간 질서 확립하려고 입바른 상소했지⁴⁵¹⁾ / 抗疏正彝倫
 한실에선 장유를 데면데면 대하였고⁴⁵²⁾ / 漢室疎長孺
 오문으로 숨어 지낸 자진이었네⁴⁵³⁾ / 吳門隱子眞
 강력히 주장했던 풍수설 때문에도⁴⁵⁴⁾ / 却因風水說
 일천 년 두고두고 충신이 되었다오 / 天載作忠臣
 정약용(丁若鏞), <다산시문집, 제3권 시(詩), 簡寄尹南阜尹彝敘>

450) 화란을 …… 물리치고 : 1616년(광해군 8) 윤선도가 성균관 유생으로서 당시 권신 이이첨(李爾瞻) 일당의 횡포에 대한 상소를 올렸던 일을 말한 것.

451) 인간 질서 …… 상소했지 : 자의대비(慈懿大妃) 복상(服喪) 문제가 일어났을 때 서인(西人)의 기년설(暮年說)에 반하여 삼년설을 주장했던 일을 말한 것.

452) 한실에선 …… 대하였고 : 왕이 그의 강직함을 알아주지 않음. 장유(長孺)는 한(漢) 나라 급암(汲黯)의 자(字). 급암은 성품이 우직하여 임금 앞에서도 바른말을 곧잘 하였으므로 임금이 그를 대하기를 꺼려하였다. 윤선도(尹善道) 역시 바른말을 잘했는데, 그로 인하여 오히려 왕이 소원하게 대했다는 말임.

453) 오문으로 …… 자진이었네 : 세상이 자기와 맞지 않아 은거생활을 함. 자진(子眞)은 한 나라 매복(梅福)의 자. 왕망(王莽)이 정권을 제멋대로 하자, 하루 아침에 처자도 가정도 버리고 구강(九江)으로 떠나 오시문졸(吳市門卒)이라고 변성명을 하고 지내다가 신선이 되었다고 함. 《漢書 卷67》

454) 강력히 …… 때문에도 : 효종(孝宗) 상사 때 윤선도(尹善道)가 산릉 간심관(山陵 看審官)으로서 장지로는 수원(水原)이 제일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가 서인(西人)의 반대로 실행되지 않았음.

Ⅲ. 남양(南陽) | 일반문헌

1. 정치(政治)

(1) 행정

정치/행정

경기 좌도와 우도의 구분과 연혁을 기술한 내용.

○ 경기도 【동계(東界)와 동쪽 강원도 경계의 동남쪽, 남쪽 충청도 경계와 서남쪽 충청도 경계, 큰 바다 서쪽과 서북쪽, 큰 바다 북쪽, 황해·강원 2도의 경계이다.】는 38고을이다. 【좌도 23고을·우도 15고을이다.】 고조선의 땅과 마한(馬韓)의 지역이니, 4군(四郡)으로 있을 때는 낙랑군(樂浪郡) 관할이었다. 그 후에 남쪽 경계는 백제의 소유가 되었다가 다시 고구려와 신라가 나누어 점령했었고, 뒤에는 모두 신라가 병합하였으며 【한주(漢州)를 두었다.】 말기에는 공예가 점령하였다. 고려 성종(成宗)이 관내도(關內道)를 두었고, 현종(顯宗)은 경기와 양광도로 나누어 두었으나 충숙왕이 양광도를 만들었으며, 공양왕이 비로소 경기 좌도·우도로 나누어 만들었다. 【장단·임강(臨江)·토산(兔山)·임진·송림(松林)·마전(麻田)·적성(積城)·파평은 좌도가 되었고, 개성·강음(江陰)·해풍(海豐)·덕수(德水)·우봉은 우도가 되었다. 한양·남양(南陽)·인천·안산(安山)·교하(交河)·양천(陽川)·금천(衿川)·과천·포천·서원(瑞原)·고봉(高峯)·철원·영평(永平)·이주(伊州)·안협(安峽)·연주(漣州)·삭녕(朔寧)은 좌도(左道)에 예속되었고, 부평·강화·교동(喬桐)·김포·통진·연안·평주(平州)·백주(白州)·곡주(谷州)·수안(遂安)·재령(載寧)·서흥(瑞興)·신은(新恩)·협계(俠溪)는 우도(右道)에 예속되었다.】 태조 을해년에 고쳐서 좌도와 우도를 두었다. 【평주(平州)·수안(遂安)·곡주(谷州)·재령(載寧)·서흥(瑞興)·신은(新恩)·협계(俠溪)는 새 서울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도로 서해도에 예속시키고, 광주(廣州)·수원·양근(楊根)·쌍부(雙阜)·용구(龍駒)·처인(處仁)·이천(利川)·천녕(川寧)·지평(砥平)을 나누어 좌·우도로 만들었다가 무인년에 또 충청도 진위현(振威縣)을 나누어 좌도에 예속시켰다.】 이공익(李肯翊),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별집 제16권 지리전고(地理典故), 주(州)와 군(郡)>

정치/행정

1390년(공양왕 2) 경기를 좌도와 우도로 나눌 때 남양을 좌도로 편제했다는 내용.

(…) 공양왕(恭讓王) 2년에 처음으로 경기를 좌(左)·우(右) 도로 나누었다. 장단·임강·토산·임진·송림·마전·적성·파평을 좌도로 하고, 개성·상음·해풍(海豐)·덕수·우봉을 우도로 했다. 또 문종(文宗) 때의 구제(舊制)에 의하여, 양광도의 한양·남양(南陽)·인주(仁州)·안산(安山)·교하(交河)·양천(陽川)·금주(衿州)·과주(果州)·포천(抱川)·서원(瑞原)·고봉(高峯)과, 교주도(交州道)의 철원(鐵原)·영평(永平)·이천(伊川)·안협(安峽)·연주(漣州)·삭녕(朔寧)을 좌도에 예속시키고, 양광도의 부평(富平)·강화(江華)·교동(喬桐)·김포(金浦)·통진(通津)과, 서해도의 연안(延安)·평주(平州)·백주(白州)·곡주(谷州)·수안(遂安)·재령(載寧)·서흥(瑞興)·신은(新恩)·협계(俠溪)를 우도에 예속시켰다. 각각 관찰출척사(觀察黜陟使)를 두고, 수령관(首領官)으로 하여금 관찰출척사를 돕게 하였다 【수령관 사품(四品)은 경력(經歷)이 되고, 오품(五品) 이하는 도사(都事)가 된다.】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6권 경기(京畿)>

정치/행정

1592년(선조 25) 8월 박충간(朴忠侃)이 군량을 남양(南陽)으로 옮겨놓았다는 내용.

○ 8월 2일 기축(己丑)

순무사(巡撫使)가 모든 고을에 관문(關文)을 전하여 말하기를, “지금 도착한 경기도 순찰사의 관문에 의하면, 명나라 군대가 이미 송경(松京)에 도착했으며, 박 판서(朴判書) 충간(忠侃)이 군사가 먹을 양곡을 운반해 역시 남양(南陽)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했다. (…)

二日己丑巡使傳關於列邑曰今到京畿巡使關內天兵已到松京 朴判書忠侃以軍兵供億糧餉運轉亦到南陽云 (…)

정경운(鄭慶雲), <고대일록(孤臺日錄), 고대일록 제1권 임진(壬辰, 1592) 秋八月>

정치/행정

민호의 규모에 따라 군현의 등급을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남양(南陽) 5천 500호 이상이라는 내용.

(…) 생각건대, 중국 법은 부(府)가 가장 크고 주(州)가 다음이며 군(郡)은 없다(송(宋)나라 이후로 군이 없다). 그리고 현(縣)에 다섯 등이 있어, 관직 차례대로 승진 또는 전임했다. 우리나라 법은 빈잔(貧殘)한 주·부(州府)는 혹 취락(聚落)도 되지 못하고, 웅대한 현은 혹 사무(事務)가 번거롭기도 하다. 관원을 차임(差任)해서 보낼 때에도 권세가 높으면 첫 솜씨를 바로 큰 현에 붙이고, 세력이 약하면 세 번이나 벼슬해도 모두 작은 현을 얻게 되니, 관방(官方)의 어지러움이 이와 같다. 이번에는 8도 여러 고을을 아울러 민호와 전결로써 대소(大小)를 분간하고, 시험삼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대략을 알고자 한다. (…)
5천 500호 이상 : 남양(南陽) 장단(長湍)·금산(金山)·현풍(玄風)·무주(茂朱)·김제(金堤)·진안(鎭安)·삭주(朔州)·상원(祥原)·회령(會寧)·장연(長淵)·서흥(瑞興)·강릉(江陵).(…)

(…) ○臣謹按.中國之法.府最大.州次之.郡則無之.宋以後無郡.縣285_070b有五等.以次陞遷.吾東之法.州府之殘.或不能成聚.列縣之雄.或至於劇務.及其差遣也.勢高則初手直付大縣.力微則三仕皆得小縣.官方之淆.一往如此.今擬八路諸邑.竝以民戶田結.別其大小.試錄如左.以知大略.
(…) 五千五百戶以上.南陽, 長湍, 金山, 玄風, 茂朱, 金堤, 鎭安, 朔州, 祥原, 會寧, 長淵, 瑞興, 江陵.(…)

정약용(丁若鏞), <경세유표(經世遺表) 卷四, 天官修制 郡縣分等>

정치/행정

화주(華州)는 3군 6현을 관할 하도록 한다는 내용.

(…) 화주(華州)는 3군, 6현을 관할한다. ○3군은 남양(南陽)·인천(仁川)·부평(富平)이고, 6현은 시흥(始興)·진위(振威)·양천(陽川)·안산(安山)·김포(金浦)·통진(通津)이다. ○ 화주 도호부 대사(大使)는 경기남도 방어사를 겸한다. (…)

(…) 華州.領三郡六縣.○三郡曰南陽, 仁川, 富平.六縣曰始興, 振威, 陽川, 安山, 金浦, 通津.○華州都護府大使.兼京畿南道防禦使.(…)

정약용(丁若鏞), <경세유표(經世遺表), 제3권 천관 수제(天官修制), 郡縣分隸>

(2) 사법

정치/사법

소란을 피운 사점기 부상들을 화성과 남양에 관문을 보냈다는 내용.

10일 맑음. 익준이 장졸 등소(等訴)의 일로 상경하였다. 소란을 피운 사점기 부상(負商)들을 체포하여 올리라고 화성(華城)과 남양(南陽)에 관문을 보내고, 백토 가굴(加掘)의 일로 양구(楊口) 8면 도집강(八面都執綱) 이평여(李平汝)를 체포하여 올리라고 관문을 발송하고, 기명의 일로 광주에서 수색하여 체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관문을 발송하고, 우천 장시를 도로원(院) 밑에 설치하는 일로 장졸에게 전령하였다. 선도중(船都中)은 지금 이미 혁파하였으므로 선색장(船色掌)을 사령 등이 거행하라고 전령과 차첩(差帖)을 작성하여 주었다. 아이들이 공부(罷接)한 후에 밥과 국, 술과 안주를 마련하여 종일 취하고 실컷 먹었다.

十日 晴 益俊以匠卒等訴事上京 私店器負商作梗等捉上事 發關於華城南陽 白土加掘事 楊口八面都執綱李平汝捉上事發關 以器皿事 廣州推捉禁斷之意發關 牛川場市 還設院底事 傳令匠卒處船都中今既革罷 故船色掌 以使令等舉行次 傳令與差帖成給 兒輩做工罷接後 具飯羹酒肴 醉飽終日

지규식(池圭植), <하재일기(荷齋日記)>, 하재일기 3 계사년(1893) 7월, 十日>

정치/사법

1628년(인조 6) 10월 경평군 늑이 남양의 도리(都吏) 문효남의 아내를 조리돌렸다는 남양 부사의 보고와 사헌부의 탄핵

10일 사헌부가 아뢰기를,

“경평군 늑(慶平君炤)의 종전 죄상을 지금 살살이 들출 것은 아니나, 근래에 방자함이 더욱 심하여져서, 요사이 남양(南陽) 부사의 공문에 따르면 그 중을 다스리려 할 적에, 친히 도리(都吏) 문효남(文孝男)의 집에 가서 그 아내를 벌거벗겨 묶어서 큰 저자에 조리 돌렸었는데, 보는 사람들이 차마 똑바로 보지 못하였다 합니다. 오늘은 탐전에서 말을 꾸며서 스스로 변명하고 못할 말 없이 대관(臺官)을 모욕하였습니다. 나라를 병들게 하고 백성을 해치며 방자히 법을 업신여긴 죄를 징계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파직하시고 피이어서 난을 짓고 노략질한 종은 곤장을 때려 절도(絶島)로 귀양 보내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경평의 일은 나이 어린 왕자가 망령되어 한 일이니 심히 다스릴 것이 없다. 아직 버려두는 것이 좋다.” 하였다.

○初十日府啓.慶平君炤.從前罪狀.今不可毛舉.近來縱恣益甚.頃因南陽公牒.將欲推治其奴之際.親往都吏文孝男家.裸縛其妻.巡示都市.觀者掩目.不忍正視.今日乃於榻前.飾辭自辨.極口詬辱臺官.其病國害民.縱恣蔑法之罪.不可不懲.請罷職.懲憑作亂掠奴.杖配絶島.答曰.慶平事.年少王子妄作之事.不必深治.姑爲置之可也.(…)

박정현(朴鼎賢), <응천일록(凝川日錄)>4, 戊辰 十月>

정치/사법

1267년(원종 8) 왕이 이장용을 남양의 영흥도로 귀양 보냈다는 내용.

(…) 대개 이장용(李藏用)은, 일본이 필경 오지 않을 것이며, 장차 우리나라에 누(累)만 될까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글을 지어 전문(轉聞)하게 하려 한 것이다. 왕은 먼저 알리지 않고

스스로 글을 보내었다고 해서, 다른 마음[貳心]이 있다고 의심하여 곧 영흥도(靈興島)【지금 남양부(南陽府)서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로 귀양보내기로 하였다.(…)

안정복(安鼎福), <동사강목(東史綱目), 제11상>

정치/사법

1278년(충렬왕 4) 이습을 조홀도에 유배하고 가산을 몰수하였다는 내용.

동10월 ○ 다시 김방경을 첨의중찬(僉議中贊)에 임명하고, 홍다구의 당파를 차등을 두어 귀양보냈다.

당초에 이분희(李汾禧) 형제가 전왕 때부터 오랫동안 사랑받는 신하로 궁중에서 권세를 부렸었는데, 김방경이 문초를 당할 때에 분희는 몰래 다구와 왕래하였고 이습(李楮)도 ‘방경을 다구에게 맡기라.’고 왕에게 권하였다. 이때에 김주정(金周鼎)이 내관 박구(朴球)·염승익(廉承益)을 통하여 왕에게 비밀리에 방경을 불러서 상의하게 하도록 말하여 이날 밤으로 분희를 백령도(白翎島)에, 습을 조홀도(祖忽島)【지금 안산군(安山郡)서쪽 15리 바다 가운데에 있는데 남양(南陽)에 속하였다】에 유배하고 그들의 가산을 몰수하였으며, 얼마 후에 사람을 보내어 모두 바다에 빠뜨려 죽였다.

이때에 다구의 당인 손세정(孫世貞)·장기(張起)·지득룡(池得龍)·유종(柳宗) 등 16인의 죄를 심사하여 모두 섬에 유배하였다. (…)

안정복(安鼎福), <동사강목(東史綱目), 제12상>

(3) 군사

정치/군사

1378년(신유 4) 왜적이 남양(南陽)을 침범해서 수원부까지 노략질 했다는 내용.

○ 3월에 왜적이 태안군(泰安郡)을 침범하였다. (…)
○ 왜적이 남양(南陽)을 침범해서 드디어 수원부를 불사르고 노략질하니, 부사 신인도(愼仁道)는 겨우 몸만 빠져 나왔으며, 원수 왕빈은 적과 싸워서 패하여 구원병을 청하였기에, 밀직부사 박수경(朴修敬)에게 명하여 가게 했다. 왜적이 또 한주(韓州)·임주(林州) 두 고을을 침범하였다. (…)

○三月, 倭寇泰安郡. ○遣判繕工寺事柳藩, 如京師, 謝恩, 禮儀判書周誼, 請諡承襲. ○倭, 寇南陽, 遂焚掠水原府, 府使愼仁道, 僅以身免, 元帥王賓, 與戰敗績, 請齊師, 命密直副使朴修敬赴之, 倭又寇韓林二州.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제30권 신유 1(辛禡一), 戊午【辛禡四年○大明 洪武十一年】>

정치/군사

1391년(공양왕 3) 9월에 왜적이 남양(南陽)에 침범하였다는 내용.

(…) ○ 9월에 왜적이 남양(南陽)에 침범하니, 양광도 도관찰사 안경량(安景良)이 군사를 보내어 이를 쳐서 물리치고 15명을 사로잡아 바쳤다. (…)

(…) ○九月, 倭寇南陽, 楊廣道都觀察使安景良, 遣兵擊却之, 擒十五人以獻.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제35권 공양왕 2(恭讓王二), 辛未三年【大明 洪武二十四年】>

정치/군사

1377년(신유 3) 5월 왜적 1백여 기가 남양(南陽)·안성·종덕(宗德) 등을 침범하였다는 내용.

(…) 5월에 (…)
○ 왜적 1백여 기가 남양(南陽)·안성·종덕(宗德) 등 현을 침범하고, 또 50척이 다시 강화를 침범하여 부사 김인귀(金仁貴)를 죽이고, 수자리 사는 군사로 사로잡힌 자가 1천여 명이나 되었다. 또 수원부를 침범하니 원수 양백연·나세가 전함 50척으로 쳐서 쫓았다. 나세가 강화 지경을 지나는데, 한 부인이 물가에 숨었다가 손가락질하며 말하기를, “적의 간첩이 저 민가에 들어 있습니다.” 하였다. 나세가 빨리 달려가서 포위하고 불을 질러 적 29명을 죽였다. (…)

(…) ○倭賊百餘騎, 寇南陽安城宗德等縣, 又五十艘復寇江華, 殺府使金仁貴, 戍卒, 被虜者以千計, 又寇水原府, 元帥楊伯淵, 羅世, 以戰艦五十艘, 擊走之, 世過江華境, 有一婦匿水澗, 指示曰, 賊諜入彼民家, 世疾趨圍而火之, 殺賊二十九人.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제30권 신유1(辛禡一), 丁巳辛禡 三年○大明 洪武十年>

정치/군사

1364년(공민왕 13) 3월 조선을 보호하기 위해 갔다가 내포 앞바다에서 공격을 당하고 병마판관 전승원이 남양부(南陽府)에 도착하였다는 내용.

(…) 3월에 ○ 전라도의 조선이 왜적에게 막히어 운행되지 못하므로 왕이 동북면의 무사와 교동(喬桐)·강화(江華)·동강·서강의 전선 80여 척을 뽑아서 우도병마사(右道兵馬使) 변광수(邊光秀)와 좌도병마사 이선(李善)에게 명하여 나누어 거느리고 가서 엄호하게 하였다. 변광수의 배가 대도(代島)에 이르니 내포(內浦) 백성으로 왜적에게 사로잡혔던 자가 도망해

와서 고하기를, “적이 이작도(伊作島)에 군사를 매복시켰으니 경솔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이선이 듣지 않고 북치고 함성을 지르면서 먼저 나아가니 적이 배 두 척으로 맞아 싸우다가 속임수로 물러가더니 조금 후에 적의 배 50여 척이 포위하였다. 병마판관 이분손(李芬孫)과 중랑장 이화상(李和尚) 등이 앞서 적과 싸우다가 모두 적에게 살해되자 여러 배의 군사들이 이를 바라보고 넋을 잃어 바다에 몸을 던져 죽는 자가 10에 8, 9명이나 되었다. 변광수와 이선 등이 형세를 관망하면서 싸우지도 않고 물러가니, 싸우던 병졸이 크게 부르짖기를, “병마사는 어찌 사졸을 버리고 물러가시오. 조금만 머물러 국가를 위하여 적을 격파하십시오.” 하였으나, 광수 등이 끝내 구원하지 않았다. 병사의 사기는 더욱 저하되어 크게 패하였다. 부사 박성룡(朴成龍)만이 힘을 다하여 싸워 배를 온전히 보전하여 왔는데 몸에 두서너 개의 화살을 맞았다. 병마판관 전승원(全承遠)이 판관 김현(金鉉)과 산원(散員) 이천생(李天生)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니, 적이 추격하였으나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였다. 적의 배 두 척이 갑자기 서쪽에서 측면으로 공격하자 사졸들이 능히 지탱하지 못하고 모두 물에 뛰어들었다. 승원만이 힘을 다하여 싸우다 서너 곳에 창을 맞고 물에 뛰어들었으나 헤엄을 잘 쳤기 때문에 죽지는 않았다. 밤에 돌아와서 배에 오르니 군사 하나가 화살에 맞고 물에 몸이 빠져 뱃전을 붙잡았으나 힘이 없어 능히 올라오지 못함을 보고, 승원이 배 가운데로 끌어올려 밤낮으로 배를 직접 저어 3일 만에 남양부(南陽府)에 도착하였다. 돌아온 것은 광수(光秀)·선(善) 등의 배 겨우 20척뿐이었다. 교동·강화·동·서강에 통곡하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나 광수 등은 끝내 죄를 받지 않았다. 전라도 도순어사 김형(金鉉)이 조선을 거느리고 내포에 이르러 적과 싸우다가 패하여 죽은 자가 반수 이상이 되었으나, 왕의 총애를 받는 측근이 김형의 뇌물을 받고 도리어 칭찬하고 왕이 내온(內醢) 임금이 신하에게 하사하는 술)을 내려주고 맞이하여 위로하니 사람들이 매우 분개하였다. (…)

(…) ○全羅道漕船, 阻倭不得運, 王選東北面武士, 及喬桐江華東西江戰船八十餘艘, 命右道兵馬使邊光秀, 左道兵馬使李善, 分將往護之, 光秀船至代島, 有內浦民被虜者, 逃來告曰, 賊伏兵伊作島, 不可輕進, 善不聽, 鼓噪先進, 賊以二艘逆之, 佯退, 俄而, 賊五十餘艘圍之, 兵馬判官李芬孫, 中郎將李和尚等, 先與戰, 盡爲賊所殺, 諸船兵, 望見喪魄, 投海死者十八九, 光秀, 善等, 觀望不戰而退, 戰卒大呼曰, 兵馬使, 何棄士卒而退耶, 願小駐, 爲國家破賊, 光秀等, 終不救, 士卒氣益沮喪, 由是大敗, 唯副使朴成龍力戰, 全船而來, 身中數矢, 兵馬判官全承遠, 與判官金鉉, 散員李天生, 殊死戰, 賊追之不敢近, 有賊船二艘, 忽從西橫擊, 士卒不能支, 皆投水, 獨承遠力戰, 中數槍, 亦投水, 然, 善泅故, 得不死, 夜還登船, 有一卒中矢, 亦投水, 援舫無力, 不能上, 承遠引致船中, 晝夜手棹, 三日得到南陽府, 還者唯光秀, 善等船, 才二十艘而已, 喬桐江華東西江, 哭聲相聞, 光秀等, 竟不坐, 全羅道都巡禦使金鉉, 亦以漕船至內浦, 與賊戰敗績, 死者太半, 嬖幸受鉉賂, 反譽之, 王賜內醢迎勞, 人多憤恨.(…)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제28권 공민왕 3(恭愍王三), 甲辰十三年【元至正二十四年】>

정치/군사

1351년 8월 왜선이 130척이 남양부와 쌍부현에 불을 질렀다는 내용.

(…) ○ 가을 8월에 왜선 1백 30척이 자연(紫燕 인천(仁川))·삼목(三木 인천(仁川))의 두 섬을 침략하고 민가에 불질러 거의 다 태워 버렸고, 또 남양부(南陽府)·쌍부현(雙阜縣)에 불질렀다. 만호(萬戶) 원호(元顥)를 서북면(西北面 평안도)에 보내고 만호 인당(印璫)과 전밀직(密直) 이권(李權)을 서강(西江 예성강)으로 보내어, 군사를 주둔하게 하여 방비하게 하고 인당 등에 명하여 바다로 나가 왜적을 잡도록 하였다. 이권은 돌아와 왕에게 아뢰기를,

“신은 장수가 아니고 현재 녹을 받고 있지도 않으니 감히 명령을 받들 수 없겠나이다.” 하고, 굳이 사퇴하여 가지 않았다. (…)

(…) ○秋八月, 倭船一百三十艘, 來寇紫燕, 三木二島, 焚其民舍殆盡, 又焚南陽府雙阜縣, 遣萬戶元顥于西北面, 萬戶印璫, 前密直李權于西江, 屯兵以備之, 又命璫等入海捕倭, 權, 還白王曰, 臣非將又不食祿, 不敢奉命, 固辭不行.(…)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제26권 충정왕(忠定王), 辛卯三年 【元 至正十一年】>

정치/군사

1271년(공민왕 12) 탈타아가 당성(唐城) 사람 홍택(洪澤)을 베었다는 내용.

(…) ○ 窄梁(窄梁)에서 방수(防戍)하는 몽고병이 대부도(大部島)에 들어가서 주민을 약탈하니 백성들이 매우 원망하다가, 승겸 등이 난을 일으킨 것을 듣고는 드디어 몽고병을 죽이며 반역하였다. 수주 부사(水州副使) 안열(安悅)이 군사를 거느리고 쳐서 평정하니, 안열을 5품 관직으로 승진시켰다. 후에 탈타아가 황제의 명을 받아 반란을 도모한 자들을 국문하여, 당성(唐城) 경기 남양(南陽) 사람 홍택(洪澤)은 베고, 홍균비(洪均庇) 등은 곤장을 친 다음 역리(驛吏)에 충당시켰다. (…)

(…) ○窄梁防戍蒙古兵, 入大部島, 侵奪居民, 民甚怨之, 及聞崇謙等起, 遂殺蒙古兵以叛, 水州副使安悅, 率兵討平之, 進悅秩五品, 後, 脫朶兒, 承帝旨, 鞠謀亂者, 斬唐城人洪澤, 杖洪均庇等, 充驛吏.(…)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제19권 원종 순효대왕 2(元宗順孝大王二), 辛未十二年 【宋咸淳七年蒙古 至元八年】>

정치/군사

태조 왕건이 당성(唐城) 등을 쳐서 평정하고 아찬에 임명되었다는 내용.

무인 원년(918), 【후량(後梁) 말제 정명(貞明)4년 · 거란 태조 신책(神冊) 3년】

(…) ○ 여름 6월 병진일에 태조가 포정전(布政殿)에서 왕위에 올라 국호를 고려(高麗)라 하고, 연호를 천수(天授)라 고쳤다. (…)

(…) 궁예가 그 말에 따라 태조에게 발어참성(勃禦槳城)을 쌓게 하고, 이어 성주로 삼으니 이때 태조의 나이 20세였다. 그 후에 광주(廣州)·충주(忠州)·당성(唐城) 경기 남양(南陽)·청주(靑州)·괴양(槐壤) 충북 괴산(槐山) 등의 고을을 쳐서 이를 평정하니, 그 공으로 아찬(阿飡)을 임명받았다. (…)

夏六月丙辰, 太祖卽位于布政殿, 國號高麗, 改元天授, (…)

裔從之, 使太祖, 築勃禦槳城, 仍爲城主, 時太祖年二十, 後伐廣州忠州唐城靑州槐壤等郡縣, 平之, 以功授阿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제1권 태조 신성대왕 (太祖神聖大王), 戊寅元年【後梁末帝貞明四年契丹太祖神冊三年】>

정치/군사

1764년(영조 40) 남양(南陽)의 사례에 따라 장단이 영장을 겸하여 시행하라는 내용.

○ 장단(長湍)의 방어영(防禦營)을 파주(坡州)로 옮겼다. 이는 파주가 강을 낀 천연의 요해처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었다.

【절목(節目)은 다음과 같다. 임진(臨津) 일대는 곧 경기 우도의 첫째 가는 요해처이기 때문에 전에 이미 임진에 관(關)을 설치하고 이어 장산(長山)에 둔(墩)을 축조하였는데, 이번 에 또 장단의 방어영을 파주로 옮겨 설치하게 되었다. 수원(水原)의 예를 대략 본떠 신둔

(新屯)을 획급(劃給)하여 군수(軍需)를 전적으로 준비하도록 하였다. 장단도 삼도(三道)의 요충지이므로 그대로 영장(營將)과 토포사(討捕使)를 겸하게 하여 전영(前營)으로 만들어 강을 사이에 두고 나누어 지켜 기각(掎角)의 형세를 이루도록 한다면 견고한 요해처의 방비로 뜻밖의 사태에 대한 대비가 이에 완비될 것이다. 거행 조건(舉行條件)은 아래에 나열해 적는다.

1. 경기 우도의 8고을을 둘로 나누어 고양(高陽)·교하(交河)·적성(積城)은 파주에 소속시키고, 삭녕(朔寧)·마전(麻田)·연천(漣川)은 장단에 소속시키되, 장단이 영장을 겸하니 모든 사례(事例)를 한결같이 남양(南陽)의 예대로 시행하도록 한다. (…)] (…)

<국조보감(國朝寶鑑), 제66권 영조조 10>

정치/군사

1728년(영조 4) 3월 농사를 위해 허정(許鼎)의 남양군(南陽軍)은 정병(精兵) 5초만 남기라는 내용.

(…) 3월. ○ 각진(各鎭)의 병사를 추려내 돌아가 농사를 짓게 하도록 명하였다. 상이 하고하기를,

“호남의 소추(小醜)들이 차례차례 죽임을 당하였으니, 농사를 권면하는 정사를 조금도 늦추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백성들이 병화를 모른 지 오래되었는데, 여러 날을 한데서 지내느라 병들고 다쳤을 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황해 감사가 거느린 군사, 장단 방어사(長湍防禦使)가 거느린 마군·보군과 송도(松都)의 마병은 출정한 이외의 1초(哨)를 아울러 먼저 파해 보내라. 경기 감사가 거느린 금천(衿川)·과천(果川)·양성(陽城)·안성(安城) 네 고을의 병사, 양주 목사(楊州牧使)가 거느린 군병, 춘천 방어사(春川防禦使)가 거느린 마군과 보군은 아울러 절반을 파해 보내라. 남한 순무사(南漢巡撫使)가 거느린 각읍의 군관과 군병, 수원 총융사가 거느린 마병과 보병은 우선 10초로 번갈아 번을 서게 하고 긴요하지 않은 잡색(雜色)은 파해 보내라. 허정(許鼎)이 거느린 남양군(南陽軍)은 그 정병(精兵)을 골라 5초만 남겨 거느리도록 하고 그 나머지는 파해 보내되, 남긴 5초는 도순무사의 절제를 따르도록 하라. 계원장 박동추(朴東樞)가 거느린 어영청 향군(鄉軍)과 송도 마병과 잡색의 표하군(標下軍)들도 도순무사의 절제를 따르도록 하라. 도순무사가 거느린 향군 가운데 부자형제가 모두 군중에 있는 경우 및 솔정(率丁)이 없는 단신(單身)으로 피로에 지치고 노약한 경우는 구별하여 먼저 파해 보내라.”

하였다. (…)

<국조보감(國朝寶鑑), 제59권 영조조 3>

정치/군사

1710년(숙종 36) 10월 남양(南陽)과 인천(仁川) 등은 바닷가에 위치한 지역이나 병력이 없어서 방어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

(…) 10월. ○ 대신이 청대하였을 때에, 이조 판서 최석항(崔錫恒)이 말하기를,

“순무사(巡撫使)의 행차 때에 해로(海路)의 요충지에 대한 상황을 분명하게 살펴서, 혹은 성첩(城堞)을 수리하고 혹은 돈대(墩臺)를 쌓아 예방할 방도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강화도는 바로 국가의 출입구에 해당하는 지역이니, 더욱더 보수해야 되고, 교동(喬桐)·영종(永宗)은 강화도와 서로 의지하는 지역이므로 군사를 증원하고 대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양(南陽), 인천(仁川) 등의 읍은 비록 바닷가에 위치한 지역이라고는 하나, 지방관 휘하에 한

명의 군사도 없어, 비록 능력이 있는 인물을 보낸다 하더라도 무략(武略)을 쓸 곳이 없습니다. 세 진에 비중을 두는 것만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해변의 방어에 대하여 한 곳도 믿을 만한 곳이 없다. 비록 무사 태평한 시대라 하더라도 반드시 미리 방비를 해야 비상시에 다급하여 우왕좌왕하다가 패배하는 탈을 면할 수 있다. 더구나 지금 걱정스러운 점이 곳곳에 널려 있어 수비할 대책을 조금도 늦출 수 없는 실정이다. 묘당도 마땅히 오늘 한 가지 일을 하고 내일 한 가지 일을 하여 항상 마음을 풀어 놓지 않는다면 믿을 수 있을 듯하다. 이 점을 유의해야 되겠다.”

하였다. (…)

<국조보감(國朝寶鑑), 제54권 숙종조 14>

정치/군사

1592년(선조 25) 9월 전라 중조방장(全羅中助防將) 이유의(李由義)가 죽산에서 패배하고 남양으로 옮겨 주둔하였다가 강화로 향했다는 내용.

(…) 9월. (…) 22일. 전라 좌우 의병장이 무주(茂朱)로부터 군사를 이끌고 남원에 와서 진을 치다. 【최(崔)는 객사 서헌(西軒)에 거처하고 임(任)은 광한루(廣寒樓)에 머물렀다.】 이유의(李由義)를 경상 좌수사로 삼다. 이보다 먼저 유의가 천병계원사(天兵繼援使)로 서울에 달려가 직산(稷山)에 이르렀는데, 죽산(竹山)에서 군사가 패하고 남양(南陽)에 옮겨 주둔하여 그대로 강화를 향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명령을 받고 그 군사를 광주 판관(光州判官) 등에게 맡겨서 강화로 들여보내고, 자신은 단기(單騎)로 도로 호남으로 내려와서 이어 영남으로 향하다. (…)

(…) ○二十二日.全羅左右義兵將.自茂朱領軍來陣南原.【崔鎮客舍西軒任留廣寒樓】以李由義爲慶尙左水使.先是由義以兵繼援使.赴京至稷山.喪師於竹山.移屯南陽.因指江華.至是承命.以其軍付光州判官等.入送江都.自以單騎還下湖南.因向嶺南.(…)

조경남(趙慶男), <난중잡록(亂中雜錄)2, 壬辰下【萬曆二十年我宣廟壬辰二十五年】>

정치/군사

1351년(충정왕 3) 8월 남양의 쌍부현에 왜선이 침입하여 약탈하였다는 내용.

추8월 왜적이 자연도(紫煙島 지금의 인천(仁川)에 속한 섬이다)를 노략질하였다.

왜선 1백 30여 척이 자연도와 삼목도(三木島)【지금의 인천부(仁川府) 서쪽 40리에 있다.】에 침구하여 거의 다 불지르고 약탈하였다. 또 남양(南陽) 쌍부현(雙阜縣)【지금의 수원(水原)에 속했는데 부치(府治)에서 45리 지점에 있다.】에 침구하였다. 만호(萬戶) 인당(印璫)과 전 밀직(密直) 이권(李權)으로 하여금 서강(西江)【예성강(禮成江)인데, 개경(開京) 서쪽 40리에 있다.】에 둔병(屯兵)하고 방비하라 하니 권이 말하기를,

“신(臣)은 장수가 아니고 또 녹(祿)을 먹은 일도 없으니 감히 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며, 굳이 사양하고 가지 않았다. (…)

안정복(安鼎福), <동사강목(東史綱目), 제14상>

정치/군사

1364년(공민왕 13) 3월 조선을 보호하기 위해 갔다가 내포 앞바다에서 공격을 당하고 병마판관 전승원이 남양부(南陽府)에 도착하였다는 내용.

3월 왜(倭)가 남쪽 변방을 침구하자 경기병마사(京畿兵馬使) 변광수(邊光秀)·가 선(李善)이 함께 이작도(伊作島)에서 싸우다 크게 패하였다.

왜선 2백여 척이 갈도(葛島) 【순천(順天)의 북포(伏浦) 동남쪽에 있는데 북포는 순천부 동쪽 45리에 있다.】 에 정박하여 연해의 주군(州郡)들을 노략질하였는데 하동(河東)·고성(固城)·사주(泗州 사천)·김해(金海)·밀성(密城 밀양)·양주(梁川 양산)가 다 해를 입고, 전라도의 조선(漕船)이 통하지 못하게 되었다. 왕이 경기우도 병마사 변광수와 경기좌도 병마사 이선 등에게 명하여 동북면의 무사(武士)와 교동(喬桐)·강화(江華)와 동강(東江)·서강(西江)의 전선 80척을 선발해 거느리고 가서 호송하게 하였다. 대도(代島)에 이르자 적에게 포로되었던 자가 도망해 와서, 적이 이작도(伊作島) 【지금은 이척도(伊則島)라고 쓴다. 덕적도(德積島)가 지금의 인천부(仁川府) 서쪽 1백 20리에 있는데 그 남쪽이 독갑도(禿甲島), 그 동쪽이 이척도로 모두 남양(南陽)에 속해 있다.】 에 복병하고 있으니 가벼이 나아갈 수 없다고 알렸다. 그러나 이선은 이 말을 듣지 않고 북을 울리고 함성을 지르며 앞서 나아갔다. 적은 2척의 배로 맞아 싸우다가 거짓 물러나더니 조금 후에 적의 배 50여 척이 나와 포위하였다. 판관(判官) 이분손(李芬孫), 중랑장(中郎將) 이화상(李和尚)이 죽자, 여러 병선의 군사들은 바라보기만 하고는 뗏을 잃어 바다에 뛰어들어 죽은 자가 열에 팔구 명이나 되었다. 변광수 등은 싸우지도 않고 물러갔는데 싸우던 군졸들이 크게 부르짖기를,

“병마사는 어찌 사졸을 버리고 물러가요? 잠시 머물러 국가를 위해 적을 깨뜨리시오.”

하였으나 광수 등은 끝내 구원하지 않아 사졸들의 사기가 더욱 저상되어 크게 패하였다. 오직 부사(副使) 박성룡(朴成龍)만이 힘써 싸워 배를 온전히 보전하여 돌아왔다. 이에 동·서강에 통곡소리가 메아리쳤다. 그러나 광수 등은 끝내 죄를 받지 않았다. 얼마 안 있어 전라도 도순어사(全羅道都巡禦使) 김굉(金鉉)이 조선(漕船)을 거느리고 내포(內浦)에 이르러 왜와 싸우다가 패하여 죽은 자가 태반이나 되었다. 김굉은 나주(羅州)의 세력자로 중앙의 요직에 있는 권력자에게 뇌물을 바치고 관작을 얻어 백성의 고향을 굶기에만 급급하였다. 그런데 패전한 이때에 이르러 평소 뇌물을 받아먹은 왕의 총신(寵臣)들이 그를 칭찬하여 왕이 내온(內醢)을 하사하며 맞아 위로하기까지 하니, 사람들이 많이 분노하고 통탄하였다.(…)

안정복(安鼎福), <동사강목(東史綱目), 제15상>

정치/군사

1378년(우왕 4) 2월 왜구가 태안, 남양, 수원부를 노략하였다는 내용.

춘정월 왜가 연안부(延安府)를 침구하였다.

2월 지진이 있었다. ○ 오부(五部)의 방리군(坊里軍)을 점고하여 배를 타고 가서 왜를 포획(捕獲)하게 하였다. 이때에 왜가 안산(安山)·인주(仁州)·부평(富平)·금천(衿川)을 침구하였으며, 강화부(江華府)도 자주 노략질당하였다. 또 태안군(泰安郡)을 침구하여 남양(南陽)에 이르러 수원부(水原府)를 노략하니, 원수 왕빈(王賓)이 패배하고서 원병(援兵)을 청하므로 밀직(密直) 박수경(朴修敬)을 명하여 구원하게 하였다.(…)

안정복(安鼎福), <동사강목(東史綱目), 제16상>

정치/군사

643년 9월 백제와 고구려가 연합하여 신라의 당항성을 공격하였다는 내용.

추9월백제가 신라를 침략하니, 신라는 당(唐)에 위급을 고하였다.

백제와 고구려가 군사를 연합하여 신라 당항성(黨項城) 【지금 미상. 지금 남양(南陽) 등의

망인 듯함】을 취하여 당(唐)의 조빙하는 길을 끊을 것을 모의하니, 신라왕이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 위급함을 알렸다.(…)

안정복(安鼎福), <동사강목(東史綱目), 제3하>

정치/군사

900년 10월 왕건이 당은 등 한수 이남의 여러 고을을 함락하게 하였다.

동10월 궁예가 왕건으로 하여금 한수 남쪽 여러 고을을 함락하게 하였다.

건이 한주(漢州)【지금의 광주(廣州)】·중원(中原)【지금의 충주(忠州)】·**당은(唐恩)【고려가 당성(唐城)이라고 고쳤다. 지금의 남양(南陽)】**·서원(西原)【지금의 청주(淸州)】·괴양(槐陽)【지금의 괴산(槐山)】 등지를 쳐서 모두 평정하니, 적수(賊帥) 청길(淸吉)·신헌(辛萱) 등이 온 성을 들어 궁예에게 투항하였다. 예가 건을 아찬으로 삼았다.

안정복(安鼎福), <동사강목(東史綱目), 제5하>

정치/군사

1270년(원종 11) 6월 김방경이 영흥도에 정박해 있는 적을 치려 하였으나 송만호가 말려서 적이 달아났다는 내용.

6월 ○ 참지정사(參知政事) 신사전(申思倓)과 추밀원 부사(樞密院副使) 김방경(金方慶)을 남적추토사(南賊追討使)로 삼았다.

방경이 군사 6천여를 거느리고 몽고의 송만호(宋萬戶) 등 군사 1천여 인과 함께 쫓아가 치다가 바다 가운데에 이르러 바라보니 적이 **영흥도(靈興島)【지금의 남양(南陽)인데 일명 연흥(燕興)이다】**에 정박하였으므로, 방경은 치려 하였으나 송만호가 두려워서 말리니, 적이 달아났다. 적중에서 도망해 돌아온 남녀가 아울러 1천여 인이었는데, 송만호가 적의 무리로 생각하여 모두 사로잡아서 돌아갔다. 방경이 돌려보내 주기를 행정(行省)에 청하였으나, 돌아오지 않은 자가 많았다. (…)

안정복(安鼎福), <동사강목(東史綱目), 제11하>

정치/군사

총융청에 속하는 남양과 장단의 마병은 해마다 고시를 실시한다는 내용.

(…) 각도 도시식(各道都試式) 여러 도의 관찰사(觀察使)·절도사(節度使)·4도(都) 유수(留守)·총융사(摠戎使)가 정례(定例)에 의하여 해마다 시취(試取)하되, 춘·추 양기를 합쳐서 시취하기도 하고, 분기별로 나누어 시취하기도 하여, 전시(殿試)에 바로 응시하던가 회시(會試)에 바로 응시하던가 또는 관계를 승급하던가, 변장(邊將)으로 임명할 자와 금위영(禁衛營)과 어영청의 초관으로 추천할 자 등은 모두 본조에서 상주하여 결재를 받아 법전(法典)에 의거(依據)하여 품의 결정한다. 【6도의 감영(監營)에 속하는 선무군관(選武軍官), 평안도의 감영에 속하는 청천강(淸川江) 이남의 마병(馬兵), 동 병영(同兵營)에 속하는 청천강 이북 마병, 남병영(南兵營)에 속하는 마병무학(馬兵武學), 북병영(北兵營)에 속하는 부령(富寧) 이남 4읍 마병, 공충도 감영에 속하는 우도(右道) 마병, 동병영에 속하는 좌도 마병, 경상 좌·우도의 병영에 속하는 좌·우도 마병, 전라도 감영에 속하는 노령(蘆嶺) 이북 마병, 동 병영에 속하는 노령 이남의 마병, 강원도 감영에 속하는 도내(道內) 마병, 광주부(廣州府)에 속하는 본부 마병, **총융청에 속하는 남양(南陽)·장단(長端)의 마병은 모두 해마다 고시를 실시하여,** 수위(首位)에 합격한 한량(閑良)은 바로 전시(殿試)에 응시케 하며, 차위(次

位)의 한량은 바로 회시(會試)에 응시케 한다.】 (…)

(…) 各道都試式○諸道觀察使, 節度使, 四都留守, 揔戎使依定式每年試取.而或春, 秋兩等合試.或分等試取.直赴殿試, 直赴會試與加資, 邊將除授, 禁, 御兩營哨官窠備擬之類.啓下本曹.依法典覆啓稟處.【六道監營屬選武軍官.平安監營屬清南馬兵.兵營屬清北馬兵.南兵營屬馬兵武學.北兵營屬富寧以南四邑馬兵.公忠監營屬右道馬兵.兵營屬左道馬兵.慶尙左, 右兵營屬左, 右道馬兵.全羅監營屬蘆嶺以北馬兵.兵營屬蘆嶺以南馬兵.江原監營屬道內馬兵.廣州府屬本府馬兵.揔戎廳屬南陽, 長湍馬兵.並每年試取.居首閑良直赴殿試.之次閑良直赴會試.】 (…)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 2 병조각장사례(兵曹各掌事例), 一軍色>

정치/군사

1699년(숙종 25)에 정한 규례로 남양 등 경기 일대에서 호랑이를 잡았을 때의 상금의 규정.

【숙종 25년 기묘(1699년)에 규례를 정하였다.】 양천(陽川)·인천(仁川)·남양(南陽)·김포(金浦)·시흥(始興)·부평(富平)·교동(喬桐)·강화(江華)·진위(振威)·통진(通津)·안산(安山)·양성(陽城)·수원(水原). 【범을 잡은 데 대한 상 : 아병(牙兵)에게는 큰 호랑이나 중 호랑이에게 먼저 총을 쏜 자에게는 무명 3필·삼베 2필,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쏜 자에게는 각각 무명 2필·삼베 2필, 작은 범을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쏜 자에게는 각각 무명이 2필씩이다. 장교에게는 대·중·소의 범을 막론하고 각각 무명 3필·소청포가 2필씩이다. 능침(陵寢) 근처에서나 또는 한 번 사냥에서 3마리를 잡은 자에게는 문서로 상주하여 시상을 청구하며, 개인으로서 사냥하다가 범을 잡아서 상납한 자에게는 원군은 무명과 삼베로 시상하며, 대년군은 원군으로 승진시킨다.】

捉虎分授.【肅宗己卯.定式.】 陽川, 仁川, 南陽, 金浦, 始興, 富平, 喬桐, 江華, 振威, 通津, 安山, 陽城, 水原.【捉虎賞.牙兵.大, 中虎.先放木三疋, 布二疋.再放, 三放各木二疋, 布二疋.小虎.先放, 再放各木二疋.將校.毋論大, 中, 小虎.各木三疋, 小青布二疋.陵寢近處.一獵三捉則草記論賞.私獵捉納者.元軍木, 布.待年軍陞元軍.】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 3 금위영(禁衛營), 捉虎分授>

정치/군사

1624년(인조 2) 총융청의 연혁을 정리한 것으로 경기도의 남양 등 5개영을 설치하였다는 내용.

인조 2년 갑자(1624년)에 총융청을 처음 설치하여 완풍부원군(完豐府院君) 이서(李曙)⁴⁵⁵로 총융사(揔戎使)를 삼고, 수원(水原)·광주(廣州)·양주(楊州)·장단(長湍)·남양(南陽)의 5개 영을 설치하여 순회 조련하는 제도를 정하였다.

仁祖甲子.創置揔戎廳.以完豐府院君李曙爲揔戎使.置水原, 廣州, 楊州, 長湍, 南陽五營.定巡操之制.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 3 총융청(揔戎廳, 開營始末)>

정치/군사

내영군과 내영군의 군제를 정리한 내용으로 남양 등 경기도 지역의 군사규모를 정리한 내용.

〈내영군(內營軍)〉 내영의 군제는 2부(部)와 4사(司)인데, 좌부에 좌사(左司)와 우사(右司)가 있고, 우부에 좌사와 우사가 있으며, 2부에 모두 중사(中司)가 있는데 이것을 이중사(二

455) 이서(李曙) : ‘이서(李曙)’가 어느 본에는 ‘李서’로 되어 있음.

中司)라 한다. 4개 사는 각각 5초씩을 영솔하며, 이중사는 각각 3초를 영솔한다. 장초(壯抄) 10초 【김포(金浦) 2초, 통진(通津) 2초, 부평(富平) 2초, 인천(仁川) 1초, 남양(南陽)·양천(陽川)⁴⁵⁶⁾ 1초, 파주(坡州) 1초, 장단(長湍) 1초.】 둔장초(屯壯抄) 3초 【양성(陽城)·양지(陽智)·광주(廣州)·이천(利川)·양근(楊根)·인천·부평·양천·직산(稷山)·평택(平澤) 등 읍에 흩어져 있다. ○ 인조 24년 병술(1646년)에 구인기(具仁壆)가 장초 10초·둔장초 3초를 기내(畿內)에 설치하였다.】 아병(牙兵) 10초 【장단 2초, 파주 2초, 마전(麻田) 1초, 교하(交河) 2초, 고양(高陽) 1초, 적성(積城) 1초, 부평(富平)⁴⁵⁷⁾ 1초.】 둔아병(屯牙兵) 3초 【삭녕(朔寧)·연천(漣川)·양주·마전·적성·장단 등 고을에 산재한다. ○ 숙종 즉위년 갑인(1674년)에 호조 판서 민유중(閔維重)⁴⁵⁸⁾이 아병 10초를 설치하였고, 7년 신유에 판윤(判尹)⁴⁵⁹⁾ 신여철(申汝哲)이 둔민(屯民) 중의 장건한 자를 선발하여 둔아병 3초를 설치하였다.】 모두 26초이다. 8색(八色)의 표하군이 995명 【경군이 633명·지방군이 362명인데 그 가운데서 원 인원수 852명에게는 각각 자보(資保) 1명씩을 급여하도록 영종 10년 갑인(1734년)에 규례를 정하였다. ○ 지방군의 표하군 126명으로서 시흥(始興)·과천(果川)에 있는 자는 두 읍이 화성(華城)으로 이속된 뒤에 아직까지 대충(代充)하지 못하였다】 인데, 이것이 ‘내영군’ 이다.

〈외영군(外營軍)〉 외영의 군제는 모두 3영인데, 남양이 전영(前營) 【속읍은 양천.】 파주가 중영 【속읍은 고양·교하·적성.】 장단이 후영 【속읍은 연천·마전·삭녕. ○ 인조 2년 갑자에 청을 설치할 때에는 본시 5영의 제도로 만들었던 것인데, 숙종 13년 정묘(1687년)에 남양을 수어청(守禦廳)에 이속시키고, 수원·장단·파주의 3개 영만 설치하였다. ○ 영종 40년 갑신(1764년)에 정부의 결의로 군제를 개편하여 5개 영으로 만들었는데, 남양이 전영, 수원이 좌영, 북한이 중영, 파주가 우영, 장단이 후영이 되었다. ○ 정종 16년 임자(1792년)에 수원부사를 유수로 승격시켰다. 그러므로 5명을 개편[改]⁴⁶⁰⁾하여 3영의 제도가 되었다】 이다. 전영 : 별효사(別驍士) 2초 【정종 18년 갑인에 파주의 예에 의하여 장단·남양의 마병 각 2초를 별효사로 승격시켰다.】 속오군(束伍軍) 12초 【남양 11초, 양천 1초.】 2부 4사 각 3초씩. 【중영과 후영도 마찬가지다.】 중영 : 별효사 2초 【영종 40년 갑신에 파주에 방어영(防禦營)을 설치한 뒤에 별효사 2초를 두었다.】 속오군 12초. 【파주 7초, 속읍 5초.】 후영 : 별효사 2초 【정종 18년 갑인에 파주의 예에 의하여 장단·남양의 마병 각 2초를 별효사로 승격시켰다.】 속오군 12초 【장단 5초, 속읍 7초.】 합계 별효사 6초, 속오군이 36초이다. ○ 3영에 다 중군 1명, 별효사별장 1명, 국장(局將) 2명, 천총 2명, 파총 4명, 초관 12명, 치중초관(鎗重哨官) 1명, 교련관 【전영 15명, 중영·후영 각 9명씩.】 기패관 【전영 41명, 중영 51명, 후영 27명.】 표하군 350명, 치중군 50명씩이 있다. 다만 중영에는 난후군(攔後軍) 1초, 난후초관 1명이 있다. ○ 각 읍의 군수보(軍需保) 951명,⁴⁶¹⁾ 각 둔의 군수보 1,216명, 각 읍의 수첩군관(守堞軍官) 37명. 【경기 내의 각 읍에 산재한다.】

軍制○內營軍制.二部四司.左部有左司,右司.右部有左司,右司.二部皆有中司.謂之二中司.四司各領五哨.二中司各領三哨.壯抄十哨.【金浦二哨.通津二哨.富平二哨.仁川一哨.南陽,陽川一

456) 양천(陽川) : ‘양천(陽川)’이 어느 본에는 ‘楊州’로 되어 있음.

457) 부평(富平) : ‘부평(富平)’이 어느 본에는 ‘麻田’으로 되어 있음.

458) 민유중(閔維重) : 1630년(인조 8)~1687년(숙종 13). 숙종의 장인, 자는 지숙(持叔), 호는 둔촌(屯村). 본관은 여흥(驪興). 호조판서를 거쳐 영동녕부사(領敦寧府事)에 이르렀음.

459) 판윤(判尹) : ‘판윤(判尹)’이 어느 본에는 ‘判書’로 되어 있음.

460) 개편[改] : ‘개편[改]’이 어느 본에는 ‘設’로 되어 있음.

461) 명 : ‘명(名)’이 어느 본에는 ‘石’으로 되어 있음.

哨.坡州一哨.長湍一哨.】屯壯抄三哨.【散在陽城,陽智,廣州,利川,楊根,仁川,富平,陽川,稷山,平澤等邑.○仁祖丙戌.具仁堡設置壯抄十哨,屯壯抄三哨於畿內.】牙兵十哨.【長湍二哨.坡州二哨.麻田一哨.交河二哨.高陽一哨.積城一哨.富平一哨.】屯牙兵三哨.【散在朔寧,漣川,楊州,麻田,積城,長湍等邑.○肅宗甲寅.戶曹判書閔維重設牙兵十哨.辛酉.判尹申汝哲抄出屯民中壯健者.設屯牙兵三哨.】凡二十六哨也.八色標下軍九百九十五名.【京六百三十三名,鄉三百六十二名.內.元額八百五十二名.各給資保一名事.英宗甲寅.定式.○鄉標下一百二十六名之在始興,果川者.兩邑屬華城後姑未充代.】是爲內營軍也.

外營軍制.凡三營.南陽爲前營.【屬邑.陽川.】坡州爲中營.【屬邑.高陽,交河,積城.】長湍爲後營.【屬邑.漣川,麻田,朔寧.○甲子設廳.本爲五營之制.肅宗丁卯.移屬南陽於守禦廳.只設水原,長湍,坡州三營.○英宗甲申.廟議改軍制爲五營.南陽爲前營.水原爲左營.北漢爲中營.坡州爲右營.長湍爲後營.○正宗壬子.陞水原府使爲留守.故改五營爲三營之制.】前營.別驍士二哨.【正宗甲寅.命依坡州例.長湍,南陽馬兵各二哨.陞爲別驍士.】東伍軍十二哨.【南陽十一哨.陽川一哨.】二部四司各三哨.【中營,後營.同.】中營.別驍士二哨.【英宗甲申.坡州設防營後.置別驍士二哨.】東伍軍十二哨.【坡州七哨.屬邑五哨.】後營.別驍士二哨.【正宗甲寅.命依坡州例.長湍,南陽馬兵各二哨.陞爲別驍士.】東伍軍十二哨.長湍五哨.屬邑七哨.凡別驍士六哨.東伍軍三十六哨.○三營皆有中軍一員.別驍士別將一員.局將二員.千總二員.把總四員.哨官十二員.輜重哨官一員.教鍊官.【前營十五員.中營,後營各九員.】旗牌官.【前營四十一員.中營五十一員.後營二十七員.】標下軍三百五十名.輜重軍五十名.惟中營.有攔後軍一哨.攔後哨官一員.○各邑軍需保九百五十一名.各屯軍需保一千二百十六名.各邑守堞軍官三十七人.【散在畿內各邑.】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 3 총융청(總戎廳), 軍制>

정치/군사

총융청에서 실시하는 정기 군사훈련에 대한 규정으로 윤희 훈련의 장소 및 군병에 대한 내용.

군병의 조련은 춘기에는 전영(前營)에서 실시하고, 추기에는 중영(中營)과 후영(後營)에서 실시한다. 윤희 조련의 규례는 여러 번 변천이 있다가 영종 25년 기사에 3진영의 춘추 윤희 조련을 규례로 정하였고, 40년 갑신에는 남·북의 각 2영이 춘기와 추기에 윤희 조련하도록 규례를 정하였다. ○ 전영 : 남양(南陽)⁴⁶²의 별효사(別曉士) 2초·속오군(束伍軍) 11초·양천(陽川) 속오군 1초·소속 각읍의 장초(壯抄) 8초·둔의 장초 3초·아병 1초가 조련에 참가한다. 중영 : 과주의 별효사 ²⁴⁶³초·속오군 7초·장초 1초·아병 2초·속읍의 속오군 5초·아병 5초·임진진의 아병 2초·장산진의 아병 2초가 조련에 참가한다. 후영 : 장단의 별효사 2초·속오군 5초·장초 1초·둔의 아병 3초·속읍의 속오군 7초·아병 2초가 조련에 참가한다. ○ 조련에 참가하는 군병의 신미(身米)는 반액 감제하고, 비변사에 보고하여 대물을 지급받는다. ○ 만일 조련을 정지하면 관과 진의 아문에서 집합 점호한다. 【각 읍(邑)⁴⁶⁴과 진의 집합 점호하는 날짜[日子]⁴⁶⁵를 미리 급속히 보고하면 본청에서 영의 장교를 보내어 군병의 인원수와 군액·군물을 점검하고, 점검이 끝난 뒤에는 보고서를 상주한다[狀聞].⁴⁶⁶】 ○ 3진영에서 조련에 참가하는 군병에게 급식하는 쌀은 300석 가량 【저치미(儲置

462) 남양(南陽) : ‘남양(南陽)’의 ‘陽’이 어느 본에는 ‘營’으로 되어 있음.

463) 2 : ‘2’가 어느 본에는 ‘1’로 되어 있음.

464) 읍(邑) : ‘읍(邑)’이 어느 본에는 ‘營’으로 되어 있음.

465) 날짜[日子] : ‘날짜[日子]’의 ‘子’가 어느 본에는 ‘字’로 되어 있음.

466) 상주한다[狀聞] : ‘상주한다[狀聞]’의 ‘狀’이 어느 본에는 ‘壯’으로 되어 있음.

米)에서 회계 감제한다】이다. 임진·장산의 양진에서 조련에 참가하는 군병에게 급식하는 쌀은 29석 영【이전하는 모미를 먼저 갖다 쓰고, 비변사에 보고하여 대물을 지급받는다】이다. 상품은 무명 3동【병조에서 책정하여 온다.】전죽(箭竹)⁴⁶⁷⁾ 50부【비변사에 청구하여 얻어온다.】모자 100입【영문에서 매입하여 쓴다.】군병의 갑포장용(甲布帳用) 무명 10동【비변사에 보고하여 병조에서 빌려온다】가량이다.

輪操○軍操.春行於前營.秋行於中營, 後營.輪操之式.累有沿革.英宗己巳.三鎮營春, 秋輪操.定式.甲申.南, 北各二營春, 秋輪操.定式.○前營.南陽別驍士二哨, 束伍軍十一哨, 陽川束伍軍一哨, 所屬列邑壯抄八哨, 屯壯抄三哨, 牙兵一哨赴操.中營.坡州別驍士二哨, 束伍軍七哨, 壯抄一哨, 牙兵二哨, 屬邑束伍軍五哨, 牙兵五哨, 臨津鎮牙兵二哨, 長山鎮牙兵二哨赴操.後營.長湍別驍士二哨, 束伍軍五哨, 壯抄一哨, 屯牙兵三哨, 屬邑束伍軍七哨, 牙兵二哨赴操.○赴操軍身米減半.報備局給代.○若停操則官, 鎮門聚點.【自各邑, 鎮聚點日子.預先馳報則自本廳送營校.點閱軍額, 軍物.畢點後狀聞.】○三鎮營赴操軍兵犒饋米假令三百石.【儲置米會減.】臨, 長兩鎮赴操軍兵犒饋米二十九石零.【以移轉耗米先取用.報備局給代.】賞格假令木三同, 【兵曹劃來.】箭竹五十浮, 【請得於備局.】帽子一百立, 【營門貿用.】軍兵甲布帳木十同.【報備局.貸來於兵曹.】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 3 총융청(摠戎廳), 輪操>

정치/군사

경기도 수원 및 남양 등지에 분포한 해안의 주요 포구 방어 시설에 대해 정리한 내용.

(…) 경기(京畿) 수원(水原)의 대진포(大進浦)【서쪽으로 바다와 연결되어 있다. 바람이 일면 파도(波濤)⁴⁶⁸⁾가 매우 심하다. 종류에 높이 6·70길 되는 산봉우리 같은 큰 바위가 있는데 험하고 가파르다. 이 바위를 새신영공(賽神令公)이라고 부르는데, 뱃사공들이 여기를 지날 때는 언제나 향을 피우고 기도한다 하여 새신(賽神)이라 하고 영공(令公)이란 높임말인데 와전하여 재신(宰臣)이라고들 한다.】양성(陽城), 수원, 남양(南陽)의 화량(花梁)【옛적엔 수사영(水使營)을 두었었는데 성종(成宗) 때에 영을 폐하고 첨사를 설치하였다】·영종(永宗), 인천(仁川), 광주(廣州), 안산(安山), 인천의 덕적도(德積島)【일명 덕물도(德物島)라고도 한다. 당(唐) 나라 소열(蘇烈)⁴⁶⁹⁾이 백제(百濟)를 칠 때에 등주(登州)에서 바다를 건너 덕물도(德物島)에 이르렀다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원도(猿島) 가운데 여러 도신(島神)들의 제단이 있고 봄가을로 수령(守令)이 직접 집행하여 악신(嶽神)·해신(海神)·독신(瀆神)에게 제사한다】·사야관도(士也串島)【당의 소열이 여기에 군병을 주둔한 적이 있다.】부평(富平), 김포(金浦), 통진(通津)의 덕포(德浦)·조강(祖江), 강화(江華) 섬이다 의월관진(月串鎭)·주문도(注文島)·초지포(草芝浦)·인화보(寅火堡)·용진(龍津)·제물량(濟物梁)·덕진(德津)⁴⁷⁰⁾·가릉포(嘉陵浦)【위에 가릉(嘉陵)이 있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다】·매음도(煤音島).【널찍한 돌[博石]⁴⁷¹⁾이 생산되어 국가에 쓰이며, 또한 비석의 자료로 많이 쓴다.】돈대(塹臺)【숙종(肅宗) 때 김석주(金錫胄) 등을 보내어 섬을 시찰하고 포변(浦邊)에 돈대 49개소를 벌려 쌓았는데, 동쪽에 11개소, 남쪽에 14개소, 서쪽에 11개소, 북쪽에 13개소다.】(…)

467) 전죽(箭竹) : ‘전죽(箭竹)’이 어느 본에는 ‘竹箭’으로 되어 있음.

468) 파도(波濤) : ‘파도(波濤)’가 어느 본에는 ‘濤浪’으로 되어 있음.

469) 소열(蘇烈) : 당(唐)의 소정방(蘇定方).

470) 덕진(德津) : ‘덕진(德津)’이 어느 본에는 ‘德鎭’으로 되어 있음.

471) 널찍한 돌[博石] : ‘널찍한 돌[博石]’의 ‘博’이 어떤 본들에는 ‘磚’으로 되어 있음.

(…) 京畿.水原大津浦.【西連大海.遇風.波濤極險.中流.有巖如峯.高六七十丈.巉巖卓絕.號賽神令公.舟人過此.必香火祈禱.故號賽神.而令公爲稱也.賽神.今訛爲宰臣.】 陽城.水原.南陽花梁, 【舊爲水使營.成宗朝.罷營置僉使.】 永宗.仁川.廣州.安山.仁川德積島.【一云德物島.唐蘇烈伐百濟時.自登州濟海至德物島者卽此.】 猿島,【中有諸島神祭壇.春秋嶽海濱行祭時.守令親行.】 土也串島.【蘇烈嘗駐軍于此.】 富平, 金浦, 通津德浦, 祖江.江華 【海島.】 月串鎮, 注文島, 草芝浦, 寅火堡, 龍津, 濟物梁, 德津, 嘉陵浦,【上有嘉陵.因號.】 煤音島.【有廣博石.以爲國用.國人以爲碑碣焉. 整臺.肅宗朝.遣金錫胄等審視島內.浦邊列築整臺四十九所.東十一.南十四.西十一.北十三.】(…)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 4 해방(海防), 西海之南>

정치/군사

기병과 보병의 보포를 관장하는 이군색(二軍色)이 지역별 당번의 수효를 정리한 내용.

(…) 육번의 기병 총수[六番騎兵總數] 1번 : 경기 62명 【삭녕(朔寧) 10명, 양주(楊州) 6명, 이천(利川) 5명, 양근(楊根) 6명, 안성(安城) 11명, 장단(長湍) 8명, 양성(陽城) 10명, 지평(砥平) 4명, 부평(富平) 2명.】 (…)

3번 : 경기도 61명 【안성 8명, 양지(陽智) 6명, **남양(南陽) 14명**, 죽산(竹山) 10명, 지평 4명, 여주(驪州) 12명, 이천 7명.】 강원도 34명 【강릉 8명, 평해(平海) 14명, 통천(通川) 3명, 삼척(三陟) 6명, 울진 3명.】 황해도 33명 【해주 7명, 평산 2명, 신계(新溪) 5명, 금천(金川) 1명, 은륜(殷栗) 1명, 풍천(豐川) 4명, 장연(長淵) 4명, 서흥 2명, 곡산(谷山) 5명, 송화 1명, 토산(兔山) 1명.】 공충도 67명 【직산(稷山)⁴⁷²⁾ 6명, 목천(木川) 5명, 진잠(鎭岑) 3명, 서천(舒川) 8명, 서원(西原) 14명, 청안(淸安) 5명, 태안(泰安) 9명, 영동(永同) 17명.】 전라도 17명 【부안(扶安) 1명, 장흥(長興) 1명, 남원(南原) 4명, 순창(淳昌) 1명, 김제 1명, 전주 2명, 임피(臨陂) 1명, 용안(龍安) 3명, 진안(鎭安) 3명.】 경상좌도 8명 【순흥 1명, 풍기(豐基) 2명, 예천(醴泉) 5명.】 경상우도 8명. 【상주 2명, 선산 6명.】 (…)

(…) 六番騎兵總數○一番.京畿六十二名.【朔寧十.楊州六.利川五.楊根六.安城十一.長湍八.陽城十.砥平四.富平二.】 (…)

三番.京畿六十一名.【安城八.陽智六.**南陽十四**.竹山十.砥平四.驪州十二.利川七.】 江原道三十四名.【江陵八.平海十四.通川三.三陟六.蔚珍三.】 黃海道三十三名.【海州七.平山二.新溪五.金川一.殷栗一.豐川四.長淵四.瑞興二.谷山五.松禾一.兔山一.】 公忠道六十七名.【稷山六.木川五.鎭岑三.舒川八.西原十四.淸安五.泰安九.永同十七.】 全羅道十七名.【扶安一.長興一.南原四.淳昌一.金堤一.全州二.臨陂一.龍安三.鎭安三.】 慶尙左道八名.【順興一.豐基二.醴泉五.】 慶尙右道八名.【尙州二.善山六.】 (…)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 2 병조(兵曹), 二軍色>

정치/군사

남양이 속한 다섯 번째 햇불의 연결 지역을 정리한 내용.

(…) 다섯째 햇불 : 순천(順天)의 방답진(防踏鎭)으로부터 시작하여, 흥양(興陽)·장흥(長興)·강진(康津)·영암(靈巖)·해남(海南)·진도(珍島)·무안(務安)·나주(羅州)·함평(咸平)·영광(靈光)·무장(茂長)·부안(扶安)·옥구(沃溝)·임피(臨陂)·함열(咸悅)·용안(龍安)·은

472) 직산(稷山) : '직산(稷山)'이 어느 본에는 '槐山'으로 되어 있음.

진(恩津)·노성(魯城)·공주(公州)·천안(天安)·아산(牙山)·직산(稷山)·양성(陽城)·수원(水原)·남양(南陽)·안산(安山)·인천(仁川)·부평(富平)·김포(金浦)·통진(通津)·강화(江華)·양천(陽川)을 거쳐 개화산(開花山)의 봉수로 통한다.

사잇봉수 : 교동(喬桐) 장봉도(長峯島)⁴⁷³에서 시작하여 강화로 통한다.

이상 직로봉수 60개소, 사잇봉수 34개소. (…)

(…) 第五炬. 初起順天防踏鎮自興陽, 長興, 康津, 靈岩, 海南, 珍島, 務安, 羅州, 咸平, 靈光, 茂長, 扶安, 沃溝, 臨陂, 咸悅, 龍安, 恩津, 魯城, 公州, 天安, 牙山, 稷山, 陽城, 水原, 南陽, 安山, 仁川, 富平, 金浦, 通津, 江華, 陽川通于開花山烽.

間烽. 初起喬桐長峯島通于江華.

已上. 直烽六十處. 間烽三十四處. (…)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 1 봉수(烽燧), 第五炬>

정치/군사

군역 충정의 폐단에 대해 남양의 한 군졸이 언급한 내용.

나라의 법에, 무릇 군역(軍役)은 16세가 되면 군적에 편입하였다가 60세가 되면 늙어서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수령들이 군정의 인원이 모자랄 때에는 젓먹이까지도 나이를 올려서 모자라는 숫자를 채웠다.

남양(南陽)에 한 군졸이 있었는데, 아직 늙지도 않아서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고을 원이, “너는 어찌 나라를 속이느냐.” 고 하자, 그가 대답하기를, “소민(小民)이 어찌 감히 나라를 속이겠는가? 나라에서 소민을 속이고 있다. 소민은 태어나면서 바로 군정으로 편입된 지가 지금 45년째이다.” 하였다. 군적을 상고하여 보니 과연 그러했다. 원이 감히 논란하지 못하였으니, 이 한 가지 일만 보더라도 백성의 곤폐(困弊)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를 적어 둔다.

이익(李翼), <성호사설(星湖僊說), 제17권 인사문(人事門), 신생아 충정(新生兒充丁)>

정치/군사

1636년(인조 14) 12월 남양부사 윤계가 근왕하려다 밀고에 의해 죽었다는 내용.

(…) 12월 27일 ○ 남양 부사(南陽府使) 윤계(尹槩)가 홀어진 군사를 소집하여 근왕(勤王)을 하려고 하는데, 오랑캐에게 항복한 박이치(朴以致)라는 자가 적에게 밀고해서 불의에 엄습을 당하여 사로잡혔다. 적에게 칼로 찌혀 죽을 때에 꾸밈음이 입에서 끊어지지 아니했다. (…)

(…) ○二十七日. ○南陽府使尹槩. 召集散卒. 欲爲勤王. 降虜名朴以致者. 密告于賊. 不意掩襲被執. 斫殺之時. 罵不絕口. (…)

조경남(趙慶男), <속잡록(續雜錄)4, 丙子【崇禎九年仁祖十四年】>

정치/군사

조선초기의 남양의 화랑진에서 교동의 통어영으로 옮겨갔다는 내용.

《대동지지(大東地志)》 【영아】 통어영(統禦營) 곧 경기 수영(京畿水營)이며 읍성(邑城)에 있다. 국초(國初)에 영을 남양(南陽)의 화랑(花梁)에 개설하였는데, 뒤에 이곳으로 옮겨갔다. 인조(仁祖) 11년(1633)에 수사(水使)가 삼도 통어사(三道統禦使)를 겸하여 경기(京畿)·황해

473) 장봉도(長峯島) : ‘장봉도(長峯島)’의 ‘峯’이 어느 본에는 ‘烽’으로 되어 있음.

(黃海)·충청(忠淸) 3도의 주사(舟師 海軍))를 거느렸다. 정조(正祖) 3년(1779)에 통어영을 강화로 옮기고, 본부사(本府使)가 수군 방어사 우해방장(水軍防禦使右海防將)을 겸하고, 12년에 다시 통어영을 본부로 옮겨와 수사가 전과 같이 겸하고, 인하여 방어해방(防禦海防)을 감하였다.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13권 경기(京畿) 교동현(喬桐縣)>

정치/군사

통진의 도호부사가 남양진관 병마동첨절제사 진무우영장을 겸한다는 내용.

《대동지지(大東地志)》 【관원】 도호부사(都護府使) **【남양진관 병마동첨절제사 진무우영장(南陽鎭管兵馬同僉節制使鎭撫右營將)을 겸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10권 경기(京畿) 통진현(通津縣)>

정치/군사

금천현감이 남양진관 병마절제도위 총리협수파총을 겸한다는 내용.

《대동지지(大東地志)》 【관원】 현감 **【남양진관병마절제도위총리협수파총(南陽鎭管兵馬節制都尉摠理協守把摠)을 겸한다.】** 1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10권 경기(京畿), 금천현(衿川縣)>

정치/군사

남양부사가 좌 진영장을 겸임한다는 내용.

본조에서 진영장 겸 토포사 46명과, 진무영장(鎭撫營將) 5명을 두었다.

○ 경기도는 6명인데, 전(前)에 광주(廣州), **【부윤이 겸한다.】 좌(左)에 남양(南陽), 【부사가 겸한다.】** 중(中)에 양주(楊州), **【목사가 겸한다. 이상은 모두 인조조에 처음 두었다.】** 별중(別中)에 수원(水原), **【부사가 겸하며 현종 9년에 처음으로 두었다.】** 우(右)에 장단(長湍), **【부사가 겸하며 현종 6년에 처음 두었다.】** 후(後)에 죽산(竹山) **【부사가 겸하며 인조조에 여주에서 옮겼다.】** 이다.

이공익(李肯翊),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별집 제8권 관직전고(官職典故), 진영장(鎭營將)이 토포사(討捕使)를 겸하다>

정치/군사

경기수군절도사가 남양의 화량진에서 인조대에 교동으로 옮겼다는 내용.

경기 수군절도사는 처음 남양(南陽) 화량진(花梁津)에 영을 개설하였는데, 인조 기사년에 교동(喬桐)으로 옮겨 설치하였다.

인조 계유년에 경기 수사(京畿水使)로서 3도 통어사를 겸하게 하여 경기·충청·황해 3도의 수군을 관장하게 하였다.

유성룡이 정유년에 차자를 올리기를, “**경기수영이 남양의 화량(花梁)에 있기 때문에 서울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고, 소속된 수군도 멀리 여주(驪州)·이천(利川)·지평(砥平) 사이에 있어, 사변을 듣고 지휘하여 모으기란 사세가 쉽지 않습니다.** 마땅히 수사로 하여금 강화(江華)·덕포(德浦) 등지에 진주(進駐)하게 하여 서울과 조금 가깝게 해서, 헤아려서 내보내는데 편리하게 해야 하며, 강화 교동의 수·육군도 잠정적으로 이 수군에 합속(合屬)하게 하면 이는 곧 그곳에 사는 군사들로 하여금 실로 오고가는 수고가 없어 한번 소집하는 말을

들을 때, 아침에 출발하면 저녁에 이를 것입니다. 그 여주나 이천·지평(砥平)의 먼 곳 산간 고을의 백성들은 임시 파사성(婆娑城)에 속하게 하여, 상류(上流)를 막으면, 민정(民情)도 양쪽 일이 서로 편할 것이며, 일 또한 함께 이루어 질 것입니다.” 하였다.

이공익(李肯翊),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별집 제8권 관직전고(官職典故), 통어사(統禦使)>

정치/군사

총융청의 전영장은 남양이 담당하였다는 내용.

영종 갑신년에 비로소 군영 5부의 제도를 갖추었다.

장초(壯抄) 【13초(哨)】, 아병 【13초. 각 읍·둔(屯)에 있었다.】, 별파진(別破陣) 【1백명】, 표하군 【8백 52명】, 군수보(軍需保) 【6천 10명, 각 둔에 있는데 평민과 사천(私賤)이 아울러 있다.】 가 있다.

전영장(前營將)은 남양(南陽) 【안산(安山)·금천(衿川)·과천(果川)·양천(陽川)이 속했다.】, 좌영장은 수원 【독성(禿城)이 속했다.】, 중영장은 북한산성, 우영장은 파주 【고양(高陽)·교하(交河)·적성(積城)·임진(臨津)·장산(長山)이 속했다.】, 후영장은 장단 【삭녕(朔寧)·마전(麻田)·연천(漣川)이 속했다.】 에 있다.

이공익(李肯翊),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별집 제8권 관직전고(官職典故), 총융청(摠戎廳)>

정치/군사

병자호란 때 조익이 남양에서 의병을 일으켜 강화도로 들어갔다는 내용.

강화도[江都]가 함락되다 【《난리잡기(亂離雜記)》 《강도록(江都錄)》 《병자록(丙子錄)》을 합쳐 기록하다.】 ○ 예조 판서 조익(趙翼)은 별로 명을 받든 것이 없어서 뒤에 떨어져 있다가 남양(南陽)에서 처음 의병을 일으켜 강화도로 들어갔다.

이공익(李肯翊),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제26권 인조조 고사본말(仁祖朝故事本末)>

정치/군사

남양부사 윤계과 할머니가 적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내용.

○ 정축년(1637) 1월 1일에 광주 목사 허휘(許徽)가 쌀떡 한 그릇을 바치니, 백관에게 나누어 보냈다. (….) ○ 오랑캐에게 붙잡혔다가 도망쳐 돌아온 사람들이 전하기를, “남양수(南陽守) 윤계(尹槩)가 그의 할머니와 함께 모두 적의 칼날을 면치 못하였다.” 하였는데, 이는 대개 윤계가 일찍이 귀화한 오랑캐를 단속한 일이 있었는데 귀화한 무리들이 적병을 청하여 해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 아우 윤집(尹集)은 전한 사람이 잘못 전한 것이라고 핑계대고 화려한 옷을 입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희롱하니,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하고 비웃었다. 【《잡기》】

이공익(李肯翊),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제25권 인조조 고사본말(仁祖朝故事本末)>

정치/군사

1693년(선조 26) 유성룡이 경기도 남양 등을 후보가 된다는 주장.

선조(宣祖) 26년에 유성룡(柳成龍)이 아뢰기를, “한강(漢江) 이남으로는 이천(利川), 여주(驪州), 광주(廣州)가 경도(京都)의 좌보가 되고, 수원, 남양(南陽), 부평, 인천(仁川)이 우

보가 됩니다. 병졸을 모아 훈련시키고 군량을 쌓아 둔 뒤 험준한 지형을 골라 지킨다면 경성(京城)의 형세가 점차 막히고 가려져서 위급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믿을 바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유원(李裕元), <임하필기(林下筆記), 제20권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사보(四輔)>

정치/군사

총융청을 설치하여 남양, 수원, 장단의 군무를 총괄하게 하였다는 내용.

총융청을 설치하여 남양(南陽), 수원(水原), 장단(長湍) 세 진(鎭)의 군무(軍務)를 절제(節制)하도록 하였는데, 이서(李曙)로 하여금 이 일을 주관하도록 하였다. 본청을 설치한 초기에는 도체찰사(都體察使)에 예속시켰으나 체부(體府)가 혁파되고 나자 총융사(摠戎使)라는 이름만 남게 되었다.(…)

이유원(李裕元), <임하필기(林下筆記), 제19권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총융청(摠戎廳)을 설치하다>

정치/군사

총융청에서 장단과 남양의 별효사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 종목 및 관련 규례를 정리한 내용.

3명의 별효사(別驍士)는 해마다 각기 소속된 영에서 철전(鐵箭)·기추(騎蒟)·편곤(鞭棍)으로 초시를 실시하여 합격되면 본청에서 유엽전과 편전으로 합동 고시하여 2명을 뽑아 바로 전시(殿試)에 참가케 한다. 【영종 40년 갑신(1764년)에 파주의 별효사로 해마다 도시(都試)에서 수위를 차지한 자가 바로 전시(殿試)에 참가하였었는데, 정종 18년 갑인(1794년)에 장단과 남양의 별효사를 설치한 뒤에 규례를 개정하였다.】 장관의 궁술고시는 매월에 2차 실시하는데, 흑한과 흑서에는 1차만 실시한다. 【규정은 유엽전 10순, 편전 3순, 강서·진법·과녁·소포(小布)를 서로 끼워서 번갈아 고시한다[輪試].⁴⁷⁴⁾】 북한의 장관은 일률적으로 실시하고 별단으로 기입 상주한다. 【정종 14년 경술에 왕이 특명하였다.】

試取○三營別驍士. 每年自各其營以鐵箭, 騎蒟, 鞭棍初試. 入格. 本廳以柳葉箭, 片箭合試. 取二人直赴殿試. 【英宗甲申. 坡州別驍士. 每年都試. 居首人直赴殿試. 正宗甲寅. 長湍, 南陽別驍士設置後. 改定式.】 將官射會. 每朔二次. 隆冬, 盛暑只一次. 【規矩. 柳葉箭十巡. 片箭三巡. 講, 陣, 貫革, 小布相間輪試.】 北漢將官一體爲之. 別單書入. 【庚戌. 特教.】

<만기요람(萬機要覽), 軍政編三 摠戎廳 試取>

정치/군사

총융청에 속하는 남양 등 5개 영의 소속 변천과정을 정리한 내용.

영을 처음 설치할 때에는 수원·광주·양주·장단·남양으로 5개 영을 만들었는데, 인조 13년 을해(1635년)에 광주를 남한에 이속시키고 죽산으로 대신 정하였으며, 효종 7년 병신(1656년)에 수어청의 계청에 의하여 양주를 남한에 이속시키고, 통진으로 대신 정하였으며, 숙종 13년 정묘(1687년)에 수어청(守禦廳)⁴⁷⁵⁾의 계청에 의하여 남양을 남한에 이속시키고, 수원·장단·양주에만 설치하였다가, 15년 기사에 양주를 또 남한에 붙이고, 파주로 대신 정하였으며, 영종 40년 갑신(1764년)에 왕의 특명에 의하여 장단의 방영(防營)을 파주에 옮겨 설치하였다[移設].⁴⁷⁶⁾

474) 번갈아 고시한다[輪試] : ‘번갈아 고시한다[輪試]’의 ‘試’가 어느 본에는 ‘式’으로 되어 있음.

475) 수어청(守禦廳) : ‘수어청(守禦廳)’의 ‘廳’이 어느 본에는 ‘使’로 되어 있음.

屬邑沿革○設營初.以水原, 廣州, 楊州, 長湍, 南陽爲五營.仁祖己亥.廣州移付南漢.以竹山代定.孝廟丙申.因守禦廳啓請.楊州移付南漢.以通津代定.肅廟丁卯.因守禦廳啓請.南陽移付南漢.只設水原, 長湍, 楊州.己巳.楊州又屬南漢.以坡州代定.英廟甲申.因特教.長湍防營移設坡州.
<만기요람(萬機要覽), 軍政編三 揔戎廳 屬邑沿革>

정치/군사

총융청을 폐지하고 관성위를 설치하되 남양의 군마는 화성에 소속시켜야 한다는 내용.

관성위(管城衛) : 총어사(摠禦使) 2품관 1인, 부사(副使) 3품관 1인, 파총 서상사 3인, 초관 하사 5인, 기패관 3인, 교련관 3인, 수첩군관(守堞軍官) 28인, 아병(牙兵) 555인.

서리 6인, 조례 6인.

관성위는 경리청(經理廳)인데 숙종(肅宗) 신묘년(숙종 37년, 1711)에 창설되었고, 정종조(正宗朝)에 혁파하여 총융청에 귀속시켰다.

생각건대, 수어청을 이미 폐지해서 남한(南漢)에다 귀속시켰으니, 총융청도 폐지해서 북한에다 귀속시키는 것이 마땅하겠다. 그렇다면 관성위는 별도로 한 관아를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원편을 보니 총융청에 장관이 24명, 군관이 332명, 장초(壯哨)가 10초, 아병이 10초, 둔장병(屯將兵)이 3초, 둔아병(屯牙兵)이 3초 표하군(標下軍)이 386명이었고, 또 남양을 전영(前營)으로, 파주를 중영(中營)으로, 장단을 후영(後營)으로 하며, 또 임진과 장산은 본청에 예속시켜서, 각각 마병(馬兵)·속오(束伍)·치중(輜重)·표하군(標下軍) 따위 여러 명목이 있는데, 내 생각에는 총융청을 속히 폐지하고 그 사졸은 좌우 양영에 분속시켜 수리[修濶]를 돕도록 하고 혹 나머지가 있으면 관성위에다 붙이는 것이 일하기에 편리할 것이다. 그리고 남양 군마(軍馬)는 화성에 붙이고, 파주와 임진 군마 중 파주는 방어하는 책무가 있으니, 한 진(鎭)으로 만드는 것이 마땅하며, 장단 군마는 송경에다 붙이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된다.

생각건대, 한 가지 기예와 잡기로 벼슬한 자라도 그 품계가 혹 정2품이나 종1품에 이르면 의정대신(議政大臣)과 더불어 승록대부(崇祿大夫)라 일컬으나, 예모(禮貌)를 차려서 상대하게 되면, 한림(翰林) 같은 신진(新進)이 앉아서 읍(揖)할 뿐이니, 명실상부하지 않는 것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다. 나의 생각에는 한 가지 기예 잡기로 벼슬한 자의 자손 중에 덕행과 문예가 있어 정사(正士)가 되었으면, 대부(大夫)로 승진시켜서 승품(崇品)에도 구애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여긴다.

그리고 한 가지 기예와 잡기로써 벼슬한 자는 그 품계가 비록 높더라도 장군되는 것은 허락하되 대부되는 것은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그 종2품인 자는 분무 장군(奮武將軍)이라 하고, 정2품인 자는 선덕 장군(宣德將軍)이라 하여, 3위의 군직을 제수할 것이며, 혹 공로가 현저한 자는 특별히 관성위 총어부사(管城衛摠禦副使)를 제수하여 대사에 이르게 하며, 또 남한 산성에는 중군(中軍) 자리를 수어 부사(守禦副使)로 만들어서 이런 사람을 대우할 것이며, 혹 특지(特旨)로 목사나 태수가 된 자도 모두 장군이라 일컫고 대부라고는 일컫지 말아서 명실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하면 높은 이를 높이고, 어진이를 어질게 대우함에 거의 양득이 될 수 있을 것이다(강화중군도 또한 鎭撫副使로 고쳐서 이런 사람이 있도록 함이 마땅하겠다).

摠禦使二品官一人.副使三品官一人.把摠庶上士三人.哨官下士五人.旗牌官三人.教鍊官三人.守

476) 옮겨 설치하였다[移設] : ‘옮겨 설치하였다[移設]’의 ‘設’이 어느 본에는 ‘屬’으로 되어 있음.

堞軍官二十八人，牙兵五百五十五人，○書吏六人，皂隸六人。

管城衛者，經理廳也。肅宗辛卯創設，正宗朝革，屬摠戎廳。○臣謹案，守禦廳既罷，而歸之於南漢，則摠戎廳，亦當罷而歸之於北漢，然則管城衛，當別爲一官矣。今按原編，摠戎廳將官二十四人，軍官三百三十二人，壯抄十哨，牙兵十哨，屯壯兵三哨，屯牙兵三哨，標下軍三百八十六人，又以南陽爲前營，坡州爲中營，長湍爲後營，又以臨津長山，屬之於本廳，各有馬兵，束伍，輜重，標下軍諸名，臣以爲亟罷摠戎廳，以其士卒，播于左右兩營，以資其修潤，或有零餘，屬之於管城衛，於事爲便也。其南陽軍馬，宜屬之於華城，其坡州臨津軍馬，坡州有防禦之責，宜自爲一鎮，其長湍軍馬，宜屬之於松京，臣謹案，一藝雜岐仕者，其階或至於正二品，或至於從一品，與議政大臣，同稱崇祿大夫，及其禮貌之相接也，翰林新進，坐而揖之，名實之不相副，莫此若也，臣謂一藝雜岐仕者，其子若孫，有德行文藝，入爲正士，則升之爲大夫，爲碍於崇品，其一藝雜岐仕者，其階雖高，許其爲將軍，不許其爲大夫，從二品則曰奮武將軍，正二品則曰宣德將軍，以授三衛之軍職，其或勞勩特著者，特授管城衛摠禦副使，以至於大使，又於南漢，以其中軍之窠，改爲守禦副使，以待此人，而牧使太守，亦或有特旨除授者，皆稱將軍，勿稱大夫，使名實無舛，則尊尊賢賢，庶乎其兩得之矣，江華中軍，亦宜改之曰鎮撫副使，以爲此等人所宅。

정약용(丁若鏞), <경세유표(經世遺表) 夏官兵曹, 管城衛 【卽經理廳】>

(4) 인물

정치/인물

김정국이 남양(南陽)의 망동(芒洞)에 살 때 문하에 배우는 자가 많았다는 내용.

김정국은 을사생이고 자(字)는 국필(國弼)이다. 정묘년에 생원이 되었고 기사년 문과에 장원하였다. 황해 감사가 되어 지방에 있다가 사화를 듣고 소(疏)를 초(草)해 올리고자 하였다. 조금 뒤에 사건이 급하게 되어 소를 올려 보아도 유익함이 없다는 것을 듣고 한갓 화(禍)를 격하게 할까 염려하여 중지하였는데, 대간이 이 일을 알게 되어 곧 탄핵을 받아 파직되어서 시골에 돌아왔다. 【본적(本籍) 중, 성명 위에 불초(不肖)라는 글자가 있었다.】

보유 : 남양(南陽)의 망동(芒洞)에 살았는데, 배우는 자가 문하에 모여들었다. 다시 등용된 뒤에 여러 벼슬을 거쳐 예조 참판에 이른 다음 죽었다. 호(號)는 사재(思齋)이다. 저술은 《척언(摭言)》·《기묘당적(己卯黨籍)》·《역대제왕전수도(歷代帝王傳授圖)》가 세상에 행(行)한다. (…)

金正國乙巳生.字國弼.丁卯生員.己巳及第壯元.忝爲黃海監司.方在外間變.草疏欲上.而旋聞事急無益.意其徒爲激禍中止.此事風聞於臺諫.卽被彈駁.罷歸田里.【本籍中姓名上有不肖字】

補.寓居南陽之芒洞.學徒坌集門下.復敘後.累官至禮曹參判而卒.號思齋.所著摭言己卯黨籍.歷代帝王傳授圖.行于世.(…)

안로(安瑠), <기묘록보유(己卯錄補遺), 기묘록 보유 상권(己卯錄補遺 卷上), 김정국(金正國)傳>

정치/인물

1338년(충숙왕 7) 윤8월에 충숙왕이 홍빈(洪彬)에게 남양을 본관으로 주었다는 내용.

(…) 윤8월 조적(曹頤)을 좌정승으로, 홍빈(洪彬)을 찬성사로 삼았다.

빈은 연인(燕人)으로 원의 숙위(宿衛)가 되었는데, 왕이 원에 머물 적에 참소를 받자 빈은 힘을 다해 그 억울함을 송사(訟事)하여 흑백을 가렸다. 왕이 환국할 때 빈도 따라왔는데, 왕이 그가 머물도록 상주(上奏)하고 그에게 남양(南陽)을 본관(本貫)으로 주었다.(…)

안정복(安鼎福), <동사강목(東史綱目), 제13하>

정치/인물

1625년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올 때 강홍중이 양재참에서 남양부사와 남양 향소의 사람들이 와서 만났다는 내용.

3월 23일(신미) 맑음. 평명에 발행하여 양재참(良才站)에서 점심 먹었는데 남양(南陽) 부사(府使) 한희일(韓會一)과 과천(果川) 현감(縣監) 이정(李靖)이 지대차 나옴, 남양 향소(南陽鄉所)이문협(李文莢)이 술을 가지고 찾아왔으며, 남양 하인 등이 모두 와서 배알(拜謁)하였다. (…)

晴.平明發行.中火良才站.南陽府使韓會一.果川縣監李靖以支持來.南陽鄉所李文莢持酒來見.南陽下人等皆來謁.(…)

강홍중(姜弘重), <동사록(東槎錄) 3월, 二十三日辛未>

정치/인물

1624년 통신사로 일본에 갈 때의 일기로 남양부사로 있을 때의 꿈에서 본 강산과 일본의 강산과 같다는 내용.

11월 18일(무진) (….) 정포에서 북견까지 육로로 15리, 북견에서 왜경(倭京)까지 30리, 대판에서 평방까지 강로(江路)로 50리, 평방에서 정포까지 강로로 50리다. ○내가 남양(南陽) 원으로 있을 때 꿈에 한 강산(江山)을 유람한 일이 있었는데, 오늘 역람(歷覽)한 것이 완연히 꿈속에서 본 것과 같다. 남양 원에서 체직(遞職)되어 이 사행(使行)으로 오게 된 것이 정해진 명수(命數)임을 비로소 알았다.

(…) 自浞浦至伏見.陸路十五里.自伏見至倭京三十里.自大坂至平方.江路五十里.自平方至浞浦.江路五十里.○余守南陽時.夢遊一江山.今日歷覽.宛然如夢裡所見.始識遞南陽.而有此行.固是前定也.

강홍중(姜弘重), <동사록(東槎錄), 11월, 十八日戊辰>

정치/인물

정도전이 성균관 재주에서 남양부사로 나갔다는 내용.

【인물】 (….) 본조 정도전(鄭道傳) 【자(字)는 종지(宗之)이다. 공민왕(恭愍王) 때 과거에 급제하여 충주사록(忠州司錄)에 뽑혔고, 문학(文學)으로 이름이 났다. 성균 사예(成均司藝)로 옮겼다. 신우(辛隅 폐왕(廢王) 우(隅)) 초에 언사(言事)로 인하여 회진현(會津縣)에 유배되었다가 곧 용서되어 편히 살았다. 삼각산(三角山) 아래 오두막집을 지었는데, 글공부하는 사람이 많이 따랐다. 후생들에게 이단(異端)을 없애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생각하라고 늘 훈계했다. 성균 재주(成均祭酒)에 승진되었다가 군(郡)으로 나갈 것을 빌어 남양부(南陽府)의 원이 되었다. 태조(太祖)를 따라 공양(恭讓)을 세웠으므로 좌명공신(佐命功臣)이 하사되었다. 곧이어 정당문학 동판도평의사사(政堂文學同判都評議使司事)를 배수하였다. 병(病) 때문에 물려줄 것을 빌었으나 윤휴되지 않았다. 공양왕(恭讓王) 때 대간(臺諫)을 비훼(非毀)한 것으로 인해서 봉화현(奉化縣)에 방귀(放歸)되었다. 뒤에 소환되어 충의군(忠義君)에 다시 봉(封)해지고 여러 관직을 지냈다. 본조에서 봉화백(奉化伯)에 봉하였는데 뒤에 죄를 지어 주살되고 훈봉(勳封)이 삭탈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25권 경상도(慶尙道), 봉화현(奉化縣)>

정치/인물

병자호란 때 윤계가 남양을 지키다가 죽었다는 내용.

《대동지지(大東地志)》 【사원】 (….) 윤계(尹槩) 【자는 신백(信伯)이요, 본관은 남원(南原)이다. 정축년에 남양(南陽)을 지켜 도적에 항거하다가 죽었다.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충간(忠簡)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12권 경기(京畿), 강화도호부(江華都護府)>

정치/인물

천문관 윤사옹을 남양에 제수하였다는 내용.

○ 임금이 이르기를, “천문관의 수고로움을 오늘 목격하게 되었다. 천문관에게 벼슬을 설치하여 직책을 맡겼던 본래의 의도가 진실로 가벼운 것이 아니로다.” 하였다. 윤사옹을 가자하여 남양(南陽)을 제수하며, 이무림에게 광주(廣州)를, 최천구에게 부평(富平)을, 정영국에게 인천(仁川)을 제수하였다. 모두 서울 부근에 임명하는 것은 혹 천재지변이 뜻밖에 일어나면 자주 불러야 했기 때문이었다. 박유신이 때마침 당번을 꺾(闕)하였으므로 곧 명하여 옥에 가두고, 여러 번 형벌을 주어 거제도로 귀양보냈는데 마침내 풀려 돌아오지 못하였다.

이공익(李肯翊),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별집 제15권 천문전고(天文典故), 첨성(瞻星)>

정치/인물

박소(朴紹)가 파직되어 남양에 있다가 함천으로 내려갔다는 내용.

○ 박소가 파직당하여 남양(南陽)에 있는데 흉당들이 그가 가까운데 있는 것을 꺼리므로 드디어 가족을 데리고 함천(陝川)으로 돌아가니 이곳은 서울에서 9일 정도 길이였다. 일찍이 김광준(金光準)과 남다른 교분이 있어 광준의 집 중 하나가 하루에 3백리를 걸을 수 있어서 조정의 의논중에 혹시 박소에 관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이 종을 보내서 통지하여 보통 3일이면 도달하게 하니, 사람들이 이르기를, “두 사람의 기미(氣味)가 얼음과 숯불 같이 다른데 교분이 이와 같으니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였다. 《기재잡기》

이공익(李肯翊),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제9권 중종조 고사본말(中宗朝故事本末), 삼흉(三凶)이 일을 꾸미다가 정유년에 패사하다>

정치/인물

고와남양이라는 시로 선비를 시험한 뒤에 박거경이 남양부사로 제수되었다는 내용.

(…) 박거경(朴巨卿)이 홍문관 전직(典籍)으로서 어사(御史)를 겸하고 호남 과장(科場)에 가서 감독할 때, 고와남양(高臥南陽) 시(詩)로 선비를 시험하고 수원부(水原府)에 돌아왔는데, 부사가 나와 맞이하지 않으므로 박거경이 동헌(東軒)에 나아가 크게 노하여 아전을 불러 죄를 주려 하다가, 바깥 문 사이에서 따르는 자들이 서로 대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의심스러워 물어보니, 바로 서울에서 온 정비초(政批草 관직 발령장)로 박거경을 남양 부사(南陽府使)에 제수한 것이었다. 박거경이 얼굴빛이 달라지며 누워버리니 당시 사람들이 시(詩)를 지은 것이 예언이 되어버린 소치라 하였다. (…)

(…) 朴巨卿以弘文典籍.兼帶御史.往檢湖南場屋出.高臥南陽詩試士.回至水原府.吏不出迎.巨卿就東軒大怒.呼吏將罪之.俄聞外闕間.伴從相對.欲訝問之.則乃京來政批草也.而拜南陽府使矣.巨卿失色而臥.時人以爲詩讖所致.(…)

성현(成俔), <용재총화(慵齋叢話), 제6권>

정치/인물

누르하치의 장자 귀영개가 조선에 망명하여 딸을 박륵에게 첩으로 주었고, 박륵이 남양부사 윤계를 죽이고 청나라에 항복하였다는 내용.

(…) 누르하치가 죽자 장자 귀영개가 즉위하여야 했으나 귀영개는 홍태시의 호방함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자리를 양보하였고, 홍태시는 사양하지 않고 즉위하였다. 귀영개는 왕위를 잃고 나서 뜻을 얻지 못하여 우울해하다가 마침내 처자를 데리고 우리나라로 망명해왔다. 우리나라에서 다만 항복한 포로로 그를 대하니 굶주리고 곤궁하여 의지할 데가 없었으며, 자식의 혼인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여 사랑하는 딸을 무인(武人) 박륵(朴劼)에게 첩으로 주어서 아들 둘을 낳았다. 병자호란 때 남양 부사(南陽府使) 윤계(尹槩)를 죽이고 청나라에 항복하였는데, 홍태시가 예전처럼 대우해 주고 박륵의 두 아들까지 함께 심양으로 데려갔다. (…)

(…) 哈赤死, 貴永介當立, 憚洪太時之雄桀, 故讓之嗣, 洪太時不辭而立. 貴永介既失位, 鬱鬱不得志, 乃挈妻子來奔, 我顧以降虜待之, 飢窘無賴, 婚姻不通, 以其愛女, 妾武人朴劼, 生二子. 丙子之亂, 殺南陽府使尹槩, 以降清, 洪太時待之如舊, 並劼之二子入藩.(…)

성대중(成大中), <청성잡기(靑城雜記), 제3권 성언(醒言), 굴러 들어온 복을 차다>

정치/인물

남양홍씨의 원류에 대해 고증한 내용.

○ 홍씨(洪氏)의 선조는 중국 사람으로, 당나라에서 재자(才子) 8명을 파견하여 고려로 가서 가르치게 하였는데, 홍씨도 그 가운데 한 명이였다. 그의 자손들이 삼한(三韓)에서 대대로 귀하게 되어 그들이 사는 곳을 이름하여 당성(唐城)이라 하였다. 【《원사》○ 살피보건대, 당성은 지금의 남양부(南陽府)로, 남양 홍씨(南陽洪氏)는 모두 그의 후예이다.】

한치윤(韓致淵), <해동역사(海東譯史), 제31권 관씨지(官氏志) 2, 씨족(氏族)>

정치/인물

선조가 중국 사람인 홍복원이 살던 곳을 당성이라고 이름하였다는 내용.

홍복원(洪福源) 【아들 홍다구(洪茶邱)·홍군상(洪君祥), 홍다구의 아들 홍만(洪萬)】

○ 홍복원의 선조는 중국 사람이다. 당나라 때 재자(才子) 8인을 파견해 고려(高麗)⁴⁷⁷로 가서 가르치게 하였는데, 홍씨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였다. 자손들은 삼한(三韓)에서 대대로 귀하게 되었으며, 그들이 살던 곳을 당성(唐城) 【살피보건대, 지금의 남양부(南陽府)이다.】이라고 이름하였다. (…)

한치윤(韓致淵), <해동역사(海東譯史), 제68권 인물고(人物考) 2>

정치/인물

박거경이 남양부사가 된 일화를 소개한 내용.

○ 전한(典翰) 벼슬로 대관(臺官 사헌부의 관원)을 겸하였다. 호남(湖南)의 향시장(鄉試場)을 가서 살피게 되어, ‘고와남양(高臥南陽 고고하게 남양 땅에 누웠다)’이란 시제(詩題)를 내어 선비를 시험하였는데, 얼마 안 있어 서울에서 거경(巨卿)을 남양부사(南陽府使)로 제수한다는 정사의 소식이 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詩 고와남양(高臥南陽))이란 시제를 가리킴)의 영험이라고 했다. 【《용재총화》】

以典翰兼帶臺官.往檢湖南場屋.出高臥南陽詩試士.俄而批草自京來.以巨卿拜南陽府使.人以爲詩識. 【叢話】

권별(權輓), <해동잡록(海東雜錄), 해동잡록 1 본조(本朝),朴巨卿>

정치/인물

1763년 조엄이 통신사로 가는 길에 용인에 도착했을 때 남양부사 구병훈 등이 찾아왔다는 내용.

4일(무자) 맑음. 용인(龍仁)에 닿았다.

아우 정(埜), 아들 진관(鎭寬)·사위 한용정(韓用靜), 삼종질(三從侄) 진벽(鎭璧)이 뒤따라왔다.

낮에 판교(板橋)에서 쉬는데 광주 부윤 윤동승(尹東昇)·부평 부사 안상즙(安相楫)·김포 군수 민백인(閔百寅)이 보러 왔다. 응교 술해(述海)⁴⁷⁸가 시를 지어 가지고 나를 광주(廣州)로

477) 고려(高麗) : 여기서는 신라(新羅)를 가리킨다.

478) 술해(述海) : 술해(述海)는 홍술해(洪述海)인데, 성(姓)을 쓰지 않은 것은 탈자(脫字)인지 고의인지 모르겠다. 홍술해는 정조(正祖) 즉위 초에 홍역으로 복주(伏誅)되었지만, 조엄(趙曦)이 사신 갔을 당시

가는 길로 찾아왔다. 원희규(元熙揆)·유화지(柳和之)·강연(姜演)·김진악(金鎭岳)·홍달수(洪達洙)가 와서 작별하였다. 용인에 당도하니, 옛날 내 막하 통진 부사(通津府使) 김취행(金就行)이 지주(地主) 이구(李球)·남양 부사(南陽府使) 구병훈(具秉勳)과 같이 보러 왔다.

밤에 아우 조정(趙垓) 및 아들 사위와 이야기하다가 성문 열릴 때가 되었다. 인하여 칠언 절구 한 수를 지었다. 이날은 50리를 갔다.

晴.次龍仁.○舍弟垓子鎭寬女婿韓用靜三從侄鎭璧追到.午憩板橋.廣尹尹東昇.富平府使安相楫.金浦郡守閔百寅來見.應教述海袖詩.訪余於廣州歷路.元熙揆柳和之康演金鎭岳洪達洙來辭.到龍仁.通津府使金就行.舊幕也.與地主李球.南陽府使具秉勳來見.夜與寅弟及子婿.打話到開門.因成七絕一首.是日行五十里.

조엄(趙巖), <해사일기(海槎日記)>, 1 계미년(1763, 영조 39) 8월 初四日戊子>

에는 무고했는데, 혹 본책을 교정·간행할 때에 흠역이므로 성을 뺐는지 의심됨.

2. 경제(經濟)

(1) 재정

경제/재정

남양(南陽) 해협에 한 창을 설치해서 20만 석을 저장한다는 내용.

(…) 상평곡 300만 석을 여러 도에 분배해서 각각 창을 설치하도록 한다.

경기 50만 석, 호서 50만 석, 호남 50만 석, 영남 50만 석.

관동 10만 석, 해서 10만 석, 패서 40만 석, 관북 40만 석.

경기에는 서강(西江)에 한 창을 설치해서 30만 석을 저장하고 남양(南陽) 해협에 한 창을 설치해서 20만 석을 저장하는데, 배를 만들어 사방으로 나가서 곡식을 사다가 저장한다.(…)

常平之穀三百萬石.分播于諸路.使各設倉.

京畿五十萬石.湖西五十萬石.

湖南五十萬石.嶺南五十萬石.

關東十萬石.海西十萬石.

溟西四十萬石.關北四十萬石.

京畿則西江置一倉.貯三十萬石.南陽海口置一倉.貯二十萬石.裝船四出.販穀以貯之.(…)

정약용(丁若鏞), <경제유표(經世遺表), 제12권 지관 수제(地官修制), 常平倉條例>

경제/재정

남양(南陽)의 상평창에 저장할 곡식의 규모.

(…) 나의 생각에는, 그 감(減)한 곳에는 환성이 땅을 진동할 것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으나 증가한 곳에는 반드시 원망이 있을 것이다. 호서에는 증가한 것이 38만 석이나 많으니, 비록 여러 고을에 배정하더라도 큰 고을에는 반드시 1만 석을 넘을 것이고 작은 현(縣)이라도 5천은 넘을 것이니 법을 시행하는 처음에는 백성의 소동(騷動)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연해(沿海)의 홍주(洪州)·면천(沔川)·은진(恩津)·한산(韓山) 등 여러 고을에는 상평창을 더 설치해서 이 곡식을 저장해두고, 1호에 분배하는 4석도 율(率)대로 하지 말고 점점 고르게 될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하다. 광주에 증가한 1만 3천 석과 화성에 증가한 4만 7천 석도 모두 본성(本城) 경계 안의 해구(海口)에 상평창을 설치해서 이 수량을 저장해 둔다면 곡식 액수는 줄어들지 않고, 백성의 원망은 당장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여겨진다.

시험 삼아 경기 1도의 여러 고을 호충을 조사해서 저장할 곡식 액수를 정한다.

광주(廣州) 1만 5천 호(본래 1만 7천 호) 곡저(穀貯) 12만 석

화성(華城) 1만 5천 호(본래 1만 6천 호) 곡저 12만 석

양주(楊州) 1만 호(본래 1만 호) 곡저 8만 석

강화(江華) 5천 호(본래 7천 500호) 곡저 4만 석

여주(驪州) 5천 호(본래 6천 호) 곡저 4만 석

장단(長湍) 5천 호(본래 5천 500호) 곡저 4만 석

남양(南陽) 4천 500호(본래 5천 500호) 곡저 3만 5천 석

이천(利川) 4천 500호(본래 5천 호) 곡저 3만 5천 석(…)

(…) 臣以爲其減者.所至歡聲動地.固不必言.其增者.必有怨矣.湖西之增多至三十八萬.雖播攤諸邑大郡.必過萬石.小縣亦過五千.行法之初.民騷必興.宜於沿海諸邑.若洪州, 沔川, 恩津, 韓山

等處.加置常平倉.以貯此數.而一戶四石之分.不得如率.以俟其漸均可矣.廣州之增一萬三千.華城之增四萬七千.皆當於本城界內.直臨海口.置常平倉.以貯此數.則穀額無欠.而目下之民咨.可不興也.

試執京畿一路.查諸邑戶總.以定穀貯之額.

廣州一萬五千戶.本一萬七千戶.穀貯十二萬石.

華城一萬五千戶.本一萬六千戶.穀貯十二萬石.

楊州一萬戶.本一萬戶.穀貯八萬石.

江華五千戶.本七千五百戶.穀貯四萬石.

驪州五千戶.本六千戶.穀貯四萬石.

長湍五千戶.本五千五百戶.穀貯四萬石.

南陽四千五百戶.本五千五百戶.穀貯三萬五千石.

利川四千五百戶.本五千戶.穀貯三萬五千石.(…)

정약용(丁若鏞), <경세유표(經世遺表)>, 제12권 지관 수제(地官修制), 창름지저(倉廩之儲) 3>

경제/재정

경기도 해안의 어기는 군기를 수선하므로 면세해야 한다는 것으로 남양은 줄박서(南陽茁朴嶼)가 해당한다는 내용.

인천(仁川)에 작은 흥(簍) 3곳이 있는데, 해서(海西)의 토흥(土簍)과는 다르다. 이전부터 세를 거두었으므로 지금에도 간략한 쪽을 따라서 세를 정한다.

강화 연자진(江華燕子津)에 어기(漁磯) 7곳, 교동 서도(喬桐黍島)에 어기 1곳, **남양 줄박서(南陽茁朴嶼)에 어기 1곳이 있다.** 이런 지방은 모두 자력(自力)으로 어구(漁具)를 갖추고 백성을 뽑아 고기잡이를 하여 군기(軍器)를 수선하고 있으므로 면세한다. (…)

仁川.有小簍三處.異於海西之土簍.自前收稅.故今亦從略定稅.○江華燕子津.漁磯七處.喬桐黍島.漁磯一處.南陽茁朴嶼.漁磯一處.此等地方.皆自備漁具.募民漁採.以修軍器.故免稅.(…)

정약용(丁若鏞), <경세유표(經世遺表)>, 제14권 군역사목추의(均役事目追議) 제1, 어세(魚稅) 【本文已俚今槩括爲本】 京畿>

경제/재정

각 지역에 소속된 둔전과 남양의 둔전 규모를 정리한 내용.

(…) <둔총(屯總)> 각도에 있는 둔전·답(屯田畓)의 구총(舊摠)은 7,446결 93부 8속 【청(廳)을 설치할 때에 절수(折受)한 원결(元結) 4,496결 30부 7속, 전후(前後)에 적몰한 전·답 1,559결 6부 4속, 유래(流來)·축언(築堰)한 것과 혹은 이래(移來)한 토지 1,391결 56부 7속】 이었는데, 중간에 총(摠)을 감(減)하여 3,966결 57부 2속으로 만들고 【각도를 합한 2,589결 53부 9속을 유래(流來)로 진탈(陳頌)함. ○ 남양(南陽) 11결 56부 8속(束)은 경신년에 덕적진(德積鎭)으로 이속(移屬)하고, 대토(代土)는 없음. ○ 광주 25결 81부 8속은 을사년에 본부로 이속하고 대토(代土)는 없음. ○ 양주·여주 양읍(兩邑) 22결 36부는 병오년에 원릉(元陵) 위전(位田)으로 이속하고 대토 50결이 왔음. ○ 청파(靑坡) 19부 3속(束)은 병오년에 효창묘(孝昌墓) 어로(御路)로 감하(減下)하고 대토는 없음. ○ 화성(華城)·안산(安山) 양읍 53결 64부 8속은 계축년에 화성으로 이속하고 대토는 없음. ○ 공주·이천 등 15읍 1,245결 30부 7속은 무신년에 장용영(壯勇營)으로 이속하고 대토 263결 51부 8속이 있음. ○ 장흥 18결 13부 9속은 신묘년에 송전(松田)으로써 수영(水營)에 획부하고 대토는

없음】 시존(時存) 전(田)·답(畓)은 3,481결 36부 6속. 경기 567결 20부 4속이니, 풍덕屯(豐德屯) 2 【절수屯(折受屯) 1 적몰屯(籍沒屯) 1.】 고양屯(高陽屯) 6 【절수屯1. 적몰屯 5.】 양주屯(楊州屯) 10 【적몰屯 9, 환屯 1.】 장단屯(長湍屯) 1 【적몰屯.】 적성屯(積城屯) 3 【절수屯 1, 적몰屯 2.】 양성屯(陽城屯) 2 【절수屯 1, 적몰屯 1.】 이천屯(利川屯) 3 【절수屯 1, 적몰屯 2.】 용인屯(龍仁屯) 4 【이래屯(移來屯) 1, 적몰屯 3.】 양지屯(陽智屯) 1 【절수屯(折受屯)】 과주屯(坡州屯) 4 【절수屯 1, 적몰屯 3.】 남양屯(南陽屯) 3 【적몰屯2 환屯1】 죽산屯(竹山屯) 1 【적몰屯.】 (…)

(…) 各道所在屯田, 畓. 舊摠七千四百四十六結九十三負八束. 【設廳時折受元結四千四百九十六結三十負七束. 前後籍沒田, 畓一千五百五十九結六負四束. 流來, 築堰或移來土地一千三百九十一結五十六負七束.】 中間減摠爲三千九百六十六結五十七負二束. 【各道合二千五百八十九結五十三負九束. 流來陳頤. ○南陽十一結五十六負八束. 庚申. 移屬德積鎮. 代土無. ○廣州二十五結八十一負八束. 乙巳. 移屬本府. 代土無. ○楊州, 呂州兩邑二十二結三十六負. 丙午. 移屬元陵位田. 代土五十結來. ○靑坡十九負三束. 丙午. 以孝昌墓御路減下. 代土無. ○華城, 安山兩邑五十三結六十四負八束. 癸丑. 移屬華城. 代土無. ○公州, 伊川等十五邑一千二百四十五結三十負七束. 戊申. 移屬壯勇營. 代土二百六十三結五十一負八束來. ○長興十八結十三負九束. 辛卯. 以松田割付水營. 代土無.】 時存田, 畓三千四百八十結三十六負六束. 京畿五百六十七結二十負四束. 豐德屯二. 【折受屯一. 籍沒屯一.】 高陽屯六. 【折受屯一. 籍沒屯五.】 楊州屯十. 【籍沒屯九. 換屯一.】 長湍屯一. 【籍沒屯.】 積城屯三. 【折受屯一. 籍沒屯二.】 陽城屯二. 【折受屯一. 籍沒屯一.】 利川屯三. 【折受屯一. 籍沒屯二.】 龍仁屯四. 【移來屯一. 籍沒屯三.】 陽智屯一. 【折受屯.】 坡州屯四. 【折受屯一. 籍沒屯三.】 南陽屯三. 【籍沒屯二. 換屯一.】 竹山屯一. 【籍沒屯.】 (…)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 4 양향청(糧餉廳), 屯土>

경제/재정

각 지역의 선박 및 어장 중 면세 대상과 규모를 정리한 내용.

경기(京畿) : 훈국(訓局 : 훈련도감)의 배 25척, 금위영(禁衛營⁴⁷⁹) : 삼군문(三軍門)의 하나. 서울을 지키던 군영)의 배 7척, 어영청(御營廳 : 삼군문의 하나로 군영임)의 배 7척 【모두 사진(四津)에 속함.】 강화(江華)의 배 155척 【50척은 별고(別庫)의 임금에게 바치는 어물(魚物)을 수송하는 데 이바지하고 105척은 각 진(各鎭)에 속하여 변란(變亂)에 대비함.】 여주(驪州)의 배 5척 【좌수참(左水站)에 속함.】 강화(江華) 연자진 어장(燕子津漁場) 1곳, 교동(喬桐) 서도어장(黍島漁場) 1곳, 남양(南陽) 줄박서(茱朴嶼) 【화량(花梁)에 속함.】 어장 1곳. 【강화·교동·화량으로부터 물력(物力)을 자비(自備)하여 백성을 모집하여 가지고 어채(漁採)하여 군수(軍需)에 보충함.】 (…)

免稅式○京畿. 訓局艇二十五隻禁衛營艇七隻. 御營廳艇七隻. 【並屬四津.】 江華艇一百五十五隻. 【五十隻以供別庫御供魚物. 一百五隻屬於各鎭待變.】 驪州艇五隻. 【屬左水站.】 江華燕子津漁場一處. 喬桐黍島漁場一處. 南陽茱朴嶼 【屬花梁.】 漁場一處. 【自江華, 喬桐, 花梁自備物力募民漁採. 以補軍需.】 (…)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 3 해세(海稅), 免稅式>

경제/재정

경기도 남양 등의 해세(海稅)로서 선박 및 소금의 세금 수취의 규모를 정리한 내용.

479) 금위영(禁衛營) : ‘금위영(禁衛營)’의 ‘衛’가 어느 본에는 ‘御’로 되어. 있음.

경기선(京畿船) 【지방 토민이 소유한 배[地土船]·행상하는 배[行商船] 모두 계는 산하여 세금을 받고, 행상할 수 없는 것은 다만 지선토의 세금만 바치게 하므로 많고 적음이 한결 같지 않으며, 4진(四津)도 같다.】 (…)

○ 염분(鹽盆)의 대부(大釜) 12냥 혹은 8·9냥 【지금은 3냥.】 중부(中釜)는 4·5냥 【지금은 2냥 8전 혹은 2냥 5전.】 소부(小釜)는 1·2냥.

남양(南陽)의 염정(鹽井) 【부(釜)로써 등급을 삼지 않고 정(井 웅덩이)의 4등급으로써 세금을 정한다】 대정(大井 큰 웅덩이)은 4냥 【지금은 2냥.】 중정(中井)은 2냥 【지금은 1냥 5전.】 소정(小井)은 1냥, 소소정(小小井)은 6전. 광주(廣州)의 염정은 매정(每井)에 2냥. 【등급을 나누지 않았는데 지금은 없음.】 (…)

收稅式○京畿船. 【地土, 行商. 并計捧稅. 不能行商者只捧地土稅. 故多寡不一. 四津. 同.】

(…) ○鹽盆. 大釜十二兩或八, 九兩. 【今三兩.】 中釜四, 五兩. 【今二兩八錢或二兩五錢.】 小釜一, 二兩. 南陽鹽井. 【不以釜爲等. 以井之四等定稅.】 大井四兩. 【今二兩.】 中井二兩. 【今一兩五錢.】 小井一兩. 小小井六錢. 廣州鹽井. 每井二兩. 【不爲分等. 今無.】 (…)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 3 해세(海稅), 收稅式>

경제/재정

충용청에서 경기 남양 등지에서 수취하는 모미(耗米)의 수량과 사용처를 정리한 내용.

취모미(取耗米) 정종 18년 갑인에 충용사 정민시가 쌀 3,500석을 매입하여 경기 내의 16개 읍 【여주·양근·진위·**남양**·풍덕(豐德)·장단·양성(陽城)에 각 300석, 죽산(竹山)·안성(安城)·양지(陽智)에 각 200석, 음죽(陰竹)·이천(利川)·연천·마전에 각 150석, 가평(加平)·삭녕(朔寧)에 각 100석】 에 나누어 두고 모곡을 받아서 돈을 만들어 【모곡 매석에 돈 4냥씩 수납】 쌀을 매입하여 북한의 급료 지불에 보충하였다.

(…) 取耗米. 正宗甲寅. 摠戎使鄭民始買米三千五百石. 分置畿內十六邑. 【驪州, 楊根, 振威, 南陽, 豐德, 長湍, 陽城. 各三百石. 竹山, 安城, 陽智. 各二百石. 陰竹, 利川, 漣川, 麻田. 各一百五十石. 加平, 朔寧. 各一百石.】 取耗執錢. 【耗每石捧錢四兩.】 買米以補北漢支放. (…)

<만기요람(萬機要覽), 軍政編三 摠戎廳 軍儲>

(2) 상업

경제/상업

소금 값을 남양 주인 김응선에게 맡겨 두고 표를 받아왔다는 내용.

12일 흐림. 연식이 어제 저물게 성안으로 들어와서 파동 조가네에서 자고 이른 아침에 찾아왔다. 천유가 편지를 보냈는데, 당목을 사서 보내라고 부탁하였다. 그래서 연식과 함께 청나라 사람 공화순(公和順) 가게에 가서 삼자표(三字標) 25필을 값 1,988냥 7전 5푼을 주고 사고, 양사(洋紗) 10필에 181냥 5전, 양항라(洋亢羅) 2필에 125냥을 주고 사왔다. 연식에게 3냥이 갔다. 조창식(趙昌植)에게 맡겨둔 것 중 찾아 쓰고 남아 있는 돈이 11냥 2전 5푼이다. 김영문(金永文) 어음 500냥 속에서 300냥을 먼저 찾아 썼다. 신석주(申錫周)의 500냥 표를 소금을 사려고 치범에게 주었다. 정권 조 500냥 안에서 200냥을 석주에게 맡겨 두고 700냥 표로 고쳐서 써 주고, 사호(沙湖) 이상주(李喪主) 어음 300냥을 아울러 치범에게 부쳤다. 소금 25섬[石]을 값을 흥정하여 975냥에 사서 사호 남양(南陽) 주인 김응선(金應先) 집에 맡겨 두고 표를 받아 가지고 왔다. 소금을 사고 남은 돈 25냥은 치범에게 남아 있다. 기전(器廬) 3천 냥 계의 주정자(酒醒子)⁴⁸⁰⁾ 3냥 6전을 분하전(分下錢)⁴⁸¹⁾으로 미루어 썼다. 陰. 演植昨暮入闔 止宿於琶洞趙家 早朝來見 有天裕書見之 有唐木貿送之托 余與演植同往清人公和順家 三字標二十五疋買得 價爲一千九百八十八兩七錢五分 洋紗十疋價爲一百八十一兩五錢 洋亢羅二疋價爲一百二十五兩買來 演植三兩去 趙昌植許任置推用內留在文十一兩二錢五分 金永文許五百兩音內三百兩先推用 申石主許五百兩標 貿鹽次給治凡 五百兩正權條內二百兩任置於石主 而更以七百兩標書給 三百兩沙湖李喪人音並付給治凡 鹽二十五石 價折九百七十五兩買得 任置沙湖南陽主人金應先家逢冊標受來 貿鹽餘在錢二十五兩 治凡處留在 器廬三千兩楔酒醒子三兩六錢 分兒推用

지규식(池圭植), <하재일기(荷齋日記)>, 하재일기 1 신묘년(1891) 2월 十二日>

480) 주정자(酒醒子) : 자빱계(산통계의 하나)에서 갯돈을 탈 때에 술값으로 도중(都中)에 떼어놓는 돈.

481) 분하전(分下錢) : 관리들에게 연례(年例)에 따라 물품을 나누어 주는 것을 분하(分下) 또는 분아(分兒)라고 하며, 이에 드는 비용을 분하전(分下錢) 또는 분하돈이라고 함.

(3) 농수산업

경제/농수산업

남양(南陽) 소금은 가마(釜)로 계산하지 않고 오직 간수(澗水) 물구덩이의 크기로 구분한다는 내용.

(…) 남양(南陽) 소금은 가마(釜)로 계산하지 않고 오직 간수(澗水) 물 구덩이의 크고 작은 것으로써 4등분한다(구덩이[坎]가 본디는 우물[井]로 되어 있음). 큰 구덩이에는 세전(稅錢)이 4냥, 중간 구덩이에는 2냥, 작은 구덩이에는 1냥, 아주 작은 구덩이에는 5전으로 한다(玄坎이 본디는 小小井으로 되어 있음). 광주(廣州) 소금 구덩이는 등을 나누지 않고 한 구덩이에 모두 세전이 2냥이다. (…)

(…) 南陽之鹽.不以釜計.唯以澗坎之大小.分爲四等.坎本作井.大坎稅錢四兩.中坎二兩.小坎一兩.玄坎六錢.玄坎.本作小小井.廣州之鹽坎.無分等.每坎稅錢.皆二兩.(…)

정약용(丁若鏞), <경세유표(經世遺表), 제14권 균역사목추의(均役事目追議) 제1, 均役事目追議一 鹽稅 京畿>

경제/농수산업

경기도 인천에서 남양까지의 일대는 지질이 붉은 찰흙인데 보리가 잘되는 곳이라는 내용.

(…) 경기(京畿)는 토지(土地)가 메마르데도 인구(人口)가 밀집(密集)하였으며, 토지의 소출이 가장 낮음에도 서울로 수송(輸送)하기 때문에, 이곳 백성이 가장 가난하다. 서남은 감[柿]이 많이 나고, 동북은 배[梨]·밤[栗]·뽕나무[柴木]·숯[炭]이 많이 난다. 여주(驪州)·이천(利川) 사이는 벼가 다른 고장보다 먼저 익으므로 매우 많은 이(利)를 본다. 인천(仁川)·남양(南陽) 사이는 그 지질(地質)이 붉은 찰흙인데 기름지지는 않으나, 보리가 잘되므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

이익(李穡), <성호사설(星湖僊說), 제8권 인사문(人事門) 생재(生財)>

경제/농수산업

일본의 익지 않은 감이 남양의 물감보다 낫다는 내용.

(…) 과실(果實)은 귤·감귤·감·배·유자·노귤(盧橘)이 가장 좋고, 대추·밤·살구·능금·황자두[黃紫桃]는 어디서나 생산된다. 밤은 크기가 달걀만 하고, 감은 익지 않아도 맛이 아주 달고 연하여 우리나라 남양(南陽)의 물감[水柿]보다 낫다. (…)

(…) 果實則橘柑柿梨柚.盧橘最佳.棗栗杏林檎黃紫桃.無不產出.而栗大如鷄卵.柿有不熟而味極甘滑.勝於我國南陽水柿.(…)

김세렴(金世濂), <해사록(海槎錄), 문견잡록(聞見雜錄)>

(4) 광공업

경제/광공업

경모궁 악기 중 석경(石磬)을 만들 옥을 남양부(南陽府)에서 채취한다는 내용.

경모궁악기조성청에서 임금에게 아뢰었다. “경모궁 악기 중 석경(石磬)을 만들 옥을 남양부(南陽府)에서 채취해야하는데, 일이 지극히 번다하고 사안이 매우 중요하니 별도로 낭청을 파견하여 캐오도록 해야 할 것이나, 주전(廚傳)⁴⁸²의 폐단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도(本道)로 하여금 별도로 차사원(差使員)⁴⁸³을 정해 남양 부사와 함께 이달 보름 전까지 채굴하도록 하되, 추운 겨울이 닥치면 채취에 방해될 터이니 속히 거행하라는 뜻을 또한 신칙(申飭)하여 기한을 정해 채취해서 계속 서울로 올려 보내도록 하고, 옥장(玉匠) 1명에게 전례대로 말을 주어 내려 보낼 것을 병조와 경기 감영에 분부하심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전교하였다. “윤희한다.”

景慕宮樂器造成廳啓曰, “景慕宮樂器中石磬之玉, 採取於南陽府,而公役浩多事體且重, 所當別遣郎廳探來, 而但廚傳之弊不可不慮. 令本道別定差使員與南陽府使眼同,趣今月望前掘探, 而若值嚴冬, 則似妨採取, 斯速舉行之意, 亦爲申飭, 使之刻期掘出連續上送, 而玉匠一名, 依例給馬下送事, 分付兵曹畿營, 何如?”

傳曰, “允.”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景慕宮樂器造成廳儀軌), 계사질(啓辭秩), 丙申 九月初六日>

경제/광공업

1738년(영조 14) 남양(南陽)에서 경석(磬石)이 나오다.

○ 10월. 소대하여 구준(丘濬)의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를 강하였다. 하교하기를,

“예악(禮樂)은 한 몸에 근본하는 것으로, 종고(鐘鼓)와 옥백(玉帛)은 바로 그 의절(儀節)이다. 세종조에 해주(海州)에서 거서(柘黍)가 생산되고 남양(南陽)에서 경석(磬石)이 나와 마침내 명신(名臣)과 더불어 찬연하게 제작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에 일찍이 음악이 없던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성률(聲律)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 너무 빠른 음절(音節)은 조종(祖宗)의 옛 형태를 회복하는 데 어긋난다. 게다가 여민락(與民樂)과 같은 곡은 그 소리가 매우 느릿하여 옛날에는 대궐의 동쪽과 서쪽을 왕래하는 동안에도 1장(章)에 여전히 여운이 남아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예(禮)를 가지고 말하면, 아조(我朝)의 《오례의(五禮儀)》는 바로 중국의 《대명집례(大明集禮)》와 같은 것이지만 조정에 익히 아는 사람이 없다. 대례(大禮)가 있게 되면 통례원에 일임하여 그 관원이 자신의 억견으로 전도되게 하여 변란시키고 있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는가. 조정에 있는 선비들이 문호(門戶)를 나누고 갈라 서로 다투는 스승으로 섬기는 화기(和氣)가 없기 때문에 예악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

<국조보감(國朝寶鑑), 제61권 영조조 5>

경제/광공업

482) 주전(廚傳) : 지방에 나가는 관원에게 경유하는 역참에서 음식과 거마를 제공하는 것. 《역주 사직악기조성청의궤》, 48쪽.

483) 차사원(差使員) : 중요한 임무를 지워 파견하는 임시 관원.

1433년(세종 15) 1426년(세종 8) 봄에 경(磬)을 만들 수 있는 돌이 남양(南陽)에서 생산된다는 내용.

○ 조제(朝祭)에 처음으로 아악(雅樂)을 사용하였다. 처음에 고려 예종(睿宗) 때 송 나라 휘종(徽宗)이 제악(祭樂)의 종(鐘)·경(磬) 각각 1가(架)와 금(琴)·슬(瑟)·생(笙)·우(竽)·소(簫)·관(管) 등의 악기를 각각 2부씩 하사하였는데, 홍건적의 난리에 거의 다 없어지고 남은 악공이 종과 경 두 악기를 연못 속에 던져 놓은 것만 보존되었다.

태조 고향제와 태종 문황제도 다 악기를 하사하였으나 소리가 율격에 맞지 않았다. 제악(祭樂)은 팔음(八音)을 구비하지 못하여 제사를 지낼 때에는 경(磬)은 와경(瓦磬)을 쓰고 종(鐘)도 잡다하게 매달아 쓴데다 그 숫자도 구비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을사년 가을에 검은 기장이 해주(海州)에서 나오고 **병오년 봄에 경(磬)을 만들 수 있는 돌이 남양(南陽)에서 생산되니**, 상이 옛것을 바꾸어 새로 만들 뜻을 갖게 되었다. 이에 박연(朴堧)에게 명하여 편경(編磬)을 만들게 하니, 박연이 해주의 검은 기장을 가져다가 그 푼과 치수를 쌓아가지고 고설(古說)대로 황종(黃鐘) 1관(管)을 만들어 붙어보니 중국의 황종보다도 조금 높은 소리가 났다. 이에 전현(前賢)의 의논을 참고해 보니, “토질에는 비옥하고 척박한 차이가 있고 기장에는 크고 작은 차이가 있어서 소리의 높낮이가 시대마다 같지 않다.” 하고, 진양(陳暘)도 “대를 많이 잘라서 기운을 살피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역이 동쪽에 치우쳐 있어서 중국의 풍토와는 아주 다르기 때문에 기운을 살피는 것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웠다. 이에 해주의 검은 기장알 모양으로 밀랍을 녹여 조금 크게 만들어서 푼을 쌓아 관(管)을 만들었다. 한 알을 1푼으로 삼고 열 알을 쌓아 1치[寸]로 하는 법을 삼았다. 9치를 황종(黃鐘)의 길이로 삼은 다음, 3푼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여 12율(律)을 완성하였다. 한 달이 지나서 신경(新磬) 2가(架)를 제작하여 올리면서 아뢰기를,

“지금 만든 경(磬)은, 모양은 한결같이 중국 것과 같게 하였습니다만 소리의 경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경(磬)이 유빈(蕤賓)은 그 소리가 도리어 임종(林鐘)보다 높고, 이칙(夷則)은 남려(南呂)와 같으며, 응종(應鐘)은 무역(無射)보다 낮아서, 당연히 높아야 할 것은 도리어 낮고 당연히 낮아야 할 것은 도리어 높으니, 아마도 한 시대에 제작된 것이 아닌 듯합니다. 만약 이것대로 제작을 하게 되면 결코 음률에 맞을 이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가 중국의 황종(黃鐘)의 소리에 의거하여 황종의 관을 만든 다음, 그것을 기준으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여 12율관(律管)을 만들어 붙어서 율을 맞춘 다음 이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신경(新磬) 2가와 명 나라에서 하사한 경(磬) 1가, 소(簫)·관(管)·방향(方響) 등의 악기를 새로 제작한 율관과 협주해 보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의 경은 과연 음이 맞지 않고 지금 새로 만든 경이 제대로 되어서 소리가 맑고 아름답다. 율을 제정하고 음을 바로잡은 것이 뜻밖에 잘되어서 나는 매우 기쁘다. 단지 이칙만이 음이 맞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니, 박연이 즉시 살펴보고 아뢰기를,

“한계를 나타내는 먹줄이 아직 있는 것으로 보아 다 갈아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고, 즉시 갈아서 먹줄을 다 없애고 나니, 소리가 제대로 났다. 경(磬)이 완성되고 나자, 박연에게 명하여 악기 제작하는 일을 전적으로 담당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조제(朝祭)의 음악이 처음으로 완비되었다. (…)

<국조보감(國朝寶鑑), 제6권 세종조 2>

경제/광공업

1426년(세종 8) 남양에서 경석이 생산된다는 내용.

○ 세종조(世宗朝) 비로소 아악(雅樂)을 제정하였다.

을사년(1425, 세종7) 가을에 해주(海州)에서 검정 기장〔秬黍〕이 생산되고, **병오년(1426) 봄에 남양(南陽)에서 경석(磬石)이 생산되어**, 기장〔黍〕을 가져와서 율(律)을 정하고 돌을 가져와서 경(磬)을 만들었다. 대제학 박연(朴堧)이 음률(音律)에 정통하였는데, 상이 발탁 등용하여 관습도감 도제조(慣習都鑑都提調)로 삼고 음악에 관한 일을 전적으로 담당하게 하여 10여 년 만에 완성하였다. 15년 계축(1433) 조제(朝祭)에서 처음으로 아악을 사용하고 여악(女樂)을 폐지하였다. 【구 《춘관지》】(…)

<사직서의궤(社稷署儀軌), 제3권 고사 상(故事上) 전례(典禮)>

경제/광공업

남양에서 생산되는 돌로 특경을 만든다는 내용.

《악학궤범》 특경은 등가에서 음악을 그치게 하는 데 쓰인다. **경은 남양(南陽)의 돌을 캐다가 만든다.** 특경의 경우는 음이 황종에 맞고, 편경의 경우는 황종에서 청협종에 이르는 모두 16가지의 음이다. 길이와 폭은 모두 같은데, 두께로서 그 높낮이가 정해진다. 두꺼우면 소리가 높고, 얇으면 소리가 낮다. 모든 종과 경은, 너무 두꺼워서 소리가 높아 제 음률에 맞지 않는 것은 갈아서 얇게 하면 소리를 낮추어 제 음률에 맞게 할 수 있고, 너무 얇아서 소리가 낮아 제 음률에 맞지 않는 것은 아래 끝을 갈아 내면 소리를 높여 제 음률에 맞게 할 수 있다.(…)

<사직서의궤(社稷署儀軌), 권수 도설(圖說), 특경(特磬)>

경제/광공업

남양에서 경석이 난다는 내용.

세종 대왕은 음악 만드는 데 뜻이 있었다. 그 당시에 거서(秬黍)⁴⁸⁴는 해주(海州)에서 낫고 **경석(磬石)⁴⁸⁵은 남양(南陽)에서 낫는데**, 세종이 박연(朴堧)⁴⁸⁶에게 명하여 편경(編磬)⁴⁸⁷을 만들도록 하였다. 박연은 이 거서라는 기장을 가지고 적분(積分)해서 황종(黃鍾)이란 관(管)⁴⁸⁸을 만들었다.

그 소리가 중국 율관(律管)에 비해 조금 높게 된 것은 땅의 비옥하고 척박한 것이 다르고, 기장에도 크고 작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밀[蠟]을 녹여 붙여서 만들었다는 것이다. 중국 기장은 우리나라 해주 기장과 비교하면, 조금 크게 생겨서 한 개만 해도 1푼이 되고 열 개만 쌓으면 1촌이 된다. 이러므로 아홉 치로 황종 길이를 만들고 서 푼씩 덜기도 하고 보태기도 해서 12율(律)을 만들었다 하니, 이 말은 아주 웃을 만하다. (…)

이익(李穡), <성호사설(星湖僊說), 제5권 만물문(萬物門), 박연 악률(朴堧樂律)⁴⁸⁹>

484) 거서(秬黍) : 검은 기장.

485) 경석(磬石) : 경쇠 만드는 옥돌.

486) 박연(朴堧) : 고려 우왕 4년에 태어나 조선조 세조 4년에 죽은 음악가. 자는 탄부(坦夫), 호는 난계(蘭溪).

487) 편경(編磬) : 아악(雅樂)의 하나. 두 층으로 된 걸이가 있는데, 한 층에 여덟 개씩 매어 단 경쇠.

488) 관(管) : 피리.

489) 박연 악률(朴堧樂律) : 박연의 악률. 《類選》卷4下 人事篇 治道門. 《林下》卷20 文獻指掌編10 朴堧專掌樂事.

경제/광공업

해주에서 나는 검은 기장으로 치수를 정하여 남양에서 나는 경석으로 편경을 제조했다는 내용.

【토산】 거서(柜黍 검은 기장) 【세종 때에 거서를 해주에서, 경석(磬石)을 남양(南陽)에서 얻어서 박연(朴堧)을 명하여 편경(編磬)을 제조하게 하였다. 박연이 밀납을 녹여서 거서의 알 형태를 만들되 약간 크게 하여 분(分)을 모아 관(管)을 만드는데, 한 알로 한 분을 하며 열 알을 모아 촌(寸)을 하였다. 법에는 황종(黃鐘)⁴⁹⁰의 길이는 9 촌으로 하되, 3분을 덜하고 더하여서 12율(律)을 이루게 하여 새 경(磬) 두 틀을 지어 드렸다. 세종이 이르기를, “새 경이 바로 되어 소리가 맑고 아름답다. 그런데 이척(夷則) 소리 하나가 조화되지 않으니 어쩐 일인가.” 하니, 연이 곧 자세히 보고 말하기를, “먹금이 아직 남아 다 갈리지 않았습시다.” 하고, 곧 가니 먹금이 다 없어지고 소리가 제대로 조화되었다.】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43권 황해도(黃海道) 해주목(海州牧) >

경제/광공업

남양에서 경석이 산출된다는 내용.

을사년(1425)에 거서가 해주(海州)에서 났고 병오년(1426) 봄에는 경석(磬石)이 남양(南陽)에서 생산되자, 임금이 개연(慨然)히 묵은 것을 개혁하고 새것을 다시 만들 뜻이 있어, 곧 박연에게 명하여 편경(編磬)을 만들게 하였다. 박연이 해주의 거서를 취해서 분(分)과 치[寸]를 포개어 황종(黃鍾) 한 관(管)을 만들어서 붙여보니, 그 소리가 중국 황종의 음보다 조금 높았었다. 이로 인해 전현(前賢)의 의논을 상고해 보니, “땅에는 비옥한 땅과 척박한 땅이 있고 기장도 큰 것과 작은 것이 있어서 성음의 높고 낮은 것도 시대마다 각기 같지 않다.” 하였고, 진양(陳暘)도 역시 말하기를, “대나무를 많이 끊어서 후기(候氣)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하였다.(…)

○ 10년 무신에 비로소 조화와 제사에 아악(雅樂)을 썼다. 한 책에는 15년 계축에 비로소 썼다고 되어 있다. 병오년(1426) 가을로부터 이해 여름에 이르기까지 악기가 모두 완성되었다.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의 헌가(軒架)에 편경(編磬)을 등가(登歌)하였는데, 경쇠가 모두 이백 스물 여덟 개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창제(創制)라는 것은 예로부터 어려운 것이니, 임금이 하고자 하는 것을 혹 신하가 저지하기도 하고 신하가 하고자 하는 것을 혹 임금이 듣지 않기도 하여, 또 임금과 신하가 모두 하고자 하더라도 시운(時運)이 불리한 수도 있는데, 이제 내 뜻이 먼저 정해졌고 국가에도 일이 없으니 마땅히 마음을 다할 것이다.” 하고는 이내 명하여 조화에 쓸 경쇠는 남양(南陽)에서 만들게 하고, 조제(朝祭)에 쓸 종은 한강(漢江)에서 만들게 하되, 모두 박연으로 하여금 일을 감독하게 하고 대호군(大護軍) 남급(南汲)으로 하여금 일을 돕게 하였으며, 또 조종(祖宗)의 공덕을 서술하여 ‘정대업(定大業)’과 ‘여민락(與民樂)’ 등의 음악을 지었다.

이궁익(李肯翊),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제3권 세종조 고사본말(世宗祖故事本末), 찬술(纂述)과 제작(制作)>

경제/광공업

490) 황종(黃鐘) : 음악에 12율(律)의 첫째가 황종인데 율관(律管)을 제정할 때에 황종을 기본으로 한다.

남양에서 나는 옥들에 얽힌 일화를 소개한 내용.

이때 남양의 옥들을 캐어 경석(磬石)으로 쓰려 하였으나 결이 굵고 성글어 쓸 만하지 못하였다. 이에 누상(樓上)에 ‘계축(癸丑)’이라 새긴 것을 거두어서 두드려 보았으나 역시 오래되어 깎이고 상하여 소리가 나지 않았다. 오직 청황종(淸黃鍾), 청협종(淸夾鍾), 청대려(淸大呂), 응종(應鍾), 남려(南呂), 임종(林鍾)만이 율(律)에 맞았다. 임종은 돌이 조금 깨졌으나 소리는 더욱 맑고 높았으며 그 나머지 10매(枚)는 새로 만든 것을 썼다. 영조척(營造尺)에 준하여 종(鍾)을 주조하였는데, 예전의 종에 비하여 조금 길었다. 이에 상이 명하여 모두 버리고 예전 종에 준하여 주조하도록 하였다. 또 예전 《악학궤범(樂學軌範)》 중에는 화(和), 우(竽), 소(簫) 세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이에 이르러 비로소 소를 사 가지고 와서 사직(社稷)과 태학(太學), 여러 산천(山川)의 제사에 쓰게 하였다.

이유원(李裕元), <임하필기(林下筆記), 제20권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남양(南陽)의 옥돌>

경제/광공업

1426년(세종 8) 남양에서 경석이 산출되었다는 내용.

세종 7년 가을에는 거서(巨黍)가 해주(海州)에서 나고, 8년 봄에는 경석(磬石)이 남양(南陽)에서 생산되었다. 상이 경연(經筵)에 나아가 채씨(蔡氏 남송(南宋)의 채원정(蔡元定))의 《율려신서(律呂新書)》를 강하다가 그 법도가 매우 정묘하고 높고 낮음에 차서(次序)가 있음을 감탄하여 장차 율려를 만들고자 하였으나 황종(黃鍾)을 갑자기 얻기가 어려웠다. 이에 예문관 대제학 유사눌(柳思訥), 집현전 제학 정인지(鄭麟趾), 봉상시 판관 박연(朴堧), 경시주부(京市署主簿) 정양(鄭穰) 등에게 명하여 구악(舊樂)을 개정하게 하였다. 또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를 두고 영의정 황희(黃喜), 우의정 맹사성(孟思誠), 찬성 허조(許稠)를 총제(摠制)로, 정초(鄭招), 신상(申商), 권진(權軫) 등을 제조(提調)로 삼아 음악에 관한 일을 강구하여 의논하도록 하였다.

이유원(李裕元), <임하필기(林下筆記), 제20권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율려(律呂)의 제조>

경제/광공업

남양에서 옥을 켤 때 사용하는 철물 도구의 명칭.

용환질(用還秩)

(...)

박을정(朴乙釘) 25개

배지내(排地乃) 2개

비김쇠 [非音金] 50개

쥘정 [쥘釘] 30개

꽃이정 [串丁] 25개

한마치 [汗尓赤] 2개

강철(強鐵) 5근 **【이상 철물은 남양에서 옥을 켤 때 사용함】**

用還秩

(...)

朴乙釘 二十五介

排地乃 二介

非音金 五十介

𠄎釘 三十介

串丁 二十五介

汗𠄎赤 二介

强鐵 五斤 **【以上鐵物 南陽採玉所用】**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景慕宮樂器造成廳儀軌), 甘結秩>

3. 사회(社會)

(1) 신분

사회/신분

남효온이 홍유손의 행적을 기록한 것으로 그가 남양 아전의 아들이나 글을 잘하여 향역에서 면제되었다는 내용.

(…) ○ 홍유손(洪裕孫)은 자가 여경(餘慶)이요, 호는 조충(篠叢), 또 광진자(狂眞子)라고도 하였다. 남양(南陽) 아전 순치(順致)의 아들로 집안이 대대로 청빈하여 겨우 몸만 감싸고 혹 속옷도 입지 못하고 다녔다. 경전(經典)과 《사기(史記)》를 탐독하면서 기탄없는 행동을 하였으며, 과거에 응시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였으며 향리를 면할 계획도 하지 않았다. 신축년에 남양 부사 채신보(蔡申甫)가 여경이 글 잘하는 것을 이유로 그 향역(鄉役)을 면제해 주었더니, 그는 곧 걸어서 영남(嶺南)으로 가 점필재(佔畢齋)를 뵈고, 두시(杜詩)를 배웠다. 그때 점필재 선생은, “이 사람은 벌써 안자(顔子)의 즐거운 바를 본 사람이다.” 하였고, 학자들도 다 그를 존경하였다. (…)

(…) 洪裕孫字餘慶.號篠叢.又號狂眞子.南陽吏順致之子.家世清貧.僅裹身體.或不裙行.涉獵經史.放達不檢.不喜科舉.不爲免鄉計.辛丑年南陽守蔡申甫.以餘慶爲能文.放其役.卽步歸嶺南.謁佔畢齋受杜詩.先生曰此子已見顔子所樂處.學者皆宗之.(…)

남효온(南孝溫), <사우명행록(師友名行錄)>

사회/신분

남양의 향리 홍유손의 일화를 소개한 내용.

○ 상사(上舍) 홍유손(洪裕孫)은 남양(南陽)의 향리였다. 본읍에서 침해하여 역사시키는 것을 고통스럽게 여겨 생원에 합격한 뒤에 과거보려 하지 아니하고, 방외의 선비가 되어 방랑하면서 스스로를 높게 여겼다. 금강산 석벽에 다음과 같은 시를 썼다.

몸이 단군 무진년보다 앞에 생기고 / 身先檀帝戊辰歲

눈으로 기왕이 마한이라 이름함을 보았다 / 眼及箕王號馬韓

영랑과 수부에서 놀려고 하다가 / 要與永郎遊水府

우연히 술에 이끌려 인간에 머물렀네 / 偶牽春酒滯人間

당시 사람들은 신선이 지은 시라고 하다가, 뒤에 홍유손이 왕래하였다는 말을 듣고 비로소 홍유손의 지은 시임을 알았다.

(…) 洪上舍裕孫.南陽鄉吏也.苦本邑侵役.中生員後不赴舉.爲外方士.放浪自高.於金剛山石崖題詩曰.身先檀帝戊辰歲.眼及箕王號馬韓.要與永郎遊水府.偶牽春酒滯人間.時人以爲神仙所作.後聞洪往來.始認洪之所爲.(…)

이제신(李濟臣), <청강선생후청쇄어(淸江先生鯨鯖瑣語)>, 청강선생후청쇄어(淸江先生鯨鯖瑣語)>

(2) 향촌

사회/향촌

1584년(선조 17) 누이 산소에 곡전하기 위해 남양(南陽)에 다녀왔다는 내용.

27일 (경오). 맑음. 길을 떠나 저녁에 수원(水原) 분사(墳舍)에서 자다.

28일 (신미). 맑음. 아침 일찍 의식대로 선영(先塋)에 참배(參拜)하다. 늦게 남양(南陽)으로 떠나 죽은 누이의 산소에 곡전(哭奠)하다.

29일 (임신). 흐리고 비가 뿌리다가 오후에 갠데, 저녁에 또 비가 밤새도록 쏟아지다. 진시에 누이의 장사를 치르고 반우(返虞)한 뒤에 남양 관사로 도로 나오다. 조유보(趙裕甫)가 추쇄 경차관(推刷敬差官)으로 남양부에 와 있어서 사복(私服)으로 서로 만나 보다. (…)

○庚午晴.發行夕投水原憤舍.○辛未晴.早展先塋如儀.晚向南陽.亡姊山所哭奠.○壬申陰.洒雨晚晴.夕又雨淋浪終夕.辰時葬姊返虞後.還出南陽官舍.趙裕甫以推刷敬差在府.以便服相見.(…)

우성전(禹性傳), <계갑일록(癸甲日錄), 萬曆十二年甲申 八月>

사회/향촌

1623년(인조 1) 7월 남양에서 박지계가 상소하였다는 내용.

○ 7월 2일 영상이 재차 정사하니, 비답하기를,

“요즘 들으니, 병세가 차츰 나아간다 하므로 출사하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경의 정사(呈辭)가 또 이르니, 내가 적이 답답하다. 모름지기 국사의 많은 어려움을 생각하여 질병을 이유로 사퇴하지 말라. 선조(先朝) 때에 병들고 늙은 이도 정승의 자리에 있던 이가 있었는데, 하물며 한때 앓던 병이 차츰 나아가고 있음이라? 안심하고 조리하여 나의 지극한 소망에 부응하도록 타이르라.”

하였다. 호군 이덕온(李德溫)의 상소는 대개, ‘목릉(穆陵)을 파라고 청한 윤효전(尹孝全) 등의 죄를 다스리라.’는 것이었다. 경기 감사의 서목에,

남양(南陽)에서 올린 사업(司業) 박지계(朴知誠)의 상소를 올려보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사피하지 말고 조리하고 올라와서 나의 소망에 부응하라.”

하였다. (…)

○初二日領相再度呈辭.答曰.近聞病勢漸愈.日望出仕.而卿辭又到.予竊悶焉.須念國事之多虞.勿以疾病爲辭.先朝有病老而在相位者.況一時所患.漸至差愈乎.安心調理.以副予至望事.諭之.護軍李德溫上疏大概.請治尹孝全等請掘穆陵之罪事.京畿監司書目.南陽呈以司業朴知誠上書上送.答曰.勿爲辭避.調理上來.以副予望.(…)

박정현(朴鼎賢), <응천일록(凝川日錄)3, 癸亥 七月>

사회/향촌

남양 서면 홍법동의 홍감사 자손 집에 보관 중인 은대사강을 올려보낸다는 내용.

남양 도호부사(南陽都護府使)가 보냅니다. 첩보하는 일입니다.

이번에 도착한 관문으로 말미암아 본부의 서면(西面) 홍법동(洪法洞)의 고(故) 홍 감사(洪監司)의 자손 집에 보관하고 있는 《은대사강(銀臺史綱)》 2권을 관문에서 지시한 대로 가져와 감봉(監封)한 다음 올려 보낸다는 일입니다. (…)

南陽都護府使.爲牒報事.節到付關內乙用良, 本府西面洪法洞故洪監司子孫家所藏《銀臺史綱》二

卷, 依關文取來, 監封上送爲白臥乎事.(…)

<일기청등록(日記廳謄錄), 개수일기등록(改修日記謄錄), 來關秩, 丙寅七月日>

사회/향촌

남양부 서면 홍법동의 홍감사의 자손 집에 보관중인 은대사강 등을 등서하여 즉시 돌려보낸다는 특교가 필요하다는 내용.

남양부(南陽府)로 보낸

상고하는 일입니다. 지난 5월 22일 본청의 당상이 주강(晝講)에 함께 입시하였을 때, 당상 홍계희가 아뢴 내용은, “사가(私家)에서 보관하고 있는, 조보를 베껴 둔 종류의 문서를 가져와 참고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데, 만약 특교(特敎)가 없다면 혹 선대(先代)부터 보관해 둔 것이라 하면서 내주려 하지 않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교를 조보에 낸 뒤에 중요도를 막론하고 듣는 대로 가져오게 하되, 만약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역로(驛路)로 전하여 보내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일이었는데, 상의 그대로 하라는 승전(承傳)을 받들었습니다. 근래 들으니, 고(故) 홍 감사(洪監司)의 자손이 남양부 서면(西面) 홍법동(洪法洞)에 사는데 《은대사강(銀臺史綱)》 2권이 있다고 합니다. 비록 선조가 직접 쓴 글이라고 핑계 대지만 이 일은 조정의 중요한 일이고 또한 장부에 기록하고서 접수한 다음 등서를 마친 뒤에 즉시 돌려보낼 것이니 전혀 잃어버릴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뜻으로 상세하게 본가에 통지하여 급히 거두어들여 올려 보내되 한시도 지체하지 말게 하고 일이 진행되는 상황도 즉시 첩보하여, 근거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일입니다. (…)

南陽府了

爲相考事.去五月二十二日, 本廳堂上晝講同爲入侍時, 堂上洪啓禧所啓: 私家所儲朝報謄置之類, 不可不取來參考, 而若無特敎, 則或稱先世所藏, 不肯出送, 必有之矣, 以下敎出朝報後, 無論緊歇, 隨聞取來, 而若數多, 則使驛路遞送, 何如? 上曰, 依爲之事, 捧承傳爲有置.近聞故洪監司子孫, 居本府西面洪法洞, 而有銀臺史綱二卷云, 雖以先筆爲托, 此亦公家重事, 且置簿捧留, 待謄畢後, 卽卽還送, 必無遺失之慮.以此意詳細知委于本家, 星火收捧上送, 俾無一刻遲滯, 而舉行形止, 亦卽牒報以爲憑施之地, 宜當向事.(…)

<일기청등록(日記廳謄錄), 개수일기등록(改修日記謄錄), 移文秩, 丙寅九月日>

사회/향촌

한명회의 장인 민대생이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남양으로 물러났다는 내용.

(…) 내 외가의 선조 민지사(閔知事)의 휘는 대생(大生)인데, 문음(門蔭)으로 군수를 했다. 그는 날이 어두워질때면 북두성에게 축원하기를,

“원컨대 어진 자손을 낳게 해 주십시오.”

했다. 과연 한 딸을 낳았는데 한공 명회(韓公明澮)에게 시집갔고, 한공(韓公)이 두 딸을 낳았는데, 하나는 예종(睿宗)의 왕비가 되었으며, 하나는 성종(成宗)의 왕비가 되었다. 두 왕비는 춥고 따뜻한 때에 따라서 손수 공(公)의 옷을 지어 보냈으며, 아름다운 명절이나 좋은 절기에는 각각 잔치할 음식을 보냈다. 또 중관(中官)을 시켜서 술을 내렸으며 평상시에 어공(御供)하는 음식도 계속하여 나누어 보냈다. 한공은 한 대(代)의 원훈(元勳)으로서 바야흐로 수상(首相)이 되었고, 공의 두 아들도 역시 문음(門蔭)으로 모두 큰 고을의 시재(時宰)가 되었다. 공은 너무 지나치게 높아진 것을 두려워하여 남양(南陽)으로 물러갔다. 그러나 나라에서는 옷을 내리고 잔치를 내려 서울에 있을 때와 똑같았으므로 왕래하는 중관(中官)들이

앞 뒤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공은 나이 80부터 생일이 될 때마다 성묘(成廟)가 문득 한 자 급씩 올려주어 드디어는 숭정(崇政)으로 지중추(知中樞)에 이르렀다. 나이 90세가 넘어 죽으니 이 사실이 모두 신도비(神道碑)에 실려 있다. 공은 충후하고 근신하여 남과 다투는 일이 없었으며, 제사 받들기를 몹시 삼가하였다. 그 지성이 있는 바에 하늘도 또 감동해서 그 생전에 끝이 없는 복을 누렸고, 지금까지 자손이 번성하니 어찌 착한 일을 쌓은 보답이 아니겠는가? (…)

(…) 余外家先祖閔知事諱大生.以門蔭爲郡守.每日昏後拜北斗祝曰.願生賢子孫.果生一女適韓公明澮.韓公生二女.一爲睿宗王妃.一爲成宗王妃.兩殿隨時寒燠.手製公衣服以賜.佳辰令節各賜宴需.遣中官宣醢.常時御供珍羞分送絡繹.韓公以一代元勳方爲首相.公之兩子亦以門蔭.皆爲大邑時宰.公畏其盛滿.退老於南陽.賜衣賜宴一如在京時.中官往來項背相望.公年八十後每於生日.成廟輒加一資.遂至崇政知中樞.年逾九十而沒.此事俱載公神道碑.公忠厚謹慎.與物無競.奉祭祀克謹.至誠所在天又感焉.生前享無涯之福.至今子孫繁盛.豈非積善之報也.(…)

이덕형(李德炯), <죽창한화(竹窓閑話)>

4. 문화(文化)

(1) 사상

문화/사상

경기도 남양의 서원의 연혁과 배향 인물을 기록한 내용.

남양(南陽) 용백사(龍栢祠) 【병오년에 세웠으며 현종 기유년에 사액하였다.】 : 한 제갈량(漢諸葛亮) · 송 호안국(宋胡安國) · 윤계(尹檠)

안곡서원(安谷書院) 【현종 무신년에 세웠으며 경종 신축년에 사액하였는데, 기유년에 철폐하였다가 경신년에 복구하였다.】 : 박세훈(朴世勳) 【호는 백촌(栢村)이며, 벼슬은 첨정인데 이조 참의를 증직하였다.】 · 박세희(朴世熹) 【기묘의 명현】 · 홍섬(洪暹) 【선조조의 정승】

이공익(李肯翊),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별집 제4권 사전전고(祀典典故), 서원(書院)>

(2) 과학

문화/과학

816년(헌덕왕 8) 당은현의 돌이 저절로 이동하였다는 내용.

춘정월 김헌창을 청주 도독(靑州都督)으로 삼고, 장여(璋如)를 시중으로 삼았다.

○ 당은현(唐恩縣) **【지금의 남양(南陽)】**에서 돌이 저절로 1백여 보나 이동하였다.

안정복(安鼎福), <동사강목(東史綱目), 제5상>

(3) 지리·경관

문화/지리·경관

1589년(선조 22) 7월 대마도주 평의지(平義智)가 바친 공작을 남양(南陽) 해도(海島)에 놓아 주라는 내용.

(…) 7월 (…) ○ 평의지 등이 공작(孔雀) 1쌍과 조총 몇 정을 바쳤는데, 공작은 남양(南陽) 해도(海島)에 놓아주도록 하고 조총은 군기시(軍器寺)에 간직하도록 명하였다. 우리나라에 조총이 있게 된 것은 이때부터이다. (…)

<국조보감(國朝寶鑑), 제30권 선조조 7>

문화/지리·경관

공작새를 남양(南陽) 대부도(大部島)에 놓아 주었다는 내용.

(…) 금상 경인년(1590, 선조 23)에 일본국 평수길(平秀吉)이 공작새 한 쌍을 바쳤는데 상이 받았다가 조금 뒤에 남양(南陽) 대부도(大部島)에 놓아 주게 하였다.

(…) 今上庚寅.日本國平秀吉.獻孔雀一雙.上受之.尋令放于南陽大部島.

이정형(李廷馨), <동각잡기(東閣雜記)하, 本朝璿源寶錄[二]>

문화/지리·경관

1884년(고종 21) 11월 박대양이 일본으로 사행 가는데 남양의 마산포로 갈 것을 명을 받은 내용.

11월 9일 맑음. 신시쯤에 아문(衙門)으로부터 상사대인(上使大人)에게 서신이 오기를,

“즉시 남양(南陽) 마산포(馬山浦)로 가서 다시 여순구(旅順口)로 나아가 배를 세내어서 동경(東京)으로 바삐 가도록 하라. 목공(穆公)은 서울에서 곧바로 남양으로 가서 기다린다.”

하였다. 그날 밤에 추당장(秋堂丈 추당은 정사 서상우의 호)이 육로를 따라 남양으로 가고 나는 통사(通事) 1인, 구종(驅從) 1인, 인천 장교(仁川將校) 1인과 함께 행구(行具)를 챙겨 가지고 해시(亥時)에 배에 올랐는데, 배는 낚았고 바람은 거슬러서 마침내 출발하지 못하였다. 밤에 물결이 몰아치는 곳에 누워서 입 속으로 사율(四律) 한 수를 지었다. 【시는 아래 나온다.】

晴.申時量.自衙門抵書於上使大人.使之即向南陽馬山浦.轉進旅順口.賃船駛往東京.穆公自京即往南陽等候云.當夜秋堂丈從早路向南陽去.余與通事一人,驅從一人,仁川將校一人領行具.亥時登船.船敵風逆.竟止未發.夜臥浪泊.口占一律. 【詩現下.】

박대양(朴戴陽), <동사만록(東槎漫錄), 일기(日記) 11월 初九日>

문화/지리·경관

1884년(고종 21) 11월 박대양이 일본으로 사행 가는데 남양에서 묵었다는 내용.

11월 14일 맑음. 남양읍(南陽邑)에 들어와서, 와룡관(臥龍館) 곁에 있는 하리(下吏) 황래원(黃來源)의 집에 숙소를 정하였다. 아마 고을의 이름이 와룡선생(臥龍先生 촉한(蜀漢)의 제갈공명을 일컫는 말)이 몸소 밭 갈던 남양과 같기 때문에 관(館)의 이름을 와룡관이라고 붙인 것일 것이다. 내가 보고 느끼는 바 있어서 사율(四律) 한 수를 지었다. 【시는 아래 나온다.】

이 고을 수령 양필환(梁弼煥)이 찾아와 만났다. 이날 흠차(欽差)오대징(吳大徵)이 병정 3백

명을 거느리고 와서 또한 이곳에 숙박하였다.

晴.入南陽邑.館于臥龍館邊下吏黃來源家.蓋邑與臥龍躬耕處同名.故名館以臥龍也.余見而有感.仍賦一律.【詩現下.】主倅梁弼煥出見.是日吳欽差率兵丁三百人.亦止宿於此.

박대양(朴戴陽), <동사만록(東槎漫錄)>, 일기(日記) 11월 十四日>

문화/지리·경관

1882년(고종 19) 8월 박영효가 수신사로 일본에 출발할 때 화방의질이 남양에서 만나자고 했다는 내용.

9일. 맑음. 인시(寅時) 정각에 떠나서 진시(오전 8시 전후)에 인천 제물포(濟物浦) 30리에 도착하였는데, 일본의 병루(兵壘)가 아직도 다 철거되지 않았다. 판리공사(辦理公使) 화방의질(花房義質)이 접견하고는 즉시 불일이 있어 남양(南陽) 해안으로 간다면서, 저녁 때 남양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는 가 버렸다. 조금 후에 화도 별장(花島別將)이 점심을 내었다. 밥을 먹고 나니 고웅겸삼(高雄謙三)이 산판선(舢板船) 큰 배에 딸린 작은 배에 올라타기를 청하였다. 길을 떠나는 장계를 만들어 올리고 일제히 일본선으로 향하니, 일본선 이름은 명치환(明治丸)이다. 타루(舵樓)에 오르니, 참관 민영익(閔泳翊)이 벌써 배 안에 도착하여 있었으므로 기쁘게 서로 인사하였다. 배 모양은 영묘(靈妙)하고 장엄한데 선장이 서양 요리를 대접하였다. 미시(未時) 정각에 닻을 올리고 출발하여 유시 초(酉時初)에 남양 앞바다 5리에 도착하여 닻을 내리고 신호포 한 방을 쏘았는데, 이는 화방공사(花房公使)를 기다리기 때문이었다. 장계는 원문에 보임.

晴, 寅正發程, 辰刻抵仁川濟物浦三十里, 日本兵壘, 尙未盡撤, 辦理公使花房義質接見, 卽有幹往南陽海岸, 約以晚天晤會于南洋而去, 少頃, 花島別將, 供午飯, 飯訖, 高雄謙三, 請上舢板船, 修上發程狀啓, 齊向日本船, 船名明治丸也, 登舵樓, 閔參判 泳翊 已到船中, 欣握, 船製靈妙莊嚴, 船長饋西洋料理, 未正舉錨, 酉初, 到南洋前洋五里下碇, 開信砲一聲, 所以待花房公使也, 狀啓原文.

박영효(朴泳孝), <사화기략(使和記略) 8월 初九日>

문화/지리·경관

안산군의 인문지리 정보로 남양부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한 내용.

【동쪽으로 과천현(果川縣) 경계까지 5리, 남쪽으로 남양부(南陽府) 경계까지 35리, 서쪽으로 인천부(仁川府) 경계까지 11리, 북쪽으로 금천현(衿川縣) 경계까지 14리이며 서울까지는 51리이다.】

【산천】 소홀도(召忽島) 【군 서쪽 15리에 있으며 주위가 32리이고 목장이 있다. 본래 남양부(南陽府)에 예속하였었는데 성종(成宗) 17년에 본군에 옮겨 붙이었다.】

【봉수】 오질이도봉수(吾叱耳島烽燧) 【남쪽으로 남양(南陽) 해운산(海雲山)에 응하고 북쪽으로 인천(仁川) 성산(城山)에 응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9권 경기(京畿), 안산군(安山郡)>

문화/지리·경관

인천도호부의 인문지리 정보로 남양부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한 내용.

【산천】 덕적도(德積島) 【부 서쪽 1백 20리에 있으며 주위가 30리이고 목장이 있다. 본래는 남양부(南陽府)에 예속하였었는데 성종(成宗) 17년에 본부로 옮겨 붙이었다.】 사야곶도

(士也串島) 【부 서쪽 1백 18리 되는 곳에 있으며 주위가 10리이고 목장이 있다. 본래 남양부에 예속하였었는데 성종 17년에 여기에 옮겨 붙였다.】

【학교】 향교(鄕校) 부 동쪽 1리 되는 곳에 있다. ○ 【최항(崔恒)의 중수기(重修記)에, “임금이 민후(閔侯)의 90세된 아버지가 남양(南陽)에 있는 것을 생각하여 이조(吏曹)에 명하여 인천 부사를 제수하였으니, 구름을 바라보는⁴⁹¹⁾ 정리를 위로한 것이었다. (…)” 하였다.】

【고적】 이포부곡(梨浦部曲) 【부 남쪽에 있는데 수로로 30리이다. 육로로 가려면 안산(安山)·광주(廣州)·남양(南陽) 경계를 지나야 비로소 그 땅에 이르게 되는데 거의 백 리가 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9권 경기(京畿), 인천도호부(仁川都護府)>

문화/지리·경관

장원서의 관노비가 원직(苑直)으로 파견된 남양 등의 의원 및 충융청이 통솔하는 남양 등지에 대해 기술한 내용.

【문직 공서(文職公署)】 ○ 경원(京苑)은 용산·한강 등지에 있고, 의원(外苑)은 강화부(江華府)·남양(南陽)·개성부(開城府)·과천(果川)·고양(高陽)·양주(楊州)·부평(富平) 등지에 있는데, 각각 원직(苑直)이 있다.

【무직 공서(武職公署)】 충융청(摠戎廳) 【예전에는 북부 진장방(鎭長坊)에 있었는데, 영종 26년에 창의문(彰義門) 밖 연용대(鍊戎臺)에 옮겨 설치했으며, 신영(新營)의 영사(營舍)는 3백여 칸이다. 인조 2년에 창설하여 수원(水原)·광주(廣州)·양주(楊州)·장단(長湍)·남양(南陽) 등의 진(鎭)과 오영(五營)의 군무(軍務)를 절제(節制)한다. 영종 정묘년(1747)에 경리청(經理廳)을 폐지하고, 북한영성장(北漢營城將) 이하를 본청에 소속시켰고, 경오년에 또 경기 병사(京圻兵使)를 겸하여 북한(北漢)에 출진(出鎭)했다가, 경진년에 출진을 폐지하고 병사(兵使)를 감했다. 정종조에 수원에 영(營)을 설치한 뒤에 수원진(水原鎭)의 군무를 절제했다가 폐지했다. 헌종 병오년(1846)에 충영(摠營)이라고 개칭하였다가, 기유년에 복구하여 청(廳)을 설치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2권 비고편- 동국여지비고 제1권, 경도(京都)>

문화/지리·경관

수원도호부의 인문지리 정보로 남양부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한 내용.

【동쪽으로 용인현(龍仁縣) 경계까지 21리, 남쪽으로 충청도 평택현(平澤縣) 경계까지 50리, 같은 현 경계까지 59리, 진위현(振威縣) 경계까지 22리, 서쪽으로 남양부(南陽府) 경계까지 20리, 같은 부 경계까지 1백 13리, 북쪽으로 과천현(果川縣) 경계까지 39리, 서울까지는 88리가 된다.】

【진관】 도호부(都護府)가 3이고 【부평(富平)·남양(南陽)·인천(仁川)】 군(郡)이 2이고 【안산(安山)·안성(安城)】 현(縣)이 7이다 【진위(振威)·양천(陽川)·용인(龍仁)·금천(衿川)·양성(陽城)·통진(通津)·김포(金浦)】

【산천】 풍도(楓島) 【부 서쪽 45리 되는 곳에 있는데, 둘레가 20리이다. 성종(成宗) 17년에 남양(南陽)으로부터 와서 예속되었으며 목장이 있다. 기지(機池) 부 동쪽 15리 되는 곳에 있다.】

491) 구름을 바라보는 : 구름을 바라다본다는 말은 부모를 생각한다는 말이다. 구름을 바라보고 저 구름 아래에 우리 부모가 계시거니 생각한다는 뜻이다.

【봉수】 흥천산(興天山) 봉수(烽燧) 【남쪽으로 양성현(陽城縣) 괴태길곶(槐台吉串)에 응하고, 서쪽으로 남양부(南陽府) 염불산(念佛山)에 응한다.】

《대동지지(大東地志)》 【연혁】 중종(中宗) 30년에 복구(復舊)하였다 【선조(宣祖) 35년에 방어사(防禦使)를 겸하였다. 현종(顯宗) 9년에 별중영장(別中營將)을 겸하였다. 숙종(肅宗) 13년에 총계좌영장(摠戒左營將)을 겸하도록 고치었다. 정종(正宗) 16년에 진(鎭)을 남양(南陽)으로 옮겼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9권 경기(京畿), 수원도호부(水原都護府)>

문화/지리·경관

남양도호부(南陽都護府)의 인문지리 정보를 정리한 내용.

【동쪽으로 수원부(水原府) 경계까지 24리요, 남쪽으로 같은 부 쌍부현(雙阜縣) 경계까지 20리요, 서쪽으로 화량(花梁)까지 41리요, 북쪽으로 안산군(安山郡) 경계까지 43리며, 서울까지 1백 5리이다.】

【건치연혁】 본래 고구려 당성군(唐城郡)이다.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당은(唐恩)으로 고치었다가, 고려 초년에 예전 이름을 회복하였고, 현종(顯宗) 9년에 수주(水州)에 속했다가 뒤에 옮겨 인주(仁州)에 붙이었고, 명종(明宗)이 비로소 감무(監務)를 두었다. 충렬왕(忠烈王) 16년에 고을 사람 홍다구(洪茶丘)가 원(元) 나라에 벼슬하여 정동행성 우승(右丞)이 되었으므로 지익주사(知益州事)로 승격하고, 뒤에 승격하여 강녕도호부(江寧都護府)로 만들고, 또 승격하여 익주목(益州牧)으로 만들었다. 충선왕(忠宣王) 2년에 여러 목을 없앨 때에 지금 이름으로 고치고 강등하여 부를 만들었다. 본조(本朝) 태종(太宗) 13년에 예에 의하여 도호부로 고치었다. 【관원】 부사(府使) · 교수(教授) 【각 1인.】

【군명】 당성(唐城) · 당은(唐恩) · 익주(益州) · 강녕(江寧) · 영제(寧提) · 과포(戈浦).

【성씨】 본부(本部) 홍(洪) · 송(宋) · 방(房) · 박(朴) · 최(崔) · 서(徐) · 재양(載陽) 손(孫) · 윤(尹) · 신(辛) · 우(祐) · 오(吳) 【홍주(洪州)】 서(徐) 【안산(安山)】 전(田) 【속성(續姓)이다.】

【산천】 비봉산(飛鳳山) 【부 동쪽 7리 되는 곳에 있으며, 진산(鎭山)이다.】 염불산(念佛山) 【부 서쪽 25리 되는 곳에 있다.】 청명산(淸明山) 【부 서쪽 22리 되는 곳에 있다.】 절명산(絶命山) 【부 서쪽 20리 되는 곳에 있다.】 해운산(海雲山) 【부 서쪽 20리 되는 곳에 있다.】 사나산(舍那山) 【부 동쪽 15리 되는 곳에 있다.】 바다 【부 서쪽 54리 되는 곳에 있다.】 수홀도(愁訖島) 【부 서쪽 41리 되는 곳에 있다.】 우음도(亏音島) 【부 서쪽 45리 되는 곳에 있다.】 선감미도(仙甘彌島) 【부 서쪽 50리 되는 곳에 있으며 목장(牧場)이 있다.】 대부도(大部島) 【부 서쪽 53리 되는 곳에 있으며 목장이 있다.】 영흥도(靈興島) 【대부도 서쪽에 있으며 목장이 있다.】 소홀도(召忽島) 【성종(成宗) 17년에 안산군(安山郡)에 옮겨 붙였다. 『신증』지금 임금 14년에 안산(安山)으로부터 도로 남양부에 붙였다.】 덕적도(德積島) 【성종(成宗) 17년에 인천부(仁川府)에 옮겨 붙였다.】 독갑도(禿甲島) 【덕적도 남쪽에 있으며 주위가 25리이고 목장이 있다.】 승황도(昇黃島) 【독갑도 서남쪽에 있으며 주위가 45리이고 목장이 있다.】 풍도(楓島) 【성종(成宗) 17년에 수원부에 옮겨 붙였다.】 신야곶도(新也串島) 【성종(成宗) 17년에 인천부에 옮겨 붙였다.】 이측도(伊則島) 【독갑도 동쪽에 있으며 주위가 35리이고 목장이 있다.】 제부도(濟扶島) 【선감미도(仙甘彌島) 남쪽에 있다.】 탄모로도(炭毛老島) 【소우도(小牛島) 남쪽에 있다.】 오질도(於叱島) 【부 서쪽에 있고 목장이 있다.】 소우도(小牛島) 【대부도 서쪽에 있다.】 선협도(仙俠島)

【독갑도 서쪽에 있다.】 입파도(立波島) 【풍도 동쪽에 있다.】 구을압도(仇乙鴨島) 【신야
곶도(新也串島) 서쪽에 있다.】 결오리도(結吾里島) 【오질도(於叱島) 북쪽에 있다.】 사나
천(舍那川) 【부 동쪽 15리 되는 곳에 있다.】

【토산】 경석(磬石) 【부 동쪽 사나사(舍那寺) 서쪽에서 나는데 돌빛이 푸르고 흰 것이 서
로 섞이어 무늬가 있다. 본조 세종(世宗) 9년에 캐어서 경쇠를 만들었더니 소리가 음률에
맞았다.】 정옥사(硃玉沙) · 소금[鹽] · 감[柿] 【국원(國苑)에서 난다.】 뱀대이[蘇魚] · 송어
[秀魚] · 전어(錢魚) · 준치[眞魚] · 조기[石首魚] · 참조기[黃石首魚] · 호독어(好獨魚) · 민어(民
魚) · 농어[鱸魚] · 홍어(洪魚) · 뱀어[白魚] · 은어[銀口魚] · 오징어[烏賊魚] · 낙지[絡締] · 조
개[蛤] · 가무락조개[黃蛤] · 토화(土花) · 굴[石花] · 소라(小螺) · 해파리[海臙] · 대하(大蝦) ·
중하(中蝦) · 쌀새우[白蝦] · 곤쟁이[紫蝦] · 게[蟹] · 청해(靑蟹) · 부레[魚鰓] · 맛조개[竹蛤].

【관방】 화량진(花梁鎭) 【부 서쪽 30리 되는 곳에 있다. 좌도수군 첨절제사영(左道水軍僉
節制使營)이 있는데 관할하는 곳은 영종포(永宗浦) · 초지량(草芝梁) · 제물량(濟物梁)이다.】

【○ 첨절제사(僉節制使) 한 사람이 있는데 종삼품이며, 여러 진(鎭)이 같다.
○ 진(鎭)이 예전에는 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 본영(本營)이었었는데 성종(成宗) 16년에
혁파하였다.

○ 최숙정(崔淑精)의 시에, “아침에 당성(唐城)을 떠나 서쪽으로 다시 서쪽으로 가니, 연
파(煙波)가 아득하여 끝이 없네. 원하건대 만곡(萬斛)이나 드는 용처럼 꿈틀거리는 배를 명
에하여, 바다를 지나 고래를 베려 하노라.” 하였다.】 영종포영(永宗浦營) 【부 남쪽 20리
되는 곳에 있다.】

【○ 수군만호(水軍萬戶) 한 사람이 있는데 종사품이다. 여러 포(浦)와 보(堡)도 같다.】
【봉수】 염불산봉수(念佛山烽燧) 【동쪽으로 수원(水原) 흥천산(興天山)에 응하고 북쪽으
로 해운산(海雲山)에 응한다.】 해운산봉수(海雲山烽燧) 【북쪽으로 안산군(安山郡) 오질이
도(吾叱耳島)에 응하고 남쪽으로 염불산(念佛山)에 응한다.】

【누정】 상명정(尙明亭) 【객관(客館) 북쪽에 있다.】
【학교】 향교(鄕校) 【부 동쪽 2리 되는 곳에 있다.】
【역원】 해문역(海門驛) 【부 동쪽 1리 되는 곳에 있다.】 진수원(鎭水院) 【부 동쪽 1리
되는 곳에 있다.】

【불우】 사나사(舍那寺) 【사나산(舍那山)에 있다.】 봉림사(鳳林寺) 【비봉산(飛鳳山)에 있
다.】 홍법사(弘法寺) 【청명산(淸明山)에 있다.】 장생사(長生寺) 【절명산(絶命山)에 있
다.】

【사묘】 사직단(社稷壇) 【부 서쪽에 있다.】 문묘(文廟) 【향교에 있다.】 성황사(城隍祠)
【부 서쪽 30리 되는 곳에 있다.】 여단(厲壇) 【부 북쪽에 있다.】

【고적】 고당성(古唐城) 【부 서쪽 20리 되는 곳에 있다. 고성(古城)이 있는데 둘레가 2천
4백 15척이고 높이가 10척이다. 세상에서 전하기를, “당 나라에서 재사(才士) 여덟 사람을
보내어 와서 고려 사람을 가르쳤는데 홍(洪)이 그 중의 한 사람이다. 자손이 대대로 귀히
되어 사는 곳을 당성(唐城)이라 이름하였다.” 한다. 지금은 과원(菓園)이 되었는데 장원서
(掌苑署)에 속하였다.】 석산성(石山城) 【부 서쪽 33리 되는 곳에 있으며 돌로 쌓았는데 둘
레가 2천 9백 5척이다】 재양폐현(載陽廢縣) 【부 동쪽 10리 되는 곳에 있으며 예전 안양현
(安陽縣)이다. 고려 현종(顯宗) 9년에 지금 이름으로 고쳐 수주(水州)에 붙이고 또 인주(仁
州)에 붙였다가 뒤에 내속되었다.】 분황부곡(奔黃部曲) 【부 동남쪽 25리 되는 곳에 있
다.】 양등간처(陽等干處) 【부 북쪽 5리 되는 곳에 있다.】 망해루(望海樓) 【고당성(古唐

城)에 있었는데 지금은 폐하였다. ○ 이색(李穡)의 기(記)에, “남양부(南陽府)를 삼국 시대에는 당성(唐城)이라 이름하였는데 본조에 들어와서 중세(中世) 이래로는 익주(益州)가 되었다. 익주의 홍씨(洪氏)가 태조(太祖)가 처음 일어날 때에 보익한 공이 있는데 은열(殷悅)이라는 이가 그 사람이다. 대대로 대족(大族)이 되었고 강도(江都) 말년에 이르러 남양군(南陽君)이 권신(權臣)을 죽이고 정치를 왕실로 돌려보냈으며 문예부주(文睿府主)를 낳아서 두 조정의 태모(太母)가 되었으므로 승격하여 부를 만들었다. 대개 산천이 신령하고 이상한 기운이 뭉치어 아름다운 상서가 되어서 역만년 한없는 왕업의 기초가 되었으니 참으로 다른 고을들과 평등하게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고을을 지키는 신하를 중하게 여기고 또한 반드시 삼가 선택하였다. 해정어수(海亭漁叟) 정후(鄭侯)가 와서 생각하기를, ‘날[日]은 나오고 들어가는 것이 있고 물은 근원과 끝이 있는 것이어서, 비록 멀고 큰 것이라도 그것을 잘 볼 줄 아는 자는 모두 그 난 곳과 근원을 알거든, 하물며 군상(君上)이 나온 곳(어머니의 집)이겠는가. 신하된 자가 진실로 마땅히 공경하여 감히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물며 내가 영광스럽게 명령을 받아서 임금이 출생한 땅을 지키는 신하가 된 것이겠는가.’ 하였다. 그러므로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서 오직 공경하여 덕으로써 솔선하기를 힘썼으니, 그 아전을 감화시키고 감히 형벌을 가하지 않으며, 그 백성에게 은혜롭게 하고 감히 위엄을 베풀지 않았다. 일 년 만에 크게 화평해져서 이익이 되지 않음이 없고, 모든 해가 제거되었다. 이에 고을 읍내에 누각을 지어 백성들의 우러러보는 것을 장려하게 하며, 찾아오는 빈객과 사신을 즐겁게 하였다. 누의 이름을 써 붙이기를 ‘망해(望海)’라 하고 그 아들 국자생(國子生) 이(彝)를 시켜 내 글을 받아서 기(記)를 삼게 하면서 말하기를, ‘고을에 예전에는 못이 있었는데 오래도록 버려두고 수축하지 않아서 위에는 풀이 우거지고 아래는 지적지적하여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 섞이어 경작하고 있다. 고을 사람들이 서로 못의 용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매 그 뒤에 못이 말랐다고 전하나 참으로 그러한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정후가 이른 뒤에 명하여 못을 파서 수축하였더니 이날에 검은 구름이 갑자기 동남쪽에서 일고 바람과 우레가 따라 이르렀다. 고을 사람들이 바라보니 용의 꼬리가 꿈틀꿈틀하며 못에 닿아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못 물이 사흘 동안을 끓어 흰 기운이 무럭무럭 올라서 그치지 않으니 늙은이와 어린이가 탄식하고 이상하게 여기었다.’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마음의 작용이란 큰 것이다. 한 번 그 마음을 정하면 천하도 하잘 것이 없는 것이다. 정후(鄭侯)의 공경하는 마음이 멀리 통달하여 간격이 없으므로, 맑은 곳에서는 사람이 화합하고 어두운 곳에서는 용같은 물(物)이 감동되었으니, 이 누각이 작은 것쯤이야 어찌 족히 말할 것이 있는가. 그러므로 먼저 고을의 고사(故事)를 말하고 다음에 용이 돌아온 사유를 기록하여 뒷사람에게 고하노라. 정후의 이름은 을경(乙卿)이요 자(字)는 선보(善輔)이며, 재간과 능력으로 세상에 쓰여졌다.’ 하였다.” 했다.】

【명환】 신라 극정(極正) 【흥덕왕(興德王) 4년에 당은군(唐恩郡)으로 당성진(唐城鎭)을 삼고 사찬(沙餐) 극정(極正)을 시켜 지키게 하였다.】 고려 정도전(鄭道傳) 【공양왕(恭讓王) 때에 수령으로 나가기를 자청하여 이 고을에 왔었다. 뒤에 왕이 도전에게 이르기를, “남양 백성이 경의 은혜스러운 정사에 감복되어 지금까지 칭송한다.” 하였다.】

본조 민효남(閔孝男) 【부사가 되었었다.】

『신증』 박처륜(朴處倫).

【인물】 고려 홍관(洪灌) 【인종(仁宗) 때 사람으로 벼슬이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에 이르렀다. 시호는 충평(忠平)이다.】 홍자번(洪子藩) 【충렬왕(忠烈王) 때 사람이며, 벼슬이 첨의중찬(僉議中贊)에 이르고 경흥군(慶興君)을 봉하였으며, 시호는 충정(忠正)이다.】 홍문계

(洪文係) 【뒤에 규(奎)로 고치었다. 충렬왕(忠烈王) 때 사람이고 벼슬이 첨의중찬(僉議中贊)에 이르렀으며, 시호는 광정(匡定)이다.】 홍경(洪敬) 【자번(子藩)의 아들이고 벼슬이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에 이르렀으며, 시호는 양순(良順)이다.】 홍언박(洪彦博) 【공민왕(恭愍王) 때 사람으로 벼슬이 첨의정승(僉議政丞)이다. 남양후(南陽侯)에 이르고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흥왕(興王)의 변에 집사람들이 말하기를, “빨리 피하라.” 하니, 언박이 말하기를, “어찌 수상(首相)으로서 죽음을 피하는 자가 있겠는가.” 하고, 의관을 정제하고 나가서 드디어 피살되었다.】 홍빈(洪彬) 【그 조상은 원 나라 연경(燕京)에서 대대로 살았다. 빈(彬)이 내정(內庭)에 속직하며 호위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충숙왕(忠肅王)이 참소를 당하여 원 나라에 머물러 있었다. 빈이 왕을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억울한 것을 하소하여 변명하였다. 왕이 복위되어 동쪽으로 돌아오매 빈이 따라와서 벼슬이 정승에 이르렀다.】

본조 홍여방(洪汝方) 【과거에 올라 벼슬이 이조 판서에 이르렀으며 시호는 문량(文良)이다. 홍달손(洪達孫) 무예(武藝)로 현달하였다. 세조(世祖) 때에 정난좌익공신(靖難左翼功臣)이 되고 벼슬이 좌의정에 이르러 남양부원군(南陽府院君)을 봉하였으며, 시호는 안무(安武)이다.】 홍일동(洪逸童) 【두 번 과거에 올랐고 벼슬이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홍응(洪應) 【신미년에 과거에 장원하여 익대좌리공신(翊戴佐理功臣)에 참여하였고, 벼슬이 의정부 좌의정에 이르러 익성부원군(益城府院君)을 봉하였으며,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문명(文名)이 있고 글씨를 잘 쓰고 풍신이 단정하고 아담하며 몸가짐이 법도가 있으니 사람들이 여진 정승으로 일컬었다. 성종묘정(成宗廟庭)에 배향하였다.】 『신증』 홍형(洪炯) 【과거에 올라 벼슬이 승지(承旨)에 이르렀다. 지금 임금 초년에 참판(參判)을 추증하였다.】 홍식(洪湜) 【홍형의 아우이며 과거에 올라 벼슬이 승지에 이르렀다. 연산(燕山) 갑자년에 피살되었는데 지금 임금 초년에 참판을 추증하였다.】 홍한(洪瀚) 【식(湜)의 아우이며 과거에 올라 벼슬이 참의에 이르렀다. 강하고 곧아서 허여하는 것이 적으므로 권귀(權貴)에게 미움을 받았다. 마침 무오년의 사옥(史獄)이 일어나매 드디어 무함을 당하여 멀리 귀양가다가 길에서 죽었다. 지금 임금 초년에 참판을 추증하였다.】 홍흥(洪興) 【벼슬이 참판에 이르렀다.】 전림(田霖) 【무과에 올라 벼슬이 판윤(判尹)에 이르렀으며 시호는 위절(威節)이다. 사람됨이 청백하고 엄하였다.】 홍경주(洪景舟) 【과거에 오르고 정국공(靖國功)에 참여하여 남양군(南陽君)을 봉하였으며 벼슬이 찬성에 이르고 시호는 정희(靖熹)이다.】

【제영】 바다 가운데 여러 섬은 남북으로 나뉘었다 【홍여방(洪汝方)의 시에, “바다 가운데 여러 섬은 남북으로 나뉘었고, 구름 밖에 먼 멧부리는 혹 있다 없다 하네. 궁벽한 골짜기에 눈이 녹으니 시내에 푸른 물결 창일하고, 굽은 언덕에 바람이 지나니 버들이 누른 빛을 흔든다.” 하였다.】 먼산은 새로 그린 눈썹이 비긴 듯하고 【권맹손(權孟孫)의 시에, “먼산은 새로 그린 눈썹이 비긴 듯하고, 긴 버들은 가는 허리로 춤을 추네. 올라가 달을 맞는 저녁이라. 읊조리며 읊으니 연기를 완상하는 아침이다.” 하였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연혁】 고종 32년 군(郡)으로 고쳤다.

《대동지지(大東地志)》

【연혁】 인조(仁祖) 22년에 현으로 내렸다. 역적 형(衡)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이다. 효종 4년에 다시 승격시켰다가 현종 6년에 현으로 내렸다 【종으로써 주인을 죽였다.】 15년에 다시 승격시켰다. 정종(正宗) 16년에 본 부에 있는 수원진(水原鎭)으로 옮겼다 【읍을 관장한다.】

【영아】 총융전영(摠戎前營) 【전영장(前營狀)은 본부사(本府使)가 겸한다. 인조(仁祖) 조

에 좌영(左營)을 세웠다가 후에 전영으로 고쳤다.】

【○ 속읍으로는 남양(南陽)·양천(陽川)이 있다.】

【방면】 부내(府內) 【끝은 5리이다.】 화척(禾尺) 【북쪽으로 처음은 5리, 끝은 20리이다.】 저팔리(楮八里) 【동쪽으로 처음은 10리, 나중은 20리이다.】 둔지산(屯之山) 【남쪽으로 처음은 5리, 끝은 15리이다.】 신리(新里) 【북쪽으로 처음은 20리, 끝은 40리이다.】 송산(松山) 【서쪽으로 끝이 30리이다.】 미지곶(彌之串) 【동쪽으로 처음이 7리 끝은 20리이다.】 분향(分鄉) 【동남쪽으로 수원(水原) 경계를 넘어 들어가는데, 처음은 30리, 끝도 30리이다.】 마도(麻道) 【서쪽으로 처음은 10리, 끝이 20리이다.】 서여제(西如堤) 【서쪽으로 끝이 35리이다.】 세곶(細串) 【서쪽으로 끝이 25리이다.】 수산(水山) 【서쪽으로 끝이 20리이다.】 쌍수리(雙守里) 【북쪽으로 끝이 10리이다.】

【목장】 대부장(大部場) 【섬 가운데 있는데 감목관(監牧官) 한 사람이 있다.】 속장(屬場) 【선감미(仙甘彌)·영흥(靈興)·명홀(名忽)·이작(伊作)·소우(小牛)·불(佛)·입피(立彼)가 있다.】 폐장(廢場) 【섬에 있는 승황(昇黃)이다.】

【사원】 용백사(龍柏祠) 【현종(顯宗) 병오년에 세우고 기유년에 사액하였다.】 제갈량(諸葛亮) 【한(漢)의 승상이며 충무후(忠武侯)였다.】 호안국(胡安國) 【경도(京都)의 문묘조에 있다.】 윤계(尹檠) 【강화(江華) 조에 있다.】

○ 안곡사(安谷祠) 【현종 무신년에 세웠고 경종(景宗) 신축년에 사액하였다.】 박세훈(朴世勳) 【자는 훈지(勳之), 호는 송촌(松村), 본관은 상주(尙州)인데, 벼슬은 첨정(僉正)이었으며 이조 참의에 추증되었다.】 박세희(朴世熹) 【자는 이회(而晦) 호는 도원재(道源齋)인데, 세훈의 아우로 벼슬은 좌승지(左承旨)를 지냈으며 이조 판서를 지냈고, 시호는 문강(文剛)이다.】 홍섬(洪暹) 【자는 퇴지(退之), 호는 인재(忍齋), 본관은 남양(南陽)으로 영의정 전문형(領議政典文衡)을 지냈으며 시호는 경헌(景憲)이다.】

【고읍】 재양(載陽) 【동쪽으로 10리이며, 본래는 안양(安陽)이었다. 신라 때 본 군의 예속 현이 되었고, 고려 때에 재양이라 고쳤다. 현종 9년에 수주(水州)를 거느렸다가 다시 인주(仁州)에 예속되었고 후에 내속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9권 경기(京畿), 남양도호부(南陽都護府)>

문화/지리·경관

남양 대부도의 인문지리적 정보를 정리한 내용.

(…) ○ 남양(南陽)의 대부도(大阜島)는 화량진(花梁鎭)에서 바다 건너 10리인데, 모두 어민들이 산다. 봉홍 석맥(崩洪石脈)이 바다속으로 지나가는데 석척(石脊) 위는 물이 몹시 얕으나, 굴곡이 심해 찾기 어렵다. 옛날 황새가 물속에서 석척 위를 따라 걸어갔는데, 오직 섬사람만이 잘 알고 있다. 병자란(丙子亂) 때 섬 사람이 오랑캐에게 쫓겨 석척을 따라 도망가니, 오랑캐 병사가 알지 못하고 따라 오다가 빠져서 이 섬이 마침내 온전할 수 있었다. 토지가 비옥하고 백성이 많으며 해선(海船)이 남쪽에서 오는 첫 길목으로 강화·영종(永宗)의 외호(外戶)가 된다. 옛날엔 수군영(水軍營)을 설치했다가 교동으로 옮김에 미쳐, 대부도는 목마장(牧馬場)이 되어 방수(防守)할 병비(兵備)가 없으니 심히 옳지 못하다. 마땅히 화량진을 섬 안에 옮겨서 영종과 더불어 서로 맞서게 해야 할 것이다. 【《팔역지》 《여지승람》에는 대부도(大阜島)는 부의 서쪽 53리에 있다고 하였다.】 (…)

이궁익(李肯翊),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별집 제17권 변어전고(邊圉典故), 해랑도(海浪島)>

문화/지리·경관

남양의 폐지된 산성은 고당성이라는 내용.

○ 남양(南陽) 고당성(古唐城) 【지금은 과수원이 되었다.】

석산성(石山城) 【부의 서쪽 33리에 있다.】 석축

이궁익(李肯翊),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별집 제17권 변어전고(邊圉典故), 폐지된 산성>

문화/지리·경관

남양 지역에 진보가 설치되었던 곳과 그 연혁을 정리한 내용.

○ 경기도 ○ 인천 영종포영(永宗浦營) 【옛날에는 남양(南陽)에 속하였으며, 부(府)의 남쪽 20리에 있는데 수군 만호(水軍萬戶)가 있었다. 첨사(僉使) 지금은 본부(本府)에 있다】

화량진(花梁鎭) 【옛날에는 남양에 속하였으며, 부(府)의 남쪽 30리에 있고, 첨사 영(僉使營)이다.】 첨사 【지금은 본부에 있다】

덕적진(德積鎭) 【덕적도(德積島)는 옛날에는 남양에 속하였는데, 성종 17년(1486)에 인천에 이속시켰다.】 첨사 【부의 서쪽 1백 20리에 있다.】 목장(牧場)이 있다.

이궁익(李肯翊),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별집 제17권 변어전고(邊圉典故), 진(鎭)·보(堡) 【폐지된 진·보를 붙임】>

문화/지리·경관

신라가 중국에 조공하는 길은 남양의 덕물도와 풍천의 초도였다는 내용.

《명사(明史)》에 이르기를, “성화(成化 헌종(憲宗)의 연호) 17년(1481)에 봉황성(鳳凰城)을 쌓아서 조선이 입공(入貢)하는 길로 삼았다.” 하였다. 《동사(東史)》에 이르기를, “백제, 신라, 고구려, 발해 제국(諸國)은 모두 바닷길로 조공(朝貢)하였다. 신라는 남양(南陽)의 덕물도(德勿島)와 풍천(豐川)의 초도(椒島)를 오가는 문호로 삼았고, 고려는 예성강(禮成江)에서 배가 출발하여 등주(登州)에 다다랐는데, 희령(熙寧 송(宋) 신종(神宗)의 연호) 연간에는 거란(契丹)을 멀리하려고 명주(明州) 길로 고쳤다. 이를테면 만경(萬頃)의 군산정(群山亭), 해미(海美)의 안흥정(安興亭), 인천(仁川)의 경원정(慶源亭)은 모두 마중하고 송별하는 관(館)이다.” 하였다. 우리 태종(太宗) 을미년(1415)에는 명나라가 수도를 연경(燕京)으로 옮김으로 해서 육로를 취하였다. 광해(光海) 신유년(1621)에는 요양(遼陽)과 심양(瀋陽)의 길이 막힘으로 해서 다시 등주 해로를 따랐다.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이르기를, “항해하는 데에 세 종류의 험난함이 있으니, ‘미친 듯한 바람이 연일 사납게 울부짖어 사방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검은 바람이 불시에 사나워져서 밤낮을 분간할 수 없는 경우’, ‘파도가 바다 밑에서 들끓어서 마치 뜨거운 불에 물이 끓듯 하는 경우’ 이다.” 하였다.

이유원(李裕元), <임하필기(林下筆記), 제11권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중국으로 조공(朝貢)을 실어 가는 길>

문화/지리·경관

남양부 대부도에는 매년 정월 보름에 햇불 같은 불이 나타난다는 내용.

남양부(南陽府) 대부도 바다에서 매년 상원일(上元日)에 햇불 같은 불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동쪽에서 일어나고 하나는 서쪽에서 일어나 서로 합하여 큰 햇불을 이룬다. 불빛이 물에 번쩍이고 나는 불꽃이 별처럼 흩어지되 순식간에 섬광이 일어나니, 참으로 기이한 볼거리이다.

이날 섬의 남녀들이 서로 달려가서 빛의 크고 작은 것을 보고 그해의 풍흉을 점친다.
이유원(李裕元), <임하필기(林下筆記), 제29권 춘명일사(春明逸史), 대부도(大阜島)의 불>

문화/지리·경관

일본에서 선물한 공작새를 남양의 섬에 놓아주었다는 내용.

(…) 이에 조정 의논이 비로소 결정되어 사신으로 보낼 만한 사람을 고르는데, 대신들이 첨지(僉知) 황윤길(黃允吉)을 정사(正使)로, 사성(司成) 김성일(金誠一)을 부사(副使)로, 전적(典籍) 허성(許箴)을 서장관(書狀官)으로 삼아 경인년(1590, 선조 22) 봄에 떠나게 하였다. 그리고 공작새는 남양(南陽)의 섬 안에 놓아 주게 하고 조총(鳥銃)은 군기시(軍器寺)에 보관하도록 명했다. (…)

(…) 於是朝議始定.擇可使者.大臣以僉知黃允吉爲正使.司成金誠一爲副使.典籍許箴爲書狀官.將以庚寅春發行.命放孔雀於南陽島中.下鳥銃于軍器寺.(…)

신경(申晸), <재조번방지(再造藩邦志), 1>

문화/지리·경관

일본에서 선물한 공작새를 남양의 섬에 놓아주었다는 내용.

(…) 선조(宣祖) 21년 무자년(1588)에 황윤길(黃允吉), 김성일(金誠一), 허성(許箴)을 일본에 사신으로 보냈다. 당시 평수길(平秀吉)이 새로 원씨(源氏)를 대신하여, 관백(關白)이 되어 웅건(雄健)한 무력으로 8도(道)를 평정하였다. 무자년에 이르러 그의 신하에게 이르기를, “우리 사신은 매년 조선에 가는데, 조선 사신은 오지 않으니, 이것은 우리를 깔보는 것이다.”

하고, 대마도 왜인 굴강황(橘康黃)을 보내와서 통신하기를 요구하였는데, 그 서사(書辭)가 매우 거만했다. 조정에서는 수로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사신 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더니, 이때에 와서 수길은 다시 대마도태수(對馬島太守) 평의지(平義智)와 왜승(倭僧) 현소(玄蘇)를 보내와서 전에 포로 된 사람 80여 명을 쇄환(刷還)하고, 또 공작(孔雀)을 바쳤다. 공작은 남양해도(南陽海島)에 놓아주도록 명하였다.⁴⁹²⁾ 그러나 평의지가 또 동평관(東平館)에 머물면서 기필코 우리 사신을 데리고 같이 가려 했다. (…)

(…) 宣祖二十一年戊子.遣黃允吉、金誠一、許箴使日本.時平秀吉新代爲關白.兵力雄強.平定八道.至戊子.謂其臣曰.我使每往朝鮮.而鮮使不至.是侮我也.遣馬島倭橘康黃.來求通信.書辭甚倨.朝廷辭以水路迷昧.不許遣使.至是秀吉.又遣馬島太守平義智.僧倭玄蘇來.刷還前日被擄人八十餘.又獻孔雀.命放于南陽海島.義智又留東平館.必要我使與俱.(…)

<전후사행비고(前後使行備考) 비고(備考), 전후사행비고(前後使行備考)>

문화/지리·경관

청병 3만여 명이 남양에 상륙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내용.

22일 맑음. 서울 소식은 한결같이 믿을 만한 소식이 없다. 주헌(柱憲)이 채전(債錢)을 받아 가지고 내려왔다. 배 감찰 용환(容煥)에게 1만 냥을 빚 얻고, 진찬 기명 수가(受價) 1만 냥을 합한 2만 냥 속에서 1만 4천 냥은 도중에 들이고 6천 냥은 소임(所任)이 서울에서 썼다

492) 공작은 남양해도(南陽海島)에 놓아주도록 명하였다 : 이때 평의지는 공작 외에도 조총(鳥銃), 창도(槍刀) 등을 바쳤으므로, 조총은 군기시(軍器寺)에 두게 했으니, 우리나라에 조총이 있게 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고 하였다. 청병 3만여 명이 남양(南陽)에서 하륙(下陸)하여 지금 막 들어왔다고 하였다. 원 아래에 머물던 일병은 사천(沙川)으로 옮겨 갔다. 서울 사는 신(申) 오위장이 사기를 결복하려다가 서울에 변란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올라갔다.

二十二日 晴 京毛⁴⁹³一向無信奇 柱憲領債錢下來 裴監察容煥處一萬兩債得 進饌器皿受價一萬兩 合二萬兩內 一萬四千兩 入都中 六千兩 所任京中用下云 清兵三萬餘名 下陸於南陽 今方入來云 院底留日兵 移居于沙川 京居申五衛將 將結卜沙器 而聞京變上去
지규식(池圭植), <하재일기(荷齋日記), 하재일기 3 갑오년(1894) 6월>

문화/지리·경관

남양의 당은포가 중국 서적에 나오는 포의 하나라는 내용.

《이칭일본전》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제포(薺浦)는 경상도 웅천(熊川)에서 남쪽으로 5리 되는 곳에 있다. ○ 웅천의 내이포(乃而浦), 동래의 부산포(富山浦), 울산의 염포(鹽浦)를 삼포(三浦)라고 부른다.

진서가 삼가 살펴보건대, 중국의 서적에 나오는 포(浦)의 이름으로는 남양(南陽)의 당은포(唐恩浦) 【신라 성읍조(新羅城邑條)에 나온다】, 고성(固城)의 당포(唐浦), 울산의 임랑포(琳瑯浦), 거제(巨濟)의 옥포(玉浦)와 삼포(森浦) 【조선 강역조(朝鮮疆域條)에 나온다】, 지세포(知世浦) 【제수 총설조(諸水總說條)에 나온다.】가 있는데, 이미 앞에서 다 말하였으므로 이곳에 겹쳐 수록하지 않았다.

한치윤(韓致淵), <해동역사(海東繹史), 해동역사 속집 제14권 지리고(地理考) 14, 부록(附錄)>

문화/지리·경관

수도제강에 기록된 경기와 충청의 물길에 대해 기술한 내용.

○ 바다 【제수(諸水)의 총설(總說)을 덧붙인다.】

《수도제강(水道提綱)》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여기에서 또다시 동북쪽으로 가면 단산성(端山城) 【삼가 살펴보건대, 바로 서산성(瑞山城)의 잘못된 표기이다.】의 산 북쪽으로 지나는데, 조금 동쪽에 수구가 있으며, 수구의 서쪽이 바로 대부도(大富島)이다. 【물은 동쪽에 있는 청주(淸州)의 서쪽 큰 산에서 나오며, 전의(全義)의 동북쪽에 이르러서 서북쪽으로 흘러 천안성(天安城)의 동북쪽 경계를 경유한 다음 동북쪽에서 흘러온 물과 합류한다. 여기에서 다시 서쪽으로 흘러 안성(安城)과 양성(陽城)의 남쪽 경계를 지나고 또다시 서북쪽으로 흘러 직산성(稷山城)의 서북쪽 경계를 지나는데, 이곳에서 동남쪽에 있는 차현산(車見山)에서 나와 서북쪽으로 흘러오는 물과 합류한다. 여기에서 또다시 서쪽으로 흘러 진위(振威)의 남쪽과 평택(平澤)의 북쪽을 지난 다음 또 서북쪽으로 흐른다. 여기에서 북쪽에 있는 금천성(衿川城) 동북쪽의 관악산(冠岳山)에서 나와 서남쪽으로 흘러오는 물과 합류한다. 여기에서 또다시 서남쪽으로 흐르다가 꺾어져서 서쪽으로 흘러 수원성(水原城)의 남쪽, 아산성(牙山城)의 북쪽을 지난다. 여기에서 또다시 서북쪽으로 흐르면서 남쪽에서 흘러온 물과 합류한다. 여기에서 또다시 서남쪽으로 흘러 부평성(富平城)의 북쪽 경계를 지난다. 여기에서 서쪽에서 조금 북쪽으로부터 흘러오는 물이 합류하는데, 이 물은 동남쪽에 있는 신창(新昌)의 남쪽 산에서 나와 서북쪽으로 흘러 예산성(禮山城)의 북쪽 경계를 지나면서 서남쪽에 있는 가야산(加邪山)에서 흘러온 물과 만난 다음

493) 毛：耗

또다시 서북쪽으로 흘러 덕산성(德山城)의 북쪽 경계를 지나면서 서남쪽에서 흘러온 한 물과 합류하여서 다시 서북쪽으로 흐르면서 아산성의 서쪽, 면천성(沔川城)의 동북쪽을 지나 흘러오는 물과 이곳에서 합류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또다시 서쪽으로 흘러 면천성의 북쪽 경계를 지나고 또다시 서쪽에서 조금 북쪽으로 굽이굽이 흘러 남양성(南陽城)의 남쪽, 당진성(唐津城)의 북쪽을 지나 또다시 서쪽으로 흘러 수성의 남쪽에 이르러서 서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이 물은 발원지에서부터 500여 리를 흐른다. (…)] (…)

한치윤(韓致淵), <해동역사(海東譯史) 속집 제14권 지리고(地理考) 14, 산수(山水) 2 【경내(境內)의 수(水)】>

문화/지리·경관

경기 연해 지역에 있는 섬의 위치와 관할 지역을 정리한 내용.

○ 백령도(白翎島) 【대청도 서쪽에 있다】 · 교동도(喬桐島) 【강화부(江華府)의 서쪽에 있다】 · 각화도(覺華島) 【바로 강화도이다】 · 연자도(硯子島) 【상고할 수가 없다】 · 대부도(大富島) 【남양부(南陽府)의 서쪽에 있다.】

한치윤(韓致淵), <해동역사(海東譯史) 속집 제13권 지리고(地理考)13, 산수(山水) 1 【경내(境內)의 산(山)과 도서(島嶼)】>

문화/지리·경관

홍복원은 선조가 중국 사람인데 사는 곳을 당성이라 하였다는 내용.

○ 당성군(唐城郡)

《원사》 홍복원열전(洪福源列傳)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홍복원은, 그 선조는 중국 사람으로, 자손 대대로 삼한(三韓)에서 귀하게 되었는데, 사는 곳을 당성(唐城)이라고 이름하였다. 【삼가 살펴보건대, 당성은 지금의 남양부(南陽府)이다.】

한치윤(韓致淵), <해동역사(海東譯史) 속집 제11권 지리고(地理考)11 고려(高麗)2 성읍(城邑)>

문화/지리·경관

한치윤의 당은포와 당항성의 지리 고증.

《고려사》 열전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서희(徐熙)가 말하기를, “삼각산 북쪽은 고구려의 옛 땅이다.” 하였다.

진서가 삼가 살펴보건대, 백제의 동북쪽 변방은 바로 한양, 이천 등지이다. 이 당시에 신라가 이미 그 지역을 차지하였으므로 진흥왕이 순행하면서 북한산주에 이르러서 강역을 획정하였던 것이다. 북한산은 지금의 삼각산으로, 삼각산의 승가사(僧伽寺) 【경성(京城)에서 북쪽으로 10리 되는 곳에 있다.】 북쪽 산봉우리 위에 진흥왕순수비(眞興王巡狩碑)가 있다. 비문은 모두 12행인데, 마멸되어서 관독할 수가 없고, 관독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제1행에는 ‘진흥태왕 및 중신들이 순수할 때 기록한 것이다[眞興太王及衆臣等巡狩時記]’ 란 글이 있고, 제8행에는 ‘남천군주(南川軍主)’ 라는 글이 있으며, 세운 날짜는 상고할 수가 없다. 생각건대 이는 진흥왕 16년에 강역을 획정할 때 세운 것이며, 이곳이 고구려와 국경을 나눈 곳이다.

또 살펴보건대, 이 당시에 신라에서 당나라와 통하는 길은 매년 당은포(唐恩浦), 당항성(棠

項城) 등지를 경유하는데, 당은포는 바로 남양부(南陽府)이고, 당항성은 바로 안산군(安山郡)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성읍조(城邑條)에 나온다.】 그렇다면 신라의 서쪽과 북쪽 경계는 충주, 이천에서 안산, 남양의 바다에 이르는 지역으로,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한치윤(韓致彥), <해동역사(海東繹史)속집 제7권 지리고(地理考)7, 신라(新羅) 강역총론(疆域總論)>

문화/지리·경관

중국으로 가는 해로와 서해의 주요 지역에 대한 고증.

살펴보건대 육조(六朝) 시대 때에는 백제와 신라가 모두 해로(海路)를 경유하여 조공하였으며, 고구려 역시 바다를 건너서 남조(南朝)와 통교하였다. 요사렴(姚思廉)이 말하기를, “진(晉)나라 때부터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 온 동쪽의 사신 가운데 고구려와 백제가 있다.” 하였고, 호삼성(胡三省)은 말하기를, “진나라 때에는 건강(建康)에서 대강(大江)으로 나가 바다에 도달한 다음 요각(料角)을 돌아 등주(登州)의 큰 바다에 이르렀다.” 하였다. 대개 남조가 고구려와 통교할 때 이 길을 경유하였으니, 후위(後魏)의 정광(正光) 초기 때 광주부(光州府)가 바다에서 소량(蕭梁)이 제수한 고구려의 사신들을 붙잡은 것 등이 이것이다.

당나라 때에는 신라와 발해 등 여러 나라도 모두 바다를 건너와서 조공하였는데, 신라는 지금의 남양(南陽) 덕물도(德勿島)와 풍천(豐川)의 초도(椒島)가 모두 중국과 왕래하는 문호였고, 발해의 경우는 서경(西京)의 압록부(鴨渌府)에서 배를 띄워 등주에 도달하였다.

(…) ○ 등주(登州)에서 동북쪽으로 바다로 나아가 대사도(大謝島), 구흠도(龜歙島), 어도(淤島), 오호도(烏湖島)⁴⁹⁴를 지나는데 300리, 북쪽으로 오호해(烏湖海)를 건너서 마석산(馬石山) 동쪽의 도리진(都里鎭)까지 가는 데 200리, 동쪽으로 바닷가를 따라 청니포(靑泥浦), 도화포(桃花浦), 행화포(杏花浦), 석인왕(石人汪), 탁타만(橐駝灣), 오골강(烏骨江)까지가 800리이다. 이어 남쪽으로 바닷가를 따라서 오목도(烏牧島), 패강구(貝江口) 【삼가 살펴보면 대동강(大同江)이다.】, 초도(椒島) 【삼가 살펴보면 대 동도는 지금의 풍천부(豐川府)에 있다. 부에서 서남쪽으로 25리 되는 곳에 있는 광석산(廣石山) 아래에 당나라 관소(館所)의 옛터가 있는데, 세상에 전하기를, 중국의 사신들이 바다를 건너서 왕래하던 곳이라고 한다.】를 지나면 신라 서북쪽의 장구진(長口鎭)에 도달한다.

또 진왕석교(秦王石橋), 마전도(麻田島), 고사도(古寺島), 득물도(得勿島) 【삼가 살펴보면 대 덕물도(德勿島)로, 지금 남양(南陽)의 바다에 있다. 지지(地志)에 상세히 나온다.】를 경유하여 1000리를 가면 압록강⁴⁹⁵과 당은포(唐恩浦)에 이르고, 이어 동남쪽으로 육로를 통해 700리를 가면 신라의 왕성(王城)에 도달한다. 【《신당서(新唐書)》 ○ 삼가 살펴보면 당은포는 지금의 남양부(南陽府)의 바다 포구이다. 신라의 왕성은 지금의 경주(慶州)이다. 지지의 신라 조에 상세히 나온다.】

한치윤(韓致彥), <해동역사(海東繹史), 제40권 교빙지(交聘志) 8,海道(海道)>

문화/지리·경관

1884년(고종 21) 11월 박대양이 일본으로 가는 길에 남양에서 출발하여 수원에 도착하여 숙박하였는데 수원유수가 맞아주었다는 내용.

494) 오호도(烏湖島) : 《신당서》 권43 하에는 오호도 앞에 말도(末島)가 있다.

495) 압록강 : 한강(漢江)을 잘못 표기한 듯하다.

18일 맑음. 남양을 떠나 55리의 수원에 도착하여 숙박하였다. 유수(留守) 김기석(金箕錫)이 나와 맞아주었다.

晴. 自南陽離發. 抵水原五十里止宿. 留守金箕錫出見.

박대양(朴戴陽), <동사만록(東槎漫錄), 日記 十一月 十八日>

문화/지리·경관

1882년(고종 19) 8월 박영효가 일본에 수신사로 갈 때 인천을 떠나 남양 앞바다에서 하루 묵었다는 내용.

22일 맑음. (….) ○ 부산 가는 배편에 임금에게 올리는 장계를 보냈다.

절충장군 행용양위 부호군 전권부관 겸 수신부사(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全權副官兼修信副使) 신 김만식(金晩植)과, 상보국승록대부 특명전권대신 겸 수신사(上輔國崇祿大夫特命全權大臣兼修信使) 신 박영효(朴泳孝)가 이달 초 9일 손시쫄 되어 인천부 제물포(仁川府濟物浦)로부터 배를 타고 떠난 사유는 이미 등문(登聞)하였거니와, 바로 그 날에 닻을 멈추고는 남양(南洋)의 바깥 바다에 지숙(止宿)하옵다가 이튿날 아침에 배를 출발시켜, 12일 사시쫄 되어서 일본의 적마관(赤馬關)에 도착하여 닻을 내렸습니다. 신 등 일행은 육지에 내려와 조금 쉬었다가 술시쫄 되어서 다시 배를 띄워 14일 묘시쫄에 신호(神戶)에 도착하여 육지에 내려 점사(店舍)에 지숙하면서 기선(汽船)이 도착하기를 기다려 동경을 향해 떠나려고 생각합니다. 본국의 국기를 새로 만드는 일은, 이미 처분이 있으셨기에 지금 이미 대기(大旗)·중기(中旗)·소기(小旗) 3본(本)을 만들었는데, 그 소기(小旗) 1본(本)을 올려 보내는 연유(緣由)를 치계(馳啓)합니다. (….)

晴 (….) ○釜山船便修上狀啓.

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全權副官兼修信副使臣金晩植上輔國崇祿大夫特命全權大臣兼修信使臣朴泳孝, 本月初九日巽時量. 自仁川府濟物浦, 發船之由, 已爲登聞爲白有在果, 當日留碇, 止宿于南陽外洋是白如可, 翌朝行船, 至十二日巳時量, 到日本赤馬關下碇, 臣等一行, 下陸少憩, 戌時量, 復啓輪, 十四日卯時量, 至神戶下陸, 仍爲止宿于店舍, 待汽船來到, 發向東京計料爲白乎脉, 本國國旗新製事, 既有處分, 故今已造就大中小旗三本, 而其小旗一本, 上送緣由, 馳啓爲白臥乎事, 是良爾詮次, 善啓向教是事.(….)

박영효(朴泳孝), <사화기략(使和記略), 使和記略 八月 二十二日>

(4) 예술

문화/예술

해주의 검은 기장과 남양의 경석으로 세종이 음악을 바로 잡았다는 영조의 하교

○ 영종조에 하교하기를, “세종조에 해주(海州)에서 나는 검은 기장과 남양(南陽)에서 나는 경석(磬石)으로 마침내 명신(名臣)과 함께 찬란한 제작의 꽃을 피웠다. 우리나라에 음악이 없었던 적이 없었는데, 다만 지금은 성률(聲律)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고, 번거로운 음률과 빠른 가락은 또한 조종(祖宗)의 예스러움이 아니다. 또 ‘여민락(與民樂)’과 같은 곡은 그 소리가 길게 늘어져 옛날에는 동서의 궁궐을 왕래하는 동안에도 오히려 일장(一章)의 남은 소리가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예절로 말한다면 우리 왕조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는 바로 명나라의 《대명집례(大明集禮)》인 셈인데, 조정에는 그것을 익혀 아는 자가 없고 무릇 대례(大禮)가 있으면 한결같이 통례원(通禮院)의 아전에게 맡겨 그 사적인 소견으로 전도시키고 변란하게 하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는가. 조정에 있는 선비들이 문호(門戶)를 나누어 할거하며 싸움만을 일삼고 다시는 스승을 두지 않으니, 스승의 화평한 기운과 예악은 진작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이유원(李裕元), <임하필기(林下筆記)>, 제10권 전모편(典謨編), 예악(禮樂)>

문화/예술

남양에서 나는 돌로 편경을 만들었다는 내용.

예문관 대제학 유사눌(柳思訥)⁴⁹⁶이 조제아악보(朝祭雅樂譜)의 서문에 이르기를,

“지금까지 봉상시(奉常寺)의 악기(樂器)는 고려 예종(睿宗) 때 송(宋)나라 휘종(徽宗)이 하사한 편종(編鍾)과 공민왕(恭愍王) 때 고황제(高皇帝)가 하사한 종(鐘)과 경(磬) 모두 10여 매(枚) 및 우리 본조(本朝)에 또 태종 문황제(太宗文皇帝)가 하사한 종과 경 수십 매뿐이었다. 이제 그 소리를 인하여 편종을 만들고 좋은 돌을 남양(南陽)에서 구하여 편경(編磬)을 만들었으며, 그 소리에 의하여 동률(銅律)을 주조하였다. 그러나 그 율관(律管)이 약간 길어 기장[黍]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 고척(古尺)에 맞지 않을 듯하였다. 그래서 그 자[尺]를 쓰지 않았고, 여러 악기를 모두 알맞게 제작하면서 다만 그 율관을 남겨서 조음(調音)에 편리하게 하였다. (…)”

이유원(李裕元), <임하필기(林下筆記)>, 제20권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아악보(雅樂譜)의 서문(序文)>

문화/예술

해주의 거서와 남양의 경석으로 악제를 정하였다는 내용.

○ 원우(元祐) 초에 양강공(楊康功)이 고려에 사신으로 가게 되었는데, 채원도(蔡元度)가 말하기를, “고려의 경(磬)이 소리가 몹시 좋다고 하니, 돌아올 때 번거롭겠지만 꼭 한 개를 가져다주기 바란다.” 하였다. 양강공이 돌아올 때 경을 채원도에게 가져다주었다. 【《휘주록(揮麈錄)》】

살펴보건대, 《국조보감(國朝寶鑑)》 세종조(世宗朝)를 보면, 남양(南陽)에서 경석(磬石)이 나오고 해주(海州)에서 거서(秬黍)가 나오자, 이것으로 악제(樂制)를 정하였다.⁴⁹⁷ 그러자

496) 유사눌(柳思訥) : 《세종실록(世宗實錄)》 12년 윤12월 1일 조에는 정인지(鄭麟趾)가 명령을 받들어 서(序)를 지었다고 하였다.

사람들이 성스러운 세상에 상서로운 징조가 나타난 것이라고 하였다. 송나라 때 고려의 경(磬)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상은 고려의 악제와 악기이다.

한치윤(韓致淵), <해동역사(海東譯史), 제22권 악지(樂志), 악제(樂制)와 악기(樂器)>

문화/예술

악기도감에서 경기 감영에게 보낸 문서로, 경모궁 악기로서 석경을 만들 옥을 채취하기 위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내용.

병신 9월 일 경기 감영에게.

하나. 악기도감이 상고하게 하는 일. 지금 왕께서 계하(啓下)하신 내용 중에 ‘경모궁 악기 중 석경(石磬)을 만들 옥을 남양부에서 채취해야 하는데, 일이 지극히 번다하고 사안이 매우 중요하니 별도로 낭청을 파견하여 캐도록 해야 할 것이나, 주전(廚傳)⁴⁹⁸의 폐단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본도(本道)로 하여금 별도로 차사원(差使員)을 정해 남양 부사와 함께 이달 보름 전까지 채굴하도록 하되, 만약 추운 겨울이 닥치면 채취에 방해가 될 터이니 속히 거행하라는 뜻을 신칙(申飭)하여 기한을 정해 채취하여 계속 서울로 올려 보내도록 하고, 옥장(玉匠) 1명에게 전례대로 말을 지급해서 내려 보낼 것을 병조와 경기 감영에 분부하심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아뢴 것에 대해 ‘윤택한다’ 라고 계하하셨으니, 계하 내의 뜻을 잘 받들어 시행함이 마땅한 일임.

丙申 九月 日 京⁴⁹⁹監了⁵⁰⁰

一.爲相考事.⁵⁰¹節啓下教, ‘今此景慕宮樂器中, 石磬之玉, 採取於南陽府, 而公役浩多事體且重, 所當別遣郎廳探來, 而但廚傳之弊, 不可不慮. 令本道別定差使員與南陽府使眼同, 趁今月望前掘探, 而若值嚴冬, 則似妨採取, 斯速舉行之意亦爲申飭, 使之刻期掘出, 連續上送, 而玉匠一名, 依例給馬下送事, 分付兵曹圻營, 何如? 傳曰, 允事’ 啓下爲有置, 啓下內辭意, 奉審施行, 宜當向事.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景慕宮樂器造成廳儀軌), 移文秩>

497) 남양(南陽)에서 …… 정하였다 : 《국조보감》 권6 15년 조에 “고려 예종 때 휘종(徽宗)이 하사한 제악(祭樂)이 홍건적(紅巾賊)의 난에 모두 산실되고, 어떤 늙은 영인(伶人)이 연못 속에 던져 넣었던 종(鍾)과 경(磬) 2개만 남아 있었다. 명나라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와 태종 문황제(太宗文皇帝)가 모두 악기를 하사하였으나 소리가 맞지 않았다. 을사년에 거서(柘黍)가 해주(海州)에서 나오고 경석(磬石)이 남양에서 나오자, 박연(朴堧)에게 명하여 편경(編磬)을 만들도록 명하였다. 이에 박연이 해주의 거서를 가져다가 채워 넣어서 옛 설(說)에 의거해 황종(黃鍾) 한 관(管)을 만들어 붙였는데, 그 소리가 중국의 황종보다 조금 높았다.” 하였다. 거서는 검은빛이 나는 기장을 말한다.

498) 주전(廚傳) : 지방에 나가는 관원에게 경유하는 역참에서 음식과 거마를 제공하는 것.

499) 京 : 흔히 서울을 뜻하는 ‘京’과 구분하여 경기도의 뜻으로 사용되었음.

500) 了 : 예. 처소격 조사. 《한국고문서연구》, 189쪽.

501) 爲相考事 : ‘爲’자 앞에는 주체인 ‘악기도감’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 전사(傳寫) 과정에서 생략된 것으로 판단된다.

IV. 남양(南陽) | 문집류

1. 정치(政治)

(1) 왕실

정치/왕실

1789년(정조 13) 원침(園寢)을 옮긴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남양의 객사 뒤도 후보지였다는 내용.

수원(水原)으로 계획을 정한 지가 오래되었고, 이 밖에 열성조(列聖朝)께서 봉표(封標)한 곳이나 세상에서 대지라고 일컫는 곳을 여러 술사(術士)들의 말을 통해 그 대략을 살펴보니, 논의한 바가 일정하지 않고 산도 또한 우열이 있었다. 건원릉(健元陵)의 왼쪽 능선, 정릉(貞陵)의 화소(火巢) 바깥, 헌릉(獻陵)의 이수동(梨樹洞)·옹암동(甕巖洞)·화암동(花巖洞), 영릉(英陵)의 능 안과 소홍제동(小弘濟洞) 재실(齋室) 뒤의 능선, 장릉(長陵)의 네 번째 능선, 순릉(順陵)의 재실 뒤 두 능선, 옛 목릉(穆陵)의 오른쪽 능선, 숭릉(崇陵)의 오른쪽, 옛 영릉(寧陵)의 백호 능선 바깥과 청릉 능선 가의 유방(酉方) 기슭, 경릉(敬陵) 국내의 간방(艮方)과 묘방(卯方) 두 능선, 창릉(昌陵)의 왼쪽 능선, 홍릉(弘陵)의 오른쪽 능선, 연희궁(衍禧宮)의 간방(艮方) 기슭, 연서정(延曙亭) 터, 벌어현동(伐於峴洞)의 맞은편 국내(局內), 왕십리(往十里) 건방(乾方)의 능선, 독서당(讀書堂)의 서쪽 기슭, 양주(楊州)의 북쪽 30리 남쪽으로 향한 기슭·녹양역(綠楊驛) 터의 서쪽·청송면(靑松面) 유방(酉方)의 기슭·석우리(石隅里)의 윤씨산(尹氏山)·평구역(平丘驛) 동쪽 10리 서쪽으로 향한 기슭·불암산(佛巖山) 아래 화접동(花蝶洞), 광주(廣州)의 원적산(元積山)·향교 뒤의 기슭과, 양재(良才) 대로현(大路峴)의 북쪽에 있는 방하교(方河橋)의 서북향, 광교산(光敎山) 서쪽 기슭의 한 능선, 남양(南陽)의 객사(客舍) 뒤, 교하(交河)의 월룡산(月籠山)·와동(瓦洞)과 객사(客舍) 뒤, 고양(高陽)의 해구(海口), 영평(永平)의 근주산(近住山) 유방(酉方)의 기슭, 적성(積城) 감악산(紺嶽山) 아래 임좌(壬坐)의 기슭, 금천(衿川)의 남쪽 자하동(紫霞洞), 적성(積城)과 마전(麻田) 길의 경계가 되는 고개 건너 능선의 여러 곳 등등은 하나도 합당한 곳이 없고, 장단(長湍)의 백학산(白鶴山) 아래 세 곳은 국세(局勢)와 용맥(龍脈)이 혹 좁고 작으며 혹 조금 완만하기도 하였다. (…)

水原之爲定計久矣.而外此列朝所封標及世所稱大地.因諸術士之言.得其大槩所論自多參差.山地亦有優劣.若健元陵左一岡.貞陵火巢外.獻陵梨樹洞.又甕巖洞.又花巖英陵陵內.又小弘濟洞齋室後岡.長陵第四岡.順陵齋室後二岡.舊穆陵右岡.崇陵右邊.舊寧陵白虎外.又靑龍邊西麓.敬陵局內卯艮二岡.昌陵左岡.弘陵右岡.衍禧宮艮麓.延曙亭址.伐於峴洞對局.往十里乾岡.讀書堂西麓.楊州北三十里南向之麓.又綠楊驛基西.又靑松面西麓.又石隅尹家山.又平丘驛東十里西向之麓.又佛巖山下花蝶洞.廣州元積山.又鄉校後麓.又良才大路峴北方河橋西北向.又光敎山西麓一岡.南陽客舍後.交河月籠山.又瓦洞.又客舍後.高陽海口永平近住山西麓.積城紺嶽山下壬麓.衿川南紫霞洞.積城麻田路界峴越岡諸處.無一恰當.長湍白鶴山下三處.局勢龍脈.或狹小或微緩.(…)

<홍재전서(弘齋全書), 제57권 잡저(雜著) 4, 遷園事實 【一〇己酉】, 定園第一>

(2) 사법

정치/사법

1824년(순조24) 경기도 남양에서 과거시험의 부정이 있었다는 내용.⁵⁰²⁾

(…) 올해 과장(科場)에 사단이 생긴 것은 단지 서울의 일소만이 아니라 각 도에서도 모두 그러하였으니, 내가 들은 것으로 말해보겠다.

강원도에서는 감시 초시의 합격자 명단을 발표할 때 유생 무리가 소란을 피우고자 하였으나 그러지 못하자, 심지어는 비국(備局 비변사)에 정소(呈訴)하여 합격자 명단에서 삭제해야 할 사람을 삭제해 줄 것을 청하였다. 또 태학에 통문(通文)을 보내 벌을 내릴 것을 청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고 하며, 또 그 공도회(公都會)⁵⁰³⁾ 복시 때에는 도내의 수령을 시관으로 삼았는데, 저마다 사심을 가지고 자기주장만 내세워 끝내 과장(罷場)에까지 이르자 도백(道伯 관찰사)이 장계를 올려 세 시관을 파직하였다고 한다.⁵⁰⁴⁾ 경기도의 공도회 초택(初擇) 때 남양(南陽) 또한 과장이 소란스러운 것 때문에 파장하였다고 한다. 이 밖에 아직 듣지 못한 것이 또 반드시 있을 것이니,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시관의 죄인가? 유생의 죄인가? (…)

(…) 今年科場生事.不但京中一所而已.各道皆然.以所聞言之.江原道則監初出榜也.儒生輩欲作挈而不果.至於來呈備局.請拔榜中當拔者.又送通文於太學.請施罰而皆見却.其公都會覆試也.以道內守令爲試官.而各懷私相撕.竟至罷場.道伯伏罷三試官.京畿都會初擇也.南陽則以亂場亦罷場云.其外所未聞者.又必有之.此何故也.試官之罪歟.儒生之罪歟.(…)

윤기(尹愔), <무명자집(無名子集), 無名子集文稿冊十四 [文], 記甲申科事>

502) 1824년(순조24) 저자가 84세 때 쓴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해 8월에 실시한 감시 초시에서의 부정 행위를 고발하고, 아울러 같은 해 실시한 대과 초시 때 대책(對策)의 장원으로 뽑힌 영남 유생 권헌팔(權憲八)의 글 중에 세태를 풍자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 합격을 취소한 일을 비판하고 있다.

503) 공도회(公都會) : 각 도의 도사(都事)와 개성부·강화부의 유수(留守)들이 매년 그 지방 유생들에게 보였던 시험으로, 제술(製述)과 고강(考講)으로 구분하여 보였는데, 합격하면 식년 생원진사시 복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초택(初擇)과 복시(覆試)가 있다. 《大典通編 禮典 諸科 公都會》

504) 도백(道伯)이 …… 한다 : ‘도백’은 강원 감사 윤명렬(尹命烈)을 이른다. ‘세 시관’은 상시관(上試官)인 춘천 부사(春川府使) 김희화(金熙華), 부시관(副試官)인 영월 부사(寧越府使) 유이환(兪理煥), 참시관(參試官)인 은계 찰방(銀溪察訪) 이병덕(李秉德)을 이른다. 《承政院日記 純祖 24年 11月 2日》

(3) 군사

정치/군사

병자호란 때 이원익이 분조하여 세자(世子)를 남양(南陽)을 경유하여 강화도로 가게 하자고 주장한 내용.

(…) 상이 강도(江都)로 가려다가 급히 남한산성으로 달려 들어갔다. 여러 장수와 재상들이 모두 말하기를,

“산성이 비록 험하더라도 비축된 양곡(糧穀)이 적고 사람들이 굳은 의지가 없으니 지킬 수 없다.”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급히 신경진(申景禎)에게 명하여 적중을 가로질러 뚫게 하고 상이 강도로 들어가 보전하는 것이 온전한 계책이다.”

하였다. 이튿날 상이 동문(東門)을 통해 일찍 나왔다가 상이 문득 심장이 두근거려 이에 중지하였다. 공이 또 상에게 분조(分朝)할 것을 권하기를,

“세자(世子)가 경기(京畿)로부터 달려가면 하루면 남양(南陽)에 닿을 수 있습니다. 급히 강도로 들어가 보전하여 양쪽으로 버티는 형세를 이루면 나라를 위한 좋은 계책으로 이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강도도 보전하기 어렵습니다.”

하였는데, 의논이 분분하여 결정되지 못하니 이에 중지하였다. (…)

(…) 車駕將行江都.急馳入南漢.諸將相大臣皆曰.城雖險.積粟少.人無固志.不可守也.公曰.急令申景禎截賊路.車駕入保江都.萬全計也.明日.上從東門早出.上忽心動乃止.公又勸上分朝.世子從京畿.疾馳一日.可至南陽.急入保江都.以成犄角之勢.國之長計.無善於此也.不然.江都亦難保也.諸議論不定乃止. (…)

허목(許穆), <기언(記言), 기언 별집 제23권 구묘문(丘墓文), 李相國墓誌銘>

정치/군사

송준길이 지은 조익의의 시장으로 병자호란 때 남양부사 윤계 등과 의병활동을 하였던 일화를 기술한 내용.

(…) 12월에 변방의 급보(急報)가 이른 지 며칠이 되지 않아 적의 기마유격대(騎馬遊擊隊)가 이미 경기를 위협하였다. 성상께서 강도로 거동하려 하셨다. 공은 참판 여이징(呂爾徵)에게 종묘, 사직과 숙녕전(肅寧殿)의 신주를 모시고 먼저 떠나게 하고, 공은 스스로 어가(御駕)를 호종(扈從)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윽고 숙녕전의 신주는 먼저 모셔 내어 출발하였으나 종묘의 신주는 모셔 내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대신이 놀라 공에게 가보라고 하였다. 공이 가서 보니 막 모셔 내고 있었다. 공은 그 신주를 모시고 드디어 뒤쫓아가서 참판과 만나 한곳에 모셔 놓은 뒤에 돌아와서 어가를 호종하려 하였다. 이때 노병인(老病人)은 먼저 떠나라는 전교가 내리니, 공은 아들 진양(進陽)에게 의정공(議政公)을 모시고 먼저 강도로 떠나도록 하였다. 그런데 진양이 길가에 엎드려 있다가 의정공을 잃은 것을 보고는 공은 정신없이 소리내어 울며 의정공을 찾기 위해 분주히 돌아다녔다. 이튿날 김포(金浦)에 도착하여 비로소 대가(大駕)가 남한산성으로 가셨다는 말을 듣고는 산성으로 가고자 하였으나 길이 막혀 들어갈 수가 없었다. 공은 방황하며 통곡하다가 의병을 모아 임금을 위해 힘을 생각으로 남양 군수(南陽郡守) 윤계(尹槩)와 함께 조관(朝官)으로 호종하지 못한 참의 심지원(沈之源), 승지 김상(金尙), 정(正) 이시직(李時稷), 교리 윤명은(尹鳴殷) 등과 만나 상의하여, 공이 대

장이 되고 심지원과 윤계 등이 참좌(參佐)가 되기로 하였는데, 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윤계가 적에게 잡혀 죽었다. 공은 화량(花梁)의 바닷가로 가서 공사(公私)의 선척(船隻)을 모아, 남녀들을 모두 섬으로 건너보내어 수만 명을 살렸다. 그리고는 호서(湖西)로 가서 의병을 모집하려 하였으나, 호서가 이미 혼란하다는 소문을 듣고는 강도로 들어갔다. 얼마 되지 않아 적병이 도강(渡江)하니 공은 갑진(甲津)으로 나아갔다. 적이 먼저 대포를 어지러이 쏘아대니 감히 강기슭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공은 홀로 몇 사람과 더불어 강기슭 가에 앉아서 포화(砲火)가 우렛소리를 내며 날아와서 좌우에 번갈아 떨어지는데도 안색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적병이 이미 강기슭으로 올라오는데도 금작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두 아들 몽양(夢陽)과 진양이 피하기를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으니, 두 아들은 사태가 너무 급하여 공을 안고 절벽 밑으로 떨어졌다. 그때 마침 공을 따르던 장사(壯士)가 작은 배 한 척을 구하여 공을 거드랑에 끼고 배에 태웠는데, 적의 칼날이 거의 미치려는 찰나에 키를 틀어 출발하였다. (…)

(…) 十二月.邊遽至不日.而游騎已薄圻輔.上將幸江都.公令參判呂爾徵奉廟社及肅寧殿神主先行.公自擬扈駕.俄聞殿主先出.而宗廟主不得發.大臣驚.令公往.至則纔奉出矣.遂追往.欲與參判相遇.陪奉一處.然後退而從駕.是朝上有老病人先往之教.公令男進陽奉議政公先向江都矣.忽見進陽扶服路左.與議政公相失.公遑遑號泣.奔走求尋.翌日.到金浦.始聞大駕移向南漢.欲尋山城路.路塞不得入.公彷徨痛哭.謀聚義師.爲勤王計.乃與南陽守尹榮及朝士之未及扈隨者沈參議之源.金承旨尙.李正時稷.尹校理鳴殷會議.公爲大將.沈.尹等爲參佐.事未集.榮被執而死.公乃至花梁海上.收聚公私舡.盡濟士女于島中.所全活累萬人.欲往湖西募兵.聞湖西已搶攘.乃入江都.亡何.敵兵渡江.公出至甲津.敵先以大砲亂放.江岸人無敢出者.公獨與數人坐岸上.砲火雷飛.交落左右.色不變.敵已登岸.安坐不動.二子夢陽.進陽請避去.不從.二子急抱持墜崖下.適有從行壯士得小舡.掖公以登.賊鋒幾及而柁纔發矣.(…)

송준길(宋浚吉), <동춘당집(同春堂集)>, 제22권 시장(諡狀),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世子傳浦渚趙公諡狀>

정치/군사

송준길이 지은 이시적의 행장으로 병자호란 당시 조익, 윤명은, 윤계 등과 의병을 모집해서 항거했던 활약을 기술한 내용.

(…) 이때 부군께서는 서문(西門) 밖에 거처하고 계셨는데, 변란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가서 남문을 들어서자, 성상께서는 이미 나가시고 문도 이내 닫혔으므로 부군께서는 나오실 수 없었다. 땅거미가 질 무렵에 동문이 잠시 열리므로 부군께서는 즉시 달려 동교(東郊)에 도착하니 밤이 이미 깊었다. 이날이 14일 갑신이었다. 이튿날 새벽에 광나루를 건너 행재소(行在所)로 가려 하셨는데, 이때 적이 화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피니 조정은 그 말을 믿고 호조 참의 남선(南銑)을 보내어 뇌물을 주고서 화친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는 남공(南公)이 도중에서 부군을 만나 말해 준 것이다. 남공은 또 성상께서 강도로 옮기려고 이미 남한산성을 떠났다고 하였다. 부군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는 길목에서 성상을 기다릴 생각으로 즉시 말 머리를 돌려 과천(果川)을 향해 떠나셨는데, 노량진(露梁津)에 도착하니 뒤쳐진 재상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이곳에서 비로소 성상께서 강도로 옮길 계획을 중지하였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부군께서 제공(諸公)에게 “어디로 가겠는가. 죽음을 무릅쓰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하니, 제공이 모두 “종묘·사직의 신주와 빈궁(嬪宮) 및 여러 대군(大君)이 다 강도로 들어갔으니, 강도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부군께서는 몹시 분개하며 “지금 임금님이 어디에 계신데, 일신의 안일을 생각하는가.” 라고 하고는 홀로 말을 몰아 다시 남한산성을 향해 길을 떠나셨는데, 적군이 이미 사방에 널려 있었다. 도중에서 갑자기 적군을 만나 거의 위험에 빠졌다가 겨우 탈출하여, 사잇길로 용인(龍仁) 경계에 이르러 뜻밖에 가족들과 만났다. 불초(不肖)한 내가 눈물을 흘리며 “사태가 매우 급박하여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 남쪽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민(士民)을 격려하고 의병을 고무하여 후일을 도모해도 늦지 않습니다.”라고 아뢰자, 부군께서는 준엄한 말씀으로 거절하시고는 옷깃을 뿌리치고 가족들과 작별 인사도 하지 않으시고 떠나시어, 드디어 남한산성의 동문(東門)으로 향하셨다. 그러나 이미 도로가 막혀 들어갈 수 없자, 부군께서는 통곡하고서 부득이 발길을 돌려 수원(水原)을 경유해 장차 강도로 들어가서 참의 심지원(沈之源), 수찬 이일상(李一相), 풍덕 군수(豐德郡守) 이공 성연(李公聖淵) 등과 더불어 호서(湖西)·호남(湖南)에 격문(檄文)을 지어 보내어 그곳 사람들을 고무시키려 하셨다. 남양(南陽)에 당도하니 판서 조익(趙翼)과 교리 윤명은(尹鳴殷)이 이미 먼저 와서, 부백(府伯) 윤공 계(尹公槩)와 의병을 모아 임금의 위급함에 달려가기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부군께서도 그곳에 머물면서 그 일을 함께 하기로 하셨다. 그런데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부백이 갑자기 적을 만나 절개를 굽히지 않고 죽으니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부군만은 홀로 정색하고서 “옛말에 남아는 깨끗하게 죽는다고 하였으니, 지금 윤신백(尹信伯 윤계)이 그렇게 죽었다. 한 번 외로운 남한산성을 바라보라. 지금이 어찌 신하가 구차히 살기를 구할 때인가.” 라고 하셨다. (…)

(…) 府君居第在西門外.聞變馳赴.纔入南門.則上已出旋閉門.府君不得出.薄暮東門乍啓.府君即馳到東郊.夜已深矣.實十四日甲申也.翌曉渡廣津.將赴行在.時賊陷以和.朝廷信之.遣戶曹參議南銑.俾賂貨以成好.南公路逢府君以是說.且言上將移駐江都.已發南漢.府君即旋馬向果川.要候於路.行到露梁津.落後諸宰多有會者.始聞上輟移駐計.府君謂諸公曰.尙何歸耶.願冒死入山城云.則諸公皆以爲廟社主嬪宮及諸大君.皆入江都.向江都亦計也.府君憤然曰.君父安在.忍爲便身圖耶.獨策馬更向山城路.則賊已散漫.途中猝遇賊.幾危僅脫.問道至龍仁境.與家屬邂逅.不肖孤泣白事已急矣.不奈何.請歸南鄉.激勵士民.鼓義師圖後效未晚也.府君嚴辭峻拒.拂衣去.不與家人別.遂轉向山城東門.則路塞不得入.府君乃痛哭.不獲已回取水原路.將趨江都.與沈參議之源, 李修撰一相, 豐德守李公聖淵.草檄兩湖.以鼓舞之.行到南陽.趙判書翼, 尹校理鳴殷已先往.與府伯尹公槩.謀聚義旅.誓赴主危.府君亦留與共事.未就緒而府伯猝遇賊.不屈而死.人莫不哀之.府君獨正色曰.古語有之.男兒明白而死.尹信伯今得之矣.試望南漢孤城.此豈人臣苟活之日耶.(…)

송준길(宋浚吉), <동춘당집(同春堂集), 제20권 행장(行狀), 通訓大夫奉常寺正竹窓李公行狀【代作】>

정치/군사

1675년(숙종 1) 윤중이 지은 조복양의 행장으로, 그의 부친 조익이 병자호란 때 남양에서 의병을 모아 항거했던 일화를 소개한 내용.

(…)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문효공이 남양(南陽)에서 의병(義兵)을 모았다. 이때 근왕병(勤王兵)이 이르지 않았는데 충청 감사 정세규(鄭世規)만이 군사를 거느리고 곧장 나아가니, 들은 사람이 모두 기뻐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남한산성(南漢山城)이 아주 험준하므로 오랑캐가 창졸간에 범하기 쉽지 않으니, 지금은 제도(諸道)의 군사가 모두 모이기를 기다려 선두와 후미가 서로 이어진 상태로 일시에 일제히 나아가야 한다. 만약 각기 고군(孤軍)을 이끌고 나아가 싸워서 한 무리의 군사는 패퇴하

고 한 무리의 군사는 진격한다면, 이것은 고기를 호랑이에게 던져 주는 격이니, 무슨 공이 있겠는가.”

하였는데, 마침내 공이 헤아린 대로 되었다. 남양의 전쟁에서 패하자, 문효공은 강도(江都)에 들어갔다. (…)

公諱復陽.字仲初.號松谷.文孝公之第三子也.(…) 丙子變作.文孝公糾義旅於南陽.時勤王兵無至者.獨忠清監司鄭世規領兵徑進.聞者皆喜.公曰南漢絕險.虜非易猝犯.今諸道兵俟其俱會.首尾相連.一時齊進可也.若各以孤軍進戰.一軍敗而一軍進.是以肉投虎.何功之有.卒如公所料.南陽敗.文孝公入江都. (…)

윤증(尹拯), <명재유고(明齋遺稿), 제45권 행장(行狀), 吏曹判書松谷趙公行狀【乙卯】>

정치/군사

1597년(선조 30) 3월 유성룡이 남양 화량의 수영을 강화나 덕포로 옮기자고 제안하는 내용.

(…) 신이 또한 경기 수사 이사명(李思命)의 말을 들으니, 남양(南陽) 화량(花梁)에 있는 수영은 서울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만일 풍세가 순조롭지 못하면 여러 날 배를 타고 오더라도 한강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고, 또 소속한 수군들이 멀리 여주·이천·지평의 사이에 있는 자는 수영과의 거리가 역시 멀어서 사변을 듣고 징집하여 모으기에 사세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신이 이 일로 인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니, 수사(水使)를 강화나 덕포 등의 처소로 나아가 주둔시키면 경성이 조금 가까워 군사들을 조발하여 진격하기에 편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화·교동의 수륙군(水陸軍)을 우선 수군에 함께 예속시키도록 명령하여 농사짓는 틈틈이로 수전을 가르치고 검열하여 유사시에 이 군사들로 곧 배를 타고 나아가 싸우게 하면, 이는 그곳에 살고 있는 군사들이므로 실로 왔다 갔다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서도 한 번 소집하는 명령을 듣고는 아침에 출발하면 저녁에 도착할 것입니다. (…)

(…) 臣又聞京畿水使李思命之言.以爲水營在南陽, 花梁.距京頗遠.若風勢不順.則累日行船.不達京江.又所屬水軍遠在驪州, 利川, 砥平之間者.距水營亦遠.聞變調集.勢未易聚云.臣因此參詳.則水使進駐於江華, 德浦等處.稍近京城.以便調進.江華喬桐水陸軍.姑令合屬舟師.農隙教閱水戰.有事.以此軍卽爲行船.此乃自居其處之軍.實無往來之勞.一聞徵召.朝發夕至.(…)

유성룡(柳成龍), <서애집(西厓集) 제5권 차자[筴], 陳措置防守事宜兼辭職筴子【丁酉三月】>

정치/군사

송시열이 지은 조익의 신도비명으로 병자호란 때 윤계 등과 의병을 일으킨 행적을 서술한 내용.

(…) 병자년 봄에 (…) 가을에 또 예조 판서가 되었는데, 황조(皇朝)의 감군(監軍) 황손무(黃孫茂)가 조서(詔書)를 받들어 이르자, 공이 성신(誠信)으로 접대하여 속이지 말 것을 청하였다.

겨울에 노(虜)가 대거 침입하여 상이 강도(江都)로 행행(行幸)하려 하였으나, 노기(虜騎)가 벌써 강도에 뿔박하였으므로, 급히 어가(御駕)를 돌려 남한산성으로 향하였다. 공이 마침내 첨추공(僉樞公 조익의 아버지)의 소재(所在)를 잃고는 호곡(號哭)하며 찾아다니다가 끝내 첨추공을 찾아 급히 행재소(行在所)로 달려가려 하였는데, 노가 이미 사방에 그득하였다. 이에 공이 통곡하고 물러 나와 남양 부사(南陽府使) 윤계(尹縈)·참의(參議) 심지원(沈之源)·승지(承旨) 김상(金尙)·봉상시 정(奉常寺正) 이시직(李時稷)·교리(校理) 윤명은(尹鳴殷) 등과 함께 의병(義兵)을 일으켜 근왕(勤王)할 것을 꾀하고 직접 대장(大將)이 되었는데, 윤

게가 갑자기 노에게 죽임을 당하여 일이 어찌할 수 없게 되므로, 곧 강도로 들어갔다. (…)
 (…) 丙子春.(…) 秋又爲禮曹判書. 皇朝監軍黃孫茂奉詔至. 公請待以誠信勿欺. 冬. 虜大入. 上將幸江都. 虜騎已迫. 倉皇轉向南漢. 時公適失僉樞公所在. 號哭奔趨. 既得而急赴行在. 則虜已充斥矣. 公痛哭而退. 與南陽守尹榮, 沈參議之源, 金承旨尙, 李太常時稷, 尹校理鳴殷. 謀起兵勤王. 公爲大將. 而榮忽爲虜所殺. 事無可爲. 乃入江都. (…)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제162권 신도비명(神道碑銘), 浦渚趙公神道碑銘>

정치/군사

병자호란 때 남양부사로 적에 항거한 윤계(尹榮) 등의 유고에 대한 서문으로 윤계의 행적에 대해 언급한 내용.

(…) 승정(崇禎) 병자년(1636, 인조14) 호변(胡變)에 그의 손자 신곡공(薪谷公 윤계(尹榮))은 남양 군수(南陽郡守)로 있으면서 의사(義士)를 모집하여 장차 적(賊)을 토벌하려 하였는데, 적들이 갑자기 쳐들어오자 공은 적에게 항거하여 욕설(辱說)을 하고 죽었다.
 (…)
 (…)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제138권 서(序), 三節遺稿序>

정치/군사

김상헌이 지은 이시직(李時稷)의 묘갈명으로, 병자호란 때 남양에서 조익 및 윤계 등과 의병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내용

(…) 이에 방황하면서 통곡하다가 드디어 수원(水原)을 향해 가 한두 명의 동지와 더불어 양호(兩湖) 지방에 격문(檄文)을 돌려 의병을 일으켰다. 그런 다음 조익(趙翼) 등과 더불어 남양 부사(南陽府使) 윤계(尹榮)와 합세해 의병들을 끌어 모을 계획을 하였는데, 일이 성사 되기도 전에 윤계가 적들에 의해 죽고 군사가 궤멸되었다. 이에 갈 바를 서로 의논하였는데, 공은 말하기를, “반드시 강도로 들어가야만 한다. 그곳이 내가 죽을 장소이다.” 하였다.
 (…)
 (…)
 彷徨痛哭. 遂向水原. 與一二同志. 檄兩湖以鼓義士. 仍會趙公翼等. 合南陽守尹. 謀聚義師. 事未集. 死賊軍潰. 議所往. 公曰. 必欲以江都爲歸者. 是吾死所也. (…)
 김상헌(金尙憲), <청음집(淸陰集), 제31권 묘갈명(墓碣銘), 司憲府掌令李公墓碣銘>

정치/군사

병자호란 때 조익 자신의 행적을 변론하는 내용의 상소

(…) 그런데 길에서 듣건대, 경기(京畿) 중영(中營)의 군사 1000여 명이 영장(營將)을 잃고 중로(中路)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들을 조용(調用)하려는 목적으로 말을 치달려 남양 부사(南陽府使) 윤계(尹榮)를 찾아갔더니, 윤계의 뜻도 그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원(沈之源), 김상(金尙), 이시직(李時稷), 윤명은(尹鳴殷) 등 제인(諸人)도 모두 그곳으로 와서 합류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차 이 병력을 가지고 전진하려고 하면서 분부(分付)하고 포치(布置)할 즈음에 도순찰사(都巡察使) 심기원(沈器遠)이 그 군대를 돌려보내라고 명령을 전하였습니다. 이 군사들은 관군(官軍)이었기 때문에 감히 그 명령을 어길 수가 없어서 심기원에게 돌려주고는, 다시 그 지역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1백 수십 인을 얻은 다음에 곧장 빠른 길로 전진하여 결사전(決死戰)을 벌이려고 하였습니다. 이 일에 함께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이 모두 위태롭게 여겼지만, 조익의 충성과 의기(義氣)가 넘쳐나서 사람들을 감

동시키기에 충분하였으므로 감히 그의 뜻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

조익의 집안은 매우 가난하였습니다. 비록 이른 나이에 등제(登第)하여 상경(上卿)의 지위에 이르렀다고는 하더라도 경성(京城)에 몇 칸짜리 모옥(茅屋)도 마련하지 못한 채 집을 빌려서 거주하였고 녹봉이 나오기를 기다려서야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피난하기 위해 도성을 나가던 날에도 집안에 한 필의 말도 없어서 부녀(婦女)가 도보로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멀리 피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기 처자를 신에게 부탁하여 남한산성에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겨우 성 아래에 이르렀을 때 줄지에 적의 기병(騎兵)을 만나는 바람에 간신히 수풀 속으로 피하여 밤에는 길을 가고 낮에는 숨으며 전전(轉轉)하다가 해도(海島)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익 자신은 통진(通津)에서 남양(南陽)으로 가서 같이 일을 도모했던 사람들과 함께 의병을 모집하느라 분주하였으므로 자기 가족과는 각기 다른 곳에 있어서 돌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

조익(趙翼), <포저집(浦渚集), 포저 연보 제5권 부록(附錄), 무인신변소(戊寅伸辨疏)>

정치/군사

조익이 병자호란 당시 남양 일대에서의 자신의 행적을 기술한 내용.

병자년 12월 12일에 의주(義州)에서 치계(馳啓)하기를 “이달 9일에 금병(金兵)이 구련성(九連城)에 모습을 나타냈다.” 라고 하였다. 13일에 (…)

그날 밤에 구포의 집에 도착하고 보니, 아버님과 가족들은 모두 남양(南陽)으로 들어간 뒤였다. 노친이 무사히 빠져나왔다는 것을 일단 확인은 하였으나, 산성으로 가는 길이 막히는 바람에 들어가서 호위할 방법이 없게 되었으니, 그 망극한 심정이 또 어떠하였겠는가. 그리하여 마침내는 오랑캐의 군대에 뛰어들어 함께 죽을 계책을 세우고는 충청도로 가서 군대를 빌려 온 뒤에 산성 아래에서 결사전을 벌이려고 하였다. 그때 마침 연양군의 하인인 득선(得善)이 구포에 있다가 산성으로 몰래 들어가려 한다고 말하기에, 19일 아침에 하인들이 있는 곳에서 얇은 종이를 구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상소문을 작성하여 기록한 뒤에 득선에게 건네 주며 바지 솔기 속에다 집어넣게 하고는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 글을 바치게 하였다.

아침 일찍 출발하여 남양에 가서 노친을 본 뒤에 떠나려고 구포의 다리를 지나갈 적에 어떤 사인(士人)이 말 앞에 서서 말하기를 “저는 임의백(任義伯)이라고 합니다. 이런 때에 대감은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견이 있습니다만, 갈 길이 바쁘시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내가 그 말을 듣고는 기뻐서 말을 세우고 말하기를 “그대는 지금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는가?” 라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지금 광덕(廣德)으로 가는데, 그곳에는 반드시 따라올 장사(壯士) 몇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하기에, 마침내 평택(平澤)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다.

그곳에서 2, 3리쯤 갔을 때에 궁시(弓矢)를 메고 쾌마(快馬)를 탄 무사가 뒤에서 치달려 오기에 즉시 그를 불러서 어디에서 오느냐고 물어보았다. 그 사람은 홍씨(洪氏) 성의 남양(南陽) 출신으로 이름은 잊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경기(京畿) 중영(中營)의 군병 2000여 명이 안영(安營)에 주둔하고 있는데, 그 영장(營將)은 산성에 들어갔으나 군병은 미처 들어가지 못했으므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내가 그 말을 듣고는 생각해 보건대, 호서(湖西) 지방으로 가서 군병을 얻어 오려면 열흘은 넘을 테니, 그보다는 차라리 이 군병을 활용해서 독성(禿城)으로 들어가 정예 군사를 뽑는 것이 좋을 것이요, 여기에 또 원근에 있는 충의(忠義)의 인사들을 불러 모으면 결전(決戰)을 벌일 수 있겠다고 여겨졌다.

아침에 남양부(南陽府)로 가서 향소(鄉所)를 불러 그 고을의 군병과 군기(軍器)의 숫자를 물

어보았다. 부사(府使) 윤계(尹槩)의 동생인 윤유(尹柔)가 나의 뜻을 알고는 찾아와서 말하기를 “우리 형님이 호서 지방으로 갔는데 오늘 저녁에는 올 것입니다. 형님의 뜻도 필시 대감과 같을 텐데, 이 고을에는 군병도 있고 군량도 있으니 거사(舉事)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서면(西面)으로 들어가서 노친을 뵈었는데, 윤명은(尹鳴殷)이 가까운 곳에 있었으므로 그를 불러서 함께 상의하였다. 이튿날 새벽에 부사가 과연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내가 어제 저녁에 들어왔으니 즉시 나아가 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내가 노친과 가족에게 하직을 고하고 섬으로 들어가게 한 뒤에, 윤명과 함께 말을 치달려 남양부로 들어갔는데 6, 7리쯤 못 미쳐서 과연 윤계가 오기에 말에서 내려 길가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는 함께 부(府)의 청사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마침내 의논을 정하여 각처에 통문(通文)을 발송하고 경내(境內)의 무사들을 불러 모았다.

이날 심지원(沈之源)과 이시직(李時稷)도 와서 참석하였다. 그리고 전(前) 영장(營將) 신경빈(申景濱)이 상당히 군병의 마음을 얻었는데 병으로 체임(遞任)되어 그 지역에 있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즉시 불러와서 물어보고는 중군(中軍)에 차임하고 영장을 겸하게 하였다. 또 무사를 독성으로 급히 보내 군량과 기계(器械)를 장부로 작성해서 가져오게 하였더니, 군량은 미곡과 콩이 각각 1000여 석(石)이었고 군기(軍器)도 매우 많았으며 늙고 쇠잔하기는 하지만 성을 지키는 군사도 300여 명쯤 된다고 하였다. 이에 신경빈을 보내 안영(安營)의 둔병(屯兵)을 인솔해 오게 해서 그 군병을 독성으로 들여보내려고 하였는데, 그때 마침 독성의 장수가 치보(馳報)하기를 “충청 감영의 군병 7000명이 어제 저녁에 들어왔는데 성이 협소해서 모두 수용하지 못하였고 미처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성 밖에 있다.”라고 하였다. 그 군병이 이미 먼저 들어온 이상에는 다시 나오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기에, 수원(水原)과 남양(南陽) 사이에 형세가 좋은 지역을 얻어 진(陣)을 치려고 하면서, 신경빈으로 하여금 군병을 인솔하고 와서 구포의 다리 근처에 주둔시킨 뒤에 보고하게 하였다. (…)

丙子十二月十二日.義州馳啓.初九日金兵見形於九連城.十三日.(…)

(…) 其日夜到鷗浦家.則父主及家屬皆已入南陽矣.既知老親無事出來.而山城路塞.無路入衛.則其爲罔極又如何.遂爲赴秦軍俱死之計.欲往忠清道借兵而來.決死於城下.而適延陽君奴得善在鷗浦.言欲潛入山城.十九日晨.於奴輩處覓得薄紙.以此意作上疏.書之授得善.令納於袴縫中入城以呈.早發欲見老親於南陽而後行.過鷗浦橋.有士人立馬前言曰.我任義伯也.此時大監欲何爲乎.吾有意見欲言之.而路中惛惛奈何.余聞而喜.立馬謂曰.君今往何處.可從我乎.任曰.今往廣德.其地有壯士必從者數人.遂約於平澤相會而別.前至二三里許.有武士佩弓矢騎快馬自後馳往者.即招之.問來自何處.其人南陽出身洪姓而名則忘之.云.京畿中營軍兵二千餘名屯於安營.其營將入山城.而軍則不及入.不知所爲.余因思往湖西得兵而來.當過旬日.莫如用此兵入禿城抄精銳.又招聚遠近忠義之士.可以決戰.朝至南陽府.招鄉所問其邑軍兵軍器之數.府使尹槩之弟尹柔知余有意.來見曰.吾兄往湖西.今暮當來.兄之意必與大監合.此邑有兵有糧.可以起事.因入西面見老親.尹鳴殷在近地.招與相議.其明曉.府使果送人曰.吾於昨暮入來.即當進拜.余辭老親家屬令入島.與尹鳴殷馳入府.未及六七里.果尹槩來.下馬坐路傍相語.因偕入府.遂議發通文於諸處.招聚境內武士.是日.沈之源.李時稷亦來會.聞前營將申景濱頗得軍情.以病遞任在其地.即招問.仍差中軍兼營將.走送武士于禿城.令成冊糧械而來.軍糧入太各千餘石.軍器亦甚多.老殘守城軍三百餘名云矣.欲使申景濱往領安營屯兵而來.以其兵入禿城.適禿城將馳報云.忠清監營軍兵七千.昨暮入來.城小不能盡容.未及入者在城外.念彼兵既先入.不可令出.欲於水原.南陽之間.得形便之地結陣.令申景濱領其兵來.屯於鷗浦橋近處以報.(…)

조익(趙翼), <포저집(浦渚集), 제25권 잡저(雜著), 丙丁記事>

정치/군사

윤선거(尹宣舉)가 지은 조익의 묘지명으로 병자호란 당시 남양에서의 의병활동을 기술한 내용.

(…) 12월에 금로(金虜 청나라의 멸칭(蔑稱))가 침입하여 4일 만에 국도(國都)에 육박하자, 상이 강도(江都)로 피신하려고 하였다. 선생 자신은 대가(大駕)를 수행할 생각을 하고서 참판으로 하여금 신주(神主)를 모시고 가게 하였다. 그리고 아들 한 사람에게 명하여 첨추공(僉樞公)을 모시고 먼저 떠나게 하였는데, 창졸간에 서로 길이 어긋나 헤어지고 말았다. 이날 눈보라가 치면서 혹독하게 추웠다. 선생이 호읍(號泣)하며 첨추공의 행방을 수소문하다가 소재를 알았을 무렵에는 대가가 길을 바꿔서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적병이 이미 길을 막고 있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통곡을 하면서 두세 명의 사부(士夫)와 함께 남양(南陽)에서 의병을 규합하였는데, 부사(府使) 윤계(尹檠)가 적을 만나 살해되자 대중이 모두 놀라 무너졌으므로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었다. 이에 강도의 분사(分司)로 들어갔는데, 이튿날 갑진(甲津)이 함락되고 말았다. 선생은 나룻가 언덕에 올라가 전황을 살펴보면서 적병이 다가와도 꿈쩍하지 않았는데, 따르던 자들이 선생을 구원하여 화를 면할 수가 있었다. (…)

조익(趙翼), <포저집(浦渚集), 포저 연보 제2권 부록(附錄), 묘지명>

정치/군사

송시열이 지은 조익의 신도비명으로, 조익이 남양부사 윤계 등과 의병을 일으켰다는 내용.

(…) 겨울에 오랑캐가 대거 침입하였다. 상이 강도로 행행(行幸)하려 하였으나, 오랑캐의 기병(騎兵)이 이미 도성에 육박하였으므로 어찌할 겨를 없이 방향을 바꿔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향하였다. 이때 공은 첨추공(僉樞公 포저의 부친)의 행방을 몰랐으므로 호곡(號哭)하며 동분서주하다가 일단 소재를 파악하고 나서 행재(行在)로 급히 달려가려 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오랑캐가 사방에 그득한 상태였다. 이에 공이 통곡하며 물러 나와 남양 부사(南陽府使) 윤계(尹檠)와 참의(參議) 심지원(沈之源)과 승지 김상(金尙)과 태상(太常) 이시직(李時稷)과 교리(校理) 윤명은(尹鳴殷)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근왕(勤王)할 계획을 세우고는 공이 대장이 되었는데, 윤계가 갑자기 오랑캐에게 살해되어 어떻게 해 볼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마침내 강도에 들어가게 되었다. 정축년(1637, 인조 15) 정월에 오랑캐가 강을 건너 강도로 들어왔는데도 공이 강기슭에 앉아서 떠나려 하지 않자, 두 아들이 공을 부둥켜안고 아래로 굴러 떨어진 뒤에 조그마한 배에 공을 끌어올리고 출발하였다. 대개 공은 행재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뒤로는 밤낮으로 통곡만 할 뿐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

조익(趙翼), <포저집(浦渚集), 포저 연보 제2권 부록(附錄), 神道碑銘>

정치/군사

송준길이 지은 조익의 시장으로, 남양부사 윤계와 함께 의병을 모아 근왕하려 하였다는 내용.

(…) 이튿날 김포(金浦)에 도착해서 대가가 방향을 돌려 남한산성으로 향했다는 말을 비로소 듣고는 산성으로 가는 길을 찾아보려고 하였으나 길이 막혀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에 방황하며 통곡하다가 의병을 모아 근왕(勤王)의 계책을 세우자고 상의하고는, 남양 부사(南

陽府使) 윤계(尹槩)와 조사(朝士)로서 미처 호종하지 못한 참의 심지원(沈之源), 승지 김상(金尙), 정(正) 이시직(李時稷), 교리 윤명은(尹鳴殷) 등과 회의를 결과 공이 대장(大將)이 되고 심지원과 윤계 등이 참좌(參佐)가 되기로 하였는데, 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윤계가 적에게 붙잡혀 죽고 말았다. (…)

조익(趙翼), <포저집(浦渚集), 포저 연보 제3권 부록(附錄), 시장(諡狀)>

정치/군사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 남양에서 의병을 규합하였다는 내용.

○ 12월에 적이 침입하였다. 미처 호가(扈駕)하지 못하고, 남양(南陽)에서 의병을 규합하였다. 【13일에 변방의 경보(警報)가 이르렀다. 14일에 상이 강도(江都)로 들어갈 계책을 정하였다. 선생이 참판인 여공 이징(呂公爾徵)에게 묘사(廟社)의 신주(神主)를 모시고 가게 하고, 선생 자신은 호가하기로 하였다. 얼마 뒤에 들으니 신주를 미처 다 모시지 못했다고 하였으므로, 마침내 여공이 있는 곳까지 뒤쫓아 가서 직접 확인하였다. 그때 아들 진양(進陽)이 부친 의정공(議政公)을 모시고 가다가 길에서 서로 헤어진 것을 홀연히 보게 되었는데, 대가(大駕)가 남문(南門)까지 갔다가 계획을 바꾸어 남한산성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당시에 알지 못하였다. 선생이 급박하게 피난길을 떠나는 상황에서 노친의 행방을 알지 못하게 되자 어찌할 바를 모른 채 호읍(號泣)하며 밤새도록 분주히 돌아다녔는데, 노친의 소재를 알게 되었을 무렵에는 오랑캐의 기마병이 이미 그득해서 남한산성으로 가는 길이 끊어진 상태였다. 선생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당초에 묘사의 신주를 모시는 임무를 맡은 것도 아니고, 참판이 이미 안전한 지역으로 신주를 모시고 들어갔으니, 신주를 뒤따라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졌다. 그리하여 남양(南陽)에 이르러서 부사(府使) 윤계(尹槩)와 조사(朝士)로서 미처 호종(扈從)하지 못한 참의 심지원(沈之源)과 승지 김상(金尙)과 이정 시직(李正時稷)과 교리 윤명은(尹鳴殷) 등을 만나 의병을 불러 모을 것을 상의하고는 제도(諸道)에 격문을 보내 적진에 뛰어든 계획을 세웠는데, 분개하여 비통하게 호느끼면서 어떤 때는 새벽이 되도록 눈물을 흘리곤 하였으므로 옆에서 보고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조익(趙翼), <포저집(浦渚集), 포저 연보 제1권, 9년 병자(1636) 【선생 58세】>

정치/군사

1637년(인조 15) 조익이 남양의 홍법사에서 강화도로 들어갔다가 탈출한 경위를 기술한 내용.

○ 정월에 남양(南陽)에서 강도(江都)로 들어갔다. 【선생은 남양의 홍법사(洪法寺)에 있었고, 부사(府使) 윤계(尹槩)는 부에 머물러서 일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적병이 졸지에 들이닥치는 바람에 윤계가 그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하자, 사람들의 마음이 어지럽게 흩어져서 어떻게 일을 해 볼 수가 없었다. 이에 선생이 호서(湖西) 지방으로 가서 다시 의병을 모집하려고 하였으나, 들리는 말에 호서 지방도 이미 혼란스럽게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강도에 들어갔는데, 얼마 뒤에 강도 역시 함락되고 말았다. (…)]

조익(趙翼), <포저집(浦渚集), 포저 연보 제1권, 10년 정축(1637) 【선생 59세】>

정치/군사

1800년(정조 24) 정조가 홍봉한의 문집 익정공주고(翼靖公奏藁)의 군제인(軍制引)으로 총융청의 연혁에 대해 정리한 내용.

(…) 인조 때는 완풍군(完豐君) 이서(李曙)로 하여금 남양(南陽), 수원(水原), 장단(長湍) 세 진(鎭)의 군무를 절제하도록 명하고 이름을 충융청(攄戎廳)이라 하여 도체찰사(都體察使) 관하에 예속시켰다가 곧 체부(體府)는 혁파하고 충융사(攄戎使)라는 이름만 남겨 두었다.

(…) 仁廟朝.命完豐君李曙.節制南陽, 水原, 長湍三鎭軍務.號曰攄戎廳.隸都體察使體府.尋罷之.只存攄戎使之號.

<홍재전서(弘齋全書), 제13권 서인(序引) 6, 翼靖公奏藁軍旅類叙【庚申】. 軍制引>

정치/군사

1800년(정조 24) 정조가 홍봉한의 문집 익정공주교(翼靖公奏藁)의 봉수인(烽燧引)으로 화성과 남양 사이의 봉화에 대해 언급한 내용.

(…) 공이 아차산 봉화는 북도에 있는 높은 재 하나 때문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병조 판서의 말에 따라 경연에서 주상께 아뢰어 선왕 정미년에 서·남·북 세 곳 봉화대에는 군정(軍丁)을 더 보강하고 각종 기구도 가설했으며, 연조(烟竈) 다섯 굴은 모두 복개를 하여 비와 눈에 젖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봉수대마다 43종에 달하는 조비(措備)를 두고 그것을 절목(節目)으로 만들어서 봉대마다 나누어 주었다. 아차산 봉화는 서수라(西水羅)의 우암(牛巖)이 화저(火底)인데, 이성(利城) 성문의 진조봉(眞鳥峯)의 봉화 둘도 우암에서 81개 봉수대를 거쳐서 오고, 진조봉에서 아차산까지 오는 데에도 31개 봉수대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간봉(間峰)은 무산(茂山)의 남령(南嶺)과 서북진(西北鎭)의 서산(西山) 그리고 어면보(魚面堡)의 용봉(龍峯)이 화저인데, 용봉은 산세가 너무 겹겹으로 되어 있어 통과할 수가 없다고 한다.

내가 화성(華城)에다 이미 행궁(行宮)을 두었기 때문에 그곳에도 봉수대 두 곳을 두고 남양(南陽)의 바닷길 봉화에 비치게 하였다. 봉수는 적간(摘奸)의 명령이 있을 때면 병조 판서가 주관하여 전례대로 시행한다. 이것을 책머리에 써서 변방을 관리하는 자들의 규례로 삼으려는 것이다. (…)

公以峨嵋山之烽.因北道有一絕嶺而不得入達.因本兵長之言.而提奏筵上矣.先朝丁未.西南北三邊火底烽臺.添補軍丁.加設器械.烟竈五窟.竝以器蓋覆.俾免雨雪之貯濕.烽臺所.置四十三種措備.成節目頒行.大抵峨嵋山烽.以西水羅之牛巖爲火底.而利城之城門眞鳥峯二烽.又自牛巖歷八十一烽而來.自眞鳥峯至峨嵋山.又歷三十有一烽矣.間烽則茂山之南嶺.西北鎭之西山.魚面堡之龍峰爲火底.而龍峰以山勢重疊.不果通云.予於華城.既置行宮矣.設二烽臺.以照南陽海路之烽.烽燧若有摘奸之命.則兵曹判書輒行古例也.仍書篇首.以爲知邊事者掌故.(…)

<홍재전서(弘齋全書), 제13권 서인(序引) 6, 翼靖公奏藁軍旅類叙【庚申】. 烽燧引>

정치/군사

1593년(선조 26) 6월 남양 등지의 관군이나 의병 중에서 정병(精兵)을 골라 뒷날을 피하기를 바라는 서장

(…) 신이 오래도록 진중에 있으면서 보건대, 경기의 여러 고을, 예컨대 양주, 고양, 광주 등의 군사들은 여러 해 동안 적과 마구 싸워 담력이 차서 적을 보고도 무서워하지 않고 싸울 때마다 먼저 나아가니, 그 사이에 적의 수급을 베어 전공을 세워 진중에 이름이 드러난 사람이 많습니다. 한강 남쪽의 수원, 남양, 통진, 김포, 용인, 과천, 금천 등의 관군이나 의병들 중에서도 날쌔고 잘 싸울 백성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추의(秋義)와 창의(倡義) 두 진영의 군사들은 비록 갑자기 모인 무리들이지만, 그중에서도 구해 보면 열 명 중에 하나쯤은 얻을 것이니, 어찌 쓸 만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

(…) 臣久在行間.見京畿諸邑.如楊州, 高陽, 廣州等邑之軍.經年與賊廝殺.心膽已堅.見賊不怯.每戰先登.其間多有斬級軍功著名行陣之人.至於漢江以南水原, 南陽, 通津, 金浦, 龍仁, 果川, 衿川等邑.官軍義兵中.亦不無驍健善戰之民.如秋義倡義兩陣之軍.雖甚烏合.然就其中求之.則十中取一.豈亦無可用者乎.(…)

유성룡(柳成龍), <서애집(西厓集) 卷之六 書狀, 乞抄擇精兵以爲後圖狀【六月】>

정치/군사

1593년(선조 26) 8월 경기 서해의 남양 등지에서 소금을 만들어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기를 청하는 서장

(…) 또 듣자니 의병장 우성전(禹性傳)을 도와 군량을 사들인 적이 있었는데 성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지금 우선 이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 능력을 시험하여 보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 경기도 서해의 여러 섬과 남양의 대부(大府)·성감(成甘)·연흥(連興)과, 인천의 자연(紫燕), 삼목(三木), 용린(龍麟) 등은 모두 별도의 방편을 세워 함께 다스리게 하소서. 그러하지 아니하면 서울 및 경기의 수백 리와 충청의 여러 고을까지 가을이 되어도 수확할 것이 없고, 겨울이 되면 점차 고갈되어 봄이 되기 전에 백성이 모두 죽을 것이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으며 조치를 조금도 늦출 수 있겠습니까. (…)

(…) 且聞曾爲義兵將禹性傳買辦軍糧.亦有其效云.姑令此人試其事.以觀其能否.似爲無妨.至如京畿西海諸島.如南陽之大府, 成甘, 連興.仁川之紫燕, 三木, 龍麟等處.皆可別爲方便.一體經理.不然則京城及畿甸數百里.以及忠清諸道.逢秋無穫.入冬轉竭.未及明春.生類將盡.豈不寒心.而可少遲於區處乎.(…)

유성룡(柳成龍), <서애집(西厓集) 卷之六 書狀, 請煮鹽賑救飢民狀【八月】>

정치/군사

1593년(선조 26) 겨울 올린 계문으로 서울의 좌보와 우보 지역의 병졸을 훈련시켜 지키게 한다면 서울의 형세가 나아질 것이라는 내용.

(…) 한강 이남의 이천·여주·광주는 서울의 좌보이고, 수원·남양·부평·인천은 우보입니다. 이런 고을들에 만약 병졸을 거두어들여 잘 훈련시키고 양곡을 쌓아 험하고 막힌 곳을 가려 지키게 하면, 서울의 형세가 조금은 지키고 막을 수 있어서 위급함을 완화시키니, 거의 믿을 수 있겠습니다. (…)

(…) 至於漢江以南.則利川, 驪州, 廣州爲京都左輔.水原, 南陽, 富平, 仁川爲右輔.此等之邑.若能收兵鍊卒.積峙糧穀.擇守險阻.則京城之勢.稍有捍蔽.而緩急庶有所恃矣.(…)

유성룡(柳成龍), <서애집(西厓集) 卷之七 啓辭, 條陳時事啓【癸巳冬】>

정치/군사

1596년(선조 29) 경기우방어사를 임명할 것을 청하는 계문으로, 경우는 독성에 영을 설치하여 남양 등지의 군사를 배속하라는 내용.

신이 관할하는 지방에는 대략 편의한 연병의 규정을 세워 경기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도내의 군읍은 그 거리의 원근과 주민의 다소와 방어의 형세를 헤아려 4영으로 나누어 각각 경좌(京左)·경우(京右)·경전(京前)·경후(京後)라 이름했습니다. 경좌는 용진에 영을 설치하여 양주·가평·포천·광주·여주·이천·양근·지평의 군사를 배속하였고, 경우는 독성에 영을 설치해 수원·남양·인천·통진·부평·김포·양천의 군사를 배속하였으며, 경전은 용

인의 석성(石城)을 의지해 죽산·음죽·안성·양성·진위·용인·과천·양지·안산의 군사를 배속하였고, 경후는 파주의 산성을 의지해 영을 설치하여 교하·고양·연천·삭녕(朔寧)·마전·파주·장단·영평(永平)·개성부·풍덕의 군사를 배속시켰습니다. (…)

臣於所管地方.略爲便宜鍊兵之規.自京畿始.以道內郡邑.量其道里遠近.民居疎密.防守形勢.分爲四營.名爲京左京右京前京後.京左則於龍津設營.而以楊州,加平,抱川,廣州,驪州,利川,楊根,砥平之軍屬焉.京右則禿城設營.而以水原,南陽,仁川,通津,富平,金浦,陽川之軍屬焉.京前則擬於龍仁石城設營.而以竹山,陰竹,安城,陽城,振威,龍仁,果川,陽智,安山之軍屬焉.京後則擬於坡州山城設營.而以交河,高陽,連川,朔寧,麻田,坡州,長湍,永平,開城府,豐德之軍屬焉.(…)

유성룡(柳成龍), <서애집(西厓集) 卷之八 啓辭, 請出京畿道右防禦使啓【丙申】>

정치/군사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 때의 일을 기록한 것으로 별장 조발에게 수원, 남양 등지의 군사를 거느리고 독성을 지키도록 하자는 내용.

정유년에 적이 다시 준동하여 양호가 와해되었고, 9월에는 서울 변두리를 핏박하였다. 나는 임금의 명을 띠고 한강 방면을 순찰하며 경기 우방어사 유렴(柳濂)으로 안성, 죽산, 양성, 용인, 양지, 진위 등의 군사를 감독 통솔하게 하여 양성의 무한산성(無限山城)을 지키도록 하였고, 별장 조발(趙撥)로 수원, 남양, 김포, 양천, 통진, 부평 등의 군사를 거느리고 독성(禿城)을 지키도록 하였으며, 좌방어사 변응성(邊應星)에게 여주, 이천, 양근 등의 군사로 파사성(婆娑城)을 지키게 하였다. 인하여 한강 연안 일대를 왕래하면서 얇은 여울의 경비를 각각 책임지우고, 군령장(軍令狀)을 주어서 조금이라도 그르침이 있으면 마땅히 군법으로 다스리도록 재삼 신칙하였다. (…)

丁酉賊再動.兩湖瓦解.九月.賊逼京圻界.余承命出巡江面.令京圻右防禦使柳濂.督率安城竹山陽城龍仁陽智振威等軍.守陽城無限山城.別將趙撥.帥水原南陽金浦陽川通津富平等軍守禿城.左防禦使邊應星.以驪州利川楊根等軍守婆娑城.因往來沿江一帶.警備淺灘.各責軍令狀.少有失誤.當以軍法從事.再三申勅.(…)

유성룡(柳成龍), <서애집(西厓集) 別集卷之四 雜著, 記丁酉事>

정치/군사

김집이 지은 이시적의 행장으로, 병자호란 때 이시적이 조익과 남양부사 윤계과 약속하여 의병을 모집했다는 내용.

(…) 병자년(1636)에 오랑캐가 갑자기 들이닥쳐 며칠 사이에 이미 서울로 육박해오자 상이 강화도로 떠났는데, 도중에 형세가 너무 급박하여 미처 갈 수 없다고 생각되었으므로 길을 바꾸어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 그때 뒤따르던 신하들 중에는 제대로 방향을 잡고 따라간 자가 별로 없었다. 공도 뒤쫓아가다가 길에서 행관(行官)을 만나 상이 빙빙 돌아서 강화도로 행행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중로(中路)에서 맞이하려고 말머리를 돌려 노량(露梁)까지 달려갔다. 그러나 거기서 상이 그곳으로 가지 않기로 했다는 말을 다시 듣고는 길을 찾느라 우왕좌왕하는 판에 적이 이미 성안에 가득 들어오고 말았다. 거기에서 뜻밖에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아들 이경(李憬)이 말고삐를 붙들고 울면서 말하기를, ‘산성은 길이 막혔으니 남으로 돌아간 다음 의병을 일으켜 후일을 도모하자.’ 고 했지만, 공은 그 말을 준엄하게 뿌리쳤다. 그 길로 말을 몰아 산성 아래까지 갔으나 들어갈 수가 없었기에 통곡을 하고

돌아섰다. 그리하여 수원(水原)을 거쳐 강화도로 가려던 차에 몇몇 사부(士夫)들과 함께 양호(兩湖)에 격문을 띄워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조공 익(趙公翼)과 약속하고 남양 재(南陽宰) 윤계(尹槩)와 연계하여 의병을 모집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윤계는 적에게 죽고 군대는 궤산되고 말았으므로, 공이 탄식하여 이르기를, “남아가 죽으면 그뿐이지, 지금이 어디 남의 신하로서 구차하게 살려고 해야 할 때인가.” 하였다. (…)

(…) 丙子.金虜猝至.不數日.已迫都下.上出向江都.勢急慮未達.改路入南漢城.臣僚鮮有及者.公追躡之.途遇行官.聞上轉幸江都.將逆于中路.卽旋馬疾馳.到露梁.復聞上定輟行.再尋前路.往復之際.賊已遍滿矣.適與家屬邂逅.子憬叩馬泣曰.山城路塞.願南歸起義.以圖後效.公峻却之.遂策馬更進山城下.終不得入.乃痛哭回.取水原路.將赴江都.與若干士夫傳檄兩湖.以聳動義氣.約趙公翼,連南陽宰尹槩.召集義軍.未幾.槩死賊軍潰.公歎曰.男兒死耳.此豈人臣苟活之時.(…)

김집(金集), <신독재유고(愼獨齋遺稿) 卷之十一, 掌令李公行狀>

(4) 인물

정치/인물

남양 땅 신손엄(申損奄) 선생의 죽음을 애도하는 내용.

당년에 자리의 보배⁵⁰⁵로서 이름을 떨쳤건만 / 藉甚當年席上珍

문장에 훈업이 서로 따르지 못하였네 / 文章勲業不相因

파란만장한 세파(世波) 속에 항상 놀란 가슴 / 波瀾袞袞常驚世

혼자서 뚜벅뚜벅 사람들 뒤만을 걸어왔지 / 步武循循獨後人

귀신이 원고를 불사른 일 상제(上帝)도 질타했을 텐데 / 帝叱六丁全稿化

가난하게 보낸 일생 벼슬도 기만(欺慢)을 하였어라 / 官欺四壁一生貧

태현경(太玄經) 들은 후파⁵⁰⁶ 있다고 감히 말을 하랴 / 聞玄敢道侯芭在

남양 땅 영원히 보내려니 눈물만 가득 흐르누나 / 相送南陽淚滿巾

【신공(申公)의 문고(文稿)가 일찍이 사제(私第)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

藉甚當年席上珍.文章勲業不相因.波瀾袞袞常驚世.步武循循獨後人.帝叱六丁全稿化.官欺四壁一生貧.聞玄敢道侯芭在.相送南陽淚滿巾.【申公文藁.嘗爲私第失火灰燼.】

최립(崔崱), <간이집(簡易集), 제6권 초미록(焦尾錄), 哭申損奄先生>

정치/인물

여유길(呂裕吉)이 부친을 봉양하기 위해 남양부사가 되었다는 내용.

(…) 이듬해 하절부사(賀節副使)로 경사(京師)에 갔는데, 해부(該部)에 정문(呈文)을 올려 청한 결과 예외적으로 군수(軍需)의 무역을 늘려 받은 것이 매우 많았다. 이윽고 복명(復命)을 하자 그 공을 인정하여 가선대부의 품계로 올려 주었는데 공이 사양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였다.

한성부 우윤에 임명되었으나 사소한 일 때문에 파직된 뒤 조용히 산반(散班)에 몸담고 있다가 동지중추부사 겸 도총부부총관으로 옮겨졌으며, 다시 분(分) 병조 참판이 되었다가 부친을 봉양하기 위해 외직을 청해 남양 부사(南陽府使)가 되었다. (…)

(…) 明年.以賀節副使如京師.呈請該部.得於例外增貿軍需甚多.既復命.以功進階嘉善大夫.辭不許.拜漢城府右尹.坐微事罷.敍居散班.遷同知中樞府事兼都摠府副摠管.改分兵曹參判.爲養乞外.得南陽府使.(…)

장유(張維), <계곡집(谿谷集) 제14권 비명(碑銘), 嘉善大夫漢城府右尹兼五衛都摠府副摠管呂公墓碑銘>

정치/인물

남양의 수재로 나가는 윤군옥에게 작별 선물로 주다.

남양의 수재로 나가는 윤군옥⁵⁰⁷에게 작별 선물로 주다[贈別尹君玉出守南陽]

505) 자리의 보배 : 재덕(才德)이 출중한 인물을 가리키는 말이다. 노(魯)나라 애공(哀公)이 공자(孔子)에게 자리를 권하자, 공자가 모시고 앉아서 “유자는 자리 위의 보배를 가지고 초빙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다.[儒有席上之珍以待聘]”라고 말한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禮記 儒行》

506) 태현경(太玄經) 들은 후파(侯芭) : 법을 전해 받은 제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후파는 한(漢)나라 양웅(楊雄)의 제자로서, 《태현경》과 《법언(法言)》 등의 저술을 전수받았는데, 양웅이 가난하게 살다가 죽은 뒤에 분묘(墳墓)를 세우고 3년 동안 상복(喪服)을 입었다.《漢書 卷87下 揚雄傳》

묵수⁵⁰⁸) 처음 차고 두대주⁵⁰⁹) 맡아 나가나니 / 墨綬初分斗大州
 용중⁵¹⁰)에서 옛 명성을 못내 잊지 못함이라 / 隆中却愛舊名留
 대개는 은대⁵¹¹) 거쳐 사신⁵¹²)으로들 나가는데 / 詞臣摠自銀臺出
 이은⁵¹³)이라 옥국⁵¹⁴)에서 노니는 것과 같다 하리 / 吏隱翻同玉局遊
 꿈속에 늘 아른거릴 작약꽃 만발한 집 / 別夢長尋紅藥院
 흰 꽃 마름 모래섬 시흥이 우리나라라 / 詩情應在白蘋洲
 공거 상서⁵¹⁵) 조금 늦게 올린 나를 두고 / 公車尺疏吾差後
 길 귀신이 야유할까 자꾸만 걱정되네 / 路鬼揶揄轉自愁
 장유(張維), <계곡집(谿谷集), 계곡선생집 제31권 칠언 율시(七言律詩), 贈別尹君玉出守南陽>

정치/인물

허흔(許昕)이 남양부사를 지냈다는 내용.

(…) 공은 태어나면서부터 외삼촌의 집에서 길러졌다. 어려서는 자못 학업을 잘 닦지 못했으나 조금 큰 뒤에 비로소 스스로 분발하여 독서에 힘을 쏟아 기묘년 생원시(生員試)에 입격하고 계미년에 이르러 문과(文科)에 급제하였다.

그 뒤 봉상시 주부, 사헌부 감찰, 형조 좌랑, 공조와 호조의 정랑, 성균관 직강, 군자감 부정과 정, 군기시와 예빈시와 봉상시의 정, 겸 춘추관 편수관 등의 관직을 차례로 거쳤으며, 외방에 나가서는 수성찰방(輸城察訪), 경상도와 평안도의 도사(都事), 김제 군수(金堤郡守)와 남양(南陽), 안변(安邊), 인천(仁川), 숙천(肅川), 죽산(竹山) 등 다섯 곳의 도호부사(都護府使) 및 정주(定州)와 양주(楊州)의 목사(牧使)를 역임하였다. (…)

(…) 生而育於舅家.少頗失學.稍長.始自勵讀書.中己卯生員, 癸未文科.歷官奉常寺主簿司憲府監察刑曹佐郎, 工戶二曹正郎, 成均館直講軍資監正副, 軍器禮賓奉常寺正.兼春秋館編修官.出爲輸城察訪, 慶尙平安道都事, 金堤郡守, 南陽, 安邊, 仁川, 肅川, 竹山五都護府使, 定楊二州牧使.(…)

장유(張維), <계곡집(谿谷集) 제12권 묘갈(墓碣), 通訓大夫奉常寺正兼春秋館編修官許公墓碣銘>

507) 윤군옥(尹君玉) : 군옥은 윤지(尹墀)의 자(字)이다.

508) 묵수(墨綬) : 동인묵수(銅印墨綬)의 준말로, 수령이 차는 까만 인곤을 말한다.

509) 두대주(斗大州) : 말만 한 고을이라는 뜻으로, 보통은 작은 읍성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규모가 꽤 큰 고을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510) 용중(隆中) : 남양(南陽)을 빗댄 말로, 윤군옥의 고향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제갈량(諸葛亮)의 집이 남양(南陽) 등현(鄧縣)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용중(隆中)이라고 불렀다 한다. 《三國志 蜀志 諸葛亮傳 注》

511) 은대(銀臺) : 승정원의 별칭이다.

512) 사신(詞臣) : 홍문관 관원 등 문학을 관장하는 신하를 말한다.

513) 이은(吏隱) : 이록(利祿)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은자(隱者)처럼 관직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514) 옥국(玉局) : 송대(宋代)의 저명한 도관(道觀)인 옥국관(玉局觀)으로, 소동파(蘇東坡)가 영주(永州)에서 사면을 받고 돌아와 옥국관 제거(提舉)가 되어 한가하게 노닐었던 고사가 있다.

515) 공거 상서 : 윤지를 수령으로 내보내지 말고 조관(朝官)으로 임명하도록 임금에게 글을 올린 것을 말한다. 공거(公車)는 천하의 상소문을 받아들였던 한(漢) 나라 관청 이름인데, 동방삭(東方朔)이 처음 장안에 들어와 공거에 이르러서 3천 주독(奏讀)의 상서(上書)를 하였다는 유명한 고사가 있다. 《史記滑稽列傳》

정치/인물

명 사신 허국⁵¹⁶과 위시량⁵¹⁷에 답한 것으로 김시습이 경기 남양부(南陽府) 사람이라는 내용.

(…) 김시습(金時習)은 경기 남양부(南陽府) 사람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총명하였고 3세 때에 능히 글을 지을 줄 알았습니다. 5세 때는 우리 장헌왕(莊憲王 세종(世宗))께서 그를 인견(引見)하였는데, 응대하는 것이 마치 신과 같았으므로 당시에 오세동자(五歲童子)라 칭하였습니다. 장성해서는 경적(經籍)을 널리 통하고, 제자(諸子)와 사서(史書)까지도 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 승도(僧徒)로 행세하면서 스스로 세속의 법도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매양 높은 데 올라 먼 곳을 바라보고는 문득 통곡을 하고 돌아오곤 하였는데, 사람들은 그를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청한자(淸寒子)라 자호하였고, 그가 지은 시문은 청수(淸遂)하고 호탕(豪宕)하였습니다. (…)

(…) 金時習.京畿南陽府人.生而穎悟.三歲能屬文.五歲我莊憲王引見.應對如神.時稱五歲童子.既長.淹該經籍.旁及子史.無所不通.忽一日棄家入山.託跡縑流.自放繩墨之外.每登高臨遠輒痛哭而返.人莫能測.自號淸寒子.所著詩文.淸遂豪宕.(…)

기대승(奇大升), <고봉집(高峯集) 속집 제2권 잡저(雜著), 天使許【國】魏【時亮】問目條對>

정치/인물

윤형이 남양 부사(南陽府使)에 제수되었다는 내용.

(…) 계사년(1593)에 사성(司成)이 되어 상을 수행하였다가 영유(永柔)로 돌아오자 난이 조금씩 진정되어 도로가 비로소 소통되었다. 부친을 뵈기 위해 사직을 청하여 윤허를 받고 호서(湖西)로 내려왔다. 겨울에 임금이 서울로 돌아오자 군기시 정(軍器寺正)에 제수되었고, 얼마 후 외직인 남양 부사(南陽府使)에 제수되었다. 그러자 대신(大臣, 유성룡)이 상에게 아뢰기를,

“병기(兵器)와 관계된 일은 중대한 일이니 재능이 있는 자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으니 그를 유임시켜 주소서.”

하였다. (…)

(…) 癸巳.以司成從上.還至永柔.亂稍定.道始通.乞歸見父.許之.至湖西.冬.車駕還京.拜軍器正.俄出爲南陽.大臣白上.兵器事重.選擇才能.無逾此人者.請留之.(…)

허목(許穆), <기언(記言), 기언 별집 제17권 구묘문(丘墓文), 茂城府院君尹公神道碑銘>

정치/인물

1661년(현종 2) 3월에 허목이 남양(南陽)에 가서 막내아우 영월공(寧越公)의 장례에 참여했다는 내용.

○ 3월에 남양(南陽)에 가서 막내아우 영월공(寧越公)의 장례에 참여했다.

허목(許穆), <기언(記言), 미수 연보 제1권, 신축년(1661, 현종2) 【선생 67세】>

516) 허국(許國) : 1527~1596. 명나라 휘주부(徽州府) 흡현(翕縣) 사람이다. 자는 유정(維楨), 시호는 문목(文穆)이다. 예부상서 겸 동각대학사(禮部尙書兼東閣太學士) 등의 벼슬을 지냈다. 저서에 《문목문집》이 있다.

517) 위시량(魏時亮) : 1529~1591. 명나라 남창(南昌) 사람이다. 자는 공보(工甫), 호는 경오(敬吾), 시호는 장정(庄靖)이다. 중서 사인(中書舍人), 남경대리승(南京大理丞) 등의 벼슬을 지냈다. 성리학을 연구하였으며, 저서에 《대유학수(大儒學粹)》가 있다.

정치/인물

최동식이 남양(南陽)의 치소 서쪽 덕동음(德冬音)에 안장되었다는 내용.

(…) 갑인년(1614) 6월 경인일에 별세하니, 향년 53세였다. 남양(南陽)의 치소 서쪽 덕동음(德冬音)에 안장되었다. 9년이 지난 계해년(1623, 인조 원년)에 인조가 반정에 성공함에 따라 승정원 도승지로 추증되었다. (…)

(…) 甲寅六月庚寅.公歿.年五十三.葬南陽治西德冬音.後九年癸亥.仁祖克大難.公追爵承政院都承旨.(…)

허목(許穆), <기언(記言), 기언 별집 제19권 구묘문(丘墓文), 贈都承旨崔公墓銘>

정치/인물

강서가 남양(南陽)에 부임하였다는 내용.

(…) 공은 성품이 지혜롭고 사리에 밝으며 강직하여 대절(大節)이 많았다. (…)
부모가 연로함을 이유로 고을의 원이 되기를 구하여 수원(水原)에 부임하였으나 1년 만에 병으로 사직하고 돌아왔다. 다시 외직으로 나가 남양(南陽)에 부임하였고, 재차 승정원으로 들어와 좌승지에 이르렀다. 후에 외직으로 나가 인천(仁川)에 부임하였으나 1년 만에 파직되고 돌아와서 운명하였다. 향년은 52세였다. (…)

(…) 性明達.牢牢多大節.(…) 以親老乞郡爲水原.一年謝病歸.復出爲南陽.再入政院.至左承旨.後出仁川.一年罷歸而卒.年五十二.(…)

허목(許穆), <기언(記言), 제38권 동서기언(東序記言), 姜承旨遺事>

정치/인물

박소가 파직되어 남양(南陽)에 물러가 살았다는 내용.

○ 옛날부터 소인이 옳은 사람들을 해칠 적에는 비밀리에 정탐하여 먼저 필승의 계획을 세우는 법이다. 그러므로 못된 책략을 다 부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무엇이 다르겠는가.

우리 조부(祖父 박소(朴紹))는 김안로가 다시 조정에 들어오자 사간으로서 먼저 그 안로의 칼날에 걸렸다. 못 소인들은 먼저 사람을 시켜 자기와 마음이 다른 사람의 집에 숨어 있다가 그 어디어디를 출입하는 것과 어떤 사람이 왕래하여 서로 통하는가를 엿보게 하였는데, 우리 할아버지와 전한(典翰) 조종경(趙宗經)이 한꺼번에 탄핵을 받았다.

문원공(文元公)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이 밀양 부사로 있다가 대신 사간이 되어 부름을 받고 서울에 도착하던 날, 먼저 우리 할아버지를 방문한 것을 정탐하던 자가 몰래 알리어, 회재도 갑자기 탄핵을 받았다. 우리 집에서 주인으로 섬기던 사람은 대사간 윤희인(尹希仁)이었는데, 한동네였고 또한 일찍부터 친척의 분의가 두터운 사람이었다.

김안로가 귀양갔다가 풍덕(豐德)으로 가까이 옮겨지자 바야흐로 다시 쓰이기를 도모하는데 음모와 비밀 계획이 못할 것이 없었다. 이에 대사간 이빈(李蘋)이 동궁보호를 구실로 할 것을 교사하여 주자 기꺼이 좋은 계책이라고 하고 그의 아들 연성위(延城尉) 희(禧)로 하여금 아침저녁으로 좌상 이행(李荇)의 문앞에 가 서 있게 하였다가 과연 그 교묘한 꾀를 씹먹게 되어, 안로가 조정으로 들어와 사람에게 해독을 끼치고 종묘 사직을 거의 위태롭게 하였다. 소인의 난을 일으킴이 옛날부터 이러한 것이다.

나의 할아버지가 파직되어 남양(南陽)에 물러가 계시는데 흉악한 무리들이 그 가까운데 있

는 것을 꺼리므로 드디어 가족을 거느리고 합천(陝川)으로 돌아가니, 합천에서 서울의 거리가 아흐레 길이었다.

일찍이 이상(二相) 김광준(金光準)과 특별한 교분이 있었는데, 김광준에게 잘 달리는 종 하나가 있어 능히 3백 리를 갈 수 있으므로 조정의 의논이 혹 할아버지에 관한 일이 있게 되면 반드시 이 종을 시켜 알렸는데, 사흘이면 도달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당시 사람들이 이 르기를,

“박 아무와 김숙예(金叔藝 김광준의 자)는 기질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사이는 비단 빙탄(氷炭) 정도가 아니었는데 교분이 이렇게 좋으니, 알 수 없는 일이다.”고 하였다.

(…) 自古小人之害正類也.窺覘偵伺.先爲必勝之計.故其費盡機關.無所不用其極.前後何以異也.我王父方安老之再入也.以司諫.首擢其鋒.群小先令人各於異己之家竊伏.不候其出入抵向.及某人往來相通之狀.王父與典翰趙宗經.一紙被論.李文元公晦齋.自密陽府使.代爲司諫.被召抵洛之日.先訪王父.候之者已潛通矣.晦齋俄亦被論.吾家所主者.大司諫尹希仁也.在其洞內.而亦嘗有族分之厚者也.

安老被謫.量移豐德.方圖復用.潛謀祕計.無所不至.乃大司諫李蘋.以保護東宮教之.欣然自以爲得計.使其子延城尉禧.朝夕立左相李荇之門.果能得售其巧.流毒士林.幾危宗社.小人之難.自古而然也.

王父被罷.退在南陽.凶黨忌其在近.遂挈家歸陝川.陝川距京都.九日程也.嘗與金二相光準爲別交.金有一奴善走.一日能行三百里.時議或有及於王父者.則必以此奴通之.三日乃達.以爲常.一時以爲.朴某與金叔藝.氣不相類.何啻氷炭之殊.而交契如此.不可知也.(…)

박동량(朴東亮), <기재잡기(寄齋雜記)2, 歷朝舊聞[二], 中宗>

정치/인물

윤지범을 남양부(南陽府) 호련산(瑚璉山)에 장사지냈다는 내용.

(…) 신사년(1821, 순조 21) 여름에 오위장(五衛將)에 제수되었다. 8월 25일에 병으로 세상을 마치니 향년이 70세이다. 3개월이 지난 21일에 남양부(南陽府) 호련산(瑚璉山) 계좌(癸坐)의 언덕에 장사지냈다.

공은 풍의(風儀)가 수결(秀潔)하여 진토(塵土)의 기름진 기미가 없었다. 만어정(晩漁亭) 권공 사언(權公師彦)은 조감(藻鑑) 사람을 알아보는 견식)이 있었는데 일찍이 말하기를,

“윤이서(尹彝敍 이서는 윤지범(尹持範)의 자)는 옥산 요림(玉山瑤林 옥으로 된 산과 숲으로, 아름다움의 비유)이 하늘 밖에 빼어난 것과 같다.”

하였다. 야위고 약하여 옷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그 조수(操守)가 확고함에 이르러서는 분육(賁育 옛날 용맹 있는 사람인 맹분(孟賁)과 하육(夏育)임)이라도 동요시킬 수 없었다. 조정에 벼슬한 지 45년 동안에 눌리고 막히고 침체되어 끝내 불우한 채 떨치지 못하였으나,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는 말은 입에서 낸 적이 없었다. (…)

(…) 辛巳夏除五衛將.八月二十五日以疾終.享年七十.越三月二十一日.葬于南陽府瑚璉山癸坐之原.公風儀秀潔.無塵土腴腴之氣.晩漁亭權公師彦有藻鑑.嘗曰尹彝敍如玉山瑤林.秀出天外.羸弱如不勝衣.至其操守堅確.雖賁育不可撓也.登朝籍四十五年.抑塞沈訕.卒輒軻不振.而怨天尤人之言.未嘗啓口.(…)

정약용(丁若鏞),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제16권 묘지명(墓誌銘), 南阜尹參議墓誌銘>

정치/인물

조명옥(曹明勗)이 남양 부사(南陽府使)가 되었다는 내용.

(...) 그 뒤에 교리와 장령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출사하지 않았다. 외직으로 나가 남양 부사(南陽府使)가 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병환을 이유로 관직을 버리고 돌아갔다. (...)

정두경(鄭斗卿), <동명집(東溟集), 제16권 비갈(碑碣), 利川府使贈左議政曹公墓碣>

정치/인물

임진왜란 때 권현(權峴)이 서울의 친척들을 따라 남양(南陽)의 섬으로 들어가 피난하였다는 내용.

(...) 공은 만력(萬曆) 병자년(1576, 선조9)에 홍주(洪州) 임내촌(林內村)에서 태어났다. 젓니를 갈기 시작할 무렵부터 뜻과 기운이 범상치 않았다. 어려서 서울에 들어와 당숙인 판서공(判書公) 징(徵)에게 배웠다. 임진년(1592, 선조25)에 왜적이 갑자기 쳐들어와 상계서 서쪽으로 파천하였는데, 길이 끊겨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이에 서울에 살고 있던 친척들을 따라서 남양(南陽)의 섬으로 들어가 피난하였다. 친족 가운데 병 때문에 뒤쳐진 자가 있자 곧바로 나가 찾아보니, 그 사람은 이미 여관에서 죽어 있었다. 이에 공은 옷을 벗어 염습하고 흠을 파서 묻다가 왜적에게 사로잡혔다. 그때 함께 사로잡힌 10여 명이 모두 죽음을 당하였는데, 공은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자, 왜적의 장수가 기이하게 여겨 죽이지 않고 진중(陣中)에 놓아두었다. (...)

정두경(鄭斗卿), <동명집(東溟集), 제15권 비갈(碑碣), 驪州牧使權公墓碣>

정치/인물

김지남(金止男)이 남양(南陽) 등의 수령을 지냈다는 내용.

(...) 공의 관작을 서술해 보면, 내직으로는 승문원 정자, 한림, 지제교, 수찬, 교리, 응교, 정언, 사간, 지평, 장령, 집의, 필선, 보덕, 승지, 예조·병조·형조의 참의를 지냈으며, 외직으로는 황주 판관(黃州判官), 경기·평안·전라·강원의 도사(都事), 경상 감사, 남양(南陽)·순천(順天)·상주(尙州)·청풍(淸風)의 수령을 지냈다. 일찍이 한원(翰苑)에 있을 적에 해주(海州)에 성을 쌓는 공역이 있어, 상계서 가서 살펴보게 하였다. (...)

정두경(鄭斗卿), <동명집(東溟集), 제15권 비갈(碑碣), 慶尙道觀察使金公墓碣>

정치/인물

유림(柳琳)이 1624년(인조 2) 남양 부사에 제수되었다는 내용.

(...) 임술년(1622)에 체차되어 북병사(北兵使)에 제수되었으나, 병으로 인해 부임하지 못하였다. 계해년(1623, 인조1)에 장흥 부사(長興府使)에 제수되었다. 반정(反正) 이후에 혼조(昏朝) 때 제수된 자들을 모두 파직하였는데, 공만은 홀로 잉임(仍任)되었다. 갑자년(1624)에 남양 부사(南陽府使)에 제수되었다가 공로로 인해 진무 원종공신(振武原從功臣)에 녹훈되었다. 이해에 남한산성(南漢山城)을 개축하는 역사가 있어 광주 목사(廣州牧使)로 옮겨 제수되었는데, 이 역시 조정에서 선발하여 옮긴 것이다. (...)

정두경(鄭斗卿), <동명집(東溟集), 제15권 비갈(碑碣), 統制使柳公神道碑>

정치/인물

1623년(인조 1) 강홍중이 남양 부사(南陽府使)가 되었다는 내용.

(…) 계해년(1623, 인조1)에 반정이 일어난 뒤에 외직으로 나가 남양 부사(南陽府使)가 되었다. 역적 이괄(李适)이 반란을 일으켜서 수령들을 무신(武臣)들로 바꿈에 따라 판교(判校)에 제수되었다. (…)

정두경(鄭斗卿), <동명집(東溟集), 제14권 비갈(碑碣), 岳君江原道觀察使贈吏曹判書姜公墓碑>

정치/인물

윤계는 병자호란 때 남양 부사(南陽府使)로 있었다.

영산(靈山)의 사군(使君) 윤이명(尹以明)이 나에게 삼절(三節)의 유고(遺稿)를 보여 주면서 서문을 지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삼절이란 과재공(果齋公)이 임진년의 난리에 죽고, 신곡공(薪谷公)과 임계공(林溪公) 두 공이 병자년의 난리에 죽은 것을 칭한 말이다.⁵¹⁸⁾ 할아버지와 손자의 형제가 모두 절개를 지키다가 죽었으니, 아아, 윤씨 집안은 어찌하여 절사(節士)가 이처럼 많단 말인가.

정두경(鄭斗卿), <동명집(東溟集) 제11권 서(序) 《삼절고》 서>

정치/인물

윤증이 지은 민진량의 묘지명으로 1654년(효종 5) 남양부사에 제수되었다는 내용.

(…) 갑오년(1654, 효종5)에 남양 부사(南陽府使)에 제수되었고, 을미년(1655)에 파주 목사(坡州牧使)에 제수되자 자운서원(紫雲書院)의 사묘(祠廟)를 새롭게 단장하여 후학들을 권면하였다. (…)

公諱晉亮.字明允.姓閔氏.驪興人.(…) 甲午.拜南陽府使.乙未.拜坡州牧使.新紫雲祠廟.以勸後學.(…)

윤증(尹拯), <명재유고(明齋遺稿), 제36권 묘지명(墓誌銘), 楊州牧使贈兵曹參判閔公墓誌銘>

정치/인물

윤증이 지은 김종익의 묘갈명으로 1654년(효종 5) 남양부사가 되었다는 내용.

공의 이름은 중익(重鎰)이고 자은 백진(伯珍)이며, 성은 김씨로 계통이 신라에서 나왔다. (…)
신묘년(1651)에 통정대부에 오르고, 계사년(1653)에 부모의 나이가 80세여서 국법대로 정사(呈辭)하여 체직되었다. 갑오년(1654)에 형조 참의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4월에 다시 제수되었으며, 겨울에 부모 봉양을 위하여 외직을 구하여 남양 부사(南陽府使)가 되었다가 을미년(1655) 가을에 체직되어 돌아왔다. 무술년(1658) 겨울에 또 파주 목사(坡州

518) 삼절이란 …… 말이다 : 과재(果齋)는 윤섬(尹暹), 신곡(薪谷)은 윤계(尹槩), 임계(林溪)는 윤집(尹集)의 호이다. 윤섬은 자가 여진(如進)인데, 임진왜란 때 순변사(巡邊使) 이일(李鎰)을 따라 상주(尙州)에 가서 방어하고 있었는데, 이일이 적의 형세가 치성한 것을 보고는 그곳을 떠나면서, “그대는 나를 따라 주기 바란다.” 하였으나, 꿈쩍도 하지 않고 막차(幕次)에 그대로 앉아서 말하기를 “앞으로 다시는 주상을 볼 수 없게 되었다. 남아 대장부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나라를 위하여 한 번 죽는 것으로 족하다.” 하고는 마침내 그곳에서 죽었다. 윤계는 자가 신백(信伯)인데, 병자호란 때 남양 부사(南陽府使)로 있으면서 의사(義士)를 모집하여 장차 적(賊)을 토벌하려 하였는데, 적들이 갑자기 쳐들어오자 적에게 항거하여 목설을 하다가 죽음을 당하였다. 윤집은 자가 성백(成伯)으로 윤계의 아우이다. 삼학사(三學士) 가운데 한 사람으로 청나라에 항복하는 것에 대해 극언(極言)하였는데, 남한산성(南漢山城)의 형세가 궁박해지자 조정에서 삼학사를 청나라에 보내어 사과하도록 하였다. 마침내 청나라에 잡혀 가 조금도 굴하지 않은 채, “나는 다만 황상(皇上)이 있는 줄 알 뿐이다.” 하고는 죽었다.

牧使)가 되었다가 이듬해 봄에 파직되었다. (…)

公諱重鎰.字伯珍.姓金氏.系出新羅.(…) 辛卯.陞通政.癸巳.以親年八十.引國法呈遞.甲午.拜刑曹參議.不赴.四月.再除.冬.爲養求爲南陽府使.乙未秋.遞歸.戊戌冬.又爲坡州牧使.翌年春.罷.(…)

윤증(尹拯), <명재유고(明齋遺稿), 제39권 묘갈명(墓碣銘), 刑曹參議金公墓碣銘>

정치/인물

윤증이 지은 박동선의 신도비명으로 남양부사를 지냈다는 내용.

공의 이름은 동선(東善)이고 자는 자수(子粹)이다. (….) 전직, 직강, 예조의 좌랑과 정랑, 병조 정랑, 통례원의 상례와 통례, 중부시 정, 사복시 정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그사이에 외직으로 나가 경기 도사, 수안 군수(遂安郡守), 인천(仁川)과 부평(富平), 남양(南陽)의 부사를 지냈다. 부임한 곳에서는 백성을 다스리고 공무를 수행하기를 한결같이 성실하게 하고 자신을 단속하였으며 간소하고 차분하게 아랫사람 부리기를 힘썼다. (…)

公諱東善.字子粹.(…) 歷典籍, 直講, 禮曹佐郎正郎, 兵曹正郎, 通禮院相禮通禮, 宗簿司僕寺正.間出爲京畿都事, 遂安郡守, 仁川富平南陽府使.所至.治民奉公.一以誠實約己.御下務爲簡靜.(…)

윤증(尹拯), <명재유고(明齋遺稿), 제41권 신도비명(神道碑銘), 左參贊贈領議政錦川府院君朴公神道碑銘>

정치/인물

남양 홍규가 묘련사의 무외국사를 찾아가 젓대 연주를 부탁하였다는 일화를 읊은 시.

남양(南陽) 홍규(洪奎)가 묘련사(妙蓮寺)의 무외국사(無畏國師)가 젓대를 잘 분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젓대를 들고 방장(方丈)에 들어가 청하니, 국사가 그를 위해 두어 곡조를 불었다.

국사를 누가 적가의 스승이라 일렀던가 / 國師誰道笛家師

아침에 손을 만나서 처음 한 번 불었네 / 見客朝來始一吹

사미(沙彌)에게 알리노니 괴이케 여기지 말라 / 爲報沙彌莫驚怪

오묘한 도리는 그것과 무관한 것이란다 / 此中消息不關伊

國師誰道笛家師.見客朝來始一吹.爲報沙彌莫驚怪.此中消息不關伊.

이색(李穡), <목은집(牧隱集), 목은시고 제5권 시(詩), 洪南陽奎.聞妙蓮無畏國師善吹笛.自袖中筇.入方丈請之.師爲作數弄.>

정치/인물

윤휴의 행장으로 윤휴가 남양부사 홍주언 등이 고을을 잘 다스리지 못한 것을 아뢰어 체직시켰다는 내용.

(…) 인견(引見)했을 때 공이 남양 부사(南陽府使) 홍주언(洪柱彦)과 적성 현감(積城縣監) 윤자(尹鎡)는 고을을 잘 다스리지 못한 것을 아뢰어 체면시키고, 영암 군수(靈巖郡守) 정도존(鄭道存)은 적합한 인재가 아닌 것을 아뢰어 체면시키고, 철원 부사(鐵原府使) 양우(梁禹)를 체면시키고 문신(文臣)을 차출하여 보낼 것을 청했는데, 상이 모두 윤허하였다. (…)

519) 사미(沙彌) : 불문(佛門)에 들어가 머리를 깎고 득도식(得度式)을 막 끝낸, 수행이 아직 미숙한 중을 가리킨다.

윤휴(尹鑄), <백호전서(白湖全書), 부록3 행장(行狀)中>

정치/인물

윤휴가 지은 윤승길의 시장으로, 어버이 봉양을 위해 남양부사가 되었다는 내용.

공의 휘는 승길(承吉)이요 자는 자일(子一)이다. 윤씨는 계통이 영남(嶺南)의 해평현(海平縣)에서 나왔다. (...) 병자년에 다시 장령이 되었는데, 이해에 부친상을 당하였다. 복을 마치고는 종부시 첨정으로 복관되었는데, 어버이 봉양을 위해 외직을 자청하여 남양 부사(南陽府使)가 되었다. 남양은 서울과 가까워서 호세가(豪勢家)의 소작인(小作人)들이 많았는데, 공이 그곳에 부임하여서는 일체 법으로 엄중히 다스리니, 간궤(姦宄)가 크게 지식되었다. 유언비어로 비방을 조작하여 공을 용동시켜 제거하려는 자도 있었으나, 공이 위낙 청렴하고 신중하기 때문에 끝내 공을 중상할 수가 없었다. (...)

윤휴(尹鑄), <백호전서(白湖全書), 제22권 시장(諡狀), 左參贊贈領議政尹公諡狀>

정치/인물

서거정이 남양의 수령으로 가는 조민(趙岷)을 전송하며 지어준 시

원님 되어 남양으로 부임하여라 / 宰出南陽去
은총이 저 북궐에서 내리었도다 / 恩從北闕頒
훌륭한 관리는 얻었다 할지라도 / 雖然得良吏
가까운 반열 떠남은 애석하구려 / 惜此辭近班
중의에 따라 엄선된 건 알겠거니와 / 僉謀知選重
함께 다스릴 인재 얻긴 어렵고말고 / 共理亦才難
이것으로 이별의 한을 위로할 뿐 / 所以慰別恨
이별 자리엔 못 나감이 부끄럽네 / 離筵愧未攀

서거정(徐居正), <사가집(四佳集), 사가시집 제21권 시류(詩類), 奉送南陽趙使君【岷】>

정치/인물

김집이 지은 김장생의 가장으로 1598년 남양부사에 제수되었다가 체직되었다는 내용.

(...) 무술년(1598) 여름에는 군자감 첨정(軍資監僉正)과 호조 정랑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취임하지 않았다. 가을에 남양 부사(南陽府使)에 제수되었으나, 승진이 너무 빠르다는 언관(言官)의 지적으로 인하여 체직되었다. (...)

김장생(金長生), <사계전서(沙溪全書), 제48권 부록(附錄), 가장(家狀) >

정치/인물

송시열(宋時烈)이 지은 김장생의 행장으로 1598년 가을 남양부사에 제수되었다가 체직되었다는 내용.

(...) 무술년(1598) 여름에 군자감 첨정(軍資監僉正)과 호조 정랑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취임하지 않았다. 가을에 남양 부사(南陽府使)에 제수되었는데, 언관(言官)이 너무 갑작스럽게 승진하였다고 논하여 체직되었다. (...)

김장생(金長生), <사계전서(沙溪全書), 제48권 부록(附錄), 行狀>

정치/인물

1598년 9월 15일 남양부사에 제수되었다는 체직되었다는 내용.

○ 9월 정유일 【15일】 에 남양 부사(南陽府使)에 제수되었는데, 너무 빨리 승진하였다는 이유로 논박을 받아 체차되었다.

김장생(金長生), <사계전서(沙溪全書), 제43권 부록(附錄), 무술년(1598, 선조31) 선생 51세>

정치/인물

정도전이 남양에 부임하면서 사례하는 글을 올린 내용

신 도전은 은혜를 입어 남양 부사(南陽府使)로 제수되어 이미 금월 17일에 도임하였습니다.

공경히 윤음(綸音)을 받자와 해읍(海邑)으로 나가 지키게 되니 부끄럼과 감격함이 함께 얹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臣道傳蒙恩除南陽府使.已於今月十七日.到任 上訖.祇承綸命.出守海鄉.愧感交駢.罔知所措.(…)

정도전(鄭道傳), <삼봉집(三峯集), 제3권 전(箋), 到南陽謝上箋 【乙丑】>⁵²⁰

정치/인물

1385년(우왕 11) 정도전이 남양부사로 부임하여 밀직사에 올리는 계문.

도전(道傳)은 아뢰옵니다. 은혜를 입어 남양부사(南陽府使)로 차견(差遣)되어 이미 금월 17일에 부임을 하였습니다. 홀로 휘장(麾旌) 지휘하는 것발 하나를 잡고서, 백리(百里) 고을을 가리킴)를 다스리려고 부임은 했습니다만, 녹봉(祿俸)만을 허비할 뿐이며 승선(承宣)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아보건대, 이 고을은 큰 바다를 접하고 있어서 왜구[島寇]가 때없이 출몰합니다. 그리하여 거주민들이 여러 번 소란을 떨었으니, 진실로 통민(通敏)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그를 무마하고 방어할 방법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道傳啓.蒙恩授前件差遣.已於今月十七日赴任上訖.獨把一麾.出宰百里.徒費廩養.無補承宣.顧惟小鄉濱於大海.島寇無時而竊發.居民屢至於騷然.苟非通敏之才.難得撫禦之道.

정도전(鄭道傳), <삼봉집(三峯集), 제3권 계(啓), 到南陽上密直司啓【乙丑】>

정치/인물

정도전이 남양부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중국에 왕위 승습을 청하는 표문에 후손이 주석한 내용.

(…)
【안】 공이 남양부사(南陽府使)로 도임하여 사례하는 표를 올리기를, “사신 갔다 돌아오는 날로 즉시 신에게 지제교(知製敎)를 맡기시고 전하께서 승습을 청할 때에 신으로 하여금 표문(表文)을 짓게 하셨으니, 천자가 칭찬하기를 ‘표의 말이 아주 간절하다.’ 하였으며, 고황제(高皇帝)가 사시(賜諡)하는 제(制)에서도 ‘표의 말이 간절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
【按公到南陽.謝上表曰.使還之日.卽授臣知製敎.殿下請承襲.俾臣草表文.天子嘉之曰.表辭誠切.高皇帝賜諡制亦曰.表辭懇切.】

정도전(鄭道傳), <삼봉집(三峯集), 제7권 습유(拾遺), 辛禍請承襲表>

520) 정도전(鄭道傳), <동문선(東文選), 제38권 표전(表箋), 到南陽謝上箋>

정치/인물

정도전이 남양의 수령으로서 정사가 아직도 칭송되고 있다는 내용.

공양왕의 교서는 이러하다. (….) 그 뒤에 김유(金庠)·홍상재(洪尙載)·김구용(金九容) 등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모두 구금을 당하고, 사신길도 끊어졌었다. 그런데 경은 몽주와 더불어 성절사(聖節使)로 떠나서 밤낮을 헤아리지 않고 길을 재촉하며 성절을 하례하니, 황제가 가상히 여기고 유와 상재 등을 돌려보냈으니, 우리 나라가 사대(事大)하는 예절을 잃지 않고, 종사와 생령이 영구히 편안하게 된 것은 오직 경과 몽주의 힘이였다.

사행에서 돌아온 즉시 큰 벼슬을 내리려 했더니, 여기서 외직(外職)을 요청한 것은 어떤 생각이 있어서였다. 남양(南陽)의 백성들이 경의 혜정(惠政)에 감화하여 지금까지 칭송하고 있으며, 우와 창(父)의 부자(父子)가 참람된 이름을 서로 【본문(本文)에는 장차(將)로 되었음.】 계승하여 우리의 종사(宗祀)를 끊고, 우리 백성에게 해독을 끼쳐서 귀신과 사람이 원통해한 지가 무릇 16년이나 되었다. (….)

恭讓王敕曰.(…) 後金庠, 洪尙載, 金九容等入朝.皆被拘留.朝聘道絕.卿與夢周入賀聖節.倍日兼行.帝乃嘉之.遣還庠, 尙載等.我國不失事大之禮.宗社生靈之永賴.惟卿與夢周之力也.及乎東歸.將欲大拜.乃求外補.意有以也.南陽之民.感卿惠政.至今稱之.禍, 昌父子相 【本文作將】 繼僭號.殄絕我宗祀.害虐我烝民.神人怨恫者凡十六載.(….)

정도전(鄭道傳), <삼봉집(三峯集), 제8권 부록(附錄), 敎告文>

정치/인물

정도전의 행적을 기술한 것으로 남양부사로 나갔을 때의 일화를 소개한 내용.

(…) 외보(外補 지방관)를 요청하여 남양부사(南陽府使)로 나갔으니, 어떤 뜻이 있어서였다. 많은 혜정(惠政)을 베풀어서, 온 고을에 칭송이 대단하였다. 아태조가 천거하여 성균 대사성(成均大司成)으로 불러들이니 여러 차례 제책을 올렸다. 본전·본집 및 신우전을 통해 역었다.

(…) 乞外補.出守南陽府.意有以也.多惠政.闔境稱之.我太祖薦之.召拜成均大司成.屢獻計.【本傳本集及辛禍傳通修】 (….)

정도전(鄭道傳), <삼봉집(三峯集), 제8권 부록(附錄), 事實>

정치/인물

신흠이 지은 한준겸의 묘지명으로, 장남 한회일이 남양부사라는 내용.

(…) 참의의 초취(初娶)는 구사중(具思仲)의 딸인데 여기서는 자녀가 없고, 후취는 김정준(金廷俊)의 딸인데 여기서 1남 1녀를 두었는 바, 아들 흥일(興一)은 예문관 봉교이고 딸은 홍비(洪斐)에게 시집갔다. 중겸은 이태수(李台壽)의 딸에게 장가들어 2남 1녀를 낳았는데, 장남 선일(善一)은 삭녕 군수(朔寧郡守)이고 다음 덕일(德一)은 사첨시 봉사이며, 딸은 진사 심대형(沈大亨)에게 시집갔다. 서평은 예조 정랑 황성(黃城)의 딸에게 장가들어 2남 4녀를 낳았는데, 장남 회일(會一)은 남양 부사(南陽府使)이고 다음 소일(昭一)은 일찍 죽었다.

(…) 參議初娶具思仲女無後.後娶金廷俊女.生一男一女.男曰興一.藝文館奉敎.女曰洪斐.重謙娶李台壽女.生二男一女.男長善一.朔寧郡守.次德一.司膳奉事.女進士沈大亨.西平娶禮曹正郎黃城女.生二男四女.男長會一.南陽府使.次昭一.早夭.

신흠(申欽), <상촌집(象村集) 제25권 묘지명(墓誌銘), 贈領議政韓公墓誌銘>

정치/인물

박세당이 지은 박세성의 묘지명으로 1661년 가을 남양부사에 제수되어 잘 다스렸다는 내용. 공은 휘는 세성(世城), 자는 만기(萬基), 성은 박씨(朴氏)이며, 그 선조는 나주(羅州)의 반남현(潘南縣) 사람이다. (…)신축년(1661) 가을에 서용되어 남양 부사(南陽府使)에 배수되었다. 바닷가라 풍속이 거칠었는데, 공이 정사를 함에 큰 소리로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감히 녹장을 부리지 못하였다. 마침 균전(均田)을 하었는데 민전(民田)에 대한 등급을 가볍게 하자, 일을 주관하는 이가 느슨하게 매긴 병통이 있다고 의심하여 견책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상(商)나라의 조법(助法)과 주(周)나라의 철법(徹法)이 어찌 우연한 데서 나왔겠는가. 위에서 혹시라도 지나치게 취하면 아래 백성들은 생업에 안정하지 못하는 법이다.”라고 하고 끝내 고치지 아니하니,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그 덕을 보고 있다. (…)

公諱世城.字萬基.姓朴氏.其先.羅州之潘南縣人.(…) 辛丑秋.敍拜南陽府使.瀕海俗獷.公之爲治.不大聲色布令而無敢後.會均田等民田常輕.主事者疑其病於緩.譴責之.公曰.商助周徹.意豈偶然.上取之或過.下無以安其生.終不改.其民至今賴焉.(…)

박세당(朴世堂), <서계집(西溪集), 제9권 지명(誌銘), 左副承旨朴公墓誌銘>

정치/인물

김시진이 남양현감이 되었다는 내용.

공은 휘는 시진(始振), 자는 백옥(伯玉), 성은 김씨(金氏), 호는 반고(盤阜)이다. 그의 선조는 경주(慶州) 사람이다. (…)임진년(1652) 봄에 다시 실록을 수찬하는 데 참여하였고, 수어 종사(守禦從事)를 겸하였다. 여름에 상소하여 윤순지(尹順之)가 문형(文衡)에 합당하지 않은 것과 윤선도(尹善道)가 사특하고 방자한 것을 논핵하였는데, 상이 노여워하자 인하여 해면을 청하면서 다시 윤선도의 일을 논하니, 상이 더욱 노여워하여 홍문관의 직임을 해면시켜 주었다. 6월에 외직으로 나가기를 청해 남양 현감(南陽縣監)이 되었다.

公諱始振.字伯玉.姓金氏.號盤阜.其先慶州人.(…) 壬辰春.復參修實錄.兼守禦從事.夏.疏論尹順之不合文衡.尹善道淫邪縱恣.上怒.因乞解.復論善道事.上愈不悅.聽解館職. 六月.求出爲南陽縣監.癸巳春.入爲副校理.復參修實錄.選知製教.夏.爲獻納.已而.罷.秋.敍拜副修撰.與諸僚劄論大司諫陸行善.忤旨辭褫.於是命銓部不得擬注.(…)

박세당(朴世堂), <서계집(西溪集), 제13권 갈명(碣銘), 禮曹參判金公墓碣銘>

정치/인물

이익이 지은 윤경복의 묘표로 남양부사를 지냈다는 내용.

고(故) 윤공의 휘는 경복(慶福)이고 자는 기선(基善)이다. (…)외직으로는 은진(恩津), 함흥(咸興), 재령(載寧), 함창(咸昌), 함천(陝川), 직산(稷山), 남양(南陽), 상원(祥原)의 수령을 지냈다. 김산(金山), 양양(襄陽), 가산(嘉山), 덕천(德川), 인천(仁川), 성천(成川)의 경우는 혹 사양하여 부임하지 않았고 혹은 정신(廷臣)이 계달(啓達)하여 내직에 머물러 있거나 또는 막는 자가 있기도 하였다. 함흥의 경우에는, 전에 이곳이 6년에 아홉 번이나 수령이 바뀌는 바람에 폐해가 심해서 조정에서 특별히 가려서 공을 판관으로 삼았는데, 공이 이르자 쌓인 폐단이 제거되었다. 방백 이후백(李後白)이 “윤경복은 100리를 다스릴 만한 인재가 아니겠는가.”라고 감탄하였으며 일이 있으면 반드시 물어보고 결정하였다. 남양에 있을 때에는 마침 임진왜란을 만나 군사를 거느리고 전란에 나갔는데 조정에서 무신을 보내 교체하였다. 이에 공이 도중에 직임을 잃고 조정에 가는 길도 막혀서 낭패하여 이리저리 읍

겨 다니다가 배 타고 바닷길로 서쪽 변방에 가서 상을 알현하였다.

故尹公諱慶福字基善.(…)外則恩津,咸興,載寧,咸昌,陝川,稷山,南陽,祥原爲倅.金山,襄陽,嘉山,德川,仁川,成川則或辭不赴.或廷臣啓達仍內職.又或有沮者矣.其在咸興.前此六載九易宰弊甚.廷議別揀爲判官.公至則積瘼以去.方伯李後白歎曰某豈百里才.事必咨決.其在南陽.值壬辰倭寇.領兵赴亂.朝廷以武臣來代.公中道失職.行朝阻絕.顛沛轉徙.航海入覲于西邊.受大僕之命.이익(李瀾), <성호전집(星湖全集)>, 제59권 묘표(墓表), 司僕正尹公墓表>

정치/인물

송시열이 지은 김장생의 행장으로 1598년(선조 31) 가을 남양부사에 제수되었으나 연관이 논하여 체직되었다는 내용.

(…) 무술년(1598, 선조31) 여름에는 군자감 첨정(軍資監僉正)과 호조 정랑(戶曹正郎)에 제수(除授)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았다. 가을에 남양 부사(南陽府使)에 제수되자 연관(言官)이 취승(驟陞 급작스럽게 벼슬이 오르는 것을 말함)이라고 논(論)하여 체직(遞職)되었다. 기해년(1599, 선조32) 봄에는 양근 군수(楊根郡守)와 익위사 익위(翼衛司翼衛)에 연이어 제수되었으나 모두 사체(辭遞)했다. 얼마 후 다시 군자감 첨정에 제수되니 은명(恩命)을 누차 사양함이 미안하다 하여 출사(出謝)하였다. 가을에 안성 군수(安城郡守)에 제수되었다. 경기도 일원(一圓)이 난리를 겪은 지 오래지 않아 백성이 조चे(凋瘵)하므로 선생이 마음을 다해 무마하니 몇 해 안 가서 복구되었다. (…)

(…) 戊戌夏.拜軍資監僉正, 戶曹正郎.皆不就.秋拜南陽府使.言者以驟陞論遞.己亥春.除楊根郡守, 翼衛司翼衛.並辭遞.俄而復拜軍資監僉正.以屢辭恩命.爲未安出謝.秋爲安城郡守.畿輔去亂未久.遺氓凋瘵.先生盡心撫摩.不數年幾復其舊.(…)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제208권 행장(行狀), 沙溪金先生行狀>

정치/인물

송시열이 지은 이명환의 시장으로 남양부사를 지냈고 어머니 상에 주민들이 곡식을 내어 장사 경비를 보조하였다는 내용.

(…) 정묘호란(丁卯胡亂) 때 강화도로 왕을 호종하였는데, 상이 내린 부로(父老)들을 교유(敎諭)하는 글도 공의 손에서 나왔다. 난리가 끝난 후 상이 몸소 사친(私親)의 사당에 나가 제사를 지내므로 공이 예법에 어긋난다고 굳이 고집하니, 상이 곧다는 이름을 사려고 한다 하여 공을 꾸짖었다. 공이 소를 계속 올려 누명은 벗었으나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므로 남양 부사(南陽府使)를 자청하여 나갔다. 이에 아전을 단속하고 백성을 무휼(撫恤)하는데 관용과 엄격함이 사정에 맞도록 하니, 남녀노소가 그 선정(善政)을 노래하였다. (…)

모친이 몹시 놀란 나머지 병을 얻어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므로 수원의 쌍부리(雙阜里)에 빈소를 임시로 마련하였다. 이때는 온 가산이 없어져 어찌할 도리가 없었는데, 마침 남양(南陽) 주민들이 공의 끼친 은혜를 잊지 못하고 앞을 다투어 곡식을 내어 장사 경비를 보조하였다. (…)

(…) 丁卯虜變.扈駕江都.上敎諭父老.其文亦出公手.亂已.上親祭私廟.公論執其儀註之違禮者.上以沽直斥之.連疏獲免.而猶不自安於內.求出爲南陽府使.束吏撫民.寬猛得宜.耄艾歌詠.(…) 大夫人因震撼得疾.竟不起.權厝於水原之雙阜.時舉家傾覆.銜恤靡至.南陽人不忘公遺澤.爭出米穀.以助喪葬.制除.(…)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제204권 시장(諡狀), 白洲李公諡狀>

정치/인물

이남규가 지은 정래주(鄭來周)의 묘갈명으로 남양부사를 지냈다는 내용.

공의 이름은 내주(來周)이며 자는 내중(來仲)이고 동래 정씨이다. (….) 그리고 외직(外職)으로는 강원도와 황해도의 좌막(佐幕 비장(裨將))을 지내고, 무안 현감(務安縣監)과 영암 군수(靈巖郡守)를 지낸 다음 지부(知府 부사(府使))를 일곱 군데나 역임하였다. 곧 내직을 거쳐서 영해(寧海)로 나갔다가 이어서 동래(東萊)로 옮기고 북청(北靑)으로 옮겼으며, 승지를 거쳐 경반(卿班)들을 따라 나가서 풍덕(豐德)에 이어 남양(南陽)에 제수되기도 하였다. (….)

公諱來周.字來仲.東萊之鄭.(…) 外則佐關東海西幕.監務安縣.守靈巖郡.知府七.迨內出寧海.旋移東萊.北靑.迨承宣出從卿班.拜豐德.南陽.

이남규(李南珪), <수당집(修堂集), 제10권 묘갈명(墓碣銘), 兵曹參判鄭公墓碣銘>

정치/인물

김집이 지은 김장생의 가장(家狀)으로 1598년(선조 31) 가을 남양부사에 제수되었으나 언관의 지적으로 체직되었다는 내용.

(…) 무술년(1598) 여름에는 군자감 첨정(軍資監僉政)과 호조 정랑(戶曹正郎)에 임명되었으나 다 나아가지 않았으며, 가을에는 남양 부사(南陽府使)로 발령받았는데, 승진이 너무 빠르다는 언관(言官)의 지적으로 인하여 체직되었다. (….)

(…) 戊戌夏.拜軍資監僉正戶曹正郎.皆不就.秋爲南陽府使.言官以驟陞論遞.(….)

김집(金集), <신독재전서(愼獨齋全書), 제9권 행장(行狀), 皇考沙溪先生行狀>

정치/인물

남구만이 지은 이장영(李長英)의 묘갈명으로 남양부사를 지냈다는 내용.

(…) 공은 휘가 장영(長英)이고 (….) 외직으로는 통진현(通津縣)·경산현(慶山縣)·함양군(咸陽郡)·안성군(安城郡)·괴산군(槐山郡)·이천부(利川府)·철원부(鐵原府)·부평부(富平府)·평산부(平山府)·고양군(高陽郡)·풍덕부(豐德府)·남양현(南陽縣)·통천군(通川郡)의 수령과 부사를 역임하였다. (….)

尙州牧使李公墓碣銘

(…) 公諱長英字子華.(…) 外出通津, 慶山縣.咸陽, 安城, 槐山郡.利川, 鐵原, 富平, 平山府.高陽郡, 豐德府, 南陽縣, 通川郡.(….)

남구만(南九萬), <약천집(藥泉集), 제20권 묘갈명(墓碣銘)>

정치/인물

남구만이 지은 이경함(李慶涵)의 신도비명으로 남양부사를 지냈다는 내용.

공은 휘(諱)가 경함(慶涵)이고 자가 양원(養源)이고 호는 만사(晩沙)이고 관향은 한산(韓山)이다. (….) 남양 부사(南陽府使)를 역임하였는데, 남양에서는 송덕비가 있었으며, 사간, 집의, 승지, 광주 목사(廣州牧使), 호조 참의, 성주 목사(星州牧使), 광주 목사(光州牧使)가 되었는데, 두 번이나 표리(表裏)를 하사받았다. (….)

公諱慶涵字養源號晩沙.籍韓山.(…) 南陽府使.有去思碑.司諫, 執義, 承旨, 廣州牧使, 戶曹參議, 星州, 光州牧使.再受表裏.(….)

남구만(南九萬), <약천집(藥泉集)>, 제18권 신도비명(神道碑銘), 兵曹參判李公神道碑銘>

정치/인물

1690년(숙종 16) 남구만이 지은 유림(柳琳)의 신도비명으로 1624년(인조 2) 남양부사를 지냈다는 내용.

(…) 계해년과 갑자년 연달아 장흥(長興)과 남양(南陽)의 부사로 나갔는데, 이때 광주(廣州)에 성 쌓는 일이 있어 본주(本州 광주(廣州))의 목사로 옮겨졌다. 피로가 쌓여 병으로 체직되었다.

(…) 癸亥甲子.連出長興南陽府使.時有廣州城役.移牧本州.積勞病遞.(…)

남구만(南九萬), <약천집(藥泉集)>, 제17권 신도비명(神道碑銘), 統制使柳公神道碑銘【庚午】>

정치/인물

남구만이 지은 김시진(金始振)의 묘지명으로 남양현감으로 나갔다는 내용.

(…) 경기 도사(京畿都事)로 나갔다가 옥당으로 들어와 《인조실록(仁祖實錄)》을 편수하는데 참여하였으며, 수어사(守禦使)의 종사관으로 부름을 받았고 남양 현감(南陽縣監)으로 나갔다.

(…) 出京畿都事.入玉堂.參修仁廟實錄.辟守禦從事.出南陽縣監.

남구만(南九萬), <약천집(藥泉集)>, 제16권 묘지명(墓誌銘), 禮曹參判金公墓誌銘>

정치/인물

1675년(숙종 1) 남구만이 지은 박동선(朴東善) 묘지명으로 남양도호부사를 지냈다는 내용.

(…) 외직(外職)으로는 남포 현감(藍浦縣監), 경기 도사(京畿都事), 수안 군수(遂安郡守), 부평(富平)·인천(仁川)·남양(南陽)의 도호부사(都護府使), 안동 대도호부사(安東大都護府使),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를 지냈으며, 외국에 나간 것은 하동지 부사(賀冬至副使)로 연경(燕京)에 갔었다. (…)

(…) 外則藍浦縣監, 京畿都事, 遂安郡守, 富平仁川南陽都護府使, 安東大都護府使, 開城府留守.出疆則以賀冬至副使如京.(…)

남구만(南九萬), <약천집(藥泉集)>, 제15권 묘지명(墓誌銘), 左參贊朴公墓誌銘【乙卯】>

정치/인물

박지원이 지은 남양 사람 민옹(閔翁)에 대한 간략한 전기.

민옹이란 이는 남양(南陽) 사람이다. 무신년 난리⁵²¹)에 출정하여 그 공으로 첨사(僉使)가 되었는데, 그 뒤로 집으로 물러나 다시는 벼슬하지 않았다. (…)

閔翁者.南陽人也.戊申軍興從征功授僉使.後家居.遂不復仕.(…)

박지원(朴趾源), <연암집(燕巖集)>, 제8권 별집 방경각외전(放靑閣外傳), 閔翁傳>

정치/인물

차천로가 남양(南陽)으로 부임하는 조일관(趙應文)을 송별하며 지은 시.

조나라 구슬이 십오성과 맞먹더니⁵²²) / 趙璧曾傾十五城

521) 무신년 난리 : 영조 4년(1728)에 일어난 이인좌(李麟佐)의 난을 가리킨다.

한 개의 고을로 고명과 바꾸었네 / 一州猶得博高名
 붉은 인끈 금장 차 제후처럼 귀하고 / 金章紫綬諸侯貴
 검붉은 수레 타고 태수로 나간다네 / 皂蓋朱幡刺史行
 방주에 바람 불자 창해에 파도 일고 / 風落芳洲滄海動
 선교에 비가 개어 백운이 피어나리 / 雨晴仙嶠白雲生
 앉아서 읊느라 관촉농이 응결하니⁵²³⁾ / 遙知坐嘯凝官燭
 청렴 공평 소문난 건 두 번째 일이라네 / 餘事廉平溢政聲
 차천로(車天輅), <오산집(五山集), 제3권 칠언율시 [七律], 送趙一貫先生赴南陽>

정치/인물

이행이 지은 채수의 묘지로, 채신보(蔡申保)가 남양부사를 지냈다는 내용.

공의 휘는 수(壽)이고 자는 기지(耆之)이며 본관은 인천(仁川)이다. 12대조로 휘 신징(愼徵)이란 분이 있어 고려(高麗)에 벼슬하여 무공(武功)으로 대장군(大將軍)에 봉해졌다. 대장군이 휘 보문(寶文)을 낳으니 의종(毅宗)을 섬겨 문장으로 이름났고 벼슬이 예부 상서(禮部尙書)에 이르렀다. 상서(尙書)의 8대손 휘 영(泳)은 군자감 소감(軍資監少監)이니 이분이 공의 증조(曾祖)이다. 소감(少監)이 세자시강원 좌필선(世子侍講院左弼善) 증(贈) 예조참의(禮曹參議)인 휘 윤(倫)을 낳았으니 이분이 공의 조부이다. 참의가 남양부사(南陽府使) 증(贈) 이조참판(吏曹參判)이며 소성군(邵城君)에 봉해진 휘 신보(申保)를 낳았다. 참판이 휘 승순(承順)의 따님인 문화 유씨(文化柳氏)를 아내로 맞아 공을 낳았다. (…)

公諱壽.字耆之.仁川人.十二代祖有諱愼徵.仕高麗.用武功.封大將軍.將軍生諱寶文.事毅宗.以文章稱.位至禮部尙書.尙書八代孫諱泳.軍資少監.寔公曾祖.少監生諱倫.世子侍講院左弼善.贈禮曹參議.寔公祖.參議生諱申保.南陽府使.贈吏曹參判.封邵城君.參判娶文化柳氏.諱承順之女.生公.(…)

이행(李荇), <용재집(容齋集), 제10권 산문(散文), 仁川君蔡公墓誌>

정치/인물

성혼이 지은 남양 영흥도의 효자(孝子) 임수복(林秀福)에 대한 일화와 영흥도의 토질.

임수복은 남양(南陽) 영흥도(靈興島) 사람이다. 영흥도는 서해(西海) 가운데에 있으니, 숲이 무성하고 토지가 비옥하여 열대여섯 집이 마소를 치고 사는데, 임수복은 바로 그중의 한 사람이었다. 만력(萬曆) 임진년에 왜적이 경성에 침입하니, 강진휘 자서(姜晉暉子舒)가 난리를 피하여 처자를 데리고 그의 집에 가서 3개월 동안 머물렀다.

林秀福.南陽靈興島人也.島在西海中.林茂而土沃.有牧子十五六家居之.秀福卽其一也.萬曆壬辰.倭賊入京師.姜晉暉子舒避亂携妻子.客于其家凡三月.

성혼(成渾), <우계집(牛溪集), 제6권 잡저(雜著), 孝子林秀福傳>

522) 조(趙)나라 …… 맛먹더니 : 조나라 구슬은 여러 개의 성과 맞바꿀 만한 가치를 지닌 진귀한 구슬로 전국 시대 때의 보배이다. 조(趙)나라 혜문왕(惠文王)이 화씨벽(和氏璧)을 얻었다고 소문이 나자 진(秦)나라 소왕(昭王)이 15개의 성과 바꾸자고 하였다. 《史記 卷81 藺相如列傳》

523) 앉아서 …… 응결하니 : 《송패유초(宋稗類鈔)》 권15에 “구래공(寇萊公)은 사치를 좋아하고 특히 밤에 연회 열기를 좋아하였다. 그가 관아에서 물러간 뒤에 관사나 변소에는 촛농이 땅바닥에 응결되어 무더기를 이루었다. 그런데 두기공(杜祁公)은 청렴 검소하여 관청에 있을 때에 관촉을 쓰지 않고 조그만 유등(油燈)을 켜 놓고 손님과 고상한 이야기만 나누었다.” 하였다.

정치/인물

정경세가 지은 강서(姜緒)의 묘표로 1586년 남양부사에 제수되었다는 내용.

(…) 갑신년(1584) 봄에 다시 장령에 제수되었다가 어머니의 봉양을 위해 외직으로 나가 수원 부사(水原府使)가 되었는데, 공무를 판결하는 것이 엄명하여 아전들은 두려워하고 백성들은 그리워하였다. 이해 겨울에 직질(職秩)을 더하도록 명을 받았으나 1년도 채 못 되어 병으로 이내 사양하고 향리로 돌아갔다. 병술년(1586)에 남양 부사(南陽府使)에 제수되었는데, 법에 있어서 응당 외임에 다시 제수되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당시에 변경 지방에 경보가 있어 연해(沿海)의 수령들을 모두 무변(武弁)으로 바꾸었는데, 이로 인해 체차되고서 향리로 돌아갔다.

(…) 甲申春.復拜掌令.爲養出爲水原府使.剖決嚴明.吏畏民懷.冬命增秩.未一年.謝病歸. 丙戌.授南陽府使.法應還除外任故也.時有邊警.沿海守令皆易以武弁.因此遞歸.(…)

정경세(鄭經世), <우복집(愚伏集), 제18권 묘표(墓表), 通政大夫行承政院左承旨姜公墓表>

정치/인물

정경세가 지은 이덕형(李德馨)의 행장으로 고조 이세준이 남양부사를 지냈다는 내용.

(…) 고조는 휘가 세준(世俊)으로, 남양 부사(南陽府使)를 지내고 중묘조(中廟朝)에 병조 참판에 추증되었는데, 아버지와 함께 화를 입었기 때문이었다. (…)

(…) 高祖諱世俊.南陽府使.中廟朝.贈兵曹參判.以與父同被禍故也.(…)

정경세(鄭經世), <우복집(愚伏集), 제20권 행장(行狀), 漢陰李公行狀>

정치/인물

이정구가 지은 한준겸의 신도비명으로 장남 한희일이 남양부사를 지냈다는 내용.

(…) 슬하에 2남 4녀를 두었다. 장남은 희일(會一)로 남양 부사(南陽府使)이며, 판서(判書) 이성중(李誠中)의 따님을 아내로 맞아 2남 3녀를 낳았다. 아들은 이성(以成), 이평(以平)이고, 딸은 사인(士人) 신익룡(申翊隆), 정하(鄭何)에게 출가하였다. 나머지는 어리다. (…)

(…) 舉二男四女. 男長曰會一.南陽府使.娶判書李誠中女.生二男三女.男以成, 以平.女適士人申翊隆, 鄭何.餘幼.(…)

이정구(李廷龜), <월사집(月沙集), 제43권 신도비명 중(神道碑銘中), 西平府院君贈諡文翼韓公神道碑銘>

정치/인물

이정구가 지은 한준겸(韓浚謙)의 어머니 묘지명으로, 한준겸의 장남 한희일이 남양부사를 지냈다는 내용.

(…) 서평공은 예조 정랑(禮曹正郎) 황성(黃城)의 따님을 아내로 맞아 2남 4녀를 낳았다. 장남 희일(會一)은 통정대부(通政大夫) 남양 부사(南陽府使)이고, 소일(昭一)은 조몰(早歿)하였다.

(…) 西平娶禮曹正郎黃城女.生二男四女. 男長會一.通政南陽府使.昭一.早歿.

이정구(李廷龜), <월사집(月沙集), 제48권 묘지명 상(墓誌銘上), 西平府院君大夫人申氏墓誌銘>

정치/인물

김육이 지은 박응인(朴應寅)의 묘갈명으로 외직으로 남양부사를 지냈다는 내용.

(…) 외직으로는 개성 도사(開城都事)가 되었으며, 한 현(縣)과 두 군(郡), 세 부(府)의 수령을 지냈는데, 호서의 홍산(鴻山)과 온양(溫陽), 영남의 금산(金山), 해서의 연안(延安), 경기의 장단(長湍)과 남양(南陽)이다. (…)

(…) 外則爲開城都事.守一縣二郡三府.湖西之鴻山, 溫陽.嶺南之金山.海西之延安.畿甸之長湍, 南陽也.(…)

김육(金堉), <잠곡유고(潛谷遺稿), 제12권 묘갈명(墓碣銘), 敦寧都正朴公墓碣銘>

정치/인물

김상헌이 지은 신암(申黯)의 묘지명으로, 1594년(선조 27) 남양에 둔전을 설치한 뒤 감목관으로 부임하였다는 내용.

(…) 갑오년(1594)에 조정에서 의논해 남양(南陽)의 목장에 둔전(屯田)을 설치해 군향을 보충하기로 하고는 공을 감목관(監牧官)으로 삼아서 그 일을 겸하여 관장하게 하였다. 얼마 뒤에 파직되고서 돌아왔다. 무뢰배인 이탕(李蕩)이란 자가 평소에 동릉(東陵)의 난폭함이 있었는데, 난리를 틈타 왜적들을 인도하면서 공공연히 살인과 약탈을 자행하는데도 관리들이 제대로 금하지 못하였다. 공은 계책을 세워 그를 체포해 참수하였다. 그 공으로 당상관(堂上官)으로 승진하였으나, 언관 가운데 예전의 원한을 갚고자 하는 자가 있어 가로막았다. (…)

(…) 甲午.朝議建設屯田於南陽牧地補軍食.以公爲監牧官兼掌其事.亡何罷去.有亡賴子李蕩者.素有東陵之暴.乘亂導賊.公行殺掠.吏不能禁.公以計捕斬.酬功堂上階.言路修鉞枳之.(…)

김상헌(金尙憲), <청음집(淸陰集), 제35권 묘지명(墓誌銘), 贈議政府左贊成申公墓誌銘>

정치/인물

김상헌이 지은 윤계(尹槩)의 묘갈명으로, 남양 부사(南陽府使)가 되었다는 내용.

병자년(1636)에 외직을 구하여 남양 부사(南陽府使)가 되었다. 정사를 돌본 지 얼마 되지 않아 공무를 봉행하고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모두 조리가 있었다. 나라에서 오랑캐와의 화친을 끊었는데, 공은 전지(傳旨)에 응하여 만언소(萬言疏)를 올려 득실에 대해 갖추어 논하였다. 그러나 말한 것이 당시에 재상으로 있던 사람을 건드렸던 탓에 기각되어 행해지지 못하였다.

丙子.乞外得南陽府使.在政未幾.其所以奉公卹民者.皆有條理.國家與虜絕和.公應旨上萬言疏.備論得失.語觸時宰.寢不行.

김상헌(金尙憲), <청음집(淸陰集), 제31권 묘갈명(墓碣銘), 南陽府使尹公墓碣銘>

정치/인물

김상헌이 윤지(尹墀)⁵²⁴가 수원부사로 부임할 때 지어준 시.

그대 모습 얼음이나 옥과 같나니 / 學士如氷玉

선조에게 아름다운 외손이 있네⁵²⁵ / 先朝有外孫

524) 윤지(尹墀) : 1600 ~ 1644. 본관은 해평(海平)이고 자는 군옥(君玉)이며 호는 하빈옹(河濱翁)이다. 영의정 윤방(尹昉)의 손자이고, 해송위(海崇尉) 윤신지(尹新之)의 아들이다. 인조반정 이후 삼사(三司)의 요직을 역임하고 수원 부사를 지냈으며, 병자호란 이후 예조 참판, 전라도 관찰사, 경기 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유학을 몸소 실천한 유학자로 글씨도 뛰어났다.

525) 선조(先朝)에게 …… 있네 : 선조는 선조(宣祖) 임금을 가리킨다. 윤지는 해송위(海嵩尉) 윤신지(尹

집안 문벌 정승한 분 이어져 높고 / 家仍相門大
 명성은 또 간원 눌러 존귀하다네⁵²⁶⁾ / 名壓諫垣尊
 수야⁵²⁷⁾에는 어진 명성 가득도 하고 / 隋野賢聲滿
 당릉⁵²⁸⁾에는 끼친 은혜 남아 있구나 / 唐陵惠愛存
 금란⁵²⁹⁾에는 정히 자리 비어 있거니 / 金鑾正虛席
 어느 날에 다시 임금 은혜 받을꼬 / 幾日更承恩

【일찍이 남양(南陽)의 수령으로 있으면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끼쳤으며 간원(諫院)의 장으로 있다가 외직으로 보임되었다.】(…)

學士如玉。先朝有外孫。家仍相門大。名壓諫垣尊。隋野賢聲滿。唐陵惠愛存。金鑾正虛席。幾日更承恩。【曾守南陽有遺愛。由諫長出補。】(…)

김상헌(金尙憲), <청음집(淸陰集)>, 제4권 오언율시(五言律詩), 贈尹學士君玉赴水原【二首○名擢】>

정치/인물

김상헌이 지은 이명한(李明漢)의 신도비명으로, 1627년(인조 5) 남양부사를 지냈다는 내용. (…)
 정묘년(1627, 인조5)에 서쪽 변경에서 경보가 있어 어가를 호위하여 강도(江都)로 가서 상의 명에 의하여 부로(父老)들에게 유시하는 글을 지어 올렸으며, 다시 좌승지에 제수되었다. 상께서 도성으로 돌아와서 친히 사묘(私廟)에 제사 지내려고 하였는데, 공은 올바른 예가 아니라고 극력 진달하여 성상의 뜻을 거슬렀다가 심한 질책을 받았다. 공은 감히 자리에 편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재차 상소를 올려 사임하면서 외직으로 나가게 해 주기를 요청해 남양 부사(南陽府使)가 되었다. 다음 해에 관직을 버리고 향리로 돌아가자 백성들이 송덕비(頌德碑)를 세웠으며, 뒤에 공이 상(喪)을 당한 소식을 듣고는 쌀을 배에 싣고 와서 부의(賻儀)하기를 마치 관가의 명에 따라 하는 것과 같이 하였다. (…)

(…) 丁卯西警.扈駕江都.應製諭父老文.復拜左承旨.上回鑾.親祭私廟.公力陳非禮.忤旨切責.公不敢安.再疏辭遞.乞外得南陽府使.明年.棄官歸.民思碑之.後聞公遭喪.舂米義賻.若趨公令.(…)

김상헌(金尙憲), <청음집(淸陰集)>, 제27권 비명(碑銘), 吏曹判書白洲李公神道碑銘>

정치/인물

남양의 아전 출신인 홍유손에 관한 일화.

○ 홍유손(洪裕孫)은 자가 여경(餘慶)이고, 호가 소충(篠叢)이며, 또 다른 호가 광진자(狂眞子)이다. 남양(南陽) 아전 홍순치(洪順致)의 아들이다. 집안이 대대로 청빈하여 옷이라곤 겨우 몸을 감싸는 정도이고 간혹 속옷도 입지 못하고 다녔다. 경서(經書)와 사서(史書)를 섭렵하였고, 성품이 방달(放達)하여 구속되지 않았다. 과거 시험을 좋아하지 않았고 향리(鄕吏)의 신분을 면할 계획도 하지 않았다. 신축년(1481, 성종12)에 남양 군수(南陽郡守) 채신보(蔡申甫)가 여경이 글을 잘한다고 하여 그의 신역(身役)을 면제해 주니, 즉시 영남으로 걸어가서 점필재를 뵈고 두시(杜詩)를 배웠다. 선생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이미 안자(顔子)

新之)의 아들로, 어머니가 선조의 딸인 정혜옹주(貞惠翁主)이므로 선조에게는 외손이 된다.
 526) 명성은 …… 존귀하다네 : 윤지는 수원 부사로 나가기 직전에 사간원 대사간으로 있었다.

527) 수야(隋野) : 수원(水原)을 가리킨다. 수원의 고호가 수성(隋城)이다.

528) 당릉(唐陵) : 남양(南陽)을 가리킨다. 남양의 고호가 당성(唐城)이다.

529) 금란(金鑾) : 당나라 때 학사와 문인들이 있던 궁전 이름으로 흔히 예문관(藝文館)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가 즐거워하던 바를 알고 있다.” 하니, 배우는 사람들이 모두 그를 으뜸으로 여겼다. 지리산에 들어가서 학업을 익혔다. 서울에 이르러 간하기를 “선생께서 시사(時事)를 건의하지 않으시니, 어찌 헛되이 남의 작록(爵祿)을 취하는 일을 하십니까. 또 지금의 학자들이 노불(老佛)을 미워하지 않는 이가 없으나, 처신에 있어서는 하나도 노불에서 벗어나는 이가 없습니다. 동글게 행하고 모남을 싫어하는 것이 노자(老子)이고, 홀로만 행하고 남을 돌보지 않는 것이 부처입니다.” 하니, 선생이 그를 대단히 미워하여 이로부터 매양 “여경이 간사한 꾀를 부린다.” 하였다. 여경 또한 스스로 행적을 감추고 부호한 집에서 의식을 의탁할 뿐이었다.

사람됨이 문(文)은 칠원(漆園)과 같고, 시(詩)는 산곡(山谷)의 경계를 건넜고, 재질은 공명(孔明)의 재주를 지녔고, 행실은 만친(曼倩)과 같았다.

洪裕孫字餘慶.號篠叢.又號狂眞子.南陽吏順致之子.家世清貧.僅裹身體.或不裙行.涉躐經史.放達不檢.不喜科舉.不爲免鄉計.辛丑年.南陽守蔡申甫以餘慶爲能文.放其役.即步歸嶺南.謁佔畢齋受杜詩.先生曰.此子已見顏子所樂處.學者皆宗之.入頭流山肄業.到京.諫先生不建白時事.何空取人爵祿爲也.且當今學者莫不惡佛.老.而行己無一箇免於佛.老者.行圓而惡方者老也.行獨而不恤者佛也.先生大惡之.自是每稱餘慶謫詐.餘慶亦自晦行.衣食於朱門而已.爲人文如[문자].詩涉山谷.材挾孔明.行如曼倩.(…)

남효온(南孝溫), <추강집(秋江集), 제7권 잡저(雜著), 師友名行錄>

정치/인물

변계량이 남양부사 윤개(尹愷)에게 홍시를 받고 답으로 지은 시.

홍색 띠 구슬덩이 햇살에 빛나니 / 映日紅珠顆

시월의 초순에 서리가 응결했지 / 凝霜十月初

고인이 멀리서 귀한 선물 보냈는데 / 故人遙惠重

이 몸은 부끄럽게 보답할 게 없다네 / 愧我乏瓊琚

변계량(卞季良), <춘정집(春亭集), 제3권 시(詩), 南陽府使尹【愷】以红柿百箇見惠以詩答之>

정치/인물

서울과 가까워 위세 부리는 호족의 전장이 많은 남양에 윤승길이 부사가 되었다는 내용.

공의 휘는 승길(承吉)이요, 자는 자일(子一)이요, 호는 남악(南嶽)이다. 윤씨의 가계(家系)는 영남의 해평현(海平縣)에서 나왔다. (….) 병자년(1576, 선조 9)에 다시 장령이 되었으며, 이 해에 부친상을 당하였다. 상복(喪服)을 벗은 뒤에 조정에 돌아와 종부시 첨정(宗簿寺僉正)이 되고, 규례에 따라 춘추관의 직책을 겸대하였다. 모친의 봉양을 위해 외직을 다시 청한 결과, 남양 부사(南陽府使)에 제수되었다. 남양은 서울과 가까워서 위세를 부리는 호족(豪族)의 전장(田庄)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공이 부임하자마자 일체 법대로 처치하면서 간사한 행동을 대대적으로 단속하자,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비방하면서 공을 흔들며 대어 제거하려는 자도 나왔으나, 공이 위낙 청렴하고 근면하였으므로 끝내는 중상(中傷)할 수 없었다. (…)

公諱承吉.字子一.號南嶽.尹氏系出嶺南之海平縣.(…)丙子.復爲掌令.是年丁外艱.服除.復宗簿僉正.例兼春秋.爲養復求外.除南陽府使.南陽近京.多豪勢莊戶.公莅之.一繩以三尺.姦宄大戢.有飛謀釣誘.欲撼而去之者.以公廉謹.終莫能中傷.(…)

이식(李植), <택당집(澤堂集) 별집 제8권 행장(行狀) 상, 左參贊尹公行狀>

정치/인물

윤옥(尹玉)이 남양군수로 있을 때 관아에서 선비 윤씨가 태어났다는 내용.

선비(先妣) 윤씨(尹氏)의 가계(家系)는 호남 무송현(茂松縣)에서 나왔다. (….) 지군(知君)은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휘(諱) 미견(彌堅)을 낳았고, 정언은 영원 군수(寧遠郡守)로 우참찬(右參贊)에 추증된 휘 징(徵)을 낳았고, 참찬은 공조 판서(工曹判書)인 공호공(恭胡公) 휘 사익(思翼)을 낳았고, 판서는 공조 참판(工曹參判)으로 좌의정에 추증된 휘 옥(玉)을 낳았다. 의정공의 배필인 파평 윤씨(坡平尹氏)는 상의원 직장(尙衣院直長)으로 좌승지(左承旨)에 추증된 봉종(奉宗)의 딸이었는데, 가정(嘉靖) 을묘년(1555, 명종 10) 2월 3일 의정공이 바야흐로 남양 군수(南陽郡守)로 있을 적에 아관(衙館)에서 선비를 낳았다. (….)

先妣尹氏.系出湖南茂松縣.(…) 知郡生司諫院正言諱彌堅.正言生寧遠郡守贈右參贊諱徵.參贊生工曹判書恭胡公諱思翼.判書生工曹參判贈左議政諱玉.配坡平尹氏.尙衣直長贈左承旨奉宗女.嘉靖乙卯二月三日.議政公方守南陽.生先妣于衙館.(…)

이식(李植), <택당집(澤堂集), 별집 제6권 묘지(墓誌), 先妣貞敬夫人尹氏墓誌>

정치/인물

1581년(선조 14) 구사맹(具思孟)이 남양부사에 제수되었다는 내용.

(…) 신사년(1581, 선조 14)에 대사성(大司成)에 임명되고 좌승지로 전임되었는데 또 대간의 탄핵을 받고서 제직되어 남양 부사(南陽府使)에 제수되었다. 다시 조정에 들어와 대사성과 호조 참의를 역임하고 경주 부윤(慶州府尹)으로 나갔다가 임기가 만료된 뒤에 다시 판결사(判決使)가 되었다. (…)

(…) 辛巳.拜大司成.轉左承旨.又以臺論.遞除南陽府使.復入爲六司成, 戶曹參議.出爲慶州府尹.秩滿.復爲判決事.(…)

이식(李植), <택당집(澤堂集) 제10권 비명(碑銘), 左贊成贈領議政綾安府院君具公神道碑銘>

정치/인물

권상하가 지은 성몽기의 묘표로 성담중에게 남양교수에 제수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

지난 병자년(1456, 세조2) 옥사 때 육신(六臣)들이 굽히지 않고 할 말을 다하다가 모두 극형을 당했는데, 그때 교리(校理) 성희(成熺)는 충렬공(忠烈公)의 당숙으로서 뜻이 같았고 일도 같이하였다. 그런데 끝까지 입을 다물고 10여 차례 형신(刑訊)을 받은 뒤 김해(金海)로 귀양 갔다가 그로부터 3년 후에 죽었다. 따라서 앞에 죽고 뒤에 죽은 차이는 있으나 임금을 위해 충성을 다한 것은 일반이었다. 그의 아들 담중(聃仲)은 일생 동안 자신을 포기하고 사의(私義)를 지켰는데, 조정에서 그에게 남양 교수(南陽教授)를 특별히 제수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

往在丙子之獄.六臣盡言不屈被極刑.若校理成公熺.以忠烈公堂叔父.志同事同.而終始塞兌.受十次刑.竄金海三年而卒.雖死有先後.其爲主盡忠一也.其子聃仲終身自廢.以守私義.朝廷特授南陽教官不起.

권상하(權尙夏), <한수재집(寒水齋集) 제31권 묘표(墓表), 龜山處士成公【夢箕】墓表>

정치/인물

신흙이 지은 **한준겸의 묘지명**으로 **장남 한회일이 남양부사를 지냈다는 내용.**

(…) 참의의 초취(初娶)는 구사중(具思仲)의 딸인데 여기서 자녀가 없고, 후취는 김정준(金廷俊)의 딸인데 여기서 1남 1녀를 두었는 바, 아들 흥일(興一)은 예문관 봉교이고 딸은 홍비(洪斐)에게 시집갔다. 중겸은 이태수(李台壽)의 딸에게 장가들어 2남 1녀를 낳았는데, 장남 선일(善一)은 삭녕 군수(朔寧郡守)이고 다음 덕일(德一)은 사첨시 봉사이며, 딸은 진사 심대형(沈大亨)에게 시집갔다. 서평은 예조 정랑 황성(黃城)의 딸에게 장가들어 2남 4녀를 낳았는데, **장남 회일(會一)은 남양 부사(南陽府使)이고** 다음 소일(昭一)은 일찍 죽었다.

(…) 參議初娶具思仲女無後.後娶金廷俊女.生一男一女.男曰興一.藝文館奉敎.女曰洪斐.重謙娶李台壽女.生二男一女.男長善一.朔寧郡守.次德一.司膳奉事.女進士沈大亨.西平娶禮曹正郎黃城女.生二男四女.男長會一.南陽府使.次昭一.早夭.女李幼淵.宗簿寺正.女呂爾徵.司諫院正言.女鄭百昌.司憲府執義.次卽我王妃殿下.我殿下踐阼之三年乙丑.皇上降誥命冕服及王妃殿下誥命冠服.王妃殿下誕生四男.元子封王世子.猗歟盛哉.(…)

신흙(申欽), <상촌고(象村稿), 象村稿卷之二十四, 贈領議政韓公墓誌銘【別稿】>

2. 경제(經濟)

(1) 광공업

경제/광공업

현릉원의 병풍석으로 쓰기 위해 남양의 조천사에서 돌을 캐게 하였다는 내용.

17일(신축)에 도감이 말하기를, “석공이 앵봉에서 돌아와서 말하기를, ‘돌을 캐 만한 곳은 해마다 사가(私家)에서 캐내어 크고 작은 돌을 논할 것 없이 쓰기에 합당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니, 이제는 크고 작은 부석소(浮石所)를 강화에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기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애당초 반대했던 데에는 선박으로 운반하기 어렵다는 염려까지 겸하였던 것이다. 수로가 험하고 먼데 더구나 큰 추위를 만난 상황이니, 강화의 돌을 쓰자는 의논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길일(吉日)이 점점 가까워 오니 공사는 늦출 수 없다. 내가 그 일을 중히 여기는 도리상 어찌 혹시라도 처음의 의견만을 고집하면서 따르라고 하겠는가.” 하고, 이어 일을 아는 정우태(丁遇泰)에게 명하여 석공과 옥공(玉工)을 거느리고 남양(南陽)의 조천사(鳥川寺)에 가서 돌을 캐게 하였는데, 남양의 석품이 강화보다 나아서 병풍석으로 쓰려고 해서였다. (…)

辛丑.都監言.石工自鶯峰歸言.石之可採處.歲爲私家所採.無論小石大石.無一髣髴於合用者.今則大小浮石.當設役所于江華.予曰.自初持難者.兼以船運之難.爲念也.水路險遠.況值隆沍.決難容議於沁石.而吉日漸近.工役不可緩.在予重其事之道.豈或膠守初見.第姑從之.仍命解事人丁遇泰.率石工玉工.往至南陽鳥川寺採石.以南陽石品.勝於沁都.欲用於屏石也.(…)

<홍재전서(弘齋全書), 제58권 잡저(雜著) 5, 遷園事實 【二】, 象設第三>

3. 사회(社會)

(1) 향촌

사회/향촌

정홍명이 신묘년에 화를 당하여 남양(南陽) 구포(鷗浦)로 나가 살았다는 내용.

(…) ○ 선인은 평생에 꿈이 반드시 맞았다. 신묘년에 화를 당하여 남양(南陽) 구포(鷗浦)로 나가 살았는데, 새벽녘에 곁에 있는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꿈에 내가 강계 부사(江界府使)가 되었으니 그곳이 유배지가 될 것이다.”

하였는데, 얼마 있다가 서울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진주로 정배(定配)되었다고 하니, 선인께서 탄식하기를,

“평생에 꿈을 믿었는데, 늙으니 꿈도 맞지 않는다.”

하였다. 그런데 남쪽으로 내려간 지 며칠 만에 대간의 논쟁으로 강계로 유배지가 옮겨졌다. 사람이 천금의 구슬을 깨버릴 수는 있지만 가마[釜]가 깨지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한 소공(蘇公)의 이 말을 가지고 세속 사람에게 징험해 보니 거짓말이 아님을 알았다. (…)

(…) 先子平生.夢兆必驗.辛卯遇禍.出寓南陽鷗浦.向曉起坐.語傍人曰.夜夢吾爲江界府使.謫所其必此地乎.既而有人自京來言.定配晉州.先子嗟嘆.平生信夢.老而忒矣.南行數日.因臺論移配江界.人能破千金之璧.而不能不失聲於破釜.常以蘇公此言驗之.流俗知其不誣.(…)

정홍명(鄭弘溟), <기옹만필(畸翁漫筆)>

사회/향촌

홍언박이 처음 남양(南陽)에 거주하였다가 마침내 본관으로 삼았다는 내용.

공의 휘는 언박(彦博)이고, 자는 중용(仲容)이며, 양파(陽坡)는 그의 호이다. 홍씨는 고구려 때부터 이름이 드러났으며, 그 선조는 바로 우리나라로 온 팔학사 중의 한 분이다.⁵³⁰⁾

처음 남양(南陽)에 거주하였다가 마침내 본관으로 삼았다. 공의 13대조인 홍은열(洪殷悅)은 삼한에 공이 있어 관직이 태사(太師)에 이르렀고, 이로부터 자손들이 번성하였으며 모두 큰 벼슬에 올랐다. 【원문 빠짐】 광정공(匡定公) 휘 규(奎)에 이르러 공덕이 세상에 으뜸이었는데 집안을 더욱 닦아 장엄 검소하며 돈후(敦厚) 근신(謹慎)하여 가풍을 계승하고 유지할 수 있어 남양부원군(南陽府院君)에 봉해졌다. 【이하 원문 빠짐】

公諱彥博.字仲容.陽坡其號也.洪氏著自高句麗.其先卽八學士東來者之一也.始居南陽.遂以爲貫.公十三世祖殷悅.有功於三韓.官至太師.自是以來.世胄光大.皆登輔相.【缺】 以及匡定公諱奎.功德冠世.家政益修.莊簡淳謹.克承維持.封南陽府院君.【以下缺】

백문보(白文寶), <담암일집(淡庵逸集), 제2권 비명(碑銘), 南陽侯陽坡洪文正公神道碑銘>

사회/향촌

이석구(碩壽)가 당성(唐城)의 종가가 친진(親盡)이 되어 최장방이 되어 사당을 세웠다는 내용.

(…) 공은 선조를 받드는 일에 있어서는 정성과 공경을 모두 지극히 하였다. 병이 났을 때가

530) 그 선조는 …… 분이다 : 홍씨의 선시조(先始祖)는 홍천하(洪天河)인데, 그는 당(唐)나라 팔학사(八學士)의 한 사람으로, 그가 처음 고구려(高句麗) 영류왕(榮留王) 때 고구려에 귀화(歸化)했다가 그 후 신라(新羅) 선덕여왕(善德女王) 때에 태자태사(太子太師)가 되고 당성백(唐城伯)에 봉해졌다고 한다.

아니면 제사에 참석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제사는 반드시 재계하여 엄숙하게 지냈으며, 노쇠하였다고 해서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병이 심하여 어쩔 수가 없으면, 이른 새벽에 일어나 옷을 입고 관을 쓰고 당신 방에서 곡하였다. 당성(唐城)⁵³¹의 종가가 친진(親盡)이 되니 공의 고조(高祖)와 증조(曾祖)가 증손에게는 친진으로 조천(祧遷)하게 되었다. 공이 다음으로 최장방(最長房)이 되니 바로 자제들을 보내 사당에 제사하여 고유(告諭)하고 양위(兩位)의 신주(神主)를 모셔 와 따로 사당을 세워 편안하게 모셨다. (…)

(…) 公於奉先之道.誠敬具至.非有疾.未有不與祭.祭必齊肅.不以癯老少懈.或甚病而無以自強.則雞鳴而起.衣服冠而以哭於私室.唐城宗毀.高曾二祖.親盡當祧.而公於次爲最長.(…)

이상정(李象靖), <대산집(大山集), 제52권 행장(行狀), 第三從祖祖父處士府君行狀>

사회/향촌

1742년(영조 18) 종인에게 보낸 편지로 남양에 성묘하는 일로 소식을 전한 내용.

서울과 영남은 천 리 멀리 떨어져 있어 경조사(慶弔事)도 챙기지 못하니, 하물며 일상 기거에 대한 문안이야 어떠하겠습니까. 때때로 아이들이 남양(南陽)에 성묘하는 것⁵³²으로 인하여 소식을 묻지만 자세할 수가 없고, 이마저도 자주 할 수가 없습니다. 친척들은 그냥 길가는 사람과 같아지고 정분은 서로 잊어버리고 마니, 때때로 길 떠난 자의 입장에서 고향 생각을 떠올리며 앉아서 날아가는 새를 부러워할 뿐입니다. 봄도 벌써 반이나 지나갔는데 건강과 기거는 계절에 맞게 두루 평안하신지요? 족질(族姪)은 집안이 쇠퇴하고 불행이 거듭하며 홀로 남은 늙은이는 장차 관(棺)으로 들어갈 것이니, 생각하면 마음 아파 눈물이 납니다. 조용히 마주하지 않고서는 마음의 감정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

圻嶺落落.千里相望.慶弔且不修.況於寒溫起處之間邪.時因兒輩.展墓于南陽.轉叩聲息.而不能細.亦不能數也.則親戚同於行路.情誼淪於相忘.時起遊子故鄉之思.坐羨飛鳥而已.春且半矣.不審氣體動止對時萬重否.族姪門戶衰替.禍螫重仍.白首孑立.行且就木.俯仰感涕.非從容几杖.不足以罄所抱也.(…)

이상정(李象靖), <대산집(大山集), 제37권 서(書), 與京中宗人 【代門父兄作○壬戌】>

사회/향촌

이문영을 남양(南陽) 해망봉(海望峯) 아래에 거처를 정하였다는 내용.

(…) 기축년(1589, 선조22)에 진사시에 입격하였다. 임진년(1592)에 왜란이 일어나자 할머니와 모부인을 모시고 어려움을 겪으며 관동(關東)으로 피난 갔다가 도로 호남(湖南)으로 내려왔다. 난리가 조금 안정되자 남양(南陽) 해망봉(海望峯) 아래에 거처를 정하였는데, 무술년(1598) 11월 1일에 병으로 졸하였으니 향년 31세였다. (…)

(…) 己丑中進士.王辰島夷發難.奉王母夫人艱關避亂于關東.轉下湖南.亂稍定.卜居于南陽海望峰下.戊戌十一月一日病卒.享年三十有一.(…)

이상정(李象靖), <대산집(大山集), 제47권 묘지명(墓誌銘), 五代祖考贈承旨府君墓誌>

531) 당성(唐城) : 현재의 경기도 화성시 남양면(南陽面) 일대의 옛 지명이다.

532) 남양(南陽)에 성묘하는 것 : 대산의 5대조인 이문영(李文英)을 성묘함을 말한다. 대산의 선조는 원래 서울 낙선방(樂善坊)에 거주하였는데, 5대조인 이문영이 임진왜란으로 피란하여 남양의 해망봉(海望峯) 아래에 머물러 살았다. 이문영의 두 아들 중 첫째 이창조(李昌祚)는 남양에 정착하였고, 대산의 고조가 되는 둘째 이홍조(李弘祚)는 외할아버지인 유성룡(柳成龍)을 따라 안동으로 내려가 정착하였다. 《大山集 卷47 五代祖考贈承旨府君墓誌, 韓國文集叢刊 227輯》《大山先生實紀 卷1 年譜》

사회/향촌

홍훈(洪渾)의 홍씨는 당성(唐城)에 터를 잡고 살았다는 내용.

홍씨(洪氏)는 고구려 때 드러났다. 당나라에서 학사(學士) 여덟 사람을 파견하여 우리나라로 가서 가르치게 하였는데, 홍씨는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당성(唐城)⁵³³에 터를 잡고 살았다. 그의 후에 중에 은열(殷悅)이란 분이 있어 고려 태조를 보좌하여 태사(太師)에 봉해졌다. 이로부터 800여 년 동안 명공(名公)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공은 이분들의 후손이다. 공의 휘는 혼(渾)이고, 자는 혼원(渾元)이다. (…)

정두경(鄭斗卿), <동명집(東溟集), 제15권 비갈(碑碣), 吏曹參議洪公墓碣>

사회/향촌

이색이 지은 유숙(柳淑)의 묘지명으로, 국왕이 수교를 내려 남양에 사는 옹주 홍씨에게 쌀을 내렸다는 내용.

(…) 옹주(翁主)에 봉한 홍씨(洪氏)가 남양(南陽)에 있었는데, 빈곤하여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였다. 임금이 이를 불쌍히 여기고 안렴사 이지태(李之泰)에게 수교(手敕 친필로 쓴 편지)를 내려 쌀을 내리라고 하였다. (…)

(…) 洪氏有封翁主者在南陽. 貧乏 不能自存. 上憐之. 下手敕於按廉使李之泰賜米.(…)

이색(李穡), <목은집(牧隱集), 목은문고 제18권 비명(碑銘), 有元高麗國忠勤節義贊化功臣重大匡瑞寧君諡文僖柳公墓誌銘>⁵³⁴

사회/향촌

민구질(閔九裘)의 90세 노부(老父)가 남양에 있는 것을 알고 국왕이 가까운 인천부사에 제수했다는 내용.

주상전하께서 민후(閔侯)의 90세 노부(老父)가 남양(南陽)에 있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조(吏曹)에 하명하여 민후에게 인천부사(仁川府使)를 제수하셨는데, 아버이를 그리는 망운(望雲)의 정을 위로한 것이다. 민후는 감격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나아가 하직을 고하고 임소로 가게 되자, 성화(聖化)를 선양하고 성치(盛治)에 도움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더욱 힘을 다하여 게을리한 바 없었다.

上念閔侯九裘父在南陽. 命銓曹. 除仁川府使. 慰望雲也. 侯感咽叩頭. 卽辭陞之任. 思所以宣聖化裨盛治者. 益竭力罔懈.

최항(崔恒), <동문선(東文選), 제82권 기(記), 仁川鄉校重修記>

사회/향촌

윤증이 지은 신익상의 신도비명으로 1691년(숙종 17) 남양에 우거하였다는 내용.

(…) 공의 이름은 익상(翼相)이고 자는 숙필(叔弼)이다. (…) 신미년(1691, 숙종17)에 남양(南陽)으로 돌아가 우거하다가 계유년(1693)에 광주(廣州)로 이거하였는데, 그곳에서 생을 마치려는 계획이었다. (…)

(…) 公諱翼相. 字叔弼. (…) 辛未. 歸寓南陽. 癸酉. 移于廣州. 爲終焉計. (…)

533) 당성(唐城) : 남양(南陽)의 고호(古號)이다. 당릉(唐陵)이라고도 한다.

534) 이색(李穡), <동문선(東文選), 제127권 묘지(墓誌), 有元高麗國忠勤節義贊化功臣重大匡瑞寧君諡文僖柳公墓誌銘>

윤증(尹拯), <명재유고(明齋遺稿), 제42권 신도비명(神道碑銘), 議政府右議政申公神道碑銘>

사회/향촌

1672년(현종13) 윤증이 지은 한수원의 행장으로 1670년 남양의 유현(柳峴) 선영에 장사지냈다는 내용.

(…) 무신년(1668)에 임기가 차서 체직되어 돌아왔다. 기유년(1669)에 또 상주 목사(尙州牧使)에 제수되었다. 상주는 영남 지방에서는 큰 도회지인데 나누어 준 4만여 곡(斛)의 환곡 가운데 그해 거두어들이는 것이 겨우 1만 곡이며, 수백여 동(同)의 공포(貢布) 가운데 포흠한 것이 절반을 넘어 일개 폐읍(弊邑)의 형세가 되었다. 공이 처음 부임하여 정력을 다하여 바로잡았다. 비록 병이 있더라도 하루도 문서를 살피지 않은 날이 없었고, 좌우에서 혹 조금이라도 쉬기를 권하면 공이 받아들이지 않고 말하기를,

“내가 비록 늙었지만 어찌 국록을 먹으면서 일을 게을리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마침내 과로로 병이 심해져서 이해 12월, 정묘일인 8일에 관저에서 임종하였으니, 향년 68세였다. 경술년(1670, 현종11) 2월, 갑자일인 6일에 남양(南陽) 유현(柳峴) 선영 아래 곤향(坤向) 언덕에 반장(返葬)하였다. (…)

公諱壽遠.字子考.韓氏.(…) 戊申.秩滿遞歸.己酉.又拜尙州牧使.尙南方一大都會也.有糶穀四萬餘斛.而歲糶僅萬.貢布數百餘同.而逋負過半.成一弊邑.公始到勵精釐正.雖有病.未嘗一日廢視篆.左右或勸少休.公不聽曰.吾年雖老.何可食祿而怠事.遂以勞勩疾劇.是年十二月丁卯.終于府第.壽六十有八.庚戌二月甲子.返葬于南陽柳峴先兆之下向坤之原.(…)

윤증(尹拯), <명재유고(明齋遺稿), 제43권 행장(行狀), 尙州牧使韓公行狀【壬子】>

사회/향촌

이색이 전라 염사(全羅廉使) 송문중(宋文中)의 시권(詩卷)에 제(題)한 시로 남양의 송일장에 대해 언급한 내용.

나의 친구 남양의 송일장은 / 吾友南陽宋日章

키 크고 깨끗하기 여러 낭관에 으뜸인데 / 脩長潔白冠諸郎
명성을 날려라 동방의 수재임을 자부했고 / 蜚英自負東方秀
배를 타고는 상국의 문물을 구경하였네 / 航海曾觀上國光
위하여 문노니 향합과 축책 주관하던 게 / 爲問函香持祝冊
이제 금의환향하는 것과 서로 어떠한가 / 何如衣錦得還鄉
한 몸에 충효를 겸한 이가 연래에 드무니 / 一身雙美年來少
공론이 지금부터 묘당에서 일어날걸세 / 公論從今在廟堂

이색(李穡), <목은집(牧隱集), 목은시고 제12권 시(詩), 題宋文中全羅廉使詩卷>

사회/향촌

이색이 감홍이 있어서 지은 시로 남양의 생질이 신하 중에 최고라고 노래한 시.

은혜와 의리 다 풍부한 이 몇이나 될꼬 / 恩義兼豐有幾人
남양의 택상이 못 신하 중에 으뜸이로세 / 南陽宅相冠群臣
액운 풀고 안녕 보호에 천기가 오묘하니 / 保安解厄玄機妙
수륙재⁵³⁵의 향연이 온 누리에 두루 퍼지리 / 水陸香煙遍刹塵

【자주(自注)에 “좌시중(左侍中)이 태후(太后)를 위해 해액수륙재(解厄水陸齋)를 베풀었다.” 하였다.】

恩義兼豐有幾人. 南陽宅相冠群臣. 保安解厄玄機妙. 水陸香煙遍刹塵. 【自注. 左侍中設太右解厄水陸齋.】

이색(李穡), <목은집(牧隱集), 목은시고 제20권 시(詩),有感>

사회/향촌

이색이 은문(恩門)인 남양(南陽) 시중(侍中)의 분묘를 찾아가 성묘할 때 지은 시.

반수인 자허⁵³⁶를 위시해서 일곱 명의 영걸들 / 子虛班首七英賢
그리고 우리 동년 세 사람이 또 그 앞에 / 我勝三人更在前
무릎 꿇고 제물 올리니 얼마나 감격스러웠던가 / 跪奠椒漿多感激
물러나 절간에 와서 함께 또 시간을 보냈지요 / 退歸蓮宇共遷延
아침엔 햇빛과 술 그림자가 서로 뒤섞이더니 / 日光松影朝相雜
저녁엔 또 비 올 듯하며 바람 소리가 잇따르네 / 雨氣風聲晚又連
하늘이 초반감⁵³⁷ 내신 것이 두렵기도 하다마는 / 只恐天生超反鑑
그래도 남몰래 보살피며 요기를 소탕해 주셨으면 / 尚蘄陰鷲掃狼煙
이색(李穡), <목은집(牧隱集), 목은시고 제30권 시(詩), 拜掃恩門南陽侍中墳墓

사회/향촌

윤휴가 지은 남두침(南斗瞻)의 묘지명으로 남양의 해촌에 물러가 살았다는 내용.

(…) 계해년에는 인조반정(仁祖反正)이 일어나 혼조(昏朝)의 일을 다스리게 되었다. 그런데 전에 영창대군(永昌大君)의 옥사를 당했을 때에 공이 형방 도사(刑房都事)로 있었는데, 그 당시 죄를 받은 당상관이 공을 끌어들이 변명하여 스스로 죄를 면하려고 하였다. 이에 시의(時議)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내지 않고 그대로 공을 배제해버림으로써 공이 마침내 좌폐(坐廢)되어 남양(南陽)의 해촌(海村)에 물러가 살게 되었다. (…)

윤휴(尹鑄), <백호전서(白湖全書), 제19권 묘지명(墓誌銘), 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經筵義禁府春秋館事世子左賓客弘文館提學五衛都總府都總管行通政大夫兵曹參知南公墓誌銘>

사회/향촌

1702년(숙종 28) 겨울 박세당이 지은 신익상의 묘지명으로 1691년 남양의 신리에 초당을 짓고 살았다는 내용.

535) 수륙재(水陸齋) : 불교(佛教) 법회(法會)의 일종으로, 승려들이 단(壇)을 베풀고 경(經)을 외우면서 예불(禮佛)하고, 음식을 두루 보시하여 수륙(水陸) 간의 일체 망령(亡靈)들을 제도(濟度)하는 법회이다.

536) 반수(班首)인 자허(子虛) : 박익중(朴宜中)의 자(字)인데, 공민왕 11년(1362) 문과에서 장원 급제하였다. 반수는 장원의 뜻이다.

537) 초반감(超反鑑) : 남양(南陽) 시중(侍中) 즉 홍언박(洪彦博)과 같은 훌륭한 가문에서 나온 패륜아라는 뜻이다. 치감(祁鑑)은 진나라에 충성을 바친 명신이고, 그의 손자인 치초(祁超)는 환온(桓溫)의 참모가 되어 역모에 가담하였으므로, 그의 부친인 치음(祁愔)이 아들의 죽음을 접하고서도 일찍 죽지 않았다고 탄식하며 곡을 하지 않았다는 고사가 전하는데, 여기서는 치초가 자기 조부인 치감을 배반했던 것[超反鑑]처럼, 명신 홍언박의 손자인 홍륜(洪倫)이 공민왕을 시해하는 패륜을 자행하여 끝내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하고 만 것을 비유한 것이다. 《晉書 卷67 祁鑑列傳》 소식(蘇軾)의 시에 “혜소는 부친 혜강과 비슷하니 팬찮은 아들을 두었다고 하겠지만, 치초는 조부 치감을 배반하였으니 손자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嵇紹似康爲有子 祁超叛鑑是無孫]”라는 구절이 나온다. 《蘇東坡詩集 卷5 戲作賈梁道詩》

공은 휘는 익상(翼相), 자는 숙필(叔弼), 성은 신씨(申氏), 호는 성재(醒齋), 본관은 고령(高靈)이다. (...) 신미년(1691)에 남양(南陽)의 신리(新里)로 돌아가서 초당(草堂)을 짓고 ‘지족암(止足庵)’이라고 편액하였다. 계유년(1693)에 광주(廣州)의 정림촌(靜林村)으로 이거(移居)하고 그 당(堂)을 ‘정휴당(靜休堂)’이라고 명명하였다. (...)

公諱翼相.字叔弼.姓申氏.號醒齋.籍高靈.(...) 辛未.歸南陽新里.構草堂.扁曰止足.癸酉.移居廣州靜林村.又名其堂靜休.(...)

박세당(朴世堂), <서계집(西溪集) 卷之十 誌銘, 右議政申公墓誌銘【壬午冬】>

사회/향촌

이양중(李養中)에 대한 전기로 묘소가 남양부 동쪽 은석리(銀石里)에 있다는 내용.

공의 이름은 양중(養中), 자는 공호(公浩)이다. 세종의 서자인 계양군(桂陽君)의 후손으로, 단애(丹崖) 경중(敬中)의 아우이다. 일찍부터 퇴계의 문하에서 유학하였다. 선생보다 48세 아랫니다. 경오년(1570, 선조3)에 사마시에 입격하였다. 3년 뒤 임신년(1572)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다. 한림(翰林), 전랑(銓郎)을 역임하고 관직이 승정원 좌부승지에 이르렀다.

공이 퇴계에게 올린 편지에는 음양, 귀신, 기질, 혼백과 사단칠정(四端七情)의 묘미와 태극의 이해(理解)에 이르기까지 깊이 탐구한 내용이 실려 있고, 선생의 답서에는 종전의 잘못된 주장은 의당 고치고 보내온 편지의 주장을 따르겠다는 말이 있다. 당시 나이가 22세였다. 후일에 선생이 기명언(奇明彦)⁵³⁸에게 보내 편지에 “후생 가운데 이러한 사람을 얻어서 매우 기쁘다.” 하였다. 43세에 졸하였다. 묘소는 남양부(南陽府) 동쪽 은석리(銀石里)에 있다.

公名養中字公浩.世宗別子桂陽君之後.丹崖敬中之弟.早遊退溪之門.少先生四十八歲.庚午陞司馬.越三年壬申文科釋褐.歷翰林銓郎.官至承政院左副承旨.其上退溪書.深究陰陽鬼神氣質魂魄與夫四端七情之妙微.至太極之解.先生之答.有從前謬說.當改從來說之語.時年二十二也.後先生與奇明彦書云後生中得此等人甚可喜.壽四十三而卒.墓在南陽府東銀石里.

이익(李瀾), <성호전집(星湖全集), 제68권 소전(小傳), 李承旨小傳>

사회/향촌

이익이 지은 육오소와의 기문으로 종인 모보가 남양군에 살았다는 내용.

종인(宗人) 중 모보(某甫)라는 자는 나와 8세조를 같이하여 경헌공(敬憲公)⁵³⁹의 후손이며 소목(昭穆)에 있어서 곤제(昆弟)가 된다. 경헌공이 입신하여 육경(六卿)의 반열에 올라 후손에게 끼친 은혜가 변함없었으므로 신주(神主)를 조천(祧遷)하지 않아서 종인도 따라서 흠여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단문(袒免)의 복(服)이 다한 지 오래되었지만 친족 간의 의리는 오히려 돈독하였다. 모보는 본래 남양군(南陽郡)에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해주(海州) 수양

538) 기명언(奇明彦) : 기대승(奇大升, 1527~1572)으로, 명언은 자이고, 호는 고봉(高峯)이다. 퇴계의 문인이다.

539) 경헌공(敬憲公) : 이계손(李繼孫, 1423~1484)이다. 본관은 여주, 자는 인지(引之)이고, 시호는 경헌이다. 1447년(세종29)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 좌랑, 장령 등을 역임하였다. 강원도 관찰사로 나가 기민 구제에 공이 있었고, 함경도 관찰사 시절 이시애(李施愛)의 난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수습하였으며, 평안도 관찰사로 있을 때 향교를 적극 후원하여 관서 지방의 학문을 진흥시켰다. 이후 벼슬이 형조판서, 한성 부윤, 병조 판서에 이르렀으며, 사신으로 두 차례나 명나라에 다녀왔다. 처음으로 안산(安山) 성포리에 이주하여 이후 여주 이씨(驪州李氏) 일문이 이곳에 세거할 터전을 마련하였다.

산(首陽山) 아래로 이사하여 그곳에 살았으니,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점이 있어서였다. 내가 십수 년 이래로 성호(星湖) 가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선영(先塋)이 실로 이곳에 있어서 세시(歲時)로 성묘하는 원근의 자손들이 그때마다 방문하였다. 이 때문에 흠어져 사는 사방의 친족을 많이 만나 보았는데 그중에 가장 어질고 문장이 있는 자가 바로 모보였다. (…)

宗人有某甫者.與余同八世祖敬憲公之裔孫.而於昭穆爲昆弟也.敬憲公起身卿月.垂蔭不替.主尙未祧.宗隨而未罷.故袒免之殺既久.而親親之義猶篤也.某甫本居南陽郡.後徙至海州之首陽山下因住焉.非意之也.蓋有不獲已耳.余自十數年來.築于星湖之濱.先隴實在焉.歲時拜省.遠近子孫輒過之.以是多接四方遊散族姓.其中最賢而有文者.惟某甫是已.(…)

이익(李瀾), <성호전집(星湖全集), 제53권 기(記), 惡鳥小窩記>

사회/향촌

이익이 지은 이현기(李玄紀)의 묘지명으로 묘소가 남양의 치소 서쪽 사강촌 선영에 있다는 내용.

근세에 선배를 논할 때에 문채가 아름답고 빛나는 이로는 반드시 고(故) 대사성 이공을 으뜸으로 친다. 공의 휘는 현기(玄紀)이고 자는 원방(元方)이다. 공의 증조부 지봉(芝峯) 선생부터 조부 분사공(分沙公) 및 선고 혼천공(混泉公)은 다 글 잘하는 것으로 이름난 분들이었다. (…)

부인은 수양 정씨(首陽鄭氏)로 처사 휘 동직(東稷)의 딸이요, 대사간 황공(黃公) 휘 호(庠)의 외손녀이다. 공과 같은 해에 태어나 향년 84세를 일기로 돌아가셨다. 묘소는 남양(南陽)의 치소 서쪽 사강촌(沙岡村) 유좌(酉坐)의 산 선영에 있으니, 공과 같은 묘혈이다. (…)

近世論先輩文彩彪暎.必以故大司成李公爲首冠.公諱玄紀字元方.自其曾王考芝峯若王考分沙若考混泉公.詞翰名家.(…) 夫人首陽鄭氏處士諱東稷之女.大司諫黃公諱庠之外孫.與公同歲生.享年八十四而塋.墓在南陽治西沙岡邨酉坐之山.從先兆.與公同塋也.(…)

이익(李瀾), <성호전집(星湖全集), 제63권 묘지명(墓誌銘), 大司成李公墓誌銘>

사회/향촌

이익이 지은 이동규(李同揆)의 묘표로 남양부 서쪽 사강촌에 묘소가 있다는 내용.

(…) 공이 태어난 해의 육갑이 지봉공과 같았다. 그러므로 이름을 동규(同揆)라 하고 자를 조연(祖然)이라 하였다. 혼천은 호이다. 공은 현달한 명문 집안의 후손으로서 내행(內行)은 순박하고 구비되었으며 문채는 밝고 빛났으므로 당시 여론이 한마음으로 추종하였다. 조정에서는 의리를 지켜 변함이 없었으니, 세상을 떠난 뒤에도 칭찬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 평상시의 궤범이야 어찌 말로 한 뒤에야 드러나겠는가. 부인은 안동 권씨(安東權氏)로 안원군(安原君) 환(煥)의 따님이다. 임술년(1622, 광해군14)에 태어나 무인년(1698, 숙종24)에 세상을 떠났다. 공과 같은 묘소에 안장되었으니, 묘는 남양부(南陽府) 서쪽 사강촌(沙岡邨)의 묘향 언덕에 있다. 뒤에 장자(長子)가 높은 벼슬을 함으로 인해 공은 가선대부 이조참판 겸 성균관 좌주 시강원찬선에 추증되었고 권 부인은 정부인(貞夫人)에 봉해졌다. (…)

(…) 公生歲六甲.與芝峯公同.故名同揆字祖然.混泉乃其號也.公以高門顯胄.內行淳備.文彩彪暎.時論翕翕推重.立朝則秉義無回.沒世而聞譽不替.其平常軌範.顧何待言而後彰乎.夫人安東權氏.安原君之女.生於壬戌.歿於戊寅.與公同塋葬.墓在南陽府西沙岡邨卯向之原.後以長子貴.追贈公嘉善大夫吏曹參判兼成均祭酒侍講贊善.權夫人封貞夫人.(…)

이익(李瀾), <성호전집(星湖全集), 제59권 묘표(墓表), 混泉李公墓表>

사회/향촌

1759년(영조 35) 안정복이 지은 황득보에 대한 애사로, 1756년(영조 32) 남양에 사는 황득보가 남한산성의 환자곡을 받으러 온 김에 자신을 만나러 왔었던 일화를 소개한 내용.

(…) 병자년 4월에 내가 여막에 앉아 있는데 상복을 이끌고 오는 자가 있어서 보니 바로 득보였다. 놀라워하던 끝에 물어보고서야 그의 아버지 동지공(同知公)의 상을 당했는데도 전혀 듣지 못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온 것은 흉년이 들어 국가에서 남한산성(南漢山城)의 곡식을 여러 고을로 옮기기로 하였기 때문에 남양(南陽)에 살고 있던 득보가 환자곡을 받고 또 그참에 나를 보려고 한 것이었으니 그의 궁하고 곤란함을 가히 알 수 있었다. (…)

(…) 丙子四月.余坐堊室.有曳衰而至者.卽得甫也.驚惶之餘.問知遭其考同知公憂.而漠然不能聞也.其來也.以年凶.國家移南漢穀于列邑.得甫居南陽.爲受糶米.且欲見我也.其窮且困.可知也已.(…)

안정복(安鼎福), <순암집(順菴集), 제20권 애사(哀詞), 黃得甫哀詞【己卯】>

사회/향촌

안정복이 지은 박규(朴桂)의 묘지명으로 남양에 옛집이 있었다는 내용.

공의 휘는 규(桂), 자는 대시(大時), 성은 박씨(朴氏), 관향은 무안(務安)이다. (…) 병자년(1636, 인조 14) 봄에는 부친상을 당하고 또 중형의 상을 당했다. 이윽고 오랑캐의 변고를 만나 남양(南陽)의 해도(海島)로 병화를 피하였다. 정축년(1637, 인조 15)에는 피난길이 무안(務安) 땅에 이르렀는데, 겨울에 둘째 아우가 죽었다. 무인년(1638, 인조 16)에는 백씨와 함께 다시 남양의 옛집에 모이고, 겨울에 또 막내 동생의 죽음을 당하였다. (…)

公諱桂.字大時.姓朴氏.務安人.(…) 丙子春.丁外艱.又喪仲兄.旋遭虜變.避兵于南陽海島.丁丑.轉泊于務安地.冬.喪次弟.戊寅.與伯氏復會於南陽舊廬.冬.又哭季弟.(…)

안정복(安鼎福), <순암집(順菴集) 제22권 묘지(墓誌), 通訓大夫行刑曹佐郎贈通政大夫吏曹參議朴公墓誌銘>

사회/향촌

1600년(선조 33) 62세 때 이산해가 남양의 구포에 잠시 우거하였다는 내용.

상이 평소에 공이 충직하고 신중하다는 것을 알았고, 또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무함한 것이라는 것을 확히 알았기 때문에 단지 공의 관직만 파직하였다. 얼마 후에 서용하라는 명을 내리고 원임 훈부의 옛 직함을 그대로 갖도록 하였다. 공이 남양(南陽)의 구포(鷗浦)라는 마을에서 잠시 우거하였다. 이윽고 신창(新昌)의 시전(柿田)이란 마을로 이사하였다. 조월천(趙月川) 등 제공이 퇴계 선생(退溪先生)의 유의(遺意)로 천연대(天淵臺)를 축조하고 공에게 천연대(天淵臺)란 대액(臺額)을 써 달라고 요청을 하여 벼랑 끝 바위에다 새긴 다음, 고유문(告由文)을 지어 선생의 사당에 고하였다. 이 해에 막내 손자 무(裊)가 출생하였다.

이산해(李山海), <아계유고(鵝溪遺稿), 연보(年譜), 만력 28년 경자>

사회/향촌

이산해가 만년에 남양에 살면서 소회를 지은 시.

젊은 날엔 잦은 봄놀이가 싫지 않더니 / 少日春遊不厭頻

노년에는 꽃 피어도 구경할 마음 없으라 / 暮年無意賞芳辰

남양이라 언덕 위에는 비바람이 많으니 / 南陽壟上多風雨

문을 닫고 숙절없이 백발만 새로 느누나⁵⁴⁰⁾ / 閉戶空添白髮新

이산해(李山海), <아계유고(鵝溪遺稿)>, 제4권 구포후록(鷗浦後錄), 閉戶>

사회/향촌

이산해가 만년에 남양에 살면서 마음을 내보인 시.

만년에 남양에서 낡은 집을 세내어 사니 / 晚向南陽賃弊廬

돌밭에 거친 언덕이 그윽이 살기 좋아라 / 石田荒隴足幽居

노안은 침침하여 글 보는 게 시원찮으나 / 昏眸未快尋常看

병든 팔은 그럭저럭 글씨를 쓸 만하여라 / 病臂猶堪漫浪書

산새는 사람을 가까이해 아는 사이인 듯 / 山鳥近人渾似識

들 등덩굴이 길을 침노해도 호미질 않노라 / 野藤侵逕不須鋤

지금은 만사에 무심한 지 이미 오래인데 / 只今萬事無心久

하늘 끝에 뜬구름은 절로 걷혔다 퍼누나 / 天末浮雲自卷舒

이산해(李山海), <아계유고(鵝溪遺稿)> 제4권 구포록(鷗浦錄), 遣懷>

사회/향촌

1710년(숙종 36) 남구만이 남양 북면 대전리(大田里)에 있는 선조 남이장군의 묘소에 제사 지내는 글

유세차(維歲次)⁵⁴¹⁾ 경인년(1710, 숙종 36) 10월 임진삭(壬辰朔) 9일 경오에 6대 재종손(再從孫)인 대광보국승록대부 영중추부사 치사 봉조하 구만은 이미 늙고 또 병들어서, 슬픈 마음을 일으키는 묘소에 직접 가지 못하고, 삼가 삼종질(三從姪)인 진사 학증(鶴增)으로 하여금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제수를 만들어 고(故) 남 장군의 묘소에 밝게 아웁니다. (….) 또 생각 하건대 이미 참혹한 화를 당하시고 또 후손이 없어서 묘역이 황폐해지고 향화(香火)가 미치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으니, 어찌 더욱 의사(義士)들의 슬픈 마음을 일으키고 지사(志士)들의 눈물을 자아내게 하지 않겠습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위엄스러운 명성이 없어지지 않고 신령스러운 기운이 아직도 혁혁해서 시골 노인과 촌백성들이 동요와 민담으로 서로 전하여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한 고을의 높고 낮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증명한 바를 얻어 묘소라고 지적하는 곳에 봉분을 만들고 유허를 구획해서 반드시 믿을 만하고 의심할 바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에 감히 도백에게 글을 올리고 본부(本府)에 하소연해서 가장 가까이 투장(偷葬)한 두세 무덤을 파서 옮겼는데, 이제 장차 봉분을 더 쌓아 올리고 다시 사초(莎草)하며 신정(神庭)을 깨끗이 청소해서 처음 장례할 때처럼 하려 합니다. 옛날과 지금을 생각함에 서글픈 마음 잊을 수가 없습니다.

維歲次庚寅十月壬戌朔初九日庚午. 六代再從孫大匡輔國崇祿大夫領中樞府事致仕奉朝賀九萬. 既耄且病. 不能致身於興哀之地. 謹使三從姪進士鶴增. 奉清酌庶羞之奠. 昭告于故南將軍之墓(…) 且念既罹慘禍. 又乏後嗣. 塋域蕪沒. 香火不及者久矣. 豈不尤足以起義夫之感而釀志士之淚哉. 所幸威

540) 남양(南陽)이라 …… 새로 느누나 : 작자가 사는 곳에 비바람이 많이 몰아치므로, 꽃이 질까 걱정하는 마음에 백발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541) 유세차(維歲次) : 유(維)는 조사이고, 세(歲)는 세성(歲星) 곧 목성(木星)을 가리키며, 차(次)는 머무름을 뜻한다. 세성은 12년 만에 한 번씩 돌므로 이 세성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음을 뜻하는바, 제문(祭文)의 첫머리에 연도를 가리키는 말로 쓰는 말이다.

名不泯.靈氣尙赫.野老村氓.謠俗相傳.至于今不廢.茲得一邑上下衆口之共證.指點封土.畫定遺墟.徵其必信無可疑者.庸敢呈于方伯.訴于本府.掘移偷葬之最逼近數三塚.今將加築改莎.洒掃神庭.如始窆時焉.感念今昔.不勝悽愴.(…)

남구만(南九萬), <약천집(藥泉集)>, 제24권 가승(家乘), 祭南將軍【諱怡】墓文【墓在南陽北面十里許大田里亥龍壬坎入首丙向】>

사회/향촌

1702년(숙종 28) 남구만이 지은 신익상(申翼相)의 묘지명으로 1691년(숙종 17) 남양의 신리에 우거하였다는 내용.

공은 성이 신씨(申氏)이고 휘가 익상(翼相)이고 자가 숙필(叔弼)이고 호가 성재(醒齋)이니, 관향은 고령(高靈)이다. (…)신미년 남양(南陽)의 신리(新里)에 우거하였으며, 계유년 광주(廣州)의 정림(靜林)에 새로 집터를 잡아 일생을 마칠 계획을 하였다. (…)

公姓申氏.諱翼相字叔弼號醒齋.高靈人也.(…) 辛未僑居于南陽之新里.癸酉移卜于廣州之靜林.爲終焉計.(…)

남구만(南九萬), <약천집(藥泉集)>, 제16권 묘지명(墓誌銘), 右議政申公墓誌銘【壬午】>

사회/향촌

이덕무가 성대중에게 보낸 편지로, 박상홍(朴相洪)이 남양으로 돌아간 쓸쓸한 상황을 알려주는 내용.

(…) 요즘 장운장(張雲章) 편에 들으니, 정부(正夫)의 전 가족이 한강을 건너서 여주(驪州)로 돌아갔다 하니, 그가 나와 작별하지 않고 간 것이 밍습니다. 그러나 나는 돌아가는 배가 매우 빨리 떠났음을 알았습니다.

치천(稚川)도 다시 남양(南陽)으로 돌아가서 동류들이 날로 줄어드니, 마음이 좋지 못합니다. 다행히 서(徐)·윤(尹)·변(邊)·유(柳)의 무리가 있어서 때때로 서로가 찾고 있습니다. (…)

(…) 近因張雲章.聞正夫全家浮漢.歸于驪州.憎恨其不別我而去.然我固知其歸舟甚迅也.稚川亦復歸卧南陽.同人日零星.殊不自怡.幸有徐尹邊柳之倫.時時相過耳.(…)

이덕무(李德懋),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卷之十六 雅亭遺稿八 書【二】 成士執【大中】>

사회/향촌

족질(族姪) 광석(光錫)에게 보낸 편지로 경지가 남양으로 갔다는 근황을 알려주는 내용.

(…) 치천[박상홍(朴相洪)]은 지난달 그믐 경에 양애(陽厓)에 돌아갔고, 명오는 통진(通津)에 갔으며, 경지(景之) 역시 남양(南陽)으로 갔다네. 그러고보니 동지(同志)들은 모두 뿔뿔이 떠나가고 나 혼자만 쓸쓸한 방에 우뚝 앉아, 《중용(中庸)》을 읽으면서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묻고 내가 답하며, 내가 읊조리고 내가 듣고 하다 보니, 우리 심계자(心溪子)가 내 곁에 있어서 함께 더 찾고 연구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네. 나의 입이 아무리 기이한 말을 뱉어낸다 하더라도 심계의 귀가 멀리 3십 리 밖에 있으니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내가 보낸 글만이 심계의 밝은 두 눈동자에 비출 수 있을 것이네. (…)

(…) 稚川前月晦際歸陽厓.明五往通津.景之亦南陽去焉.於是.同人俱落落矣.祇吾也兀居秋室.讀中庸書.吾與吾相守.吾問而吾答也.吾咏而吾聽也.恨無吾心溪子在傍尋繹也.吾之口雖可以吐出奇氣.心溪之耳遠在三十里.安得以入則受也.只吾之書.猶可以照心溪之一雙炯然眸子也.(…)

이덕무(李德懋),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제15권 이정유고7 서1, 族姪復初【光錫】>

사회/향촌

민성휘가 자신의 아내 전숙인을 남양에서 이장했다는 내용.

여주 목사 민공 성휘가 후 숙인(後淑人)의 상을 당한 뒤 장지(葬地)를 물색하여 그 주읍(州邑)의 모지(某地)를 얻었다. 그리고 나서 공이 말하기를,

“아, 우리 전 숙인(淑人)은 아들을 낳았는데, 후 숙인(後淑人)은 아들을 두지 못했다. 그러니 만약 이곳에 전 숙인을 장사 지낸다면, 신령스러운 복덕(福德)이 계속 쌓여서 대대로 제사가 끊어지는 일이 없게 될 것이요, 따라서 후 숙인에게도 이로운 일이 될 것이다.”

하고는, 마침내 남양(南陽) 모산(某山)에 있던 숙인의 묘를 열어 이 묘역의 바른 위치에 이장(移葬)을 하고, 후 숙인은 별도로 그곳에서 우측으로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다 장사 지내었다.

驪州牧閔公聖徽.既喪其後淑人.詢葬地得於州之某地.公曰.噫吾前淑人有子.後淑人無子.若以葬前淑人.庶儲靈蓄祉.俾世世無廢祀.亦後淑人之利.遂閉淑人墓于南陽某山.遷窆其正兆.後淑人別葬其右若干步.

이식(李植), <택당집(澤堂集), 택당선생집 제10권 묘지(墓誌), 李淑人壙誌銘>

사회/향촌

조익의 고조부와 고조모의 묘소를 남양에서 광주로 이장하였다는 내용.

우리 고조고(高祖考)인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 증 가의대부(嘉義大夫) 병조 참판 부군과, 고조비(高祖妣)인 정부인(貞夫人) 파평 윤씨(坡平尹氏)를 합장(合葬)한 묘소는 광주(廣州) 하도(下道) 북방리(北坊里)의 산에 있으니 직동(直洞)이라고 하는 곳이다. 그 이전 양세(兩世)의 묘소는 남양(南陽)에 있는데, 부군 때에 와서 비로소 이곳에 장례 지냈다. 함경남도 절도사(咸鏡南道節度使) 증 좌찬성 부군은 그 아들이요, 의빈부 도사(儀賓府都事) 증 좌찬성 부군은 그 손자인데, 묘소가 모두 이곳에 있으며 산기슭만 달리하고 있다. (…)

維我高祖考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贈嘉義大夫, 兵曹參判府君.高祖妣貞夫人坡平尹氏墓合葬.在廣州下道北坊里山曰直洞.先兩世墓在南陽.而自府君始葬于此.咸鏡南道節度使.贈左贊成府君.其子也.儀賓府都事.贈左贊成府君.其孫也.墓皆在此而異麓.(…)

조익(趙翼), <포저집(浦渚集), 제33권 묘표(墓表), 高祖同知中樞府事贈兵曹參判府君墓表>

사회/향촌

병자호란 때 조익이 부친을 남양에서 만나 대부도로 들어갔다가 강화로 갔다가 빠져나와 당진으로 갔다가 부친은 신창으로 가고 자신은 조정으로 들어갔다는 내용.

(…) 병자년(1636) 병란 때에 상이 강화(江華)로 피신하기로 의논을 정하고는 늙고 병든 사람을 먼저 보내도록 명하였기 때문에 부군이 먼저 도성을 떠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예조 판서의 신분으로 대궐에 있다가 묘사(廟社)의 신주(神主)를 따라서 먼저 길을 나섰고 그 뒤를 이어 대가(大駕)가 출발하였는데, 대가가 남대문(南大門)에 이르렀을 때 오랑캐의 기병을 만났으므로 다시 수구문(水口門)을 통해서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향하였다. 그런데 내가 부군의 행방을 몰랐으므로 동분서주하며 찾아다니다가 남양(南陽)에서 만나게 되었지만, 그때는 이미 남한산성이 포위된 상태였기 때문에 산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마침내 군병을 모집해서 오랑캐의 군대에 뛰어들어 함께 죽을 계책을 세웠는데, 적이 남양

에 침입하여 부사(府使)를 죽이자 대중이 흩어지고 말았으므로 다시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었다. 이에 부군을 모시고 대부도(大阜島)에 들어갔다가 강화로 들어갔는데, 강화가 함락될 적에 다행히 빠져 나올 수가 있었다. 그때 강화에서 목숨을 구한 신하들이 원손(元孫)을 모시고 호서(湖西)로 내려갔으므로 부군을 모시고 함께 따라가서 당진(唐津)에 정박한 뒤에 나는 말을 구해서 조정으로 들어가고 부군은 신창(新昌)으로 귀향하였다. (…)

(…) 丙子兵變. 上議幸江華. 而命老病人先往. 故府君先出. 而翼以禮曹判書. 自闕下追廟社主先行. 大駕繼發. 至南門遇胡騎. 還從水口門幸南漢. 翼失府君所往. 奔走尋覓. 得於南陽. 而南漢在園中. 不得入. 遂募兵爲赴秦軍俱死計. 敵入南陽殺府使. 衆散更無可爲. 乃奉府君入大阜島. 往江華. 江華陷. 幸得脫. 其時江華得免諸臣. 奉一諸孫下湖西. 因奉府君隨往. 泊唐津. 翼得馬入朝. 府君歸新昌. (…)
조익(趙翼), <포저집(浦渚集), 제35권 행장(行狀), 先府君行狀>

사회/향촌

조계평(趙季磻)의 묘소가 남양부 수작리에 있다는 내용.

4세 계평(季磻) - 【세종조(世宗朝) 선덕(宣德) 10년 을묘년(1435, 세종 17)의 문과(文科)에 급제하였다. 통정대부(通政大夫) 남원 부사(南原府使)에 이르렀으며, 예조 참의에 추증되었다. 세조조(世祖朝)에 좌익 원종공신(佐翼原從功臣)이 되었다. 묘소는 남양부(南陽府) 수작리(壽作里)에 있다. ○ 부인은 여흥 이씨(驪興李氏)이니, 감찰(監察) 극복(克福)의 딸이다.】

포저 선생 세계도(浦渚先生世系之圖)

사회/향촌

이대순(李大純)에 대한 제문으로 그가 남양에 집이 있다는 내용.

아, 예전에 내가 광주(廣州) 시골집에 있을 적에 군의 집은 남양(南陽)에 있었다. 그 중간에 냇물 하나가 흘러 경계를 이룰 뿐, 남쪽 냇가와 북쪽 냇가 사이의 동산 숲이 마주 보이고 밥 짓는 연기가 서로 바라다보일 정도로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 두 집안이 동향(同鄉)의 연분을 지니고서 친척과 다름없이 가깝게 지내었다. (…)

嗚呼. 昔我在廣村. 君家南陽. 中間一水. 畫爲界限. 南涯北涯. 園林相對. 煙火相望. 兩家鄉井之分. 無異親戚. (…)

조익(趙翼), <포저집(浦渚集), 제30권 제문(祭文), 祭李庶尹 【大純】文>

사회/향촌

1618년(광해군 10) 40세 때의 연보 내용으로 박지계와 권득기 등과 교유하였는데 권득기가 남양에 있었다는 내용.

○ 박잠야(朴潛治) 【지계(知誠)】 및 권만회(權晩悔) 【득기(得己)】 와 글을 주고받으며 격물(格物)에 대한 설을 논하였다. 【박공과 권공이 격물에 대한 뜻을 강론하면서 양자 모두 선생에게 글을 보내 질문하자, 선생이 매우 상세하게 시비를 가려 변론하였는데 그 글이 문집에 보인다. 박공은 뜻이 독실하고 실천에 힘썼으므로 선생이 소싯적부터 벗으로 친하게 지냈다. 그리고 권공은 자신의 몸을 깨끗이 닦고 고난 속에서도 절조를 굳게 지키면서 당시에 벼슬하지 않고 남양(南陽)에 물러나 거하고 있었다. 그래서 선생이 서로 만나 보지는 못하였으나 바로 벗으로 허여하고 정신적인 우정을 나누었는데, 뒤에 권공이 세상을 떠났을 적에 선생이 그 상(喪)을 길에서 접하고는 글을 지어 제사 지냈다.】

조익(趙翼), <포저집(浦渚集), 포저 연보 제1권, 46년 무오(1618) 【선생 40세】>

사회/향촌

권상하가 지은 한지원의 묘갈명으로, 남양의 비봉산이 초장지라는 내용.

(…) 공은 우연히 중풍에 걸려 정묘년(1687, 숙종13)에 사임하고 돌아왔는데, 9월 14일 서울의 자택에서 별세하니, 향년은 68세였다. 처음에는 남양(南陽)의 비봉산(飛鳳山)에 장례하였다가 신묘년 광주(廣州)의 월곡면(月谷面) 인현(麟峴) 자좌오향(子坐午向)의 산에 이장하였다. (…)

(…) 偶患風痺. 丁卯賦歸. 以九月十四日. 考終于京第. 壽六十八. 初葬南陽飛鳳山. 辛卯遷厝于廣州月谷面麟峴午向之原. (…)

권상하(權尙夏), <한수재집(寒水齋集) 제26권 묘갈(墓碣) 兪正韓公 【志遠】墓碣銘>

사회/향촌

권상하가 지은 성몽기의 묘표로 묘소가 발산에 있다는 내용.

담중에게 몽기(夢箕)라는 아들이 있는데, 자는 자협(子協)으로 지극한 효자였다. 아버지를 여의고 난 후로 파주(坡州)가 서울과 가깝다 하여 가족을 이끌고 임천(林川)의 구산(龜山) 아래로 옮겨와 살았다. 달팽이 집 같은 누옥이 비바람도 가리지 못했지만 그 속에서 태연하게 시골 늙은이들과 날마다 농사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며 살았다. 멀리서 가까이서 학문을 익히기 위하여 찾아온 자가 매우 많았고, 강호(江湖)를 오가는 점잖은 벼슬아치들도 그가 있는 곳을 찾아와 경의를 표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중에서도 용재(容齋) 이공(李公 이행(李荇))이 가장 불쌍하고 측은히 여겨 벼슬을 하여 가난을 면하도록 권고하였는데, 공은 눈물만 주루룩 흘릴 뿐 대꾸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공이 의롭게 여기고 새삼 경의를 표하며 탄식하고 떠나기도 하였다. 그리고 문인(門人)들이 당호(堂號)를 청하면 공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며 이르기를 “구산(龜山)의 성생(成生)으로 불러주면 족하다.” 고 하였으므로 후인들이 구산을 그냥 호로 부르게 된 것이다. 공의 묘소는 군(郡)의 서편 발산(鉢山) 신좌(辛坐)로 된 둔덕에 있다. (…)

聃仲有子曰夢箕. 字子協. 性至孝. 既孤以坡壟近京. 挈家寓林川之龜山下. 土牀蝸室. 不蔽風雨. 而處之晏如. 日與村翁野老. 評論桑麻而已. 遠近樞衣者甚多. 搢紳大夫之往來江湖者. 莫不躬造其廬而致敬焉. 容齋李公最加愍惻. 勸以爲貧之仕. 公汪然出涕而不應. 李公義之. 改容歎息而去. 門人請堂號. 公掉頭曰稱龜山成生足矣. 後人因以爲號. 墓在郡西鉢山負辛之原. (…)

권상하(權尙夏), <한수재집(寒水齋集) 제31권 묘표(墓表), 龜山處士成公 【夢箕】墓表>

(2) 의식주

사회/의식주

허균이 남양에서 나는 과일과 해산물을 소개한 내용.

각시(角柿) : 남양(南陽)에서 나는 것이 가장 좋다.

해양(海贛) : 인천(仁川)과 남양(南陽) 등지에서 잡힌다. 소의 지라맛과 같은데 두 지방 사람들이 요리를 잘한다.

[果實之類] (…)
角柿. 產南陽者最好. (…)

[海水族之類] (…)
海贛. 產仁川南陽. 味似牛脾而爽. 唯二邑人. 能烹飪之. (…)

허균(許筠),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 제26권 설부(說部) 5, 도문대작(屠門大嚼)>

(3) 윤리·풍속

사회/윤리·풍속

송시열이 지은 삼학사전(三學士傳)으로 윤집의 형 윤계가 부사로 있는 남양부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내용.

윤집은 남원인(南原人)으로 자(字)는 성백(成伯)인데 만력 병오년(1606, 선조39)에 태어났다. (…)
정축년(1637, 인조15) 정월 (…)
7일에 남양부(南陽府)가 함락되었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남양 부사(南陽府使)는 바로 공의 형(兄)인 계(榮)였다. 공이 체직(遞職)할 것을 청하자 상이 윤허하였다.

尹集南原人.字成伯.生於萬曆丙午.生十三歲.其考衡甲沒.伯兄榮.教以文行.篤至不懈.天啓丁卯.中生員.辛未.擢文科.隸槐院.移侍講院爲說書.又有史局薦.未入而陞司書. (…)
丁丑元日. (…)
初七日.聞南陽府陷敗之報.其府使卽公兄榮也.公乞遞職.上許之.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제213권 전(傳), 三學士傳>

사회/윤리·풍속

윤섬(尹暹)에게 시호가 내려진 것을 기념하는 그림의 서문으로 그의 손자 윤계의 순절에 대해 언급한 내용.

(…)
공의 손자 계(榮)는 병자호란 때에 남양 부사(南陽府使)로서 순절(殉節)하였고, 그의 아들 집(集)은 뜻과 용기를 관철시켜 춘추 대의(春秋大義)를 밝혔으므로 세상에서 한집안의 세 절의(節義)로 일컬었으니, 두 분 손자는 참으로 선대의 업적을 잘 계승했다 이를 만하였고, 공의 풍교(風教)는 먼 후세까지 미칠 터이니, 그 세도(世道)에 끼친 공로가 어떠하겠는가. (…)

(…)
公孫榮當丙子虜亂.以南陽府使.殉節而死.其弟校理集.秉志立謹.以明春秋大義.世號爲一家三節.二孫眞可謂善繼.而公之風教將及於無窮矣.其有功於世道何如也.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제139권 서(序), 尹文烈公延諡圖序>

사회/윤리·풍속

송시열이 병자호란 때 남양부사 윤계의 활약을 기록한 비문.

승정 병자년(1636, 인조14) 12월에 노병(虜兵)이 포위망을 길게 구축하여 남한산성의 길을 끊고, 또 군사를 나누어 방현(傍縣)을 약탈하였다. 남양 부사(南陽府使) 윤공 계(尹公榮)가 그 조부 교리(校理) 섬(暹) 때부터 충의(忠義)의 대절(大節)이 있어 나랏일에 죽었으므로 포증(褒贈)되었고, 공은 비록 젊은 나이로서 뛰어난 지혜로 좋은 요직에 출입하였으나, 그 마음은 항상 왕실(王室)에 있어 오직 충성을 다하여 나라에 보답할 것을 기약하므로, 사람들도 이것으로 기대하였다. 28일에 적병(賊兵)이 갑자기 쇄도하였다. 이때에 공은 일 때문에 호서(湖西)의 보은(報恩)에 가 있다가 변란의 소식을 듣고 빨리 돌아온 지 겨우 3일 만에 군병(軍兵)을 불러모았으나, 전구(戰具)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군사가 마침내 궤멸되었다. (…)
崇禎丙子十二月.虜兵築長圍以絕南漢路.又分兵以鈔旁縣.南陽府使尹公榮.自其祖校理暹.有忠義大節.死國事褒贈.公雖妙歲蜚英.出入華要.然其心常在王室.惟以盡忠報國自期.人亦以此期之.二十八日.賊兵猝至.時公以事適湖西之報恩.聞變疾歸.歸纔三日矣.招集軍兵.戰具未備.軍遂潰. (…)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제171권 비(碑), 南陽尹公碑>

사회/윤리·풍속

남양 사람들의 풍속에 미리 관을 만들어 대청에 두고, 땡감을 저장하면 봄까지 보관하는 속례가 있다는 내용.

지금 세상에서는 관(棺)의 틈새를 칠포(漆布)로 메운 다음에 그 위에다 또 유지(油紙)를 더 바르는데, 일단 땅속에 들어가게 되면 증기(蒸氣)로 축축해져서 떨어져 버리고 마니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다. 우리 집안에서는 직접 천장(遷葬)할 적에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만 교칠(膠漆)을 써서 그 틈새를 메울 뿐이요 칠포나 유지를 써서 바르지는 않는다.

겨울철에 사람이 죽었을 경우 세상에서는 반드시 두꺼운 담요로 관(棺)을 싸고 벗짚을 잘게 썰어 관을 수북이 덮어 주면서 시신(屍身)이 얼지 않게 예방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일찍이 의심을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담요로 싸는 일을 면하지 못하였다. 그 뒤에 남양(南陽)에 사는 어떤 사부(士夫)와 함께 누이의 아들 초상을 치르면서 들은 말에 의하면, 남양의 촌사람이 살았을 적에 미리 관을 만들어서 대청 옆에 두었다가 겨울이 되면 땡감을 그 속에다 저장해 두었는데, 그 윗뚜껑의 틈새를 꼭 막지 않았는데도 그 안이 매우 따뜻하였고 봄이 될 때까지 감이 썩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도 속례(俗禮)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겠다.(…)

俗制棺縫塗漆布.又以油紙加塗.入地之後.蒸濕墮落無益也.吾家自遷葬時.知此理.但用漆膠其縫隙.不用布紙塗也.

冬月死者.俗制必以厚氈裹棺.細切藁草.埋棺如丘.以爲防屍凍也.余嘗疑其不然.然不免隨俗用氈. 後與南陽居士夫治姊子喪.聞南陽野人.生時預作棺.置于廳側.冬月則以藏生柿.其上蓋罅隙.則不甚縫合而其中甚暖.柿至春不敗.以此知俗禮之陋也.

이식(李植), <택당집(澤堂集), 택당선생 별집 제16권 잡저(雜著), 家誠>

4. 문화(文化)

(1) 사상

문화/사상

안정복이 우리나라 서원이 중국의 인명과 지명의 유상함으로 서원을 세우는 태도를 비판한 내용.

[우리 나라의 서원(書院)] 우리 나라에는 본래 서원이 없었다. 그런데 중종(中宗) 신축년(1541, 중종 36)에 신재(愼齋) 주세붕(周世鵬)이 풍기 군수(豐基郡守)로 있으면서 백운동(白雲洞)에 소수서원(紹修書院)을 창건하고 문성공(文成公) 안유(安裕)를 제향(祭享)하였으며, 뒤에 또 해주(海州)에 문헌공(文憲公) 최충(崔沖)의 서원을 세웠는바, 모두 살았던 고장을 택한 것이다.

그 이후로는 지명이 서로 비슷한 경우에도 따라서 서원을 세웠는바, 강릉(江陵)에 구산역(丘山驛)이 있으므로 공자(孔子)의 서원을 세웠으며, 해주(海州)에 수양산(首陽山)이 있으므로 이제묘(夷齊廟)를 세웠으며, 남양(南陽)의 지명이 제갈량(諸葛亮)이 살던 곳과 같으므로 무후묘(武侯廟)를 세웠으며, 영유(永柔)에 와룡암(臥龍巖)이 있으므로 또 제갈사(諸葛祠)를 세웠으며, 성주(星州)에 이천(伊川)이니 운곡(雲谷)이니 하는 지명이 있으므로 천곡서원(川谷書院)을 세워서 정자(程子)와 주자(朱子)를 제사지냈으며, 무주(茂州)의 별호가 주계(朱溪)이므로 참판 희암(希菴) 채팽윤(蔡彭胤)이 부사로 있으면서 주자(朱子)의 서원을 세웠다. 그러나 이처럼 억지로 끌어다 붙인 뜻이 과연 예(禮)에 합당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형식에만 치우친 폐단이 여기에까지 이르렀다 하겠다. (…)

我東本無書院. 中宗辛丑. 周愼齋世鵬宰豐基. 勑建白雲洞紹修書院. 享安文成公裕. 後又於海州. 建崔文獻公沖書院. 皆就所居之鄉也. 後來有地名之近似者. 亦隨而立院. 江陵有丘山驛. 故建孔子書院. 海州有首陽山. 故建夷齊廟. 南陽與諸葛亮所居地名同. 故建武侯廟. 永柔有卧龍巖. 故又建諸葛祠. 星州有伊川雲谷之名. 故建川谷書院. 享程朱. 茂朱別號朱溪. 故希菴蔡參判彭胤爲府使時. 建朱子書院. 其牽合傳會之義. 其果合於禮乎. 文勝之弊至此. (…)

안정복(安鼎福), <순암집(順菴集)>, 제13권 잡저(雜著), 橡軒隨筆[下] 戶牖雜錄並附, 東方書院>

문화/사상

정조가 윤계(尹檠) 등의 묘소에 치제한 글

저 그윽한 언덕이여 / 彼窈窕原

울연히 아름다운 광채가 있으니 / 蔚有休光

충성이 지극한 신하의 / 曰有忠藎

유해가 여기에 묻혔네 / 衣履是藏

정헌공의 강직함이여 / 貞憲侃侃

패옥(佩玉)이 아름답게 울렸는데 / 玉珮璆鏘

말고삐를 잡고 달리니 / 執鞚于邁

저 멀리 서쪽 강토였네 / 逝矣西疆

과감하였도다 어진 아들이여 / 果哉賢胤

지닌 덕이 강직하고 방정하였으니 / 秉德剛方

절의는 송균에 비기겠고 / 節譬松筠

공로는 기상⁵⁴²)에 실렸다네 / 功載旂常

또 뒤를 이어 능히 선대를 닮은 이로 / 有承克肖

참으로 충강공이 있었으니 / 展也忠康

그 손자에 이르러 / 施及厥孫

혁혁한 남양 부사(南陽府使)가 있었네 / 有奕南陽

아름다운 사대가 / 式美四世

화락하게 한 언덕에 묻혔으니 / 於樂一岡

어둡지 않은 영령들에게 / 不沫者靈

이 제문을 바치네 / 矢此侑章

<홍재전서(弘齋全書), 제24권 제문(祭文)6, 貞憲公尹又新文烈公尹暹忠康公尹衡甲忠公尹榮墓致祭文>

542) 기상(旂常) : 제왕의 기 이름으로, 기에는 교룡(交龍)을 그리고 상에는 일월(日月)을 그렸다. 조정에 공이 있는 신하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였다고 한다.

(2) 지리·경관

문화/지리·경관

남양(南陽)에서는 경석(磬石)이 나왔고 해변으로는 염분이 많은 땅이라는 내용.

지승(地乘) 【처음에는 〈지림(誌林)〉이라고 하였다가 〈지승〉으로 고쳤다. 기록하는 체제는 대체로 《관자(管子)》 〈지원(地員)〉과 《사기(史記)》 〈화식전(貨殖傳)〉을 바탕으로 하였다. 예의(禮義)와 선속(善俗)을 중시하였다.】

(…) 왕성(王城)⁵⁴³은 경기(京畿) 안의 땅으로 본래 마한 지역이었다. 동북은 옛날의 맥(貊) 땅이고, 서쪽으로는 바다에 닿아 있다. 남양(南陽)에서는 경석(磬石)이 생산되고, 바닷가는 개펄이다. 토질은 벼를 심기에 알맞고, 맥의 서쪽에서는 콩과 조가 3할을 차지한다. 왕성은 임금의 손으로 세워진 것이니, 사실 백제 때에는 남평양(南平壤)이었고 고려 때에는 남경(南京)이었다. 왕이 번갈아 거처하기를 다섯 번에 백성이 모여든 곳이다.

풍속은 섬세하고 인색하며, 여자들의 길쌈 솜씨가 훌륭하여 의복, 신발, 관, 띠를 기교 있게 만들었다. 사방의 중심이 되었으며, 만용(蠻戎)이 복종하였다. 나라의 제도는 유술(儒術)을 중시하여 《시경(詩經)》과 《서경(書經)》을 선비에게 가르치니, 예악(禮樂)의 기풍이 있었다. 개경(開京)의 선비와 여인은 흰옷을 입고 성률(聲律)을 숭상하였으니, 고국(古國)의 풍모이다. (…)

地乘 【初.作誌林.改地乘.書大抵出地員, 貨殖.重禮義善俗.】

(…) 王城圻內之地.本馬韓之域.東北古貊.西盡大海.南陽出磬.海濱瀉鹵.宜種稻.貊西菽粟居三.王城立后手.實在百濟.爲南平壤.麗時爲南京.王者之所更居五.民之所聚.其俗纖嗇.善女工技巧.衣履冠帶.四方輻湊.蠻戎賓服.國制重儒術.詩書教士.有禮樂之風.開京士女素服.尙聲律.古國之風也.(…)

허목(許穆), <기언(記言) 제35권 외편 동사(東事) 4, 地乘>

문화/지리·경관

이색이 지은 것으로 남양에 있는 망해루에 대한 기문

남양부(南陽府)는 삼국 시대에는 당성(唐城)이라고 이름하였다. 본조(本朝 고려)에 들어와서 중세 이후로는 익주(益州)로 되었다. 이 고을의 홍씨(洪氏)는 태조가 처음 일어날 때부터 익대공(翼戴功)이 있었으니, 휘(諱)가 은열(殷悅)이라고 하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대대로 거족을 이루었으니, 강도(江都)의 말기에 이르러 남양군(南陽君)이 권신⁵⁴⁴을 베어 죽이고, 정권을 왕실로 도로 돌렸으며 문예부주(文睿府主)⁵⁴⁵를 낳아 양조(兩朝)⁵⁴⁶의 태후가 되었으므로 이 고을을 부(府)로 승격시켰다. 대개 산천의 신령하고도 뛰어난 정기가 뭉쳐서 아름다운 상서를 낳아, 억만년 영원히 끝이 없는 왕업의 기초를 이루었으니, 진실로 다른 군현(郡縣)과 똑같이 다룰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곳의 수령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반드시 신중하게 뽑아 임명한다.

543) 왕성(王城) : 한성부(漢城府)를 말한다. 고구려 때에는 북한산군(北漢山郡)이었고, 백제 근초고왕 때에는 남평양(南平壤)이었으며, 신라 진흥왕(眞興王) 때에 북한산주(北漢山州)를 두었다가 경덕왕이 한양군으로 고쳤다. 고려 문종 때 남경(南京)으로 고치고, 충렬왕 때 다시 한양부(漢陽府)로 하였으며, 조선 태조 때 도읍을 정하고 한성부라고 고쳤다.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권 한성부》

544) 권신 : 무장으로 4대 동안 국가 권력을 잡았던 최충헌(崔忠獻)의 가문을 말함.

545) 문예부주(文睿府主) : 충숙왕(忠肅王)의 비(妃)明德왕후(明德王后)

546) 양조(兩朝) : 충혜왕(忠惠王)과 공민왕.

해정어수(海亭漁叟)라고 하는 정후(鄭侯)가 부임하여 말하기를, “태양에는 나옴과 들어감
이 있고, 물에는 원류와 끝이 있다. 비록 멀고 큰 것일지라도 탐구의 방법을 잘하는 자는
다 알 수 있다. 더구나 군왕이 출생한 근본인 곳임에랴. 신하된 자는 진실로 마땅히 삼가
공경하여 감히 소홀하게 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나는 영광스럽게 임금의 은택 있는
말씀을 받아 군왕이 출생한 땅의 수령이 되었다.” 하고, 이 때문에 밤낮으로 오직 삼가고
공경하고 우선 덕(德)으로써 힘을 썼다.

아전들을 교화하는 데 감히 법으로 대하지 아니하며, 백성을 은혜롭게 대하여 감히 위압을
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한 지 1년이 되어 고을 안이 매우 평화로운 것은 일어나지 않는 것
이 없고, 해로운 것은 모두 없어졌다. 이에 누대를 고을의 치소에 세워 보는 것을 장대하게
하고 빈객과 사신들을 기쁘게 하려 하였다. 이름을 ‘망해루(望海樓)’ 라고 붙이였다. 그의
아들 국자감(國子監)의 학생인 정이(鄭彝)를 시켜, 나의 글을 받아서 기문으로 삼았다.

이 고을에 옛날에는 못이 있었는데, 오래도록 폐지하고 수리하지 않아 위에는 잡초가 우거
지고 아래에는 양금이 쌓이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함부로 경작하게 되었다. 고을 사람
들이 서로 전하여 말하기를, ‘못에 살던 용(龍)이 다른 곳으로 옮겨 간 뒤로 못이 말라버
렸다.’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정후(鄭侯)가 부임하여 못을
파내고 수축하게 하였더니, 이날 검은 구름이 갑자기 동남쪽에서 일어나고 바람과 우레가
따라왔다. 고을 사람들이 바라보니 높이 드러난 용의 꼬리가 못에 내려왔다. 못의 물이 사흘
동안 끓어오르고 흰 기운이 뭉게뭉게 일어나서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이상
하게 여겼다고 한다.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음의 작용은 위대한 것이다. 마음을 한번 정하면 온 천하에 족히 못할 것이 없다. 정후(鄭
侯)의 공경하고 조심하는 마음이 환하게 되어서 막힘이 없기 때문에 드러난 데에서는 인화
(人和)를 가져오고, 그윽한 곳에서는 영물(靈物)을 오게 한 것이다. 여기에 비하면 이 누
(樓)를 창건한 것은 작은 일이니 무엇 말할 만한 것이 있겠는가. 그런 까닭에 고을의 고사
(故事)를 적고, 뒤에는 용이 돌아온 유래를 기록하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알린다. 정후의
이름은 을경(乙卿)이고, 자(字)는 선보(善輔)이다. 국가의 기둥이 될 만한 재목으로 세상에
알려져 있다.

南陽府在三國時號唐城.入本國.中世以來.爲益州.州之洪氏.自太祖興時.有翼戴功.諱殷悅者是
已.世爲大族.**至江都末.南陽君誅權臣.**反政王室.生文睿府主.爲兩朝大母.陞之爲府.蓋山川靈異
之氣鍾.而休祥以基.夫萬億年無疆之業.固不可 以他郡縣等夷之也.故重其守臣.亦必慎簡.海亭
漁叟鄭侯之至也.以爲日之有出入也.水之有源 委也.雖遠且大.善其術者.皆能知之.況君上之所自
出乎.爲之臣者.固當敬止而毋敢忽也.矧余光 被德音.得爲君上所出其地之守臣哉.是以.夙夜 惟
寅.務以德先.化其吏.不敢加以政.惠其民.不敢 施以威.基歲大和.利無不興.而害悉去之.迺作樓
于州理.以壯瞻視.以娛賓使.揭名曰望海.使其子 國子生彝.徵余文爲記.且言曰.州舊有池.久廢不
修.上葑下淤.居人雜耕其中.州人相傳.池之龍.徙它境.其後乃涸.然莫知其信否也.侯既至.命浚而
築之.是日.黑雲暴起東南.風雷隨之而至.州人望 之.矯矯見龍之尾.及池而下.池水沸三日.白氣蕩
然不止.老幼嗟異.余曰.必之用大矣.一定其必.則 天下無足爲者.鄭侯敬止之心.洞達無間.故明則
人和.幽則物格.是樓之微.何足道哉.故先書郡故.後錄龍返之由.以告來者焉.侯名乙卿.字善輔.以
幹材.行于世云.

이색(李穡), <목은집(牧隱集)>, 목은문고 제6권 기(記), 南陽府望海樓記>547)

547) 이색(李穡), <동문선(東文選)>, 제76권 기(記), 南陽府望海樓記>

문화/지리·경관

윤증이 지은 이시필의 묘갈명으로 병자호란 때 남양의 자연도에 들어갔다가 강화도로 갔다는 내용.

공은 이름이 시필(時苾)이고 자는 자방(子芳)이며 전주이씨이다. (….) 병자년(1636)에 6품으로 승품하고 또다시 금오랑(金吾郎)에 제수되었다. 겨울에 변방의 급보가 와서 어가(御駕)가 급히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가게 되었을 때 공이 미처 호종하지 못하자 황급하게 모친을 모시고 성을 빠져나와 남양(南陽)의 자연도(紫燕島)로 갔다. 그리고 ‘이왕 어가를 호종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종묘와 사직을 모신 곳으로 가자’는 생각으로 마침내 강도(江都)로 들어갔다. 당시에 효종대왕이 대군(大君)으로서 성안에 있었는데, 성이 함락되려 하자 공이 배알을 청하고 아뢰기를,

“소인이 비록 관직은 낮으나 또한 종실의 후손입니다. 나랏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종묘와 사직을 받들고 죽기를 원합니다.”

하니, 대군이 말하기를,

“그대는 나와 생사를 함께 해야 할 것이다.”

하고는 이어 가족(家屬)들을 데리고 궐내로 들어와 살게 하였으며 분사(分司)의 건의에 따라 공을 가도사(假都事)에 제수하였다.(…)

公諱時苾.字子芳.系出礪源.(…) 丙子.陞六品.又拜金吾郎.冬.邊遽至.大駕急幸南漢.公未及從.蒼黃奉母夫人出城.抵南陽紫燕島.以爲既不能扈駕.寧奔問廟社.遂入江都.時孝宗大王.以大君在城中.城將陷.公請謁曰.小人官雖卑.亦宗室後裔.國事至此.願奉宗社死.大君曰.爾與吾當死生同之.仍令以家屬.入處于闕內.分司白.授公假都事.(…)

윤증(尹拯), <명재유고(明齋遺稿)>, 제38권 묘갈명(墓碣銘), 戶曹佐郎贈戶曹參判李公墓碣銘>

문화/지리·경관

박지원이 지은 이유동(李儒東)의 취미루기(翠眉樓記)로 남양의 와룡사에 대해 언급한 내용.

아, 경기의 남양(南陽)이나 황해도 황주(黃州)는 지명이 중국과 우연히 같은데도, 남양에는 반드시 와룡선생(臥龍先生 제갈량(諸葛亮))을 모신 사당⁵⁴⁸⁾을 두고 황주에는 기어이 죽루(竹樓)⁵⁴⁹⁾를 짓고 마는데, 이것은 실질을 함모한 것인가, 아니면 그 이름만 함모한 것인가?

(…) 嗟呼.南陽黃州.地名偶同.必祠臥龍.强構竹樓.此慕實乎慕名乎.(…)

박지원(朴趾源), <연암집(燕巖集)>, 제7권 별집 중북소선(鍾北小選), 翠眉樓記>

문화/지리·경관

성혼이 지은 남양 영흥도의 효자(孝子) 임수복(林秀福)에 대한 일화와 영흥도의 토질.

임수복은 남양(南陽) 영흥도(靈興島) 사람이다. 영흥도는 서해(西海) 가운데에 있으니, 숲이

548) 와룡선생(臥龍先生)을 모신 사당 : 제갈량의 출사표(出師表)에 “신은 본래 포의로서 남양에서 몸소 농사를 지었다.[臣本布衣 躬耕於南陽]”고 하였다. 이덕무(李德懋)의 ‘동짓날 내제(內弟)를 그리워함 [至日憶內弟]’이란 시 제목 아래 주(註)에 “남양(南陽)에 와룡사(臥龍祠)가 있다.[南陽有臥龍祠]”고 하였다. 《靑莊館全書 卷2 嬰處詩稿》

549) 죽루(竹樓) : 왕우칭(王禹稱)의 황주죽루기(黃州竹樓記)가 《고문진보(古文眞寶)》에 실려 있다. 왕우칭(954~1001)은 송 나라 진종(眞宗) 때 재상(宰相)과 불화하여 호북성(湖北省) 황주부(黃州府) 황강현(黃岡縣)으로 좌천되었다. 그곳은 대나무의 명산지였으므로, 왕우칭은 대나무로 조출한 누각 2칸을 짓고 나서 이 기를 지었다고 한다.

무성하고 토지가 비옥하여 열대여섯 집이 마소를 치고 사는데, 임수복은 바로 그중의 한 사람이었다. 만력(萬曆) 임진년에 왜적이 경성에 침입하니, 강진휘 자서(姜晉暉子舒)가 난리를 피하여 처자를 데리고 그의 집에 가서 3개월 동안 머물렀다.

林秀福.南陽靈興島人也.島在西海中.林茂而土沃.有牧子十五六家居之.秀福即其一也.萬曆壬辰.倭賊入京師.姜晉暉子舒避亂携妻子.客于其家凡三月.
성혼(成渾), <우계집(牛溪集), 제6권 잡저(雜著), 孝子林秀福傳>

문화/지리·경관

1763년(영조 39) 이덕무가 남양 두구리 양지촌 양애의 의미에 대해 설명한 내용.

남양의 두구라는 마을에 있는 (...) 서울[漢師]에서 서남으로 1백 리쯤 가면 큰 바다가 하늘에 연립하였고 그 곁에 남양(南陽)이라고 부르는 웅부(雄府 큰 고을)가 끼어 있다. 바다가 이미 양인데 지명이 또 남양이니 양이 너무赫赫(赫赫)하지 않은가? 두구(斗九)라고 하는 마을[里]이 있으니 바다에다 남쪽의 양이면 양이 이미 왕성한데, 마을이 또 두구(斗九)이니 양이 너무 염염(炎炎)하지 않은가? 그 마을[村]은 정남향으로 되어 해가 항상 따듯이 쬘고 있으니 이를 양지마을[陽地之村]이라고 한다. 여기에 불쭉 솟아올라 절벽을 이룬 언덕이 있으므로 일광을 더욱 많이 받고 있다. 나의 외숙이 이런 것을 모두 합하여 양애(陽厓)라고 이름하였는데 언덕이 다시 암암(巖巖) 암석이 겹겹이 서 있는 모양)하게 높이 솟아 양의 상이 있다. 그리하여 양인 바다에다, 고을은 남양이요 마을은 두구이니 양이 이미赫赫하고 또 염염한데, 다시 마을과 언덕마저 각각 이름을 양으로 하였고 언덕까지 양의 상이 있으니 그야말로 양의 항극(亢極)한 것이 아니겠는가? (...) 그렇지만 오직 선과 군자의 양에 속하는 것은 비록 너무 강하여 항극(亢極)하여도 천지의 도에 해롭지 아니하다. 이렇기에 남해(南海)의 옆 남양부(南陽府) 두구리(斗九里) 양지촌(陽地村) 양애(陽厓)는 많은 양(陽)을 쌓아 조그마한 음도 상(象)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는 조금도 해로울 것이 없는 것이다.

距漢師西而南百里.巨海粘天.雄府介於旁.號曰南陽.海既陽矣.地又曰南之陽.不其陽太赫赫乎.有里焉.曰斗九.海而南之陽.陽既盛矣.里又曰斗之九.不其陽太炎炎乎.其村正南嚮.日恒暖炙.是謂陽地之村.有崖陡起峭絕.日之光偏受焉.我舅氏合以名之曰陽厓.厓又巖巖竦立.有陽之象也.海而南之陽.里而斗之九.陽既赫赫且炎炎矣.村與崖.又各以陽名.厓更有陽之象.不其亢於陽乎.(...) 惟善與君子之屬陽者.雖太剛而亢.不害於天地之道也.是故.南海之旁.南陽府斗九里陽地村.陽崖之積象陽.而微陰不見于象.是大無傷也.

이덕무(李德懋),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제3권 嬰處文稿一, 기(記), 陽厓記>

문화/지리·경관

동짓날 남양(南陽) 와룡사(臥龍祠)에서 내제(內弟)를 그리워하며 지은 시.

타향에서 《주역》을 읽다가 동짓날을 알고서 / 至日他鄉讀易知

서등을 새벽에 공명사에서 빌려온다 / 書燈晨乞孔明祠

옛날 강가 집의 동짓날 밤에는 / 昔年江舍陽生夜

팔죽을 함께 먹으면서 이별하지 않았건만 / 荳粥同嘗不別離

이덕무(李德懋),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제2권 영치시고2, 至日憶內弟【南陽有臥龍祠】>

문화/지리·경관

1764년(영조 40) 제야에 남양의 제갈공명의 사당, 윤계의 사당 등에 배알하고 돌아왔다는

내용.

(…) 나는 일찍이 높게 갠 한 가을날 서산(西山)에 올라 장 원수(張元帥)가 역적 이괄(李适)을 격파한 일⁵⁵⁰)을 회상하였다. 며칠 전에는 이른 새벽에 말을 눈 속에 1백 20리나 달려 고당성(古唐城 남양(南陽)의 고적(古蹟))에 이르러 제갈孔明(諸葛孔明)의 사당에 배알하였으며, 옛적에 윤 부사(尹府使)가 충절⁵⁵¹)을 세운 곳에 나아가 조상하였다. 내제(內弟) 치천(穉川 박종산(朴宗山)의 자)을 데리고 양애(陽厓)에 올라 천등산(天登山)·마니산(摩尼山)·삼각산(三角山) 등 여러 산의 장관(壯觀)을 멀리 바라보니 칠산대해(七山大海)의 층층으로 일어나는 파도가 아득하여 청제(靑齊 중국의 청주(靑州) 지방을 가리킨 말)와 연결하였다. (…)

(…) 余嘗高秋登西山.憶張元帥破逆适之事.近日凌晨馳馬雪中.行一百二十里.歇于古唐城.謁諸葛孔明祠.吊古尹府使立節之地.携內弟穉川.登陽厓.望見天登, 摩尼, 三角諸山.壯觀七山大海層濤瀾瀾與靑齊接也.(…)

이덕무(李德懋),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제3권 영처문고1, 기(記), 甲申除夕記>

문화/지리·경관

남양의 치소 서쪽에 있는 수재(秀才) 성생(成生)의 십객헌(十客軒)에 대한 기문.

(…)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나에게 글을 보내어 십객헌(十客軒)이라고 하는 곳에 대한 기문(記文)을 요청하였다. 이는 그가 남양(南陽)의 치소(治所)에서 서쪽으로 몇 리쯤 떨어진 곳에 하나의 언덕을 얻어 노닐며 휴식하는 장소로 삼은 뒤에, 소나무 · 국화 · 매화 · 대나무 · 모란(牡丹) · 부용(芙蓉) 등 10종의 식물을 그 앞에다 심어 놓고는 그렇게 이름 지은 것이었다. (…)

一日.以書來請記其所謂十客軒者.蓋於南陽治西幾里.得一丘爲游息之所.列植松菊梅竹牧丹芙蓉等十物於其前而名之也.(…)

조익(趙翼), <포저집(浦渚集), 제27권 기(記), 十客軒記>

550) 장 원수(張元帥)가 …… 격파한 일 : 장 원수는 인조(仁祖) 때 팔도도원수(八道都元帥) 장만(張晩). 평안도 병마절도사 겸부원수(平安道兵馬節度使兼副元帥)로 있던 이괄(李适)이 난을 일으켜 서울로 입성(入城)하자 장만이 이틀 만에 패배시켰다.

551) 윤 부사(尹府使)가 충절 : 윤 부사는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남양 부사(南陽府使)로 있던 윤계(尹檠)를 말한다. 그는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근왕병(勤王兵)을 모집, 남한산성(南漢山城)에 들어가려다가 포로가 되어 참살당하였다.

(3) 예술

문화/예술

정홍명의 시에 답한 시로 당성(남양)에 사는 정홍명을 애타게 기다린다는 내용의 시.

오악⁵⁵²) 찾아보는 일 너무 늦어 유감이라 / 五嶽尋眞恨已遲
천지간에 몸담고서 몇 번이나 생각하였던가 / 側身天地幾含思
청운의 뜻 이룰 그릇 원래 못 되어 / 靑雲器業元非分
백발이 다 되도록 시만 잡고 고생하네 / 白首辛勤只爲詩
중산의 절교서(絶交書)⁵⁵³)가 오는 것도 당연한 일 / 中散書來應告絶
만용보다 높은 관직⁵⁵⁴) 어떻게 걸맞으리 / 曼容官過豈相宜
그래도 나의 뜻 알아 주는 우리 기옹 / 知音賴有畸翁在
시와 술로 정녕코 세모를 함께 보내리라 / 文酒丁寧歲暮期

번지⁵⁵⁵)처럼 농사 기술 배었어도 무방한데 / 何妨農圃學樊遲
한창 때에 충분히 생각 못한 게 유감이오 / 恨不當年爛熟思
조경에서 반악⁵⁵⁶)처럼 일찍도 쉰 귀밑머리 / 雲閣早彫潘岳鬢
만년에 부질없이 두릉⁵⁵⁷)의 시만 읊고 있소 / 暮途空詠杜陵詩
책 보기도 귀찮아서 던져 버리고 / 殘書總向慵時卷
잠 깬 뒤엔 그저 쓴 차만 입에 대오 / 苦茗偏於睡後宜
서쪽 시내 궁벽진 그대의 집 빼고 나면 / 除却西街幽僻處
말 타고 찾아갈 곳 그 어디 있으리요 / 出門騎馬與誰期

꽃기는 계절의 변화 도시 멈출 줄을 몰라 / 節序相催苦不遲
중방 제결의 때⁵⁵⁸) 그윽한 감회 느껴지네 / 衆芳題鳩感幽思
아직도 못 올린 삼천 독⁵⁵⁹) 문장 / 文章未奏三千牘
풍자하는 백일시⁵⁶⁰)를 그 누가 진달할까 / 風刺誰陳百一詩

552) 오악(五嶽) : 다섯 개의 명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동쪽의 금강산(金剛山), 서쪽의 묘향산(妙香山), 남쪽의 지리산(智異山), 북쪽의 백두산(白頭山), 중앙의 삼각산(三角山)을 가리킨다.

553) 중산의 절교서(絶交書) : 삼국 시대 위(魏) 나라의 중산대부(中散大夫)를 지낸 혜강(嵇康)이 자신을 그의 후임자로 천거한 자(字)가 거원(巨源)인 산도(山濤)에게 절교하는 글을 보낸 고사가 있다. 《문선(文選)》에 그의 여산거원절교서(與山巨源絶交書)가 실려 있다.

554) 만용보다 높은 관직 : 6백 석(石)보다 높은 직질(職秩)을 가리킨다. 한(漢) 나라 병만용(邴曼容)이 6백 석에 불과한 관직에 몸을 담고 있다가 왕망(王莽)이 정권을 잡자 고향에 돌아간 고사가 있다. 《漢書 卷72, 卷88》

555) 번지(樊遲) : 공자의 제자로 농사일을 배우기를 청하였다. 《論語 子路》

556) 반악(潘岳) : 진(晉) 나라의 문장가로, 그의 추흥부(秋興賦)에 “余春秋三十有二 始見二毛”라는 말이 있다.

557) 두릉(杜陵) : 두릉(杜陵)에 거하며 두릉포의(杜陵布衣)라고 자호(自號)했던 당(唐) 나라 시인 두보(杜甫)를 가리킨다.

558) 중방 제결의 때 : 온갖 꽃이 시드는 처량한 시절이라는 말이다. 제결(題鳩)은 두견새로 이 새가 울면 꽃이 시든다고 한다. 《초사(楚辭)》 이소(離騷)에 “恐題鳩之先鳴兮 使百草爲之不芳”이라 하였고, 백거이(白居易)와 소식(蘇軾)의 시에도 각각 “殘芳悲題鳩”과 “只恐先春題鳩鳴”이라는 표현이 있다. 《白樂天詩集 卷16 東南行 一百韻》《蘇東坡詩集 卷8 和致仕張郎中春晝》

559) 삼천 독(三千牘) : 임금에게 올리는 장편의 상소문을 말한다. 한(漢) 나라 무제(武帝) 때 동방삭(東方朔)이 처음 장안에 들어와 삼천 독의 주문(奏文)을 바쳤던 고사가 있다. 《史記 滑稽列傳》

560) 백일시(百一詩) : 한(漢) 나라 응거(應璩)가 당시의 세태를 준열하게 비판한 풍자시의 편명(篇名)이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썰렁한 막다른 길 / 末路涼涼無籍在
 좋은 기회 놓쳐버린 위태로운 신세로세 / 危踪落落失便宜
 어느 때나 임금 은혜 모두 보답하고 / 何時報答君恩畢
 한가한 시간 얻어 숙원을 풀 수 있을런지 / 乞得閒身果夙期

화기로운 태평 시대 어찌 이리도 더디어서 / 玉燭元和何太遲
 우리 임금 공연히 노심초사(勞心焦思)하게 하나 / 空勞聖主劇焦思
 이 나라에 우국지사 없지도 않은 터에 / 非無憂國忘家士
 흉적 없애 복수하는 시를 아직 못 읊다니 / 未賦除兇雪恥詩
 오늘날 중책 맡은 자 상책 올려야 마땅하니 / 今日登壇須上策
 예로부터 방편으로 오랑캐 달래 왔었다오 / 古來和虜出權宜
 모두 떨어진다고 사천이 아뢰 따름이라⁵⁶¹⁾ / 司天但奏旄頭落
 실제로 오랑캐 조만간 망하리라 / 早晚亡胡會有期

한가한 때 맞는 흥취 어찌 더디게 할까 보냐 / 閑時趁興肯教遲
 남쪽 기슭 이름난 동산 그리워지지 않소 / 南麓名園佳可思
 맑은 대자리 성긴 발 벗긴 손님 묶어두고 / 清簟疎簾留勝客
 옥 같은 샘물 그윽한 골 새로운 시 솟아나리 / 玉泉丹壑入新詩
 시가(市街)와 붙었어도 속진(俗塵)의 내음 하나 없고 / 地連朝市無塵到
 수레 소리 끊긴 골목 게으른 자에게 적격이오 / 巷絕輪蹄興懶宜
 휴가 얻어 다시 한 번 찾아와 주지 않으려오 / 休沐不妨重命駕
 언제 올지 이 늙은이 묻고만 싶소이다 / 老夫還欲問前期

당성⁵⁶²⁾의 소식 어찌 이리도 늦은지 / 唐城消息寄來遲
 헤어진 뒤 구슬프게 정운시(停雲詩)⁵⁶³⁾ 읊었노라 / 悵悵停雲別後思
 자금⁵⁶⁴⁾은 장유⁵⁶⁵⁾의 생각 애가 타는데 / 紫禁常懸長孺戀
 청산에선 응당 사가⁵⁶⁶⁾의 시 있었으리 / 靑山應有謝家詩
 우리의 명성 위협하는 후생들 반갑소만 / 後生不厭聲名逼
 말계⁵⁶⁷⁾는 오직 취향이 같아야 어여쁘지 / 末契唯憐臭味宜
 곡구자진⁵⁶⁸⁾께서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 谷口子眞還憶否

다.

561) 모두 …… 따름이라 : 천문상으로 오랑캐의 별이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는 말이다. 모두(旄頭)는 묘수(昴宿)로 호성(胡星)이고, 사천(司天)은 관상감(觀象監)의 별칭이다.

562) **당성(唐城) : 남양(南陽)의 옛 이름이다.**

563) 정운시(停雲詩) : 친구를 생각하는 노래를 말한다. 진(晉) 나라 도잠(陶潛)의 ‘정운시서(停雲詩序)’에 “停雲思親友也”라 하였다.

564) 자금(紫禁) : 임금이 있는 곳으로 궁정(宮廷)을 가리킨다.

565) 장유(長孺) : 강직하게 간언을 하여 사직신(社稷臣)으로 일컬어졌던 한(漢) 나라 급암(汲黯)의 자(字)인데, 태자 세마(太子洗馬)를 역임했던 급암에 빗대어 왕세자의 사부였던 정홍명(鄭弘溟)을 가리키는 말이다.

566) 사가(謝家) : 남조(南朝) 송(宋)의 시인 사영운(謝靈運)을 가리킨다. 참고로 백거이(白居易)의 시에 “記得謝家詩 淸和卽此時”라는 표현이 있다. 《白樂天詩後集 卷20 首夏猶淸和聯句》

567) 말계(末契) : 장자(長者)와 후배와의 교의(交誼)를 말한다.

568) 곡구자진(谷口子眞) : 곡구(谷口)에서 은거하며 수도하던 한(漢) 나라 정자진(鄭子眞)으로, 기옹이

한 잔 술에 바둑 두며 언제나 흥금 헤쳐 볼까 / 棋樽何日寫心期

장유(張維), <계곡집(谿谷集) 제31권 칠언 율시(七言律詩), 復用前韻.奉酬畸翁.【六首】>

문화/예술

1615년(광해군 7) 12월에 윤선도가 남양 백부의 구택에 갔다가 지은 시.

파촌⁵⁶⁹)의 옛집에 이르렀나니 / 來到琶村舍

백부님 백모님이 예전에 사시던 곳 / 爺孃舊所居

부엌에는 술 거르던 곳 그대로 있고 / 廚存漉酒處

벽에는 하인들 일과표가 붙어 있네 / 壁有課奴書

고복⁵⁷⁰)해 주시던 모습 뵈 것 같은데 / 顧復如將見

첨의⁵⁷¹)하러 해도 끝내 허사로세 / 瞻依竟是虛

울면 부녀자와 같은 줄 알면서도 / 曾知泣近婦

나도 모르게 눈물이 옷을 적시누나 / 不覺淚盈裾

옛날 우리 선부자께서 / 昔我先夫子

집을 옮겨 바닷가로 가셨는데 / 移家到海濱

평소 이웃과 사이 좋게 지내시어 / 尋常成好事

여덟아홉의 선린(善隣)이 있었다오 / 八九有芳隣

상재⁵⁷²)는 죄다 예전과 똑같은데 / 桑梓渾依舊

송추⁵⁷³)는 모두가 새로 심은 것들 / 松楸總已新

어찌 차마 들으리오 우리 경로가 / 那堪聞慶老

또 야대⁵⁷⁴)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을 / 復作夜臺人

생각나누나 지난 그 옛날 / 記得昔年日

내가 언젠가 밖에서 돌아오자 / 兒嘗自外來

국에 간 맞추느라 자모는 바쁘셨고 / 調羹慈母急

정씨(鄭氏)이기 때문에 빗대어 말한 것이다.

569) 파촌(琶村) : 비파촌(琵琶村)이 아닌가 한다. 《고산유고》 제1권 <남쪽으로 돌아갈 때의 기행시(南歸記行)>에 “비파(琵琶)는 마을 이름(村名)이다.”라는 자주(自註)가 붙어 있다.

570) 고복(顧復) : 고아복아(顧我復我) 즉 ‘나를 돌아보고 나를 다시 살폈다’는 뜻으로, 자신을 보살펴 준 아버지의 은혜를 말한다. 《시경》 <육아(蓼莪)>에 “아버지는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는 나를 기르셨다. 나를 다독이시고 나를 기르시며, 나를 자라게 하고 나를 키우시며,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다시 살피시며, 출입할 땐 나를 배에 안으셨다. 이 은혜를 갚으려면 하늘이라 한량이 없도다.(父兮生我 母兮鞠我 拊我畜我 長我育我 顧我復我 出入腹我 欲報之德 昊天罔極)”라는 말이 나온다. 참고로 고산은 8세 때인 1594년(선조27)에 백부(伯父)인 관찰공(觀察公) 윤유기(尹惟幾)의 양자(養子)로 들어갔다.

571) 첨의(瞻依) : 아버지를 항상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모한다는 말인데, 《시경》 <소반(小弁)>의 “눈에 뜨이느니 아버님이요, 마음에 그리느니 어머님일세.(靡瞻匪父 靡依匪母)”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572) 상재(桑梓) : 뽕나무와 가래나무로, 고향의 구택(舊宅) 혹은 고향에 심은 나무를 뜻한다. 《시경》 <소반(小弁)>의 “아버지가 심어 놓으신 뽕나무와 가래나무도, 반드시 공경해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하물며 우러러볼 분으로는 아버지 말고 다른 사람이 없으며, 의지할 분으로는 어머니 말고 다른 사람이 없는 데야 더 말해 뭐하겠는가.(維桑與梓 必恭敬止 靡瞻匪父 靡依匪母)”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573) 송추(松楸) : 소나무와 가래나무라는 뜻으로, 묘소 혹은 선영(先塋)의 별칭으로 쓰인다. 그곳에 이 두 나무를 많이 심었던 데에서 기인한다.

574) 야대(夜臺) : 장야대(長夜臺)의 준말로, 분묘(墳墓)를 가리킨다. 한번 문이 닫히면 영원히 암흑 속에서 광명을 볼 수 없다는 뜻으로 붙여진 시어(詩語)이다.

밥 얼른 하라고 대인은 재촉하셨지 / 炊飯大人催

생각나누나 지난 그 옛날 / 記得昔年日
내가 언젠가 밖에서 돌아오자 / 兒嘗自外歸
대인은 얼마나 춥냐고 물어보셨고 / 大人問寒燠
자모는 새 옷을 내어 입혀 주셨지 / 慈母與新衣

생각나누나 지난 그 옛날 / 記得昔年日
내가 언젠가 밖에서 돌아와서는 / 兒嘗自外還
환희하며 가정⁵⁷⁵을 마치고 나서 / 怡怡家慶畢
북당⁵⁷⁶에서 어머니님 모시고 앉았었지 / 侍坐北堂間
윤선도(尹善道), <고산유고(孤山遺稿)>, 제1권 시(詩), 乙卯臘月.往南陽伯父舊宅有感.吟二律.又賦記得昔年日三章.>

문화/예술

최치원이 하정사로 당나라로 가는 길에 당성에 도착하여⁵⁷⁷ 지은 시

성했다 쇠하는 사람의 일이어 / 人事盛還衰
실로 서글픈 허망한 인생이라 / 浮生實可悲
누가 알았으리 천상의 곡조를 / 誰知天上曲
바닷가에 와서 연주할 줄이야 / 來向海邊吹
물가 궁전에서 꽃구경도 하였고 / 水殿看花處
바람 부는 난간에서 달도 보았지 / 風櫺對月時
반염⁵⁷⁸이라 이제는 모두 끝이 났으니 / 攀髯今已矣
그대와 함께 두 줄기 눈물 흘릴 수밖에 / 與爾淚雙垂
人事盛還衰.浮生實可悲.誰知天上曲.來向海邊吹.水殿看花處.風櫺對月時.攀髯今已矣.與爾淚雙垂.
최치원(崔致遠), <고운집(孤雲集)> 제1권 시(詩), 旅遊唐城贈先王樂官>

575) 가정(家慶) : 배가경(拜家慶)의 준말로, 오랜만에 집에 돌아와서 어버이를 뵈고 문안 인사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

576) 북당(北堂) : 모친의 거처를 뜻한다. 흰당(萱堂)이라고도 한다. 《시경》〈백혜(伯兮)〉의 “어떡하면 흰초를 얻어서 북당에 심어 볼까. 떠난 사람 생각에 내 마음만 병드누나.(焉得諼草 言樹之背 願言思伯 使我心瘳)”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이 시는 출정한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심정을 노래한 것이다. 흰초(諼草)는 원추리라는 망우초(忘憂草)로, 흰초(萱草)라고도 한다.

577) 당성(唐城)에 …… 주다 : 이 시의 제목이 《동문선》 권9에는 <당성에 나그네로 놀러 갔더니, 선왕 때의 악관이 있었다. 장차 서쪽으로 돌아가려고 할 적에 밤에 두어 곡을 불면서 선왕의 은혜를 그리워하며 슬피 울기에, 시를 지어 주다.(旅遊唐城 有先王樂官 將西歸 夜吹數曲 戀恩悲泣 以詩贈之)>로 되어 있다. 당성은 지금의 남양만(南陽灣) 일대로, 옛날에 이곳에 당은포(唐恩浦)가 있었는데, 통일신라 시대 때 당나라로 가는 사절들이 대부분 이곳을 경유하여 출입하였다. 고운이 893년(진성여왕7)에 하정사(賀正使)로 임명되어 중국에 들어간 일이 있는데, 이때 당성에 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즉 여기에서 말하는 선왕은, 진성왕의 전왕인 정강왕(定康王)은 왕위에 있는 지 1년도 채 못 되었으니 아마도 헌강왕(憲康王)을 가리키는 듯하다. 악관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578) 반염(攀髯) : 수염을 붙잡는다는 뜻으로, 임금의 죽음을 뜻하는 말이다. 황제(黃帝)가 형산(荊山) 아래에서 술을 주조하고 나서 용을 타고 승천할 적에 신하와 후궁 70여 인을 함께 데리고 갔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소신(小臣)들이 용의 수염을 붙잡고 있다가 용의 수염이 빠지는 바람에 모두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전설에서 유래한 것이다. 《史記 卷28 封禪書, 卷12 孝武本紀》

문화/예술

정두경이 남양에 사는 벗 이생의 집에 제하는 시

촛불 잡고 술 마시며 함께 온밤 보냈거니 / 秉燭含杯共一宵
말을 타고 금교 건넌 예전의 일 생각나네 / 憶曾騎馬度金橋
다시 오니 만사 모두 묵은 자취 되었는데 / 重來萬事皆陳迹
창해에는 매년마다 변치 않고 조수 드네 / 滄海年年不變潮

정두경(鄭斗卿), <동명집(東溟集)>, 제3권 칠언절구(七言絕句), 題南陽友人李生家>

문화/예술

남양 사람 홍유손을 따라 김종직에게 수학한 양준과 양개이 떠나자 김종직이 지어준 시.

준과 그 아우 개(溉)가 유손을 좇아 서울로부터 천 리를 걸어 내게 와 수학(受學)하더니, 돌
아감에 미쳐 보니 몹시 서운하여 차마 작별하지 못하는 듯 한지라, 말이 없을 수 없어 시
다섯 수를 써서 이별할 제 주었다. 유손은 남양(南陽) 사람이다.

서울은 맑고 웅장한 곳 / 神都蔚淸壯

자옥한 문물의 숲 / 藹藹文物藪

조정엔 기·룡(579)의 무리들 있고 / 朝著夔龍群

현철로는 유·하(580)같은 벗들 많거니 / 賢關游夏友

그대가 도를 묻고자 하면 / 子兮欲問道

적당한 인물이 수두룩할 터인데 / 其人無不有

어쩌다 염장을 무릅쓰고 / 胡爲觸炎瘴

발이 부르트도록 이 남쪽 끝까지 왔었는고 / 累繭窮南斗

아, 나는 죄가 하늘에 닿아 / 繫我罪通天

쭉대 머리로 선산을 지키는 몸(581) / 松楸但蓬首

발자국 소리도 자못 위로가 되거니(582) / 登音頗自慰

하물며 그대 같은 포부많은 선비라 / 何況多抱負

그러나 경서를 말함은 내일이 아니요 / 談經非吾事

더구나 나는 조행이나 지조도 부족하네 / 而且欠持守

내 그대의 후의를 저버리기 어려우니 / 厚意不可孤

내 어찌 끝내 입을 다물랴 / 鳥得三緘口(…)

김종직(金宗直), <동문선(東文選)>, 속동문선 제3권 오언고시(五言古詩), 贈楊秀才【浚】洪貢生【裕孫】>

문화/예술

남효온이 남양의 화랑진에서 느낀 감회를 읊은 시.

인간 시비 귀 익혀 듣고 나니 / 飽向人間聽是非

얼굴엔 누른 티끌 장한 뜻은 못 이뤘소 / 黃塵撲面壯畧違

579) 기(夔)·룡(龍) : 기와 용은 두 사람인데, 모두 순(舜)의 어진 신하다.

580) 유(遊)·하(夏) : 자유(子游)·자하(子夏)는 공자의 제자로서 문학으로 유명하였다.

581) 쭉대 머리로 …… 지키는 몸 : 아마 상주(喪主)인 듯.

582) 발자국 …… 되거니 : 《장자》에, “그윽한 곳에 혼자 있는 사람은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반긴다.” 하였다.

양웅이 말 없으니 뉘가 조소 풀어 줄고⁵⁸³⁾ / 楊雄不語嘲誰解

여윈 뼈는 성롱하나 혀는 아직 살찌었네 / 瘦骨成稜舌本肥

남효온(南孝溫)<동문선(東文選), 속동문선 제10권 칠언절구(七言絕句), 南陽花梁營中感興>

문화/예술

세종대왕 때 남양에서 채석이 나와 경을 만들었다는 내용.

(…) 공손히 생각하옵건대 세종대왕께서는 하늘이 내신 성인으로 음률에 정통하였다. 과거의 조속한 습관을 씻으려 하였더니, 거서(巨黍)⁵⁸⁴⁾가 해주에서 산출되고 채석(彩石)이 남양(南陽)에서 나왔으니, 이것은 하늘이 화평한 기운을 우리 나라에 퍼서 큰 일을 하실 임금에게 내려주시어 새로운 제작을 이루게 한 것이다. 그리하여 서(黍)를 가지고 음률의 계정(階程)을 측정하고 돌로 경을 만들고, 또 악강(樂腔)을 만들고 악에 인하여 악보(樂譜)를 만들어서 음정의 장단을 살피었다. (…)

성현(成俔), <동문선(東文選), 속동문선 제16권 서(序), 樂學軌範序>

문화/예술

이산해가 지은 최상사(崔上舍)에 대한 만사로 남양 가는 길에 들릴 일이 없음을 아쉬워하는 내용.

어저께 그대의 부음을 들으니 / 憶昨聞君訃

내 집에 들른 지 열흘도 안 되었기에 / 過門未浹旬

처음에는 그럴 리 없다 못 믿었는데 / 初來疑不信

결국엔 참말인 줄 알게 되었소 / 最後認爲眞

매양 이곳에 이사와 살겠다더니 / 每說將移屋

마침내 운명하고 말 줄 뉘 알았으랴 / 誰言竟殞身

하늘이여 어이 이런 일이 있는고 / 天乎那有此

운명인가 따져 물을 곳 없어라 / 命矣訊無因

한 번 만나자 오랜 친구 같았나니 / 邂逅曾相識

옛날 몇 번이나 함께 어울려 노닐었던고 / 遊從昔幾巡

용중의 내 집으로 찾아와 주었고 / 隆中尋小築

금리에선 이웃으로 함께 지냈지 / 錦里托僑鄰

지난 일들 도무지 꿈만 같아 / 往事渾如夢

옛 추억에 속절없이 수건을 적신다오 / 追思漫濕巾

지당에는 쌓인 눈이 남아 있건만 / 池塘餘積雪

동산의 나무는 절로 봄을 안다오 / 園木自知春

이제 다신 남양 길에서 / 無復南陽路

말채찍 멈추고 주인 찾을 일 없으리 / 停鞭問主人

憶昨聞君訃. 過門未浹旬. 初來疑不信. 最後認爲眞. 每說將移屋. 誰言竟殞身. 天乎那有此. 命矣訊無因. 邂逅曾相識. 遊從昔幾巡. 隆中尋小築. 錦里托僑鄰. 往事渾如夢. 追思漫濕巾. 池塘餘積雪. 園木自知春. 無復南陽路. 停鞭問主人.

583) 양웅(楊雄)이 …… 줄고 : 한 나라 시대 사람인 양웅이 <해조부(解嘲賦)>라는 글을 지은 일이 있다.

584) 거서(巨黍) : 수수의 일종으로 옛적에 척도(尺度)를 제정하는 단위로 사용하여 수수알의 직경 1백을 1척으로 하여 악기를 제정하는데 준용하여 황종척(黃鍾尺)이라 하였다.

이산해(李山海), <아계유고(鵝溪遺稿), 제4권 노량록(露梁錄), 崔上舍挽>

문화/예술

이정구가 남양(南陽) 파촌(琶村)에 있는 권 감역(權監役)의 정자 벽에 걸린 시에 차운한 시.

내 천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선이니 / 全吾天放是爲仙
굳이 금단의 비결을 전수받을 필요는 없어라 / 不必金丹妙訣傳
술은 그저 기분 좋으면 그만 늘 아니 취하고 / 酒但取歡常不醉
거문고는 흥만 느끼면 되니 차라리 현이 없고저 / 琴惟寄興欲無絃
낙숫대 들고 강가 길 걸으니 가을 구름 젖었고 / 携竿江路秋雲濕
두건 젖히고 처마 아래서 보니 맑은 달이 걸렸어라 / 岸幘軒簷霽月懸
비로소 알겠구나 호중에도 별천지⁵⁸⁵⁾가 있단 것을 / 方信壺中有別界
문노니 인간 세상의 세월은 지금 어느 해인고 / 世間花甲問何年

【주인이 술을 마실 줄 모르면서도 술상 차리기를 좋아하고 성품이 또 탄솔(坦率)하여 물아(物我)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늘 거문고를 어루만지고 낙숫대를 잡고서 두건을 젖혀 쓰고 소요하였다. 그러므로 시의(詩意)에서 운운한 것이다.】

全吾天放是爲仙.不必金丹妙訣傳.酒但取歡常不醉.琴惟寄興欲無絃.携竿江路秋雲濕.岸幘軒簷霽月懸.方信壺中有別界.世間花甲問何年.【主翁不解飲而喜設酒.性又坦然無物我.常撫琴携竿.岸巾逍遙.故詩意云云.】

이정구(李廷龜), <월사집(月沙集), 제17권 권응록 중(倦應錄中), 南陽琶村權監役小亭次壁上韻>

문화/예술

이정구가 남양(南陽)의 동헌(東軒)에 적힌 시에 차운한 시.

덧없는 세상 인생이란 허공을 지나는 새 / 浮世人生鳥過空
천고에 얼마나 많은 영웅들이 사라져 갔으랴 / 鎖沈千古幾英雄
당시에 풍운의 제회를 하늘이 주지 않았다면 / 當時不借風雲際
남양에 와룡이 있는 줄 뉘라서 알 수 있었으랴⁵⁸⁶⁾ / 誰識南陽有臥龍

이정구(李廷龜), <월사집(月沙集), 제17권 권응록 중(倦應錄中), 次南陽東軒韻>

문화/예술

9월 9일에 남양에 사는 내종제(內從弟)⁵⁸⁷⁾에게 지어준 시

백 리 밖 남양의 아우를 / 百里南陽弟

반가이 백문(白門)⁵⁸⁸⁾ 안에서 만나다 / 欣逢白門中

585) 호중(壺中)에도 별천지 : 비장방(費長房)이란 사람이 호공(壺公)이란 신선이 가지고 있는 호로 속으로 들어가 해와 달이 있고 선궁(仙宮)이 있는 별천지를 보았다 한다. 《神仙傳 壺公》일반적으로 작은 구역에 뜻밖의 아름다운 경치가 있을 때 쓰는 표현이다.

586) 당시에 …… 있었으랴 : 풍운(風雲)의 제회(際會)는 훌륭한 임금과 신하가 서로 만나는 것인데, 여기서는 삼국 시대 촉한(蜀漢)의 유비(劉備)와 제갈량(諸葛亮)의 만남을 가리킨다. 제갈량이 출사(出仕)하기 전, 남양(南陽)의 용중(隆中)이란 곳에서 은거할 때 와룡(臥龍)이라 불리었다.

587) 내종제(內從弟) : 박상홍(朴相洪)을 가리킨다. 호는 치천(穉川).

588) 백문(白門) : 성문(城門)을 말한다.

가을 마루에 즐겁게 정담을 나누니 / 秋堂悅情話
 우짖는 벌레가 여뀌풀 떨기에 모여드네 / 鳴虫集蓼叢
 마을에서 국화떡을 보내 주어 / 村盤送花餠
 아우와 형이 같이 먹기도 / 弟兄食之同
 그대와 함께 명절을 즐기니 / 與汝作佳辰
 이 중구(重九)는 예부터 숭상했다고 / 九日古來崇
 똑같이 외조부의 핏줄에서 태어났거늘 / 均是外祖出
 어찌 돈후한 기풍을 힘쓰지 않으랴 / 盍勉敦厚風
 우리 정이는 벽에 글씨를 쓰고 / 阿鼎墨澆壁
 갑이는 곧장 시를 잘 읊기도 하네 / 阿甲詩滿筒
 비록 동성은 아니라 할지라도 / 雖憐非同姓
 애애한 그 이치 공평하거니 / 藹藹理則公
 금년만 즐길 것이 아니라 / 不但樂今年
 길이길이 시종을 한결같이 하세 / 永年一始終
 이덕무(李德懋),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제2권 嬰處詩稿二, 重九日答贈內弟>

문화/예술

세종대에 해주의 거서와 남양의 석경으로 악률을 정하였다는 내용.

세종조(世宗朝)에서는 남양(南陽)에서 나는 석경(石磬)과 해주(海州)에서 생산되는 거서(柷黍)⁵⁸⁹⁾로 악률(樂律)을 정하였는데, 세상에서는 성세(盛世)의 상서로운 화응이라고 일컬었다. 그러나 고려경(高麗磬)은 이미 송 나라 조정에서도 유명했었다. 그러면 고려 때에 남양에서 이미 경쇠의 재목이 생산되었었는데, 중간에 폐절(廢絶)되었다가 세종조 때에 이르러서 다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또한 고려 때에는 다른 곳에 경쇠를 생산하던 땅이 또 있었던 것인가? 이제 고려경에 대한 한 토막을 기록한다. 《휘주록(揮塵錄)》 【송(宋) 나라 왕명청(王明清)이 지었다.】 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원우(元祐 송 철종(宋哲宗)의 연호) 초엽에 양강공(楊康功)이 고려(高麗)에 사신 갈 때에 금문(禁門)에 있는 제공(諸公)들을 작별하면서 그들에게 부탁할 것이 있느냐고 물으니 다 말하지 않았는데, 유독 채원도(蔡元度)가 ‘고려의 경쇠는 매우 아름다우니 돌아올 때 번거롭더라도 나를 위하여 경쇠 1구(口)만 가져다 주시오.’ 하였다. 오래지 않아 강공(康功)이 돌아올 적에 마침내 경쇠와 기교(奇巧)한 물건을 채원도 집에 가져다 주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그 이유를 물으니 강공이 웃으면서 ‘내가 바다를 건너갈 때에 제공들은 다 내가 큰 바다에 빠져 죽게 될 것이라 생각하였으므로 나에게 부탁도 않았지만 원도의 마음은 오히려 내가 살아서 돌아오기를 바랬다. 그러므로 나는 애오라지 그 뜻에 보답한 것이다.’ 했다.”

世宗朝.南陽出石磬.海州產柷黍.以定樂律.世稱盛世之瑞應.然高麗磬.已有名於宋朝.高麗時.南陽已產磬材.而中間廢絶.至世宗朝.復出歟.抑亦麗時.有別處產磬之地歟.今錄高麗磬一段.揮塵錄宋王明清撰 曰.元祐初.楊康功使高麗.別禁從諸公.問以所委.皆不答.獨蔡元度曰.高麗磬甚佳.歸日.煩爲置一口.不久.康功言還.遂以磬及奇巧之物.遺元度宅.人不及也.或問之.康功笑曰.僕之渡

589) 거서(柷黍) : 검은 기장[黑黍]을 말한다. 《이아(爾雅)》 석초(釋草)에 “거(柷)는 흑서(黑黍)다.” 했고, 소(疏)에 “흑서(黑黍)는 일명 거서(柷黍)인데, 거(柷)는 바로 흑서중에 큰 것을 말한다.” 하였다.

海也。諸公悉以謂沒巨⁵⁹⁰)浸。不復見屬。獨元度之心。猶冀我之生還。吾聊以報其意耳。
이덕무(李德懋),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제57권 양엽기 4(盎葉記四), 高麗磬>

문화/예술

남효온이 남양(南陽)의 경저루(京邸樓)에서 풍광을 노래한 시.

사월달 맑고도 화창한 날 / 四月淸和日

창문 열자 팔방 기운 시원하네 / 開窗八面涼

잎이 무성하여 여름 장막 이루고 / 葉繁成夏幄

꽃은 늙어도 봄단장이 남아 있네 / 花老駐春粧

해 질 무렵 금빛 햇살 쏟아지고 / 日落金竿射

냇물은 밝고 버들가지는 길도다 / 川明柳線長

나그네 올라와 때때로 기대다가 / 客來時一倚

노복 불러 시 주머니 풀게 하네 / 呼僕解奚囊

남효온(南孝溫), <추강집(秋江集)>, 제2권 시(詩)○오언율시(五言律詩), 題南陽京邸樓>

문화/예술

남효온이 남양(南陽) 화량진(花梁鎭) 영중(營中)에서 흥취를 느껴 지은 시 5수.

공자 같은 성인도 비시가⁵⁹¹)를 읊조렸거늘 / 尼聖亦吟匪兇歌

양홍⁵⁹²)인들 어떻게 집에 편히 지내겠는가 / 梁鴻安得穩居家

푸른 소 타고 하늘 동쪽까지 돌아다니니 / 靑牛迹遍天東角

사십 년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 지났도다 / 四十光陰瞥眼過

둘

인간 세상 시비 소리 배부르게 들었으니 / 飽向人間聽是非

누른 먼지 얼굴 때려 큰 포부 어긋났네 / 黃塵撲面壯圖違

양웅이 말하지 않으면 조소를 누가 풀까 / 揚雄不語嘲誰解

수척한 몸 뼈만 남아도 혀뿌리는 살찌네⁵⁹³) / 瘦骨成稜舌本肥

셋

바다 북쪽 물굽이에 작약 꽃 피었으니 / 芍藥花開海北灣

나그네 처음 이르러 말안장을 풀어놓네 / 旅人初到卸征鞍

돌개바람 춤추는 비가 남쪽 포구 지나니 / 回風舞雨過南浦

오월달 찬 기운에 짧은 벚옷 서늘하네 / 短布淒其五月寒

590) 巨 : 巨字上有於字

591) 비시가(匪兇歌) : 《시경》〈하초불황(何草不黃)〉에 나오는 구절을 말한다. 공자가 진채(陳蔡)의 사이에 서 곤역(困厄)을 당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을 달래려고 이 구절을 인용하여 질문한 적이 있다. 공자가 말하기를, “시에 ‘외뿔소가 아니며 범이 아니거늘, 저 광야를 따르게 한단 말인가.(匪兇匪虎 率彼曠野)’ 하였으니, 나의 도가 그릇된 것이라면 내 어찌 이런 일을 겪겠는가.” 하였다. 《史記 卷47 孔子世家》

592) 양홍(梁鴻) : 후한(後漢) 부풍(扶風) 평릉인(平陵人)이다. 집이 가난했으나 절개를 숭상하였다. 아내 맹광(孟光)과 함께 패릉산(霸陵山)에 은거하여 벼를 짜서 생계를 삼으며 시서(詩書)를 읊조리고 거문고를 타며 스스로 즐거워하였다. 《後漢書 卷83 梁鴻列傳》 여기서는 양홍을 남효온 자신에 견주고 있다.

593) 양웅(揚雄)이……살찌네 : ‘양웅이 〈해조부(解嘲賦)〉를 지어 스스로 해명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누가 그에 대한 비웃음을 풀었겠는가. 그러나 나는 세상의 비난을 받아 수척한 몸이 되었지만 해명의 말을 조금도 하지 않아 혀뿌리가 도리어 살찐다.’는 것이다.

넷

참선으로도 일찍이 내 어리석음 못 풀더니 / 禪觀曾不解吾癡
번뇌가 이 몸 괴롭게 검은머리 드물어졌네 / 結習勞人黑髮稀
밝은 달 창에 어려 수심으로 잠 못 이루니 / 明月半窗愁不寐
새벽 조수 낮아지고 물가 새들 날아다니네 / 曉潮初落渚禽飛
다섯

인간 세상 흥망성쇠 정해진 기약 있듯 / 人世枯榮有定期
창 앞의 밀물 썰물 쉬는 때가 없구나 / 窗前潮汐駐無時
단을 다스림에 어찌면 현진결을 얻어 / 治丹安得玄眞訣
바퀴 통 돌릴 당시에 고삐를 잡을까⁵⁹⁴) / 運轂當年御執轡【疑是誤字】

【잘못된 글자가 있는 듯하다.*】

남효온(南孝溫), <추강집(秋江集)>, 제3권 시(詩)○칠언절구(七言絕句), 南陽花梁營中感興
【五首】>

문화/예술

조익이 남양(南陽)의 술자리에서 지은 시

만추의 계절이라 보이는 경물도 처량한데 / 雲物淒然屬暮秋
한 동이 술로 푸른 강가에서 서로 만났소 / 一樽相遇碧江頭
술잔이 돌아올 때마다 모조리 비워야 하고말고 / 杯行到處皆須盡
내일 술이 깨고 나면 다시금 시름에 잠길 테니 / 明日醒來更有愁
조익(趙翼), <포저집(浦渚集)> 제1권 시(詩), 南陽酒席口號>

문화/예술

세종대에 해주의 기장과 남양의 경석으로 음악을 정비한 역사를 정리한 내용.

(…) 우리 세종대왕은 하늘이 주신 덕을 갖춘 슬기로운 분으로 언행이 모두 법도에 맞는 분이다. 기장[黍]을 해주(海州)에서 취하고 경석(磬石)을 남양(南陽)에서 채취하여 조회와 제향 및 연향악을 제정함으로써, 신라와 고려의 조급하고 음란한 음악을 일제히 제거하고 아정한 음악을 추구하였다. 당시에 보좌한 신하 중에 박연(朴堧)과 맹사성(孟思誠) 같은 이는 모두 음(音)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박연이 척도를 정하고 율(律)을 고찰할 때 한결같이 명 나라 제도를 좇았는데, 명 나라 음악은 송의 대성악(大晟樂)을 이어 쓴 것이어서, 황종관의 경위(徑圍)와 먹적(礪積)의 수(數)가 실은 근원을 탐구한 것이 아니다. 오직 홍무(洪武)연간의 냉겸(冷謙)과 만력(萬歷)연간의 주재옥(朱載堉)만이 율수(律數 악리(樂理))를 깨달았다고 이를 만하나 또한 공허한 말에 의탁했고, 임금의 명령으로 역사에 기록됐을 따름이다. (…)

(…) 我世廟天縱睿智.聲律身度.取黍於海州.採磬於南陽.以成朝祭讌會之樂.一洗羅麗之嚆哇.駸駸乎大雅.而當時承佐之臣若朴堧孟思誠.皆知音者也.然堧之定尺考律.一遵明制.而明之樂.仍用

594) 단을……잡을까 : 어떻게 하면 신선술의 비법을 얻어 천지 음양의 도를 터득할 수 있을까라는 뜻인 듯하나, 미상이다. 참고로,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에 이르기를, “건곤(乾坤)은 역(易)의 문호(門戶)로, 모든 괘(卦)의 부모이며, 감리(坎離)는 윤곽(輪廓)으로, 바퀴통을 돌리고 굴대를 바르게 한다.〔乾坤者 易之門戶 衆卦之父母 坎離匡郭 運轂正軸〕” 하였다. 또 이르기를, “음양의 도를 잘 통괄하여 단(丹)을 완성하는 것은 마치 말을 잘 모는 사람이 재갈과 고삐를 잡고 법도를 지켜 수레바퀴 자국을 따르는 것과 같다.〔覆冒陰陽之道 猶工御者 執銜轡 準繩墨 隨軌轍〕” 하였다.

宋之大晟樂.蓋於黃鍾徑圍羃積之數.實未嘗探本而溯源也.惟洪武間冷謙.萬曆間朱載堉.可謂獨見妙悟於律數.而亦託之空言.宣付史官而已.(…)

<홍재전서(弘齋全書), 제61권 잡저(雜著) 8, 樂通>

문화/예술

정조가 남양(南陽)으로 가는 길에 용백사 등 충절있는 자들을 언급한 시.

땅이 옛 사당 때문에 중하거니와 / 地以遺祠重
산맥이 돌아들어 와룡이 나왔도다 / 山廻有臥龍
큰 명성을 천하에 드리웠어라 / 大名垂宇內
어느 곳에서 융중을 찾을 건고⁵⁹⁵⁾ / 何處訪隆中
관중이 아니면 다 오랑캐 되었으리⁵⁹⁶⁾ / 微管人其左
주 나라 따르니 도가 동으로 왔네 / 從周道遂東
길이 태평할 길 일찍이 느꼈노니 / 永清曾寄感
영웅호걸 세 충신이 엄연하여라 / 英爽儼三忠
<홍재전서(弘齋全書), 제7권 시(詩) 3, 南陽路中>

문화/예술

정조가 잠시 남양의 구포(鷗浦)에 머물며 주변 풍경과 감회를 읊은 시.

구포 가엔 행전이 널찍하고 / 鷗渚敞行殿
해문에 가을빛이 들어오네 / 海門來秋色
어룡이 우니 파도가 출렁이고 / 波動魚龍唵
노적을 쌓으니 들이 텅 비었네 / 野曠禾稼積
전쟁 기운은 초목에 희미하고 / 兵氣迷草樹
연기는 밭둑 길에 뻗어있도다 / 人烟亘阡陌
마을마다 모두 웃고 즐기어라 / 邨邨多嬉笑
노인과 어린아이가 뒤섞이었네 / 僂僂雜髫白
어진 정사 못 펴면 부끄러우나 / 雖媿仁政及
백성들 자급자족함이 기쁘구려 / 喜茲安耕鑿
제왕이 조무산에 행행하니⁵⁹⁷⁾ / 齊王幸朝儻
깃발이 강굽이를 좇아갔고 / 羽旄遵江曲
한제가 밤 꿈을 꾸고 나니 / 漢帝感宵夢
이슬방울이 능백에 내리었네 / 珠露下陵柏
화산이 여기서 얼마나 될꼬 / 花山知幾許

595) 땅이 …… 찾을 건고 : 옛 사당이란 바로 남양부(南陽府)에 있는 용백사(龍柏祠)를 가리키는데, 여기에서는 촉한(蜀漢)의 승상(丞相) 충무후(忠武侯) 제갈량(諸葛亮), 송(宋) 나라의 명현(名賢) 호안국(胡安國), 병자호란(丙子胡亂)에 남한산성(南漢山城)에서 순국한 충간공(忠簡公) 윤계(尹欽)를 향사하고 있다. 와룡(臥龍)은 제갈량의 별호이고, 융중(隆中)은 제갈량이 일찍이 은거했던 산명(山名)이다.

596) 관중(管仲)이 …… 되었으리 : 공자(孔子)가 이르기를 “관중이 환공(桓公)을 도와서 제후(諸侯)의 으뜸이 되어 천하를 바로잡음으로써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 은택을 입고 있으니, 관중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오랑캐가 되었을 것이다.” 한 데서 온 말이다. 《論語 憲問》

597) 제왕(齊王)이 조무산에 행행(行幸)하니 : 춘추 시대 제 경공(齊景公)이 안자(晏子)에게 묻기를, “내가 전부산(轉附山), 조무산(朝舞山)을 구경하고 바다를 따라 남쪽으로 가서 낭야(琅邪)에 이르러 한 다.”고 했던 데서 온 말이다.

바라보니 아주 가까운 곳일세 / 望望不盈尺
군사와 말들 또한 피로하리니 / 土馬亦勞止
화성에 다다라 목고 싶구나 / 欲抵華城夕
<홍재전서(弘齋全書) 卷七, 少駐南陽鷗浦>

연구진

연구책임	● 최성환 /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위원
연구원	● 이동인 /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원
연구보조원	● 양지선 / 단국대학교 강사
연구보조원	● 나영훈 /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수료
연구보조원	● 최문수 /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
연구보조원	● 최덕환 /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
연구보조원	● 이진걸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 개인의 견해로서
수원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근대 수원 자료집

발행인	손혁재
발행일	2015년 3월 6일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443-8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45번길111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비매품 ISBN 979-11-85686-32-5

본 출판물의 판권은 수원시정연구원에 속합니다.